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txt

제목: 차병원 일가 무허가 세포치료제 투여  
날짜: 20161229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191243001  
본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만들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당차병원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차바이오텍 최모(60)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세포를 분리·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란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 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세포치료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차병원그룹은 박근혜정부에서 각종 수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차 회장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을 위해 불법 시술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txt

제목: 대전시 전체인구의 2.4%가 독거노인…독거 노인 통계 첫 개발  
날짜: 20161229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132121001  
본문: 빠른 고령화에도 자녀들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으로 대전지역 독거노인이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고 ,이중 28%는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만65세 이상 1인 세대를 대상으로 독자개발한 ‘독거노인 등록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재산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1종의 행정⋅사법자료를 연계해 인구·복지·경제능력·건강상태 등 4개 부문을 분석한 것으로, 독거노인 관련 통계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에 따르면 시 전체 독거노인 인구는 3만7023명이고, 이 가운데 가족이 없는 경우는 7.3%인 2600명이었다. 나머지 92.7%는 가족 12만6159명의 50.6%인 6만3891명이 같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670명(1.8%),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586명(1.6%)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등록 인구는 5733명(15.5%)이었고, 그 가운데 2123명(37%)은 장애수당, 663명(11.6%)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였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2600명 가운데 2048명(78.8%)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노인복지시설입소 등의 혜택을 받고있었지만 386명(14.8%)은 이마저도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동산 소유자는 주택 1만4751명(39.8%), 건축물 2152명(5.8%), 토지 1673명(4.5%)으로 조사됐다. 가족없는 독거노인 중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는 412명(15.8%)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5대 노인질병(2만1166명.74.7%) 진료를 받고있었으며 월평균 1인당 진료비는 34만1000원이었다. 또 7971명(28.1%)은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등 주요 4대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독거노인 통계가 점차 증가하는 독거노인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2년 주기로 공표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txt

제목: 전북대 염증질환 조기 발견·치료 원천기술 확보  
날짜: 20161229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132016001  
본문: 전북대는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한 급성 감염과 다양한 염증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연구 과제를 받아 고려대 전태훈 교수(생명과학대학)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가포식이 염증반응 완화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밝혀냈다. 자가포식은 세포 내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관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변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염증반응 등 다양한 병리학적 현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대식세포 표면에서 발현하는 Axl 수용체가 리간드(ligand)인 Gas6와의 결합을 통해 자가포식을 유발하며, 유도된 자가포식은 NLRP3 다단백 염증복합체의 활성을 저해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인 IL-1β와 IL-18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물 모델을 이용해 Axl 수용체가 없을 때 더욱 심각한 급성 간 손상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오토파지’ 12월호에 게재됐다. 이학교 단장은 “<span class='quot0'>염증반응은 특정 조직의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하므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가포식과 염증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급성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염증질환 완화와 치료 연구의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 21’에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경제가축 유전체 해독과 경제형질육성 분석기술을 확보해 신동물생명산업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스트레스'일까?  
날짜: 2016122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9045940001  
본문: 작년에 사망한 한국인 10명 중 3명 가량은 암으로 인해 이승과 작별을 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사망률은 10년사이 12.7%나 높아졌는데요.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은 40대 이상 인구가 늘었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대장암·췌장암의 발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30대에서는 위암이었고, 40~50대에서는 간암, 60대에서는 폐암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든 반면, 대장암·췌장암·폐암의 사망률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총 사망자수는 27만명을 넘어서면서 3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극심한 한파로 인해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난 게 그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암(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30대 젊은 층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다. 29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총 27만5895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최대치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41.5명으로, 2006년(495.6명) 이후 수년째 증가세다. 2005년 전체의 29.6%에 그쳤던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작년 40.8%로 뛰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만6855명이 각종 암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150.8명으로 2위인 심장질환(55.6명)의 3배 수준이었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1명)이 가장 높았고 간암(22.2명), 위암(16.7명)이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05년 위암 사망률은 22.5명으로 폐암에 이어 2위였지만 점차 줄어 작년 16.7명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대장암은 12.4명에서 16.4명으로 늘었다. 췌장암도 6.9명에서 10.7명으로 급증했다. 대장암과 췌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앞으로도 이로 인한 사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구화된 식습관 영향, 대장암·췌장암 사망자 늘어날 듯 연령별로 암 사망률을 보면 30대는 위암이 1위였고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은 48.0명이었다. 폐렴은 작년 5위에서 한계단 올라섰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사망률 8.5명으로 10위에 불과했던 폐렴은 매년 사망률이 높아져 2008년 9위(11.1명)로 올라섰다가 2010년에는 6위(14.9명), 지난해는 4위(28.9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렴으로 숨진 사람은 총 1만4718명이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전체적으로 늘면서 사망자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고령화로 폐렴과 심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의 사망순위가 가장 높았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87.3명으로, 114.4명인 여자의 1.64배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순위가 높은 사망원인은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추락 등이었다. 이에 반해 여자는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질환 △패혈증 등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높았다. 여자는 알츠하이머병(8→7위), 패혈증(12→10위)에서 사망원인 순위가 올랐다. 남자는 작년과 비교해 순위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및 40세 이상에서 사인 1위가 모두 암이었다. 10~30대는 모두 자살 사망자 비중이 가장 컸다. 10∼20대는 모두 사망원인 2위가 운수사고였고, 암은 3위에 그쳤다. ◆10~20대 청년층 사망 원인 2위 '운수사고', 1위는? 전체 사인 가운데 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 증가폭이 22.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6.1%), 만성하기도질환(4.7%) 등이었다. △결핵(-5.8%) △위암(-4.7%) △운수사고(-3.2%)는 줄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폐렴(240.4%) △심장 질환(41.6%) △폐암(21.1%)의 사망률이 큰 폭으로 뛰었다. △운수사고(-33.3%) △호흡기결핵(-28.6%) △위암(-25.5%) △뇌혈관질환(-25.1%)은 줄었다. 생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 당 2.7명으로 전년보다 0.3명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임신 및 분만과 관련환 질환으로 사망하는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는 8.7명으로, 전년대비 2.3명 줄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사망률(표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전체 347.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383.9명), 충북과 경남(381.8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306.6명) △경기(328.7명) △제주(331.4명) 순으로 낮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txt

제목: 귀에 양파를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날짜: 20161228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8132210001  
본문: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에 좋아 '수퍼푸드'로 각광받는 양파.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우리 몸의 면역계를 강하게 만들어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 동맥경화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양파는 여러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벌에 쏘인 상처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치유하는 민간요법에도 이용된다. 아울러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열이 나는 경우에도 양파의 쓰임새가 있다. 미국 온라인매체 위티피드가 소개한 내용이다. 1. 귀가 아플 때 귀 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느껴질 때 작게 썬 양파를 이용해 보자. 양파에는 살균 성분과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중이염 등 귓속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독일에서는 양파를 다진 후 거즈에 싸 귓속에 넣는다. 2. 감기 걸렸을 때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암을 예방하고 위궤양, 동맥경화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케르세틴은 양파를 물에서 30분가량 끓이면 거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양파 수프는 케르세틴을 보충하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다. 또 양파에 함유된 각종 생리활성물질은 비타민C 흡수를 도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여 고통스러울 때 상처 부위를 곧바로 찬물로 씻어내고 양파를 대보자. 즙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남아 있는 침을 제거하고 붓기가 빨리 가라앉게 한다. 4.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에 이물질이 껴 답답할 땐 양파조각을 감은 눈 위에 올려놓는다. 눈물이 나오면서 이물질이 함께 배출된다. 5. 건강식 양파청 면역력을 높이는 양파청을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항아리에 양파조각을 넣고 그 위에 같은 양의 설탕을 붓는다. 상온에 일주일가량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하루 1티스푼의 양파청을 차로 마시거나 음료처럼 생수에 타 먹으면 된다. 양파와 단맛이 필요한 요리에 활용해도 좋다. 6. 햇볕에 탔을 때 피부가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피층이 파괴되면서 벌겋게 변한다. 이럴 땐 양파와 달걀을 활용해보자. 먼저 양파를 썰어 피부 위에 올려놓고 문지른다. 그 후 달걀 흰자를 바르면 양파 속 영양분이 피부로 흡수된다. 그대로 거즈로 덮어 몇 분간 내버려 둔 후 떼어내면 된다. 7. 몸에 열이 날 때 양파에는 염증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황화합물이 풍부하다. 양파를 발바닥에 붙이고 양말을 신기만 하면 된다. 감기로 몸이 열이 오를 때 양파를 양말에 넣고 잠을 자면 다음 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txt

제목: [김기자의 톡戰] 별다른 이유없이 등이 아픈 당신…혹시?  
날짜: 2016122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7130240001  
본문:   사망률이 높아 이른바 '절망의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의 생존율이 15년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암 투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김송철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췌장암 수술환자 1656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췌장암 수술환자를 2000∼2004년(201명), 2005∼2009년(545명), 2010∼2014년(910명)으로 5년 단위로 나눠 구분하고 1년·2년·3년·5년 생존율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의 완치를 뜻하는 5년 생존율은 △2000∼2004년 12.4% △2005∼2009년 17.2% △2010∼2014년 26.8%로 15년만에 2배가 넘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1년 생존율 역시 같은 기간 61%에서 80.2%, 3년 생존율은 18.4%에서 36.9%로 증가해 단기 생존율에서도 확연한 변화가 확인됐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국내 모든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지난 20년 동안 7.6∼9.4%로 한 자릿수에 머물며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다르게, 췌장암 수술 치료 성적은 크게 향상됐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절망의 암' 췌장암 생존률 배 이상 높아졌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췌장암 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1기 생존율이 3기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의 병기는 보통 암의 크기, 임파선의 전이 정도,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분된다. 암이 주변으로 침범하지 않고 췌장에만 국한된 췌장암 1기의 5년 생존율은 52.4%(암의 크기가 2cm 미만)와 47.5%(암 크기가 2cm 이상)로 나타나 전체 수술환자 5년 생존율인 26.8%를 상회했다.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보이는 췌장암 2기의 경우 임파선 전이가 없을 때는 30.4%를 보였으나,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 14.0%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주요 동맥 혈관을 침범해 국소적 진행이 된 췌장암 3기는 14.0%로 역시 낮았다. 연구팀은 "췌장암은 병기가 1기라도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매우 낮다"며 "그러나 3기에 비해서는 1기일 때 생존율이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췌장암, 별다른 증상없고 조기발견 쉽지 않아…암 진행속도 빨라 문제는 췌장암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발견이 쉽지 않고, 암의 진행 속도가 빨라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땐 이미 주위 혈관과 임파선 등에 전이가 된 상태라는 점이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보면 조기발견으로 볼 수 있는 췌장암 1기 환자는 전체의 4%에 그쳤고,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보이는 췌장암 2기가 90%대로 절대적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연구팀이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췌장암 수술환자 2029명의 병기별 분포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췌장암 환자 746명의 병기별 분포를 보면 1기는 3.2%에 그쳤고 2기는 89.6%로 가장 많았다. 3기는 2.9%, 4기는 4.3%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1283명 환자 역시 2기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1기는 4.2%, 3기는 0.9%, 4기는 3.9%로 확인됐다. 김송철 교수는 "췌장암 완치는 유일하게 수술로 가능하다"며 "췌장암의 주요 원인인 흡연·비만·당뇨·만성췌장염·가족력 등을 가진 고위험군은 정기 검진 등을 통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췌장암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생활 지침을 잘 따르면 절반 이상의 췌장암 환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영 대한암협회 회장(서울대병원)은 "금연과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적절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췌장암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율이 10% 미만보다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대국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txt

제목: 단국대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날짜: 20161227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7031725001  
본문: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이 26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전문 간호인력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 의료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박우성(오른쪽 의사 복장)단국대병원장이 26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개소식 참가자들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단국대병원 제공. 이를 위해 병원은 내과 26병동에 30병상을 갖추고 간호사 24명(간호사수:환자수=1:6)과 간호조무사 3명, 간호간병지원인력 3명 등 간호인력 30명을 구성했다. 병동에는 중앙간호사실 외 별도로 2개의 간호사실을 추가로 설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팀간호체계를 구축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전 병상을 전동침대로 교체했다. 암환자를 비롯해 내과질환자과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낙상주의, 금식, 절대안정, 욕창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침대 위에 전등으로 표시하는 등 환자안전을 강화했다. 환자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으로 입원이 결정되면 외래진료실에서부터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서비스 시행 초기에 환자 및 보호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박우성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전문 간호인력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또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위생, 영양, 배설 등 기본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단국대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만족도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txt

제목: [기획] 혜리·박신혜 등 기부 릴레이…연말 추위 녹이는 온기  
날짜: 20161226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6165211001  
본문: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이 한겨울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어수선한 시국에 온정의 손길이 줄어 힘겨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여느 때보다 많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는 연예인들 소식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가수 싸이, 배우 박신혜 등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신혜, 유재석, 걸스데이 혜리는 각각 5000만원을 화재 피해 성금으로 내놨고, 싸이는 개인 최고 금액인 1억원을 쾌척해 화제가 됐다.   이들은 소속사 등에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선뜻 성금을 내놔 더 큰 감동을 안겼다.  박신혜는 소속사 몰래 입금자명을 소속사 이름으로 해 기부했다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부 사실이 밝혀졌다. 박신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5000만원을 기탁하고, 지난해에는 네팔 지진 피해 성금 3000만원을 내놓는 등 기부로 사랑을 실천했다. 혜리 역시 본명인 이혜리고 기부금을 입금하며, 기부 사실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기부 소식이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혜리는 올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노인 지원 사업부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펼쳐왔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에게 써달라며 연탄을 기부한 연예인도 많다. 배우 박해진은 연탄 5000만원 어치를 기부했고, 지누션 멤버 션은 연탄 1만장과 올해만 네 번째 연탄 배달에 발 벗고 나섰다. 유재석은 지난 2013년 MBC '무한도전' 연탄 봉사 이후 누적 환산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연탄을 기부하는 등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방송인 박명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달팽이'에 지난해부터 매달 기부를 실천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박명수의 후원 덕분에 4살 청각장애 환우가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박명수는 지난 2003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에 13년간, 암 환자를 위한 성금을 5년간 기부하는 등 호통 뒤에 숨겨진 마음 씀씀이로 기부천사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 배우 김보성은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격투기 선수에 도전했고, 가수 임창정은 오는 24~25일 진행한 콘서트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내놔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배우 신민아는 최근 8년간 14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연예인으로서 선행이 알려지는 것은 자칫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벤트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 연예인의 남몰래 선행은 일부 이런 시선을 의식하거나, 과도한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대중에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 돌려주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txt

제목: "내가 이긴다"…SNS서 '난소암 투병기' 공개한 보디빌더  
날짜: 2016122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5080136001  
본문: 인스타그램에서 난소암 투병기를 공개한 미국의 한 보디빌더에게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올해 스물세 살인 보디빌더 치얀 셔는 난소암 4기 환자다. 과거 육체미를 뽐내며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팔로워(친구)를 모은 치얀의 인생은 난소암 진단 이후 180도 달라졌다.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진 건 물론이고 키 165cm인 치얀의 체중은 45kg까지 줄어들었다. 일부 장기도 기능을 상실했다. 한 마디로 난소암이 치얀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 꼴이 됐다. 하지만 치얀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기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했다. 그 무엇도 자기를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난소암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많은 이들이 깨닫기를 바랐다. 치얀은 “난소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며 “난소암의 또 다른 별명이 ‘고요한 킬러’ 인만큼 사람들이 위험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투병기를 공개한 후, 치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1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치얀은 “암과 계속 싸우겠다”며 “암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거울 속 나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게 또 다른 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얀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의 용기가 멋지다</span>” “<span class='quot0'>꼭 완쾌해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span>” “<span class='quot0'>이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 암을 이기지 못할 리 없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txt

제목: 90대 노부부의 특별한 '73번째 크리스마스'  
날짜: 20161224  
기자: 조성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4164738001  
본문: “<span class='quot0'>이번에는 내가 그를 지킬 차례입니다.</span>” 73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지켜왔던 90대 노부부가 병원에서도 한 침대에 눕게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의 아름다운 73번째 크리스마스를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포르벨보어의 한 병원에서 ‘특별 배려’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2차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했던 조지 모리스(94)는 현재 노환으로 포르벨보어 커뮤니티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채 누워있다. 그는 가끔 눈을 깜빡이는 것 이외에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의 부인 엘로이즈 모리스(91)는 같은 병원에서 암 투병 과정을 밟고 있다. 병원측은 이들이 맞는 73번째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조지의 침대 옆에 엘로이즈의 침대를 붙여줬다. 조지가 마지막 영면에 드는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엘로이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엘로이즈, 조지 모리스 부부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포르벨보어의 한 병원에서 서로 손을 잡은채 바라보고 있다. 포르벨보어=워싱턴포스트이들은 1930년대 후반 켄터키의 시골 동네에서 만나 결혼했다. 엘로이즈는 조지의 머리칼을 매만지며 “고등학교 2학년때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나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집으로 뛰어가 부모님께 ‘나 방금 결혼할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라고 외쳤다고 말했답니다”라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이어 “우리는 영화를 함께 보고 피크닉을 갔죠”라며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그와 손을 잡았는데 너무 긴장됐었거든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피크닉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WP에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조지의 손에 뭔가 들려있었는데, 그건 휴대용 축음기였어요</span>”라며 “<span class='quot0'>거기에서 ‘사랑스러운 엘로이즈’라는 노래가 나오더군요</span>”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후 내내 그걸 함께 듣고 있었어요”라고 덧붙였다. 10대때 조지는 엘로이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약 13㎞ 떨어진 거리를 걸어왔다. 엘로이즈가 15살이 되던 해에 조지가 청혼을 했다. 엘로이즈는 “<span class='quot1'>그는 외모도 멋졌지만 내가 그동안 만났던 어떤 남자보다 똑똑했답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래서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었죠</span>”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남자는 나와 가족, 나라를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게 돌아왔어요”라며 “이제는 내가 그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고 설명했다. WP는 이들의 변치 않는 사랑의 비결로 ‘낙천적인 성격’을 꼽았다. 엘로이즈는 “<span class='quot1'>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하던 그렇지 않던 늘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어요</span>”라며 “<span class='quot1'>이게 우리 사랑의 비밀입니다</span>”라고 말했다. 엘로이즈는 마지막까지 조지를 웃으며 보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먹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허공만 응시하는 조지를 바라보며 엘로이즈는 “<span class='quot1'>그는 아주 가끔씩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곤 해요</span>”라며 “<span class='quot1'>내 모든 것이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span>”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나를 볼 수는 있는지 또는 느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며 “그러나 나는 매일 눈뜨면 내 남편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해요”라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txt

제목: "아이 클 때까지만…" 젊은 엄마들의 투병기 시청자 울렸다  
날짜: 20161223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3180129001  
본문: "조금만 더, 아이가 좀더 클 때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엄마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젊은 엄마들의 암투병기가 시청자를 펑펑 울렸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아이들이 있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들이 생의 마지막에서 꽃피운 삶의 깨달음은 감동과 여운을 더했다. 지난 22일 KBS 1TV KBS 스페셜 '앎'에서는 '1부-엄마의 자리' 편이 전파를 탔다. '엄마의 자리' 편은 4기 암환자인 젊은 엄마들의 투병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암환우 커뮤니티 '아름다운 동행' 속 엄마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며, 간절한 삶의 이유를 전했다. 언어치료사로 일하던 배남주씨는 자궁경부암 4기를 진단 받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엔 나중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니, 아이들이나 남편보다 차라리 자신이 암에 걸린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녀는 오늘도 소망한다. 딸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모유수유 중 유방암을 발견한 김현정 씨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다. 아직은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딸들. 김현정씨는 "딱 15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두 딸을 보며,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나을 수 있다' '나는 아이들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아이들의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  최은선씨는 대장암 4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한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떠나 보냈기에, 자신이 떠나면 남겨질 딸이 가장 눈에 밟힌다는 최은선씨는 딸에게 든든한 쉼터가 되고 싶고, 조금 더 친정 엄마로 남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이겨내는 모습을 기억하고, 아이도 세상을 살아가며 있을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신 중 암을 발견한 안선미씨는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며 아픔도 잊은 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안선미 씨는 아이들이 어려 엄마가 아픈 것을 모를 테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은주씨는 림프종 4기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먼저 대장암 4기를 진단 받았다. 두 사람은 4기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자는 게 그들의 투병기다. 딸의 돌잔치 날, 옆을 지키겠다는 오은주씨의 첫번째 미션은 이뤄졌다. 그들의 두번째 미션은 '딸의 유치원 입학식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다. 아이들 옆에서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을 보며, 시청자들은 함께 울었다. 또 그들이 깨달은 삶의 이유와 간절함에 깊은 여운을 느꼈다. 그녀들은 '암'이라는 잔인한 선물을 받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일어섰다. 평범한 일상은 더 소중하게 다가왔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더없이 행복하게 웃는 그녀들의 모습은 오늘의 중요함을 깨닫게 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는 오은주 씨가 항암치료를 종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배남주씨의 장례식 모습이 비춰졌다. 제작진은 항암제를 바꿔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 배남주씨의 마지막을 전했다. 특히 이날 방송은 TV 앞 엄마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송의 여운과 응원의 글들이 게재되며 뜨거운 감동을 전파했다.  한편 23일 밤 10시에는 KBS 스페셜 '앎' 2부 '서진아 엄마는'에서는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별 과정이 그려진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txt

제목: 고통·불안 딛고… 그렇게 엄마가 된다  
날짜: 20161222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2212736001  
본문: 23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는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본다. “애가 아픈 게 다 내 죄인 것 같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호흡기를 단 채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기를 보며 박유선씨는 쉼 없이 눈물을 쏟아낸다. 아기는 10주나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아기 대신 아파주고 싶은 유선씨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 유선씨는 임신중독증으로 혈압이 200 가까이 치솟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지만, 약으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자 응급수술을 해야 했다. 유선씨가 임신 31주가 되던 때였다. 전치태반인 김민혜씨도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를 낳았다. 분만이 진행되는 자궁입구를 태반이 막는 전치태반은 분만 시 지혈이 되지 않아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23일 EBS1 ‘명의’는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본다. EBS 제공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 온 이윤경씨는 3번째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자궁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주로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 발견된다는 자궁내막암이었다.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자궁을 적출해야 하지만, 엄마가 되려면 암덩어리를 몸속에 남겨둬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경씨의 고민은 길지 않았다. 단 한번이라도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윤경씨는 자궁 내 기구를 삽입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아기를 낳은 후 자궁을 들어내기로 했다. 출산을 했다고 엄마의 진통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 아기를 안으려던 엄마는 척추 7군데에 골절이 생겨 산고보다 더한 통증을 겪어야 했다. 출산 후 약해진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다. 임신 중 생긴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병은 출산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평생 몸속에 남기도 한다. 엄마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안의 시간. 그럼에도 ‘엄마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txt

제목: [세계에세이] 시니어의 안전 운전  
날짜: 20161222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2211304001  
본문: 얼마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많은 사람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고는 나이 많은 운전자가 관광버스의 주행을 방해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사회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시니어들의 안전 운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조금씩이나마 감소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런 추이를 감안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교통문화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선다고 평가를 받는 국가도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br/> <br/>법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자는 운전자 개개인이 미리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운전하는 데 어떻게 나이의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시각정보처리 능력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정보처리 능력에서도 특히 이동물체에 대한 인지능력과 암 순응이 나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br/> <br/> <br/> 윤철호 선문대 교수·산업경영공학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력이 떨어진다. 이는 운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니어들에게 도로주행을 시키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 시니어들은 도로표시판 식별이나 장애물 인식,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력은 저하됐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생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주로 70대 전후로 급격하게 나타났다. 도로에서 시니어들이 느리게 운전하게 되는 이유이다. <br/> <br/>또한 나이가 들면서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떨어졌다.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시각 목표를 식별하거나 검출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됐다. 나이 들면 교통이 혼잡한 곳이나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이다. <br/> <br/>암 순응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영화관에서 자기 자리를 찾느라 고생한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암 순응이란 어두운 곳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시니어의 경우,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보다 대개 3배나 더 시간이 걸린다. 7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10분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나는 시력은 멀쩡한데 조금만 어두워도 책을 읽기가 힘들어. 그리고 밤에는 운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 낮에 운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이 들어서는 밤에 운전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br/> <br/>나는 70세가 되면 밤에 운전하는 것은 아예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길이나 복잡한 곳을 운전해 가야 한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한다. 몇 살까지 운전해야겠다는 판단은 아직 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운전하는 데 꼭 필요한 내 몸의 능력이 나이와 더불어 점차 저하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려고 한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여 피해가 가면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r/> <br/>윤철호 선문대 교수·산업경영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txt

제목: "이래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바뀌는 금연정책  
날짜: 20161222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2194712001  
본문: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증언형 금연 캠페인’(사진)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배가 공장에서 제작된 뒤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중에서는 내년 1월 말쯤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판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들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소매점 6곳에서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인쇄된 담뱃갑을 진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부터 유통되는 담뱃갑에 표기되는 흡연 폐해 경고 그림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해당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복지부는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부터는 흡연 피해자가 출연한 증언형 금연 광고도 TV를 통해 방영됐다.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개그맨 고 이주일씨가 출연했던 광고 이후 14년 만에 제작된 것이다. 광고에 출연한 임현용(55·가명)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갑 반씩 32년간 담배를 피웠고 3년 전 금연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혀와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광고에는 임씨가 “<span class='quot0'>습관적으로 줄담배를 피웠던 것이 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절대 흡연을 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기획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해 39.3%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해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도입 이후에도 다각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펼치겠다</span>”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txt

제목: 치료내시경·추나요법 2017년부터 건보 적용  
날짜: 20161220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0193518001  
본문: 내년 초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한의원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관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 수면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 치료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은 현재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30∼50%가량 줄어든다. 치료 목적의 종양 절제술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4대 중증질환자)∼7만8000(일반 환자)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일반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1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준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했던 뇌사판정비와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 심장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받는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txt

제목: 암 발생률 3년째 감소 … 난치성 암은 늘어  
날짜: 20161220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0193312001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존율 최하위권의 담낭암, 폐암, 췌장암은 오히려 발생자가 늘어 난치성 암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1만70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31명(4.5%) 줄었다. 연령표준화발생률(2000년 주민등록인구 비율 기준) 역시 2011년 인구 10만명당 32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23.3명, 2013년 314.1명, 2014년 289.1명으로 내리 감소했다. 암 발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이 일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검진이 줄면서 갑상선암 발생자는 2013년 4만2823명에서 이듬해 3만806명으로 28.1%나 감소했다. 위암과 대장암, 간암도 1년 만에 각각 1.6%, 3.2%, 1.0% 줄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대장암의 경우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검사가 많이 이뤄져 대장암 전단계인 용종을 제거한 게 암발생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span>”고 분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남성은 위암-폐암-대장암-간암-전립선암, 여성은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위암-폐암 순이었다. 전체적인 암 발생은 줄었지만 주요 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담낭암, 폐암, 췌장암은 모두 발생자가 늘었다. 폐암과 담낭암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각각 2.7%, 4.9% 늘었고 췌장암은 무려 7.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암 생존율은 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였고 갑상선암을 빼고도 63.1%를 기록했다. 상대생존율이란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했을 때의 생존율로,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은 100.2%로 나타나 일반인구보다도 생존율이 높았다.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대장암(76.3%)도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암에 걸려도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게 됐지만 담낭암과 폐암, 췌장암은 여전히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했다. 담낭암과 폐암, 췌장암의 생존율은 각각 29.2%, 25.1%, 10.1%에 머물렀다. 약 10년 전(2001∼2005년)과 비교해도 1.9∼8.9% 포인트 느는 데 그쳐 전체 암생존율 상승폭(16.4%포인트)에 훨씬 못 미쳤다. 생존율 하위 3대 암 발생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생존율은 평균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span class='quot1'>내년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1999년 이후 발생한 암환자 중 지난해 1월1일 기준 암 생존자는 146만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이 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8.7%(갑상선암 제외 시 37.6%), 여성은 33.1%(28.1%)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txt

제목: 국민 3명중 1명 암 걸릴 확률, 35명 중 1명이 암 병력¨5년 생존률 70%  
날짜: 201612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20141209001  
본문: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암환자이거나 암에 걸렸던 국민은 35명 중 1명 꼴이었다.  암발생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의 순으로 많았다 . 또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에 달했고 146만명은 최근 15년내 암 진단을 받고 극복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암등록통계(2014년 기준)를 발표했다. ◇ 암에 걸릴 확률 36.2%, 남성은 10명 중 4명 우리국민이 기대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남성(79세)은 5명 중 2명(38.7%), 여성(85세)은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7057명(남 11만2882명, 여자 10만417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131명(4.5%)가 줄었다. ◇ 남성은 위암-폐암-대장암 순, 여성은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 순 2014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남성은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암종별로 보면 갑상선암 발생자수는 3만806명으로 전년도 대비 1만2017명(-28.1%) 발생률은 10만 명당 20.2명(남자 8.2명·여자 32.2명)이 줄었다. 국가암검진을 수행하는 대장암과 위암, 간암의 발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892명), 1.6%(474명), 1.0%(166명) 감소했다. 여자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증가율이 7.5% 였으나 2005년 이후 증가율은 4.5%로 둔화됐다. ◇ 5년 생존율 70.3%, 췌장암 5년 생존율은 10.1%에 불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에 달했다. 5년 생존율은 완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지표이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2001~2005년 생존율(53.9%)에 비해 16.4%포인트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5년 생존율은 여성(78.2%)이 남성(62.2%)보다 16%나 높았다. 여성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100.1%), 유방암(92.2%)이 환자가 남성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3%), 유방암(92%)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 등은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갑상선암의 생존율이 100%가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가 더 많이 생존한다는 의미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4.4%, 76.3%, 32.8%였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5년 1월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유병자 수는 14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1명 이상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뜻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txt

제목: 재발 위험 높은 ‘부인암’ 완치 뒤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날짜: 20161218  
기자: 김예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8202931001  
본문: 완치됐다고 믿었던 ‘암’에 다시 걸린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 뒤에 다시 찾아온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 번 우는 여성들이 있다. 바로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부인암’ 환자들이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으로 대표되는 3대 부인암은 초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재발 위험은 높다. 또 완치 판정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다. 이화여대여성암병원 재발성부인암센터장인 김윤환 교수는 “<span class='quot0'>부인암 환자들의 경우 재발로 인한 심리적인 동요가 크고, 일단 재발하면 항암 약물 치료 등 2차 치료로 큰 호전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재발성 부인암도 완치가 가능하므로 암 치료 이후에도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한 여성 환자가 이대여성암전문센터에서 부인암 진찰을 받고 있는 모습. 이대여성암병원 제공◆5년 이내 재발률 높은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자궁과 질이 연결되는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감염 원인으로, 연평균 5만4000명이 진료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인암이다. 다행히도 원인이 밝혀져 있어 제때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받으면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아 ‘착한 암’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역시 병기가 진행함에 따라 완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 조기검진과 예방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 완치됐더라도 5년 이내 재발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암 부위를 도려내는 근치적 수술 치료를 받은 1기 혹은 2기인 환자도 5~20%는 재발할 수 있다. 그중 절반은 1차 치료를 받은 후 1~3년 이내 재발할 수 있다. 완치 후에도 철저한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 어려워 사망률 높은 난소암 난소는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난자의 성장 촉진, 배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성의 신체 기관이다. 난소암은 이런 난소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1만2000명에서 2015년 1만6000명으로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복통, 더부룩함, 복부 팽만, 질 출혈 등은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애매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로 여겨 방치하기 쉽다 보니, 발견 자체가 쉽지 않다. 난소암은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해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난소가 상당히 비대해진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난소 표면에서 암이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에 해당하며, 난소기능부전과 무관하게 폐경 이후 많이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소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70%가 3기 이후에 발견되고 3, 4기 진단을 받은 여성들의 5년 생존율이 15~20%에 불과해 조기검진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재발율이 50~70%로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완치 이후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폐경기 전후 여성들의 주의 필요한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암은 자궁 속 공간을 덮고 있는 ‘자궁내막’에 생기는 것으로 본래 서양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었으나,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국내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만여명이던 환자 수가 2015년 1만3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체 환자 중 50대가 41.8%를 차지하고 있어, 폐경기 전후 여성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도한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사람, 폐경이 늦거나 분만 경험이 없는 사람 등이 고위험 군에 속한다. 질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병원을 일찍 찾는 편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용이하지만 재발률이 5~40%까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txt

제목: 박명수, 청각 장애 환우 위해 2년째 기부  
날짜: 20161217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7145430001  
본문: 방송인 박명수의 기부 소식이 또 알려졌다.  17일 박명수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달팽이'에 지난해부터 매달 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명수의 후원 덕분에 4살 환우가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랑의 달팽이' 측은 "아이 부모님이 박명수씨에게 매우 고마워했다"며 "다른 아이 한 명도 치료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명수는 지난 2003년부터 '아름다운 재단'에 13년간 매달 기부하는 등 선행을 펼쳤다. 5년간 암 환자를 위해 매월 300만원씩 기부하고, 자작곡 음원 수익금 일부를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협회에 내놓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txt

제목: 우리 몸에서 전혀 쓸모없는 부위 12곳  
날짜: 20161216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6153636001  
본문: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몸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완전히 감탄하기엔 이르다. 모든 신체 부위가 쓸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쓸모가 없어져 인간의 몸에 찌거기처럼 남게 된 신체 부위 12곳을 소개한다. 해외 매체 인디100이 최근 다룬 내용이다. 1. 사랑니 보통 17~25세에 어금니 가장 안쪽에 자라나는 치아다. 공간이 마땅치 않아 옆 치아를 밀어내며 나오거나 엉뚱한 곳에서 자라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니는 치과에서 뽑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 선조들은 치아로 딱딱한 음식을 깨트려야 했기에 턱과 사랑니가 발달했다. 하지만 현재 인류에게 사랑니는 불필요한 존재다. 2. 귀 근육 개, 고양이 등은 귀 근육으로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굳이 귀를 움직일 필요가 없음에도 귀 근육이 남아있다. 3. 편도선 림프계는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편도선은 림프계의 한 부분. 하지만 의학적으로 편도선은 그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 매년 제거 수술을 받는 이가 늘고 있다. 편도선은 염증과 암을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 충수 맹장에 한쪽 끝이 막힌 벌레 모양의 기관으로 ‘막창자꼬리’라고도 부른다. 편도선뿐 아니라 맹장도 많은 사람이 수술로 떼어낸다. 맹장은 쓸모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설사 후 내장 기관에 좋은 박테리아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도 있다. 5. 다윈 포인트 인구의 10%만 다윈 포인트가 있다. 이는 귓바퀴 안쪽에 삐죽 튀어나온 모양이 그것이다. 왜 다윈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선 많은 논쟁이 있다. 귀를 돌리거나 쳐지게 하던 기관이 퇴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6. 남성의 유두 남성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슴에 유두가 있다. 태아의 최초 성별은 여성인데 여기서 남성이 분화해 나왔기 때문이다. 7. 반월추벽 눈 가장자리 눈물길 옆에 있는 붉은색 살이다. 몇몇 포유류는 여기서 나오는 투명한 막으로 수분을 유지하거나 눈을 보호한다.  8. 꼬리뼈 척추 끝에 붙어있는 뼈다. 선조들에겐 꼬리가 있었으며 퇴화하는 과정에서 꼬리뼈 형태로 남게 됐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9. 부비강 콧구멍이 인접해있는 뼛속 공간이다. 이곳에 점액이 차면 두통, 염증 등을 유발한다. 10. 체모 개, 고양이, 원숭이 등처럼 우리 선조도 체온 유지, 신체 보호를 위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 체모는 뽑아내야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다. 11. 쓸개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신체 기관으로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한다. 이 또한 감염, 담석, 암의 위험이 있는 반면, 그다지 역할은 크지 않다. 12. 털세움근 소위 ‘닭살’을 만드는 근육이다. 적에게 위협을 느꼈을 때 털을 세워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울 털조차 별로 남지 않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천연 신경안정제  
날짜: 20161214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4205808001  
본문: 가을이 되면 적갈색으로 익는 대추는 그 색이 붉다하여 홍조라고도 한다. 한방에서는 일찍이 대추가 오장을 보하고 12경맥을 돕는다고 한다. 대추는 심장을 도와 혈액이 잘 돌도록 하고 신경을 안정시킨다. 폐와 기관지를 도와 기침을 멎게 하고 건조한 목을 풀어준다. 또한 대추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분에 흡착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탁월한 항암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추의 주성분으로는 다량의 당분과 점액질이 있다. 그 외에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C등이 있으며 껍질 부분에는 탄닌을 함유하고 있다. 대추는 완화의 목적으로 모든 약에 배합하여 강장제로 쓰고 지사제 등으로도 사용한다. 대추는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한약을 달일 때 생강과 함께 몇 톨을 넣으면 다른 약초의 강렬한 성질을 중화시켜준다. 견과류 소스를 뿌린 대추, 밤 샐러드 재료: 대추 20개, 밤 10개, 치커리 약간 (소스용 재료: 꿀, 간호두 3큰술씩, 깨소금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대추는 씨를 발라내고 채를 썰어준다. ② 밤은 껍질을 벗기고 채를 썰어준다. ③ 꿀에 다진 호두와 깨소금, 소금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준다. ④ 대추와 밤은 그릇에 담고 소스를 넣어 버무린다. ⑤ 접시에 치커리를 올리고 위에 ④를 담는다. 비위가 차서 하는 설사, 복통, 잘 놀라고 두근거림, 신경질, 마른기침, 빈혈, 중풍으로 인한 자한, 천식, 입안이 마르는 데에도 사용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부색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 장수한다고도 한다. 또한 대추는 소화흡수 능력을 키우고 변비를 없앤다고 하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 좋은 재료이다. 여성의 히스테리 증세에 대추를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  대추죽 재료: 대추 20개, 불린 쌀 1/2컵, 물 5컵,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쌀을 깨끗이 씻어서 불린다. ② 불린 쌀을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준다. ③ 대추는 씻어서 물 3컵을 넣고 푹 끓여서 국물이 졸아들면 체에 내려 씨와 껍질을 거른다. ④ 냄비에 갈아 놓은 쌀과 물 2컵, 대추 삶은 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인다. ⑤ 멍울지지 않게 은근히 끓여 주면 완성 ⑥ 그릇에 담아 먹기 직전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좋은 대추는 색깔이 선명하고 알이 굵고 대추의 주름 모양이 고르게 잡힌 것이다. 대추의 꼭지가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을 띈다면 속이 썩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대추라도 자체에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썩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대추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놔두는 것이 좋다. 냉장 보관시에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밀봉한 다음 넣어두는 것이 좋다. 건조한 공기가 대추의 습기를 빨아들여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txt

제목: [세상에 중국] 2개월간 30회 이상 오면 '상품권'…어떤 요양원의 정책  
날짜: 2016121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4100318001  
본문: 정해진 기간 일정 횟수 이상 요양원을 방문하면 환자의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 중국의 한 요양원이 이 같은 정책을 6개월 동안 시범운영 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머니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의 한 요양원이 두 달 동안 30회 이상 방문하는 환자 가족에게 200위안(약 3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정책을 앞선 9월부터 시범운영 하고 있다. 한 달을 5주라고 봤을 때 두 달 동안 30회를 채우려면 최소한 매주 3회는 요양원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상품권을 받아간 방문객은 129명이나 된다. 방문객이 받는 상품권은 요양원 내 환자들이 쓸 수 있는 생활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시설에서 환자 1명이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매년 5300달러(약 616만원)라고 CNN 머니는 전했다. 요양원 측은 상품권이 환자 가족의 애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주 찾아오는 환자 가족들에게 감동해 상품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족들이 많이 찾는 환자들은 대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span>”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500명 정도의 노인환자가 있다. 대부분 암이나 치매 환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품권 때문에 사람들이 요양원에 오는 것 아니냐며, 수단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양원 관계자는 “그런 경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span class='quot0'>환자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관심을 드러내는 이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을 뿐</span>”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는 환자를 가족들이 자주 생각해주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요양원은 자주 찾아오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시상식도 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CNN 머니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txt

제목: [배연국의 행복한 세상] 돈이란 무엇인가  
날짜: 20161214  
기자: 권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4095907001  
본문: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 군도에 얍섬이 있습니다. 1903년 미국 인류학자 윌리엄 헨리 퍼니스 3세가 주민들의 풍습을 연구하기 위해 그 섬을 찾았어요. 섬의 화폐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돌화폐의 섬'이란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얍섬의 주민들은 동전 대신에 돌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섬에서 금속물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페이(fei)라고 불리는 화폐입니다. 페이는 크고 단단한 돌 바퀴 모양이었어요. 돌 바퀴의 직경은 30cm에서 크게는 4m에 달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막대기를 집어넣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돌화폐는 얍섬에서 600km쯤 떨어진 섬에 있는 석회석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채석해 가공한 뒤 카누와 뗏목에 실어 얍셤으로 운반했어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만큼 이 돌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돌화폐의 가치는 주로 크기와 무게에 비례했어요. 무거운 돌화폐는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예전 주인 집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 주인과 원래 주인이 돌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면 되니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부가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큰 페이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사람 중에 누구도 그 페이를 보거나 만져본 사람이 없었어요. 오래 전에 그 돌화페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죠. 인근 섬에서 커다란 페이를 뗏목으로 싣고오다가 폭풍우를 만나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그 페이를 바다에 버려야 했거든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은 그 돌이 가장 큰 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의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했던 만큼 페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비록 바다에 수장되었어도 예전 주인은 자기 소유물로 그대로 인정받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얍섬 주민들의 행동을 그냥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문명인을 자부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국가는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지하 금고 속에 엄청난 금궤를 보관합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많이 가진 나라는 부자 대접을 받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수전노처럼 긁어모으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부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호스피스병동에서 벌어진 삶의 마지막 풍경을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자 가족들이 모여 들었어요.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자 늙은 아내와 딸이 그의 손을 부여잡고 사정합니다. "영감, 금고번호가 몇번이오? 아버지, 제발 가르쳐줘요." 노인은 끝내 금고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황금만능의 시대! 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나 생활을 개선해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수백년 간 바다에 수장된 돌화폐와 무엇이 다른가요?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txt

제목: 아역배우 출신 이정후 사망 12일 발인…누리꾼 "악플다는 사람들은 뭐냐"  
날짜: 20161213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3172105001  
본문: 사진출처=영화 `휘파람 부는 여자` 캡처아역배우 출신 이정후가 암으로 사망했다. 13일 한 매체는 이정후가 암에 걸려 32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kimn\*\*\*\* 참 예쁘고 똘망똘망하다고 기억했는데 안타깝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hyo\*\*\*\* 어린왕자 참 재미있게 봤는데” “8302\*\*\*\* 에궁 신혼에 참 행복해야할때인데 얼마나 부부가 힘들었을까요... 남은 가족들 힘내세요...” “knok\*\*\*\* 와.. 진짜 이런기사에 악플다는 사람들은 진짜 뭐하는 사람들이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정후의 장례는 12일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진 가운데 발인식을 마쳤다. 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txt

제목: 아역 배우 출신 이정후, 암 투병 중 사망… 향년 30세  
날짜: 2016121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3140844001  
본문: 아역배우 출신 이정후씨가 암 투병 중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30세.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유명을 달리했으며, 이씨의 발인식은 12일 거행됐다. 1990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데뷔한 후 SBS '장희빈', KBS '태조왕건' '굿바이 솔로' 등에 아역으로 출연한 이씨는 3년 전 결혼 후 연기를 중단한 채 신혼생활에 집중해오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KBS2 '드라마시티-시은&수하'에서 소아암 환자 역을 맡아 삭발 투혼을 펼친 바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영화 '휘파람 부는 여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녹조라떼' 한번 잡숴 보실래요?  
날짜: 201612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3050233001  
본문: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綠潮)현상이 확산되면서, 먹는 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수돗물을 끊여 마실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끊여 마실 경우 발암성 물질이 100% 제거된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나타나는 녹조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녹조가 단순히 물의 색상을 바꾸는 게 아닌, 인근 하천의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녹조의 원인물질이 내뿜는 독소가 우리 신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의 경우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 및 사전예방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심해지면서 정수과정에서 투입 염소 양이 늘어나고, 부산물로 생기는 발암물질 농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검출된 발암물질 수치가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만큼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은 염소 소독으로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소독부산물이다. 일반적으로 정수 과정에서 투입된 염소가 물 속 유기물과 만나 생성된다. 염소와 자연유기물이 반응할 때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크로포 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모로포름 등 4개 물질을 묶어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칭한다. 1974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뒤 총트리할로메탄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실험 결과 발암성이 입증됐으며, 신장과 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녹조현상 매년 심해져…정수과정 투입 염소 증가, 발암물질 농도 ↑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0.1㎎/ℓ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휘발성이 있어 수돗물을 끓일 경우 대부분의 성분이 증발한다. 농도가 높다고 해도 끓인 물이라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이라고 해도 수증기 형태로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된다. 즉, '뜨겁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 것이다. 문제는 기준치 이하로 관리한다고 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장이 없으며, 나라별로 기준치가 상이해 수돗물을 식수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연도별 평균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와 염소투입량을 살펴보면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경남 김해 명동 정수장은 △2011년 0.028㎎/ℓ·1808㎏/일 △2012년 0.051㎎/ℓ·1528㎏/일 △2013년 0.047㎎/ℓ·1808㎏/일 △2014년 0.053㎎/ℓ·2046㎏/일 △지난해 0.031㎎/ℓ·1594㎏/일을 기록했다. ◆"정부, 기준치 이하로 관리한다"…인체에 무해하다는 보장은 없어 물론 지난해 농도가 다소 줄긴 했으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2011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 정수장은 2011년 0.021㎎/ℓ에서 0.032㎎/ℓ로, 합천 가야 정수장은 2011년 0.019㎎/ℓ에서 지난해 0.030㎎/ℓ로 오르는 등 이들 정수장의 평균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경남 모든 정수장 평균도 개별 정수장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6월 경남 9개 정수장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평균값은 0.031㎎/ℓ였으나 지난해 0.047㎎/ℓ로 뛰었다. △7월 평균은 0.023㎎/ℓ에서 0.038㎎/ℓ △8월 평균은 0.028㎎/ℓ에서 0.039㎎/ℓ △9월 평균은 0.036㎎/ℓ에서 0.042㎎/ℓ로 각각 높아졌다. 부산 덕산·화명 정수장의 6~9월 평균 농도도 2008년 0.035㎎/ℓ에서 지난해 0.050㎎/ℓ로 껑충 뛰었다. 1급수에 가까운 한강의 경우 올 8월 기준 37개 정수장의 평균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는 0.029㎎/ℓ였다. 같은 기간 경남 9개 정수장의 평균 농도는 0.040㎎/ℓ, 대구 2개 정수장의 평균 농도는 0.071㎎/ℓ였다. ◆영남권, 수도권 주민보다 2배 넘는 발암물질 섭취? 정리하자면 영남권 주민이 수도권 주민보다 많게는 배가 넘는 발암물질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정수장과 아닌 정수장의 차이도 크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하는 대구 매곡·문산정수장은 운문댐을 원수로 하는 고산정수장보다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매곡·문산정수장의 6~8월 총트리할로메탄 평균 농도는 0.029~0.071㎎/ℓ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산정수장은 1년 내내 0.011~0.024㎎/ℓ 수준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98일, 143일, 171일로 해마다 폭증하는 경향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정수 과정을 거친 낙동강 물을 식·용수로 바로 사용하는 인원은 부산·창원·김해·양산·함안 5개 지역 약 540만명이다. 정수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은 이 지역에서 생수 등을 먹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발암물질까지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낮게 총트리할로메탄 농도가 관리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네덜란드 등 선진국, 염소 소독 아닌 자외선 살균…정수 과정 바꾸는 추세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관리국이 1998년 임산부 514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하루 5컵 이상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 현행 기준치 이하 농도라고 해도 유산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독일과 노르웨이는 수돗물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기준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0.05㎎/ℓ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치를 상회하는 정수장도 생긴다. 설령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유해물질인 만큼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며, 수돗물 음용률이 5.4%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돗물에 관한 사람들의 불신감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염소 소독 대신 자외선 살균 방식으로 정수 과정을 바꾸는 추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도관 노후화로 누수율이 높아, 다른 유해물질이 배수관을 타고 가다 들어올 가능성이 커 자외선 살균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txt

제목: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9가지 달콤한 과일  
날짜: 20161212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12165928001  
본문:   신장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과장치'다. 강낭콩 모양의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독소들은 신장을 통해 걸러진다. 인체의 여과장치인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나 신장은 그 기능이 현격히 저하될 때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건강이 악화하기 전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미리 챙겨 먹는 습관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신장에 좋은 9가지 과일을 미국 온라인매체 위티피드가 소개했다. 1. 사과 사과는 섬유질이 많고 소염 성질을 갖고 있다.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 평상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암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과는 그대로 깎아 먹거나 주스 형태로 갈아 마셔도 상관없다. 2. 크랜베리 아메리카대륙 원주민들의 수퍼과일로 잘 알려진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탁월한 과일이다. 크랜베리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딘(proanthocyanidin) 성분은 대장균과 박테리아 유착 방지 특성이 있다. 박테리아가 방광의 세포벽에 붙는 것을 방해하고 세포 바깥쪽의 섬모를 자극해 대장균이 방광 벽에 유착되지 못하게 한다. 초콜릿 대신 달콤한 크랜베리를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3. 블루베리 세계 10대 수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에는 망간, 아연, 미네랄, 비타민C, E, 엽산, 섬유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섬유소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 또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페놀로 가득 차 있어 몸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베리는 생과로 먹으면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건조하거나 냉동 보관한 후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면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다. 4. 라즈베리 우리나라에선 케이크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이나 잼 형태로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다. 라즈베리 속에는 비타민C, 비타민B, 엽산 및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몸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독소와 유해 세균을 배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른 과일에 비해 심장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 5. 체리 체리에는 다량의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심장과 신장을 보호한다. 특히나 신장에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염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과일로 꼽힌다. 체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높은 소염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여주는 효능도 뛰어나다. 또 체리 속 케르세틴(Quercetin)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 성분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6. 딸기 딸기에는 비타민C와 망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딸기의 아름다운 붉은빛은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증거다. 이 성분은 몸속 활성 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며 혈전 생성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이나 동맥경화에도 좋다. 7. 적포도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는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다. 암을 비롯해 동맥경화증,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과 간염, 아토피 등이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적포도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는 한 잔의 와인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플라보노이드에는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장의 기능이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8. 수박 수박을 붉게 만드는 색소 리코펜은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다. 혈압을 낮춰주고 항암작용이 있어 암 예방에도 좋다. 수분이 풍부한 수박에는 칼륨과 구연산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도와 몸의 부기를 빼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박의 효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아침 식사 전 즙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배가된다. 9. 파파야 달콤한 맛으로 일명 '천사의 과일'이라 불리는 파파야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다. 파파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비타민C, 비타민A가 풍부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빈혈이나 기미, 주근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감자 15개 남은 형제, 이들에게는 용기도 남았다  
날짜: 2016120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9174920001  
본문: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서로뿐인 없는 일곱 살 터울 형제 이야기가 중국인들 가슴을 울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후베이(湖北) 성 스옌(十堰) 시 윈시(?西) 구의 외딴 흙집에 사는 장 롱하이(16)와 장 광신(9)은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형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넓은 하늘 아래 기댈 이가 형제뿐이라는 건 매우 슬픈 일이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롱하이가 세 살 때 그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허난(河南) 성 링바오(靈寶) 시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롱하이의 아버지는 10년간 광부로 일했으며, 어머니는 인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롱하이가 여덟 살 때 이들 가족의 안식처가 되어준 작은 집에서 광신이 태어났다. 롱하이의 기억 속 아버지 얼굴은 늘 새까맣다. 롱하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먼지로 뒤덮였다”며 “집에 돌아온 아버지 코에서는 작은 돌도 나왔다”고 말했다. 롱하이의 가족에게 어두움이 드리운 건 그의 아버지가 폐 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아등바등 살면서 모았던 돈은 죄다 롱하이 아버지의 치료비로 쓰였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늘어만 갔다. 더 나은 삶을 갈구했음에도 2011년 춘절 연휴 기쁨이 중국을 뒤덮은 날, 롱하이의 아버지는 이들 가족을 남겨두고 하늘로 떠나버렸다. 당시 나이 34세였다. 롱하이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몇 날 며칠을 울던 롱하이의 어머니는 사별 6개월 후, 근처에 사는 한 남성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았다. 롱하이의 입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쉬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롱하이는 자기 집에 자리를 튼 새아빠라는 사람에게 ‘삼촌’이라 불렀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다. 광신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온 후, 두 형제의 성은 장씨에서 첸씨로 바뀌었다. 어렵사리 2막이 올랐던 롱하이 가족의 일상은 몇 년 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새아빠 홀로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형제는 새로 얻은 여동생을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루 매출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했다며 모든 언론이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던 지난 11월11일 ‘광군절(光棍節)’. 형제에게 남겨진 건 감자 15개가 전부였다. 그래도 형제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롱하이는 “돈을 많이 벌어 동생을 잘 보살피고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일자리를 얻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신도 형에게 힘이 되고 싶었나 보다. 그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며 “그래야 다른 마을로 떠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txt

제목: [단독] 안종범 전 수석 암 투병…최근 극비리 삼성병원 다녀가  
날짜: 20161208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8170841001  
본문: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인 최순실씨와 함께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암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8일 “안 전 수석이 최근 서울 삼성병원을 극비리에 다녀왔다. 전립선 암 판정을 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50세 전후로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실마리를 푸는데 협조한 것도 그의 건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최씨와 ‘공모’관계로 적시할 수 있었던 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대통령 지시 경위에 대한 안 전수석의 진술이 크게 기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비교적 협조를 잘 한 것도 건강 상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심리적, 신체적 위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span>”고 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수사 진행중’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그는 직권을 남용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 최씨가 운용하는 광고회사에 이득을 주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하나 사실상 비선실세 최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만큼 건강 상태가 심각할 경우 형 집행 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txt

제목: [연구]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매사 긍정적으로 살라"  
날짜: 20161208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8161312001  
본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매사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네덜란드 연구진은 올 초 "성격이 비관적이면 향후 9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55%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낙관주의가 어떻게 수명을 늘리는지는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이 과학저널 ‘미국 역학 저널’ 최신호에 낙관주의가 어떻게 수명을 늘리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미 CBS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연구진은 성격-건강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간호사 건강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백인 여성 7만명에게 ‘나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대개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는 편이다’와 같은 6개의 간단한 질문을 던져 성격테스트를 한 뒤 여러 질환 발병 여부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변이들은 모두 통제했다. 그 결과 성격이 가장 낙천적(성격테스트 점수가 상위 25%)인 여성들은 가장 비관적인 여성들(하위 25%)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6% 정도 낮았다. 낙천적인 사람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각각 38%, 39% 낮았고,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38% 낮았다. 케이틀린 헤이건 박사후연구원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즐겨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며, 숙면을 취하는 편"이라며 "직접적으로는 낮은 염증과 적절한 지방질 등 건강한 생체지표(biomarker)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에는 백인 여성들만 분석했지만 다른 성별이나 인종이라고 해서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에릭 김 연구원은 "사람관계나 배우자, 직장생활, 친구 등 자신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 ‘진인사대천명’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헤이건 연구원도 "매일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가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생활습관만으로도 낙천주의가 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이번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txt

제목: 개, 고양이... 심지어 물고기도 '간접흡연'으로 암 걸린다  
날짜: 20161208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8140857001  
본문: 금연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생겼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주인의 흡연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접흡연으로 암 등 중증질환에 걸려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개, 고양이, 햄스터뿐 아니라 물고기까지 그 대상이 된다. 최근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전한 내용이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개, 고양이는 키가 작아 바닥 가까이 붙어 생활한다. 그만큼 먼지 뭉치, 카펫, 러그 등에 내려앉은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거기다 이러한 발암물질이 털에 붙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이 흡연자의 손, 얼굴 등을 핥는 과정에서 독소가 체내에 들어가기도 한다. FDA 카멜라 스탬퍼는 “흡연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가 된다”며 “미국에서만 비흡연 인구 5800만명 정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담배 연기로 고통받는 반려 동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우려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1. 개 코가 큰 개는 비강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담배 연기, 먼지 입자 등이 폐로 넘어가기 전에 거르는 과정에서 코 안의 털, 점액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이다. 코가 작은 개들은 안전할까? 이들은 반대로 폐암 발병 위험이 높다. 퍼그, 불도그, 비글 등 코가 작은 개들은 큰 개들보다 유해 물질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 더 많은 발암 물질이 폐로 흘러들어 폐 건강이 나빠진다. 2. 고양이 개보다 고양이가 간접흡연으로 더 많은 해를 입는다. 가장 많이 확진되는 암은 구강암과 임파선암이다. 핥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양이가 자신의 털을 핥는 ‘그루밍’은 털에 묻어있는 발암물질을 먹는 부작용이 있다. 실제 주인이 담배를 피우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구강암의 일종인 편평상피함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 치사율이 높아 화학 요법을 쓰더라도 생존률이 10%도 되지 않는 암이다. 주인이 매일 1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집에서 사는 고양이는 그렇지 않은 고양이보다 임파선암에 걸릴 확률이 3배 높다. 임파선암에 걸린 고양이의 예상 수명은 6개월 정도다. 3. 물고기 니코틴 등 발암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된다. 물고기가 사는 어항 속 물도 예외는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에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는 경련 및 발작을 일으키거나, 색상이 흐려지고, 지느러미가 뻣뻣해지다 결국 죽게 된다. 니코틴을 탄 물에 넣어둔 물고기 중 절반 이상이 96시간 안에 폐사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txt

제목: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산다  
날짜: 20161208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8135256001  
본문: 정상체중보다 마른 사람의 사망위험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철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2~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6만219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눠 계산한 값으로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 이상)으로 구분된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구분하고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평균 4.9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체질량지수 이외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성별, 나이, 흡연상태, 교육수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연구결과 정상체중과 비교해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은 증가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의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인 사람의 전체 사망률은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53% 증가했고,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의 전체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 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34%, 암 사망률은 21% 증가했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은 정상체중일 때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비만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체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등한시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저체중으로 마른 사람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뚱뚱한 사람보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저체중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영양부족, 근육량 감소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저체중 환자 역시 고도비만 환자 못지않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므로, 평소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사망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txt

제목: 남원시, 집단 암발병 내기마을 유해물질 감량 등 나서  
날짜: 20161208  
기자: 김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8032051001  
본문: 전북 남원시는 암환자가 집단 발병한 이백면 내기마을에 대한 중앙암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 배출 감량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암역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기마을에서 발생한 폐암은 인근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한 다핵방향족물질(PAHAs)과 실내라돈 농도, 주민 흡연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 조사반은 이를 근거로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PM2.5, PAHs) 배출 감소 대책 마련과 실내환기 등을 통해 실내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홍보, 흡연주민에 대한 금연 지원 등을 권고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현재 PM2.5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특정유해물질에 해당되지만 배출 허용기준이 없어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다핵방향족물질(PAHAs)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가정 내 실내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홍보용 팜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문자 발송을 통한 공지와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감시점검단을 구성, 아스콘 공장의 대출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조치하고, 주민 모니터링 결과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내기마을 주민 78명 가운데 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해 암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양배추, 배앓이에 강추  
날짜: 20161207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7210134001  
본문: 양배추는 팔방미인이다. 한끼 반찬으로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그만이다. 생으로 먹어도 신선하고, 익혀 먹으면 달콤한 맛이 은근히 입맛을 당긴다. 게다가 열량은 낮으면서 영양가는 풍부하다. 양배추는 괴혈병, 눈병, 통풍, 류머티즘, 농루, 천식, 결핵, 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우선 혈액 정화제로 괴혈병 치료에 뛰어나다. 현대 민간의학에서도 항 궤양성 치료제로 양배추를 사용하고 있다. 또 양배추는 암, 특히 대장암의 위험성을 저하시킨다. 항궤양성 비타민U를 함유하고 있어 생즙을 먹으면 위궤양에 효과가 있다. 또한 피를 맑게 해주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 여성의 피부미용에도 좋다. 게다가 양배추는 면역체계를 자극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 100g당 29㎉의 저열량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양배추 생즙은 빈혈, 위궤양, 위장장애,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다만 양배추 생즙은 먹기가 어렵다. 양배추즙 75%, 샐러리즙 25%의 비율로 섞으면 먹기가 수월해진다. 한 컵의 양배추즙에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즙을 큰 숟가락으로 두 술 정도 넣어 마시면 더욱 좋다. 쇠고기 양배추말이 재료: 쇠고기 200g, 찹쌀가루 3큰술, 양파 1/2개, 다진마늘 1/4큰술, 양배추 5잎, 토마토케첩 3큰술, 소금·후추 약간 만드는 법 ① 쇠고기에 양파와 찹쌀가루를 다져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② 양배추는 끓는 물에 데쳐준다. ③ 데친 양배추에 ①을 넣어서 말아준 다음 찜통에 찐다. ④ 팬에 토마토 소스,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찜통에 찐 양배추롤을 넣고 익힌다. 양배추는 주로 생채로 많이 이용하지만 각종 요리에도 쓰인다. 일년 중 늦가을부터 겨울 동안에 생산된 양배추가 맛이 좋고 저장성이 좋다.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량 섭취하는 경우 치아가 허약한 사람은 삶아서 연하게 먹는 것이 낫다. 삶을 때 나는 심한 냄새는 식초를 가하면 없어진다. 데친 잎으로 다진 고기를 싸서 익혀 먹는 롤양배추로 조리하거나 돼지고기, 베이컨, 당근 등과 함께 끓여 먹어도 좋다. 양배추 초절임 재료: 양배추 1/2개, 양파 1개, 깻잎 10장, 밤 5개, 대추 10개, 마늘, 소금, 식초, 설탕 단촛물 만드는법 물 1컵, 소금 1/2큰술, 식초 1컵, 설탕 1/2컵을 넣고 끓여서 식힌다. 만드는 법 ①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절인 다음 다시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② 양파는 채 썬다. ③ 밤은 껍질을 벗기고 채 썬다. ④ 대추는 씻어서 씨앗은 발라내고 채 썬다. ⑤ 깻잎은 깨끗이 씻는다. ⑥ 양파, 밤, 대추, 마늘, 소금을 넣어 속을 버무린다. ⑦ 양배추에 속을 넣고 깻잎 올리기를 반복한 다음 단촛물을 끼얹어 준다. 양배추를 고를 때는 겉면에 상처가 없고 눈으로 살펴 초록빛이 선명한 것 중 무겁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잘라서 판매되는 양배추는 단면이 깨끗하고 켜켜이 감겨진 잎의 사이사이가 촘촘한 것이 신선하다.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심부터 상하기 때문에 심을 도려내고 키친타월을 물에 흠뻑 적신 뒤 심이 빠진 자리에 채워 놓는 것이 가장 좋다.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txt

제목: [단독] 저소득층 분유 지원 조손·부자가정으로 확대  
날짜: 20161207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7195116001  
본문: 내년부터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조손·부자가정으로 확대되고 기저귀 지원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span class='quot0'>조손·부자가정처럼 산모가 없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가정도 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평균 구입비용은 월 20만8000원(지난해)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의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40%(올해 3인가구 월143만원) 이하의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득조건만 맞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기저귀와 달리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질병은 에이즈, 알코올·마약 중독, 암 등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조건 탓에 제도 시행 약 1년간 기저귀는 2만5000명이 혜택을 받은 반면 분유는 57명만 지원을 받았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기저귀·분유 예산을 올해 예산의 절반인 100억원으로 줄여 그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사업 예산은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예산 30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년여간 사업을 해본 결과 한 해 100억원 정도 소요돼 그만큼 예산을 잡았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늘어난 예산으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기저귀 지원기간도 생후 1년에서 2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생리대는 대상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0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마련한 30억원으로 올해 3개월치 생리대 사업을 진행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8000명, 지역 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000명이 지원 대상이었다. 대상자 1명당 한 달에 36개씩 3개월치를 받았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생리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올해 3개월치와 같은 30억원뿐이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1인당 지원 개수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이 낳지 않아" vs "아이는 축복"  
날짜: 2016120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7142749001  
본문: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코린 마이에르는 저서 ‘노 키드’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야 하는 이유 40가지를 들었다. 출산이 고통이라던 그는 △ ‘걸어 다니는 젖병이 되지 말라’ △ ‘아이를 집중시키기는 어렵다’ △ ‘무엇을 위해 아이를 기르냐’ △ ‘미래에 소외될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등을 주장했다. 그렇게 말한 마이에르는 두 아이의 엄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출산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후회하느냐’를 놓고 세계 각국 부모의 의견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체도 서두에서 “코린 마이에르는 아이들이 집에서 독립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며 “나중에 그는 아이들 때문에 지쳤으며 집안 경제가 파산 가까이 이르렀다는 한탄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부터 소개할 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지 궁금해진다. ◆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다 나만 엄마가 되고 나서 공허함을 느낀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기분이 좋다. 두 아이를 무척 사랑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아이들을 낳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육비도 무척 비싸게 드는 데다가 그들이 서른다섯이 넘을 때까지는 내 사회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엄마가 된다는 것에 기쁠 이유도 많지만, 적어도 지금은 지쳤고 성취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알렉스)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해 한 사람을 본 적 없다. 나도 그렇다. 우리 애는 여섯 살인데 아직도 아이, 아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다. 엄마가 된다는 건 별로 좋지도 않고, 그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과 만나면 소외감까지 느끼곤 한다. (독일 쾰른, 익명)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산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날 괴롭힐 일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돈도 모았을 거고, 자유로웠을 것이며 무엇보다 걱정거리 따위는 생기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메리) 형편이 기우는 집에서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꼭 대가족을 이루리라 꿈꿨다. 남편과 세 아이를 뒀으니 꿈을 이룬 셈이기는 하다. 하지만 ‘네 소망에 조심스러워져라’ 같은 주위 당부가 뼈아프게 느껴질지는 상상도 못했다. 평소 “엄마!”라는 아이의 비명 없이 욕실에 가거나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해볼 수 없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모두가 기대로 가득하지만, 남편과 조용히 ‘편도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오르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부부는 지난 며칠간 너무 피곤해서 웃어본 적이 없다. 이 같은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 때문에 힘들다는 글을 쓰는 자체도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내 현실이다. (이탈리아, 안드레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너무 지쳤다. 아이들이 크면 걱정거리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천만에. 우리 애들은 지금 24, 26세인데 똑같다. 일찍이 두 아이를 독립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다행히 현재는 따로 나가 살지만, 우리 집과 기다란 끈으로 이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4시간 내내 아이들이 부모를 찾기 때문이다. 두 아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이들을 낳지 않았을 거다. (잉글랜드 하트퍼드셔, 제니퍼) ◆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다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다. 아이 낳는 게 쉬우며 즉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행복해진다는 건 당신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이 종합적으로 얽혔을 때 일어나는 결과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오하이오, 브라이언) 아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난 조금 내성적인데, 우리 아이들 덕분에 담임선생님,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다. 좀 더 여유가 생길 때까지 아이 갖는 걸 미루겠다던 우리 부부에게 어머니께서는 “너희가 아이를 낳을 충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면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국 버지니아, 카렌) 부모가 된다는 건 날 더 사회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예전에 한 번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써준 적 있다. 출판도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경험담이 쏙 담긴 책을 여러 권 쓴 작가가 됐다. 우리 아이들 덕분이다.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겪지도 못했을 일이다. 아들이 세 살 때 처음 호주를 같이 다녀온 뒤로 가장 친한 여행 친구가 됐다.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더 품게 됐다. (잉글랜드 워딩, 샘) 남편을 잃고, 암으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줬다. 병을 이겨 낸 지금은 손주들과 같이 산다. 그중 한 명은 자폐증 환자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음악수업에서 배운 바이올린을 손자에게 가르치는 동안 가장 큰 성취감을 맛봤다. 여성들이 엄마가 된다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걸로 치부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프다. 아이가 없는 세상에는 미래도 없다. (스위스 제네바, 자콜리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txt

제목: 당신이 단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6가지 신호  
날짜: 20161206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6152101001  
본문: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죽게 되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유효 기한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방식과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를 죽음에 더 빨리 이르게 할 수는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치트시트가 저승사자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6가지를 소개했다. 1. 비만 당신이 만약 60대, 70대 또는 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진지하게 당신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이는 BMI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파괴할 수 있다. 과체중은 암, 심장병과 함께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2. 손발톱 상태 손톱은 건강상태를 온전히 보여준다. 만약 당신의 손발톱에서 반점, 이상한 선, 변색 등이 발견되고 겉보기에도 부서질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면? 당신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의 손발톱을 자세히 보고 어떤 것이든 이상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면 의사를 찾아라. 3. 후각 약화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약화된다. 우리는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있는 노인을 봐왔다. 이와 비슷하게 후각도 잃을 수 있다. 나쁜 소식은 후각 손실은 빠른 죽음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냄새 맡는 능력을 잃는 것은 유전자 구성이 바뀌어 활력을 급격히 잃는 것을 의미한다. 후각이 약해졌다면, 죽음이 5년 이내로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4. 악력 저하 의아하겠지만 악력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악력은 심장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의 몸에 피해를 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5. 교육 기간과 성과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도 수명과 관련이 있다.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더 높은 학위를 갖고 있으면 당신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을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신이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살 여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장수와 연관이 있다. 6. 입 냄새 못생긴 손톱처럼 입 냄새도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저녁 식사로 마늘, 양파 등을 먹어 냄새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닌 만성적인 입 냄새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불씨가 된다. 입 냄새는 누군가가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암 또는 다른 치명적 감염병을 앓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txt

제목: 가슴 보형물, 복부로 흘러…"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다"  
날짜: 20161205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5161955001  
본문: 흘러내린 보형물이 손에 잡힐 정도다.가슴 성형에 사용된 보형물이 복부로 흘러내린 황당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최근 요녕성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련시에 사는 W여성이 16년 전에 시술한 가슴확대수술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봤다. W씨는 가슴 성형 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최근 들어 가슴은 점점 작아지고 동시에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고 복부로 흘러내려 간 것을 X선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독성이 강하고 발암유력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PAAG(폴리아크릴 아마이드젤)'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수술을 받은 W씨는 다행히 보형물이 손상되지 않아 건강 이상 등 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삽입된 700cc 보형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는 "PAAG는 다소 과격한 신체 운동을 하면 틈이 생겨 배 또는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술로 보형물을 꺼냈다.한편 중국 일부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불법·부실 성형수술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러한 저가 시술에는 앞서 사용이 금지된 보형물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AG는 강한 독성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2006년 사용이 금지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서치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txt

제목: 비만이 저체중보다 낫다?  
날짜: 20161204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4204049001  
본문: 성인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만 및 과체중이 위암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범진(사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위암 2·3기를 진단받은 211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수술 후 예후를 비교한 결과 저체중 위암환자의 수술 후 사망위험이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환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지표로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눠 계산한다. 비만에 따른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지면서 체질량지수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고 수술 이후 5년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저체중 환자의 생존율이 나머지 3개 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생존율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 23㎏/㎡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두개 그룹으로 나누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연구 결과 체질량지수가 낮은 그룹(23㎏/㎡ 미만)의 암 사망률은 27%로 체질량지수가 높은 그룹(23㎏/㎡ 이상)의 12.6%보다 2배 이상 높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은 체중감소가 많은 암 가운데 하나로 환자가 수술 이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과 같은 체중을 회복하기는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0'>체중 감소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과 관련 있는 근육량 소실 등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span>”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그러나 이번 연구결과가 사망 위험을 줄이려고 일부러 비만하거나 과체중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수술 후에는 후유증 및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질량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수술 후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과 암’(Nutrition and cancer) 최근호에 발표됐다. 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txt

제목: 1년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  
날짜: 20161203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3130221002  
본문:   사람들은 많은 결심을 한다. 특히 체중 감량 혹은 건강한 삶을 위해 숱한 다짐과 노력을 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술자리와 달콤한 초콜릿을 포기할 수 없어 번번이 실패한다.  하지만 고기 먹는 것만 포기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고기를 끊는 것이 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하지만, 식단에서 고기를 제외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을 언급한 연구는 많다.   영국 인디펜던트가 '1년간 육류 섭취를 끊으면 나타나는 몸의 변화' 7가지를 소개했다. 1. 체중이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파운드(약 4.53kg)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연구팀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실험한 결과 고기를 끊으면 섭취 칼로리를 줄이거나 운동을 늘리지 않아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2013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승려들의 체질량지수(BMI)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장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 채식 위주의 식단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춘다. 미국 약학 저널 '메디신 사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4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과 특정 암에 걸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 영양학자 수잔 레빈은 "과체중인 경우 체중의 5~10%만 줄여도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우리가 육식을 끊거나 줄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3. 당뇨병 위험이 줄어든다 국제 학술지 (PLOS Medicine)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고기를 즐기는 사람은 채식주의자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9% 높다. 특히 소시지 등 가공육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38%까지 높아졌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할 경우 2형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34% 줄어들었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의 섭취 증가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4. 암 발병률을 줄인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된 고기를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5. 장내 세균 증식 뉴욕 시립대학교 (City University)의 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은 건강한 장내 세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6. 몸의 산성화를 막는다 육류를 지나치게 즐기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돼 몸이 산성화되고 알레르기 질환,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또 육식으로 인한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돼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육류는 채소보다 세 배나 많은 시간을 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딱딱한 변이 장벽에 달라붙어 대장염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7.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 미국의 채식주의자 마라토너 매트 프래지어(Matt Frazier)는 자신의 저서 ‘노 미트 애슬릿(No Meat Athlete)’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한 이후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더 빨리 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txt

제목: 의사·변호사·회계사 … 전문 직종도 종말 온다  
날짜: 201612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3030427001  
본문: 리처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공저/위대선 옮김/1만8000원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리처드 서스킨드, 대니얼 서스킨드 공저/위대선 옮김/1만8000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한 약국에서는 로봇 약사가 홀로 일하며 200만 건 이상의 처방전을 실수 없이 조제했다. 영국 기업의 세무신고를 처리하는 딜로이트의 세무시스템은 개인 세무 전문가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세무시스템은 250명이 넘는 세무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정보를 정제해낸다.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은 전략 문서를 탐색하고,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듣고 요약하며, 경영조언을 한다. 여러 직업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기자, 건축가 등 전문직은 그 어느 직종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와 독점권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앞으로 전문가의 작업은 상당 부분 시스템 작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전문직 영역인 복잡 미묘한 작업들이 더 작은 부속작업들로 분해되어 시스템화되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이 작업하거나 사고하는 방식을 모방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낼 것이다. 왓슨이나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사고체계가 아니다. 보다 강력한 정보 처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무차별 대입법, 검색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성과를 낼 것이다. 예컨대 외료 분야에서 왓슨은 암 진단을 돕고 치료 계획을 제시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을 고안하는 데도 쓰인다. 의사 한 명이 2014년 새로 출간된 의학서적 중 2%만 읽으려 해도 매일 21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의학 관련 논문은 평균 41초마다 하나씩 출간된다. 왓슨은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진단 지연, 누락, 오진율이 10~20%에 이르는 현재의 의료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저자들은 “<span class='quot0'>따라서 기계와 인간의 경쟁은 무의미해지며, 인간은 기계와 새롭게 협업하고 업무를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span>”고 주장한다. 영국의 산업 컨설팅 전문가인 저자들은 10여 개 전문직종의 변화상을 분석해 전문직 혁명의 흐름과 대응책을 풀이한다. 아울러 전문직의 종말을 알리는 변화 패턴을 분석해내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역량과 경쟁력을 풀어낸다. 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txt

제목: 65세 남성 18.2년·여성 22.4년 더 산다  
날짜: 20161202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2194214002  
본문: 현재 65세 한국 남성이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처음으로 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1년이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85.2년으로 남자보다 6.2년 더 긴 것으로 예측됐다. 남녀 대부분 암·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자살 등 5대 사망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았다. 2일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9년, 여자는 85.2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년, 0.1년 증가했다. 남녀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기대수명 증가로 이어졌다. 1970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20.2년, 여자는 19.4년 기대수명이 늘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1.1년, 여자는 1.9년 더 높았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체 12위였으며 남자 18위, 여자 7위를 기록했다. 특히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지난해 18.2년으로 OECD 평균(17.9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2.4년이었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008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2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7.1년) 이후 증가해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남자의 기대수명이 개선되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5.4년)보다 높으며 일본(6.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컸던 1985년 당시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4∼5배 높았지만 이후 간질환 사망률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span>”고 설명했다. 남녀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했지만 80세 이상 여자는 전년과 비교해 0.0~0.1년 감소했다. 작년 출생아는 앞으로 5대 사망원인 중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남자는 27.3%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고, 여자 역시 16.1%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남자 9.7%, 여자 12.6%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자 8.6%, 여자 10.0%로 3위였다. 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4%)으로 숨질 가능성이 암보다 컸다. 암이 제거된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5.1년, 여자는 2.9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txt

제목: 65세 남성 기대여명 18.2년(83.2세)로 처음으로 OECD평균 넘어서  
날짜: 201612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2133243001  
본문: 현재 65세 한국 남성이 앞으로 14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여명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 수명은 82.1년으로 여자의 기대 수명이 6.2년 더 긴 것으로 예측됐다. 암·심장질환·폐렴·뇌혈관질환·자살 등 5대 사망원인 중 남녀 대부분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았다. ◇ 65세 기대여명, OECD 평균보다 남자 0.2년·여자 1.1년 길어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다. 남자의 기대 수명은 79년, 여자는 85.2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년, 0.1년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1.1년, 여자는 1.9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전체 12위였으며 남자 18위, 여자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남녀 간 기대 수명 격차는 6.2년으로 전년보다 0.2년 감소했다. 남녀 간 기대 수명 격차는 1970년(7.1년) 이후 증가해 1985년 8.6년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남자의 기대 수명이 개선되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남녀 간 기대 수명 차이는 OECD 평균(5.4년)보다 높으며 일본(6.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녀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했지만 80세 이상 여자는 전년과 비교해 기대여명이 0.0~0.1년 감소했다.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고령층의 기대여명은 지난해 65세의 경우 남자가 더 개선 폭이 컸고 75·85세는 여자가 더 컸다. 특히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지난해 18.2년으로 OECD 평균(17.9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2.4년이었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008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6.5%, 여자 77.7%로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970년과 비교하면 무려 44.9%포인트, 4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 암 안 걸리면 남자 5.1년·여자 2.9년 더 산다 작년 출생아는 앞으로 5대 사망원인 중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27.3%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고, 여자 역시 16.1%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남자 9.7%, 여자 12.6%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자 8.6%, 여자 10.0%로 3위였다. 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4%)으로 숨질 가능성이 암보다 컸다. 2014년과 비교해 작년 출생아의 사망 확률이 증가한 원인을 보면 남자는 폐렴(1.2%포인트)과 심장질환(0.2%포인트), 여자는 폐렴(0.8%포인트)과 심장질환(0.3%포인트),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0.2%포인트) 등이 꼽혔다. 반면 남자는 폐암(-0.4%포인트), 뇌혈관 질환(-0.3%포인트) 등이, 여자는 뇌혈관질환(-0.4%포인트), 위암(-0.2%포인트)의 사망 확률이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암과 심장질환, 폐렴을 비롯한 호흡계통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늘었다. 반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은 가장 많이 줄었다. 암이 제거된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남자 5.1년, 여자는 2.9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자는 각각 1.5년, 1.2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는 이 경우 기대 수명이 각각 1.3년, 1.1년 증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txt

제목: 당신이 매일 저지르는 나쁜 건강 습관 5가지  
날짜: 20161201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201102439001  
본문: 건강을 위해 매일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종합비타민 등을 챙겨 먹고 있는가?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일 건강에 나쁜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가. 미국 폭스뉴스가 시간대별로 당신이 매일 저지르는 건강 관련 실수 5가지를 소개했다.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만 챙기지 말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챙겨보자. 오전 7시. 아침 식사 직후에 양치질한다 특히 과일이나 주스 같은 산성 식품을 먹은 직후에 양치질하면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당신의 이가 변색되거나 금이 가거나 빠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식사 후 입을 헹구고 40분 정도 기다려라. 당신의 침 속에 있는 칼슘이 에나멜을 다시 굳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양치질하라. 오전 8시 30분.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 도로와 붙어있는 지역은 대기오염도가 교외 지역의 최대 10배에 이를 수 있다. 디젤 가스는 두통, 암,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의 ‘재순환’ 버튼을 눌러 공기를 순환시켜라. 이렇게 하면 미립자로 된 오염물질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오후 1시. 플라스틱 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BPA 프리(비스페놀A-free)' 제품인가? 이것이 일반 제품보다 더 낫긴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순 없다. 프탈레이트가 여전히 음식에 녹아들 수 있고, PC 소재 플라스틱 그릇은 잠재적으로 정자와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려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플라스틱 그릇 혹은 유리그릇을 사용하라. 오후 7시 30분. 맥주 한 잔 마신 후 운전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지 0.01%에 불과해도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운전사고 발생 확률이 무려 46%나 높다. 술을 마시기 전에 껌을 씹어라. 미리 껌을 씹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30%까지 줄일 수 있다.  오후 10시 30분. 잠자기 전에 업무 관련 이메일을 본다  오후 9시 이후 스마트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깨어난다는 것을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팀이 밝혀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족한 수면이 뇌졸중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txt

제목: 두 얼굴의 유방암, 올바른 예방법…KBS1 ‘생로병사의 비밀’  
날짜: 20161130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30153340001  
본문: .30일 오후 10시 KBS1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유방암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관리법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여성에게 유방은 신체의 일부를 넘어 여성성의 상징이자 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다. 이런 까닭에 유방암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상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지난해 14만1379명으로 4년간 35% 증가했다. 최근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특징은 연령대의 변화다. 2010년까지 유방암 환자는 폐경 전 30∼40대에서 많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발병이 크게 증가했고, 현재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유방암의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여성호르몬의 노출시기가 길수록 유방암 발병 확률은 높아진다. 이 때문에 여성호르몬이 급감하는 폐경기가 되면 여성들은 유방암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경 이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의 안전지대라 여겼던 폐경기에 유방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유방암 환자가 20∼80대까지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여성이라면 전 세대에 걸쳐 유방암 공포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변이 유전자 검사 건수는 2012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1997년 유방암 선고를 받았지만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던 한희숙씨. 그러나 10년 후 유방암이 다시 찾아왔다. 희숙씨는 재발로 인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유방암은 수술 수 생존율이 91.2%에 이르는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희숙씨처럼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꼬리가 긴 암’으로도 불린다. 착한 암인 동시에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지독한 암인 셈이다. 두 얼굴을 가진 유방암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성의 가슴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관리법과 예방법을 살펴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KBS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txt

제목: 문턱 낮아진 실버보험… 든든한 노후 맞이를  
날짜: 20161130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30030342001  
본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다. 둘 중 한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셈이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해결이 중요하다.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에 지출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준비의 최적 수단은 보험이다. 목돈이 들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나이나 병력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속속 쏟아내는 등 실버고객 잡기에 한창이다. 경제력이 갖춰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치매 간병비 지급, 노인질환 종합보장… 다양한 노후보장상품 노후보장성보험은 노후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비, 치료비 등 노후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건강, 암, 실버보험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고령 고객에 맞춘 ‘(무)수호천사시니어보장보험’을 내놨다.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년을 위한 상품으로 재해사망, 인공관절, 백내장, 녹내장 등 시니어 특정 6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재해골절 치료비 등을 보장해준다. 또 중증치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특약을 통해 노인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60∼75세까지 가입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실버암보험’을 판매 중이다. 당뇨·고혈압 환자도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암 진단 시 고액암은 5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 각 4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만약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는 면제되고 보장은 갱신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고객은 월 보험료 5%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는 추가로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플러스 실버케어보험’은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증치매나 일상생활 장해 상태 등 장기간병상태로 진단받으면 일시 보조금과 매월 장기간병연금 등을 지급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40∼70세다. 최근 출시되는 노후보장성보험은 대부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삼성생명 ‘간편가입 보장보험’은 보험 가입 시 별도의 진단이나 서류제출 없이 3가지 정도 고지만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사망과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주요질병의 수술·입원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50∼75세다.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실버보험도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신한생명의 ‘신한THE참좋은실버보험’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노후보장성보험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3대 질병인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보험료는 올라가 이처럼 실버 세대를 겨냥한 유병자보험은 가입 조건을 크게 완화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갱신할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유병자보험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질병 종류에 관계 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했다. 대신 가입요건 완화에 따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1.1∼2배 비싸다. ‘실버암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혈압·당뇨 수치를 확인해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으며 이 상품은 일반보험 대비 2∼3.5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이다. 모든 질병과 치료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이 생략되고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없다. 단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일반 보험보다 5배 비싸다. 반면 보험금은 통상 1000만∼3000만원으로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적다. 유병자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txt

제목: "두 아들만은 함께 살게 해주세요"…간암 엄마의 소원  
날짜: 2016112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9113231001  
본문: 홀로 두 형제를 키우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의 ‘아들들만은 떨어져 지내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이 이뤄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신민망과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후난(湖南) 성 주저우(株洲) 차링(茶陵) 현에 사는 리우(42·여)씨는 각각 아홉 살, 열한 살 난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앞선 26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래전 사별한 리우씨는 아들들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배운 게 없는 탓에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길거리서 물건을 팔거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리우씨는 두 아들이 대학에 가는 걸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그는 올해 초 간암 판정을 받았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져 남은 건 아들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시부모에 이어 남편까지 하늘로 떠난 터라 리우씨가 죽는다면 두 아들을 돌볼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신민망은 “이들의 사연을 안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며 “베이징, 광저우, 충칭 등 여러 곳에서 입양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리우씨는 대부분 한 명씩만 키우고 싶어 한다는 말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들만은 함께 있게 하고 싶었다. 그래야 부모 없는 하늘 아래 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다. 다행히 한 여성이 두 소년을 모두 입양하기로 하면서 리우씨의 아들들은 떨어져 지내지 않게 됐다. 사연을 접한 차링 현 당국 관계자들은 논의 끝에 두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신민망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txt

제목: "밖은 위험해"…2년간 집에 자기 가둔 모친 살해  
날짜: 2016112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9112155001  
본문: 자신을 2년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망쳤던 중국의 10대 청년이 범행 일주일 만에 공안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년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과 시나닷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 살던 왕 싱(17)군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올 9월22일 공안에 붙잡혔다. 왕군은 같은달 15일, 칭다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주일 동안 지난(濟南)과 청두(成都) 등으로 도피행각을 펼치다 수사망을 좁혀온 공안에 결국 체포됐다. 왕군이 어머니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는 이들은 저마다 기막힌 사연에 혀를 찬다. 왕군의 어머니 리씨는 사별 후, 2년간 아들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친지와 교류도 거의 끊긴 상황에서 연락하는 사람이 없던 그는 “집 밖은 위험해”라며 아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근처에 사는 왕군의 조부모조차 손자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끓던 왕군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다. 범행 후, 그는 1200위안(약 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인민망은 “왕군의 아버지는 2004년에 암으로 사망했다”며 “리씨는 아들의 행방을 묻는 이들에게 ‘학교에 갔다’거나 ‘일하러 나갔다’고 말하기만 할 뿐 좀처럼 왕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왕군은 첫 재판에서도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사회성 결여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한 검사는 시나닷컴에 “<span class='quot0'>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바깥 세계와 전혀 교류가 없던 그는 분노를 제때 해소하는 방법조차도 배울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비극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법원이 왕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중국 시나닷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txt

제목: 건강검진자 10명 중 6명 '이상'…고혈압·당뇨 많아  
날짜: 20161127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7192001002  
본문: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정상 판정을 받는 비율이 4년 새 6.6%포인트나 줄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을 받은 비율은 57.2%에 달했다. 나머지 42.8%는 건강이 양호한 정상A(7.9%) 혹은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B(34.9%)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는 비율은 2011년 49.4%에서 2013년 46.5%로 줄어든 뒤 지난해 42.8%로 떨어졌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건강검진 정상판정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74.4%에 달하지만 40대는 47.0%로 정상비율이 절반도 안 되고 60대와 70대는 각각 25.6%와 17.9%로 뚝 떨어졌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돼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만명이 당뇨병, 15만4000명이 고혈압으로 최종 판정됐다. 2차 검진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50대(6만4000명)와 40대(4만4000명)였고, 당뇨병과 고혈압 판명 비율은 40대(55.3%)와 30대(54.0%)가 가장 높았다. 비만율은 34.1%로,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가 차츰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20∼30대 비만율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만율이 올라가 60대에 남성 비만율을 추월, 70대에는 39.3%로 최고치를 보였다. 비만과 관련이 깊은 대사증후군 역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반 건강검진은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도 5대 암검진, 생애전환기(만 40세 및 66세) 건강진단, 영유아(생후 4∼71개월) 건강검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체로 늘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txt

제목: 온몸 덮은 종양 5500여개…창피하지만 좀 도와주세요  
날짜: 2016112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5113813001  
본문: 신경섬유종증을 앓는 미국의 한 여성이 종양 5500여개로 뒤덮인 사진을 공개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수차례 수술받았지만 그때뿐이었던 여성은 자기 병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사는 립비 허퍼는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다.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하는 이 병에 걸리면 신경이 있는 신체 부위 어디든 종양이 생겨날 수 있다. 허퍼가 처음 신경섬유종증 진단을 받은 건 다섯 살 때지만 이후에도 몸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종양이 여기저기 생기더니 빠르게 몸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허퍼를 멀리했다. 전염병 환자처럼 대했다. 따돌림은 일상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그를 놀리기까지 했다. 현재 허퍼의 몸에는 5500개가 넘는 종양이 있다. 여러번 수술대에 올랐지만 그때뿐이었다. 수술로 없어지는가 싶었던 종양은 또다시 생겨나 허퍼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다행히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고통에 하루하루가 힘겹다. 허퍼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상체 사진을 공개했다. 신경섬유종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중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사진 공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허퍼에게는 최후의 수단이다. 허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내 긴소매 티셔츠나 긴바지만 입어야 했다”며 “사람들에게 몸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옷으로 몸을 가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모금운동 사이트 ‘고 펀드 미’에서 게재된 허퍼의 사연에는 지금까지 네티즌 397명이 참여해 총 1만2900달러(약 1523만원)가 모였다. 해당 페이지 목표액은 2만3500달러(약 2774만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txt

제목: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코레프’ 완성됐다  
날짜: 20161124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4235451001  
본문: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도와줄 한국인 표준 게놈(genome·유전체)지도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소장 박종화)는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코레프(KOREF: KORean REFerence)’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4일 공개했다. 코레프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41명(남자 26명·여자 15명)의 게놈 정보를 통합·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연구팀은 한국인 1명의 30억개의 염기서열을 정밀하게 분석해 게놈지도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40명의 유전체 데이터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염기서열의 차이를 뽑아냈다. 미리 만들어둔 한 명의 정밀 게놈지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전체 염기서열로 표준 게놈지도를 완성했다. 한국인이라는 생물종의 대표 유전체지도를 만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게놈지도를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코레프 제작에 활용된 한국인 41명의 지역 분포. UNIST 제공인간 게놈지도는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완성됐다. 하지만 백인 중심의 자료여서 인종별 특징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2009년 중국에서 중국인 1명과 흑인 1명의 게놈지도 초안을 발표했지만, 완성도와 정확도가 떨어져 활용하기 어려웠다. 백인 중심의 게놈지도와 한국인의 유전체를 비교하면 염기서열 중 유전체가 변이된 부분은 400만개가 나타난다. 하지만 코레프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300만개로 줄어든다. 100만개의 게놈은 인종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암이나 유전질환이 발생했을 때 분석해야 할 게놈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분석속도를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레프가 제작되면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민족 간 게놈 차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염색체 8번은 한국인 표준 게놈에선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인간 표준 게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코레프를 통해 한국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게놈지도 작성을 대중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간 표준 게놈지도는 13년간 3조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이번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약 20억원에 불과하다. 정확도 역시 뛰어나다. 코레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표준 게놈지도로 등록됐다. 병원이나 제약사의 질병 연구나 신약 개발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txt

제목: 앞당겨 한 11월의 크리스마스 파티…18년간 배달될 편지 선물도  
날짜: 2016112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4155236001  
본문: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빠가 10개월 된 아들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잉글랜드 페븐지에 사는 클라크 가족으로, 가족은 지난 20일 한 달 정도 앞당겨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11월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남편인 제이 클라크(41)가 암으로 내년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서였다. 2년 전 만난 클라크와 캐롤린 도노휴(37)는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아들 맥시를 얻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캐롤린이 임신 7개월이었던 지난 10월 클라크는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다. 다행히 올해 1월 아들 맥시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된 그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게 됐고 지금은 방사선 치료마저 중단한 상태다. 이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는 인공 눈 장비까지 동원해 아들에게 생애 첫눈을 보여줬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잊지 않으며 행복한 파티를 열었다. 클라크는 "사랑하는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아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간 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아들이 성장하면서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클라크는 아들을 위해 18년간 배달될 편지를 미리 써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영국 미러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txt

제목: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미슐랭 레스토랑이 사랑한 샴페인 듀발 르로이  
날짜: 20161124  
기자: 최현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4060231001  
본문: 듀발 르로이 대표 샴페인.2003년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레스토랑 ‘라 코트 도르’를 운영하던 천재 셰프 베르나르 루아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최고 등급 3스타를 받은 자신의 레스토랑이 2스타로 강등될 것을 걱정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지난 1월 31일 스위스 로잔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오텔 드 빌’을 운영하던 유명 셰프 브누아 비올리에가 집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총상을 당한채 발견됩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새 평점 발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1900년 창간돼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슐랭 가이드는 이처럼 셰프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전세계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얼마전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이 발간됐습니다. 미슐랭이 한국 레스토랑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레스토랑 140여곳과 호텔 30여곳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그중 미슐랭 1∼3스타를 받은 곳은 모두 24곳인데 신라호텔서울의 한식당 라연과 청담동의 한식당 가온이 3스타를 받아 큰 화제가 됐지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와인이 곧 맛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지 정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여행할때 중요한 가이드가 됩니다.  이런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사랑한 와인이 있습니다. 프랑스 샴페인 하우스 듀발 르로이(Duval Leroy) 입니다. 이 샴페인은 현재 전세계 70개국 미슐랭 레스토랑 250곳에서 서비스돼 ‘가스트로노미(Gastronomy)‘ 와인으로 잘알려져 있답니다. 가스트로노미는 ‘미식’이라는 뜻으로 말그대로 음식의 풍미를 더욱 붇돋아주는 와인입니다. 듀발 르로이 로고 듀발 르로이는 1859년 설립돼 157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샴페인 하우스랍니다. 와인을 유통하는 네고시앙이던 에두아르 르로이(Edouard Leroy)와 포도 생산자이자 양조자인 줄 두발(Jules Duval)이 합작해 만든 와이너리로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듀발 르로이로 이름을 붙였지요. 현재까지 단한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고 가족경영을 유지하는 샴페인 명가이지요. 프랑스 상파뉴에서 유명한 생산지인 라 꼬뜨 데 블랑(La Cotes des Blancs)에서도 중심지인 베르투스(Vertus)에서 샤르도네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 꼬뜨 데 블랑은 백악질과 석회질로 이뤄진 차가운 성질의 토양으로 햇볕을 머금어 포도를 잘 익게 하면서도 산도를 잘 유지해 최고급 품질의 샤르도네가 나오는 곳입니다. 참고로 상파뉴에서 재배하는 포도 품종은 3종류로 샤르도네, 피노 누와, 피노 므니에입니다. 꼬뜨 데 블랑에서는 샤르도네, 랭스 언덕(montagne de Reims)에서는 피노 누와, 에페르네를 중심으로한 마른 계곡(vallee de la Marne)에서는 피노 뮈니에를 주로 재배합니다. 듀발 르로이 가족들 듀발 르로이는 프랑스 샴페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1888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에서 열린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품질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1911년에는 샹파뉴에서 최초로 당시 최고 등급 포도밭인 프리미에 크뤼(1er Cru) 포도만으로 빚은 플뢰르 드 샴페인(Fleur de Champagne)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당시는 프리미에 크뤼 포도만으로 샴페인을 빚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에 크뤼의 포도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 밑의 낮은 등급의 포도를 섞어서 샴페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샴페인의 등장은 전세계 와인업계에 충격을 줬고 샴페인 시장의 흐름을 듀발 르로이가 주도하게 됩니다.  듀발 르로이 팜므 드 상파뉴 듀발 르로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1990년 팜므 드 샹파뉴(Femme de Champagne)의 탄생입니다. 이 와인은 최고급 포도즙인 프레스티지 뀌베(Prestige Cuvee)로 만든 첫번째 샴페인이랍니다. 뀌베는 보통 포도를 압착할때 나오는 첫번째 즙을 말합니다. 무려 10년을 숙성한 뒤 세상에 선보이는 이 샴페인은 향긋한 흰꽃의 뉘앙스가 인상적이고 복합적인 아로마가 입안을 가득채워 한 번 마시면 그 맛을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듀발 르로이 로제의 빛깔 하지만 이 샴페인은 슬픈 스토리를 지녔습니다. 안타깝께도 첫 빈티지가 나오기 전에 모든 양조 과정을 지휘한 남편이 암선고를 받고 아주 짧은 투병끝에 타계하는 바람에 현 오너인 캐롤 듀발 르로이(Carol Duval Leroy)여사가 1991년 불과 35세의 나이로 듀발 르로이의 경영을 맡게됩니다. 팜므 드 샴페인에는 여자가 만드는 샴페이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캐롤은 원래 미슐랭 가이드가 인정하는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려고 했다는군요. 그러나 1859년이래 한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고 가족경영으로 꾸려온 샴페인 하우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3남매를 홀몸으로 키우면서도 모든 열정과 혼을 샴페인의 품질 개선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94년 상파뉴 지역에서는 최초로 품질 인증인 ISO9002를 받을 정도로 샴페인 품질을 높였습니다. 좀더 나은 환경의 포도밭을 물려주기 위해 물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도 시작합니다.  또 1994년 남자들의 전유물이던 포도재배지 관리에 여성들을 고용하고 2005년 수석 와인메이커도 여성을 고용해 매우 섬세하게 포도밭을 관리하고 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캐롤 여사는 2007년 프랑스의 최고 권위의 훈장인  레종 오브 아너(Legion of Honour)상을 수상하고 샴페인 재배자 연합 회장도 역임하게 됩니다. ■듀발 르로이 대표 와인들  듀발 르로이 브륏 리저브 NV 듀발 르로이 브륏 리저브 NV (Duval Leroy Brut Reserve NV)는 피노 누아, 피노 뮈니에  90%, 샤르도네 10%다. 랭스 언덕과 마론 계곡 일대 15개의 그뤼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다. 2~3개 빈티지의 리저브 와인을 35~40% 가량 사용한다. 30~36개월동안 2차 병 숙성하고 도사지(Dosage)는 8g/ℓ다. 다크 초콜렛과 시나몬 향, 구운 노란 무화과 향이 기분 좋게 시작된다. 복합미가 뛰어난 샴페인으로 파워풀하면서 세련된 바디감을 지녔고 버블은 매우 섬세하다. 2008년 와인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선정됐다. 듀발 르로이 로제 프레스티지 프리미에 크리 NV 듀발 르로이 로제 프레스티지 프리미에 크리 NV(Duval Leroy Rose Prestige Premier Cru NV). 피노 누아 80%, 샤도 20%다. 이 샴페인 그랑 크뤼밭의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만 쓴다. 이 샴페인 특별한 것은 세니에(saignee) 방식으로 양조한 명품 와인이라는 점이다. 로제 샴페인을 만든는 방식은 2가지다. 베이스 와인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2차 발효를 하는 방법이다. 물감을 섞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또 하나가 세니에다. 이는 와인메이커가 고수라야 가능하다. 세니에는 적혈, 헌혈, 뽑아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니에는 화이트와 레드 양쪽의 포도즙만 짜낸 뒤 다시 레드 껍질을 넣어 마세라시옹(maceration·침용)을 한다. 레드 껍질의 성분과 색깔을 뽑아내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쉽지않다. 보통 8∼12시간의 짧은 시간에 마세라시옹을 하는데 잘못하면 탄닌감이 생기고 만다. 샴페인은 차게 마시는 와인이라 탄닌감이 있으면 안된다.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오래가면 레드 껍질 성분이 과도하게 우려나기 때문에 침용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대량으로 로제 샴페인을 만드는 하우스는 베이스 와인의 블렌딩 비율을 맞춘다. 그렇다면 세니에 방식으로 만든 로제 샴페인은 무엇이 좋을까. 바로 빈티지 샴페인과 맘멎는 화려한 꽃향기 등 아주 좋은 복합적인 풍미를 얻을 수 있다. 듀발 르로이는 또 피노 누아의 퀄러티를 잘 유지하고 떼루아의 아로마를 살리기 위해 16∼20도에서 발효를 진행하고 30~36개월 병 숙성을 한다. 신선한 야생 체리, 라즈베리, 잘 익은 무화과로 시작된다. 이어 진저 브래드가 살며시 따라오면서야생 들꽃향이 향긋하게 피어난다. 과실 향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실키한 버블이 인상적이다. 기분 좋은 산도와 여운이 조화롭게 이어진다. 듀발 르로이 블랑드블랑 그랑크뤼 2006 듀발 르로이 블랑드블랑 그랑크뤼 2006(Duval Leroy Blanc de Blanc Grand Cru 20006)은 샤르도네 100%다. 꼬뜨 데 블랑의 그랑크뤼 밭 6곳의 샤르도네로 만든다. 2006년 사됴 작황 굉장히 좋아. 그랑크뤼 밭 샤도 만 꼬드데블랑 6개 그랑크뤼 밭에서. 그랑 크뤼 밭별로 수확, 양조를 따로 한다. 각자 9개월 오크 숙성한 뒤 블렌딩해 2차 발효한 뒤 5~7년동안 병숙성 과정을 거친다. 뀌베급 샴페인은 보통 최대 36개월 숙성하는데 듀발 르로이는 두배 이상 병숙성 과정을 거친다. 특히 효모찌꺼기과 같이 숙성하기 때문에 이스트향 등 풍미가 굉장히 깊다. 구운빵 내음도 느낄 수 있고 산미가 잘 받쳐준다. 향긋하게 피어 오르는 흰 꽃과 달콤한 감귤, 복숭아의 향이 매혹적이다. 갓 구어낸 아몬드와 숙성된 효모의 향, 파워풀하면서도 실키하게 퍼지는 섬세한 버블, 기분좋은 산도와  토스티한 질감이 조하롭게 잘 어우러져 있다. 듀발 르로이 팜므 드 상파뉴 로제 드 세니에 2007 듀발 르로이 팜므 드 상파뉴 로제 드 세니에 2007(Duval Leroy Femme de Champagne Rose de Saignee 2007)는 피노 누아 100%로 만든 로제 빈티지 샴페인이다. 포도 농사가 잘된 특별한 해의 피노 누아를 사용해 세니에 방식으로 18시간 동안 색과 성분을 추출하고 젖산 발효를 한다. 병숙성은 최소 5~7년이며 도사주는 3g에 불과에 드라이한 샴페인이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향과 야생 붉은 꽃으로 시작되고 섬세한 미네랄과 숙성된 복합적인 부케가 매력적이다. 섬세한 기포와 파워풀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도 인상적이다.  듀발 르로이 팜프 드 상파뉴 2000 듀발 르로이 팜프 드 상파뉴 2000(Duval Leroy Femme de Champagne 2000)은 샤르도네 95%, 피노 누아  5%를 섞은 빈티지 샴페인이다. 6개 그랑크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중 20%는 오크배럴에 숙성한 뒤 블렌딩 한다. 프레스티지 뀌베는 보통 6년정도 병숙성하는데 이 샴페인은 10년정도의 매우 긴 병숙성기간을 거친다. 도사주는 6g이다. 브리오슈, 바닐라향, 우드의 아로마와 레몬과 감귤등의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번갈아 느껴진다. 향긋한 흰꽃의 뉘앙스가 인상적이며 섬세하고 우아한 기포, 숙성된 복합적인 아로마와 함께 입안 가득 실키한 텍스쳐가 느껴진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txt

제목: ‘고산병 치료’ 위해 비아그라 구입 ?  
날짜: 20161123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3191155001  
본문: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을 구입해 ‘고산병 치료’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5년 전 비아그라가 고산병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까지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감염내과)는 “<span class='quot0'>통상 고산병 치료에는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사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비아그라는 써볼 수 있다는 정도이지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span>”고 말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 교수(암관리정책학)도 “<span class='quot1'>비아그라가 고산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외국 논문이 나왔을 정도</span>”라고 밝혔다. 고산병 치료제로는 통상 아세타졸아마이드나 덱사메타손을 처방하고 있다. liebertpub 사이트에 공개된 논문 캡처 화면. 해당 논문에는 비아그라 등은 고산병 치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돼 있다. 외국에서는 5년 전 비아그라 등이 고산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까지 발표된 바 있다. 영국의 매슈 G D 베이츠 외 6인이 2011년 발표한 논문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고산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이들은 고산병에 대한 실데나필의 일상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고산병 증세 중 하나인 급성산성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span class='quot2'>주치의가 자문의에게 고산병 치료제로 처방받은 약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남미 순방 때 아세타졸아마이드만 챙겨 고생을 많이 해 아프리카 순방에는 비아그라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 이복진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txt

제목: [단독] 청와대 '고산병 치료' 반박 논문 5년전 나와…다른 용도 아니냐 의혹  
날짜: 20161123  
기자: bok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3135038001  
본문: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팔팔정을 구입해 ‘고산병 치료’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오히려 고산병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이미 5년 전에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학계에서는 청와대의 해명이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의 Matthew G D Bates 외 6인은 지난 2011년 ‘Sildenafil citrate for the prevention of high altitude hypoxic pulmonary hypertension: double 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란 제목의 논문을 High Altitude Medicine & Biology를 통해 발표했다. liebertpub 사이트에 공개된 논문 캡처 화면. 해당 논문에는 비아그라 등은 고산병 치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돼 있다.해당 논문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구연산염(실데나필)이 고산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성인 62명(남자 36·여자26)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데나필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고산병 예방을 위해 실데나필의 일상적 예방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실데나필이 고산병 증세 중 하나인 급성산성질병(AMS)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증세인 폐동맥 수축기 압력(PASP)에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와대가 고산병 예방에 사용했다는 해명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 교수(암관리정책학)는 “<span class='quot0'>과거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해당 논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청와대의 해명은 쉽게 이해가 안된다</span>”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고산병 치료에는 아세타졸아마이드를 사용한다”면서 “고산병 치료가 아니었다면 직원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http://online.liebertpub.com/doi/abs/10.1089/ham.2011.000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txt

제목: 당신이 몰랐던 커피의 이상한 점 9가지  
날짜: 20161123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3095907001  
본문: 당신이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길거리에 커피숍이 즐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커피를 몇 잔씩 마시고 있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어바웃닷컴이 당신이 몰랐던 커피에 관한 9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1. 커피는 곤충을 마비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곤충들을 죽일 수도 있다. 카페인은 식물의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또한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가정용 애완동물에게 유독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이 하루 적정 섭취량의 50배 이상 커피를 마실 때이긴 하지만 커피는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신은 환각, 위산 역류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2. 카페인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디카피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상,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몸에 위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억하라. 커피는 중독성이 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볼 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된다. 기본적으로 커피는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는 당신을 변비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는 커피가 탈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 정반대의 증상을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커피의 생화학적 성분이 사람들을 화장실로 더 자주 보낸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4. '똥'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최고의 커피는 ‘똥’을 이용한다. ‘위즐커피’라고 불리는 이것은 사향족제비를 이용하는 커피 원두다. 사향족제비는 베트남에 서식하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사향고양이처럼 잘 익은 커피 열매를 먹고 원두의 쓴맛과 떫은맛이 제거된 씨앗을 배출한다. 이 씨앗을 원주민들이 채집해 세척한 후 햇볕에 말린 것이다. 외국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재료를 잘 살펴보도록 하라. 5. 커피는 과일이다 커피콩은 실제로 과일 씨앗이다. 커피나무에 열린 열매의 씨앗이 커피콩이다. 그런데 왜 콩이라고 불릴까? 생김새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6. 마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차의 경우는 설탕과 우유로만 맛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커피는 우리가 미처 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많은 선택사항이 있다. 시럽의 종류만 따져도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바닐라 시럽 등이 있고 쿠키, 초콜릿, 아몬드 등을 토핑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7. 커피 알레르기가 존재한다 모든 음식에는 알레르기가 존재한다. 음식 알레르기는 직업과 연관될 때 심해질 수 있다. 커피 공장 근로자들은 볶지 않은 커피콩과 볶은 커피콩 먼지에 노출됐을 때 코 알레르기, 천식과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따라서 당신은 커피 공장을 둘러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8.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커피는 사망률과 특정한 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당신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몇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커피는 당신에게 좋다는 뜻이다. 9. 얼음물은 커피콩이 잘 볶아졌는지 알려준다 이 단순한 방법은 진짜 효과가 있다. 얼음물을 가득 채운 잔에 커피콩 1 테이블 스푼을 넣어봐라. 몇 분이 지나도 커피가 물에 녹지 않고 물 위에 그대로 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볶아졌다는 것이다. 만약 녹아내린다면, 커피콩이 많이 볶아졌거나 덜 볶아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당신이 가격만큼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비싼 ‘고급’ 커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txt

제목: 갑상선암 발생률 지역별 최대 15배 차이  
날짜: 20161122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2194827001  
본문: 지역에 따라 암 발생률이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많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 발생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암은 남녀 모두 갑상선암이었다. 남성은 2004∼2008년 갑상선암 발생률(주민 10만명당 진단자)이 가장 높은 지역(전남 여수시 37.7명)과 가장 낮은 지역(강원도 동해시 2.6명)의 격차가 14.5배에 달했다. 여성도 2008년까지 갑상선암 최고·최저 지역의 발생률이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성 담낭 및 기타 담도암(8.4배), 남성 전립선암(5.8배) 등도 격차가 컸다. 반면 위암과 폐암, 대장암은 격차가 2배 수준으로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최근인 2009∼2013년 여성 암 중 가장 발생률이 높은 것은 갑상선암으로 전국 평균 110.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광양시가 185.1명에 달해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갑상선암 검진율이 발생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갑상선암 검사가 증가하면서 암 진단자가 늘어났고 상당수는 과잉진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라도는 갑상선암 검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서울·대전 등지에서 검진율이 올라가면서 갑상선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유방암(전국 평균 49.5명)은 서울 서초구(65.1명)와 강남구(64.4명)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성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위암(전국 평균 63.0명)으로 최고 지역은 충남 청양군(94.3명)이었다. 또 충북 보은군(92.8명), 충북 옥천군(90.2명) 등 주로 충청도 경계 지역에서 환자가 많았다. 간암은 경북 울릉군(83.4명)과 경남·전남의 남부지역,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낙동강 유역 인근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과 전남은 주민의 높은 B·C형 간염 항체 유병률, 낙동강 지역은 민물고기 생식 습관에 따른 장내 기생충 감염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과 폐암, 위암은 특정 지역에서 왜 발생률이 높은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txt

제목: 유방암· 전립선암 강남, 서초, 분당서 많아…시군구별 암발생률 2~15배 차이  
날짜: 201611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2161442001  
본문: 시군구별 암발생률이 암 종류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갑상선암 발생은 대도시에 집중됐고 시군구별로 무려 최대 15배의 차이가 났다.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 발생이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서 많아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단위로 15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가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 대상이 된 암은 총 24종으로 정부는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를 지역별 암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갑상선암 발생률, 지역별로 15배까지 차이나  지역별 암발생률(거주민 10만명당 암 진단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2004∼2008년 구간에서 남자 기준으로 14.5배를 기록했다. 갑상선암은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지역 대부분과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했다. 2009∼2013년 남자 갑상선암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로 5년간 인구 10만명당 47.7명의 환자가 나왔고, 여자 환자 최대 발생지는 광양시로 인구 10만명당 185.1명이 발생했다. 갑상선암 발생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횡성, 동해, 정선, 평창, 삼척 등 강원지역이었다. 횡성에서는 남자 10만명당 3.8명, 삼척에서는 여자 10만명당 44.6명이 발병했다. 갑상선암 발생 증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사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과잉진단(overdiagnosis)으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갑상선암 다음으로 담낭 및 기타 담도암(6.0배)과 전립선암(5.8배)도 지역별 차이가 컸고, 위암(2.2배), 폐암(2.2배), 대장암(2.3배)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 유방암과 전립선암, 강남·서초·분당서 많이 발생 대표적인 서구형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 서초, 경기 분당에서 많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강남 3구와 분당 거주자는 초경 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 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발생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장수, 순창, 강원 정선 등이었다. ◇ 간암은 울릉과 경남· 전남 등, 대장암은 대전시와 충청도 많이 발생 간암은 경북 울릉군과 경남, 전남의 남부지역,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낙동강 유역 인근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과 전남은 거주민의 높은 B형, C형 간염 유병률, 낙동강 지역은 민물고기 생식 습관과 이에 따른 장내 기생충감염이 암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장암은 대전시와 충청도에서 많이 발생했고, 경남과 강원 철원에서 적게 발생했다. ◇ 위암은 충청 경상 전라 3도 경계지역서 많아, 옥천군은 남자 위암 위암은 충청, 경상, 전라의 경계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남자 위암 발생률이 꾸준하게 높은 지역이었다. 폐암은 전남과 경북, 충북에서 많이 생겼다. 대장암, 폐암, 위암 등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왜 발생률이 높은지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대부분 지역과 암발생률 뚜렷한 연관성 찾지 못해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암 발생률과 흡연율, 식습관, 음주율, 산업환경 등의 관련성을 추적했지만 뚜렷한 연관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 감상선암과 대장암 발생률 증가 추세 전국적인 암 발생 추세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했다. 남자 갑상선암은 1999∼2003년 10만명 당 2.9명 발생하던 것이 2009∼2013년 24.3명으로 8.4배 늘었고, 여자는 같은 기간 16.7명에서 110.6명으로 6.6배 증가했다. 남자 대장암 발생률은 31.1명에서 50.8명, 전립선암 발생률은 9.7명에서 26.5명으로 높아졌고, 여자 대장암은 18.8명에서 27.4명, 유방암은 28.2명에서 4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txt

제목: 와인 한 잔은 헬스장에서 한 시간 운동하는 것과 같다  
날짜: 20161122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2104958001  
본문:   당신이 와인 애호가라면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와인 한 잔이 헬스장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건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면 오늘 동료와 와인 한 잔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미국 온라인매체 위티피드가 소개한 내용이다.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은 폴리페놀 일종으로 항암 및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는 포도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와인이 노화 방지에 좋다고 말하는 근거다. 캐나다에서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심장 기능과 근력을 향상시켜 운동 능력을 키워준다. 실제 비교적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프랑스인들이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도 적포도주의 영향이 큰데,  몸속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갈색지방)으로 바꿔 지방산 산화 능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물질을 운동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물론 당신이 운동을 즐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다이어트만을 따진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 적포도주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 하지만 건강 효과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는 것과 견줄 만하다. 만약 당신이 신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포도주가 당신의 건강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적당량의 적포도주 섭취는 관절염과 퇴행성 질환, 치매와 같은 신경학적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또 암 발병률을 낮추는 동시에 암세포 증식을 강력하게 차단한다. 레스베라트롤의 생명 연장 효과는 이미 2003년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적포도주를 마시면 와인 속 알코올이 수면을 방해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txt

제목: 전 세계 울린 4살배기 시한부 소녀 20일 영면에 들어  
날짜: 20161121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1140004001  
본문: "여러분께 제시카가 오늘 아침 7시 마침내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슬픔과 동시에 안도를 느낍니다." 영국 랭커셔주 앤디 웰런이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딸 제시카(4)의 부음 소식을 전했다. 웰런은 약 한 달 전 페이스북에 ‘암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증’ 말기 진단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제시카의 투병 모습을 올렸다. 신경모세포증은 교감신경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주로 5세 이하 아동이나 태아에게서 발견된다. 제시카가 진단받은 4기는 종양이 림프절과 뼈, 골수, 간에까지 전이된 상태이며 이때 생존율은 10∼30% 미만이다. 웰런은 이날 평화로운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제시카의 생전 모습과 함께 "딸은 이제 더 이상 신체적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나의 공주님의 천사 날개는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뛰어놀 정도로 다 자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딸이 하늘나라에서 동생과 우리를 지켜볼 것이고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웰런은 이어 "제시카는 지난밤이 돼서야 8시간 동안 그녀를 안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는 말과 수십번의 키스를 허락했다"며 "나의 엄청난 일부였던 제시카를 잃은 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고요하게 숨을 거둔 게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웰런은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에 ‘암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제시카 사진을 올렸다. 웰런은 "이 사진은 부모인 우리가 딸에게 어떠한 위안도 줄 수 없는 순간을 담은 것"이라며 "그녀가 이 혹독한 고통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자꾸 밀쳐내는 게 너무 슬프다"고 토로했다. 웰런 부부는 제시카에게 남은 생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페이스북에 ‘아이에게 최고의 삶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했고 한달 만에 9만7000파운드(약 1억4100만원)가 모였다. 하지만 제시카가 더 이상 바깥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2주 전부터는 모금사이트가 폐쇄됐다. 웰런은 이날 "제시카와의 마지막 가족 여행에 함께 아파해주고 도움을 줬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소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의 아빠로부터’로 글을 끝맺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txt

제목: 파주 장단콩축제 3일간 70억 매출  
날짜: 20161121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21030216001  
본문: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장단콩 축제를 열어 70억원의 농산물 매출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2억원보다 2억원(2.8%) 줄었지만 축제 물량으로 준비한 서리태콩이 축제 이틀 만에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장단콩 축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장단콩을 시중보다 10∼15% 싸게 판매하는 행사다. 파주 개성인삼축제와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축제다. 장단콩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아이소플라본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인기가 많다. 올해 축제에는 개막식 전 행사로 파주 장단콩 품질 인증식, 전통장 담그기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축제 기간 열린 장단콩 요리대회, 주부가요대전 등은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장단콩 힘자랑 대회, 도리깨 콩 타작, 장단콩 오색 가래떡 나눔 등 부대·체험행사도 열렸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txt

제목: 차움병원 "김기춘 지난해 3월 일본서 면역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 아냐"  
날짜: 201611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8143056001  
본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가 이용한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았다는 말에 대해 차움병원측은 "국내가 아닌 일본차병원(일본TCC)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면역세포치료는 주로 암 치료나 면역력 증강에 쓰인다. 반면 줄기세포는 '망가진 것을 재건'하는 것이다. 18일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김 전 비서실장은 차움이 아닌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다른 차병원 관계자도 "김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줄기세포치료 같은 건 받지 않았다"며 "일본에서 면역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이물질, 바이러스 등에 대항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NK세포(자연살해세포), T세포, 수지상세포 등이 있다. 면역세포치료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 뒤 배양하고, 배양한 세포를 다시 암 환자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체내 면역체계 자체를 자극해 암 세포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김 전 실장이 일본까지 건너가 면역세포치료를 받은 이유에 "국내 약사법이 시판된 면역세포치료제 외에 다른 세포 배양이나 치료는 허가하지 않고 있어 국내서 면역세포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단순히 세포를 채취하고 분리, 세척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양은 불법"이라며 "약사법상 세포의 배양 후에는 그걸 약으로 제조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면역세포 배양과 치료 등을 약이 아닌 일종의 '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txt

제목: 故 김태촌씨 아내인 가수 이영숙, 남편 따라 저세상으로…  
날짜: 20161118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8135409001  
본문: ‘범서방파’ 두목 고(故) 김태촌 씨와의 옥중결혼으로 화제가 된 가수 이영숙 씨가 별세했다. 향년 67세. 18일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자궁경부암 재발로 투병하다가 지난 17일 밤 11시 45분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16년 전부터 암 투병을 해오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으며 남편 김 씨가 2013년 세상을 떠난 3년 만에 그 뒤를 따라가게 됐다. 고인은 1968년 ’아카시아의 이별’로 데뷔해 ‘그림자’(1969), ‘가을이 오기 전에’(1969), ‘꽃목걸이’(1971), ‘왜 왔소’(1971)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고인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의 소개로 김태촌 씨를 만났고 1999년 옥중결혼까지 해 화제를 모았다. 고인은 봉사 활동에 매진하고자 사단법인 ’한국 은빛소망회’를 운영했으며 2008년 자전적 신앙간증서 ’나도 살아요’(성산서원)를 출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 모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며 발인은 20일 오전 8시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txt

제목: [사람들] 군 복무 중 골수 기증… 혈액암 10대 살려  
날짜: 20161116  
기자: 박연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6213820001  
본문: 육군에 복무 중인 한 병사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사자연대에 근무하는 이제창(22) 상병은 입대 전인 2013년 5월 조혈모세포 기증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8월에 입대한 이 상병은 지난 8월 조혈모세포 은행협회로부터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환자와 이 상병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100 일치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상병은 자신이 기증자로 나서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했다. 최근 이 상병은 8박9일간의 휴가를 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 상병의 기증으로 19세의 남학생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19세 혈액암 환자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사자연대 이제창 상병(오른쪽)이 감사패를 받은 뒤 문기수 대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이 상병은 “<span class='quot0'>조직세포가 정확히 일치하는 환자를 만난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기꺼이 기증하겠다</span>”고 말했다. 한편 혈연 사이가 아닌 기증자와 환자의 조혈모세포 조직적합성항원 일치 확률은 2만명대 1로 매우 희박하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아삭아삭' 건강이 씹힌다  
날짜: 20161116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6211005001  
본문: 늦가을 찬바람이 거세다. 따뜻하고 담백한 우엉차가 떠오르는 계절이다. 우엉은 맛이 좋을 뿐 아니라 변비를 개선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우엉은 100g당 식물성 섬유가 8.5g이나 된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도 많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어 변비 개선 및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우엉의 식물성 섬유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의 비율이 거의 같으며, 유산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개선에 효력을 발휘한다. 장내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배설하는 작용이 있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우엉에 들어 있는 식물성 섬유에는 항균작용이 있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 우엉의 탄수화물 주성분은 ‘이눌린’으로, 포도당으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가 높은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엉잡채 <재료> 우엉 100g, 청·홍피망 1/3개씩, 노랑·주황 파프리카 1/3개, 목이버섯 10g, 올리브오일 1큰술, 간장 1큰술, 다진마늘 약간, 참기름 약간, 설탕 약간, 소금, 후춧가루 약간, 통깨 약간 <만드는 법> ① 우엉은 껍질을 벗기고 4㎝ 길이로 토막 썬 후 길이대로 곱게 채 썰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살짝 데친다. ② 피망과 파프리카는 씨를 빼고 얇게 채 썰어주고, 목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 물기를 꼭 짠다. ③ 팬을 달군 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우엉을 넣고 볶다가 양념을 넣고 함께 볶는다. ④ 우엉에 간장 색이 돌 때쯤 채 썬 피망과 파프리카, 목이버섯을 넣고 잘 섞어가며 볶는다. ⑤ 불에서 내리기 전에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맛을 더해준다.우엉은 여성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우선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증세를 완화시켜준다. 또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빈혈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섭취하면 좋다. 피부미용에도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우엉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여드름으로 인한 출혈을 멈추게 해주며 소염작용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엉이라도 자기 몸에 맞는지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엉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다. 알칼리성 식품인 우엉은 산성 식품인 돼지고기와 함께 조리하면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우엉 특유의 향이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기에 매우 좋다. 우엉구이 <재료> 우엉 100g, 찹쌀가루 2큰술, 양념장(파, 마늘, 고추장, 설탕, 간장, 깨소금, 참기름) <만드는 법> ① 우엉을 살짝 데쳐서 3등분하여 두들겨 편다. ② 마른 찹쌀가루를 묻혀 팬에 지진다. ③ 파, 마늘을 곱게 다지고 고추장 1큰술, 설탕 1/2큰술, 간장 1/2큰술,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④ ②에 ③을 바른 후 팬에 익힌다.우엉은 너무 굵거나 가는 것은 피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지름이 2㎝ 정도 되는 것이 적당하며 껍질에 흠이 없고 갈라지지 않은 것을 고른다. 또한 뿌리에 힘이 있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우엉이니 참고하면 좋다. 우엉을 보관할 때는 진흙이 묻은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우엉 특유의 풍미나 맛이 껍질에 있기 때문이다. 물에 우엉을 씻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엉이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갈변되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식초에 담가 조리하면 좋다. 우엉은 조림, 찜, 샐러드, 무침, 튀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하다. 채 썬 우엉을 잘 말린 뒤 마른 팬에 갈색빛이 나도록 잘 볶아 우엉차로 마셔도 좋다.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임신 중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날짜: 201611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6140922001  
본문: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사라 마이탈(35)은 8개월 전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와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라는 임신 사실을 알고 2주가 지난 뒤 유방암 2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다. 임신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나온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사라는 “<span class='quot0'>솔직히 겁났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pan>”며 “무섭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사라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남편 응원도 있지만 샤론 박사가 자기를 단단히 책임진 덕분이다.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늘 사라의 곁에 있었던 샤론 박사는 특히 임신 중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엄마와 아기가 모두 무사할 수 있게 노력했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에 따르면 현지에서 임신 도중 암 진단을 받는 여성은 매년 3000명 중 1명꼴이다. 과거에는 낙태 권유가 많았지만 의학 기술 발달, 낙태가 임신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 그리고 화학치료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수술대에 오르는 임신부는 점점 사라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었다. 태아 건강을 위해 임신 3개월이 될 때까지 사라는 화학치료를 미뤘다. 뱃속 아기의 장기가 완벽히 생성되지 않아서다. 그동안 샤론 박사는 사라의 유방 절제술을 시행했으며, 6주가 지난 후 비로소 5단계에 걸친 화학치료에 접어들었다. 치료 과정에서 택솔(Taxol) 사용은 출산 후로 미루자고 샤론 박사는 생각했다. 주목(朱木)에서 추출한 항암물질 택솔은 암의 ‘특효약’ 또는 ‘획기적인 신약’ 등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정한 ‘약물별 태아 위험도(FDA pregnancy category)’에서 ‘카테고리 D’로 분류된 탓에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테고리 D에는 연구나 시판 후 조사에서 해당 성분이 인간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졌지만, 사용에 따른 이익이 위험성보다 높을 때만 쓰는 약물이 속한다. 화학치료 내내 사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아픈 거야 참지만 아기 걱정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암 진단이 내려진 후에도 곧바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을 만큼 여러 생각이 많았던 그는 나중에 사실을 안 가족이 응원을 보내줬으나 잘 해낼지는 자신하지 못했다. 사라는 임신 38주째이던 지난 3월26일, 몸무게 약 2.7kg의 건강한 딸 사샤를 낳았다. 치료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해 아기 건강이 좋지 않을까 마음 졸였던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진은 방사선 치료 병행에도 사라의 몸이 괜찮다고 보고 택솔은 쓰지 않았다. 몸은 괜찮냐고? 사라는 지난 여름 암을 완벽히 이겨내고 가족과의 행복한 일상에 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편 사라의 사연은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지난 5월에도 외신들이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은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포스트·WIAT 영상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txt

제목: 설하윤, '아침마당'서 눈물의 데뷔 과정 밝혀..장윤정의 '어머나' 부른 추억  
날짜: 20161116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6085130001  
본문: 사진=KBS1 '아침마당' 방송 캡처 트로트가수 설하윤이 '아침마당'을 통해 치열한 데뷔기를 털어놨다. 설하윤은 16일 오전 8시 25분 생방송된 KBS1 '아침마당-전국이야기대회'에 출연했다. 이날 그는 현재 24세에 트로트계의 샛별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설하윤은 가수를 꿈꿔온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 사연을 고스란히 전한 것. 설하윤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어릴 때부터 재롱 떨기를 좋아하며 끼를 보인 것 같다"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수 오디션을 본 후 걸그룹 준비를 했지만, 프로젝트가 무산돼 2~30번 엎어져 봤다"고 처음 연습생에 발을 들인 과정을 밝혔다. 이어 "가수가 내 인생이었기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걸그룹 데뷔에 실패할 때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마지막 걸그룹 데뷔가 무산되고 1년간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PC방, 카페, 백화점 등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슴 아픈 침체기를 늘어놓았다.   또 설하윤은 "그러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방송을 통해 오디션에 지원했다. 당당히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됐다. 방송 이후 많은 곳에서 데뷔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곤드레 만드레'를 히트시킨 작곡가님께서 함께하자 하시더라"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르였는데, 갑자기 전율이 오르면서 할머니 앞에서 장윤정의 '어머나'를 불렀던 모습이 생각 나더라"고 트로트로 전향한 결정적인 계기를 고백했다. 더불어 "'아 이거구나. 먼 길을 돌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해드릴 수 있는 길을 가보자' 생각했다"며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심수봉의 '미워요'를 연습한 당시의 모습을 특유의 시원한 창법으로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하늘에서 봐주실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노래할 거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설하윤은 지난 9월 27일 데뷔 앨범 '신고할꺼야'를 발표한 트로트 신예다. 지난달 14일에는 MBC 'DMC페스티벌-다함께 트로트' 무대를 통해 태진아, 송대관, 박현빈, 홍진영, 금잔디, 윤수현, 조은새, 강소리, 신유, 박주희 등과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했다. 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txt

제목: [조용호의 나마스테!] “반찬통 놓고 혼자 먹는 밥상… 나뭇잎·꽃잎 그릇에 얹었어… 멋보단 울지 않기 위해서였지”  
날짜: 20161114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4205020001  
본문: “혼자 먹는 밥은 눈물 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밥은 쓸쓸했거든. 주변에서 풀을 뜯어와 된장 풀고 혼자 가지고 들어와 먹는 거지. 물양치질까지 끝내고 아랫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바깥 세상은 아직 아우성인데 나만 혼자 산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배불러도 되는 건가, 죄스러웠어.”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지리산 자락에 홀로 사는 박남준(59) 시인에게 먹는다는 건 “배고플 때 먹으면 눈물 나고 배불리 먹으면 죄스러운” 행위였다. 시인은 일찍이 전주 인근 모악산 빈집으로 들어가 ‘사지 않고 쓰지 않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시를 써서 받는 최소한의 원고료만으로는 도심에서 살기 어려웠다. 산속에 들어가 쌀과 된장만으로 주변에 널린 푸성귀만 얹어서 문명의 값을 치르지 않는 삶을 시도한 것이다. 그가 차려온 밥상은 모악산과 지리산에 25년 넘게 살면서 터득해온 생계형 레시피인 셈이다. 지리산 자락 감나무 아래 박남준 시인. ‘시인의 밥상’을 차린 그는 “혼자 먹는 밥은 눈물 나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밥은 쓸쓸했으며 배불리 먹으면 죄스러웠다”고 말했다.소박하지만 주변의 자연을 활용해 꾸려내는 시인의 솜씨는 최근 소설가 공지영이 그와 함께 1년간 체험한 에세이 ‘시인의 밥상’(한겨레출판·사진)으로 출간됐다. 호박국, 콩나물국밥, 가지선, 굴밥, 유곽, 도다리쑥국, 진달래화전, 냉이무침, 채소 겉절이, 토마토 장아찌, 냉소면, 오방색 다식, 생감자 셰이크 같은 시인의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이 레시피들에 같이 맛을 본 사람들 이야기를 풍성하게 얹었다. 시인을 만나러 악양에 내려갔다. 시인은 너무 알려져 번잡해진 모악산 집을 떠나 13년 전쯤 이곳 악양으로 들어왔다. “세상에 없는 음식들을 차려 먹은 것인데, 퓨전이라기보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어. 반찬 플라스틱통 내놓고 혼자 밥을 먹으려면 너무 고통스럽고 쓸쓸했거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존재론적 회의마저 밀려오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럴 때 문득 마당에 나가 잎 하나 꽃 하나 가져와 그릇에 얹고 김치라도 덜어 먹으면 너무나 다르더라고. 그건 멋을 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울지 않기 위한 짓이었어.” 짙푸른 차 잎과 노란 산국으로 장식한 박남준의 ‘토마토 장아찌’.텃밭에 시인이 직접 키운 재료를 중심으로 주변 풋것들까지 활용해 끼니 때마다 다양하게 조리해 먹었던 밥상은 공지영이 찬탄했던 것처럼 창의적이고 독특한 것이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꽃과 이파리로 장식하는 미감은 가위 전문 셰프의 ‘데커레이션’을 뺨치는 장인의 솜씨다. 대화를 나누다 술병을 꺼냈더니, 시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찻잎과 산국을 얹은 토마토 장아찌 접시를 안주로 내왔다. 짙푸른 찻잎과 노란 산국의 조화가 소박하고 화려했다. 토마토 장아찌는 시인의 발명품이기도 하다. 공지영은 ‘오이도 아닌 것이 무도 아니고 연근도 아닌 것이 아삭하며 새콤 칼칼하고 간간 슴슴하다’고 지난해의 맛을 적었거니와 시인이 갓 내놓은 올해 토마토 장아찌는 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 깊이 숨어든 어린 토마토의 희미한 향이 새콤하게 침샘을 자극하는 독특한 맛이었다.  시인이 이번 책에 소개한 것들은 그동안 만들어온 것들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그래도 이번 책에 진설된 메뉴 중 상대적으로 더 애착이 가는 걸 물었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콩나물국밥을 거론했다. 사실 이 메뉴는 시인의 레시피가 아니라 전주 장뻘콩나물국밥집 주인 것이라고 했다. 이 집 주인 아주머니는 시인이 들를 때마다 절대로 국밥값을 받지 않았다. 가난한 시인이 무슨 돈이 있느냐고, 성공하면 갚으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와 성공했으니 이제 받으라고 해도 주인은 막무가내였다. 한번은 돈을 내놓고 몰래 나왔다가 아주머니와 시내를 달리는 육상 경기를 벌이다가 끝내 잡혀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연은 시로도 썼는데 그 아주머니는 시인이 성공하기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벗들과 함께 시인을 만나러 전주와 악양에 드나든 지 오래인데 사실 우리는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짜고 진한 장뻘콩나물국밥을 마다하고 맑은콩나물국밥을 택하곤 했다. 그때마다 안도현과 합세해 시인은 서울것들은 진짜 맛을 모른다고 집중 타박했다. 이번 책에는 거문도까지 원정을 가서 한창훈 소설가와 더불어 엉겅퀴 이파리를 넣어 끓인 갈치국 ‘항각구국’ 이야기도 나온다. 엉겅퀴 잎 특유의 향이 밴 갈치국에 대한 공지영의 상찬은 화려한데 정작 이 꼭지에서 눈길을 끈 것은 근처 성당 마당에 있던 엉겅퀴꽃을 주워온 이에게 5000원을 건네며 꽃값을 놓고 오라고 말하는 시인의 염결성이었다. 이번 책이 시작된 계기는 시인이 산문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 시인의 레시피에 대한 산문을 재촉하던 공지영이 자신이 쓸 테니 시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했다. 다시 시인에게 물었다, 산문과는 여전히 이별이냐고. “응, 안 써. 그동안 나만큼 산문집 많이 낸 시인도 드물 거야. 청탁이 들어오면 거의 가리지 않고 생계형으로 썼어. 마감 스트레스에 쫓겨가며 산문을 쓰고 나도 환희심이 안 생겨. 시는 한 편 써놓고 스스로 정화도 되고 읽어보면 그래도 내가 했구나, 하는 보람 같은 게 생겨. 산문을 안 썼더니 시가 잘 떠올라.” 예전에는 한 달에 한 편 꼴로 시를 썼는데 산문을 버리고 난 뒤로는 벌써 1년 사이에 30편이나 썼다고 했다. 편수가 늘어난다고 좋은 시가 생산되는 건 물론 아니다. 그는 “시가 풀어지는 걸 경계하고 있다”면서도 “젊은날에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쓰는 것이고 나이 먹으면 자연과 함께 그냥 늙어가는 순리를 아는 그런 시를 쓰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완성하고 싶은 궁극의 시는 어떤 경지인가. “내 삶을 뛰어넘는 시는 거짓말이야. 자연 현상계에 내 몸과 마음이 순응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화로운 시를 썼으면 좋겠어.” 악양(경남)= 글 사진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txt

제목: 록밴드 들국화 원년멤버 조덕환씨, 지병으로 별세  
날짜: 20161114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4150517001  
본문: 록밴드 들국화의 원년 멤버인 기타리스트 조덕환 씨가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4시 십이지장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조 씨는 1985년 들국화로 데뷔해 1집 ‘행진’ 제작에 참여, ‘세계로 가는 기차’,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축복합니다’ 등의 명곡을 만들었다. 1집 이후 탈퇴한 그는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20여년간 머물다가 2009년  귀국해 솔로로 가요계에 복귀했다.  2011년 첫 솔로앨범 ‘롱 웨이 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자작곡을 담은 음반 ‘파이어 인 더 레인’을 선보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으로 투병을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셨기에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며 발인은 16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txt

제목: 생체시계·질병 상관 관계 수학으로 규명  
날짜: 20161110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10214140040  
본문: 뇌속 생체시계는 사람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도록 행동과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세포분열부터 운동 등 다양한 생리 작용에 관여하는 이 생체시계가 교란이 생기면 당뇨나 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이에 대항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예방하고 손상을 치료하는 생체물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p53’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암 중 절반 이상은 p53의 손상과 관련됐다. <br/> <br/>이 p53이 인체 내에서 24시간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미국 버지니아공대 칼라 핀키엘스타인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지만 어떤 원리로 생체시계가 p53의 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지는 규명되지 못했다. p53의 조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실험만으로 밝혀내긴 어렵기 때문이다. <br/> <br/>카이스트(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32·사진) 교수가 미분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 김 교수는 시행착오에 기반한 전통적 실험 대신 수리모델링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실험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생체시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인 Period2 단백질이 p53의 생체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브로콜리, 면역력 쑥쑥 키워주는 '밥상 위 보약'  
날짜: 20161109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9210608971  
본문: 브로콜리는 양배추의 변종으로 ‘녹색 꽃양배추’로도 불린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뽑았을 만큼 몸에 좋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브로콜리를 암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여긴다. <br/> <br/>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항암작용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A와 C도 풍부하다. 비타민A는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해 감기나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꾸준히 먹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브로콜리 싹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체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들어 있어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야맹증에도 좋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된다. <br/> <br/>또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함량도 100g 중 1.9㎎으로 채소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는 다른 채소보다 2배나 많은 양이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의 유해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br/> <br/>이와 함께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해독작용도 뛰어나서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활성산소는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몸 속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노화가 촉진된다. 브로콜리를 자주 먹으면 기미, 주근깨 같은 각종 잡티를 예방할 수 있고 생기 있는 얼굴과 탄력 있는 피부가 가능해진다.  <br/>▲브로콜리 야채볶음 <br/><재료> 브로콜리 100g, 당근 50g, 양파 1/2개, 소시지 100g, 마늘,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br/><만드는 법> ① 브로콜리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한 입 크기로 썬다. <br/>② 당근, 양파도 ①의 크기에 맞게 썬다. <br/>③ 소시지는 칼집을 넣어 주고 마늘은 얇게 썬다. <br/>④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 소시지, 양파, 당근을 넣고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어 볶은 후 소금, 후추로 양념한다. <br/>브로콜리는 보통 생으로 먹기보다 데쳐서 많이 섭취한다. 열을 가해도 영양이 거의 파괴되지 않고 먹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브로콜리는 각각의 송이를 떼어낸 다음 물에 소금, 식초를 조금 넣고 데치면 색이 선명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br/> <br/>비타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로 짧은 시간에 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끓는 물에 삶을 때는 줄기부터 넣으면 비타민C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기름에 볶아서 섭취하면 비타민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로콜리를 주로 데쳐먹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5분 정도 삶아서 섭취한다. <br/>▲브로콜리 이유식 <br/><재료> 브로콜리 100g, 우유 1컵, 찹쌀가루 1큰술, 물 1/2컵, 소금 약간 <br/><만드는 법>① 브로콜리는 한 송이씩 떼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파랗게 데친 뒤 물을 붓고 믹서로 곱게 간다. <br/>② 냄비에 찹쌀가루를 넣고 우유를 약간씩 부어가면서 젓는다. 뭉근하게 끓으면 ①의 브로콜리를 넣고 약한 불에서 죽을 쑨다. <br/>③ 찹쌀가루와 브로콜리가 부드럽게 익으면 걸쭉한 농도에 맞춰 그릇에 담아 내고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다. <br/>브로콜리를 구입할 때에는 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있고 중간이 볼록한 것이 좋다. 꽃이 피었거나 황색 또는 다갈색으로 변해 줄기가 갈라진 것은 오래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낫다. 보관 시에는 상온에 두면 꽃이 피기 쉬우므로 살짝 삶아서 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txt

제목: 웃음 전하던 영웅은 할머니 장례식에서 뒤돌아 눈물 흘렸다  
날짜: 2016110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7112854267  
본문: 할머니 팬의 장례식에 영웅이 나타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배웅했다. <br/>블랙은 뒤돌아 눈물 흘렸다지난 2007년 일본 이바라키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 전해온 영웅 '이바라이카' 멤버 블랙이 자신에게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할머니의 장례식에 나타나 조의를 표했다. <br/> <br/>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이들은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보다 유명한 존재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할머니 역시 이들의 멋진 모습에 반해 열렬한 팬이 됐고, 그 중 블랙을 누구보다 좋아했다. <br/>어려운 사람들과 아이들을 찾아 용기를 전한다.이날 천국으로 떠난 할머니는 말기 암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블랙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며 힘을 내 치료받았다. <br/> <br/>하지만 할머니는 영웅을 만나기도 전인 지난달 27일 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블랙이 예고 없이 찾아와 이날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br/>애도하는 블랙.할머니의 손녀는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블랙을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장례식에 그가 찾아와 기뻐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br/> <br/>이날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 영웅이 찾아왔어요", "기쁘시겠어요"라고 말하며 눈물지었다. <br/>시민들에게 웃음과 응원 메시지를 전한다.지역에 사회에서 이들은 영웅이다.시민들은 이들이 가공할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이 전하는 '웃음의 힘'은 대단하다고 입을 모은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이바라이카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txt

제목: [재테크 레슨] 미혼 2030 총소득 절반이상 저축, 40대 연금 점검·50대 의료비 준비  
날짜: 20161106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6205849099  
본문: 필자가 있는 은퇴연구소는 2012년부터 꾸준히 생애설계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생애설계교육이란 인생 100세시대를 맞아 체계적으로 재무, 비재무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생애설계교육의 대상도 연령·직종·계층을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연령대에 따라 재무적인 걱정거리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br/> <br/>우선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얼마를 저축해야 노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최근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들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자산 증식 기회나 생활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주의가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당장의 소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한국FP협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는 전 연령대 평균이므로 미혼인 20~30대라면 총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 <br/>박선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40대는 본격적으로 노후준비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로 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급격히 높아진다. 이들은 현재 가입돼 있는 연금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노후준비 수준을 알고 싶다면 내가 가입한 3층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노후 필요생활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오픈한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1세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예시된 연금액은 납입 기간과 개시시점, 이율 등을 가정해 산출한 것이므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생활비 대비 부족자금이 발생한다면 지금부터 저축액을 늘리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br/> <br/>마지막으로 50대에 접어들면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40대까지는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냈더라도 50대가 되면 병원 방문 일수나 연간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애 진료비의 절반이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만큼 50대부터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험으로 이미 준비해뒀다면 보장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해 보고, 준비해 둔 보험이 없다면 실손보험, 암보험 등은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라면 의료비 명목의 목돈을 별도로 준비해두자. 100세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br/> <br/>박선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txt

제목: 비흡연·정상혈압… 건강할수록 보험료 깎아준다  
날짜: 20161106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6205847289  
본문: 평소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는 직장인 김모(45)씨. 그래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하나 들어두기로 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과 몸무게가 정상 범위에 속하면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주는 건강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br/> <br/>이처럼 보험업계는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의 보험가입 여력이 줄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험까지 해약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경기불황에 대응해 보험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대신 우량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비흡연 건강 체질’, 보험료 최대 40% 할인 <br/> <br/>건강특약은 보험사가 건강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흡연 여부, 혈압수치, BMI(체질량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비흡연만을 건강특약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CI보험 등 사망 또는 질병에 관한 보장성보험에 적용된다. 가입자 연령이나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건강특약에 가입할 경우 표준체(흡연자) 대비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다. <br/> <br/>이 같은 건강특약은 인터넷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건강특약 가입자의 납입 보험료가 표준체 대비 낮은 점과 건강특약으로 가입을 신청했다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청약이 철회될 수도 있어 고객에게 이를 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설계사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보험은 건강특약을 통해 건강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br/> <br/>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5대성인병보험, 상해보험 등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에 비흡연체 할인을 적용한다. 라이프플래닛은 올 상반기 신규 계약 중 건강특약(비흡연) 가입률이 전체의 79.3%로 생보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이프플래닛e암보험’의 경우 업계 평균 보험료 대비 약 25% 저렴한 보험료에 비흡연자에게는 약 8.9%의 추가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과거 흡연을 했더라도 1년간 금연에 성공한다면 비흡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라이프플래닛은 지난 7월 가입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체(흡연자) △비흡연체 △건강체 △슈퍼건강체로 세분화해 보험료를 최대 41% 할인해주는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슈퍼건강체’란 평생 비흡연자이면서 혈압수치, BMI, 콜레스테롤 및 공복혈당수치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을 가리킨다. <br/> <br/>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온슈어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정기보험 상품에 대해 흡연 여부와 혈압, BMI 수치를 만족할 경우 비흡연 건강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험 가입 시 건강특약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약 표준체로 가입했더라도 금연 후 건강체 조건에 부합할 경우 비흡연체나 건강체로 전환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건강특약 가입자 1%대 불과 <br/> <br/>하지만 건강특약 가입률은 인터넷보험사를 제외하고 극히 저조하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강특약 가입률은 5% 수준이었으며,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신규 계약 중에서는 1.42%만이 건강특약에 가입했다. <br/> <br/>비흡연, 혈압, BMI 3가지 조건을 특약으로 내세운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들이 평균 가입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간 건강체 특약 가입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2.72%로 평균을 웃돌았고 미래에셋생명 1.39%, 동부생명 1.38%, 교보생명 1.19% 등의 순이었다. 한화생명의 가입률은 0.14%에 그쳤고 흥국생명(0.25%), 알리안츠생명(0.29%) 등도 1%가 채 되지 않았다. <br/> <br/>유 의원은 “<span class='quot1'>가입자의 35%는 건강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특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1%로 아주 저조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보험사에서 건강특약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2'>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을 우려해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보험설계사는 인수 거절 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 권유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2'>연내 건강특약 안내 실태를 점검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txt

제목: [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 뷰] 한국엔 ‘정치 검찰’… 미국엔 ‘정치 경찰’  
날짜: 20161106  
기자: 국기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6190951191  
본문: 지난 7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br/>워싱턴=AP연합뉴스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한국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의 우병우씨를 심어 놓았고, 우 전 수석은 최씨가 막후에서 제멋대로 국정을 주무르도록 철갑 보호막을 쳤다. 언론의 보도로 최씨의 온갖 비행이 드러나기 전까지 한국의 검찰은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br/> <br/>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움켜쥐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쥐도록 역할이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치 검찰’보다는 ‘정치 경찰’이 늘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대선 투표일 직전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나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았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후보가 클린턴 재단 기부자에게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사하고 있다는 정보도 흘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클린턴 캠프는 이런 코미 국장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 <br/> <br/>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하면 정보를 취득한다. 이 정보가 바로 힘의 원천이다. 수사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진다. 미국의 현대 정치사도 FBI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 공작으로 숱한 오욕으로 점철돼 있다. 그 중심 인물이 에드거 후버이다. 후버는 1924년 FBI 국장에 취임해 무려 48년 동안 재임하다가 1972년에 77세로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부터 리처드 닉슨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그는 FBI 국장 자리를 지켰다. <br/> <br/>후버는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무장해 있었기에 역대 대통령이 감히 그를 쳐내지 못했다. <br/> <br/>현 코미 FBI 국장은 이번 대선전에 개입했다가 이제 ‘에드거 코미’로 불린다. 에드거 후버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자 사설을 통해 “<span class='quot0'>FBI가 사법당국을 정치화하는 동기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 구역질이 난다</span>”고 질타했다. <br/> <br/>수사 기관이나 사법 당국, 정보 기관 등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국가 중추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면 법치주의가 깨진다. 문제는 이들 기관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수뇌부가 쉽사리 권력의 마피아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검사 전체가 정치 검찰의 구성원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FBI 수사 요원이 모두 정치적으로 타락한 것도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 출신의 청와대 민정 수석, 미국에서는 FBI 국장 등 수뇌부가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으로 정치 경찰이 수술대에 올랐듯이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검찰이 암 덩어리 정치 검사를 조직에서 도려내는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 <br/> <br/>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txt

제목: “차별과 싸워온 삶”… RBG의 ‘악명’과 만나다  
날짜: 20161105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5030431257  
본문: 아이린 카먼, 셔나 크니즈닉 지음/정태영 옮김/글항아리/2만3000원노터리어스 RBG/아이린 카먼, 셔나 크니즈닉 지음/정태영 옮김/글항아리/2만3000원 <br/> <br/>‘꽉 막힌 잔소리꾼, 왜곡된 페미니스트, 꼰대, 뜨뜻미지근한 급진주의자, 따분한 먹물.’ <br/> <br/>이런 경멸조의 별명을 얻었던 RBG(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이제는 사랑받는 해시태그로 거듭났다. 긴즈버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티즌의 클릭을 달고 다닌다. 미국 젊은이들은 RBG를 테마로 한 핼러윈데이 의상을 입고,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RBG는 똑똑한 페미니스트의 대명사로 통한다. 요즘 미국에서 말 좀 하는 사람치고 RBG를 들먹이지 않는 이가 없다. 아무리 유명한 대법관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사람은 없었다. <br/> <br/>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열렬 페미니스트이면서 요즘 미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판사로 유명하다.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85)는 현직 미 연방대법관으로 23년째 재임 중이다. 근엄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법조인이지만, 한편으로 대중 스타이며 젊은 아이콘이다. <br/> <br/>긴즈버그의 평전인 이 책 저자 아이린 카먼은 하버드 법대 출신의 미 MSNBC 법조 기자이며, 셔나 크니즈닉은 ‘노터리어스 RBG’ 텀블러 블로그 운영자로, 연방항소법원 재판연구원이다. <br/> <br/>한 젊은 여성이 블로그에 올린 긴즈버그 핼러윈 코스프레 사진이다. ‘나는 반대한다’는 소수의견 쪽지를 들고 있다.두 사람은 긴즈버그 대법관에 반해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긴즈버그는 팔순 중반 노인이지만 젊은이들과 호흡하며 생각을 공유한다. 저자들은 긴즈버그의 일생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들과 에피소드, 인간적인 면모 등을 담아 이 책을 썼다. <br/> <br/>1993년 긴즈버그는 백악관 로즈가든을 찾았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지명했기 때문이다. 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미국 사회 성차별 장벽과 싸워야 했다. “<span class='quot0'>차별을 경험한 나는 차별과 싸우고 우리의 아내, 어머니, 자매, 그리고 딸을 위해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span>” <br/> <br/>1993년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 직후 의회에서 아들, 손자 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긴즈버그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했다. <br/>글항아리 제공통상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로펌이나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며 사법 시스템의 생리를 익힌다. 로스쿨을 공동 수석 졸업한 긴즈버그에게도 당연히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별이었다. 지원서를 내면 아이를 가진 엄마라서, 기혼 여성이어서, 혹은 단지 ‘여성’이어서 곤란하다는 답이었다. 심지어 ‘남학생 전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입사지원서도 수두룩했다. 럿거스대는 여성이고 남편이 번다는 이유로 그에게 더 낮은 강의료를 제시해 항의하기도 했다. <br/> <br/>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며 기적적으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조마조마했다. 임신 사실이 들통나면 교수직에서 쫓겨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불룩해진 배를 감추느라 몸에 맞지도 않는 헐렁한 옷으로 방학 때까지 버텼다. 이런 경험들 위에서 1972년, 긴즈버그는 여성권익증진단(WRP)을 출범시켰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의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테니스를 가장 잘 쳤지만 여자라서 학교 대표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선수, 임신을 사유로 일터에서 내쫓긴 교사, 임신 때문에 강제 전역된 여군 등…. 이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다. 긴즈버그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리고 열정적 페미니스트가 되었다. <br/> <br/>그렇다고 여성 편에 선 것만은 아니었다. ‘남편, 아버지, 형제, 그리고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 남성이 주체가 된 사건들을 다수 변호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풍토를 바로잡는 게 주목적이었다. <br/> <br/>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0년 11월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대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수작업 재개표를 명령한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시의 승리를 의미했다. 긴즈버그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span class='quot1'>(판결에 대해)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span>”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반대했다. 긴즈버그가 문제 삼은 것은 복잡한 미국 대선 절차였다. <br/> <br/>긴즈버그는 장중미려한 판결문으로 유명하다. 문장은 탁월한 미적 성취를 거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수하에서 일하는 재판연구원들의 꼼꼼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사건보고서인 동시에 인권과 자유, 평등을 진전시킨 문장으로 호평받곤 했다. <br/> <br/>최근엔 도널드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 비난했고, 법조계에선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나무랐다. 마지못해 긴즈버그 할머니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소수의 인권과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책은 긴즈버그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으로 꾸며진 것은 아니다. <br/> <br/>저자들은 긴즈버그 평전을 통해 “<span class='quot2'>자유와 평등, 여성 인권이 어떻게 구축되어가는지 전하고자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txt

제목: '만능항암' 기술 구현 임상사례 연구 공개  
날짜: 20161104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4173120415  
본문: 만능 항암기술을 임상적으로 구현한 사례연구 결과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암학회에서 공개됐다. <br/> <br/>싱가포르 자일로닉스사, 청심국제병원 등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 연구에서는 특정 보조식품 유형의 아연제제를 단독으로 사용한 결과 약물내성형 말기위암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그간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에너지 소진 방식을 이용한 괴사방식의 항암기술이 항내성 만능항암효과를 비롯해 면역집중 효과를 통한 면역치료효과 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연구진은 보조식품 등급의 아연-PGA의 단순 복합물질을 이용해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령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을 수반한 내성형 3차 재발 위암 사례에서 뚜렷한 위암조직들의 괴사현상이 보고됐다고 연구진은 발표했다. 이는 CEA 수치 등의 암 수치 개선효과와 일치했다. 연구진은 또 수술 및 항암치료를 거부한 초기 위암환자에게도 위암조직의 뚜렷한 괴사현상 및 수치개선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연구를 담당한 청심국제병원의 노리히사 요코 가정의학과 과장은 “<span class='quot0'>관찰된 위암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는 동안 어떠한 부작용이나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아연보조식품을 통해 말기암 사례에서 이러한 효과를 본 점이 놀랍다</span>”고 말했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txt

제목: 이성미 "故김자옥, 세상 떠나고 힘들었다"  
날짜: 20161104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4105126917  
본문: 개그우먼 이성미가 故김자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br/> <br/>3일 방송된 TV조선 '엄마가 뭐길래'에서는 이성미가 정기검진을 위해 아들 조은기와 함께 병원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이날 은기는 이성미의 유방암 정기검진표를 발견하고 "좀 충격적이었다"며 엄마를 향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이성미에게 병원에 동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성미는 "너는 왜 같이 가려고 하는 거냐. 괜찮을 거다"라며 "병원 가는 게 너무 싫다. 암 수술 포함해 12번의 수술을 했다. 병원만 가니까 나한테 화가 났고, 누가 아는 것도 싫었다. 위로받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싫다"라고 말했다.  <br/> <br/>이성미의 만류에도 결국 모자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br/> <br/>이성미는 아들에게 "자옥 언니 죽고 나서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 가슴 아팠다"고 고백했다. 또 이성미는 "고 김자옥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먼저 암을 겪었던 김자옥씨가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며 늘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빈자리가 생겼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txt

제목: 가슴 통증, 치명적 건강 적신호일 수도  
날짜: 20161103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3215302798  
본문: 속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압박이 느껴지는 증상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는 흉통의 증상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다. <br/> <br/>“<span class='quot0'>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span>” 흉통을 느끼는 이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이는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통증이 사그라들더라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심장 혈관이 막혀 문제를 일으키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그에 해당한다. <br/> <br/>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는 통증의 지속시간에 있다. 협심증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만, 심근경색은 오랜 시간 지속된다. 또 심근경색은 치료가 늦어지면 급사할 수 있는 질환으로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br/> <br/> <br/> 4일 EBS1 ‘명의’는 흉통의 증상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다. <br/>EBS 제공일본 여행 중 심한 어지럼증으로 기절한 권태민(51)씨는 현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찾았다. 그런 그의 얼굴은 서서히 절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했던 위암 3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와 식도의 경계에 암이 생겼다는 말에 평소 지나쳤던 증상들이 떠올랐다. 흑색이었던 변의 색과 가슴 압박감, 간헐적으로 오던 명치 통증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증상들이 위암의 신호였던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위암 환자들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진행된 후에야 증상을 발견한다. <br/> <br/>흉복부 통증은 심혈관 질환과 위암의 주된 증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심장과 위에 이상이 없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역류성 식도염과 담석증 때문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위산이 역류하면 나타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속이 쓰린 통증과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화끈거림을 호소한다. 담석증은 담즙이 쌓이고 뭉치며 생긴 돌이 담낭을 막아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식사 후에 발생해 가슴 통증을 유발한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txt

제목: 풍자·해학 담은 비판글… SNS·인터넷 호응  
날짜: 20161102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2194311321  
본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분노 표출에서 해학과 풍자로 옮아가고 있다. 확산하는 시국선언은 분야·이슈별로 체계화하며 규탄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br/> <br/>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풍자 열풍’이 한창이었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현 시국을 반영한 패러디를 끼워넣고 있으며 관련 게임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최근 고려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공주헌정시’가 대표적이다. 해석하면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단정히 함을 삼간다면 그 어찌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오’ 등의 내용이지만 독음을 살펴보면 ‘근혜가결국 해내시어타 나라골이참 잘도라간다 이 정도일 준 예상모택다’라는 별도의 풍자글이 된다. 연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 대통령이 목사 또는 무당으로 일컬어지는 최태민씨의 육영수 여사 성대모사에 속아 최씨 일가를 의지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주전’도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안드로이드폰용 스마트폰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는 ‘순실이 닭 키우기’와 ‘순실런’, ‘순siri(시리)’ 등의 게임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게임하고 암이 나았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게임을 깔았다’며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br/> <br/>최씨가 검찰에 출석하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에 대해 영화를 패러디한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 포스터가 인터넷상에서 연일 공유 물결을 탔고 각종 오락·예능 프로그램도 자막이나 짧은 화면으로 ‘오방색’, ‘승마’ 등에 대한 풍자에 합류했다. <br/> <br/>이에 대해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는 “<span class='quot0'>젊은이들이 그들만의 신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시국선언도 변화 양상이 엿보인다. 장애인·환경·역사 등 분야나 이슈별로 연대·체계화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span>”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br/> <br/>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가 장애인 복지재정은 삭감·동결하고 최씨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서울대·부산대·서강대 등 17개 대학의 사회과학대 학생 100여명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사퇴’와 ‘비선실세 전횡 철저 규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br/> <br/>경희대 김민전 교수(후마니타스 칼리지)는 “<span class='quot2'>1980년대에나 볼 수 있던 학교 간 연대 등이 다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2'>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가 다양한 통로로 표출되는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김준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txt

제목: 암세포만 골라 잡는 ‘나노로봇’ 개발  
날짜: 20161101  
기자: 정지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215616406  
본문: 환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초음파로 원격 조종해 죽이는 ‘나노로봇’(10억분의 1m 크기의 초미세 로봇)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성균관대 박재형(사진) 교수팀이 이런 나노로봇을 제작해 생쥐 실험에서 종양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차세대 비수술 암치료법으로 ‘광역동치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빛을 받으면 항암 기능이 생기는 화학물질을 환자 몸에 주입하고 빛을 쬐어주는 기술이다. 다만 암 퇴치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빛이 닿을 수 있는 부위에서만 효력이 생겨,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간·췌장·신장 등의 암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br/> <br/>박 교수팀은 초음파에 반응해 암을 치료하는 금·티타늄 재질의 나노로봇을 만들었다. 초음파는 침투력이 강해 몸속 곳곳에 닿을 수 있다. 이 나노로봇은 초음파가 닿으면 폭발적으로 ‘활성산소종’이라는 분자를 발생시켜 주변 암세포를 죽게 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광역동치료는 암세포가 아닌 정상 세포도 해칠 위험이 있었지만, 이번 나노로봇은 정확하게 암을 선별해 공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txt

제목: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 ‘암’  
날짜: 20161101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195712243  
본문: 국민이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암을 꼽은 비율이 13.6%로 가장 높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br/> <br/>또 응답자의 71.4%가 ‘현재 건강하다’고 답했고 62.8%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없었다. 그러나 5명 중 4명(78.1%)은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으며 15%는 이 같은 걱정을 ‘매일 또는 자주’ 한다고 답했다. <br/> <br/>이 같은 질병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인 걱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이 36.7%로 가장 높았고 △생활 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txt

제목: 조응천 "당·정·청 곳곳에 최순실 라인·십상시 건재"  
날짜: 20161101  
기자: 남상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193052217  
본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사진) 의원은 1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span class='quot0'>당·정·청 곳곳에 최순실씨에게 아부하고 협조하던 최순실 라인과 십상시들이 버젓이 살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조직을 망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악한 무리를 끌어내려 죄가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 회의에서 “<span class='quot0'>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공기업·금융계 심지어 대기업까지 뻗어 있는 암적 존재를 민정수석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span>”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br/> <br/>이어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18년간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과연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다 무죄를 받았다. <br/> <br/>그는 “최씨가 벙거지를 덮어쓰고 검찰청사에 들어가니까 모든 관심이 최씨에게 집중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기획입국에 대한 김기춘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br/> <br/>그는 또 “김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씨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얻어서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이런 분이 막후에서 총괄기획한다면 이 게이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br/> <br/>조 의원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우 전 수석 사건은 어떠냐. 세상에 (우 전 수석 아들인) 의경이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다. 갑질도 이런 갑질 없다. 배우자도 조사 거부하다가 우병우 그만둔 직후에 조사받았다”며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도 지켜만 보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물러나자 제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는 임기 말 검찰의 예정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br/> <br/>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txt

제목: 유병자보험, 따져보고 가입해야  
날짜: 20161101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172838653  
본문: 직장인 김모(46)씨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회복했다. 그러던 중 최근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만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br/> <br/>김씨는 암, 중대질병과 사망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br/> <br/>금융감독원은 1일 유병자를 위한 보험상품과 유의사항을 소개하면서 김씨와 같은 이들은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달 말 현재 보험사 32곳에서 유병자보험 52개를 팔고 있었다. <br/> <br/>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 특화 보험, 무심사 보험으로 나뉜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암은 5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여 만성질환 보유자는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내 통원·투약 여부 역시 알릴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2배 가량 비싸다. <br/> <br/>고혈압·당뇨 특화 보험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한 상품이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10% 이상 비싸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라도 더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br/> <br/>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이다. 보통 ‘실버보험’,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된다. 질병과 치료 내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없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5배 더 내야 한다. 사망 보험금도 1000만∼3000만원으로 다른 상품의 보험금보다 적다. <br/> <br/>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 상품이다.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0'>유병자보험은 가입 요건을 완화한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다</span>”며 “<span class='quot0'>질병이 없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txt

제목: 여자친구에게 더 많이 먹여야 할 음식 10가지  
날짜: 20161101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101132850180  
본문: 여자친구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자상한 남자친구가 되고 싶은가? 미국 라이프스타일 웹진 퓨어와우가 여자의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했다. 사랑스러운 그녀의 입맛과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br/> <br/>1. 양파  <br/> <br/>양파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에 좋다. 항염증, 항균성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 B와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양파가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이유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골 손실 예방을 돕기 때문이다. <br/> <br/>2. 고춧가루  <br/> <br/>고춧가루는 비타민A의 좋은 원천일 뿐만 아니라 천연 발열제로써, 우리의 몸속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또한 식욕 억제와 몸속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3. 근대 <br/> <br/>근대는 호르몬 균형 유지를 돕는 식물 스테로이드인 식물 에스트로겐의 원천이다.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철분, 칼슘, 엽산, 비타민 B·C·E·K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채소로 적합하다. <br/> <br/>4. 방울 양배추 <br/> <br/>방울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일반 양배추보다 2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어 대장암, 유방암 등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것은 오래 익히면 영양분의 효과가 떨어지고 쓴맛이 날 수도 있어 조리할 때 살짝 볶거나 데치는 것이 좋다. <br/> <br/>5. 호두 <br/> <br/>단백질, 섬유질, 오메가3로 가득한 호두는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당신이 잠을 더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호두가 유방암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6. 건포도 <br/> <br/> <br/>건포도에는 섬유질, 철분, 비타민C뿐만 아니라 힘을 솟게 하는 탄수화물과 충치 퇴치에 도움이 되는 식물 화합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br/> <br/>7. 호박씨 <br/> <br/>초콜릿과 마찬가지로 호박씨는 트립토판의 훌륭한 원천이다. 또한 호박씨에 들어있는 풍부한 아미노산이 당신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br/> <br/>8. 시큼한 체리 <br/> <br/>노화방지제로 가득 찬 시큼한 체리는 기억력 감퇴, 심장병,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것을 주스로 마시면 당신이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br/> <br/>9. 블루베리 <br/> <br/>천연 주름 방지 크림처럼 블루베리는-야생의 것이 최고-노화 방지와 기억력 감퇴 예방,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br/> <br/>10. 녹차 <br/> <br/>음식은 아니지만, 당신은 노화 방지 성분으로 가득 찬 이 기적의 차를 마셔야 한다. 녹차는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율을 높이며,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는 화합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br/>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txt

제목: ‘바니걸스’ 언니 고정숙씨 별세  
날짜: 20161031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1211036949  
본문: 1970년대 데뷔한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 고정숙·고재숙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1971년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 귀여운 외모와 발랄한 율동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br/>연합뉴스1970년대 등장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언니 고정숙씨가 3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br/> <br/>이날 고씨의 유족 등은 “(고인이) 올해 1월부터 암으로 투병하다가 오늘 오전 3시30분 돌아가셨다”며 “동생 고재숙씨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정숙·고재숙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1971년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했다. 한때 군사정권의 외래어 사용 금지에 따라 ‘토끼소녀’로 활동하기도 했다. 바니걸스는 국악예고 출신다운 가창력과 원색 타이즈, 미니스커트 등의 패션으로 화제가 되며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표곡으로는 ‘검은 장미’, ‘개구리 노총각’, ‘옛날 이야기’, ‘그냥 갈 수 없잖아’ 등이 있다. 유족으로는 딸 우사라씨가 있다. <br/> <br/>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이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txt

제목: 70년대 유명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쌍둥이 언니 지병 별세  
날짜: 20161031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1145104675  
본문: 1970년대 사랑받은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언니 고정숙(62)씨가 3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br/> <br/>고씨의 유족은 “올해 1월부터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날 오전 3시 30분 돌아가셨다”며 “동생 고재숙 씨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고정숙·고재숙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1971년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했으며 한때 군사정권의 외래어 사용 금지에 따라 ‘토끼소녀’로 활동하기도 했다. <br/> <br/>미니스커트 원조인 바니걸스는 ‘검은장미’‘개구리 노총각’‘옛날 이야기’‘그냥 갈수 없잖아’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br/> <br/>유족으로는 딸 우사라 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며 발인은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이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txt

제목: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Ⅱ1609' 개정시판  
날짜: 20161031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1112500421  
본문:   <br/> <br/>한화손해보험은 기존 판매중이던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 II’을 개정해 지난달 5일부터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개정된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II 1609’ 는 전가족완전보장에 기반하여 합리적 보험료로 생애주기별 사망보장과 생존보장(3대질병 보장 등)의 보장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기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br/> <br/>기존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질병 위험에 대한 고객의 필요 니즈를 반영하여 최초 진단 보장에서 재진단(2차진단)으로 확대 보장하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수술비와 1일 이상 입원비 담보도 추가하여 치료 단계별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뇌질환 및 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장 넓게 보장해준다. 이외에도 3대 장애진단비(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와 크론병진단(희귀난치성 만성염증성 장질환) 담보를 신설하여 추가 보장한다. <br/> <br/>개정 상품은 보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재테크 설계도 가능한데, 중도환급제도를 통해 은퇴시기인 60~80세에 노후자금 마련이 용이하다. 또한 계약전환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연금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암(소액암제외) 진단비 무사고환급형 담보를 가입하면 60~80세(5세 단위, 1회) 중 원하는 시기에 무사고시 가입금액의 50%를 돌려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대비 할 수도 있다. <br/> <br/>또한 직장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신설된 ‘단체보험 종료후 실손의료보험 추가 담보’를 활용하여 직장생활 중에는 중복되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퇴사 이후에는 실손의료보험 공백없이 계속 보장이 가능하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txt

제목: 청소년 첫 흡연 12.7세… 선진국보다 빠르다  
날짜: 20161030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0212827153  
본문: 흡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12.7세에 처음 담배를 피우고 13.6세에는 하루 한 개비 이상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흡연 진입 연령은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br/> <br/>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첫 흡연 경험 연령은 12.7세로 파악됐다. 캐나다와 호주의 첫 흡연 경험은 각각 13.6세, 15.9세다. <br/> <br/>호주는 2012년 말 세계에서 최초로 ‘담뱃갑 단순 포장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갑에서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없애 담뱃갑을 표준화한 뒤 큰 경고 그림을 넣은 것이다. 그 효과로 전체 흡연율이 2010년 15.1%에서 2013년 12.8%로 떨어졌고 첫 흡연 경험 연령 역시 같은 기간 15.4세에서 15.9세로 높아졌다. 단순화된 담뱃갑이 흡연욕구를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잇따르자 프랑스와 영국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br/> <br/>우리나라는 2005년 12.0세에서 2008년 12.7세로 첫 흡연 경험 연령이 올랐으나 그 이후로는 더 늦춰지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br/> <br/> <br/>단순 호기심을 넘어 매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를 조사하는 ‘흡연 시작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13.6세로 나타났다. 유럽연합(17.6세), 뉴질랜드(17.7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어린 나이에 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게 되는 것이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도 22개국 성인(20∼34세)을 대상으로 정기 흡연 시작 연령을 조사하는데 중국(19.5세, 남성 기준), 인도(18.3세), 폴란드(17.6세), 브라질(17.1) 등 우리나라 청소년에 비하면 정기 흡연 시작 연령이 늦은 편이다. <br/> <br/>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 첫 흡연 경험연령은 최근 4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매일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담배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과 환경이 무엇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청소년기는 신체·정신적으로 발달이 덜 된 시기이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br/> <br/>어려서 흡연을 시작하면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성인이 된 후 금연 성공률도 낮아진다. <br/> <br/>미국 국립암연구소는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 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겨 훗날 담배를 끊더라도 암 발생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br/> <br/>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흡연 청소년의 우울 증상 발현율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br/> <br/>건강증진개발원은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담배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흡연 시작 연령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txt

제목: 존엄사도 권리… 호스피스 확대 급하다  
날짜: 20161030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30204847617  
본문: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다시 한 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br/> <br/>2011년 12월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유심초의 ‘사랑이여’가 조용히 울려퍼졌다. 결장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뜬 이준우(52)씨가 생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 잠든 고인은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가족들은 흐느꼈다. 고인이 병을 알게 된 건 2009년 배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뒤였다. 이후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악화됐고, 결국 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다. 가족은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 고인이 아내와 처음 만난 12월14일을 맞아 작은 이벤트를 열었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떴다. <br/> <br/>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모든 이별이 그렇듯 죽음을 앞둔 환자나 가족들은 커다란 슬픔에 맞닥뜨린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상 환자와 가족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환자의 통증 관리 등은 물론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이 절실한 이유다. <br/> <br/> <br/>◆ ‘죽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낮은 호스피스 이용률 <br/> <br/>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을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 신체적 치료는 물론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의료를 말한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환자는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닌 전문가들의 안전한 ‘돌봄’과 함께 남은 삶을 준비하게 된다. <br/> <br/>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환자와 가족 모두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생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부정-분노-타협-절망-수용’의 5단계로 나눠 구분했다. 처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환자는 현실을 부인하다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있어났나’며 분노한다. 이후 환자들은 ‘우리 딸 시집가는 모습만 보게 해달라’며 죽음을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타협의 단계를 거쳐 고독과 슬픔을 절감하게 된다. 이후 들쭉날쭉하던 감정의 기복이 잦아들고 임박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br/> <br/>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국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마지막 임종 장소는 집(57.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19.5%), 병원(16.3%), 요양원(5.2%) 순이었다. 이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길 원하지만 간병할 가족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 ‘죽음의 질’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낮을 확률이 크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3% 정도다. 미국(43%)이나 대만(30%)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br/> <br/>◆국민 73%,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존엄사’ 역시 권리 <br/> <br/>지난달 서울의대 윤영호교수연구팀과 국립암센터 이근석교수연구팀이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시행을 1년 앞두고 일반국민 1241명과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국민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7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이보다 높은 98.7%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혔다. <br/> <br/>그러나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한정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 76.1%, 의사 81.3%가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호스피스 대상 질환 종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호스피스 병상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반인 90%와 의사들 91%가 “<span class='quot0'>말기환자 및 임종환자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span>”고 답변했다. 의사(95%)의 경우 일반인(84.9%)에 비해 ‘말기환자의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br/> <br/>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일반국민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주지 않음’을 22.4%가 꼽았으며, 의사들의 31.5%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응답했다. <br/> <br/>간병 관련 방안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의사의 시각이 갈렸다. 일반인 96%는 가족들이 직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대부분의 의사들(96%)은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하는 간병 도우미(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br/> <br/>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의 주된 장애물로 일반국민의 24.3%는 ‘통상적 치료를 끝까지 하려는 환자나 가족의 태도’를 꼽았으며, 의사들의 25.8%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인력의 부족’을 가장 주된 장애물로 꼽았다. 의사들(19.1%)과 일반국민(22.6%)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 및 가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br/> <br/>연구를 총괄한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1'>사전의료계획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범부처 웰다잉종합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국민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데 큰 혼란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txt

제목: [상생경영 특집] 아모레  
날짜: 20161028  
기자: 정지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8031207443  
본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가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에 참가한 여성 암환자에게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아모레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하고 있다.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됐다. <br/> <br/>유방암 전문의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에 참여한 환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약 17% 감소하고 암에 대한 회피적 대응 정도도 12% 줄어드는 등 긍정적 심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이 캠페인에 총 1만29명의 여성 암환자 및 3336명의 아모레 카운슬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방문판매로 활약해 온 아모레 카운슬러 및 교육강사가 뷰티 전문가로서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달한다. 올 하반기 캠페인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총 16개 병원에서 59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암을 경험한 유명 연사가 직접 연단에 올라 자신의 투병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메유라 토크’도 특별 진행될 예정이다. 암 수술 후 2년 이내이거나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들에게는 현장실습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로셔, 헤라(HERA) 메이크업 제품과 프리메라(Primera)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으로 구성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키트’가 제공된다. <br/> <br/>정지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txt

제목: [이태형의우주여행] 가깝고도 먼 화성 가는 길  
날짜: 2016102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210750930  
본문: 9월 말 미국 테슬러사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024년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의 마스원은 2020년쯤 화성에 정착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는 20만명이 넘는 희망자가 응모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 기고문에서 “<span class='quot0'>미국의 다음 목표는 화성 유인기지 건설이고, 2030년까지 유인탐사선을 보내겠다</span>”고 밝혔다. 과연 10년, 혹은 20년 내에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을까. <br/> <br/>화성까지의 여행 중 우주인은 엄청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다. 지구는 자기장이 막아줘 안전하지만 우주공간은 그렇지 못하다. 우주에서 인체에 위험이 되는 방사선은 태양(태양풍)과 태양계 밖(은하우주선)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이다. 방사선 피폭량은 시버트(Sv)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오랜 기간 1시버트(1Sv=1000mSv)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암 발생률이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12년에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 로버의 항해기간 동안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했다. 결과는 하루 평균 1.84mSv 정도였다. 1년이면 약 670mSv에 해당한다. 이것은 우주선의 보호막을 뚫고 내부까지 침투한 방사선량이다. 그중 태양에서 온 건 5% 정도고, 대부분은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다. 이 정도의 피폭량은 5~6일에 한 번씩 CT촬영을 하는 것과 같다. 태양풍에 비해 태양계 밖에서 오는 입자는 에너지가 훨씬 높기에 일반적인 우주선의 보호막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큐리오시티는 화성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하루 피폭량은 약 0.64mSv로 항해 때의 약 3분의 1이다. 500일 정도 화성에 머물면 0.32Sv의 양이다. 지구와 화성은 약 2년 2개월마다 가까워지는데, 이 때문에 우주인은 1년 이상을 화성에 머물러야 한다. 화성까지 6개월, 화성에서 500일, 지구 귀환에 6개월, 이 모든 기간에 약 1.0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NASA는 이 자료를 토대로 우주여행 중 방사선 노출 한계를 정하고, 피폭을 막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br/> <br/>문제는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1%밖에 안 된다. 아폴로 우주선의 지구 귀환 때처럼 낙하산만으로는 우주선을 충분히 감속시킬 수 없다. 역추진로켓을 사용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연료의 무게다. 2명이 탑승했던 달착륙선이 약 15톤이었는데, 그중 무려 10톤이 연료였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로 달보다 2배 이상 크다. 즉 달착륙선보다 강한 로켓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화성에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장기간 화성 탐사에 필요한 수십 톤의 식량도 가지고 가야 한다. <br/> <br/>현재 인류는 1톤 이상의 우주선을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시킨 경험이 없다. 지난 19일에도 600kg짜리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표면과 충돌해 실패했다. 사람이 탄 수십 톤의 탐사선을 화성에 안착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NASA는 화성 궤도에 100톤 이상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여기에서 비축한 연료와 물자를 먼저 내려 보내려 하고 있다. 2028년 화성 우주정거장을 완성하고, 그 10년 후쯤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킨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br/> <br/>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txt

제목: 10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한 전직 도의원  
날짜: 20161027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193450511  
본문: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오모6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r/> <br/>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전남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오씨는 지난해 A씨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와 농작물 재배 등을 시켰다. 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 슨 장성 농장의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br/> <br/>A씨는 10년 전 형수와 함께 전북 순창에서 살다가 형수의 지인이 오씨를 소개하면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 <br/> <br/> <br/>창고서 식사 해결 전직 도의원 오모씨로부터 10년간 노예 취급을 받은 60대가 낮에 들일을 하다 밥을 지어 먹었던 장소로 알려진 창고의 내부 모습. <br/>장성=연합뉴스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0'>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대서 오씨가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span>”고 진술했다. <br/> <br/>지역 조합장 출신이자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주며 숙식을 제공했다.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A씨가 장성에서 5년여간 지냈지만 외진 농장에 주로 있어 주변과 접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A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으며, 27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 연결해줬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성=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txt

제목: '불법주차=간접흡연'... '사이다' 쪽지 SNS에서 인기  
날짜: 20161027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145848486  
본문: "지난 18년 동안 담배는 손도 안댔는데, 당신 때문에 암에 걸리게 생겼다." <br/> <br/>레딧(Reddit)과 임거(Imgur) 등 소셜미디어에서 불법주차를 간접적으로 항의하는 한 장의 쪽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br/> <br/> <br/>‘이 차를 소유한 아무개에게’로 시작하는 이 쪽지는 거의 평생 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할아버지 사연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쪽지에서 "10살 때인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 손자 졸업하는 것을 보고 싶으면 당장 담배 끊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전했다. <br/> <br/>그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그날 당장 담배를 끊으셨다"며 "하지만 할아버지는 3년 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생전 우린 너무 가까워서 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엄마는 내게 ‘절대 담배는 피지 마라. 제발 네 할아버지처럼 (네 행동·기호를 이유로) 네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고 했고 나도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br/> <br/>그는 "이 말만은 해야겠다. 당신의 거지 같은 주차 때문에 (어찌됐건 스트레스로) 암에 걸릴 것 같은데, 솔직히 18년을 살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게 아주 조금은 후회가 된다"며 "××, 제발 주차하는 법 좀 배워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 쪽지를 담은 사진은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에선 댓글 1220여개가, 이미지 공유 사이트 임거에선 23만2700여명이 조회했다. <br/> <br/>네티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복사해놓고 써먹어야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이 어떻게 주차돼 있었는지, 또 누가 최초로 이 사진을 올렸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국내 한 유머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원성을 산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주차한 슈퍼카’ 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는 추정만 할 뿐이다. <br/> <br/>사진=보배드림 캡처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txt

제목: 前 도의원이 지적장애 60대 10년간 노예처럼 부려, 기초연금까지 가로채  
날짜: 20161027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135833848  
본문: 전직 도의원이 암투병중인 지적장애 60대를 금도 주지 않고 10년간 머슴처럼 축사와 농장일을 시켰으며 기초연금까지 가로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r/> <br/>27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남성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B(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또 A씨는 지난해 B씨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B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B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br/> <br/>A씨는 B씨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축사 관리, 농작물 재배 등을 시켰다. <br/> <br/>B씨는 10년 전 형수와 함께 순창에서 살다가 형수 지인의 소개로 A씨 밑으로 와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지난 5월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B씨를 순찰 도중 발견했다. <br/> <br/>당시 B씨는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 <br/> <br/>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B씨는 "돈을 달라고 하면 A씨가 나중에 준다고 해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고 했다. <br/> <br/>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주며 숙식을 제공했고 명절 때 50만원씩 지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r/> <br/>그러나 경찰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br/> <br/>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B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연결해 줬다. <br/> <br/>또 27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줬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txt

제목: 中 등하굣길 절벽 타는 아이들…"철제다리 설치했지만…"  
날짜: 2016102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7125252236  
본문: 아이들은 익숙한 듯 맨손으로 바위를 오른다.가파른 암벽 위에 있는 중국 쓰촨성 량산이족차치주 소각현의 '절벽 마을'.  <br/>이곳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800m 절벽을 대나무 사다리에 의지한 채 위험한 등교를 하고 있다. <br/> <br/>아이들은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두 번 집으로 돌아간다. 이때마다 학부모들이 교대로 나와 아이들의 등하교 등반을 돕고 있지만 이곳에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으며 만에 하나 떨어지게 된다면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br/> <br/>이러한 사실이 중국 현지를 시작으로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각 지방자치 단체가 100만 위안(약 1억 6700만원)을 모아 지난 8월 철제다리를 설치하기 시작해 이달 말일쯤 완공을 앞두고 있다. <br/> <br/>하지만 여전히 가파른 경사를 시작으로 비가 오면 다리가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제기된다. 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쇠가 부식해 녹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현지 주민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대나무 다리보다 안전한 다리가 놓여 한시름 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암벽등반가가 암벽 타는 게 아닌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다.800m 높이로 아래는 낭떠러지다. 떨어지면 사망한다.얼마나 힘들까.10월 말 철제다리가 완성되지만,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까마득히 보이는 모습이 아찔하다.이 마을은 중국의 빈부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txt

제목: 난자동결의 진실…"위험성 높고 태아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른다"  
날짜: 2016102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6161810832  
본문: 한 번의 수술로 18~20개의 난자를 추출한다.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만혼의 영향으로 고령출산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인식한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를 동결해 출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br/> <br/>25일 일본 NHK 특집 보도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일부는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난자동결을 희망하고 있다. <br/> <br/>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A(39)씨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지금까지 교제 한 번 못한 모태 솔로로 최근 간사이병원의 난자동결을 소식을 듣고 바로 절차를 밟았다. <br/>A씨는 “45세를 넘겨도 난자 나이는 40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결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br/> <br/>A씨는 8일 동안 병원에 다니며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이는 배란을 위한 난자가 1달에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으로 호르몬 주사는 난소의 난자를 추가로 생성하고 키우는 역할을 한다. <br/>이때 여성의 몸은 큰 부담을 받으며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난소의 크기가 정상보다 2배 이상으로 팽창해 “배가 무거워서 서있는 것조차 괴롭다”고 느낌을 말했다. <br/>호르몬 주사를 맞는 A씨. 신체에 부담이 가해진다고 전해졌다.그후 수술대에 오른 A씨는 난소에 빨대 모양의 특수 바늘을 삽입해 난자 19개를 추출했고 이를 질소에 넣어 동결했다. <br/>A씨가 난자동결로 지출한 비용은 약 35만엔(약 380만원)으로, 차후 보존료 등이 추가돼 약 100만엔(약 1086만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 <br/>A씨는 “난자의 시간을 멈출 수 있어 한시름 놨지만 나이를 생각해 빨리 출산하고 싶다”고 복잡한 심경을 말했다. <br/>지쳐 보이는 A씨. 여성의 출산은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동결된 난자. 보관비용만 약 100만엔이 들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난자의 노화는 30대 중반을 시작으로 가속화해 노화된 난자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 붉게 변색되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때부터는 정자와 정상적으로 수정해도 세포분열이 멈출 수 있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전해졌다. <br/> <br/>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은 18.1%로 40세가 되면 절반 이하인 8.1% 떨어지며, 45세가 넘어가면 0.8%로 1%가 채 안 된다고 밝혔다. <br/>그러면서 “난자를 채취할 때 난소가 손상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태어난 아이에게 나쁜 영양을 줄 수도 있다”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br/>노화된 난자(우). 정상과 비교해 차이가 확연하다.난자 동결은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난자동결은 완벽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br/> <br/>난자 동결 세미나에 참석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매번 정원이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높은 지금, 전문가들은 "임신과 출산은 20대가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여건상 어려울 때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난자동결이지만 정상적인 임신·출산과 비교해 볼 때 위험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br/> <br/>난자동결에 관한 의식 조사에서 난자 동결을 긍정적으로 생각 미혼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여성에게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출생한 자녀에게 영향은 없는지 등은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br/>난자동결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세다.NHK는 난자동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임신이 적합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NHK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txt

제목: 초기면역 단계 질병 감염원 제거 기전 세계 첫 규명  
날짜: 20161025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5170219425  
본문: 특정 효소가 몸속의 질병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br/> <br/>대전대 한의예과 진미림(사진)교수 연구팀은 WRS(tryptophanyl-tRNA synthetase)라는 효소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작용기전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진 교수에 따르면 고령자나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가 사소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감염에 치명적인 패혈증을 유발하는 면역반응 기작이 알려져 있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br/> <br/>현재까지 인체의 초기 면역반응은 병원체 (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 존재하는 분자를 인간 백혈구에서 인식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br/> <br/>연구팀은 이를 응용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생쥐에 WRS를 주입한 결과 백혈구 중 하나인 중구 (Neutrophil)가 유입돼 살모넬라가 제거되고 생쥐의 생존 기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대로 WRS를 제거하자 생쥐의 생존 기간이 단축됐다. <br/> <br/>또 이러한 기전이 백혈구 중 하나인 단핵구 (Monocyte)가 병원체를 만나게 되면 WRS의 분비가 시작되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대식작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케모카인이라는 백혈구 유도물질을 분비시켜 감염원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이어 이런 반응이 감염원 침입 후 수 분 내에 시작돼 초기 면역반응 개시 이전에 작동하는 ‘초기 방어 시스템‘ (Primary Defense System)임을 함께 규명했다. <br/> <br/>진 교수는 “<span class='quot0'>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WRS라는 효소가 병원체 감염 시 면역 시스템을 초기에 활성화하여 병원균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로서 세계의 면역학자들이 찾고자 하였던 인간의 내인성 면역 활성인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 낸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WRS를 표적으로 한 패혈증 및 바이러스 등 난치성 감염질환의 진단 시장을 선점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Microbiolog) 지난 1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txt

제목: 김문길 전 교수 "일본과 가깝다고 독도가 일본땅이라니…"  
날짜: 20161025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5155415505  
본문: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밝힌 일본 훈령87호의 근거가 된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원'은 당시 일본 내무성 수로부가 '독도가 거리상으로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br/>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일본 시마네현 주민 41명이 독도를 사찰한 뒤 작성한 사찰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영토편입원 작성 경위를 독도의 날인 25일 공개했다. <br/> <br/>김 소장에 따르면 독도 시찰단에 참가했던 오쿠하라 후쿠이치는 사찰 이듬해인 1907년 사찰보고문으로 '죽도 또는 울릉도'(竹島 及 鬱陵島)라는 책자를 출간했다. <br/> <br/>이 책자에는 독도에서 강치를 잡던 일본어부 나카이 요사부로가 1904년 사냥을 독점하고자 어업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일본 내무성과 농수산성을 방문해 조선의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의했다고 서술했다. <br/> <br/>또 당시만 해도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강치잡이 어부도, 일본 내무성과 농수산성에서도 모두 알고 있어 조선 측 허가를 얻는 절차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책자는 설명했다. <br/> <br/>그러나 일본 내무성의 간 쓰키 수로부장이 "리앙쿠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한일 두 나라에서 거리를 측량하면 일본 쪽에 10리가량 가깝고 일본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상 일본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뀐다. <br/> <br/>수로부장의 설명을 들은 나카이 요사부로는 이를 근거로 독도 영토편입원과 어업허가신청서를 일본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 훈령 87호를 발표한다. <br/> <br/>김 소장은 "나카이 요사부로가 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 만해도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어업허가 신청 과정에서 단지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본영토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훈령 87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책자의 근거가 된 독도 사찰 역시 훈령87호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독도 지배력을 과시하고자 서둘러 사찰단을 꾸리고 일주일가량 둘러본 뒤 보고서를 출간했다"며 "러일전쟁 직후 어수선한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임의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0.txt

제목: 미국 암사망자 중 29%가 흡연과 직간접 연관…흡연 폐해  
날짜: 201610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5074055152  
본문: 미국에서 암으로 숨진 사람 중 28.6%가 흡연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4일(현지시간) 미국암학회의 조니 로테트-튤런트 연구원 등이 진이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암 때문에 사망한 16만7133명 중 28.6%가 직·간접으로 흡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 가운데 남성은 10만3609명(62.0%), 여성은 6만3524명(38.0%)이었다. <br/> <br/>연구진은 폐암 등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12가지 종류의 암 때문에 숨진 사람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r/> <br/>전체 암 사망자 가운데 흡연과 연관된 12종류의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켄터키(34.0%)였고 아칸소(33.5%), 테네시(32.9%), 웨스트버지니아(32.6%), 루이지애나(32.6%)가 2∼5위에 올랐다. <br/> <br/>가장 낮은 주는 유타(16.6%)였다. <br/> <br/>연구진은 남성의 흡연 관련 암 사망자 수가 여성보다 많은 데 대해 중년 이상 연령층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흡연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며 그 차이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br/> <br/>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흡연과 관련된 암 사망자 비율이 높은 데 대해 역사적으로 흡연 인구가 많았던 점과 흡연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벼웠다는 점이 함께 작용했다고 말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1.txt

제목: ‘고도비만’ 암생존자, 2차암 위험 높다  
날짜: 20161024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4223008923  
본문: 암 진단 전 고도비만이었던 환자는 정상체중군보다 2차암 발생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24일 국립암센터는 이은숙 암센터 박사와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 연구팀이 2003∼2010년 남성 암 생존자 23만9615명을 추적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 권위지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 <br/> <br/>비만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이 암에 걸린 적이 없는 일반인과 암을 극복한 암 생존자 중 누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br/> <br/>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암에 걸린 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비만(체질량지수 30㎏/㎡ 이상) 남성은 정상 체중(체질량지수 18.6㎏/㎡∼22.9㎏/㎡) 남성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2% 더 높았다. <br/> <br/>그러나 암 투병 경험이 있을 경우 비만 암 생존자의 2차암 발병 확률은 정상체중 암생존자보다 42%나 높았다. <br/> <br/>비만이 일반인과 암 생존자 모두에게 암 발병률을 높이지만, 암 생존자에게 특히 더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진 것은 전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비만을 일으키는 나쁜 건강 행태가 2차암 발생 위험을 높였거나 비만 암 생존자가 암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br/> <br/>‘암 생존자는 2차암 발생을 낮추기 위해 건강검진, 체중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학계 의견이다. 그러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는 2차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2.txt

제목: ‘침묵의 장기' 부활… 한국 간이식 기술 최고  
날짜: 20161023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3211248770  
본문: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위, 갑상선, 대장, 폐에 이어 5번째로 흔한 암이다.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질환이며, 특히 40~50대 남성에게서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암 환자가 많은 만큼 간 이식 수술에 대한 미담도 종종 접할 수 있다. 간경화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한쪽 간을 내놓거나, 간암 말기에 이른 친구를 위해 간 이식을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간이식 건수는 25.2명으로 미국(21.7명), 일본(3.8명)을 크게 앞선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간 이식 수술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도 97%(1년), 89%(3년), 88.5%(5년)라는 세계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의학 분야 최초로 ‘한국 간이식’을 선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br/> <br/>◆세계 간이식 수술 이끌고 있는 ‘한국 의료’ <br/> <br/>이날 학술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생체 간이식’이다. 생체 간이식은 뇌사자를 통한 장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사정에 가장 잘 맞는 형태의 수술이다.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많은 반면 이식이 가능한 뇌사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체 간이식은 간을 떼어주는 기증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해 일반적인 간 이식 수술에 비해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br/> <br/>국내에서는 1994년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팀이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시켰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간 기증자로부터 간의 일부를 떼어내 한 사람의 환자에게 옮겨 붙이는 ‘2대1 생체 간이식’ 기술을 개발, 성공한 이후 70%에 불과했던 간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95%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최근까지 생체 간이식 수술만 4350례를 기록해 단일병원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br/> <br/>국내 간이식 수술에서 생체 간이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간이식 수술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생체 부분 간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뇌사자로부터 장기기증이 적은 국내의 장기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응급이식을 필요로 하는 급성 전격성 간부전, 간기능 부족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간암환자들도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기증자에게 간 절제라는 부담과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안전’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간이식 성공률이 크게 늘고 있고, 합병증 역시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진 역시 말기간부전 환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이식을 권유하는 추세다. <br/> <br/>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0'>간 이식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집중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span>”라며 “<span class='quot0'>각 기관이 기증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기술은 세계 최고… 간 질환 예방 의식은 ‘글쎄’ <br/> <br/>간 이식 수술에 대한 접근은 과거에 비해 쉬워졌지만 간 질환 예방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간학회가 전국 20∼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는 간염 종류에 대한 질문에 B형 간염 92%, A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각각 76%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86%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간염 질환의 명칭은 알지만 어떤 질환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간경변증 환자의 70~80%는 B형간염 바이러스, 10~15%는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나머지 10~15%는 알코올의 과다 섭취와 그 외 여러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B형간염은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C형간염은 한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중에서 30~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한다. <br/> <br/>수술 이후 기증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광협 연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간은 ‘부활의 장기’로 아직 인공 장기로 대체가 불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인공심장처럼 인간이 장기를 만들어서 교체가 가능하면 문제가 적으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아야 할 때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신장이나 간처럼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공자를 찾는 것이 문제이며 이외에도 이식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모든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3.txt

제목: [여행] 아이와 추억 하나를 더 쌓았다  
날짜: 20161020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0100532025  
본문: 충남 홍성 용봉산은 해발 381m에 불과하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노랗게 물든 예당평야, 멀리 서해와 안면도를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져 바위 몇 개만 오르면 마치 산 정상에 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사연이 서려 있는 기묘한 바위들의 위용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br/> <br/>아빠와 함께 산을 오르는 자녀가 얼마 남았는지를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의 대부분은 이렇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는 말처럼 금방 정상에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그간 오른 거리만큼은 더 올라야 한다. 자녀의 투정에 아빠는 손을 내밀고, 자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뭐가 거의 다 왔어”라며 투덜대면서 산을 오른다. 이렇게 몇 번의 투정이 오가야 정상에 도착한다. <br/> <br/>“어때? 좋지?” <br/> <br/>아빠의 물음에 “힘들었어. 다신 안 와”라고 투덜대면서도 정상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과 드넓게 펼쳐진 풍경을 보며 그간의 ‘고생’을 잠시 잊고 슬며시 웃음을 짓는다. 다만 힘든 티를 내야 하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웃지만, 이내 아빠에게 걸리고 만다. <br/> <br/>어린 시절 기억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빠와의 등산 추억이 떠오르는 곳이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 그 추억은 옛일이 됐고, 이제는 거짓말쟁이 아빠가 돼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됐다. ‘거짓말쟁이 아빠’라고 놀림을 받아도, 자녀와 이 같은 추억을 쌓길 원한다면 찾기 제격이다. <br/> <br/>충남 홍성 용봉산은 해발 381m에 불과하다. 산 아래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다. 형형색색의 등산복 외에도 집에서 외출 나온 운동복을 입은 가족 단위 등산객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렇다고 아주 평탄한 길만 있는 산은 아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라면 아빠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구간도 있다. 거기에 더해 몇 걸음 옮길 때마다 노랗게 물든 예당평야, 멀리 서해와 안면도를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사연이 서려 있는 기묘한 바위들의 위용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br/>용봉산의 자라바위.용봉산 산림전시관을 들머리로 최영 장군 활터로 방향을 잡았다. 흙길을 조금 걷다 보면 이내 바위들을 밟고 올라야 하는 구간이다. 바위 몇 개만 오르면 바로 아래 세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온다. 산행을 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산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목을 삐죽 뺀 자라바위와 잘 흔들리지 않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산에서 보는 동물 이름의 바위들은 그 모양이 비슷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용봉산의 바위들은 얼추 모양이 비슷하다. <br/> <br/>암벽을 타고 좀 더 오르면 최영 장군이 어린 시절 활을 쏘며 무예를 연마한 활터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왼편으로 노적봉, 오른편으로는 병풍바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br/>노적봉에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주머니. <br/>300m 정도만 더 걸으면 정상인 최고봉이다. ‘龍鳳山(용봉산) 해발 381m’이 새겨진 표지석이 있다. 정상을 찍은 뒤 노적봉으로 방향을 튼다. 볏단을 쌓은 듯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노적봉엔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신다. 매일 물품을 지고 산을 오르내린다. 잠시 이곳에서 숨을 골라도 좋다. <br/>노적봉의 바위 절벽 틈에 뿌리를 내린 채 자라는 ‘옆으로 크는 소나무’. <br/>숨을 고른 뒤 노적봉을 지나가면 바위 절벽 틈에 뿌리를 내린 채 ‘옆으로 크는 소나무’를 만난다. 길이는 어른 팔 정도지만 100여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나무다. 용봉산에선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br/>소원을 빈 후 돌을 던져 바위 위에 안착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용봉산 행운바위. <br/>이곳을 지나면서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줍자. 노적봉을 내려가는 길은 가팔라 아찔하지만, 계단이 설치돼 있어 많이 위험하지는 않다. 계단을 내려가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촛대바위와 행운바위를 만난다. 행운바위에는 조그만 돌멩이들이 쌓여 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빈 후 돌을 던져 바위 위에 안착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돌멩이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기암괴석의 집합체인 악귀봉은 용봉산에서 가장 풍경이 멋진 곳이다. 서해바다와 안면도가 펼쳐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br/>이곳에서 100여m 더 가면 기암괴석의 집합체인 악귀봉이다. 서해의 낙조가 일품인 악귀봉 낙조대는 용봉산에서 가장 풍경이 멋진 곳이다. 서해바다와 안면도가 펼쳐지고, 반대편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군바위가 솟아 있다. 장군 바위 옆으로 병사들이 따르는 듯한 모습의 바위들이 이어져 있다. 특히 왼쪽 끝에 있는 바위는 한껏 뛰어오르고 싶어하는 움츠린 두꺼비 모양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하다. <br/>악귀봉에서 보는 장군바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군바위가 솟아 있고, 옆으로 병사들이 따르는 듯한 모습의 바위들이 이어져 있다. 왼쪽 끝에 있는 바위는 한껏 뛰어오르고 싶어하는 움츠린 두꺼비 모양을 하고 있다.장군바위 끝에 있는 두꺼비 바위. <br/>악귀봉까지 둘러본 후 용봉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산길에는 고려 초기에 만든 높이 4의 신경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355호)이 있다. 자연 암석을 파서 부조한 불상으로 조금이라도 인간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겠다는 듯 기울어 있다. 용봉산 마애여래입상은 자연 암석을 파서 부조한 불상으로 조금이라도 인간 세상을 자세히 바라보겠다는 듯 기울어 있다.다른 지역 불상과 반대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내리고 있다. 당시 힘이 강했던 홍성 지역 호족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 모양이 다른 불상을 세웠다고 한다. 용봉사에서 바라보는 병풍바위 풍경도 일품이다. 병풍바위를 자세히 보려면 용봉사에서 병풍바위 쪽으로 이어진 길도 있으니 여력이 된다면 다시 산을 올라도 된다. 조수연 숲해설가는 “용봉산은 산세라고 말하기 뭐 할 정도로 높이는 낮지만 다양한 풍경을 품고 있는 산”이라며 “어린아이들도 올라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여러 산행 코스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br/> <br/>홍성=글·사진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4.txt

제목: 실험동물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첫 해독  
날짜: 20161020  
기자: 김용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0030652783  
본문: 권태준 교수가 수조 속에 있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보며 웃고 있다.효모나 초파리처럼 실험실에서 쉽게 다룰 수 있어 100여년간 실험 동물로 각광을 받아온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genome)가 한국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에 의해 해독됐다. 이에 따라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의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 개구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br/> <br/>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소속 권태준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4만여개 유전체를 염색체 수준으로 규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이날(현지시간) 세계적인 전문과학지 ‘네이처’에 발표됐다. <br/> <br/>체외수정으로 한 번에 큰 알을 수백개씩 얻을 수 있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유전자 발현 조절도 쉬워 유전자를 연구하는 발생학과 세포생물학, 생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험동물이다. <br/> <br/>특히 실험에서 다루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세포주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혈관 형성이나 장기의 발생과 같은 복잡한 형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험모델로 애용돼 왔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그동안 식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span class='quot0'>유전자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암이나 선천성 기형처럼 질병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연구는 2009년부터 7년간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서 60명이 참여해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br/> <br/>김용출 기자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5.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심해잠수정과 피부암, 뜻밖의 인연  
날짜: 20161020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20010154562  
본문: 암실에서 실험을 하던 빌헬름 뢴트겐은 1895년 검은 종이로 둘러싼 음극선관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당시에는 이 새로운 광선이 어떤 것인지 몰라 X선이라고 했다. X선을 발견한 뢴트겐은 1901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br/> <br/>지금 X선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건강검진 때 X선 촬영은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X선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에도 쓰이고, 공항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에 대비한 수하물 검사에도, 예술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기 위해서도 쓰인다. 우리 눈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체 내부, 건물 내벽, 여행가방 속까지 투시할 수 있는 X선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br/> <br/> <br/>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해양학회장과학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뜻하지 않은 발견이란 뜻의 영어 단어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있다. 이 단어는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의 옛 이름 세렌딥(Serendip)에서 유래됐다. 영국 작가 호러스 월폴이 쓴 ‘세렌딥의 세 왕자’라는 우화에서 세렌딥 왕자들이 섬 왕국을 떠나 세상 풍파를 겪으며 뜻밖의 발견을 했다는 내용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한다. <br/> <br/>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심해유인잠수정과 피부암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과제를 하던 연구팀은 심해유인잠수정으로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심해저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서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수천m 바닷속에 있는 광물자원의 금속 품위를 현장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br/> <br/>한국기계연구원 변성현 박사는 레이저 유도 플라스마를 이용해 심해저 현장에서 광물을 분석할 장비를 개발 중이었다. 레이저 유도 플라스마 분광분석법은 대기압 또는 진공 상태에서 개발됐다. 이 기술은 화성탐사 로봇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중, 특히 압력이 높은 심해에 적용하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다. 지금은 수심 수백m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정도다. 개발 목표는 심해유인잠수정이 잠항할 수 있는 수심 6500m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다. <br/> <br/>레이저 유도 플라스마 분광분석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물체에 레이저 빔을 쏘아서 만들어지는 플라스마를 이용해 시료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료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원소의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전처리가 필요 없고 분석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장치를 탑재한 심해유인잠수정은 심해저 광구로 내려가 광물자원에 어떠한 금속이 들어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팀은 시제품을 만들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임상자료를 수집한 결과 의료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피부암 조기 진단기술을 개발한 연구팀은 벤처기업을 설립해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벤처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유도 플라스마 분광기술을 활용해 피부조직을 훼손하지 않고 피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눈으로 보아 피부암이 의심되면 조직을 잘라 조직검사를 통해 판단했으나, 피부미용 레이저를 사용해서도 간편하게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아토피나 건선처럼 잘 알려진 피부 질환부터 다른 암 진단까지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X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br/> <br/>요즘 융합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심해유인잠수정과 피부암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 공학, 의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나 의견 교환을 하면 뜻밖의 발견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br/> <br/>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국해양학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6.txt

제목: 수술부위 확대 영상 등… 생체정보 실시간 제공  
날짜: 20161017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7212040077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진이 암이나 혈관의 위치 같은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br/> <br/>17일 포스텍에 따르면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사진) 교수 연구팀이 광음향과 광간섭 영상기술을 수술용 현미경과 결합하고 증강현실을 적용해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돕는 수술용 광음향·광간섭 영상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br/> <br/>이 기술을 이용하면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환부의 확대영상을 보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표면 아래에 있는 암이나 혈관의 위치, 조직 구조 같은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광음향과 광간섭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현미경 렌즈에 바로 제공해, 의사가 굳이 모니터로 시선을 옮기지 않고도 두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안과수술이나 미세혈관 수술과 같은 미세수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7.txt

제목: [최현태 기자의 와인홀릭] 미국 컬트와인을 아십니까  
날짜: 20161014  
기자: 최현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4002008015  
본문: 피터 마이클 와이너리 로고햇살이 눈부신 아름답고 높은 언덕. 그녀의 풍만한 금발은 서늘한 바람에 흩날린다. 바다를 한껏 품은 바람은 봄 아지랑이처럼 먼지날리는 땅내음도 머금었다. 화장기 하나 없고 어떤 인위적인 조작도 없는 태고의 순수. 그러나  헐리우드의 그 어떤 여배우보다 화려하다. 정열적인 열대 과일. 관능적인 장미꽃과 오렌지꽃 같기도 한 그녀의 채취는 나를 잃게 만든다. 무아지경. 진정한 컬트 와인(Cult Wine) 와인은 이런 것일까. 추종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경외감. 피터 마이클 마 벨 피흐 샤도네이(Peter Michael Ma Belle-Fille Chardonnay)는 마치 샤도네이의 정수를 보는 듯하다. <br/>  피터 마이클 마 벨 피흐. 출처=홈페이지cult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 방식이나 태도, 사상 등에 대한 추종이나 숭배를 뜻한다. 광신적 종교 집단의 뜻도 있다. 실제 cult는 라틴어로 숭배를 뜻하는 ‘cultus’ 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와인에 컬트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아마도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일테다. 컬트 와인의 개념은 1980년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는데 소규모 와이너리, 고품질, 소량 생산이 특징이다. 이때문에 개러지(garage·차고) 와인, 부띠끄 와인으로도 불린다. 구매자 명단인 메일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소수 고객에게 제공되는 와인도 있을 정도다. <br/>오 빠라디. 출처=홈페이지미국에서 손꼽히는 컬트 와인중 한 곳이 피터 마이클이다. 1987년 영국인 피터 마이클 경과 그의 아내(Sir. Peter & Lady Michel) 가 설립한 피터 마이클은 15종의 와인을 한해에 20만병 정도만 생산한다. 한종류당 평균 1만6000병 정도가 전세계 시장에 공급되니 정말 찾기 힘든 와인이다. 당연히 메일링 리스트에 이름이 등록된 소비자만 구입할 수 있다. 피터 마이클이 와인 명가들이 즐비한 나파 밸리 오크빌(Oakville)에서 빚은 오 빠라디(Au Paradis)의 첫 빈티지는 2011이다. 그런데 불과 두 번째 나온 2012 빈티지가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 2015년 톱 100 와인 1위에 선정될 정도니 피터 마이클이 얼마나 뛰어난 와인인지 가늠할 수 있다. 설립자 피터 마이클의 아들로 와이너리 오너인 폴 마이클(Paul Michael)이 최근 글로벌 세일즈 매니저 알리샤 카스비어( Alysia Casebeer)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그를 4일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터뷰했다. <br/> <br/>피터 마이클 오너 폴 마이클.피터 마이클은 어떻게 최고 컬트 와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피터 마이클을 특별한 컬트 와인으로 만드는 몇가지가 있어요. 고도가 높은 산에 있는 싱글빈야드와 생산량 제한을 통한 포도의 뛰어난 응축력, 기라성 같은 와인메이커의 셈세한 양조,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적어도 100년은 가족 경영으로 와이너리를 이끌고 가야한다는 신념이이죠”. <br/>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에 있느 피터 마이클의 포도밭 출처=홈페이지전기 엔지니어이자 방송 특수효과 장비로 크게 성공한 영국인 사업가 피터 마이클이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에 빠지게 된 것은 1976년 유명한 ‘파리의 심판’때 화이트 와인 1위에 오른 샤토 몬텔레나(Chateau Montelena)를 마시고 나서다.  그는 사업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무실에 자주 다녀갔는데 하루는 샌프란시코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다. 그러나 와인은 코르크가 부식되면서 상한 상태였다. 같은 와인 다른 보틀을 주문했으나 역시 마찬가지. 이에 소믈리에는 다른 화이트 와인을 추천했고 이 와인이 바로 샤토 몬텔레나다. 그날 샤토 몬텔레나를 마시고 나파밸리의 화이트 와인의 뛰어난 품질에 홀딱 반한 피터 마이클은 와인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치밀하게 포도밭 후보지 조사를 시작했다. 와인 애호가인 피터 경 가족들은 테이블 와인으로 보르도와 부르고뉴 상급 와인을 즐길정도였고 이미 10대때부터 이런 고급 와인을 접했다고 한다. 이런 환경 덕에 프랑스 보르도와 부르고뉴에 자주가면서 고급 와인을 영국으로 가져와 소비하던 피터 마이클은 좋은 포도밭이 어떤 곳에 조성돼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br/>“부친이 선택한 곳은 캘리포니아 소노마 코스트 동부의 해발고도 370~600m 높이에 있는 산악 포도밭(Mountain Vineyards) 나이츠 밸리(Knights Valley)입니다. 훌륭한 포도밭은 산이나 경사진 곳이어야 하고 샛강이 있어 물 공급이 가능해야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너무 멀지 않아 가기 어렵지 않고, 나파밸리처럼 와이너리가 바글거릴 정도로 많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br/> <br/>화산암 등으로 이뤄지 피터 마이클의 포도밭. 출처=홈페이지화산암과 유문암 등 굉장히 많은 돌로 이뤄진 나이츠 밸리는 경사도가 40도인데다 배수가 탁월하지만 건조하지는 않을 정도로 습기를 약간 머금어 와인 재배에 최적화된 곳이다. 돌이 많은 산악 포도밭은 산도, 탄닌, 풍미를 두루 갖춘 고급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산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알이 작지만 폴리페놀이 많고 탄닌이 강하며 미네랄 풍부한 특징을 지닌다. <br/>방한한 폴 마이클.피터 마이클은 1982년 이곳의 포도밭을 사들여 영국 빅토리아풍을 연상케하는 대저택 와이너리를 설립해 본격적인 양조를 시작했다. 현재 소노마 코스트 나이츠 밸리 6곳, 나파밸리 오크빌 1곳 등 모두 7개의 단일 포도밭에서 최고의 컬트 와인을 빚고 있다. 포도밭은 모두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지어졌다. 샤르도네 품종을 재배하는 마 벨 피으(Ma Belle-Fille·아름다운 나의 며느리), 라 카리에르(La Carriere·채석장), 벨 꼬뜨(Belle Cote ·아름다운 언덕),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페르네 프랑 등 레드 품종을 재배하는 오 빠라디(Au Paradis·천국), 레 빠보 (Les Pavots·양귀비), 레스프리 데 빠보(L’Esprit des Pavots·양귀비의 정신), 마당 쉐즈(Ma Danseuse·나의 댄서)다. 피터 마이클은 이 포도밭에서 떼루아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품종만 선택해 저소출(Low yield)로 재배한다. 오크빌만 두 가지 품종을 재배한다. <br/> <br/>피터 마이클 샤르도네는 특징은 매우 풍성한 미네랄이다. “피터 마이클 와인들은 화산토의 특징때문에 뛰어난 미네랄 풍미를 지문처럼 달고 다닙니다. 구체적으로 젖은 돌 또는 깨진 굴껍질의 미네랄 풍미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고지대 위치한 포도밭은 해풍의 영향으로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게 해줘 산도가 뛰어난 샤도네이를 맺게 해준답니다”.  피터 마이클은 농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지치기나 잎 관리 등 포도나무 한그루당 90차례나 사람의 손길이 닿을 정도로 애지중지 관리한다. 특히 착즙때 줄기채 압착하는 전송이 압착 방식(Whole Cluster Pressing)을 사용한다. 최고의 주스를 뽑아내기 위해 아주 부드럽게 착즙하며 보통 와이너리보다 20~30% 덜 뽑아낸다. 샤르도네는  프랑스 오크에서 11개월 숙성시키는데 새 오크의 비율을  제한해 미국 샤르도네의 특징인 버터리한 느낌을 최대한 절제한다. 또 죽은 효모와 함께 숙성하는 쉬르리(Surlie), 즉 앙금 위 숙성을 통해 풍미를 더해주고 포도와 떼루아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틀에 와인을 담는다. <br/> <br/>■피터 마이클 대표 와인들 <br/>피터 마이클 와인은 보르도와 부르고뉴 같은 와인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수세대에 걸친 가족 오너십을 통해 가장 캘리포니아적이면서 세계적인 클라스의 와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 피터 마이클 와인들은 대부분 싱글빈야드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포도밭 이름마다 모두 사연이 담겨있다.  현재 나라셀라에서 단독 수입하는 화이트 와인 3종과 레드 와인 4종 등 모두 7종이 수입된다. <br/> <br/>마 벨 피흐마 벨 피흐는 ‘아름다운 나의 며느리’라는 뜻으로 폴 마이클의 아내 에밀리(Emily)에게 헌정한 와인이다. 마 벨 피으 포도밭을 조성할때쯤에는 폴 마이클이 결혼해 아내를 맞았는데 피터 마이클은 이 와인이 며느리처럼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느껴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포도밭의 해발고도는 600m로 나이츠 밸리에서 고도가 가장 높다. 안개를 내려다볼 정도의 높이라 햇볕을 잘 받으면서도 해풍으로 서늘하다. 따라서 가장 완숙된 포도가 나온다. 포도밭 3곳의 샤르도네를 섞는데 10년 이상 장기숙성이 가능한 샤도르도네다.  익은 복숭아와 꽃 향기, 미네랄이 느껴지고 순수하고도 리치한 풍미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구조적인 파워감을 갖추기 위해 ‘웬티 클론’ 샤르도네만 사용한다. 웬티 클론은 미국의 웬티 와이너리가 프랑스에서 들여온 샤르도네 클론으로 현재 나파밸리는 80% 이상이 웬티 클론이다. <br/>라 까리에르.라 까리에르는 ‘채석장(The quarry)’을 뜻한다. 바위가 많은 밭이라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해발고도 320∼520m이며 40도가 넘는 급경사로 배수가 탁월하다. 하지만 해풍이 굉장히 거세 단위면적당 소출이 매우 적다. 2013년에는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해풍이 거셌다고 한다. 굉장히 소량생산하는 피터 마이클 입장에서는 이 포도밭은 도전일 수 밖에 없지만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샤르도네 100%로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떼루아 덕분에 미네랄리티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오렌지 꽃, 브리오슈, 구운 아몬드, 미라벨 플럼, 드라이 허니, 자스민, 헤이즐넛, 배 아로마가 지배적이다. 감귤류, 꿀, 바닐라 향도 느껴지고 복숭아와 레몬의 상큼함이 미네랄을 더욱 도드라지게한다. 우아하면서도 빼어난 응집력과 탄탄한 구조, 밀도있는 맛을 선사한다. 라 카리에르는 14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르 마셔야 오렌지 꽃향 등을 잘 느낄 수 있다. 벨 꼬뜨. <br/> <br/>벨 꼬뜨는 ‘아름다운 언덕’이란 뜻으로 피터 마이클 부자가 즐겨다니던  스키 슬로프 이름이기도 하다. 피터 마이클 소유의 6개의 샤도네이 포도밭 중 가장 수령이 오래된 밭이며 높은 고도와 서쪽 경계에 심어진 나무로 그늘이 형성돼 있다. 덕분에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가 유리한 샤르도네 품종이 천천히 완벽하게 익게된다. 라 까리에르보다 풍미와 무게감이 더 있는데 향이 아주 강렬하고 힘찬 와인이다. 리치, 망고스틴, 패션 후르츠 등의 열대 과일과 시트러스, 장미꽃, 오렌지꽃 향을 느낄 수 있다.  또 미네랄과 오렌지청, 황도, 누가, 토스트한 아몬드 향도 따라온다. 풀 바디에 크림과 같은 질감을 지닌 관능적 와인으로 좋은 산미와 구운 빵의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폴 마이클이 이 와인을 가장 좋아하는 와인으로 꼽았다. <br/>오 빠라디.오 빠라디는 ‘천국’이라는 뜻이다. 피터 마이클은 매년 암치료 자선 기금을 모으기 위해 8월 포도밭 정상 전망대에서 파티를 열고 캠프 파이어를 하는데 5살된 아들이 “여기가 천국 같다”고 말해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피터 마이클의 15개와인중 가장 최근에 탄생했다. 와이너리 설립 이래 소노마에서만 와인을 생산하던 피터 마이클은 카베르네 소비뇽의 ‘천국’으로 불리는 나파 밸리 오크빌에 2009년 땅을 매입 생산을 시작했다. 오크빌은 할란, 로버트 몬다비, 조셉펠프스 등 유명 와이너리들이 포도밭을 소유한 곳이다. 두 번째 빈티지(2012)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와인 스펙테이터 톱 100 에서 2015년 1위를 차지해 나파 밸리에서도 명성을 날리게 됐다. 카베르네 소비용 77% 카베르네 프랑 23%를 섞었으며 캘리포니아와 보르도가 보여줄수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와인이다. 블랙 커런트, 블랙 체리, 초콜렛, 감초, 정향, 시나몬, 오렌지의 아로마가 풍성하다. 벨벳 같은 질감에 블랙 올리브, 코코넛, 자두의 풍미와 미묘한 철분이나 화약 냄새같은 미네랄이 느껴진다. 둥근 피니쉬는 복합적이면서도 오래 지속된다. 30년 이상 장기숙성이 가능하다. <br/>레 빠보.레 빠보는 ‘양귀비(The poppies)’란 뜻으로 양귀는 피터 마이클 모든 와인의 레이블에 그려진 와이너리의 상징이다. 피터 마이클의 부인이 캘리포니아 산자락에 핀 야생 양귀비를 보고 와이너리의 상징과  플래그 십 와인을 레 빠보를 정했다고 한다. 피터 마이클이 폴 형제를 보내 최초로 식재한 포도밭으로 레 빠보보다 좀 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이다. 보르도 좌안 스타일로 블렌딩해 카베르네 소비뇽 70% 카버네 프랑 17% 메를로 10% 쁘띠 베르도 3%다. 블루베리 파이와 검은 과실류, 감초, 초콜릿, 바닐라, 커피, 홍차, 소나무, 시가박스 부케가 좋다. 파워풀면서 농밀하며 잘 익은 가을 과일같다. 질감은 육중하며 시가박스, 소나무, 산미 밸런스가 좋다. 최대 40년까지 숙성가능하다. 1997과 2007 빈티지는 최고로 완벽한 해에 빚어졌다. 레 빠보는 보통 1에이커당 소출이 2∼3t이며 기후 안좋을때는 1.5t까지 줄어든다. 통상 와이너리가 에이커당 2t대를 생산한다면 기절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소출량이다. 하지만 매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최고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피터 마이클의 뚝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폴 마이클은 “레 빠보가 모짜르트라면 오 빠라디 베토벤 같은 와인이다. 레 빠보는 보다 여성적 느낌이고 오 빠라디는 근육질의 남성 풍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br/> <br/>레스프리 데 빠보는 ‘양귀비의 정신’이란 뜻이며 레 빠보의 어린 묘목의 포도로 만들며 2001년이 첫 빈티지다.  카베르네 소비뇽 56% 카버네 프랑 22% 메를로 21% 쁘띠 베르도 1%다. 테루아의 특색을 잘 표현하며 레 빠보보다 더 탄탄한 과실 풍미와 출시 후 더 빠른 시음 적기, 빈티지마다 다른 매력을 담아내는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다. <br/>마 당쉐즈.마 당쉐즈는 ‘나의 댄서’란 뜻으로 피터 마이클이 사교댄드 클럽에서 만난 아내와의 첫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피노 누아 100%다. 피터 마이클은 ‘투르 소노마 코스트(Ture Sonoma Coast)’로 불리며 2012년 독립AVA로 지정된 소노마의 포트-로스 시뷰에서 피노 누아를 생산하고 있다. 실키한 질감과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이 특징이며 20년 정도의 숙성 잠재력을 지녔다. 감귤류 레몬과 브리오슈 등 빵냄새를 느낄 수 있다.  <br/> <br/>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8.txt

제목: 혼자만의 고통 비뇨기 질환… 치료 어떻게  
날짜: 20161013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3204935092  
본문: 1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는 비뇨기 질환의 전조증상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br/> <br/>배뇨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중 하나다. 그러나 배뇨 현상이 조절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혼자만의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치할 경우 병이 악화되어 일상을 망칠 수 있다. 노년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립선암, 방광 전체를 잃을 수 있는 방광암 등 비뇨기 질환은 우리의 노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  <br/> <br/> 14일 EBS1 ‘명의’는 비뇨기 질환의 전조증상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br/>EBS 제공소변이 자주 마렵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과 약해진 소변 줄기는 노년의 남성 대부분이 겪는 대표적인 배뇨 장애 증상이다. 그러다 보니 노화현상으로 생각해 방치하고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이다.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악화시켜 합병증을 야기한다. <br/> <br/>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전립선암은 병의 징후가 거의 없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검사를 받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립선암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암이 뼈까지 전이된 말기일 가능성이 높다. <br/> <br/>김승태씨는 혈뇨 증상과 잦은 피로로 병원을 찾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방광암이었다. 그가 방광암에 걸린 주된 원인은 흡연이었다.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30년 넘게 피워 왔다는 승태씨. 방광암은 한번 발병하면 방광조직 자체가 암이 잘 생기는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방광암 수술 시에는 대부분 방광 전체를 적출해낸다. <br/> <br/>비뇨기 질환은 수술 외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 배뇨 장애를 조절하는 것과 병변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시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그만큼 조기에 진단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09.txt

제목: [월드 이슈] "나는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7살 베컴의 '희망'  
날짜: 20161013  
기자: 조성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3192414226  
본문: “<span class='quot0'>나는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span>” <br/> <br/>미국 프로야구(MLB) 정규시즌 전체 승률 1위인 시카고 컵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오르며 108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 기대를 높인 가운데, 컵스 로고를 새긴 의안(義眼)을 한 7세 소년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미국 프로야구(MLB) 팀인 시카고 컵스의 로고를 새긴 의안(義眼)을 한 7세 소년 베컴 조브리스트의 모습. <br/>WGN 캡처. 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스포츠전문 ESPN과 일리노이지역신문 저널스타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 모튼시에 사는 컵스 팬 베컴 조브리스트(7)는 4년 전 소아암의 일종인 ‘망막모세포종’(retinoblastoma) 진단 후 오른쪽 눈 제거 수술을 받았다. <br/> <br/>베컴의 부모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눈과 슈퍼맨·배트맨 등이 새겨진 안구 보철물을 주문제작해 어린 아들이 의안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고 ‘암을 극복한 승자’라고 용기를 북돋웠지만 베컴은 누군가 자신의 눈을 쳐다보면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 베컴은 의안이 자랑스럽다. <br/> <br/>파란색 홍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컵스 로고를 새겨넣은 이 특별한 의안은 그가 암과 싸웠다는 사실 외에 컵스의 열렬한 팬임을 알려준다. 특히 올 시즌 컵스가 승승장구하면서 베컴의 눈은 점점 더 큰 빛을 보게 됐다. 베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span class='quot1'>의안이 아닌 진짜 눈,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다</span>”고 소원했다. 당황한 엄마가 “그다음 갖고 싶은 건 무엇인지” 묻자 그는 “<span class='quot2'>컵스 눈</span>”이라고 답했다. <br/> <br/>베컴의 부모는 전문가와 상의해 ‘<span class='quot2'>컵스 눈</span>’을 제작했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은 베컴은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줄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 올봄 MLB 시즌 개막 후 베컴은 뜻밖에도 “유치원에 <span class='quot2'>컵스 눈</span>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물건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쇼앤드텔’(show and tell) 시간에 ‘<span class='quot2'>컵스 눈</span>’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베컴의 엄마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하는 아이 못지않게 나도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br/> <br/>하지만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다. 친구들은 베컴의 눈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줄을 섰고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베컴은 당당히 눈 제거 수술을 받은 사연을 들려주고, 컵스 팬으로서의 자긍심도 표현했다. 베컴의 엄마는 컵스 팬 페이지에 이런 사연을 올렸고, 컵스 구단은 지난여름 베컴의 형들과 부모까지 온 가족을 홈구장 리글리필드로 초대했다. <br/> <br/>컵스 중심타자 벤 조브리스트와 먼 친척 관계로 확인된 베컴은 선수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스타급 선수들과 구장 투어도 했다. 카일 슈와버는 야구방망이를 선물로 건넸고, 앤서니리조는 자신의 암 투병기를 들려주었다. <br/> <br/>이날 행사가 일부 언론에 소개되면서 베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MLB 올해의 팬’ 후보에도 올랐다. ESPN은 최근 일주일간 베컴의 일상을 특별 취재해 12일 밤 뉴스매거진 ‘E:60’ 시간에 ‘시카고 희망’(Chicago Hope)이란 타이틀로 방송했다. <br/> <br/>베컴의 엄마는 “불과 수개월 사이 아들이 놀라운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하나하나의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 완성돼 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r/> <br/>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0.txt

제목: [배연국의 행복한 세상] 카터 "나는 멋진 삶 살았다"  
날짜: 20161012  
기자: 배연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2084600585  
본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작년 여름 백발의 전직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자기가 암에 걸린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암에 걸렸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신나고 흥미진진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중에 키스하는 카터 전 대통령 부부. 당시 카터의 건강 상태는 흑색종(피부암의 일종)이 간과 뇌로 이미 전이되었고, 아흔이 넘은 고령으로 치료도 쉽지 않았죠. 언제 생명의 불씨가 꺼질지 모르는 다급한 처지였지만 그는 기자회견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쾌활한 태도로 유머까지 섞어가며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드디어 넉 달 후 카터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 성경 모임에서 카터가 이 사실을 공개하자 교회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 재임 때보다 퇴임 후의 활동이 더 빛나는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죠. 그는 카터재단을 통해 1984년부터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줄잡아 500만명에 이를 정도라고 해요. 놀랍게도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은 암 투병 중에도 계속되었어요.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집을 짓다 키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카터처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전령이 찾아온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1.txt

제목: 대경대 대규모 축제 학교 밖에서 연다  
날짜: 20161012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2030509399  
본문: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인 대경대가 국내 대학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공축제를 들고 경산 시민의 날을 기념해 대규모 축제를 14일 개최한다. <br/> <br/>문화공연, 체험, 다문화가족후원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증품 판매와 만원의 행복, 후배사랑 장학금 기탁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br/> <br/>축제는 경산시청 뒤편 남천 둔치에서 오후 1시부터 대경대 40여개 학과가 참여하는 직업. 문화 체험을 개방하고 오후 6시 부터는 2부 문화, 공연 축제를 개최해 저녁 10시에 끝나게 되는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무박 하루 축제’다. <br/> <br/>이번 축제는 시민과 함께하고 전공을 기부한다는 취지를 살려 ‘ 꿈과 끼를 살리는 창조행복 교육실현’ 으로 부재를 달고 ‘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기부 대경대 드림 축제’로 개최된다. <br/> <br/>대학관계자는 “<span class='quot0'> 그동안 대학 축제는 캠퍼스에서 인기 연예인만을 불러 소비되는 문화축제 였다면 이번축제는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전공문화축제</span>”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 분위기를 대학과 시민들이 함께 밝은 도시, 힘찬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캠퍼스 밖 ‘ 무박 하루시민축제’ 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1부는 ‘ 대경대 전공체험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 프로그램으로 오후 1시부터 시민들과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진로· 직업체험, 시연행사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학과별 체험 부스를 마련하게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남· 녀 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br/>동물조련이벤트과는 동물전시 체험관을 마련하고 드론과는 드론전시 및 다양한 드론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자동차 딜러과는 수입차 전시회 및 레이싱 모델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스포츠건강과학과는 어른 신들을 위해 스포츠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보건계열 학과들은 건강증진 캠페인 및 암 조직 전시 및 기초 검사, 시력검사 및 무료 언어치료 검사 프로그램을 준비 했다. <br/> <br/>이밖에도 유아교육과는 풍선아트 및 페이스 페인팅을,세계호텔제과제빵과는 빵과자 시식행사를 열고 연극영화과는 연극의상 포토 존을 마련한다. <br/> <br/>뷰티디자인 학부는 네일, 핸드 마사지, 향수 만들기, 커트와 헤어 스타일링을 해주는 체험 서비스를 진행한다. 와인 바리스타 과는 더치커피 판매를 비롯해 칵데일과 막걸리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실용음악과는 버스킹(거리)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달구게 되고 푸드아트스쿨은 건강 식단 짜주기와 특별한 음식들을 맛 볼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br/> <br/>이번 축제는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후원하자는 취지에서 대학 측에서 별도로 준비한 만원의 행복을 열고 연예인· 야구선수 기증 품 및 지역 다문화 가족을 후원하자는 취지에 동참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기증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우선 연예인 소장품은 한국방송연기자 협회 후원( 회장 유동근)으로 소속 연기자들은 30여점의 의류, 신발, 기타 물품들을 내놓았고 가수 박상민 씨는 개인소장 모자와 선글라스를 기탁했다. <br/> <br/>삼성라이온즈 일부 선수들은 싸인 볼과 배트 몇 점을 기증했다. 만원의 행복은 이번 다문화가족 후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만원의 모금을 전개해 다문화가정 후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br/> <br/>이렇게 모인 기증품은 이날 대경대 패션쇼핑몰과 전공학생들이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해 마련된 후원금은 경산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 2명과 다문화가족 유학생 1명에게 당일 전달하게 된다. 이어 2부는 ‘ 이것이 문화다- 경산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문화 체험프로그램은 대경대학 문화,공연 예술, 뷰티, 스포츠 학과들이 총 출동 된다. <br/> <br/>선 모델과는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8개의 테마( 한복, 세미정장, 란제리, 파티, 힙합 등) 를 가지고 졸업 작품전을 연다. 동물조련이벤트과는 40여종의 동물들이 총 출연해 펼치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준비해 어린이들도 관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뮤지컬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무장했다. 이어, 메이크업과는 ‘바디페이팅’ 쇼 등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 들을 준비한다. <br/> <br/>실용음악과는 이 학과를 통해 데뷔한 그룹들이 총 충동된다. 이어, 마지막 무대는 가수 박남정, 노라조, 슈퍼비 면도와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인 탤런트 유동근씨도 이번축제에 함께하게 된다. <br/> <br/>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2.txt

제목: [단독] “해외 가고팠던 소아암 은지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날짜: 20161011  
기자: 김승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1200028385  
본문: “<span class='quot0'>여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휴우.</span>” <br/> <br/>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쯤 강원 태백시 태백공원묘원. 빨간 벽돌로 외벽을 두른 2층 높이의 작은 추모관에 한숨소리가 울렸다. 이 건물 동쪽,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안치단 중 허리를 숙여야만 겨우 눈이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사진 속 고 원은지(14)양이 새초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양대 경영학부 4학년 임충만(28)씨가 그 아래 매달린 ‘가짜 여권’을 보다가 다시 한번 탄식을 내뱉었다. <br/> <br/>임충만씨가 외로이 투병 중인 원은지양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인 다이어리 중 일부. 임씨는 스페인 순례길 여행 중 만난 외국인들에게서 받은 응원메시지로 꽉 채운 이 다이어리를 생전의 원은지양에게 선물할 예정이었다.‘가고 싶은 곳 : 강원도, 미국 하와이’ ‘좋아하는 가수 : 트와이스’ ‘취미생활 :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 가족, 친구’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힌 이 여권은 은지가 암 투병 중 녹색 도화지를 이용해 직접 만든 것이다. <br/> <br/>임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가까이 스페인 순례길 800㎞를 걸으며 은지를 응원하기 위해 만든 다이어리와 티셔츠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냈다. 소아암으로 1년9개월여 투병생활 끝에 하늘나라로 떠난 은지에게 비록 늦었지만 뜻깊은 선물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임씨가 건넨 선물에는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은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적혀 있었다. <br/> <br/>지난 5월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헌혈증 98장을 모아 한양대병원 소아암병동에 기증하는 등 헌혈증 기부운동을 하던 임씨는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던 학교 후배를 통해 은지를 소개받았다. 이 병원에서 투병 중이던 은지가 친구를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은 임씨는 그때부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 스페인 순례길 여행을 준비 중이던 임씨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은지의 사진과 사연을 소개하고 티셔츠와 다이어리에 직접 응원메시지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임씨는 “<span class='quot1'>‘세계 곳곳에 널 응원하는 많은 친구가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임충만씨가 지난달 30일 강원 태백시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내 안치단 앞에서 원은지양이 손수 만든 ‘가짜 여권’ 속 내용을 읽고 있다.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 은지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임씨가 귀국하기 일주일여 전인 9월14일 은지가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것. <br/> <br/>은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갈 무렵이던 2014년 12월 청천벽력 같은 횡문근육종(근육암의 일종) 판정을 받았다. 성인 암에 비해 소아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탓에 은지는 기대하던 중학교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자퇴를 하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생존율이 70∼80%나 된다는 사실을 희망 삼아 1년간의 항암치료를 버텼다. 지난해 12월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대수술도 치렀다. 예후가 좋다는 의사 말에 기뻐했던 것도 잠시. 올 3월 암이 재발했다. 다시 살아난 암세포는 더 지독하게 은지의 몸을 할퀴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항암치료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병원 측 말에 아버지는 치료 중단을 선택했다. 남은 시간이라도 편안히 지내게 해주고 싶었다. <br/> <br/>아버지 원명현(44)씨는 “은지 같은 소아암 환우를 위해 헌혈증 기증 활동을 한다는 임씨가 선물을 준비한다기에 기뻤는데, 딸이 선물을 받기도 전에 떠나 안타까움이 크다”며 “얼마 전에도 ‘이번 주말을 넘기지 못한다’는 아기의 아빠가 위로를 구하러 전화를 했었다. 우리 사회가 소아암 환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만2206명이던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4년 1만3775명으로 12.9% 늘었다. 요즘도 하루 평균 4명 꼴인 한 해 150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은지처럼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 <br/> <br/>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치료를 돕는 헌혈 수급은 올해 들어 급격히 줄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적정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지만 이날 현재 불과 4.2일분만 비축 중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당장 혈액 공급에 차질을 빚는 수준은 아니다</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2'>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체 헌혈자 수도 크게 줄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임씨는 은지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지난달 28일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빅워크’를 통해 소아암 환우를 위한 헌혈·조혈모세포 기증·장기기증을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빅워크는 이용자가 실제 걸음 수만큼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이날 현재 9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임씨는 “<span class='quot1'>추후 소아암 환우를 선정해서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모인 헌혈증 등을 직접 전달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태백=글·사진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3.txt

제목: 한동대 김순권 교수, 추위·가뭄 적응하는 옥수수 개발  
날짜: 20161011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1034256394  
본문: ‘옥수수 박사’ 김순권 한동대 교수가 몽골과 러시아 땅에 적응하는 친환경 옥수수 육종 개발에 성공했다. <br/> <br/>한동대는 김 교수가 최근 몽골 북부 다르항시 몽골국립대 북부시험장에서 추위와 가뭄에 적응하는 극조생, 다수확성 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한동대 석좌교수와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4년부터 북한 개마고원, 미국 몬태나주, 몽골에서 수집한 재래종으로 육종 개발을 시작했다. <br/> <br/>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포스코 사랑의 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았다. <br/> <br/>육종은 생물 유전질을 개선하거나 변경해 이용가치가 더 높은 작물·가축품종을 육성하는 것이다. <br/> <br/>축산국인 몽골 옥수수는 눈이 녹는 5월 중순에 파종해 9월 중순 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해야 하는데 신품종 개발로 연중 가장 효과적이고 값싼 옥수수 사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br/> <br/>이와 함께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있는 부랴트공화국에서도 서리가 오기전 옥수수가 완전히 자라는 옥수수 육종을 개발했다. <br/> <br/>김 교수는 내년부터 부랴트 국립농업대 시험장에서 공동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br/> <br/>그는 중국 동북 3성에 적응하는 바이오 옥수수 개발, 암·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에 저항성을 갖는 약제 기능성 옥수수 육종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br/> <br/>김 교수는 최근 포항에 ‘통일 옥수수센터’를 설립해 북한의 주식량 옥수수로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부랴트 공화국에 친환경 옥수수를 보급하면 겨울철 가축 사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러시아 남쪽에 사는 고려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4.txt

제목: '티이어 노예' 60대 업주, 사전구속영장…지적장애인 10년간 무임금 노동  
날짜: 2016101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0151843305  
본문: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제대로 돈도 주지 않으면서 강제노역시킨 이른바 '타이어 노예' 사건의 타이어 수리점 60대 업주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 <br/>10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A(64)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모두 6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r/> <br/>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3급 B(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은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된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둔기와 B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 의사 소견, B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 혐의를 적용했다. <br/> <br/>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특수상해죄 해당되며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br/> <br/>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폭행은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br/> <br/>몽둥이 찜지렝 대해 A씨는 '때린 적은 있으나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br/> <br/>그렇지만 A씨는 폭행이나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B씨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난 2006년부터 A씨 타이어 가게 인근에 있는 2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 <br/> <br/>한편 2007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로 A씨의 부인 C(64·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5.txt

제목: 손톱반월로 당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날짜: 20161010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10133124302  
본문:   <br/> <br/>손톱은 당신의 의상에 맞춘 네일아트를 하라고 생긴 장식물이 아니다. 손톱에는 당신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손톱 안쪽에 새겨진 '반월'은 암 등 많은 질병이나 현재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몸의 신호등'과 같다. <br/> <br/>손톱 뿌리부분의 반월이 흰색을 띄는 이유는 케라틴이 다른 부분 손톱보다 3배가량 두껍기 때문인데, 사람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미국 온라인매체 ‘위티피드’가 손톱반월 색깔과 건강상태의 연관성을 소개했다. <br/> <br/>손톱반월을 라틴어로 '루눌라'라고 한다.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는 얇고 부드러운 부분으로 반월 상단부에 모세혈관이나 신경조직들이 손톱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곳이 손상될 경우 전체 손발톱 성장에 영구적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반월부분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손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난다. <br/> <br/>손톱반월이 또렷하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띠고 있으면 건강한 상태의 손톱이다. 손톱에서 광택이 나며 분홍색을 띤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손톱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반월의 분홍색도 엷어진다. <br/> <br/>반월부분이 파랗거나 창백한 빛을 띠면 호흡기질환이나 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란색을 띠면 혈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반월의 색깔이 매우 연하거나 없는 사람은 소화기능이 약하고 냉한 체질이 많으며 변비가 심하고 자주 체할 가능성이 크다. 반월에 얼룩이 있다면 심혈관계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br/> <br/>손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직접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혈색 변화가 생기면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여성의 경우 주로 생리불순이나 호르몬 부작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6.txt

제목: "유방암 환자에겐 '낫는 병'이라고 먼저 알리죠"  
날짜: 2016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9213322111  
본문: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과거에는 40, 50대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에 들어가면 완치율이 90%에 이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는 병이기도 하다. 전문가는 여성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단순히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치료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br/> <br/>문병인 이화의료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이러한 유방암 성인지적 치료의 권위자다. 성인지 의학이란 남녀간에 있어 암 발생 및 치료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치료 역시 차별화해서 시행한다는 개념이다. 지난 6일 이대목동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상담실에서 만난 그는 ‘설명 잘해주는 의사’로 알려진 만큼 환자 특성에 맞는 심리적인 보살핌이 적극적인 수술과 치료 못지않게 암 극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상당수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과정에서 여성호르몬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 폐경이 오는 환자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폐경으로 우울해지거나 불안·초조 증상을 함께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환자들을 무조건 몰아붙이다 보면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br/>문 센터장은 남녀의 신체적 구조, 사회적 역할 등이 다른 만큼 진단 결과를 전달할 때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겉으로 동요가 없어요. 오히려 객관적인 상태와 자신에게 놓여진 선택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근데 여성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패닉에 빠지거든요. 남성 환자에 비해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br/> <br/>그는 이러한 여성 환자의 특성에 맞춰 긍정적인 면을 먼저 부각하는 대화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실제로 약의 효과도 남녀의 대사 차이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의 경우 여성 환자에게는 ‘낫는 병’이라고 먼저 결론을 이야기한 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악화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니 고쳐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병에 대한 공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쉽다”며 “실제로 검사하는 사람이 인상을 쓰거나 간호사의 말투가 딱딱하거나 한 것도 크게 신경을 쓰고, 치료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br/>여성 유방암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병인 이화의료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1'>가정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와 정부에서도 여성 암환자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서상배 선임기자 <br/>반면 남성 암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직설적인 화법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span class='quot2'>‘지금처럼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당신 죽어, 애들 어쩔 건데’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남성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자신의 건강에 가족들의 삶이 달려있다는 현실을 깨친 환자들이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따라온다</span>”고 말했다. <br/> <br/>문 센터장은 여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루핑(Grouping)’을 제안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환자과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등산이나 노래, 그림 그리기 등을 하는 것이 활력 있는 삶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화의료원에서는 유방암을 극복한 환자들로 구성된 환우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br/> <br/>문 센터장은 유방암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 환자 대부분이 가정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집안일이나 육아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많은 만큼 주변인의 지지가 암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2'>가족, 특히 아내의 보살핌을 받는 남성 환자에 비해 여성 암환자는 병을 혼자 견디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가족 전체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 이상 빠른 치유는 당연히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span>”라고 말했다.  <br/> <br/>이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한인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환자의 52%가 배우자로부터 간병을 받고 있었으며, 16%는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80.5%)은 병원비를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실상 여성 유방암 환자 대부분이 심리적·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br/> <br/>문 센터장은 특히 직장인 여성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회사 일을 계속하라고 권유하는 편이다. “옛날에는 항암 치료 중에는 화장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던 분들도 있었지만, 전 환자분들도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기분 좋은 상태로 치료 받으라고 조언하는 편입니다.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치료에 긍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병 치료를 위해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화해 더 우울해집니다.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치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br/> <br/>20, 30대 젊은 여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중장년층 환자보다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문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암 치료의 기본은 신체·정신적 상태를 아프기 전으로 돌려놓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치료 도중 변한 외모 등으로 우울감과 상실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을 찾아줘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젊은 여성 환자의 60∼70%가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유방보존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생 방사선 치료와 재발 위험에 시달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환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지고, 결국 환자 본인의 완치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7.txt

제목: 찔러도 피 한 방울 안나는 주삿바늘 나왔다  
날짜: 2016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220830171  
본문: 국내 연구진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삿바늘을 개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화학과 이해신(사진) 교수 연구팀이 바위에 달라붙는 홍합의 성질을 이용해 주삿바늘의 지혈재료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주삿바늘은 혈액 채취나 링거, 백신, 스텐트 삽입 등 대부분의 의료 처치에 사용된다. 처치 후 환부를 압박해 지혈할 때 건강한 일반인들은 3분 이내에 피가 멈추지만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 환자 등은 정상적으로 지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삿바늘에 지혈재료를 코팅해 사용하는데 기존 지혈재료들은 기계적 물성이 약해 주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br/> <br/>연구팀은 홍합 발끝의 섬유다발인 ‘족사’가 강한 파도가 치는 해안가 바위에도 단단히 붙어있는 특성을 이용했다.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이 들어간 지혈 기능성 필름을 주삿바늘에 코팅했다. 혈액에 필름이 닿으면 필름이 순간적으로 하이드로젤 형태로 바뀌면서 상처 부위의 피를 멈추게 한다. 혈우병 환자뿐 아니라 혈전 용해제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환자, 암·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주사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기술과 접목해 수분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몸에도 홍합 족사의 접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침습 의료기기들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안정성평가연구소의 강선웅·김기석 박사 연구팀과 ㈜이노테라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3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8.txt

제목: [연구]"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수명은 115세"  
날짜: 20161006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134221324  
본문: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은 115세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중보건과 영양섭취 향상으로 지난 150년 간 인간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늘긴 했지만 몸 속 유전자(DNA)라는 생물학적 한계 때문에 먼 훗날에도 115세 생일을 맞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br/> <br/>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AECM) 연구진은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5일자)에 ‘인간의 기대수명 한계에 관한 증거들’ 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한계수명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자료가 남아있는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150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br/> <br/>1860년대 이후부터 인간의 기대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백세인'의 평균 수명은 1995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료=AECM <br/>그 결과 1860년대 101세였던 최장수 기록은 1990년대 108세, 지금은 122세까지 점점 늘었다. 기대수명도 마찬가지. 1900년대 초반 50세를 밑돌았던 기대수명도 매 10년마다 약 2.5년씩 증가해 지금은 80세에 육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의 남녀 기대수명은 83.7세, 프랑스는 82.4세, 영국 81.2세, 미국 79.3세다. 참고로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3세(남성 78.8세, 여성 85.5세)이다. <br/> <br/>연구진은 하지만 100세 이상의 센터네리언(centenarian)의 평균 수명은 1995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 4개국에서 1968년과 2006년 사이 110살 이상 장수한 인구는 534명이다. 암과 심장병 같은 질병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보급, 보다 안전해진 출산, 영양섭취·공중보건 향상으로 1968∼1994년 110세 이상 인구의 평균 수명 또한 해마다 0.15년씩 늘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엔 되레 0.28년씩 줄었다. <br/> <br/>'한계수명'을 주장하는 학파는 인간의 신체적, 유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류의 최대 기대수명은 115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료=AECM <br/>연구를 주도한 얀 페이흐 AECM 교수는 "100세 이상의 장수 인구만 놓고 보면 인간의 최대 기대수명은 지난 20년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연구진은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명은 115세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페이흐 교수는 "(프랑스인이자 1997년 122세를 일기로 사망한 세계 최장수 기록 보유자 장 칼망<아래사진> 할머니처럼) 사람이 125세까지 장수하는 경우는 1만명 가운데 1명 정도 겨우 찾을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사진=BBC <br/>연구진은 의학기술 등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이 마냥 늘지 않는 이유로 자연적 한계수명을 들었다. 신체 외부의 도움을 받아 수명을 어느 선까진 연장할 순 있지만 신체의 젊음과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진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페이흐 교수는 "기대수명을 120세, 125세, 130세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인간 종의 유전적 메이크업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수천, 수만개의 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들 약이 개발된다하더라도 노화 과정이 워낙 복잡해 인간의 한계수명을 뛰어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하지만 과거 인구통계를 근거로 기대수명을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간의 수명 상한선을 지지하는 입장인 데임 패트리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건강한노화연구센터 소장은 "흥미로운 연구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묘사가 없다"며 "비만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 기대수명은 상당 수준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br/> <br/>인간은 앞으로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물학적 한계라는 '신의 영역'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r/>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제임스 보펠 교수는 아예 ‘인간의 기대수명 상한선’ 자체를 특정지어선 안된다는 쪽이다. 보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솜씨 없는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유감스러운 대하소설은 한계수명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인구 통계학적 자료 대신 과장된 수사, 빈약한 방법 그리고 예쁜 그래픽을 앞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미래 인류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라는 화두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보태지 못했다는 것이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19.txt

제목: “아차차 내 머리” 탈모를 막는 생활 속 습관들  
날짜: 20161006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110335481  
본문:   <br/> <br/> <br/>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일 50~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진다. 다만 빠지는 개수만큼 다시 자라나 보충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이 지속한다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미국 온라인매체 위키하우가 탈모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소개했다. <br/> <br/>모발 뿌리에 흉터가 남는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어 모발 재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반흔성 탈모’라고 하는데 루푸스에 의한 탈모, 독발성 모낭염, 모공성 편평 태선, 화상 및 외상에 의한 탈모 등이 있다. <br/> <br/>이와 달리 흉터가 생기지 않는 유형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심한 스트레스, 외적 손상 등 증상이 치료되면 모발이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r/> <br/>흔히 탈모는 남성의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성과 아이들 모두 탈모를 겪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으로 증상이 계속되면 약물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변화함으로써 증상을 치료해야 한다. <br/> <br/> <br/>▶탈모 유형별 원인과 증상 <br/>사진=위키하우 <br/>심각한 스트레스는 탈모의 원인이 된다. 이는 대부분 일시적인 탈모를 불러올 수 있는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r/> <br/>-휴지기 탈모(telogen effluvium)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몸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자. 신체 조직이 자극을 받아 모낭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다. 두피 밀도가 줄어들지만,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br/> <br/>-발모광(trichotillomania)은 머리를 뽑는 습관으로 탈모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머리를 뜯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탈모로 연결되는 경우인데, 성인에게서 발생한 경우 정신 질환과 연관있는 경우가 많다. <br/> <br/>-높은 스트레스는 원형 탈모(alopecia areata)를 일으키기도 한다. 원형 탈모는 자각증상이 없으며 타원형의 탈모 형태를 띤다. 면역질환계 이상으로 생겨나며 여성의 경우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의 빈도가 높다. <br/> <br/> <br/>1. 머리카락 느슨하게 묶기 <br/> <br/> <br/>머리카락을 꽉 쪼여 묶는 스타일은 피한다. 스타일을 위해 머리카락을 비틀거나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것도 좋지 않다.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선 가급적 빗질을 하지 않는다. 자연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고 고온으로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아이롱이나 롤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 <br/>2. 충분한 수분 섭취 <br/> <br/> <br/>모발의 25%는 물로 채워져 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한 머릿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br/> <br/> <br/>3. 로즈마리 팩하기 <br/> <br/> <br/>두피 개선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는 탈모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다. 모발 성장을 촉진해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집에서 길러 음식에 곁들여 먹거나 차로 마셔도 된다. 팩으로 이용할 땐 아몬드 오일과 로즈마리를 섞어 두피에 직접 발라주면 모발의 성장을 돕는다. <br/> <br/> <br/>4. 양파 주스 마시기 <br/> <br/> <br/>콜레스테롤 조절 효능이 있는 양파 주스는 탈모나 흰머리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 양파에 들어있는 황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돕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양파 주스는 시중에서 구입해 사용해도 좋지만,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쓰면 된다. 뿌리까지 잘 세척한 양파를 물과 함께 중탕해 끓인 후 식혀 믹서기에 갈아 자기 전 섭취한다. 팩으로 이용할 땐 생양파를 갈아 두피에 15분간 올려둔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된다. <br/> <br/> <br/>5. 안전한 약물 복용 <br/> <br/> <br/>탈모 치료약물을 복용할 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용 전,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미녹시딜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 가능한 치료제다. <br/> <br/>이와 달리 피나스테라이드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여성은 사용해선 안 된다. 두 약물 모두 중간에 복용을 끊으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 <br/>미녹시딜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적용 부위의 가려움이나 홍반, 피부염 등이 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정제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br/> <br/> <br/>6. 탈모 원인 제대로 파악해야 <br/> <br/> <br/>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호르몬 변화나 특정 질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 화상 등 외상에 의해 모낭이 손상된 경우에도 발생한다. <br/> <br/>유전적 요인도 주효하게 작용하는데,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androgen)이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고 있으며, 여성형 탈모에서도 일부는 남성형 탈모와 같은 경로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br/>남성과 여성의 탈모 진행 모양은 조금 다른데, 남성의 경우 이마가 M자로 넓어지면서 영역이 확장되는 반면, 여성은 헤어라인은 유지되지만 정수리나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영양 결핍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 <br/>7. 질병과 동반되는 탈모 <br/> <br/>유전적 요인이 아닌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탈모의 상황에 해당한다. 남성은 심장 질환이나 전립선 비대증, 암, 당뇨, 비만이나 고혈압을 겪을 경우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을 겪고 있을 때 탈모 증상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위키하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0.txt

제목: [기고] 신약개발, 약학인재 양성이 답이다  
날짜: 20161006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6010245481  
본문: 오늘날 신약개발에 거는 인류의 기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크다. 그 이유는 신약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불치병과 난치병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연장돼 왔으며, 최근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등장으로 불치였던 다양한 암질환까지 정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한 100세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br/> <br/>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신약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과 1인당 부가가치액은 다른 일반 제조업의 1.5~2배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생 매출의 3배에 이른다. 또 10조원의 매출 증가는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 세계의 의약품 시장은 2007년 이후 해마다 평균 5.3%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현재 1100조원 규모에서 2020년 240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견된다. <br/> <br/> <br/>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지식집약적인 신약개발은 과거의 반도체산업이 그러했듯 고급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성패의 관건이다. 다시 말해 연구, 개발, 생산 및 기타 신약개발 관련 영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약기업만이 치열한 신약개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를 획기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길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약학대학에서 신약개발 전문가로서의 약학전공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br/> <br/>우리는 2011년 6년제 약학교육을 시행하면서 약대 신설을 통해 약대 입학생의 정원을 증원했다. 그러나 제약기업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공자가 태부족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조만간 크게 개선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임상약학 교육의 강화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약과학(藥科學) 전문인력의 배출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신약개발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추가로 신설해서라도 임상약학자와 신약개발 전문 약과학자의 배출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분야 전문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br/> <br/>무엇보다 신약개발은 과거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내는 창조작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창조적인 인재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약학교육은 융복합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와 MBA라는 두 개의 전문학위를 약대교육에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요컨대 약대교육의 연한을 4년 또는 6년으로 가변성 있게 조정하고, 그 교육과정 안에 융복합적인 리더 양성까지를 담아내는 교육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약산업과 나아가 우리의 경제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br/> <br/>이승진 이화여대 약학대 학장· 물리약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1.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꽁꽁 숨겨두고 먹어… 머리 좋아질거야!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210153929  
본문: 꽁치는 고등어와 함께 등푸른생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값이 싸지만 영양이 풍부해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다. <br/> <br/>꽁치를 비롯한 등푸른생선이 훌륭한 식재료로서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머리를 좋게 하는 DHA 라는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 좋으며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br/>뇌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꽁치의 기름에는 EPA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꽁치의 EPA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끓이거나 찜을 해서 먹는 것이 좋다. <br/> <br/>꽁치의 붉은 살에는 비타민 B1, 2와 더불어 철분이 풍부해 빈혈을 개선하고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꽁치는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야맹증과 감기에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또 비타민 E 와 셀레늄이 풍부해 몸의 과산화를 방지해 젊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꽁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과 타우린 성분이 인체의 신진대사를 돕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등푸른생선의 대표주자라 할 만하다. <br/>꽁치 무조림 <br/>-재료: 꽁치 2마리, 무 2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1/4개,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파, 마늘 1큰술, 고춧가루 1/2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물 1/2컵 <br/>-만드는 법: <br/>① 꽁치는 비늘을 긁어내고 머리와 꼬리를 떼어낸 뒤 5㎝길이로 썬다. <br/>② 무는 납작하게 썰고 파, 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준다. <br/>③ 고추장에 파, 생강, 마늘을 다져 넣고 고춧가루, 간장을 넣어서 조림장을 만든다. <br/>④ 냄비에 무를 깔고 조림장의 1/2을 넣은 다음 꽁치를 얹고 나머지 양념장을 끼얹어 가며 졸인다. <br/>⑤ ④가 어느 정도 익으면 썰어 놓은 파와 고추를 얹고 살짝만 익힌다. <br/>꽁치는 9~10월이 제철로 크기가 작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이 좋다. 배를 눌렀을 때 물컹한 느낌이 들지 않고 단단함과 탄력이 느껴지는 것을 고른다. 꽁치의 눈이 뿌옇다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눈이 맑고 투명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br/>꽁치 소금구이 <br/>-재료: 꽁치 2마리, 소금, 식용유, 석쇠 <br/>-만드는 법 : <br/>① 꽁치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서 흐르는 물에 씻는다. <br/>② ①의 꽁치를 등 쪽으로 칼집을 넣어 소금을 뿌려준다. <br/>③ 석쇠에 식용유를 발라 뜨겁게 달군 후 꽁치를 올려 앞 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br/>꽁치는 통조림 꽁치가 아닌 생물로 구입할 경우 부패 속도가 빠르므로 즉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꽁치를 손질할 때는 머리와 배를 잘라 내장을 발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 내어 소금을 뿌려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br/> <br/>체질에 따라 꽁치를 먹고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섭취하기 보다는 버섯이나 무, 배추와 같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양향자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2.txt

제목: 노벨상 수상 오스미 교수 "상금 젊은 연구자에 지원"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193717880  
본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사진) 일본 도쿄공업대 영예교수가 일본의 젊은 연구자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과학의 미래를 우려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오스미 교수는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박사 과정까지 밟겠다고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span>”이라고 열악한 연구 환경을 지적하며 “<span class='quot0'>젊은 연구자가 부족해 일본 과학계가 텅 비게 될 것</span>”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과학 연구가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인식하면 기초과학은 죽고 만다</span>”며 “<span class='quot0'>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사회 전체가 기초과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로 해결책이 없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사회 전체가 대학을 지탱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지 않으면 과학자가 자랄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 <br/>오스미 교수는 자신이 받게 될 노벨상 상금을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노벨상 상금 800만 크로네(약 11억352만원)에 기업의 협력을 추가해 적어도 20∼30년간 젊은 학자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일본 정부에도 연구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닛칸코교신문이 이날 전했다. 그는 “연간 100만엔(약 1084만원)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일본에는 많이 있다”며 “작은 싹을 많이 기르지 않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일본의 국력이라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재활용 현상인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연구로 올해 노벨상 수상이 결정됐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감염증은 물론 암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암세포는 영양을 보급해 증식하므로 오토파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토파지를 억제하면 증식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3.txt

제목: 백청강, 직장암 극복하고 BIFF전야제 무대 오른다  
날짜: 2016100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113246940  
본문: 직장암 투병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가수 백청강이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무대에 오른다. <br/> <br/>백청강은 5일 오후 부산 남포동 BIFF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전야제에서 '잊었니' '못된 놈' 등 자신의 히트곡들을 부를 예정.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는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br/> <br/>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서 우승한 백청강은 가수 데뷔 후 활발하게 활동하다 직장암 선고를 받고 2년간 투병생활을 해야 했다. 암 완치 후에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변함없는 가창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br/> <br/>그는 오는 10월 중순 새 싱글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컴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4.txt

제목: '암극복' 백청강,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무대 선다  
날짜: 20161005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112309118  
본문: 가수 백청강이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무대에 오른다. <br/> <br/>백청강은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부산 남포동 BIFF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적신다. <br/> <br/>백청강은 이날 축하무대에서 ‘잊었니’, ‘못된놈’등 본인의 히트곡을 열창하며 부산국제영화제의 뜨거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br/> <br/>MBC ‘위대한 탄생’ 출신인 백청강은 직장암 투병으로 2년간 활동을 쉬어야 했으나 암 완치 후 지난해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여자가수라고 착각을 불러 일으킬 만큼의 놀라운 가창력으로 복면가왕 최고의 반전인물 손꼽히며 가창력을 재조명 받은 바 있다. <br/> <br/>한편 백청강은 10월 중순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5.txt

제목: 美배우 벤 스틸러, 2년 전 전립선암 선고 받고 투병  
날짜: 2016100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110707499  
본문: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 배우 벤 스틸러(51)가 전립선암으로 투병한 사실이 알려졌다. <br/> <br/>4일(현지시간) US위클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틸러는 2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스틸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br/> <br/>스틸러는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처음엔 막막했지만, 영화 '미트 페어런츠' 시리즈에 함께 출연한 선배 배우 로버트 드 니로에게 전화를 걸어 암 투병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이후 그는 병을 '쿨하게' 받아들인 뒤 적극적인 치료에 임했고 완치에 이르게 됐다. <br/> <br/>스틸러는 SNS 등에 'PSA테스트'라고 불리는 조기 검진이 자신을 살렸다며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립선암은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치유가 잘 되는 병"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병을 통해 나는 삶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됐다. 지금도 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PSA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br/> <br/>스틸러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등에 출연했으며, 201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기도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6.txt

제목: 심장수술도 중앙 집중, 대구에 국가심장센터 만들자  
날짜: 20161005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5093137183  
본문: 연 500건 이상 심장수술을 시행한 5대 병원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 심장수술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심장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의 질병이지만 정부가 권역별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br/> <br/>이에 따라 정부가 권역별 관리를 위해 영남권의 경우 심장수술 관련 인프라를 갖춘 대구에 국가심장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r/> <br/>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심장수술센터 모형 등 지역 심뇌혈관질환 관리 문제 해결방안 검토와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 87곳이다. 연 500건 이상 심장수술을 하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서울), 서울아산병원(서울). 서울대병원(서울), 세브란스병원(서울), 세종병원(경기도 부천) 등 5곳으로 모두 서울·수도권에 있다. <br/> <br/>심장수술 병원의 수도권 쏠림 탓에 2014년 비수도권 거주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비율은 전체 심장수술 환자의 49%로 자궁절제술(14.9%)과 뇌수술(22.5%)에 비해 2~3배 높았다. <br/> <br/>심장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권역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국가가 국립암센터를 세워 중점 관리하고, 3위인 뇌혈관질환은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관리하고 있지만 심장질환은 권역별 지정 병원이 없다. <br/> <br/>이 때문에 5개 대형병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춘 대구에 국가심장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br/> <br/>김 의원은 “대구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곳 중 심장수술을 가장 많이 시술했고, 심장수술 전문 인력도 많다. 또 메디시티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5개 대형병원이 민관 네트워킹을 형성해 국가 지원의 선행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7.txt

제목: ‘비유의 달인’ 교황 “많은 것을 적은 말로 하라”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4212210806  
본문: 매일 아침 6시30분 ‘산타마르타의 집’ 문이 스르르 열린다. 스위스 근위병들이 모여든 신자들의 외투를 받아들고 입장을 돕는다. 두 수녀의 도움으로 사제들이 자신에게 맞는 장백의를 입고 영대를 두른다. 사람들은 이미 자그마한 경당에 자리 잡고 교황의 미사 집전을 기다린다. 고요하다. 모든 것이 대단히 평범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산타마르타의 집을 ‘기숙사(교황의 숙소)’라고 부른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장엄 미사가 아니라 자그마한 경당에서의 ‘가정’ 미사다. 통상 교황의 하루는 오전 5시부터 시작된다. 교황의 기도와 묵상은 미사 집전 시간까지 이어진다. 교황의 사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사 강론이다. <br/> <br/>‘라 치빌타 카톨리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아침 미사 강론은 각국 신자들에게 큰 영감과 감동을 전해 주었다. 강론에서 교황은 신앙인의 불성실에 관한 병명을 하나 지어냈다. ‘영혼의 골다공증’이라는 병이다. <br/>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이 ‘산타마르타의 집’ 경당에서 교황청 간부, 사제,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사를 올리고 있다. <br/>가톨릭 제공“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과 허영, 그리고 오만입니다. 허영은 뼈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삭아 있는 골다공증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허영은 영혼을 불안하게 합니다.” 교황의 강론은 이어졌다. “흔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신심이 좋아서) 주일 미사를 거르는 법이 없어,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하는 걸’…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처럼 내면이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br/> <br/>교황의 당일 강론은 전 세계로 전파된다. 가톨릭 교회의 나아갈 길이 제시된다. 신자들은 “교황의 강론은 때로는 단호한 어조이고 때로는 구체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풀이한다. <br/> <br/>교황은 ‘비유의 달인’으로 불린다. 강론에서 통상 신학용어가 많고 정형화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유를 들어 핵심을 단순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프란치스코식 화법’이다. 비유를 즐겨하면서 본질과 핵심을 콕 찔러 일러준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방송국장은 “<span class='quot0'>지금 교황은 성대한 전례와 같은 강론을 즐겨 하는 전임 베네딕토 16세의 강론과는 명백히 다르다</span>”고 했다. <br/>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이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에 찾아온 신자와 아기에게 축도해 주고 있다. <br/>가톨릭 제공교황은 또 교회를 ‘야전병원’이라고 했다. 교황은 “심각한 부상자에게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묻거나 혈당 수치를 재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치료부터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순서”라고 했다. ‘뭣이 중헌디?’라는 유행어가 말하듯 절차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다. <br/> <br/>교황은 “<span class='quot1'>자기비판과 혁신 없는 교황청은 병든 신체</span>”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영적 치매, 이중생활과 위선에 빠져 사는 ‘존재론적 정신분열증’, 권력과 부에 집착하는 ‘무병불사의 착각’, 파벌 이익을 우선하는 ‘암’ 등을 치명적 병으로 꼽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황은 “<span class='quot1'>위선은 그늘에서 활동하는 바이러스</span>”라고 했다. <br/>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의 집무실은 간소하고 소박하다. <br/>가톨릭 제공질병, 치료 관련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예수회 발행 잡지 ‘라 치빌타 카톨리카’ 편집장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는 교황이 21살에 폐렴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청년 시절 당시 오른쪽 폐 윗부분을 절단한 투병이 영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교황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적절하고 직접적인’ 강론을 펼치고자 노력한다. 단순함이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명료하려면 단순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강론은 언어가 단순하더라도 논리가 없으면 난잡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은 직선형이 아닌 나선형의 논리로 강론한다. 같은 표현과 표상을 반복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 전체 논지가 자라나게 유도한다. <br/> <br/>강론대에 선 교황은 성서 이외에 다른 원고를 보지 않는다. 기도 후에 얻은 영감으로 강론을 요약한다. 짧은 침묵 후에 교황은 그날의 강론에 들어간다. 강론은 길지 않다. 교황의 강론 방식은 전임 교황들과는 다르다. 장엄한 미사여구를 즐겨 쓰는 베네딕토 16세나 요한 바오로 2세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에게 본을 보인다. “간결하게 말하여라. 많은 것을 적은 말로 하여라.”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8.txt

제목: 최성수, 암환우들을 위한 특별한 섬콘서트 성료  
날짜: 2016100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4180703015  
본문: 사진=YT엔터테인먼트 제공암환우들을 위한 최성수의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 <br/> <br/>지난 1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밧지름 해수욕장에서 '최성수의 섬 콘서트'가 개최됐다.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자 강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700여 명의 암환우와 여행객,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섬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 <br/> <br/>이날 무대에는 암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초청된 전 MD앤더슨 암센터종신교수이며 현서울대의대 초청교수인 김의신 교수와 대한면역학회장을 지내고 비타민 박사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왕재 서울대 의대교수가 참석해 암치료의 혁신적인 제안에 대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br/> <br/>토크쇼 후반부에 가서 참석자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본인 여성 아베 준코 씨의 천연물 신약 항암치료의 혁신적인 췌장암 및 간암 말기 치료 결과 영상를 최성수의 '동행' 음악을 배경으로 3분 20초동안 상영됐다. 실로 놀랄만한 치료결과로 전 세계에 많은 췌장암, 간암 환우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r/> <br/>2부로 치러진 '최성수의 섬 콘서트'의 첫 곡으로는 '가을편지'로 최성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아름다운 선율에 믹싱돼 관중들이 가을정취의 낭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최성수의 불후의 명곡인 '해후'를 열창할 때는 수많은 암환우들과 일반관광객들 중에 눈시울을 붉히며 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br/> <br/>암환우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멜로디와, 부드럽고 깊은 미성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서 '풀잎사랑' '기쁜 우리사랑'을 열창할 때 전 관중들이 일어나 최성수와 하나가 되는 감응을 느꼈다. 1시간 30분 동안의 공연은 그야말로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였고 암환우들과 일반관광객들이 삶의 정점에서 모두가 희열을 맛 볼 수 있었다. <br/> <br/>특히 그는 이날 자신의 신곡 '달이 떳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를 발표해 관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공연엔 세계적인 바리톤 우주호와 아름다운선율로가을밤을 수놓은 바이올린 전경미 씨,아코디온 알렉스, 첼로 민영애 및 음대교수들로 구성된 토이토이 중창단 김홍기,이호석등 8명의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가요와 최고수준에 하모니를 선보였고 관중들은 열광으로 답을 했다. <br/> <br/>공연 후반에 암 환우를 위한 섬 콘서트에 주제어인 동행이란 곡이 가을 저녁에 흐를 때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최성수를 지켜보았다. 콘서트의 피날레곡은 오솔레미오로 최성수와 우주호 토이토이 중창단 이 협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29.txt

제목: [영상] 암환자 '대머리'라고 놀린 친딸 삭발한 엄마  
날짜: 2016100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4180440847  
본문: 외국의 한 여성이 암 투병 중인 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친딸의 머리를 밀어 화제다. <br/> <br/>소녀는 1년 전쯤에도 야한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가 엄마에게 따끔히 혼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튜브에 약 40초 분량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br/> <br/> <br/> <br/>영상은 딸의 머리를 바싹 미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바닥에 주저앉은 소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럽게 울었지만, 소녀의 엄마는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딸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br/> <br/>두 사람이 포르투갈어를 쓰기는 했으나, 정확히 촬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br/> <br/>소녀는 암 투병 중인 친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이 같은 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삭발은 친구의 아픔이 어떤지를 느껴보라고 내린 엄마의 과감한 결정이다. <br/> <br/>네티즌 반응은 엇갈린다. 딸을 혼낸 엄마 생각이 옳았다는 네티즌도 있지만, 너무한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0.txt

제목: 늘어나는 2030 암 환자… 육류 섭취 줄이고 생활습관 바꿔야  
날짜: 20161004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4161847548  
본문:   <br/> <br/>암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20~30대는 1만8050명으로 이는 10년 전(9998명)에 비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br/> <br/>이처럼 젊은 층에서 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생활 변화, 높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을 꼽으며 생활습관을 긍정적인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잦은 육류 섭취와 음주 등은 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되도록 삼갈 것을 추천한다. <br/> <br/>평소 과일과 채소 등 비타민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라는 조언도 빠지지 않는다. 캐나다 매길 대학의 임상 시험에 따르면, 엽산은 암 발생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br/> <br/>실제로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정상 먹이를, 다른 한 그룹에는 엽산이 부족한 식사를 제공한 뒤 암 발생률을 관찰했다. 그 결과, 엽산이 부족한 쥐의 25%가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지만, 정상 식사를 한 쥐에서는 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br/> <br/>이에 대해 로젠 박사는 “<span class='quot0'>엽산이 부족하면 DNA가 손상되고 종양 세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줘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 같은 효능을 지닌 엽산은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엽산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 안에 들어 있는 천연엽산은 체내 대사를 돕는 다량의 보조인자들이 풍부해 엽산이 체내에 남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대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하지만 엽산은 불에 약한 영양소로 조리 시 파괴되는 양이 많아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엽산의 효능을 섭취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음식으로 엽산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천연원료 엽산제를 구매해 복용할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br/> <br/>천연원료 엽산제는 유산균과 채소, 과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먹거리에서 그 원료를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엽산에 비해 엽산의 체내 대사율이 높다. <br/> <br/>하지만 천연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엽산제의 대사율과 안전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엽산 분말을 알약화할 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의 화학부형제를 사용한 엽산제는 장기간 복용 시 엽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젊은 층 암 환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좋다 보니 오히려 암세포의 전이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고 엽산이 많이 든 음식이나 천연 엽산제 등을 챙겨 먹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1.txt

제목: 경남도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날짜: 20161004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4154756393  
본문: 경남도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br/> <br/>경남도는 도내에서 푸른요양병원(창원시 의창구)과 희연요양병원(창원시 성산구) 2곳이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br/> <br/>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두 병원이 선정되어 추진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br/> <br/>푸른요양병원은 7실 20병상, 희연요양병원은10실 27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br/> <br/>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종교인 등의 전문 인력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br/> <br/>‘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 치료 전문의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에 신청하면 된다. <br/> <br/>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입원수가는 5인실 기준 24만5580원(1일)이며, 그 중 환자부담금은 5%인 1만228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2.txt

제목: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3215452183  
본문: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지난해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기타사토대학 특별명예교수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이다. 오스미 교수는 25번째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다. <br/> <br/>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 연구로 유명한 오스미 교수를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br/> <br/>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3일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요코하마=AP연합뉴스오토파지란 ‘오토(스스로)’와 ‘파지(먹다)’란 의미가 합쳐진 말로 체내 세포 속 소기관인 ‘리소좀’이 세포 내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재이용하는 현상이다.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세포 스스로 생존을 위해 내부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일종의 면역 현상이다. <br/> <br/>이 현상은 이미 1970년대에 보고됐지만 오스미 교수는 1988년 현미경 관찰을 통해 세포 내 오토파지 발생과정을 처음 관찰했다. 이어 1993년 효모균을 이용해 오토파지 현상을 제어하는 필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잇달아 발견, 오토파지 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써 왔다. <br/> <br/>오스미 교수의 연구는 자가포식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신경난치병은 물론 암과 당뇨 등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br/> <br/>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span>”며 “<span class='quot0'>감염에 대한 반응 등 여러 생리과정에서 오토파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길을 열었다</span>”고 밝혔다. <br/> <br/>1945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오스미 교수는 1967년 도쿄대 교양학부 졸업 후 일본 도쿄대 조교수와 자연과학연구기구 기초생물학연구소 교수 등을 거쳤다. 그는 이날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span class='quot0'>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백찬기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오토파지 작용은 최근 암, 근육기능 이상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노화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에서도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항암제와 신경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3.txt

제목: 암투병 여행 91세 할머니 ‘길에서 임종’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3192708924  
본문: 암에 걸린 뒤 만 91세 나이로 미국 대륙횡단 자동차여행에 나섰던 미국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br/> <br/>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1일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페이지에 “<span class='quot0'>인생은 붙잡고 있기와 놓아주기 사이의 균형 잡기</span>”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뒤 “<span class='quot0'>오늘 우리는 놓아주기에 섰다</span>”며 할머니가 세상과 작별했음을 알렸다. 지난해 8월 말 할머니가 아들 내외, 애완견 링고와 레저용 차량을 타고 미시간주 북동부의 자신의 집을 떠난 뒤 13개월 만이었다. <br/> <br/>노마 할머니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병원 입원 대신 자동차여행을 선택했다. 여행 시작과 함께 페이스북을 개설해 자신의 여정을 알렸고 내밀한 감정들을 전했다. 여행 1년 새 45만여명이 할머니 페이지를 팔로하며 할머니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또 위로를 받았다. <br/> <br/>노마 할머니는 지난 8월 말 대륙횡단 대장정 1주년을 맞아 “32개주 75개 도시를 돌며 약 2만1000㎞를 주행했다”며 “90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내 여행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삶이 끝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4.txt

제목: '암 투병 여행'으로 영감 준 91세 할머니…길에서 영면  
날짜: 2016100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3103039042  
본문: 사별과 자궁암 등으로 힘겨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미국 횡단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노마 진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지난 1일(현지시간) 91년에 걸친 인생여행을 끝마쳤다. <br/> <br/>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이날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페이지에서 “인생은 붙잡고 있기와 놓아주기 사이의 균형잡기”라는 13세기 시인 루미의 말을 인용한 후 “오늘 우리는 놓는다”고 글을 올렸다. <br/> <br/> <br/> <br/>노마 할머니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뒤,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치료 대신 레저용 차량(RV) 여행을 선택했다. 할머니의 곁에는 아들 내외와 애완견 링고가 함께 있었다. <br/> <br/>45만명에 달하는 팔로워가 생겼고, 할머니가 가는 곳마다 응원이 쏟아졌다. <br/> <br/>지난 8월 말, 할머니는 대륙횡단을 떠난 지 1년을 맞아 “그동안 32개 주 75개 도시를 돌았다”며 “약 2만1000km를 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br/> <br/>당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겪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이 끝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 <br/> <br/> <br/>할머니는 미시간주 북동부에 있는 집을 떠난 지 약 13개월 만에 워싱턴주 북서해안의 산후안 제도를 마지막 여행지로 만 91년 6개월에 걸친 생을 마감했다. 자신의 소망대로 길 위의 바람이 됐다. <br/> <br/>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10만명 이상이 슬픔을 표시했고, 공유 1만3000여회를 통해 게시물이 널리 퍼지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Driving Miss Norma 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5.txt

제목: '판타스틱' 김현주의 눈물, 오열 아닌 숨죽여 더 슬프다  
날짜: 2016100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1001211448050  
본문:   <br/> <br/> <br/>김현주가 유언장을 쓰는 도중 주상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br/> <br/>1일 오후 방송한 JTBC '판타스틱'에서는 이소혜(김현주 분)가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홍준기(김태훈 분)의 조언을 듣고 유언을 쓰기 시작했다. <br/> <br/>'웰빙'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웰다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 이소혜는 집에 가만히 앉아 펜을 들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노래 등을 써내려갔다. <br/> <br/>그리고 류해성의 이름을 적었다. '해성아'라고 적는 순간 이소혜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성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 <br/> <br/>소혜는 과거 류해성과 야영하러 가기로 한 것을 떠올렸고 두 사람은 그날 밤 바로 한강가서 텐트를 펼쳤다. 류해성은 이소혜에게 "소혜 공주님"이라고 부르고 "우주대스타가 소혜가 스케줄 빼라고 하면 가야된다"라면서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br/> <br/>이소혜는 류해성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흘러가는 시간을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소혜는 류해성에게 커플링 반지를 받고 감동의 눈빛을 보냈다. <br/> <br/>이날 김현주는 유언을 쓰는 장면에서 터저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애틋하게 주상욱을 생각,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암에 걸린 여주인공이 슬프게 죽어가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여주인공의 색깔을 '갓현주'답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평이다. <br/>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6.txt

제목: '타이어 노예' 지적장애인 무임금 노역 기간 '22년'  
날짜: 20160930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30150717266  
본문: '타이어 노예'로 알려진 40대 지적장애인이 애초 알려진 10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타이어 수리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3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 입건된 변모(64)씨 부부는 1994년부터 A(42)씨에게 타이어 가게 일을 시켰다. <br/> <br/>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결과 이때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일까지 A씨는 고장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화물차용 대형 타이어를 옮기는 등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 한번 받지 못했다. <br/> 청원경찰서가 취재진에 공개한 `인간제조기` 몽둥이. <br/>A씨는 애초 2006년부터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br/> <br/>1994년 7월쯤 A씨 아버지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변씨에게 지적장애인 아들을 맡겨 타이어 수리 기술을 배우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씨는 2006년까지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r/> <br/>2006년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br/> <br/>이때부터 A씨는 변씨 가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됐다. <br/> <br/>A씨 아버지는 2007년 5월쯤 아들의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받아 관리하던 통장을 변씨 부부에게 맡기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br/> <br/>고용노동부와 경찰은 A씨가 22년간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변씨는 "A씨는타이어 수리 기술을 배웠을 뿐 제대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한 달에 한번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청원경찰서는 변씨가 A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최대한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r/> <br/>앞서 경찰은 2007년 A씨가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 기록을 확인했다. <br/> <br/>경찰은 A씨 갈비뼈 4곳에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보했다. <br/> <br/>갈비뼈 1곳은 여전히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br/> <br/>A씨가 변씨한테 맞았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폭행 피해 정황은 20여회인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변씨 타이어 가게에서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압수했다. <br/> <br/>곡괭이 자루 앞, 뒷면에는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제조기!' 등 문구가 매직펜으로 굵직하게 적혀 있다. <br/> <br/>변씨는 "A씨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데려다준 적이 있지만,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r/> <br/>지난 4일 타이어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로 빠져나온 A씨는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내주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7.txt

제목: 맞춤형 변형 단백질 생산… 신약 개발 전기  
날짜: 2016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30030325262  
본문: 카이스트 박희성 교수가 29일 과천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맞춤형 변형 단백질 합성기술 개발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br/>미래부 제공국내 연구진이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br/> <br/>카이스트 박희성 교수와 이희윤 교수, 양애린 박사 연구팀은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을 직접 구현해 원하는 변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의 인체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세포는 2만여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단백질의 변형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는 100만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br/> <br/>하지만 인산화, 당화, 아세틸화, 메틸화 등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만 그밖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암은 물론 퇴행성신경질환,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박 교수팀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규명된 200여종의 단백질 변형으로 구현, 변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맞춤형 변형 단백질 생산이 가능하게 돼 암과 치매 등을 위한 신약 및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r/> <br/>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 2016년 9월호(9월29일자)에 가장 중요한 논문 (First Release)으로 선정돼 온라인 게재됐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8.txt

제목: 입속의 침이 말해주는 건강상태 7가지  
날짜: 20160929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9113518088  
본문: 건강한 성인은 하루 1000~1500㎖의 침을 생산한다. 침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뱉지 말아야 한다. <br/> <br/>미국 치과의사 협회 대변인 킴벌리 함스는 “<span class='quot0'>침은 잇몸 건강 유지, 충치 예방, 음식 찌꺼기 제거를 도와주고 충치와 다른 감염의 예방을 위한 물질들을 제공해준다</span>”고 말했다. <br/> <br/>침은 입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 외에도 당신의 몸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미국 폭스뉴스가 침이 말해주는 건강 상태 7가지를 소개했다. <br/> <br/> <br/>1. 침이 마른다 <br/>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먹는 약 때문일 수 있다. 충혈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300가지 이상의 약은 부작용으로 입을 건조하게 할 수 있다. <br/> <br/>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입이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는 데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먹고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면, 입속 청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매일 치실을 사용하고, 하루 두 번 불소가 함유된 치약으로 양치질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도록 하라. <br/> <br/> <br/>2. 침이 하얗고 탁하다 <br/>그것은 아마도 경구 감염의 증상일 수 있다. 칸디다 알비칸스 균은 당신의 입에서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불리는 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의 입속에서는 이스트균을 번식시킬 수 있다. <br/> <br/>3. 침이 너무 산성이다 <br/>입은 중성을 유지하려 한다. 입속 산성도가 높아지면 치아의 구석진 곳과 갈라진 틈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다. 산성을 띤 침 또한 치아 침식과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붉은 고기 또는 가금류와 같이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침의 산성도를 낮출 수 있다. <br/> <br/>4. 침의 양이 너무 많다당신은 임신한 것일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더 많은 침을 생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호르몬의 변화 또는 헛구역질의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다. 침의 양이 많아져도 앞사람에게 침을 튀기는 것 외에 실제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껌을 씹거나 딱딱한 사탕을 먹는 것이 침을 삼키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 <br/>5. 침에서 쓰거나 시큼한 맛이 난다 <br/>위산 역류 증상일 수 있다. 이것은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상태를 말한다. 당신의 입과 목구멍에서 신맛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 위산 역류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속 쓰림이다. 또한 입 냄새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는 아마도 당신에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피하는 등의 생활 방식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br/> <br/> <br/>6. 입안이 끈적하다 <br/>당신은 아마도 주로 입으로 호흡할 것이다. 당신의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침은 입의 천연 살균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세균과 충치가 번창한다. 구강 호흡은 수면무호흡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 <br/>7. 침은 유전자 정보도 제공한다 <br/>침은 당신의 몸속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이것은 당신의 유전자 구성과 호르몬에 관해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당뇨병부터 암까지, 침은 질병에 대한 진단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 침으로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 수치를 테스트해볼 수도 있다. <br/> <br/>의사들은 침을 통해 당신 몸의 24시간 주기 리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나은 수면, 식사, 체중 감량 등에 대한 방법들을 추천할 수 있다.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br/>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39.txt

제목: [사설]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당장 중단하라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9011532327  
본문: 코레일이 어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철도 노조 간부 등 107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사장 명의로 파업 노조원들에게 개별 서한을 보내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span class='quot0'>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노동계는 연대 파업을 계속했다. 고려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공연맹은 오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나선다. 앞서 27일에는 철도 노조, 서울·부산지하철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본격화한 것이다. <br/> <br/>이번 추투에 나선 노조들은 억대 연봉에 육박하는 대기업 노조가 주류를 이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139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파업이 ‘금수저’들의 배부른 파업으로 불리는 이유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심보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는 웬만한 민간기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임금체계다. <br/> <br/>귀족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은 국가경쟁력에도 암적인 존재다. 어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대만(14위), 말레이시아(2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웃 일본(8위)에 한참 뒤처지고 중국(28위)에 바짝 추격을 당하는 신세다. 한국은 2007년 11위로 치솟은 이후 해가 갈수록 추락을 거듭해왔다. 경쟁력 하락의 주범은 노동 분야였다. 노동 부문의 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가운데 77위였고, 이 중 노사 협력은 꼴찌권인 135위에 그쳤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박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br/> <br/>노동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귀족노조의 요구대로 노동개혁을 미루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투쟁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파업을 접고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0.txt

제목: 오늘도 담배와 술… '죽음' 부르고 있다  
날짜: 2016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7191158243  
본문: 담배와 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폐암과 폐렴 사망률은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알코올 관련 사망률도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br/> <br/>자살로 인한 사망자도 여전히 많았다. 전체 국민의 자살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돌며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r/> <br/>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1% 늘어난 27만589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41.5명으로, 2006년(495.6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r/>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암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작년에만 7만6855명이 각종 암으로 목숨으로 잃었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은 150.8명으로, 2위 심장질환(55.6명)의 3배에 달했다. <br/> <br/>암 종류 중에는 폐암의 사망률이 34.1명으로 가장 높았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년 전(28.2명)과 비교해 5.9명이나 증가했다. 간암(22.2명), 위암(16.7명)이 뒤를 이었다. <br/> <br/>폐렴은 뇌혈관 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에 올랐다. 10년 전 사망률 8.5%로 10위에 불과했던 폐렴은 매년 사망률이 높아져 2008년 9위, 2010년 6위에 이어 지난해 4위까지 치솟았다. <br/> <br/>알코올 관련 사망률도 증가했다. 2005년 9.6명이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2010년 9.1명, 2013년 8.9명, 2014년 8.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9.3명으로 증가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남자(16.3명)가 여자(2.4명)보다 6.8배 높지만, 남녀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br/>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로 인한 폐렴과 심장질환이 늘고 있지만, 담배와 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률도 증가하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폐암의 경우 남성 흡연자의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사망원인 가운데 자살(고의적 자해)은 26.5명으로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률은 26.5명(OECD 기준 25.8명)으로, 전년 대비 0.7명(2.7%)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1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다. <br/> <br/>자살은 전 연령층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증가했다. 80대 이상 인구 10만명당 8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70대도 62.5명에 달했다. 특히 자살은 10~30대 청년층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고, 40~50대는 사망원인 2위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br/> <br/>생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전년보다 0.3명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임신 및 분만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하는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는 8.7명으로, 전년대비 2.3명 줄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br/> <br/>통계청 이지연 과장은 “<span class='quot1'>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효과로 영아와 산모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1.txt

제목: 사망원인 1위 암, 네티즌…“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날짜: 20160927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7171430655  
본문: KBS 방송화면 캡처 <br/>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30대 젊은 층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다. <br/>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총 27만5천895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br/>한편,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Roge\*\*\*) 10대부터 30대 사망원인 최다가 자살이라니 20대는 무려40퍼가 넘고 너무 끔찍하네요.” “(col\*\*\*) 자살하지 않으면 암으로 죽는구나.” “(waj\*\*\*)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은 죄가 크다” “(노란색) 슬픈 현실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br/>이슈팀 ent@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2.txt

제목: [나의애독서] 통하면 아프지 않다… 스스로를 지키는 양생의 지혜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6231545952  
본문: 가까운 사람 중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그중 하나가 고미숙씨가 동의보감에 대해 쓴 세 권의 책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이다. 출판사 영업사원도 아니면서 이 책을 그리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br/> <br/>2012년 기후변화대응 주요정책인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던 중 입과 눈이 돌아가는 구안와사(口眼蝸斜)라는 병을 앓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다. 다행히 한의사 친구의 치료 덕분에 지금은 말끔하게 나았다. ‘건강했던 나에게 왜 그런 병이 찾아왔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왜 구안와사가 나를 찾아왔는지, 아직도 허리가 왜 아픈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의 몸의 주인이라는 깨우침을 얻었다.  <br/> <br/>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책은 기존의 동의보감과 허준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다. 동의보감은 동양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비방을 제시한 의학서적이다. 저자 허준은 불치병을 치유한 전설의 명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왜곡하거나 평가절하했다고 고미숙은 주장한다. 동의보감은 의학서의 차원을 넘어 유교·불교·도교의 삼교회통에 기반한 종교 및 철학서이고 허준 역시 명의를 넘어 자연철학자와 체계적인 분류학자라고 높이 평가한다. <br/> <br/>저자는 동의보감의 핵심 메시지를 통즉불통(通卽不痛·통하면 아프지 않다)이라고 해석한다. 즉 건강하다는 것은 통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통’이란 몸과 마음, 몸과 사회, 몸과 우주 등과의 소통을 의미하며 단순히 건강이나 체력의 향상을 넘어 삶의 지혜까지 요구된다고 한다. <br/> <br/>갈수록 높아가는 청년실업률과 자살률 등에서 보듯 많은 사람이 암과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이다. 동의보감에서 제안하는 근본적인 질병 치료법은 양생(養生)이다. 저자는 양생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명의 정기를 기르는 것으로 단순히 병을 막고 세균을 몰아내는 기존의 위생 담론과는 차원이 다른 생리와 윤리, 그리고 영성이 하나로 통하는 삶의 총체적 기예라고 본다. <br/> <br/>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양생술은 무척 간단하다. 걷기, 덜먹기, 맨손체조 ‘생각은 적게 몸은 많이’ 등을 제시한다. 독자제현들도 동의보감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양생술을 실천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한다. <br/> <br/>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3.txt

제목: ‘2016 마운틴하드웨어 빅월 페스티벌’ 성료… 풍성한 이벤트 진행  
날짜: 20160926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6174817283  
본문:   <br/> <br/>‘2016 마운틴하드웨어-익스트림라이더 빅월 페스티벌’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br/> <br/>인천 문학경기장 내 인공암벽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빅월 전문 등산학교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가 주관했으며, 아웃도어 전문 업체인 마운틴하드웨어 후원으로 이뤄졌다. <br/> <br/>빅월 클라이밍은 거친 자연 속에 거대한 암벽을 등반하는 극한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익스트림라이더 등산학교를 수료한 다수의 아마추어 등반가·강사진·프로 등반가들이 모여 대암벽에 대한 도전정신을 보여주었다. <br/> <br/>대회장에는 거벽 등반 중 안식처가 되어 줄 ‘포타렛지 카페 등 대회 특색을 담은 이벤트들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SNS와 연계한 ‘트릭 포토 이벤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마운틴하드웨어 온라인몰 할인쿠폰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아마추어 포토그래퍼 대상의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대회의 모습을 기록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br/> <br/>행사 후원업체 마운틴하드웨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빅월 클라이밍은 자사 브랜드의 중심 철학으로 추구하는 ‘알피니즘’과 맞닿아있는 종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마이크 리베키·프레디 윌킨슨 등 세계적인 빅월 클라이머 동반자로 활동해 온 경쟁력을 통해 국내 거벽 등반가들의 도전을 응원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마운틴하드웨어는 세계적 선수들과 제품 디자인 및 테스팅을 함께하며 알파인 아웃도어 제품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빅월 페스티벌에 대한 후원도 지속하고 있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4.txt

제목: 우유, 제대로 알고 마시고 있나요?  
날짜: 20160926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6163127416  
본문:   <br/> <br/>우유는 오랜 기간 동안 영양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br/>그런데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우유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우유 섭취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특히나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를 모아 다음과 같이 오해를 풀어 보았다. <br/> <br/>▲ 우유를 마시면 살이 찌나요? NO! <br/> <br/>우유 속 유지방 탓에 살이 찔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물론 우유 속에 지방이 들어있으나 100ml 당 고작 3g 정도에 불과하며, 우유 속에는 체지방을 조절하는 항비만인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중감량 위한 식이조절에 도움이 된다. <br/> <br/>우유에는 칼슘, 유청단백질, 공액리놀레산이라는 3가지 영양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성분은 비만을 예방하는 항비만인자로 꼽힌다. 칼슘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게 만든다. 유청단백질은 포만감을 유도해 식욕을 억제시키고, 공액리놀레산은 지방의 조직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br/>한편,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7173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우유와 요구르트를 하루에 두 번 섭취하는 사람들의 비만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7% 낮았고,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위험도가 21%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br/>미국 시애틀 프레드허친슨 암 연구소 크라츠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유를 섭취한 그룹이 덜 섭취한 그룹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갔으며, 고지방 우유를 섭취하더라도 비만 및 소아비만의 위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게다가 우유를 마시면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과식을 피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챙겨 먹지 않더라도 꾸준한 우유 섭취를 통해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다. <br/> <br/>▲ 우유에 콜레스테롤이 많나요? NO! <br/> <br/>지방 성분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과다섭취 시 성인병을 일으키는 동맥 경화증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다. 우유의 지방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우유 1컵에는 콜레스테롤 정상수치인 200mg/dl의 10% 정도만 함유돼 있다. <br/> <br/>또한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한편, 우유에는 항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공액리놀레산(CLA)이 함유되어 있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 이상일 때 해당되며, 유전적 요인이나 고혈압·스트레스·흡연·비만 등의 요인으로 결정된다. <br/> <br/>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중증 질환 중에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도 우유 섭취가 도움이 된다. 2015년 영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유 섭취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 고혈압의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br/> <br/>▲ 우유가 구강건강에 좋지 않나요? NO! <br/> <br/>우유를 마시면 텁텁한 느낌 때문에 입 냄새가 날 것 같고, 실제 충치예방에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우유는 구강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br/> <br/>2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에서 음료를 20초씩 시음한 후 1, 5, 10, 30분 단위로 타액을 채취해 실험해 본 결과, 당이 들어간 음료를 섭취하면 구강 내 pH가 낮아져 물로 헹구더라도 계속 pH가 감소했으나, 우유를 섭취하면 pH가 섭취 전보다 증가했다. pH 농도는 산성과 반비례해 낮을수록 산성을 띈다. 당류 음료는 산성 환경을 제공해 충치를 유발하지만, 우유는 산성 환경을 중성화 시키는 작용을 해 충치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우유 섭취와 구취의 원인인 황화합물의 증감과는 관련이 없어 입냄새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r/> <br/>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용덕 교수에 따르면, 우유는 치아 표면에 코팅되어 충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어 충치예방에 좋고, 구취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식품이다. <br/> <br/>이처럼 우유는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며,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다. 앞으로 우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해 맛있는 우유, 건강하게 마셔보자.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5.txt

제목: '판타스틱' 김현주, 주상욱 밀어냈지만 더 커지는 마음  
날짜: 2016092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4213943206  
본문:   <br/> <br/> <br/>김현주가 주상욱에게 이별을 고하고 혼자 가슴 앓이를 했다. <br/> <br/>24일 오후 방송한 JTBC '판타스틱'에서는 이소혜(김현주 분)가 류해성(주상욱 분)에게 여기까지만 하자며 이별을 고했다. <br/> <br/>하지만 류해성은 이미 이소혜의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소혜는 "이렇게 좋을 때 정리하자. 우리끼리 '히트맨' 제대로 해보자. 암 환자 소원"이라는 말로 류해성을 밀어냈다. <br/> <br/>이후 류해성은 이소혜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다. 이소혜 옆에서 보호자 역을 해주고 싶은 류해성의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베풀로 퍼주기만 했던 삶을 자신에게 보상 받으라는 의미였다. <br/> <br/>류해성이 자신에게 잘해줄 수록, 이소혜는 힘겹게 밀어내야 했다. 류해성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프로덕션 대표에게 부탁해 백지수표를 건네는가 하면, 부동산 사기범 형을 연기자에게 부탁해 사기당한 돈을 건넸다. 하지만 이소혜는 장르물의 대가답게 류해성의 판을 다 꿰뚫었다. <br/> <br/>이소혜는 류해성에게 찾아가 "동정하지 말라. 비참한 꼴 가지고 보는 게 재미있느냐"고 화를 냈다. 류해성은 힘들어하는 이소혜를 품어주고 싶었지만 가시돋힌 마음에 찔리기만 했다. <br/> <br/>이소혜는 선물받은 가구를 류해성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류해성 집에 방문했다. 그 곳에서 최진숙 대표와 마주쳤고 류해성에게 기생하는 취급을 받자 발끈했다. 왜 자신이 암환자 주눅 들어 살았는지 후회스럽다며 최진숙 대표에게 지지 않고 맞섰다. <br/> <br/>한편 이소혜는 친구 미선의 집에 얹혀있는 것이 미안해 류해성의 집으로 들어갔다.  <br/>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6.txt

제목: 브란젤리나 파경 계기로 살펴본 국내외 대표 잉꼬부부  
날짜: 20160923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3175820761  
본문: 브래드 피트-앤절리나 졸리(브란젤리나) 부부의 이혼 소송이 전 세계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부에선 피트가 6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 언어·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BBC방송이 최근 브란젤리나 커플의 파경 소식을 계기로 할리우드는 대체적으로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의 예상과 달리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도 꽤 있다며 10쌍의 대표적 잉꼬 커플을 소개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할리우드의 닭살커플 이외 국내의 대표적 잉꼬부부 5쌍을 정리해봤다. <br/> <br/> <br/>■할리우드 잉꼬 부부 <br/> <br/>◆골디 혼-커트 러셀 <br/> <br/>이 커플은 1983년 결혼했다. 결혼 초기 말은 많았다. 골디 혼은 이미 두 차례 결혼 실패를 겪었고, 러셀 역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탓이다. 결혼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이 부부는 여전히 애틋하다. 아내는 "우리는 일종의 연맹, 가족을 결성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안정적이다.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많은 열정은 앞으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br/>◆톰 행크스-리타 윌슨 <br/> <br/>이들 유명 배우 커플은 1988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둘은 1980년대 인기 시트콤이었던 ‘절친’(Bosom Buddies)에서 처음 만났다. 행크스는 이미 두 차례 오스카를 받은 상태였고, 윌슨은 수많은 TV쇼와 영화, 뮤지컬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상태였다. 행크스는 "리타는 내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줬다"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할 때 오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 <br/>◆아네트 베닝-워렌 비티 <br/> <br/>스타 배우였던 둘은 1992년 손을 맞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지금은 4명의 자녀가 있다. 베닝은 "결혼 후 당장 아이를 가질지, 그렇다면 내 커리어가 손상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우리의 스탠스가 뭘지 남편과 참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둘의 관계에 대해 많이 물어오는 데 내 대답은 ‘따로 또 같이’"고 했다. <br/> <br/> <br/>◆윌 스미스-제이다 핀켓 <br/> <br/>우리에겐 영화 ‘나쁜 녀석들’ ‘맨인블랙’으로 알려진 윌 스미스는 1994년 미국 시트콤 '더 프레시 프린스 오브 더 에어’(The Fresh Prince of Bel-Air)로 데뷔했다. 같은 시트콤에 여자친구로 출연했던 핀켓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1997년 일이다. 윌 스미스는 "지난 10년 동안 아내와 상당부분에서 대화나 카운셀링이 있었다"며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변 평판이 아니라 둘 사이의 신뢰였다"고 했다. <br/> <br/> <br/>◆마이클 더글라스-캐서린 제타 존스 <br/> <br/>스타 커플인 두 사람은 2000년 결혼했다. 부인인 존스는 올 초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010년 마이클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캐서린이 헌신적으로 남편의 투병을 도와 결국 암을 극복했을 때의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남편은 "서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던 시기"라며 "역경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함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br/> <br/> <br/>■한국의 배우 커플 <br/> <br/>◆유동근-전인화 <br/> <br/>1989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다. 유동근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곧잘 서로의 연기에 대해 평을 하곤 하는데 ‘당신 오늘 연기는 이거(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였어’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 이상 힘이 되는 말이 또 없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아내 전인화의) 이런 칭찬과 격려는 서로에 대한 예의이자 서비스, 노력</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 <br/>◆최수종-하희라 <br/> <br/>한국 연예계의 대표적 닭살 부부인 최수종·하희라는 1993년 결혼했으며, 후배 배우 커플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아내를 향한 온갖 이벤트로 뭇 남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최수종은 인터넷 매체 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내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늘 존중과 배려를 담으려 노력한다"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되 선택은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우리 가족의 행복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br/> <br/> <br/>◆차인표-신애라 <br/> <br/>독실한 크리스찬인 두 사람은 최·하 커플보다 2년 늦게 결혼했다. 이후엔 연기자 커플보다는 컴패션 등 여러 입양, 봉사활동으로 더 유명한 ‘바른생활 연예인’ 부부이다. 신애라는 2014년 딸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난 상태다. 차인표는 최근 "와이프가 공부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올해 박사과정에 들어갔다"며 "올 겨울 딸들이 온다.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여보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br/> <br/> <br/>◆한가인-연정훈 <br/> <br/>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집안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연정훈의 아버지는 한때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연규진이다. 이들이 2005년 결혼했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선 ‘감히, 내 첫사랑 가인이를 뺏어가다니’ 하며 연정훈 비토 움직임도 있었다. 한가인은 2012년 한 여성잡지와 인터뷰에서 "제 경험으로는 첫 눈에 반한 적은 없다. 사랑을 할 때는 적어도 두세 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br/> <br/> <br/>◆유지태-김효진 <br/> <br/>둘은 2011년 결혼했다. 최근 tvN에서 16부작으로 방송된 드라마 ‘굿 와이프’에서 정치적 욕망으로 가득한 검사 역할로 ‘천생 배우’를 재확인한 유지태는 모 지상파 연예프로그램에서 "친구 같은 남편이 좋은 것 같다. 구속하고 희생하는 건 별로인 것 같다"며 아내와의 여전한 사랑을 과시했다. 또 아들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최대한 아이와 잘 놀아주려고 한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7.txt

제목: [영화] "선은 없다" 악인끼리 물고 뜯는 핏빛 지옥도  
날짜: 2016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2211344486  
본문: 악대악의 대결로 악의 추잡함을 다루는 ‘아수라’는 ‘들개’ 같은 비리 경찰과 악덕 시장, 독종 검사 등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의 지옥도’를 그린다.악의 추잡함과 악의 막장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준다. 그야말로 악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악은 결코 선을 베풀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구축하지만 악을 악으로 응징하기도 한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온전히 악대 악의 대결이다. <br/> ‘감기’ ‘영어완전정복’ ‘무사’ ‘태양은 없다’ ‘비트’ 등으로 유명한 김성수 감독의 새영화 ‘아수라’는 악인들만 등장하는 폭력의 먹이사슬이자 악의 생태계를 펼쳐놓은 작품이다. <br/> <br/> “<span class='quot0'>간절히 만들어 보고 싶은 영화였다</span>”고 털어놓을 만큼 오랜 시간 벼르고 별러 온 김 감독이 특유의 ‘뚝심’으로, 묵직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려낸 야심작이다. 자신만의 선굵은 연출과 색채를 스크린 가득 마음대로 풀어놓을 줄 아는 중견 감독의 귀환이 반갑다. <br/> <br/>무자비한 악인, 들개 같은 악인, 공권력의 얼굴을 가진 악인, 악에 물들어 가는 악인들이 서로 치열하게 물어뜯는 악인열전이다. <br/> <br/>재개발 열풍이 부는 안남시의 박성배(황정민) 시장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증인 납치, 살인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조직폭력배 동원, 부동산 개발 비리 등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다. <br/> <br/>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암 말기인 아내의 병원비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박 시장의 주구 노릇을 하며 궂은일을 도맡는다. 아예 경찰직을 버리고 박 시장의 수행팀장으로 전직하려던 참에 일이 꼬인다. 박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납치·협박한 마약중독자이자 자신의 끄나풀이던 작대기(김원해)의 존재를 알아챈 선배 형사(윤제문)랑 다투다 그만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br/> <br/>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김차인(곽도원) 검사와 도창학(정만식) 수사관은 이 사고를 계기로 한 형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박 시장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라고 압박한다. <br/> <br/>한 형사는 김 검사와 박 시장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다 양쪽 모두 자신의 목을 옥죄어오자 발버둥치며 살길을 모색한다. <br/> <br/>한 형사를 대신해 박 시장의 수행팀장이 된 후배 경찰 문선모(주지훈)는 점차 박 시장의 심복으로 변모해가면서 자신을 여전히 ‘꼬마’로 여기는 한 형사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기어오르려 한다. <br/> <br/>등장인물들은 마치 ‘누가 더 악한가’를 경쟁하듯 132분의 러닝타임 동안 서로 으르렁대며 ‘악인들의 지옥도’를 완성해 나간다. 성찰이나 반성은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가차없이 짓밟는 짐승들만 있을 뿐이다. <br/> <br/>캐릭터들이 부딪칠 때 드러나는 긴장과 갈등의 정도가 몹시 드세다. 배우들이 뿜어내는 연기 또한 그만큼 강렬하다. ‘개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배우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시너지 효과와 이들이 격돌하며 일으키는 화학작용은 그대로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게다가 모두가 악역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영화는 배우들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극한으로 밀어붙인다. <br/> <br/>액션 장면도 만족스럽다. 특히 빗속 자동차 추격신은 압권이다. 할리우드 기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은 성취도를 안겨주며 인물들의 성격까지 담아낸다. <br/> <br/>시종일관 유지되는 긴장의 파고와 쭉쭉 뻗어나는 전개감 또한 돋보인다.  <br/> <br/>이모개 촬영감독은 합성이나 분할 촬영을 통해 이미 익숙한 액션 장면들을 색다르게 보이도록 공을 들였다. 관습적으로 찍는 방식을 비틀어 관객들이 무의식중에 영화 속 주인공과 맞먹는 고통을 느끼도록 배려했다. 폭력의 세계에 물든 주인공이 그 폭력에 의해 괴멸되는 내용인 만큼 액션의 통쾌함보다는 통렬함을 선사한다. <br/> <br/>시사회에서 만난 ‘악의 축’ 박성배 역의 황정민은 “<span class='quot1'>배역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인물의 성격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기 시작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뉴스를 보면 참고할 분들이 너무도 많아 이번 악역의 롤모델을 찾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span>”고 말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말처럼, 관객들이 ‘아수라’를 그다지 놀라지 않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악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 <br/> <br/>독종 검사 역의 곽도원은 “<span class='quot2'>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잃었을 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 모습이 배우에겐 매력적으로 여겨졌다</span>”고 말했다. <br/> <br/>김 감독은 자신의 연출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br/> <br/>‘··· 변변한 보상도 없이 악당 졸개 노릇만 하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살이란 얼마나 고단할까? ···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매사 악인답게 꿋꿋이 처신해야 하고, 게다가 성질이 포악한 두목을 모시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결국 악인도 연약하고 바보 같은, 한갓 인간일 뿐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무대에 내던져진,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지만, 한 번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 채 끝나는 ··· 동정심 없는 세상을 빗대어 영화 ‘아수라’는 ‘핏빛 전쟁터’를 그려낸다. 그 지옥의 풍경 속에서 한 사내가 길을 잃었고, 나는 그 사내의 지친 그림자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br/> <br/>28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8.txt

제목: 연간 진료비 1000만원 넘는 환자 70만명  
날짜: 2016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2193648432  
본문: 연간 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환자가 70만명에 이르지만 고액 진료비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br/> <br/>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연평균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환자는 70만82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액 진료비 환자는 2013년 59만6000명에서 2014년 64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br/> <br/>그러나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보의 보장률은 77.7%로 정책 시작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했다. 특히 암은 2014년 보장률(72.6%)이 2012년(74.1%)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고액 진료비 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도 30만6496명이나 됐다. <br/> <br/>이 때문에 특정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고 이 중 평균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br/> <br/>또 저소득층인 건보료 1분위 대상 중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인 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강화한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셈이다. <br/> <br/>정 의원은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지원에)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보장성 강화의 혜택마저도 고소득층에게 많이 돌아가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49.txt

제목: 자전거 타고 섬과 바다 즐길 수 있는 '신안'  
날짜: 20160922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2030408398  
본문: “<span class='quot0'>자전거를 타고 해안과 방조제 둑길, 노둣길을 달리면서 섬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전남 신안의 ‘천도천색 천리길’을 아시나요</span>” <br/> <br/>21일 전남 신안군이 오는 10월부터 자전거를 타고 12개 읍·면을 여행할 수 있는 ‘천도천색 천리길’ 자전거투어（사진 ）상품을 본격 운영한다고 했다. <br/> <br/>‘1000여개의 섬에 신안만의 독특한 색을 입히고, 총길이가 1000리가 넘는다’는 의미를 담아 ‘천도천색 천리길’로 이름 붙여진 자전거 투어상품은 12개 읍·면에 8개 코스로 구성됐다. 전체 길이는 455㎞이다. <br/> <br/>특히 8개의 ‘천도천색 천리길’ 코스 중 4코스와 5코스（비금∼도초）는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를 이용해 한꺼번에 두개 이상의 섬을 투어할 수도 있다. <br/> <br/>암태와 자은, 팔금, 안좌 등 4개 섬을 동시에 종주하는 4코스는 120.32㎞로 가장 길다. 해송과 노을이 아름다운 자은 분계해수욕장과 백길해수욕장, 암태 추포해수욕장은 물론 아름다운 해넘이도 즐길 수 있다. <br/> <br/>또 안좌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양화가 김환기 생가를 거쳐 전남도가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한 안좌 반월∼박지도 목교도 둘러볼 수 있다. <br/> <br/>6코스（25.08㎞）인 흑산도에서는 구불구불한 해안일주도로, 흑산도 전경과 다도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라봉 전망대, 유배문화공원 등으로 꾸며졌다. <br/> <br/>군은 투어 참가자 모집과 안내를 담당할 여행사와의 조율을 거쳐 ‘천도천색 천리길’ 자전거 투어 상품을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br/> <br/>또한 수도권 단체 참가자들을 위해 차량과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자전거 길 지도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2곳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8개 코스를 모두 종주할 경우 종주메달과 인증서가 지급되고 각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지역특산물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br/> <br/>신안군 관광정책 관계자 “<span class='quot1'>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신안군의 섬과 바다를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또 다른 추억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투어상품은 우선 기상의 영향을 받는 섬의 특성을 감안해 하계와 동계를 제외한 4개월 운영하고, 추가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행정자치부는 올 가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증도와 비금∼도초를 최근 선정했다. 증도 구간은 염생 습지 탐방로를 따라 자연갯벌에 자생하는 염생식물 관찰과 체험이 가능하다. 비금∼도초는 하누넘 해수욕장 하트 모양 해안선 등 절경이 뛰어나다. <br/> <br/>신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0.txt

제목: 미숙아·중증 신생아 치료도 건보 보장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1215949250  
본문: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주요 검사 등 18개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br/> <br/>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인플루엔자(독감) 등 신생아가 많이 걸리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8종에 대한 검사 비용이 급여화된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감염에 취약해 독감 같은 흔한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있어 부담이 컸다. 검사가 급여화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연간 3만명가량이 본인 부담 없이 진단 및 감염관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고성능 보육기(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 특수 장비에 대한 수가를 신설, 보다 많은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br/> <br/>아울러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산아 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추가 인력 투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했다. 다음달부터는 고가 약제 및 신생아 자기공명영상(MRI)장치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해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br/> <br/>또 4대 중증질환과 관련, 총 18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 검사 14항목과 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1.txt

제목: “컴퓨터로 10년 내 암치료 해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21215607340  
본문: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신러닝(기계학습) 같은 컴퓨터공학을 이용해 10년 안에 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br/> <br/>2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자들은 DNA를 이용한 분자컴퓨터(molecular computer)가 의사처럼 암세포를 발견한 뒤 제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생물학자와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을 모아 컴퓨터 시스템이 버그를 찾는 방식의 암 치료 해법을 찾고 있다. <br/> <br/>연구팀의 앤드루 필립스는 “<span class='quot0'>암을 찾을 수 있는 스마트 분자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5∼10년 안에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끄는 그룹은 이미 건강한 세포의 행동을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세포들의 행동을 비교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br/> <br/>재스민 피셔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암은 평생 관리하면서 생활하는 만성질환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로 유전자 데이터와 맥박, 수면 패턴, 운동량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감기나 심한 질병에 걸릴 확률 등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체 안의 기본 과정을 모방하는 컴퓨터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체를 재프로그래밍해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궁극적인 목표다. <br/> <br/>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의학 연구에 나서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암 연구자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방대한 아이폰 이용자의 의료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리서치킷을 지난해 내놨다. 구글의 연구실인 구글 X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과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의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2.txt

제목: [기고] 암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9181216622  
본문: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콩나물 팍팍 무쳤냐” 등 수많은 유행어로 대한민국을 웃기고 울리던 ‘코미디의 황제’ 고 이주일씨. 그는 2002년 8월, 투병생활을 한 지 11개월 만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암으로 인해 쇠약해진 모습으로 출연한 금연광고는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br/> <br/>매년 22만50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7000명이 사망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암 발생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도 우리의 암 발생률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암 관리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암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율은 1993∼1995년에 41%에서 2009∼2013년에는 69.4%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은 미국의 66.5%보다도 높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꾸준한 국가 암 관리에 힘입어 암 치료기술이 발전한 결과다. <br/> <br/> <br/>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향후 5년의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새 암관리계획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년 생존율도 약 20%로 낮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과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br/> <br/>최근 미국에서는 저선량 폐CT로 폐암 검진을 받을 경우 폐암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근거로 공적 의료보험에서 폐암 검진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폐암 검진을 국가 암 검진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br/> <br/>암생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생존자도 137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생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치료 후에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암 생존자에 대한 상담·지원체계는 충분치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심리지원과 사회적 관계 복원을 지원하는 암 생존자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br/> <br/>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용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까지 25%로 높이기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에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 센터를 설립하고,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는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소아 말기암 환자를 위한 소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br/> <br/>또 앞으로 유전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정밀의료기술이 개발되면 유전자 형태에 맞는 맞춤형 암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난 전문기술로 정평이 나 있다. 유전자 정보와 각종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의료기법의 개발은 암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br/> <br/>앞으로 암은 죽음이 연상되는 두려운 질병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이다. 암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지금 우리 앞에 그 길이 열려 있다. <br/> <br/>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3.txt

제목: 암에 걸린 친구 도우려 2년간 머리 기른 7살 꼬마 천사  
날짜: 20160919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9160339976  
본문:   <br/> <br/>암에 걸린 친구를 돕겠다며 2년간 머리를 기른 7살 아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 매릴랜드에 거주 중인 7세 토마스 무어가 그 주인공이다. 아이는 마치 파마를 한 것 같은 곱슬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질 정도로 길게 자랐어도 학교에 가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 암에 걸린 아이가 밝게 웃을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다. 해외 매체 메트로가 최근 전한 소식이다. <br/> <br/>토마스가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한 건 2년 전, 한 소녀가 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는 영상을 본 이후였다. 영상 속 5살 키시 앤드류는 무척 슬퍼 보였다. 그때 토마스는 암 환자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br/> <br/>토마스는 머리를 길러 암 환자용 가발을 만들어 키시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딱히 기한도 정해놓지 않았다. ‘키시가 행복해지게 충분히 긴 가발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목표였다. <br/> <br/> <br/>흑인의 모발 특성상 어느 정도 자라자 머리를 단단하게 땋는 ‘콘로우’ 헤어스타일을 해야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크게 부풀어 올랐다. 다행히 새로운 머리에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학교에 갈만큼 토마스는 용감했다. <br/> <br/>토마스의 어머니 앤지 플로스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난생처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했다. 그 모습에 엄마로서 정말 뿌듯하더라”고 소감을 전했다. <br/> <br/>머리를 기른 지 2년 만에 토마스의 머리는 기부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가 됐다. 암에 걸린 아이 세 명을 위한 가발이 나올 정도였다. <br/> <br/>머리를 자르던 날 토마스는 “<span class='quot0'>기분이 정말 좋고 내 머리 덕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span>”고 즐거워했다. 어머니가 트위터에 올린 토마스의 ‘비포 애프터 사진’은 6만 회 이상 리트윗됐다. <br/> <br/>아쉽게도 토마스가 돕고 싶어 했던 키시는 병 때문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키시의 어머니 말라는 “토마스는 용감한 아이다. 우리 키시가 누군가에게 동기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 기쁘다. 지금은 딸아이가 곁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4.txt

제목: 터키항공, 깜짝 특가 프로모션…유럽 왕복 70만원부터  
날짜: 20160919  
기자: 이귀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9134246929  
본문: 유럽을 왕복 70만원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늦깎이 여행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유럽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다. 좀 더 편한 장거리 노선 여행을 원한다면 비즈니스 클래스도 20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br/> <br/>터키항공이 9월 한 달간 유럽항공권 구매 고객을 위해 ‘깜짝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br/> <br/>유럽 각 국의 수도와 주요 여행지는 물론 최근 인기가 높은 발칸 지역의 도시들까지 두루 포함된 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깜짝 놀랄 가격으로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br/> <br/>총 62개 도시에 해당되는 이코노미 클래스 특가 프로모션의 경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세금 포함 최저 70만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br/> <br/>암스테르담, 베를린, 부다페스트, 파리, 로마, 잘츠부르크 등 30여개 인기 유럽 도시들도 최저 75만원으로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br/> <br/>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유럽의 27개 주요 도시의 왕복항공권을 최저 205만원(세금 포함)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으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와 두브로브니크, 체코의 프라하 등 유럽의 인기 여행지를 터키항공의 최고급 서비스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 <br/> <br/>6년 연속 ‘유럽 최고의 항공사’에 선정된 터키항공의 서비스를 알뜰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번 특가 프로모션의 항공권은 9월 30일까지 판매하고 2017년 3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상기 특가 항공권은 출발 일자와 시간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5.txt

제목: 최성수, 암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 마련  
날짜: 20160919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9121303146  
본문: 사진=YT엔터테인먼트 제공 <br/>암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최성수의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 <br/> <br/>오는 10월 1일 오후 5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밧지름 해수욕장에서 520만 전국 암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해 '동행'이라는 주제로 약 1000명을 초청해 '최성수의 섬 콘서트'가 열린다. 최성수는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자주 암환우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국민들께 받은 사랑을 보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br/> <br/>많은 암환우들이 최성수의 노래인 '동행' 'TV를 보면서' '해후' 등을 애창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암환우들의 애환을 그의 노래가 위로해주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성수는 "암환우들이 참으로 힘든 투병생활 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어 꼭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br/> <br/>이날 공연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우주호와 토이토이 클래식 앙상블 연주도 함께한다. 한양대 성악과와 이탈리아 로렌초 페로치 국립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한 우주호는 1998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주역상을 수상했다. <br/> <br/>또한 '타란토 국제 성악 콩쿠르' '아부르초 국제 콩쿠르'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국제 성악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탈리아 로마 베니아미노 질리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13명이 출연할 토이토이 클래식 앙상블은 2004년, 이태리 유학파 성악가들로 결성된 단체로 약 1000여회의 음악회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다문화 가정,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음악을 통한 행복을 나누고 있다. <br/> <br/>또한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좀 더 쉽고 즐거운 무대를 위한 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으며, 한국예술문화회관연합회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선정 및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우수공연단체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br/> <br/>뿐만아니라 최성수가 초청한 세계적인 석학 김의신 전 MD앤더슨 종신교수와 서울대 이왕재 교수도 출연한다. 이날 특별한 이벤트로는 오후 3시부터 사전행사로 개최되는 모바일폰으로 찍은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한다. 덕적도 밧지름 해수욕장 내에 입장하여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5명의 국내사진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여 당일 섬 콘서트가 끝난 후 시상 할 계획이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6.txt

제목: 청주 '타이어 노예', 기초생활수급비도 주인에 빼앗겨  
날짜: 20160918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8145505912  
본문: 40대 지적 장애인을 학대하고 강제노역을 시켜온 사실이 드러나 ‘타이어 노예’ 논란을 불러온 충북 청주의 한 타이어 수리점 업주가 이 장애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매달 적금까지 부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변모(64)씨 부부가 장애인A(42)씨에게 매달 지급되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개인 적금에도 들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으로 매달 20만∼4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br/> <br/>변씨의 부인 이모(64)씨는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5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난 2006년부터 A씨의 수급 통장을 관리해온 이씨는 또 A씨가 받는 수급비를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10년 동안 적금을 붓거나 생활비로 쓴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총 2400여만원에 달한다. <br/> <br/>타이어 가게에서 10년간 일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는 자신 앞으로 나온 수급비 조차 고스란히 빼앗긴 셈이다. <br/> <br/>경찰은 이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br/> <br/>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기초생활수급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 적금에 붓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변씨 부부는 지난 2006년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A씨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기초생활비와 장애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과 함께 A씨를 맡아왔다. 그러나 2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토록하면서 임금도 지급하지않은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2의 축사노예사건’으로 논란을 불렀다. <br/> <br/>A씨는 최근 타이어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로 변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뒤 서울의 한 <br/> <br/>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변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r/> <br/>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7.txt

제목: 명절 가족 모인 집서 암투병 노모·50대 딸 음독 사망  
날짜: 20160918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8113612354  
본문: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집에서 암 투병 중인 노모와 50대 딸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br/> <br/>18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42분쯤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A(74·여)씨와 딸 B(50·여)씨가 독극물 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br/> <br/>모녀는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홀로 살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맏딸인 B씨는 외국에 거주하며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추석 연휴를 맞아 A씨 집에 모인 자녀들은 이날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며 집 리모델링과 A씨의 생활비 등을 의논했다. <br/> <br/>경찰은 “<span class='quot0'>대화 도중 어머니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작은방에 들어가 독극물을 마셨고 B씨가 병을 빼앗아 같이 마셨다</span>”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언쟁 도중 우발적으로 음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r/> <br/>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8.txt

제목: 병원서도 인공지능 필수…진단 사례 중 80%서 유용 정보 제공  
날짜: 20160918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8105828695  
본문: 병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br/> <br/>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가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암 환자 진단 지원에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80%의 사례에서 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특히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10분 정도에 특정해, 적절한 항암제 처방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왓슨은 막대한 데이터 가운데 특징을 찾아내 학습하고, 대답하는 능력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암조직의 암과 관계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석해 입력했다. 왓슨은 2000만권 이상의 의학 논문과 약의 특허정보 등을 참조해, 암 발병과 진행에 관계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이의 후보를 찾아내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항암제 후보를 함께 제시했다. <br/> <br/>이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혈액암 환자 71명의 누계 약 100개의 사례에서 유전자 정보를 입력해 진단 지원에 활용했다. 올해 3월까지 54명을 분석한 결과 30명에서 진단과 증상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시했고, 다른 11명에서도 치료 방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내놓았다. 80% 정도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나머지 20%의 사례에서는 병에 관계하는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환자의 입력정보를 늘리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br/> <br/>지난해 7월에는 패혈증 우려가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잇는 6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원인 유전자 변이를 10분 만에 특정했다. 의사 등이 왓슨의 정보에 기초해 항암제를 변경하자 치료가 효과를 냈고, 2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의사라면 2주가 걸리는 변이의 특정을 10분 만에 해냈다는 게 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br/> <br/>이 연구소의 인간게놈해석센터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암의 흑막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기 위해 의사가 인해전술로 다양한 문헌과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왓슨 같은 기술의 활용이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된다</span>”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59.txt

제목: ‘판타스틱’ 김현주, 터프한 주상욱 모습에 ‘당황’…‘입맞춤’?  
날짜: 20160917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7205448396  
본문: 사진출처=JTBC `판타스틱` 방송화면 캡처‘판타스틱’에서 김현주가 주상욱의 박력넘치는 모습에 당황했다. <br/> <br/>JTBC 금토드라마 ‘판타스틱(극본 이성은 연출 조남국)’에서는 17일 이소혜(김현주 분)과 류해성(주상욱 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br/> <br/>류해성은 이소혜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상황. 이소혜는 그렇다고 마냥 좋을수는 없었다. 자신은 암 선고를 받은 상태. 류해성을 좋아하고 있지만 섣불리 그 마음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소혜는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br/> <br/>이소혜는 “그럼 나하고 잘래?”라고 말하는 등 강수를 띄웠다. 류해성은 순간 당황하며 “지금 여기서?”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br/> <br/>이소혜는 그런 류해성의 반응에 귀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류해성은 진지했다. 류해성은 “나한테 그런 농담 안통해”라며 이소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 <br/> <br/>이후 이들은 점점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소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눈을 감는 등 마음의 준비를 했다. 류해성도 눈을 감고 이소혜와 입을 맞추려던 순간, 오창석(조재윤 분)이 들어와 분위기가 깨지고 말았다. <br/> <br/>이들은 황급히 흩어지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소혜도 민망한 듯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br/> <br/>김현주는 암을 걸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코믹, 슬픔이 어우러진 연기력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br/> <br/>한편 ‘판타스틱’은 주인공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코믹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이같은 신선한 전개는 보는이들도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0.txt

제목: 영화 '아수라' 토론토 국제 영화제 호평 속 기대감 UP  
날짜: 20160917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7152932686  
본문: 사진=CJ엔터테인먼트 <br/>영화 ‘아수라(감독 김성수)'가 제4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을 마친 후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br/> <br/> <br/>특히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13일(현지시각) 상영 이후 토론토 국제영화제 아시아 수석프로그래머 지오바나 풀비(Giovanna Fulvi)가 “‘아수라’는 최고의 숨막히는 범죄영화이자 인간의 나약함과 부정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영화다.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 할 만 하다”라고, 미국 버라이어티(variety)지가 “정우성은 한도경이라는 캐릭터의 파괴된 영혼을 공허한 눈과 세상의 피로에 일그러진 얼굴로 표현했고, 그의 연기는 거대한 존재감을 보여준다”라고 호평했다. <br/> <br/> <br/>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정만식 등의 배우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아수라’는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국내에서도 개봉 전부터 이목을 모았다. <br/> <br/> <br/>'아수라'는 강력계 형사로 출연하는 정우성은 성공을 위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시장 황정민의 뒷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게되고 이러한 악에 계속 노출되는사이에 말기 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핑계로 돈되는 건 뭐든 하는 악인의 길에 접어들게되는 정우성.그의 뒤를 캐고다니는 검사 곽도원과 검찰수사관 정만식은 계속해서 황정민을 쪼이며 불안함이 계속되자 정우성은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는 후배 형사 주지훈을 황정민의 수하로 들여보내게되고 나쁜놈들 사이에서 물고 뜯기는 그런 내용이다. <br/> <br/>특히 김성수감독의 연출과 황정민과 정우성 등 믿고 보는 배우가 주연으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1.txt

제목: '판타스틱' 주상욱, 김현주 향한 직진로맨스 가동  
날짜: 2016091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5160519969  
본문: 사진=에이스토리 제공김현주를 향한 주상욱의 직진 사랑법이 시작됐다. <br/> <br/>JTBC 금토드라마 '판타스틱(극본 이성은, 연출 조남국)' 측은 15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김현주(이소혜 역)와 김태훈(홍준기 역)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주상욱(류해성 역)의 모습이 담긴 현장 스틸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상욱 이 기둥 뒤에 몰래 숨어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김현주와 김태훈을 향해 향해 이글거리는 눈빛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br/> <br/>해당 장면은 극중 류해성이 이소혜(김현주 분)와 홍준기(김태훈 분)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귀여운 질투심을 폭발시키는 장면이다. 현재 해성은 첫사랑인 소혜와 12년 만에 재회한 후 그녀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   <br/> <br/>소혜 역시 해성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지만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쉽사리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혜와 같은 암환자이자 그의 주치의인 준기는 '시한부 메이트'로 소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br/> <br/>지난 4회 방송에서는 해성이 소혜와 둘만의 데이트를 나누면서 지난 12년 동안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고, 준기 역시 소혜에게 사귀자고 돌직구 고백을 해 소혜를 둔 해성과 준기의 신경전과 삼각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br/> <br/>소혜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를 바라보는 준기의 꿀 떨어지는 눈빛과 소혜의 함박미소가 어느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기둥 뒤에서 얼굴만 빼꼼 내민 채 혼자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해성의 모습이 빅재미를 예고하며 보는 이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br/> <br/>함께 공개된 또 다른 사진 속에는 해성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결의에 찬 얼굴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포착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소혜의 행동 하나하나에 휘둘리고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밀당 대신 소혜를 향해 본격적으로 직진하기 시작한 해성이 소혜와 준기의 연인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더불어 동시에 두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소혜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br/> <br/>'판타스틱' 제작관계자는 "두 사람을 향한 주상욱의 미워할 수 없는 질투가 설렘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 폭발하는 주상욱의 직진 사랑법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2.txt

제목: [연구] "무심코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이 불임 만든다"  
날짜: 20160913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3144918957  
본문:   <br/> <br/>습관적으로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다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다. 남성이 장기간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면 성기능이 감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최근 전한 연구 내용이다. <br/> <br/>호주 뉴캐슬대학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파가 남성의 생식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휴대폰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정자들은 그 수가 감소했으며, 심지어 살아남은 정자들도 상당 부분 DNA가 파괴되었음이 관찰됐다. <br/> <br/>그동안 학계에서 휴대폰 등에서 나오는 ‘비이온화 방사선’이 암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비이온화 방사선은 에너지가 크지 않아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휴대폰 전자기파(RF-EMR)가 우리 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br/> <br/>연구팀이 수년간 분석한 27개의 사례 중 대부분에서 휴대폰 전자파는 정자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전자파에 노출된 정자의 8%는 운동성이, 9%는 수명이 줄어들었다. 생식세포가 노화되는 활성산소종(ROS)이 유발되었으며 정자의 DNA도 손상됐다. 정자의 집적도도 떨어졌다. <br/> <br/>연구팀은 “휴대폰을 어디에 넣고 다니는지 등과 같은 작은 습관이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래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경고했다. <br/> <br/>지난 2011년 WHO는 휴대폰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UC버클리공립의대의 조엘 모스코비츠 박사는 “이번 연구는 휴대폰의 위험성을 다시금 깨우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br/> <br/>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3.txt

제목: [사설] 암 생존자 통합 관리할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2214240752  
본문: 정부가 암 진단 이후 5년 동안 생존한 ‘암 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암 생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의료지원을 하는 통합지지센터를 5년 이내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암 생존자는 증가하는데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조치다. <br/> <br/>본지는 지난 7월 ‘암 이후의 삶’ 시리즈를 통해 암 치료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암 생존자들의 실태와 지원 시스템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암 생존자는 2013년 현재 13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암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정부, 의료기관 체계상 암 생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암은 30여년째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흔한 질환이나 여전히 ‘암 환자’에 대해 편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의 소외감을 키웠다. <br/> <br/>정부는 시범 센터를 설치해 암 생존자에게 운동·식이요법, 우울증 및 만성질환 대응 등 의학적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펴고 있지만 참가 인원이 적은 데다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 환자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전국에 지원센터를 두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하면 이번 정부 정책은 늦은 감이 있다. <br/> <br/>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암 생존자 지원 대책이 빠른 시일 내 뿌리를 내리려면 정부가 우선 큰 틀의 관리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범 센터는 물론 민간 병원에서도 준용할 수 있는 통합지지 서비스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 암 생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지원기간,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 병원과의 협업 시스템 등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전체 암 환자의 1%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학교생활의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 이들이 학교, 사회에 복귀하는 데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br/> <br/>암을 겪은 이들은 암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후유증과 재발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들이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고 암 생존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4.txt

제목: ‘137만 암 생존자’ 국가서 체계적 관리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2192013223  
본문: '내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를 관리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지지센터가 운영되고 국립암센터에 전담 조직이 생긴다. 저소득 암환자에게는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가 지원되고 소아 호스피스체계도 마련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암 생존율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뒀던 1·2차 계획과 달리 암 치료 이후 생존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암 생존자들이 암 치료 이후 다양한 후유증과 사회 부적응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일보 7월4일자 1·2·3면 참조> <br/> <br/>정부는 암관리법에 생존자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암센터에 ‘암생존자지원과’(가칭) 같은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br/>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차 암계획(2006∼2015년)에도 암생존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흐지부지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당시 법적 근거와 정책로드맵 등이 없어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span>”고 전했다. <br/> <br/>지역암센터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로 지정·운영된다. 통합지지센터에는 다학제팀을 배치해 의료·사회·정서적인 지원 및 암환자 사례관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3곳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전국 12개 지역암센터를 모두 통합지지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br/> <br/>2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소아청소년 암환자를 위해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추적관리체계도 구축한다. <br/> <br/>하지만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의료가 의료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 등이 빠져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 암전문의는 “<span class='quot1'>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대책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전문인력 양성, 권역별 센터 설립 등이 얼마나 내실있게 이뤄질지가 관건</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폐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로 도입된다. 폐암은 암 사망자 중 비중이 가장 높지만 국가암검진 사업에는 빠져 있다. 정부는 29억원을 들여 내년 55∼74세의 고위험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저선량 CT 검진을 실시한다. 고위험흡연자란 30갑년(매일 한갑씩 30년간 흡연했을 때의 소비량)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br/> <br/>내년도 시범사업에는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며 2018년 국·공립의료기관, 2019년 전체 민간의료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br/> <br/>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저소득층(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기준 8만7000원)은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5대 암 진단을 받으면 급여항목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br/> <br/>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는 본사업으로 추진되고 소아호스피스가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군·구 단위의 암 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암 발생 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해 위험요인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br/> <br/>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span class='quot2'>암 감시부터 연구에 걸쳐 2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암 발생률을 2020년까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10만명당 285.7명→270.3명)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5.txt

제목: [뉴스투데이] "아들을 맡아달라" 10년의 '착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2190952033  
본문: 축사에서 노예처럼 생활한 ‘청주 만득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데 이어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며 학대한 타이어 가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64)·이모(6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r/> <br/>변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일까지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3급 김모(42)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김씨는 2006년 그의 아버지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곳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버지가 2008년 암으로 사망한 뒤 형제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기면서 김씨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누나 2명과 형 1명은 결혼을 한 뒤 부산과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br/>고통의 현장 40대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게 한 60대 부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오후 지적장애인 김모(42)씨가 10년간 일한 타이어 수리점이 텅 비어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업주가 김씨를 때리려고 만든 몽둥이. 이 몽둥이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고 적혀 있다. <br/>청주 청원경찰서 제공김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6㎡ 규모의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변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식당을 오가며 타이어를 나르는 등 온갖 잡일을 해왔다. 변씨는 김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r/> <br/>변씨는 ‘거짓말 정신봉’이나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를 이용,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김씨가 “거짓말 한다”, “<span class='quot0'>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span>”,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br/> <br/> <br/>변씨의 부인 이씨는 김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2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챈 돈은 이씨가 매월 10만원씩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놓거나 생활비로 빼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김씨 기초생활비 일부를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br/> <br/>경찰은 지난 4일 “<span class='quot2'>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는 남성이 주인에게 맞아 팔에 깁스를 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피운다</span>”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서 변씨 부부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변씨 부부는 폭행과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6.txt

제목: 30년간 매일 1갑이상 피운 골초, 내년부터 무료 폐암 검진  
날짜: 201609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2155414310  
본문: 폐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30년간 매일 1갑 정도 담배를 피워온 골초들에 대해 내년부터 폐암 검진이 무료로 시행된다. <br/> <br/>1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br/> <br/>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은 암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br/> <br/>◇병원 기록 등으로 골초 8000명 무료 CT촬용 <br/> <br/>계획안은 사망률이 높은 폐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병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8000명에게 무료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다. <br/> <br/>또 저소득층 암 환자는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200만원까지 지원받고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면 검진 안내를 해준다. <br/> <br/>◇2014년 암으로 7만6611명 사망, 압도적 사망원인 1위  <br/> <br/>암은 1983년 이후 우리나라 제1의 사망원인으로 자리를 굳힌 중증질환이다. <br/> <br/>2014년 한 해 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6611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28.6%를 차지한다. <br/> <br/>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50.9명으로 심장질환(52.4명), 뇌혈관질환(48.2명), 자살(27.3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br/> <br/>연령표준화된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인구 10만명당 285.7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70.3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br/> <br/>◇암환자 5년사이 23.7%증가, 2020년 암발생율 OECD 평균목표  <br/> <br/>암 환자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2008년 18만2129명에서 2013년 22만5343명으로 23.7%나 증가했다. <br/> <br/>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 생존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br/> <br/>이번 계획안은 2020년까지 암 발생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 정책의 4대 기본요소인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를 기본으로 마련됐다. <br/> <br/>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이용률을 2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말기 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체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br/> <br/>저소득층 암환자는 국가 암 검진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br/> <br/>기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확진 판정을 받은 때에만 보건소 신청 작업을 거쳐 최대 3년간 급여항목에 대해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7.txt

제목: 소화기암 중 췌장암이 통증 가장 많이 느낀다  
날짜: 2016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1214419905  
본문: 우리나라 소화기암 환자 중 췌장암 환자가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화기암학회 통증위원회는 최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제26차 세계소화기암학술대회(IASGO)’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등 국내 7개 대학병원 소화기암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통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br/> <br/>대한소화기암학회 통증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6차 세계소화기암학술대회(IASGO)’에서 한국인 소화기암 환자의 통증 양상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br/>연합뉴스대상자의 통증 정도는 국제통증기준(NRS)을 이용해 통증이 없는 0점과 조금이라도 있는 1점으로 구분했다. <br/> <br/>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화기암 환자의 33.7%는 통증이 없었다. 나머지 환자들은 암 종류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조금씩 달랐다. 췌장암 환자들은 82.4%가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담도암 81.3%, 위암 74.4%, 식도암 72.7%, 대장암 60%, 간암 48% 순이었다. <br/> <br/>연구팀은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 가운데 통증이 완화된 경우는 33.1%에 머물렀다</span>”고 분석했다. <br/> <br/>또 소화기암 환자 10명 중 8명(81.5%)은 통증과 함께 식욕부진을 호소했다. 또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31.9%), 변비(30.3%), 구역질 또는 구토(20.2%), 설사(16%) 증상도 나타났다. <br/> <br/>장진석 통증위원회 위원장은 “<span class='quot1'>현재 국내 소화기암은 치료에만 집중한 나머지 환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통증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환자의 통증은 두통, 치통과 다른 수준인데 마약성 진통제 대신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의 효과가 약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대포를 두고도 소총으로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과거 마약성 진통제를 최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2005년 수정해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암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8.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KDB생명, 해지환급금 없는 온라인 암보험 외  
날짜: 2016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11211655222  
본문: KDB생명, 해지환급금 없는 온라인 암보험 <br/> <br/>KDB생명은 온라인 생명보험 최초로 무해지환급형 암보험인 ‘(무)KDB다이렉트 암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해 저렴하다는 다이렉트보험 특유의 장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납입기간 중의 해지환급금을 없애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보장에서 고객료 보험료 부담을 기존의 다이렉트 암보험보다 20%가량 추가로 더 낮췄다는 설명이다. KDB다이렉트 암보험은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1종(갱신형)과 비갱신형 암보험인 2종(순수형), 3종(무해지환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액암 진단 시 1억원, 일반암 진단 시 5000만원, 유방암·남녀생식기암 진단시 1000만원, 소액암 진단시 500만원을 보장한다. <br/> <br/>라이나생명,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오픈 <br/> <br/>라이나생명은 이달부터 온라인·모바일 청약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규 판매채널 공략에 나섰다. 텔레마케팅 방식의 보험 판매를 주로 하던 라이나생명의 다이렉트 채널이 오픈됨에 따라 치아보험, 암보험 등 라이나생명의 대표 보장성 상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취급 상품은 (무)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갱신형), (무)라이나다이렉트암보험(갱신형), (무)라이나다이렉트키즈보험(갱신형)의 3종류로 구성됐다. <br/> <br/>동양생명,만기 이전 매달 ‘웰빙자금’ 돌려줘 <br/> <br/>동양생명은 납입한 보험료를 매달 돌려받을 수 있는 ‘(무)수호천사돌려받는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 수령 가능성이 낮고 만기환급금의 현재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보완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만기 이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즉시 또는 5년·10년·15년을 선택해 거치 후 매달 납입보험료(웰빙자금)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58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2형(3대질환보장형) 가입 시 추가로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을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69.txt

제목: 암 치료에 국내 첫 AI 활용 … IBM·길병원 10월부터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8194813051  
본문: 국내 최초로 암환자 치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료가 도입된다. IBM과 가천대길병원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IBM의 인공지능 ‘왓슨’ 도입 계약을 맺어 오는 10월부터 진료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정식 명칭인 이 장비는 의료진이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r/> <br/>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암환자들에게 개별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br/> <br/>IBM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4만4000건에 달하는 암 종양학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로버트 메르켈(사진) IBM 왓슨 헬스종양학 및 유전학 글로벌 총괄사장은 “<span class='quot0'>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지식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가천대길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를 유방암·폐암·대장암·직장암·위암 등 국내에서 많이 발병하는 주요 암 치료에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0.txt

제목: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 2배로 키운다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8190331108  
본문: 정부가 우리나라를 ‘보건산업 7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액은 2배로 늘리고 일자리는 18만개 더 만든다는 목표다. <br/> <br/>정부는 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확정했다. 최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생산·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를 국가 미래 선도 사업으로 삼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br/> <br/>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한다. 대학과 병원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제약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해 제약사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br/> <br/>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은 2개이지만 2020년에는 17개까지 늘리고 2018년까지 기업 2곳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목표다. <br/> <br/> <br/>또 영상 진단기기 등 국내 10대 유망기술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지원한다. <br/> <br/>최근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력을 높여 고급화하고 뷰티산업과 연계한다. 여행사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연결해 한류·뷰티·의료로 이어지는 연계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2020년에는 ‘글로벌 톱 10’ 화장품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아울러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개인 진료정보와 유전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의 기반을 마련한다. 유전체 정보 등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 3대 진행성 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의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 <br/> <br/>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중증질환 치료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는 2020년 7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카이스트, 경희대 등이 모인 지역에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홍릉 클러스터’를 조성, 이곳이 창업 선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br/> <br/>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9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같은 기간 일자리는 76만개에서 94만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1.txt

제목: 11년만에 사망, 네티즌…“아직까지 장기가 아닌 얼굴 쪽은 힘든 건가”  
날짜: 20160908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8012200866  
본문: MBC 방송화면 캡처 <br/>세계 최초로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프랑스 여성이 수술 11년 만에 사망했다. <br/>프랑스 여성 이자벨 디누아르는 지난 2005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키우던 애완견에게 얼굴을 물어 뜯겼다. <br/>코와 입이 없어지는 등 얼굴 아랫부분이 크게 손상된 이 여성은 뇌사 상태 환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안면 이식 수술을 하게 됐다. <br/>그러나 지난 4월 여성은 이식 거부 반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발병해 수술 11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ehda\*\*\*\*) 의학이 많이 발전 했다고 해도 갈 길은 아직도 멀었음</span>” “<span class='quot0'>(luddi\*\*\*) 그분 수술 이후에 안면이식 수술하는 사람도 늘었다는데 역시 아직까지 장기가 아닌 얼굴 쪽은 힘든 건가</span>” “<span class='quot0'>(abff\*\*\*) 너무 끔찍하다</span>” “(애엄마) 슬픈 현실”등의 반응을 보였다. <br/>이슈팀 ent@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2.txt

제목: 세계 첫 안면이식 여성 수술 후 11년 만에 사망  
날짜: 2016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7210533966  
본문: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프랑스 여성이 수술 11년 만에 사망했다. <br/> <br/>세계 최초로 안면이식 수술을 받은 이자벨 디누아르가 수술 3개월 후인 2006년 2월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수술 1년 후의 모습. <br/>아미앵=AFP연합뉴스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이자벨 디누아르가 지난 4월22일 49세로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누아르는 입술에 이식 거부반응이 일어났고, 이식 거부반응을 없애기 위해 복용한 면역 억제제 때문에 암도 발병했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BBC방송은 이 때문에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암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br/> <br/>디누아르는 2005년 5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자신의 애완견에게 얼굴 아랫부분을 물어뜯겼다. 이 사고로 그는 코와 입술을 잃었고, 잇몸과 아래턱이 모두 드러나는 상해를 당했다. 그해 11월 디누아르는 뇌사 상태 환자의 얼굴을 떼어내 자신의 얼굴에 부분 이식하는 수술을 세계 최초로 받았다. <br/> <br/>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3.txt

제목: 암치료 햇빛 부작용 없앤 온도감응 ‘광감작제’ 개발  
날짜: 2016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7210209135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나건 가톨릭대 교수, 김동현 미국 노스웨스턴의대 교수, 이병두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박사 등으로 이뤄진 국제 공동연구팀이 특정 온도가 돼야 활성산소를 뿜는 ‘스마트 광감작제’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화학물질 일종인 광감작제는 자궁경부암, 췌장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데 활성산소를 뿜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광감작제가 태양 빛에 반응해 부기와 통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한 달 정도 암실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발된 스마트 광감작제는 기존 빛 치료제에 의약품 원료인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를 붙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인체 체온 정도에서는 빛을 받아도 반응이 없지만 45도가 되면 활성산소를 뿜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아도 부작용 염려가 없다. <br/> <br/>연구를 진행한 나건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오 온도 센서 기반 기술에도 이번 연구 성과를 적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미 연구진 간 다학제적 공동연구 성공사례로서도 의의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4.txt

제목: 우정사업본부, 행복나눔 ‘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 개최  
날짜: 20160907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7163656100  
본문: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우체국 행복나눔 소아암어린이 가족캠프`가 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과 탤런트 고아라, 소아암어린이들이 사랑의 하트를 표현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170여명이 참여한 우체국 행복나눔‘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행사를 개최했다. <br/> <br/>이번 행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암 치료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이 가족캠프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소아암 어린이 가족캠프에 참가한 170여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은 놀이기구 체험 및 통나무집 숙박, 우체국 모델 고아라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br/> <br/>우정사업본부는 2000년부터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다. 치료비 지원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우체국 한사랑의집’쉼터 운영,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8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약 3억원을 지원했다. <br/> <br/>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span class='quot0'>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은 암 치료과정에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span>”면서“<span class='quot0'>앞으로도 소아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br/>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5.txt

제목: [단독]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합니다”복지부 술병 과음 경고문구 ‘황당’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5193355911  
본문: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br/> <br/>보건복지부가 21년 만에 술병에 들어가는 음주 경고문구를 바꿨지만 어법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가 시행됐다. 새로운 경고문구는 3가지로, 주류업체는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술병에 넣어야 한다. <br/> <br/>그러나 한 문구에서 심각한 어법 오류가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로,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됐다. 이어지는 서술어는 ‘저해합니다’여서 해당 문장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합니다’로 읽힌다.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기 위해 만든 문구가 ‘임신 중 술을 마시는 것이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막는다’는 황당한 뜻이 되는 셈이다. <br/> <br/>이 문구는 복지부가 지난 7월 행정예고한 경고 문구 초안에는 없었다. 초안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였지만 의견 수렴과정에서 ‘임신 중 음주보다 과음에 대한 경고가 더 우선’이란 의견이 나오자 문장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서술어가 생략됐다. <br/> <br/>복지부는 문구의 오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문법이 틀린 것은 알았지만 문구 크기 등이 정해져 있어 경고 내용을 다 넣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전문가와 상의했고,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에서도 다 보고 결정했다. 교과서도 아니고 병에 들어가는 문구이기 때문에 (문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인 만큼 문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span class='quot0'>그러면 병에 어떻게 해당 내용을 다 집어넣느냐</span>”고 반문했다. <br/> <br/>이에 대해 리의도 전 한글학회 이사는 “글자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문구 면적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분량 때문에 문법을 파괴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정부 이름으로 발표된 문구인 만큼 국민이 저 문법이 맞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언어표현과 문자 표기에 대해 국립국어원 등에서 좀 더 명확히 심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6.txt

제목: 김현주 클래스 보여준 '판타스틱' 명장면은?  
날짜: 2016090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5152514233  
본문:   <br/> <br/> <br/>김현주가 주상욱과의 짜릿한 로맨스로 안방극장을 물들였다. 김현주의 열연이 돋보이는 베스트 명장면을 꼽아봤다. <br/> <br/>JTBC 금토드라마 '판타스틱'(극본 이성은, 연출 조남국)은 '오늘만 사는' 시한부 드라마 작가 이소혜(김현주 분)와 발연기 장인 톱스타 류해성 (주상욱 분)의 짜릿한 기한 한정 연애담’을 그린 예측불가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br/> <br/>첫회부터 김현주를 필두로, 주상욱, 박시연, 지수 등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과 열연으로 감동과 웃음을 오가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쏟아냈다. 2회 만에 시청자를 사로잡은 명장면을 무엇일까. <br/>  <br/># 김현주-주상욱 '썸보다 빠른 광속키스' <br/> <br/>12년 전 오해로 인해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으르렁 대는 핵직구 작가 이소혜(김현주 분)와 류해성은 놀랍게도 2회 만에 격렬한 키스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신파 없고 가식 없고 남은 시간도 없는 ‘오늘만 사는’예측불허 3無 로맨스를 펼쳐나갈 두 사람답게 썸보다 빠른 키스로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br/> <br/>류해성이 키스할 듯 다가와 이소혜를 깜짝 놀라게 한 뒤 대본 속 키스신에 설렘이 없다고 훈계를 시작하자 이에 발끈한 이소혜는 류해성에게 진짜 키스를 하고 만 것. 기존 로코에서는 본 적 없는 ‘로코로코 멜로멜로’한 서프라이즈 키스신이 펼쳐지면서 12년 전 인연으로 엮인 두 사람의 짜릿한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를 고조시켰다. <br/>  <br/># 시한부 선고에도 남다른 감정 표현, 말이 필요없는 ‘갓현주’의 클래스 <br/> <br/>극중 이소혜는 1회 만에 유방암 판정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이를 표현하는 김현주의 연기는 기존 작품 속 시한부 환자들과는 달랐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암 선고를 받은 이소혜가 한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은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갔다. 김현주는 “<span class='quot0'>시한부가 어떤 기분일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와닿지 않는 느낌이 맞을 것 같다</span>”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r/> <br/>특히 샤워를 하던 이소혜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눈물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 암세포가 있다는 거지? 그래도 참 이쁘다”라고 읖조리던 장면은 오열 없이도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깊이 있는 감정선을 표현해낸 ‘갓현주’ 김현주의 연기가 돋보이는 명장면이었다. <br/>  <br/># 김현주-박시연, 가슴 뭉클한 ‘워맨스’ 공감저격 <br/> <br/>학창시절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었던 이소혜와 백설(박시연 분)은 녹록치 않은 현실을 보내고 있다. 이소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백설은 로펌 대표의 사모지만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십 수 년 만에 재회한 두 람은 아직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지는 못한 상태지만, 함께 하면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 식사를 하다 시비를 걸어오는 남성들을 제대로 제압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질주하는 장면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사이다와 걸크러쉬를 선사, 가슴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br/>  <br/>#‘시한부 메이트’ 김현주-김태훈, 가슴 따뜻한 위로 ‘힐링 메이트’ 등극 <br/> <br/>이소혜는 주치의 홍준기(김태훈 분) 역시 암 투병중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다. 두 사람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암과 함께 5년 째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다는 홍준기는 “시한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오늘 하루, 지금.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라고 진솔하게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판타스틱’을 관통하는 메시지이자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위로였다. <br/>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7.txt

제목: 영국 NHS "뚱뚱하거나 담배 피면 건강보험서 불이익"  
날짜: 20160904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4165250081  
본문: "뚱뚱하거나 담배 피는 환자는 외과수술 순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br/> <br/>영국의 지역 의료 당국이 신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담배를 피우는 환자는 비응급 수술이 아닌 이상 수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공공의료서비스(NHS)의 요크 지역위원회(CCG)는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한정된 자원(인력과 예산)을 감안해 흡연자나 비만 환자의 경우 시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 대기 순번에서 뒤로 배치하겠다"면서 "담배를 끊거나 살을 빼지 않는다면 최대 1년까지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r/> <br/>NHS의 이같은 방침은 비단 요크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다. 루턴 등 잉글랜드 중남동부와 하트퍼드셔 등 남동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술 제한기준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 왕립외과의협회(RCS)는 올해 초 "국민의료보험 가입자의 3분의 1 정도가 NHS의 이같은 방침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 <br/>우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격인 NHS가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한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NHS는 늘어나는 수술 수요에 비해 빠듯한 예산과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을 감안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같은 선별적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NHS 대변인은 "암수술이나 심장질환, 신경질환 등 외과수술이 시급한 환자의 경우 몸무게나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적절한 자가치료 없이 병원에만 기대려는 사람들 인식을 바꾸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하지만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NHS의 한해 예산은 24억5000파운드(약 3조6500억원)"라며 "환자의 건강보다 경비 절감을 우선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영국 노동당의 다이앤 애벗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혜택을 몸무게나 라이프스타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가 아니다"며 "계속해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한 보수당 정부가 이번 위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8.txt

제목: 몸 곧게 하고 마음 편안하게… 환절기엔 심신을 잘 다스려야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2203355617  
본문: 가을이다. 지루하기만 하던 여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던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후텁지근한 날씨 탓으로 미뤄 두었던 많은 일이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가을이면 수십조(兆)개의 세포가 팝콘 튀듯 하고 의욕의 피가 돌며 근골은 아우성친다. 오늘은 무슨 일을 보태고 무엇을 뺄 것인가. 줄 서 줄 서! <br/> <br/>그런데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선명하듯이 일장(一長)이 있으면 일단(一短)이 따르게 마련이다. 가을의 의욕과 반가움 뒤에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도 있다. 이 땅엔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지나 상쾌한 가을이 오니 다소 안심이지만, 지구촌 다른 곳에선 우기를 맞아 모기와 바이러스에 의한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해에는 메르스(MERS) 공포로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많은 행사가 취소되기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낯선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와 구태의연한 콜레라(cholera)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br/> <br/>브라질 등 남미에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던 지카 바이러스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우리 국민의 방문이 잦은 지역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사라진 줄로 알았던 콜레라 공포가 15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콜레라 환자 두 명이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이들은 남해안에서 회를 먹고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병 원인을 해수 오염에 두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콜레라는 잘 치료하면 사망률은 낮지만 내버려두면 사망률이 50%가 넘는 무서운 질병이다. <br/> <br/>평생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이 병원과 세무서이다. 그만큼 무서워하면서도 정면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질병과 세금 때문이다. <br/> <br/>‘질병(疾病)’이란 무슨 뜻일까. 질병과 관련한 여러 말의 의미를 살펴보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 인생 후반부에는 몸에 해롭다면 고기라도 피하고, 건강에 좋다 하면 쓰디쓴 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br/> <br/>질병은 ‘질(疾)’과 ‘병(病)’이란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지만, 두 글자의 유래는 확연히 다르다. ‘병 질(疾)’ 자는 글자 안에 있는 ‘화살 시(矢)’로 보아 ‘화살이 몸 밖에서 안으로 꽂히듯 갑자기 일어나는 외적 질병’을 뜻하고, ‘병 병(病)’ 자는 ‘남녘 병(丙)’으로 보아 ‘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발생한 내적 질병’을 가리킨다. 병(丙) 자는 땅 속에서 슬며시 싹이 돋아나는 모양이므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의 질(疾) 자는 나중에 ‘화살처럼 빠르다’는 의미가 추가되어 질병도 아니면서 질주(疾走), 질풍(疾風)과 같은 단어가 생겨났다. <br/> <br/>질병에 해당하는 모든 글자는 질(疾)과 병(病)에서처럼 ‘앓을 녁(?)’이 들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역(?) 자 안에 쓰인 글자를 보면 단번에 무슨 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 자의 왼쪽 부분은 ‘평상 장(?)’의 생략형으로 ‘침대’를 뜻하고, 윗부분은 침대 위에 드러누운 ‘환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환자 밑에 놓인 글자를 보면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다. <br/> <br/>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아마도 ‘암(癌)’일 것이다. 이 글자를 보면 환자가 산 위에 있어야 할 바위(?)를 몸 안에 안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암은 덩어리가 작을 때 미리 박살내야지 때를 놓치면 삶이 암담할 수밖에 없다. <br/> <br/>고약한 말이지만 ‘지랄염병’이란 말이 있다. 지랄은 간질(癎疾)을, 염병(染病)은 장티푸스를 가리킨다. ‘간질 간(癎)’ 자를 보면 이 환자는 시공간(間)을 구분하지 못하고 발작하는 질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고, 염병의 ‘물들일 염(染)’ 자를 보면 이 환자는 감염(感染)에 의한 전염병(傳染病)에 걸렸다는 걸 금세 판단할 수 있다. ‘지랄’은 순우리말로 손짓, 발짓이라고 할 때의 동작을 뜻하는 ‘짓’과 앓다(痛)의 어근인 ‘알’이 합쳐져 ‘짓알’이 되었고, 이 말이 다시 ‘지랄’로 변화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말 지랄은 ‘하는 짓이 덧난 병’의 뜻으로 볼 수 있겠다. <br/> <br/>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을 일러 고질병(痼疾病), 줄여서 고질이라 하는데, ‘고질 고(痼)’ 자에는 ‘굳을 고(固)’가 들어 있으니 이 병은 병이 굳어 난치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아름다운 자연에 미쳐버린 연하고질(煙霞痼疾)은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그리고 수집벽(蒐集癖)·도벽(盜癖)도 병의 일종인데, 이 병은 ‘버릇 벽(癖)’ 자가 보여주듯이 피할(?) 수 없는 병에 해당한다. <br/> <br/>구제역(口蹄疫)은 소나 돼지 따위의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돌림병이다. ‘입 구(口)’와 ‘발굽 제(蹄)’로 보아 입과 발굽에 생기는 역병의 일종인데, ‘돌림병 역(疫)’ 자를 보면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급히 물리쳐야 할 병임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돌림병은 소독, 예방, 주사 등을 통한 방역(防疫)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몸 안에 균이 침입해도 병에 걸리지 않을 만한 저항력이 생겼다면 면역(免疫)이 되었다고 한다. <br/> <br/>노인성 질환인 치매(癡?)는 ‘어리석을 치(癡)’ 자로 볼 때 의문(疑問)이 사라진 병이다. 치(癡)대신에 치(痴) 자를 쓰기도 하는데, 매사에 궁금증이 없으니 이는 정신병에 해당한다. <br/> <br/>모든 병은 병이 나기 전에 먼저 어떤 증세(症勢)가 나타난다. 그 증세를 미리 알기 위해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증(症)에 ‘바를 정(正)’ 자를 쓴 것을 보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면 정상(正常)이 아니므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br/> <br/>병은 때가 되면 통증(痛症)을 동반한다. ‘아플 통(痛)’의 약은 ‘통할 통(通)’, 곧 소통(疏通)이다. 산모가 분만 전에 겪는 산통(産痛)을 ‘진통(陣痛)’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아픔을 진압하고자 하는 진통(鎭痛)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출산의 아픔도 해산이라는 소통 후에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br/> <br/>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感氣)도 조심할 일이다. 감기는 냉기(冷氣)에 감염되었다는 뜻이다. 감기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은 될 수 있다. 감기를 중국어로는 깐마오(感冒·g?nmao), 일본어로는 가제(風邪·かぜ)라 한다. 우리와 달리 쓰는 걸 보면 감기란 말은 우리 고유의 한자어로 보인다. <br/> <br/>그렇다면 질병 없는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건강(健康)’이란 두 글자에 해답이 있다. ‘튼튼할 건(健)’ 자는 ‘붓(聿)처럼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다닐 것’을, ‘편안할 강(康)’ 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비롯한다. 강(康) 자의 갑골문을 보면 알곡을 훑으며 탈곡하는 모양이었다. 먹을 게 있어야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건강론이다. <br/> <br/>갑자기 눈앞이 침침하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피곤(疲困)이 엄습해 오는가 보다. ‘지칠 피(疲)’ 자를 보면 피곤은 피부(皮膚)에서 온다. 이쯤 하고 푹 자자. <br/> <br/>권상호 서예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79.txt

제목: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 일으킵니다’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2202328004  
본문: 3일부터 술병에 새로운 음주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21년 만에 변경된 경고 문구는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br/> <br/>보건복지부는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br/> <br/>복지부에 따르면 변경된 경고 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3가지다. 주류업체는 3가지 문구 중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br/> <br/>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0.txt

제목: “생명과학 연구 3000억 지원… 인류 삶 향상 기대”  
날짜: 2016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1221645366  
본문: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기부천사’로 통하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명과학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 회장의 과학 분야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서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경배과학재단 설립 발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서경배과학재단에 3000억원 규모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6월3일 종가기준 주식 평가액이 10조2602억원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주식 부자 2위에 오른 바 있다. <br/> <br/>‘서경배과학재단’은 서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한 첫 공익재단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활동을 하는 국내 신진 과학자를 발굴해 그들의 연구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단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 신진학자 3∼5명을 선발하고 각 과제당 5년 기준 최대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중간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r/> <br/>과학재단 이사장을 맡은 서 회장은 “<span class='quot0'>뛰어난 역량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독창적인 연구영역을 개척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신진과학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서경배과학재단’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br/>연합뉴스국내 1위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학술·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아모레퍼시픽재단’과 저소득층 복지활동을 주로 하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 등을 운영해 왔다. <br/> <br/>이 가운데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서 회장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암 치료과정에서 외모변화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 노하우를 전수한다. 암 투병 과정에서 겪는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서 회장은 국내 최초로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도 설립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재단을 통해 유방건강이라는 주제로 ‘핑크 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핑크 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핑크 리본 사랑마라톤’이 있다. 이 행사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30여만명이 참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통해 총 29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br/> <br/>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지속가능 경영활동을 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더 아리따운 세상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서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span class='quot0'>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와의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는 동행의 길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1.txt

제목: 장기기증 앞둔 시한부 새신랑  
날짜: 2016090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1142631378  
본문: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은 그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br/> <br/>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크리스 포드(26)와 그의 여자친구 니콜 위즈머(22)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br/> <br/>크리스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까진 평범한 커플과 다를 게 없었던 두 사람. <br/>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크리스가 암에 걸리게 된 후 결혼을 잠시 미루게 됐다. <br/> <br/>병원을 찾은 크리스는 의사로부터 "생존확률이 80%를 넘는다"는 소릴 듣고 치료를 이어갔지만 급속도로 퍼진 암은 짧은 시간을 주고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 <br/> <br/>이에 크리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희소병 환자들에게 장기기증을 결심하고, 니콜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와의 결혼을 계획보다 앞당겨 신부가 됐다. <br/>병이 깊어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크리스는 수화로 대화할 정도지만 그녀를 볼 때면 환한 미소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크리스는 "그녀의 마음은 순수하다"고 수화로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뉴스저널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2.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한입 두입 베어물면, 소록소록 잠이 솔솔∼  
날짜: 2016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901140502223  
본문: 요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옥수수는 7~9월이 제철이다. 달짝지근하고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여름철 대표 간식이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까지 차로 끓여 먹을 수 있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쪄서 먹거나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br/> <br/>옥수수는 단백질, 지질, 당질, 섬유소, 무기질, 비타민 등의 성분을 갖고 있어 피부 건조와 노화 예방, 피부 습진 등의 저항력 증진에 좋다. 옥수수의 섬유질은 장을 자극해 변비를 개선한다.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해 패주와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눈의 피로를 없애고 초조함을 가라앉힐 수 있다.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돼 여름을 타느라 나타나는 증세인 식욕부진, 나른함, 무기력에 효과적이다. <br/> <br/>특히 옥수수는 트립파톤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잠을 편하게 자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저녁식사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옥수수 죽을 먹으면 잠을 푹 잘 수 있다. 단맛이 나는 옥수수의 일종인 스위트콘을 찌거나 삶아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해 심장병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옥수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다. 다만 필수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이 부족해 옥수수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다.  <br/> <br/>유유나 달걀 등의 적절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주로 옥수수수염을 이용한다. ‘방약합편’이라는 국내 한의서를 보면 “소변이 찔끔거리며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뇨제로 옥수수수염이 효과적”이라고 기술돼 있을 만큼 옥수수수염은 이뇨제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수염은 지혈·이뇨작용과 더불어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잘 말린 옥수수수염을 5~10g씩 달여 마시면 급성 위염, 신장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임산부의 부종에도 좋다.  <br/>◆옥수수 통째로 버터구이 <br/>-재료: 옥수수 1개, 버터 <br/>-만드는 법 <br/>① 옥수수를 알맞게 삶는다. <br/>② 익은 옥수수에 버터를 골고루 바르고 호일로 감싼다. <br/>③ 오븐을 160도로 예열해 굽거나 전자렌지에 돌린다. <br/>④ 버터는 옥수수 1개에 1큰술 정도가 적당하다. <br/>신선한 옥수수는 껍질이 진하고 선명한 녹색이며 알맹이가 촘촘하고 수염이 갈색빛이 난다. 껍질을 벗겨 삶은 뒤 냉동실에 보관하면 옥수수의 알갱이가 더 차져져 맛있게 먹을 수 있다. <br/>◆옥수수 파프리카 스터프트 <br/>-재료 :파프리카 2개, 삶은 옥수수알 5큰술, 양파 1개, 토마토 반개, 파르메산 치즈가루 1큰술, 모짜렐라 치즈 1큰술, 올리브유, 다진 파슬리 적당량 <br/>-만드는 법 <br/>① 파프리카는 반 잘라 속씨를 제거하고 씻는다. <br/>② 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 껍질을 벗기고 주사위 모양으로 썬다. <br/>③ ①의 파프리카에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양파, 옥수수, 파르메산 치즈가루, 모차렐라 치즈 순서로 얹는다. <br/>④ ③을 오븐에 넣고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운 다음 다진 파슬리를 뿌린다.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br/>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3.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줄기세포와 IT의 만남  
날짜: 20160831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1210541936  
본문: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나 퇴행성 난치질환의 경우 유일한 희망은 줄기세포 치료이다. 이 때문에 줄기세포는 의생명과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미래 어젠다(의제)이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총 317건의 상업적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가 등록된 바 있다. 현재 최종 승인된 줄기세포치료제는 국내 승인 4개, 캐나다 승인 1개, 유럽승인 1개이다. 국내 승인이 많은 이유는 심사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아직 없다. 2014년 일본에서는 난치성 안구질환자에게 본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으나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발견돼 중단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황반변성 환자에게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망막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를 내년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이며, 임상적용이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br/> <br/>줄기세포란 지속적인 자가복제 능력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세포를 일컫는다. 모든 생명의 시초를 관장하며 성체가 된 이후에도 조직 재생 등을 위해 일부가 남아있다. 줄기세포는 태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분화된 세포를 역분화시켜 얻을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나뉜다. 줄기세포 연구는 1981년 영국의 마틴 에번스가 쥐의 태아 줄기세포를 발견한 것을 시초로 1998년 미국의 제임스 톰슨과 존 기어하트가 각각 인간의 태아 줄기세포 추출과 배양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는 분화된 일반세포에 네 가지 특정 단백질을 주입해 줄기세포로의 역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태아로부터 얻어지는 태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 성체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가 그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의 세포로만 분열되기 때문에 암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얻을 수 있는 수가 적고 실험실 배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유도과정에서 암 유발인자를 이용하는 위험성과 태아줄기세포에 비해 비교적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핵치환 기술을 이용한 태아줄기세포 연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유전자가위 등을 이용해 교정함으로써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지금껏 줄기세포 연구의 괄목할 만한 여러 연구 성과에도 분화·역분화의 낮은 효율과 제어기술 부재, 배양의 어려움, 암 유발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줄기세포 치료의 궁극적인 한계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줄기세포의 분화와 역분화 과정을 지배하는 분자 조절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착오를 통한 실험적 시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과학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금껏 축적된 줄기세포 내외 분자 조절 작용에 대한 발견과 지식을 컴퓨터모델을 통해 집대성하고 복잡계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를 분석한 뒤 제어공학 기술을 접목해 핵심 조절분자를 발굴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줄기세포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br/> <br/>줄기세포 내 다양한 분자들은 생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조절관계에 놓여 있어 모든 분자들은 서로를 구속하며 다이내믹한 변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특정 분자를 조절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보상기작 등으로 인해 결국 예상과 다른 세포 반응을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숨겨진 동작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제어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줄기세포에 담긴 생명의 비밀에 인류는 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4.txt

제목: 경남경찰 고속도 암행순찰차 배치  
날짜: 20160831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1140215772  
본문: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다음달 6일부터 남해고속도로 등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단속활동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br/> <br/>암행순찰차 제도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찰 로고가 크게 새겨진 경찰차가 없을 때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br/> <br/>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잘 구별되지 않는 암행순찰차는 법규 위반 차량이 있으면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뒤쫓는다. <br/> <br/>암행순찰차에 타는 경찰은 근무복을 착용, 단속 시 경찰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활동한다. <br/> <br/>주요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이나 갓길 주행,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급제동 등이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5.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학교 그만두고 MIT 합격한 소녀…비결은?  
날짜: 2016083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1140055288  
본문: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않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인도 소녀가 화제다. 홈스쿨링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엄마가 있었던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포기하지 않은 소녀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br/> <br/>지난 30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외신들에 따르면 뭄바이에 사는 말비카 라지(17)가 MIT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그는 MIT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생각이다. <br/> <br/>말비카의 합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아닌,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 결과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br/> <br/> <br/> <br/>말비카는 7학년(12세)에 학교를 그만뒀다. 친구들보다 무려 4년이나 뒤처졌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말비카는 평소 관심 있던 컴퓨터를 비롯해 여러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열정 덕분이었는지 몰라도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탐구할 수 있었다. <br/> <br/>말비카는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에서 세 차례 입상했다. 두 번은 은메달을 땄으며, 한 번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MIT는 말비카의 열정을 인정, 그에게 장학금까지 수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r/> <br/>MIT에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수학, 물리 그리고 컴퓨터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사람에 한해 입학을 허가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말비카는 인도 공과대학(IIT)에 갈 생각이었으나, 12학년 시험을 치르지 않은 탓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br/> <br/>IIT는 인도에서 공학과 기술 교육 등을 담당한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현지에 캠퍼스 7곳을 운영 중이다. 맥킨지 컨설팅의 대표였던 라자 굽타(Rajat Gupta)회장, 씨티 그룹 수석 부회장이었던 빅터 메네제스,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 등이 IIT 출신이다. <br/> <br/>인도의 한 교육 전문가는 “<span class='quot0'>말비카의 MIT 합격은 그가 이룬 결과가 대단하다는 것도 뜻하지만, MIT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고 잠재력이 충만한 인재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민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br/>말비카가 학교를 그만둔 건 엄마의 뜻이었다. <br/> <br/>말비카의 엄마 수프리야는 과거 NGO(비정부단체)에서 일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 딸의 인생을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br/> <br/>수프리야는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라며 “말비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학교를 그만두게 한 이유는 인생의 행복이 단순한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br/> <br/>한때 암 환자들을 돌봤던 수프리야는 말비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채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봐왔다. 그는 말비카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줌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자고 결정했다. 그렇게 말비카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탐구해 MIT 입학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br/> <br/>수프리야는 “인도에는 홈스쿨링 개념이 없다”며 “남편마저도 말비카가 학교 그만두는 걸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다”며 “일을 그만두고, 딸을 위해 내가 직접 학습 커리큘럼을 짰다”고 덧붙였다. <br/> <br/>의심스러웠지만 말비카는 해냈다. 오히려 더 행복해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파고들었고, 3년 연속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했다. <br/> <br/>수프리야는 “딸을 만나는 부모들은 MIT에 어떻게 들어갔냐고 수없이 물어본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코 MIT를 목표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아이가 뭘 원하고 좋아하는지 이해하면 된다는 조언을 건넨다”고 덧붙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인도 NDTV·IOI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6.txt

제목: 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산재 아니다”  
날짜: 2016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0191234327  
본문: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br/> <br/>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r/> <br/>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1, 2심은 원고 중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선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상고를 포기해 2심 승소가 확정됐다.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br/> <br/>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7.txt

제목: 암행순찰차 전남에도 뜬다  
날짜: 20160830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30111530996  
본문: 암행 순찰차가(사진)가 전남에도 뜬다. <br/> <br/>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를 타고 순찰하다 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적발되면 숨겨진 사이렌과 경광등이 켜지면서 단속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br/> <br/>전남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를 누비다 위법 운전자를 발견하면 전·후방에서 비노출로 증거자료를 확보 후 단속하는 일명 ‘암행순찰차’를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9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br/> <br/>암행순찰차는 경찰차임을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암행순찰차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등에서 시범 운행한 바 있다. <br/> <br/>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구간의 사망사고율이 전년에 비해 70％ 감소했다. 암행순찰차가 운행되지 않은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전년대비 사망사고가 오히려 20％가 늘었다. <br/> <br/>이처럼 암행순찰차가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제5지구대)에도 2대 배정됐다. <br/> <br/>전남청은 고속도로 순찰대 제5지구대에 순찰요원 2명을 추가 증원하고 암행순찰차 전담요원을 편성, 전남도내 고속도로에서 9월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br/> <br/>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8.txt

제목: 中 말기암 남성, 자전거로 대륙여행  
날짜: 2016082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8093450951  
본문: 말기 골연부종양 환자 장펑(42)이 병의 고통과 싸워가며 자전거로 중국 티베트 여행을 떠났다. <br/> <br/>8월 초 중국 청두를 출발한 장펑은 찌는 듯한 더위를 참아가며 쓰촨성의 야안, 캉딩, 리탕을 거쳐 티베트 고원 남부의 라싸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성도상보가 보도했다. <br/> <br/>그의 가방에는 다른 여행자와는 달리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 등 약이 들어 있다. <br/> <br/>그의 고통을 보다 못한 친구는 “그의 여행 계획을 듣고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그의 보호자를 자처해 여행에 동참했다.  <br/> <br/>지난 5월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들은 장펑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 <br/> <br/>그의 가족은 "아들의 몸 상태가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장펑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부모님에게 손자를 안겨 드리지 못한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성도상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89.txt

제목: 운동으로 암과 싸우는 집념의 남성…'지지 않는다'  
날짜: 2016082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8080339834  
본문: 병원이 아닌 체육관과 자연 속에서 암과 맞서 싸우는 중국의 한 50대 남성이 화제라고 중국 상하이스트와 왕이신문 등 외신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중국 구이저우(貴州) 성 구이양(貴陽) 시에 사는 우(59)씨는 지난 1996년 방광암 선고를 받았다. 6년 전에는 폐암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동안 17차례에 걸쳐 수술대에 올랐던 우씨에게 의료진은 매번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씨에게는 초등학생 딸이 있다. <br/> <br/> <br/> <br/>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우씨는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 아까웠다. 대신 우씨는 체육관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매일 체육관에서 권투 등으로 몸을 단련해오고 있다. <br/> <br/>항암치료를 받다 보니 자연스레 부작용이 나타났다. 머리카락도 빠졌고, 면역력도 약해졌다. 남들이 쉽게 떨치는 감기에도 쩔쩔맸다. 우씨는 어느새 자기를 점점 잃어만 갔다. <br/> <br/>우씨는 암을 확실히 이길 방법을 모색했다. 애완견을 품에 안고, 텐트를 짊어진 채 무작정 산으로 떠났다. 광활한 자연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람이 속삭이고, 새가 지저귀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산과 들에서 우씨는 애완견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때로는 자기가 호랑이나 사자가 된 것 마냥 ‘으르렁’ 짖기도 했다. 모두 암을 이기겠다는 우씨의 의지였다. <br/> <br/> <br/> <br/>마침내 우씨는 화학치료에서 벗어났다. 완치는 아니었다. 단지 자연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우씨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새로운 종양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결국 방광 내 혈관이 막힌 우씨는 병원에 실려 가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br/> <br/>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했던 우씨는 매일 두 시간씩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한다.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짐작 못할 정도다. 주말에는 자전거도 탄다. <br/> <br/>우씨는 “암환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며 “수술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살겠다는 일념으로 음식을 닥치는 대로 입에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br/> <br/> <br/> <br/>우씨는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를 길에서 만나기도 했다. 의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죽을 거라 생각했던 우씨가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자 “아직 살아계셨던 말입니까?”라고 묻기까지 했다. <br/> <br/>우씨는 2008년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한다. <br/> <br/>어느날 공원에 간 우씨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냈는데, “추운 날에 뭐하시는 거냐”는 공원 관리인의 질문에 “생명을 구하는 중입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쌓이는 눈에 부러질 것 같은 가지를 가진 나무가 자기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다. <br/> <br/>그렇게 우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암과 맞서싸우고 있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0.txt

제목: 유방암 40대女, 치료 위해 병원 가던 길 폭행당해 사망  
날짜: 20160827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7105510879  
본문: 유방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던 중 괴한에게 폭행당해 숨진 여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br/> <br/>26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9시30분쯤 미국 일리노이주 시온의 '미국 암치료센터' 근처에서 새년 빈셀(46)이 괴한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br/> <br/>빈셀은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들이닥친 괴한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했고, 결국 숨졌다.  <br/> <br/>빈셀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유방암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br/>  <br/>경찰은 빈셀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를 수색 중이다. 빈셀이 다니던 암치료센터는 2만5000달러(약 2780만원)를 현상금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1.txt

제목: [사설] 롯데 2인자 사망, 검찰 수사 흔들릴 이유 없다  
날짜: 2016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6212455574  
본문: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이 부회장은 어제 오전 경기도 양평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소환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서다. 검찰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br/> <br/>이 부회장은 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 인사다. 그가 맡은 정책본부장은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검찰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롯데 경영 비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핵심 요직이다. 그는 그룹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을 직접 돕고, 90여개 그룹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해왔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거쳐 아들 신 회장까지 20년 넘게 오너 일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점으로 미뤄 그의 죽음은 신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유서에서 “<span class='quot0'>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span>”,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고 적은 대목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br/> <br/>지난해 7월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롯데 사태는 그동안 국민에게 재벌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에 이르게 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롯데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상속·증여세 60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교묘하게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증여세와 양도세를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매년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 의혹,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에도 휘말린 상태다.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br/> <br/>수사 대상자가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검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저인망식 수사나 무리한 강압 수사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 조사를 앞둔 인사가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일이 아니다. <br/> <br/>검찰 수사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찰은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에 이어 이 부회장 등을 조사한 후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안타깝지만 비리 수사는 별개다. 이 부회장의 죽음이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검찰은 심기일전의 각오로 기업 부패의 암 덩이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2.txt

제목: [데스크의눈] GMO, 재앙인가 축복인가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4224201691  
본문: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 작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GMO 반대 측은 농업과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한다. <br/> <br/>벼, 밀과 함께 인류의 3대 주식 곡물인 옥수수의 조상 ‘테오신테’(teosinte)는 먹을 수 없는 잡초였다. 인류가 수천년 전 이 야생식물을 채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이어 영양분이나 다수확성 등 인간에게 좋은 ‘형질’을 가질 수 있도록 육종(育種)해 오늘의 옥수수가 됐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다. 이렇게 인류는 자연계에서 우수 품종을 선발하고 교배를 거쳐 보다 나은 형질을 가진 작물을 확보한다. 전통 육종은 필요한 유전자 하나를 얻기 위해 교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유전자가 도입된다. 이런 품종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두 개 유전자를 도입한 GMO를 혐오하는 것은 난센스다. 전통 육종이나 유전자변형기술 모두 유용한 유전 형질을 재조합해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전통 육종은 소요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원하지 않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유전자변형기술은 1∼5년으로 비교적 짧고, 다양한 유용 형질을 종의 장벽을 넘어서 이용할 수 있다. <br/> <br/>박찬준 경제부 부장GMO를 섭취해도 인간과 동물이 해를 봤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오히려 GMO 활용기술은 당뇨병 환자에게 희망이 된 ‘GMO 인슐린’처럼 의학과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인다. 노벨상 수상자 108명은 지난 6월 GMO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그린피스’의 GMO반대운동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미국과학한림원(NAS)은 1996년 GM작물이 상업화한 이래 지난 20년간 GM농산물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2014년 생명공학작물 덕분에 수확량 22% 증가, 농약사용 37% 감소, 농가수익 68% 증가 등 혜택이 발생했다는 글로벌 메타분석도 있다. GMO의 개발·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관리를 한다. 막연한 불안을 씻어내기 위함이다. <br/> <br/>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가 100억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농업경작지는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하다. 고온, 저온, 홍수, 가뭄, 병해충 등의 저항성이나 다수확성을 가진 GMO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농진청은 14개 작목 142종의 GMO를 개발 중이다.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생성하는 황금쌀, 황산화·항암·항염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배추, 가뭄 저항성 감자·벼 등 다양하다. <br/> <br/>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옥수수와 콩, 면화 등 GMO는 2014년 현재 28개국에서 1800만명의 농민에 의해 1억8100만㏊에 재배됐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8배다. 농업생명공학기술은 각국이 기술선도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최근 국영기업을 통해 세계 3위 종자기업 신젠타를 인수함으로써 GMO 개발·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농업생명공학기술 연구개발을 멈춘다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하게 될 게 자명하다. 우리 농업의 난제 해결과 농업의 첨단산업화에 필요한 GMO 개발에 국가적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절실하다. <br/> <br/>박찬준 경제부 부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3.txt

제목: 태국 여행 조심하세요~ 지카 감염 위험 동남아 최고  
날짜: 2016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4200238649  
본문: 최근 태국을 방문했던 30대 남성이 한국 내 10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된 가운데 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카 감염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br/> <br/>유럽질병통제센터(ECDC)는 최근 발표한 ‘지카 바이러스 발병 및 유관 합병증에 관한 역학 보고서’에서 태국을 지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Widespread transmission) 국가로 분류했다. ECDC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지카 바이러스가 발병한 55개 국가를 확진 사례 통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국가와 ‘산발적으로 전파되는’(Sporadic transmission) 국가로 분류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국가로 평가됐다. <br/> <br/>태국 질병통제국(DDC)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개주에서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97건에 달했다. 그동안 태국에서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연간 5∼7건에 그쳤던 점을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세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태국 보건당국은 올해 들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염자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강화되고 질병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암누아이 가찌나 질병통제국장은 “단순히 발병 건수만으로 현재 태국 내 지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각각 보고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 <br/>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4.txt

제목: 병원 간호사가 의사 ID·비번 도용 '마약류 의약품' 빼내  
날짜: 2016082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4103109908  
본문: 현직 간호사가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몰래 빼내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기장지역 모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 병원 간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r/> <br/>A씨가 훔친 진통제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때 사용되는 것으로 많은 양을 투약하면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병원 측은 관리 중인 마약류 진통제 수량이 실제로 보관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해당 의약품을 몰래 빼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병원 간호사로 채용된 A씨가 올해 3월부터 담당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환자에게 투약할 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진통제를 수차례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br/> <br/>경찰은 의사 ID와 비빌 번호가 도용되고 처방전이 조작되는 등 병원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5.txt

제목: 의사 ID와 비밀번호 도용, 치료용 마약류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날짜: 201608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4093605597  
본문: 담당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환자에게 투약할 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가 붙잡혔다. <br/> <br/>24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 병원 간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br/> <br/>A씨가 훔친 진통제는 암 환자 고통을 경감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양을 투약하면 환각증세를 일으킨다. <br/> <br/>지난해 8월 간호사로 채용된 A씨의 행위는 마약류 진통제 수량과 실제 보관수량이 맞지 않자 병원측이 A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 <br/> <br/>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br/> <br/>한편 경찰은 병원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6.txt

제목: [문승현칼럼] 인텔리전스 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간지성  
날짜: 2016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1222316451  
본문: 얼마 전 일본에서 ‘닥터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쿄대 연구진이 한 백혈병 환자에게 IBM의 AI 왓슨이 제안한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했다. 차도가 없던 이 환자가 몇 개월 만에 퇴원해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고 한다. 왓슨은 연구진과 IBM이 입력한 암 연구 관련 논문 2000만 건을 학습했고, 연구진이 해당 환자의 암 관련 유전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자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최종 치료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가 지금의 전문직들을 대체하리란 전망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br/> <br/>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채팅봇 테이는 AI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트위터 등에서 테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극우주의 성향의 이용자들이 의도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테이를 훈련시켰다. 이를 학습한 테이는 트위터에서 유색인종과 여성을 비하하고 나치의 집단 학살을 찬동하는 등 문제가 될 발언들을 쏟아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테이를 다시 교육시키겠다”며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br/> <br/>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AI의 기본 역할과 기능은 인간이 설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며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주어진 시간에 사람의 역량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숨어 있는 패턴이나 유용한 지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의사가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법을 빠르게 제시한 것이나 극우주의자들의 의도대로 막말을 터득한 테이의 경우 모두, 인간이 원하고 욕망하는 바대로 AI가 제 역할을 다 한 결과이다. <br/> <br/>AI의 속도와 정확성, 편리함에 대비되는 인간의 오류는 갈수록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불편이 쌓일수록, 인간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AI에 대한 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도할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사회가 고도(高度)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된다. AI가 상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간지능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들은 합리적 근거나 논리보다 희망에 기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이세돌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거기에 특별한 논리는 없었다. 올림픽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듯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마음과 막연하게 ‘그래도 아직은 인간이 컴퓨터보다 우월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가로막았다. 앞으로 AI에 의존하지 않은 인간의 문제 진단과 해법, 예측과 전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br/> <br/>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AI에게 묻고 그 답을 실행에 옮기는 사회가 다가올수록, ‘인간 지성(知性)’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건강한 인간 지성으로 기계의 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맞춤형 지식이 필요할지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입력된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관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은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도구이기에,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인간 지성이 빈곤해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br/> <br/>AI가 발달할수록 문명의 주인공인 인간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과학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류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이를 담보하는 문명의 발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I라는 과학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br/> <br/>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7.txt

제목: [재테크 단신] 고령·유병자도 간편심사로 보험 가입 외  
날짜: 2016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1214414489  
본문: 고령·유병자도 간편심사로 보험 가입 <br/> <br/>NH농협생명은 고령자·유병자도 3가지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간편가입NH보장보험’(사진)을 22일 출시한다. 이번 신상품은 고령자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간편심사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필요소견,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가입 나이도 기존 유병자보험보다 확대된 40∼77세다. 주계약은 재해사망을 보장하며 1종 만기보험금형과 2종 순수보장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만기보험금형은 10년 만기 시마다 50만원(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기준)을 지급한다. <br/> <br/>피보험자 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 면제 <br/> <br/>삼성화재는 기존 암 보험 상품을 개정한 ‘한방에 유비무암’을 최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진단 이후의 생활자금 담보까지 갖춰 암 치료에 관한 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치료비와 재진단암 진단비 담보를 갖춰 암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방·자궁 등 여성 특정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1∼3급 장애 판정 시 10년 동안 매년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한방에 유비무암’은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고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 보험료 납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 이후 재가입 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br/> <br/>하나금융 포인트로 여행자보험 결제 <br/> <br/>내달부터 하나금융지주의 통합 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로 여행자보험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하나금융 계열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 V2’가 다음달 새롭게 출시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측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하나투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나투어 고객은 은행이 제공하는 사이버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하나투어 고객이 하나멤버스에 신규 가입하면 선착순 11만1111명에게 하나투어 계열인 SM면세점의 온라인 적립금 1만원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1만1111명에게는 해외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하나머니 등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8.txt

제목: 워셔액에 대한 궁금증 A to Z  
날짜: 20160820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0100809856  
본문: 궁금증 하나. 메탄올 vs 에탄올? <br/> <br/>메탄올은 로켓연료, 광택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일정량 이상 섭취 시,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바뀌어 영구적 신경 손상이나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br/> <br/>에탄올은 에틸알코올이라고도 불리며, 술의 주성분이라고 하여 주정(酒精)으로도 불린다. 에탄올은 체내에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아세트 알레히드라는 물질로 변화하여 음용이 가능하다.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메탄올 함유량을 규제하거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탄올을 워셔액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아직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br/> <br/>궁금증 둘. 워셔액 대신 물 사용? <br/> <br/>워셔액 대신 물을 사용하면 엔진 열기 혹은 여름철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레지오넬라균 감염 및 급성폐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겨울철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물이 얼 가능성도 충분하다. 앞유리 세척 효과를 위해서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보다는 워셔액을 사용하자. <br/> <br/>궁금증 셋. 워셔액 사용법? <br/> <br/>흔히 워셔액은 차량 유리창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워셔액 사용 시 보닛 틈새로 워셔액이 들어와 기체로 변해 차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워셔액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면, 워셔액을 뿌릴 때 공기가 차량 내부로만 순환되도록(내부순환모드) 한다. 그리고 주행 중 워셔액이 모두 날아간 뒤에는 내부순환모드를 해지하여 환기시켜주면 된다. <br/> <br/>보쉬코리아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철우 상무는 “보쉬 에탄올 워셔액은 와이퍼와의 접촉 시 발생하는 와이퍼 고무 손상이나 금속 프레임(와이퍼 암)의 부식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온수로 희석하여 화합침전물을 줄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뛰어난 세정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199.txt

제목: 美국립보건원 '근적외선' 암 치료…동물실험 성공  
날짜: 20160819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9174348821  
본문: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이 몸 밖에서 적외선을 쏴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물실험에 성공했다고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NIH 주임 연구원 고바야시 히사타카 박사 연구팀은 정상적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암 치료법을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br/> <br/>연구팀은 주로 암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흡착하는 성질을 가진 항체에 주목.  <br/>근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받으면 발열하는 화학물질이 내재된 항체를 암세포를 이식한 쥐 70마리에 주사한 결과 약 하루 만에 모든 쥐에서 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br/> <br/>또 생체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면 조직, 장기를 공격하는 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빛을 쬔 곳의 암세포만 사라지고 다른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고바야시 박사는 "암의 전이가 발생해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이번 연구는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0.txt

제목: 황달 유발물질 활용 암 치료… 카이스트 연구팀, 기술 개발  
날짜: 2016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8213556093  
본문: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이용현 박사 연구팀은 황달 유발 물질인 ‘빌리루빈’을 거꾸로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주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은 적혈구와 세포 안 다양한 효소에 있는 ‘헴’의 최종 대사물질이다. 인체는 질병이나 피로로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빌리루빈을 배설하지 못하는데, 노란색을 띠는 이 빌리루빈이 몸에 축적되면 황달을 일으킨다. 항산화 작용 특성이 강한 빌리루빈은 빛을 쏘이면 산화하면서 친수성(親水性)이 큰 ‘빌리버딘’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거나 작은 빌리루빈 물질로 깨진다. <br/> <br/> 전상용 교수 이용현 박사연구팀은 이 같은 빌리루빈의 특성을 암치료 물질 전달시스템에 적용했다. 나노입자로 만든 빌리루빈에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실어 인체에 투여한 다음 암부위에 빛을 쐬면 빌리루빈이 와해되면서 선적된 항암치료 물질만 남아 정확하게 암조직을 공격하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이 인간 폐암세포를 가진 동물 모델에서 기존 항암치료 그룹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규명했다. <br/> <br/>이용현 박사는 “<span class='quot0'>빌리루빈을 활용한 항암치료용 다중자극감응형 약물전달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천연 물질인 빌리루빈을 사용해 독성이 없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공정도 복잡한 인공소재 기반의 자극 감응성 약물전달체에 비해 상용화 가능성이 휠씬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1.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암환자 엄마 옆 '초음파 검사'…그리고 감격의 눈물  
날짜: 2016081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7140459993  
본문: 암환자 엄마를 옆에 두고 초음파 검사를 받은 미국의 한 여성 사연에 네티즌들 코끝이 찡해지고 있다. <br/> <br/>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웨스트민스터의 한 병원에서 테일러 마시로티가 엄마 돈나 칼렌더와 함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br/> <br/>테일러는 임신 19주다. 그는 20주가 되면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평생 든든한 지원군 엄마 옆에서 자기 뱃속 아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테일러는 보여주고 싶었다. <br/> <br/>하지만 뇌종양과 폐암 4기 환자인 돈나는 온전히 일어서서 걸을 수 없었다. 원래는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함께 모니터를 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돈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테일러는 엄마가 누운 병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엄마 옆에 누운 테일러의 사진은 그렇게 탄생했다. 모두 의료진의 배려 덕분이었다. <br/> <br/>두 사람은 “딸로 보인다”는 의사의 말에 한동안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돈나가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테일러의 턱을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br/> <br/>의사는 “아기의 입도 깨끗해 보인다”며 “<span class='quot0'>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안타깝게도 돈나는 모니터로 손녀와 만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br/> <br/>테일러는 엄마 잃은 슬픔을 꾹 참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했다. <br/> <br/>테일러는 “<span class='quot1'>엄마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번 일을 허락해준 것과 관련해 병원 측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기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테일러가 말한 ‘이번 일’은 엄마 병실에서 자신이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을 뜻한다. <br/> <br/>테일러는 딸의 이름을 스텔라 케이라고 지었다. 스텔라 케이는 돈나의 가운데 이름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테일러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두 모녀의 영상은 조회수 270만건을 넘었으며, 공유 2만여회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2.txt

제목: 고양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1,885세대 아파트 홍보관 오픈  
날짜: 20160817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7120445430  
본문:   <br/> <br/>고양시 벽제동 일원에 평당 700만원대로 공급되는 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100%토지매입, 분담금 확정가 등을 통해 홍보관을 오픈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br/> <br/>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총 1,885세대 지상 8층~16층, 전용면적 64㎡(1,116세대), 66㎡(117세대), 70㎡(25세대), 75㎡(329세대), 84㎡(298세대)로 구성됐다. 예정 시공사는 건설 외길 40년의 신안건설산업이다. <br/> <br/>단지 서측으로 39번 국도, 남측으로 4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고, 39번 국도와 1번 국도를 통해 삼송지구, 화정과 연계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br/> <br/>통일로IC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의정부, 구리 접근성도 용이하고, 장흥~송추 우회도로, 관산~벽제 우회도로 신설 및 덕양~파주시계 도로건설이 예정됐다. <br/> <br/>목암초와 목암중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고양초와 고양일고도 인접하고 있다. 초등학교 1개교가 단지와 인접하여 신설될 예정이고, 단지 남부 기존 거주지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br/> <br/>단지내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게스트룸 등의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br/> <br/>개명산을 볼 수 있고, 우암산이 인근에 위치해 단지 앞 생태하천과 하천과 연결된 산책로도 조성된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포함해 녹지비율 43%에 이른다. <br/> <br/>고양 목암지구 신안실크밸리는 무료 발코니확장이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3.txt

제목: 간암 수술 사망률 미국·일본보다 낮아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6200905933  
본문: 국내 간암 수술 사망률이 일본·미국·프랑스 등 8개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간암 수술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1개 기관에서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수술 후 입원기간 내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은 0.9%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100명이 수술하면 사망하는 사람이 1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br/> <br/>미국·중국·대만·일본·싱가포르·그리스·프랑스·이탈리아의 평균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 2.8명으로 산출됐다. 나라별로는 △중국 2.4명 △일본 2.7명 △싱가포르 3.0명 △대만 3.6명 △미국 5.2명 등이다. 심평원은 “<span class='quot0'>외국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 암에 대한 수술 결과인 반면 우리나라는 간내 담관암뿐 아니라 전이암 등의 수술결과도 포함된 것이어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종전보다 지혈이 쉬운 수술 장비가 발달하고 수술 기술력이 향상해 사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수술 종류별 사망률은 △구역 절제술 0.4% △부분 절제술 0.5% △간엽절제술 1.6% △3구역절제술 2.2%로 간을 많이 절제할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수술 후 사망하는 주요 원인은 절제 뒤 남아 있는 간이 작아 제 기능을 못하는 ‘간기능 부전’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담즙 누출, 급성신부전증, 복수 등도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br/> <br/>조사기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5371명으로 남성(3924명)이 여성(1447명)보다 2.7배 많았다. 남성은 100명 중 66명(66.3%)이 간에서 발생한 암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여성은 절반가량(49.4%)이 난소암 등에서 간으로 암이 전이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8%, 60대가 30.7%로 50∼60대가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br/> <br/>수술 사망률은 낮지만 간암 사망률 자체는 다른 암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간암 사망자는 22.8명으로 폐암(34.4명)에 이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했다. 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32.0명으로 영국(8.4명)의 3배가 넘었다. 영국과 일본은 간암 환자 중 60대 이상이 각각 82.5%, 90%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58.6%로 젊은 층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4.txt

제목: 말기암 여성의 마지막 소원은…"애완견 보고싶다"  
날짜: 2016081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6104416472  
본문: 말기암을 앓던 여성은 마지막 소원으로 반려견과의 만남을 원했다. <br/> <br/>최근 영국 에이드저널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기암 환자가 병실에서 반려견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습이라며 영상 하나를 소개했다. <br/> <br/>공개된 영상에는 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 쉬고 있는 여성과 주인과의 만남에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겼다. 주위에는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br/> <br/>지난해 10월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후 화제가 되면서 현지 언론 등 외신에 소개됐다. <br/> <br/>영상의 주인공은 브라질 출신 레잔 칠레라(49)씨로 그녀는 병원 측의 배려로 자신의 반려견인 리치와 만날 수 있었다.  <br/> <br/>심리학자 바바라 크리스틴은 “<span class='quot0'>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상 속 사례처럼 환자들은 마지막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고 싶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여성은 반려견과 만난 후 호전되는 듯했으나 암은 극복할 수 없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유튜브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5.txt

제목: [사설] ‘삶의 존엄한 마감’ 위해 호스피스 더 탄탄히 구축해야  
날짜: 2016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5220317677  
본문: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6명은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죽음을 맞고 싶은 장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57.2%가 가정을 꼽았다. 병원은 16.3%에 불과했다. 실상은 정반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2013년 사망자 중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사람은 17.7%에 지나지 않았다. 병원에서 숨진 사람은 71.5%다. 바람과는 딴판인 현실을 말해주는 통계다. <br/> <br/>이런 괴리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도 연명치료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연명치료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4년 46.4%에 불과했던 병원 사망자 비중이 10년 만에 25.1%포인트나 높아진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암환자의 경우 병원 사망자 비율이 75.3%에 달했다. <br/> <br/>연명치료가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노인의 89%가 연명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연명치료가 고통을 가중시킨다. 개인·사회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말기 암환자는 숨지기 직전 한 달간 1인당 평균 140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썼다고 한다. 자기부담금도 만만찮다. <br/> <br/>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가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 1월에는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까지 만들었다.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 제도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의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내년 8월부터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br/> <br/>호스피스에 대한 낮은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지난해 13.8%에 지나지 않았다. 44.6%인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가정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의 인프라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지난해 10월 63곳 1022 병상에 불과하다. 이런 인프라로는 말만 번드르르한 부실 호스피스를 낳을 여지가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6.txt

제목: ‘집 임종’ 원하지만… 국민 71% 병원서 숨져  
날짜: 2016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4195631775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종 장소로 가장 원하는 곳은 집이지만 실제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4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에 따르면 2014년 전국(제주도 제외)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가장 죽기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자택)을 꼽았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19.5%) △병원(16.3%) △요양원(5.2%) △자연·산·바다 0.5% 등의 순이었다. <br/> <br/>그러나 실제 가장 많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는 곳은 병원이었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전체 사망자(26만8088명) 중 71.5%(19만1682명)가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자택에서 사망한 비율은 17.7%(4만7451명)에 그쳤다. <br/> <br/>문제는 말기암 환자 등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도 임종 직전까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br/> <br/>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사망한 말기 암 환자는 숨지기 전 한 달간 1인당 평균 140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쓴 것으로 추산됐다. <br/> <br/>정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는 통증과 신체적·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치료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다.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br/> <br/>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2008년 19곳 282병상에서 2015년(10월 기준) 63곳 1022병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br/> <br/>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2014년 13.8%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44.6%)의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해 일반 국민의 호스피스 이용 의사가 58.5%로 조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식과 실제 이용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br/> <br/>서울의 한 호스피스병동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은 호스피스가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정용 호스피스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말기암 환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1만3000원이다. 내년 8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암 외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등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1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제도를 보완해 내년 8월부터 확대·시행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말기암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기간을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7.txt

제목: [연구] 하루 1시간반 몸 움직이면 암과 당뇨 막을 수 있다  
날짜: 20160814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4105211034  
본문: 미국과 호주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주간 평균 적정 운동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암과 당뇨,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려면 주당 최소 150분 빠르게 걷거나 75분 정도 뛰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br/> <br/>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공동 연구진은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5대 만성질환(유방암, 대장암, 당뇨병, 협심증,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총 신체활동량이 각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174편(1980∼2016년)을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5대 만성질환은 일주일 총 신체활동이 600MET(대사당량·신체활동 강도를 표시하는 지수)분 이상일 때 발병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시작했다. 600MET분은 WHO가 권고하는 최소 운동량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5대 질환 발병 확률은 더 낮아졌다. 또 운동량에 따라 발병률이 눈에 띄게 줄기도 하고 완만하게 떨어지기도 했다. <br/> <br/>연구진은 주당 신체활동이 600∼4000MET분일 때 5대 질환에 걸릴 위험은 크게 떨어졌고, 4000∼1만MET분일 때는 완만하게 발병 가능성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5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MET는 주당 3000∼4000MET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WHO의 최소 대사당량 600MET보다 5∼7배 정도 높은 것이다. <br/> <br/>연구진은 "일주일 총 신체활동이 3000∼4000MET분은 돼야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WHO의 권장 운동량은 현행보다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주당 3000MET분의 신체활동은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을까. 연구진은 하루 10분 계단을 오르내리고, 15분 동안 청소를 하며, 20분 동안 화단을 돌보고, 2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며 25분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3000MET분을 채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8.txt

제목: [요가? 뭐가?] 요가와 그 속-근육-이야기 (1) 요가IS뭔들  
날짜: 20160812  
기자: 2hd2hd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27162058436  
본문: '웰빙의 시대, 힐링의 시대, 슬로우를 외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요가일 것이다. 요가에 대한 관심은 많아 졌지만, 요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한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단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최근엔 화려한 요가팬츠를 입은 여성이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거나 나비처럼 해먹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아닐까한다. <br/> <br/>핫요가, 빈야사, 아쉬탕가, 플라잉, 서핑, 하타, 요가에서 파생된 필라테스까지 기타 등등.... <br/> <br/>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br/>넘쳐나는 상품들 속에서, <br/>나에게 필요한 요가는 어떤 것인지.. <br/> <br/>본래 요가의 시작이 무엇이며 현재, 현대 생활인으로서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근육을 통해 요가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br/> <br/>필자는 원래 폐암센터에서 숨쉬기 힘든 분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였으나 (직무의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변화무쌍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현대 보편적인 직업인들의 상황이 아닐까 한다.) 적응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 살기위해 요가를 시작하게 됐다.  <br/> <br/>간호사라면 사람의 몸을 잘 알고 있을 꺼라 착각 하지만, 간호사를 그만두고 내 몸을 쓰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질병의 종류와 증상은 알고 있어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단 한번도 느낀적 없었고, 사람들이 아니 내가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 몸에 대한 무지몽매한 이라는 걸.... <br/> <br/>그리고 요가를 하는 동안에도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유행에 맞춰 혹은 보기에 좋아 보여 욕심을 내고 수련을 하다가 다시 암이 발병되어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로 그나마 쌓았다 생각했던 건강 마져도 모두 탕진하고 다시 수련을 시작 하게 되었다.  <br/> <br/>잃을 것이 없으니 욕심 내지 않아도 되었고, 흔들림 없이 두발로 서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수련 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에 충실하니, 발병이전보다, 아니 십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 <br/> <br/>이제부터 속근육을 요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경험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br/> <br/>요가원에서 진행하는 수업◆ 요가에 관한 이야기들 <br/> <br/>요가와 속근육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으니 요가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요가의 본뜻은 Yogas citta-vrttinirodha-요가는 마음작용의 지멸이다. (빠딴잘리 요가수트라 1장 2절) <br/> <br/>요가에서는 오쇼는 마음의 작용을 파도와 비교하였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생각들과 감정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마음의 주요한 작용이고 이것을 멈추는 것을 요가라 정의 했다. 요가로 어떻게 마음작용을 멈추게-사라지게 한단 말인가? <br/> <br/>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에서의 야외 수업필자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 해본다면, 회복 이후 요가 강사를 하면서 회원들을 가르치다보니, 화려한 동작에 매료되어 수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의 몸 상태는 무시한 체로(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내 몸의 감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동작을 따라가려다 부작용이 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강도 있는 수련을 십년이상 하셨던 분들의 부상 사례가 SNS등에 심심치 않게 글로 남겨지고 있다. 나 또한 발병이전 내 체력를 고려하지 않은 강도 있는 수련을 지속 했었고, 발병 이 후 과도한 근육운동이 젖산을 생성시켜 암을 촉진시킨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차 싶었었다.) <br/> <br/> <br/>당장의 젊어 보이는 화려한 요가 동작을 목표로 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백세시대에 죽기 전까지 내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동작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내 몸에 대한 학대 없이-편안하게 현재 내 몸을 바라보고, 몸에 기록된 지나온 시간을 인정하며, 현재 나의 호흡을 느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냥 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나 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만은 마음작용은 멈추고 ‘YOGA'를 하고 있는게 아닐지. <br/> <br/>6세 조카와 함께 했던 고양시 요가대회본래의 뜻을 잃지 않고 Yoga를 한다면, 백세 시대에 건강의 개념이 질병의 부재가 아닌 건강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 올수 있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한다. <br/> <br/>백세시대-건강한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대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건강한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찾기 위한 도구로 요구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지.... <br/> <br/>Yoga Instructor 서혜정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09.txt

제목: 日후쿠시마 부흥 담당한 민진당원 '갑상선암'…"미군 400명 배상청구"  
날짜: 2016081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1114442410  
본문: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에서 현장시찰 등 부흥에 힘써온 일본 민진당 직원이 '감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고 11일 일간현대가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대지진 직후 후쿠시마에 파견돼 피해 상황 파악과 제염현장 시찰 등 피해지역을 10번 정도 방문한 A씨가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br/> <br/>A씨를 담당한 의사는 "갑상선 유두암 환자 약 80%는 여성으로 원전사고와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r/> <br/>그는 암 진단 당시 유전을 의심해 친인척의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br/> <br/>A씨는 "시간이 지나자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br/> <br/>그러면서 "위험성과 오염 수치 등 정확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피폭 위험이 큰 사람들의 검진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후쿠시마 피해현장을 찾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이재민 구호목적으로 '도모다치 작전' 투입된 20~30대 젊은 미군 병사 약 400명이 코피를 흘리거나 하혈, 종양 등 건강이 악화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br/>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현재까지 후쿠시마에서 나온 갑상선암 환자는 131명이며 의심자는 41명이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일간현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0.txt

제목: 신장암 새 발병 원인 ‘특정 효소’ 발견  
날짜: 2016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0185531818  
본문: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신장암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을 찾아냈다. 신장암과 다른 암과의 차이점을 규명함에 따라 조만간 신장암 특성에 맞춘 표적치료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br/> <br/>국립암센터 기초실용화연구부 김수열 박사팀은 신장암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특정 효소가 신장암 발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신장암을 비롯한 암의 발병원인 가운데 하나는 ‘p53’라는 암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신장암 환자에서는 p53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단백질을 서로 이어주는 효소인 트랜스글루타미나제2(transglutaminase 2)가 과도하게 생겨 p53의 기능을 막는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후 신장암을 유도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트렌스글루타미나제 2를 억제한 결과 p53이 활성화돼 암세포가 소멸한 것도 확인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1.txt

제목: 윤소정 "남편 오현경 암투병 두 번이나 지극정성 수발"  
날짜: 20160810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10113036366  
본문: 배우 윤소정이 독한 시어머니 이미지와 상반되는 현모양처 면모를 드러냈다.  <br/> <br/>윤소정은 9일 방송된 TV조선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에서 대표작인 영화 '올가미'에서 시어머니 진숙 역을 신들린 연기력으로 완벽 소화한 뒤 20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올가미 시어머니' 타이틀과 그에 따른 악녀 이미지로 오해받은 사연을 털어놨다.  <br/> <br/>이날 윤소정은 남편 오현경의 암 투병에 대한 질문에 "1994년 식도암으로 식도를 7cm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고, 7~8년 후엔 위암이 오면서 위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크고 작은 수술만 7번을 하며 고생하는 남편을 촬영장과 병원을 오가며 수발을 했다"며 남편을 지극정성 보살핀 이야기를 털어놨다.  <br/> <br/>또 윤소정은 연극 무대를 신앙처럼 생각하며 깐깐한 작품 안목 때문에 활동이 줄어든 오현경을 대신해 찻잔 세트를 팔러 다니며 힘겹게 생계를 책임진 사연을 밝혀 여장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br/> <br/>'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혀 봤을 것 같다'라는 오해에 대해서는 윤소정뿐 아니라 MC 김구라와 출연자인 조형기, 윤영미 등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br/> <br/>조형기는 "윤소정 선배님의 오이지를 안 먹어 봤음 말을 말라. 연기자 후배들한테 요리 솜씨로 더 유명한 선배님"이라고 운을 뗐다.  <br/> <br/>이어 MC 김구라 또한 "윤소정씨의 요리 솜씨는 연예계에서 정평이 난 수준이다"라고 맞장구 쳤다. 또한 생계를 위해 시작한 옷 집을 운영하면서 남편은 물론, 자식 뒷바라지에도 완벽했다고 배우 윤소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다.  <br/> <br/>이에 방송인 윤영미는 "그 뿐만이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양화에 꽃꽃이, 다도에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안다. 그리고 꽃꽃이 사범증과 다도 사범증까지 있는 천생 여자시다"라며 곱게 자랐다는 오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br/> <br/>윤소정은 방송 말미 오현경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통해 "힘들어 하면서도 자꾸만 나이를 잊을 만큼 연극은 항상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나를 설레게 한다"며 꾸준한 연기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br/> <br/>한편 윤소정은 오는 15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어머니 La Mère'를 통해 관객을 만난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2.txt

제목: 父 회사 욕심 장남 "아버지는 치매환자"…사내메일 뿌려  
날짜: 2016080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9133156728  
본문: 아버지가 수십년간 일군 회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났던 아들이 부친이 치매환자라며 측근들이 이를 감추고 있다는 내용의 사내메일을 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국일보가 9일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최윤정 판사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58)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r/> <br/>2013년 9월, 수 처리 전문 중견기업 사장으로 입사했던 A씨는 이듬해 7월 해임됐다. 회사 창립자이자 오너는 A씨의 아버지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군 그룹과 경영권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자신의 배임 등 비위 의혹이 아버지에게 보고되면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씨가 해임 3개월 전 “치매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형제 3명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었다. <br/> <br/>A씨는 두 달 후 아버지 측근들이 자신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의 비위혐의에 대한 추측과 소문을 부풀려 만들었으며, 회장님의 치매약 복용과 암 판정 사실을 알고도 함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 180명에게 전송했다. <br/> <br/>A씨는 측근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막으려고 가족이 아버지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그는 나흘 뒤, 회장님은 주민번호 뒷자리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며 아버지의 정신이상 증세를 강조하는 이메일도 돌렸다. <br/> <br/>A씨는 같은해 10월, 성년후견 사견에서 자기 뜻과 반대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아버지의 측근 임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br/> <br/>법원은 아버지가 경영판단능력을 잃었다면서 A씨가 낸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했다. <br/> <br/>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span class='quot0'>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버지가 명료하고 구체적 진술을 했는데도 정신건강 문제를 부각했다</span>”고 지적했다. 이어 “주된 동기는 경영권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 타격을 입히는 데 있다”며 “공공 이익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3.txt

제목: 젊을수록 위암 정기검진 효과 낮아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8185634277  
본문: 국내 암 발생률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위암의 정기검진 효과가 나이가 적을수록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2008∼2014년 위암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 환자 564명을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에 따른 조기진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위암 환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은 환자의 조기위암 비율은 67.6%, 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의 조기위암 비율은 65.7%로 비슷했다. 조기위암은 암세포의 성장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시술이나 수술로 95% 완치가 가능하다. <br/> <br/>또 검진 시기가 최근 2년 이내인 환자의 위암 크기는 23.8㎜로 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의 위암 크기인 30.5㎜보다 작았다. 사실상 40세 이하에서 정기검진은 조기위암을 발견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위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br/> <br/>이상길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 발병은 5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보다 10년 앞서 40대부터 검진을 시행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젊은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지세포암, 미분화암은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여기에 맞춰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검진 비용, 암 발견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며 “이번 연구는 각종 검사가 패키지로 이뤄지는 국내 건강검진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4.txt

제목: 빅스, 6번째 싱글 '하데스' 타이틀곡 가사 힌트 영상 공개  
날짜: 20160808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8154919989  
본문:   <br/> <br/>빅스가 컴백 타이틀곡 '판타지(Fantasy)'의 가사 힌트 영상을 공개했다. <br/> <br/>빅스는 8일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 연간 프로젝트인 '빅스 2016 컨셉션(VIXX 2016 CONCEPTION)' 두 번째 앨범이자 여섯 번째 싱글 앨범인 '하데스(Hades)' 타이틀곡 '판타지' 가사 스포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br/> <br/>빅스 멤버 전원은 '다크 섹시' 콘셉트로 파격 변신한 모습이며 가사 중 일부를 자막으로 선보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br/> <br/>공개된 영상에는 빅스 멤버들이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자막을 공개해 컴백 타이틀곡에 대한 궁금증을 키웠다.  <br/> <br/>각 5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흑백으로 처리돼 강렬한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br/> <br/>멤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각기 다른 가사들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공개된 멤버 홍빈은 '썸원 헬프(Someone help)', 레오는 '잇츠 마이 판타지(It's my fantasy)', 켄은 '마이 트레지디(My tragedy)', 라비는 '헤븐 앤드 헬(Heaven and hell)', 혁은 '저스트 마이 판타지(Just my fantasy)', 엔은 '잇츠 올 마인(It's all mine)'이라고 적혀 있다. <br/>  <br/>가사는 연기와 함께 나타나 살짝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여섯 멤버마다 다른 표정과 분위기로 제각각 힌트를 주고 있다. <br/> <br/>가사 중에는 타이틀곡 '판타지'의 스토리 라인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br/> <br/>비극을 뜻하는 트레지디(tragedy)와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헤븐 앤드 헬(Heaven and hell)이 사용돼 엄숙한 분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br/> <br/>특히 레오와 엔의 대비되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컨셉 필름과 '판타지' 뮤직 스포일러 티저를 통해 서서히 대립 구도가 드러나는 레오와 엔이 각각 '잇츠 마이 판타지'와 '잇츠 올 마인'이라는 내용의 가사로 두 번째 컨셉션 앨범 '하데스'에서 보여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br/> <br/>암흑세계의 신인 하데스를 모티브로 잡은 빅스는 역대급 다크 섹시미로 컴백해 차원이 다른 카리스마를 선사할 예정이다. <br/> <br/>한편 가사 스포일러 영상 공개로 컴백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빅스는 오는 12일 '하데스' 앨범을 발표하며 13~14일 세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5.txt

제목: 냄새로 아기의 암 알아챈 반려견…"아기 옆을 지켰다"  
날짜: 2016080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8150222397  
본문: 아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아채곤 특이한 행동으로 주인에게 경고한 반려견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최근 영국 미러는 반려견 '베시'와 필립우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했다. <br/> <br/>영국 노스요크셔주에 사는 가족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베시와 함께했고, 필리파(2)가 태어나자 베시는 아기의 친구이자 보모가 됐다. <br/> <br/>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얌전하고 순하던 베시가 필리파와 절대 떨어지려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고, 모르는 사람이 필리파에게 다가가면 으르렁거리며 짖어댔다. <br/> <br/>갑자기 변한 반려견 모습에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맘에 필리파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로부터 아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혈액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br/> <br/>필리파의 아버지는 "만약 베시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아기를 늦게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라며 베시를 향해 고마움을 전했다. <br/>한편 '베시'와 혈연관계에 있는 반려견 '메그'도 주인의 암을 알아채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br/> <br/>베시처럼 메그도 평소와 달리 자신의 주인인 줄리아 폴란드(55)의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이상한 느낌에 병원을 찾은 줄리아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br/> <br/>그녀는 "두 마리의 똑똑한 강아지들 덕분에 필리파도 나도 초기에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며 ”동물들의 감각에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미러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6.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모바일 앱 통한 펀드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외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8003955532  
본문: 모바일 앱 통한 펀드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br/> <br/>미래에셋생명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 ‘모바일 사이버창구’ 앱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험설계사(FC) 또는 임직원의 실명확인, 영업점 최종승인을 거쳐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일반 펀드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서비스를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FC에게 펀드계좌개설 권한을 부여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복수의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해 운영상의 안정성도 높였다. <br/> <br/>상해로 인한 치아 손상까지 보장 보험 출시 <br/> <br/>악사(AXA)손해보험은 기존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다이렉트 NEW치아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임플란트와 크라운, 신경치료 등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고, 기존 치아보험에 있었던 골절진단 특약에 더해 안면 흉터복원 등 상해로 발생하는 수술비도 추가 보장한다. 중이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의 수술비도 보장한다. 악사손보는 월 3만~6만원으로 고가화되고 있는 다른 치아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월 2만~3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혜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br/> <br/>보장은 늘리면서 보험료는 대폭 낮춰 <br/> <br/>교보생명은 보장을 늘리면서 기존상품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춘 ‘교보프리미어 CI보험’(사진)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평생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4가지 질환을 새롭게 CI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됐던 갑상선암 중 예후가 좋지 않은 일부 암에 대해 중대한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CI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처럼 CI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질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7.txt

제목: 국립암센터,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날짜: 2016080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6170231237  
본문: 국립암센터가 여름 방학을 맞아 오는 10일 센터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를 초대한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부모직원과 초등학생 자녀 및 자녀 친구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직원 자녀들을 엄마아빠의 직장으로 초대해 부모의 일터 구석구석을 탐방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또 엄마아빠와 함께 암 연구·진료·암관리사업 업무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탐색도 돕기 위한 목적이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8.txt

제목: 국립암센터, 세계보건기구 워크숍 개최  
날짜: 2016080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6170231642  
본문: 우리나라 암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표자들이 국립암센터에 모인다. <br/> <br/>국립암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개도국 대표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br/> <br/>이 워크숍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참석자들은 만성질환의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관려 교육 및 토론을 통해 각국의 활동현황을 공유한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암 관리 노하우도 함께 전수받는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19.txt

제목: [연구] 뚱뚱한 사람 뇌는 마른 사람보다 10년 더 늙어 있다  
날짜: 2016080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5135713844  
본문: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10년쯤 더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당뇨나 암, 심장질환 발병은 물론 뇌의 노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심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뇌의 노화가 구체적으로 기억력과 같은 인지능력 퇴화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br/> <br/> <br/>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캠브리지대학 연구진은 20∼87세 성인 남녀 473명을 체질량지수(BMI) 25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뇌를 스캔해 같은 나이끼리 비교한 결과 과체중·비만(BMI 25 이상)인 사람의 백질(white matter) 양은 BMI 25 미만 그룹에 비해 상당히 쪼그라든 상태였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노화의 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Aging)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 <br/>뇌 백질은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회백질(피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 크기가 줄어드는 데 백질이나 회백질 양이 줄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사 로넌 교수는 "과체중 이상인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정도 더 늙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br/> <br/>과체중인 사람의 뇌 노화는 50세 때부터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만이 어떤 과정으로 뇌 백질을 수축시키고, 뇌의 급속한 노화가 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연구진은 뇌 백질이 현저히 준 사람을 상대로 지능검사(IQ)를 진행했지만 정상적인 사람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다. <br/> <br/> <br/>또 이미 백질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면 뇌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사다프 파루키 교수는 "이같은 변화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몸무게와 음식, 운동 등이 뇌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초석은 다진 것으로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0.txt

제목: [미즈리포트] 평소 꾸준한 요가·스트레칭… 통증 완화 첫걸음  
날짜: 201608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4210421614  
본문: 전 세계적으로 허리통증은 84%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허리디스크 진료인원은 196만7564명이며 진료비는 5548억원으로 2010년보다 20% 정도 증가했다. 도대체 요통은 왜 생기는 걸까? <br/> <br/>요통의 원인으로는 허리디스크의 탈출, 근육통, 노화, 근력 약화, 비만, 생활습관이나 자세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요통의 유병률도 높은데 ‘이거다’ 하는 원인은 알 수 없다. 이처럼 통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적절한 치료 지침도 없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상황이 다르다. <br/> <br/>어르신들에게 허리통증은 단순한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일상 생활 속에서 통증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고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불러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다. <br/> <br/>실제로 병원이나 환자들도 수술 또는 주사요법보다는 운동이나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할 방법에 목말라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가 만성요통에 어떤 치료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연구 중이다. 아마 인터넷을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치료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요통에 적절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나열해 보면 도수치료, 마사지, 침술, 운동, 요가, 전기치료, 열치료, 견인치료, 레이저치료, 초음파치료, 허리지지대를 착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br/> <br/>앞서 얘기했듯이 만성적인 허리통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다. 예컨대, 나 같은 경우 엑스레이 사진에서 거의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매일 통증이 심한 반면,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기에 걸음까지 절뚝거리지만 통증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통증이 있다는 것이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만성통증으로 되기까지 환자들은 통증으로 인해 편한 자세로 몸을 틀고 다리를 꼬는 등 근육에 변형을 만들고 뼈에 붙어있는 근육의 변형은 뼈의 변형을 이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계속 약해지고 불균형해지면서 주변 신경들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킨다. <br/> <br/>가장 먼저 근육을 제자리에 안착시키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균형 없이 짧아진 근육을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근육은 경직되고 짧아진 모양새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늘어지려 하질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치료방법보다는 운동이나 요가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복합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해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요통은 암과 달라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작은 실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 병원을 가서 한참을 기다려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찜질팩을 이용해 열치료를 하고 휴대용 저주파 자극기 등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일상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이같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알고 왜 아픈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통증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그 후에 약해진 근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해주는 것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든 근본적인 치료 접근이 될 것이다. <br/> <br/>김은서 리포터 yoyiii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1.txt

제목: 루마니아 마지막 왕비 앤 별세  
날짜: 2016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2214733789  
본문: 루마니아의 마지막 왕비인 앤 왕비가 1일(현지시간) 스위스 모르주의 한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92세. <br/> <br/>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루마니아 왕가는 “<span class='quot0'>루마니아의 마지막 왕인 미하이 국왕(94)의 아내 앤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암 투병 중인 미하이 국왕은 매일 앤 왕비의 병상을 찾았다고 루마니아 왕가는 전했다. 앤 왕비는 결혼 전 부르봉-파르마의 앤 공주로서 194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당시 엘리자베스 공주)의 결혼식에서 미하이 국왕을 만났다. 앤 공주는 가톨릭 가문 출신으로, 정교회 가문인 루마니아 왕가와 결혼하려면 교황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교황 피우스 12세는 승인을 거부했다. <br/> <br/>결국 앤 공주는 1948년 루마니아 왕정이 폐지되고 해외 망명한 미하이 국왕과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교회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1966년에야 모로코에서 가톨릭 결혼예식을 올릴 수 있었다. <br/> <br/>유족으로는 미하이 국왕과 공주 5명이 있다. 장례식은 13일 루마니아 중부 쿠르테아데아르제슈에서 성대하게 거행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2.txt

제목: '糖糖하다' 그린 키위…건강한 단맛 "좋아요"  
날짜: 2016080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2160649932  
본문:   <br/> <br/>'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 서구화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철은 특히 당뇨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 힘든 계절이다. <br/> <br/>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증이 나타나 혈액농도가 진해지고 일시적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당뇨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더운 여름철, 빙수와 아이스 음료 등 당분이 높은 여름 간식들 때문에 당뇨환자들의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렵다. <br/> <br/>이에 따라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건강한 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이 주목받고 있다. <br/> <br/>◆밥 두 숟갈 덜고 그린 키위 먹으면 혈당 조절에 '好好' <br/> <br/>키위는 달콤한 맛에도 혈당 조절에 좋은 과일이다. 키위 내 식이섬유는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사과나 오렌지의 2배에 가까워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지연할 뿐 아니라 혈당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r/> <br/>그린 키위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팽창하면서 당이 소화기관 내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늦추는데, 이는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 혈당 증가 곡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 <br/> <br/>최근 쌀이나 빵 등 고탄수화물 식품의 일부를 키위와 대체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뉴질랜드 국립 식품 과학 연구소인 플랜트앤푸드 존 먼로 박사에 따르면 키위 100g을 섭취했을 때 키위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포도당 6g과 비슷하다. 탄수화물의 총량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키위 2개를 먹을 경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탄수화물 식품보다 30~40% 줄어든다. <br/> <br/>즉,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두 세 숟갈만 덜고 키위 1개를 먹으면 혈당 상승폭을 감소시켜 혈당 반응 속도를 지연시킨다. <br/> <br/>◆혈당 수치 낮추는데 효과적인 요리 재료 '양파' <br/> <br/>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채소로 양파가 있다. 양파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음식 재료로, 불에 굽거나 볶으면 단맛이 강해지고 풍미가 깊어지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체력 보강에 효과가 좋다. 양파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리신 성분은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게다가 양파에는 인슐린 활성화를 돕는 크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크롬은 당 수치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다. 양파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노보이드 케르세틴 성분도 풍부한데, 케르세틴은 당뇨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양파는 하얀 양파보다 자색양파가 당뇨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파에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성분은 혈액 내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병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br/> <br/>◆체내에서 인슐린 작용하는 '우엉' <br/> <br/>우엉은 당뇨병 환자에게 자주 권하는 채소인데, 이는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때문이다. 우엉 내 당 성분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이눌린은 섭취 시 체내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 <br/> <br/>또한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눌린은 저장성 다당류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에 의해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다. <br/> <br/>아울러 우엉을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거리는 성분인 불용성 식이섬유소로 알려진 리그닌은 장내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엉은 인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사포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사포닌은 고지혈증을 예방할 뿐 아니라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예방과 피부 건강에 좋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br/>사진=제스프리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3.txt

제목: 맛도 건강도 주렁주렁! 여름건강, 우리포도로 챙기세요~  
날짜: 20160802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2142154048  
본문: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는 날씨 탓에, 힘이 쭉쭉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쾌지수까지 높아져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기 쉬운 여름철에는 그 여느 때보다도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br/> <br/>여름철 건강은 수분섭취는 물론 체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싱싱한 우리포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많은 제철과일 중 슈퍼푸드 열풍이 수입과일에 집중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토종 슈퍼푸드다. <br/> <br/>수입포도의 경우 푸드마일리지, 즉 유통과정이 길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운반으로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포도는 수확 후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를 만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하고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br/> <br/>세계적인 슈퍼푸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지닌 우리포도가 가진 장점은 아주 다양하다.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김후진 회장은 “<span class='quot0'>갈증날 때 포도를 한 입 먹으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비타민 A·B·C·D와 함께 무기질 또한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span>” 며 “<span class='quot0'>특히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 우리포도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뇨작용으로 부종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최근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하여 암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보랏빛 과일의 상징인 안토시아닌은 포도껍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무더운 여름철, 슈퍼푸드 국산포도로 체력 보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달콤한 맛에 한 번, 건강함에 한 번!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국산포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것이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4.txt

제목: “암 전이여부 영상으로 조기 진단”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1210442226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전이를 현재보다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생체 영상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경북대병원 이재태(사진)·전용현 교수와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가 ‘고(高)민감성 고(高)안정 방사선 동위원소 결합 금 코어셀 나노입자’를 이용한 조영제로 암 전이 여부를 발견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나노학술지 ‘스몰’(Small) 온라인판에 지난달 21일 게재됐다. <br/> <br/>암 전이 여부는 통상 ‘감시 림프절’을 진단해 찾아낸다. 감시 림프절은 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때 첫 번째로 전이되는 림프절이다. 기존에는 암 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해 감시 림프절을 찾아낸 뒤 직접 떼어 내 전이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촬영만으로 감시 림프절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부작용과 독성 확인만 마치면 향후 1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5.txt

제목: 인도 빈민가 신문팔이에서 1조6600억원짜리 기업 일군 30대 CEO  
날짜: 20160801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801195613329  
본문: 암바리시 미트라의 삶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와 몹시 닮았다. 출처=암바리시 미트라, BBC방송 <br/>열네살 그는 학교수업을 밥 먹듯이 빼먹던 문제아였다. 1년 뒤엔 인도 뉴델리 슬럼가에서 신문과 차를 파는 가출소년이었다. 열일곱살 때 정보기술(IT) 업체를 경영한 적도 있지만 2000년대 대부분은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만 했던 반백수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가치만 15억달러(약 1조6627억원)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최고경영자(CEO)이다. 그의 삶은 빈민가 소년이 퀴즈쇼에서 우승해 백만장자가 된다는 내용의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닮았다. <br/> <br/>영화같은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영상인식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리파(Blippar)의 설립자 암바리시 미트라(37)다. 블리파는 눈 앞에 있는 물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해당·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이다. 노트북을 스캔하면 ‘랩탑’과 데스크톱, 태블릿PC, 터치패드, 안드로이드 OS 등의 항목이 나타나고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위키피디아나 언론에 기술된 관련 정보를 표시해준다.  <br/> <br/> <br/>블리파는 2011년 설립 5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타트업이 됐다. 블리파를 다운받은 사람은 7월말 현재 170개국 6500만명. 말레이시아 정부(5400만달러)를 비롯해 9900만달러(약 19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코카콜라와 네슬레, 유니레버 등 세계적 제조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CNBC와 블룸버그,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이 선정하는 ‘세계 주요 혁신기업’에서 수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br/> <br/>미트라 블리파 CEO는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삶을 "온갖 모험의 연속"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인도 동부 자르칸트주 탄광마을 단바드에서 자랐다. 자신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은 데 아버지가 기능공이 되라고 해 자주 결석을 했다고 한다. 그는 열네살 때 가족에게 "뭄바이로 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기회의 땅’ 뉴델리로 갔다. 뉴델리 서남부의 슬럼가의 화장실도 없는 좁은 방에서 6명과 함께 잠을 자며 낮엔 신문과 잡지를 팔고 밤엔 차를 팔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 <br/> <br/> <br/>인도 뉴델리 슬럼가에 살던 시절의 암바리시 미트라(중앙) 소셜앱 '블리파' 공동설립자. 출처=BBC첫 번째 기회는 열여섯살 때 찾아왔다. 신문에서 우연히 읽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중하류층 인도 여성을 위한 무료 인터넷 제공 사업’을 냈는데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어린 암바리시는 상금 1만달러(약 1100만원)로 여성 생활정보 포털사이트 ‘위민인포라인(WomenInfoline)’을 개설했다. 방문자수가 늘면 광고비가 들어올테고 이를 통해 인터넷망 개설과 또다른 수익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었다. 한때 직원을 125명까지 늘렸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별다른 수익이 없어 2000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br/> <br/> <br/>그의 생애 첫 사업아이템인 여성 전용 포털사이트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출처=BBC방송 <br/>그는 위민인포라인을 팔고 남은 돈으로 영국으로 건너갔다. 영국 보험정보 제공 사이트 ‘스위프트커버’나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스턱’ 등 여러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미트라 CEO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내가 벌인 모든 일은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창업 아이디어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아이템을 수익으로 연결하진 못했다"며 "2010년 즈음엔 사업 파트너였던 한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기도 했는데 1주일 통틀어 6시간만 일했던 거의 반백수였다"고 말했다. <br/> <br/>잇단 실패에 따른 좌절과 분노를 술잔에 채워 잊어버리던 2011년 어느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런던 한 술집에서 보험사 근무 시절 친하게 지냈던 오마르 타예프와 술을 마시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20파운드짜리 지폐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떨까"라고 농담을 했는데 타예프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왕과 미트라, 술집 다른 손님들 얼굴을 겹쳐보이게 하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br/> <br/> <br/>미트라 블리파 대표(왼쪽)와 함께 2011년 AR 기술을 활용한 상품 정보 제공 모바일 앱을 개발한 오마르 타예프. 출처=BBC방송 <br/>미트라는 "다음날 동 틀 즈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하는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IT 전문가 크리스 그린은 BBC에 "블리파의 급성장 요인 중 하나는 전문가 수준의 사양이나 보조장비 없이 스마트폰만 갖고도 간단하게 특정 상품을 체험하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앱 구현방식이 매우 친숙하고 문화장벽이 없다는 점도 블리파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br/> <br/>미트라 대표의 다음 목표 중 하나는 블리파에 오디오 기능을 추가해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최근 뉴델리를 다녀왔다는 미트라 대표는 "10대 시절 뉴델리에 있을 때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대로 하겠다’는 생각 뿐이었다"며 "온갖 역경과 모험이 가득했던 그 시절 그 경험으로 지금 매우 들떠 있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br/> <br/>"내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는 미트라 CEO(오른쪽). 출처=BBC방송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6.txt

제목: 전립선암도 조기 발견 중요… 수술 후 단거리 비행은 가능  
날짜: 2016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31205849679  
본문: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불리는 ‘전립선암’의 발병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2015년 연령별 환자 추이를 보면 40~50대 환자가 4064명에서 5293명으로 늘었다. 이제 ‘아버지암’이 아닌 ‘형님암’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br/> <br/>김광현(사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의 도움으로 전립선암에 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살펴봤다. <br/> <br/>Q:초기 전립선암은 치료없이 방치해도 상관없다? <br/> <br/>A:아니다. 초기 암이라도 악성도가 높은 암은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진단이 중요하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br/> <br/>Q:전립선암 수술 후 성생활은 가능한가? <br/> <br/>A:가능하다.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하게 되면 정낭과 전립선을 모두 적출하기 때문에 사정액이 나오지 않지만 수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모두 성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 전 성기능이 좋았고, 초기 암에서 신경보존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 60∼70% 이상은 회복된다. <br/> <br/>Q:전립선암 수술 후 비행기는 언제부터 탈 수 있나? <br/> <br/>A:환자에 따라 다르다. 환자의 상태나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30분∼1시간 정도 단거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장거리, 장시간 비행은 기압의 영향으로 수술 부위의 압박과 통증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비행계획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br/> <br/>Q: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br/> <br/>A: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토마토나 녹색 채소,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 라이코펜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된다. 또 비만 남성의 경우 일반 체형의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20% 높으므로 일주일에 5일, 1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권유한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7.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 외  
날짜: 2016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31203516991  
본문: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 <br/> <br/>KEB하나은행이 서울의 관광시설 이용권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사진)’ 판매를 시작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1일 패스로,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고궁, 미술관, 한류체험관 등 서울 대표 관광지 16곳의 유료 관광지 입장도 할 수 있다. 첫 시설을 입장한 때부터 24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 기능이 내장돼 있어 원하는 만큼 충전해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1일권에 3만9900원이다.  <br/> <br/>‘참좋은가족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br/> <br/>동부화재가 지난 7일 출시한 ‘참좋은가족건강보험’(사진)진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간편고지 보험에 암·뇌·심장 등 3대 질병의 재발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최초로 도입한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부화재는 “<span class='quot0'>보험소외 계층에게 재발률이 최대 70%에 이르는 3대 질병의 재발을 보장해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상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합정역 복합문화공간 ‘판 스퀘어’ 개관 <br/> <br/>신한카드가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 있는 메세나폴리스에 복합문화공간인 ‘판(FAN) 스퀘어’(사진)를 개관했다. 판 스퀘어는 420석 규모의 극장 ‘라이브홀’과 991.7㎡(300평) 규모의 복합공간 ‘드림홀’로 구성됐다. 라이브홀은 여러 밴드의 콘서트와 뮤지컬, 연극 등의 콘텐츠로 운영되고, 드림홀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부터 전시·체험전까지 폭넓은 장르의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8.txt

제목: [르포] 휴가철 고속도로 '민폐운전' 기승… 암행순찰 동행기  
날짜: 2016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31185731677  
본문: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저희 애 셋이랑 합쳐 6명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br/> <br/>31일 오전 1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부근 비상주차대. 정차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윤광득(49) 경사에게 멋쩍은 표정으로 사정했다. <br/> <br/>A씨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암행순찰차(일반 승용차로 위장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 순찰차)에 걸렸다. 도로교통법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하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가 앉은 운전석과 조수석 뒤로 아이 셋이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윤 경사는 계도 조치를 했고 한숨 돌린 카니발 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했다. <br/> <br/>여름휴가 절정기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는 와중에 어김없이 ‘얌체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려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짜증 지수’를 높이고 있다. 휴가철이 본격화한 이번 주말 동안 암행순찰차 7대가 집중 투입된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만 총 224건의 교통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날 기자가 동승한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암행순찰차 1호도 한 시간에 2∼3건 꼴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br/> <br/>한국도로공사가 예상한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평상시 일요일 수준보다 10% 이상 많은 432만대에 달했다. <br/> <br/>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은 31일 암행순찰차를 타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br/>성남=남정탁 기자위반 행위별로는 A씨 같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많았다. 오전 11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차량들이 정체 탓에 시속 40㎞도 내지 못할 때 길이 트인 버스전용차로를 시속 15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카니발 차량이 나타났다. 옆차로를 주행 중이던 암행순찰차 조수석의 김용석(34) 경장이 잽싸게 이 차량 내부를 훑고선 “저 차에 (필요한) 인원이 안 탔어요”라고 소리쳤다. 운전대를 잡은 윤 경사가 곧바로 버스전용차로로 변경해 가속하며 문제의 차량을 뒤쫓았다. 차량 뒷유리를 통해 승차인원 수를 다시 확인한 윤 경사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뒤 카니발 차량 옆에 다가간 뒤 스피커를 통해 비상주차대로 유도했다. <br/> <br/>여름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라던 카니발 차량 운전자 김모(42)씨는 “승합차라 문제 없을 줄 알았고, 암행순찰차에 잡힐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br/> <br/>암행순찰차가 지난 3월 얌체·난폭운전자 단속에 투입됐을 때만 해도 “함정수사 아니냐”고 따지거나 “당신 경찰 맞느냐”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낯선 단속 수법에 반발하는 운전자가 많았으나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다만 경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정하는 ‘읍소 운전자’는 여전히 적지 않다. <br/> <br/>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포터 차량 운전자 박모(48)씨도 “좀 더 싼 걸로 끊어주시면 안 되느냐”고 호소했지만 어림없었다. 윤 경사는 “<span class='quot0'>경험 많은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고지하면 보통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이 없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끊어주면 안 되느냐’고 사정한다</span>”고 귀띔했다. <br/> <br/>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인데도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민폐 운전자’도 많다고 했다. <br/> <br/>실제 오전 순찰을 마칠 때쯤 갓길도 아닌 고속도로 가장 바깥 차로에 정차한 고급 외제차량이 보였다. 차들이 시속 100㎞ 안팎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오른쪽 깜빡이만 켠 채 멈춰 서 있어 위험천만했다. 암행순찰차가 다가가 확인해 보니 운전자 B씨가 한가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데다 메모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정차했다”고 태연히 말했다. <br/> <br/>윤 경사는 “<span class='quot0'>운전면허시험을 통과했음에도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무관심하다 보니 이런 황당한 행태를 하는 운전자들이 가끔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처럼 사소한 위반 행위가 결국 사람 목숨을 빼앗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경찰은 전국 고속도로에 총 10대를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를 오는 9월까지 22대로 늘리고, 서울도시고속도로에도 1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br/> <br/>성남·용인=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29.txt

제목: "달 다녀온 우주인들, 심혈관 질환 고통"  
날짜: 2016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9190153989  
본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심우주(Deep space)를 경험한 우주인들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립대 마이클 델프 교수의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과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심우주란 지구 자기권을 벗어난 우주로, 연구팀은 이곳에 존재하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달 표면에 발을 딛는 등 우주에 직접 나간 우주인은 그러지 않은 우주인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가량 높았다. 또 달에 다녀온 우주인은 지구에 가까운 지구 저궤도(LEO) 안에서만 활동한 우주인보다 심장병 발병 가능성이 4배 많았다. <br/> <br/>지구 자기권은 방사선을 내포한 은하 우주선(은하계를 날아다니는 고속입자)이나 태양 입자의 지구 진입을 막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아폴로 달 계획에 참가한 우주인은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심우주로 간 유일한 사람들이다. 1961∼1972년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을 통해 달 표면을 밟은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 등 12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우주인 7명 중 3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고 2명은 암, 1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0.txt

제목: 달 등 지구 자기장 밖 다녀온 우주인, 심혈관 질환 사망률 월등히 높아  
날짜: 2016072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9092151816  
본문: 1960~70년대 인류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던 달탐사 우주선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주인들이 심혈관 계통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이는 심우주 방사선이 우주인의 인체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조사 자료이다. <br/> <br/>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립대 인체 과학 학부장인 마이클 델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과 심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날 과학잡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br/> <br/>이에 따르면 달에 다녀온 우주인의 경우 우주선에 탑승하지 않은 우주인이나 우주로 나가지 않은 우주인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5배 가까이 높았다. <br/> <br/>또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구 저궤도(LEO) 안에서만 활동한 우주인과 비교해도 달에 다녀온 우주인의 심장병 발병 우려는 4배 많았다. <br/> <br/>미국 항공우주국은 1961∼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을 운용, 1968년부터 1972년 사이 11차례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보냈다. <br/> <br/>이 중 9번은 지구궤도 바깥 심우주 탐사를 벌여 최초로 달에 내린 아폴로 11호 등 6번은 달에 도착했다. <br/> <br/>달 표면을 밟은 우주인은 닐 암스트롱, 에드윈 버즈 올드린을 포함해 12명이다. <br/> <br/>이들을 포함해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심우주로 간 우주인은 모두 24명이다.  <br/> <br/>지구 자장이 지배하는 지구 자기권은 방사선을 내포한 은하 우주선(은하계를 날아다니는 고속입자)이나 태양 입자의 지구 진입을 막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br/> <br/>연구팀은 심우주에 다녀온 전체 우주인 24명 중 사망한 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br/> <br/>올해 2월에 사망한 에드거 미첼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br/> <br/>그 결과 사망한 우주인 7명 중 3명(43%)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 2명(29%)은 암, 1명은 사고(14%)로 유명을 달리했다. 나머지 1명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다음으로 쥐를 아폴로 우주인이 겪은 것과 비슷한 방사선 환경에 두고 인간에겐 20년과 같은 시한인 6개월 후의 상태를 봤더니 실험 쥐들이 죽상 경화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동맥 경화 현상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br/> <br/>델프 교수는 "쥐 실험 결과는 심우주 방사선이 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서 "우리는 그간 심우주 방사선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인체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1.txt

제목: 고혈압·당뇨·5대암 확진검사비 안 낸다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8190954517  
본문: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및 5대암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은 2018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와 건강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검진비가 지원된다. 치료를 위해 바로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확진검사 비용을 내야 했다. <br/> <br/>2018년부터는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자신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검진체계가 개선되면 비용 부담이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2차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 결과 88만8807명이 고혈압 의심 판정을, 51만266명이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38%에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br/> <br/>암 검진의 경우 현재는 위암과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만 확진검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건강검진자 중 유방암 의심자는 4983명, 간암은 2541명, 자궁경부암은 623명이었다. 현재는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진료의 50%(유방암 6만1000원·간암 9만6000원·자궁경부암 1만7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br/> <br/>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큰 ‘생활습관상담’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자인 40세와 66세에게만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해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 생활습관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r/> <br/>정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게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강 예측치도 제공한다. 또 우편으로만 제공되던 건강검진결과 통보를 모바일과 이메일로도 확대한다. <br/> <br/>아울러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76.1%였으나 중증장애인은 59.7%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도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자폐 등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외국어 번역본(현재 12개국)에 러시아어, 미얀마어를 추가한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정신과 진료기록' 걱정 안해도 될까?  
날짜: 20160728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8050601742  
본문: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엔 정신질환이 있어도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했는데요. 이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 상담센터도 붐비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그저 치료가 필요한 일반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r/>심각한 정신질환도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이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br/> <br/>28일 유엔(UN) '2016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58위로, 전년보다 11계단이나 하락했다. <br/> <br/>◆우리나라 행복지수 58위, 전년보다 11계단 하락 <br/> <br/>이처럼 낮아진 행복지수를 반영하듯 젊은 층에서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청년 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7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집·꿈·희망을 포기한 세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사회) 등의 자조 섞인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br/> <br/>이는 직장을 잡고 결혼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대변하는 용어들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가끔은 이런 증상이 분노로 표출되어 끔찍한 사건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다. <br/> <br/>물론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구조적인 분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개개인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빼놓을 순 없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신건강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br/>심각한 수준의 정신질환도 처음엔 자존감 상실이나 우울증·불안감처럼 개인의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앓게 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병증이 오래 지속되며, 그로 인한 개인 및 가정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질 수 있다. <br/> <br/>◆사회적 시선 두려워 정신건강 관리에 소홀 <br/> <br/>실제로 정신건강에서 시작된 질병은 평생에서 차지하는 질병 부담 기간이 22.9%에 달해 단일 질환 중 가장 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 정신질환으로 수명에서 손해를 보는 기간도 전체 삶의 7.4%로, 암(7.6%)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br/> <br/>이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br/> <br/>게다가 오랜 질병 부담기간은 경제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소득수준은 일반인의 약 78%, 경증 정신질환자는 약 91% 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해외 사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br/> <br/>지난해에는 단일 정신질환 환자의 진료비가 연간 695만9000원으로, 모든 질환을 통틀어 세번째로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br/> <br/>◆정신질환 자체를 인정 안하려고 해 <br/> <br/>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보니 사소한 질환인데도 치료를 꺼리거나 본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의식적으로 질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br/> <br/>그러나 이럴 경우 사소했던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개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 △국가·사회적으로 생산성 손실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br/> <br/>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정신건강문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울증과 자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3826억원으로, 5년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 또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br/> <br/>◆생명존중문화 확산 위한 더 많은 관심 필요 <br/> <br/>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개인은 물론 가족·사회 전체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아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3.txt

제목: IS 프랑스 성당 테러, 누리꾼…“살인하는 순간 그냥 양아치고 살인악귀다”  
날짜: 20160728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8000733612  
본문: 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br/>IS가 프랑스 성당 테러 이후 다음 목표가 미국과 영국이라고 협박하는 게시물을 배포했다. <br/>지난 26일(현지시각) 국제테러 감시 단체 시테(SITE)는 홈페이지를 통해 IS가 텔레그램 계정에서 이처럼 추가 공격 대상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br/>텔레그램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사진과 함께 ‘당신들 영토에서의 우리 전투.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기다려라. 곧 당신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문구에다 여신상 주위에 화염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덧입혀서 게재했다.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ami\*\*\*) 어떤 거창한 명분을 가져와도 민간인, 노약자를 살인하는 순간 그냥 양아치고 살인악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vudg\*\*\*) 귀신들은 뭐하는지? 인류평화의 암적 존재들 안 데려가고!” “(lucid\*\*\*) 연이어 터지는 IS 주도의 테러에 대해서 이슬람 커뮤니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journe\*\*\*) 지구촌 테러, 모든 테러와 범죄를 혐오하며”등의 반응을 보였다. <br/>이슈팀 ent@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4.txt

제목: '5色 푸드'로 여름철 건강 지킨다  
날짜: 2016072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7155506372  
본문:   <br/> <br/>맛과 영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컬러푸드(Color Food)에 대한 관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br/> <br/>컬러푸드란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영양과 색깔에 따라 식품을 분류 해 놓은 것으로 빨간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 흰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br/> <br/>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빨강, 노랑, 녹색 등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는 식물 속 화학 물질인 ‘피토케미컬’ 때문으로, 갖고 있는 영양소에 따라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몸에 좋은 오색 컬러푸드의 풍부한 영양소와 효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br/> <br/>◆'그린푸드' 키위=변비 해소와 장 건강 관리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키위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그린 키위에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피부 재생을 돕는다. 또 키위는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지연 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 키위에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영양소도 풍부하며 영양소 밀도 1위를 자랑하는 과일인 키위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특히 효과적인 엽산을 함유하고 있다. <br/> <br/>◆'레드푸드' 토마토=레드푸드의 대표적인 채소 토마토는 리코펜과 비타민 C와 B군이 다량함유 되어있다.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은 항암작용의 효능을 가졌으며 몸속의 유해한 독소를 제거,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가졌다. 또한 리코펜은 LDL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동맥경화를 예방, 피를 맑게 해준다. 특히 레드푸드는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진, 노화방지에도 뛰어나다. <br/> <br/>◆'옐로우푸드' 당근=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눈 건강 예방에 특히 탁월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 준다. 또한 비타민 A는 무더운 여름날씨 인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외선의 노출로 인한 피부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옐로우 푸드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서 암을 예방하고 체내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br/> <br/>◆'블랙푸드' 오디=특히 검은색 음식에 풍부한 안토아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억제와 더불어 유해산소를 제거해주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오디는 블루베리보다 1.5배 더 많은 안토아시아닌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시력개선과 만성질환, 탈모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br/> <br/>◆'화이트푸드' 배=화이트 푸드에 다량 함유된 성분인 안토크산틴은 체내에 활성산소와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항암효과를 가졌다. 특히 배에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뇨작용의 운동을 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 안토크산틴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 <br/> <br/>한편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하루에 5가지 컬러푸드인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잘 챙겨먹자는 ‘Five a Day’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무더위로 지친 몸을 달래줄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알록달록 오색 컬러푸드로 건강한 식탁을 꾸며보자.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5.txt

제목: 암웨이미술관, 알렉스 세나의 국내 첫 전시회  
날짜: 20160727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7104843661  
본문: 한국암웨이(대표이사 박세준)는 분당 소재 암웨이미술관에서 8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알렉스 세나 특별기획전’ 「Art is alive - Garden of Mirrors」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r/> <br/>알렉스 세나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의 마이애미 전시에 2013년 남미 작가 최초로 초대된 바 있다. <br/> <br/>선천적 색맹이라는 약점을 오히려 흑백의 예술로 승화시키며 호응을 얻고 있는 알렉스 세나는 주로 사랑과 화합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브라질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폭 넓은 활동 무대를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버려진 뒷골목에서부터 명품 매장 인테리어 등 다채로운 장소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전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br/> <br/>암웨이미술관의 이번 전시에서는 알렉스 세나의 드로잉, 회화, 조각 작품 20여 점이 소개된다. 특히 기존 대형작품 준비 과정에서의 습작 및 캔버스 작품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며,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담아낸 회화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br/> <br/>이와 더불어 그래피티 아티스트라는 작가의 특성을 살린 실험적 전시장 구성 또한 눈 여겨 볼만 하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암웨이미술관 벽면에 알렉스 세나가 직접 작업을 하는가 하면, 녹색 식물과 화초로 꾸며진 ‘전시장 정원’이 별도 마련된다. <br/> <br/>한국암웨이 박세준 대표는 “<span class='quot0'>한국암웨이는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믿음으로 암웨이미술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그래피티 아트라는 색다른 장르의 매력을 경험함과 동시에 알렉스 세나가 선보이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시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6.txt

제목: 대표적 건강 정보 10가지 뒤에 숨겨진 오해와 진실  
날짜: 20160727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7103223784  
본문: “<span class='quot0'>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span>” “<span class='quot0'>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span>”.  <br/>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많은 정보를 찾고 접한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일까? <br/> <br/>미국 온라인매체 리틀띵스가 흔한 건강 정보 10가지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소개했다. <br/> <br/> <br/>1.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사과는 비타민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과일과 채소가 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 <br/> <br/> <br/>2. "<span class='quot0'>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한다</span>"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수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인체는 탈수상태가 되기 이전에 물을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섬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br/> <br/> <br/>3. "아침 식사가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하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당신이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본피트니스닷컴에 따르면, 최근 2가지의 연구에서 아침 식사가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진실은, 당신이 언제 식사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br/> <br/> <br/>4. "TV를 많이 보는 것은 좋지 않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너무 놀라지 마라. 적당한 TV 시청은 괜찮다. 하지만 너무 많이 TV를 보는 습관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TV 시청에 시간을 뺏겨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르면 중년기부터 뇌에 악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은 인지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 <br/> <br/>5. "닭고기 수프가 감기에 좋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뉴욕 타임스는 “<span class='quot1'>닭고기 수프가 정말 의학적 가치(약효)를 가질 수 있다</span>”라고 주장한다. 닭고기 수프는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호흡기의 회복에 도움을 줘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준다. <br/> <br/> <br/>6.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피트니스 전문가들은 운동 중간의 휴식시간이 당신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당신이 운동을 쉬는 날에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 건강 정보 사이트 쉐이프닷컴은 너무 많은 운동은 수면 장애, 탈진, 식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br/> <br/> <br/>7. "젖은 머리카락은 감기에 들게 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젖은 머리로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건강 정보 사이트 헬스라인닷컴에 따르면, 당신이 이미 아픈 상태이지 않은 한 샤워를 한 직후 집을 나서는 것이 당신을 감기에 들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느껴진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 <br/>8. "땀 억제제가 암을 유발한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땀 억제제 또는 데오도란트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미국 의학정보사이트 웹엠디(WebMD)는 “국립 암 연구소는 두 제품과 유방암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br/> <br/> <br/>9. "<span class='quot0'>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다</span>"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진실 <br/>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클린팩스닷컴은 “분수식 식수대보다 화장실과 손잡이에서 더 적은 세균이 발견됐다”며 “학교 식수대에서는 평방 인치 당 27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전했다. <br/> <br/> <br/>10. "삼킨 껌을 소화시키려면 7년이 걸린다" <br/>Tayra Lucero and Heeral Chhibber for LittleThings근거 없는 믿음 <br/>껌은 분명히 삼키도록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다. 하지만 이따금 당신이 우연히 이것을 한 덩어리 삼키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다. 우리 몸은 껌을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껌은 당신의 위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당신의 소화기 계통을 따라 이동하고 대변으로 배출된다. <br/>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7.txt

제목: 한-일 양국 국립암센터, 암 정복 위해 손 맞잡아  
날짜: 2016072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6151920467  
본문: 한국과 일본의 국립암센터가 암 정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br/> <br/>국립암센터는 26일 일본 국립암센터와 인력교류와 암 공동연구, 암 연구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r/> <br/>일본 국립암센터는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으로 1962년에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암 관리를 위해 세워졌다. 한국 국립암센터는 2001년부터 일본 국립암센터와 매년 암 연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br/> <br/>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히토시 나카가마 일본 국립암센터 원장은 ‘정밀의료와 미충족 의료수요에 초점을 맞춘 일본 국립암센터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양 기관은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 주도 암 정복기관으로 수많은 공통된 미션과 협력 의제를 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이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교류협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8.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누가 '니켈 공포' 부추기나?  
날짜: 201607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5050738744  
본문: 공원 잔디밭의 제초제부터 중금속이 축적된 식물이나 생선 등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중금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헤어 파마나 염색 등으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량이지만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물 속의 니켈 성분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켈이 중금속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 물이나 음식에 녹아 든 니켈이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니켈은 화학적으로 인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다, 비교적 다른 중금속 보다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니켈의 유해성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막연한 니켈 공포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금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니켈의 과도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r/>최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문제가 된 니켈 도금 이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번지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br/> <br/>전문가들은 니켈이 다른 중금속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막연한 '니켈 공포'에 휩싸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r/> <br/>◆막연한 '니켈 공포' 어쩌나 <br/> <br/>25일 업계에 따르면 니켈은 수도꼭지나 그릇 등을 도금할 때 흔히 쓰이는 물질 중 하나이다. <br/> <br/>소화기로 들어갔을 경우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연구결과나 국내 안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니켈은 크롬·망간·수은 등의 중금속 보다는 유해성이 적고, 체내 흡수율도 낮다. 이러한 니켈의 특징 때문에 도금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br/> <br/>주로 니켈은 정수기 부품에 사용되고, 동전을 비롯 주전자·수도꼭지 등 여러 가정용품에 널리 쓰이는 물질이다. 니켈은 녹차·김치·초콜릿 등의 일부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다. <br/> <br/>◆니켈,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하는 물질인 것은 분명해 <br/> <br/>반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인다고 해서 꼭 안전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니켈은 국제암연구소나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쌓이거나 체내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신장에 쌓일 경우 폐암이나 신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 <br/> <br/>실제 미국 뉴욕대 보고서를 보면 만성적으로 니켈에 노출됐을 경우 심혈관계질환·고혈압 등을 유발한다. <br/> <br/>다만,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치가 없어 ‘얼마 이상이면 위험하고, 이하면 안전하다’라는 기준이 없다. 특히 니켈은 다른 중금속에 비해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br/> <br/>또한 중금속의 체내 농도를 측정하는 중금속 검사의 경우 모발검사 보다는 소변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모발검사의 경우는 염색이나 파마·흡연 등이 중금속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무조건 '좋은' 것도 없지만, 무조건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아 <br/> <br/>물론 코나 폐 등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니켈은 발암물성이 인정되나, 단순히 물이나 식품 등을 통해 니켈 섭취는 현재 발암성이 있다고 입증된 과학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다. 다시 말해, 물에 섞여 마시게 되는 니켈은 '발암물질'이 아닌 '독성물질'이라는 것이다. <br/>아울러 유해물질의 독성 여부 판단을 위해 진행하는 동물실험의 경우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인간과 100% 동일한 생리구조를 가진 동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기간 노출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황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br/> <br/>달리 말해, 유해물질이 동물에게 끼친 독성 여부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br/> <br/>◆막연한 불안감의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정부·기업이 해소 나서야 <br/> <br/>이러한 물질의 유해성과 무해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동안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유해하다는 정보 제공으로 실제 이상의 불안감에 떨게 만드는 것도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해성을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뿐이다. <br/>‘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옛말과 같이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번의 니켈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촉각이 날카롭게 곤두세워져 있을 수 밖에 없다. <br/> <br/>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시가 필요할 때이다. <br/> <br/>김현주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39.txt

제목: [나의삶 나의길] ‘역사학자’ 변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날짜: 2016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2214719723  
본문: “인터뷰 한번 하시죠.”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했지만 늘 퇴짜였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span class='quot0'>세상에서 빨리 잊히고 싶은 사람인데 인터뷰는 무슨…</span>”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꺼렸다. 박근혜정부 출범 즈음 퇴임한 이후 일절 삼갔다. “<span class='quot0'>후배들 일하는데 방해되잖아.</span>” 그는 “이제 나의 시대가 아니다”라며 매번 고개를 저었다. 그를 인터뷰하기까지 근 1년이 걸렸다. “<span class='quot0'>이거 또 낚이는 거 같은데….</span>” 매번 퇴짜놓은 게 미안했는지 마지못해 인터뷰에 응했다. 단, 조건이 붙었다. “경제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역사 얘기만 하자”고 했다. 퇴임 후 그는 ‘역사학자’로 변신했다. 광활한 고대사에 푹 파묻혀 산다. 인생2막의 극적 반전이다. 경제관료로 위기마다 해결사였던, ‘대책반장’ 김석동이 사학자로 변신할 줄이야. <br/> <br/>만나자마자 그는 세계지도부터 펼쳤다. 펜끝이 중국 동북부, 옛 만주땅에서 출발해 몽골, 카자흐스탄을 지나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찍고 헝가리까지 이어졌다. 8000㎞에 걸친 광활한 영토다. 그가 연구하는 한민족 고대사의 현장이다. 그의 몸과 마음은 수시로 이 광활한 영토 곳곳을 누빈다. 거기에서 수천년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맞춰가는 중이다. 서울 충정로 서대문타워 10층 그의 사무실엔 그 흔적들이 그득했다. 그의 현재 직함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다. 법무법인 지평이 만든 연구소다. <br/> <br/>-지금 고대사라니 왠지 한가한 느낌이다. <br/> <br/>“고대사 연구는 현재의 문제다. 한가한 주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그 무기를 쓸 것 아닌가. 그러니 나도 한가할 수 없다. 사는 게 이렇게 바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다.” <br/> <br/>-고대사가 왜 현재의 문제인가. <br/> <br/>“지난 60년 우리는 폐허 속에서 일어났다. 세계 11번째 나라를 만들었다. 기적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장 중요한 게 한민족 DNA다. 끈질긴 생존본능, 승부사·개척자 기질, 강한 집단에너지, 이 네 가지가 특징이다. 이런 한민족의 역동성이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유라시아 기마민족의 DNA다. 수천년 전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끊기고 사라졌다. 이 역사를 복원해 한민족의 정체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 <br/> <br/>그러고 보니 우리는 고대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고조선을 대동강 유역의 작은 정치적 사회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다. 김 전 위원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풀어놓는 고대사는 어렴풋한 통념을 뒤집는다. 고조선은 BC 24세기쯤 건국해 만주 일대까지 장악한 거대국가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국가가 유라시아 기마군단의 원류라고 했다. 그는 특유의 입담으로 새롭고, 놀랍고,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쏟아냈다. <br/> <br/>예를 들어 12세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3300만㎢의 땅을 정복한 칭기즈칸은 고구려의 후예다. 시조 주몽의 후손이며 발해(후고구려)를 세운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19세손이다. 북방민족 사학자 전원철 박사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는 ‘고구려-발해인 칭기스 칸’의 저자다. 오랑캐 정도로 기억하던 흉노, 선비, 돌궐, 여진도 한민족의 혈족이거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BC 3세기 몽골고원을 통일한 흉노는 중국인에게 만리장성을 쌓게 할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span class='quot1'>흉노는 고조선의 속주로 우리에게서 분리된 동족</span>”이라고 썼다.  <br/> <br/>세계지도를 펼쳐가며 한민족의 활동무대를 설명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근현대 사학자들은 고대사 연구에 대해 무협지 같다고 하던데. <br/> <br/>“모르는 소리다. 고증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ZDF TV가 흉노 후예인 훈족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신라 기마인물형 토기 형태가 훈족의 이동경로에서만 발견된다면서 훈족의 원래 고향이 한반도일 수 있다고 방송하기도 했다. 한국전 참전 때 터키군 여단장이 ‘한국과 우리는 혈맹국’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선조 돌궐이 고구려와 혈맹이었기에 한 말이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고조선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민족 고대 역사는 최소한 고조선부터는 제대로 기록되어야 한다</span>”고 했다. “<span class='quot0'>고조선이라는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고, 또 이어졌는지, 이제 그 역사가 한민족 성장 DNA를 설명해줄 차례</span>”라는 것이다. 압축하면 그의 고대사 연구는 “기마민족 DNA를 살려 꽉 막힌 미래를 열자”는 것이다. 그는 “우리 무기가 뭐냐. 한민족 DNA다. 이거 갖고 다시 붙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펴낸 저서 ‘김석동의 대한민국 경제와 한민족 DNA’는 이 같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br/> <br/>-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괴리감이 있지 않나. 미래세대는 지금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br/> <br/>“헬조선이라는 건 결국 형평의 문제다. 모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추가 형평인데 이게 깨진 것이다. 시장을 지키려면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선 현재를 위한 것이 복지다. 복지의 기본 개념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이다. 또 미래엔 사람 팔자를 바꿀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다. 어떤 거지 같은 정부도 이 두 가지는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최소한의 장치인 복지 갖고 이상한 논쟁이나 하고 ‘개·돼지’ 같은 소리나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교육정책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br/> <br/>그의 ‘한민족 DNA 승부론’은 추상적 담론에 머물지 않는다. “<span class='quot0'>지구촌 미래를 살리기 위해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장을 이끌어내는 진원지를 한반도로 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span>”고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전쟁 없는 유럽’의 개념에 균열이 생기고, 동북아도 미·중의 긴장 구도로 전환되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는 이런 구상을 실현할 핵심 프로젝트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중국횡단철도(TCR), 4개 대륙 철도망과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span class='quot0'>이 길들은 수천년 전부터 한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고 활동하던 무대</span>”라며 “<span class='quot0'>철의 실크로드가 다시 한민족의 활동무대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의미심장하게 “<span class='quot2'>세계가 깜짝 놀랄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역사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 <br/> <br/>“관심이 아주 많았지. 원래 사학과를 가려고 했다. 나의 존재, 우리 민족은 어디서 연원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 사학에 인생을 걸어볼까 했는데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다.” <br/> <br/>-어쩌다 관료의 길을 택했나. <br/> <br/>“내게 제일 안 맞는 게 공직이다.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런 거 내 스타일 아니다. 좋았던 것은 판단의 근거가 공적 잣대라는 것, 또 원칙과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공직이 또 맞는다. 공공성과 원칙, 이 두 가지면 무서울 게 없지. 내가 젊을 때 한다면 하는, 결단의 사나이였다.” <br/> <br/>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13년 초 공직에서 물러난 뒤 역사학자로 변신했다. 지금 그는 유라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누비며 한민족 DNA의 뿌리를 찾는 중이다. 그의 포부는 “한민족의 정체를 찾아 이를 무기로 미래를 열겠다”는 것. 그는 “고대사 연구는 현재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고구려 수도, 국내성이 자리 잡았던 중국 지안(集安)에서 수집한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학자’ 김석동. <br/>서상배 선임기자그가 처음 택한 길이 공직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삼성물산에 취직했다. 돈 버는 방법을 금방 배웠다. 1년 만에 사표 쓰고 26세에 ‘주제실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차렸다. 그러나 오일쇼크로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대우개발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봤지만 “진득하게 대우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뉘앙스에 거부감을 느껴 포기했다. 공직을 택한 것은 우연적이다. 대우 면접 후 녹번동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역 앞에서 산 서울신문의 행정고시 광고를 보고는 4개월 준비해 시험에 덜컥 합격했다. <br/> <br/>-관료 시절 ‘장관급 과장’, ‘대책반장’ 등 별명이 많았다. <br/> <br/>“기마병 체질로, 야전사령관만 했다. 유학도 못 가고 청와대 못 가보고 장관 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br/> <br/>-공직생활 중 언제 가장 힘들었나. <br/> <br/>“외환위기 당시다. 1997년 1월 외화자금과장으로 부임해 6개월 동안 하루 두 시간씩 자며 일했다. 그땐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일이 다 끝나고 세 번 암수술 받았다.” <br/> <br/>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공직을 그만두려다가 부인의 말에 맘을 바꿨다. “결정 잘 하셨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다. 삼성물산 다니고 사업할 때는 불평, 불만이 입에 붙었는데…” 그는 “와이프의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고 회고했다. <br/> <br/>-경제문제를 안 물어볼 수는 없다. 가계부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br/> <br/>“가계부채를 걱정 안 하면 뭘 걱정하겠나. 칼이 줄에 매달려 머리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건설업자들이 많이 설쳤다. 김석동 때문에 분양 안 돼 경기 죽는다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겠다고 난리였다. 2011년 1월1일 금융위원장 부임하면서 첫 서별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 들고 갔다. 지금 심각하다고, 대책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관리 가능하다더니 위원장 바뀌더니 위기라니 어떻게 된 거냐’고 하더라. 그때 김중수 한은 총재도 ‘걱정된다’고 하니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br/> <br/>DTI는 그가 차관보 시절 주도해서 만든 주택금융 규제다. “<span class='quot0'>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라</span>”는 안전장치다. <br/> <br/>-꿈을 실현하려면 다시 공직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br/> <br/>“그럴 일 없다. 확고하다. 나는 사학자니까. 학자라고 하면 남들이 웃겠다. 역사학도니까…. 지금 하는 일, 보람된 과제다. 전업으로 풀베팅할 거다. 그래야 현재가 극복된다. 이제 기존의 틀로는 안 된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세계경제 침체는 1929년 대공황 때보다 훨씬 오래 갈 것이다.” <br/> <br/>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br/> <br/>●김석동은 <br/> <br/>△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90년 재정경제원 5·8부동산 특별대책반장 △1993년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 대책반장 △1997년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 △2004 ~ 2005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7 ~ 2008년 2월 재정경제부 1차관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2011 ~ 2013년 3월 금융위원장△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0.txt

제목: 제13회 대구 수성건강축제, 대구스타디움서 개최  
날짜: 20160722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2092358314  
본문: ‘제13회 수성건강축제’가 22, 23일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린다. <br/> <br/>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수성건강축제는 매년 2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이색적인 건강체험은 물론, 전문 의료진의 무료건강 검진으로 참여자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큰 성과로 대구의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r/> <br/>올해 행사에는 대구시를 비롯,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이 참가한다. <br/> <br/>또한 수성구에 있는 효성병원, 누네안과병원, 수성구의사회 등 40개 단체가 참가해 43개의 다양한 테마별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br/> <br/>행사 기간에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검진존, 힐링존, 한방존 등 건강체험관 운영되며 다채로운 건강체험을 할 수 있다. <br/> <br/>특히 갑상선·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녹내장·백내장 검사, 물리치료, 보행분석, 한방진료 및 상담, 추나요법, 아토피 비누만들기 등을 모두 무료로 운영한다. <br/> <br/>축제 첫날인 22일에는 수성구보건소 직원들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건강기원 풍선날리기 퍼포먼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퍼포먼스, 유명 트로트 가수(강진, 배일호, 박정식, 류기진, 금잔디 등)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br/> <br/>또한 행사 전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한방 건강걷기 대회’도 열린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1.txt

제목: 술병의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임신부와 청소년 음주 경고 강화  
날짜: 2016072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1161344552  
본문: 술병의 과음 경고문구가 21년만에 바뀐다. <br/> <br/>변경되는 경고문구는 과음이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임신부와 청소년에 대한 경고문구 강도를 높였다. <br/> <br/>21일 보건복지부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알렸다. <br/> <br/>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br/> <br/>보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언론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의 자문을 거친 새 경고문구는 3가지로 기존 3종의 과음 경고문구에 '임신중 음주' 경고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br/> <br/>새 경고문구를 보면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다 . <br/> <br/>주류 회사는 이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br/> <br/>기존의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과 비교하면 1개 문구에만 들어있던 임산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가 3개의 경고문구 모두 들어 있다.  <br/> <br/>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개정 고시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br/> <br/>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2.txt

제목: “오메가 3 항암 효과” 대장암 환자 사망률 크게 낮춰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20195431645  
본문: 연어나 참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대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학저널 거트(GUT)는 미국인 17만명 중 대장암이 발병한 1659명을 상대로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낮은 사망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매일 0.1g에 못 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었던 사람과 비교해 매일 최소 0.3g의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은 사람은 10년 기준 사망률이 41% 더 낮았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암에 걸린 뒤 0.15g 정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린 사람의 사망률은 70% 줄었지만 생선 섭취를 줄인 사람은 사망률이 10%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어나 참치 한 마리에는 평균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1.8g 정도 들어 있다. 톰 샌더스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는 가공육 대신 연어와 같은 기름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입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암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암 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는 우리 체내에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3.txt

제목: ‘색다른 맛’ 오리엔탈 브런치 열풍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9205802046  
본문: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김수연(30·여)씨는 주말 늦은 아침 친구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브런치 카페에 가곤 한다. 그가 선택하는 메뉴에는 늘 폭신폭신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에그 베네딕트가 포함돼 있다. 친구들도 역시 여기에 샐러드나 수프 등을 더 주문할 뿐, 기본 구성은 늘 비슷하다. 하지만 요즘은 그토록 먹었던 브런치 메뉴가 질린다. 시간이 지나면 괜히 헛헛한 느낌도 든다. 좀더 맛있는 메뉴를 찾아 브런치 카페를 순회하기도 했지만 어딜 가나 비슷해 요즘은 색다른 메뉴를 찾는 중이다. <br/> <br/>이제는 ‘이번 주말 브런치 어때?’라며 약속을 잡는 것이 더 이상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다. 브런치는 늦은 오전에 먹는 아침 겸 점심을 가리키는 말로, 아침(Breakfast)과 점심(Lunch)의 합성어다. 브런치는 2000년대 들어서 주5일제 근무와 미국드라마의 영향으로 유행에 민감한 20∼30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브런치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홍대 부근 등에 생겨난 것이 대변하듯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서 벗어나 일상 속의 여유로움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메뉴는 대체로 팬케이크와 달걀, 베이컨의 ‘아메리칸 스타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말 아침의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혀 끝의 즐거움까지 챙기는 색다른 브런치 메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br/> <br/>브런치도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면서 베이컨 등 느끼한 음식 대신 죽이나 두부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br/>자연별곡 제공그동안 브런치는 가벼운 끼니라는 의미와는 달리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렸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태원브런치 레스토랑의 한 메뉴는 2인 기준 4만∼5만원 선이다. 일반적인 식사보다 가격대가 높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이다. 이런 수요를 의식한 듯 요즘엔 음식의 질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런치 메뉴들이 등장하고 있다. 콘래드 서울 호텔에 위치한 캐주얼 카페 ‘10G’에서는 여의도 주변의 직장인을 타깃층으로 삼았다. 수준 높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일 아침 셰프가 직접 만드는 샌드위치는 7000원, 샐러드는 6000원 선으로 일반 카페에서 먹는 값과 비슷하다.  <br/> <br/>냉호박죽세계 각국을 방문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 것도 브런치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권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태국 관광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은 137만2995명에 달했다. 평일에도 이른 점심시간에 동남아 음식전문점에서 팟타이, 나시고랭 등의 메뉴를 주문하는 직장인을 많이 볼 수 있다. ‘10G’ 역시 샌드위치나 빵류 외에 얌운센과 같은 태국식 누들 샐러드를 제공하거나 김치를 곁들인 볶음밥을 내놓고 있다. <br/> <br/>해외를 나가야 즐길 수 있었던 음식을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오리엔탈 브런치 열풍에 일조했다. 중식 전문 레스토랑 크리스탈제이드는 본토와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현지 셰프를 중심으로 주방을 운영한다. ‘딤섬’을 주메뉴로 하는 이 식당은 2005년 국내에 들어와 최근 3년 새 10개의 매장을 더 늘렸다.  <br/> <br/>딤섬 ‘쇼마이’ <br/>크리스탈제이드 제공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육즙이 가득한 ‘소룡포’와 새우와 돼지고기 소를 올려 익힌 ‘쇼마이’가 특히 인기다. 한 달에 2∼3번은 딤섬을 먹으러 온다는 주부 김모(32·여)씨는 “홍콩에 놀러갔을 때 먹었던 맛과 거의 흡사하다”며 “브런치 메뉴 중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이 많은 반면 딤섬은 뒷맛이 깔끔해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br/> <br/>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오리엔탈 브런치 열풍을 앞당겼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이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죽, 쌈밥 등 칼로리는 낮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한식이 주목받고 있다. <br/> <br/>한식전문 뷔페 ‘자연별곡’은 한식을 브런치처럼 먹는 사람들에 맞춰 토마토 두부 카프레제, 떠먹는 고구마케이크, 바지락 된장 파스타, 냉호박죽 등을 선보이고 있다. 또 마늘 바비큐 보쌈, 쌈채소 등도 식사를 대신하고자 하는 브런치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다. <br/> <br/>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브런치를 즐기기 위한 고객들은 매장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30분∼11시쯤부터 대기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점에서는 매장 오픈 때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4.txt

제목: 식도암 진단·치료 동시 가능한 방사성약 개발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9204230802  
본문: 발병 5년 생존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식도암의 진단은 물론 치료도 할 수 있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태섭(사진) 박사팀이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br/> <br/>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제조한 의약품을 뜻한다. 연구팀은 암세포 증식인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의약품인 ‘세툭시맙’에 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루테튬-177’을 붙여 새 의약품을 제작했다. 이 의약품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식도암을 이식한 쥐에게 투여한 결과 기존 치료법을 썼을 때보다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하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을 밝혔다. 연구팀은 세툭시맙에 또 다른 방사성동위원소인 ‘구리-64’를 붙이면 식도암의 크기와 위치를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br/> <br/>이 박사는 “<span class='quot0'>기존 항체면역치료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해 종양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입증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 결과는 ‘핵의학회학술지(Journal of Nuclear Medicine)’ 7월호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5.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입장제지' 어른들 싸움에…3세 여아는 '상처만'  
날짜: 2016071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9124812574  
본문: ‘가방 반입금지’ 정책을 내세우며 암 투병 중인 여자아기의 영화관람을 막았던 호주의 한 극장이 임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r/> <br/>아기의 가족은 영화관 정책에 서운했다지만, 다소 지나친 당국의 처사라고 반응을 보였다. 아직 세상을 알기 전인 아기는 단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다. <br/> <br/>지난 18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영국 데일리메일 호주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5일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려던 애디슨 윌슨-미첼의 가족은 극장에서 입장 제지를 당했다. <br/> <br/>애디슨은 지난 1월 ‘신경아 세포종(Neuro Blastoma)’ 진단을 받았다. 주로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br/> <br/>당시 아기는 40여일 만에 외출 허가를 받아 가족들과 극장을 찾았는데, 정작 보고 싶었던 영화는 보지도 못한 채 발걸음 되돌려야 했다. 오랜만에 딸에게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려던 애디슨의 가족들은 황당했다. <br/> <br/>극장 직원은 ‘가방’을 이유로 가족의 입장을 막았다. 관람객 안전이 이유였다. 하지만 애디슨 가족 가방에 위험한 물건은 전혀 없었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자주 토하는 애디슨을 위한 옷 몇 벌과 비닐팩 등이 전부였다. 애디슨의 가족이 이유를 밝혔지만, 결국 극장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br/> <br/>애디슨은 낙담한 듯 집에 돌아와 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라며 “왜 못 들어가는 거죠!”라고 마구 떼썼다. 애디슨의 아빠 윌슨-미첼은 그저 딸을 안타깝게만 바라볼 뿐이었다. <br/> <br/>애디슨은 “<span class='quot0'>엄마는 나한테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span>”라며 “<span class='quot0'>영화를 보러 갈 수 있다고 했던 엄마가 싫어요!</span>”라고까지 말했다. 아기가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짐작게 한다. <br/> <br/>이 같은 사연은 애디슨의 엄마 크리스틴이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널리 퍼졌다.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겪은 슬픔의 무게를 그는 게시물에서 중요히 여겼다. <br/> <br/>그런데 예상과 달리 거센 반응이 일자 당황했던 크리스틴은 원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극장이 문을 닫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br/> <br/>극장 측은 공지를 내걸고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는 더 이상 관람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추가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br/> <br/>당황한 크리스틴은 현지 매체에 “<span class='quot1'>이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받아들일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극장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티켓을 환불하고나서야 아기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만약 그들이 자세한 사연을 얘기해주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어 “아픈 여자아기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극장직원에게 어째서 가방이 필요한가를 설명했다던 애디슨 가족의 이야기와는 다소 어긋난 부분이다. <br/> <br/>당국 처사에 당황했지만 애디슨의 가족은 다시는 그 영화관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나중에 또 다른 일로 딸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연은 애디슨의 가족과 극장 양쪽에 상처만 남긴 채 종결되고 말았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호주판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6.txt

제목: 스무살 BIFAN…성숙한 스크린잔치  
날짜: 2016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8211841826  
본문: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br/>오는 21∼31일 11일 동안 부천시청과 한국만화박물관, 솔안아트홀, CGV부천 등에서 열린다. <br/>올해 ‘성인식’을 치르는 BIFAN은 분화 중인 세포를 형상화한 심벌이 말해주듯 상상력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br/>팬들을 빛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난해보다 67편이나 늘어난 302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7호선 부천시청역을 기점으로 <br/>개·폐막식과 시민축제가 벌어질 광장에서 주상영관까지 거리를 특별 축제공간으로 꾸며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연출한다. <br/>상영시간 및 예매는 홈페이지(www.bifan.kr)를 참조하면 된다. 프로그래머 3인(김영덕, 김세윤, 유지선)의 추천작을 소개한다. <br/> <br/>. <br/>■마이 빅 나이트(스페인)= 샴페인이 놓인 테이블, 파티 의상을 갖춰 입은 손님들,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 여기는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연말 TV쇼의 녹화 현장이다. 점점 미쳐가는 스타와 엑스트라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혼돈을 롤러코스트 블랙코미디로 풀어낸다. 스페인 컬트 거장 알렉스 드 라 이글레시아 감독 작품.  <br/> <br/> <br/>■무법자와 천사들(미국)= 악명 높은 현상금 사냥꾼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냉혈한 무법자들은 한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 피의 복수가 이어지는 스파게티 웨스턴. 1970년대 스파게티 웨스턴의 부조리한 세상이 남성들의 무대였다면, JT 몰너 감독의 ‘무법자와 천사들’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고양이와 쥐처럼 쫓고 쫓기는 폭력의 뒤엉킴 속에서 앳된 아가씨들은 무법 세상의 천사가 되어 화끈하면서도 아찔하게 피에 젖은 모습으로 총구를 겨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딸 프란체스카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았다. <br/> <br/> <br/> <br/>■우리 생애 최고의 날(독일)= 요양원에서 처음 만난 말기암 환자 안디와 베노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을 찾아 아프리카로 자살여행을 떠난다. 서로 정반대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여행 내내 옥신각신하며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이야기가 빠르고 경쾌하게 진행되면서 아기자기한 웃음을 자아낸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가슴 따뜻한 코미디. <br/> <br/> <br/> <br/>■라라(칠레, 아르헨티나)= 부모의 이혼 탓에 갑자기 ‘두 명의 엄마’와 살게 된 열두 살 소녀 사라. 그들의 일상은 여느 가족과 다르지 않지만 그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사라는 혼란스럽다. 열세 번째 생일, 이제 이 가족의 운명은 오롯이 사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온 가족이 보면 좋을, 아니 반드시 봐야만 할 사려 깊은 성장영화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부문 초청작. <br/> <br/> <br/> <br/>■사랑의 불시착(멕시코)=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1968년 멕시코. 6개월 전 실종된 운동권 여자친구 베아트리스의 행방을 쫓아 동분서주하던 미츠는 친구들과 함께 유력 대통령 후보가 탄 비행기를 납치한다.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기 위해 얼떨결에 반군이 되어버린 청춘들의 신나는 코믹 납치극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군의 강경 대응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1960~70년대 멕시코 정부의 무참한 탄압을 풍자했다. <br/> <br/> <br/> <br/>■장강도(중국)= 삼협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는 98일간의 진혼곡이다. 제작 기간 10년.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예술공헌상)을 수상했다. <br/> <br/> <br/> <br/>■크리피: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일본)= 전직 형사이자 범죄심리학자인 다카쿠라는 6년 전에 일어난 일가족 실종사건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가 옆집 니시노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추리문학대상 신인상을 받은 마에카와 유타카의 동명 소설이 원작. <br/> <br/> <br/> <br/>■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일본)= 악마가 당신에게 하루씩 생명을 연장해주는 대신 세상에서 한 가지씩 없앨 것을 정해 달라 한다면? 이 기묘한 제안으로 전화, TV, 비디오 등이 하나씩 소멸돼 가면서 그간 잊고 있었던 연인, 친구 그리고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경쾌한 성찰이 돋보인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감동적인 스토리, 유려하고 감각적인 비주얼과 스타들의 연기가 앙상블을 이룬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7.txt

제목: [단독] 과로 직원 쓰러졌는데… 입단속 급급한 금감원  
날짜: 2016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8203237240  
본문: 10여일 전 금융감독원 직원 40대 A씨가 점심 식사 중 머리를 잡고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암 판정을 받고 몇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인사팀 수석으로 발령 난 뒤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해야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셌다고 한다.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직원 A씨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 스타일’이다. 한 동료 직원은 “<span class='quot0'>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삭인다</span>”고 했다. <br/> <br/>“<span class='quot1'>성과제 도입에만 온 신경을 써 자기 밑에서 일하다 사지에 몰린 직원은 신경도 안 쓰는 건가요.</span>” 불만은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폭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성토 글이 꼬리를 문다. 상부의 입단속 ‘혐의’가 불을 질렀다. 성토 글에 “근거 없는 낭설 퍼뜨리지 말라”는 댓글이 붙다가 끝내 글이 ‘숨김’ 처리되자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블라인드 앱은 신고가 4회 이상이면 글이 숨김 처리된다. <br/> <br/>“<span class='quot1'>총무국에서 입단속이 심한 거 같은데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span>”, “<span class='quot1'>쾌유는 조용히 비는 게 예의라는 둥 댓글 달더니 아예 신고로 입막음하겠다?</span>”, …. 성토 글이 지워지자 또 다른 성토 글이 꼬리를 무는 식이다. 블라인드 앱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익명으로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불만과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도 블라인드 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br/> <br/>금감원의 과로사 트라우마는 상당하다. 과거 산재로 의심할 만한 죽음들이 적잖았다. 한 팀장급 인사는 “<span class='quot2'>한 2∼3년 괜찮았는데 다시 흉흉해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렇다고 쉬쉬하는 게 해법인가. 한 직원은 앱에서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걸까요. 우리 회사에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 건지 얘기하는 게 그리 보기 싫은가요”라고 개탄했다. <br/> <br/>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8.txt

제목: 두테르테 "급전 필요한 경찰, 마약 팔지말고 나한테 오라", 봉급 2배 인상약속  
날짜: 201607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8110206107  
본문: 범죄,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경찰관과 군인의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급전이 필요하면 마약을 팔지 말고 나한테 오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br/> <br/>18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 있는 마약단속청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족의 병과 같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 경찰관이나 군인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과 봉급 인상 계획을 밝혔다. <br/> <br/>두테르테 대통령은 "부인이 암에 걸리는 등 가족이 아플 때 돈을 구하기 위해 마약을 팔지 말고 나에게 오라"며 "내가 다바오시 시장으로 일할 때 경찰관들이 평소 금전 문제로 도움을 구했다"고 했다. <br/> <br/>이어 대선공약인 경찰관과 군인의 봉급 2배 인상 계획을 소개했다. <br/> <br/>두테르테 대통령은 "가난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며 부패 경찰관 등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부패 무관용을 거듭 다짐했다. <br/> <br/>두테르테 대통령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을 해고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공무원의 카지노 출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r/> <br/>이밖에 공무원 출장 때 비행기 일등석 탑승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49.txt

제목: 보양식 먹었는데 배가 사르르… 왜 그럴까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7190024931  
본문: 연이은 무더위 탓인지 직장인 A씨는 요즘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A씨가 택한 방법은 점심시간마다 직장 동료들과 보양식을 찾아 먹는 것.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다 보면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 지는 느낌에 뿌듯하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배가 아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고민이다.  <br/> <br/>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다양한 보양식들. 추어탕과 삼계탕·장어 등 기름진 음식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양식은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이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많고, 더위를 해소하는 데에도 제격이다. 한의학에서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지나치게 찬 음식을 먹으면 바깥 기온에 비해 체내 온도가 급격히 낮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야외활동이 특히 많았던 경우, 피로해 지쳤을 때 보양식이라며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섣불리 먹었다면 배탈 등 부작용도 조심해야 한다. <br/> <br/>전문가는 “<span class='quot0'>보양식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신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한다.  <br/> <br/>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에는 삼계탕, 추어탕, 장어 등이 있다. 닭과 미꾸라지, 장어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로 인삼과 대추 등과 같이 먹을 경우 속을 덮혀주는 역할을 한다. 닭 날개 부위에는 성장을 촉진하고, 단백질의 흡수력을 높이는 ‘뮤신’이 들어있다. 삼계탕에 곁들이는 밤과 대추는 위를 보호하고 빈혈을 예방한다. <br/> <br/>미꾸라지의 주성분도 단백질이다. 미꾸라지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의 저항력을 높여 주며 호흡기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 미꾸라지에서 나오는 미끌미끌한 점액은 뮤신이 주성분으로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력을 증진시켜준다. 미꾸라지를 뼈째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특성상 칼슘을 다른 음식에 비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장어는 필수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고단백식품이다. 비타민 A가 일반생선에 비해 150배 많이 함유돼 있다. 비타민 A는 활성산소 제거, 시각 보호 작용, 암 예방 및 성장과 생식기능 유지 작용이 있다. 또 장어에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br/> <br/>한의원에서 속이 차다고 진단받은 사람에게는 파전과 콩국수도 보양식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파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로 분류된다. 파와 차가운 성질의 녹두와 굴, 오징어 등을 함께 먹으면 몸 안의 깨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콩국수의 주재료인 콩은 고단백질로 소화흡수를 활발하게 하도록 돕는다. <br/> <br/>메밀 역시 더위를 극복하는 데 좋다. 메밀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등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한다. 수박, 참외, 오이 등 제철에 나는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과 당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 대사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br/> <br/>그러나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하거나, 연령이 높다면 과도한 보양식 섭취로 인해 오히려 위장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잘 먹지 않는 재료를 쓴 보양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 <br/> <br/>배탈은 보양식을 잘못 섭취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박재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교수는 “<span class='quot1'>양기가 많은 여름에 보양식인 삼계탕, 추어탕, 장어요리 등을 자주 먹게 되면 체내에 과도하게 양기가 축적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 보양식의 대부분이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인 것도 문제다. 삼계탕과 장어탕 등은 첨가한 부재료에 따라 1000㎉를 넘기도 한다. 소화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는 위장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지방간 환자라면 기름진 보양식은 피하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자주 먹는 것이 좋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0.txt

제목: [연구] 뇌졸중을 90% 예방하는 10가지 건강 수칙  
날짜: 20160717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7172335943  
본문: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이다. 특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하는 뇌졸중(stroke)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크고 작은 뇌기능 장애를 겪는 중대질환이다. <br/> <br/>캐나다·아일랜드 연구진이 세계 32개국 약 2만7000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의학전문지 랜싯(Lancet) 최신호(15일자)에 발표했다고 ‘사이언스데일리’ 등 과학 전문 매체들이 전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마틴 오도넬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교수는 "다음 10가지만 유념하면 뇌졸중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10가지 위험요소들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역·남녀·연령 모두 해당됐다. <br/> <br/>1. 고혈압 48% <br/>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8% 높았다. 음식을 최대한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 등에 신경쓰라는 얘기다. <br/> <br/>2. 운동부족 36% <br/>당연한 말이지만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6% 높아졌다.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br/> <br/>3. 잘못된 식습관 23% <br/>햄버거와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제때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br/> <br/>4. 비만 19% <br/>체지방이 체중의 25∼3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열량을 소비해야만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다. <br/> <br/>5. 흡연 12% <br/>긴 말 필요 없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 <br/> <br/>6. 심장질환 9% <br/> <br/>7. 당뇨 4% <br/>체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당뇨이다. 치료법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효과적인데, 운동의 경우 빠르게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br/> <br/>8. 음주 6% <br/>흡연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불가피하게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 <br/> <br/>9. 스트레스 6% <br/>암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뇌졸중 발병의 6% 정도를 차지한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야할 일이다. <br/> <br/>10. 지방질 27% <br/>연구진에 따르면 핏속의 지방(blood fat)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를 일컫는 지방질(lipid)은 뇌졸중을 야기하는 세 번째 위험요소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1.txt

제목: 백혈병 딸 위해 암치료 포기한 아빠  
날짜: 2016071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7130500484  
본문: 암투병중인 아빠가 백혈병 딸의 병원비를 위해 치료를 포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br/> <br/>최근 중국 CCTV등 현지 언론은 후난성 주저우시에 사는 장 린(37)과 그의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 했다. <br/> <br/>장린은 지난 5월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13살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br/> <br/>트럭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온 가족들에게 자신과 딸의 치료비는 큰 부담이었다. 장린의 가족들은 모금을 통해 20만 위안(약 3454만원)을 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br/> <br/>장린은 딸을 위해 자신의 치료를 포기했다. 그는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딸은 아직 어려요. 살아가야 할 날도 이뤄야 할 꿈도 많다”며 “내 소원은 딸이 건강하고 행복한 소녀로 자라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br/> <br/>한편 그는 세상을 떠난 후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CCTV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2.txt

제목: 인터넷 떠도는 사드 괴담 ‘요격 불가’  
날짜: 2016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92020961  
본문: '‘레이더 전자파로 인근 주민은 암에 걸리고 여성은 불임이 되며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다’ <br/> <br/>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확정된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괴담이다. <br/> <br/>정부는 사드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유언비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br/> <br/>15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탓에 반경 5∼6㎞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가 열리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베이징까지 사드 전자파가 도달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br/> <br/>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나선 지난 2월 무렵 제기된 논란과 유언비어가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br/> <br/>‘미국 무기 사주고 중국·러시아에 뺨 맞는다’, ‘중국·러시아가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0순위로 폭격을 가할 것이다’ 등 외교·안보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도 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지역 3.6㎞ 내 민간인 출입 금지’, ‘강력 전자파로 100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 죽을 수 있다’처럼 위험성을 마구잡이로 부풀리거나, ‘경북 성주에 사는 분들은 전자레인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 악의적으로 왜곡한 글도 잇따르고 있다. <br/> <br/>성주의 특산물인 참외와 미사일 그림을 합쳐놓는 등 사드 배치로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시물도 적지 않다. <br/> <br/>경찰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악의적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시물 검색에 착수했다. <br/> <br/>그러나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나 유포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 내 특정 부서’나 특정 개인을 적시하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br/> <br/>최근 경찰은 사드 관련 정도가 심한 괴담 글을 골라내 법률 검토를 했지만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br/> <br/>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언비어를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br/> <br/>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린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괴담이 난무하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3.txt

제목: [연구] 장기간 야근 하면 뼈와 근력 약해진다  
날짜: 20160715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54414066  
본문: 6개월 이상 야간에도 계속해 빛에 노출되면 면역성은 물론 근력과 함께 뼈까지 약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야간에도 근무하는 교대조나 신생아, 장기 입원 환자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br/> <br/> <br/> <br/>14일(현지시간) 과학전문 매체 ‘뉴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요한나 메이예르 교수가 이끄는 네덜란드 레이던대학 메디컬센터 연구진은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이같은 내용의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진은 생쥐 134마리를 6개월 동안 계속해 빛에 노출했다. 그 결과 막대에 매달리기 등 근력·지구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뼈는 골다공증 초기 환자처럼 강도는 3분의 1 정도 약해졌고 부피 또한 10% 얇아졌다. 장기간 빛에 노출된 생쥐는 염증에 걸릴 확률도 높았다. 스트레스와 감염 인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혈액 내 호중구(neutrophil·체내에 침입한 세균 등 이물을 소화효소로 분해하는 과립성 백혈구의 주성분)의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br/> <br/> <br/>이같은 증상은 수면과 의식을 총괄하는 생체시계(circadian clock) 관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될 경우 생체시계 기능은 70%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시계 기능이 떨어질 경우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br/> <br/>하지만 한번 어그러진 생체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메이예르 교수는 "(빛을 차단하자) 생쥐의 생체리듬은 거의 즉각적으로 복원됐고, 근육과 뼈 또한 2주만에 원래 기능을 회복했다"며 "여객기 승객들이 눈가리개를 하는 것처럼 몇분, 몇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4.txt

제목: 어머니 지인 때려 숨지게 하고 마당에 암매장  
날짜: 20160715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44603172  
본문: 충남 홍성에서 40대 아들이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남성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br/> <br/>충남지방경찰청은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 온 남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7시쯤 어머니 B(73)씨를 만나러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C(78)씨의 등과 얼굴을 망치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마당 장독대 옆에 암매장했다. <br/> <br/>B씨와 C씨는 20년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아들 A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C씨 아들의 미귀가 신고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C씨가 A씨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나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br/> <br/>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보지 못했다거나, 집에 왔다가 바로 나갔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사망이 좁혀 오자 A씨는 15일 새벽 4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같이 농약을 먹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 A씨를 살해하여 장독대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br/> <br/>A씨와 B씨는 홍성의료원을 거쳐 천안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br/> <br/>경찰은 A씨 집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5.txt

제목: 고령사회 일본, 올해 신규 암환자 100만명 돌파 예상  
날짜: 20160715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5104957713  
본문: 일본에서 신규 암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br/> <br/>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올해 새롭게 암 진단을 받는 환자가 101만200명,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37만4000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br/> <br/>올해 신규 암 환자 예상치는 지난해보다 2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신규 암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고령자의 증가와 함께 발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에서도 암 환자 수는 197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br/> <br/>성별 신규 암 환자는 남성이 57만6100명, 여성이 43만4100명으로 예상됐다. 부위별로는 대장암이 14만7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암 13만3900명, 폐암 13만3800명 순이었다. <br/> <br/>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예상 1위는 전립선암(9만2600명), 2위는 위암(9만1300명), 3위는 폐암(9만600명) 순이었다. 반면 여성의 1위는 유방암 9만명, 2위는 대장암 6만2500명, 3위는 폐암 4만3200명 순이었다. <br/> <br/>올해 암 사망자는 남성이 22만300명, 여성이 15만3700명으로 예상됐다. 발병 부위별 예상 사망자는 남성의 경우 폐암 5만5200명, 위암 3만1700명, 대장암 2만7600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대장암 2만4000명, 폐암 2만2100명, 위암 1만6800명 순으로 예상됐다. <br/> <br/>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6.txt

제목: 1억 기부 암투병 할머니 보증금 마저 기부 약속  
날짜: 20160714  
기자: 임정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4164546759  
본문: 지난 2008년 한밭대에 1억원을 기부한 70세 할머니가 암 투병 중에 마지막 남은 월세 아파트 임대보증금마저 유언상속으로 기부를 약속했다. <br/> <br/>한밭대는 암 진단을 받고 5년 전부터 투병 중인 이 할머니가 최근 학교에 연락해 "지금 사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260만원을 마저 기부하고 싶다"면서 추가 기부를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암 진단을 받고 5년 전부터 투병 중인 할머니는 "적은 금액이지만 남김없이 주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성씨는 물론 사는 곳 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는 할머니는 8년 전 한밭대를 찾아와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전 재산 1억원을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기부했다. <br/> <br/>한밭대 관계자는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2∼3주에 한 번씩 자택을 방문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학교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이 나눔의 홀씨가 돼 사회 곳곳에 기부문화가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7.txt

제목: 중동서 첫 여성 메달리스트 나올까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12194600503  
본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중동 여성 선수들의 메달권 진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br/> <br/>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중동 출신 무슬림 여성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달을 목표로 출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튀니지 출신 하비바 그리비가 3000m 장애물 경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지만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는 여성 메달리스트가 나오지 않았다. <br/> <br/>6년 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레이디스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한 파티마 애드완은 “이제 무언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UAE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 운동 선수를 훈련시키는 이 아카데미에는 1300여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머리에 쓴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애드완은 “문화는 그저 문화일 때 아름다운 것”이라며 “우리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당신의 문화(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br/> <br/>중동 무슬림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여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에서 여성 역도팀 코치를 맡고 있는 암나 알 하다드(26·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19살 때에는 무슬림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우리 팀은 다음달에 열릴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표로 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직도 여성이기에 이 사회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br/> <br/>4년 전 런던 올림픽은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브루나이 3개국 여성 선수들이 출전, 중동 국가들이 모두 여성 선수를 출전시킨 올림픽으로 기록됐다. <br/> <br/>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8.txt

제목: [현장메모] 암 생존자들의 처절한 외침 외면 말아야  
날짜: 201607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8192736600  
본문: “암 환자 요양시설 관리 정말 시급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을 등쳐먹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8년 전 임파선암 치료 후 여섯 번의 재발을 견뎌내고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만으로도 기적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치료받았나 싶을 만큼 숱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항암주사 약은 한정돼 있는 데다 다른 약으로 바꾸면 정말 명품백 하나 값이 들어요.” <br/> <br/>세계일보가 지난 4일부터 5회에 걸쳐 탐사보도한 ‘암 이후의 삶-홀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걸린 기사에는 ‘암 생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국민 37명당 1명이 암 생존자일 정도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신과 경제적 고통을 지켜 본 사람이 많다는 점을 실감했다. <br/> <br/>윤지로 사회부 기자암 생존율이 70%라고 해도 30년 넘게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여전히 ‘공포의 병’이다. 이 공포심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암 발병 원인 진단과 치료 자체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암 생존자들이 또다른, 혹은 더 심할 수 있는 공포와 맞닥뜨려야 하는 암 이후 삶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br/> <br/>일부 병원과 민간 단체가 제한적으로 암 생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질도 천차만별이다.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대다수 암 생존자가 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국민도 언제든 암 생존자 대열에 합류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br/> <br/>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마련 중인 정부가 ‘용두사미’로 끝난 제2차 암관리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br/> <br/>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59.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15년 암 투병…생의 마지막에 올린 결혼식  
날짜: 2016070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8111314610  
본문: 15년간 악성 종양과 싸워온 미국의 한 40대 남성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정식 결혼식을 올린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br/> <br/>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4일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런 시스크(47)가 여자친구 크리켓과 결혼식을 올렸다. 크리켓의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br/> <br/>대런은 15년간 ‘호지킨 림프종(Hodgkin's lymphoma)’과 싸워왔다. 제일 처음 증상을 발견한 영국 의사 토마스 호지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병이며, 림프종(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하나로 알려졌다. <br/> <br/> <br/> <br/>대런이 결혼식을 서두른 건 세상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다. 불과 2주 전 진료 때만 하더라도 의사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더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진료에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br/> <br/>결혼식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했으며, 병실에 모인 사람들과 영상도 찍었다. 이들의 결혼식 영상은 페이스북에서도 공개됐는데 5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대런과 크리켓은 10년 전쯤 인연을 맺었다. 길 가던 대런이 차에 치일 뻔한 크리켓의 손자를 구해주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 다리를 다친 대런을 만나러 크리켓이 병원에 들르면서 이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br/> <br/>의료진은 대런을 위해 그의 딸을 병원에 데려왔다. 대런의 딸 제이린은 임신 중으로 예정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날 대런은 초음파를 통해 제이린의 뱃속에 든 여아, 즉 태어나지 않은 손녀를 미리 만날 수 있었다. <br/> <br/>결혼식, 미래 손녀와의 조우. 일련의 행사를 모두 마친 대런은 곧 퇴원한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병원이 손 쓸 수 없는 탓에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보내기 위해서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0.txt

제목: [집중취재] 암 생존자 관리, 외국은 어떻게  
날짜: 2016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7194615820  
본문: 미국은 30년 전부터 암 생존자 대책을 마련해왔다. 1986년 암생존자연합(NCCS)이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6월 첫째 주 일요일을 ‘국가 암생존자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br/> <br/>수십년 동안 거리행진, 전시회 등이 열리다보니 미국에서는 암 생존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1990년 미 연방장애인법은 암 생존자를 ‘장애를 가진 보호대상자’에 포함했고, 암 생존자의 가족도 ‘2차적 생존자’라는 인식에 따라 이들에게도 12주 무급 휴가가 보장된다. 또 암치료 향상 법, 메디케어 대상자 맞춤형 암치료계획 수립 촉진법 등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잘 마련돼 있다. <br/> <br/>영국의 암 생존자와 가족들이 영국 서부 위럴에 있는 ‘매기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br/>매기센터 제공영국은 모든 암 환자가 암 진단 6개월 이내에 담당의로부터 ‘암 진료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암 치료뿐 아니라 발생가능한 후유증, 경제적인 문제, 지지그룹과의 연계 등을 담아 암 생존자들이 ‘암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 <br/>암 치료 후에는 의료진과 함께 어떻게 지지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는데, 생존자의 상태에 따라 △자가 관리 △전문의와의 지속적 대면·전화 상담 △집중적 지지 가운데 고를 수 있다. <br/> <br/>영국은 특히 민간 차원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가 잘 발달돼 있다. 매기센터(Maggie’s Centre)가 대표적이다. 런던과 글래스고 등 영국 전역에 17개 센터가 있는데, 종양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어 암 환자와 가족은 언제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br/> <br/>일본은 정부 주도로 단시간에 지지의료를 확산한 경우다. 전국 400여개 지역 암진료 거점병원을 지정해 암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인은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완화의료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를 마치면 암성통증완화 지도관리료, 암 환자 상담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1.txt

제목: [집중취재] "암만 나으면 될 줄 알았다"… 홀로 싸우는 사람들 없어야  
날짜: 2016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7194612873  
본문: “암만 나으면 될 줄 알았다” 지난 한 달간 취재팀이 만난 암 생존자들은 대부분 이같이 말했다. 국민 37명당 1명이 암 생존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암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았다. 그동안 한 번도 암 생존자 문제가 중요한 사회 안건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암 생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br/> <br/>◆정부가 큰 틀 마련해야 <br/> <br/>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큰 틀을 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br/> <br/>정부가 통합지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병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가 잘 굴러가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 등 경제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br/> <br/>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종양내과)는 “<span class='quot0'>마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에게 예방접종 일정이 적힌 육아수첩을 주듯 암 생존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이들의 치료력을 정리하고 시기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시하는 일종의 문서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생존자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많은 병원에서 이런 관리계획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약 50달러 정도의 급여(수가)를 받는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통합지지의료 모델이 의료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br/> <br/>김종흔 국립암센터 지원진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1'>지역암센터를 재지정하거나 암전문 의료기관을 인증할 때 지지의료 내용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span>”고 제안했다. <br/> <br/>암 생존자의 경제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br/> <br/>이인정 호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span class='quot2'>암 생존에도 빈부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2'>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2차암이나 암 재발에도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건강관리라는 것 자체가 사치에 가까울 수 있다</span>”고 전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취약계층 암 생존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병원·사회 함께 나서야 <br/> <br/>의료기관에서는 진료과 간의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에서 벗어나 환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br/> <br/>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재활의학)는 “<span class='quot3'>암 생존자의 운동을 재활의학과가 맡을 것이냐, 가정의학과가 맡을 것이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암 치료 직후 기능 저하 문제는 재활의학과에서, 일상생활에서 운동이 필요할 경우 운동치료사가 맡는 식으로 적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암 생존자, 전문의, 통합지지 전문의를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도 절실하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대호 교수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정신종양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3'>여전히 ‘암’이라는 진단은 환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해 치료 의지와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종양 전문의들이 간과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개인적으로 정신종양학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암 생존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구체적인 제도도 필요하다. <br/> <br/>이인정 교수는 “<span class='quot4'>우리나라에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40∼60대 중장년 생산연령대에 집중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암 이후 사회적 교류나 경제소비활동에서 배제될수록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이 직장에 복귀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기본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 <br/> <br/>김민아 명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span class='quot5'>암 생존자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율이 낮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암 환자에 대한 낙인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돼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br/> <br/>암 생존자 스스로 좀 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br/> <br/>김종흔 교수는 “<span class='quot6'>일본의 경우 전국암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각 정당에 암 생존자 정책에 대한 매니페스토(구체적인 예산·추진일정을 갖춘 선거공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암 생존자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할 수도 있을 것</span>”이라고 제안했다. <br/> <br/>이대호 교수는 “<span class='quot7'>정부나 민간이 암 생존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span>”며 “<span class='quot7'>처음부터 암 생존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고려해 하나의 틀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하다보면 결국 전반적인 암 생존자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2.txt

제목: 연극계 ‘대표’ 연출가·작가가 30년 만에 뭉쳤다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6210210469  
본문: 이윤택 연출과 윤대성 작가, 고선웅 연출과 고연옥 작가. 연극계의 대표적 연출가와 작가들이 손잡았다. 각각 노장과 중견을 대표하는 이들이 짝을 이뤄 신작을 내놓았다. 거장 연출가인 이윤택과 윤대성 작가는 연희단거리패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첫사랑이 돌아온다’를 공연한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연출가 고선웅은 고연옥 작가와 ‘곰의 아내’를 올린다. 2015년 고 작가에게 제5회 벽산희곡상을 안긴 ‘처의 감각’을 무대화했다. <br/> <br/>연극 ‘첫사랑이 돌아오다’◆새롭게 바라본 치매… “치매는 마지막 날갯짓” <br/> <br/>이 연출과 윤 작가가 뭉친 건 30년 만이다. 이 연출은 30년 전 스승 윤대성의 작품 ‘미친동물의 역사’를 각색한 ‘죽음의 푸가’를 부산 가마골소극장에서 공연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 공연이었다. 30년이 흐른 현재 연희단거리패는 연극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가진 극단으로 성장했다. <br/> <br/>윤대성은 드라마와 영화로 잘 알려진 거장이다. 1980년대 드라마 ‘수사반장’ ‘한지붕세가족’, 1980∼90년대 영화 ‘방황하는 별들’ ‘그들도 우리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등을 썼다. 77세 희수를 맞은 거목이 붙잡은 화두는 ‘치매’다. 신작 ‘첫사랑이 돌아온다’를 통해 치매의 고통스러움 대신 기억과 사랑의 의미를 소박하고 따뜻하게 성찰한다. 윤 작가와 이 연출은 치매를 ‘삶의 황혼에 주어진 마지막 날개짓’으로 바라본다. 아름다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장 빛나던 순간을 생의 마지막 기억으로 가지고 떠나기 위한 몸짓, 또는 삶의 흔적을 복원하는 마지막 몸부림이 치매라고 여긴다. <br/> <br/>극의 배경은 치매환자가 모인 요양병원이다. 잘못된 결혼의 기억을 지우고 사랑했던 남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첫사랑 여인을 찾아나선 할아버지가 만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첫사랑으로 착각하고, 할머니는 그를 위해 기억을 재구성한다. 할머니 역할은 연희단거리패 배우장 김미숙, 할아버지는 배우 김철영이 연기한다. <br/> <br/>연희단거리패가 세운 게릴라극장은 지난해 창작극 개발을 위해 윤 작가와 윤대성희곡상을 공동으로 신설했다. 이 희곡상의 수상작 두 편과 윤 작가의 신작을 엮어 이번에 윤대성 기획전을 마련했다. 공연은 24일까지 서울 대학로 게릴라극장에서 열린다. <br/>연극 ‘곰의 아내’◆곰과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 <br/> <br/>‘곰의 아내’는 서울문화재단과 극공작소 마방진이 공동제작했다. 연극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 작가 고연옥의 ‘처의 감각’을 고선웅이 각색·연출했다. 삼국유사 웅녀 신화를 모티브로 한다. 한 여성이 곰의 새끼를 낳고 숲에서 살다가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도시로 나온 여성이 부딪치는 세상사를 통해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지 묻는다. 원시와 문명, 자연과 인공, 짐승과 인간 등 대립된 요소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곰의 아내를 치유하려는 무당은 “넌 꼭 사람이 돼야 해. 그래야 인간처럼 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무당의 말은 공허하게 울린다. <br/> <br/>고 연출의 색채는 기존 작품들과 비교하면 옅은 편이다. 모순과 과장, B급 정서로 웃음을 유발하는 모습은 거의 없다. 고 연출은 평소 감정을 빼고 툭툭 던지듯 대사하기를 주문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을 지운 인상이다. 신화적 상상력과 은유가 풍부한 고 작가의 글에 감정이 증발한 말투가 결합하니 작품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야기가 자연스레 흐르며 흥미를 끌기보다 하나의 주제에 복무하는 풍경화들을 집합시켜 놓은 느낌이다. <br/> <br/>곰의 아내 역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화장’에서 말기암 아내 역을 맡은 배우 김호정이 연기한다. 공연은 17일까지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에서 진행된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3.txt

제목: 비만 아동 암 발병률 높다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6195910868  
본문: 소아 비만을 겪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장암, 심혈관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데릭스버그 병원의 얀센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인용, 아동의 체질량지수(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높을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아동 25만76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세 아동 기준 체질량지수가 2~3포인트 높아질수록 대장암과 직장암의 발병률은 각각 9%, 11% 증가했다. 또 1930년부터 1987년 사이에 태어난 덴마크인 30만76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 체질량지수가 2~3포인트 높은 사람이 여성은 26%, 남성은 21% 확률로 심혈관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4.txt

제목: [집중취재] “웃고 , 그림 그리고 , 춤추고… 아픔 날려버려요”  
날짜: 201607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6192802497  
본문: “<span class='quot0'>빨간 모자와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에요.</span>” <br/> <br/>지난달 28일 서울대암병원의 암정보교육센터. 암 생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영자(59·여)씨가 ‘나만의 별’이란 주제로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가 “<span class='quot1'>나만의 별에서는 평소 입지 못한 화려한 옷도 과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span>”며 웃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br/> <br/>암 생존자들이 서울대암병원암정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웃음치료에 참여해 소리내 웃고 있다. <br/>서울대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제공2014년 난소암 수술을 받은 김씨는 지난 2년간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치료에 참여했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수술 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란 정신적 후유증이 컸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상미 강사는 “<span class='quot2'>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 센터의 미술치료에 참여한 김영자씨가 그린 그림. <br/>김영자씨 제공서울대암병원은 미술치료를 비롯해 매주 암 생존자들을 위한 무용·요가·웃음·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과 대화하는 법’ ‘암치료 후 식사관리’ 같은 ‘실속형 강연’도 인기다. <br/> <br/>1년6개월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허미옥(63)씨는 자타공인 ‘열혈 학생’이다. 화·금요일에는 무용·웃음치료를, 월요일은 격주로 음악치료를 받는다. 허씨는 “<span class='quot3'>암 진단 이후 우울하고 의욕도 없었지만 여기서 수업을 듣고 나면 활력이 생긴다</span>”며 “<span class='quot3'>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도 의지가 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처럼 암 생존자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소수 대형병원에 한정돼 있다. 환자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br/> <br/>대학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4'>강의료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 강사를 모집하려니 어려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대형병원 위주로 있던 프로그램들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span>”라고 안타까워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5.txt

제목: 이란 영화감독 키아로스타미 별세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221244755  
본문: 이란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암 투병 끝에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4일(현지시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국내에서 개봉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작품 등으로 유명한 그는 1979년 이란 왕정을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 이후 많은 예술가와 달리 고국에 머물며 40여편의 영화를 제작해 이란 영화를 국제무대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그는 1997년 ‘체리 향기’로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아 이란 영화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체리 향기는 자살을 생각하며 자신을 묻어줄 사람을 찾는 이란인 남성을 묘사해 호평을 받았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수상 후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이야기다. 만들고 나서 다시 보지 않았다”면서 “사실, 그 영화는 (자살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br/> <br/>키아로스타미 감독은 1999년 베니스영화제에서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로 심사위원단 상을 받았고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1992년),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년) 등을 남겼다. <br/> <br/>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6.txt

제목: 패혈증 새 치료법 개발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220643153  
본문: 사람의 혈관에 미생물이나 미생물 독소가 들어가 온몸에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윤주헌(사진 왼쪽)·유지환(오른쪽) 연세대 교수팀이 몸속 단백질 중 하나인 ‘세스트린2’가 패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br/> <br/>연구진은 몸속에 세스트린2가 없는 돌연변이 쥐와 정상 쥐에게 패혈증을 일으키고 생체반응을 비교한 결과 세스트린2가 염증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br/> <br/>즉 미생물이 침입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면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세스트린2가 바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다는 거다. <br/> <br/>세스트린2는 대사 질환과 퇴행성 신경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패혈증 같은 염증 질환에서의 역할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br/> <br/>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패혈증을 비롯한 각종 염증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항생제 투여만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패혈증 치료의 새 가능성을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패혈증, 나아가 노인성 질환 등의 질병 치료법을 개발하는 토대가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오토파지(Autophagy)’ 6월23일자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7.txt

제목: [뉴스 브리핑] 불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벌금형 외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194905628  
본문: 불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벌금형 <br/> <br/>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일 말기암 환자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7)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 강모(65)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07∼2015년 환자 1571명을 상대로 ‘소금물 관장’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r/> <br/>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절차 간소화 <br/> <br/>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앞으로 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된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7월 재산세부터 공사가 보유한 가입자 자료를 행자부의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8.txt

제목: [집중취재]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진행 빨라… 급성백혈병 40%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190928225  
본문: 소아암은 미성년자에게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가장 흔한 것은 급성백혈병이다. 5일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14세 이하 아동의 암 발생률은 10만명당 13.3명(201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br/> <br/>백혈병 발생률이 10만명당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 및 중추신경계(1.9명) △비호지킨림프종(1.7명) △갑상선암(0.5명) △간암(0.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소아암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1%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4세로 전체 소아암 환자의 31.5%를 차지했다. 이어 △15∼17세 28.9% △5∼9세 22.1% △5세 미만 17.5% 순이었다. 15∼17세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0.2%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많았다. 총 진료비는 2010년 831억원에서 2014년 877억원으로 4년간 5.4% 늘었다. <br/> <br/>소아암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거의 없으므로 예방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br/> <br/>또 성인암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조직이나 장기 깊은 곳에서 발생해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좋아 성인암보다 치료 결과가 좋은 편이다. <br/> <br/>소아암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백혈병은 혈액 세포 중 백혈구에 발생한 암으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해 정상적인 백혈구·적혈구·혈소판 생성을 억제한다. 소아백혈병 환자의 90%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다. 뼈에 생기는 암인 골육종은 특히 성인보다도 10대에서 많이 발병한다. 10살 전후로 무릎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br/> <br/>대한백혈병어린이재단은 △아이가 창백하고 빈혈 증상을 보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계속 자라는 혹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두통과 구토를 호소할 때 등을 소아암 의심 증상으로 꼽고 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을 허락한 양근호·서창범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학부모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69.txt

제목: [집중취재] 3년의 투병, 30년의 꼬리표… 외톨이 된 소아암 생존자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190923367  
본문: '하루 4명. 국내에서 하루 평균 소아암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다. <br/> <br/>5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따르면 백혈병, 뇌종양, 골육종 등 1년에 1500명가량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한다. <br/> <br/>2014년 기준 소아암 진료 인원은 1만3775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가 어린이·청소년으로 추산된다. <br/> <br/>소아암 완치율(5년 생존율)은 성인암(70%)보다 높은 80% 수준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하고 ‘소아암 생존자’가 된다. 그러나 한창 몸과 마음이 자랄 시기에 투병 생활을 한 소아암 생존자들은 암 치료 및 회복 과정에서 성인암 생존자보다 큰 심리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울·불안 증상을 보이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br/> <br/>◆마음에 새겨진 상처 <br/> <br/>이예준(22)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뼈에 생기는 암인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몸 상태가 호전됐다 재발하고 폐로 전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춘기 시절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지금껏 수술만 5번, 항암 치료는 13번이나 받았다. <br/> <br/>이씨는 “치료받을 당시에는 암이 뭔지도 몰랐다. 그냥 너무 아파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란 생각만 했다”며 “상태가 좋아지면 부모님은 좋아했지만 나는 ‘어차피 나아봤자 또 재발될 텐데’라고 생각했다. 삶에 의욕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br/> <br/>다행히 몸 상태는 회복됐지만 문제는 마음에 새겨진 상처였다. 치료 때문에 학교를 자퇴했던 이씨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던 그는 몇 년간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그 사이 마음속 병은 점점 더 커졌다. 지난해 부모님 손에 이끌려 상담센터를 찾은 그는 뒤늦게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현재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몸 속 암만 생각하고 마음 속 응어리는 방치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더 어릴 때부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span>”이라고 아쉬워했다. <br/> <br/>이씨처럼 많은 소아암 생존자들은 치료과정에서 혹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다. 성인암 환자는 스스로 암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고, 치료가 고통스럽더라도 ‘내 몸을 위한 치료’란 것을 인지하지만 소아암 환자들은 자신이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좌절감·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마음이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상흔이 된다. <br/> <br/>미국 다나파버 암연구소에 따르면 성인이 된 소아암 생존자 266명(평균 28세)을 조사한 결과 13%(29명)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 암 치료가 끝나고 수년, 수십년 뒤에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소아암 생존자들은 신체 치료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br/> <br/>◆학교에서도 소외감 <br/> <br/>소아암 생존자들의 투병 기간은 평균 44개월이다. 3년 넘게 치료를 받다 보니 80%가량은 학교를 쉬게 된다. 이들은 치료 뒤 학교로 돌아가지만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br/> <br/>초등학교 4학년부터 쉬다가 6학년 때 복학했다는 박태형(27)씨는 “<span class='quot1'>‘전염되는 것 아니냐’며 나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친구 부모님들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오랜만에 보다 보니 친했던 친구들도 어색해해서 한동안 적응하기 힘들었다</span>”고 토로했다. <br/> <br/>김지현(27·여)씨는 “체력이 약해서 반 청소에서 빠지거나 자주 조퇴하는 것을 보고 ‘왜 쟤는 봐주냐’면서 시기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br/> <br/>학교의 과보호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건강이 회복됐는데도 아팠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시간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때 소아암 생존자의 자신감을 꺾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배제시켜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br/> <br/>이에 대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span class='quot2'>소아암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무지 때문</span>”이라고 말한다. <br/> <br/>재단이 소아암 생존자의 반 친구들에게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소아암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서 87%로, ‘소아암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65%에서 93%로 높아지는 등 인식 변화에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좀더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br/> <br/>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김은영 박사는 “<span class='quot3'>소아암 생존자들은 암 진단·치료 시기가 신체·정서·인지 발달기간인 데다 교육 기회나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교류가 적어 정체성 형성 등 주요 사회심리적 발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환자와 부모에 대한 정신치료적 접근, 장기적인 추적 관찰 등 심리사회적 개입방법 개발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을 허락한 양근호·서창범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학부모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0.txt

제목: [집중취재] 투병도 서러운데 배움 기회도 잃어… '교육권' 보장해야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190921565  
본문: 소아암을 앓고 있는 한 어린이가 병실에서 화상강의를 듣고 있다. <br/>꿈사랑학교 학부모회 제공현재 청소년인 소아암 생존자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학업 문제다. 학교를 떠나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 학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치료 후 학교에 돌아가도 수업 진도를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화상강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습 콘텐츠가 부족한 데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마저도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소아암 생존자들은 어린 나이에 암 투병을 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상실감이 크다.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br/> <br/> <br/> <br/> <br/>◆학습지원의 양과 질 모두 낙제점 수준 <br/> <br/>5일 교육부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학교에 가기 어려운 소아암 생존자들은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건강장애아동’으로 등록한 뒤 화상 강의나 병원에 설치된 ‘병원 학교’를 통하면 출석을 인정받는다. 건강장애아동이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수행 등에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건강장애아동은 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등 1935명으로 집계됐다. <br/> <br/>현재 전국에는 건강장애아동을 위해 4개의 화상강의소(꿀맛무지개학교·인천사이버학교·꿈빛나라학교·꿈사랑학교)와 32곳의 병원학교가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은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1일 2시간 이상 화상강의를 수강하면 출결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만으로 학교 공부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br/> <br/>소아암 생존자 학부모인 서창범(46)씨는 “<span class='quot0'>현재 건강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 목표는 최소한의 수업일수를 채워 ‘유급을 막는 것’에 불과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강의 과목이 5개밖에 안 되고 콘텐츠도 부족해 양질의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소아암 생존자들이 유급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수준으로 학교에 복귀하면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역부족이라는 것이다.또 다른 학부모 한나영(43·여)씨도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공부를 제법 했는데 1년 넘게 쉬다가 학교에 가니 수업을 힘들어한다”며 “진도를 못 따라가서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있는 것 같아 아예 1년 유급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정 탓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보는 청소년도 많다. <br/> <br/>여기에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화상강의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하려 해 소아암 생존자와 학부모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화상강의는 모니터와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이 이뤄져 수업시간에 교사나 동급생들과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녹화해 놓은 강의를 학생이 선택해 보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화상강의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하면 수업시간에 상호작용이 안 돼 아이들의 흥미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씨는 “<span class='quot1'>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외로움이 커서 화상강의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며 즐거워하는데 원격강의는 혼자 듣기만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소아암 생존자들의) 교육 접근권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br/> <br/>◆통합적 건강장애센터 필요 <br/> <br/>치료 후 어렵게 학교에 복귀하면 화상강의마저 지원을 못 받는 것도 문제다. 학부모 이지혜(44·여)씨는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다보니 학교에 복귀해도 결석이나 조퇴를 자주 하는데 교육청은 학교와 화상강의를 병행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일단 학교로 돌아간 만큼 수업을 잘 따라가는 문제는 학생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소아암 생존자인 김연우(23)씨도 “<span class='quot2'>몇 달 동안 손에서 책을 놓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찰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모두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이 때문에 소아암 생존자 학부모들이 나서 정부 등을 상대로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화상강의소인 꿈사랑학교 학부모회는 병원과 학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에 복귀한다고 바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치료 중-학교 복귀 전-학교 복귀 후’로 나눠 단계별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현재 소아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고 재발을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치료 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하다</span>”며 “<span class='quot3'>‘건강장애아동 센터’를 만들어 화상강의도 관리하고 아이들 심리 상담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을 허락한 양근호·서창범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학부모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1.txt

제목: 표고버섯 해외에서도 인기  
날짜: 20160705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5142749770  
본문: 전남 장흥 표고버섯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br/> <br/>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원목 표고버섯’이 내년 5월까지 약 1년간 홍콩 35t, 일본 4t 등 총 19억원어치를 수출한다. <br/> <br/>장흥 원목 표고버섯은 참나무 원목으로 재배돼 향이 좋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 건표고 생산량 1위를 점유하고 있다. <br/> <br/>국내에서(지난해 기준)는 농협 하나로마트 25억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8000만원, 직거래 20억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정남진장흥농협·CJ몰·우체국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br/> <br/>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고에는 렌틴(lentin), 렌티난(lentinan)이라는 기능성 물질이 있어 바이러스 감염 예방, 인체 면역력 강화, 암 예방, 콜레스테롤·혈압 저하 효과가 있다. <br/> <br/>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2.txt

제목: [나의애독서] 중요한 건 소유 아닌 존재의 삶… 마음으로 읽는 가르침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213217067  
본문: 과거 무서웠던 게 호환, 마마였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다. 서로 믿지 못하며, 또 분노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너무나 쉽게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간 소외가 빚어낸 어두운 사회상이다. 산업화 사회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문제임을 잊고 사는지도 모른다. <br/> <br/>‘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는 ‘무소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법정 스님과 소설가 최인호의 산방대담을 엮은 책이다. 대담은 2003년 스님의 거처인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약 4시간 동안 이뤄졌다. 최인호는 2010년 법정이 입적(入寂)한 후 약 3, 4주기에 맞춰 출간하려 했지만, 그에게 닥친 암으로 생전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책은 그가 법정과 맺은 소중한 연(緣)과 가르침을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바람의 산물이다. <br/> <br/>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책을 접한 건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작년 봄이었다. 때마침 공직을 떠난 시기였기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이라든지, ‘사람의 말이란 곧 믿음이요, 거짓과 사기는 문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는 폐부를 깊이 흔들었다. 부질없는 지식에만 너무 빠지진 않았는지, 백 마디 말보다는 진정한 마음을 실은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고 살았다는 반성이었다. <br/> <br/>이 책을 가끔 펼치면 오간 대화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1년 만에 다시 보니 그 느낌이 또 다르다. 주변에 있는 기쁜 일들을 내가 참으로 소홀히 생각한 건 아닌지, 헛된 논리에 빠져 단순하고도 보편타당한 가치를 어긴 건 아니었는지…. 아무튼 여운이 가득한 두 분의 대화를 보면 볼수록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br/> <br/>서산대사는 “<span class='quot0'>삶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그 구름이 스러지는 것</span>”이라 했다. 인생이 실체도 없는 구름이니 소유가 얼마나 덧없으며,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이라는 것이다. 물질에 대한 무한한 숭배가 지배하는 오늘날, 내가 그랬듯 타인들도 이 책을 읽으며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삶의 궤적들을 떠올리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좋겠다. <br/> <br/>참으로 이 책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천천히 ‘느끼는’ 책이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언제든 펼쳐보며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다. <br/> <br/>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3.txt

제목: [집중취재] “가슴 수술 후 한동안 목욕탕 못 가… 사회적 고립에 절망”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90456670  
본문: “가슴 절제 수술을 받고 한동안 대중목욕탕을 안 가다가 어느날 용기를 냈어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갔는데, 내가 온탕 안으로 들어가니까 탕 안에 있던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본 것처럼요. 그때 기분은 정말….” <br/> <br/>정해옥(63·여)씨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수술 후 힘들었던 점을 털어놨다. <br/> <br/>그의 삶은 1년6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로 완전히 달라졌다. 치료 과정도 고됐지만 더 힘든 것은 자존감을 짓밟는 듯한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편견이었다. <br/> <br/>어디를 가든 ‘암 환자’라는 딱지를 떼내기 어려웠고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콕콕 찔렀다.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손님이 적은 이른 새벽에만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그런 내 모습이 서글프더라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 많은 시간에 갑니다.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여전히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r/> <br/>정씨의 사례처럼 암 생존자들은 병이 잘 치료돼도 병원 밖을 나서면 사회적 편견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기 일쑤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거나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암 환자’ 편견에 상처 <br/> <br/>2013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박주연(37·여)씨는 몇달 전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br/> <br/>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학교에 다녀온 뒤 “아이들이 ‘엄마 암 걸렸다’고 놀렸다”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br/> <br/>박씨는 “<span class='quot0'>딸이 ‘엄마는 암으로 아팠다’는 것만 알지 ‘암’이 어떤 병인지 잘 몰라서 학교에서 그 얘길 한 모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반 아이들도 처음엔 별 말 안 했는데 집에서 부모들에게 ‘나쁜 병’, ‘죽을 수 있는 병’이라고 듣고 놀린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후 박씨가 학교에 가 아이들에게 ‘암은 나쁜 병이 아니다’라며 이해시키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날 받은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내 병 때문에 아이가 상처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span>”고 토로했다. <br/> <br/>취재 과정에서 만난 암 생존자들은 암 환자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br/> <br/>2011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이진수(27)씨는 “<span class='quot1'>‘암에 걸린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70%가량 되는 완치율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란 인식이 상당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투병 사실을 숨기게 된다</span>”고 털어놨다. <br/> <br/>이씨의 지적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취재팀이 4일 온라인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와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5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암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라는 인식에 대해 71.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의학적으로 암은 치료가 모두 끝난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가 됐다고 보지만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43.6%에 그쳤다. <br/> <br/>7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김순애(53·여)씨는 “수술 후 서너 달은 우울해서 집에만 있다가 뭐라도 배워보려고 문화센터에 갔는데 암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안됐다’는 표정을 지었다”며 “그런 시선이 상처가 돼서 더 밖에 나가기 싫어졌었다”고 떠올렸다. <br/> <br/>◆10명 중 7명 ‘가족이 암 환자와 결혼한다면 반대’ <br/> <br/>암 생존자들은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br/> <br/>2013년 유방암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최연아(32·여)씨는 “항암 치료 후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몸이 약해지다보니 자꾸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그쪽 집에서 결혼을 반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났다. ‘형제·자매·자녀 등 직계가족이 암 투병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상관없다’는 응답은 고작 6.5%에 불과했다. ‘적극 반대할 것’이란 응답은 21.1%,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을 시도하겠지만 본인 뜻이 확고하면 어쩔 수 없다’가 44.2%로 10명 중 7명이 반대의 뜻을 표현하겠다고 답했다. 28.2%는 ‘겉으로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불안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br/> <br/>김씨는 “<span class='quot2'>딸이 결혼할 때 엄마가 아팠다는 사실 때문에 시댁에 책잡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2'>한국사회에서 암 걸린 사람은 죄인이나 마찬가지 신세</span>”라며 한숨지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과 사진 촬영을 허락한 김민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4.txt

제목: [집중취재] 환자도 버팀목 가족도 “뭘 어떻게 해야…”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90453735  
본문: 암 생존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가족이다. <br/> <br/>그러나 환자 본인과 가족들 모두 암 투병·회복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 예기치 않은 갈등구조를 낳고 가정 내에서조차 환자가 고립되는 일마저 생기기도 한다. <br/> <br/>유방암 생존자 강정미(54)씨는 “<span class='quot0'>일단 수술이 잘 끝나고 나면 가족들은 ‘병이 다 나았다’고 안심해서 환자에게 소홀해지는 면이 있다</span>”며 수술 후 사춘기였던 자녀들과 자주 다퉜던 이유를 설명했다. <br/> <br/>수술한 쪽의 팔은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부어 올라 청소기 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자녀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줘 문제가 없었는데 몇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자녀들이 서서히 귀찮아했고 강씨도 몸이 힘들다보니 서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다. <br/> <br/>강씨는 “<span class='quot1'>애들이 ‘엄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게 섭섭해 많이 울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 치료 후 몇년간 나도 애들처럼 ‘사춘기’ 상태였다</span>”고 회상했다. <br/> <br/>이 같은 갈등은 가족들조차 암 생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암 생존자와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br/>8년 전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은 김영곤(35)씨는 “아버지의 암은 우리 가족에게 큰 사건이었지만 치료가 끝난 뒤 가족들끼리 직접적으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냥 ‘몸은 어떠냐’고 에둘러 표현한다. 가족들에게 ‘암’이란 단어가 트라우마가 됐다”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아버지가 현재 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 받는지 궁금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조심스럽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원에서 식단 같은 주의 사항만 알려주지 말고 가족들이 암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과 사진 촬영을 허락한 김민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5.txt

제목: [집중취재] "이겨내도 비정규직·실업자"…암 걸린 게 잘못인가요?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90453034  
본문: “<span class='quot0'>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자리 잡고 싶어요.</span>” <br/> <br/>한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관리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김민우(30)씨는 오는 8일 다시 ‘구직자’로 전락한다. 이날로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br/> <br/>24살 때부터 사회에 뛰어든 김씨에게 이 회사는 벌써 네 번째 직장이다. 처음은 금융감독원에서 2년간 사무보조를 했고 6개월은 민간 회사에서, 또 1년은 국책은행에서 일했다.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br/> <br/>김씨는 중학교 때 배아세포종(뇌종양의 일종)을 앓았다. 치료는 1년 만에 끝났지만 투병을 전후로 김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치료 후유증으로 신체 왼쪽이 불편해졌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리에는 머리털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씨는 20대 초반까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취재팀과 만난 김씨의 표정은 밝고 당차 보였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br/> <br/>김민우씨가 지난달 24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취재팀과 만나 암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br/>김포=남정탁 기자“<span class='quot1'>오랜 기간 암 환우회 활동을 하다보니 우울증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왼쪽 마비 증세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나아지더라고요.</span>” <br/> <br/>그러나 혼자 힘으로 어렵게 세상으로 나온 김씨가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지금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고 또 비정규직을 찾아 일하는 식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왔지만, 앞으로는 좋아하는 분야 일을 하면서 자리 잡고 싶다</span>”며 “<span class='quot1'>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심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씨처럼 암 생존자들은 어떻게든 신체·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를 소망하지만 생각만큼 간단치가 않다. 중증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회 제도와 인식의 벽을 넘어서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다. 스무살 이전 암에 걸려 군대에 가지 못한 전력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 암 생존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입사 지원서 병역 사항에 적게돼 있는 군 면제 사유 때문에 서류심사부터 발목 잡히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br/> <br/>초등학생 때 암에 걸려 군복무가 면제된 이철호(26)씨는 “<span class='quot2'>면제 사유에 ‘질병’이라고만 적어도 면접에서 어디가 아팠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과거 병력을 말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암 치료를 마친 지 10년이 훨씬 지나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span>”고 답답해했다. <br/> <br/>모 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기업문화가 야근이 잦고 회식도 있다보니 (암 생존자들과) 일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표면적으로 암 생존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span>”고 귀띔했다. <br/> <br/>직장에 다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도 치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br/> <br/>배미영(31)씨는 2013년 유방암으로 가슴 한쪽을 절제했다. 다니던 직장은 암 진단을 받은 뒤 그만뒀고 지금은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고 있다.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손에서 일을 놓은 지 오래된 데다 몸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확신도 없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br/>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폐암 생존자 830명을 대상으로 암진단 전과 암 수술 1년 뒤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68.6%에서 38.8%로 급감했다. 위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암 진단 28개월 이후 실업률은 46.6%로 일반인 그룹(36.5%)보다 훨씬 높았다. <br/> <br/>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에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 상태다. 치료를 마쳐도 면역력과 체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는 일정 기간 휴직이 보장돼야만 건강을 회복한 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br/> <br/>2013년 유방암·난소암 수술을 받은 이영자(61)씨는 유방암 약을 먹으며 6개월에 한 번 추적관찰을 받고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이씨는 “<span class='quot4'>이직하려고 쉬던 중 암에 걸린 걸 알아서 그동안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고 암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 일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span>”며 “<span class='quot4'>암 진단 5년 뒤에는 산정특례(암 진료비 급여항목의 9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끝나서 약값이랑 검사비가 갑자기 올라간다는데 걱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장태수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span class='quot5'>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기업의 태도, 암 생존자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 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암 생존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거나 업무복귀 시 일정 기간 이들을 배려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과 사진 촬영을 허락한 김민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6.txt

제목: [집중취재] 후유증 심각해도 ‘장애인 판정’ 별따기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90345969  
본문: 암으로 인한 신체 장애는 암 발생 부위만큼이나 다양하다. 일부 항암제는 감각신경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환자마다 ‘손발이 저리다’ ‘화끈거린다’ ‘자갈밭을 걷는 것 같다’는 등 각기 다른 증상을 호소한다. 소아암 경험자 중에는 키 성장이 멈추거나 아예 머리털이 나지 않기도 한다. <br/> <br/>4∼7살에 악성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김경호(31)씨가 그렇다. 김씨는 현재 키와 몸무게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수준이다. 취업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신체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등급을 받기 어렵다. 남성은 145㎝, 여성은 140㎝ 이하일 때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영구 탈모는 장애 요건이 아니다. 여성 암 생존자는 머리카락을 전부 잃어도 별 수 없이 사회적 차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br/> <br/>김씨는 “<span class='quot0'>아이로니컬하게도 나는 암 합병증으로 심장병이 생겨 장애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통해 계약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장애인도 아니고 건강한 일반인도 아닌 채 겉도는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운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근육에 생기는 암의 일종인 횡문근육종이 얼굴에 발생해 총 7차례 복원수술을 받은 이유진(26·여)씨는 “나처럼 외적인 후유증만 남은 경우 장애 판정이 안 난다”며 “지난해 8월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생으로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처럼 암 치료로 몸에 영구 후유증이 남게 되면 장애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 암 진단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간암, 대장암, 비뇨기암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간암은 간 장애로 진단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2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어야 장애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장암이나 비뇨기암은 장루나 요루장애로 복원 불가능한 영구 수술을 받았을 때만 등록이 가능하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실명 사용과 사진 촬영을 허락한 김민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7.txt

제목: [집중취재] 사회복귀 꿈꿨지만…‘주홍글씨’가 된 암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90344546  
본문: '암에 걸린 게 잘못인가요? <br/> <br/>대다수 암 환자는 암 진단과 동시에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중단한다. 치료에 전념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삶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br/> <br/>그러나 이후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녹록지가 않아 좌절할 때가 많다. 우리 사회 제도와 분위기가 ‘암 생존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인색한 반면에 편견은 차고 넘치는 탓이 크다.  <br/> <br/>이혜영(26·여)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년간 근육암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재활과 후유증 치료에만 6년을 더 보냈다. 청소년기 내내 암과 사투를 벌여 이겨낸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세상에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암 생존자들에게 가혹하리만치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자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br/> <br/>“입사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학창 시절이나 삶의 전환점을 묻는 항목이 있잖아요. 나에겐 암 발병과 투병생활 자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인데 꼭꼭 감출 수밖에 없어요. 회사로서는 건강한 지원자도 많은데 굳이 암에 걸린 사람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br/> <br/>그는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암 병력이 알려져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우리 사회는 암에 걸린 게 잘못한 일도 아닌데 투병 사실을 숨기게끔 만드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br/> <br/>실제로 취재팀이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와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에 의뢰해 직장인 573명을 대상으로 ‘암 치료를 마치고 직장에 취업·복귀한 사람의 근로 능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59.5%)이 ‘일반인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답하는 등 ‘막연한 편견’이 상당했다. <br/> <br/>이같이 응답한 이유로는 ‘체력이 약해 근로시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4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퇴·연차 등의 사용이 잦을 것 같아서(26.7%) △집중력·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22.8%)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서(4.3%) 등의 순이었다. <br/> <br/>‘암에 걸린 직장 동료의 휴직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엔 ‘정해진 병가만큼 쉬고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34.5%)와 ‘본인이 원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달갑지 않다’(30.1%)는 응답률이 64.6% 달해 동료의 암 치료로 생길 업무공백에 상당수가 부담스러워했다. <br/> <br/>‘암에 걸리면 학업·직장생활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암 치료와 학업·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듯 50.1%가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br/> <br/>‘암 치료로 장애·후유증이 생긴 사람이 (향후) 취업할 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물음에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3.1%로 ‘필요하지 않다’(8.6%)를 압도한 것이다. 암 생존자를 포함해 중증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운 채 홀로서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 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 <br/>※실명 사용과 사진 촬영을 허락한 김민우씨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8.txt

제목: 한국 전통식품, 실제로 대장암 위험 낮춰  
날짜: 20160704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100458023  
본문: 채소, 생선, 장류 등이 골고루 포함된 한국 전통 밥상이 대장암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김정선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박사팀은 총 2769명을 대상으로 평소 식습관과 대장암 위험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전통밥상을 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이 60%까지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참여자에게 평소 먹는 식재료 106개를 고르게 한 뒤, 이 식재료를 영양소 근원에 따라 33개 식품군으로 나눴다. 또 주성분에 따라 한국전통식, 적색육·가공육·탄수화물 등을 포함한 서구식, 과일·유제품을 포함한 건강식 등 3가지 식이유형으로 구분했다. <br/> <br/>연구팀은 이렇게 구분된 3가지 식이유형을 참여자가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따라 대장암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한국전통식과 건강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은 낮게 섭취한 그룹과 비교해 대장암 위험이 60% 이상 크게 줄었지만, 서구식을 높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낮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2배 이상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br/> <br/>김정선 박사는 “<span class='quot0'>그동안 대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여러 영양소나 식품군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은 유전, 생활습관, 환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데 식습관 개선도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79.txt

제목: 코웨이 중금속 논란, 네티즌 "내 아이한테 이런물을 먹였다니"  
날짜: 2016070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4094301931  
본문: 사진=SBS 캡처국내 정수기 브랜드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4일 보도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특히 지난해 7월부터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가루가 보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같은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이날 오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너무 어이없고 분하네요...내 아이들에게 이런물을 먹이고 있었다니,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네요(bbon\*\*\*\*)","사과하면 끝인가? 고객들 마신 물은 어떡할건데?(wow1\*\*\*\*)","소송할겁니다.(best\*\*\*\*)","몇달전에 정수기 부품 교체한 다음에 얼음이 안나온다고 하니까 정수기 통째로 바꿔줘서 웬일인가 했는데....역시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kebi\*\*\*\*)","국내 기업이 자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m712\*\*\*\*)","코웨이 다른 제품은 괜찮은건가요? 믿을수가 없네요(9131\*\*\*\*)"등의 의견을 남겼다. <br/> <br/>코웨이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통해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 후 다방면의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정수기에서 발생가능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r/> <br/>현재는 입고 수리, 제품 교환 등의 개선조치를 통해 97%이상 서비스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0.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IBK기업은 ‘삼성페이 계좌결제 이벤트’ 외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211730667  
본문: IBK기업은 ‘삼성페이 계좌결제 이벤트’ <br/> <br/>IBK기업은행은 8월4일까지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기업은행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결제 3회 이상, 결제 누적금액 3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IBK 삼성 페이 계좌결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번째, 33번째 333번째 고객에게 갤럭시S7을 주고,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5000원권 SPC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지난 4월 출시한 ‘IBK 삼성 페이’는 전국 BC카드 가맹점에서 계좌결제가 가능하며, ATM입출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br/> <br/>KB생보 ‘무배당 실버든든 암보험’ 출시 <br/> <br/>KB생명보험이 실버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KB국민 실버든든 암보험’을 출시했다.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5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 후 암 진단 시 2000만원, 특정암(유방암, 남성·여성 생식기암) 진단 시 500만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2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후 2년 이내 발병 시는 보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특히 이 상품은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납입보험료 5% 할인 혜택도 있다.  <br/> <br/>NH농협, 법인대상 ‘All My Biz 카드’ 판매 <br/> <br/>NH농협카드가 법인사업자를 위한 ‘All My Biz 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All My Biz 카드’는 NH농협카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법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 국내 가맹점 이용 시 최대 0.7%까지 채움 Biz 포인트 무제한 적립과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이용 시 3% 채움 Biz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히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1.5%의 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모든 카드의 실적을 합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1.txt

제목: [집중취재] "항암제로 인한 근육통… 뼈 부서지는 고통에 사는 게 지옥"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184209316  
본문: “요즘 항암제는 잘 나온다고 해서 초기에는 남편이랑 농담까지 주고받으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후유증이 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br/> <br/>2년 전 이맘때 이윤희(37)씨는 샤워 중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8살, 6살밖에 안 된 아이들 걱정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다행히 ‘1기’라는 사실에 용기를 냈다. 젊으니까 눈 딱 감고 치료하면 괜찮겠지 싶었다. <br/> <br/>수술 3주 후 항암치료가 시작됐다. 지금은 약이 좋아 고통이 덜하다는 얘기에 안도한 것도 잠시, 항암제를 맞자 상상 이상의 메스꺼움에 속이 뒤집혔다. 두 차례 항암치료에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됐다. <br/> <br/>병원에서 약을 바꾸자 이번에는 살을 에는 듯한 근육통이 시작됐다. 의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항암치료가 원래 힘드니 이겨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br/> <br/>이윤희씨는 유방암 치료 이후 원인 모를 근육통으로 수없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아플 때 찍은 거의 유일한 사진</span>”이라며 링거를 맞고 있는 손 사진을 보내 왔다. <br/>이윤희씨 제공그렇게 항암치료에 이어 지난해 1월 방사선치료를 마친 그는 병원 매뉴얼대로라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만 받으면 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어야 했다. 그러나 근육통은 이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br/> <br/>“<span class='quot1'>하루 종일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span>” <br/> <br/>잘 때도 헛소리를 하다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응급실부터 찾았다. 제대로 입원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암 후유증만으로는 입원실 잡기가 무척 어려워 응급실을 거쳐 입원해야 했다. 그래봐야 모르핀 주사를 맞는 게 전부였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어린 두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누워있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결국 근육통에 덤으로 얹어진 우울증과 불면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br/> <br/>“<span class='quot1'>‘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아픈 모습만 보여줄 바에야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span>”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그때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진통제도 한 가지로는 효과가 없어서 4종을 동시에 삼켰다. 위장 보호와 소화불량 해소를 위한 약까지 먹게 됐다. <br/> <br/>이씨는 “<span class='quot0'>약이 약을 불러 나중에는 한꺼번에 8가지 약을 먹게 됐다</span>”며 한숨을 지었다. 급기야 통증을 줄이는 부교감신경차단술을 두 차례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이 와중에 유방암뿐 아니라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br/> <br/>“<span class='quot1'>일가친척 누구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는데 하필 제게 그런 유전자가 있다니 원망과 좌절감만 쌓이더라고요.</span>” <br/> <br/>이윤희씨가 유방암 치료 이후 원인 모를 근육통을 겪으며 처방받은 약. 이씨는 8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약효가 없었다고 한다.병원에서는 난소암은 발견되는 순간 말기라며 난소 제거 수술을 권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이씨는 또 다른 후유증을 겪을까봐 거부했다. 난소를 제거하면 생리가 끊기고 근육통과 손발저림 등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들어서다. <br/> <br/>이씨는 “<span class='quot0'>난소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데도 수술 후유증이 더 두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근육통 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고 난소 제거도 어차피 예방 차원인 만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기로 마음먹었다</span>”고 털어놨다. <br/> <br/>근육통의 악몽은 지난해 가을 참여한 암 극복 힐링캠프를 통해 서서히 지워졌다. <br/> <br/>암 생존자라는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속내를 털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불안감도 누그러졌다.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를 통해 자살 생각이 들 때 사고를 전환하는 법, 복식호흡과 명상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 등을 배운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매주 두 차례씩 6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 신기하게도 근육통이 잦아들었다. 아직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근육통도 남아있지만 가벼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씨가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무심한 기계적인 진료에 크게 실망한 이유이다. <br/> <br/>“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누구도 제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주지 않는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치료가 잘 끝났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아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이씨의 경험은 암 진단과 치료,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쪽에 치우친 우리나라 암 관리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br/> <br/>충북대병원 박종혁 교수(예방의학)는 “<span class='quot2'>암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던 시대와 달리 암 치료율이 70%까지 육박한 지금은 환자들의 치료 이후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암 생존자 문제를 더 이상 당사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2.txt

제목: [집중취재] "짐이 되는 것 같아…" 암 생존자 후유증에 두번 운다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184208529  
본문: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여길 나가기가 겁나요.” <br/> <br/>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김영미(60·여)씨는 6개월째 가족을 떠나 강원도의 한 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수술 후 체력이 약해져 집안일을 하기 힘들어진 탓도 있지만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식단 관리 등 주의사항을 알려주긴 했으나 치료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온전히 혼자만의 몫이었다. <br/> <br/>김씨는 “<span class='quot0'>수술은 잘 끝났지만 집에 혼자 있다 보면 겁이 났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요양원에 오게 됐다</span>”고 말했다. 이어 “여기 오래 있다 보면 계속 집에 못 갈 것 같아 불안하다. 빨리 회복해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에서 혼자 관리하다가 암이 재발할까봐 나가기 무서운 것도 사실”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김씨처럼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대신 암 요양원을 찾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암 생존자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치료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민간시설을 찾고 있는 것이다. <br/> <br/> <br/>암 요양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입소 가격표. 건강식단과 황토방이 제공되며 입소 가격은 1인당 한 달에 300만원 내외다. <br/>각 사이트 캡처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 <br/>◆‘한 달에 300만원’… 난립하는 암 요양원 <br/> <br/>암 요양원은 수술 전후,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나 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는 이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다. <br/> <br/>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암 요양원’을 검색하자 ‘건강 식단’, ‘치유 프로그램’ 등을 내세운 사이트 수십개가 나왔다. 황토를 이용해 지은 시설이 많아 일명 ‘황토방’이라고도 불리는 암 요양원은 현재 전국에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금은 한 달에 1인당 300만원 안팎이다. 보호자까지 동반하면 10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br/> <br/>3년 전 유방암 수술 후 1년 동안 요양원에 머물렀던 이순영(62)씨는 “<span class='quot1'>세끼 식사와 숙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아무래도 다들 절박하다 보니 ‘건강해지기만 한다면’이란 생각으로 찾는데, 요양원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대부분의 암 요양원이 입소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데다가 한달 입소 비용을 선불로 받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 일부 요양원은 민박집 등을 운영하다 간판만 요양원으로 바꿔 달고 부실한 식단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약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br/> <br/> <br/>지난해 난소암 수술을 받은 뒤 3개월간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을 이용한 박정애씨는 “<span class='quot2'>‘200만원짜리 장판을 사서 깔고 자면 건강해진다’고 하거나 ‘미국에서 온 생명의 약’이라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드는 약을 사라고 하는데 요양원에 있으면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양원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암 생존자를 착취하는 것 같았다</span>”고 회상했다. <br/> <br/>폐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던 한모(40)씨는 “요양원 관계자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데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이 싹 낫는다’고 말해 아버지가 병원보다 그 사람들을 더 신뢰했다”며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암 극복 프로그램’이라며 수백만원을 요구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병원비보다도 요양원에서 쓴 돈이 훨씬 많았다”고 털어놨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어…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br/> <br/>암 생존자들이 암 치료 후 다시 수백만원을 주고 요양원을 찾는 이유는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마땅한 암 생존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요양원 암 생존자 회복 프로그램이 ‘돈벌이 사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br/> <br/>이순영씨는 요양원 생활에 대해 “<span class='quot1'>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 후 몸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듯 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회복기간이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환자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한다”며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가야 하나’란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할지 몰라 ‘울며 겨자먹기’로 요양원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박정애씨도 “<span class='quot3'>항암치료를 받은 병원 홈페이지에 암 생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3'>수술 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황토방에 갈 수밖에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3.txt

제목: [집중취재] “암 생존자 통합지지의료 본격 도입해야”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184206514  
본문: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암 생존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에도 시급히 ‘통합지지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br/>통합지지의료란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 관리는 물론 2차암 예방,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 등 암 생존자의 심리적·신체적 문제 해결을 돕는 치료다. 암 생존자가 암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br/> <br/>재활의학·심리상담·사회복지 등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학제적 치료’라고도 불린다. <br/> <br/>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남지역암센터에서 유방암 생존자 84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년간 통합지지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66.9%(56명)가 불안·우울 증상이 개선됐다. 또 영양불량상태였던 31명은 영양상담 및 교육을 받고 영양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처럼 효과가 명확하지만 국내 통합지지의료 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br/> <br/>보건복지부는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지지센터를 지난해 6개 지역 암 센터에 설치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총 1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암 생존자의 지역 내 통합지지센터 이용 비율이 5% 수준에 그치는 등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수 병원에 그쳐 많은 이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r/> <br/>전문가들은 과거 암 치료가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는 물리적인 치료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유은승 전문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많은 암 생존자들이 다양한 신체·사회·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암 생존자에 대한 개입은 암 진단 시부터 이뤄져야 한다. 생존자 관리는 암 치료에서 필수로 포함돼야 할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br/>※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4.txt

제목: [집중취재] 우울·불안·통증… 암 생존자들 "또 다른 고통"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3184206015  
본문: '우리나라의 ‘암 생존자’는 137만명(2013년 말 기준)에 달한다. 암 생존자란 현재 암에 걸렸거나 암을 극복한 사람을 말한다. 암 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암 환자’를 대체한 용어다. 국민 37명당 1명 꼴로 암 투병 중이거나 암 치료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br/> <br/>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표준치료’(수술 및 항암·방사선치료) 같은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진단 2년 이하 암 환자가 37만명가량이고 나머지는 재발에 유의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암 덩어리가 제거된 자리에는 또 다른 고통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 암 생존자들의 피를 말리게 한다. <br/> <br/>2006년 간암 진단을 받은 박효순(58·여)씨는 8년의 기다림 끝에 간 공여자를 찾았다. 2014년 이식수술 후 ‘이제야 맘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박씨에게 두 달쯤 지나 발바닥 통증이 몰려왔다. 두 발이 후끈거리고 저리던 증상은 죽고 싶을 만큼 악화됐다. <br/> <br/>신경과와 정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다들 ‘이런 질환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는 수 없이 박씨는 고통을 잊기 위해 수면제에 기대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렇게 1년을 악몽같이 지낸 뒤 허리 교감신경차단술을 받고서야 발바닥 통증이 누그러졌다. 그러나 신경과 처방약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약을 줄이면 발이 살살 아파서 어쩔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간 이식만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고생을 할 줄은 몰랐다</span>”고 토로했다. <br/> <br/>3년 전 난소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은 김명자(61·여)씨는 이후 삶을 ‘창살 없는 감옥’에 비유했다. 표준치료가 끝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추적관찰만 받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1'>‘딸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닐까, 재발하면 어쩌나, 다시 일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 후 1년반 동안 외출을 거의 못할 만큼 우울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암 생존자의 15.6%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고 16.7%는 현재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30∼50% 높은 비율이다. 젊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br/> <br/>조기검진 강화와 눈부신 의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암 발병 후 5년간 생존자 비율은 69.4%에 이른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많은 암 생존자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암 진료체계가 ‘암 환자’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암 생존자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암 생존자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과 일본이 10여년 전부터 정부와 학계·시민사회가 합심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br/> <br/>국립암센터 김종흔 지원진료센터장은 “<span class='quot2'>암 진료 이후 환자들이 겪는 문제가 다양한 만큼 암 생존자의 삶의 질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다</span>”고 말했다. <br/> <br/>특별기획취재팀:윤지로·김유나·이창수 기자  kornyap@segye.com <br/>※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5.txt

제목: 경부 이어 서해안고속도로에도 '암행순찰차' 배치  
날짜: 20160702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702112806285  
본문: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암행순찰차가 투입됐다. <br/> <br/>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가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 <br/> <br/>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에 마그네틱 경찰표지가 달려있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에서는 경찰차임을 알아채기 어렵다. <br/> <br/>경광등은 차량 앞·뒷면 유리 등 내부에, 사이렌은 범퍼 밑에 설치해 단속 때만 사용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등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하게 된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1일부터 관내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활약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형사고로 일으키는 고속도로상에서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6.txt

제목: [여행] 5억년된 대금굴로 신비한 시간여행  
날짜: 2016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30100616092  
본문: 삼척은 멀다. 삼척을 여행지로 생각하다가 멀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엄밀히 말하면 서울에서 대구, 광주 가는 시간과 그리 차이가 없다. 고속도로 등이 잘 뚫려 있지 않아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곳이다. 삼척을 한 번 가보면 심리적 거리가 확연히 줄어든다. 바다만 생각해선 안 된다. 관동팔경의 1경인 죽서루와 5억3000만년 전 생성된 대금굴, 환선굴을 품고 있다. 한 번만 찾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다. <br/> <br/>◆5억년 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금굴 <br/> <br/>‘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br/> <br/>키득키득 웃음이 나온다. 대금굴에 들어가려면 ‘은하철도’로 이름 붙여진 모노레일을 타야 한다. 자연스레 1980년대 방영됐던 만화 ‘은하철도 999’가 연상된다. 그래도 설마했다. 노래가 나올까 싶었는데 대금굴에 도착할 때쯤 여지없이 추억의 그 노래가 귓전을 때린다. <br/>삼척 대금굴의 다랑논처럼 계단식 형태로 물이 고여 있는 휴석소. <br/>모노레일이 도착하는 곳은 대금굴 내부다. 어두운 동굴 내부에 정류장이 설치돼 있어 은하철도로 이름 붙여진 것에 괴리감이 들지 않는다. 은하철도는 인간이 가지 못하는 우주 여행을 하는 기차다. 동굴 역시 인간의 발걸음을 쉽게 허용하는 곳이 아니다. 어찌 보면 우주처럼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지구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점에서 통한다. <br/> <br/>더구나 대금굴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대금굴은 현재도 석순, 종유석들이 자라는 숨 쉬는 동굴이다. 하루 입장인원을 7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br/> <br/>모노레일에서 내리면 우렁찬 폭포 소리가 동굴을 울린다. 정류장에 내려 계단을 오르면 어둠에 휩싸인 채 떨어지는 비룡폭포를 만난다.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는 동굴 내부에 있다 보니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br/> <br/>암석의 갈라진 틈새를 따라 물이 흘러내려 띠 모양으로 넓게 커튼 모양을 형성한 종유석. <br/>폭포를 지난 후부터 동굴이 만들어낸 기괴한 모양의 석순, 종유석들의 향연이 이어진다. 암석의 갈라진 틈새를 따라 물이 흘러내려 띠 모양으로 넓게 커튼 모양을 형성한 종유석과 다랑논처럼 계단식 형태로 물이 고여 있는 휴석소 등이 눈에 띈다. 30분가량 걸어가면 막대형 석순이 눈길을 끈다. 높이가 3.5m에 이르는 이 석순은 지름이 5㎝에 불과하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부러질 듯 위태위태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막대형 석순 주위로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원숭이, 기어가는 뱀, 계란 모양의 에그 프라이 등이 몰려 있다. <br/> <br/> <br/> <br/>대금굴 구경의 마지막 장소는 천지연으로 불린다. 물이 차있는 백두산 천지를 닮은 작은 호수다. 호수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동굴이 나타나고, 이어 환선굴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위험하다 보니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다. 현재 발굴된 대금굴의 길이는 1.6㎞인데, 이중 800m만 일반에 공개돼 있다. <br/> <br/>◆관동팔경의 첫 경치 죽서루 <br/> <br/>삼척의 오십천을 끼고 절벽 위에 누각 하나가 놓여 있다. 오십천은 하천의 곡류가 심해 상류에서 하류까지 오십 번 물이 굽이친다고 해서 붙여진 곳이다. 그 굽이 한 곳 절벽 위에 서있는 누각이 죽서루다. 삼척 봉황산에 살던 봉황이 먹던 대나무밭의 서쪽에 누각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죽서루의 기둥은 모두 17개로 이뤄져 있는데, 길이가 다 다르다. 자연석 위에 세워진 죽서루는 돌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석 크기에 따라 기둥 높이를 맞춰 세워졌다. <br/> <br/> <br/>삼척의 오십천을 끼고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죽서루. <br/>죽서루 난간에 기대 멀리 바라보면 서쪽으로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고, 아래로는 절벽 아래 오십천이 흐르는 절경을 이룬다. 예나 지금이나 이 모습은 보는 이의 심금을 요동치게 하나 보다. 숙종과 정조, 율곡 이이, 송강 정철 등이 이곳의 경치를 보고 남긴 시들이 현판으로 천장 부근에 걸려 있다. 겸재 정선 역시 죽서루를 화폭에 담았다. 이 외에도 죽서루를 노래한 시가 현재 알려진 것만 500수가 넘는다. 이 정도면 관동팔경의 1경이라 부르기에 아깝지 않은 곳이다. <br/> <br/> <br/> <br/>죽서루에는 숙종과 정조, 율곡 이이, 송강 정철 등이 이곳의 경치를 보고 남긴 시들이 현판으로 천장 부근에 걸려 있다. <br/>신라 때 절세미인이었던 수로부인 설화가 전해지는 삼척의 수로부인 헌화공원 전경.삼척에는 신라 때 절세미인 수로부인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를 기념해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조성돼 있다. 입구에 설치된 51m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 뒤 20분가량 걸으면 용을 타고 있는 수로부인 조각상이 기다린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1.5배 크기다. 이곳에선 날이 좋으면 울릉도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볼 수 있는 날은 일 년 중 손에 꼽을 정도여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최신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숙박을 <br/> <br/>삼척의 해안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레일바이크다. 전국에 많은 레일바이크가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삼척이 유일하다. 일제시대 삼척의 지하자원을 옮기기 위해 포항까지 철로를 연결했는데, 폐선된 후 2010년 관광자원화했다. 5.4㎞ 구간을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동해안의 경관을 볼 수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민 터널을 지나는 등 재미가 쏠쏠하다. <br/> <br/> <br/>바다를 구경하면 탈 수 있는 삼척의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시 제공 <br/>다양한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삼척에 최근 대명리조트의 ‘쏠비치 호텔&리조트 삼척’이 개관했다. 쏠비치 삼척은 새하얀 외벽과 코발트블루 빛 지붕으로 구성돼 그리스 산토리니섬의 특징을 곳곳에 담았다. 외관 외에도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식당 ‘마마티라 다이닝’에서는 그리스식 식사와 전통주 ‘우조’를 맛볼 수 있다. 리조트는 동해시와 맞닿은 삼척 북부지역에 위치해 방에서도 동해의 촛대바위를 볼 수 있다. 워터파크 ‘아쿠아월드 삼척’도 오픈했는데 지중해 암굴도시 ‘카파도키아’에서 모티브를 얻어 동그란 구멍이 뚫린 기암괴석, 부서진 성벽, 아치 등을 곳곳에 설치했다. 무엇보다 부녀간, 모자간 워터파크를 찾았을 때 함께 샤워 및 탈의를 할 수 있는 패밀리 샤워장과 라커룸이 눈에 띈다. 어린 자녀 혼자 씻고, 옷을 갈아입기 힘든데, 이때 패밀리 샤워장과 라커룸을 이용하면 된다. <br/> <br/>삼척=글·사진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7.txt

제목: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몸의 통증 다섯 가지  
날짜: 20160629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9171909763  
본문: 우리는 가끔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대부분 참다 보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통증이 진짜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r/> <br/>미국 NBC 뉴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몸의 통증 5가지를 소개했다. <br/> <br/> <br/>1. 아침 두통 <br/> <br/>두통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두통이 아침에 가장 심하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아침 두통은 구토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침이나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초기 뇌종양 증상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뇌종양은 발병률이 1% 이하인 드문 질병이다. <br/> <br/> <br/>2. 심한 복통 <br/> <br/>심한 복통은 위궤양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보통 우리는 배꼽부터 가슴뼈까지 부위에서 따끔따끔한 통증을 경험한다. 만약 공복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 밥을 먹은 후에 나아지는 느낌이 있거나 흑변을 보고 피를 토할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br/> <br/> <br/>3. 다리의 부기 또는 통증 <br/> <br/>다리가 부으면서 통증이 수반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쪽 다리가 부어오르는 것은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한쪽 다리(특히 종아리)만 붓는다면, 다리에 응혈이 생겼다는 증상일 수 있다. 응혈은 비행기나 자동차를 오랫동안 타거나 침대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경우에 종종 생긴다. <br/> <br/> <br/>4. 밤에 찾아오는 허리 통증 <br/> <br/> <br/>평소 허리를 많이 썼을 때 느껴지는 흔한 통증이 아니라 밤에 당신의 잠을 깨울 정도의 허리 통증을 말한다. 당신이 만약 암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최근 통증에다 열이 나면서 살이 빠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라. <br/> <br/> <br/>5. 발이 저리는 느낌 <br/> <br/>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발이 저리는 느낌은 당신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2900만명 중 25% 이상이 발병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발이 저리는 느낌이 당뇨병 발병의 전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br/>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8.txt

제목: 홍화씨 추출물, 항암제 부작용 감소에 특효  
날짜: 20160628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8152221091  
본문: 약용작물인 잇꽃(홍화·사진)씨 추출물이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농촌진흥청은 항암 치료제인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실험 쥐에 잇꽃씨 추출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잇꽃씨가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br/> <br/>시스플라틴은 폐암과 위암, 식도암 등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암제다. 암 환자가 한 번만 이 약물을 투여해도 신장 기능이 최대 35%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심한 경우 급성 신장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 <br/> <br/>농진청은 시스플라틴을 투여한 실험 쥐에 잇꽃씨 추출물 200㎎을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신장 기능 평가지표인 혈중 요소질소의 농도가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보통 사람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마지막으로 요소로 배설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빠져 요소 배설이 잘되지 않게 되면 혈액 중에 남아있는 혈중 요소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잇꽃씨 추출물 투여 후 혈중 요소질소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뜻이다. <br/> <br/>또 실험 결과 잇꽃씨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손상된 신장 혈관 조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잇꽃씨 추출물을 천연 항암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br/> <br/>중국 한방의학서인 ‘본초강목’에도 등장하는 잇꽃씨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지방 분해 촉진 효과 등이 있는 약용작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농진청은 전했다. <br/> <br/>농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로 잇꽃씨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급·만성신부전증 등 연관 질환의 치료용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89.txt

제목: 경북도내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운용  
날짜: 20160628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8103506870  
본문: 경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7월 1일부터 경북도내 고속도로 구간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단속을 시작한다. <br/> <br/>암행순찰차는 총 2대로 7월1일과 9월1일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br/> <br/>고속도로순찰대3지구대장(경정 권혁구)은“<span class='quot0'>암행순찰차는 관련교육을 이수한 전담요원에 의해 상시 운용되며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집중 투입·운용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암행순찰차는 ‘지난 3월 수도권에서 2대가 1단계 시범운영을 시작해 난폭운전, 지정차로위반, 갓길통행 등 사고야기 위험도가 높은 중요위반행위와 얌체운전행위를 집중단속하고 9월1일 부터는 전국고속도로로 확대 운용한다 <br/> <br/>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0.txt

제목: “일곱번째 항암주사… 희망 버리지 맙시다”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7214411664  
본문: 암 투병 중인 노시인이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시집을 펴내 병원에 기증했다. <br/> <br/>27일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한정민(72) 시인은 자신과 아내의 투병생활을 담은 시집 ‘병상일기’ 100권을 병원 측에 기증했다. 시집에는 폐암에 걸린 아내를 보며 느낀 슬픔과 극복하려는 의지가 투영돼 있다. <br/> <br/>“<span class='quot0'>당신은/일곱번째 항암주사를 맞고 있습니다/당신은 폐암 말기/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희망을 버리지 말고/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봅시다</span>” 중환자실에 누워 항암치료를 받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을 표현한 시 ‘항암주사1’에는 폐암 말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희망이 담겨 있다. <br/> <br/>아내는 암 선고를 받은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br/> <br/> 자신과 아내의 투병생활을 담은 시집 ‘병상일기’를 펴낸 한정민 시인이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그는 “<span class='quot1'>곱기만 하던 아내의 얼굴이 뼈만 남아 앙상해져 있을 때 아내가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가 차려주던 흰 쌀밥이 그립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렇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씨도 3년 전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향후 2년간 재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br/> <br/>한씨는 “<span class='quot2'>각종 암으로 투병 중인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1.txt

제목: "신체 주요부위 만져줘야 암 안걸린다 " 50대 성추행범 징역 1년  
날짜: 20160625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5154444919  
본문: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r/> <br/>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r/> <br/>그는 사회생활을 하며 A씨를 만나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고 “자꾸 만져야 암에안 걸린다”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박씨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A씨 등 여성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br/> <br/>정 판사는 “<span class='quot0'>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span>”고 판시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2.txt

제목: "흡연은 유방암 재발 위험 3배" 스웨덴 암연구팀 밝혀  
날짜: 20160625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5115153339  
본문: 흡연이 유방암 치료제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효과를 떨어뜨려 재발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br/> <br/>스웨덴 룬드 대학 암센터 연구팀이 2002~2012년 사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10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4일 보도했다. <br/> <br/>가장 흔한 형태의 유방암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 전후에 담배를 피운 환자는 치료제인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효과가 떨어져 담배를 피우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재발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엘레나 예른스트롬 실험종양학교수가 밝혔다. 이들은 또 유방암이나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도 높았다. <br/> <br/>전체 조사대상자는 5명 중 1명이 유방암 수술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수술 후에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끊지 못했다. <br/> <br/>그러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대신 타목시펜을 썼거나 항암화학치료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흡연이 거의 또는 전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는 아로마타제억제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예른스트롬 교수는 지적했다. <br/> <br/>다른 치료제와 치료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담배를 끊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3.txt

제목: 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  
날짜: 2016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3190141146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br/> <br/>질본은 23일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암 예방을 목적으로 2억건 이상 접종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암 예방효과가 크며,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 접종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br/> <br/>질본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예방접종 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부위 통증과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 면역형성 과정에서의 발열과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2~3일 이내에 치료 없이 회복된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의 80% 이상이 접종 부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4.txt

제목: 의족 발레리나, "미래를 위해 더 큰 꿈을"  
날짜: 2016062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3182106359  
본문: 희귀 악성 종양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소녀는 “<span class='quot0'>미래를 위해 더 큰 꿈을 가지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희소병도 소녀의 아름다운 도전은 막을 수 없었다며 의족 발레리나 가비 율(14)을 소개했다. <br/> <br/>9살 어린 나이에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암·서울대의학정보)‘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가비. <br/>소녀는 2011년 1월 미주리주 집에서 멀지 않은 스케이트장에서 놀다 무릎을 다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됐다. <br/> <br/>소녀의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며 "딸의 암 진단에 세상을 잃은 듯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br/> <br/>춤을 좋아했지만 잠시 꿈을 포기해야만 가비. 소녀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을 힘든 치료와 재활을 견디고 올해가 되어서야 잠시 포기한 꿈을 다시 꺼내 들 수 있었다. <br/> <br/>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독한 항암치료도, 다리를 잃은 슬픔도 그리고 불편한 의족에 넘어지길 반복하면서도 지금 가비는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연기를 펼칠 날을 위해 아팠던 시간보다 노력하고 있다. <br/> <br/>가비는 "<span class='quot0'>미래를 위해 더 큰 꿈을 가지고 싶다</span>"며 "암을 이기고 의족에 적응한다면 앞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5.txt

제목: 암 진단, 고통스런 조직검사 없이 혈액으로 확인 가능성 열려  
날짜: 20160623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3125005754  
본문: 암 진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직검사 없이 혈액만으로 고통없이 암 발병을 확인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br/> <br/>손주혁 연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23일 오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생검 대신 채취한 혈액 등으로 암 진단이 가능하다</span>”며 이같이 밝혔다. <br/> <br/>현재로선 암 진단을 위해서는 암 유전자 검사 이후 항암제 투여 등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긴 주사바늘이 환자의 피부 밑, 장기에 위치한 종양까지 이르러야 하고, 통증은 물론 출혈, 내부장기 천공 등 부작용이 우려돼 반복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또 한 번의 조직검사로 진단에 충분한 조직을 얻기 힘든 경우도 많다. <br/> <br/>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조직생검은 바늘, 내시경 등을 이용해 인체에 침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초래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중대한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반면 액체 생검은 절개 등의 침습적 시술없이 혈액이나 복수 등 체액에 있는 암의 유전자조각을 이용해 검사가 가능하다.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 DNA를 체취하고, 혈액을 떠다니는 암세포 DNA를 증폭해서 유전자 내 특정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br/> <br/>특히 표적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검사에서보다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r/> <br/>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폐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 1만519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와 액체검사간의 유전자 변화를 비교한 결과, 386명에서 혈액과 조직 간의 유전자 변이 결과가 약 87% 일치했다.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한 시간차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98%까지 일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아직 액체생검이 조직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르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환자의 혈액, 소변 등으로 진단하는 액체생검은 암 환자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암유전자 변이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고통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암유전자 변이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암의 악화를 막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6.txt

제목: 많이 노출되면 딸 낳는다?… 전자파 오해와 진실  
날짜: 2016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2182909893  
본문: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딸을 낳는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br/> <br/>정답은 둘 다 ‘아니다’이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면서 전자파를 둘러싼 ‘괴담’도 무성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2일 전자파를 둘러싼 이 같은 ‘인터넷 풍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br/> <br/>먼저 ‘전자파로 정자 수가 줄어들거나 유전자가 변형돼 딸을 낳는다’는 속설에 대해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에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바 없다. 특히 태아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등의 전자파가 정자의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생활습관·음식·음주 등 다른 요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자레인지 변압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60Hz 전자파가 평소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자레인지 작동 중에는 3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마그네트론과 변압기가 위치한 전자레인지의 오른쪽 면에서 큰 자기장이 발생하지만 30㎝만 떨어져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br/> <br/>전자파 때문에 꿀벌의 방향감각이 마비돼 멸종위기에 몰렸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2011년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가 전자파가 진드기, 살충제 등과 함께 꿀벌 군집 붕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벌집 내부에 설치해 실험한 것으로, 전자파로 인한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조건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br/> <br/>휴대전화와 암·백혈병 발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5월 “역학조사 결과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대전화 전자파인 RF의 발암등급을 2B로 발표했다. 2B는 커피·디젤연료·김치와 같은 등급이다. <br/> <br/>이처럼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숯이나 선인장 등이 전자파 차단 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전자파를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가 없었다.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전자파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므로, 숯이나 선인장보다는 안전거리(약 30㎝)를 준수하는 것이 전자파 차단에 가장 효과적</span>”이라고 조언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7.txt

제목: 만수무강 하고 싶으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8  
날짜: 20160621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1104509741  
본문: 우리 모두 영원히 살 수 없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건강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다. <br/> <br/>해외 인터넷 매체 스릴리스트(thrillist)가 오래 살고 싶으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했다. 영양학자들이 알려준 아래의 8가지 음식을 매일 챙겨 먹도록 하자. <br/> <br/>1. 아보카도 <br/>단순불포화지방으로 가득 찬 이 과일은 완벽한 영양 패키지를 제공한다. 염증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 아보카도는 또한 풍부한 섬유질, 칼륨, 엽산, 비타민E를 함유하고 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아 먹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섬유질의 함유량이 많아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만큼 적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br/> <br/> <br/>2. 호두 <br/>좋은 피부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갖고 앳되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고 싶다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뇌의 건강이다. 견과류(특히 호두)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억력 향상과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br/> <br/> <br/>3. 콩 <br/>콩은 놀라운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다. 이것은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없고 섬유질, 단백질,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 칼륨이 풍부하다. 이 영양소들은 비만, 대장암, 당뇨병, 심장질환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다. 콩의 섬유질은 체중관리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LDL(저밀도 지방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다. 콩은 샐러드, 수프, 반찬, 찜 요리에 넣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배를 채워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br/> <br/> <br/>4. 우유 <br/>우유는 우리가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분인 칼륨, 칼슘, 비타민 D, 섬유소 중 섬유소를 제외한 세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식품이다. 대부분 사람은 하루 권장량의 우유를 마시지 않아 이 영양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우유를 마실 수 있을까? 오후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 초코바 대신 초콜릿 우유 한 팩을 먹어보라. 또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커피에 타서 먹어보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면 카페라떼(340mL의 라떼에는 230mL의 우유가 들어있다)를 추천한다. <br/> <br/> <br/>5. 땅콩 <br/>땅콩은 견과류가 아닌 콩과 식물이다. 그러므로 영양가는 콩과 비슷하다. 땅콩은 채식주의자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의 원천이다. 땅콩은 적당량 먹었을 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 좋은 레스베라톨과 같은 강력한 노화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당히 먹어야 하는) 땅콩이다. 하지만 운동과 적당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라. <br/> <br/> <br/>6. 오트밀 <br/>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일상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한 오트밀은 통곡물이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B1 공급에 좋은 음식이다. 이것은 또한 높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속을 든든하게 해준다. 오트밀은 그 자체로 먹을 수도 있고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음식이다. 으깬 귀리는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 불용성·수용성 식이섬유의 혼합체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br/> <br/> <br/>7. 차 <br/>차는 수 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문화권에서 소비되어 왔다. 녹차는 여러 가지 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노화방지제 폴리페놀의 원천이다. 또한 심장병과 뇌출혈의 위험을 낮춰준다. 카페인과 카테킨이라 불리는 또 다른 산화방지제는 녹차, 우롱차, 화이트티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 <br/> <br/> <br/>8. 아몬드 <br/>아몬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과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의 좋은 공급원이다. 뼈에 좋은 칼슘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위한 아연도 함유하고 있다.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8.txt

제목: [기고] 아프리카에서 나눈 ‘보편적 형제애’  
날짜: 2016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0220741415  
본문: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 형제애’,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보편적 형제애’를 지구 반대편인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br/> <br/>우간다는 암, 결핵 등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질환 대응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었으나, 인프라를 운용할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결핵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결핵 진단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 <br/> <br/>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한국 의료진은 이틀간의 무료 이동진료 기간 동안 우간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목도할 수 있었다. 많은 어린이와 임신부가 건강관리와 산전검사를 위해 찾아왔다. 발열과 감기, 설사 증상과 장내 기생충 감염 등 가벼운 질환은 물론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심한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도 있었다. 임신하고 초음파검사 한 번 못한 임신부도 많았다. <br/> <br/>환자 대부분이 적절한 처치만 해준다면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공공의료기관 수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br/> <br/>우간다의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부는 응급·재난 분야와 감염병 및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의약품과 진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소녀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주창한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Better life for girl!)’과도 연결돼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특별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의료와 보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한국은 몇 십년 전만 해도 의료지원을 받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국가였다. 그러나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해주는 국가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의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훌륭한 역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br/> <br/>국립중앙의료원 역시 개원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의료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번 우간다 이동진료 지원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으로도 ‘보편적 형제애’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달려갈 것이다. <br/> <br/>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299.txt

제목: 2028년 폐암 사망률 더 높아진다  
날짜: 2016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0194808864  
본문: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이 16년 후인 2032년에도 여전히 가장 높은 사망자를 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대장암 사망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br/> <br/>손미아·윤재원 강원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통계청의 2008∼2012년 암 사망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2028∼2032년의 암 환자 통계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08∼201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 수(조사망률)는 남성의 경우 폐암(45.9명), 간암(33.9명), 위암(26.1명), 대장암(17.1명), 췌장암(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폐암 사망률이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위암(14명), 대장암(13.3명), 간암(11.4명), 췌장암(7.8명) 순이었다.  <br/> <br/>2028∼2032년에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 60.1명, 여성 24.9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장암 사망률 역시 남성 33.3명, 여성 19.9명으로 늘어 각각 간암과 위암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사망률은 6위에 그쳤지만 12.1명으로 나타나 2008∼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br/> <br/>연구팀은 남녀 모두에게서 폐암과 대장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로 흡연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구팀은 “폐암 사망률은 높은 흡연율과 석유화학산업 등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며 “금연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과거보다 육식을 선호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0.txt

제목: 한국인 암사망률 1위 '폐암'…16년 후에도 1위  
날짜: 20160620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20152257857  
본문: 2023년에도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는 여전히 폐암이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대장암 사망률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전망됐다. <br/> <br/>손미아·윤재원 강원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은 통계청의 2008∼2012년 암 사망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2028∼2032년의 암 환자 통계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2008∼201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 수(조사망률)는 남성의 경우 폐암(45.9명), 간암(33.9명), 위암(26.1명), 대장암(17.1명), 췌장암(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폐암(17명), 위암(14명), 대장암(13.3명), 간암(11.4명), 췌장암(7.8명) 순이었다.  <br/> <br/>2028∼2032년에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 60.1명, 여성 24.9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장암 사망률 역시 남성 33.3명, 여성 19.9명으로 늘어 각각 간암과 위암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br/> <br/>연구팀은 남녀 모두에게서 폐암과 대장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로 흡연과 서구화된 식습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사망률이 감소한 위암과 식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조기진단이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br/> <br/>연구팀은 “폐암 사망률은 높은 흡연율과 석유화학산업 등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며 “금연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과거보다 육식을 선호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 <br/>이와 관련해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진 ‘적색육’과 ‘알코올’ 섭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은 21세 이상 3만6486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0대 남성의 하루 평균 적색육 섭취량이 1998년 91.6g에서 2009년 11.3g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알코올 섭취량 역시 같은 기간 9.2g에서 20.3g으로 급증했다. <br/> <br/>반면 채소·과일 섭취량은 1998년 하루 349g에서 2009년 306.7으로 줄었다. <br/> <br/>20대 여성의 경우 적색육 섭취량은 64.2g에허 62.9g으로 약간 줄었지만, 알코올섭취량은 1.9g에서 6.7g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채소·과일 섭취량(393.3ｇ→292.5ｇ) 역시 크게 줄었다. <br/> <br/>미국암연구소(AICR) 등은 적색육, 알코올을 일정 기준 이상 너무 많이 섭취하고, 채소·과일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를 ‘암 위험군’으로 규정한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자의 80.1%(1만2756명)가 식생활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암 유발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암 유발 위험요소를 2개 이상 보유한 대상자 비율도 19.1%(3049명)에 달했다. <br/> <br/>적색육·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동시에 채소·과일 섭취는 너무 적어, 암 유발 위험요인 3가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도 3.8%(600명)를 차지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1.txt

제목: [연구] 똑같이 야근해도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에 더 나쁘다  
날짜: 20160618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8170648980  
본문:   <br/> <br/>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승진을 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야근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근을 오래 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야근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30년간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장인 여성은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 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엔 심장질환과 암, 당뇨병,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3배나 커졌다. <br/> <br/>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은 32년 동안 7500명의 통계 자료를 분석했는데, 72%는 주 4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초과 근무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엔 큰 변화는 없었다. <br/> <br/>주 41~50시간을 일한 남성들은 40시간 이하를 근무한 남성들에 비해 심장 및 폐 질환, 우울증 위험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절염 위험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남성에 비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큰 여성 직장인이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br/> <br/>연구를 이끈 뎀비 교수는 "여성 직장인들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 참가자 중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참가자 56%는 주 41~50시간, 13%는 주 51~60시간, 3%는 60시간 이상 일했다. <br/> <br/>이번 통계는 미국 청년층 패널조사인 '‘NLSY79’자료를 통한 결과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업무 습관과 병력 등을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2.txt

제목: 경북대 교수팀, 피한방울로 유방암 조기진단 기술 세계 최초 개발  
날짜: 20160617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7093950874  
본문: 경북대 백문창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분자의학교실)팀이 혈액에 존재하는 엑소좀 단백질을 이용한 유방암 조기 진단 및 예후 예측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이 연구 성과는 암 연구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4월호 오프라인판과 ‘온코타겟(Oncotarget)’ 5월 2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국내 및 국제 특허(PCT) 출원도 마쳤다. <br/> <br/>대부분 세포에서 분비되는 100nm 크기의 나노 입자인 엑소좀은 단백질과 RNA(리보핵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분비한 세포의 성질 및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바타(Avatar)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아바타 역할을 하는 엑소좀으로 세포의 상태를 알 수 있어 여러 가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br/> <br/>암은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암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br/> <br/> 백문창 교수.경북대 제공.백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암 세포와 관련된 엑소좀에 특이적으로 과발현되는 Del-1(전이촉진인자) 단백질을 혈액 한 방울보다 적은 양(약 2 마이크로리터)으로 측정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br/> <br/>기존 유방암 바이오마커는 유방암 4기에만 높은 민감도를 보여 조기 암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기술은 기존 마커 방식보다 민감도가 높아 모든 유방암 진행 단계의 진단이 가능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암을 진단,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br/> <br/>백문창 교수는 “이번 기술은 Del-1 단백질 양성 엑소좀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암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았던 유방암 0기 상피내암 상태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으로 최근 우리나라 젊은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치밀 유방 조직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진단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에 개발된 혈중 엑소좀 Del-1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실용화된다면, 환자의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는 조직 생검(tissue biopsy) 대신에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암을 조기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고통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는 백문창 교수가 주도로 경북대학교병원 유방외과의 박호용 교수, 혈액종양내과의 채의수 교수, 이수정 교수가 참여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관련 회사로 기술 이전했으며, 현재 미국인 유방암 시료 분석을 위해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리차드 샌튼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3.txt

제목: [설왕설래] 누명 벗은 커피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6221735778  
본문: 발암물질이라는 커피가 오명을 씻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1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입증 안 됐다면서 암유발 가능성 물질 리스트에서 뺀다고 한다. <br/> <br/>커피 탄압은 수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독교인들은 악마의 음료라고 했다. 커피가 이슬람 전파와 궤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커피는 술 대체음료이다. 무슬림이 메카로 순례여행을 떠나면서 커피 원두를 복대에 넣어 아프리카 해안을 떠났다. 커피를 이슬람 세계 밖으로 데뷔시킨 사건이었다. 당시에는 커피 반출이 금지됐고, 원두는 씨앗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껍질을 까서 보관했다. 마약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br/> <br/>유럽으로 간 커피는 브라질로 밀수됐다.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한 것은 과다생산된 커피 때문에 경제붕괴 위기에 처한 브라질이 식품회사 네슬레에 가공식품 제조를 요청하면서다. 2차 대전때 수면부족 군인들이 아군에게 오인 사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식량에 커피를 넣으면서 대중화됐다. 한국에는 6·25전쟁 때 C레이션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왔다. 19세기에도 커피는 각성제 대체재였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는 카페인 과다섭취로 죽었다. 유부녀인 백작부인에게 반해 18년간 커피에 의지해 잠을 쫓아가며 글을 쓰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br/> <br/>미국 암퇴치협회 사이트를 보면 커피에 대한 경고가 섬뜩하다. 매일 여러 잔을 마실 경우 체내 수소이온농도(pH)가 떨어진다. 암이 번성하기 좋은 체질로 산성화되는 것이다. 커피를 볶을 때는 발암물질인 3, 4 벤조피렌이 만들어진다. 하버드대 브라이언 맥마흔 교수는 커피가 췌장암 발병 요인의 50%라고 했다. 영국에서는 1948∼1973년 커피 수입이 그 이전에 비해 120% 늘었는데 이 기간 영국인의 췌장암 환자가 50%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br/> <br/>그러나 장점이 더 많다. 커피는 자연 산화방지제이다. 적당히 마시면 노화를 더디게 하고, 심장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을 억제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석유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게 커피이다. 미국에서만 1억800만명이 매일 3.2컵을 마신다. <br/> <br/>WHO가 면죄부를 줬다고 막 마실 게 아니다. 커피의 뜨거운 물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한다. 65도 이상 커피를 마실 경우 식도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늘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중간쯤 볶은 커피가 좋다. 그런 게 농약 잔류물이 없고 pH가 중성이고, 산화방지제 역할을 한다. 진하게 볶은 커피는 비타민 C, E를 파괴한다고 한다. <br/> <br/>한용걸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4.txt

제목: NK세포 수치 500 이하면 ‘정밀 건강검진 필요’  
날짜: 20160616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6164551880  
본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 실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일반인과 환자, 의료진 등 645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span class='quot0'>암 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이 중요하다</span>”고 답했다. <br/> <br/>그러나 20%만이 암 예방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었으며,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조기암검진은 약 43%만 빠짐없이 받고 있었다. <br/> <br/>암은 감기처럼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몸속에서 자라고 있어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통증 등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간암 역시 상당히 진행되지 않고는 몸에 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br/> <br/>하지만 암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문가들은 “위암의 경우 조기진단만 되면 90% 이상이 완치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암 검진으로 전암 단계의 병변을 발견해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유방암도 조기진단만 되면 완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br/> <br/>이렇듯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에이티젠(대표 박상우)이 NK세포의 활동성을 측정해 암 또는 중증 질병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NK뷰키트’를 개발해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선천 면역 세포인 NK(Natural Killer) 세포는 체내에 암 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 세포에 대항해 싸우는 세포로, NK세포 수치가 낮으면 공격력이 떨어져 암 세포를 파괴하지 못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br/> <br/>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NK뷰키트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해 제거하는 NK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를 수치화해 보여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1'>1ml 소량의 혈액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고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또한 그는 “<span class='quot1'>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각종 암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NK세포 수치가 250 이하로 나올 경우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건강검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NK뷰키트는 미국소화기질환학회 등 4개의 미국 소화기 암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소화기 관련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소화기질환학회(DDW) 2016’에서 ‘올해 주목할 6가지 의학적 발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실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후 환자 모니터링으로 사용되고 있다. <br/> <br/>에이티젠 측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 HMR병원에서 실시된 762명 대상 테스트에서 대장내시경, CT 검사 등으로 이미 대장암 확진을 받은 환자의 85.7%를 NK뷰키트 검사로 발견해냈다. <br/> <br/>에이티젠 관계자는 “의학계에서는 기존 검사의 정확도가 30~4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ml의 혈액만으로 간단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NK뷰키트를 활용하면 대장내시경을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의 수검율을 보다 높일 수 있어 대장암 조기 발견 및 치료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NK뷰키트는 이미 국내의 많은 병원들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형 종합병원과 건강검진센터를 포함 200여 곳에서 NK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에이티젠은 올해 NK뷰키트 도입기관을 현재의 2배인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5.txt

제목: 암 치료에 필수 ‘자가포식 조절’ 새 신호 발견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6020409539  
본문: 암 치료 등에 필수적인 오토파지(자가포식) 작용을 조절하는 새 신호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오토파지의 신호 조절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대 백성희(사진) 교수팀이 생존에 필수적인 오토파지 작용을 조절하는 새 신호를 발견해 오토파지의 작동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토파지는 종 간에 잘 보존된 자가포식 작용으로, 불필요한 세포 내 단백질 및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반면 필요한 물질은 합성해 세포의 생존과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연구팀은 이를 위해 다양한 영양분 결핍 상황에서 진핵생물의 DNA에 결합하는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수소원자를 메틸기(-CH3)로 치환하는 반응인 메틸화가 유도됨을 확인하고 메틸화를 유도하는 효소(CARM1)의 단백질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신호에 의해 효소 단백질이 안정화하고 핵 내에서 히스톤의 메틸화를 유도, 오토파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6.txt

제목: 커피 발암물질 누명 25년 만에 벗었다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5231715860  
본문: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커피가 2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25년만에 커피를 제외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둔 IARC는 이날 커피와 중남미지역 전통차인 마테, ‘매우 뜨거운 음료’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br/> <br/>IARC는 23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커피 등의 발암성과 관련한 문헌 1000여 편을 검토한 결과 커피와 암의 상관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보고 2B군 발암물질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IARC는 1991년 커피가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군’ 물질로 분류했다. <br/> <br/>IARC는 커피가 다른 20여 종의 암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자궁암과 전립선암 등 일부 암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IARC는 ‘매우 뜨거운 음료’가 식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역학조사 보고에 따라 한 등급을 올려 2B군에서 2A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br/> <br/>IARC는 커피, 차 등의 종류와 상관없이 65도 이상 온도에서 제공되는 음료를 식도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매우 뜨거운 음료’로 분류했다. <br/> <br/>이지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7.txt

제목: 서창석 신임 서울대병원장 취임식  
날짜: 20160615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5195340816  
본문: “<span class='quot0'>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가는 4차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span>” <br/> <br/>15일 서창석 (사진) 신임 서울대병원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r/> <br/>서 원장은 이날 이 병원 임상제1강의실에서 열린 ‘제17대 원장 취임식’에서 “<span class='quot1'>만성질환뿐 아니라 암, 장기이식, 유전성 질환 등 중증도가 좋은 중증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국가보건의료발전이라는 사명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환자중심의 전문병원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공공성이 강한 권역응급센터, 중환자실, 호스피스 등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r/> 15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17대 신임 원장 취임식에서 서창석 신임 서울대병원장, 성낙인 서울대총장. 오병희 전임병원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br/>의료세계화에 대응해 ‘SNUH’를 세계적 브랜드로 창출하는 등 국내 의료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r/> <br/>서 원장은 “<span class='quot1'>외국인환자 전용센터 및 국제환자 전용병동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교육과 연구분야에도 인문학, 리더십 등 다양한 영역의 전인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힘쓰고 노벨의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토대를 마련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전세계적으로 정밀의학과 개인맞춤의학 등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서울대병원을 세계 의료산업의 미래를 여는 병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병원으로 만들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8.txt

제목: 두 차례 암투병 이겨냈지만 결국 아들 대신 총탄에 쓰러진 엄마  
날짜: 201606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5155901886  
본문: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올랜도 클럽 총기난사 사건에서 아들을 살리고 대신 죽은 엄마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돼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br/> <br/>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2일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브렌다 리 마르케즈 맥쿨(49)은 아들 이제이아 헨더슨(21)과 함께 클럽에 있었다. <br/> <br/>테러범 오마르 마틴의 총기난사에 클럽은 아수라장이 됐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고,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다. <br/> <br/>브렌다는 총 쏘던 마틴이 아들을 향해 총구 겨누는 것을 발견했다. “엎드려!”라고 소리친 그는 재빨리 몸을 날렸고, 마틴이 쏜 총알은 이제이아 대신 브렌다의 몸을 관통했다. <br/> <br/> <br/> <br/>브렌다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재빨리 도망쳤던 이제이아는 주말이 지나서야 엄마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디선가 무사하리라 믿었지만, 자기 대신 총알에 몸을 날렸던 엄마는 나머지 사망자 48명과 함께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br/> <br/>이제이아의 누나 칼리샤는 “동생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다”며 “엄마가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NBC 뉴스에 말했다. <br/> <br/>수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일곱 아들과 네 딸 등 열한명의 자녀를 둔 브렌다는 과거 두 번이나 암 투병을 꿋꿋이 견뎌낸 것으로 알려졌다. 암세포를 물리친 굳건한 정신이 아들을 위해 그를 총탄에 몸 던지게 했다. <br/> <br/>한편 총기난사 사건 후, 미국의 한 목사가 설교 도중 참사 희생자들을 가리켜 ‘성범죄자’, ‘소아성애자’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급히 사과하기도 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09.txt

제목: "출소자와 일자리 나눠요!" 26호 허그기업 탄생  
날짜: 20160614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4170405759  
본문: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4일 경기 안산 ㈜바로퍼니처에서 제26호 ‘일터나눔 허그기업’ 인증식을 개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경기 안산의 한 주방가구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A(55)씨는 어린 시절 배운 도둑질로 8차례나 교도소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건설현장을 전전하다가 수중의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절도를 저질러 교도소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국 A씨는 총 13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br/> <br/>A씨는 2015년 면회를 통해 매형이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매형은 방황를 거듭해 온 A씨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었다.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힌 A씨는 매형이 살아 있는 동안 반드시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결심했다. <br/> <br/>출소한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를 찾았다. 공단에서는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A씨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숙식은 물론 심리상담까지 제공했다. 공단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은 A씨는 출소자들을 채용하는 한 가구 제조사에 당당히 취업하게 됐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A씨는 성실하게 일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처지의 출소자들을 선뜻 받아들여 일자리를 제공한 곳이 바로 ㈜바로퍼니처다. <br/> <br/>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4일 안산 ㈜바로퍼니처에서 제26호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일터나눔 허그기업이란 출소자 고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해 사회공헌 기업으로 널리 알리고, 출소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br/> <br/>26번째 허그인증 기업으로 뽑힌 ㈜바로퍼니처는 주방가구 제조업체로, 이 회사 박상인 대표는 2014년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9명의 출소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와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br/> <br/>박 대표는 “<span class='quot0'>출소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직장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1명이라도 더 출소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회사와 공단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회사에 다른 출소자가 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r/> <br/>일터나눔 허그기업 인증을 받으면 대표가 국제공항 등의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우대를 받고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서류 간소화 및 체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까지 허그기업으로 인증받은 26개의 업체는 출소자를 본인의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출소자는 타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총 487명의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br/> <br/>이날 26호 허그기업 인증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을 비롯해 배성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장, 윤재홍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호석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장, 김철환 공단 전국취업위원연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구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자신과 가족만 챙기기도 버거운 사회에서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따뜻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수호천사</span>”라고 격려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0.txt

제목: [세개로 읽는 세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이어 카톡방 성희롱까지…  
날짜: 20160614  
기자: 박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4104719297  
본문: ▲제2롯데월드 허가 대가로 장성 출신에 12억 줬나 <br/> <br/>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각종 비리의혹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과거 증권가 찌라시 등에 나돌던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으나 롯데그룹의 적폐를 보여주는 내용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span class='quot0'>롯데가 한 번도 수사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과거 한국 대기업들이 보였던 구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span>”고 말했을 정도다.  <br/> <br/>세계일보는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 때 롯데측이 예비역 공군중장이 회장으로 있던 B사에 1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br/> <br/>그동안 2010년 11월 124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가 난 과정에 의구심이 많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8년 서울시에서 부지를 인수한 이후 20여년간 진척이 없다가 이명박정부 시절 일사천리로 진행된 탓이다.  <br/> <br/>검찰은 당시 성남비행장 고도 문제로 건축 허가를 반대한 공군이 결정을 바꾼 과정에 불법적인 로비 등이 있는지를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 수사는 철저하되 KT&G나 포스코 때와 달리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br/> <br/>롯데측이 추진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데다가 롯데케미칼의 미국 석유화학업체 인수도 물거품이 됐다. 환자 몸에서 암덩어리를 떼내려다 환자까지 숨지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br/> <br/>▲고려대 의대 성추행 이어 카톡방 성희롱까지… <br/> <br/> 고려대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캡처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뿐이라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고려대에서 또 집단 성희롱 논란이 재연됐다.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적 놀림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한다.  <br/> <br/>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양수업 2과목을 함께 수강한 남학생 8명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동기와 선후배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모욕했다.  <br/> <br/>고려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내부고발을 통해 공개한 A4 700매 분량의 대화 내용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한 학생이 “<span class='quot1'>진짜 새따(새내기 따먹기)를 해야 한다</span>”고 말하자 다른 학생은 “형이면 한 달이면 된다”고 맞장구치거나 “000은 먹혔잖아”,“<span class='quot1'>씹던 껌 성애자 단물 다 빠진 게 좋노</span>” 등과 같은 대화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고 한다.  <br/> <br/>가해자 중 일부는 양성평등센터 서포터즈 등으로 활동했다고 하니 학생들의 윤리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학생들이 장난삼아 한 행위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대학 의대에 다니던 남학생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출교처분된 사건이 일어난 게 불과 5년 전이다. 그 충격과 아픔은 지금까지 잊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br/> <br/>▲북한 사이버해킹에 속수무책인 세계 최고 IT강국 <br/> <br/>북한 해커집단이 SK그룹과 한진그룹 계열사를 해킹해 PC 13만대에서 4만여건의 내부 문서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span class='quot2'>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이 평양 유경동 지역 IP를 사용해 국내 두 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 27곳의 중앙전산망 통제권을 장악했던 사실을 확인했다</span>”고 13일 밝혔다. <br/>  <br/>이번 해킹으로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F-15 전투가 날개 설계도면과 국내 개발 중인 무인정찰기(MUAV) 관련 자료가 일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흘러들어간 문서로 확인된 것만 4만2608개로 집계됐다.  <br/> <br/>북한의 사이버해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이던 LIG넥스원에 해킹 시도로 의심되는 악성코드가 유포된 적 있다. F-15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출됐다면 큰일이다.  <br/> <br/>정부는 주요 기관·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해킹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미국 IP로 우회해 국내 전산망에 접근해 왔다고 한다. 평소 철저한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에 대비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면서 북한 사이버해킹에 뻥뻥 뚫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br/> <br/>박희준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1.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급증하는 대장암…누워 있지말고 이것 마셔라  
날짜: 201606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4050245082  
본문: 대장암은 보통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내에서도 자주 발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전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같은 현상의 주요인은 서구식 식습관의 확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육류 섭취는 많고 섬유질은 적게 섭취하는 데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집에서도 주로 누워 있는 사람들이 특히 대장암에 취약한데요.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병했거나 연령과 관계없이 2명 이상에서 대장암이 발병했다면, 40세부터 5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br/>한국인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처음으로 올해 '위암'에서 '대장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br/> <br/>국립암센터 원영주 연구원 등은 국가 암 등록사업의 1999∼2013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4년 암 사망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남성 대장암 신규 환자 수는 2만3406명으로 남성 위암 신규 환자 수(2만3355명)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r/> <br/>◆'위암' 줄어들고 '대장암' 늘어난 이유 <br/> <br/>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남성 1위 암은 줄곧 위암이었다. 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 <br/> <br/>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육식 위주로 변화하면서 대장암 유병률이 증가하자, 올해에는 대장암이 1위에 오를 것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br/> <br/>대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종양전문의 앨런 베누크 박사는 대장암은 발생 위치가 대장의 왼쪽인 경우가 오른쪽일 때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br/> <br/>대장암이 대장 왼쪽에서 발생한 732명(평균연령 57세), 오른쪽에서 시작된 292명(평균연령 61세)의 생존기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원발부위가 왼쪽인 환자가 평균 33.3개월로 오른쪽인 환자의 19.4개월에 비해 두 배 가량 길었다고 베누크 박사는 밝혔다. <br/> <br/>이들은 모두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된 환자였다. 이들 중 일부는 항암제 세툭시맙(얼비툭스), 나머지는 베바시주맙(아바스틴)이 투여됐다. <br/> <br/>◆대장암 발생 위치 따라 생존율 '극과 극' <br/> <br/>세툭스맙 그룹의 생존기간은 암 발생 부위가 왼쪽인 환자가 평균 36개월, 오른쪽인 환자는 16.7개월이었다. 베바시맙 그룹의 생존기간도 종양 원발부위가 왼쪽인 환자가 평균 31개월로 오른쪽인 환자의 24개월보다 훨씬 길었다. <br/> <br/>이 결과는 왼쪽 대장에서 시작되는 암과 오른쪽 대장에서 발생한 암은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생물학적 이유를 찾아낼 할 필요가 있다고 베누크 박사는 강조했다. <br/> <br/>이 새로운 발견을 계기로 대장암은 종양이 대장 어느 쪽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br/> <br/>이런 가운데 하루에 우유를 반 잔씩만 마셔도 대장암 발병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br/> <br/>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김정선 교수는 최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우유 국제 심포지엄'에서 2007~2014년 대장암 환자와 건강한 성인 총 2700여 명의 우유와 칼슘 섭취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br/> <br/>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를 하루 반 잔(약 101㎖) 이상 마시는 사람은 우유를 거의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29㎖ 이하)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54% 낮았다. 또 매일 우유를 29∼101㎖씩 마신 사람도 우유를 29㎖ 이하로 마신 사람보다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44%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우유의 칼슘, 대장암 예방에 정말 도움될까? <br/> <br/>실제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대장암 환자들의 하루 우유 섭취량은 평균 49㎖로, 건강한 사람이 마시는 양(63㎖)보다 적었다. 우유 외에 김치나 두부 등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전체 칼슘 섭취량 역시 대장암 환자들은 454㎎으로 건강한 사람(462㎎)보다 다소 적었다. <br/> <br/>김 교수는 "우유를 하루 반 잔 이하만 꾸준히 마셔도 의미 있는 대장암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라며 "우유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r/> <br/>'우유와 암 예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일본 도쿄대 의대 사사키 사토시 교수도 "칼슘은 대장암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유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장 선종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유와 유제품이 다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이달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낙농진흥회·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우유가 암을 일으키나, 막아주나'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내는 물론 호주·영국·일본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매일유업·남양유업·서울우유 등 유업체들은 판촉행사를 강화하거나 신제품 및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확대하는 등 국내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힘 쓰고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2.txt

제목: [연구] 변비 방치하면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2배 높아진다  
날짜: 2016061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3173616424  
본문: 변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최대 2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13일 일본 J케스트뉴스는 변비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며 토호쿠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br/> <br/>대학 공중위생 분야 나카모토 켄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남녀 4만 5112명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배변한 그룹과 2~3일에 1회 배변한 그룹, 4일에 1회 이하로 배변한 그룹으로 나눠 13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연구대상의 생활습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배변횟수와 사망 원인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연구기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총 2018명은 배변 빈도가 매우 낮았다. <br/> <br/>비율로는 1일 1회 이상 배변한 사람과 비교해 2~3일 1회 배변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을 앓는 비율이 1.21배 높았고, 4일에 1회 이하인 사람은 1.39배 높았다. <br/> <br/>뇌졸중은 1일 1회 이상 배변한 사람과 비교해 2~3일 1회 배변한 사람들은 뇌졸중을 앓는 비율이 1.29배 높았고, 4일에 1회 이하인 사람은 1.9배 높았다. <br/> <br/>전문가들은 "심장·뇌혈관 질환과 변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배변시 혈압이 오르는 것은 확실하고, 장내 세균의 변화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또 "변비인 사람들은 운동부족, 식이섬유부족, 수분부족, 다이어트 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져 체내에 독소를 쌓게 된다"며 "이러한 독소는 혈관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이번 연구와 일본 국립 암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변비와 대장암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r/>암센터가 시민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배변한 사람과 매일 배변한 사람과의 암 발병률은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설사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서 직장암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또 변비는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치질의 원인으로도 알려졌다. <br/> <br/>이번 연구는 국제 의학전문지 'Atherosclerosis(동맥 경화증)' 3월호에 게재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3.txt

제목: B형이 위암 발생률 낮다  
날짜: 201606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2192438611  
본문: 혈액형이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br/> <br/>최근 국내 연구팀이 B형 혈액형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 김나영 교수팀은 2006년 2월∼2014년 5월 이 병원 소화기센터에서 비분문부(non-cardia)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대조군 1147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분문부 위암은 식도와 위가 접해 있는 주머니 모양(분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암이다. <br/> <br/>연구팀은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 헬리코박터 제균력, ABO 혈액형, 성별, 연력, 위암 가족력 등 14개다. 그 결과 ABO식 혈액형 중 B형 유전자가 들어있는 B형(BB,BO)환자와 AB형 환자군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환자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br/> <br/>이 가운데 B형 유전자가 2개인 B형(BB)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46%, B형 유전자가 1개인 B형(BO)형과 AB(AB)형은 27%나 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br/> <br/>연구팀은 또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암’ 중 조직형에 따라 ‘장형 위암’과 ‘미만형 위암’ 두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암세포가 한 곳에서 뭉쳐서 덩어리로 자라는 것을 장형 암으로,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암을 미만형 암으로 부른다. 이렇게 나눴을 때에도 B형 유전자를 2개 가진 환자군은 암세포가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6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위암 발생률에는 혈액형 외에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무 역시 영향을 미쳤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환자 중 균을 없애는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65%가량 위암 발생 확률이 낮았다. 특히 발견과 치료가 까다로운 미만형 위암 환자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80%나 줄어드는 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김나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제균 치료의 효과를 확인해 직접적인 위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암 발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4.txt

제목: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소식에 네티즌…“법원도 검찰도 참 비상식적이다”  
날짜: 20160611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1002907300  
본문: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r/>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br/>당초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span class='quot0'>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span>”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약식 기소 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은 셈이다.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ilov\*\*\*\* 그래봐야 주홍글씨는 찍힌 거 아닌가?” “ssky\*\*\*\* 대법원 말이 맞다. '불특정인' 이 아니라 '특정인' 경우이기 때문에 성매매 아니다. 대법원 말이 맞고 말고 암~^^ 만세~!!^^ 이제 합법인 길이 열렸구나.^^ 성현아 만세 대법원 만세!!^^” “mygi\*\*\*\* 지나도 대법원 까지 가라 무죄 나오겠다. 팩트는 성관계 했다는 건 팩트. 돈 받은 것도 팩트. 지나야~ 지나간 일은 지나간대러~” “vish\*\*\*\* 요즘 세상이 말세인가보다 어디한곳 제대로 된 곳이 없네. 법원도 검찰도 참 비상식적이다” “stan\*\*\*\* 5천 만 원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건지 진지한 교제면 원래 연인한테 5천 만 원 정도는 용돈삼아 받고 그러는 건가?” “7941\*\*\*\* 과연 무죄일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br/>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br/>이슈팀 ent@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5.txt

제목: 백발의 나훈아, 세 번째 ‘돌싱’?  
날짜: 2016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0213209601  
본문: 1970년대 정상의 인기를 누리며 ‘가요제왕’으로 군림했던 가수 나훈아(69)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중인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53)씨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br/> <br/>백발의 나훈아는 이날 깔끔한 검정 수트 차림에 푸른빛이 도는 선글라스를 쓰고 왼쪽 옆구리에 서류가방을 낀 채 나타났다. 여전히 건장한 풍채와 호쾌한 모습이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조정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혼소송 중 첫 출석이자, 8년 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br/> <br/>정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span class='quot0'>조정기일이 27일로 다시 잡혔다</span>”고 짤막하게 답했다. <br/> <br/>나훈아는 직접 법정에 나왔지만 이날도 이혼소송에 관련한 입장과 심경, 복귀 여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 나갔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span class='quot0'>최근 8∼9년간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 됐다</span>”는 정씨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정씨는 2011년 8월 “<span class='quot1'>남편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span>”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나훈아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재판이 열렸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정씨는 이에 불복해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br/> <br/>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었지만,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자녀들은 정씨과 함께 지내고 있다. <br/> <br/>나훈아는 데뷔 이후 2500여곡을 취입하고 200여개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또한 800곡 이상으로 추정된다. <br/> <br/>나훈아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답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6일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나타나 8년 만에 공식석상에서 얼굴을 내보였다.사실 이혼소송은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소송이기도 하다. 특히 나훈아의 저작권은 양측의 합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낳는다.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어림잡아도 최소 한 달 5000만원~1억원의 수익을 가져다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저작권에 의한 수입이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결렬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추측된다</span>”고 말했다. <br/> <br/>나훈아는 2007년 3월 대관까지 해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잠적한 후 갖은 루머에 시달렸다. 암 투병설, 일본 폭력조직 관련설, 신체훼손설 등에 휘말렸으나 한동안 칩거하다 2008년 1월, 단상에 올라가 허리띠를 풀고 퍼포먼스에 가까운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활동을 중단해왔다. <br/> <br/>1948년 부산에서 태어난 나훈아는 형을 따라 상경한 뒤 서라벌예고를 졸업하던 1966년 ‘천리길’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다. 최홍기란 본명 대신 나훈아라는 예명을 가진 그는 간드러진 ‘꺾기 창법’이 매력적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1968)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정상급 가수 대열에 올라섰다. 1970년대에는 라이벌 남진과 함께 대중가요계를 주름잡았다. <br/> <br/>서울시민회관 공연 중 관객에 의한 피습으로 몇 개월을 입원하기도 했던 그는 1973년 비밀리에 공군에 입대해 화제를 낳았는데, 입대 직전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와 결혼했다가 전역을 1년 앞둔 1975년에 이혼했다. 이듬해 영화계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 김지미와 결혼을 발표하고 김지미의 고향인 대전에 신혼집을 차렸다. 방송계를 떠났다가 ‘대동강 편지’(1981)로 복귀해 ‘울긴 왜 울어’(1982)로 다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이 무렵 김지미와 사이가 멀어져 이혼하고 1983년 ‘여군 일등병’(1976)으로 데뷔한 적이 있는 정씨와 결혼했다. <br/> <br/>정상에 등극했던 스타답게 그에 관한 일화는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 <br/> <br/>김지미와 이혼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기며 남긴 한마디는 이후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에서 여러 차례 패러디 되곤 했다. “<span class='quot3'>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다.</span>” <br/> <br/>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연회 참석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한 것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당시 가수들이 유명 연회에서 두어 곡을 노래하고 3000만원가량을 받을 때, “<span class='quot4'>나는 대중 예술가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사람 앞에서만 공연을 한다</span>”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에도 등장한다. <br/> <br/>남산 도쿄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심수봉을 보고 실력에 감탄한 그가 본명인 최홍기로 쓴 자작곡 ‘여자이니까’를 주면서 가수 데뷔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일화도 유명한 얘기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6.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엄마 몰래 성금 더 냈어요!"…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과편지  
날짜: 201606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10113641991  
본문: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돈을 더 내고 싶었어요.” <br/> <br/>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같은 학교 학생을 위해 200위안(약 3만6000원)을 성금으로 낸 중국의 열한 살 소년이 엄마에게 사과편지를 남겨 화제다. 편지를 본 네티즌들은 소년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하면서도 엄마에게 혼날까 전전긍긍했을 모습이 떠오른다며 귀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젠(福建) 성 취안저우(泉州)의 한 초등학교에서 첸 야송(14)군을 위한 모금운동이 최근 펼쳐졌다. <br/> <br/>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야송 군은 아홉 살 때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투병 중이다. 이는 뇌 중앙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이다. <br/> <br/>야송 군은 화학치료로 호전되는 듯했으나, 암이 재발해 병상에 누워있다. 치료비용으로 20만위안(약 36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가계 파산 수준까지 다다른 탓에 야송 군의 가족은 손을 거의 뗀 상태였다. <br/> <br/> <br/> <br/>첸 준야오(11)군의 엄마는 성금으로 100위안(약 1만8000원)을 허락했다. 하지만 준야오 군은 엄마 몰래 집안 어른들에게 받은 뒤 곱게 넣어뒀던 용돈에서 100위안을 더 꺼내 총 200위안을 성금으로 냈다. <br/> <br/>마음이 후련하면서도 어쩐지 준야오 군은 두려웠다. 100위안만 내겠다던 엄마와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도와서 기분이 좋지만, 엄마에게 혼날까 무서웠던 소년은 결국 장문의 사과편지를 적어 방문에 붙여놓았다. <br/> <br/>“엄마가 화나실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 형(야송 군)의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들은 밧줄 끝에 매달린 심정일 거예요.” <br/> <br/>준야오 군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br/> <br/>“형이 머리가 아프대요. 이미 수백만위안을 치료비로 써버렸다고 했어요. 형의 엄마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셔요.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엄마에게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부디 저를 이해해주실 거라 믿어요.” <br/> <br/>준야오 군은 편지 끝에 “엄마, 죄송해요”라며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그래도 저를 이해해주실 거라 믿어요”라며 “엄마, 고마워요!”라고 글을 맺었다. <br/> <br/> <br/> <br/>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준야오 군의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이미 아들의 그런 선행을 예상했다고도 덧붙였다. <br/> <br/>준야오 군의 사과편지는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됐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소년이 정말 기특하다”며 “<span class='quot0'>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냐</span>”고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야송 군은 온정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진 덕분에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인민망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7.txt

제목: [부부 건축가 임형남·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 ‘최소의 집’은 욕망 걷어낸, 내 삶에 맞는 ‘최적의 집’  
날짜: 2016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9210938984  
본문: # 집은 욕망인가 <br/> <br/>명색이 건축가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집을 수십 채 지었지만,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이 설계한 집에서 살고 있다. 여태껏 나의 집을 지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조금 비슷한 경험이라면 남이 지은 집을 고쳐서 몇 년 살아본 것이 전부이다. <br/> <br/>그리고 매일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의 생각을 재보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환원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드는 일을 한다.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방이 필요한가요, 냉장고는 몇 대나 가지고 계시나요?(정말 요즘은 다양한 용도의 냉장고를 이고 얹고 살고 있다.) 소파(대부분 걷어놓은 빨래나 읽다 던진 신문지 혹은 늘 피곤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장소)는 꼭 놓으실 거예요? 등등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머릿속에 집 지을 이들의 생활을 옮겨 적는다. 그리고 백지를 앞에 놓고 그 하얀 면을 한참 노려본다. 그리고 그 위에 생각을 옮긴다.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상을 눈알이 얼얼해질 정도로 노려보다가 그 잔상을 백지에 투사시키듯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매일 집을 그린다. <br/> <br/>그럴 때가 되면 나는 내가 마치 환등기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나에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총천연색으로 꼼꼼하게 그림이 새겨진 슬라이드 필름을 꽂는다. 나는 전원을 켠다. 요란하게 팬이 돌아가고 환한 불이 켜지며 영상이 하얀 벽에 투사된다. 그렇게 집을 그리고 집을 세워나간다. <br/> <br/>간혹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 “<span class='quot0'>본인 집을 지으신다면 어떤 집을 지으실 생각이에요?</span>” “나의 집?” 텅 빈 방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 스위치를 올리자 내 눈 앞에 모든 사물이 살아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무척 어지럽다. <br/> <br/>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은 “글쎄요…” 하면서 대충 넘기고 생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만 가끔씩 궁금하기도 하다. 정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지을까? <br/> <br/>그러나 어떤 집, 어떤 모양, 어떤 거실, 어떤 식당, 어떤 방, 어떤 복도, 어떤 마당인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 또한 내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집의 모양과 내용과 디테일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릴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의 생각과 한참 먼 거리에 있었다. <br/> <br/>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의 욕망을 들어주고 그 욕망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의 욕망을 꺼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의 집을 지어주며 나의 생각과 나의 집에 대한 온갖 생각과 바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집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욕망총량의 법칙. <br/> <br/>그렇다면 집은, 필요가 아니고 욕망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br/> <br/>물론 사람에게 집이란 의식주라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요소는 언제부턴가 사치의 대상이 되고 신분의 상징으로 왜곡되었다. 그래서 집에는 욕망이 투사되기도 하고 그 욕망이 좌절되기도 한다. 또한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약해진다. 물질을 욕망으로 환원하고 그것을 가치로 교환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재능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으로 자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br/> <br/>또한 그것은 우리를 옭아매는 족쇄이며 쇠사슬이기도 하다. 그 쇠사슬을 치렁치렁 몸에 옭아매며 그 개수를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순간 인간은 외로워지고 슬퍼진다.  <br/> <br/> <br/> 강원도 평창에 있는 법정 스님의 일월암 근처에 지어진 현대식 암자 ‘정·방(靜·房)’. 건축가 김희준은 집이 원래부터 있었던 듯 자연적인 재료로 소나무숲 안에 뿌리들을 건드리지 않고 땅에서 들어올려 앉혔다. <br/>김용관 제공 <br/># 집은 상품인가 <br/> <br/>집을 그렇게 상품화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불순한 세력들의 작품이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세력’들은 마치 암 덩어리처럼 사회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영양소를 다 빨아먹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키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이라면, 현실의 우리나라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물질에 대한 불안, 혹은 집에 대한 불안이다. 아파트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고 그 집을 불려서 이사하고 또 불려서 이사하는 동안 우리는 무척 풍요로워지고 무척 유복해졌다고 생각한다. <br/> <br/>그러나 그건 정말 오해이다. 결국 인생은 공수래공수거, 즉 빈손으로 와서 잠시 사회가 위탁한 물질적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br/> <br/>그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지점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 법정 스님이라고 아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가진 스님이다. 그분이 평생 이야기하고 평생 실천한 정신은 ‘무소유’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 어찌 보면 무척 이상적이고 어찌 보면 무척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분은 깊은 산중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다 가셨다. <br/> <br/>법정 스님이 추구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최소의 삶’으로 해석된다. 그걸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1975년 순천 조계산 불일암에서 산중생활을 시작한다. 1992년 세속의 나이가 환갑이 되던 해에 산속 토굴 심지어 전기와 수도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강원도 진부에 있는 일월암)으로 들어갔고, 1997년 강원도 평창에 폐가를 개조한 수류산방을 거친다. 법정 스님을 흠모한 김영한이 자신이 운영하던 성북동 대원각을 기증하여 길상사가 되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곳에서 주석은 하였지만 머물지는 않고 법회를 마치면 이내 강원도의 토굴로 향했다고 한다. <br/> <br/>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소유를 실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빛을 주었던 법정 스님은, 산속까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에 눈을 돌릴 수 없었는지 인근에 객실을 하나 마련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 <br/> <br/>“한적한 곳에 일월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흙과 나무로 지은 일월암은 전기도 없고 주방도 없었다. 화장실은 저만치 따로 떨어져 있었다 … 일월암 곁에 5평 규모의 조그만 객실을 짓기로 하였다. 전기도 들어오고 주방과 화장실, 옷장, 신발장 그리고 보일러까지 갖춘 현대식 암자가 계획되었다. 스님은 조그만 컨테이너나 하나 갖다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지어진 게 일월암 객실이다.”(건축가 김희준) <br/> <br/>데이비드 소로가 지어놓은 월든 호수 근처의 오두막보다 한 평(3.3㎡) 정도 큰 18㎡ 규모의 집이었는데 그 설계를 김희준이라는 건축가가 맡아서 진행했다. 어느 날 그는 아는 분이 불러서 제주도에 가서 어떤 스님과 동행하게 된다. 평소에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작업에만 열중하였던 ‘은둔형 건축가’였던 그는 동행한 분이 법정 스님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span class='quot1'>여하튼 움직이는 모습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다.</span>” 그리고 몇 년 후 강원도 진부에서 그 스님을 다시 뵙게 되고 조그만 암자를 설계한다. <br/> <br/>‘일월암 객실(손님이 기거하는 작은 암자)’은 모든 기능을 네모 안에 집어넣으며 재료를 단순화한 집이다. 물론 그 집 또한 법정 스님은 머물지 않았다. 기능 자체가 손님을 위한 집이었기도 했지만 현대적인 재료와 편리한 시설이 법정 스님에게는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정 스님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욕망과 그것이 야기하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br/> <br/> 현대식 암자 ‘정·방(靜·房)’은 띠처럼 공간을 두른 천장에서 고요한 빛이 스며든다. <br/>김용관 제공 <br/> <br/># 최소의 집 <br/> <br/>욕망으로서의 집, 상품으로서의 집이 아닌 본연의 집은 무엇인가. <br/> <br/>집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쉬는 곳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담기고, 가족도 담기고, 추억도 담기는 곳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집도 또 하나의 식구 같다는 생각을 한다. 집은 마치 어떤 생명체처럼 사람과 함께 자라고, 이야기를 담고 시간을 담는다. 예전에는 한칸 방, 두칸 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가 식구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렸다가, 또 옆에 별채도 짓다가 아이들이 나가면 다시 그걸 줄이는 과정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가족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집도 많이 달라지게 된다. <br/> <br/>그래서 나는 집도 마치 생물처럼 자라고 늙고 연륜이 쌓인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80년 된 집을 고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의뢰하신 분이 70세가 넘은 분이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뭘 봤고, 결혼을 해서 어느 방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집을 어떻게 고쳐나갔고 하는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들려주었다. 함께 일을 하는 일 년 동안 내내 집의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게 진짜 주인에게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단서들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 <br/> <br/>요즘은 워낙 이사를 많이 하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며 삶이 집과 함께 자라는 경험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단지 직장을 옮겼다든지, 애들이 커서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집을 장만해서 집값이 오르면 팔고, 다시 사고…. 그렇게 집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먹지 못하고 몇 십 년이 지나온 것이다. <br/> <br/>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꺾이면서, 마치 오랜 백일몽에서 깨어나듯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집은 재산 증식의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소유와 욕망으로 여러 겹 칠해진 집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br/> <br/>그에 대한 실천적인 방식을 건축가의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2013년 가을 <최소의 집>이라는 타이틀로 기획자인 건축가 정영한(가로세로 9m 크기의 9×9 실험주택), 김희준(수도자를 위한 연면적 18㎡ 크기의 암자 ‘정·방’), 그리고 임형남·노은주(금산주택)가 모여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각자 생각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서의 집을 고민한 결과물들을 내놓은 전시였다. 집을 포장하고 있던 각종 욕망과 거품을 걷어내고 바라본 집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최소의 집’ 전시는 주제에 공감하는 건축가들에게로 계속 바통이 이어져서, 오는 7월 7번째 전시를 앞두고 있다. <br/> <br/>내가 생각하는 최소의 집은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갖춘 ‘적정한 집’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일정한 나이에 일정한 크기의 일정한 형식의 집에 살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이 존재해 왔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짓는 ‘최소의 집’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의식의 전환’이다. 여기서 ‘최소의 집’은 내 몸과 내 삶에 맞는 ‘최적의 집’이며 단순히 규모가 작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이며, 자기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집을 통해 자기가 완성된다. <br/> <br/>임형남·노은주 가온건축 공동대표·『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공동저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8.txt

제목: 전 재산 기부하고 떠난 쪽방촌 할아버지  
날짜: 2016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8023355808  
본문: 구두닦이 등을 하며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을 구청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70대 말기암 환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말기암 환자 강천일(왼쪽)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 지난 4월 조성삼 용산구 복지정책과장에게 전 재산을 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br/>용산구 제공7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말기암 환자 강천일(72)씨가 용산구청에 현금 3600만원을 전달할 의사를 밝혔다. 강씨는 용산구 후암동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 돈은 그가 다양한 허드렛일을 하며 어렵게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강씨는 “<span class='quot0'>내가 평생 힘들게 살아 어려운 사람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동안 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 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span>”고 말했다. <br/> <br/>강씨는 구청에 전 재산을 기부한 뒤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19.txt

제목: "우리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어?"…암 환자 친구의 마지막 부탁  
날짜: 2016060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7095607158  
본문: “우리 아이들을 대신 키워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br/> <br/>베스(39)가 컬리(39)에게 물었다. <br/> <br/>“알았어. 그렇게 할게.” <br/> <br/>베스의 오랜 친구 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br/> <br/>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암으로 세상 떠난 친구를 위해 그의 여섯 자녀를 대신 맡아 키우기로 한 친구 사연이 뒤늦게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베스와 컬리는 고등학교 친구다. <br/> <br/>베스는 2014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수술대에 올랐다. 당시 막내아들 에이스를 임신 중이었는데, 항암치료를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정 때문이다. 그렇게 에이스는 임신 30주 만에 태어났다. <br/> <br/> <br/> <br/>베스에게는 다섯 자녀가 더 있다. 큰 아들 윌(15)을 시작으로, 세레나(14), 잭슨(11), 달라스(10) 그리고 릴리(5) 등 다섯 남매를 뒀다. 조산이었던 에이스는 다행히 역경을 잘 이겨내고 최근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br/> <br/>베스의 남편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혼자서 아내 병간호와 아이들 뒷바라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br/> <br/>베스는 항암치료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텍사스주 집을 떠나 버지니아주로 건너왔다. <br/> <br/>처음에는 치료가 잘 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무렵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암세포가 베스의 몸 곳곳에 전이됐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뼈뿐만 아니라 뇌까지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br/> <br/>컬리는 “<span class='quot0'>의료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논하기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 <br/> <br/> <br/> <br/>베스의 소원은 하나였다. 자기가 없어도 아이들이 잘 커 주기를 바랐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오랜 친구 컬리에게 부탁했다. 자기 대신 아이들을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아이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다. <br/> <br/>베스의 마음을 이해한 것일까? 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어”라고 친구를 안심시켰다. <br/> <br/>아이들 생각은 어땠을까? 여섯 자녀는 “엄마가 만약 일어나지 못한다면 누구와 살고 싶으냐”는 컬리의 질문에 모두 그를 가리켰다. 다행이었다. 그만큼 아이들은 컬리를 의지하고 있었다. <br/> <br/>컬리의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키우자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세 자녀가 있었지만, 이들은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컬리 부부는 총 아홉 자녀를 키우게 됐다. <br/> <br/> <br/> <br/>베스는 믿음직스러운 친구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지난달 19일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 모금 운동 사이트 ‘고 펀드 미’에는 세상에 남은 베스의 여섯 자녀와 컬리 부부를 돕고자 수만달러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아직 관문이 남아있다. 컬리는 베스의 여섯 아이 공식 입양을 관계 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그의 서류가 받아들여져야 정식으로 아홉 아이들을 둔 엄마가 될 수 있다. <br/> <br/>베스의 장례식에는 곱게 옷을 차려입은 여섯 아이들과 컬리 부부가 참석했다. 컬리에게 이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끝없이 가슴이 무너진 시간의 연속이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워싱턴포스트·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0.txt

제목: 새 ‘유전자 가위’로 생쥐 DNA 교정 성공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6205232375  
본문: DNA 사슬을 마치 가위처럼 싹둑 자르는 인공효소인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쥐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 <br/> <br/>한국연구재단은 이상욱(사진) 울산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해 처음 학계에 보고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RISPR) Cpf1’로 생쥐의 특정 유전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크리스퍼 Cpf1 유전자 가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유전자인 ‘Trp53’만 공격하도록 Cpf1 가위를 디자인했다. 이어 이 유전자 가위를 생쥐 수정란에 넣고 수정란을 암컷 쥐(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한 뒤 대리모가 낳은 새끼의 유전자를 분석해 Trp53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유전자가 Cpf1 유전자 가위에 잘리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것으로, 특정 유전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쥐(‘녹아웃 마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7일자에 실렸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1.txt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얼마나 해롭길래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6184422323  
본문: 미세먼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부분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₂)와 질소, 수증기로 이뤄져 있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물질이 배출되는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이 있다. 미세먼지로도 불리는 분진(PM), 암모니아(NH₃)는 정부가 유럽 기준(유로6)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이들 물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br/> <br/>특히, NOx와 미세먼지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과 맞물려 큰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NOx는 폐수종, 기관지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을 일으킨다. 또 산성비 원인이 되며, 오존·미세먼지·스모그의 원인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에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br/> <br/>미세먼지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자동차 외에도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 이 때문에 디젤 엔진이 요즘 미세먼지 사태의 주범이냐는 논란이 있다. 어쨌든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고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과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 때문에 환경부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 무색·무취 기체인 CO는 사람 폐로 들어가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보급을 가로막는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br/> <br/>암모니아는 NOx 저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된다. 후두염이나 후두암,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된다. 탄화수소는 이산화질소(NO₂)와 반응해 오존과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 천식, 간질환, 폐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다. <br/> <br/>엄형준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2.txt

제목: [단독] 암, 이겨내면 끝? 암 생존자 우울증 무섭다  
날짜: 20160604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4105342872  
본문: 암 환자들은 암을 극복하고 나서도 우울증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젊고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br/> <br/>4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KMS) 7월호 온라인판에 실린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팀의 ‘한국 암생존자의 심리상태와 관련요인’에 따르면 현재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암 생존자는 16.69%에 달했다. 우울병력이 있는 비율도 15.61%였다. 이에 비해 암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우울 증세를 겪는 중이거나 우울병력이 있는 비율이 각각 12.39%, 10.57%였다. <br/> <br/>연구팀은 이런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 성별, 소득 등으로 나눠 분석(조정된 확률비?aOR)했다. 그 결과 65세 미만 암환자의 현재 우울 증세를 1이라고 봤을 때 65세 미만 고령 환자의 값은 0.8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br/> <br/>남성 암생존자의 우울증세를 1이라고 하면 여성 생존자는 2.10로 조사됐다. 또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1)일 때보다는 그 미만일 때(1.77), 비흡연자(1)보다는 흡연자(1.66)가 금주자(1)보다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1.47) 우울증세를 많이 겪었다. <br/> <br/>연구팀은 “암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료 비협조 등으로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3.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나를 기다리는 눈빛 외면 못해… 봉사가 천직”  
날짜: 2016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3214525599  
본문: “주변의 불쌍한 사람에게 보다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 1년 앞당겨 명예 퇴직을 했다. 직업 공무원은 생계의 수단이었다면 봉사는 나의 천직이다.” <br/> <br/>경찰관으로 35년간 봉직하다 2014년 6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평내파출소 지구대장을 끝으로 제복을 벗은 이명우(60)씨는 ‘봉사하는 삶’ 그 자체다. 경정으로 퇴직한 이씨는 얼마 전부터 한국청소년 육성회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선도 캠페인,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캠프 개최 등이 그의 일이다. <br/> <br/>1979년 경찰에 투신한 이씨는 봉사와 나눔의 단체인 사단법인 ‘사랑터’를 이끌었다. 이씨가 공무원이라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을 수 없어 이씨의 은사이며 친구인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60·사회복지학)가 이사장을 맡았다. <br/> <br/>사랑터 회원은 2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들이다. 이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의 봉사정신에 탄복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외부의 도움 없이 모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br/> <br/>봉사단체 사랑터를 이끌고 있는 전직 경찰관 이명우씨가 3일 서울 을지로 3가 사무실에서 “봉사는 측은지심의 시작”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br/>하상윤 기자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1985년 서울 마장동 상인들과 함께 친목 위주의 등산모임을 하다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적장애 시설인 광진구 광장동의 다니엘 학교, 강동구 명일동의 우성원, 보육원 등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고기 등 부식을 제공하면서부터 봉사의 길로 나섰다. 다섯명이 의기투합해 ‘사랑터’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87년이다. 다섯명 중 세명은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br/> <br/>“군대 생활 도중 골수암 판정을 받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 받았다. 신앙은 없었지만 병이 나으면 남을 위한 봉사를 하며 살겠다고 신께 맹세했다. 기적인지 오진이었는지 다행히 병이 나았기에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br/> <br/>1987년 1월 만들어진 사랑터는 약 30년 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보육원, 지적장애아 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했다. 우리 사회의 틀을 한꺼번에 뒤흔든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길바닥으로 나온 노숙인 등이 많아지면서 손길이 더욱 바빠졌다. 이씨는 서울 강북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결식학생을 위해 날마다 점심 도시락 150여개를 제공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다. 당시 사랑터의 도시락 도움을 받은 학생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사랑터 회원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br/> <br/>“경찰관으로서 야근하고 힘들어도 나를 기다리는 눈빛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새벽시장에 가서 계란, 라면, 배추 등 부식과 쌀 등을 구입한 뒤 곧바로 포장 배분할 때 집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늘 고맙게 여기고 있다.” 이씨의 부인도 사랑터의 총무로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br/> <br/>이씨는 창신동, 정릉동 일대의 달동네 주민들에게 제공할 생필품 및 부식 등을 메고 뛰느라 관절이 성치 못한 상태다. 요즘 이씨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는 무의탁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성가복지 병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체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교육하는 ‘사랑의 집’(서울 중랑구 신내동) 등 10여곳을 찾아 먹거리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주 일요일에는 국방부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이씨의 장남 지형(33)씨가 봉사에 나선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봉사활동을 지켜본 지형씨는 사랑터 청년단장 출신으로 서울역 건너편의 쪽방촌, 창신동 등지의 조손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누구의 강요없이 봉사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br/> <br/>이씨는 헌혈봉사로도 유명하다. 남몰래 헌혈봉사를 한 공로로 1992년 청룡봉사상을 받은 이씨는 이제까지 헌혈을 200여회나 했다고 한다. 1995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금장 포장을 받은 이씨는 “<span class='quot0'>1년 전까지 헌혈을 했는데, 혈압약과 모발약을 복용하는 탓에 헌혈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span>”고 말한다. 군 복무 중 첫 휴가를 나와 길거리에서 우연치 않게 헌혈 버스에 오른 게 헌혈봉사의 시작이었다. <br/> <br/>봉사를 좀더 잘 해보기 위해 방송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씨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1년 동안 매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비 닦아주기, 잡초제거 등도 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어김없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는 이씨는 “현충원 봉사활동을 위해 사랑터에 청년단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사랑터 회원 외에 외부 단체와의 합동 봉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이씨에게는 요즘 고민이 생겼다. 자신도 나이를 먹으면서 사랑터를 물려주고 이를 이끌어갈 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터는 내년 1월이면 창립 30년을 맞는다. 이씨는 “큰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회원이며, 아직 리더로서 부족함이 많다. 이 단체가 앞으로도 30년 더 존속되어야 한다”며 “사욕이 없고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이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br/> <br/>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4.txt

제목: [연구] 암환자 10명 중 8명, "암세포가 아닌 이것 때문에 사망한다"  
날짜: 2016060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3170016279  
본문: 암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1일 일본 의학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br/> <br/>일본 암 완화 케어 전문가이자 후지타보건위생대 의학대 도우구치 다카시 교수는 말기 암환자 108명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 질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환자사망 후 원인을 분석했다. <br/>  <br/>다카시 교수는 암 환자에 대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br/> <br/>그 결과 환자 82.4%의 환자들이 암세포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그는 82%의 환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 이에 회복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며 "영양 부족이라는 현실을 치료에 적용했다면 환자는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이어 "표본조사에서 대상이 적다는 반론이 있지만 말기 암으로 케어센터에 온 환자 대부분은 영양부족으로 전신이 쇠약해 있다"며 "이러한 실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다카시 교수와 비슷한 주장이 미국 연구에서도 있었다. <br/>2009년 논문 '암 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발표한 헨리포드병원 야키루 무시카토 박사는 '암 환자의 20% 이상은 악성 종양보다 영양실조로 사망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의학신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5.txt

제목: [단독] 신한생명, 40대 이주여성에 보험금 전액 지급  
날짜: 20160603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3134857491  
본문: 40대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수천만원대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서 논란을 빚었던 신한생명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br/> <br/>신한생명은 지난 4월 하순 암 보험금 4300여만원을 청구한 필리핀 출신 귀화인 한모(43)씨 건에 대해 분쟁협의회를 연 결과 피보험자가 요청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기로 최종 결정한 뒤 지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신한생명 측은 지난 2일 오후 한씨 남편 안모(46·전문건설업)씨가 근무 중인 경남 함양군에 중간 간부를 파견, 지난 2014년 보험 부활 당시 서류상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측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느꼈을 고통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신한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부활처리 청약서상 다소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보험지급에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 신한금융그룹 전체적으로 ‘따뜻한 금융, 따뜻한 거래’를 한다는 방침 아래 본 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기로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뵙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span>”고 말했다. <br/> <br/>안씨는 “<span class='quot1'>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도 다행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한생명 측이 중간 간부를 피보험자가 현장 근무 중인 함양까지 보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 부분이 마음에 든다</span>”며 “<span class='quot1'>관계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의 오해가 다 풀렸고 신뢰감도 회복됐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한씨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신한생명이 판매한 납입기간 35년, 보험기간 45년짜리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에 가입했다. 한씨는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2014년 8월 1일 실효됐다가 같은 해 9월 26일 부활처리됐는데,이 기간에 발생한 ‘좌측갑상선여포양성결절’이라는 진단의 고지 여부를 놓고 보험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6.txt

제목: 향년 75세, 배우 정진 별세…누리꾼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날짜: 20160602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2182726643  
본문: 사진제공=SBS배우 정진이 2일 암으로 별세했다. <br/> <br/>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2일 정진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향년 75세. 정진은 그동안 암투병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 빈소는 서울 현대 아산병원 2호실에 위치하고 있다. <br/> <br/>정진은 ‘한명회’ ‘설중매’ ‘태조왕건’ 등 걸출한 작품들에 출연하며 1985년 제21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1988년 한국연극배우협회 우정상등을 수상했다. <br/> <br/>네티즌들은 “drta\*\*\*\* 지금도 한명회하면 떠오르는 분이었는데 .. 안타깝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kimh\*\*\*\* 명품배우가 하나둘씩 떠나는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youn\*\*\*\*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7.txt

제목: '한명회' 배우 정진, 암 투병 끝에 별세… 향년 75세  
날짜: 20160602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2180349245  
본문: 수많은 작품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 정진(본명 정수황·사진)씨가 2일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75세. <br/> <br/>그의 별세 소식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의해 이날 알려졌다. <br/> <br/>1941년 11월22일생인 정씨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 출신으로, 1979년 TBC 방송국 공채 탤런트로 뽑히며 연기자로 데뷔했다. 대표작으로는 '제1공화국' '임진왜란' '한명회' '설중매' 등이 있다. <br/> <br/>빈소는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SBS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8.txt

제목: 신한생명, 40대 이주여성에 보험금지급 갑질 의혹  
날짜: 20160602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2112025552  
본문: 신한생명이 아이 3명을 둔 40대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애매한 이유를 대며 한 달 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가입자가 ‘대형 보험사의 갑질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br/> <br/>16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필리핀 출신 한모(43)씨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신한생명이 판매한 납입기간 35년, 보험기간 45년짜리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에 가입했다. <br/> <br/>한씨는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2014년 8월 1일 실효됐다가 같은 해 9월 26일 부활처리됐는데, 문제는 이 기간에 발생했다. <br/> <br/>같은 해 9월 3일 유방에 이상을 느낀 한씨는 부산시내 유명한 M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유방 내 미세한 물혹제거술을 받았다. 주사기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미세한 물혹을 제거하는 일명 맘모톰시술이었다. <br/> <br/>유방치료를 받은 한씨는 병원측의 권유로 갑상선 검사도 받았고, 검사 결과 ‘좌측갑상선여포양성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병원측은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절제하지 않고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미세한 혹에서 세포를 뽑아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있는 지를 관찰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즉시 실시했다. <br/> <br/>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담당 의사도 “그냥 놔두면 된다. 괜찮다”고 말해 진료가 종결됐다. <br/> <br/>유방이나 갑상선 진료에서 모두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불안을 느낀 한씨와 남편 안모(47)씨는 신한생명 모 지점을 방문, 진료받은 사실을 모두 말한 뒤 ‘보험 부활’을 요청했고, 같은 달 26일 부활이 확정됐다. <br/> <br/>이후 1년 6개월째인 지난 2월 15일 유방에 이상을 느낀 한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수술을 받았다. <br/> <br/>한씨 부부는 같은 달 26일 신한생명에 암치료특약, 수술특약 등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신청했다. <br/> <br/>그러나 신한생명 측은 현장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요원을 투입해 M병원, I내과 등 한씨가 진료받은 모든 병원에 대한 2014년도 진료기록을 확인했으나 가입자가 보험사를 속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br/> <br/>신한생명 측은 심지어 조사요원을 부산 모 대학병원에까지 보내 2014년에 진단받은 갑상선 여포 양성결절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갑상선 결절의 경우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나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양성 혹’이 크지 않다면 그냥 가지고 지내면 되고,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한씨 남편 안모(46)씨는 “<span class='quot0'>2014년 9월 보험부활 심사 당시 모든 진료 상황을 설명했고, 신한은행 지점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부활 승인을 해놓고선 지금에야 ‘갑상선 양성결절이 발전해 유방암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거대 보험사의 횡포</span>”라며 분개했다. <br/> <br/>안씨는 “<span class='quot1'>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2014년 당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조사를 한 뒤 ‘보험 부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지금 와서 ‘갑상선 양성 결절은 얘기를 안했다’며 교묘하게 보험금을 안 줄 궁리만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유방, 갑상선 모두 당시엔 암이나 악성이 아니었는데 얘기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span>”고 되물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지난달 26일이 현장심사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동안 ‘어렵다’는 말만 하다가 언론사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어젯밤에야 담당직원으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신한생명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보험 부활 당시 갑상선 부분은 언급을 안한 것으로 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현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밀 재검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29.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입으로 밥 먹이기 15년째…뇌성마비 양딸 키우는 부부  
날짜: 2016060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601143913035  
본문: 병원 복도에 버려진 여자아기를 데려와 15년째 키우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됐던 아기는 어느새 열다섯 살이 됐다. 아기를 데려온 여성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딸’이 우선이라며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br/> <br/>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신망(中新網)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01년 어느 겨울날, 산시(山西) 성 다퉁(大同) 시에 있는 한 병원 복도에 버려진 아기를 청소부 리씨가 발견했다. <br/> <br/>당시 리씨가 일하던 병원에는 선천적 질환으로 버려진 아기가 많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병을 앓는데, 돌볼 여력이 없으니 몰래 아이들을 두고 부모들이 도망친 것이다. <br/> <br/>아기를 안타깝게 여긴 리씨는 집으로 데려왔다. 그때부터 리씨 부부의 아기 돌보기가 시작됐다. 남편 자오씨도 힘을 보탰다. 15년간 이어져 온 감동극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다. <br/> <br/>  <br/> <br/> <br/> <br/>리씨는 현지의 한 매체에 “당시에는 병원 곳곳에 버려진 아기들이 많았다”며 “버림받은 아기들은 대부분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br/> <br/>리씨가 아기를 데려올 때는 무슨 병을 앓는지 몰랐으나, 나중에야 중증뇌성마비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r/> <br/>하지만 리씨는 아기를 버리지 않았다. 한 번 버려진 아기를 또다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갓 태어난 자식이 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모질게 버린 부모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br/> <br/> <br/> <br/>부부는 아기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탓에 입으로 음식물을 씹은 뒤 먹이는 방식을 고수했다.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양새다. <br/> <br/>당연히 식사속도도 느렸다. 이들 가족이 한 끼니를 때우는데 두 시간 가까이 걸렸다. 세 끼를 먹으니 24시간 중 약 6시간, 하루의 25%를 식사시간에 할애한 셈이다. <br/> <br/>부부 몫의 밥은 늘 차가웠다. 따뜻했던 밥은 딸에게 먹이는 사이 점점 식어갔다. 그 탓에 부부는 자주 배가 아팠다. 찬 음식을 먹으니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br/> <br/>리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한 사람이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집에 남아 딸을 보살폈다. <br/> <br/>부부는 최근 딸의 이름을 리쿤이라 지었다. 리쿤은 열다섯 살이지만, 지능은 세 살 수준이다. 비록 집안형편은 어렵지만, 리쿤을 키우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은다. 부부에게는 올해 열네 살인 또 다른 딸이 있다. <br/> <br/> <br/> <br/>리쿤을 애지중지 키운 부부에게 리씨의 식도암이라는 시련이 닥쳤다. 복을 받아도 모자랄 처지에 암 진단이라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br/> <br/>리씨는 항암치료를 포기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없어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리쿤을 돌보기도 바쁜 상황에 자기마저 병원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리씨가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br/> <br/>졸지에 자오씨가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됐다. 리쿤에게 밥을 먹이는 건 물론이고, 아내도 보살펴야 한다. <br/> <br/>리씨가 바라는 건 하나다. 리쿤의 정식 입양이다. 아직 리쿤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리쿤이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가계에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br/> <br/>“<span class='quot0'>리쿤이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span>”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신망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0.txt

제목: 소아암환자 및 발달장애우 위한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성료  
날짜: 2016053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31081024604  
본문: 사진=베니슨 엔터테인먼트 <br/>소아암환자와 발달장애우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펼쳐졌다. <br/> <br/>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아트홀에서 '제3회 아름다운 동행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는 박윤경과 유현숙, 김서영이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br/> <br/>특히 이번 콘서트는 개그맨 이정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진도, 추가열, 진시몬, 최성봉, 장민호,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br/> <br/>특히 올해는 소아암환자와 발달장애우에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 했다.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물론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됐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1.txt

제목: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내 낙농업의 우수성 널리 알릴 것"  
날짜: 20160530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30135318118  
본문:   <br/> <br/>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과 29일, 서울 한강 뚝섬유원지 수변무대에서 ‘2016년 우유의 날 행사&국내산 치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가 진행된 뚝섬유원지 수변무대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수백 여명의 참관객들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br/> <br/>행사는 크게 우유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비롯 △도심속목장나들이 △국내산 치즈요리 시식 △유업체 홍보관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오감 만족 체험이 주를 이뤘다. <br/> <br/>우선 식전행사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광고모델인 가수 마마무가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어린이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br/> <br/>특히 28일 오후 6시부터는 경기방송(FM 99.9)의 ‘라쇼(Radio-Show)’ 공개 방송도 진행됐다. 달샤벳, 김장훈, 에이프릴, 딘딘, 한해, 소년공화국, 오로라, 윤수현, 서문탁, 에이젝스가 참여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br/> <br/>같은날 오후 5시부터 2016 우유의 날&국내산 치즈페스티벌 기념식이 수변무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 유가공협회 정수용 회장 △낙농진흥회 이근성 회장 △농협중앙회 김영수 상무 등이 참여했다. <br/> <br/>이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이미 우유는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온 완전식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낙농가들도 완전식품으로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최고의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그러면서 “엄격한 기준과 관리로써 세계 최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면서도 우리 낙농산업은 이러한 내우외환에 봉착되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6년 우유의 날 및 국내산 치즈페스티벌 축제를 통해 우리 낙농업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새로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br/> <br/>본 행사는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세계 40여 개국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낙농진흥회 △ (사)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우유와 암’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THE-K)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2.txt

제목: 휴대폰 전자파, 과연 암 유발하나 논란  
날짜: 20160529  
기자: 조남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9165116829  
본문: 세계일보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10여년 동안에 걸쳐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발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조사했으나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br/> <br/>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라디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 등에 종양이 생기는지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전자파에 노출된 쥐가 암에 걸리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전자파가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보건복지부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br/> <br/>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과학자와 연구원 등은 휴대전화의 전자파와 발암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1년 휴대전화의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한 과학자의 70∼80%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br/> <br/>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74쪽에 달하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쥐의 암컷과 수컷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암컷은 보통 암컷 쥐에 비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과학자는 독성학 실험에서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수가 종종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존 부처 보건복지부 부국장이 강조했다. <br/> <br/>미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은 많은 국제 기관 및 미국 연구 기관이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최근 휴대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30년가량 지나는 동안에 뇌종양 환자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3.txt

제목: "휴대전화 방사선, 암 유발 가능성 높아"  
날짜: 2016052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8162849058  
본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2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독성물질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이 쥐와 생쥐에게 미치는 휴대전화 방사선의 영향을 실험한 결과, 휴대전화 방사선이 일부 쥐에서 종양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br/> <br/>연구진은 2년간 하루 9시간 동안 실험군 쥐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유럽이동통신규격(GSM) 및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900MHz의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10분 방사선을 쬐다 10분 휴식하는 패턴이었다. <br/> <br/>그 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실험군 쥐 일부의 뇌와 심장에서 종양이 발생했다. 뇌에서는 악성 신경교종(malignant gliomas)이, 심장에서는 신경초종(schwannomas)이 각각 발견됐다. <br/> <br/>그러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쥐 중에서는 종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휴대전화에서 방출된 방사선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연구결과로 휴대전화 방사선이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끝났다"는 NTP의 프로젝트 리더 출신 론 멜니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br/> <br/>하지만 앞서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에도 뇌종양 발병률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4.txt

제목: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날짜: 20160526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6230602981  
본문: 바둑기사, 소설가, 변호사….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 처리하며 심지어 ‘딥 러닝’ 능력까지 갖추며 무서운 속도로 인간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영역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IBM의 인지컴퓨팅 ‘왓슨(Watson)’의 암 진단 정확도는 96% 정도로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인공지능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 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br/> <br/>26일 줄리 바우저(Julie F Bowser) IBM 글로벌 생명과학분야 상무는 “<span class='quot0'>왓슨은 의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 의사를 대신할 순 없다</span>”고 고개를 저었다. 이날 오전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0'>왓슨은 의사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확장하는 역할을 할 뿐</span>”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br/> <br/>왓슨은 현재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바우저 상무는 기존의 암 치료의 44%는 초기에 적용한 치료법이 중도에 변경되고, 이러한 임상 결정의 절반은 명확한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왓슨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맞춤형 암 진료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2014년에는 미국의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MSK)’과 왓슨을 교육해 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이런 환자 맞춤형 치료법은 현재 인도 마니팔병원(Manipal Hospital)과 태국 범룽랏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에서 사용되고 있다. <br/> <br/>왓슨은 암 진단, 치료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를 선정하고 의료영상을 분석할 수도 있다. 또 임상시험, 논문 등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의료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br/> <br/>바우저 상무는 “<span class='quot0'>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만,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종양이 암일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초음파와 같은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등을 조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이어 “<span class='quot0'>인간이 창출한 데이터 가운데 의료분야는 유전학 5%, 치료·임상시험 등 의학 20%뿐이고 나머지 75%는 사람의 행동 등과 같은 비의료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왓슨은100%의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는 또 왓슨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되는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리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우저 상무는 “<span class='quot0'>왓슨은 분석 대상의 정보에 대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다</span>”며 “<span class='quot0'>IBM은 안전과 보안에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5.txt

제목: 배관공이 찾아준 20년 전 어머니의 유품  
날짜: 20160526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6153416441  
본문: 하수로를 정비하던 배관공이 우연히 반지를 발견하곤 반지를 잃어버린 여성과 만났다. <br/>25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19은 배관공과 한 여성의 만남을 소개하며 그가 찾은 것은 여성이 분실한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전했다. <br/> <br/>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당시 17세였던 셰리 키스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반지 하나를 받았다. <br/> <br/>“<span class='quot0'>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손에 낀 반지를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span>”고 말한 그녀였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반지를 하수구에 빠뜨리게 되고, 반지는 20년이 지난 최근 배관공 트렌트 도슨에 의해 발견됐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 줄 모른다</span>”고 생각했다며 딸과 반지 주인을 수소문했고, 소셜 미디어에서 소식을 접한 반지 주인 셰리와 만나 반지를 돌려줄 수 있었다. <br/> <br/>트렌트는 “<span class='quot1'>배수로 바닥에 발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어 확인해보니 반지였다</span>”며 “<span class='quot1'>진공청소기를 사용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span>”이라고 발견 당시를 설명했다. <br/> <br/>셰리는 “<span class='quot2'>반지는 어머니가 생전에 산 마지막 반지였다</span>”며 “<span class='quot2'>20년이란 시간이 흘러 다시 찾게 될 줄 몰랐다</span>”고 말했다. <br/>반지 주인 셰리. 그녀는 20년 만에 어머니의 유품을 되찾았다.트렌트는 작업 중 셰리의 반지를 발견했다.반지 주인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한 트렌트의 딸. 소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인을 수소문했다.한편 그녀는 지난 3월 맨스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지에 관한 사연을 말했던 터라 셰리가 진짜 주인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클리블랜드19 방송화면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6.txt

제목: [지구 기온 상승 1.5℃ 내로 지키자]“살 곳 잃은 동물들, 위협적 존재로 돌변”  
날짜: 2016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212414254  
본문: 2014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창궐한 질병 ‘에볼라’는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매개로 지목된 건 인간과 교류가 거의 없는 동물, 박쥐였다.  <br/> <br/>맹지연(사진)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국장은 25일 “<span class='quot0'>인간과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없는 박쥐 매개 바이러스가 재앙이 된 건 생물과 인간 사이 완충지대가 없어졌기 때문</span>”이라고 지적했다. 19세기 이후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세계 곳곳의 유기적 생태계를 깨뜨렸다. 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됐고, 살 곳을 잃은 생물들은 사라지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br/> <br/>맹 국장은 “<span class='quot1'>박쥐만 하더라도 암 연구에 도움을 주고, 벌처럼 씨를 옮기는 역할도 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런데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바이러스 매개로 역할이 변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생물을 단순히 정원에 있는 나무나 꽃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하나하나가 인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육지의 17%, 해양의 10%를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맹 국장은 “<span class='quot1'>생태보호지역은 ‘최후의 보루’</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1'>지금의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는 생물다양성이 급속도로 훼손될 게 불 보듯 뻔하다</span>”고 한숨을 쉬었다. <br/> <br/>당시 협약 주최국은 우리나라였다. 협약 체결 직후 정부는 산업 효율성을 높인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장 증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제적 약속과는 동떨어진 행보다. 이에 대해 맹 국장은 “<span class='quot1'>정부가 보호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개념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보호지역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더 개발하는 등 후진국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span>”고 꼬집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박근혜정부가 규제완화를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제안 등 환경단체들의 활동량이 폭증했다</span>”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r/> <br/>조병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7.txt

제목: "설탕 그만" 몸이 보내는 9가지 이상 징후  
날짜: 20160525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145500822  
본문:   <br/> <br/> <br/>‘6티스푼‘ <br/>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성인의 일일 설탕 섭취 제한량이다. 설탕을 많이 먹는 게 우리 몸에 나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잘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기준을 훌쩍 넘는 9티스푼을 섭취하는 게 현실이다. <br/> <br/>‘기준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기엔 설탕 과다 섭취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체중 증가는 기본이며 암까지 걸릴 수 있다. 해외 매체 메트로가 최근 과도한 설탕 섭취로 나타나는 몸의 변화 9가지를 전했다. <br/> <br/>1. 피로, 기억력 저하 <br/>설탕은 당뇨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다. 설탕을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당뇨가 생기지 않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br/> <br/>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로, 배고픔, 뇌 기능 저하, 고혈압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심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br/> <br/>2. 피부에 나타난 검은색 반점(흑색 극세포증) <br/>인슐린 저항성은 흑색 극세포증을 발병시킨다. 겨드랑이, 목, 팔 안쪽, 무릎 뒤쪽, 사타구니 등 몸이 접히는 부위에 회색 혹은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게 그 증상이다. 또한 피부가 사마귀 모양으로 두꺼워지며 주름도 접힌다. 일단 이런 증상이 생기면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론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br/> <br/>3. 간 기능 저하 <br/>과음만 간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다. 설탕도 간 기능 저하의 주범이다. 과당(fructose)의 과다 섭취는 간을 피로하게 해 염증과 손상뿐 아니라 간부전까지 야기할 수 있다. <br/> <br/>4. 치매 <br/>비만과 당뇨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br/> <br/>그런데 당뇨 이전 단계의 고당분 식사 또한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켜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너무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볼 만하다. <br/> <br/> <br/> <br/>5. 통풍 <br/>고지방 육류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통풍. 최근 연구 결과 설탕도 통풍을 일으킨다. 특히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면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br/> <br/>6. 노화 <br/>고혈당인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br/> <br/>네덜란드 레이든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2011년 50~70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혈당 수치와 외모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연구진은 설탕이 몸속에서 분해될 때 피부 탄력을 지키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의 생성 속도를 늦추는 것을 그 이유로 분석했다.  <br/> <br/>7. 배고픔 <br/>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때 우리 몸은 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단 음식을 먹은 후 식욕이 돌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br/> <br/>배부름도 느끼기 어렵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배부름을 느끼는데, 몇몇 연구 결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호르몬에 대한 몸의 저항성이 높아진다. 배부르지 않으므로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br/> <br/> <br/>8. 우울함 <br/>단 음식으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기분이 축 처지고 우울하게 만든다.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설탕을 멀리하라고 조언한다. <br/> <br/>9. 암 <br/>몇몇 연구는 고혈당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지만, 설탕이 많이 든 정크 푸드 등을 즐기는 생활방식이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8.txt

제목: 삼성화재, '모두모아 건강하게' 장기보험 상품 출시  
날짜: 201605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114816972  
본문:   <br/> <br/>삼성화재는 새로운 장기보험인 「모두모아 건강하게」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br/> <br/>이 상품은 사망·장해·진단비·수술비·실손 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에 손해보험 고유의 담보인 운전자 비용, 화재 위험, 배상 책임까지 하나의 상품 가입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 통합보험이다. 또한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한 고객의 상황별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기본적으로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의 집중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60·65세 만기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15년 후에는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보장내역 재컨설팅을 통해 재가입하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재무설계도 가능하다. <br/> <br/>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고도장애(1·2급)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보험기간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재발·잔존한 경우에는 재진단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등 암 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하는 경우 입원수술시 20만원, 통원수술시 10만원을 보상한다. <br/> <br/>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업계 최초로 통합보험을 출시한 삼성화재의 대표상품인 만큼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담아서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39.txt

제목: 진도 꽃게 어획량 '반토막'… 어민 시름 깊어  
날짜: 20160525  
기자: 한승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102524303  
본문: 전남 진도지역 봄 꽃게(사진)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br/> <br/>25일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에 따르면 봄 꽃게잡이가 시작된 지난 3월말부터 이달 12일 현재까지 위판량은 140t으로 지난해 283t, 2014년 225t에 비해 50% 감소했다. <br/> <br/>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꽃게값은 급등해 암꽃게의 경우 ㎏당 지난해 2만7000원하던 것이 올해에는 4만원으로 올랐다. <br/> <br/>가격이 높을 경우 6만~7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진도지역 어민들은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조업기간을 4~6월, 9~11월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br/> <br/>진도 앞바다는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갯바위 모래층이 잘 발달돼 우리나라 꽃게 어획량의 25%가 생산되고 있으며, 오는 6월20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br/> <br/>진도군은 수협중앙회, 진도군수협, 통발협회 등과 함께 1억원의 꽃게 치어 방류 사업을 6월말부터 조도면 내·외병도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br/> <br/>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꽃게 자원 조성을 위해 종묘방류사업, 어장 퇴적물과 폐어망 어구를 집중 수거해 꽃게 서식에 용이한 최적의 바다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 <br/> <br/>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0.txt

제목: 몸속의 독소를 없애주는 7가지 음식  
날짜: 20160525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5102520305  
본문: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질병이 독소로부터 온다고 했다. 실제로 체내 독소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해독(디톡스)은 인체 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디톡스가 다이어트 요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br/> <br/>패런트소사어티(parentsociety)닷컴은 최근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소개했다. <br/> <br/> <br/>1. 생강 <br/>생강은 장내의 음식을 빨리 이동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항염증 특성이 있어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소화기 건강에도 좋은 생강은 샐러드용 드레싱으로 만들거나 차로 즐길 수 있다. 날것으로도 먹을 수 있다. <br/> <br/> <br/>2. 비트 <br/>칼로리가 낮은 비트는 칼륨, 포타슘, 엽산, 섬유소,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아주 이상적인 해독 음식이다. 또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비트를 얇게 썰어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에 섞어 먹을 수 있다. <br/> <br/> <br/>3. 방울 양배추 <br/>방울 양배추는 작지만 섬유소로 가득 차있다. 고섬유질 식품은 해독을 도와준다. 항산화제, 비타민K, 비타민C도 함유하고 있다. 방울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소금과 후추를 뿌려 오븐에 구워 먹을 수 있다. <br/> <br/> <br/>4. 석류 <br/>석류는 비타민으로 가득 차있고, 콜레스테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석류는 그냥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서 먹을 수 있다. <br/> <br/> <br/>5. 레몬 <br/>레몬수가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은 체중 감량과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천연 활력제이다. 또한 심장과 소화기 계통에 정화기 역할을 한다. 레몬즙을 물에 타서 먹거나 샐러드드레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br/> <br/> <br/>6. 짙은 녹색 잎채소 <br/>녹색 잎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지방은 들어있지 않다. 녹색 채소는 오랫동안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왔다. 이것을 먹으면 소화 능력이 개선되고 혈액이 정화된다. 당신의 식단에 채소를 포함하는 쉬운 방법은 곁들임용 샐러드를 먹는 것이다. <br/> <br/> <br/>7. 녹차 <br/>많은 문화권에서는 녹차의 효능을 강조한다.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천연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녹차는 체중감량에 도움을 주고, 암과 박테리아를 퇴치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스무디에 추가해 마실 수 있다.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1.txt

제목: [연구]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Y염색체 때문"  
날짜: 20160524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4131308868  
본문: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Y염색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평균 수명을 낮추는 각종 암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이 Y염색체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혈액검사를 통해 Y염색체 소실 여부를 파악하면 예방 혹은 치료를 통해 남녀 기대수명 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br/>스웨덴 웁살라대학 연구진은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인간유전학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메일 등 주요 외신이 24일 전했다. 연구진이 스웨덴 32∼96세 남성(평균 73세) 3200여명의 Y염색체 분포를 조사했더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Y염색체를 보유한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br/> <br/>인간의 모든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Y염색체는 23번째 염색체 가운데 남성만 갖고 있는 염색체로 성(性)염색체라고도 불린다. Y염색체는 백혈구 등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염색체 소실’(LOY)은 암세포와 아밀로이드반(알츠하이머 발병원인) 증식을 일으킨다. 의학계는 80세 이상 남성의 20%가 LOY를 겪고 있다고 본다.  <br/> <br/>웁살라대학 연구진의 분석 결과도 비슷했다. 3200여명 중 17%에게서 Y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혈액세포에 Y염색체가 없는 남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남성보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경우가 3배가량 높았다. 알츠하이머까진 아니더라도 기억이 희미해지는 등 알츠하이머나 노인성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도 7배 높았다. <br/> <br/>연구를 주도한 라르스 포르스베르크 교수는 "혈액검사를 통해 Y염색체 손실 여부나 진행 정도를 파악한다면 예방 또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중장년 남성 사망률을 낮춘다면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r/> <br/>2014년 출생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79세로 여성(85.5세)보다 6.5년 적다. 세계적으로도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데, 직장에 다니거나 흡연, 음주하는 여성이 늘면서 점차 그 간격은 줄고 있다. 한국의 2010년 출생자 기대수명은 남성 77.2세, 여성 84.1세로 그 차가 6.9년이었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2.txt

제목: DGIST, 초정밀·초고속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 개발  
날짜: 20160524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4093641016  
본문: DGIST(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끈다. <br/> <br/>올리고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는 A·C·T·G 네 가지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단일 나선의 짧은 염기서열을 말하는 것으로 유전자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br/> <br/>DGIST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민수 교수와 뇌·인지과학전공 구재형 교수 융합연구팀은 구글 검색 방식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정밀하고 빠른 성능을 나타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설계 기술(MRPrimerW)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이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의 전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후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맵리듀스((MapReduce)에 기반을 둔 복잡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이성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만 선별해 저장한다. <br/> <br/>맵리듀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산 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한다. <br/> <br/>1차로 선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다시 색인 구조로 변환해 2차 결과를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설계 조건과 목표 유전자에 부합하는 최적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다. <br/> <br/>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br/> <br/>특이성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찾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목표 유전자에 약 30억번,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유전자에는 약 900경(京·10의 16승)번의 비교연산이 필요할 만큼 난해한 일이다. <br/> <br/>이와 관련 연구팀은 작년에 종(種) 전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특이성을 만족하는 모든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MRPrimer'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br/> <br/>그러나 이 기술은 사용자가 설계 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수십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br/> <br/>이번에 개발한 'MRPrimerW' 기술은 작년에 개발한 기술 단점을 해결한 것이다. <br/> <br/>MRPrimerW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자 기반의 암 진단,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탐지, 신종 바이러스 탐지 등 유전자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고 바이오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br/> <br/>전 세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MRPrimerW 기술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r/> <br/>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생물과학 학술지인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6일자에 실렸고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김혜린 박사과정 학생과 뇌 인지과학전공 강나나 박사가 제1공동저자로 참여했다. <br/> <br/>연구팀은 관련 기술을 웹사이트로 전 세계에 무료 공개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3.txt

제목: 덕분에 행복했어…남편이 보낸 병상의 '마지막 인사'  
날짜: 2016052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3152753523  
본문: 폐암 투병 중인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도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깨달은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중에 깨어난 아내가 남편을 되찾았을 때 이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br/> <br/>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크리스(21)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트’에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br/> <br/>크리스가 올린 사진은 병상에서 아내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산소호흡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지해 침대에 누운 짐(58)은 눈 감은 아내를 그윽이 바라봤다. <br/> <br/> <br/> <br/>짐은 지난 8년여 동안 폐암에 맞서 싸워왔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호흡기가 급격히 악화했다. 검진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크리스의 엄마 신디도 심근경색을 일으켜 입원했다. 졸지에 부부가 나란히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결혼 생활 23년 만에 닥친 최대 고비였다. <br/> <br/>짐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며 의료진에게 신디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디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렇게 손잡은 부부 사진이 탄생했다. 촬영자는 크리스다. <br/> <br/>신디는 며칠 후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남편을 찾았다. 신디는 크리스에게 “아빠는 어딨니?”라고 물었다. 자기보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이 더 걱정돼서다. 안타깝게도 짐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br/> <br/> <br/> <br/>크리스는 “<span class='quot0'>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촬영 당시 아버지는 매우 강인하셨고, 어머니를 보시고 싶어 하셨다</span>”고 말했다. <br/> <br/>남편을 먼저 보낸 신디는 퇴원해 건강을 되찾는 중이다. <br/> <br/>크리스는 “사진공개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span class='quot0'>온라인에서나마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그런 내 마음을 다른 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br/> <br/>크리스는 “<span class='quot0'>친구들은 내게 ‘넌 부모님을 봤지만,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를 봤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설령 누군가는 사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span>”고 덧붙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메트로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4.txt

제목: '말기암 투병' 처남 재산 가로채려한 50대  
날짜: 20160523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3143624806  
본문: 말기암 투병 중인 처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 차용증을 꾸민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br/> <br/>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고씨는 수십억 재산가인 손위 처남이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해 사망할 것으로 보고 한 몫을 챙기기로 작정했다. 지난 2013년 9월 손위 처남이 자신에게서 4억원을 빌려간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했고, 자신이 만든 처남 명의도장도 서류에 찍었다. <br/> <br/>이후엔 처남 가족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처남이 의료사업에 투자하려 해 4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허위로 만든 차용금 증서도 법원에 냈다. <br/> <br/>그러나 법원은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용금 증서를 처남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처남이 돈을 빌려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br/> <br/>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처남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5.txt

제목: 말기암 처남에게 '4억 빌려줬다' 허위 문서 꾸민 매제, 징역형  
날짜: 2016052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3132416580  
본문: 처남이 말기암에 걸린 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50대 매제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br/> <br/>23일 사기미수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A(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처남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당시 경제적 능력이 넉넉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A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br/> <br/>이어 "투자금을 빌려줄 때보다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투자조건 등에 관한 투자계약서 등 통상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문서들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br/> <br/>재판부는 "인척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br/> <br/>A씨는 손위 처남이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처남이 자신에게서 4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했다. <br/> <br/>A씨는 '2011년 처남이 4억원을 자신에게서 빌려가 2013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했고, 자신이 만든 처남 명의 도장도 서류에 찍었다. <br/> <br/>이어 2013년 9월 처남 가족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r/> <br/>A씨는 "처남이 의료사업에 투자하려 해 4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며 허위로 만든 차용금 증서도 법원에 냈다. <br/> <br/>지난해 1월 열린 민사재판에서 울산지법 민사재판부는 "차용금 증서를 처남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처남이 돈을 빌려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br/> <br/>이후 A씨는 사기 미수죄 등으로 형사 재판에 남겨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6.txt

제목: 40~50대 ‘소화기 질환’ 급증, 정기적인 위대장내시경 필수  
날짜: 20160521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1112637130  
본문:   <br/> <br/>우리 몸을 이루고 각각의 장기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를 영양소로 변환하고, 배설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소화기관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r/> <br/>우리가 매일 같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공기,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화기관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건강상태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짜고 자극적인 음식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위-식도 역류병이나 만성 위염, 궤양성 대장염 등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위-식도 역류병’으로 인한 진단인원이 2009년 245만8천 명에서 2013년에는 351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중에서도 소화기관인 위와 대장에 발생하는 위암과 대장암은 각각 발병률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br/> <br/>청구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소화불량, 메슥거림 등과 같은 증세는 40~5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급증하는 40대, 50대에서는 소화기관의 건강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특히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겉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위대장 내시경은 각종 소화기 질환은 물론, 위암과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검진을 통해 40세 이상이라면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평소 특별한 위장 증상이 없더라도 2년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br/> <br/>대장내시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5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특히 배변습관의 변화, 혈변, 가늘어진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 <br/>김정환 기자 hwnai8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7.txt

제목: 우주·지구 그리고 인간, 어떻게 태어났을까  
날짜: 2016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1022926975  
본문: 김희준 등 지음/휴머니스트/2만2000원기원/김희준 등 지음/휴머니스트/2만2000원 <br/> <br/>우주는 138억년 전 태어났다. 아주 작았던 우주는 점점 팽창해 지금은 10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0억년이 걸려야 횡단할 수 있는 크기가 되었다. 지구가 생긴 것은 약 45억년 전이다. 이미 5000만∼6000만년 전에 형성된 태양계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암석은 40억년 전 것이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것은 36억년 전이었다. 인간의 역사는 ‘불과’(!) 25만년 전에 시작됐다. <br/> <br/>책이 다루는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길어야 100년을 살고, 당장 1시간 앞의 일을 두고도 안절부절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지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시간을 추적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기도 한다.  <br/> <br/>국내 각 분야의 석학들이 우주, 물질, 지구, 생명, 암, 종교와 예술 등의 기원을 설명한 강의를 모아 만든 책이다. 소재 하나하나가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고,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그것의 역사를 더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흥미롭게 다가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 <br/>약 45억년 전 태양계에 존재하던 지금 지구 크기의 90% 정도인 원시행성과 화성 크기의 다른 원시행성 ‘테이아’(theia·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어머니를 지칭)가 충돌했다. 충돌로 생겨난 물질 중 일부가 달이 되어 지금의 지구-달이 형성됐다. 충돌 후 지구는 수백만 년 동안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다. 44억∼40억년 전 바다가 만들어지고 대륙은 조그만 섬처럼 존재했다. 40억∼38억년 전에는 작은 운석부터 수십㎞ 크기의 미행성이 끊임없이 지구와 충돌하는 ‘후기 대폭격기’를 거치고 지구는 안정적인 진화기를 맞는다. <br/> <br/>지구에 생명이 탄생한 것은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어느 화학물질이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 물질이 “자신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진화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지구가 탄생하고 10억년이 지난 36억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다시 20억년이 지나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 혹은 DNA가 있었고, 어쩌다 그 안에서 더욱 효과적인 복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세포가 생겨난 뒤 그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 세포들 간의 기능 분화가 이뤄지면서 결국 인류와 같은 복잡한 생명체까지 나온 것이다. <br/> <br/>이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다. 그는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그 옛날 하나로부터 왔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해 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한 이 이론을 따르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은 은행나무, 구더기와 같은 집안이었던 지점을 만나기 때문이다. 저자 중 한 명인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span class='quot0'>모든 생명은 하나로부터 왔고,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설명은 다윈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span>”이라고 적었다. <br/> <br/>책을 읽다 보면 길고 긴 시간의 고리 속에 인간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138억년의 시간 중 25만년에 불과한 역사,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구더기와도 유전자를 공유한 존재라는 점 등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그런 인간이 지구를 망쳐놓은 주범이라는 사실에 이르면 비루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동시에 인간이 짧은 시간에 저지른 온갖 오류에도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사실이고, 끊임없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한다. 물론 어느 쪽인가는 독자의 몫이다. <br/> <br/>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의를 모아 역은 책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태도는 무척 친절하다. 시종일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김희준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span class='quot1'>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한 시간 뒤쯤에는 1955년 세상을 떠나 빅뱅우주론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인슈타인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것</span>”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다루는 주제 자체가 어렵다. 곳곳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을 만나게 된다. 어느 정도 각오를 다진 후 도전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8.txt

제목: 대구 건설사 사장 시신 야산서 암매장된 채 발견  
날짜: 20160520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0170136457  
본문: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는 처우불만을 이유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건설사 사장 김모(48)씨 시신은 사건 발생 13일째인 20일 오전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br/> <br/>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조씨는 5∼6년 전부터 김씨와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br/> <br/>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골프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먹였다고 설명했다. <br/> <br/>조씨는 김씨가 경산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잠이 들자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김씨를 태워 대구 가천동 회사까지 이동한 뒤 오후 9시 30분쯤 회사 주차장에서 차 뒷좌석에 누워 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br/> <br/>이후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고 귀가하고는 이튿날 새벽 경북 청송·영천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br/> <br/>암매장하는 데는 1시간 25분가량이 소요됐고 경찰은 조씨 유전자(DNA)가 묻은 삽과 옷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br/> <br/>조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br/> <br/>경찰은 조씨가 지난 19일 밤 자백한 뒤 불안증세를 보이며 피로를 호소하자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심리상태를 안정시킨 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br/> <br/>경찰은 암매장 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br/> <br/>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br/> <br/>조씨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49.txt

제목: NCCK 생명·윤리위, 환경주일 연합예배 개최  
날짜: 20160520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20142558965  
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후암동 중앙루터교회에서 제33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br/>한국교회는 세계환경의 날(6.5)이 있는 6월 첫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이번 환경주일의 주제는 ‘생명을 위한 선택, 반 GMO’로 정했다. <br/>이날 참석자들은 인위적인 공학기술로 생명의 근원을 조작·변형시켜 생산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작물)’가 지구 생태계에 일으킬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GMO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br/>NCCK 생명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3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전경.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 공동대표 한경호 목사는 “<span class='quot0'>생명을 살리는 밥상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슬러서 생산된 식재료, 특히 GMO 식품은 절대로 선택해선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교회가 나서서 이 죽임의 문명을 살림의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길 기대한다</span>”고 강조했다. <br/>문용식 사관은 “<span class='quot1'>GMO가 처음 연구될 당시 연구자들은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기아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오히려 땅은 황폐화됐고, 암 발병률과 불임·난임은 늘어났으며, 면역력 감소와 수명 단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의심된다</span>”고 지적했다. <br/>그러면서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적극 나서 생명살림의 일꾼으로서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힘쓰자”고 전했다. <br/>이에 NCCK 생명·윤리 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생명살림을 위한 실천사항이 담긴 ‘2016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을 발표,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실행할 것을 권면했다. <br/>예배 후 열린 녹색교회 시상식에선 대전 가장제일교회(소종영 목사)와 경북 포항 대한성공회 성안드레아교회(방효중 신부)가 2016년 녹색교회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br/>대전 가장제일교회는 강단 꽃꽂이를 없앤 후 미화 헌금을 장학 헌금으로 대체했고,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앞장섰다. 무엇보다 교회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이목을 끌었다. <br/>포항 성안드레아교회는 교회 마당에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수확한 농산물로 교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빗물을 모아 다시 쓰고 음식물 퇴비를 만드는 등 작지만 알차게 환경보호를 실천해 왔다. 특히 고리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도 앞장서고, 빈그릇 생명밥상 실천에도 애써왔다. <br/>시상식에 나선 성안드레아교회 조명숙 부제는 “교회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재활용에 열심히 임했더니 환경을 생각한다고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교회를 거쳐 간 신부들 덕분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녹색교회 시상식 후 (왼쪽부터)문용식 위원장,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 성안드레아교회 조명숙 부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br/>한편, 이날 연합예배에 앞서 GMO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열렸다. <br/>이 자리에서 탈GMO 생명살림 기독교연대 안재학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2'>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죽이고 변형시키고 뒤틀어 버리는 중차대한 생명의 문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span>”며 “<span class='quot2'>한국교회가 반 GMO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김현태 기자 jknewsk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0.txt

제목: “남편과 함께 한·미 가교 역할할 것”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213329511  
본문: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가 통일그룹 임직원 부인회 미국 연수 행사에 참석했다. <br/> <br/>호건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안호열 통일그룹 대외협력본부장, 양창식 전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댄 버턴 전 연방 하원의원 부부, 톰 맥데빗 워싱턴타임스재단 이사장, 래리 비즐리 워싱턴타임스 사장, 마이클 젠킨스 워싱턴타임스지주회사 이사장, 통일그룹 임직원 부인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타임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미의 가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br/> <br/>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주지사 부인이 된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서 열린 통일그룹 임직원 부인회 미국 연수 행사에 참석해 연설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호건 여사는 호건 주지사가 지난해 6월 암의 일종인 비 호지킨 림프종에 걸렸으나 6개월 만에 투병과 치료로 암 완치 판정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span class='quot0'>남편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지사 업무를 결코 중단한 적이 없었으며 약물 투여를 위해 아이비를 꽂은 채 결재 서류를 처리했다</span>”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강하게 견뎠고, 이제 암 환자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암과 싸우도록 독려하는 등불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br/> <br/>호건 여사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적극 전파하고 있고, 남편은 한국과 메릴랜드의 경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호건 여사는 “<span class='quot1'>남편의 취임 이후 첫 외국 방문 국가가 한국이었고,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는 김치냉장고가 들어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남편은 이제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4월 5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고, 태권도 대회에서 직접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1.txt

제목: ‘14-3-3 단백질’ 세포조직 성장 관여 밝혀내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213327425  
본문: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최광욱(사진) 교수 연구팀이 생체 내 신호전달체계에 존재하는 ‘14-3-3’ 단백질이 신체기관의 발달이나 세포조직 성장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연구로 신호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한 암 등 종양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6일자에 게재됐다. <br/> <br/>18일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신체에는 토르 신호(Tor signaling)라고 불리는 신호전달체계가 존재한다. 단백질 합성을 늘려 세포 크기를 키우거나 세포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토르 신호가 너무 많으면 암을 유발하고, 너무 적으면 신체기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br/> <br/>토르 신호를 조절하는 데에는 ‘Tctp’와 ‘Rheb’라는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Tctp와 Rheb가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팀은 초파리의 유전적 상호작용 분석실험을 수행한 결과 14-3-3 단백질이 Tctp와 Rheb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 두 단백질이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Tctp 또는 Rheb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14-3-3의 결핍이 발생하면 기관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어 이 원리를 통해 14-3-3 단백질이 Tctp와 Rheb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조절해 성장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규명해냈다. <br/> <br/>최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고등동물에서도 유사한 조절 기작이 존재하는지 확인되면 질병 관련 유전자들의 생체 내 작용을 규명하고 암 조직의 조절이나 기관 발달 촉진 등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2.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맞춤의학 시대 성큼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213319887  
본문: 고령화에 따른 인간의 숙명 가운데 하나는 암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암환자의 발생 및 사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암치료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암치료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암세포의 특정분자만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분자표적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화학요법이 등장하면서 암치료의 새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항암제 개발연구와 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br/> <br/>표적항암제를 이용한 분자표적치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암환자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물을 선별해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구현하는 것을 맞춤의학이라고 한다. 즉, 기존 의학이 모든 환자를 ‘평균인간’의 개념에서 접근해온 것과 달리 맞춤의학에서는 개별 환자를 각기 서로 다른 생명체로 간주하며 ‘개별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암이더라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매우 상이해 약물반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의학의 적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임상유전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임상유전체 연구란 환자의 암 부위로부터 떼어낸 일부 암 조직의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 이를 분자표적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 뇌공학그런데 이러한 접근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암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는 대부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또는 100여개에 이르므로 이 가운데 특정 돌연변이만을 타깃으로 삼는 것의 한계이다. 또한 주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타깃으로 한 치료의 경우 실제 암세포 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와 신호전달 네크워크 상의 복잡한 분자 상호작용에 의한 우회경로를 통해 보상기작이 일어나 치료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유전자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포 내 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세포 내 질서가 어떻게 교란됐는지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한 뒤 보상기작을 회피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치료타깃을 선정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생화학자인 루돌프 쇤하이머는 그의 선구적인 실험을 통해 생명이 단순한 분자기계가 아니며 구성요소의 다이내믹한 흐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세포 내 유전자는 구성요소를 생성하기 위한 주형일 뿐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찾아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분자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러한 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가 생명현상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탐구하는 시스템생물학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즉, 암환자의 조직으로부터 획득한 다수 유전자의 변이 정보를 분자네트워크에 반영해 환자별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해내고 네트워크 다이내믹스의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함으로써 환자별 최적의 표적치료 타깃을 찾아내 이를 맞춤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br/> <br/>유전자 서열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별 유전정보를 분석해 헬스케어 및 맞춤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스템생물학은 이러한 신산업의 창출에 있어서도 기존의 선형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의 한계를 넘어 고도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이오메디컬 의료정보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정보기술(IT)과 바이오가 융합해 맞춤의학을 구현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 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3.txt

제목: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담배 피울겁니까?  
날짜: 2016051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105229327  
본문: 4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다 편도선암 수술을 받은 잉글랜드의 50대 남성이 길이 20cm에 달하는 흉터 사진을 공개했다. <br/> <br/>흡연이 얼마나 위험한가 경고하기 위해서다. ‘담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수백번 듣는 것보다 그의 사진을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br/> <br/>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잉글랜드 볼턴에 사는 미키 브래디(51)가 최근 편도선암 수술을 받았다. 열네 살 때 처음 입에 담배를 문 미키의 종착지는 수술대였다. <br/> <br/>초기에 암세포를 발견한 덕분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미키는 앞으로 6주간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를 받아야 한다. <br/> <br/>수술이 끝난 뒤, 미키는 흡연의 무서움을 알리려 흉터 사진을 공개했다. 치부를 드러낸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기 사진으로 한 명이라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br/> <br/>왼쪽 귓바퀴에서 목덜미를 휘감은 길이 20cm짜리 흉터는 담배 피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br/> <br/> <br/> <br/>미키는 “<span class='quot0'>젊었을 때는 흡연이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pan>”고 데일리메일에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당신들은 ‘저런 일이 나한테 생기겠어’라는 생각을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나도 암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볼턴 의회에서 일하는 미키는 편도선암 진단이 자신의 생활을 모조리 바꿨다고 했다. 그가 병원에서 암환자라는 말을 들은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담뱃갑을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br/> <br/>미키는 “<span class='quot0'>흡연자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담배를 피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하고 싶었다</span>”고 밝혔다. “<span class='quot1'>한 명이라도 담배를 끊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span>”이라고 한 그는 “<span class='quot1'>초기에 암세포를 발견해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4.txt

제목: 1심에 이어 2심도 "의료과실 증명못하면 의사 책임 못 물어"  
날짜: 2016051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8101119126  
본문: 의료과실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br/> <br/>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료사고로 암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 유무가 검토돼야 한다"며 "환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호전증상을 보였고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협동진료를 의뢰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r/> <br/>이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본 이유를 밝혔다. <br/> <br/>A씨는 2011년 4월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의 구강암 수술을 보조했다. <br/> <br/>B씨는 수술 엿새 후 갑자기 출혈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다. <br/> <br/>B씨의 회복치료를 담당한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5.txt

제목: 미국, 60대 남성에 첫 성기 이식수술  
날짜: 2016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7201700036  
본문: 생식기 암에 걸려 성기를 절단했던 60대 남성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기 이식수술을 받았다. <br/> <br/>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은행의 자금 운반원으로 일하는 토머스 매닝(64)이 지난 8∼9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15시간에 걸쳐 성기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br/> <br/>매닝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기분이 아주 좋고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시 일하고 싶고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span>”며 활짝 웃었다. 그는 “<span class='quot0'>수술 전 내 삶은 건강할 때의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5%까지 올라왔다</span>”고 말했다. <br/> <br/>수술팀을 이끈 성형외과 전문의 커티스 세트룰로는 “미지의 영역에 접근하는 수술이었다”며 “수술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닝은 몇주 이내에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고, 몇개월 안에는 성 기능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성기 이식수술을 받은 토머스 매닝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br/>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제공이번 수술은 심각하게 골반을 다친 참전군인과 암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소 5만달러(약 5887만원)에서 최대 7만5000달러로 추정되는 수술비용은 병원 측이 부담한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이번 수술을 3년 동안 준비했고, 10여명의 성형외과 의사와 3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병원은 수술대상을 참전군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 <br/>전 세계에서 성기 이식수술은 2건뿐이었고, 미국이 세번째다. 2006년 중국에서의 수술은 실패했고,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술받은 남성은 수술 이후에 아빠가 됐다. 미국의 성기 이식 프로그램은 참전군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식기가 손상된 젊은 군인의 자살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01∼2013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 중 1367명이 생식기 관련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br/> <br/>정재영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6.txt

제목: 수지상세포, 동맥경화 진행 억제 역할 밝혀내  
날짜: 2016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5211602788  
본문: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pDC)’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잡아먹고 분해한 뒤 임파절의 T-세포에 침입균 항원이나 암항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면역세포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정철호(사진) 캐나다 맥길대 교수팀과 이화여대, 한양대  공동연구팀이 동맥경화를 수지상세포가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맥경화는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 조직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과 또 다른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가 동맥경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br/> <br/>앞서 정철호 교수는 2011년도 노벨생리의학상수상자인 고(故)랄프스타인먼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계 치초로 수지상세포를 발견하는 등 수지상세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7.txt

제목: 헌책방서 찾은 그들의 ‘특별한 책’  
날짜: 2016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4020804325  
본문: 윤성근 지음/모요사/1만5000원探書(탐서)의 즐거움/윤성근 지음/모요사/1만5000원 <br/> <br/>누구에게나 꽁꽁 숨기고 싶은 과거는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이들도 많다. 그런 옛날을 파헤치는 것, 당사자야 황망한 일이겠지만 적잖이 재미난 일이다. 이름 석자만으로 독자를 황홀케 하는 작가라면 탐색의 즐거움이 더하겠다. <br/> <br/>‘探書(탐서)의 즐거움’의 즐거움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저자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중에 의미가 깊은 절판본들을 소개한 책이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절판본이기에 작가의 숨기고 싶은 과거, 지금과는 많이 다른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br/> <br/> ① 박완서는 자신의 전집을 기획하는 출판사에 1979년 작인 ‘욕망의 응달’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 박완서의 평소 모습과 달리 막장의 줄거리에 스릴러, 추리소설을 섞어 놓은 듯한 작품이다. <br/>② 1980년대 학생운동을 무협지 형식으로 소설화한 김영하의 ‘무협 학생운동’. 이제는 희귀한 책이 된 이 소설이 김영하의 첫 번째 작품이다. <br/>③ ‘뜬 세상에 살기에’는 ‘무진기행’의 소설가 김승옥이 절필 선언을 하기 전에 쓴 유일한 수필집이다. <br/>이유진 제공주인공 ‘자명’은 미혼모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자명 앞에 나타난 남자 ‘민우’. 상당한 재력을 갖춘 민우에게 아이와 자신의 운명을 맡긴 자명은 민우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span class='quot0'>멀미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괴한 롤러코스터 같은 삶</span>”을 경험하게 된다. 암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9명의 식구, 아버지를 수발하는 자명보다 두 살 어린 후처가 저마다의 욕망을 감추고 민우의 집에서 살아간다. 어느 날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진상을 파헤치려는 자명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한다. 막장의 줄거리에다 스릴러와 추리소설을 섞어 놓은 듯한 책의 제목은 ‘욕망의 응달’. 1979년 수문서관에서 초판을 낸 소설의 작가는 무려 박완서다. 세상을 떠나기 전 한 출판사에서 전집을 기획했는데 박완서는 자신의 수많은 작품 중 유독 이 작품 하나만 찍어 빼 달라고 요구했다. <br/> <br/>고은의 1974년 작인 ‘일식’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주인공 ‘최현식’은 정신분열증에 걸린 15살 소녀 ‘세희’와 세희의 어머니 ‘한신옥’ 사이를 오가며 위태로운 사랑을 나눈다. “<span class='quot1'>두 사람 모두를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고뇌</span>”에 시달리던 중 세희는 임신을 하고 최현식은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다. 한신옥도 어느 날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고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제목이 빠져 있고 “어디에서도 참고할 만한 (비평) 자료를 만날 수 없었다”는 이 작품을 저자는 ‘(고은의) 대표적인 망작(亡作·망한 작품)’으로 꼽았다. <br/> <br/>소설가 김영하는 ‘무협 학생운동’을 등단하기 전인 석사과정 중에 썼다. 소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 후 1987년 6·29선언까지의 학생운동을 무협물의 형식으로 그려냈다. ‘박통’의 죽음 이후 중원 권력을 잡으려는 야심을 뽐내는 ‘독두마왕 전두’(전두환)와 ‘노갈’(노태우),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아메대왕’(아메리카)이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다. 젊은 무사(대학생) ‘류’와 ‘초아’는 중원의 평화를 위해 힘쓰지만 나중에는 이들 역시 문파가 갈려 등을 돌린다. 소설은 1992년 ‘아침’이라는 사회과학도서 전문 출판사에서 1992년에 딱 한번 출판했고, 지금은 출판사도 사라진 터라 다시 펴낼 수 없게 된 희귀한 이 책이 김영하의 “진정한 첫 번째 소설”이다. <br/> <br/>작가의 과거를 책을 통해 추적해 가는 ‘탐서’는 흥미로운 일인 동시에 독자들이 작가를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절판본은 그래서 더욱 가치를 가진다. 저자는 ‘망작’인 ‘일식’ 초판이 고은의 열렬한 팬인 아버지의 생일선물로 한 여성에게 적지 않은 가격에 팔렸던 일화를 소개하고, “<span class='quot2'>김영하 작가를 좋아하고 그가 쓴 책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무협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span>”고 적었다. <br/> <br/>독서를 즐기는 이들에게 책이라는 소재 자체는 항상 흥미롭다. 저자는 앞서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책이 좀 많습니다’ 등을 써 독자들의 이런 욕구를 영리하게 충족시켜 왔다. 오래된 책은 여러가지 매력과 사연을 소개한 ‘探書(탐서)의 즐거움’은 ‘책을 다룬 책’이 재미를 담보하는 글감임을 다시 증명한다. ‘무진기행’의 소설가 김승옥이 절필을 선언하기 전 쓴 유일한 수필집 ‘뜬 세상에 살기에’는 황석영, 최인호, 김현 등이 문단에 이름을 알린 1960년대 ‘천재들의 전성시대’를 반추하게 한다.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의 첫 시집이 출고 전 인쇄소 화재로 모두 불타버린 이야기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8.txt

제목: [단독] 황금연휴 때 암행순찰차 맹활약  
날짜: 2016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2192531290  
본문: 경찰이 고속도로상 난폭·얌체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가 지난 5∼8일 황금연휴 때 하루 평균 35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암행순찰차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에서 140건을 단속했다. 하루 20건 수준인 평소보다 75% 많은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1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도 5명 적발됐고 안전띠 미착용, 갓길 주행 등 기타가 1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휴기간 정체가 심한 편이어서 난폭운전보다는 얌체운전이 많았다</span>”고 했다. <br/> <br/>당초 암행순찰차는 주간에만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야간에도 투입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반 순찰차가 단속하면 버스 운전자가 미리 눈치를 채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암행순찰차를 야간에도 운용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대신 단속 시 안전문제 때문에 암행순찰차는 차량 블랙박스와 캠코더로 채증만 하고, 인근에 있는 일반 순찰차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동 단속을 펴기로 했다. <br/> <br/>암행순찰차는 현재 경기·충남 경찰청에 1대씩 배치돼 3월부터 운용 중인데, 이에 따른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지난달까지 두 달간 경부고속도로 무인단속기로 적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6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93건에 비해 14.5% 감소한 것이 대표적 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59.txt

제목: "암 환자 돕겠다고 머리 기른 우리 아들이 암이라니요"  
날짜: 20160512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2174432753  
본문:   <br/> <br/>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외 매체 메트로는 12일(현지 시간) 암 환자를 위해 2년간 머리를 기른 한 소년이 도리어 암 판정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br/> <br/>미국 캘리포니아의 비니 데소텔스는 5살부터 2년간 머리를 어깨 아래까지 늘어지게 길렀다. 친구들이 ‘여자아이 같다’고 놀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독한 항암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진 자기 또래의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사람들이 암과 싸우기 위해 의사에게 가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들을 돕고 싶다</span>”고 당차게 말하기도 했다. 비니의 머리카락은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한 가발 제작용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됐다. <br/> <br/>그런데 천사 같던 이 소년에게도 불행은 찾아왔다. 갑작스레 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부모는 목욕을 하던 비니의 엉덩이에 커다란 혹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했다. 비니를 데리고 곧장 응급실로 달려간 부모에게 의사는 “<span class='quot1'>엉덩뼈에 암 세포가 퍼져있다</span>”고 전했다. 그동안 알레르기 반응으로 여겼던 부은 눈도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br/> <br/>비니의 어머니는 “엉덩이, 눈 주위와 코뼈, 오른쪽 볼 주변 뼈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조차 정확한 암 종류를 진단할 수 없었다. 두 종류의 암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br/> <br/>비니는 조만간 동생이 생긴다. 비니의 어머니가 임신 중이기 때문이다. 집안 사정은 좋지 않다. 출산 준비와 비니의 병원비로 하루하루 생활비 대기도 벅찬 상태다. 앞으로 몇 달간 아이는 수도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일은 아이가 이러한 과정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것. <br/> <br/>“비니 데소텔스, 우리의 소중한 손자는 힘껏 싸우고 있다. 보통의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암과 말이다”라고 조부모는 눈물지었다. 조부모는 현재 비니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펀딩 페이지를 연 상태다. 소년의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8일 만에 애초 목표 액 15만 달러의 절반 이상인 8만 3000달러가 기부됐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0.txt

제목: 백만달러 복권에 두번 당첨된 남성, "먼저간 아내의 선물"  
날짜: 20160512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2172636322  
본문: 4년 전 100만달러(약 11억6500만원) 복권에 당첨된 남성이 즉석복권에 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고 최근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br/> <br/>행운의 주인공은 뉴욕주에서 건설 관련업을 하는 브루스 매지스트로 그는 2012년에 '익스트림 캐시' 복권에 당첨됐다. <br/> <br/>그는 첫 번째 당첨금을 암으로 3년간 투병 중이던 아내 이본느의 치료비로 모두 썼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br/> <br/>그러던 아내의 기일 날. 브루스는 다시 100만달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br/> <br/>그의 아들 닉 마이어스는 "이것은 틀림없이 어머니가 가족들을 돕기 위해 돈을 돌려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께 보내는 어머니의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br/> <br/>브루스는 “<span class='quot0'>두 번이나 1등에 당첨되는 일이 확률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span>”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br/>주 복권국은 브루스처럼 당첨될 확률은 774만5600대 1정도라고 밝혔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폭스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1.txt

제목: 악성 뇌종양 약물 내성 획득 과정 첫 규명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11204153211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 진행과정을 몸 밖에서 실험할 수 있는 3차원 종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뇌종양이 항암제 내성을 갖게 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br/> <br/>카이스트(KAIST) 바이오 및 뇌 공학과 김필남(사진) 교수팀은 11일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3차원 매트릭스에 히알루론산(HA) 등 실제 뇌종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가해 3차원 체외 뇌종양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모델에 뇌종양 세포를 이식하고 항암제 성분을 투여하는 실험을 통해 뇌종양이 약물을 극복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 확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br/> <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동물실험 대신 체외 종양 모델에서 진행할 수 있어 환자 맞춤 약물 검증 등 실질적인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2.txt

제목: [갑상선암 Q&A] 부모 진단 때 유전 가능성… 아들 8배 딸 3배 높아져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9203318028  
본문: 최근 미국 의료진은 그동안 과잉진료·수술 논란을 불러온 갑상선암의 일부 종류에 대해 ‘갑상선암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전체 갑상선암 중 10∼20%에 해당하는 ‘여포성 변형이 있는 유두암’이 일반적인 암과 같이 주변으로 전이되거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 ‘종양’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갑상선암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9일 이강우(사진) 유성선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의 도움말을 토대로 갑상선암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br/> <br/>―갑상선암의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 <br/> <br/>갑상선암은 대부분 특별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 모른 채 넘어가는 일이 많다. 하지만 목 아래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암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결절이 커져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거나 음식물을 삼키는 게 힘들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 <br/> <br/>―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br/> <br/>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을 경우 갑상선암의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20%, 가장 흔한 유두암의 약 5%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가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진단받은 경우 자녀에게서 갑상선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아들은 7.8배, 딸은 2.8배 증가한다. <br/> <br/>―갑상선암 진단과 치료는? <br/> <br/>갑상선 근처 결절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를 보며 통증의 유무를 확인한다. 목 주위에 커진 림프절이 있는지,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검사한다. 이후 혈액으로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해 결절이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성 결절인지 판단한다. ‘미세침흡인세포검사’도 중요하다. 결절이 악성결절(암)로 의심될 때 시행한다.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는 주사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도 필요없고 통증도 덜하며 부작용도 적다. 갑상선암으로 판명되면 수술이나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에 갑상선호르몬 치료를 한다. 대부분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도 좋으므로 전이가 됐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br/> <br/>―갑상선암 예방은? <br/> <br/>조기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갑상선암 예방을 위해 다시마, 김, 미역 등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의 십자화과 채소들과 항산화물질이 풍분한 일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갑상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3.txt

제목: 아프니까 노년이다… 10명 중 9명 만성질환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9203317583  
본문: 지난 8일 어버이날, 고향에 다녀온 직장인 A(55)씨는 나이가 들수록 수척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여든살이 넘은 A씨의 어머니는 15년째 앓아온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분주하게 집안일을 했다. A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용돈만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만 같아 이번 해에는 건강검진을 권유할 계획이다. <br/> <br/>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건강실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은 고혈압(56.7%), 골관절염 및 류머티스관절염(33.4%), 당뇨(22.6%) 순이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81%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 <br/> <br/> 전문가들은 고령으로 인한 고혈압, 류머티스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일수록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는 필수라고 조언한다. <br/>세계일보 <br/>자료사진◆식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뇌졸중 예방 효과 <br/> <br/>65세 노인 중 절반 이상(56.7%)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질병이다. 또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심장학회는 식습관이 혈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인자라고 보고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건강관리의 핵심인 동시에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라는 의미다. <br/> <br/>미국심장학회는 과다한 염분과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높이는 만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꼭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륨과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br/> <br/>이와 함께 채소와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주 내용으로 한 ‘대시요법(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을 추천하고 있다. <br/> <br/>류머티스관절염 역시 50∼75세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3∼4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 자가면역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진 류머티스관절염은 일반적인 관절염과는 원인이 달라 접근방법 역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류머티스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아야 한다. <br/> <br/>관절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날 때는 얼음주머니 등으로 관절 부위를 마사지해 주고 아픈 관절을 쉬게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초기 대응에 불과하다. <br/> <br/>조기에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면 관절이 손상, 변형돼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에게서 초기증상이 나타난다면 악화하기 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  <br/> <br/>◆“자식에게 짐 되기 싫다”…스스로 행복 찾는 노인들 <br/> <br/>노인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중 상당수는 예전과 달리 치료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거동이 힘든 상태가 돼 자식들을 힘들게 하느니 일찌감치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찾겠다는 것이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26만3339명이었으며 5년 전에 비해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2016명에서 3931명으로 2000명 가까이 늘었다.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진 상태인 ‘퇴행성 관절염’에 시달리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br/> <br/>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br/> <br/>과거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10여년 정도라 몇 년 안에 교체수술을 받아야만 해 잦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술 후 고령으로 인한 체력저하와 감염문제, 합병증 등이 우려돼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수술을 꺼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생체재료가 개발됐다. <br/> <br/>김강일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 80대 노인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해도 수술 합병증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수술에 나서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4.txt

제목: 대한법학교수회장 "가난한 내 제자들, 로스쿨 못 간다"  
날짜: 20160509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9141645803  
본문:   <br/> <br/> 대한법학교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전격 철수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대 또는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br/> <br/>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위 사진 가운데) 인천대 교수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span class='quot0'>5월 6일로 예정되었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2차 회의가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무산되었고, 새 회의일로 정해진 5월 16일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불과 사흘 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아무런 실익이 없어진 만큼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해 선임된 자문위원 2인은 위원직에서 사퇴한다</span>”고 밝혔다. <br/> <br/>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당분간 존치 입장을 밝히며 혼란이 초래되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합의해 국회 법사위 산하에 설치했다. 입법·사법·행정부 대표는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측 대표와 대한법학교수회 대표도 참여해 사법시험 존폐, 법학전문대학원 개선 등 여러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임박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br/> <br/> 백 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행위가 발생한 교육기관에 단순히 경고나 주의 같은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것은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br/> <br/> 이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는 단지 그 입학 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과 성적평가, 졸업사정 등 전반에 치명적인 암의 종양처럼 퍼져 있어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폭발적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 <br/> 임기만료가 얼마 안 남은 19대 국회에는 여러 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대로 회기가 끝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된다. 백 교수는 국회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을 향해 “조속히 사시 존치법안을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5.txt

제목: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한 14가지 음식 조합  
날짜: 20160506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6100333914  
본문:   <br/> <br/>따로 먹는 것 보다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이 있다. 이 음식들은 함께 섞이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미러가 2일(현지 시간)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 14가지를 소개했다. <br/> <br/>저지방 요구르트와 연어 <br/>연어 샌드위치를 만들 때 저지방 요구르트를 첨가해보자. 지방이 많은 생선의 비타민D 덕분에 요구르트 속 칼슘이 더 잘 흡수되어 뼈가 건강해진다. 또한, 비타민D와 칼슘의 섭취는 월경전증후군 위험을 40%까지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br/> <br/> <br/>계란과 샐러드 <br/>미국 퍼듀대학 연구 결과 계란을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채소 속 카로티노이드가 더 잘 흡수된다. 카로티노이드는 심장과 눈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 계란 속 지방이 이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br/> <br/>브로콜리와 토마토소스 <br/>브로콜리와 토마토소스 모두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연구 결과 이 둘을 함께 먹었을 때 전립선 종양 더 효과적으로 축소됐다. 각 음식에 있는 활성 물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br/> <br/>와인과 생선 <br/>이탈리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와인 한잔을 마신 여성은 혈액 속 건강한 오메가3 지방 수치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높았다. 와인 속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생선의 좋은 지방 흡수를 도왔기 때문. 생선과 와인을 함께 마시기 어렵다면, 생선을 재울 때 와인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br/> <br/>컬리플라워와 치킨 <br/>치킨 속 필수 미네랄 셀레늄과 컬리플라워 속 항암 물질 설포라판을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13배까지 올라간다.  <br/> <br/>고추와 케일 <br/>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이 더 잘 흡수된다. 케일과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다. 이러한 식재료를 먹을 때 고추를 더해보자. 프라이팬에 녹색 채소와 마늘, 고추 등을 함께 볶아 먹으면 보양식이 따로 없다. <br/> <br/>올리브유와 토마토 <br/>비타민과 섬유질의 보고인 토마토는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리코펜 성분도 풍부하다. 특히 올리브유 등 몸에 좋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간다. 올리브유로 살짝 볶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택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br/> <br/>아보카도와 양상추 <br/>아보카도를 양상추, 로메인상추 등 녹색 채소와 먹을 것. 이러한 채소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는데 불포화지방을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간다. 맛까지 생각한다면 아보카도 몇 조각이 제격이다. <br/> <br/>흑후추와 강황 <br/>카레 요리의 원료인 노란색 향신료 강황은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는 소염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암,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데 핵심 물질인 커큐민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흑후추 속 피페린이 커큐민 흡수를 돕는다. 강황을 뿌릴 때 흑후추도 함께 뿌리자. <br/> <br/>시금치와 병아리콩 <br/>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다. 마그네슘은 뼈, 근육, 심장 건강 등에 좋을뿐더러 당뇨병의 진행 속도도 늦춰준다. 참고로 비타민B6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비타민B6 함량이 높은 병아리콩을 함께 먹자. <br/> <br/>식초와 쌀 <br/>백미는 GI 지수가 높다. 급격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고, 빨리 배를 꺼지게 한다. 쌀에 식초를 섞으면 GI 지수가 낮아진다. <br/> <br/> <br/>레몬과 녹차 <br/>녹차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다. 녹차에 레몬즙을 한두 숟가락 넣으면 카테킨 성분의 안정성이 올라가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간다. 홍차도 마찬가지. <br/> <br/>바나나와 요구르트 <br/>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속 좋은 박테리아는 소화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박테리아는 프럭토올리고당이라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는다. 프럭토올리고당이 풍부한 바나나가 박테리아의 좋은 먹잇감이다. 얇게 썬 바나나를 요구르트 위에 올려먹자. <br/> <br/>사과와 라즈베리 <br/>라즈베리 속 항산화 물질인 엘라그산은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의 항암 작용을 강화한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6.txt

제목: 중국 다단계 회사, BMW 경품 등 허위과장 광고  
날짜: 20160504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4135014219  
본문: 중국의 유명 다단계 회사가 한국법인을 설립해 판매자들을 끌어모아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r/> <br/>4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계 다단계 회사인 L사 국내 법인 대표 A(34·중국인)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 외에 지사장과 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L사가 제조한 각종 생활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방문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판매한 물건은 물병, 냄비, 생리대 등 각종 공산품부터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복용시 고혈압이나 백내장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했다. <br/> <br/>판매책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다단계판매’로 국내에서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br/> <br/>물품 구매 금액에 따라 금·은·동으로 등급을 나눠 실제로 2억원까지 수당을 챙겨간 판매원도 있었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킨텍스에서 BMW 차량 6대를 경품으로 내거는 사내 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원 관리에 열을 올렸다. <br/> <br/>판매원 일부는 이 회사가 중국에서 크고 유명하다는 사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불법 법인인 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불황 속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다단계 회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7.txt

제목: 삶의 보람·자신의 사명… 알고 살아야 잘 사는 삶  
날짜: 2016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3213656787  
본문: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br/> <br/>삶의 보람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지요.” <br/> <br/>수덕사 방장 설정(사진) 스님의 자문자답이다. 작은 울림들이 다가온다. 설정 스님의 법문을 담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최근 출간됐다. 불교 전문 박원자 작가가 글을 썼다. <br/> <br/>스님은 열네 살이던 1954년, 부친의 생신불공을 위해 수덕사에 들렀다가 그대로 출가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출가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다. 설정은 주로 수덕사와 정혜사에서 도를 닦았다. 전강 스님, 송담 스님, 탄성 스님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과 교류했다. 정신적 스승 금봉 스님도 만났다. 하도 염불 소리가 좋아 금봉 스님께 “<span class='quot0'>저 아이가 과거에도 중이었구나</span>”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생전의 법정 스님도 ‘설정 스님의 축원이 최고의 축원이다’고 했다. 40대 초반 수덕사 주지 시절 녹음한 설정의 새벽 도량석은 지금까지도 ‘금세기 최고의 도량석’으로 스님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br/> <br/>1977년 서울대 재학 중 벽초 스님(수덕사 2대 방장)의 명으로 수덕사에 돌아왔으나 절은 풍비박산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사기꾼들이 몰려와 문중의 땅은 다 팔려 나갔고, 일주문 앞에까지 가게들이 들어와 있었다. 재판 열 개를 다 이겨 원금을 주고 팔린 땅을 되찾자, 독일 병정보다 더 독한 ‘중’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췌장암으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였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에 집중해 살아났다. 이 경험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끊어낼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수행자 본연의 삶을 선택했고 마침내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 <br/> <br/>설정은 젊은이들에게 무전여행을, 나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를 권한다. <br/> <br/>“생을 놓아 버리려고 생각한 놈이 배가 고픈 거예요. 두 달 동안 목포에서 해남까지 이 부락 저 부락으로 다니면서 나락을 줍는 일도 거들어 주고 밥을 얻어먹었어요. (…) 밥이며 잠자리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절박하고 극한 상황에 나를 몰아넣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덜 치열했고 덜 하심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어렸을 때 절에 와서 관념적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br/> <br/>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8.txt

제목: 유방암 발병 관여하는 주요 유전자 93개 규명  
날짜: 2016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3061108665  
본문: 한국 연구진이 주도한 다국적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들의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하는 데 성공해 유방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한양대 의대 공구(사진) 교수팀이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0명의 전장 유전체(DNA 전체 염기서열)를 분석해 과학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암환자의 유방암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전장유전체를 해독해 어떤 유전 변이들이 암 발병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다.  <br/> <br/>공 교수 연구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래턴 박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12개국 48개 연구팀이 참여했다.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과 관련한 주요 유전자 93개를 확인했고 암을 유발하는 1628개 유전적 변이를 밝혀냈다. 93개 주요 유전자 중에는 특히 10개의 유전자에 유전적 변이의 62%가량이 집중되고 있었다. 공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발암기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준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유방암에 대한 발암 기전과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돼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데 활용 가치가 높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69.txt

제목: 탄산음료 과다 섭취 땐 비만·당뇨·심장병 발생 높아져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502202101406  
본문: “치킨에는 역시 콜라!” <br/> <br/>기름기가 많은 굽거나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탄산음료가 필수처럼 여겨진다. 탄산음료 없이 치킨이나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다. 순간적인 갈증 해소에도 탄산음료만한 것이 없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서 달고 톡 쏘는 탄산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비만과 당뇨 등은 물론 심장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소 유승호·장유수 교수팀은 탄산음료를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신 사람들에게서 심장병인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7% 높아진 사실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이는 암과 심장질환, 당뇨병이 없는 무증상 성인 남녀 2만2000여명(평균 40세)을 대상으로 ‘관상동맥 석회화 전산화 단층촬영(MDCT)를 통해 밝혀진 결과다. <br/> <br/>일주일에 200㎖ 탄산음료를 5잔 이상 마시는 그룹은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7%, 관상동맥석회 수치는 7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관상동맥질환은 혈관에 쌓인 이물질이 파열되면서 혈관을 순식간에 막아버린 상태를 말한다. 혈관에 불필요한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힘들다.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협심증이 생기고, 더욱 악화하면 심근경색이 된다. <br/> <br/>연구팀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설탕, 액상과당이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각종 염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br/> <br/>유승호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습관, 고지혈증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자체가 조기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탄산음료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과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고, 복부비만 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저널(American Heart Journal)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0.txt

제목: 고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날짜: 2016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30032806568  
본문: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디오션리조트는 고객 행복가치를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br/> <br/> 회사 창립 원년부터 경영혁신기법인 ‘6시그마’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 등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해 최적의 개선안을 실천·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제안제도 시스템’을 도입해 현업에 접목하고 이러한 제안들을 서비스 경영 관리지표에 활용하고 있다. <br/> <br/> 디오션리조트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인지 에이전트’를 구성해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서비스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매년 5개 부문 31개 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br/> <br/> 암행평가를 통해 우수사례와 개선할 사례를 업무에 피드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6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제안제도를 현업에 접목해 서비스 경영관리 지표로 활용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br/> <br/> 디오션리조트는 특급호텔(137실)과 콘도미니엄(128실)에 1500명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갖춰 국제회의와 심포지엄, 기업 행사, 결혼식, 가족연회 등 최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1.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암 극복 환자 일상 복귀에 사회가 관심 가져야”  
날짜: 2016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9214227415  
본문: “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자진해서 요리를 하곤 해요. 요리하면서 식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식탁도 아일랜드형으로 바꿨는데요. 아내와 두 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저녁 식탁은 노동이 아니라 ‘펀(fun)’한 일상이죠.” <br/> <br/>빳빳하게 잘 다려진 가운을 걸쳐 입고 나온 예리한 첫인상과는 다른 따뜻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요리’, ‘가정’, ‘행복’과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이다. 중증의 암 환자를 주로 돌보는 의사의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왜 이토록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29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행정동에서 이강현(62) 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자체보다 극복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대구 출신의 이 원장은 1980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비뇨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군 전역 이후 1987년부터 원자력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지내다 이후 국립암센터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센터장, 부속병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4년 국립암센터 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몸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적은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었지만 굳이 ‘암’ 분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원장은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도 “<span class='quot0'>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span>”고 설명했다. 이런 이 원장의 요즘 고민은 암을 극복한 이후 암 환자들의 삶이다.  <br/> <br/>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29일 “<span class='quot1'>암은 이제 거의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주변 사람과 지역 사회가 합심해 암을 극복한 환자의 자립을 위해 힘써야 할 때</span>”라고 말했다. <br/>서상배 선임기자과거에 ‘암’은 특별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환자들이 크게 절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늘어난 이 시점 우리나라 남성 중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암에 맞닥뜨릴 정도로 암은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를 기록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암 치료 이후 5년 이상 생존한다는 뜻이죠. 10년 생존율도 절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이제 암 환자 중 2명 중 1명은 암을 극복할 만큼 일상적인 질병이 됐어요.” <br/> <br/>암이 흔해진 만큼 암 치료 기술 역시 놀랄 만큼 발전했다. 췌장암, 담도암 등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기진단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137만명 정도의 암 경험자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과 암 치료가 끝난 사람의 수를 합한 것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이제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이를 위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방암, 소아암 환자 등이 겪고 있는 경력·교육 기회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음악, 미술, 웃음치료 등 다양한 심리 치료 과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암 환자의 사회 복귀와 일상 적응을 돕는 ‘지지 치료’의 일환이다. “암 환자들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된 상황입니다. 암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이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할 ‘용기’를 줄 겁니다.” <br/> <br/>‘종양은행’ 역시 종합적인 암 연구를 위한 연구 시설이다.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암 조직을 전부 보관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종양은행을 국가 암종양은행으로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종양 은행 기반이 갖춰지면 국립암센터 연구자뿐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른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암을 관리하고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또 암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국립암센터가 전국 각 지역 암센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갖고 있는 정보를 연계해 내외부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r/> <br/>점점 완치율이 높아지고, 연구 또한 활발하지만 이 원장은 “<span class='quot1'>암은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span>”며 예방을 당부했다. <br/> <br/>“암 발병이 흔해졌다지만 예방만큼 좋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만 유지해도 우리나라 암 발병률의 3∼4%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암 예방에 노력하고, 조기 진단도 병행한다면 더 이상 암은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2.txt

제목: 공동체 해치고 개인 욕망까지 조종… 마트의 해악 해부  
날짜: 2016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9204116068  
본문: 신승철 지음/위즈덤하우스/1만5000원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신승철 지음/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br/> <br/>아빠는 아이를 태운 카트를 밀고, 엄마는 장을 본다. 한끼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 쟁여두면 뿌듯하기도 하다.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풍경 중 하나다. 물론 ‘마트 유람’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오긴 해도 잔뜩 골이 난 채 혼자 앉아 있는 남편들이 있다. 저자도 그런 남자 중 하나였다. “<span class='quot0'>마트에 갈 때마다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span>” 스스로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이 책이다. <br/>동네 골목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마트에 대한 비판이 새로울 건 없지만 “마트는 사회와 공동체의 해롭고 암적인 존재”라는 저자의 결론은 사뭇 충격적이다. 저자는 “<span class='quot1'>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사람들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든다.…마트가 생겼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강퍅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말과 같다</span>”고 주장한다. <br/> <br/>마트에서 손쉽게 완성되는 소비 만능주의는 저자의 논거 중 하나다. <br/> <br/>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과도한 소비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에게 마트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삶의 변화란 공동체, 사회와 맺은 관계의 변화 속에서 가능한 일인데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마트에서의 소비에 골몰한다. “<span class='quot0'>소비주의는 관계의 소원함을 진정시켜주는 안정제나 마약과 같은 것</span>”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또 이런 소비는 본인의 주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접한 메시지에 따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착각한” 것이 대부분이다. “<span class='quot0'>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span>”라는 유명한 명제는 “<span class='quot0'>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span>”로 바뀌어야 할지 모른다. <br/> <br/>마트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기제 중의 하나가 “마트는 싸다”라는 인식이다. 저자는 마트의 싼 가격이 서민의 가난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추가 비용 부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마트에서 싸다라는 인식은…서민경제의 하나의 축인 중소기업이 희생한 대가로 만들어진 환상의 구조물”이라며 “마트가 싸게 팔면 팔수록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br/> <br/>강구열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3.txt

제목: [이덕환의과학방담] ‘보이지 않는 적’ 독성물질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8205534826  
본문: 세상이 온통 유해물질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인다. 특히 무책임한 기업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유해물질이 문제라고 한다. 사태는 심각하다. 인체에 안전하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말을 믿었던 순진한 소비자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한다던 소금과 설탕도 독약이라고 한다. 무엇이 정말 유해물질인지를 알 수 없는 소비자의 입장이 정말 난처하다. <br/> <br/>유해물질은 우리의 생리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황산·염산·질산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기도 하고, 일산화탄소처럼 적혈구에 달라붙어 혈액의 산소의 운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기도 한다. 테트로도톡신(복어 독)이나 보툴리눔처럼 신경계에 작용해서 감각과 운동 기능을 망가뜨리는 유해물질도 있고, 세포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를 변형·파괴시켜 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도 있다. <br/> <br/>유해물질의 종류는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다양하다. 사실 유해물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물질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흡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체의 생리작용에 꼭 필요한 소금이나 설탕(탄수화물)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r/> <br/>과다 노출에 의해 순간적·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독성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낮은 농도의 저독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렵다. 만성 독성의 피해가 특정 질병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낮다.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 의한 1차 질병이 다양한 2차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br/> <br/>동물실험이 유해물질의 독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인간과 비슷한 생리구조를 가진 실험동물에서 확인된 결과가 인체 독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동물실험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생리구조를 가진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노출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일도 쉽지 않다. 유해물질의 독성이 모든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br/> <br/>유해물질의 인체 독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실험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함부로 용납할 수 없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의약품 개발의 경우에만 철저한 제도적 감시 속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br/> <br/>결국 저독성 유해물질의 장기 노출에 의한 만성 독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학(疫學)조사뿐이다. 객관적으로 노출 사실이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해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물론 역학조사의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독성의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br/> <br/>이덕환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4.txt

제목: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 치과의사 이긍호씨 선정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8201504659  
본문: ‘보통 사람’ 7인이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 모범이 됐다. 코오롱그룹 오운(五雲)문화재단은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우정(牛汀)선행상 시상식에서 치과의사 이긍호씨를 비롯해 7인을 시상했다. 2001년 만들어진 이 상은 우리 사회 모범이 되는 선행·미담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격려해오고 있다. <br/> <br/>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운문화재단 우정선행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과 수상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손숙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목영준 김&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 정목 정각사 주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박대성 특별상 수상자. 앞줄 왼쪽부터 유귀녀 장려상 수상자, 손정자·이금자 본상 수상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이긍호 대상 수상자, 김영림 장려상 수상자, 박섭묵 특별상 수상자. <br/>코오롱그룹 제공올해 대상을 받은 이씨는 장애인 치과에 대한 이론조차 없던 90년대부터 장애인 치과의료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 온 선구자다. 본상은 20년 넘게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해온 손정자씨와 신장 102cm의 선천적 왜소증을 겪으면서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종이컵 21.1톤, 약 633만개를 모아 장학금을 기부해 온 이금자씨에게 수여됐다. 장려상 수상자는 17년간 소외 어르신들과 아이들,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해온 김영림씨와 1985년부터 전화상담 봉사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의 친구가 돼준 ‘대구생명의전화’ 상담봉사자 유귀녀씨가 선정됐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5.txt

제목: 미세먼지·황사에 고통받는 코와 편도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8200450267  
본문: 미세먼지와 황사가 연일 기승이다. 되도록 외출을 줄이고, 밖에 나가게 되면 마스크까지 착용해 보지만 다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는 간질간질하고 목구멍은 건조해 마른 기침이 나온다.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 코와 편도는 건강한 상태일까. 29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생명의 숨길’로 불리는 코와 편도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자주 코피가 나요.” 54세의 문옥엽씨는 얼마 전 심한 감기를 앓았다. 이후 잦은 코막힘과 코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문씨의 코는 종양으로 빈틈없이 막혀 있는 상태. 결국 문씨는 조직검사까지 받게 됐다. 그 결과 코 안에 가득 찬 종양의 실체가 악성종양, 즉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낙담했다.  <br/> <br/> 29일 오후 EBS1 ‘명의’에서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괴로운 우리의 코와 편도 건강에 대해 다룬다. <br/>EBS 제공코막힘, 코피 등 가볍고 단순한 증상이 전부인 코 안의 암. 게다가 이런 증상조차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곤 한다. 문씨는 ‘통증이라도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병원을 찾지 않았을까’라며 진작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br/> <br/>56세의 최양선씨는 편도암으로 병원을 찾았다. 편도는 목 안쪽에 위치해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이 편도에 생기는 암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최씨 또한 편도암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으나 재발했고, 혀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황이다. 절개해야 하는 부위가 넓은 만큼 팔쪽 조직을 이용해 재건까지 해야 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br/> <br/>편도암을 비롯한 두경부암의 권위자인 이비인후과 김민식 교수는 코와 편도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봐오고 있다. 단순 염증부터 코와 편도에 생긴 암으로 구강, 안구까지 병든 중증의 환자들까지 섬세하고 숙련된 수술로 치료한다. ‘과연 내 코와 편도는 건강한 것일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김민식 교수와 함께 풀어본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6.txt

제목: [김기자의 소셜톡톡] 술'독(毒)'에 빠진 당신께 바칩니다  
날짜: 201604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4150619219  
본문: 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국 대비 비교적 술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회식 등 저녁 자리에 참석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요. 물론 술 한잔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알코올은 중독성이 그 어떤 음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음주문화는 이미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만한 수준인데요. 술에 관대한 사회풍토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r/>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음주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암 예방 10가지 수칙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br/> <br/>최근 복지부는 음주 관련 기준을 높이고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암 예방 수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br/> <br/>이는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 △유방암 5% △간암 8% △대장암 7% 늘어난다는 논문이 나왔다. <br/> <br/>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의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br/> <br/>음주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요인이다. 유럽연합(EU)은 기존에는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예방접종 대상을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br/> <br/>복지부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기존 '암 예방 수칙' 중 일부를 개정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br/> <br/>A씨는 "술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독극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마시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좋냐"고 반문했다. <br/> <br/>B씨는 "술을 마신다고 꼭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마신다고 꼭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마시는 게 확률상 1%라도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br/> <br/>C씨는 "암은 '복불복'(福不福)인 것 같다. 걸리는 사람은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도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술과 담배 다 해도 잘 산다"며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좋은데 할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br/> <br/>D씨는 "최고의 발암물질은 스트레스"라며 "전엔 술 한 두 잔은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 하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7.txt

제목: "과부가 남편 있는 여성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다" 伊연구진  
날짜: 20160423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4150031165  
본문: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고 나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r/> <br/>이는 결혼 생활이 심장 질환과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암 생존율을 높이는 등 건강 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다. <br/> <br/>이탈리아 파도바대 연구진이 65세 이상 이탈리아 국민 1887명(남성 733명, 여성 1154명)을 상대로 4년 6개월간 연구를 한 결과 과부가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덜 우울하고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노쇠함의 정도에서 사별한 여성은 기혼 여성보다 23% 낮았다. 여성과는 달리 남성 조사에서는 사별 남성이 아내가 있는 남성보다 1.5배 더 노쇠했다. 독신남의 노쇠함 정도는 기혼 남성의 4배에 달했다. <br/> <br/>연구진은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으며 남자들은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연구를 주도한 카테리나 트레비산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정일과 건강 관리 면에서 아내의 존재가 남편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아내는 자신의 역할에서 구속 또는 좌절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여성은 남성보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더 잘 대처했으며 사별 이후 생활도 잘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1'>독신녀가 독신남보다 불안과 고립감을 덜 느끼는 반면 일 성취도는 더 높았다</span>”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저널 오브 위민스 헬스’에 실렸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8.txt

제목: [전상일의건강해] 지진 후유증 ‘질병의 재앙’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1213701916  
본문: 지구촌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 일본에 이어 에콰도르, 필리핀, 바누아투 등지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이를 언제까지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br/> <br/>지진은 지각의 진동과 균열로 인한 건물 붕괴, 지진해일, 화재, 산사태 등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총체적인 건강재앙을 유발한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면 폭풍먼지와 석면 농도가 급격히 치솟고, 석유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파괴되면 주변은 독극물로 얼룩진다. 지진 발생 지역의 사망자 중 상당수는 먼지와 독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폐질환으로 숨진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곳곳에 남아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지진의 건강피해는 지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자신의 신체적 손상이나 가족 및 지인의 사망,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하는데, 불면·악몽·공포감·실어증·절망감·분노·극단적 감정기복 등이 주요 증상이고 경련과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가 죽었어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지진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1999년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의 난민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자살률은 지진 피해와 무관했던 사람들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난민들에게 구호물자 외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br/> <br/>지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임신부다. 지진 발생 후 유산과 조산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간의 성 행태도 영향을 받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은 종족보호 본능이 발동해 성행위 빈도가 증가하거나 정반대로 성적 욕구가 사라져 성행위를 하지 않는 극단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성호르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br/> <br/>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생활여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영양 공급이 충분치 않고 운동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일본 지진 발생 후 차 안에서 지내던 한 난민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란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한 후 다리 안쪽에 혈전(피떡)이 생겨 일부 조각이 혈류를 타고 돌다가 폐에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하는 현상인데, 비행기가 아니라 몸을 활발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장시간 지내는 게 원인이다. <br/> <br/>미래의 국가 운명은 경제적 발달이나 과학기술 발전보다 자연재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력을 자연재해 대응능력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지진 예측 능력을 높이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점검해야 한다. 위기소통체계 확립도 필수사항이다. ‘우리는 지진에 준비 되었는가’ 자문할 때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79.txt

제목: 고수익 미끼 투자자 수천명 등친 신종 다단계 사기일당 구속  
날짜: 20160421  
기자: kdw7636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1132034599  
본문: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산삼제품 1300억원 어치를 판매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가 하면 중앙 유력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하고 경찰청 앞에서 수백명이 모여 경찰을 규탄하는 수법으로 수사에 압력까지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산삼업체 대표 김모(40)씨 등 임원 6명을 구속하고, 지역 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일산시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한 뒤 산삼 패키지 상품을 121만원에 구입하면 판매수당으로 1주에 8만원씩 1년간 총 38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4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8000여명으로부터 130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온 혐의다. <br/> <br/>이들은 또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의 비상장 주식 325만주(200억원)를 향후 내부거래를 통해 매입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재매입해주겠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조사결과 이들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산삼제품이 암치료나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허위 과대광고해왔다. 또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들고 전국에 28개 지역사무소를 꾸린 뒤 SNS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br/> <br/>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한 뒤 향후 베트남 다단계 사업에 진출하고 게임소사이어티 등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또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임원진 소한 시점에 맞춰 일간지에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대형광고를 게재하고, 경찰청 앞에서 수백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한 뒤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r/> <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들은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영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단계 업체가 회사의 외형을 확장시켜 의심을 피해온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0.txt

제목: 고혈압·당뇨 환자도 간편 심사로 손쉽게 가입  
날짜: 201604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20030256243  
본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간편심사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br/> <br/>한화생명의 ‘간편가입 건강보험’은 청약 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기존 10개에서 3개로 확 줄였다. 경증 질환이 있거나 오래된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 외에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받은 이력 3가지다. 고혈압, 당뇨 환자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집중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 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유방암, 직·결장암, 전립선암은 400만원, 갑상선암 등 소액암 및 경계성종양은 200만원을 보장한다.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진단자금은 각각 2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입원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정암보험료 납입면제특약’도 가능하다. 해당 갱신기간까지 특약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지속된다. <br/> <br/> 한화생명 모델이 ‘간편가입 건강보험’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당뇨 환자, 고령층도 간편심사를 거치면 가입할 수 있다. <br/>한화생명 제공이와 같은 보장을 모두 넣어 설계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40세 기준으로 월 2만원대로 매우 경제적이다. 40세, 전기납(10년 단위 갱신형, 최대 100세) 기준으로 주계약 및 암 추가보장,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수술, 입원 특약 및 보험료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는 남성 2만5637원, 여성 2만3336원이다.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1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40~70세다. <br/> <br/>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span class='quot0'>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가지 질환에 중점을 두고 만든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7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span>”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1.txt

제목: 공무원 암발병과 자살 등도 공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기로…공무수행 후유증인정  
날짜: 2016041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9132329832  
본문: 공무원의 암(癌) 발병이나 자살 같은 자해행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정신질병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다.  <br/> <br/>19일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 수행과 관련해 공뭉ㄴ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r/> <br/>그동안 산재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았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br/> <br/>우선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또는 악성 질병'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br/> <br/>규정 미비로 화재현장의 유독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관들 사이에 백혈병·혈액암 발병 사례가 나왔지만 공무원의 암은 대부분 심의에서 공상 승인을 받지 못했다. <br/> <br/>인사처는 '공무상의 재해나 정신질병을 입은 뒤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또 소방·경찰·교정 분야 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지만 입증이 곤란하고 프라이버시 등으로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신설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2.txt

제목: 무관심 먹고 자라 소리없이 울리는 경종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8211302994  
본문: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20대 여성 김모씨는 가끔씩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랫배가 살살 아픈 통증에 시달린 끝에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자궁 주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간 김씨는 ‘난소낭종(Ovarian Cystic Tumor)’ 진단을 받았다. 난소에 8㎝가 넘는 낭종이 생긴 것. 이제껏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취업 준비로 바빠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못했던 것이 병을 키운 것이다. <br/> <br/>김씨와 같이 회사 일이 바빠서, 미혼이라서 산부인과에 가길 꺼리는 젊은 여성 중에서 난소낭종을 몸 속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여성 중 절반 이상(53.2%)이 부인과 쪽 건강에 이상을 느꼈지만 이 가운데 56.9%에 달하는 여성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았다. <br/> <br/>난소낭종은 초기에 자각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아랫배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경우 낭종의 크기가 커지거나 악화했는지 병원을 방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최선이다.이대목동병원 문혜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미혼 여성은 남의 시선 때문에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고, 기혼 여성은 임신, 출산 이후 정기 검진 등에 무관심해지는 사례가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난소는 우리 몸에서 난자를 만들고 성호르몬의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난소에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가 모인 ‘난포’가 있다. 난자의 성장을 돕는 난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난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배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난소에 낭종이 생긴다. 이러한 ‘기능성 난소낭종’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다.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낭종의 존재를 모른 채 넘어가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방치하면 낭종이 커지거나 악화해 복부팽만, 소화불량, 질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br/> <br/>난소에 생기는 혹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성 난소낭종과 자궁내막종, 기형종 등의 양성 종양, 난소암인 악성종양 및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형태인 경계성 종양이 있다. <br/> <br/>난소암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병력이 있거나 비만, 바이러스 질환 감염 경험 등과 연관이 있다. 난소암이나 경계성 종양이 생기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뒤에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br/> <br/>그렇다고 난소에 생긴 혹을 모두 암으로 치부해 미리 걱정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환자의 연령, 폐경 여부, 혹의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난소낭종의 치료법이 각각 정해지기 때문이다. <br/> <br/>난소 낭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은 수주∼수개월 내에 자연히 소멸하는 일이 많다. 폐경기 여성에게 낭종이 생기면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악성으로 의심되지 않으면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br/> <br/>난소 낭종으로 수술을 받는다고 임신과 출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 더 크기를 키우면 정상 난소가 파괴될 수 있고 유착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 알맞은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일부에서는 ‘피임약이 난소낭종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무조건 믿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있다. <br/> <br/>낭종 발견 시 피임약을 처방하는 것은 낭종의 성장 여부나 소멸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이 중단되므로 배란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성 낭종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자연히 없어지는 난소낭종을 예방하려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br/> <br/>문 교수는 “<span class='quot0'>수술 흉터와 통증 등을 두려워해 수술해야 함에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통증 및 흉터, 정상 부위 손상을 최소화하는 로봇 수술 등을 선택하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3.txt

제목: 학교 이전 후 중국 중·고생 493명 암 등 중대질환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8200618479  
본문: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의 한 학교 학생 500명 정도가 주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암 등 중대질환에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br/> <br/>중국중앙TV(CCTV)와 신경보는 작년 말부터 장쑤성 창저우(常州)의 창저우외국어학교 학생 수백명이 임파선암, 백혈병 같은 악성종양과 함께 피부염, 습진, 기관지염, 혈액지표 이상, 백혈구 감소 등의 이상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학생 641명이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493명에게서 이 같은 신체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학생은 림프암과 백혈병 등 악성질병에 걸렸다. <br/> <br/>중·고교 과정 58개 학급과 함께 모두 280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을 둔 이 학교는 3억1000만위안(약 550억원)을 들여 이 부지에 새 교사를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다른 곳에서 이전해왔다. <br/> <br/>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신체이상이 새 학교 부지 근처에 있었던 화학공장의 토지·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새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룽(常隆), 창위(常宇), 화다(華達) 등 세 화학공장이 있었던 곳에서는 발암성 유해물질인 클로로벤젠이 안전 기준치의 9만4799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베이징=신동주 특파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4.txt

제목: "갑상선암 10∼20%는 암 아닌 종양"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7195940855  
본문: 과잉 진단·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갑상선암의 10∼20%가 앞으로 ‘암’이 아닌 ‘종양’으로 분류된다. <br/> <br/>미국 피츠버그의대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의뢰를 받아 7개국 병리학자·임상의사 수십 명과 구성한 위원회는 기존 갑상선암 가운데 한 가지를 암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의학협회의 종양학 학술지(JAMA Oncology)에 실었다. <br/> <br/>위원회는 그동안 ‘유두 모양 갑상선암 피포성 소포 변형’(EFVPTC)으로 규정한 병변의 명칭을 ‘유두 모양 세포핵을 지닌 비침습적 소포 모양의 갑상선 종양’(NIFTP)으로 바꿨다. 위원회를 이끈 피츠버그 의대 유리 니키포로브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으로 규정된 병명을 ‘암이 아닌 병변’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대 의학사상 최초의 일일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니키포로브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일단 암이라고 진단하는 순간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시작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예 병변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5.txt

제목: “건강 걱정은 그만…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  
날짜: 2016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6022333763  
본문: 크리스티안 구트 지음/유명미 옮김/부키/1만4800원나는 왜 늘 아픈가/크리스티안 구트 지음/유명미 옮김/부키/1만4800원 <br/> <br/>사실 몇십년 전만 해도 노인들은 그저 늙어 죽었다. 절뚝거리면서 변덕을 부리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담배파이프 옆에 갑자기 쓰러져 눈을 감았다. 가족과 친지들은 눈물로 슬퍼하고, 관을 짜서 땅에 묻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모두가 자신의 병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CT, 혈관 조영술,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몸을 샅샅이 수색할 수 있다. 이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채 눈을 감는 사람은 거의 없다. <br/> <br/>어쨌든 죽음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니 뭔가 좀 안심이 될 법도 하다. 한발 앞서 그 원인이 될 만한 싹을 미리 찾아 잘라 버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그리하여 마침내 온갖 의료기술이 동원되는 ‘예방’이 현대의학의 신조로 자리 잡았다. 의사의 손길, MRI, 로봇수술 같은 첨단기기에 대한 숭배는 종교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런데 유전자검사, 예방 등을 강조하며 건강 불안증을 조장할 경우 가장 이득 얻는 자는 누구인가. <br/> <br/>예컨대 신종 플루가 유행하는 동안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0만명 중 신종 플루에 걸린 사람은 단 300명이었다.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도 10만명 중 80명이 신종 플루에 걸렸다. 예방접종은 질병의 위험을 고작 1.4% 줄이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유엔과 각국이 대략 1조달러를 썼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br/> <br/>많은 이들은 ‘조기 암 검진’을 꼬박꼬박 받는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미리 차단하고자 운동과 식이요법을 철저히 수행한다. 미디어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건강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몸 어딘가가 조금만 쑤시거나 화끈거리기만 해도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하다 급기야 ‘건강 강박증’에 빠져든다. 질병과 노화의 원인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인간은 병과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br/> <br/>최신 통계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과식하며, 술과 담배를 달고 살면서 운동은 하지 않는 사람 1만명 중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사람은 연간 20명이었다. 이에 반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식사에 운동을 하며 파티에 가도 세 시간 내내 다이어트 콜라 한 잔으로 버티는 사람들 중 1년에 5명 이상이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절제된 생활을 유지한 그룹에서도 심장이 막히는 사람이 간혹 나온다는 사실은 무얼 얘기하는가. <br/> <br/>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신랄하게 지적한다. 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 강박증에 휩싸인 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온갖 의학적 예방 조치와 재미없는 시간에 쏟아붓는다면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아닌가. <br/> <br/>저자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누리는 것이 최상의 건강법이라고 충고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신경외과 개업의였던 저자는 지금 의학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건강강박증에 대한 갖가지 사례와 다양한 해결책이 나온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6.txt

제목: ‘천사 수녀’ 40년 벗 한센인과 10년 만에 재회  
날짜: 2016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5203019634  
본문: “<span class='quot0'>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span>” <br/> <br/>전남 고흥 소록도병원 ‘할매수녀’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지 10년 만에 소록도를 찾았다. <br/> <br/>15일 전남 고흥군과 소록도성당에 따르면 한센인 전문치료시설인 소록도병원에서 40여년 동안 희생정신 하나로 환자들을 돌보다 귀국한 수녀 마리안느(82)가 방한했다. 마리안느 수녀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초대됐다. 소록도에 머물면서 한센인 환자들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둘러보는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한다.  <br/> <br/>10년만에 소록도병원을 찾은 마리안느 수녀(왼쪽)가 15일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으로부터 환영 꽃바구니를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br/>소록도성당 제공소록도 한센인들로부터 ‘할매수녀’로 불리는 외국인은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81) 수녀 등 2명이다. 마가렛 수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에 마리안느 수녀만 소록도를 찾았다. 마리안느 수녀도 최근까지 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많이 호전됐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span class='quot1'>10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한 달 먼저 소록도를 찾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외부 일정을 거의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들은 1960년대 초 인스브루크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20대 때 소록도에 들어와 40여년 동안 한센인들을 보살폈다. 당시 천막에서 생활한 한센인들에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이들은 따뜻하게 다가가 치료와 봉사를 했다. 평생을 소록도에 바친 이들은 70대에 이른 2005년 11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편지를 남기고 훌쩍 떠나 안타까움을 줬다. <br/> <br/>소록도성당과 고흥군 등은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소록도에서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리안느 수녀를 소록도에 초청했다. 소록도성당과 고흥군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즈음해 노벨상 후보 추천 등 할매수녀의 희생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br/> <br/>고흥=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7.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암 환자 아버지에게 젖 먹인 딸…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날짜: 201604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5093248913  
본문: 골수종암과 전립선암 두 가지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를 위해 직접 젖을 짜 먹인 여성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다. 비록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나 딸은 자기 젖 덕분에 부친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br/> <br/>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잉글랜드 첼트넘에 사는 아서는 68세던 2009년에 골수종암 진단을 받았다. 이는 혈액암의 일종이다. 체내 단백질 수치가 점점 높아졌고, 이는 뼈와 면역체계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br/> <br/>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서는 4년 후인 2013년에 전립선암 진단도 받았다. 동시에 두 가지 병마와 싸우는 신세가 됐다. 항암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br/> <br/>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딸 헬렌(40)은 온갖 치료방법을 수소문했다. 그러던 중, 헬렌은 아기에게 먹이는 모유가 암에 효능을 발휘한다는 글을 접했다. 젖에 포함된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었다. <br/> <br/> <br/> <br/>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고민을 거듭했던 헬렌은 아버지에게 수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어머니에게 밝혔고, 딸에게 이 같은 말을 들은 아서는 “그래, 한번 해보자”며 헬렌을 격려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br/> <br/>헬렌은 “장난으로 한 결정이 아니다”며 “<span class='quot0'>모유 효능은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미 아들에게도 젖을 먹이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느냐</span>”며 “<span class='quot0'>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젖을 드리기 시작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물론 헬렌이 직접 젖을 물리는 건 절대로 아니었다. 그는 짜낸 젖을 병에 담아 아버지에게 줬으며, 이를 마신 아서는 “맛이 괜찮구나”라고 농담까지 건넸다. 나중에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헬렌은 친구에게도 젖을 달라고 부탁했으며, 하루 2fl.oz(약 59㎖)였던 수유량은 3fl.oz(약 88㎖)까지 늘어났다. <br/> <br/>놀랍게도 아서의 단백질 수치는 증가속도가 둔해지더니 수유량을 늘린 후에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가 이 같은 결과를 냈다는 증명은 못하지만, 헬렌의 가족은 젖이 큰 영향을 줬다고 믿었다. 물론 혈액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br/> <br/> <br/> <br/>안타깝게도 아서는 지난해 부활절 무렵 사망했다. 딸의 젖을 먹기 시작한 지 1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br/> <br/>헬렌은 아버지가 예상보다 1년여를 더 살았다고 말한다. 그는 “<span class='quot1'>젖의 효능을 좀 더 빨리 알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길 바란다</span>”고 했다. 헬렌은 암환자에게 젖 먹이는 것과 같은 차선책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원하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미러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8.txt

제목: 한국교회 성장 주역 김국도 목사 은퇴  
날짜: 2016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3033710497  
본문: 한국교회 성장신화의 주역이었던 감리교의 김국도(71·사진) 목사가 지난 10일 자신이 세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임마누엘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갖고 목회인생 43년을 마무리했다. <br/> <br/>김 목사는 1973년 경기도 성남에서 4평짜리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출발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에 8개, 해외에 80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등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그는 1978년 군선교를 시작해 28개의 군인교회를 설립했으며, 1991년에는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 안찬호 선교사를 파송해 아프리카에도 23개 예배당을 봉헌하는 등 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했다. 김 목사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형제간인데, 3형제가 모두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걸었다. <br/> <br/>1980년대엔 후두암 진단을 받았고,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불편한 몸으로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왔다. <br/> <br/>김목사는 한국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한복판을 헤쳐나온 풍운아이기도 했다. 그가 논란에 봉착한 것은 이른바 ‘감리교 사태’를 몰고 온 2008년 10월 감독회장 선거 때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모든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종식됐지만, 김 목사에게는 아쉬움과 함께 뼈아픈 족쇄로 작용했다. 당시 그는 4년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해 4명의 후보 중 44.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신경하 감독회장에 이어 두 번째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br/> <br/>감신대 출신 목회자들이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그는 모교인 목원대와 협성대 출신 목회자들로 이뤄진 비주류 목사들의 대부격이었다. 따라서 교단의 대변화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김 목사는 그러나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무흠 규정’에 발목이 잡혀 결국 사회법에 의해 당선이 취소됐다. <br/> <br/>그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교회세습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임마누엘교회는 2013년부터 김 목사의 아들인 김정국 목사가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 <br/> <br/>정성수 문화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89.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비극으로 끝날 항암치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짜: 20160412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2141636036  
본문: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을 앓는 호주의 여섯 살 소년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병원이 소년의 해외 치료를 막고 있어 부모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br/> <br/>소년의 부모는 아들이 낫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싶지만, 사실상 의료당국이 치료를 강요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br/> <br/>지난 11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 사는 오쉰 키스즈코(6)는 작년 12월에 수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이는 악성 뇌종양으로 소뇌에 발생하며, 뇌척수액을 따라 전이하는 경향이 있다. 소아기에 흔히 생기는 종양으로 두통, 구토 등을 동반한다.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br/> <br/> <br/> <br/>오쉰은 프린세스 마가릿 병원에 입원했지만 소년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고 싶어 한다. 호주보다 덜 아들을 괴롭히고,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을 높일 치료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다. 오쉰의 생존 가능성은 커야 50% 정도다. 10~30%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br/> <br/>오쉰은 병원에서의 하루가 고통스럽다. 토한 피와 각종 의료장비를 보면서 공포감도 점점 짙어진다. 왼쪽 신체 일부도 마비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소년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엄마에게 애원한다.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오쉰은 주변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걷지도 못한다. <br/> <br/>오쉰의 엄마는 “아들을 보노라면 고통스럽다”며 “수모세포종은 5년 정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50~60% 정도였던 생존 가능성이 이제는 그 아래로 떨어졌다”며 “0%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br/> <br/> <br/> <br/>의료진은 뇌와 척추에 약을 주입하는 항암치료를 제안했다. 그러나 오쉰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여생 동안 아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br/> <br/>하지만 오쉰의 부모는 방법이 없었다. 해외 치료를 비롯해 아들을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모친을 암으로 잃었던 오쉰의 엄마는 결국 아들을 이곳에 맡길 수밖에 없다. <br/> <br/>“아들은 늘 깜짝깜짝 놀라며 깨요. 옷도 들춰보기 싫어해요. 안에 여러 상처가 있거든요. (치료가 싫어서) 소리치고 발길질에 할퀴는 것도 다반사죠. 아들을 진정시키려 의료진이 여섯명이나 달라붙어요. 그들은 아들을 침대에 묶고 누군가는 머리를 잡아요.” <br/> <br/>오쉰의 엄마가 설명한 아들 치료 광경이다. 병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 자녀를 다룬다면 세상 어느 부모라도 눈이 뒤집힐 게 당연하다. <br/> <br/> <br/> <br/>문제는 오쉰의 부모가 병원에서 아들만 돌볼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열두 살, 여덟 살 난 두 딸이 있다. 이들은 남동생이 아파하는 걸 보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막막하다. <br/> <br/>오쉰의 엄마는 “아픈 아들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다”며 “난 실패한 엄마다”라고 자책했다. <br/> <br/>이번 사연과 관련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프린세스 마가릿 병원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0.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중국 여성 건강 챙긴다  
날짜: 201604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2111026870  
본문:   <br/> <br/>㈜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건강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성 건강 마라톤 ‘모리파오’를 지난 10일 오전 중국 상하이 동방스포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제1회 여성 건강 마라톤 ‘모리파오’는 ㈜아모레퍼시픽이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해 16년째 전개해온 핑크리본캠페인의 국내 최대 행사인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글로벌화 한 것으로 해외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중국에서 개최된 첫 행사에도 30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여성 건강에 뜻을 함께 모았으며, 참가자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마라톤 이후 실내에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중국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펼쳐졌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1.txt

제목: 대장암 수술환자 90%가 50대 이상  
날짜: 2016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10210901366  
본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9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br/> <br/>이 평가는 2014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1만7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된다. <br/> <br/>평가 결과 환자의 연령대는 △70대 29.5% △60대 27.5% △50대 22.9% △80대 이상 9.7%로 50대 이상 환자가 89.6%를 차지했다. 중·노년층이 대장암에 취약한 것이다. <br/> <br/>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3기에 진단을 받은 환자가 36.3%로 가장 많았고, 2기 28.4%, 1기 21.2%, 4기 14.1% 순이었다. 3기와 4기에 진단을 받은 사람 비율이 50.4%에 달해 50대 이상은 건강검진 등을 통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환자는 2003년 31.5명에서 2013년 45.8명으로 증가했고,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1.5배 많았다. 대장암은 항문 입구에서 12∼15㎝에 발생한 직장암과 그 외 대장에 발생한 결장암으로 구분되는데, 결장암 환자가 73.1%로 직장암 환자(26.9%)의 두 배 이상이었다. <br/> <br/>심평원은 대장암 수술을 10건 이상 실시한 의료기관 135곳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해 이 중 114곳(84.4%)에 1등급을 부여했다. 1등급 의료기관은 서울권(35곳), 경기권(28곳), 경상권(27곳)에 많았고, 충청권(10곳), 전라권(7곳), 강원권(4곳), 제주권(3곳)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2.txt

제목: ‘포화지방 = 못된 음식’ 억울한 누명 벗다  
날짜: 2016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8201703594  
본문: 니나 타이숄스 지음/양준상, 유현진 옮김/시대의창/2만2500원지방의 역설-비만과 콜레스테롤의 주범 포화지방, 억울한 누명을 벗다/니나 타이숄스 지음/양준상, 유현진 옮김/시대의창/2만2500원 <br/> <br/>우리는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을 줄이려고 애써왔다. 포화지방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br/> <br/>그런데 심장질환,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과 지방질 음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었을까? 아니다. 분명히 밝혀진게 없음에도 그렇게 믿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영양학계 흐름을 보면 지방이 건강에 더 유용한다는 연구 성과물들은 널려 있는데도 대부분 외면한다. <br/> <br/>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낸다. 미국 예일대와 스탠퍼드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탐사보도 전문가로서 지난 9년여 동안 이에 관한 수천 건의 학술 논문, 공무원·기업 임원 인터뷰 등을 망라해 이 책을 썼다. 지난 60년간 권장된 저지방 식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제되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 오류를 지적한다. <br/> <br/>지방질 음식이 건강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한 시대는 주로 1950년대 초엽부터였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지병인 심장발작이 도졌다. 오비이락 격으로 그 무렵 심장질환자들이 폭증했다. 원인 분석에 분주했던 학자들은 식이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은 ‘식단심장가설’을 내세운다. 지방질 음식과 콜레스테롤 식단이 심장병의 원인 아니냐는 가설이다. 이는 제대로 검증되기도 전에 정설로 널리 퍼졌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커넥션이 깔려 있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가설이 확산되면서 돈 벌 궁리를 하던 자본가들은 식물성 식품 개발에 거금을 투자했다. 덩달아 미 국립보건원도 대통령의 심장질환 원인이 지방질이라는 가설 아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이 가설을 채택해 도그마로 만들면서 현재와 같은 영양학의 왜곡이 벌어졌다는 게 저자의 비판 요지다. <br/> <br/>뉴욕타임스 매거진과 시사주간 타임 등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지방질 음식이 건강의 위험 요소라는 보도를 쏟아 내면서 영양학 왜곡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r/>시대의창 제공애초 권장식단이란 그 사람의 몇 년간 식습관을 관찰하고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그럴듯하게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꾸며야 했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적당한’ 타협은 결국 많은 영양 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다. <br/> <br/>저자는 식물성 식단이 발육기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 실으려 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당시 미 소아학회 연구자들을 인터뷰해 들춰낸다. 영양학계 연구자들은 지방질 음식이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성과물들을 내도록 압력을 받곤 했다. <br/> <br/>북극 지방의 이누이트 부족은 1년 중 6~9개월은 순록만 먹고 1개월은 달걀, 나머지 기간은 연어만 먹는다. 이들은 순록 고기에서도 지방 조직을 가장 선호하고 안심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는 버렸다. 이들의 식단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80%에 이른다. 그런데도 심장질환이나 비만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케냐 북부 삼부르족 남성은 하루 2~7L의 우유를 마시고 1~2㎏의 육류를 곁들인다. 마사이족도 3~5L의 우유에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먹지만 두 부족 모두 혈압과 체중이 미국인에 비해 50%나 낮다. 이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이나 비만, 암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정면 배치된다. 인류학적,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인류는 동물이 가장 살찌는 계절에 사냥해왔고 가장 기름진 부위를 먹으려 했다. <br/> <br/>저자는 결론에서 지방질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못된 음식’이라고 단정한 배경에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의 고집, 대자본가들의 이권, 이들과 정부 관료 간의 커넥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단이 최고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됐다는 것이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포화지방의 ‘혐의’가 벗겨졌지만, 지금도 포화지방을 경원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고 타성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br/> <br/>저자는 “육류나 달걀, 치즈, 우유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그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 없이 다시 식탁에 올려야 할 때다. 지금보다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책 출간이 혹 육류나 가금류 업자들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단연코 이를 부인한다. 책에 나온 실명 인사들은 사주받고 인터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3.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인공지능으로 꽃피는 시스템생물학  
날짜: 2016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6224907290  
본문: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몰고 온 AI 신드롬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반신반의했던 알파고의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과연 AI가 학습의 범위를 초월하는 창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가 큰 화두가 됐다. 이런 가운데 딥마인드의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밝혔듯이 의료 분야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이미 IBM의 AI 컴퓨터 왓슨은 뉴욕의 한 병원에서 암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했으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90%의 정확도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어연구소, IBM과 손잡고 대규모의 항암제 반응 세포실험데이터를 공개한 뒤 기계학습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실험데이터를 누가 더 정확히 예측해내는지 ‘드림(DREAM)챌린지’라는 국제경진대회를 개최해 전 세계 많은 과학자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AI는 인류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AI의 구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지의 시스템을 충분히 복잡한 함수의 연결로 표현한 뒤 시스템으로부터 관측된 입출력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함수에 포함된 수많은 계수의 값을 가능한 한 최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구현된다. 그러므로 AI의 성능은 학습데이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된 데이터는 잘 모사할 수 있더라도 학습데이터와 매우 다른 새로운 입력이 주어질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엉뚱한 출력값이 예측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큰 한계는 입출력 데이터 사이의 내부관계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강화학습을 통해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정답이나 규칙을 미리 알 수 없는 바이오 의료 분야의 응용에서는 아직 여러 한계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경우에는 단 한번의 잘못된 예측도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그 응용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br/> <br/>한편 현대의 생명과학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생명체의 동작원리를 거대한 분자네트워크의 다이내믹스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생물학에서는 전통적인 생물학실험, 수학모델링, 그리고 컴퓨터시뮬레이션 분석을 융합해 접근한다. 이러한 시스템생물학은 생명체라는 시스템의 모델을 그 내부의 동작원리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조각조각의 실험적 정보를 집대성함으로써 구현하는 이른바 ‘화이트박스’ 모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원인을 분석하며 접근해갈 수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기에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그 한계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더욱 축적되면서 빠르게 극복될 것이다. <br/> <br/>만일 블랙박스 모델에 기반한 AI와 화이트박스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생물학이 융합돼 새로운 ‘그레이(grey)박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바이오 의료 분야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방대한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로부터 생명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인체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자맞춤형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알파고의 열풍이 단지 AI 그 자체에만 쏠리기보다 과학을 바라보는 보다 큰 안목과 통찰을 통해 AI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4.txt

제목: 황동규 시인 등 6명 호암상 수상자 선정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5212153488  
본문: 시인 황동규(78)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6명이 올해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br/> <br/>호암재단은 5일 제26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학상은 김명식(5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고등과학원 석좌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양자역학 대가인 김 교수는 그 근본이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양자교환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br/> <br/>공학상은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돌아갔다. 오 교수는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인간형 로봇인 ‘휴보’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인 미국 국방부 주최 ‘다르파 로봇 챌린지’에서 우승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학상은 래리 곽(57)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가 받았다. 곽 교수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해 환자 맞춤형 백신을 개발한 뒤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암 재발 억제효능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br/> <br/>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인 황 명예교수에게는 예술상이 주어졌다. 그는 1958년 등단 이래 한국 현대시의 지평을 넓혔으며, ‘즐거운 편지’와 ‘풍장’ 등으로 문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사회봉사상은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인 김현수(61)·조순실(59) 부부가 공동 수상한다. 이 부부는 대안학교와 직업훈련장 설립, 쉼터 운영 등을 통해 22년간 가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 <br/> <br/>시상식은 6월1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5.txt

제목: 중국군 ‘부패 몸통’ 궈보슝 수뢰 혐의 기소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5193643784  
본문: 중국군의 ‘서북의 왕’으로 불렸던 궈보슝(郭伯雄·74·사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뇌물 8000만위안(약 14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r/> <br/>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군 검찰이 최근 궈보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핵심지도부인 정치국원(25명)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의 다음 서열인 고위급 인사다.  <br/> <br/>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수립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최고위급 장성이 된다. <br/> <br/>지난해 7월 당적이 박탈된 그는 지난해 부패 혐의 조사 도중 방광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군 부패의 ‘양대 몸통’으로 지목됐다. 그는 중국 서북쪽을 담당하는 란저우(蘭州)군구 사령원 출신이다. <br/> <br/>이 소식통은 궈보슝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규모를 축소했으며 발표된 수치는 실제 뇌물수수 금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통상 지도부의 부패를 처벌하면서도 당과 군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비리 금액을 축소해 왔다. <br/> <br/>향후 재판과 관련해 SCMP는 군 법원이 궈보슝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중화권 매체들은 암에 걸린 궈보슝의 병세가 위중해 그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사망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br/> <br/>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6.txt

제목: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날짜: 20160405  
기자: sdk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5154554847  
본문: 국립암센터는 5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론교육’ 수강생 4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r/> <br/>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과정은 18일부터 22일까지 오후 1∼5시 총 20시간에 걸쳐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된다. <br/> <br/>교육내용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요, 말기 암 환자의 신체·심리·사회적 돌봄과 통증·증상·감염·영양 관리,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음악요법, 아로마요법, 사별 가족 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이다. <br/> <br/>자세한 사항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센터 내 사회사업실로 문의하면 된다. <br/> <br/>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7.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女 다리 길어졌지 'Long~'  
날짜: 2016040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5050512222  
본문: 한국 30대 이상 남성 절반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35세 이후 30%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평균적인 신장은 38년동안 남성은 6.3cm, 여성은 5.1cm 가량 커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다리 길이는 2004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꾸준히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체형도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주부 김모(61)씨는 전에는 물걸레를 가지고 손으로 거실 바닥을 닦았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어 지난 수십년간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왔다. 그러던 중 몇해 전 아들 내외가 물걸레청소기를 선물해줬고, 김씨는 요샌 편하게 서서 청소를 한다. 그는 "과거 여성들이 키가 작았던 것은 영양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허리를 숙인 채 쪼그려 앉아 청소나 빨래 등 가사노동을 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우리나라 30대 이상 남성의 절반 가량이 비만이며, 여성의 다리 길이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동서울대학교 등이 지난해 실시한 '제7차 한국인 인체지수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동서울대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5개 권역에서 16~69세 한국인 남녀 6413명을 대상으로 인체 치수 133개 항목을 조사했다. <br/> <br/>◆女 다리 길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나 <br/> <br/>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이상 남성의 절반가량이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체형이었다. 비만화는 1979년 이후 꾸준히 진행중이다. <br/> <br/>35~39세의 비만율이 52%로 가장 높았고 △40~49세(49%) △50~59세(48%) △30~34세(47%) 등의 연령대가 뒤를 이었다. <br/> <br/>여성의 비만 비율은 18세(20%), 19세(14%) 등 10대 후반에서 다소 높아지다가 20대에 급감했다. 20~24세와 25~29세의 비만 비율은 각각 6%와 7%에 그쳤다. 그러다가 35세 이후 다시 비만 비율 수치가 올라 60~69세(46%)에 정점을 찍었다. <br/> <br/>여성의 다리 길이는 2004년 이후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리 길이는 바닥에서 샅까지 길이로 측정한다. 샅이란 양쪽 넓적다리 사이의 부위를 말한다. <br/> <br/>◆男 키는 컸지만 다리 길이는 별다른 변화 없어 <br/> <br/>키에서 다리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성의 경우 2004년 0.452에서 2015년 0.460으로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40~49세(0.444→0.451) △50~59세(0.443→0.452) 등 성인 여성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br/> <br/>반면 남성의 다리 길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평균 키는 1979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남성은 5~7.6㎝, 여성은 3.7~6.5㎝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34세(남 166.1㎝→173.7㎝·여 153.7㎝→160.2㎝)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br/> <br/>한편,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5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스톡홀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키가 10㎝ 더 크면 모든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이 여성은 18%, 남성은 11%가 높았다. <br/> <br/>◆"키 큰 사람 암(癌) 더 잘 걸린다고?" <br/> <br/>암 가운데 키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피부암으로, 키가 10㎝ 더 크면 암 위험이 30% 높았다. 키 큰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2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연구팀은 "키가 크면 신체의 세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암으로 전이될 위험이 더 높고, 키 큰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8.txt

제목: 베트남참전 사진작가, 연평도 상흔 담은 개인전 열어  
날짜: 20160404  
기자: 이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4220849986  
본문: 베트남 전쟁에 군인신분으로 참전한 사진작가가 “<span class='quot0'>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위협에 굴하지 말고 평화를 지키자</span>”며 연평도 상흔을 담은 사진전을 열어 화제다. <br/> <br/>주제는 ‘Peace Without War 전쟁 없는 평화’. <br/> <br/>계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예술사진을 가르치고 있는 마틴 리(본명 이용하) 교수 겸 사진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br/> <br/>마틴 리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토 갤러리 A-One'에서 연평도 상흔을 고스란히 담은 28점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기간은 지난 3월25일부터 오는 17일 까지다. <br/> <br/> 마틴 리 작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장면을 담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녹아내린 연평도 주택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의 도움 없이 오직 연평도 상흔을 담은 개인전을 열기는 마틴 리 교수가 처음이다. <br/> <br/>기자가 4일 찾은 갤러리 A-One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로 131에 위치한 곳으로 벚꽃이 만발한 안양천변에 있었다. <br/> <br/>갤러리 입구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br/> <br/>갤러리는 다소 높은 1층짜리 오피스텔 공간을 2층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br/> <br/>마틴 리 작가는 연평도 포격 도발 2개월 후인 2011년 1월, 영국 BBC 방송기자와 혹한의 추위 속에 피격현장을 찾아 상처의 흔적을 낱낱이 렌즈에 담았다. <br/> <br/>사진 속 연평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처참한 모습 그 대로였다. 연평도 시장골목 사진은 대부분 무너지고 시꺼먼 재에 거을려 아름다운 연평도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로 옆 안전시설인 담벽은 포탄에 맞아 철근을 드러낸 채 구멍이 뻥 뚫려 있고, 포탄 파편이 지붕을 뚫고 안방으로 날아든 장면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 정도로 아찔했다. 잿더미로 변한 집, 타다만 십자가 등 섬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을 관람하는 내내 메케한 냄새가 나는 듯 했다. <br/> <br/>기자는 마틴 리 작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설암’으로 항암치료중이다. 혀를 이식해 기자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연평도를 소재로 긴급 사진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br/> <br/>“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이다. 휴전 이래 냉전의 기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현실이다. 국가안보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장치다. 국제질서에서 힘없는 안보는 공허하고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세계유일 분단국임에도 전쟁은 마치 다른 나라의 얘기로만 생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안일함에 경각심이 되었으면 한다.” <br/> <br/>마틴 리 작가는 1972년 1월 군인신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br/> <br/>그가 사진기를 잡은 것도 베트남 전쟁 참전 전우들 때문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목숨을 걸고 우방을 돕기 위해 참전한 전우들이 살아 돌아와서는 고엽제 병마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2- 3세대로 유전되는 뼈아픈 현실을 보면서 베트남 참전 막내인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잊힐 것 같은 두려움에서 카메라를 잡았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잘나가던 무역업을 접고, 56세라는 늦깎이로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학과와 일본 구주산업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식 사진공부에 열중했다. <br/> <br/>그의 사진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발로 뛴 ‘다큐멘터리’를 지향한다. 사실만큼 정의를 드러내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br/> <br/>일본에서 사진공부를 하던 중 2011년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자 그는 두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열흘 동안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서 사진에 담았다. <br/> <br/>그는 또 서울보훈병원과 베트남 등지를 방문, 고엽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지울수 없는 상처’라는 책을 펴내고 한국과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3rd Generation(제3세대)’라는 주제아래 고엽제의 참상을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br/> <br/>일반적으로 고엽제란 고엽제에 함유된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디이옥신이란 물질이 인체에 흡수되면 10~2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과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각종 후유증을 일으킨다. <br/> <br/>기자는 마틴 리 작가가 앓고 있는 ‘설암’도 혹시 고엽제 후유증이 아닌가하고 물었다. 그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br/> <br/>그리고 재차 물었다. “<span class='quot1'>말도 잘 할 수 없을 만큼 암 투병으로 힘겨운데 아무리 북한 측에서 미사일 위협이 있더라도 굳이 지금이어야 했는가?</span>” <br/> <br/>그는 “<span class='quot1'>내가 국가와 국민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span>”라는 짧은 대답을 한 뒤 서둘러 진료하러 보훈병원을 향해 길을 나섰다. <br/> <br/>안양=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399.txt

제목: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혹시 나도 치매?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4205701157  
본문: 지금껏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유명 변호사 태석(이성민)은 어느 날부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일상에서도 이미 끝내 놓은 일을 부하 직원에게 되묻는 일이 잦아졌다. 병원을 찾아간 그는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게는 끝까지 숨기려 하지만 약을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들키게 된다. 케이블채널 tvN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기억’의 한 장면이다. 알츠하이머로 인해 전도유망한 전문직 중년 남성의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았다. <br/>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주인공을 소재로 한 드라마 ‘기억’의 장면들. 갑작스럽게 찾아 온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의 삶을 위협한다. <br/>tvN 제공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며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1위에 꼽히기도 했다. 가족들에게 크나큰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환자 본인의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질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br/> <br/>치매는 가벼운 기억장애에서 행동장애, 이상행동까지 나타나는 심각한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해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꼽히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가 12분마다 1명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현재 환자 수는 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꾸준히 늘어 2024년 100만명, 2041년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치매에 의한 평균 재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인 183.2일로, OECD 평균(41.6일)의 4.4배에 달한다.  <br/> <br/>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특별한 기념일을 까먹는 것이 가장 흔한 증세이다. 늘 찾아다닌 집 주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식구들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집안일 등 여태까지 어려움 없이 해온 익숙한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시트콤 등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자주 쓰이는 리모컨을 휴대전화와 혼동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 외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무턱대고 남을 의심하는 등 불안, 착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br/> <br/>치매 종류는 크게 알츠하이머, 혈관성, 루이체, 전두측두엽 치매 등 4가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로 전체 발병 원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퇴행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서서히 증세가 나타난다. 혈관성 치매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정신 능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팔다리 마비와 언어 장애 등 육체적 능력 저하까지 나타난다. 루이체는 망상·실신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전두측두엽 치매는 무력감에 시달리거나 충동행동 등을 나타낸다. <br/> <br/>그렇다고 치매를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불치병’으로 간주하고 치료 등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치료로 증세를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br/> <br/>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노쇠하여 생기는 치매이므로 중풍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법과 비슷하다. 체지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하게 운동하고 금연, 금주를 하는 것이 좋다. 알츠하이머는 뇌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므로 뇌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도움이 된다. 병에 위축되지 말고 폭넓은 사회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태도도 도움이 된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자각하면서 느끼는 자괴감과 우울감을 덜기 위해 주변에서 격려와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중요하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박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치매 환자들은 쉽게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거나 우울해 하는 특징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때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면 이상심리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낙담하지 않고 치료에 응할 수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0.txt

제목: 송중기, 암환자 팬에 사인 DVD 선물 뒤늦게 밝혀져  
날짜: 20160404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4153001052  
본문: 배우 송중기가 암 환자에게 사인 DVD를 선물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여자친구가 송중기씨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r/> <br/>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군 복무 중인 송중기에게 대장암 말기 환자인 여자친구의 사연을 편지로 써 보냈고, 이를 접한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친필 사인이 담긴 영화 '늑대소년' DVD를 글쓴이의 여자친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br/> <br/>하지만 안타깝게도 글쓴이의 여자친구는 선물을 받기 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글쓴이는 "많은 편지들 중 제 편지가 읽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그냥 잊고 지나가도 모를 일인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지를 믿어주고 이렇게 직접 챙겨준 게 고마웠다"고 전했다.  <br/> <br/>송중기는 전역 후 출연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1.txt

제목: 노진규, 골육종 암투병 당시 인터뷰 재조명 "이제 내 몸에는 악성 종양 없어"  
날짜: 20160404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4104059611  
본문: 사진=뉴스Y 캡처 <br/>쇼트트랙 선수 노진규의 골육종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뜬 가운데, 암투 병당시 인터뷰가 재조명 되고 있다. <br/> <br/>노진규는 지난해 1월 한 방송 매체 인터뷰를 통해“이제 내 몸에 악성 종양은 없다. 하지만 암은 수술한 지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br/> <br/>이어 그는 “2~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암 수술하고 나서는 거처를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br/> <br/>또 노진규는“암 투병으로 머리가 다 빠졌는데 이제 나고 있다. 살도 많이 쪘다. 178cm에 70kg이었는데 현재 10kg 이상 불었다.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찾으면 보여주겠다”며 선수 복귀 의지를 보였다.. <br/> <br/> 앞서 노진규는 올림픽을 코앞에 둔 2014년 1월 훈련 도중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노진규는 팔꿈치와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다가 종양이 악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왼쪽 견갑골을 들어내는 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지난 3일 저녁 숨졌다. <br/> <br/>한편 노진규의 장례식은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층 VIP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5일 오전 7시.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2.txt

제목: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집단 지정, 네티즌 반응 "저런 회사들 보면 멋있다"와 "올바름으로 승부해라"  
날짜: 20160403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3220940021  
본문: 사진=대기업 집단 지정 `카카오·셀트리온` 공식 홈페이지기업 카카오·셀트리온 등 총 6개의 집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br/> <br/>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br/> <br/>이로 인해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개의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대기업 집단 수는 지난해 61개에서 65개로 4개 더 늘었다. <br/> <br/>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br/> <br/>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소식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카카오톡이 대기업이 되다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메신저들이 다 망했는데 카카오톡은 대체 어떻게 국민메신저가 됐을까. 개발자의 통찰력, 실력 외에도 천운을 타고나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forc\*\*\*\*" "한국시장이 작네. 한국이 어쩌네 하는 사람들 불평할 때 저 사람들은 묵묵히 소신 지켜 벤처 신화 이뤄냄-real\*\*\*\*" 등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br/> <br/>또 다른 네티즌들은 "한미는? 원래 대기업 군인가? 셀트리온이 대기업이면 한미도 당연 대기업 아닌가? 부채가 많나?-ddog\*\*\*\*" "스마일 게이트는 대기업인가??? 어디에 속하나 궁금하네. 거기 대표는 국내 자산 순위 작년에 7위이고, 그전에 5~6위였는데-akzk\*\*\*\*" "카카오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 3명이서 시작한 거 암? 스마트폰 나오고 첫 스타트를 무진장 잘 끊음-gdg\*\*\*"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br/> <br/>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개인의 평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여론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3.txt

제목: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혈액암 재발…항소심 연기  
날짜: 2016040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3132348138  
본문: ‘성완종 리스트’ 연루로 재판 중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혈액암이 재발해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br/> <br/>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작년 말 병원 검사에서 암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음에 따라 현재 치료 중이다. 지난 2012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골수증 투병으로 19대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그는 골수 이식 후 암을 이겨냈으나 재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변호인은 “<span class='quot0'>암 재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의사는 (1심 재판 중)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2심 재판 시작이 무리라고 판단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span>”고 밝혔다. <br/> <br/>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월22일 예정이었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19일로 미뤘다. <br/> <br/>이 전 총리의 항소심은 병세에 따라 또다시 연기될 여지가 있다. <br/> <br/>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돌아온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4.txt

제목: "좋은 여자 만나요, 저는 당신 딸로 태어날게요"…여성의 마지막 약속  
날짜: 2016040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401112650914  
본문: 수년간 골(骨)암과 맞서 싸우다 남자친구 품에서 숨진 여성이 “당신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br/> <br/>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이저우(貴州) 성에 사는 21세 여성이 같은달 29일 숨졌다. <br/> <br/>여성은 열네살 때 골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6년여간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남자친구 품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br/> <br/>수술로 이미 왼쪽 다리가 없던 여성은 남자친구를 4년 전쯤 알게 됐으며, 본격적으로 교제한 건 2년 전 부터다. <br/> <br/>남자친구와 행복한 나날을 꿈꾸던 여성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치료를 이어갈지 결정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br/> <br/>여성은 항암치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br/> <br/>두 사람은 이달초 웨딩촬영을 마쳤다. 이는 남자친구 샤오(20)씨의 소원이기도 했다. 햇볕 쨍쨍한 날, 5시간에 걸쳐 촬영이 진행됐지만 이들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도 밝았다. <br/> <br/>추억을 가슴속에 새긴 여성은 숨을 거두기 직전 샤오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br/> <br/>“부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해줘. 내가 당신의 딸로 태어날 수 있도록.” <br/> <br/>한편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여성 유가족에게 도움 줄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매체가 진행한 모금운동에는 현재까지 5000달러(약 575만원) 정도가 모였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5.txt

제목: [칼럼] 임플란트 구강 내 세균번식 및 전신질환 원인? 신중 요망  
날짜: 2016033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1173354041  
본문: 신세계 치과병원 황정빈 원장일반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종류는 원바디형(일체형)과 투바디형(조립형)이 있다. 신세계치과 황 정빈 원장은 조립형 임플란트에서 고정체와 지대주 사이 공간에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균 등 의 혐기성 세균들이 전신 암을 유발시킨 사례를 발견하고 일체형 임플란트 사용을 권장한다. 이에 기존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한 일체형 임플란트는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 황정빈 원장에게 들어 본다. <br/> <br/>◇ 일체형 임플란트는 암, 당뇨 등 각종 신체 질환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 번식 차단 효과? <br/> <br/>투바디 임플란트는 치아와 결합하는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2.5μm전후의 미세 간격(micro-gap)이 존재한다.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를 연결 후 완전히 결합해도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내부에 비교적 큰 공간들이 있다. 이와 달리 구강내 세균의 크기는 0.1-1.5μm 정도의 작은 것들과 1μm-2μm 정도이다. 이 미세 간격을 통과한 세균들은 수많은 내부 공간에 다양한 혐기성 세균들이 증식하게 돼 결과적으로 투바디 임플란트는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br/> <br/>음식을 씹을 때 교합력(상하악의 치아를 맞물리게 했을 때에 생기는 힘)은 대개 200-300Ncm이다. 200Ncm 정도의 힘으로 투바디 임플란트에 힘을 가할 경우 미세 간격은 임플란트에 따라서 30μm이상의 간격으로 벌어져 세균 100마리가 횡렬로 들어 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틈을 통해 세균과 그 부산물인 독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내부 공간은 혐기성 세균의 좋은 서식처가 된다. 따라서 투바디 임플란트는 모든 경우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사이에 혐기성 세균의 증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br/> <br/>지저분한 구강 환경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세균 특히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균이 각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면역질환, 류마치스, 건선(피부질환), 다발성 경화증, 혈액 응고 질환, 유방암,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을 비롯한 각종 암, 당뇨, 발기부전,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위험 세균이다. <br/> <br/>경우에 따라 살아남은 세균들은 급성으로 뇌에 농양을 일으키거나 간과 난소 등을 비롯한 각종 장기에 감염성 농양을 일으킨다. 뇌 농양의 경우 구강 내 세균에 혈행성 감염으로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br/> <br/>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 대부분의 구강 세균과 관련해 일어나는 전신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치과에서 세균을 제거하고 관리하지 않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많은 잇몸 치료약 등을 복용하며 잇몸이 치료 될 것을 기대하고 세균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 시켜 치과를 방문할 경우 거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잇몸이 파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맹독성 구강 내 세균의 혈관을 통한 전신의 감염으로 고혈압, 뇌졸중, 당뇨, 류마티스, 골다공증, 암, 치매 등의 질환이 발생한 후인 경우가 빈번하다.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질환을 초기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br/> <br/>◇ 임플란트 후 발생하는 악취 물질 차단으로 입냄새 예방 효과 <br/> <br/>일반적으로 투바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와 치아를 연결하는 부분인 어버트먼트를 서로 연결 할 때 침이나 피가 들어가서 부패하게 된다. 피와 침을 씻기 위해 물을 뿌려 보지만 뿌려진 물이 임플란트 내부에 다시 들어가서 고여있게 된다. <br/> <br/>또한 사용 중에 연결 부위의 틈(평균2.5-10μm 기능시 35μm 이상)으로 세균(0.1μ-2μm크기)과 그 부산물인 독소(내독소 - 1만분의 1μm 정도 크기)가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씹는 힘에 의해 변형된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의 연결부위에서 마치 펌프처럼 작용해서 세균이 임플란트 내부로 빨려 들어갔다 쏟아져 나왔다 반복한다. <br/> <br/>혐기성 세균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내는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악취의 원인이다. 이러한 유독물질은 대부분의 호기성 세균과는 다르게 최종 산물로 악취가 나는 유독 가스들을 만든다. <br/> <br/>혐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물이 악취를 내며 분해하는 현상을 부패라고 한다. 생성된 악취 물질은 암모니아 외에도 황화수소의 경우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고 스카톨은 인분냄새, 인돌은 시궁창 냄새 등의 악취를 유발한다. 삭힌 홍어 냄새와 비슷하기도 하다. 상상하기도 싫은 하수구 썩는 냄새가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에서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일체형 임플란트는 혐기성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을 차단해 악취 발생을 예방한다. <br/> <br/>◇ 작은 양의 골 삭제로 빠른 회복 및 고통 감소 효과 <br/> <br/>임플란트의 경우 각 부품이 하중에 대하여 견디기 위한 최소강도 이상이 필요함으로 최소일정수준 이상의 두께를 필요로 한다. <br/> <br/>뼈의 과도한 삭제는 뼈를 적게 삭제할 때보다 우리 몸에 과도한 충격을 주게 되고 이는 고통의 증가와 골의 약화는 물론 치유를 느리게 한다. 이에 골삭제가 적을수록 골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고통의 양도 비례해 작아진다. 골 삭제로 인한 고통의 양과 고통 받는 시간을 고려할 때 보다 작은 양의 골 삭제가 필요한 이유다. 원뿔형 원바디형 임플란트는 비슷한 강도를 가진다고 가정 할 때 골 삭제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br/> <br/>한해 국내 임플란트 시술 건수는 5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 날수록 임플란트로 인한 혐기성 세균 감염자가 늘어날 것이다. <br/> <br/>의도치 않은 부작용인 의료인에 의한, 의료 기기로 인한, 감염을 원하지 않는 다수의 치과 임플란트 환자에게 장기적인 혐기성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 감염에 의한 각종 난치성 전신 질환 환자의 증가가 예상 된다. <br/> <br/>구강 세균의 감염과 관련된 전신 질환이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결과로 전신에 걸쳐 일어날 수 있기에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과 슬픔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163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보험 적용이 시작되면 그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 환자의 비율이 높고 시술자 전부가 혐기성 세균 감염의 이환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립형 임플란트의 위해성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대책 수립은 시급하다. <br/> <br/>신세계 치과 병원 황정빈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6.txt

제목: 드론 활용 실종자 찾아내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1020859314  
본문: 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실종된 노부부를 5시간 만에 찾아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실종된 김모(70)씨와 아내 곽모(70)씨가 30일 오후 3시쯤 춘천시 중도동 상중도 강변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김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경찰은 6일째 실종된 이들 부부 행적을 파악하다 노부부의 마지막 위치가 잡힌 인근의 수색 범위가 넓어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의 협조로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드론은 국공유지 실태조사, 국토 공간정보 조사 및 취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br/> <br/>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부부가 선산이 있는 신매리 인근에 있을 것으로 보고 드론과 함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지역에 드론을 띄웠고, 짧은 시간에 인근 반경 2∼3㎞ 범위를 샅샅이 수색할 수 있었다. 드론으로 인근 산악 지역의 수색을 4시간 만에 마친 경찰은 또 다른 의심 지역이었던 강변에서 이들 부부를 발견했다. <br/> <br/>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7.txt

제목: 암 치료세포 규명 조윤제 교수 등 ‘포스코청암상’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0234214551  
본문: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과학상), 금오공업고등학교(교육상), 라파엘클리닉(봉사상)이 올해 포스코청암상을 수상했다. <br/> <br/>포스코청암재단은 3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10회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2억원을 각각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권오준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br/> <br/> 3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윤제 포스텍 생명과학부 교수 내외, 이형규 금오공고 교장, 안규리 라파엘클리닉 대표, 장옥자 여사(고 박태준 명예회장 배우자), 권오준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 <br/>포스코 제공과학상을 받은 조윤제 교수는 구조생물학 분야 권위자로서 암의 생성과 억제 메커니즘 연구에서 업적을 쌓았다.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제미닌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암 치료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오공고는 1973년 설립된 이래 기계·정밀·가공 등 기초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인을 양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로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청암상은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인재육성·희생·봉사 정신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2006년 제정됐다. <br/> <br/>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8.txt

제목: 소금 덜 먹게 하는 '전기 포크' 나왔다  
날짜: 20160330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0190104695  
본문:   <br/> <br/> <br/>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여러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 일일 평균 섭취량은 WHO 권장량인 2000mg의 두 배가 넘는 4027mg이다. <br/> <br/>자극적인 음식에 길든 식습관을 바꾸고자 ‘저염식’ 열품이 불고 있지만 의지만으로 실천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 IT를 접목시킨 ‘스마트 포크’가 만들어져 획기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29일 ‘전기 포크’에 대해 소개했다. <br/> <br/>일본 레키모토랩의 히로미 나카무라가 소금 없이도 짠 맛을 내는 ‘전기 포크(Electric Fork)’ 시제품을 선보였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포크는 혀에서 맛을 느끼는 미뢰를 감전시켜 짠맛, 단맛, 신맛, 쓴맛, 음식의 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제품이다. <br/> <br/> <br/> <br/>포크로 음식을 찍은 후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면 앞부분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포크 앞쪽에 위치한 은으로 된 전극은 혀의 미뢰를 자극한다. 우리의 뇌는 이를 짠맛 등 다른 맛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심지어 포크의 온도도 미세하게 변화돼 좀 더 그럴싸한 맛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해야 하지만 밍밍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제품. 짠 맛은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하다. <br/> <br/>이번 연구를 주도한 니메사 라나신게는 “우리는 아주 좁은 부위에 집중된 전기 자극과 열이 혀와 상호작용을 하며 성공적으로 주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전기 포크’는 곧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대한 부담없이 단 맛을 느낄 수 있고, 암 환자는 화학 요법으로 잃은 미각을 전기 포크를 통해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br/> <br/> <br/>전기 포크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이용한다. 완전히 충전해 6시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아직 시제품이라 방수 기능이 없다. 또한, 개발팀은 너무 오래 포크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불쾌한 쇠 맛을 느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품 제조 원가는 17.7달러(한화 약 2만 원) 수준이다. <br/> <br/>전기로 혀의 미뢰를 자극시키는 아이디어가 처음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1976년 유럽 생리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혀의 미뢰를 자극해 특정 맛을 느끼게 하는 실험 내용이 나온다. 최근엔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팀이 전기로 미뢰를 자극시키는 ‘디지털 사탕’을 만든 바 있다. <br/> <br/>도쿄 대학 소속 연구원 히로미 나카무라는 “<span class='quot0'>이 기술을 이용하면 전기를 마치 조미료처럼 쓸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도쿄 대학은 현재 지역 내에서 ‘소금 없는 레스토랑(No Salt Restaura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기 포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09.txt

제목: [희망나눔 특집] 아모레퍼시픽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30024748168  
본문: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br/> <br/>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자를 위한 캠페인이다.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한다.  <br/> <br/> ‘2015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지난해까지 이 캠페인에는 총 1만30명의 여성 암환자 및 3337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해 대표적 사회공헌으로 자리 잡았다. <br/> <br/>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 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만들고 유방건강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2001년부터 14년간 46만명이 핑크리본캠페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br/> <br/>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까지 25만4000여명이 참가해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0.txt

제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 수십개 유전자 동시 검출하는 기술 개발  
날짜: 20160329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205111844  
본문: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수십개를 한번에 검출해 지카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은 물론이고 암 등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산하 뇌과학연구소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 연구단의 김상경(사진) 책임연구원팀이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이달 온라인판에 실렸다. <br/> <br/>그동안 질환 관련 유전자를 검출할 때는 ‘실시간 핵산증폭’이란 기술을 써 왔는데, 한번에 3∼4종의 유전자 분석에 그쳤다. 이는 한번에 넣을 수 있는 프라이머(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짧은 DNA 조각) 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프라이머를 넣으면 서로 들러붙어 오류를 일으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br/> <br/>이에 연구팀은 프라이머를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 안에 넣어 붙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연구팀이 miRNA(마이크로RNA) 10종을 대상으로 입자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0종 모두 찾아냈다. <br/> <br/>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이 기술을 적용하면 1회 분석으로도 감염균의 정확한 유전형과 약물내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차별화된 진단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시급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 바이러스 진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이어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입자를 만드는 과정이 쉽다는 것도 이 기술의 장점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특허로도 출원해 등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등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1.txt

제목: 당신의 대변 형태로 알 수 있는 건강 정보  
날짜: 20160329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193003162  
본문:   <br/> <br/> <br/>매일 가는 화장실. 그런데 이때마다 자신의 대변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신의 대변 모양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확신은 있는가? <br/> <br/>대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껄끄럽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조사 결과 10명 중 5명만이 가족과 대변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대변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가 무시되고 있는 것. 심지어 암에 대한 것들도 말이다. 해외 매체 데일리메일이 28일(현지 시간) 대변의 유형과 암의 위험성에 대해 전했다. <br/> <br/>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애쉬 굽타 박사가 영국 Ramsay Health Care에 제공한 이미지엔 대변의 특징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실려있다. <br/> <br/> <br/>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표면에 틈이 있는 소시지 모양이다. 대장 질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다. <br/> <br/>반면, 3주 이상 묽은 설사가 지속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몇 방울의 피가 아닌 검붉은 피로 뒤덮여 있거나 전체가 어두운색일 때도 마찬가지. 항문이 아닌 장 안쪽에서 피가 난 것일 수 있다. <br/> <br/>대장암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암이다. 지난 2012년에만 140만 명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 말기 환자 중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전체의 10% 이하다. 반면,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90%까지 올라간다. 굽타 박사는 “사람들은 대변에 대해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선 신경 써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대장암이 조기 발견되면 매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2.txt

제목: 뇌종양 제거에 위밴드수술→암 재발…소녀에게 닥친 시련  
날짜: 2016032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133113403  
본문: 뇌종양 제거수술 부작용으로 체중이 약 60kg까지 증가했던 호주의 여덟 살 소녀가 위밴드수술을 받은 뒤 ‘암 재발’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 사연이 공개됐다. <br/> <br/>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하나 타라프(8)는 2014년 1월, 갑상선 이상 증세로 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었다. <br/> <br/>진료 이틀 전쯤, 하나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CT 촬영결과 놀랍게도 테니스공 크기의 종양이 머리에서 자란다는 진단을 받았다. <br/> <br/>다행히 하나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상하부 비대증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안게 됐다. <br/> <br/> <br/> <br/>소녀의 신진대사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매주 1kg씩 몸무게가 늘어 어느새 하나의 체중은 57kg까지 불어났다. 결국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 지내는 신세가 됐다. <br/> <br/>머리에 이어 하나는 배에도 칼을 댔다. 위밴드수술로 다행히 체중 조절에 성공한 듯 했다. <br/> <br/>그러나 불행은 이들 가족을 또다시 덮쳤다. <br/> <br/>최근 하나는 병원에서 암 재발 진단을 받았다. 하나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나의 아빠 노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겨낸 과정이 모래성 무너지듯 없어졌다”고 허탈해했다. <br/> <br/> <br/> <br/>하나의 정확한 병명은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뇌 중앙의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뇌종양 일종으로, 태아기 뇌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반하는 질환이다. 두통, 시력 저하 그리고 2차성장 지연 등을 유발한다. <br/> <br/>다행히 MRI 촬영 결과 종양은 더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의 가족이 다른 치료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게 됐다는 뜻이다. 부부는 일단 위기를 넘겼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br/> <br/>이들 가족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올해를 새로운 치료의 시작점으로 보는 노어와 그의 아내 나오미는 “<span class='quot0'>딸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잘 이겨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상황에도 딸이 행복해한다면 우리는 어둠을 잘 헤쳐가도록 돕는 게 최선</span>”이라고 입을 모았다. <br/> <br/>과연 하나는 모든 병을 털어내고 마지막에 밝게 웃을 수 있을까?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3.txt

제목: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뇌졸중 치료제 임상 1,2a상 연내 완료 예정  
날짜: 201603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9103827400  
본문:   차바이오텍 최종수 대표이사 <br/> <br/>국내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차바이오텍(대표이사 최종수)은 탯줄 유래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2a상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br/> <br/>탯줄 유래 뇌졸중 줄기세포 치료제는 발병 후 일주일 이내에 주입해야 하는 급성 질환 치료제로 추적관찰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진행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는 것이 차바이오텍의 설명이다. <br/> <br/>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 2위에 달하는 질환으로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50만명 이상이다. 또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30-40대에도 흔히 발병되고 있다. <br/> <br/>또 차바이오텍은 작년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태반유래 알츠하이머병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승인을 득하고 곧 1•2a상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br/> <br/>초기에는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에 걸린 국내 환자수는 약 4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br/> <br/>현재 차바이오텍의 뇌질환 관련 임상은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위 임상 진입시 여러 병원과 임상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 <br/>차바이오텍은 앞으로 세포활성도 등 기능성을 극대화시킨 개량된 줄기세포(Enhanced Program)를 이용하여 임상연구을 진행할 예정이며 성능개선 줄기세포주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4.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5주년, 최첨단 치료와 연구로 암정복 선도  
날짜: 2016032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8170445478  
본문:   <br/> <br/> <br/>서울대암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25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br/> <br/>심포지엄은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을 주제로, 간호, 약제, 영양, 교육 등이 포함된 8개의 전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토마스 브라운 미국 Swedish Healthcare Institute 교수, 히로시 타나카 일본 도호쿠대 교수, 그리고 각 세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심포지엄은 8개 전문 분야의 최신 치료 및 연구 동향을 소개했으며, 30여 명의 연자와 좌장은 각 분야의 주제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심포지엄 후에는 암병원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br/> <br/>서울대암병원은 지난 2011년 3월 지상 6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7677㎡ 규모로 개원했다. 개원 이후 ‘암 치료의 FIRST HOSPITAL' ? ‘Your FIRST Hospital' 이라는 슬로건 아래, 검사, 치료, 재활, 예방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원스톱 토털케어’를 제공, 국내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br/> <br/>그 결과, 2011년 개원 당시 1,280명이었던 일평균외래환자는 올해 2,038명으로 59%나 증가했다. 수술도 년 간 8,066(2011년)건에서 9,235(2015년)건으로 크게 늘었다. <br/> <br/>이러한 치료 성적과 함께 최근에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연구중심병원 암유닛 과제를 통해 200여 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처리하는 패널을 개발, 암 맞춤치료 시대를 앞당겼다. <br/> <br/>서울대암병원은 올해 3월 개원 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암진료 프로세스 개선, 연구와 임상이 융합되는 연구중심병원, 생활 속 암정복을 구현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br/> <br/>김태유 암병원장은 “암의 진단, 치료,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암여정 이라고 한다. 서울대암병원은 최첨단 진료와 연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암여정의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5.txt

제목: [기고] 암검진 제대로 받기  
날짜: 20160328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8145255850  
본문: 며칠 전 진료실에 50대 후반의 남성이 방문했다. 그는 최근 가까운 지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며 췌장암 검진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 남성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술을 마시고 담배도 폈지만, 매일 운동을 하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자신해 왔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br/> <br/>췌장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에 의사로서는 난감하다. 췌장은 복부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췌장종양표지자로 알려진 혈액 검사도 진단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다. 췌장에 종양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췌장 CT를 찍어야 하는데 수검자의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췌장암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정밀 검사를 해서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6개월 후 췌장암이 상당히 퍼져 있을 수 있다. 주치의로서 이 남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논한 후 먼저 본인이 꼭 받아야 할 암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 이 남성은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고 일차 치료가 끝난 상태이다. 이 남성은 배가 아프거나 배변에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대장암이 발견되었고, 췌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전문의최근 암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암이 진단된 후 5년 상대생존율이 69.4%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많은 사람들은 암이 생기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암은 조기단계에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는 조기 암은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반면에 증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발견되는 진행성 암은 여전히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건강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br/> <br/>그런데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에 대해서 효과적인 조기 검진 방법이 있지는 않다. 췌장암의 예로 보았듯이 조기검진을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암종과 검진 방법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국가암검진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 방법이 효과적이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암검진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br/> <br/>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간암검진은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감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간경화 진단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연 2회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 모든 국민이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고,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1년 주기로 시작한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올해부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으며, 유방암 검진은 40세부터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 <br/>작년 국립암센터는 국가암검진 대상인 5대 암에 갑상선암과 폐암을 포함한 7대 암검진 권고안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암검진 이외에 개별적으로 암검진을 받을 때, 의료진이 고려해야할 사항과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대장암 검진에서 대장내시경검사나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의사와 의논하여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갑상선암 검진은 검진 효과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암검진으로는 권고하지 않았고, 폐암 검진은 30년 이상 흡연한 55-74세 흡연자의 경우 저선량 흉부CT를 이용하여 받도록 권고하였다. 새로운 암검진 권고안은 고령에 암검진을 무리하게 받는 것은 검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연령에서 암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가족 중에 암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혈변, 지속적인 소화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안에 따른 연령이 아니더라도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혹자는 암검진을 꺼리는 이유가 괜히 검진을 받았다가 암을 진단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암은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대응하는 것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세계보건기구도 암의 1/3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암검진을 적극적으로 받고,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의사와 그 방법을 상담하여 결정하도록 하자. 건강하다고 느낄 때 정기 검진을 통해 찾아낸 조기 암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 <br/> <br/>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전문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6.txt

제목: 서울 거주 여성, 전국의 여성보다 키↑ 몸무게·허리둘레↓  
날짜: 2016032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809252238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관련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를 생산해 28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br/> <br/>이번에 공개하는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테이터’는 20세이상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연령별, 지역별(성인), 성별로 구분하여 신장, 체중, 허리둘레(성인), 체질량지수(성인),머리둘레(영유아) 분포내역을 구축한 것으로, 성인의 신체계측 현황은 향후  ‘참조표준’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br/> <br/>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료로 공산품의 ‘KS마크’와 같이 국가인증이 부여된 데이터이다. <br/> <br/>금번 공개하는 데이터는 2013~2014년(2개년)에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포함)을 받은 수검자 18.7백만명과 2014년에 검진받은 영유아 2.1백만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신체계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숙아·암·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검진내역은 제외하였다. <br/> <br/>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성인)’를 활용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장 160cm, 체중 60kg, 허리둘레 80cm인 1966년생 여성이 동일 연령대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며 허리둘레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전국의 여성보다 키는 크지만 몸무게 및 허리둘레는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br/> <br/>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영유아)’를 보면 12개월 남아의 평균 신장은 77.1 (± 11.4) cm, 체중은 10.3 (± 1.5) kg, 머리둘레는 46.4 (± 1.3) cm 이며, 12개월 여아의 평균 신장은 75.5 (± 9.8) cm, 체중은 9.6 (± 1.3) kg, 머리둘레는 45.2 (± 1.3) cm 인 것을 알 수 있다. <br/> <br/>공단은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의 공개를 통해 한국인의 비만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도모하고, 실제 수요자(국민,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참조표준 등록에 앞서 공개하였다. 수요가 있을 경우 산업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br/> <br/>아울러, 그동안 선진국에 의존했던 표준데이터를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생산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산업분야의 데이터 생성비용 및 중복투자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br/> <br/>‘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는 2016.3.28.일부터 자료전용 홈페이지인 ‘국민건강보험 자료공유 서비스(데이터신청/국가건강검진신체계측DB)’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br/> <br/>공단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데이터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보건·의료분야 국가표준역할의 수행과 정부3.0정책에 부응한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7.txt

제목: 조선 중흥 이끈 영·정조 ‘애민의 기록’을 만나다  
날짜: 2016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7210627816  
본문: 영조는 1749년 간행한 ‘탁지정례’ 앞부분에 “<span class='quot0'>철권으로 남겨 영원히 따르게 하라</span>”는 글을 남겼다. 궁궐의 각 전각에 필요한 물자를 정리한 책이었다. 궁중의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규모 있는 나라살림을 마련하기 위해 간행했다. 1783년 정조는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자휼전칙’를 발간했다. 3세 이하 유기아(遺棄兒: 버려진 아이)에게는 유모를 정해 젖을 먹이고 유모에게 일정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만들었다. <br/> <br/>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던 영·정조가 시행한 ‘애민책’(愛民策)의 일단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올해 장서각 상설전 ‘조선의 국왕과 선비’에 내놓은 전시품에는 백성을 위한 정책에 골몰했던 두 중흥군주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br/> <br/> 18세기 조선의 중흥을 이끈 영조(왼쪽), 정조는 각종 ‘애민책’을 만들어 백성을 보살폈다. 영조의 ‘정례류’와 정조의 ‘자휼전칙’ 편찬은 그 사례의 하나다.◆쓸데없는 지출 줄여 모범 보인 영조 <br/> <br/>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호조판서 박문수는 영조에게 “<span class='quot1'>궁중의 지출이 매우 많아져 정리할 필요가 있다</span>”고 건의했다. 영조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다. 뜻을 같이한 두 사람은 ‘정례(定例)류’ 편찬에 힘썼다. ‘표준으로 정한 규례’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시행세칙에 해당한다. <br/> <br/>각종 정례에는 궁궐의 각 전각과 관청들, 주요 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방만한 지출을 줄여 규모 있는 국가재정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br/> <br/>탁지정례는 대전, 중궁전, 세자궁·빈궁 등에서 필요한 물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액수, 상납 관청, 문서 처리의 규정 등을 실었다. <br/> <br/>탁지정례이 책은 조선 후기 중앙재정 관계를 살피는 데 기본사료적 가치가 있다. 탁지정례가 만들어지고 ‘국혼정례’가 나왔다. 왕비, 세자, 세손 등 왕실 혼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었다. 일정한 규정 없이 국혼을 하다보니 혼수의 종류와 비용이 한정없이 많아지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앞선 사례를 참고해 “명색이 천박하고 화려한 것과 수효가 지나친 것을 줄여 잡은 것”이 특징이다. <br/> <br/>한중연 하은미 연구원은 “<span class='quot2'>의례 절차에 따른 예물과 기물의 종류와 잔칫상 차림, 궁인들의 옷가지와 수량, 옷감의 종류와 분량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물품의 내역과 수량을 엄격히 규정해 쓸데없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고통받는 아이들 구휼법 제시한 정조 <br/> <br/>흉년의 고통은 백성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의지할 곳 없이 떠돌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의 현실은 처참했다. 정조는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휼전칙을 만들어 국한문으로 인쇄한 뒤 전국에 반포했다. <br/> <br/>4~10세의 행걸아(行乞兒: 빌어먹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가 대상이었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구호해 옷을 주고 병을 고쳐주어야 하며, 날마다 1인당 정해진 분량의 쌀·간장·미역을 지급하게 했다. 유기아에게 유모가 정해졌는데, 유모에게도 분량의 쌀이 지급됐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암행어사를 파견하며 직무를 지시한 ‘봉서’에서는 각 지역 수령을 감독하고, 백성들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려 한 정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경기 암행어사 봉서’는 1794년 정만석, 정약용 등을 경기지역에 암행어사로 보내며 내린 봉서다. 경기 지역의 흉년에 조정의 구휼정책이 백성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실상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br/> <br/>정조는 봉서에서 이런 상황의 원인을 지방관리의 폐정에서 찾으면서 암행어사가 시장과 촌락을 드나들며 세밀하게 탐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봉서에는 조세 감면 혜택이 “아전 등의 절취로 백성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히 살피라”는 조목 등 모두 15조의 임무를 적시하고 있다. <br/> <br/>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8.txt

제목: 국민 절반 “4대 중증 질환·3대 비급여 보장 강화 필요”  
날짜: 2016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7193326666  
본문: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 강화 등을 가장 필요한 보건 정책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건보 관련 9개 정책 중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건보 적용 확대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MRI·초음파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23.6%),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 완화(10.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전국 20∼69세 건보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br/> <br/>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와 3대 비급여 부담 완화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정책이기도 하다. <br/> <br/>정부는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2014년부터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84.2%, 74.0%로 나타났다. <br/> <br/>특히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의 경우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963년 특진제도로 출발한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높아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80%까지 지정할 수 있었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지난해 67%로 낮춘 데 이어 올해 33%까지 내리고 내년부터는 아예 제도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br/> <br/>이 같은 정책 추진 결과 선택진료비 부담은 2013년 1조6000억원에서 2014년 1조원, 2015년 8000억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 상급병실료 부담액도 같은 기간 1조2700억원에 1조원으로 감소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이 많다’는 응답에 ‘그렇다’는 답변이 2014년 58%에서 지난해 50.5%로 줄었다. <br/> <br/>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19.txt

제목: 두 살 딸에게 어째서 웨딩드레스를 입혔냐고요…?  
날짜: 2016032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7142000007  
본문: 평생 행복하리라던 믿음이 깨진 건 약 6주 전쯤. <br/> <br/>지난 2월1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노퍽카운티 셋퍼드에 사는 삼미는 딸 포피 마이(2)에게 뭔가 이상이 생겼음을 눈치챘다. 딸이 잘 먹지도 않으면서 변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br/>의사는 포피에게 치아가 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비 증상과 관련해 소화제를 처방했다. <br/> <br/>그러나 삼미는 포피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딸의 갈빗대에서 덩어리까지 만져졌다. 먹지도 않고 걷지도 않으려는 딸을 걱정한 삼미는 열흘 뒤,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br/> <br/>이번에도 의사는 좀 더 강력한 소화제를 처방했을 뿐 이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br/> <br/>2월25일. 마구 토하는 포피를 데리고 삼미는 더 큰 병원으로 달렸다. <br/> <br/>다음날, 삼미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삼미의 뱃속에 큰 덩어리가 든 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의사는 “<span class='quot0'>변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span>”며 “어쩌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br/> <br/> <br/> <br/>직업군인인 포피의 아빠 앤디(31)는 아내에게 이같은 연락을 받고는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br/> <br/>아빠를 본 포피는 기뻐했다. 그러나 이미 포피의 몸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CT 촬영 결과 포피의 신장에서 생겨난 암세포는 폐로도 퍼졌다. <br/> <br/>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앤디와 삼미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약간의 빛이 남아있다면 끈을 붙잡으려 노력하겠지만 그마저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br/> <br/>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마지못해 시작한 항암치료도 포피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암세포는 아기의 뇌까지 퍼졌다. 처음 병원에 실려 간 지 한 달여가 지난 3월16일의 일이다. <br/> <br/>삼미는 치료를 이어갈 것이냐는 의사들의 물음에 단호히 고개 저었다. 그는 화가 났다. 조금이라도 호전시키리라 믿었던 항암치료가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서다.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는 생각에 울화통이 치밀었다. <br/> <br/> <br/> <br/>부부는 포피를 집으로 데려왔다. 살아있는 시간 만이라도 딸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치료받지 않으면 얼마나 더 살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 <br/> <br/>이미 두 아들을 둔 앤디와 삼미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 큰 건 아니다. 단지 딸이 자라 웨딩드레스 입는 날을 보게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앤디는 그 날이 예상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br/> <br/>지난 18일, 앙증맞은 드레스를 입은 포피가 가족들 앞에 섰다. 리본 등 각종 장신구가 아름다움을 더했다. 그런 딸을 본 삼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br/> <br/>삼미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span class='quot1'>딸을 둔 부모로서 남편과 포피가 결혼하는 날을 상상해왔다</span>”고 말했다. 그는 “딸은 아름다웠다”며 “포피를 본 모두가 울었다”고 덧붙였다. <br/> <br/>데일리메일은 “<span class='quot2'>포피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들 가족에게는 매초가 소중한 상황</span>”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족의 사연은 온라인 모금운동 사이트 ‘고 펀드 미’에도 올라가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0.txt

제목: 염증을 악화시키는 아홉가지 음식  
날짜: 20160325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5152431870  
본문: 만성염증은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주적이다. 만성염증은 심장병, 당뇨 뿐만 아니라 관절염, 류머티스와도 관련이 깊다. 이부프로펜 등의 소염제는 일상에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만성염증을 막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야한다.아울러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하다. 만성염증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열거하는 이 음식들을 꼭 피해야 한다.  <br/>1.감자튀김바쁜 일상 중에 패스트 푸드를 먹지 않을 수도 없고, 일단 패스트 푸드 점에 갔다면 후렌치 후라이(감자튀김)을 먹지 않기도 힘들다. 하지만 당신이 감자튀김을 피할 때마다 몸은 당신에게 감사인사를 건넬 것이다. 치킨도 마찬가지다.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튀긴음식을 끊은 사람들에게서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 흰빵특히 미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흰밀빵을 비롯해 정제된 밀가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한다.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의 드레이크 박사는 체내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흰밀빵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3. 커피 크리머커피를 마실때 헤이즐넛 향이나 바닐라 향을 내기 위해 크리머를 쓴다면 당장 그만두는게 좋다. 크리머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종종 '트랜스 지방 0g(그램)' 이라고 홍보하는 크리머도 있지만 속아선 안된다. 식품 제조업자들은 1g이 되지 않으면 0g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량이긴 해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 <br/> <br/>4. 도넛 밀가루에 엄청난 양의 설탕이 가미되는 도넛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쿠키와 케익, 페스트리도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먹지 말라. <br/> <br/>5. 술 <br/>어떤 연구는 소량의 술이 심장병 예방과 암 등에 좋다고도 하지만 염증에는 무조건 좋지 않다. 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잔 술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br/> <br/>6. 크래커"잡곡 함유"라는 라벨로 마치 건강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크래커는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트랜스 지방이 뒤섞여 있다. 때로는 콩기름과 옥수수기름 등이 포함되고,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유발한다. <br/>  <br/>7. 시리얼일부 시리얼들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미화돼 있지만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먹어야 한다면 당분이 적게 들어가고 섬유질이 풍부한 것을 골라 먹는 것이 좋다. <br/>  <br/>8. 베이컨최근에는 포화지방의 순기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베이컨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 베이컨,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염증에 항상 해롭다. <br/> <br/> <br/> <br/> 9. 가당 요거트향이나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의 경우는 괜찮지만 과일향이 섞인 달콤한 요거트라면 멀리해야 한다. 요거트 제조업자들이 다양한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시럽과 설탕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트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여 먹는것이 최선이다.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1.txt

제목: 비소세포성 폐암 3기 생존율 높이는 치료 전략 나왔다  
날짜: 201603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5114211725  
본문: 폐암 수술한 환자는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선이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데,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아주대학교병원 폐암센터팀(이현우·노오규 교수)은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3년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후 방사선과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치료성적과 예후인자를 분석했다. <br/> <br/>분석 결과 전체 105명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2%이었고, 이중 수술 후 방사선치료만 받은 62명의 5년 생존율은 29.2%, 방사선치료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받은 43명의 5년 생존율은 61.3%였다. <br/> <br/>비소세포성 폐암 3기 한자의 수술 후 보조적 치료 종류에 따른 5년 생존율 비교 <br/>비소세포성 폐암 3기는 수술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그러나 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은 수술 후에도 미세하게 암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는 전략을 적용해 왔다. <br/> <br/>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를 나중에 한 다른 연구들에서 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내지 47% 정도로 보고되는 것과 비교할 때 아주대병원의 61.3%는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br/> <br/>아주대병원 이현우(왼쪽), 노오규 교수. <br/>이에 대하여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노오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3기 비소세포성 폐암의 재발을 막는 보조적 치료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던 아주대병원 폐암센터팀의 치료 전략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br/> <br/>이어 "연구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아주대병원의 폐암치료, 즉 진단과 수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치료성적이 국제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1일 미국의 권위 있는 방사선종양학회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and Physics (IF=4.252)에 '비소세포성 폐암 3기 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투여 전략(Radiation therapy-first strategy after surgery with or without adjuvant chemotherapy in stage IIIA-N2 non-small cell lung cancer)'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br/> <br/>한편 폐암은 2013년 국내에서 2만3177명의 새로운 폐암환자가 발생하여 네번째로 흔한 암이다. 그러나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1만7440명으로 암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상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br/> <br/>폐암이란 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현미경적으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폐암 중 약 85% 이상은 비소세포 폐암이고,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 주로 3기A까지는 수술적 치료, 3기A 일부와 3기B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병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4기 혹은 재발한 경우는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이 기본적인 치료가 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2.txt

제목: 로봇 의사·손해사정인 시대 온다  
날짜: 2016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4203103206  
본문: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의사, 관제사도 사라질 위험이 높다.’ <br/> <br/>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이후 미래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직군에 속하는 의사, 관제사 등도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화가와 조각가, 사진가 등 예술 분야 관련 직업은 인공지능 발달에도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 <br/> <br/>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6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등으로 직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미래 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 교수가 제안한 분석 모형을 활용했다. 직업별로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지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는지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술과 관련된 일인지 등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 <br/> <br/>연구 결과 직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 1∼5위는 콘크리트공, 정육·도축원,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은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br/> <br/>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꼽는 손해사정인(40위), 일반의사(55위), 관제사(79위) 등도 비교적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업무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지적 업무도 인공지능의 대체 가능 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환자 진단과 약 처방 등에서 일반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암 진단률 정확도가 인간 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밀한 수술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의사의 직무대체 확률은 338위로 낮았다. <br/> <br/>손해사정인은 인공지능이 수리적 계산에 뛰어나다는 점에서 직무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제사 역시 비행기 이착륙 순서나 비행기간 거리 유지 등에서 인간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br/> <br/>반대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직업은 화가·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연주자 및 작곡가,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들이었다. 연예인·스포츠매니저, 판검사, 변호사 등도 직무대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또 직무대체 위협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생애진로 개발 전문가’ 양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br/> <br/>박가열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올 초 다보스포럼에 나온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 직무 대체는 2020년 전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심으로 시작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담당하게 될 직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3.txt

제목: 서울대암병원‘개원 5주년 기념 음악회’개최  
날짜: 2016032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4164559190  
본문:   <br/> <br/> <br/>서울대암병원이 3월 23일(수) 낮 12시 3층 로비에서 개원 5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서울대암병원은 개원 이후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후 환자가 겪는 모든 과정을 배려하는 새로운 암 치료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번 음악회는 5년 동안 서울대암병원이 이룬 성과를 축하하고 암병원에 신뢰와 응원을 보낸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음악회는 서울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합창단인 ‘한국비너스회 합창단’의 특별공연으로 시작됐다. 합창단은 △‘모세다데스, 그대 있는 곳까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암과 싸우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br/> <br/>이어 비영리 예술·교육단체 ‘이노비’의 황순빈(바이올린), 이진성(피아노)이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1악장’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몬티 ‘차르다시’ 등을 통해 바이올린의 매력을 선보였다. 역시 ‘이노비’에서 활동 중인 양지영(소프라노), 홍명신(피아노)은 △슈만 ‘헌정’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의 성악곡을 선사했다. <br/> <br/>한편, 이날 음악회는 개원 5주년 기념음악회이자 75번째 병원 음악회로 열렸다. 서울대암병원은 개원과 함께 ‘암병원 음악풍경’이라는 이름의 음악 공연을 통해 환자와 가족, 내원객들에게 정서 안정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총 75회의 음악회 동안 540여명의 재능기부 문화자원봉사자가 본 음악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br/> <br/>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5년 동안 우리 병원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신뢰 덕분이다. 서울대암병원은 2016년 개원 5주년을 맞아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질병은 물론 환자의 삶까지 돌보는 암 치료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4.txt

제목: 국립암센터, 고양시와 재가 암환자 돕기 나서  
날짜: 20160324  
기자: sdk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4164437110  
본문: 국립암센터가 23일 경기도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와 지역 내 암 환자 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r/> <br/>24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암센터와 고양시는 지역내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의 보건소 등록 활성화, 재가 암 환자의 상담 및 교육, 가정 호스피스 지원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r/> <br/>이강현 암센터 원장은“<span class='quot0'>이번 협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 내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span class='quot1'>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재가 암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국립암센터는 의사와 호스피스 가정전문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가정간호팀을 설치, 지역사회 내 재가 암 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특수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5.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SW R&D 성과, 시간이 필요하다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205959006  
본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이 끝나고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지능정보 분야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포스트 스마트폰시대를 견인할 신동력을 찾아헤맨 지 2년여다. 이 난세에 이세돌은 1200개 중앙처리장치(CPU)로 무장한 기계와의 대결에 몸을 던지면서 대한민국 정보기술(IT) 방향을 단번에 정리했다. 바로 AI다. 쎈돌 이세돌은 IT 분야의 ‘프랑스를 구한 영웅’ 잔다르크다. 칠흑 어둠이 순식간 개명천지가 됐다. 늦었지만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결정을 환영한다. <br/> <br/>이번 우리나라를 뒤흔든 AI 기술은 세계적인 IT 기업 구글의 미래전략 중 지극히 일부분이다. 구글은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이제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3년 12월에는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등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는 나귀같이 생긴 로봇 ‘빅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한 달 후인 2014년 1월에는 홈 오토메이션 회사 ‘네스트랩’을 3조4000억원에 인수한다. <br/> <br/>원유집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그리고 같은 달 구글은 베일에 싸인 회사 하나를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대략 6000억원이었다. 50명 규모의 회사 가격치고는 꽤 비쌌다. 창업자 단 세 명 영입을 위해 6000억원을 베팅했다는 사실은 더 놀랍다. 이 회사가 구글기업 가치를 58조원 상승시킨 알파고 개발사 ‘딥마인드’다. 구글은 수명 연장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자회사 ‘칼리코’를 통해 암과 알츠하이머와의 전쟁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연구소 설립투자안을 발표했다. 노화방지, 청정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 등 ‘보다 나은 삶’이라는 거시적인 비전하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의 지능정보기술(AI 개발 SW로 대표되는 ‘지능’에 빅데이터 등 ‘정보’를 결합한 것) 1조원 투자가 발표된 이즈음 진짜 중요한 숙제가 남았다. 투자 효율의 극대화이다. 우선 선행돼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에 적합한 제도,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교육에의 투자다. 이제까지 SW R&D는 단기성과에 급급해 왔다. 이는 1960년대식 제조업 패러다임이다. 로드맵 설정, 중간보고, 연말보고, 예산 적정집행 확인 등 계속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들추고, 뒤집는다. 초미세관리와 경직된 제도하에서 정부의 야심찬 지능정보분야에의 투자가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스럽다. 50년 이상의 관(官) 주도 산업화, 그 성공의 끝자락에는 불행히도 비대한 규정과 기존기업의 기득권 카르텔만 남았다. 6000억원짜리 딥마인드를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기업 육성 에코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 <br/> <br/>초일류기업의 R&D 투자 및 인수합병(M&A) 규모는 우습게 수천억원 단위를 넘나든다. 투자규모면에서 우리네 R&D가 객관적 화력에서 크게 열세다. 다행히도 SW분야의 R&D는 투자규모의 전쟁이 아니다. 승산이 있다. SW분야는 천재 1명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모나리자’도, ‘전쟁과 평화’도 모두 한 명의 작품이다. 음악·미술·문학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SW와 본질적으로 특성을 같이한다. 제대로 된 SW 교육과정과 R&D 프로세스, 창업 에코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수백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투자는 그다음이다. <br/> <br/>SW교육 돌풍이 불고 있다. 초중고에서 SW가 정규교과목으로 편성되고, SW교육에 특성화된 대학 커리큘럼이 생겨나고 있다. 수년 후 SW 유전자로 프로그래밍된 특전사급 인력이 사회로 배출될 것이다. 유능한 인력을 조직의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책입안자, 경영자, 관리자의 몫이다. 두세 번씩 확인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좌불안석 뒤집는 것은 그만하자. SW R&D 성과를 위해서라면 이제 충분히 시간을 주고, 믿고 맡기고, 기다려 보자. <br/> <br/>원유집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6.txt

제목: 건보 보장 커진 ‘4대 중증질환’ 환자 반색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95938343  
본문: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명수(69)씨는 지난해 5월 암이 재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2001년 간암에 걸려 간 절제술을 받은 뒤 두 번째 재발이었다. 처음 재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간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병원은 “이미 한쪽 간을 절제해 다른 시술은 불가능하다“며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양성자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막대한 진료비(1700만원)가 문제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렸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9월부터 양성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이로 인해 1700만원이던 치료비는 100만원대로 내려갔고 김씨는 마침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br/> <br/>그는 “막막했는데 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나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새삼 고마웠다”고 말했다. <br/> <br/>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로 혜택을 받은 건보 가입자는 지난해 상반기 139만명에 달한다.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이 나온 이후 7∼12월에는 143만명, 지난해에는 18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br/> <br/>질환별 혜택 인원은 암이 △2013년 하반기 81만1631명 △2014년 99만9500명 △2015년 상반기 76만1855명이다.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은 △1만5056명 △3만1380명 △1만5725명, 심장질환은 △3만7374명 △8만680명 △3만1152명, 희귀난치성질환은 △56만7743명 △68만1633명 △58만2193명이다. <br/> <br/>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의료에 순차적으로 건보를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개 항목, 2014년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보를 적용하거나 기존 적용 기준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의 경우 약값은 한 달 기준 450만원이었으나 23만원으로, 캡슐내시경 검사의 환자 부담액 130만원은 10만7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환자 비급여 부담은 2012년 1조119억원에서 2014년 5775억원으로 42.9%(4344억원)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등이 필요해 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를 추진해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r/> <br/>김유나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7.txt

제목: "병원비 없어 인두로 암을…" 병 때문에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인  
날짜: 2016032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35502704  
본문: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시민들은 그녀의 남편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br/> <br/>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산둥성 허쩌시에서 아버지와 사는 딩젠(28)의 사정을 전하며 그녀의 남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지난 2014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딩젠. 남편은 그녀가 병에 걸리자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은 남편에게 아내를 돌보라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법원에 ‘감정분석’을 요구하며 아내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br/> <br/>1만 5500위안 우리 돈 276만원 때문에 그는 부부의 연을 저버린 것으로 딩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접시닦이를 하며 1500위안(약 26만 7000원)을 벌을 수 있었던 것과 의료보험이 적용된 것으로 이나마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친척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br/> <br/>하지만 비극은 암이라는 더 큰 시련으로 찾아오고, 그녀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br/> <br/>그녀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던 그녀였지만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또, 백혈병 치료로 30만 위안(약 5345만원)을 빚진 터라 상실감과 고통은 그 무엇보다 커 그녀와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암을 태우겠다며 달궈진 인두로 아픈 부위 태우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다. <br/> <br/>그녀는 이 같은 행동은 '체온이 40도 이상 되면 암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생각을 해서다. 하지만 이는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딩젠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br/>그녀의 사연이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후 여성단체의 도움과 경찰 수사로 현재 남편이 거주지를 찾아냈지만, 해당 시는 “남편의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시에서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편을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8.txt

제목: 이혁상 인제학원 이사장, 함춘대상 수상  
날짜: 201603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11402631  
본문:   <br/> <br/> <br/>이혁상 학교법인 인제학원(인제대학교·백병원) 이사장이 제17회 함춘대상을 수상했다. 3월 22일 오후 6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이혁상 이사장은 뛰어난 학술연구활동을 통해 의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 상을 받았다. <br/> <br/>이혁상 이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성인 간이식을 시행, 간외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사회적으로는 뇌사인정 계기가 되어 국내 이식 활성화에 공헌했다. 또 1970년대 초대량 간 절제, 제한된 간 절제 등 새로운 간 수술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당시 국내 남성 암 빈도 2위인 간암의 외과적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학문적 성과와 함께 국제소화기외과학회, 아사이간담췌학회, 아시아이식학회 위원장을 맡아 국내 개최를 이끌어내는 등 국제교류 증진에도 기여했다. 더불어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초대회장,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회장, 간이식연구회 회장, 미국외과학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발전에 공헌했다. <br/> <br/>이혁상 이사장은 "새로운 간 수술방법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데 매료되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생 재미있게 부지런히 외길로 공부해 왔을 뿐인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돼 한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br/> <br/>이날 시상식에는 김용익 국회의원, 권이혁(서울대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서울의대 동창 3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함춘대상은 서울의대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와 사회, 의료계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회원을 선정, 상패와 순금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br/> <br/>이혁상 이사장은 196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29.txt

제목: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2016 후기입학설명회 개최  
날짜: 20160323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02156094  
본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강현)는 오는 26일 오후 1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10층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br/> <br/>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전형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전반적인 학교 소개뿐만 아니라, 개별면담 및 재학생과의 Q&A 세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국제적 암 관리 및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14년 3월에 개교하여 지난 1월 1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기존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암 중심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강의는 100% 영어로 진행한다. <br/> <br/>또한 쾌적한 기숙사, 폭넓은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br/> <br/>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2016학년도 후기 전형 모집 전공은 석사과정의 암관리정책학과와 시스템종양생물학과이다. 원서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일정 및 지원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0.txt

제목: 부곡온천축제 4월 1일부터 열려  
날짜: 20160323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3100156905  
본문: 경남 창녕군은 제23회 부곡온천축제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곡온천 관광특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br/> <br/>올해는 오감만족이란 주제로 시각과 후각, 촉각, 미각 그리고 청각의 5가지 테마 콘텐츠로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br/> <br/>부곡온천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온정제를 비롯하여 인기 가수 남진, 히든싱어 가수와 마술, 각설이 공연에 불꽃놀이까지 펼쳐질 개막식은 다양한 볼거리로 넘쳐난다. <br/> <br/>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부곡온천수로만 가능한 온천수에 삶은 계란 먹기대회와 온천수 빨리 식히기대회 등 특색있는 체험행사와 황토 노천탕 속 보물찾기, 전통놀이 경연대회 및 사생대회 등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br/> <br/>부곡온천은 1973년 고(故) 신현택 옹에 의해 발견되어, 국내 최고의 수온 78℃로 유황 성분을 지녀 피부 노화 억제와 미용효과가 뛰어나며, 당뇨와 암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인체내 활성산소 제거(항산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1.txt

제목: 당장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날짜: 20160322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2172020234  
본문:    <br/> <br/> <br/>‘사랑을 하면 달라진다’는 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이다. 사랑을 하면 외모뿐 아니라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숱하다. 해외 매체 리틀띵스가 최근 사랑이 주는 10가지 이점을 소개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연애를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br/> <br/> <br/> <br/>1 장수할 수 있다 <br/> <br/>1970년대 이후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했다. 암에 걸리는 비율도 낮았다. <br/> <br/> <br/>2. 눈이 예뻐진다 <br/> <br/>사랑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성적 호르몬은 동공을 확장시킨다. 크게 확장된 눈동자를 갖게 되는 것. 이는 마치 강아지의 눈처럼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br/> <br/> <br/>3. 입술이 도톰해진다 <br/> <br/>반짝이는 눈과 함께 도톰한 입술은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다. 사랑을 하면 앞서 말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입술도 도톰해진다. 성형 수술이나 메이크업이 필요치 않다. <br/> <br/> <br/> <br/>4. 머릿결이 좋아진다 <br/> <br/>이뿐만이 아니다. 호르몬은 머릿결에도 생기를 부여한다. 푸석푸석 갈라진 머릿결에 윤기가 흐를 것이다. <br/> <br/> <br/>5. 생기가 돈다 <br/> <br/>스킨십 등 육체적인 관계를 정기적으로 맺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 이 덕분에 피부색이 밝아지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넘치게 된다. <br/> <br/> <br/>6. 에너지가 넘친다 <br/> <br/>사랑을 시작한지 며칠 만에 매사에 의욕이 넘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사랑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육체적인 사랑은 운동 효과를 낸다. 결과적으로 사랑은 여러모로 에너지 레벨을 높여준다. <br/> <br/> <br/>7. 젊어 보인다 <br/> <br/>인생의 봄날은 사람을 회춘하게 만든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없애주진 못한다. 다만, 긍정적인 행복감은 분명히 극대화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웃었던 어렸을 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br/> <br/>한 연구에 따르면 평소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젊게 느낄뿐더러 실제로도 젊어 보인다. ‘동안’의 비법은 역시 사랑이다. <br/> <br/> <br/>8. 관대 해진다 <br/> <br/>사랑은 연인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게 한다. 이러한 베풂은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다. <br/> <br/> <br/> <br/>9. 스트레스를 완화 한다 <br/> <br/>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나.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털어놓을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함께 고민해줄 이가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특히 남성의 경우 친구, 가족 등에게 말 못하는 스트레스를 연인과 대화하며 풀 수 있다. <br/> <br/>10. 성숙해진다 <br/> <br/>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는 일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이며, 실패한 관계 또한 자기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2.txt

제목: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건강가이드 Check-up U' 창간  
날짜: 20160322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2153941654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이사장,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동석호 교수)는 건강 100세 시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건강가이드 Check-up U' 잡지를 창간했다고 22일 밝혔다.  <br/>  <br/>'건강가이드 Check-up U'는 우수 건강검진기관의 명단과 이용법, 검진 받을 때 유의할 사항, 그리고 새 봄맞이 건강 먹거리와 볼거리 등 다양한 기사를 담고 있다. 특히 창간호에서 특집 기사로 다룬 '소량의 혈액으로 위암·폐암·간암·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과 8대 생활습관병을 찾을 수 있다'는 스마트 암 검진 기사가 관심을 끈다.  <br/>  <br/>아울러 '당신이 만약 암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는 실질적 고민부터 고혈압, 당뇨, 혈압 등 생활습관병의 극복을 위해 '당신의 건강지수를 알자'는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건강 정보를 다루고 있다. 또한 ‘라이프&컬처’에서는 분야별 사회 최고의 전문 칼럼니스트 이야기를 담는다.  <br/>  <br/>주요 내용으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안세영 교수의 ‘다시 읽는 동의보감’, ▲최혁재 약학박사의 ‘위약 이야기’,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의 ‘이 봄에 추천하는 주꾸미와 조개’, ▲스마트폰 사진작가 김민수의 ‘스마트폰으로 꽃사진을 감각적으로 찍는 법’, ▲김두형 세무컨설턴트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리딩 포커스’, ▲김화성 작가의 ‘강진 힐링투어’, ▲이석우 교수의 ‘겸재 정선의 그림 속 한강 재발견’, ▲닥터뉴스 김영학 대표의 ‘여성 오르가슴 3총사’ 등 유익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3.txt

제목: '중·장년 여성 건강다지기' 공개건강강좌  
날짜: 2016032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2131606002  
본문:   <br/> <br/> <br/>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이 오는 3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4층 강당에서‘중·장년 여성 건강다지기’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br/> <br/>여성들은 신체적 노화와 더불어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해 남성과는 다른 중·장년 여성만의 건강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장년 여성들의 자궁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 스스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br/> <br/>산부인과 이영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여성암 예방법 및 효과적인 검진전략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이근호 교수가, ▲'자궁근종 관리'에 대하여 산부인과 위지선 교수가, ▲'Napro Technology(자연임신출산)'에 대하여 조미진 간호사가 각각 강의한다. 2부에서는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산부인과 길기철 교수가, ▲'폐경기 여성의 여성 호르몬 요법의 허와 실'에 대하여 산부인과 신소영 교수가,▲'중·장년 여성에게 유용한 비타민 보충 요법'에 대하여 산부인과 위정하 교수가 각각 강의한다. <br/> <br/>이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강좌를 통해 중·장년 여성이 흔히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여성 폐경기의 여러 신체 변화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건강하게 이겨 나갈 수 있다</span>”라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4.txt

제목: 유전성 암 검사,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날짜: 20160322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2103008236  
본문:   <br/> <br/> <br/>매년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하는 '암 예방의 날'이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과 조기진단,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br/> <br/>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흔히 예고 없이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 만약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암인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진행한다면 미리 암을 발견할 수 있다. <br/> <br/>♦ 유전성 대장암, 환자의 나이 젊거나 가족 중 대장암 환자 있다면 발병 위험 높아 <br/> <br/>대장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이 유전적 요인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다.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예방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검사하여 질환의 진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전체 대장암 중 약 10%는 유전성 요인이 관여하고 다양한 증후군이 그 원인이 된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린치증후군'(Lynch Syndrome)으로 전체 대장암의 2~5%를 차지한다.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 직장암을 유발하는 린치증후군에는MLH1, MSH2,MSH6,PMS2,EPCAM 등의 유전자들이 관여한다. 린치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장암은 주로 젊은 연령대에 우측 대장에서 발생하고, 동시에 대장암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전병이 없더라도 대장암 환자의 일차 직계가족(부모,형제,자녀)에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1.6~8.0배 높다. <br/> <br/>또 환자의 나이가 젊거나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많을수록 자신의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성 암 감수성’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 위험률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등 각종 질환의 유전성암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암종은 혈액에서 추출한 DNA에서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유전적 결함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종양 위험군 발견, 예방적 조치, 종양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br/> <br/>♦ 유방암•난소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여성들, BRCA검사 가파르게 상승 <br/> <br/>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건수는 ‘유전성유방암?난소암 BRCA1’의 경우 2,258건, ‘유전성유방암?난소암 BRCA2’의 경우 2,232건이었다. 2010년 각각 651건, 59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건수가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녹십자지놈 조은해 전문의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증가율은 90.7%로 세계 1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난소암이 매년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자각증상이나 효과적인 선별 검사가 없어 환자의 절반가량이 3•4기가 돼서야 발견돼 진단이 곧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망률이 아주 높은 암이다"고 전했다. <br/> <br/>그는 이어 "이렇게 위험한 유방암과 난소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전체 유방암 중 약 5~10%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이 같은 유방암 중 70~85%가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인 BRCA1과 BRCA2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족력이 있는 여성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 남자라고 안심은 금물! 남녀 상관없이 50%확률로 유전되는 BRCA유전자 <br/> <br/>BRCA 유전자는 원래 암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그 기능을 잃어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세대를 통해 유전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가 3,060명의 유방암•난소암 환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 72.1%, BRCA2의 경우는 66.3%였고, 70세까지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은 BRCA1과 BRCA2에서 각각 24.6%와 11.1%였다. BRCA 유전자의 변이 여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가족력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모 중 한 명에게 BRCA1 혹은 BRCA2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남녀에 상관없이 50%다. 다만, 남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 확률이 1~10%로 여성에 비해 낮다. <br/> <br/>이에 조은해 전문의는 "최근 여성의 출산 연령 증가와 생명연장으로 건강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며 "유방암과 난소암은 여성의 출산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믿을 만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BRCA유전자의 돌연변이 보유자에게는 암 발생 감시 및 예방적 약물 치료 혹은 절제술 등의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에는 BRCA 돌연변이 양성 난소암 환자에서 표적 치료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NGS장비)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앞으로BRCA 검사를 기존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5.txt

제목: 우리가족 치아건강, 치약으로 시작하세요  
날짜: 2016032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2014051028  
본문:   <br/> <br/> <br/>치약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유해 성분이 없는 천연 치약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고발 등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는 세제나 샴푸 등에 사용되는 합성계면활성제인 SLS나 타르, 파라벤, 사카린 등이 그 원인이다. <br/> <br/>저렴한 가격과 풍성한 거품, 강력한 세척력으로 샴푸, 세안제, 치약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계면활성제는 열과 접촉하면 염산과 황산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축적되면 피부 트러블은 물론 체내 유전자 변형이나 암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치약에 있는 합성계면활성제가 입으로 유입돼 축적될 경우 각종 위장장애와 구내염, 효소기능 저하, 백혈구가 파괴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br/> <br/>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와 아기를 생각하는 아토엔오투에서 출시한 치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치약은 일반용 “옥시젠치약”, 임산부용 “옥시젠마망치약”, 어린이용 “옥시젠키즈치약”의 총 3가지 품목으로 출시되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좋은 치약이다. <br/> <br/>아토엔오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출시되는 아토엔오투 치약 3종은 파라벤, 타르, 사카린, SLS 등 유해 성분들은 배제하고 천연계면활성제와 천연방부제인 천연자몽종자추출물, 천연유래 감미제인 효소처리스테비아, 자일리톨 성분을 사용하는 등 좋은 성분 사용에 중점</span>”을 둔 제품이라고 설명하였다. <br/> <br/>아토엔오투 옥시젠치약은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의 안티프라그 기능과 피리독신염의 잇몸질환 예방, 치아미백과 구강 내 청결, 구취 및 치태제거 등 치아건강에 좋은 아토엔오투 치약에는 녹차추출물, 황금추출물, 카모마일추출물, 세이지추출물, 카렌듈라추출물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민감한 잇몸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br/> <br/> 임산부용 치약인 옥시젠마망치약과 어린이용 치약인 옥시젠키즈치약은 민감한 임산부와 아기들을 위해 불소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유기농 성분인 녹차추출물, 카모마일추출물, 카렌듈라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다. 여기에 양치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치약(옥시젠키즈치약)에는 천연 라즈베리향이 첨가되었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신고 완료 된 옥시젠치약, 옥시젠마망치약, 옥시젠키즈치약은 현재 아토엔오투 홈페이지에서 신제품 출시기념 할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확인 가능하니 가족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6.txt

제목: 정윤철 감독 “20살 되기 전 말기암 판정 받은 BIFF”  
날짜: 20160321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1140805126  
본문: 정윤철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이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신발언을 했다. <br/> <br/>이날 정 감독은 “<span class='quot0'>20년 전 부산 남포동에서 BIFF가 발족됐을 때 저희들은 영화에 뜻을 품은 청년들이었고 이제는 영화계에서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감독들이 돼서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영화감독들에게 요람이 돼줬던 영화제가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말기 암에 걸린 시한부처럼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니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span>”고 속내를 털어놨다. <br/>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감독들은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 사태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제3자이자 불순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는 감독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까지 더 자율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관 개정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정 감독은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집요한 거부와 거절, 집에 소송 서류가 날아들면서 매우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span class='quot0'>감독들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총투표를 거쳐 곧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보이콧’을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span class='quot0'>부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호소를 부산시에서 귀담아 듣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한편 부산국제영화제와 시는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 14일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영화인 68명에 대해 ‘자질 미달’을 이유로 부산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68명의 자문위원에는 영화 ‘암살’을 만든 최동훈 감독, ‘베테랑’ 류승완 감독, ‘말아톤’ 정윤철 감독, ‘집으로 가는 길’ 방은진 감독, 배우 하정우 유지태 이미연 등이 포함돼 있다. BIFF 측과 범영화인들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발언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부산시장의 당연직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관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7.txt

제목: 환자를 위한 인천성모병원의 전인적 노력  
날짜: 201603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1110538067  
본문:   <br/>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 사회사업팀은 지난 16일(수)건강교실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건강교실 웃음치료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최윤희 웃음치료사가 진행한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웃음치료는음악, 스트레칭, 웃음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해 환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건강교실 웃음치료는환자와 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사회,정서,영적에 해당하는 전인적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속•유지 시키고 전인적 치료 중심병원으로서의 그 역할 정립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이강옥 팀장은“<span class='quot0'>건강교실 웃음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호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 및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웃음치료 외에도 암환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과 각종 스트레스 완화 테라피 프로그램인 암환자 힐링 프로젝트’휘파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여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접수는 2016년 3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사업팀으로 사전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8.txt

제목: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 수상  
날짜: 201603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1105552225  
본문: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도전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에 선정된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 <br/>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도전한국인운동본부와 (사)도전한국인운동협회, 대한민국공헌대상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도전한국인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전한국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br/> <br/>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대학병원의 성공적인 서비스 혁신 사례 창출과 해외를 방문하며 대한민국 의료기술을 세계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2016년을 빛낼 도전한국인' 30인에 선정됐다. <br/> <br/>백남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2009년 개원 이후 여성암 병원이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 없는 도전과 혁신 활동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여성암전문병원으로 재도약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도전한국인 운동본부는 △지방자치 △사회 △문화 △예술 △해양 △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도전을 통해 큰 기여를 한 한국인을 발굴하는 상으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매년 수상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39.txt

제목: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4월 암 교육강좌 진행  
날짜: 2016032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1101440085  
본문: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오는 4월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암 교육강좌를 세 차례 진행한다. <br/> <br/>이번 강좌에서는 △유방암 예방과 최신 치료(4월6일 14시, 유방외과 김지영 교수)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4월7일 15시,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4월12일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강의를 통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br/> <br/>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 전 전화로 사전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br/> <br/>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암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1년에 지정한 지역암센터로, 암환자의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치유와 회복'이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0.txt

제목: [설왕설래] 음주수칙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0224415600  
본문: 조선시대 문장가 손순효는 과음으로 실수하는 일도 많았다. 어느 날 성종이 조용히 불렀다. 작은 은잔을 하사하면서 “앞으로 이 잔으로 하루에 석 잔만 마시도록 하라”고 말했다. 얼마 후 성종이 손순효를 만나보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왕이 힐문하자 그는 “하사한 은잔으로 석 잔만 마셨을 뿐”이라고 우겼다. 왕은 그 은잔을 당장 갖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작은 은잔이 커다랗게 변해 있는 게 아닌가. 손순효는 “<span class='quot0'>은잔이 작아 대장장이를 시켜 좀 크게 늘렸다</span>”고 실토했다. 왕이 호탕하게 웃어 넘겼다. <br/> <br/>손순효는 다행히 장수를 누렸지만 유사 이래 술로 단명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세종 때 집현전에는 유명한 주당 셋이 있었다. 신장, 윤회, 남수문은 모였다 하면 밤새 술을 퍼마셨다. 세종이 이들을 불러 “<span class='quot1'>앞으로 절대 석 잔 이상은 마시지 마라</span>”고 엄명했다. 셋은 그 이후 석 잔 이상 술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 사람은 과음으로 차례차례 세상을 떴다. 이들이 양푼 같은 큰 그릇으로 매일 석 잔을 마신 까닭이었다. <br/> <br/>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음주수칙을 바꿨다고 한다. 암 예방 수칙 중 음주 관련 사항을 종전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에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하루 한두 잔의 음주도 간암, 식도암,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해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선 음주를 1군 발암 요인으로 규정한다. 유럽연합은 암 예방을 위해 우리보다 2년 앞서 기존 ‘남자 두 잔·여자 한 잔 이내’에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수칙을 고쳤다. <br/> <br/>과음은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정신 건강에도 암적인 존재다. 추하다는 한자 醜(추)는 酒(술)와 鬼(귀신)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면 결국 산발한 귀신처럼 추한 몰골이 되고 만다. <br/> <br/>탈무드에서도 태초에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자 악마가 찾아와 유혹하는 얘기가 나온다.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피를 섞어 만든 거름을 포도나무에 준다. 그래서 인간은 포도로 빚은 술을 마시면 처음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지나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원숭이처럼 춤을 추다가 마지막으로 돼지처럼 뒹굴며 추해진다고 한다. 우리의 과한 음주문화를 보면 영락없이 탈무드가 말한 그대로다. 마침 올해는 원숭이 해이다. 술 먹은 원숭이가 돼지로 돌변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br/> <br/>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1.txt

제목: 차가버섯으로 우리가족 건강 지키세요!  
날짜: 20160320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0143434134  
본문: 이마트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차가버섯 건강식품을 선보였다. <br/> <br/>20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진행한 사진행사에서 모델들이 시베리아산 차가버섯으로 만든 건강식품 3종을 선보이고 있다. <br/> <br/>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유럽 등 북위 45도 이상 지방에 서식하며,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br/> <br/>이마트는 전국 점포에서 시베리아산 차가버섯으로 만든 건강식품 3종을 선보인다.  <br/> <br/>한편,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3-2-1)를 담고 있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2.txt

제목: 모친 잃고 간호사에 휘발유…의료진 보복범죄로 얼룩지는 中  
날짜: 2016032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20100614282  
본문: 간호사 몸에 휘발유를 붓고 병원 건물에 불을 내겠다며 난동을 피운 중국의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잡힌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뇌 질환으로 어머니를 여읜 뒤 의료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r/> <br/>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산시(山西) 성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 남성이 간호사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br/> <br/>당시 약을 갖고 엘리베이터에 탔던 간호사는 남성의 손에 붙잡혀 바닥에 고꾸라졌다. 남성은 갖고 있던 휘발유를 간호사 몸에 붓더니 라이터를 켜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했다. <br/> <br/>남성을 발견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재빨리 저지해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병원에는 의료진, 환자 병문안 온 사람 등 1000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불이라도 났다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br/> <br/> <br/> <br/>다씨로 알려진 남성은 지난 2월 중순 뇌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고 왔다. 그러나 “잘 보살피겠다”던 의료진의 말과 달리 그의 어머니는 입원 이틀 후 실종됐으며, 인근 강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다씨의 어머니 손목에는 자해 흔적이 있었다. <br/> <br/>다씨 가족은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맞섰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다씨가 간호사에게 휘발유를 붓고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br/> <br/>중국에서 의사나 간호사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br/> <br/>최근 둥(廣東) 성 선전(深?)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폐렴으로 숨진 아기를 위한 추모제를 열고, 담당의사를 추모제에 강제로 끌어들인 현장이 공개됐다. <br/> <br/> <br/> <br/>분노한 유족들은 병원 로비에 불을 피웠다. 담당의사를 끌고 온 이들은 “노잣돈을 아기에게 주라”며 종이돈도 태우게 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r/> <br/>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사실과 유족들이 의사를 압박한 점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다. <br/> <br/>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br/> <br/>작년 6월에는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의 한 병원에서 30대 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 <br/> <br/>탄씨로 알려진 의사는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3.txt

제목: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심평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날짜: 201603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8174840545  
본문:   <br/> <br/> <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올해 3번째로 진행된 심평원의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2014년 전국 185개 의료기관에서 유방암(1~3기)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br/> <br/>평가분야는 ▲전문 인력 구성 ▲유방암 가족력 확인 여부 ▲암 관련 정보 기록 여부 ▲수술 후 적기 보조요법 시행 여부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여부▲방사선 치료 시행여부와 시작 시기 등이며, 심평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 했다. 그 결과 평균 95점 이상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1등급을 받았다. <br/> <br/>국제성모병원은 종합 결과 98.11점으로 1등급을 받았으며, 전체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인 96.56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br/> <br/>유방갑상선센터장 이일균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국내 유방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구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발병률이 높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span>”며“<span class='quot0'>1등급 기관답게 유방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평가 결과 국내에서 유방암은 인구 1만명 당 6~7명꼴로 발병했으며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4.txt

제목: 암 발생에 관여 ‘쉽원 유전자’ 기능 원리 규명  
날짜: 2016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7204754216  
본문: 생명체 내의 각 기관이 적절한 크기가 되도록 조절하고 돌연변이가 생기면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br/> <br/>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최광욱(사진) 교수 연구팀이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게 조절하는 히포네트워크(Hippo Network)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쉽원(Schip 1)이라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고 기능원리를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히포네트워크 유전자가 처음 발견된 초파리를 이용해 쉽원 유전자가 익스팬디드와 타오원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쉽원이 타오원을 세포막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익스팬디드는 쉽원이 적절한 위치를 잡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쉽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분열이 매우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크는 등 암 조직에서 나타나는 여러 형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디벨롭멘탈 셀’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5.txt

제목: 전국 유방암 치료병원 80% 1등급  
날짜: 2016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7193517573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로 ‘유방암 치료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83개 의료기관이 ‘유방암 치료 적정성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18일부터 이 내용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br/> <br/>앞서 심평원은 전국 185개 의료기관 중 유방암 수술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항암제·방사선 치료 등 8개 보조요법 지표 중 최소 5개 이상 이뤄진 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겼다. 평가 항목은 △유방암 가족력 확인 여부 △암 관련 정보기록 여부 △수술 후 적기 보조요법 시행 여부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 여부 △방사선치료 시행 여부 및 시작 시기 등이다. <br/> <br/>104곳의 종합 평균 점수는 96.56점으로, 1등급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종합병원 40곳을 합쳐 총 83곳(79.8%)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경북대병원만 유일하게 1등급에서 제외돼 2등급을 받았다. <br/> <br/>1등급 기관은 △서울권 26곳(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경기권 22곳(경기고대안산병원·아주대병원·길병원 등) △경상권 16곳(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충청권 8곳(단국대병원·충북대병원 등) △전라권 5곳(화순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 등) △강원권 4곳(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강원대병원 등) △제주권 2곳(제주대병원 등)으로 집계됐다. <br/> <br/>2등급 기관은 6곳(5.8%)으로 △서울권 2곳(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차병원) △경상권 4곳(경북대병원·제일병원 등)이다. 3등급은 8곳(7.7%)으로 △서울권 2곳(삼육서울병원·중앙보훈병원) △경상권 5곳(포항성모병원·한마음병원 등) △전라권 1곳(광주현대병원)이다. 이밖에 은평연세병원(서울)과 안양샘병원·박희붕외과의원(경기)은 4등급(2.9%), 정파종외과의원(서울), 광명성애병원·한사랑병원(경기), 천안의료원(충청)은 5등급(3.8%)을 받았다. <br/> <br/>유방암은 갑상선암에 이어 여성에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발생률은 매년 증가 추세다. 유방암 발생률은 2010년 10만명당 58.5명에서 2013년 68.2명으로 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인구 2555만명 중 연간 1만7000명이 진단을 받았다. <br/> <br/>환자 연령대는 40대가 35.2%로 가장 많았고, 50대(31.1%)가 뒤를 이어 40대와 50대가 전체 환자의 66.3%에 달했다. 이밖에 60대 13.5%, 30대 10.6%, 70대 7.0% 순이었다. 유방암 수술 당시 상태는 1기 45.3%, 2기 39.8%, 3기 14.9%로 전체 환자의 85%가 비교적 조기인 1∼2기에 수술을 시행했다. <br/> <br/>심평원은 “<span class='quot0'>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유방암 진료가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하위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6.txt

제목: 차병원, 최고 명의 영입 hospital in hospital 진료 개막  
날짜: 2016031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7145438673  
본문: 분당차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수곤 교수, 외과 정상설 교수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최근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각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스타급 의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자 분당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영입한 이수곤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 내과장 및 내과부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질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내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br/> <br/>이수곤 교수는 특히 연구에서 두각을 보이며 류마티스학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임상의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해마다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기관 임상시험들과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류마티스학의 기초 연구와 첨단 치료법의 개발에 노력해왔다. <br/> <br/>이수곤 교수는 분당차병원에서 류마티스학에 있어 학문적인 공헌뿐 아니라 내과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서 유능한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br/> <br/>한편, 분당차병원 유방/갑상선암센터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한 정상설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성모병원 수련교육부장, 외과 과장 및 주임교수 등을 거쳤으며, 한국유방암학회 초대 이사장, 대한임상종양학회 이사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br/> <br/>현재까지 약2,000례 이상의 유방암 수술건수를 진행한 정상설 교수는 국내 최초로 유방암 호르몬 수용체 검사실 개설, 유방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암 조직만 절제하는 유방보존술 국내 최초 도입, 유방암 조기 진단 시약 ‘브레첵(BreaCheck)’ 개발 등 풍부한 임상경험 못지 않은 다양한 연구업적으로 유방암 치료를 선도하고 외과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br/> <br/>정상설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의 의료 트랜드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의료로 변화할 것</span>” 이라며, “<span class='quot0'>분당차병원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치료와 바이오 정밀의학 연구에 매진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 <br/> <br/>김동익 분당차병원장은 “<span class='quot1'>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스타급 의사의 영입으로 각 진료과를 전문병원화하는 hospital in hospital을 실현하는 원년 삼아 향후 분당차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시킬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7.txt

제목: [설왕설래] 테레사 수녀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213343882  
본문: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는 1910년 마케도니아 스코페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던 어머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말없이 해라. 바닷물에 돌을 던지듯 말이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의 인생 좌표가 됐다. 18살 때 수녀가 된 뒤 인도 콜카타에서 교사로 봉직하다가 1946년 기차 여행 중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다. “<span class='quot0'>성서를 펴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폐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다</span>”고 회고했다. “<span class='quot0'>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span>”(마태복음 25장 40절) <br/> <br/>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을 나와 빈민가로 들어갔다. 수녀복을 벗고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사리(인도 여성 전통의상)를 입었다. 콜카타의 여성 청소부들이 입는 옷이다. 인도 국적을 얻고 ‘사랑의 선교회’를 열어 빈민 구호 활동에 전념했다. 테레사 수녀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이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br/> <br/>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힘들고 더러운 일이 그의 몫이었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참된 거룩함은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항상 미소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이 테레사 수녀의 성인(聖人) 추대를 승인했다고 한다. 테레사 수녀가 선종한 지 19년 만이다. 9월4일 시성식이 열린다. 가톨릭 규정에 따라 암환자와 뇌종양환자의 치유를 기적으로 내걸었지만 이 때문에 성인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헌신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에 관한 책을 쓴 인도 사회활동가 T T 문다켈은 “<span class='quot1'>그는 소박한 수녀였고 소박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span>”고 했다. <br/> <br/>테레사 수녀는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다. “<span class='quot0'>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를 낸다.</span>” 테레사 수녀의 철학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그의 묘비에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다. “<span class='quot0'>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span>”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그의 숭고한 뜻이 가슴에 와닿는다. <br/> <br/>박완규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8.txt

제목: 골수성 백혈병 억제 ‘TET 단백질 유전자’ 발견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212351896  
본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부 고명곤(사진) 교수 연구진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br/> <br/>고명곤 교수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TET(Ten-eleven-translocation)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강력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TET 단백질은 DNA에 작용하는 효소로 전체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을 조절한다. 연구진은 TET 단백질과 암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쥐로 실험을 했다. 생쥐에게서 TET 단백질 두 종류를 동시에 없앴더니 1주일 이내에 암 징후가 관찰됐고, 4∼5주 안에 악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폐사했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TET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0'>이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나 활성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연구진은 TET 단백질이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암 억제 역할을 하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명곤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는 후성유전학적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49.txt

제목: 전 세계 한 해 대기오염으로 820만명 사망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94946538  
본문: 전 세계적으로 한 해 820만명이 대기오염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1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는 수질·토양오염, 화학물질 노출,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 요인에 의한 전체 사망자(1260만명)의 65%를 차지했다. 대기오염이 여러 환경요인 중 생명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012년 환경요인에 의한 뇌졸중 사망자(250만명)의 25%, 암 사망자(170만명)의 19%, 심장질환 사망자(230만명)의 18%는 대기오염이 주요 발병 원인이었다. <br/> <br/>5살 미만 유아의 사망 원인 1위인 급성 하기도 감염증 사망자의 65%도 대기오염에 의해 발병됐다. 급성 하기도 감염증은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등 폐의 하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지난해 환경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5살 미만 유아는 590만명에 달했다. 하루 1만6000명의 아이들이 환경 질환으로 숨지는 상황이다.  <br/> <br/>2012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환경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라오스(32%), 북한(31%), 중국(30%), 인도(30%), 니제르(28%), 콩고(27%), 몽골(27%), 아프가니스탄(26%), 스리랑카(25%) 순이었다. 중국, 인도 등은 급속한 산업화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앓고 있다. 라오스, 북한, 니제르 등은 가난으로 인한 비위생적 생활이 사망자 비율을 끌어올렸다. WHO는 “<span class='quot0'>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손씻는 습관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대륙별로는 개발과 빈곤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환경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38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태평양 지역(350만명), 아프리카(220만명), 유럽(140만명)이 뒤를 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85만4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br/> <br/>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1'>생활 환경과 노동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 없이는 수백만명이 병에 걸리고 조기에 사망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0.txt

제목: ALK양성폐암 차세대 표적치료제 임상결과“효과적”  
날짜: 201603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92808110  
본문: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 <br/>표적항암제 세리티닙(ceritinib)이 ALK 양성 폐암환자에서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뇌전이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김동완 교수가 1저자로 발표한 이 논문은 11개국 20개 병원에서 ALK 양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ASCEND-1’ 연구의 최종분석 결과이다. <br/> <br/>이 논문은 종양학분야 주요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 IF=24.690) 최신호(3/11, 온라인)에 게재됐다. <br/> <br/>연구진은 진행성 ALK 양성 폐암 환자 246명에게 차세대 ALK 억제제인 세리티닙 750mg 을 매일 투여해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br/> <br/>그 결과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72%에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였던 환자에서도 56%에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종양반응의 지속기간은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17.0개월, 이전에 다른 ALK 억제제를 복용했던 환자에서도 8.3개월로 치료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70% 내외의 환자에서 뇌전이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br/> <br/>세리티닙 치료의 흔한 부작용은 설사, 메스꺼움, 간효소수치 증가 등이 있었다. <br/> <br/>김동완 교수는 이 결과가 "전체 폐암환자의 5%를 차지하고 있는 ALK 양성 폐암환자에서 차세대 ALK 억제제 세리티닙이 기존 ALK 억제제에 내성을 보인 환자에서 효과적이며 첫 치료제로서도 우수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며 “뇌전이 환자에서의 효과를 확증하기 위한 2상 연구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br/> <br/>폐암은 2010년 국내 발생 암 환자(202,053명) 중 4위(10.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흔한 암이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19.7%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나빠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br/> <br/> ALK 양성 폐암은 ALK 유전자가 EML4 유전자와 융합되는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이다. 두 유전자가 융합되면 평소 잠잠하던 ALK 유전자가 갑자기 세포의 성장속도를 급속히 높이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신호를 받은 세포는 암세포로 변한다. 세리티닙은 ALK 유전자 신호를 차단하여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1.txt

제목: 건강100세를 위한 생활수칙 10가지는?  
날짜: 201603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85124701  
본문:   <br/> <br/> <br/>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한 요즘, 100세 시대가 두려운 이들도 많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100세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생활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심폐기능을 높여라 <br/>심폐기능을 높이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숨을 헐떡일 수 있을 강도의 운동이 좋다. <br/> <br/>◇담배를 끊어라. <br/>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폐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금연하는 것이 좋다. <br/> <br/>◇자연식을 먹어라. <br/>이제는 메디컬 푸드의 시대이다. 정제된 비타민이나 영양소보다는 자연식을 통해 얻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훨씬 좋다. <br/> <br/>◇과로를 피하라. <br/>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하는데, 과도한 코르티솔은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또한 몸에 열이 쌓이게 하는데, 폐에 쌓인 적열은 폐기능 감소의 원인이 된다. <br/> <br/>◇술은 적당히 마셔라. <br/>성인 남녀 기준 하루 30g 이상의 음주는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소주 3잔, 맥주 3잔에 달하는 용량으로, 간헐적으로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경우 알코올 간질환이 증가한다. <br/> <br/>◇잠을 충분히 자라. <br/>지난 3월 18일은 세계 수면의 날이었다. 그만큼 의학계에서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할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br/> <br/>◇규칙적으로 식사하라. <br/>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할 경우, 지방분해가 잘 되지 않아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칙적인 아침식사 만으로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br/> <br/>◇꾸준히 운동하라. <br/>현대인은 움직임이 부족하다. 꾸준한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시켜 준다. <br/> <br/>◇맑은 공기를 마셔라. <br/>산이나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 껏 마셔라. 깊게 호흡을 하면서 온 몸에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br/> <br/>◇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br/>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좀 더 느긋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 정신질환 등에 걸릴 위험성을 높인다. <br/> <br/>서효석 원장은 “<span class='quot0'>건강 생활수칙 10가지를 잘 지켜서 각종 질환과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 며 “<span class='quot0'>폐를 깨끗이 하는 청폐치료로 폐건강을 강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span>”라고 전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2.txt

제목: 아기 추모제에 무릎 꿇은 의사…유족의 폭력일까  
날짜: 2016031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32641149  
본문: 폐렴으로 아들을 잃은 중국의 한 부부가 담당의사를 추모제에 강제로 끌어들인 현장이 공개됐다. <br/> <br/>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14일 광둥(廣東) 성 선전(深?)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아기를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br/> <br/>왕 무제는 생후 10개월로 폐렴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왔으나 전날 사망했다. <br/> <br/> <br/> <br/>분노한 유족들은 병원 로비에 불을 피웠다. 강제로 담당의사를 끌고온 이들은 “노잣돈을 아기에게 주라”며 종이돈도 태우게 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r/> <br/>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사실과 유족들이 의사를 압박한 점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진 내용은 없다. <br/> <br/> <br/> <br/>중국에서 의사가 환자가족의 폭력에 노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br/> <br/>지난해 6월에는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의 한 병원에서 30대 암환자가 담당 의사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 <br/> <br/>탄씨로 알려진 의사는 전신 3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환자는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3.txt

제목: 현대차 노조, 공장 내 발암물질 조사 나서  
날짜: 20160316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32415499  
본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국에 흩어진 정비공장과 전주·아산공장에서 발암물질을 조사한다. <br/> <br/>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부터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br/> <br/>조사대상은 전국의 24개 정비공장과 전주, 아산공장이다. 노조는 이를 위한 예산 3000만원을 확보, 발암물질 사용 이력을 조사를 맡을 연구소나 단체 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br/> <br/>선정된 연구소 등은 현지조사, 해당 공장 근로자 인터뷰, 근로자의 산업재해 자료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료를 토대로 1990년대 공장에서 주로 사용한 물질 가운데 어떤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조사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br/> <br/>노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매년 암 발병 근로자가 50명에 이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조사가 직업성 암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고,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4.txt

제목: 심장 질환 사망 증가 '주춤', 심부전 사망 약 3배 '급증'  
날짜: 2016031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13321306  
본문:   <br/> <br/> <br/>심장 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별 사망 확률 추이를 보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남녀 사망률은 최근 10년 간 (2004~2014) 각 2.6%, 4.3% 소폭 증가했다. 연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미비한 수치인데 심장 질환 가운데 유독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다양한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부전'이다. <br/> <br/>♦ 심장 질환 사망자 수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심부전 사망자 수만 급증 <br/> <br/>통계청이 발표한 '2014 주요 사망 원인'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다. 심장 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 중 심장기능상실로 불리는 심부전(心不全)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 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사망자 수는 다른 심장 질환 대비 높지 않지만 10년 간의 증가세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대표적 심장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br/> <br/>심장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지난 10년 간 사망자 수가 9.5%,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은 11.5% 증가했다. 10년 전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절반에 불과했던 심부전 사망자수가 2014년에는 고혈압성 심장병 사망자수의 2배 가까이에 달하는 등 심부전이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가 위중 질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br/> <br/>♦ 심부전 5년 생존율 35~50%, 심근경색 5년 생존율보다 낮아 <br/> <br/>심부전이 특히 위중한 이유는 5년 생존율이 남자 35%, 여자 50%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사망률과 25%에 달하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등 질환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심근경색의 5년 생존율이 73.1%인 점을 고려하면 낮게는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국내 심부전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러한 심부전의 좋지 않은 예후와 심장 질환자 증가, 이에 따른 심부전 발병률 증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r/> <br/>또한 심부전은 잦은 응급실 방문과 높은 재입원율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하다. 최근 국내 최초로 실시된 심부전 환자의 입원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성 심부전 환자의 연간 의료비는 외래 약값을 제외하고 약 697만 원이었고, 입원 진료 비용은 약 666만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95%를 차지했다. 이는 폐암보다도 약 3배 높은 비용이다. 또한 심부전의 증상으로 호흡 곤란, 부종,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체 활동인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히 떨어뜨려 관절염, 우울증이나 만성 기관지염보다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br/> <br/>심부전은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체내 대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혈액 공급 문제, 심장 근육의 손상, 또는 심장의 부하증가 등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의 진행 과정들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의 마지막 단계(end result)에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아 '심장 질환의 종착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만성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입원 및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br/> <br/>♦ 심부전 심각성 인지 못해 인지도 미비, 대국민 및 사회적 차원의 관심 필요 <br/> <br/>국내 심부전 환자와 사망자 수 급증 및 의료비 부담 급증에 비해 국내 심부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장재단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심부전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9명은 심부전을 위중한 질환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 환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논의도 미비하다. ‘심뇌혈관 예방 관리 주간’ 지정 및 각 지역 내 11개의 권역 심뇌혈관센터 운영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 캠페인과는 차이를 보인다. <br/> <br/>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회장 전은석 교수는 "심부전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으로, 초고령화 국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에서 심부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심장 질환 생존자가 증가하면서 다른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심장 질환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심부전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 당뇨, 흡연 및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를 통해 사망률과 재입원율 등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질환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5.txt

제목: 폐암예방수칙, 금연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날짜: 201603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6102240025  
본문:   <br/> <br/> <br/>오는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예방수칙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 암중에서도 폐암은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한 번 걸리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해 종괴를 형성하고, 인체에 해를 미치는 폐암을 유발하여 폐뿐만 아니라 임파선, 혈액을 통해 온봄으로 전이될 수 있다. <br/> <br/>폐암은 죽음을 면키 어려운 무서운 병이지만 알고 보면 예방은 쉽다. 우리 몸에는 하루 4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 세포 유전자가 제 할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면역력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평소의 작은 증상으로 알 수 있다. 평소 감기가 잘 걸리는 이들은 면역력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감기를 잘 막아내는 면역력은 암 역시 잘 막아낼 수 있다. 면역력은 편도가 튼튼해야 강해질 수 있으며 편도는 폐가 건강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이로 인해 폐가 튼튼하면 감기는 물론 폐암에도 걸리지 않게 될 수 있다. <br/> <br/>폐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금연이다. 담배는 4000종의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발암물질만 60종 이상으로 폐암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우선 금연을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연클리닉이 있으므로 방문해서 금연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면 체내에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을 폐에 남긴다. 이를 적열이라고 하는데, 적열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적열을 제거해야 폐의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편도 역시 튼튼해질 수 있다. <br/> <br/>폐에 좋은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성초나 영지 등이 폐암에 도움이 되는데, 고농축 보다는 차처럼 연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 끓일 경우 폐암에 좋은 성분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15분 이내로 끓이는 것이 좋다. 과다한 복용은 심장마비 등의 증상을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한다. 영지는 모든 호흡기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br/> <br/>서효석 원장은 “폐기능 향상을 위해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차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폐기능이 많이 약화된 경우이니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며 “폐를 깨끗이하는 청폐치료로 폐기능을 강화시키면 면역력 또한 좋아져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 조언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6.txt

제목: 알파고 통해 실력 과시, 미래 먹거리 선점 나서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4184603863  
본문: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을 이끌고 있는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의 공연장 ‘젤러바크 홀’ 무대에 올라 이 대학 학생, 교직원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인공지능(AI)에 관한 구글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면서 “‘로봇이 뭘 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하면 가장 흔히 나오는 답이 ‘요리를 해 가져오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일 같지만 (로봇에게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상에서 인류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해줄 로봇이 등장하려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해 관련 난제를 해결할 AI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이다. <br/> <br/>이세돌 9단(가운데)이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를 상대로 한 세기적 대국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오른쪽),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손을 맞댄 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구글은 AI 알파고를 앞세워 세계 정상급 바둑기사 이세돌 9단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가 출현할 가능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br/> <br/>구글은 2009년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하면서 AI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전언이다. 구글은 이때부터 비밀 연구소인 ‘구글 X’를 통해 AI를 구성하는 인공 신경망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2년 6월 인공 신경망으로 유튜브에서 찾은 1000만개의 이미지 중 사람의 도움 없이도 고양이를 식별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업계를 들썩이게 했다. 동시에 2012년 매사추세츠공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출신의 천재 발명가 레이 커즈와일에 이어 2013년 ‘머신러닝’(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로 평가받는 ‘딥러닝’(심화학습) 개념을 처음 고안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2014년부터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비롯한 AI 기술 보유 벤처업체들을 상대로 한 인수·합병(M&A)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AI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br/> <br/>이제 이 9단을 상대로 범용 AI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이를 차량 운전은 물론이고 암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운영체제(OS)를 개발해 수천조원대로 성장할 AI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AI 개발은 구글만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슈퍼컴퓨터 개발을 통해 기술을 쌓아온 IBM은 슈퍼컴 ‘왓슨’을 금융과 의료진단 분야에 응용하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은 AI 기반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딥페이스’를 공개한 데 이어 문자로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찾아주는 서비스 ‘M’을 발표했다.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코타나’를 개발했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7.txt

제목: 일교차 큰 봄철, '심혈관 질환' 주의  
날짜: 2016031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4103213398  
본문: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br/>몸 속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km이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만큼의 긴 길이인 만큼, 건강관리에 있어 혈관 건강을 빼놓을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사혈통, 즉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처럼 건강의 기본이 되는 혈관에 대해 짚어보고, 혈관 건강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4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br/> <br/>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포함하여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고혈압을 비롯해 필요 이상의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해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고지혈증과 죽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심장 마비까지 총칭한다. <br/> <br/>♦ 심혈관 질환은 남성들의 질환? 70대 이후는 여성 환자가 더 많아 <br/>흔히 심혈관 질환은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가장 흔한 종양인 유방암보다도 더 많은 여성이 심장병으로 사망에 이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시한 자료(2015)에 따르면 2014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는 남성이 95만 2천 명으로 42만 1천 명인 여성 환자보다 월등히 많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를 기점으로 여성 환자(14만 9천명)가 남성 환자(13만 6천명)를 추월했다. <br/> <br/>문제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사망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암(악성 신생물),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었으며 여성 또한 암을 제외하면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1위였다. 특히 심장 질환은 10년 전에 비해 사망 원인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br/> <br/>중년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이 위협적인 이유는 폐경에 따른 여성호르몬의 분비 저하가 크게 작용한다.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여성호르몬은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맞춰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혈중 지질이 쌓이는 등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심장의 근육세포가 노화되며 탄력을 잃게 되는 것도 중년 이후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r/> <br/>♦ 찬바람 부는 겨울뿐 아니라 일교차 심한 봄에도 심혈관 질환 환자 발생 비율 증가 <br/>찬바람 부는 겨울뿐 아니라 요즘과 같은 봄철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환자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 변화가 심한 봄철에 자율 신경계의 이상으로 혈관 수축이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겨우내 활동량이 줄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며 심장에 무리가 생기는 것도 원인이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월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 자료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2월, 829,089명)에 비해 3~5월에 해당하는 봄철(834,687명)에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혈관 질환자는 봄철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장 편욱범 교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 평균 10년 정도 늦게 발병하고, 동반질환도 많아 진단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각해진 뒤에야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발생 시 예후가 남성에 비해 나쁘다"며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는 갑작스러운 심혈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평소 혈관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체중 유지, 꾸준한 운동, 채소와 생선 중심의 저염식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며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br/> <br/>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4가지 생활 수칙 <br/> <br/>♦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br/>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1.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5g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류 및 해조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기 <br/>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체중을 유지하고(체질량지수 기준 25㎏/㎡ 미만)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를 85cm미만, 남성은 90cm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br/>※ 체질량지수: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br/> <br/>♦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하기 <br/>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으로 혈압과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시간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총 30분 이상 운동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br/>심장건강을 해치는 고혈압,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가족력 등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8.txt

제목: '한일고대사 연구에 족적' 일본 역사학자 우에다 별세  
날짜: 20160314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4011959349  
본문: 1989년 재일동포 정조문이 일본 내 한국문화재를 모아 만든 고려미술관 관장으로 봉직해온 우에다 마사아키 교토대 명예교수가 1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세. <br/> <br/>일본 고대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우에다는 태평양전쟁 중 학도병으로 동원돼 도쿄의 조선소에서 공습으로 친구를 잃은 것을 계기로 고대사 연구에 입문해 ‘일본고대국가론구’, ‘일본신화’, ‘고대 전승사의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br/> <br/>특히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일본 고대사를 분석했으며, 고대 조선사 연구 등에서도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2009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br/> <br/>1950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뒤 교토대 조교수와 교수를 거쳐 1991년부터 오사카여자대(현 오사카부립대) 학장 등을 지냈다. 교도통신은 우에다가 최근 암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br/> <br/>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59.txt

제목: 초콜릿은 건강에 좋을까? 이것이 진실  
날짜: 20160312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2100748220  
본문:   <br/> <br/> <br/>달콤한 맛으로 많은 이를 유혹하는 초콜릿.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초콜릿에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암을 치료하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만능통치약 수준이다. 초콜릿을 둘러싼 수많은 미신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초콜릿의 진실을 해외 매체 메트로가 10일(현지 시간) 전했다. <br/> <br/>1. 수명을 연장한다? <br/> <br/>초콜릿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영국 노퍽 지역의 2만1000명의 주민을 10년간 조사했더니 초콜릿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br/> <br/>반면,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르윈 박사는 이러한 주장에 반기를 든다. 그는 “초콜릿을 자주 먹는 사람이 심장에 좋은 다른 건강한 음식도 먹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br/> <br/>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왕 초콜릿을 먹는다면 반드시 다크 초콜릿을 골라야 한다. 의학자들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초콜릿 속 코코아라고 분석한다. <br/> <br/> <br/> <br/>2.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br/> <br/>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주 초콜릿을 찾는다. 그간의 실험 결과는 이러한 행동에 합리성을 더해준다. <br/> <br/>2009년에 행해진 실험 결과 2주간 40g의 다크 초콜릿을 먹은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내려갔다. 2014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초콜릿 실험은 더 세부적이다. 2주간 참가자들에게 각각 40g의 화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을 먹게 했더니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을 먹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라면 쓰디 쓴 다크 초콜릿 대신 달달한 밀크 초콜릿을 선택해도 좋겠다. <br/> <br/> <br/>3. 암을 치료한다? <br/> <br/>초콜릿이 암을 치료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제한된 동물 실험에서 코코아를 많이 함유한 식단이 장암을 예방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만 있었을 뿐. 따라서 초콜릿에 항암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br/> <br/>4. 똑똑하게 만든다? <br/> <br/>초콜릿은 수험생들의 단짝 친구와 같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0년간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초콜릿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높았다. <br/> <br/>다만, 아쉽게도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해당 조사 방식으로는 초콜릿과 기억력 사이에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초콜릿을 먹어서 기억력이 좋아진 건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초콜릿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도 미지수. 초콜릿 속 카페인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측만 있을 뿐이다. <br/> <br/> <br/>5. 영양가가 높다? <br/> <br/>정말일까? 101g의 다크 초콜릿은 하루 철분 섭취 권장량의 44%를 포함한다. 하지만 동시에 포화 지방은 권장량의 126%다. 다시 말해 다크 초콜릿으로 하루 철분 섭취량을 모두 채우려면 동시에 포화 지방은 300%를 넘기게 된다는 소리다. 과연 이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br/> <br/>영양학자들은 초콜릿이 몇몇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 해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초콜릿 속 순수 코코아 성분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판 초콜릿에 함유된 설탕, 지방은 비만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 프랭키 필립스 박사는 “초콜릿은 설탕과 지방 때문에 칼로리가 무척 높다. 많은 양을 섭취하면 비만이 올 수 있고 암, 심혈관계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0.txt

제목: [새로 나온 책] 지구경영, 홍익에서 답을 찾다 외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1204352481  
본문: 지구경영, 홍익에서 답을 찾다(이승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음, 한문화, 1만2000원)=뇌교육 전문가인 이승헌 박사와 동아시아학 권위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한국의 홍익정신과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만났다. 동양인과 서양인, 뇌교육자와 정치학 교수,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이 천착한 고민은 같았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이념과 종교의 갈등, 경쟁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넘어 과연 인류는 상생과 평화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하여 지구의 미래는 지속가능한가. 저자들은 그 답을 한국의 정신에서 찾는다. 지구와 그 안에 깃든 모든 생명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하는 지구경영의 철학을, 한국의 정신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제시한다. <br/> <br/>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고현 지음·수오서재·1만4800원)= 현대 불교 미술 디자인의 개척자로 불리는 고현 전 조선대 교수가 30여 년간 법정 스님을 뵈며 일기장에 기록해둔 추억들을 되살려 낸 수필집. 저자는 법정 스님과의 크고 작은 일화를 소개하며 스님의 정신과 철학을 생생히 전달한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자연보호’와 같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새로운 해석을 내려 깨달음을 전했다. “자연이 언제 우리게 보호해 달라고 부탁한 일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오만한 태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만이라도 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보존’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br/> <br/>불확실한 날들의 철학(나탈리 크납 지음·유영미 옮김·어크로스·1만6000원)=독일 철학자인 저자는 변화가 시작됐으나 결말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과도기를 오히려 ‘창조의 시기’로 규정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한다. 위기와 변화의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이 매우 달라진다는 게 이 책의 중심 내용이다. 책은 위기를 겪어낸 다른 이들의 삶에서 과도기의 의미를 길어올려 과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시도한다. 인식 전환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매년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br/> <br/>알수록 정치적인 음식들(킴벌리 A. 위어 지음·문직섭 옮김·레디셋고·1만8000원)=끼니마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 재료는 어디서 생산, 가공돼 우리 식탁까지 오게 됐을까. 정치학 교수인 저자가 세계 음식공급 시스템에 의해 운반되는 음식 재료의 숨겨진 진실과 그 안에 담긴 경제학적 의미를 해석해준다. 음식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한 국가의 권력적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국제통화시스템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br/> <br/>나무생태도감(윤충원 지음·지오북·3만8000원)=우리 숲에서 자생하는 나무부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까지 모두 91과 700종을 한 권에 담았다. 각 나무의 과명(예시: 물푸레나무과), 국명(미선나무), 학명(Abeliophyllum distichum Nakai)과 학명의 유래, 이명·외국명, 멸종 위기 여부, 생태 사진, 전국분포도, 분포·형태·조림·생태·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인 윤충원 공주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수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조금 더 쉬우면서도 구체적인 나무 정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텍스트, 즉 도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span>”며 책을 펴낸 이유를 설명했다. <br/> <br/>벌어야 사는 사람들(정현영 지음·티핑포인트·1만2000원)=남편의 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홈쇼핑 PD직을 버리고 창업에 나서 성공한 40대 여성, 대학 때 장사로 큰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다 날리고 기업에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인 회사원, 월급만 모아 5억원을 손에 쥔 평범한 직장인,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등 소위 ‘돈을 좀 만져봤다’는 13명을 만나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들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1.txt

제목: 대한암예방학회 2016년 암예방의날 행사 개최  
날짜: 20160311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1031938666  
본문: 대한암예방학회(회장 김나영)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반인 강좌’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br/> <br/>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3월 21일 암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시민 강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번 시민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br/> <br/>최근 유병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대장암은 식이습관,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발 인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br/> <br/>때문에 이번 일반인을 위한 건강 강좌는 대장암은 물론, 암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영양 및 의학적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대한암예방학회 김나영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올바른 영양과 운동, 조기 검진을 통한 암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행사는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과 의학적 정보들을 쉽고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2.txt

제목: [현장메모] 기후대응·암 정복…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85708981  
본문: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정상급 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일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인간 두뇌에 버금가는 수준에 다다른 AI의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전율의 서막일지 모른다. <br/> <br/>애초 알파고는 ‘난공불락’ 바둑에서 인간을 꺾기 위해 개발됐지만, 바둑에만 그 효용성이 국한되지 않는다. 구글 역시 범용성을 강조한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경영자도 “<span class='quot0'>언젠가 기후변화 분석과 복합성 질환 분석 등 오늘날 사회의 어렵고 골치 아픈 난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span>”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br/> <br/> 황계식 산업부 기자알파고가 한정된 데이터로도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 바둑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스터한 만큼 이런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구글은 알파고에 기보 16만건(3000만수)을 익히게 했는데, 이를 토대로 알파고는 자가학습(하루 3만판의 가상대국)을 통해 상대를 꺾을 새로운 전략을 터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답을 강구하는 ‘딥러닝’(강화 또는 심층학습) 기술은 이 9단과의 대결에서 실제로 위력을 떨쳤기에 기후변화와 암 등 인류의 숙제를 풀 유력한 플랫폼으로 기대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벌써부터 AI가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 볼 수도 있겠다. <br/> <br/>알파고의 선배격인 슈퍼컴퓨터 ‘왓슨’의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다. IBM의 왓슨 역시 2011년 제퍼디 쇼에서 인간 퀴즈왕들을 물리칠 목적으로만 고안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암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물인터넷(IoT)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실용화가 이뤄졌다. <br/> <br/>앞으로 인류가 AI를 활용해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구글이 꿈꾸듯 알파고가 암을 정복하고, 기후변화의 해답을 내놨다는 역사적인 발표에 입을 다물지 못할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AI 오남용이다. 이 ‘생각하는 기계’가 애초 제작 의도와 달리 우리의 삶을 옥죄는 재앙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는 인류 모두가 짊어질 몫이라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3.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위암·대장암·간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603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62214492  
본문: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기돈·대장항문외과 박인자·소화기내과 김강모 교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위암과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이나 최소 침습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율도 높다. <br/> <br/>'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 평소 간염이나 간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소화기의 대표적인 암으로 준비된 이번 특집 강좌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암의 진단과 최신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4.txt

제목: 초기 증상 없는 대장암, 정기 검진 중요  
날짜: 201603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5329587  
본문: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흔한 암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환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채식 위주에서 육식 위주로 바뀌고, 생활양식 또한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대한암예방학회가 '대장암을 이기는 식생활 및 건강수칙' 10가지를 발표,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대장암은 어떤 암인지, 치료 방법과 치료 후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유성선병원 암센터 대장항문외과 최병민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br/>◇ 초기 증상 없어 정기적인 검진 필요 <br/> <br/>대장(큰창자)은 소장(작은창자)의 끝에서 시작해 항문까지 연결된 긴 튜브 모양의 소화기관으로, 길이가 약 1.5m 정도이다. 보통 6m가 넘는 소장보다 훨씬 짧지만 폭이 넓어서 대장이라 부른다.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이 대장암이다. <br/> <br/>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변이 남은 듯 무지근한 느낌, 혈변 또는 끈적한 점액변, 복통, 복부 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그리고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 있다. <br/> <br/>하지만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만이 조기 발견의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격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를 하여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50세 이후부터는 5~10년에 한 번씩 이들 두 검사 중 하나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br/> <br/>◇ 복강경 수술, 정밀하고 회복 빨라 <br/> <br/>대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식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지만 수술의 큰 원칙은 동일하다. 암으로부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림프혈관을 결찰하고, 주변 림프절을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를 하게 된다. 수술 중에는 뱃속의 다른 장기들을 관찰하여 혹시 전이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소장, 난소, 요관, 신장 등의 주변장기와 붙어있는 경우에는 함께 절제를 할 수도 있다. <br/> <br/>이전에는 15cm 정도의 길이로 복부를 절개한 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기술의 발달로 배꼽부위에 1cm 정도를 절개하여 복강경 카메라를 넣은 후 배 안을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대신 3~4개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30cm 길이의 기구를 넣어 수술을 하게 된다. 손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것에 비해 기구의 조작이 어렵고 제한되는 것이 많지만 현재는 수술 술기의 발달과 기구의 발달로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을 통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br/> <br/>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수술 상처가 작아서 미용적인 효과가 있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적은만큼 회복이 빠르다. 또 복강경을 통해 확대된 시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과거에 복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유착이 심하거나 △재발을 했거나 △주변장기로의 침범이 심하여 복강경 기구만으로 수술적 절제가 쉽지 않거나 △환자가 비만하거나 골반강이 좁아서 기구의 조작이 힘든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br/> <br/>◇ 재발과 전이, 조기에 발견하려면 <br/> <br/>대장암 수술 후에는 병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발과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조기에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정기적인 추적 및 관찰의 방법과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재발이 수술 후 2년 이내에 발견되므로 수술 후 2년까지는 좀 더 짧은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수술 후 2년까지는 3개월에 1번, 이후 수술 후 5년까지는 6개월에 1번, 그 이후는 1년 1회 정도 추적 및 관찰을 시행하고 있다. <br/> <br/>매번 외래에 방문할 때마다 간단한 진찰과 함께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암표지자검사를 시행하고, 흉부엑스선촬영은 6개월마다 1회, 전산화단층촬영(CT)과 대장내시경 혹은 대장조영술은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을 시행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체중감소, 식욕부진, 무력감 등의 전신증상과 복통, 골반통증, 기침, 배변 습관의 변화 및 항문 출혈 등의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대장암이 재발되는 것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암들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완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5.txt

제목: 비타민C 효능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60310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5328747  
본문:   <br/> <br/> <br/>제5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이 '비타민C의 생활활력 증진과 피로개선'이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br/> <br/>최근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비타민C의 생활활력 증진과 피로개선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br/> <br/>한국식품과학회가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의료, 식품, 관련 학회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br/> <br/>2008년 처음 개최된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은 비타민C의 효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알리는데 앞장서기 위해 2년마다 국내외 저명한 석학을 초청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비타민C의 항노화 효과 △비타민C의 질병예방 및 활력증진 효과 △비타민C의 삶의 질 향상 효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br/> <br/>'비타민C의 항노화 효과' 세션에서는 △비타민C의 산화방지제 및 효소 보조인자로서 역할(Margreet Vissers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교수) △비타민C 함유 음료의 초파리 수명연장 및 산화스트레스 제거(서형주 고려대 교수) △수용성 비타민의 인지능력 개선 효과(David O. Kennedy 영국 노섬브리아대학 교수)에 대해 발표한다. <br/> <br/>'비타민C의 질병예방 및 활력증진 효과' 세션에서는 △역학조사에 기초한 비타민C와 심장건강 상관관계 연구(Ock K. Chun 미국 코네티컷주립대 교수) △장기간 추위 노출시 골격근의 수축성에 대한 비타민C의 효과(Aneeqa Shahid 파키스탄 Wah Medical College) △면역질환 발생과 진행에 대한 비타민C의 조절 효능(강재승 서울대 교수)에 대해 발표한다. <br/> <br/>'비타민C의 삶의 질 향상 효과' 세션에서는 △암환자에서 비타민C의 피로회복과 삶의 질 향상(염창환 대한비타민연구회장) △고용량 비타민C의 항노화 효과, 지단백질 성상 개선과 염증 마이크로 RNA 조절(조경현 영남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br/> <br/>한편 2008년 제1회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생활질환과 비타민C의 건강보호 효과', 2010년 2회는 '비타민C의 면역증진과 항바이러스 효과', 2012년 3회는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비타민 C의 역할'에 대해, 2014년 4회는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바 있다. 광동제약은 비타민C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매회 후원해왔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6.txt

제목: 대한암예방학회, 대장암 예방 위한 일반인 강좌 개최  
날짜: 201603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3302831  
본문:   <br/> <br/> <br/>대한암예방학회(회장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일반인 강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br/> <br/>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3월 21일 암예방의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시민 강좌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해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번 시민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로 △의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 △영양학적 측면에서의 대장암 예방을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br/> <br/>최근 유병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대장암은 식이습관, 비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발 인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번 일반인을 위한 건강 강좌는 대장암은 물론, 암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방면의 전문가와 함께 영양 및 의학적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대한암예방학회 김나영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올바른 영양과 운동, 조기 검진을 통한 암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는 암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이습관과 의학적 정보들을 쉽고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7.txt

제목: 장애인 가정 일반가정보다 '의료비 재난' 확률 2배  
날짜: 20160310  
기자: soon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10153301934  
본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홉살 소희(가명)양은 어렸을 때부터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었다. 소희의 어머니 A씨는 고민 끝에 소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소희가 재활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사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하느라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다.  <br/> <br/>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푸르메재활센터에서 한 어린이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푸르메 재단 제공보건복지부가 전국 682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가운데 의료비로 인한 지출이 전체 평균 66만원으로 나타났다. 교통비(25만6000원)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18만90000원) 등보다 의료비로 인한 부담이 큰 것이다. <br/> <br/>이와 관련해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단 한명이라도 속해 있다면 식구 중 장애인이 없는 가정에 비해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경우가 2배 가까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 <br/>신형익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등은 한국의료패널의 2010년 연간 데이터와 2011년 소비지출 데이터를 종합, 5610가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정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정이 11.5%에 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장애인 가정 9곳 중 1곳은 의료비 지출이 전체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인 셈이다. 비장애인 가정은 이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가구 지출의 40%가 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다. <br/> <br/>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이 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br/> <br/>신형익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애인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의료비에 들이는 비용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몸이 불편해 외래 진료를 오기 힘들어 병을 키우고, 외래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입원 치료를 해야 하거나 합병증, 노화에도 취약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연구팀은 가족 중 암환자가 있는지,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는지, 노인이 속해있는 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오직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지출이 비장애인 가정의 1.33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br/> <br/>신 교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많이 낮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은 아직 없다“며 “정책적으로 의료비로 인해 곤란에 처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8.txt

제목: 여성에게 취약한 갑상선 질환, 정확한 검사 이뤄져야  
날짜: 201603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9181827949  
본문: 갑상선암, 갑상선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 등 각종 갑상선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갑상선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데, 전체 환자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다. <br/> <br/>특히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갑상선암은 1999년 여자인구 10만 명중 11.9명에게 발병했지만  2007년 10만명 중 64.8명으로 증가, 2015년엔 10만 명당 70명을 넘어섰다. 갑상선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살펴보자. <br/> <br/>◇ 여성 건강 위협하는 '갑상선 질환', 꾸준한 검사 중요 <br/> <br/>목 앞부분에 위치해 나비모양을 띄고 있는 갑상선은, 무게가 불과 20g 안팎에 달하는 아주 작은 내분비 기관이다.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갑상샘호르몬과 뼈와 신장에 작용하여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한다. <br/> <br/>갑상선 질환에 여성들이 취약한 이유는 여성호르몬과도 관계가 깊다. 생리나 임신을 할 때 여성호르몬이 변하면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외에도 자가면역에 이상이 있거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갑상선에는 특히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혹이 생기거나, 암이 자라도 쉽게 알아채기 힘들다. 따라서 꾸준한 검사와 건강 체크를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 '갑상선결절', 양성과 악성 여부에 따라 다른 치료 진행 <br/> <br/>갑상선에는 혹이 잘 생긴다. 갑상선 결절은 정상 갑상선 세포가 증식하거나 낭종으로 이뤄진 양성 결절과 비정상 갑상선 세포들의 증식으로 생기는 악성 결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악성 결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양성 결절은 경우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통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에는 악성과 양성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세포검사를 실시 하는데, 1cm 미만이라도 결절이 손으로 만져지거나 가족력, 암 의심 소견이 있다면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필요하다. <br/> <br/>양성 갑상선 결절의 경우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이 의심되거나 갑상선종이 커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이후 갑상선 호르몬 억제 요법,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의 항암치료를 병행 할 수도 있다. <br/> <br/> <br/>◇ 유방암 제치고 여성들 암 1위 '갑상선암'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13년 암 발생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 암이었다. 10년전만 해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암중 발병률 1위의 암은 유방암이었지만, 최근 10년간 주요 암 중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암(18.9%)로 알려졌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4배정도 그 발병률이 높다. <br/> <br/>갑상선결절에서 악성결절로 진단되기도 하는 갑상선암은 방사선노출, 유전적 요인, 기존 갑상선 질환 환자 외에는 확실히 증명된 원인이 없다. 갑상선암을 예방하려면 알려진 요인을 피하거나 조기 검진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 검사를 통해 유전성 암 여부를 확인 해봐야 한다. <br/> <br/>녹십자지놈 김영은 전문의는 "갑상선암의 경우 암 유전체 검사를 통해 혈액에서 DNA를 추출하여 각종 유전자 돌연변이를 한꺼번에 검출 할 수 있다"며 "해당 검사는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위암, 대장암 등 고형 장기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의 관찰 및 분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br/> <br/>◇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레이브스병, 산모 주의해야 <br/> <br/>갑상선중독증은 말초조직에 갑상선호르몬이 과잉 공급되어 나타나는 모든 임상상태를 의미하며,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갑상선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어 갑상선중독증이 나타나는 상태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이며,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br/> <br/>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률은 매년 인구1000명당 0.74명이고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4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기능이 항진되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하는 질환인데 이런 이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가 면역과 관계가 있다. 또한 가족성 발병이 많아 유전성 소질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여성이 남성의 5배 정도 많으며, 주요 임상 증상으로는 안구돌출이나 안구 운동장애 등의 안병증, 갑상선 종대, 빈맥이 특징적이다. 또 산모가 그레이브스병에 걸린 경우 신생아가 자가항체를 갖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br/> <br/>녹십자의료재단 배혜경 전문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갑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함으로써 모체에서 신생아에게 전이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TSI)는 최근에 유전공학적으로 재조합된 Mc4 cell를 사용하여 검사가 더 간편해지고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아, 그레이브스병 진단 및 환자의 치료경과를 추적하는데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69.txt

제목: [칼럼] 구강 질환의 근원 '플라그', 올바른 칫솔질로 확실하게 제거해야  
날짜: 201603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9162427560  
본문: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강 질환은 몇 개나 될까. 정확하게 세 보진 않았지만 치과 의사들이 말할 수 있는 구강 질환의 수는 수백 개에 달할 것이다. 그 중에는 정말 간단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질환도 있지만 구강암처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구강 질환도 있다. <br/> <br/>그런데 치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질환은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이상은 경험해 봤을 가장 흔한 질환, 충치와 치주질환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br/> <br/>이는 충치와 치주질환이 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는 점 외에, 부정교합이나 치아상실, 구취 등 더 많은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구강 질환들을 일으키는 충치와 치주질환은 플라그, 즉 치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플라그가 없다면, 충치나 치주질환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더 심각한 구강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br/> <br/>때문에 플라그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 구강 내 플라그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플라그라면, 제대로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플라그'란 무엇이며, 이를 제대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강 내 만병의 근원, 플라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br/> <br/> 대한치과의사협회 송민호 기획이사 <br/>플라그는 치태 또는 치면세균막이라고도 불리는,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적끈적한 막이다. 플라그는 세균의 저장창고로 활용되며, 산을 만들어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여기서 치아 표면의 부식이 심해지면 충치가, 잇몸 염증으로 잇몸이 붓고 이로 인해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져 치아가 흔들리면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플라그는 생성 후 48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석회화 되어 치석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치석은 잇몸에 더욱 무리를 주어 치주질환을 악화시킨다. <br/> <br/>그렇다면 플라그를 제 때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플라그는 치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강도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한다. 즉, 플라그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이다. 음식물 섭취 직후 적당한 탄력을 지닌 칫솔로 치아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정해야 한다. <br/> <br/>잇몸질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권장하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인 '회전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회전법은 칫솔을 잇몸 쪽에서 치아 씹는 면 방향으로 손목을 회전하는 쓸어 내리거나 쓸어 올리는 방식의 칫솔질이다. 반면 잇몸이 매우 약하거나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바스법'이 권장되는데, 이는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에 칫솔 끝을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대고 위아래로 약한 진동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올바른 칫솔질은 하루 2회 이상, 회당 3분 정도면 적당하다. <br/> <br/>종종 치아를 좌우로 반복적으로 강하게 닦는, 일명 '분노의 칫솔질'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칫솔질은 치아 사이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잇몸을 마모시켜 치경부 마모증을 일으키는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br/> <br/> <br/>또 구강 세정기나 구강 청결제 사용이 칫솔질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플라그 제거를 위한 충분한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칫솔질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세차장에서 지저분한 차에 멀리서 물만 뿌리고 닦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칫솔질과 함께 할 땐 훌륭한 보조도구이므로, 더 확실한 플라그 제거 효과를 위해 칫솔질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br/> <br/>회전법과 바스법 등 치과의사들이 권장하는 칫솔질은 일반인들이 매일 실천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칫솔질을 익혔다 해도 스스로 압력과 강도를 조절해 칫솔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압력이 너무 약하면 플라그 제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강한 힘으로 닦으면 잇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br/> <br/>올바른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동칫솔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권장 칫솔질 방법인 회전법과 바스법을 동시에 구현하는 진동-회전 방식의 전동칫솔은 일반 수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2배 정도의 플라그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에는 적정 압력 이상의 힘이 가해질 때 경고등 또는 진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적정 압력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칫솔질 하도록 돕는다. <br/> <br/>다만 이미 석회화 된 플라그인 치석이 있다면 칫솔질 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다 확실한 구강 건강을 위해선 6개월 정도의 주기로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 검진을 받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대한치과의사협회 송민호 기획이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0.txt

제목: 고대의대 이경미 교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기술이전  
날짜: 201603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9101711549  
본문:   <br/> <br/> <br/>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효명)이 의료기술산업화 선도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br/> <br/>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윤영욱)은 지난 8일 에이티젠의 자회사인 엔케이맥스(대표 박상우)에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이하 NK세포)의 배양 및 치료의 원천 기술'을 이전하며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br/> <br/>협약식에는 윤영욱 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이홍식 의과대학장, 이경미 의과대학 교수,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이전된 원천기술은 고려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이경미 교수가 지난 10년간 연구개발한 것으로 적은양의 혈액을 이용하여 수천억개의 탁월한 항암능력을 지닌 NK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br/> <br/>NK세포는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추적하여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그간 복잡한 공정과 높은 생산비로 인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경미 교수의 기술은 공정과정이 간단해 기존대비 세포치료 비용을 5~10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이경미 교수는 "기존 NK세포 제조법은 혈액암과 피부암에 국한되어 완치효과가 있었다"며 "이번 기술은 생산단가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 치료효과를 보여 난치성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이경미 교수의 기술협약 이전을 통해 고대의료원은 에이티젠과 NK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br/> <br/>한편 고려대의료원은 KU-MAGIC프로젝트, 산하 2개 병원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운영, 의료기술지주회사, 대형국책과제 수주 등을 통해 의료기술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며 의료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1.txt

제목: 대림성모병원, 유방암 건강강좌 성황리 개최  
날짜: 201603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9100620065  
본문:   <br/> <br/> <br/>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광태)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대림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유방암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이번 건강강좌는 2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금천구 여성단체 연합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금천구청 1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br/> <br/>약 200여 명의 여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유방암의 증상과 치료법, 예방법 등 유방암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강연을 마친 뒤에는 평소 유방암에 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br/> <br/>특히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생활 속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시연과 리플렛 및 검진에 활용 가능한 기념품 등을 증정해 강좌에 참여한 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유방암은 한해 신규 환자가 2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여성 암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성과 검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건강강좌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규칙적인 자가 검진과 전문의를 통한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고 여성의 상징인 소중한 유방을 건강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2.txt

제목: 119 구급차 2015년 하루 평균 4808명 이송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194045262  
본문: 긴급 상황에 이용하는 119구급차 출동횟수가 최근 10년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급차 1대당 이송환자수는 1333명으로 10년 사이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119구급 서비스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2만7000건에 이르는 등 일부 얌체족에 의해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119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br/> <br/>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9 구급차가 총 253만5412회 출동해 175만5031명을 의료기관에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구급차 한대당 이송인원은 1333명, 하루 평균 이송인원은 4808명에 이른다. 구급차 출동횟수는 전년(238만9211회)에 비해 6.1%가 증가하는 등 2006년 156만6010회 대비 62% 증가했다. <br/> <br/>이송인원도 10년 사이 115만3553명에서 52% 이상 증가했다. 119 구급활동 집계를 시작한 1995년 기준으로는 20년간 출동횟수는 6배, 이송환자수는 5배 이상 늘어났다. 구급차가 20년 새 619대에서 1317대로 두배가량 늘어났지만 이용 수요는 더 빨리 증가한 셈이다. <br/> <br/>구급차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1∼60세가 17.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71∼80세15.5%, 41∼50세 15% 등이었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이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등 외상성 손상 36.7%, 주취·중독 등 비외상성 손상 5.6% 등이었다. 질병별로는 고혈압(25.8%), 당뇨(15.6%), 심장질환(6.6%), 암(5.5%)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br/> <br/>의료기관 이송 전 현장에서 심전도 점검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하는 사례도 전체 이송환자의 18.4%에 달하는 32만3434명에 이르렀다.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 보다 전문적인 처치를 받은 사례도 2014년 4만8943명에서 5만4890명으로 12.2% 증가했다. <br/> <br/>그러나 지난해 출동횟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3만여건은 119구급대가 출동 후 ‘빈차’로 돌아왔다. 대부분 환자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119구급대원의 현장조처로 마무리된 경우였지만 일부는 개인용무나 ‘꾀병’으로 구급차를 부른 사례였다. <br/> <br/>이에 따라 정부는 허위 119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비응급 상황이나 개인적인 일에 119구급차를 부르면서 정작 위급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r/> <br/>현재는 허위신고 처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뒤 이후 횟수에 따라 누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상향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119 허위 신고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0여건에 이른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3.txt

제목: 국립암센터 박상윤 박사, 대한복막암학회장 취임  
날짜: 201603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164645915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자궁암센터 박상윤 박사가 지난 2월 20일 대한복막암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br/> <br/>박상윤 박사는 난소암, 난관암 및 복막암의 권위자로 197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br/> <br/> 국립암센터 박상윤 박사 <br/>박 박사는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장 및 자궁암연구과장을 지냈고 미국부인종양학회 학술위원,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수술 분과장,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 대한림프부종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국내외 학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br/> <br/>한편 대한복막암학회는 난소암, 난관암, 위점액종(가성점액종), 중피종, 대장암, 위암 등 여러 가지 암으로부터의 복막파종과 복막에 발생하는 원발성 복막암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주고 예방법을 연구·개발해 환자들을 복막암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6월 창립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4.txt

제목: 한미약품, 다중표적 항암신약 유방암 환자 대상 美 2상 돌입  
날짜: 201603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101721119  
본문:   <br/> <br/> <br/>작년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라이선싱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br/> <br/>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과 다중표적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 스펙트럼社(Spectrum Pharmaceuticals)는 최근 포지오티닙의 미국 임상 2상을 시작했다고8일 밝혔다. <br/> <br/>이번 임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미약품이 진행한 임상 1•2상이 토대가 된다. <br/> <br/>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br/> <br/>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작년2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br/> <br/>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기술이 적용된 다중표적 항암신약이 순조롭게 미국 2상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R&D에 특화된 스펙트럼社를 통해 포지오티닙의 치료효과가 하루빨리 전세계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br/> <br/>스펙트럼 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포지오티닙은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pan-HER 저해제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며 "내성이 생긴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스펙트럼은 혈액(Hematology) 및 항암(Oncology) 분야에서 임상시험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발굴-도입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회사로, 골육종치료제(Fusilev), 비호치킨림프종치료제(Zevalin) 등 5개의 항암신약을 미국 등에서 판매하거나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5.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김경미 교수, 15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날짜: 201603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8095724726  
본문: 보령제약(대표 최태홍)과 한국암연구재단(이사장 김병국)이 공동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령암학술상 제15회 수상자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김경미 교수가 선정됐다. <br/> <br/>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종의 하나이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암의 병리 진단, 맞춤치료의 타겟 발굴 및 유전체 기반 위암 개인맞춤 치료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8일 오전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되며, 김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br/> <br/> 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김경미 교수 <br/>김 교수는 한국인 위암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여 위암의 유전체 변이가 매우 이질적이고, 유전체의 발현에 따라 예후 및 재발위험도가 달라 위암 유전체 정보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위암 치료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br/> <br/>또한 EBV(에프스타인-바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연관 위암에서 염증세포의 종양세포 주변 침윤 정도에 따라 위암의 예후가 달라짐을 밝혀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위암 주변의 염증 반응 및 침윤하는 이뮨세포의 종류에 따라 예후가 달라 질 수도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br/> <br/>이와함께 위장관기질종양의 병리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료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마커 연구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대장의 톱니형 폴립(serrated polyp)의 유전자변화와 임상 양상을 접목하여 특정 유전자(KRAS) 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악성화의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기도 했다. <br/> <br/> 8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된 제 15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삼성서울병원 김경미 교수(가운데)가 한국암연구재단 김병국 이사장(왼쪽),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r/>김 교수는 현재 쉽게 적용이 가능한 위암 예후예측마커 개발에 노력하며 위암환자의 생존 연장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br/> <br/>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암정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김경미교수의 연구 업적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암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보령암학술상'을 통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보령암학술상'은 2002년 국내 종양학 분야 연구에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종양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를 맞이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6.txt

제목: 화장실 들락날락, 핏빛 소변…'신장' 건강 경고음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201057284  
본문: 60대 남성 A씨는 몇 달 전부터 평소보다 피곤하고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단순히 과로 때문이겠거니 했던 A씨는 언제부턴가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일도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날, 소변에서 피가 비치자 깜짝 놀란 A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신장(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br/> <br/>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진료인원은 2009년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6% 늘어났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고령 환자들이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10일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기도 하다. <br/> <br/>배의 등쪽에 한 쌍의 강낭콩 모양을 한 300g 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체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콩팥’이다. 콩팥에는 1분에 1L에 달하는 혈액이 들어오며 사구체라 불리는 ‘필터’에서 분당 120ml 정도로 걸러진다. 이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고 하며 신장 기능의 척도가 된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 유지 및 전해질 농도 조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한다. <br/> <br/>신장 손상으로 기능이 약화하는 질환을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이라고 하는데, 단백뇨나 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구체여과율이 정상 수준보다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이때 치료를 늦추게 되면 사구체여과율이 더욱 저하해 몸이 붓거나 불면증, 가려움 등을 느낀다. 이를 방치하면 합병증까지 생겨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br/> <br/>대한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환자 등록사업에 오른 우리나라의 이식, 투석 등 신대체요법 환자는 1986년 2534명을 시작으로 1996년 1만8072명, 2007년 4만8675명으로 20여년새 2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다 2014년 8만67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br/> <br/>투석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는 다른 합병증이 겹치면 사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남자 65.3%, 여자 68%로 나타났다.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은 56.9%로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국내 주요 암질환보다 더 낮다. <br/> <br/>만성콩팥병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 질환 중에는 당뇨병이 있다. 만성콩팥병 발병 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이다. <br/> <br/>특히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을 주로 먹는 현대인의 식습관 영향으로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은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증 진행이 다른 병에 비해 빠르다. 이와 함께 동반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소변에 단백뇨가 나타난다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 <br/> <br/>당뇨병 다음으로 만성콩팥병을 불러오는 질환은 고혈압이다. 만성콩팥병의 20% 정도 되는 환자가 이 고혈압으로 인한 환자들이었다. 고혈압 환자들은 주로 높은 혈압의 영향으로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사구체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다. 콩팥은 이로 인해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반대로 콩팥이 손상됐을 때는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치달았을 경우가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콩팥병이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 역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7.txt

제목: “암 진단 임신부 80% 아이 포기 않고 출산”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201053304  
본문: 임신 중에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임신부 10명 가운데 8명은 출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7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석주 교수팀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임신부 5만412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8명이 임신 중 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진단하기 모호한 경계성 암을 제외한 87명 중 79.3%인 69명이 임신을 유지했다. 이들이 암을 진단받은 평균 나이는 32.5세, 암 진단 시 평균 임신주수는 24주였다. <br/> <br/>임신 중 암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와 제한적인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암 환자 치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br/> <br/>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협진에 따라 임신주수가 말기에 가깝다면 출산까지 치료를 잠시 미룰 수 있고, 여건에 따라 조기 출산을 유도한 뒤 치료할 수도 있다. <br/> <br/>이번 연구에서는 24명(34.7%)이 임신기간 중 치료를 받았고, 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69명 중 68명이 출산했다. 의료진은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를 빼면 신생아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생아 사망률도 4.5%(68명 중3명)로 크게 높지 않았다. <br/> <br/>하지만 암 치료 결과는 환자에 따라 달랐다. 추적관찰이 가능한 84명 중에는 52명이 암이 완치됐지만 26명(31%)은 출산 후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5명(5.9%)은 병이 진행 중이었으며, 1명(1.2%)은 재발한 상태였다. <br/> <br/>특히 소화기암은 전체 소화기암 임신부 17명 중 절반인 8명이 말기 상태에서 발견돼 사망률이 50%에 달했다. 연구팀은 “소화기암의 주 증상인 소화불량, 구토 등이 입덧 등 임신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최석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여성들의 강인함 때문인지 암에 걸리고 나서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임신부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전문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임신 중 본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8.txt

제목: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항암치료 끝”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95936341  
본문: 지미 카터(92·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지 7개월 만에 암의 공포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C NN방송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머타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 교실’ 청강생에게 “<span class='quot0'>더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span>”고 치료 종료 사실을 밝혔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79.txt

제목: 'K 푸드' 쌀막걸리, 위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92527683  
본문: 쌀로 만든 막걸리가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은 7일 영양식이연구단 황진택 박사팀이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 방법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수분과 알코올을 제거한 막걸리를 인체 유래 위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 세포 증식이 억제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PTEN) 발현이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인체 유래 위암 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막걸리를 경구 투여한 결과 종양 성장이 억제됐다. 암 예방 효능이 있는 막걸리 주요 성분은 쌀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전립선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로 적당한 막걸리 섭취가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체 실험 자료가 아직 없어 실제로 막걸리를 어느 정도 마셔야 암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세포와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막걸리 양을 사람이 마시는 막걸리로 환산하면 약 한 잔 분량이다. <br/> <br/>황진택 박사는 “<span class='quot0'>선행 연구로 파네졸과 스쿠알렌 등을 함유한 막걸리의 암 예방 가능성이 예상됐고, 이번에 막걸리 자체의 암 예방 효능을 입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로부터 새로운 암 예방 성분이 확인된 만큼 막걸리에 다양한 암 예방 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국내 전문 학술지에 2건이 실렸으며 연구진은 특허 1건을 출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0.txt

제목: 쌀 막걸리 한잔… 위암세포 억제 효능  
날짜: 20160307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55731374  
본문: 쌀로 만든 막걸리가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한국식품연구원은 7일 영양식이연구단 황진택 박사팀이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방법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br/> <br/>연구진이 수분과 알코올을 제거한 막걸리를 인체 유래 위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암 세포 증식이 억제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PTEN) 발현이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인체 유래 위암세포를 이식한 쥐에 막걸리를 경구 투여한 결과 종양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 예방 효능이 있는 막걸리 주요 성분은 쌀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시토스테롤’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기존에 전립선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br/> <br/>적당한 막걸리 섭취가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연구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황진택 박사는 “<span class='quot0'>선행 연구로 파네졸과 스쿠알렌 등을 함유한 막걸리의 암 예방 가능성이 예상됐고 이번에 막걸리 자체의 암 예방 효능을 입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막걸리로부터 새로운 암 예방 성분을 확인된 만큼 막걸리에 다양한 암 예방 성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국내 전문 학술지에 2건 실렸으며 연구진은 특허 1건을 출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1.txt

제목: 급증하는 심부전…성인 10명 중 9명 '과소평가', 고위험군도 절반 이상 '몰라'  
날짜: 201603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7101339477  
본문:   <br/> <br/> <br/>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와 한국심장재단이 20~70대의 성인 남녀 1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심부전'을 기타 질환과 구별하지 못하는 등 고령화 시대 주요 위중 질환인 심부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번 설문 조사는 심부전연구회가 대국민 심부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펌핑하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심부전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심장재단의 서면 조사와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전문 업체인 ‘오픈 서베이’에 의뢰해 진행했다.  <br/> <br/>조사 결과 심부전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약 40% 만이 ‘심장이 충분히 펌프질을 하지 못하여 신체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르게 응답했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심부전을 뇌졸중, 심장 마비, 동맥 경화 등 기타 질환과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혈압, 심근경색증, 판막질환 등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원인 질환을 앓았던 고위험군의 절반 이상이 심부전을 다른 질환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75%가 협심증의 ‘가슴의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틀리게 답해 심부전의 질환 정의뿐 아니라 증상 등 기본적인 질환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한 심부전의 질병 부담에 대해서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부전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보다 사망률이 높고 입원 1회 당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뇌졸중이 가장 두렵고 비용이 높을 것이라고 답해 심부전의 위중성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의 응답자가 심부전의 증상인 ‘계단을 오르는 등 거동이 힘들다’를 정상적인 노화의 증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심부전 조기 진단과 관리에 대한 대응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심부전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중 질환으로 방치하거나 관리가 늦어지면 사망률과 재입원율 등 예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심부전은 심장 질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 첫 급성 심부전 발생 1년 안에 3명 중 1명은 사망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도 2일 이상 지켜본 후 병원을 방문하겠다고 답해 심부전의 위중성을 간과해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번 설문으로 저조한 인지도를 확인한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대사에 필요한 양의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입원 및 사망 원인이다. 한 번 발생하면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과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이 크고 부종, 호흡 곤란 등 증상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br/> <br/>국내 심부전 환자수와 의료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 심부전 환자수는 약 20%, 진료비 부담은 37.5% 증가했다. 사망률도 가파르게 증가해 통계청에 의하면 고혈압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총무위원장 정욱진(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심부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심부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사망률과 비용 부담 등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부전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일부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데다 반복적인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막중해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심부전을 잘 알고 올바른 치료로 관리하면 예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심부전과 질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고령화 국가인 국내 심부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자 개인과 국가적 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정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2.txt

제목: 피폭때 혈관 손상 유발하는 단백질 인자 발견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212003669  
본문: 방사선 피폭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단백질 인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이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 김광석(사진) 박사 연구팀은 방사선에 노출된 심혈관세포에서 ‘GDF 15’라는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이 단백질이 심혈관세포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GDF15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 심혈관세포에는 세포 노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 방사선에 노출되기 이전 또는 노출된 이후에 이 단백질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음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정상혈관의 방사선 유무를 판별할 지표를 개발했다. 그동안 GDF15는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유방암 등에서 암을 발생시키거나 전이시키는 단백질로 알려졌지만 방사선 피폭 시 혈관 및 주변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기전임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br/> <br/>이 연구는 국제 암생물학 학술지인 ‘온코타깃’(Oncotarget) 2월호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아울러 국제특허(P CT)로도 출원할 계획이다. <br/> <br/>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정상혈관 손상 마커를 이용한 진단 기술을 임상에 적용, 방사선 암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span class='quot0'>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GDF15 발현을 억제시켜 정상혈관을 보호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3.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봉사는 나눠도 나눠도 채워지는 마법의 그릇”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212002401  
본문: 봉사는 피곤한 일이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날.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 보고도 싶고, 평소 깊은 대화를 할 틈이 없는 배우자, 아이와 함께하고도 싶다. 이런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게 봉사다. <br/> <br/>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봉사를 ‘포기’라고 하지 않는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에서 만난 이 회사 황용희(48) 과장도 그랬다. 그에게 “왜 봉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봉사는 자신을 나누는 것이지만, 대신 나 자신이 줄진 않는다”고 답했다. “<span class='quot0'>먹어도 먹어도 비워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채워지는 마법의 그릇</span>”이라고도 했다. <br/> <br/>황 과장이 ‘봉사인’이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 황 과장은 ‘두 번째 삶’을 얻은 뒤 봉사에 투신했다. <br/> <br/>황 과장에게 병마가 찾아온 것은 2010년. 그는 이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모친이 같은 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했고, 두 여동생도 모두 같은 병에 걸린 터라 걱정이 컸다. 다행히 황 과장은 2012년까지 회복기를 거쳐 병을 이겨냈다. 황 과장은 “<span class='quot1'>투병 기간,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평소 하고자 했던 사회공헌활동을 미루지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span>”고 말했다. 그래서 황 과장은 2013년 5월 아시아나항공이 ‘색동나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교육기부봉사단에 가입했다. 봉사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직업 및 항공업계 소개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준다. <br/> <br/>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썸라옹톰 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 나선 황용희 아시아나항공 과장(오른쪽)과 딸 지혜씨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r/>황용희씨 제공투병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이미 황 과장은 ‘남을 위한 삶’을 준비 중이었다. 그는 2003년 단국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년 후에 청소년복지 분야 일을 하겠다고 준비한 학업이었다. 투병이 그 계획의 실행을 앞당긴 것이다. 황 과장은 “<span class='quot1'>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정년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던 차에 교육 기부 모집을 보고 ‘지금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후 황 과장은 2년6개월간 모두 55회 교육기부에 참여했다. 평균 한 달 1회꼴이다. 아시아나에서 가장 많은 참여 빈도다. 정비직이다 보니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 전적으로 본인 쉬는 시간 활용해야 한다. 황 과장 강연의 주요 주제는 ‘꿈’이다. 황 과장은 “자동차나 항공기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GPS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우리의 앞날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항상 알 수 없는 물음표”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꿈이 있다면 꿈을 통해서 나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꿈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한 점의 지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br/> <br/>1회성 이벤트로 하는 봉사도 아니다. 황 과장은 ‘오즈(아시아나항공사 코드 OZ)의 마법사’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강의를 들었던 학생 100여 명에게 진로상담 및 항공업계 궁금증 등을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자녀 진로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상담하는 일도 종종 있다. <br/> <br/>가족은 이런 황 과장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그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봉사 활동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전에는 당신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br/> <br/>홍익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큰딸 지혜(22)씨는 아예 황 과장과 함께한다. 지혜씨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지혜씨는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내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작업 등으로 재능 기부를 했다. 황 과장에게 남은 인생 목표는 크게 2가지다. 우선 그는 정년 전 교육 기부 365회를 채우려 한다. <br/> <br/>황 과장은 “<span class='quot1'>앞으로 정년이 10년쯤 남았는데 1년에 30회 정도를 목표로 해서 1년에 한 달은 기부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잘만 하면 최대 500회까지도 가능할 듯하다</span>”고 웃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정년 뒤에 할 일이다. 황 과장은 정년 뒤 청소년 복지센터를 세우려 한다. 그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진로 코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 물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얼마 전 까지는 나눔을 하면 ‘for you’에 의미를 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with you’로 변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저의 조그마한 시간의 기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또 더 먼 미래에 이 아이들도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span>”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몸에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해지듯이 좋은 바이러스는 계속 이어지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br/> <br/>나기천 기자 n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4.txt

제목: 마약거래·동성 결혼·성매매가 허용되는 곳… 자유·진보의 도시 암스테르담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200854920  
본문: 러셀 쇼토 지음/허형은 옮김/책세상/2만3000원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 지음/허형은 옮김/책세상/2만3000원 <br/> <br/>암스테르담에서 ‘카페’와 ‘커피숍’은 전혀 다른 곳이다. 가벼운 식사와 음료를 파는 곳이 카페라면, 커피숍은 커피와 마리화나, 해시시를 함께 맛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마약 거래는 불법이다. 하지만 커피숍 내에서는 허용된다. ‘불법이지만 눈감아주는 것’을 ‘헤도헌(gedogen)’이라고 한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금지하지 말고 통제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성매매가 합법인 곳도 암스테르담이다. 연간 5000∼7500명의 여성들이 허가를 받아 돈에 몸을 맡긴다. 마찬가지 논리다. <br/> <br/>1971년에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건물에는 누구나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 동성 커플 네 쌍이 결혼한 곳도 이 도시에서다. 이 책은 이 도시의 자유로움에 매료된 미국인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가 썼다. <br/> <br/>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살았던 저자는 경쾌하고 위트 있는 문장으로 이 도시의 메시지를 전한다. 과거와 현재 역사를 토대로 이 도시에서 화려하게 피어난 ‘자유’와 ‘진보’의 역사를 묘사한다. <br/> <br/> 17세기에 해부학 강의실로 사용된 건물이다. 화가 렘브란트가 ‘튈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를 그린 장소로 유명하다.예전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변방이었다. 바닷물이 범람했던 환경 탓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다. 그러나 시민들은 늪지와 갯벌을 개간해 도시를 건설했다. 1100년쯤에는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를 만들었다. 신대륙과 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해 17세기엔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금기를 맞았다. 2차 세계대전 땐 나치 저항의 중심지였다. 또한 교회가 위험 인물로 낙인 찍은 스피노자의 도피처였다. 그는 자유와 진보의 도시에서 혁신적인 근대 철학사상을 탄생시켰다. 화가 렘브란트가 엄혹한 종교적 질서를 탈피한 ‘근대적 개인’을 표현한 곳이기도 하다. <br/> <br/>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은 1970년대 이 도시에서 맨처음 생겨났다. 다문화는 문화적 소수자들을 수용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암스테르담이 선구적 역할을 했다. 비서양권 이민자들을 환영했고, 그들 조국의 언어와 전통을 고수하도록 장려했다. 지원금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대신 단절된 울타리 문화만 남았다. 게토화된 공동체만 존재하는 사회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융합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결국 관용에 관한 논의다. 저자는 암스테르담 역사를 통해 관용의 메시지를 던진다. <br/> <br/> 카날하우스 모습이다. 17세기 지어진 암스테르담의 ‘카날 하우스’가 인류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집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br/>열린책들 제공저자는 “사실 네델란드 사람들은 굉장한 보수주의 성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관용이란 용어를 즐겨쓰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척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역으로 이방인 문화를 자유롭게 수용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살짝 미치지 않고선 마약과 매춘을 허용하는 이런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결국 개인의 자유로 귀결되며 따라서 인간 개개인의 중요성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br/> <br/>지면을 채운 등장 인물들은 렘브란트나 스피노자, 안네 프랑크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이다. 이들의 생애는 공통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주제, 암스테르담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꽃핀 자유주의와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암스테르담에서 불과 5년여밖에 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게 되었다</span>”고 고백한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5.txt

제목: "암세포마다 표식… 면역세포가 찾을 수 있어"  
날짜: 2016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184356381  
본문: 의학계가 암 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br/> <br/>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연구진들이 모든 암 세포에 면역 체계가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표식(flag)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br/> <br/>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 영국암연구소 과학자들은 암 환자 수백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암 세포에 공통적으로 항원 형태의 특정 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이런 항원과 싸우는 면역 세포가 이미 존재한다. 다만 암 세포를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br/> <br/>그동안 전 세계 연구자들은 면역세포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지점에 투입해야 할지 모호해 곤란을 겪었다. 면역세포가 강화돼 종양의 한 지점을 공략하더라도 다른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이돼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br/> <br/>그러나 연구진이 암 세포의 특별한 표식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종양의 유전자 감식으로 항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십억개의 면역세포를 암세포 항원에 투입하면 종양을 한층 쉽게 제거할 수 있다. <br/> <br/>이번 연구를 이끈 세르히오 퀘사다 UCL 암연구소 박사는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번 발견을 경찰의 범죄추적 기술에 비유했다. <br/> <br/>그는 “다양한 종양은 각기 다른 범죄에 연루된 폭력 조직과 같다”며 “다수의 범죄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경찰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는 암을 파악하기 위해 고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연구는 여러 명의 주민을 상대로 범죄를 추적하는 대신 모든 범죄의 뿌리에 있는 핵심 인물에 도달하는 정보를 경찰에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br/> <br/>논문의 공동인 UCL 찰스 스원턴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모든 암 세포에 존재하는 항원을 식별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정복할) 아킬레스건을 발견하게 된 셈</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6.txt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암환자 수면장애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날짜: 201603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132337167  
본문:   <br/> <br/> <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은 암 환자의 수면장애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제제인 가미귀비탕을 투여하는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br/> <br/>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악성 종양(암)을 진단받은 남녀로, 현재 수면에 불편을 겪는 자이다. 참여자는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선정되며, 4주간 총 3회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br/> <br/>참여자에게는 진료비, 검사비, 시험 의약품이 무료로 제공되며,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7.txt

제목: 침묵의 장기 콩팥, 만성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603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113234790  
본문: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 캡쳐 <br/>오는 10일은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콩팥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다. 콩팥은 양쪽을 합해 300g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이지만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리터에 달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콩팥의 필터에서 분당 120ml정도로 걸러지는데, 이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고 하며 콩팥 기능의 척도가 된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조절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인체의 기관 중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br/> <br/>콩팥의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이라고 하는데 단백뇨 혹은 혈뇨 등의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이 60 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구체여과율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이지만 소변 검사로 이상을 관찰할 수 있는 상태가 1단계다. 2단계부터 사구체여과율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콩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떨어지며 몸이 붓거나 불면증, 가려움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5단계가 되면 증상과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해야만 생명 유지가 가능해진다. <br/> <br/>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콩팥병이 발생하기 쉬운 당뇨병 및 고혈압 환자,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 역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br/> <br/>♦ 최근 5년간 연평균 13.6% 증가, 만성콩팥병 환자 암 환자 보다 생존률 낮아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만성콩팥병 진료인원은 2009년 9만 596명에서 2013년 15만 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은 연평균 14.5%, 여성은 연평균 12.3%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비율이 높아 60세 이상은 연평균 8.3%, 70대에서는 13.5%, 80세 이상은 1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을 보유한 고령층들의 환자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 환자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86년부터 시작한 대한신장학회의 말기신부전환자등록사업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이식 또는 투석 등 신대체요법 환자 수는 1986년 2,534명, 1996년 18,072명, 2007년 48,675명으로 20년 사이에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80,67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투석 치료와 같은 장기적인 유지 치료에 의해 생존하는 환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의료 비용의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br/> <br/>치료가 잘 되지 않다보니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남자 65.3%, 여자 68.0%이며, 특히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은 56.9%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과 같은 국내 주요 암질환의 5년 생존율과 비교 시 더 낮은 실정이다. 특히 심혈관계 합병증 사망률이 높아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최대 8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 당뇨병,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70%, 당뇨병 환자 정기적인 검진 필수 <br/> <br/>만성 콩팥병의 3대 주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전체 발병 원인의 50%에 해당할 만큼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최근 식습관이 바뀌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비만 및 과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이 증가, 이로 인한 콩팥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이 빠르며 동반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다. 특히 소변에 단백뇨가 나타난다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단백뇨가 검출되기 전에 콩팥합병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한다. <br/> <br/>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20%나 된다. 고혈압 환자들은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며 사구체가 손상되는데 이로 인해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콩팥이 손상되었을 때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 고혈압이 콩팥병의 원인 질환인 동시에 결과인 것이다. <br/> <br/>생활습관도 콩팥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짠 음식과 국물음식을 주로 먹는 식습관 때문에 콩팥질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염분은 수분과 결합하여 몸을 붓게 하고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의 발병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br/> <br/> <br/>♦ 만성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 <br/> <br/>▲ 만성콩팥병은 식이요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br/>NO. 식이요법만으로는 만성콩팥병을 극복할 수 없다.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원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콩팥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br/>▲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br/>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NO. 과일과 채소는 본인의 상태에 알맞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콩팥병 단계와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물질로, 혈중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 혈중 칼륨이 심하게 부족한 경우 하지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성콩팥병이 진행된 환자들에서는 소변을 통해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주 쥐가 나고 저리거나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만성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된 야채와 과일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칼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채류의 껍질이나 줄기를 벗겨 섭취하고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궈서 섭취하는 게 좋다. <br/> <br/>▲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좋다? <br/>만성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NO. 흔히 잡곡밥은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건강식으로 불리지만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 가려움증과 관절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잡곡밥이 좋으나, 콩팥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인 수치에 따라 잡곡밥보다는 흰 쌀밥을 먹도록 권고 받을 수 있다.  <br/> <br/>▲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br/>무조건 많이 섭취하는 것은 NO.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분은 갈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섭취하면 된다. 갈증은 짜게 먹은 경우 느끼게 되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과 부종을 일으켜 콩팥 질환 악화의 주범이 된다. 콩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은 저염 식이의 생활화이다. <br/> <br/>▲ 만성콩팥병으로 복용하는 약은 평소에 따로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br/>NO. 건강보조식품 중에 콩팥 기능 보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직 없다. 오히려 콩팥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체내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항생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진통제), 방사선 검사를 위한 조영제 등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만성콩팥병 환자라면 스스로 자신의 콩팥기능이 나쁜데 이런 약을 복용하거나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반드시 되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8.txt

제목: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선출  
날짜: 201603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4105131735  
본문: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가 최근 밀레니엄서울힐튼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6년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연례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6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암치료법을 과학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검증하며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지난 1998년 6월에 설립되었다. 86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br/> <br/>또한 연구회는 데이터센터,PRC를 포함한 5개 운영위원회, 10개 질병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발한 다 국가, 다기 관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r/> <br/>강 신임 회장은“항암제 임상연구기관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대규모 다국가 임상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행정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며, 국내외 제약사, CRO, 규제기관(보건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구차원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암제 임상연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r/>  <br/>강진형 교수는 1984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종양내과 학과장을 역임하였으며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 식약처중앙약심위원 및 자문위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폐암학회 재무이사, 대한두경부종양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89.txt

제목: [이덕환의과학放談] 발효식품은 인류 공통의 유산  
날짜: 2016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204044707  
본문: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간장·된장·고추장·김치·젓갈·장아찌·식초·식혜·발효주와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것이다. 암·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아토피 등의 질병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고, 의약품·비타민·아미노산 등의 산업적 생산에도 유용하다고 한다. 그런 발효식품을 한식 세계화와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br/> <br/>발효는 미생물이 식품에 포함된 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젖산·아세트산과 같은 유기산이나 에탄올로 변환시키는 생물학적 대사과정을 말한다. 효모와 같은 곰팡이나 유산균·바실루스·아세트산균 등의 박테리아가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단백질이 분해돼 감칠맛(우마미)을 내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MSG)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발효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진행된다. 19세기 중엽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알아낸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밝혀지기 시작한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다. <br/> <br/>인류는 신석기시대부터 발효를 활용해서 다양한 식품과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빵·포도주·맥주·소시지·치즈·요구르트·피클·발효차 등이 모두 발효식품이다. 과일·곡물·꿀·야채·우유·생선·육류·차(茶) 등 거의 모든 식품이 발효의 재료가 된다. 재료와 미생물, 그리고 온도와 기간에 따라 맛과 향기가 달라진다.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독특한 풍미·냄새·기능성을 더해주는 발효는 건조·훈제·염장·절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보편적인 식품 저장·가공수단이다. <br/> <br/>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독특하고 고유한 전통 발효식품을 자랑한다. 누구나 자신들의 전통 발효식품에서 문화적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심지어 두부를 발효시킨 중국의 취두부나 청어를 발효시킨 스웨덴의 수르스트뢰밍처럼 쉽게 익숙해지기 어려울 정도로 자극적인 발효식품의 경우에도 그렇다. 전통식품이라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br/> <br/>전통 발효식품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다. 발효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식중독균이나 부패균이 함께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고약한 맛과 냄새로 발효식품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독성을 가진 부산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높은 염도도 문제가 된다. 전통 발효식품인 술과 젓갈(중국식)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이다. <br/> <br/>우리 발효식품이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유치한 것이다. 물론 발효식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획일적인 고급화·균일화·규격화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장인(丈人)의 독특한 손맛이 사라진 전통식품은 아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br/> <br/>전통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우리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이 빠진 전통 발효식품은 고약한 맛과 냄새만 풍길 뿐이다. 기능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화·산업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br/> <br/>이덕환 서강대 교수·과학커뮤니케이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0.txt

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전립선암 브래키세라피 후 배뇨장애에 효과  
날짜: 2016030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2142439180  
본문: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 <br/>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동익)은 비뇨기과 박동수 교수팀이 전립선암의 근접방사선치료법 브래키세라피(brachytherapy) 후 저용량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를 복용할 경우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됨을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저명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세계비뇨기과학술지’(World Journal of Ur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br/> <br/>배뇨의 불편함은 브래키세라피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삽입해 전립선에 방사성이 집중되어 암 조직을 직접 사멸시키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변보는 것이 불편해 진다. <br/> <br/>박동수 교수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전립선암으로 브래키세라피를 시행한 환자 중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저용량(25mg) 실데나필의 배뇨증상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저용량 실데나필을 복용한 환자들이 배뇨증상 경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수 교수는 “<span class='quot0'>발기부전제의 기능 중 혈관근육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주는 기능이 골반혈관과 전립선에도 작용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에 도움을 주는 것</span>” 이라고 해석했다. <br/> <br/>전립선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확고히 인정된 두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립선적출수술과 함께 국소전립선암의 근치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전립선적출수술과 비교할 때에는 브래키세라피는 전립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적출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훨씬 적지만 초기 약 1년간 배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1.txt

제목: 日 50대 남성 42%, "내게 진정한 친구는 한명도 없다"  
날짜: 20160302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2140351759  
본문: .1500만에 이르는 싱글족, 경기불황, 개인주의, 성과주의 등에서 비롯된 일본의 슬픈 자화상이 통계로 나왔다. 특히 50대 남성 41.7%가 '친구가 없다'는 응답을 해 그들이 처한 힘든 현실을 말하고 있다. <br/> <br/>지난 1일 일본 리서치 포털 시라베에서 성인남녀 1340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물은 결과 남녀 전체 30%가 '친구가 없거나 있어도 서로 신뢰할 관계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8.1%가 여성은 28.2%가 위와 같이 답했다. <br/> <br/>연령별로 50대 남성 41.7%가 '친구가 없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40대 39.3%, 2·30대 38%, 60대 33.1%로 나타났다. <br/>반면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35.3%로 가장 높았고, 4·50대 29%, 30대 26.3%, 60대 20.3%로 나타났다. <br/>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한 응답. 20~60대 남여 1340명 대상 조사(자료= 시라베)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포털 측은 4·50대 남성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며 간부급인 그들은 회사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세대로 일을 통해 형성된 인맥(사람)은 친구라 말하기 어렵고, 바쁜 일상 등으로 관계 형성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적다고 분석했다. <br/> <br/>한편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은 43.8%가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다(활발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25.6%로 나타났다. <br/> <br/>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br/>미국 조지아대 커스틴 거스트 애머슨 교수와 심리학자 스티브 콜도는 "외로움은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외로운 사람들은 덜 건강하고 심장마비, 전이성 암, 알츠하이머 등 질병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br/>또 인간·환경학 박사 카타 타마미 역시 "고독을 방치하면 병이 된다"며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리서치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2.txt

제목: 대구의료원, 말기 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날짜: 20160302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2101037352  
본문: 대구의료원은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대구지역 최초로 시행한다. <br/> <br/>그동안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뿐이었다. <br/> <br/>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r/> <br/>이에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기관을 선정, 2일부터 ‘말기 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r/> <br/>대구의료원은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이번에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 자격을 갖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완화의료팀이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완화의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r/> <br/>특히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입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를 통해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받아 통증을 관리하고 간호사에 의한 간호 및 처치와 사회복지사를 통해 환자평가를 포함, 사회적 돌봄과 사별가족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또 안정기 환자의 경우 격주 1회 이상, 불안정기 환자의 경우 주 2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외 필요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 입원과 24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br/> <br/>가정형 호스피스 신청은 현재 입원 중인 환자가 신청하거나 외래를 통한 신청 방법이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의뢰시 24시간 내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문의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3.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바이오산업의 주역 시스템생물학  
날짜: 2016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095304930  
본문: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점차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군과 달리 바이오산업은 인구고령화에 반비례해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미 형성돼 있는 막대한 규모의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그동안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기대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br/> <br/>굳이 산업이 아니어도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쩍 늘어나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이러한 호기심은 우주와 더불어 인간이 태고부터 간직한 원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 <br/> <br/> 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현대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환원(還元)주의 정신의 기원은 1600년대 데카르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이라도 그 원인을 찾아 분석을 거듭하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인에 도달하게 되며 이로부터 현상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환원주의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생명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돼 생명체를 기계적인 부품으로 분해하고 각 부품을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br/> <br/>그러나 1930년대 루돌프 쇤하이머는 쥐실험을 통해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이 먹이로 흡수된 후 동위원소가 체내 모든 조직의 분자 구성요소로 사용된 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에 생명이 단순한 분자기계가 아니며, 부품의 다이나믹한 흐름 안에 존재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또한 1940년대 콘라드 와딩턴은 생명체의 발달과정이 개별 유전자뿐 아니라 유전자의 상호 조절작용에 의해 지배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br/> <br/>이와 같은 새로운 가설과 개념을 토대로 1970년대 스튜어트 카우프만으로부터 2000년대 수이 후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 생명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상태공간에서 평형점과 이로 향하는 수렴공간으로 설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각 평형점이 다양한 생명현상의 표현형질에 대응된다는 실험적 증거가 제시됐다. 생명은 무생물체와 달리 그 구성요소를 끝까지 분해하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그 무엇, 즉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성질인 것이다. <br/> <br/>환원주의 접근으로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었던 생명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마이크 메사로비치는 1960년대에 시스템과학(제어공학)과 생물학을 융합한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견했다. 그의 예견대로 21세기를 맞이한 생명과학은 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향한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생물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분자조절네트워크의 다이나믹스에 의해 탄생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생물학실험, 수학모델링,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융합해 접근하는 새로운 융합과학이다. 즉 정보기술이 기존의 생명과학과 융합해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br/> <br/>시스템생물학을 통해 정보기술(IT)이 이끌어가는 생명과학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암과 같은 복잡한 인체질환의 원인규명, 진단, 맞춤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의 분화유도, 노화제어, 심지어 각종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명 그 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전통적인 생물학뿐 아니라 현대 생명과학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과학의 시계는 언제나 산업의 시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br/> <br/>조광현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4.txt

제목: 콩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날짜: 20160302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095202446  
본문:  두부에서 템페(인도네시아 콩요리), 미소 된장국과 두유, 에다마메(일본의 대두요리)에 이르기까지 콩요리는 육류를 대체할 완전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우리의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br/> <br/> <br/> <br/>하지만 구글에서 '콩'을 입력하면 '콩의 위험성'이나 '콩은 정말 몸에 해로운가' 등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들이 관련검색어로 떠오른다. <br/> <br/>콩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콩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br/> <br/> <br/>1. 육류를 대체하는 콩의 장점 <br/>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콩은 단지 육류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br/>이렇게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도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은 적기때문에 더 훌륭한 영양공급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br/>'육류 먹지 않는 월요일' 캠페인도 이러한 콩의 장점 ?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육류를 먹지 않는 것 만으로도 암, 심장병, 당뇨, 그리고 비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br/> <br/> <br/> <br/>2. 콩은 완전식품인가? <br/>하지만 콩이 그 자체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낸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많지 않다.  <br/>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며, 체중감량-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br/>콩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헤더 파티셜(Heather Patisaul) 생물학 교수는 "심장병 예방의 관점에서 콩의 효능은 극히 미미하다"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에 있어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br/>실험에 따르면 매일 50g의 콩을 먹을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3% 낮아졌다. 이를 두부로 치면 1.5파운드(약 680g)에 달하고, 두유로 치면 8온스(230g)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하루에 다 먹기 힘들정도로 많은 양이다. <br/> <br/>3. 콩의 단점 <br/>가장 널리 알려진 콩의 문제점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콩단백질인 이소플라본(isoflavone)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br/>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는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감수성(estrogen-sensitive)이 높은 신체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br/>이 경우 뇌와 뇌하수체 그리고 생식기관 등 생식관련 시스템에도 교란이 생긴다. 실제로 하루에 60g이 넘는 많은 양의 콩을 섭취한 여성 중에 월경주기가 끊기는 등 생식기능에 장애가 생긴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파티셜 교수는 "뇌와 생식 활동이 에스트로겐 분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br/>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는 경우 비스페놀A(환경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콩의 섭취는 비스페놀A 보다 더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을 생산한다고 보면 된다. NIH(미국 국립보건원)은 "콩이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불확실'하다"며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호르몬에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콩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br/> <br/> <br/>4. 적당함이 정답 <br/>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콩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br/>확실히 콩의 섭취를 통해 육류섭취를 절제할 수 있고 콩을 통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br/>파티셜 교수는 "건강한 성인을 위해서 콩은 마치 설탕이나 카페인과 같다"며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5.txt

제목: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날짜: 2016030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095201885  
본문:   <br/> <br/> <br/>지난달 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수환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2012년) 대상 중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유무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인 13%(1만1154명 중 1467명)가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을 나타냈다. 유병률 수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져 20대(19~29세)의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22%로 70대 이상(4%)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또 매년 환절기가 되면 가려움, 눈물과 콧물, 재채기, 두통 등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한다. 이에 최근 미국 건강정보 전문 매체 프리벤션에서 보도한 ‘알레르기에 대해 꼭 명심해야 할 5가지’을 소개해 본다. <br/> <br/>◆ 자가진단을 하지 말라 <br/>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자가진단을 내리거나 알레르기를 단순한 감기로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알레르기는 부비강염, 중이염, 천식과 같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알레르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일상 식생활에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br/> <br/>◆ 알레르기 약은 복용하기 전 반드시 약사나 의사의 자문을 구해라. <br/>수많은 알레르기 약 중 자신에게 적합한 약을 선택하기 전에 알레르기 전문가 또는 약사와 의사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라. 어떤 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나 심장병, 전립선 암과 같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검사에 임해라. <br/>알레르기 전문의의 알레르기 진단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뤄진다. 먼저 환자가 왔을 때, 알레르기 확인을 위해 환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의사가 확인 한 후 어떤 테스트를 할 지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몇 가지 피부 테스트나 혈액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진찰 후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알레르기의 재발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질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알레르기는 성인이 된 후 생길 수도 있다. <br/>그 어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발현의 문제이다. 더 많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될수록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알레르기는 4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른이 되어서 발현되는 알레르기도 많다. <br/> <br/>◆ 알레르기는 치료할 수 있다. <br/>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와 같은 요소를 멀리하는 게 정답이라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보다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추천한다. <br/> <br/>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면역력을 키운다는 것은 면역력의 총명함을 키워주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민감성을 예방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br/> <br/>서 원장은 “<span class='quot0'>또 합성약에 의존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지만, 면역 총명을 되찾으면 콧물과 재채기 등 비정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위해서는 내 몸의 편도가 건강을 되찾아야 하고 내 몸의 편도가 건강을 되찾으면 면역 총명을 되찾게 되어 외부물질에 대해 위험한 물질인지 아닌지 식별능력이 생기게 된다</span>” 라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6.txt

제목: 아기 출산한 산모, 충분한 양의 철분 섭취 권고  
날짜: 2016030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3095139741  
본문:   <br/> <br/> <br/>‘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아이들의 인격을 형상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미친다. <br/> <br/>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엄마와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가능한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아기를 출산한 산모들은 충분한 양의 철분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엄마와 아이의 스킨십이 아기의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철분이 엄마와 아기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br/> <br/>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연구팀은 아기를 출산한 산모 중 철분 결핍 여성 64명과 철분이 충분한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아기와의 상호 관계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철분 결핍 산모들이 철분이 충분한 산모들에 비해 아기의 기분, 상태에 둔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아기에게 냉담한 태도를 자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이 연구를 주도한 Laura Murray-Kolb 박사는 “<span class='quot0'>철분 결핍 상태가 이같이 모자(母子)간의 상호관계라는 기초적 인간관계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아기와의 관계를 위해 철분제를 챙겨 먹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아이허브와 아마존, 비타트라와 같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나우푸드, GNC, 암웨이, 센트룸과 같은 유명 업체의 제품을 구매대행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철분제를 받으려는 이들의 수 역시 상당하다. <br/> <br/>그러나 철분을 구입하기 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철분의 성분이다. 철분은 그 성분에 따라 헴철과 비헴철로 나뉘는데 흔히 헴철의 체내 흡수율은 최대 35%, 비헴철의 흡수율은 최대 1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철분이 부족할 경우 비헴철은 최대 50%까지 흡수되기 때문에 철분 보충을 위해서라면 비헴철 철분제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br/> <br/>비헴철 철분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원료에도 있다. 동물성인 ‘헴철’은 비동물성인 ‘비헴철’과 달리 주로 돼지와 같은 동물의 피에서 그 성분을 뽑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헴철을 섭취할 경우, 동물을 사용할 때 사용된 항생제나 성호르몬제가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몸에 그대로 쌓여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br/> <br/>반면, 비동물성인 비헴철은 그 부작용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철분의 흡수와 활성에 도움을 주는 보조 영양소가 다량 포함돼 인체 친화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br/> <br/>하지만 비헴철의 철분 보충제라 하더라도 브랜드, 판매순위, 추천상품, 광고 글 등이 아닌 ‘합성’, ‘천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성철분의 경우, 아무런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허현회 의학전문 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시중의 철분제는 대부분 무수린산이나 질산에 철을 반응시켜 대량 생산해내는 질산 제1철, 석유폐기물에서 추출하는 피로린산 제2철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철분제이다. 이러한 합성철분은 작게는 변비부터 크게는 심장질환, 각종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며 합성 철분의 실체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br/> <br/>따라서 철분제를 고를 때는 무엇보다도 100% 천연원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제품 뒷면의 ‘원재료 및 함량’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황산제일철’과 같이 영양성분만 적혀있다면 합성철분제이고, ‘유산균배양분말(철10%)’와 같이 천연원료명과 함량이 함께 표기됐다면 천연철분제이다. <br/> <br/>하지만 천연성분의 철분제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가루 형태의 철분을 알약, 캡슐 형태로 만들 때 사용되는 이산화규소(실리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우스(HPMC)와 같은 화학 부형제는 장기간 복용 시 규폐증, 폐암, 장기 독소 수치 증가, 흉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량이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따라서 철분제를 선택할 때에는 화학부형제가 첨가되지 않은 100% 천연 비헴철 성분 철분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제품은 뉴트리코어 비타민의 철분제를 비롯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입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r/>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7.txt

제목: 전용차로 2명 탄 승합차 '딱'… 위반차량 줄줄이 단속 걸려  
날짜: 2016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1190033365  
본문: “XXXX번 스타렉스, 갓길로 나오세요. 뒤따라 오세요.” <br/> <br/>1일 오전 9시28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영업소(서울→부산) 부근. 이날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한 ‘암행순찰차’ 1호차 조수석에 탄 경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소속 김동철 경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합차에 단 2명만 탄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9인승 이상 승합차라도 6명 이상 타고 있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br/> <br/>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린 박모(53)씨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염려 없이 잘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을 울리는 승용차의 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br/> <br/> 겉모습이 일반 차량과 흡사한 ‘암행순찰차’가 1일 경부고속도로 일대에서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암행순찰차 2대를 경기·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 운용하고 연말까지 11개 순찰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br/>연합뉴스박씨의 가슴이 철렁했을 만도 했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좌우 측면에 붙은 자석식 경찰 마크를 제외하면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됐을 때 비로소 내부에 설치된 청색·적색 LED 경광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 단속 중임을 밝힌다. <br/> <br/>암행순찰차의 첫 단속에 걸린 박씨는 “<span class='quot0'>나 같은 자영업자들은 급하게 돈벌이하러 가다 보면 차선을 어길 때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함정수사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span>”고 하소연했다. <br/> <br/>3·1절인 이날 도로 소통은 원활한 편이었지만 박씨 같은 얌체 운전자가 적지 않았다. 기자가 경찰과 동행한 1시간30분간 3대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이날 오후 5시까지 13대가 암행 단속에 걸렸다. 죽전버스정류장 앞에서 적발된 김모(59)씨는 “암행순찰차가 있을지 전혀 몰랐다”며 “아무래도 운전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br/> <br/>강하게 반발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3명만 탄 승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단속된 중년 남성 A씨는 “스티커 끊으라”며 언성을 높였다. 1t 트럭을 몰고 2차로를 달리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이모(57)씨도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자 “<span class='quot1'>난폭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잡느냐</span>”고 화를 냈다. <br/> <br/>오전 9시35분쯤 2호차에서 주행 중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무전으로 들려 왔다. 1호차 운전대를 잡고 있던 윤광득 경사는 “<span class='quot2'>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쓰다가도 경찰차를 발견하면 급히 끊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암행순찰차니까 단속이 가능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범적으로 2대를 투입한 경찰은 연말까지 전국 11개 고속도로순찰대에 암행순찰차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br/> <br/>윤 경사는 “<span class='quot2'>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로의 암세포를 찾는 ‘최신 백신’인 암행순찰차를 몰게 돼 영광</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운전자들의 심리적 경각심을 높이고 난폭·보복 운전도 예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유태영·정지혜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8.txt

제목: '암 환자' 90세 할머니, 병원 대신 여행 선택한 사연  
날짜: 2016030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1143831532  
본문: 자궁암에 걸린 90세 할머니가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끝없는 여행에 나서 화제다. 할머니와 여행 중인 가족들은 집을 떠난 뒤, 오히려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br/> <br/>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사는 노르마(90)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뒤,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br/> <br/>의사는 노르마 할머니에게 수술, 방사선치료 그리고 화학치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br/> <br/>노르마 할머니는 “이제 아흔”이라며 “길바닥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병원이 아닌 길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이었다. <br/> <br/> <br/> <br/>노르마 할머니의 아들 팀과 그의 아내 레미는 캠핑카를 끌고 다닌다. 여행이 할머니의 운명이었던 듯하다. 지난해 8월, 아들 내외, 푸들 한 마리와 차에 오른 노르마 할머니는 아직도 길 위에 서 있다. <br/> <br/>레미는 “<span class='quot0'>눈이 초롱초롱한 시어머니께서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계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의 모험은 놀라움 그 자체다</span>”라고 말했다. <br/> <br/>노르마 할머니 가족은 사우스다코다주의 러시모어 산을 시작으로 옐로스톤 공원과 로키산맥 등을 거쳤다. 이들의 여정은 ‘드라이빙 미스 노르마(Driving Miss Norma)’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기록되고 있다. <br/> <br/> <br/> <br/>이들은 그랜드 캐년의 절경을 눈에 담고, 디즈니 월드를 마음껏 감상했다. 플로리다주의 고래떼도 세 사람을 반겼다. <br/> <br/>노르마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크리스마스에 선물한 열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제일 좋아한다. <br/> <br/> <br/> <br/>레미는 “<span class='quot0'>시어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아가신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음식도 잘 드시고, 야외활동도 즐기신다</span>”고 말했다. 이어 “신선한 공기와 새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br/>특히 레미는 “<span class='quot0'>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노르마 할머니 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원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br/> <br/>이들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그것은 노르마 할머니에게 달려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ABC 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499.txt

제목: '스포트라이트' 오스카 작품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버넌트' 3관왕  
날짜: 2016030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301115405477  
본문: (사진=아카데미 시상식 홈페이지) <br/>'스포트라이트'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과 각본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 <br/> <br/>'스포트라이트'가 29일 오전 10시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8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OSCARS)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 등 2개 부문을 차지했다. <br/> <br/>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미국 카톨릭 교회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다뤄 종교 체계를 밝히려 하는 보스턴 글로벌지 스포트라이트팀의 이야기를 그려냈으며 영화 '코블러', '밀리언 달러 암' 등을 연출한 토마스 맥카시가 메가폰을 잡았고 마크 러팔로와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았다. <br/> <br/>하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영화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총 12개 부문에 후보에 올라 감독상, 촬영상, 남우주연상 등3관왕을 수상하며 박수 받았다. <br/> <br/>한편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 총 7개 부문에 후보에 오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마션'은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서 수상에 실패해 무관에 그쳤다. <br/>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0.txt

제목: 고추박사가 전하는‘비만과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원인과 개선은?  
날짜: 20160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9165058603  
본문: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복부비만 유병률 결과 <br/>비만은 단순한 체중 과잉이 아니라 체지방의 과다를 의미한다. 한국인 표준으로 남성은 체지방량이 체중의 25% 이상이고 여성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br/> <br/>비만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 질환 중 암은 유방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후두암, 췌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이 있고 비뇨기과질환으로는 성기능장애, 남성갱년기, 남성불임 등이 있다.  <br/> <br/>이에 오랜 임상경험으로 국내에서 비뇨기과 분야의 명의로 일명 고추박사로 알려진 이윤수 원장의 조언을 빌어 비만과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에 대해 알아본다. <br/> <br/>◆비만은 ‘국민병’인 동시에 불임의 원인? <br/>지난 2003년 펍메드(PubMed) 저널의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학 베이컨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28.7(kg/m2)보다 높을 경우 23.2 (kg/m2)의 낮은 경우에 비해 발기부전 유병률이 1.4배로 상대적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22정도이며 23을 초과하면 과체중이고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보고 있다. <br/> <br/>또 허리둘레 이용법으로 남자의 경우 90cm(36인치) 이상, 여성의 경우 80cm(31인치) 이상이면 복부비만에 해당한다. 사실 복부비만이 당뇨, 심장질환에 위험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복부지방분포도가 총 지방량보다 더 중요하다. 한편 비만남성에서 남성호르몬 분비 감소는 필연적인데 허리가 4인치 증가되면 75%에서 남성호르몬이 감소하고 ‘함몰음경’ 등이 발생한다. <br/> <br/>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가당 비만 및 과체중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국 남자 아동 및 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율로 OECD 40개국 중 12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5~7세 남자아동 및 청소년 기준 OECE 비만 통계 평균 23%보다 높은 25%을 기록했다. 이에 4명 중 한 명은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br/> <br/>더 심각한 문제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19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31.8%(남자 37.6%, 여자 25.1%)가 비만이고, 5명 중 1명이 복부비만(남자 36인치,여자 31인치 이상)이며 50세 이상 성인이 50세 미만인 경우보다 복부비만 유병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br/> <br/>이에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세포의 과다축적은 성인에게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원래 지방세포는 에너지섭취량의 초과분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대사기능, 식욕조절 및 성기능 유지 등을 담당하는 호르몬 분비 기능과 신체 면역기능을 제어하는 싸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하는 내분비기능을 담당한다.  <br/> <br/>◆비만과 발기부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개선책은? <br/>지방세포의 과다한 증가는 만성염증을 조장하는 싸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의 다량분비로 이어져 발기에 필수적인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상(산화질소감소)을 초래하여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br/> <br/>고추박사 이윤수 비뇨기과 원장은 “<span class='quot0'>‘발기’라는 과정은 음경의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혈관의 확장을 유발하는 산화질소(NO)가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되면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의 조직에 피가 충만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비만에 의한 지방세포 증가는 혈관내피세포의 염증을 유발하여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성적 자극을 줘도 혈관의 확장이 되지 않아서 발기부전을 초래하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즉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음경혈관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비만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상을 초래하여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여성에게도 유사하게 작용하여 비만이 음핵으로의 혈액 공급을 저해해 여성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윤수 원장은 “<span class='quot1'>또한 비만은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을 초래하고 산소대사물질인 반응성산소기(reactive oxygen species)혹은 반응성 산화질소(reative nitrogen species)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렇게 증가된 반응성 산소기 또한 혈관의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자극을 주었을 때, 혈관의 확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 또한 이런 산화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정자의 생산에 영향을 주어 정자의 운동성, 모양 및 수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정자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 원장은 “<span class='quot1'>결론적으로 비만은 남성불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즉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및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싸이토카인은 모두 발기를 담당하는 음경의 혈관의 내피세포의 기능이상을 초래하고, 이는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 그 외에도 내피세포 기능이상은 동맥경화, 뇌졸증,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므로, 비만의 예방은 필수적이다</span>”라고 말했다.  <br/> <br/>한편 비만으로 인한 발기부전의 경우 비만을 치료하면 증상도 호전되고 심지어 정력까지도 개선될 수 있다. 비만 탈출의 요령으로는 가장 먼저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현재 체중의 3-~5%을 감량하도록 정해 1주일에 0.5-0.75kg  체중의 1% 이내 감량하며 첫 단계로는 식생활 변화, 운동, 생활습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식욕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등 약물요법과 수술 등이 있다.  <br/> <br/>비만개선 후에도 성관계시 질내삽입을 위한 강직도를 얻을 수 없거나 또한 발기가 되더라도 발기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동과 절주, 금연과 같은 노력에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과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1.txt

제목: 암 환자 캠페인 찍었다가 진짜 암 진단받은 여배우  
날짜: 2016022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9143427526  
본문:   <br/> <br/> <br/>‘암 환자’로 자선단체 광고에 등장했던 잉글랜드의 40대 여배우가 몇 달 후 암 진단 받았던 사연이 알려졌다. 다행히 2년에 걸친 항암치료를 잘 견딘 덕분에 여성은 암을 떨쳐냈다. <br/> <br/>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2014년 영국 맥밀란 자선단체 광고에 암 환자로 등장했던 애너벨(47)이 전파를 탄 지 4개월 후,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애너벨은 믿을 수 없었다. 몇 달 전 가짜 환자였던 자신에게 정말 암이란 질병이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고심 끝에 남편 그리고 두 아들에게 암 진단 사실을 조심스레 알렸다. <br/> <br/>한 가지 다행이라면 가상의 암 환자가 됐던 덕분에 애너벨의 충격이 그나마 덜했다는 사실이다. <br/> <br/>애너벨은 캠페인 영상을 찍으면서 자선단체의 역할과 환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도 이미 알아둔 터라 침착히 치료할 수 있었다. <br/> <br/> <br/> <br/>애너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었다”며 “기묘하게도 캠페인 광고 덕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 환자 가족들을 돕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것을 알고 있었다”며 “맥밀란에서 충분한 조언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br/> <br/>애너벨은 방사선 치료 30여 회와 화학치료 6회, 유방절제술 등을 잘 견뎌 약 2년에 걸친 투병생활에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2.txt

제목: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미혼여성 난자 보관 늘었다  
날짜: 20160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9115209263  
본문: 2015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오픈한 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전경 <br/>최근 일본에서 40대의 건강한 여성이 보관한 냉동난자를 해동해 첫 출산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만혼을 대비해 난자를 보관 사례가 늘고 있다. <br/> <br/>◆차병원 37난자은행 조사 결과, 37세 이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건강한 아이 출산 확률도 높아 <br/>차병원 난임센터 37난자은행 조사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만혼과 노산을 대비해 난자를 보관한 미혼 여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작년 한해만 128명으로 전년(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30명)과 비교해서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br/> <br/>난자를 보관한 여성들의 주 연령층은 35세에서 40세 이하의 전문직 여성들이 36%로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들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20대도 14%를 차지하며 상당수의 전문직 여성들이 젊은 시절부터 난자 보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난자를 보관한 여성들의 62%가 만혼을 대비한 미혼 여성들로 시험관 아기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23%보다 월등히 높았다. <br/> <br/> <br/>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김자연 교수는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이 되면 노산이라고 부르고 40세 이상이 되면 임신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span>” 며 “<span class='quot0'>최근 일과 졍제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난자를 보관하려는 미혼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span>” 라고 설명했다. 또 “결혼이 늦은 여성이라 해도 난자의 질만 우수하다면 큰 문제 없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며 “미혼이라도 37세 이전에 난자를 보관한다면 결혼 후 임신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r/> <br/>난자냉동은 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난자의 질 저하나 난자가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혼 여성이 혹시나 모를 난임에 대비해 보관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br/> <br/>강남차병원 장은미 교수는 “<span class='quot1'>요즘은 난자 냉동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1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span>” 며 “<span class='quot1'>실제로 지난 2011년 차병원에서는 백혈병 환자가 치료 후 10년 보관 난자를 해동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예도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2012년 미국차병원 난임센터에서 미혼 여성이 보관한 난자로 결혼 후 출산 <br/>건강한 여성이 보관한 난자를 해동해 아이를 낳은 사례는 2011년 미국차병원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시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올해 첫 출산 사례가 나오며 향후 새로운 임신과 출산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차병원 서울역 난임센터 37난자은행은 37세 이전에 난자를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차광렬 총괄 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으며, 만혼과 노산의 시대에 난임 해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3.txt

제목: 국가 암 검진 통한 위암 예방 사례 증가  
날짜: 20160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9103845174  
본문:   <br/> <br/> <br/>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그중 위암은 암 발생률 2위다. 현재 국가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위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내시경 장비와 시술의 발전으로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절제술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해졌다. <br/> <br/>◆위암 검진 대상자 중 절반만 검진 받아 <br/>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의 위암 검진 대상자 중 실제 검진을 받은 사람은 55%(남성 25%, 여성 30%)로 절반만 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암 검진에서 위염, 위 용종 등 양성 질환을 발견한 경우가 74%였고, 위암 의심 병변 0.15%, 위암을 발견한 경우가 0.14%였다.  <br/> <br/>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 위암의 경우 1년 만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span>” 고 말했다. <br/> <br/>◆비용 절감과 질환 발생률 낮추는 국가 암 검진 <br/>암 검진의 경우,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을 키우는 셈이 되어 내시경적 절제나 작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을 병변도, 큰 수술을 요하거나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br/> <br/>강동경희대병원에서도 2009년 이후 매년 20여명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위암을 진단받고 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한 장기에만 침범하거나 침범 범위가 국소적일 때는 60~90%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이지만, 전이가 동반된 경우 10~20% 미만으로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br/> <br/>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암 검진을 받은 그룹이 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18%, 사망률은 42%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했다. <br/> <br/>차재명 교수는 “<span class='quot1'>국가 암 검진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암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검진을 통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span>” 고 강조했다. <br/> <br/>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 일반검진실을 확장 이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암 검진을 제공한다. 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를 받은 사람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검진이 가능하다. 또한 내시경실 확장과 함께 내시경 장비도 최신 장비로 새롭게 보강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4.txt

제목: '애인있어요' 지진희 호흡 김현주, 과감한 '상반신 노출' 화보 공개.. '알고보니?'  
날짜: 2016022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8181821226  
본문: `애인있어요` 지진희 호흡 김현주 화보 공개 사진=싱글즈SBS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에 출연 중인 배우 지진희와 김현주가 화제인 가운데 지진희와 호흡 맞춘 김현주의 상반신 노출 화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br/> <br/>과거 김현주는 유방암을 이겨낸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캠페인 화보 촬영에 동참해 상반신 노출을 불사하는 열정을 보였다.  <br/> <br/>당시 김현주는 화보 촬영 인터뷰에서 "이번 화보 촬영은 암을 이긴 여성들과 함께 진행돼 개인적으로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28일 마지막 방송을 앞둔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 49화에는 최진언(지진희)과 김현주(도해강)이 진실을 알게 된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5.txt

제목: [조용호의문학노트] 에코의 농담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6210638115  
본문: ‘살아 있는 백과사전’이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기호학자, 미학자, 언어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소설가였던 움베르토 에코(1932~2016)가 지난주 타계했다. 2년 동안 암과 투병하다 향년 84세로 ‘눈물의 골짜기’를 떠났다. 그는 과연 자신의 농담처럼 담담하게 떠났을까. <br/> <br/>그가 쓴 ‘죽음에 담담하게 대비하는 법’에 따르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그리 생각한다면 ‘바보들의 골짜기’를 떠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스승에게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것을 권유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리톤을 불러내 말한다. 너무 일찍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선은 남들이 자기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되 마흔 살쯤에는 미심쩍다는 생각을, 쉰에서 예순 살 사이에는 이제까지의 생각을 수정하고, 백 살에 이르러 하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확신에 도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명심할 것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에는 치열한 공부와 사려 깊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니 이는 에코의 도저한 농담인 셈이다. 이 말을 들은 크리톤이 “선생님께서 혹시 바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에코는 “자네 벌써 죽을 때가 되어가는구먼”이라고 받아친다. <br/> <br/> 조용호 문학전문기자에코의 농담은 썰렁한 개그로 끝나지 않는다. 40개국에서 출간돼 5000만부 넘게 팔렸다는 ‘장미의 이름’ 다음으로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를 구가한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서 그는 “악의나 잔혹함에 분개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 어리석음에 분노하는 것이라면 웃으면서 화를 낼 수 있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공평하게 나눠 가진 것은 양식(良識)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부연한다. 한국 전통에서 풍자는 지배계층을 향한 비수이고, 해학은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 이들의 애환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일찍이 김지하 시인이 ‘풍자냐 자살이냐’에서 설파한 적도 있거니와 위선을 까발리는 에코의 솜씨는 날카로운 풍자에 가깝다. <br/> <br/>그는 ‘텔레비전에서 교수형 생중계를 보는 법’에서 사형 집행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식사 시간대에 생중계를 하되 사형 찬성론자들은 “마땅히 사형수가 버둥거리고 껄떡거리고 지지직 타들어가고 소스라치고 움찔거리고 콜록거리다가 저의 더러운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리며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이라는 최고의 정의를 지지한다면 먹고 마시면서도 죽어가는 사형수를 보고 중세의 구경꾼들처럼 미친 듯이 좋아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앞의 죽임은 외면하면서 관념적으로만 사형을 외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만큼 날카로운 역설로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br/> <br/>에코의 소설은 에세이처럼 만만하지 않다. 그는 “문학의 목적이 오로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것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급 독자들과는 지적인 게임을 벌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독자들도 ‘성배’를 찾는 게임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성공한 소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코드의 성공적 적용이야말로 “독자들의 지성과 소설에 대한 애정에 경의를 표하는 한 방식”이라고 했다. 그가 48세까지 연구한 중세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장미의 이름’을 쓰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그러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장편을 완성했노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지만 ‘푸코의 진자’를 쓸 때는 8년이 걸렸고, ‘전날의 섬’과 ‘바우돌리노’는 6년이 걸렸다고 한다. <br/> <br/>이즈음 작가들, 잊힐까 두려워 서둘러 작품을 내놓고 독자들만 탓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독자들이 활자를 외면한다는 풍문이 들릴수록, 작가들의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에코조차 장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짧게는 6년씩이나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빈약한 지식과 경험으로 쉽게 축조한 서사로 어찌 이 험한 독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작가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언사로 비칠 수 있지만 독자는 작가들의 호구까지 감안해 작품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에코(Eco)가 남기고 간 에코(Echo)의 여운이 길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6.txt

제목: 포스코청암상에 조윤제 교수 등 선정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5205633825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25일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조윤제(사진) 포스텍 교수, 교육상에 금오공업고등학교, 봉사상에 라파엘클리닉을 선정했다. 조 교수는 종양 억제 단백질과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손상된 DNA를 인식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밝혀내 암 치료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금오공고는 1973년 설립 이후 기능인 양성에 이바지했고 라파엘클리닉은 이주노동자를 위해 무료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7.txt

제목: '패킷감청' 위헌 판단, 5년간 끌다 결론 없이 종결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5191153564  
본문: 헌법재판소가 정보당국의 무제한 검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패킷감청’ 기법의 위헌 여부를 5년 동안 가리지 않다 사건을 종결했다. <br/> <br/>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가 숨지고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질질 끌다가 결론도 안 내고 종결한 데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br/> <br/>◆헌재, 5년간 시간 끌다 청구인 사망하자 ‘종료’ 선언 <br/> <br/>헌재는 5년 전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25일 선언했다. 헌재는 “<span class='quot0'>청구인은 헌재에서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년 9월 사망했는데,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span>”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서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사건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br/> <br/>문제의 ‘패킷감청’ 논란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11년 3월이다. 패킷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내용을 중간에서 가로챈 뒤 수사 대상의 컴퓨터 화면과 똑같은 내용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 대상자가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 통화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 등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내용과 무관한 사생활 내용까지 엿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br/> <br/>당시 고등학교 도덕교사였던 김모씨는 국정원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자신에 대한 패킷감청을 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묻는 시험문제를 낸 게 화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패킷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패킷감청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청이 가능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br/> <br/>◆패킷 감청 위헌소지 많아 <br/> <br/>그러나 헌재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패킷감청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헌재는 “유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r/> <br/>법조계에서는 패킷감청에 대해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수집할 수 있다”며 위헌성 견해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감청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다. 하지만 헌재가 꿈쩍도 안 한 사이에 김씨는 암에 걸렸고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br/> <br/>일각에서 헌재가 국정원 등 정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사건의 헌법소원을 담당한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5년씩이나 사건을 끈 것은 헌재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것</span>”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적으로 중요쟁점을 담은 사건은 신청자가 사망해도 본안 판단을 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헌재의 태도를 비판했다. <br/> <br/>박현준·정선형 기자 hjunpar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8.txt

제목: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암 교육강좌 진행  
날짜: 2016022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5104736591  
본문: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오는 3월 한 달간 암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암 교육 강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3월8일 11시,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유방암 예방과 최신 치료(3월9일 14시, 유방외과 김지영 교수) △암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3월21일 16시, 건강증진센터 권영훈 교수) △암환자를 위한 건강한 운동법(3월30일 14시, 스포츠의학센터 허성협 운동치료사) 강의를 통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br/> <br/>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강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좌는 전화 신청을 통해 사전예약해야 한다. <br/> <br/>한편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암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1년에 지정한 지역암센터로, 암환자의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치유와 회복’이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다. 암 교육강좌는 경기지역암센터가 지난해 시작한 연중 프로그램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09.txt

제목: 이 빠진 남성, 폐쇄성폐질환 위험 4배 높아  
날짜: 20160225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5095535856  
본문:   <br/> <br/> <br/>백세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한 치아 관리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연치아가 소실된 남성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와 같은 폐쇄성폐질환의 동반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br/> <br/>특히 COPD는 폐기능이 50%이상 떨어져야 자각증상이 나타나고,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으면 생존율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암 보다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잠재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    <br/>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형규(교신저자)·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세원(제1저자) 교수팀이 2012년 국민건강영양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 남성 1,291명과 여성 1,798명 총 3,089명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나이, 체질량 지수, 사회경제적 지표, 구강 건강 지표를 보정한 뒤에도, 남성 폐쇄성폐질환 그룹의 잔존 자연치아개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br/> <br/>윤 교수팀은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제한성, 폐쇄성폐질환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잔존 자연치아의 개수는 세 번째 대구치(사랑니)를 제외한 28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잔존 자연치아가 20개 이하인 남성은 자연치아가 모두 있는 그룹(full dentition)에 비해 폐쇄성폐질환이 있을 위험이 4.18배 높았고, 10개 이하면 4.7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총 잔존 자연치아 개수와 폐쇄성폐질환의 유의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br/> <br/>대표적인 폐쇄성폐질환인 COPD는 기관지가 좁아지고, 숨이 차고, 가래, 호흡 곤란,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이다. 입술과 손끝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병이 심하면 한 걸음만 옮겨도 숨이 차고, 15cm 앞 촛불도 끄기 힘들 정도로 숨쉬기가 어렵고, 더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br/> <br/>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유병률은 13.5%이고, 65세 이상은 31.5%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한국인 사망원인의 6위이다. 80~90%가 흡연이 원인이며, 손상된 폐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br/> <br/>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윤형규 교수는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구강 내 병원균이 하기도를 통해 쉽게 호흡기로 침투될 수 있고, 치주질환과 관계된 타액 내 효소들이 호흡기 환경을 변화시켜 병원균이 쉽게 침투하기도 하며, 나쁜 구강 건강은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기도 점막의 병원균 방어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br/> <br/>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세원 교수는 "남성에서 잔존 자연치아 개수와 폐쇄성폐질환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한 이번 연구결과로, 진료실에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구강건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잔존 자연치아의 개수가 COPD를 포함한 폐쇄성폐질환 진료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이번연구는 International Journal of COPD 2015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0.txt

제목: [기고] 100세 시대 행복 ‘심신건강’에 달렸다  
날짜: 2016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211547125  
본문: 최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말이 유행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누리던 100세 이상의 삶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뜻하는 용어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0년 3523명이던 100세 이상 인구가 2015년에는 557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길어진 노년기, 황혼의 삶을 누리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다. <br/> <br/>2014년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을 비롯한 이들 질병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한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금연과 절주를 꼽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담배 하면 폐암만 연상하는데 담배는 위암,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 구강암 등 거의 대부분의 암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담배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 2, 3위의 암 모두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끊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잘돼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병원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챔픽스 등 약물처방이 가능하며, 12주 약물치료나 6회 진료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10만원 상당의 건강용품도 받을 수 있다.  <br/> <br/>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전대한병원협회 회장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하다. 운동은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유산소운동은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체중 감량과 심폐기능 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근력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주고 만성질환의 예방, 각종 신체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운동-유산소운동-근력운동-유산소운동-마무리운동’의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br/> <br/>성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미리 막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간염 항체가 없을 경우 A형 간염은 6개월에 걸쳐 두 차례, B형 간염은 첫번째 접종 후 1개월, 6개월에 걸쳐 세 차례를 맞아 항체를 생성해 둬야 한다. 아울러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10~12월, 폐렴구균은 평생 단 한 번만 맞으면 된다. 대상포진은 1년 이내 앓은 적이 없을 경우 평생 단 한 차례만 맞으면 되고, 파상풍 예방주사는 날카로운 물체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한 해 10년마다 맞아주면 된다. 또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자궁경부암 및 MMR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br/> <br/>건강하게 늙기 위한 마지막 방점은 정기적인 검진이다. 주요 질병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장수도 하고 남은 노후를 즐길 수도 있다. 40세 미만의 사람은 2년마다 기본검진을, 40세 이상은 매년 기본검진과 함께 가족력이나 병력에 따라 암검진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혈관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br/> <br/>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차선책도 불가능하다면 차차선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자세로 맑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br/> <br/>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전대한병원협회 회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1.txt

제목: 택시 이엘, 돋보이는 패션 센스 "다시 일해야지" 여신 강림  
날짜: 20160224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171840674  
본문:   <br/> <br/> <br/>택시 이엘이 화제망에 오른 가운데 이엘의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이 눈길을 모은다. <br/> <br/>이엘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pan class='quot0'>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다시 일해야지 암요,일해야죠</span>”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br/> <br/>공개된 사진 속 이엘은 자신의 얼굴만한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br/> <br/>특히 그녀는 진한 립스틱과 감각적인 패션으로 보는 이들을 감탄케 만들었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2.txt

제목: 국제암대학원대학교, 2016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날짜: 201602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152145806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강현)는 24일 오전 10시 국가암예방검진동 10층 강의실에서 입학식을 겸한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br/> <br/>이번 학기에는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학생 4명을 포함 총 16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특히 신입생 가운데 3명은 현재 국립암센터에 근무 중인 임상의로서 이번 학기부터 신설한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입학하게 됐다. <br/> <br/>이강현 총장은 "올해 초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진정한 암 관리 및 연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2014년 3월에 개교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암관리정책학과, 시스템종양생물학과에서 매년 전후기에 걸쳐 석사학위과정 35명을 선발하며,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한다. 현재 라오스, 르완다, 몽골, 베트남, 중국, 카메룬,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아프리카 11개국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br/> <br/>현재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특수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3.txt

제목: 충북 청주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질산성 질소 기준치 3배 초과  
날짜: 20160224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134710526  
본문: 충북 청주 광역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br/> <br/>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흥덕구 강내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동동의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33.4ppm 검출됐다. <br/> <br/>이는 먹는 물 기준치(10ppm)의 3배를 초과한 것이다. <br/> <br/>질산성 질소는 질소 화합물이 산화 분해해 무기화한 최종 산물로 유기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기준 물질이다. <br/> <br/>지동동 또 다른 지점 지하수 역시 작년 8월과 10월의 조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각각 13ppm, 15ppm으로 나와 이 일대의 지하수가 쓰레기 매립장의 영향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br/> <br/>이번 조사에서 일부 지역 하천은 유기 인이 기준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에 인접해 있지만, 반경 2㎞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보상지역에서도 빠져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br/> <br/>이 마을의 한 주민은 "지하수가 오염됐는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주민 8명이 암에 걸렸는데 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청주시 관계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위해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며 "1년 계획인 조사가 끝나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보상지역 확대, 환경오염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시는 2001년부터 사용했던 강내면 146만여㎡의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2만9000여㎡확장, 당초 계획보다 4년을 연장한 2019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4.txt

제목: 조기 위암, 치료 선택폭 넓어지나?  
날짜: 2016022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105059159  
본문: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 민병훈, 이혁 교수 <br/>조기 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환자들의 선택폭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br/> <br/>최근 조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치료와 수술의 10년 생존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내시경 치료가 수술 못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준 적용 대상 이외에는 장기적 치료 효과를 두고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렸었지만, 이번 연구에서 수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내시경 치료는 위암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림프절 전이나 궤양이 없고, 분화도가 좋은 점막암인 경우를 기준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에는 위암 크기가 2cm가 넘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 등도 의료진의 판단 아래 제한적이지만 치료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br/> <br/>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민병훈•이혁 교수, 표정의 임상강사(이상소화기내과)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1,290명) 또는 수술적 치료(1,273명)를 받은 환자 2,563명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미(美) 소화기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F 10.75)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연구팀은 우선 환자마다 서로 다른 연령, 성별, 동반질환은 물론 암의 모양, 침윤정도, 위치, 분화도 등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반영한 뒤, 두 그룹을 대표하는 환자 각 611명을 추려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10년 전체 생존율은 내시경 치료 그룹이 80.1%, 수술 그룹이 80.8%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환자들이 다른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위암을 기준으로 10년 생존율을 다시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br/> <br/>내시경 치료 그룹의 생존율은 98%, 수술 그룹은 96.9%으로,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양 쪽 모두에서 매우 낮았으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다만 위암 재발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치료법인 수술이 내시경 치료보다 여전히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br/> <br/>10년을 기준으로 위암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한 비율을 따졌을 때 내시경 치료 그룹은 60%에 불과했지만, 수술 그룹은 80.6%였다. 위를 보존하는 내시경 치료와 달리 암 발생 부위를 광범위하게 절제 가능한 수술적 치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장기 생존율이나 위암 기준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조기 위암 치료에 내시경과 수술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br/> <br/>김성 교수는 “위암의 근본적 치료는 여전히 수술이 밑바탕을 이루겠지만, 적합한 환자를 잘 선정하면 내시경 치료도 수술처럼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환자에게 무엇이 더 최선인지를 따져 치료 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는 최근 5년간 위암 내시경 치료 건수가 4,000례를 돌파한 가운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기 위암 환자 치료 모델을 정립,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 <br/>이혁 교수는 “<span class='quot1'>조기 위암을 내시경적 치료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내시경 시술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번에 얻은 장기 생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 재발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5.txt

제목: 감기만큼 흔하지만, 목숨까지 위험한 우울증  
날짜: 201602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102918368  
본문:   <br/> <br/> <br/>흔히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들이 우울증을 빨리 치료하기보다는 가능한 치료를 뒤로 미루고 병을 키우게 한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편견으로 선뜻 치료에 나선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 <br/> <br/>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여성 5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우울증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될 만큼, 우울증은 주변에 널리 퍼져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인구의 5~10%는 일생동안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즉 10명 중 한 명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이런 우울증은 우울감뿐만 아니라 불안, 불면증, 의욕상실, 부정적 사고로 이어지며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대인관계에서의 좌절과 사회생활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지속되면 신체의 균형이 깨져 더 크게 병을 키우기 쉽다. <br/> <br/>◇ 우울증이란? <br/> <br/>우울증이란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기분의 문제를 넘어서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br/> <br/>우울증은 슬프고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불면, 식욕감퇴, 피곤함, 성욕감퇴, 의욕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 장애이며,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 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위험 <br/> <br/>우울증은 유전이나 심리적인 요인, 대인관계, 경제적인 원인 등이 있다. 보통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 발병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유전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일반인구의 주요 우울장애 발생빈도가 약 1%인 것에 비해,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br/> <br/>심리적 요인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대인관계에 대한 기피라던지 가족 중 누군가의 죽음, 경제적 파산 등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원인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사회에서의 실패, 사별 등 큰 상실감과 우울증은 큰 연관이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br/> <br/>이 뿐만 아니라 대사장애나 내분비 장애, 심혈관계 질환, 종양 등 신체질환에 결려 있는 경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신체적 질병이 심각할수록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신경 호르몬, 자율신경계의 변화도 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br/> <br/>또한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와 경제적 소외는 노인들에게서 사회적 상실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 <br/> <br/>◇ 전조증상 알고 미리 체크해야 <br/> <br/>우울증은 증상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며,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의 우울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우울증의 증상은 바로 우울감과 불안, 공허감, 절망감 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 죄책감, 무력감, 의욕상실 등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br/> <br/>또한 신체적으로는 식욕이 저하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과 급격한 체중 증가를 보일 수 있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피로를 느끼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소화불량, 만성통증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거나 망상이나 환각,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br/> <br/>특히 가정불화, 술에 의존한다던지 게임에 빠지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 증세가 다양한 만큼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우울증 위험이 높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br/> <br/>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취미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찾거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지속하거나 힘든 일이나 마음속의 생각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의 일원이나 친구에게 자주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주 3회 이상의 운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것 역시 좋고 과도한 음주, 흡연은 자제하고 습관성 약물복용과 낮잠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br/> <br/>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함병주 교수는 "생활습관 속에서도 의욕저하와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빠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를 치료받고 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 우울증 예방할 수 있는 생활속 Tip <br/> <br/>우울증을 예방하려면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본인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족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가벼운 우울증은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br/> <br/>또 가정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생활요법으로는 금연, 절주와 함께 낮 시간에 산책하며 적어도 30분 이상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6.txt

제목: 재해·질병 보장 내맘대로… 특약 11종 맞춤 선택 가능  
날짜: 2016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4020415614  
본문: 교보생명이 이달 출시한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갱신형)’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보험상품이다. <br/> <br/>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각종 재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실속 있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 4종, 일반특약 7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을 조립해 각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br/> <br/> 교보생명 모델이 사망을 비롯해 각종 재해나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실속형 보험인 ‘내 생활에 맞춘 보장보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나이와 경제상황 등에 맞게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선택해서 가입하는 방식이다. <br/>교보생명 제공생활보장특약은 상해, 암, 2대질병, 간병플랜 중 1개 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큰 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진단비와 함께 본인과 남은 가족에게 3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입원이나 수술·골절 등을 보장하는 일반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br/> <br/>갱신형(20년) 계약 방식으로 필요한 보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최초 가입 시에는 순수보장형과 100%, 70% 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보험료는 갱신할 때 보험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20년 후 갱신 시에는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수보장형으로만 갱신이 가능하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7.txt

제목: 녹차 하루 한잔만 마셔도 조기사망률 10% 감소  
날짜: 201602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3183422085  
본문:   <br/> <br/>하루 한잔의 녹차를 마시면 심장질환과 조기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데일리메일 매체는 일본에서 40세부터 69세 사이의 중장년 9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심장병, 중풍 그리고 순환기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23일 전했다. <br/> <br/>전염병학회( Annals of Epidemiology)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한 컵의 녹차를 마시면 조기사망률이 10%, 5잔 이상을 마시면 17%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EGCG성분을 포함한 폴리페놀인 항산화제가 몸의 혈압과 지방을 조절하는 작용 때문이다. <br/> <br/>특히 녹차에 포함된 카테친 유도체 중의 EGCG(epigallocatechin-3-gallate) 화합물은 시험관에서 실험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또한 발암물질을 동물에게 주입하여 의도적으로 생성시킨 각종 종양의 발달이 카테친 유도체에 의해서 억제되는 동물 실험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8.txt

제목: '냉장고를 부탁해' 김주혁, 10년이 지난 소스 "어머니가 생전 쓰시던 소스다"  
날짜: 20160222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2225307951  
본문: 사진=김주혁 출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캡쳐 (냉장고를 부탁해 김주혁, 김주혁 어머니, 김주혁 소스, 냉장고를 부탁해 김주혁 출연, 김주혁 냉장고)배우 김주혁이 15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다. 이와 함께 '냉장고를 부탁해' 김주혁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이날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배우 김주혁과 최지우가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br/> <br/>김주혁은 어머니 요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에 대해 "거의 매일 똑같았다. 아버지가 매일 비슷한 반찬을 원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br/> <br/>김주혁은 이어 "근데 어머니는 나도 그러시는 줄 아셨는지 매일 같은 요리를 해주셨다. 맛있다고 하면 한 두 달은 계속 해주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신 다음에 미각을 잃으셨다. 구강에 암이 있어서 어느 순간 간이 안 맞았다"고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놨다. <br/> <br/>MC들은 김주혁에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부쩍 외로울 것 같다"는 질문을 던졌다. 김주혁은 "요즘은 걱정되는 게 외롭지 않다. 심심한 것도 못 느끼고 편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br/> <br/>특히 김주혁은 냉장고에 최대 10년 전 소스까지 보관하고 있어 모두를 경악케 했다. 김주혁은 소스를 보고 "어머니가 생전 쓰시던 소스다"고 설명했다. <br/> <br/>한편 김주혁이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19.txt

제목: [사설] 건보 재정 구멍 틀어 막을 특단 대책 세워라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2204532569  
본문: 비리 복마전이 따로 없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의료기관 재정누수 실태에 따르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진료비가 8119억원에 달했다. 부당 수급액은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4년 3403억원으로 5년 새 980배나 불었다. 비리의 증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다. 그나마 들통이 난 범죄가 이 정도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br/> <br/>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범죄의 온상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동네의원이나 한의원, 약국, 치과의원까지 닥치는 대로 먹잇감으로 삼았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노숙인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건보 재정을 곶감 빼먹듯 했다.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설립해 의료급여를 타먹기도 했다. 이런 파렴치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br/> <br/>더 심각한 문제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빼먹더라도 거의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당 수급액 중에서 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09년 전체의 97.7%에서 2014년 5.7%, 2015년 4.2%로 추락했다. 건보 재정은 눈먼 돈이란 인식이 굳어지다 보니 아무도 납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비리가 터질 때마다 공단이 그럴싸한 대책을 내놨지만 말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br/> <br/>부당 수급은 건보 재정의 부실을 앞당기는 암적 범죄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9년 후인 202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균형감까지 상실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건보체계의 전면 수술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반발 때문에 2년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 건보체계의 수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줄줄 새는 건보 재정을 그냥 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메스를 잡기 전에 건보 재정의 뚫린 구멍부터 메우는 것이 순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0.txt

제목: 제일병원-미스코리아 녹원회 유방암 예방 캠페인 공동전개  
날짜: 2016022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2101023302  
본문:   <br/> <br/> <br/>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병원장 민응기)과 사단법인 미스코리아 녹원회(회장 김미숙)가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유방암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 홍보와 치료기금 마련 등의 공익 캠페인을 전개한다. <br/> <br/>제일병원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스코리아 녹원회 회원과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여성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제일병원 여성암센터에서 유방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기검진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br/> <br/>이날 유방검진에는 미스코리아 녹원회 권정주 초대회장, 김미숙 회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여성 등이 참가했으며 유방촉진과 엑스레이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고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br/> <br/>제일병원 외과 허민희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조기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조기발견에 따른 환자 생존율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한 증상 없이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50%에 이르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으로 가슴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관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r/> <br/>직접 검사를 받은 녹원회 김미숙 회장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주변에 많다"면서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로 유방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여성들에게 알리고자 미스코리아들이 앞장섰다"고 말했다. <br/> <br/>이번 유방검진을 계기로 제일병원과 미스코리아 녹원회는 유방암 퇴치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소득계층 여성 유방암 치료비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br/> <br/>미스코리아 녹원회는 이번 정기검진 캠페인에 앞서 지난해 10월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에서 모금한 수익금 1000만원을 제일병원 여성암센터에 기부한 바 있다. <br/> <br/>한편 유방암은 세계 전체 여성암의 25%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최다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암 중 두 번째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생존률이 높아진다. 5년 생존율은 0기 환자의 경우 98.8%, 1기 97.2%, 2기 92.8%에 이르지만 3기에는 78.7%, 4기에는 44.1%로 병기별로 생존율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br/> <br/>지난해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군은 40대로 40대, 50대, 60대, 30대, 70대 순으로 많았으며 최근 50대 이후 유방암 진단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 발병 확률이 3.14%지만 현재 20대 여성의 경우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7.42%로 위험도가 약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20대인 여성 13명 중 1명은 유방암 환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다. <br/> <br/>유방암 고위험 인자로는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한 긴 여성호르몬 노출, 고령출산,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꼽힌다. 중증도 위험인자로는 체내 에스트로겐, 혹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경우이며 저위험인자는 알코올 섭취, 55세 이후의 폐경 등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1.txt

제목: 20세기를 빛낸 지성, 천국의 도서관으로 떠나다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1212200486  
본문: “<span class='quot0'>인간의 생각과 사상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span>”(움베르토 에코 생전 인터뷰 중) <br/> <br/>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성 움베르토 에코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br/> <br/>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암 투병 중이던 에코가 전날 오후 9시30분쯤 이탈리아 밀라노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에코는 신학을 기초로 기호학, 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으면서도 소설과 에세이 등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한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br/> <br/> 지난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자택에서 84세 일기로 별세한 세계적인 기호학자 겸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자신의 마지막 소설 ‘누메로 제로(Numero Zero)’ 출판기념회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독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br/>파리=AP연합뉴스그는 1932년 1월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에코라는 이름은 ‘하늘이 내려준 재능’(ex caelis oblatus)이라는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어린 시절 가톨릭 계열 학교에서 공부한 에코는 토리노대에 진학, 중세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다. 1956년부터 9년 동안 이탈리아나 라디오텔레비전(RAI)에서 문화 담당 편집자로 일하며 토리노 대학 강단에 섰다. 1971년 볼로냐 대학 최초의 기호학 교수로 임명된 에코는 1976년 ‘기호학 이론’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밀라노·피렌체 대학 등에서 미학, 건축학, 언어학을 강의했다. <br/> <br/>그는 소설 ‘장미의 이름’(1980년)으로 이름을 알렸다. 14세기의 한 수도사가 연쇄 살인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이 추리소설은 기호학과 성경에 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평단의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40여개 언어로 번역돼 5000만부 이상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후 집필한 소설 ‘푸코의 추’, ‘누메로 제로’ 등도 잇따라 베스트셀러가 됐다. <br/> <br/>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세상에서 (나는) 소설을 통해 패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span class='quot1'>그의 에세이와 소설은 모든 곳의 문화를 풍요롭게 했다</span>”고 추모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span class='quot2'>이제 도서관은 만족할 줄 모르는 독자를, 대학은 눈부신 업적을 가진 교수를, 문학계는 열정적인 저자를 잃었다</span>”며 애도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2.txt

제목: 무한도전 하상욱, "내 글이 어머니 인생 찾아줘" 눈물…'절절한 효심'  
날짜: 2016022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1081458986  
본문: 무한도전 하상욱, "내 글이 어머니 인생 찾아줘" 눈물…'절절한 효심'무한도전 하상욱이 화제의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무한도전'에 출연한 시인 하상욱의 어린 시절 일화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지난달 13일 방송된 SBS '영재발굴단'에서는 엄마를 위해 글을 쓰는 시인 영재 정여민 군의 사연이 소개, 시인 하상욱 또한 게스트로 출연했다. <br/> <br/>13세인 정여민 군은 지난해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80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문학 소년이다. 그는 현재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는 오지 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정여민 군의 어머니는 4년 전 흉선암 진단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정여민 군은 이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라는 글로 담담히 풀어내 대상을 수상했다. <br/> <br/>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하상욱은 "사람들은 내 글이 깊이가 없다고 얘기도 하지만, 상관없다. 내가 글을 씀으로써 우리 어머니가 35년 동안 힘들게 해오던 식당 일을 그만 둘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적어도 내 글이 어머니의 인생을 찾아준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br/> <br/>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한도전 하상욱, 힘내세요" "무한도전 하상욱, 안타깝다" "무한도전 하상욱,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한편 하상욱은 20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 못친소 페스티벌2' 특집에 출연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3.txt

제목: 움베르토 에코 별세, '장미의 이름' 작가이자 기호학자  
날짜: 20160220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200102862  
본문: 움베르토 에코 별세, `장미의 이름` 작가이자 기호학자 <br/>출처:/SBS 뉴스 캡처움베르토 에코 별세 <br/> <br/>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 작가이자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별세했다고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4세. <br/> <br/>이탈리아 언론은 20일 에코가 최근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현지시간 지난 19일 저녁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br/> <br/>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출신의 소설가이자 언어학자, 철학자로도 유명하며 움베르토 에코는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 '폭탄과 장군' 등 다수의 소설을 집필했다. <br/> <br/>국내에서는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역사와 철학, 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해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에 능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4.txt

제목: 움베르토 에코 별세, '장미의 이름'으로 세계적 명성...최근 암 투병 생활  
날짜: 20160220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163927689  
본문: 움베르토 에코 별세, `장미의 이름`으로 세계적 명성...최근 암 투병 생활 <br/>출처:/sbs 뉴스 캡처움베르토 에코   <br/> <br/>움베르토 에코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br/> <br/>이탈리아 언론은 20일 에코가 최근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으며 현지시간 지난 19일 저녁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향년 84세.  <br/> <br/>학자이자 작가인 에코는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 등의 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장이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5.txt

제목: 움베르토 에코 별세, '시대의 지성 떠나다'...'애도의 물결 이어져'  
날짜: 20160220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104429288  
본문: 움베르토 에코 별세, `시대의 지성 떠나다`...`애도의 물결 이어져` <br/>사진=영화 `장미의 전쟁` 포스터움베르토 에코 별세, '시대의 지성 떠나다'...'애도의 물결 이어져' <br/> <br/>'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 등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움베르토 에코의 사망에 누리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br/> <br/>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해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기호학자,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에코가 최근 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19일 저녁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br/> <br/>국내에서는 소설로 잘 알려졌지만 역사와 철학, 미학, 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이기도 하다. <br/> <br/>1932년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에코는 토리노대에서 중세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5년가량 TV 방송국에서 일하다 1950년대 중반부터 강단에 섰다. 토리노대와 밀라노대, 피렌체대 등에서 미학과 건축학, 기호학 등을 가르쳤으며 1971년부터는 볼로냐대에 몸담았다. <br/> <br/>많은 누리꾼들은 "움베르토 에코 작가님 명복을 빕니다. 장미의 이름 이후로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 나와 책만이 함께 시간을 먹는게 아니라 작가와도 함께 시간을 먹었구나" "큰 작가들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 같았는데" 등 움베르토 에코를 추모했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6.txt

제목: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별세  
날짜: 201602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103332883  
본문: 세계지성사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작가들이 잇따라 우리곁을 떠났다. <br/> <br/>소설 '장미의 이름' '푸코의 추'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작가이자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20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br/> <br/>앞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 중 하나인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 하퍼 리도 이날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br/> <br/>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는 에코가 최근 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9일 저녁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br/> <br/>에코는 소설, 역사, 철학, 미학, 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기도 하다. <br/> <br/>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쌓은 그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해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 등에 통달한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다. <br/> <br/>에코는 1980년에 펴낸 첫 소설 '장미의 이름'을 통해 세계문단의 거봉으로 자리 잡았다. '장미의 이름'은 에코의 방대한 지식이 담긴 현학적 내용과 중층적인 전개방식 등에도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986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돼 '에코 바람'을 몰고왔다. <br/> <br/>이 작품은 1989년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br/> <br/>1988년 두 번째로 내놓은 소설 '푸코의 추'도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br/> <br/>하퍼 리는 1959년 앵무새 죽이기로 문단에 충격을 준 뒤 오랜 은둔생활끝에 지난해 자신의 두번째 소설이자 마지막으로 파수꾼을 내 놓았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7.txt

제목: [새로 나온 책] 한류 그 이후-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 외  
날짜: 2016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20031144204  
본문: 한류 그 이후-한류의 저력과 향후 과제(이상훈,박정선,김경현,안신,신혜란,장수현,유보전,김신,신광철 지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1만8000원)=2000년대 초 본격적으로 불거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여전히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한류 바람은 지구촌 곳곳으로 번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위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책은 지금의 한류 현상과 한류가 품은 문제점, 그리고 한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했다. 1부와 2부에서는 K-팝, 한국영화 등 한류를 이루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특징을 분석·해석하고,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류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어 3부에서는 한류라는 문화 교류의 맥락과 구조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면서, 한류가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주의, 전 인류의 문화공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br/>천재들의 생각법(테레자 보이어라인,샤이 투발리 지음·배명자 옮김·새로운현재·1만5000원)=위대한 철학자와 과학자, 사상가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이론을 정립했으며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들여다본다. 두 저자는 “보통사람도 사고가 최적의 효율로 발휘될 수 있다면 모두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견을 해낼 수 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어서다”고 적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자신에게 초인적 사고력 따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처럼 평범한 현상에 감탄할 줄 알았기에 상대성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던 그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어떤 사내를 보고 상대성이론을 문득 떠올렸다. 뉴턴도 떨어진 사과에서 영감을 얻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br/> <br/>북막일기(박래겸 지음·조남권,박동욱 옮김·글항아리·1만6000원)=조선 후기 문신 박래겸이 1827년 7월 14일 병마평사(북평사)에 제수된 후 도성을 떠나 1828년 4월 2일 다시 돌아오기까지 254일간의 기록이다. 북평사는 각 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를 도와 도내 순행, 군사훈련, 무기 제작·정비, 군사들의 군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박래겸은 북평사로 재직하는 254일 동안 모두 6070리를 다녔는데 이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기록했다. 따라서 책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조선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남권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초대 소장과 박동욱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옮겼다. <br/> <br/>건강검진의 거짓말:당신이 몰랐던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마쓰모토 미쓰마사 지음·서승철 옮김·에디터·1만3000원)=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것뿐인데 기겁을 하거나 혈압이 조금 높을 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를 찾고, 식욕이 조금 떨어질라치면 내 몸 어딘가에 암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에 휩싸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건강검진을 통해 흔히 발견하는 고혈압증이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이 저자가 지목하는 대표적인 ‘건강검진병’이다. 일본 현직 의사가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 비판하면서 건강검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수명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고발한다. 건강검진 항목 중 꼭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 알려준다. 아울러 건강검진 각 항목에 나타난 수치의 의미와 각종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저자는 건강검진 대신 ‘긍정적인 사고’를 건강의 비결로 꼽는다. <br/> <br/>성룡: 철들기도 전에 늙었노라(성룡,주묵 지음, 허유영 옮김, 쌤앤파커스, 2만2000원)=액션영화의 살아 있는 전설 성룡(62)이 만 60세를 기념해 낸 자서전이다. 2012∼2015년 3년 동안 성룡이 직접 구술하고, 영화홍보사 여직원 주묵이 정리해 완성한 책이다. 1년 365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성룡의 살인적인 일정에도 애정과 공을 들여 완성한 흔적이 역력한 책이다. 성룡은 여덟 살 때 처음 연기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년 동안 오직 영화만을 위해 인생을 바친 인물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8.txt

제목: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실시  
날짜: 2016021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9093508062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제11차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접수 마감은 3월 14일(월)까지이며, 선착순 100명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완화의료병동에서 봉사를 희망하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교육은 3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된다. <br/> <br/>교육 프로그램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호스피스 환자와의 대화기법 ▲말기암환자의 영양관리 ▲말기암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돌봄 ▲증상관리, 감염관리 ▲사별가족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봉사자 체험 나누기 등 총 14개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br/> <br/>교육 이수자에게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로부터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자격이 부여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말기암환자의 영적인 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될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br/> <br/>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29.txt

제목: 쓸쓸하고 막막한 삶 건너는… 현대인들의 위태로운 몸짓  
날짜: 2016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94924018  
본문: 윤효(51·사진)의 세 번째 소설집 ‘그의 세컨드라이프’(자음과모음)는 쓸쓸하고 막막한 삶을 건너가는 이들의 불안한 몸짓들로 자욱하다. 이들에게 가족 혹은 집이라는 언덕이 튼실하다면 그나마 버틸 만할 터인데 그마저 흔들리고 늘 위태로우니 문제다. <br/> <br/>표제작 ‘그의 세컨드라이프’의 남자는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을 사이버 결혼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현실의 아내는 자신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속 깊은 고민까지도 남편은 사이버 공간의 아내에게 먼저 털어놓는다. 사이버 아내를 현실에서 만나 껴안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지만 애초 사이버 결혼을 할 때 그는 현실에서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현실을 견뎌내기 위해 만든 환상이 현실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암에 걸린 것 같다는 걱정에 휩싸인 그는 그 사실을 현실의 아내보다 사이버 아내에게 먼저 털어놓으며 쓸쓸한 대리 만족에 이른다. 그는 사이버 아내에게 외친다. “아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이곳에서 살 것이다.” <br/> <br/>‘북유럽풍의 푸른 꽃무늬 접시’의 아내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캐릭터다. 상실감을 북유럽풍 인테리어로 메우는 그네는 일에 빠져들지만 헛헛한 가슴마저 채울 수는 없다. 오래전 어린 딸과 남편을 떠나 두 살 연하의 남자와 재혼한 엄마의 부음도 쓸쓸함을 부추긴다. 결핍된 성장기를 지나온 그네에게 변하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이미지인 ‘북유럽풍 꽃무늬’란 기실 허전한 상징일 뿐이다. 종국에 집을 나가는 인물은 어머니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며, 돌아보니 그 자신 같기도 하다. <br/> <br/>‘당신은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비록 구성원들이 서로 불화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조건이 제대로 집을 건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외적인 환경을 내밀하게 직조한 작품이다. 반지하에서 살다가 전나무숲이 보이는 교외 아파트에 월세로 이사온 가족. 아내는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해지자 그 집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면서 애착을 보이지만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극성에 고통받는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 받아온 십자가는 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이 악착을 떨고 간 뒤 상징적으로 바닥에 떨어진다. <br/> <br/>이밖에도 ‘눈에 어둠이 익을 때’ ‘아리의 케이크’ ‘숨을 멈춰봐’ ‘우리가 강을 건넜을까’ 등이 이번 소설집에 진설된 메뉴다. 윤효는 ‘작가의 말’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소설을 아주 잊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했다”면서 “돌아가는 길은 남겨놓았구나 싶어 안도하면서도 어김없이 부끄러워진다”고 썼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0.txt

제목: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 화장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모션 진행  
날짜: 201602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54933236  
본문:   <br/>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편강과 공동개발한 화장품 '편강율(扁康率)'출시를 기념하여 2월 15일부터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r/> <br/>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 홈페이지 가입을 하거나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저자극성 화장품 ‘편강율’의 11종 샘플 키트를 증정받을 수 있다. 11종 샘플 키트는 편강율 버터크림, 클렌져, 로션, 에센스 토너, 오일,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앰플, 모이스쳐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화장품 '편강율'은 '화장품은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으러 가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건강한 피부 온도를 조절해 피부가 건강한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제품 컨셉을 잡고 있다. 편강 율의 율(率)은 '비율 율'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br/> <br/>편강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라인은 에센스 토너,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오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크림, 모이스쳐 앰플로 구성되어 있다. 편강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로션과 버터크림, 클렌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제품 모두 피부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광물성 오일이나 파라벤 등 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과감히 뺐다.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 힘을 길러주어 피부 보호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r/> <br/>편강한방연구소 마케팅팀 관계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에 저자극적이면서도 피부 밸런스를 조절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며 "출시 기념으로 진행되는 11종 샘플 키트 증정 이벤트는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빠른 소진이 예상된다."라 전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1.txt

제목: 전립선 암, 황제의 암에서 평민의 암으로?  
날짜: 2016021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53102095  
본문:   <br/> <br/> <br/>중국 덩샤오핑, 남아공 만델라, 프랑스 미테랑, 배우 로버트 드니로, 미 국무장관 파월의 공통점은 전립선암 환자다. 전립선암은 고기를 많이 먹는 나이 든 부자 서구인에게 흔하다고 해서 한때 ‘황제의 암’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고령 사회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br/> <br/>◆전립선암 환자가 늘고 있다? <br/> <br/>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0%이상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드문 암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남성에게 다섯째로 많이 생기는 암이다. 붉은 고기와 지방 섭취가 많은 서구형 식습관과 평균수명이 늘면서 전립선암 환자가 증가했고, 사망률도 높아졌다. <br/> <br/>미국에서는 전립선암 과잉 진단과 치료가 이슈다. 고령자 절반에게 전립선암이 잠재해 있고, 갑상선암처럼 천천히 자라서 대부분 놔둬도 되는데, 괜스레 암을 치료해 후유증을 겪는다. 미 연방정부 전립선암 태스크포스도 “<span class='quot0'>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아예 전립선암 조기 발견 검사를 하지 마라</span>”고 권한다. <br/> <br/>우리도 전립선암을 지나치게 진단하는 걸까. 미국은 전립선암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독한 암이 10%정도이지만 한국은 25%에 이른다. 놔두면 생명을 위협할 확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특히 50대 이른 나이에 생긴 전립선암일수록 그렇다. 국립암센터 지침에서는 수명이 10년 넘게 남았으면 정기적으로 전립선암 특이항원(PSA) 혈액검사를 권한다. 하지만 75세가 넘으면 암이 느리게 진행해 수명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br/> <br/>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현재 92.5%다. 의학계에서는 암을 치료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면 암이 완치된 것으로 본다. 전립선암이 고령 사회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평민의 암’이 됐지만 그다지 무섭고 독하지는 않다. <br/> <br/>◆전립선암, 예방이 중요하다 <br/> <br/>전립선암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조기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 예방이 중요하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해 증상만으로 두 질병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증상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다가도 화장실을 찾을 정도로 자주 소변을 봐야 하는 것 등이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급성요폐나 혈뇨,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한다. 암이 뼈로 전이되면 뼈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br/> <br/>피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50세 이상,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PSA 검사 등을 통해 전립선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동물성 지방’은 가장 유력한 전립선암 위험 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다양하게, 충분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 토마토, 된장, 녹차 등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산화작용이 있는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D 등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임대종 원장은 “전립선 건강을 위서는 소변을 참지 않아야 한다. 소변을 오래 참다 보면 방광과 주변 근육 기능이 약해져 배뇨장애로 이어지고, 이는 전립선염을 유발한다.”며 “오래 앉아있는 것도 금물이다. 전립선 부위를 계속 압박하면 혈류량이 떨어져 전립선 질환이 잘 생긴다. 두 시간마다 15분씩은 반드시 일어서서 하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2.txt

제목: 침묵의 장기, 간! 그래서 더 위험한 ‘간암’  
날짜: 2016021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52108751  
본문:   <br/> <br/> <br/> <br/>간은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을 두고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 간혹 우상복부 통증, 체중 감소, 복부 종괴,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병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br/>◆간암의 주요 원인은? <br/> <br/>국내 간암 발생빈도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서 4위(11.5%), 여성에서 6위(4.1%)로 높으며,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위다. 특히 40~50대 남성에서는 간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부담 중 사망손실금의 비중이 가장 큰 암이 간암이기도 하다. <br/> <br/>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발생 고위험군이 있다. 국내에서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72.3%)이며, 그 외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등이 흔한 원인이다. 간혹 드물게 지방간이나 자가면역성 간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 주로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등의 상당수에서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이 발생한다. 간경변증이 있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자는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서 간암에 합당한 영상학적 소견을 보이면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결과와 종합하여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br/> <br/> <br/>◆ 간암 예방법  <br/> <br/>간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신생아와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성인, 보건의료 종사자,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가는 여행객, 주사약물 남용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아직까지 예방접종이 없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span class='quot0'>B형·C형 간염 보균자는 전염 예방을 위해 손톱 깎기, 면도기 등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지방간의 원인인 비만과 당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과도한 음주는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제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루에 맥주 1~2병, 포도주 반병, 소주 반병, 양주 1/4병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고위험군의 경우 정기적인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살펴 간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br/> <br/>◆ 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br/> <br/>음식은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간은 음식으로 섭취된 영양분이 통과하는 첫 관문으로 좋은 음식을 바르게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br/> <br/>모든 음식물은 간에서 대사돼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간이 나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간에서 다 써버려 쉽게 피곤해진다. 이때는 단순당이나 지방이 아닌 현미, 잡곡, 통밀, 율무, 팥, 수수, 보리 등의 곡류가 좋다. 단, 비만이나 고지혈증 환자는 고열량음식으로 인한 지방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br/> <br/>섬유소가 많은 음식, 채소, 과일, 곡물을 많이 먹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이 좋고,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탕, 꿀, 초콜릿, 라면, 도넛, 케이크, 삼겹살, 갈비, 닭껍질, 햄, 치즈, 땅콩, 콜라, 사이다 등 열량이 높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를 삼가야 한다. <br/> <br/>단백질은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달걀, 우유가 좋고,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하지만 간경화가 있는 경우 간성혼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녹황색채소는 간 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작용을 한다. <br/> <br/>지방간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면 식습관을 통한 체중조절은 필수다. 단, 무리한 체중조절로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 영양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주일에 1kg 이상 급격한 체중감소는 오히려 심각한 지방간염을 유발하고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신체기관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운동은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3.txt

제목: 중부경남 거점 의료기관인 국립 창원경상대병원 18일 개원  
날짜: 20160218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13602791  
본문: 경남 창원과 김해 등 중부 경남권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나선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1차 개원과 함께 본격 진료에 들어갔다. <br/> <br/>국비 1000억원 등 모두 3845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공사에 들어간 이 병원은 이날부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4개 진료과에서 정상 진료가 이뤄진다. <br/> <br/>이 병원은 우선 4개 병동에 208병상(일반 178, 특수 30)을 운영하는데 의료진 115명과 간호직 160명 등 모두 552명을 확보하고 있다. <br/> <br/>병상 규모는 향후 15개 병동 701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며 향후 의사 177명과 간호직 546명 등 1천100명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br/> <br/>이 병원은 암,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 산모 및 이른둥이(미숙아), 중증 응급질환 등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시스템을 갖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도내 최초로 도입된 640멀티슬라이스CT(컴퓨터 단층촬영)와 로봇수술기, 3D영상유도 방사선치료기 등 총 1천162점의 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영상 전송시스템(PACS) 등 최첨단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r/> <br/>병원측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해 창원 등 경남 중부권 환자들이 서울·부산으로 원정진료를 가는 불편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4.txt

제목: 위암 환자의 생존기간 예측 가능하다  
날짜: 201602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100524095  
본문: (좌측부터) 박조현, 송교영, 이진원 교수  <br/>환자 개인의 생존 기간과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후를 분석한 위암환자의 조건부 생존율(conditional survival)이 국내 처음 발표되었다.   <br/>   <br/>생존율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전문의들은 수술 치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존해 있을 확률인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답을 한다. 생존율은 환자의 예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수술 후 떼어낸 환자의 암 조직으로 병기를 진단하고 결정한다.  <br/> <br/>하지만 수술 직후와 수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측한 생존율은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위암은 수술 후 2~3년 이내에 재발하고, 5년 이후는 드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생존율은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br/> <br/>조건부 생존율이란 환자가 수술 후 특정 기간을 생존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암으로 사망할 위험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암팀(위장관외과) 박조현·송교영·이진원 교수팀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성모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2,935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생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지만, 환자들이 1, 3, 5 년을 생존할 경우 3년을 추가적으로 더 생존할 확률인 조건부 생존율은 88.6%, 91.0%, 9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1) <br/> <br/> <br/> <br/>환자들을 병기별로 나누어 그룹으로 분석해보면, 3기 위암 환자의 5년 전체생존율은 49.7%에 불과하지만 1, 3, 5 년 조건부 생존율, 즉 수술 후 1, 3,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은 62.1%, 71.3%, 86.8% 로 높아졌다. 또한  고위험 환자의 대부분이 수술 후 2년 이내 재발하여 사망하기 때문에 조건부 생존율은 특정 시점까지 생존한 경우 저위험 환자나 고위험 환자의 예후가 비슷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2)   <br/> <br/> <br/>2011년 3기 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동안은 환자가 어느 시점에 질문을 하든 5년 생존율 49.7%를 기준으로 치료 시점부터 절반 정도의 환자만이 완치된다고 예측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같은 질문을 한다면 조건부 생존율을 근거로 ‘2019년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86.8%’이라고 답할 수 있다.  <br/> <br/>송교영 교수(교신저자)는 “<span class='quot0'>이미 미국에서는 위암을 포함한 여러 고형암의 조건부 생존율의 유용성이 검증되었고, 한국은 위암 치료성적이 좋고 장기생존자가 많아 개인별 장기적인 예후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생존율을 분석한 이번 첫 연구결과가 환자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치료 지침이 될 것이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송 교수는 “일반적으로 위암환자의 재발은 80% 이상이 3년이내에 발생,  다시 말해 수술 후 3년 동안을 잘 넘기면 이후 건강하게 생활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므로 개별 환자의 예측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진행성 위암이나 병기가 높은 고위험 환자라도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치의와 치료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r/> <br/>한편 본 연구는 저명한 암 전문 잡지인 ‘BMC (BioMed Central) cancer’ 2015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5.txt

제목: 여의도성모병원, 복지부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날짜: 2016021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8094535259  
본문:   <br/> <br/> <br/>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허가를 받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br/> <br/>보건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검토 및 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두 평가 모두 통과한 기관을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br/> <br/>지난해 11월 12일 오픈한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4인실 3개, 1인실 2개 등 총 14개 병상규모로 임종실, 요법실, 상담실, 목욕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쉼터자리인 실내정원을 갖췄다. <br/> <br/>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말기 암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치료와 사별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를 지향한다. <br/> <br/>이를 위해 60시간 이상 완화의료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원목자와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가톨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을 운영한다. <br/> <br/>가정의학과 뿐만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내과, 외과 등 관련 의료진들이 다학제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r/> <br/>국내 의료기관이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저수가 등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기피하는 가운데 호스피스 분야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대학병원이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쉽지 않은 선택이다. <br/> <br/>승기배 병원장은 "가톨릭 의료기관이 생명존중 이념을 의료현장에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인위적인 죽음이 아닌 환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서울성모병원과의 통합 운영으로 국대 최대 규모인 총 37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거듭날 예정이어서 국가적 문제인 호스피스 병상수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6.txt

제목: 삼성화재 유병자보험, 간편 가입에 100세까지 보장  
날짜: 20160217  
기자: 신유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7165110125  
본문:   <br/> <br/>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하게 건강하게'가 출시 초기 기대 이상의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br/> <br/>50~75세의 유병자를 타깃으로 계약자의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의사소견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여부 등이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먹더라도 따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br/> <br/>상해·질병 사망시 최고 3000만 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수술비(상해, 암), 입원일당(상해, 질병, 암)도 선택 가능하다. <br/> <br/>법률비용손해 담보는 의료 사고, 교통 사고 등 개인 소송 발생시 손해를 보장하며, 최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운전자 비용 담보도 마련했다. <br/> <br/>유병자 및 고연령 계층에 꼭 필요한 부가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전문 의료진의 전화 상담 및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장례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br/> <br/>가입 연령 폭도 확대됐다. 기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단, 질병사망은 80세까지다. <br/> <br/>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유병자 할증 제도를 도입해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고객 계층별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 보험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7.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이스라엘서 포기한 말기간경화 환자 간이식 성공  
날짜: 201602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7104157357  
본문:   <br/> <br/> <br/>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찾는 의료 강국 이스라엘에서 수술을 포기한 말기 간경화 환자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br/> <br/>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은 올해 1월 이스라엘 의료진의 추천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말기 간경화 환자 하자즈 샬롬(69)씨에게 아들 하자즈 리오(39)씨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하자즈 샬롬씨는 B형간염으로 인한 말기 간경화로 2010년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고령인 탓에 신체기능이 크게 떨어져 배에는 복수가 차오르고 가벼운 뇌병증도 나타나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시급히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br/> <br/>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병원 중 하나로, 암치료와 장기이식 등에 특화돼 있다. 일찍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세계 곳곳의 환자를 유치하는 글로벌 병원 10곳 중 하나로 선정했을 정도로 명성 높은 의료기관이지만 극도로 상태가 악화된 고령의 샬롬씨 치료를 위한 고난도 이식수술은 불가능했다. <br/> <br/>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 의료진은 생체 간이식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의료기관을 물색하던 중, 지난해 5월 서울아산병원에서 2주간 연수를 받으며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의 수술과정을 직접 보고 돌아간 같은 병원의 이도 내쉬매니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을 제안했다. 동료 장기이식 전문의들도 망설임 없이 의견을 같이 했다. <br/> <br/>리처드 나카쉬 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 장기이식 총괄교수는 지난해 8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샬롬씨의 생체간이식수술을 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br/> <br/>아들 리오씨는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br/> <br/>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 의료진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환자와 기증자의 CT사진과 검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술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샬롬 씨와 가족들은 1월 중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br/> <br/> <br/>샬롬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1월 26일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2월 15일 퇴원했다.  퇴원을 앞둔 지난 5일에는 샬롬씨와 아들 리오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생체간이식 수술을 집도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을 위해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br/> <br/>샬롬씨는 "텔아비브 수라스키병원 의료진이 서울아산병원이 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추천했다. 수술 요청에 선뜻 응해준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r/> <br/>정동환 간이식·간담도외과 부교수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의 강점은 풍부한 고난도 간이식 수술 경험과 집중적인 중환자 관리 시스템, 이승규 교수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에 있다. 국적을 초월해 간이식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수술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간이식 수술의 메카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에는 매년 약 70개국에서 400여명의 해외의학자가 방문해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배워가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의료진 연수는 기술전수를 넘어 이번 이스라엘 간이식 환자처럼 중증환자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8.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손안에 은행’ 서비스 전면 업그레이드 외  
날짜: 2016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200039078  
본문: ‘손안에 은행’ 서비스 전면 업그레이드 <br/> <br/>신한은행은 스마트뱅킹 서비스인 ‘신한S뱅크’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신한S뱅크 UP’(사진)을 출시했다. 신한S뱅크 UP에서는 ‘신한 마이카 대출’과 주택·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대출 상환 연기도 가능하다. 아파트 매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홈앤론’ 메뉴는 행정구역별로 제공했던 매물정보에 초등학교 학군별 정보를 추가했다. 또 계좌의 월말 잔액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고, 자동이체·이자납부 등 금융 관련 주요 일정을 달력 형식으로 표시해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더해졌다.  <br/> <br/>24시간 365일 글로벌송금 서비스 <br/> <br/>우리은행은 24시간 365일 송금할 수 있는 ‘위비 퀵 글로벌송금’(사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비 퀵 글로벌송금은 우리은행 해외점포로 외화를 보낼 때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지에 바로 전달되는 서비스다. 하루에 미화 2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은 수취인 계좌가 없어도 송금번호 등 송금정보만 확인 후 현지 제휴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무계좌 방식’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과 연계해 송금할 경우 전신료를 50% 깎아준다 <br/> <br/>7대 질병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 <br/> <br/>한화생명은 2016년 첫 보장성 상품으로 ‘H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 ‘플러스7대질병보장특약Ⅱ’을 통해 7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질병은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대 성인질환이다. 이 상품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10만원이며, 가입 연령은 만 15∼70세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39.txt

제목: 전이성유방암 생존기간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늘어  
날짜: 201602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185026508  
본문: 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전이가 발생한 4기 유방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br/> <br/>서울대병원 문형곤 교수팀은 1998~2010년에 치료받은 전이성유방암 환자의 생존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결과 ▲2000년대초; 19개월, ▲2000년대중반; 2년 이상, ▲2000년대말; 39개월로 2000년대 초반보다 2배 이상 향상된 생존률을 보였다. 유방암치료 수준의 향상 및 신약 보급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br/> <br/>전이는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 이외 다른 체내장기로 이동해 자라는 현상으로, 통상적으로 전이가 발생한 경우 완치가 불가능한 4기암으로 받아들여진다. <br/> <br/>이 연구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전이성유방암 환자 547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생존을 달성한 환자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결과 진단 당시의 병기, 암의 호르몬수용체 여부, 증식성 정도가 중요한 예측인자였으며, 재발까지의 기간, 전이병변의 위치, 증상유무 역시 전이 이후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br/> <br/>문 교수팀은 이를 기반으로 전이 후 생존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이 예측모델은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국내 여러 다기관의 전이성유방암 환자의 생존자료에 적용시킨 결과 그 유효성이 검증됐다. <br/> <br/>문형곤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모델링을 통해 장기생존이 가능한 환자 선별이 가능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 개개인의 맞춤화 치료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를 제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치료에 대한 주도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span>”고 의의를 밝혔다. <br/> <br/>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암정복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간하는 국제 암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 온라인에 1월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0.txt

제목: 큰딸 암매장 공범 백씨 "지못미"라며 울먹, VS 이씨 "학대 몰랐다"  
날짜: 2016021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153610530  
본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하고 큰딸을 묶어 놓고 때린 뒤 방치,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시신유기 등을 도운 어머니 박모(42)씨 친구 백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 씨가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16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큰딸 A양(2011년 10월 26일 사망당시 7살) 사체 부검 결과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현재 부검은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남 양산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구타에 의한 골절 흔적, 약물 투약 등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br/> <br/>이날 백 씨는 "잘못했다"며 큰딸을 향해 혼잣말로 "이모들이 옆에서 지켜지지 못해 미안해"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br/> <br/>백씨는 "엄마 박 씨가 알아서 경찰에 신고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친구를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br/> <br/>이와 달리 함께 조사를 받은 이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br/> <br/>이씨는 범행 가담이유에 대해 "박 씨가 자수할 테니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해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다"고 했다. <br/> <br/>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br/> <br/>이어 "학대 사실을 몰랐고 티를 안냈다. 나중에 애 엄마가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br/> <br/>또 "폭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아파서 누워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br/> <br/>암매장에 대해 이씨는 "(암매장을)바로 한 것은 아니고 애 엄마가 잠시 데리고 있었다"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고 진술했다. <br/> <br/>이씨는 "A양이 대·소변을 못가렸으며 애를 돌보던 할머니(백씨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서 박 씨와 싸우기도 했다"며 "할머니가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말을 자주했으며 화장실을 청소할 때 큰딸을 돌보지 못하니까 그때 잠시 베란다에 두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고 감금이 아니라고 했다. <br/> <br/>한편 특정 종교와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 이 씨는 "각자 종교는 다 달랐다"고 했다. <br/> <br/>박씨, 백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이 씨 아파트(72평형, 방 5개)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br/> <br/>백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인 이 씨를 먼저 알게 된 뒤 들어와 살았고 대학동기인 박 씨를 소개해 같이 지냈다.  <br/> <br/>또  이 씨의 언니(50)도 이씨 아파트에서 살았다. <br/> <br/>이씨를 뺀 언니, 박씨, 백씨의 자녀 각각 2명 등 모두 10명이 함께 살았다. 이씨가 말한 할머니(백씨 어머니)는 이따금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1.txt

제목: 녹십자, 바이오신약 메커니즘 국제학술지에 소개  
날짜: 2016021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133507598  
본문:   <br/> <br/> <br/>기존 항암 표적치료제보다 잠재적으로 우수한 효과가 있는 차세대 바이오 신약이 국제학술지에 소개됐다. <br/> <br/>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목암생명공학연구소(소장 최승현)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바이오 신약 'GC1118'의 작용기전에 대한 논문이 미국 암연구학회(AACR)가 발간하는 '분자 암 치료(Molecular Cancer Therapeutics)' 최신호에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br/> <br/>GC1118은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특정요인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이다.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과 결합해 성장 명령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서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동시에, 면역세포를 불러들여 세포독성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도 한다. <br/> <br/>논문에 따르면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 GC1118은 차별적인 결합력과 작용기전으로 기존 EGFR 표적치료제들보다 다양한 종류의 EGFR의 성장인자에 대하여 더 광범위하고 우수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EGFR 항체에 반응성이 없거나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녹십자 관계자는 "GC1118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약물 대비 더 넓은 범위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br/> <br/>이번 논문관련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공동)' 및 '중개협동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현재 GC1118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표준치료요법에 반응하지 않은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2.txt

제목: 이화의료원, '여성 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날짜: 2016021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110335189  
본문:   <br/> <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여성들이 꾸준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달 여성의 대표 질환을 선정해 발표하는 '여성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br/> <br/>올해 연간 캠페인으로 전개하는 여성 질환 예방 캠페인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을 매월 하나씩 선정해, 해당 진료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질환 소개 및 예방을 위한 팁을 담은 자료를 개발?발표하게 된다. <br/> <br/>이번 캠페인의 첫 행보로 2월에는 여성들의 신체건강 기초인 뼈 건강을 위해  '골다공증'에 대해 소개한 데에 이어, 앞으로 '심혈관질환', '우울증', '관절염',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매달 새로이 제작되는 질환 자료와 이미지는 각각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배포됨은 물론, 치료 현장인 원내 곳곳에도 포스터로 제작되어 부착될 예정이다. <br/> <br/>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887년 국내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전신으로 하는 국내 유일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국내 여성 교육 및 연구, 진료를 선도해 온 전통을 계승하고, 여성 질환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며 여성 건강 증진에 앞장서 왔다. <br/> <br/>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년간 여성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질환 정보를 전하고자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년 여성들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알기 쉽게 정리한 여성건강백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와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연이어 발간하고, 주요 여성 질환을 56편의 SNS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과 함께 여성 건강 8대 수칙 및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법, 연령별 유방 건강법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br/> <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여성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국내 여성들의 건강 도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화의료원은 국내 유일 여자의과대학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별 유관 기관과의 연계나 다른 분야의 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3.txt

제목: 방임 어머니, 큰 딸 야산에 암매장 '과거 무슨 일 있었나?'  
날짜: 20160216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065057686  
본문: 방임 어머니, 큰 딸 야산에 암매장 '과거 무슨 일 있었나?' <br/>사진: 방송 캡처 <br/>방임 어머니, 큰 딸 야산에 암매장 '과거 무슨 일 있었나?' <br/> <br/>방임 어머니가 큰 딸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경남 고성경찰서는 큰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은 또 시신유기를 도운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는 큰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와 백 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씨의 큰딸이 숨지자 이들은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하고 시신을 차에 3일간 싣고 다니기도 했다. <br/> <br/>암매장한 위치에 대해 이들은 "오래 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사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4.txt

제목: 방임 어머니, 큰 딸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유기'  
날짜: 20160216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6054115624  
본문: 방임 어머니, 큰 딸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유기' <br/>사진: 방송 캡처 <br/>방임 어머니, 큰 딸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유기' <br/> <br/>방임 어머니가 큰 딸을 폭행 후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남 고성경찰서는 큰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은 또 시신유기를 도운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는 큰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와 백 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씨의 큰딸이 숨지자 이들은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하고 시신을 차에 3일간 싣고 다니기도 했다. <br/> <br/>암매장한 위치에 대해 이들은 "오래 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사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5.txt

제목: 암보다 무서운… 암환자였다는 편견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211700519  
본문: #. 50대 남성 A씨는 5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이후 장루(인공항문)를 갖고 생활하게 된 A씨는 이전의 건강했던 삶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낙담했다. 오랜 기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A씨는 어느 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네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찾은 A씨는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해 지금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암환자들을 위한 멘토활동을 하고 있다. <br/> <br/>#. B(여)씨는 수년 전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몸조리가 필요했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별다른 경력이 없는 B씨를 받아 주는 곳은 마트나 식당 등이 대부분이었다. 자궁암 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일할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가 많아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B씨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br/> <br/> 의료진이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치료를 마친 환자는 암환자였다는 편견에 부딪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암 환자 대부분이 일상활동 및 사회적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에서는 암 환자의 수술 이후 삶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br/> <br/>15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임재영 교수팀이 유방암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 전, 수술 후 3개월, 1년, 2년 후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을 겪었던 신체 증상은 호전되는 반면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는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유방을 부분적 혹은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과 함께 전이를 막기 위해 유방과 가까운 부분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25% 정도는 지속적인 림프부종에 시달린다.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 증상이 더욱 심화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br/> <br/>문제는 증상이 없는데도 ‘내게도 림프부종이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다. 공포에 몰린 환자들이 팔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집안일 등 일상이나 원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팔이 붓기 시작하면 육안으로 다른 쪽 팔과 두께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창회 등 친목모임도 못 가는 등 소외되는 생활을 자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정작 주변사람들은 ‘수술 후 상태가 좋아졌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환자에 대한 주의를 이전보다 덜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환자 본인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성기능 장애 등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br/> <br/>환자 본인과 주변 가족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또한 암 환자를 절망시킨다. 암을 겪은 환자가 수술 후 건강이 좋아져 본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려 해도 직장에서는 ‘일을 이전처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들의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환자는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해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환자가 넘어야 할 문턱은 수술 이전과 비교해 너무 높다. <br/> <br/>연구팀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치료시기에 따른 생애주기적 접근과 사회참여를 위한 가족과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물론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환자 본인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한다. 일본 국립암센터는 센터 내에서 암 환자들의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멘토링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서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와 치료 중인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과 심리미술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병원 단위로 이뤄질 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상태다. <br/> <br/>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주로 2∼3년간의 치료과정을 거친 환자들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길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환자들은 유사한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암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등 자원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환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br/> <br/>양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조건 암 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이어 “유방암 환자의 경우 물건을 들어야 하는 등 팔을 쓰는 일은 하지 못해도 활동에는 제약이 없고, 자궁암 환자의 경우 오래 서서 일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앉아서 타자를 치거나 물건을 만드는 일 등은 가능하다”며 “수술 후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짤 때 암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6.txt

제목: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저자극성화장품 '편강 율(扁康率)'출시  
날짜: 20160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60131186  
본문: `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클렌징폼 화장품 출시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가 편강과 공동개발한 화장품 '편강 율(扁康率)'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편강 율의 율(率)은 '비율 율'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율을 조절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부의 적정온도는 31도로, 피부 수분을 지키고 피지분비의 조절에 도움이 되어 피부 밸런스를 맞추기에 적당한 온도이다. 피부가 건강한 상태의 온도인 것이다. <br/> <br/>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클렌징폼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며, 에센스 토너, 밸런싱 젤, 뉴트리션 크림, 오일, 미스트 토너, 모이스쳐 세럼, 모이스쳐 크림, 모이스쳐 앰플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편강 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온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로션과 버터 크림, 클렌저로 구성되어 있다. <br/> <br/>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편강 율 스킨케어 솔루션 기본 라인과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은 피부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광물성 오일, 파라벤 등 암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빼고 피부에 저자극적인 최소한의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피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주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r/> <br/>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마케팅팀 관계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성분을 선별해 만든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어 피부에 덜 자극적인 화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r/> <br/>편강 율 바디&헤어 솔루션 온가족 라인 일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이다. 제품 구입은 대표 상담전화및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홈페이지(www.pyunkangyul.com)를 통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7.txt

제목: 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교육 실시  
날짜: 20160215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55012344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오는 16일에 시범기관인 17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가정형 호스피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br/>   <br/>이번 교육은 시범기관이 시범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br/>     <br/>주요 교육내용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진행경과 ▲신설된 시범사업 수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배수인 부장은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돌봄의 연속성 및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번 교육이 시범기관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8.txt

제목: 방임 어머니, 큰 딸 폭행 후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옮겨'  
날짜: 201602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23811050  
본문: 방임 어머니, 큰 딸 폭행 후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옮겨' <br/>사진: 방송 캡처 <br/>방임 어머니, 큰 딸 폭행 후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지인들과 함께 시신 옮겨' <br/> <br/>방임 어머니가 큰 딸을 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경남 고성경찰서는 큰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은 또 시신유기를 도운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는 큰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와 백 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씨의 큰딸이 숨지자 이들은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하고 시신을 차에 3일간 싣고 다니기도 했다. <br/> <br/>암매장한 위치에 대해 이들은 "오래 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사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49.txt

제목: 방임 어머니,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폭행 후 묶은 상태로 방치'  
날짜: 201602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15824718  
본문: 방임 어머니,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폭행 후 묶은 상태로 방치' <br/>사진: 방송 캡처 <br/>방임 어머니,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폭행 후 묶은 상태로 방치' <br/> <br/>방임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암매장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경남 고성경찰서는 큰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은 또 시신유기를 도운 박씨의 지인 백모(42·여)씨와 이모(45·여)씨도 구속하고 이씨의 언니(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박씨는 큰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묶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씨와 백 씨는 자녀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사이로 박씨의 큰딸이 숨지자 이들은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기로 하고 시신을 차에 3일간 싣고 다니기도 했다. <br/> <br/>암매장한 위치에 대해 이들은 "오래 전 일이고 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이 사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0.txt

제목: 대장암 예방을 위한 최선은 정기적인 내시경  
날짜: 20160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101548575  
본문:   <br/> <br/> <br/>대장용종(폴립)이란 대장 점막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주위의 점막 표면보다 돌출하여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한다. 용종은 대장 외에도 다른 소화 장기 및 점막이 있는 모든 기관에서 생길 수 있다. 대장에서도 흔하게 관찰된다. 대장용종은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40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대장용종은 조직의 소견에 따라 선종,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의 종류가 있다. 이중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윤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용종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span>” 며 “<span class='quot0'>다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질, 유전, 식생활 습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용종의 발생과 성장이 촉진되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장(腸) 비우고,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 중단해야 <br/>용종 진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는 대장내시경이다.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조직 검사 및 제거가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음식을 조절하고, 장 정결제 복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r/> <br/>또한 시술 전 자신이 복용중인 약제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아스피린 등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주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시술 3~5일 전에 약제를 중단해야 한다.  <br/> <br/>◆용종 크기에 따라 치료법 달라 <br/>대장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 5mm 미만의 작은 용종들은 작은 기구를 통해서 뜯어내거나 전기장치를 이용해 태워서 제거할 수 있다. 5mm 이상의 용종은 대장내시경 중 올가미처럼 생긴 철사를 넣어 잘라낸다.   <br/> <br/>제거된 용종들은 조직검사를 통해 용종의 구체적인 종류를 판정하고, 대장암으로 발전 가능성 위험도 및 이후 대장내시경 검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위험도가 낮고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3~5년 후 검사를 권한다. <br/> <br/>다만 용종의 완전 제거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여러 개의 용종이 있었던 경우,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는 보다 짧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거된 용종의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나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br/> <br/>윤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가 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 며 “<span class='quot0'>분변잠혈검사는 1~2년 간격, 대장내시경 검사는 3~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1.txt

제목: 석면 사망자 향후 20년간 약 2000명 예측  
날짜: 201602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095512489  
본문:   <br/> <br/> <br/>석면 관련 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향후 20년간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br/> <br/>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북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수영 교수팀이 관세청의 석면 수출입 통계 데이터와 통계청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대기환경 분야 국제학술지인 '토털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 교수팀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중피종·석면침착증 등 석면 관련 질환의 사망률을 산출했다. 여기에 현재 국내 석면 잔류 현황 등을 고려해 석면으로 인한 사망률을 예측했다. <br/> <br/>그 결과 국내에서 2014년부터 2036년까지 1942명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숨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석면 관련 사망자의 대부분(96%)은 중피종 환자일 것으로 추정됐다.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다가 2020년(약 140명 사망 예상)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br/> <br/>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석면은 폐암도 유발하지만 폐암은 석면보다 흡연이 주요 요인이다"며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려 생명을 잃은 사람은 석면 희생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폐암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20년간 석면으로 인한 희생자 숫자는 2000명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석면 관련 사망자의 96%을 차지하는 중피종은 폐·심장·간 등을 둘러싸고 있는 막(膜)의 표면에 종양이 발생하는 암이다. 중피종은 석면 노출이 주원인이며, 국내 사망자 중 약 70%가 남성이다. <br/> <br/>국내에서 중피종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중피종 사망자는 총 268명으로 직전 5년(2004∼2008년)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br/> <br/>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국내에선 1990년대까지 건축 분야에서 널리 쓰였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유해물질로 지정된 후 사용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br/> <br/>한편 석면에 노출된 후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 위험이 수십 배로 높아지므로 석면 노출이 의심된다면 금연은 필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2.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날짜: 201602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5061058950  
본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br/>사진: 방송 캡처 <br/>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자택에서 받을 수 있어 '의사 간호사 등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 <br/> <br/>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가 자택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br/> <br/>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등을 받게 된다. <br/> <br/>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br/> <br/>한편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3.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달부터 최초 시행...'가정에서 의료 서비스 받게 돼'  
날짜: 20160214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235141293  
본문: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SBS 뉴스 캡쳐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달부터 최초 시행...이제 가정에서 서비스 받는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가정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최초로 시행되며 오는 2일부터 실시한다.   3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가 배정된다. 말기 암환자는 집에서 호스피스를 통해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를 보완해 내년 사업을 분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4.txt

제목: 말기 암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날짜: 2016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203525393  
본문: 다음달부터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종교적 안정을 주는 치료를 말한다. 최근 잘 사는 것 만큼이나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를 원하는 말기 암환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br/> <br/>그러나 2012년 말기 암환자 465명을 조사한 결과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한다”고 답했을 만큼 많은 말기 암환자들은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고 있다. <br/> <br/>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말기 암환자는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에서 1만3000원(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br/> <br/>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과 연계된다면 주 1회 이상의 가정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간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전담 간호사 8회 방문, 의사·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후 수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br/> <br/>방문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이 상향됐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는 병원에서처럼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 관리를 받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정부는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충남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대구의료원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r/> <br/>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에게도 호스피스 서비스가 적용된다. <br/> <br/>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br/> <br/>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5.txt

제목: 말기 암환자, 3월부터 가정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날짜: 2016021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180805197  
본문: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번에 처음 마련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는 오는 3월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말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br/> <br/>말기 암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도 방문한다. <br/> <br/>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br/> <br/>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br/> <br/>시범사업은 약 1년간 진행되며, 제도를 보완한 뒤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br/> <br/>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6.txt

제목: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3월 시작…어떻게?  
날짜: 20160214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4173906978  
본문: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br/>사진=ytn <br/>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이 내달 시작된다. <br/> <br/>14일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내달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br/> <br/>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r/> <br/>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7.txt

제목: 부탁해요 엄마 유진, 고두심 시한부 사실 알고 오열 ‘눈물바다’  
날짜: 2016021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3202210388  
본문: 부탁해요 엄마 유진, 고두심 시한부 사실 알고 오열 ‘눈물바다’ <br/>사진=KBS2 '부탁해요 엄마' 방송 캡처부탁해요 엄마 유진, 고두심 시한부 사실 알고 오열 ‘눈물바다’ <br/> <br/>부탁해요 엄마 유진이 고두심의 폐암 투병 사실을 알았다. <br/> <br/>13일 오후 방송한 KBS2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53회에서는 임산옥(고두심 분)이 이진애(유진 분)에게 자신의 폐암 투병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이날 임산옥은 "진애야 내가 어디를 좀 가야 할 거 같은데. 나혼자"라며 말했고, 이진애는 "엄마 저번에도 혼자 나갔다 오시더니 좋으셨나보네. 어디 가느냐"라고 되물었다. <br/> <br/>이에 임산옥은 본인의 시한부 선고 사실을 암시했고, 이진애는 "엄마 어디 아파? 많이 아파?"라며 눈물을 흘렸다. <br/> <br/>임산옥은 "엄마가 폐에 암이 있대. 앞으로 한 여섯 달 정도 살 수 있나봐"라며 "아기 엄마가 울면 아기한테 안 좋지. 내가 괜히 얘기했나봐. 할머니가 우리 아기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라며 오히려 임신한 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한편 ‘부탁해요 엄마’는 오는 14일 종영한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8.txt

제목: 암 예방, 삼치에게 맡겨라?  
날짜: 2016021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153005955  
본문:   <br/> <br/>고등어, 꽁치와 함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의 하나인 삼치는 살이 희고 부드러워 겨우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삼치는 DHA가 함유돼있어 태아의 두뇌발달을 돕고 머리를 좋게 하며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br/> <br/>◆삼치는 어디로부터 오나  <br/> <br/>삼치는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동중국해, 일본의 홋카이도 이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북서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분포하며, 연근해의 수심 100~3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 서식 한다. 봄(3∼6월)에는 산란을 위해 연안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산란회유를 하며, 가을(9∼11월)에는 남쪽인 일본 근해로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색이회유를 한다. 거문도 주변 해역에서는 일 년 내내 분포한다. <br/> <br/>산란기는 4∼6월경으로서 서해와 남해의 연안에 몰려와 새벽녘에 산란하며,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부화 후 6개월이면 몸길이가 33~46cm까지 자란다. 어릴 때에는 갑각류, 어류 등을 먹지만 어른이 되면 멸치, 까나리 등 어류를 주로 먹는다. <br/> <br/>수심 50m 정도 연안의 낮은 바다에서 걸그물을 이용하여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잡거나, 난바다(원양)로 향하는 울타리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 떼를 유도한 뒤, 통로를 차단하여 하루에 1~2회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아 올리는 정치망 어업으로 어획한다.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나, 수입산도 유통된다. <br/> <br/>◆삼치의 효능과 조리법  <br/> <br/>삼치는 주로 구이나 찜, 튀김 등으로 조리하여 먹는다. 회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삼치는 살이 약해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회로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는 살짝 얼려서 회를 뜬다. <br/> <br/>구이나 튀김으로 먹는 것도 좋고 회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삼치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림이나 찜을 해 먹는 방법이다. 삼치에 들어 있는 뇌에 좋은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려면 지방성분을 잃지 않는 조리법이 좋은데, 조림이나 찜을 해 먹으면 삼치의 영양소를 아주 알뜰하게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과장은 “삼치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나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발달에 효과적이며 칼륨이 많이 함유돼 있어 혈압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고 암 예방에도 탁월하다.”며 “삼치는 살이 연하고 지방질이 많아 다른 생선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빠르므로 식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59.txt

제목: 청소년 흡연, 암 발생 위험 증가  
날짜: 2016021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153004255  
본문:   <br/> <br/> <br/>40대 직장인 이씨는 한 달간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체중 감소가 지속되면서 병원을 찾았다. 일반적인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형광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청소년기부터 담배를 줄곧 피워왔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폐암이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br/> <br/>◆청소년 흡연인구 감소 추세, 하지만  <br/> <br/>실제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들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이들보다 암 발생 위험이 4배 이상 높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 흡연이 성인 흡연인구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br/> <br/>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1997년 35.3%까지 증가했던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9.2%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흡연이 시작되는 청소년의 연령은 2005년 14.1세에 서 2014년 13.7세로 낮아지고 있으며,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상습흡연율은 2005년 5.0%에서 2014년 5.6%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br/> <br/>◆흡연은 만병의 근원  <br/> <br/>담배는 일산화탄소, 타르, 벤조피린, 폴로늄 등 약 4,000종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암의 30% 정도가 흡연 때문에 발생하며 구강, 식도, 폐, 기관지암의 90%는 흡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또한 담배는 경부, 췌장, 방광, 신장, 위장 등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 암뿐만 아니라 중풍,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역시 흡연자에서 3~4배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동맥경화증, 성기능 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화성 궤양 등이 모두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담배 1개비에 수명이 5분씩 단축된다고 하니 하루 1갑이면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은 수명이 1개월 정도 단축되는 셈이다. <br/> <br/>◆무서운 폐암의 원인도 흡연  <br/> <br/>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흡연이다.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며, 장기간의 간접흡연은 1.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흡연의 양과 기간도 폐암에 걸릴 확률과 관련이 있다.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20년간 두 갑을 피워 온 남자라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70배가 증가한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구진남 과장은 “폐암은 5년 생존율이 크게 낮다. 5년 생존율을 따져봤을 때 전체 암 평균은 69.4%이지만, 폐암은 23.5%에 불과하다. 일단 걸리면 10명 중 8명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질환이 폐암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0.txt

제목: 젊을 때 부터 척추건강 챙겨야 하는 이유?  
날짜: 2016021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101713552  
본문:   <br/> <br/> <br/>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20살이 된 고3 졸업생들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 새로운 사회생활을 기대하며 잠시나마 학업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불규칙적인 식생활, 영양 섭취 부족, 과도한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을 지속하는 사이 신체 면역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S라인도 좋지만…여대생, 하이힐 착용 주의 <br/>20살 여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꼭 해보고 싶다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는 메이크업과 굽 높은 하이힐을 신어보는 것이다. 여성성의 상징인 하이힐은 키가 커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해줘 여대생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br/> <br/>하지만 하이힐을 장시간 신으면 척추와 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 발의 앞꿈치만으로 신체를 지탱하기 때문에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며 척추 배열의 이상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무릎, 골반, 허리 등에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 모양에 변형을 일으켜 무지외반증도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신경외과 전문의 최재균 원장은 “<span class='quot0'>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척추의 퇴행성변화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위해 굽이 높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불가피하게 하이힐을 신게 된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6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 과도한 음주는 척추 건강에 독(毒) <br/>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술자리를 접하게 되는데, 과한 음주는 간 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장시간 술을 마시면 척추, 관절 등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악화되는데, 이는 알코올이 혈액과 디스크에 수분이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몸은 알코올 해독 시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나 인대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비되면서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br/> <br/>한편, 여성의 경우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골격이 약하고, 알코올이 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어음주에 취약하다. 술을 처음 접하는 호기심과 술자리 분위기에 이끌려 과음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파악해 절제력을 기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br/> <br/>◆ 흡연, 아예 시작을 말자! <br/>흡연은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척추와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주의해야 한다. 흡연을 하면 담배에 함유된 일산화탄소가 혈액 속 적혈구와 산소의 결합을 방해하게 돼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척추와 관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디스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br/> <br/>특히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허리디스크 안팎으로 드나드는 영양분과 대사물의 이동을 방해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허리 근력을 약화시켜 통증 대처 능력도 저하 시킬 수 있다. <br/> <br/>최 원장은 “<span class='quot0'>흡연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근육과 관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은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만큼 건강을 위해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1.txt

제목: 안국약품, 선진기술 진단제품 개발 가시화  
날짜: 201602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094639235  
본문:   <br/> <br/> <br/>안국약품(대표 어진)이 BT-IT 융합기술을 이용한 진단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 <br/>안국약품은 3종의 바이오마커와 질병진단결정시스템으로 구성된 난소암 진단 키트인 OvaCheck Dx를 이용하여 5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용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식약처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br/> <br/>이번 허가용 임상은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안국약품에서 개발한 OvaCheck Dx는 조기 난소암의 진단 정확도를 20% 이상 상승시켜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또한 안국약품은 자회사인 안국바이오진단과 함께 개발한 철결핍 정밀진단용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키트인 FerriCheck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2015년 4월에 승인받은 바 있다. 이는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br/> <br/>3종의 바이오마커로 구성된 FerriCheck은 국내 최초의 다중바이오마커(단백질) 허가 제품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빈혈(ACD, anemia of chronic disease)과 철 결핍 빈혈(IDA, iron deficiency anemia)을 정밀 진단하는 제품이다. 본 제품은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암환자 빈혈 진단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자용 임상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br/> <br/>안국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조합 발굴 시스템,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시스템, 질병진단지원 시스템은 암 종별 바이오마커 그룹을 발굴하여 다양한 암 진단키트 개발로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자 BT-IT 융합된 차대세 바이오기술이다. 안국약품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난소암에 이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r/> <br/>생명공학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3년 약 50조원(427.7억 달러)에서 연평균 7.3%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약 74조원(636.3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국약품의 다중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질병 진단 기술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2.txt

제목: 리틀 싸이 전민우, 과거 엄마에 암에 대한 두려움 털어놔…“나는 암이 아니지?” 뭉클  
날짜: 20160212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071522218  
본문: 리틀 싸이 전민우 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그의 방송분이 재조명 되고 있다. <br/> 과거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연변에서 온 ‘리틀 싸이’ 전민우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br/> 전민우는 4살부터 중국에서 음악 활동을 해 ‘리틀 싸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국내에서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r/> 그러나 전민우는 뇌종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한국에 왔다. 병원은 6개월 시한부를 선고한 상태이다. <br/> 이날 방송에서 전민우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이에게 말 하지 못했다”며, “‘나는 암이 아니지?’라고 벌써 무서워하더라. 책도 보여 주면서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싫다’며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br/>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리틀 싸이 전민우, 뭉클하다</span>” “<span class='quot0'>리틀 싸이 전민우,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까워</span>” “<span class='quot0'>리틀 싸이 전민우, 가슴 아프다</span>”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사진 = 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화면 캡처 <br/> 이슈팀 ent@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3.txt

제목: 리틀 싸이 전민우, 암 투병 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날짜: 201602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2062523488  
본문: 리틀 싸이 전민우, 암 투병 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br/>사진: 방송 캡처 <br/>리틀 싸이 전민우, 암 투병 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br/> <br/>리틀 싸이 전민우가 뇌종양 투병을 하다 결국 사망했다.  <br/> <br/>지난 9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민우 군이 8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옌볜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9일 자정 끝내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뇌간종양이다. <br/> <br/>리틀 싸이 전민우 군은 지난 2014년 뇌종양의 일종인 뇌간신경교종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한때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된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리틀 싸이 전민우 군은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선보여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유방암·자궁암·갑상선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6021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1132221962  
본문: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고범석·산부인과 박정열·내분비내과 김원구 교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유방과 자궁처럼 여성만이 가진 신체기관에 생기는 암은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br/> <br/>남성보다 여성에서 4배 이상 더 많은 갑상선암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 <br/> <br/>여성의 대표적인 암으로 준비된 이번 특집 강좌에서는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의 진단과 최신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5.txt

제목: 리틀 싸이 전민우 사망, 암 투병하다 결국 사망 '병세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날짜: 2016021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1123316048  
본문: 리틀 싸이 전민우 사망, 암 투병하다 결국 사망 '병세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br/>사진: 방송 캡처 <br/>리틀 싸이 전민우 사망, 암 투병하다 결국 사망 '병세 호전되는 줄 알았는데...' <br/> <br/>리틀 싸이 전민우가 암 투병 중에 결국 사망했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민우(12) 군이 8일 호흡곤란으로 옌볜병원에 급히 이송돼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9일 0시에 끝내 사망했다. <br/> <br/>앞서 전 군은 2014년 뇌종양의 일종인 뇌간신경교종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고향인 중국 지린성 옌지를 떠나 한국을 찾았다. <br/> <br/>올해 봄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면서 병세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지난 5월 다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전민우 군은 중국 TV 예능 '중국몽상쇼'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러 '리틀 싸이'로 주목을 받았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6.txt

제목: 전민우, 수개월 몸 불편해도 엄마에게 숨긴 이유.. "속상할까봐" 뭉클  
날짜: 20160211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1100951054  
본문:   <br/> <br/> <br/>연변의 '리틀 싸이' 전민우 군의 사망 소식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공개된 전민우와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br/> <br/>전민우는 "중국에서 온 아파서 한국으로 왔다"며 "한국에 병 치료를 위해 왔지만 내 생각에는 놀러왔다"고 말했다. <br/> <br/>전민우가 치료를 받은 곳은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방사선실이었다. 전민우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문제는 암의 위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위중한 상태였다. <br/> <br/>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한 전민우는 4살에 무대에 올랐다. 건강 이상이 감지된 건 지난 2014년 여름. 전민우는 축구를 할 때 눈 앞에 골대를 두고도 공을 제대로 차지 못했다. 몇달 전부터 시력, 보행장애, 어지럼증에 시달렸지만 엄마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전민우는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 못했다"고 털어놨다 <br/> <br/>한편 전민우는 2011년 '스타킹'에 출연해 '리틀 싸이'로 화제를 모았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7.txt

제목: '머슬퀸 프로젝트' 이연-나라, "한국 남성들이 좋아할 몸매" 어떤가 보니 '대박'  
날짜: 20160210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0112623817  
본문:   <br/> <br/> <br/>'머슬퀸 프로젝트' 이연과 나라가 완벽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설 특집 '머슬퀸 프로젝트'에서는 트레이너와 연예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보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br/> <br/>바디스타일리스트 이연과 헬로비너스 나라는 달랑거리는 팔뚝 군살을 없앨 수 있는 피트니스 동작을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에 맞춰 댄스 퍼포먼스로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았다. <br/> <br/>두 사람은 스리암 런지, 허벅지와 팔을 자극하는 암 워킹, 의자를 활용한 운동, 기본 스쿼트 등 근육 운동을 춤과 함께 표현했다. <br/> <br/>특히 이연의 몸매는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몸매'란 수식어가 붙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br/> <br/>한편 '머슬퀸 프로젝트'에는 인순이 정아름 심으뜸 오현진 권도예 형주현 송아름 정연(트와이스) 찬미(AOA) 수빈(달샤벳) 경리(나인뮤지스) 가희 스테파니 지나 등이 출연했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8.txt

제목: '내손에가수' 장윤정, '초혼' 듀엣 중 눈물 '노래를 절반도 못부른 뭉클한 사연'  
날짜: 20160209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10001144516  
본문: 사진=SBS `내손에가수` 장윤정 캡처가수 장윤정이 9일 SBS 예능프로그램 '내 손에 가수'에 출연해 '칠순택시' 서병순과의 듀엣 무대 중 눈물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MC 전현무는 서병순에게 "'초혼'을 끝까지 못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br/> <br/>'칠순택시' 서병순은 "아내가 6년간 암으로 고생하다 천국으로 갔다"라며 "지금도 실감은 안 난다. 아직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아내에게 '초혼'은 혼자 불러주던 노래"라고 노래에 얽힌 사연을 밝혔다. <br/> <br/>사연을 듣고 눈물이 터진 장윤정은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첫 소절부터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고, 결국 눈물을 쏟았다. <br/> <br/>이어 장윤정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듀오 파트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완창했다. '초혼'의 가사와 같은 '칠순택시' 서병순의 사연 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노래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br/> <br/>노래를 마친 장윤정은 "나 때문에 망쳤다. 어떡하냐"라며 "아버님이 눈빛으로 담담하게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다"라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br/> <br/>한편 장윤정이 출연한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는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듀엣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69.txt

제목: '내 손에 가수' 장윤정, 서병순과 눈물의 '초혼' 열창 "오히려 저를 달래주셔"  
날짜: 20160209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9224048535  
본문: '내 손에 가수' 장윤정, 서병순과 눈물의 '초혼' 열창 "오히려 저를 달래주셔" / SBS '내 손에 가수' 캡처'내 손에 가수' 장윤정, 서병순과 눈물의 '초혼' 열창 "오히려 저를 달래주셔" <br/> '내 손에 가수' 장윤정과 서병순이 '초혼'으로 감동의 무대를 꾸몄다. <br/> 9일 방송된 SBS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에서는 '칠순택시' 서병순 씨가 무대를 올라 장윤정과 '초혼'을 열창했다. <br/> 이날 열창에 앞서 MC 전현무는 서병순 씨에게 "'초혼'을 끝까지 못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질문에 "아내가 6년간 암으로 고생하다 천국으로 갔다. 지금도 실감은 안 난다. 아직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아내에게 '초혼'은 혼자 불러주던 노래다"라고 담담하게 밝혔다. <br/> 이를 들은 장윤정은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서병순씨의 손을 잡고 결국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특히 장윤정은 "나 때문에 망쳤다. 어떡하냐"라면서도 "아버님이 눈빛으로 담담하게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br/> 한편 '내 손에 가수' 장윤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 손에 가수' 장윤정, 노래 진짜 좋았다" "'내 손에 가수' 장윤정, 이렇게 슬픈 초혼은 처음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0.txt

제목: '내 손에 가수' 장윤정, 초혼 부르다 눈물 폭발'오열'(판타스틱 듀오)  
날짜: 20160209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9204041916  
본문: 내손에 가수 장윤정 초혼 / 사진= 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 캡처내 손에 가수 장윤정 초혼 <br/> <br/>'내 손에 가수' 장윤정이  노래 도중 눈물을 흘렸다. <br/> <br/>9일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에서는 임창정, 박명수, 김범수, 장윤정이 가수로 출연했다.  <br/> <br/>이날 '내 손에 가수' 칠순택시 참가자는  자신의 힘겨운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아내가 6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8월에 운명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이어 칠순택시는는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부르게 됐다. 장윤정씨와 열심히 부르겠다”고 영상 편지를  보냈다. <br/> <br/>이후 장윤정은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고, 결국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장윤정이 노래 내내 눈물을 흘렸다. <br/> <br/>결국 장윤정은 제작진을 향해 ‘못하겠어요’라고 사인을 보낼 정도로 힘겹게 노래를 불렀다. <br/>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1.txt

제목: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 장윤정, 칠순택시 서병순 씨와 '초혼' 눈물바다 열창  
날짜: 2016020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9204040854  
본문: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 장윤정, 칠순택시 서병순 씨와 '초혼' 눈물바다 열창 사진=방송화면캡쳐]'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 장윤정, 칠순택시 서병순 씨와 '초혼' 눈물바다 열창 <br/> <br/>'판타스틱 듀오' 장윤정이 눈물을 흘렸다. <br/> <br/>9일 방송된 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판타스틱 듀오-내 손에 가수'에서는 임창정, 박명수, 김범수, 장윤정이 가수로 출연했다. <br/>   <br/>이날 박명수와 포쌤의 무대에 이어 장윤정과 '칠순택시' 서병순이 무대에 올랐다. 서병순은 "'초혼'을 끝까지 못 부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MC 전현무의 말에 "아내가 6년간 암으로 고생하다 천국으로 갔다. 지금도 실감은 안 난다. 아직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아내에게 '초혼'은 혼자 불러주던 노래다"라고 밝혔다. <br/> <br/>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린 장윤정은 애써 마음을 추스리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첫 소절부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쏟았다. 장윤정은 듀오 파트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며 노래를 완창했다. 이런 모습에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br/> <br/>한편 '판타스틱 듀오'는 누구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듀엣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MC 전현무-김수로를 비롯해 윤상, 서장훈, 강균성, 윤정수, 김숙, 유재환, 한희준, 러블리즈 케이와 수정 등이 패널로 합류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2.txt

제목: 우리가 몰랐던 몸의 진실 51가지  
날짜: 2016020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9110507229  
본문:   <br/>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이 글을 읽고 나면 신체의 신비로움에 대해 경외감을 갖게 될 것이다. <br/> <br/>1. 우리의 코는 5만가지 다른 향기를 기억할 수 있다. <br/> <br/>2. 우리는 매시간 60만개에 달하는 피부 세포 조각을 떨어뜨리고 있다. <br/> <br/>3. 성인의 신체는 7,000,000,000,000,000,000,000,000,000(=7000자(?))개의 원자로 이뤄진다. <br/> <br/>4. 아기는 성인보다 60여개의 뼈를 더 갖고 있다. <br/> <br/>5. 성인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10만 마일(16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br/> <br/>6. 사람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2만5000쿼터(2만8500리터)의 침을 만들어 낸다. 이는 수영장 두개 넓이에 해당한다. <br/> <br/>7. 우리 몸에 포함된 철로 7.5센티미터에 달하는 쇠못을 만들 수 있다. <br/> <br/>8. 우리 모두의 속눈썹에는 예외없이 진드기가 살고 있다. <br/> <br/>9.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근육은 씹을 때 사용하는 턱근육이다. <br/> <br/>10. 땀은 그 자체로는 무색무취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와 섞이면서 특유의 냄새를 내게 된다. <br/> <br/>11. 신체에 털이 많은 것은 더 높은 지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br/> <br/>12. 귀와 코는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 <br/> <br/>13. 지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마다 고유의 무늬(융선)를 혓바닥에 갖고 있다. <br/> 14.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우리는 몸에서 작은 전구를 하나 켤 만큼의 전기를 생산한다. <br/> <br/>15. 인간의 뼈는 같은 무게의 철강보다 단단하다. <br/> <br/>16. 푸른 색깔의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알코올 분해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알코올 내성이 더 좋다. <br/> <br/>17. 인간의 눈은 1000만개의 다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br/> <br/>18. 우리는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의 10%를 눈을 감거나 깜박인다. <br/> <br/>19. 우리의 눈을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로 비교하면 5억7600만픽셀에 해당한다. <br/> <br/> <br/>20.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를 모아서 무게를 재면 4파운드(1.8㎏) 정도 된다. <br/> <br/>21. 우리의 몸은 매일 1(ℓ)리터의 점액(콧물 등)을 생산한다. <br/> <br/>22. 암은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고, 암은 우리의 몸 어디에든 전이될 수 있다. <br/> <br/>23.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심장박동이 음악의 리듬을 닮아간다. <br/> <br/>24. 체내에 존재하는 산소와 혈액의 20%를 뇌가 사용한다. <br/> <br/>25. 우리의 뼈를 구성하고 있는 31%는 ‘물’이다. <br/> <br/>26. 우리의 입안에는 전세계 인구 수 보다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 <br/> <br/>27. 우리의 심장은 매일 트럭이 32㎞를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br/> <br/>28. 만약 우리의 몸속에 있는 DNA를 감지 않고 풀어헤친다면 100억 마일에 달해, 명왕성에  갔다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  <br/> <br/>29. 당신의 침대에 있는 먼지 대부분은 사실 당신의 죽은 피부세포들이다. <br/> <br/>30.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지 3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사용했던 효소가 우리의 신체를 먹기 시작한다. <br/> <br/>31.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자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 <br/> <br/>32. 일생 동안 우리의 두뇌는 1000조 바이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br/> <br/>33. 우리의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위, 장 등)을 모두 펴면 9m(미터)에 달한다. <br/> <br/>34. 우리의 심장은 평생 동안 150만 배럴에 달하는 혈액을 뿜어낸다. 이는 200대의 차량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br/> <br/>35. 우리의 심장은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도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자체의 전기신호 때문이다. <br/> <br/>36. 우리의 뇌는 40대 후반까지 계속 개발될 수 있다. <br/> <br/>37. 우리의 폐와 코를 포함하는 호흡기는 정교하고 가는 털(후각섬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쓴맛을 느낄 수 있다. <br/> <br/>38.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200개의 근육들을 사용한다. <br/> <br/>39.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들의 값을 매기면 160달러(20만원)에 달한다. <br/> <br/>40. 우리 손가락의 촉각은 13나노미터 물체까지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손가락을 지구 크기로 생각하면, 지구에 있는 집과 자동차 정도까지 미세한 것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br/> <br/>41. 가장 높게 기록된 체온은 46.5°C다. <br/> <br/>42. 심장은 우리 인체의 왼쪽에 있지 않다. 정중앙에 있다. <br/> <br/>43. 우리 유전자의 절반은 뇌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뇌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 98%를 구성한다. <br/> <br/>44. 우리의 혓바닥에서 맛을 느끼는 세포는 10일을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br/> <br/>45. 지방세포의 수명은 10년 정도 된다. <br/> <br/>46. 면도가 우리의 수염을 두껍게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br/> <br/>47. 만약 우리의 위산이 피부에 떨어진다면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만큼 강한 산성이다) <br/> <br/>48. 1만명 중 1명은 체내 장기가 있어야 할 곳 반대편에 있다. <br/> <br/>49.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손아귀 힘의 50%가 상실된다. <br/> <br/>50. 우리의 폐는 산소를 5분 호흡 분량까지 저장할 수 있다. <br/> <br/>51. 상처를 입으면 피부 세포는 재생되지만, 피부 밑의 콜라겐은 상처입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br/> <br/>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3.txt

제목: 설 차례상 좋은 과일 고르기  
날짜: 20160208  
기자: 박찬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8160748982  
본문: “<span class='quot0'>차례상에 올릴 좋은 과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span>” <br/> <br/>차례상의 맨 앞줄에는 과일이 놓인다. 홍동백서(紅東白西)에 따라 붉은 과일은 동쪽, 흰빛의 과일은 서쪽에 둔다. 조율이시(棗栗梨枾)에 맞게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놓는다. 대추는 자손번창을, 밤은 세대간 교류, 배는 우주의 중심, 감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br/> <br/>과일을 진설하는데도 사람의 도리와 후손 번창, 백의민족 등을 상징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만큼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과일을 골라야 한다. <br/> <br/>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과일을 고를 때에는 전체적인 겉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 없이 매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br/> <br/>사과는 밝은 느낌이 좋으며 들었을 때 묵직하고 만졌을 때는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 반대편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은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 모양이 제대로 잡힌 것이 좋다. <br/> <br/>과일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고지방, 고칼로리 제사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br/> <br/>사과 껍질에는 셀룰로오스와 펙틴이 들어 있어 장 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 소화운동을 도와주며, 배변량을 늘려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칼륨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몸 밖으로 배출하며,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춰 체중 감량과 동맥경화, 뇌졸중 및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 <br/> <br/>배는 한방에서 열을 다스리고 기침과 갈증을 멎게 한다(당본초)고 했다. 본초강목에서는 폐를 보하고 신장을 도우며, 담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종기의 독과 술독을 푼다고도 했다. 감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황색 베타크립토잔틴이 풍부하다. 고혈압과 뇌졸중을 막아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탄닌도 함유돼 있다. <br/> <br/>남은 과일을 보관할 때 사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과에서는 성숙 촉진 호르몬인 에틸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와 감을 빨리 무르게 한다. 이에 사과는 다른 과일과 따로 밀봉해 1도 내외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br/> <br/>한현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농업연구사는 “이번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다양한 기능성을 함유한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br/> <br/>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4.txt

제목: 충전 중 폭발한 아이폰…화재로 사망한 말기암 환자  
날짜: 20160206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6112311030  
본문: 밖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휴대전화에만 의지해 살아가던 말기암 환자가 아이폰 과열·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r/> <br/>영국 레딩 검시관 라비 시두에 따르면, 채텀 플레이스에 거주하는 마레크 크루거(53)가 지난해 8월 9일 그의 아이폰을 침대 밑에 놓고 잠을 자다가 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병 때문에 오른쪽 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는 불이 나자 피하지 못했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과 전신 64% 화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br/> <br/>폴란드 출신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크루거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부르기 위해 머리맡에 폰을 놓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아이폰을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여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베게밑에 깔려서 오랫동안 충전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br/> <br/>과학수사관은 “<span class='quot0'>절연장치 때문에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지만 기기 자체에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검시관인 시두는 “<span class='quot1'>크루거가 운신이 불편해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미처 피하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휴대전화가 특정한 환경에서 충전되면서 과열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5.txt

제목: [김승동의 보험 X-ray]손보 만기환급 보장보험 사업비 '폭탄'  
날짜: 20160205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5134839856  
본문: 손해보험사 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주로 만기환급형을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 <br/> <br/>결론부터 말한다면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보험료에서도 무려 30% 가량의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챙길 수 있고, 설계사는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양자에게 모두 이득인 것이다. <br/> <br/>문제는 보험사가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는 비율이 생명보험회사의 동종 보험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고,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br/> <br/>손보사 설계사들은 오히려 고객에게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보장과 더불어 만기에 환급도 받을 수 있다며 만기환급형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고객들로서는 위험에 따른 보장도 받으면서 만기에 목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솔깃해 만기환급형을 선택하게 된다. <br/> <br/>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5일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만기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만기환급형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만기환급을 받기 위한 재원인 적립보험료에서도 높은 비율의 사업비를 뗀다는 상품구조를 설명하지 않는 게 문제</span>”라고 말했다. <br/> <br/>손해보험사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는 크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된다. 보장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것이고, 적립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저축이라고 보면 된다. <br/> <br/>그런데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많이 떼게 되면 만기가 되더라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보장 이외에 목돈 마련도 희망한다면 보장성보험을 최소한도로 가입하고 별도로 적금을 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br/> <br/>세계파이낸스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암보험유비무암’을 상해급수 1급, 36세 남성이 15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다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보장담보는 일반암 3000만원, 고액암 6000만원, 특정소액암 1200만원, 유사암 300만원 등의 진단금과 암 수술비 300만원, 입원일당 10만원 등이다. <br/> <br/>이 경우 실제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매월 납입하는 보장보험료는 약 2만원에 불과하다. 이 상품은 최저 가입보험료가 3만원이고 적립보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저 가입보험료 3만원과 최대가입금액인 22만원 두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두 조건에서 보장보험료는 2만원으로 같고 적립보험료 금액만 1만원과 2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br/> <br/>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납입보험료 22만원 짜리에 가입했을 때 만기환급금이 3588만원으로 납입금의 90.6%를 돌려받는 반면, 20만원 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15년 후 납입금의 114%인 4109만원(세금 공전 前 , 2% 월복리 기준)을 쥐게 된다.(표 참조) 한마디로 저축 측면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보다 적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br/> <br/>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적립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적립금이 많이 쌓이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재테크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하지만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실제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은 저금리로 저축할 때보다 못한 수준</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도 손해보험사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와 개념이 유사한 부가보험료가 있지만 부가보험료에서 떼는 사업비는 저축성보험 수준인 7%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br/> <br/>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보장보험료 2만원 대비 10배에 달하는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데 15년 만기에 원금도 되지 않을 정도면 적립보험료에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금융당국이 나서서 적립보험료에 붙는 사업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와 관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였으나 고위관계자는 답변을 피했고, 실무자는 “<span class='quot3'>보험료는 업계 자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감독사항이 아니다</span>”는 답변만 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6.txt

제목: 새해 건강검진, 이렇게 준비하세요  
날짜: 20160205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5110620499  
본문:   <br/> <br/> <br/>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한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덕담을 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문의들은 건강검진을 받기에 앞서 연령별·성별·위험요인별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 검진항목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연령별로 잘 나타나는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합한 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성별·연령별 건강검진 받는 방법을 소개한다. <br/> <br/>◆ 내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 받으려면 <br/>평균수명 남성 78.5세, 여성 85.1세(통계로 본 광복70년 한국사회의 변화\_통계청:2013)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 이 가능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br/> <br/>건강검진을 할 때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질병을 기존에 앓았던 사람들이 검진 받아야 할 항목 역시 달라진다. 건강검진 전 설문지에 자신의 질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가능한 한 꼼꼼하게 적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친인척 중 50세 이전에 대장암을 겪었다면 대장암 검사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특정 직업 종사자일 경우, 직업군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따로 있는데 이 또한 꼭 포함해 검사받아야 한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원장은 “몇몇 사람들은 건강검진은 비쌀수록, 그리고 많은 종목을 검사할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 무조건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건강검진 할 때 대부분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들이 많은데, 필요 없이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진만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r/> <br/>◆ 나이에 따른 검진 포인트 <br/>건강검진에서 환자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화, 위해 환경 노출, 잘못된 생활습관의 정도가 심해져 중대 질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젊고 건강한 20~30대는 질병에 대한 대비를, 40~50대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60대 이상은 치매와 뇌졸중 검사에 초점을 맞춘 건강검진을 받는 등 연령에 맞는 맞춤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br/> <br/>◆ 위험요소 미리 챙겨야 하는 2030 <br/>20~30대는 평생 지켜야 할 건강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시기다. 본인의 가족력, 생활습관 등에 따른 현재 질병유무와 질병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해야 한다.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앓았던 가족이 있고 비만하거나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이 있다면 향후 혈관질환의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검진을 통해 혈중 지질이나 혈당, 혈압 등을 체크해 이상 유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암 검진 권고 연령보다 일찍 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 또 검진을 통해 간염(A형, B형, C형) 등의 항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예방접종(A형, B형)을 받아야 한다. <br/>  <br/>◆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4050 <br/>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가급적 한 곳의 병원을 정해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층으로 분류되는 40~50대 남성의 경우 건강검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 성인남성의 암 발생률 1~4위를 차지하는 위암·대장암· 폐암·간암 검사를 꼼꼼히 받아야 한다. 5년에 한 번꼴로 권고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대장내시경도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 발견됐다면 3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여성의 경우 40대부터 갑상선암·유방암·위암·대장암에 걸리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따라서 40대가 넘어서면 매년 갑상선과 유방암, 위암에 대한 검사항목을 빼놓지 말아야 하고, 대장암은 남성과 동일한 주기를 적용하면 된다. 유방암 검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엑스선 촬영과 초음파가 있는데, 두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 두 가지 모두 받아보는 게 좋다. <br/> <br/>40~50대 중년층이 건강검진에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관상동맥 검사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에 해당하는 남성은 심장의 관상동맥 상태를 볼 수 있는 관상동맥 CT를 찍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 당뇨, 흡연 같은 뇌동맥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10년에 한 번 씩 뇌혈관 CT와 자기공명영상(MRA)을 찍어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볼 것을 권한다. MRI, CT 같은 검사가 부담스럽다면 경동맥(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통과하는 혈관)초음파를 받으면 동맥폐색이나 협착 등 뇌혈관질환을 파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br/> <br/>◆ 치매·뇌졸중 검사가 필수인 60대 이상 <br/>60세가 넘으면 중대 질병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암 검진 등과 함께 치매심리 검사가 꼭 필요하다. 기억력 감퇴나 치매가 우려된다면 뇌 MRI를 찍어 보는 것도 좋다. 또한 60대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의 위험도 크다. 뇌질환이 의심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 가족 중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흡연, 당뇨,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있다면 1~2년을 주기로 뇌MRI(형태검사)와 뇌MRA(혈류검사), 혹은 뇌CT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같은 검사는 뇌조직과 혈관의 이상 유무를 영상으로 확인하며 검사할 수 있어 뇌졸중 예방과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br/> <br/>의료계에선 최근 들어 60세 이상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암으로 폐암을 꼽고 있다. 남성과 달리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느린 속도로 진행돼 발견하지 못하고 암을 키우는 경우가 잦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60세 전후부터 시작해 매년 폐CT를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검사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br/> <br/>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7.txt

제목: 매년 반복되는 '명절증후군' 해결책은?  
날짜: 2016020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5100542407  
본문:   <br/> <br/> <br/>주부 A씨(52세)는 명절이 시작되기 한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말했다. "내 몸이 지난 명절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손목이 욱신욱신 거린다. 이번 명절에는 또 얼마나 일을 해야 될지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며 명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br/> <br/>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불량', '관절통증', '두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총칭해 '명절증후군'이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증후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br/> <br/>◆ 명절증후군 대표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처방안은? <br/>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의 섭취량이 평소 2~3가량 많아져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 설사와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쉽게 발생한다.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급적 위에 자극을 주는 커피나 탄산음료는 멀리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산보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 며느리는 손목이, 사위는 허리가 아픈데 <br/>명절 내내 음식하고, 상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이 무한 반복인 주부들은 연휴가 끝나면 극심한 손목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된다. 장시간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은 증상이 심해지면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마비까지 올 수 있다.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손목 통증 외에도 귀성길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목과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 장시간 올바르지 못한 운전 자세는 통증 뿐 아니라 디스크로도 발전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어깨는 등받이에 붙이고, 등받이 각도는 110도나 115도로 조절하는 등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1~2시간 마다 휴게소에 들러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br/>◆ 명절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두통'은 왜? <br/>명절 때면 극심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성 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뇌에 혈류공급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으로 충분한 휴식과 약물 복용 후에도 구토, 시각장애를 동반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아야 한다. 또한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뇌MRI 검사를 통해 뇌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br/> <br/>메디피움은 "대다수의 분들이 '명절증후군'에 대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라 생각하여 질병을 방치한다"며 "하지만 50대 이상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축척 된 만성질환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시기"라며 "각종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판교 메디피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부모님들께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검사항목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건강검진을 특별한 할인가로 제공한다.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기 쉬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은 물론 폐•위•대장•유방•간 등 주요 5대 암과 심혈관/뇌혈관 질환에 대한 세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단 한번의 검사로 전신 암 검사가 가능한 PET-CT까지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온 가족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8.txt

제목: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감하는...웰다잉법  
날짜: 2016020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5095509027  
본문: 국제성모병원 김선현 교수 <br/>지난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는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미리 밝혀둔 자신의 뜻(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나 가족의 합의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r/> <br/>이 법은 의사 2명이 환자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투석,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br/> <br/>이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Well-Being), 나이를 잘 먹는 웰에이징(Well-Aging)에 이어 하나 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웰다잉(Well-Dying)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웰다잉법은 환자, 보호자 혹은 가족들, 의사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br/> <br/>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고 있었다. 보호자 혹은 가족 입장에서는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던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되도록 편안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기회가 되기도 한다. <br/> <br/>의사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또한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고 연명치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연명치료를 중단하였을 때 살인방조죄 등이 적용되거나 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을 것이므로,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법적인 측면에서 존중해주는 제도라고도 볼 수도 있다. <br/> <br/>또한  웰다잉법의 정식 명칭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안에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웰다잉법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서비스를 받고는 있다. 그러나 국내 호스피스 병상 수는 1,000여 병상, 이는 전체 말기 암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그러나 병상 수 확충에만 매달려, 질이 떨어지는 병상을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br/> <br/>또한 사회적으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기암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도 점차 확대될 것이기에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이해 및 시설의 확충들이 필요할 것이다. <br/> <br/>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삶의 마무리를 원하지 않게 하지 않도록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첫 법률적 시도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이유로의 연명의료 중단 등, 이로 인해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법령이 실행되기 전까지 철저히 조사되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79.txt

제목: ‘너무나 솔직한’ 존 치버 삶과 흔적  
날짜: 2016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4210850144  
본문: 미국 작가 존 치버(John Cheever·1912~1982·사진)의 방대한 일기와 편지를 선별한 ‘존 치버의 일기’와 ‘존 치버의 편지’가 문학동네에서 출간됐다. 사적인 내용들이 담긴 일기와 편지라는 장르를 출판하는 일은 후대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다. 작가 사후 자식들이 펴낸 것인데, 일기에는 알코올 중독과 양성애 고민까지, 겉으로 드러난 작가와 다른 내밀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기술돼 있다. <br/> <br/>“5시에서 6시까지가 하루 중 내게 최고의 시간이다. 밖은 어둡다. 몇 마리의 새들이 지저귄다. 만족과 사랑이 느껴진다. 나의 불만족은 불빛이 방을 채우는 7시부터 시작된다. 나는 낮시간에 준비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맑은 정신으로 낮을 대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쏜살같이 저장고로 달려가 술을 들이부을 때도 있다.” <br/> <br/>알코올 중독은 작가들이 피해가기 쉽지 않은 함정일지 모른다. 강철 같은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는 튼튼한 작가도 드물지 않지만 대부분 글쟁이들은 격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고뇌와 자의식에 시달리는 민감한 존재들이다. 존 치버는 이러한 내면을 지독히 성실한 일기쓰기에 담아냈다.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추앙받는 존 치버는 1930년대 청년시절부터 단편들을 쏟아내던 시기를 거쳐 장편 ‘왑샷 가문연대기’ ‘팔코너’ 같은 장편소설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1978년 출간한 ‘존 치버 단편선집’은 해외로도 번역돼 각광받았고 ‘퓰리처상’ ‘전미비평가협회상, ‘전미도서상’을 안겨주었다. 1982년 암으로 타계할 때까지 그는 일기와 편지쓰기를 일상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실천했다. <br/> <br/>존 치버의 일기가 자신을 정체성을 직시하는 고행이었다면 그가 지인들과 나누었던 방대한 편지들은 그 정체성을 필요에 따라 뻔뻔할 정도로 변형해 세상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작업이기도 하다.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지,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따라 어떻게 자아를 변형시키는지 방대한 일기와 편지를 비교해서 읽다 보면 그의 작품세계는 물론 작가라는 존재의 불우한 내면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0.txt

제목: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암에 잘 걸린다?  
날짜: 201602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4165435362  
본문: 장신인 사람들인 경우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확률은 적으나 암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 <br/>사람의 키는 타고난 유전자(DNA)로 결정되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에 걸린 확률은 낮은 반면에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것으로 밝혀졌다.  <br/> <br/>지난 3일 데일리메일 매체는 독일 인체영양학회(German Institute of Human Nutrition) 슐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키가 1센티 증가하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6% 줄어드는데 비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4% 증가한다고 전했다.  <br/>  <br/>이에 슐츠 교수 외 2명의 교수들은 신장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영양공급이 성장단계에서 동물성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암발생으로 인해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br/> <br/>공동연구자인 독일 튀빙겐 대학 로버트 스테판 교수는 “<span class='quot0'>키가 큰 사람일수록 인슐린에 민감하고 간에 지방성분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에 걸린 확률이 낮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에 따르면 키가 큰 사람의 경우 지질대사질환에 대한 상대적인 단백질을 더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논문 저자인 슐츠 교수와 스테판 교수는 “<span class='quot0'>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와 하나 또는 둘 체내 신호경로의 활발한 작용이 인체세포의 성장을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시키기 때문에 유방과 대장내 암과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에 상대적으로 심혈관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은 낮춰주는 순기능 효과를 일으킨다</span>” 고 언급했다.  <br/>  <br/>과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성장과 신장 인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고, 논문 저자들은 “<span class='quot1'>특히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할 때 키와 연관해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및 암발생을 고려해야 한다</span>”고 결론을 맺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1.txt

제목: 유방암 재발 미리 가려내는 진단지표 개발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210307190  
본문: 유방암 환자들 가운데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해도 잘 안 듣는 환자를 미리 가려낼 방법이 개발됐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 노우철(사진) 병원장, 김현아 과장, 김재성 박사 연구팀은 15년간 유방암 환자 169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분자진단 지표’를 개발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추적조사에서 유방암 표지 단백질인 ‘HER-2’가 있는 특정 유방암 환자군의 재발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암세포의 성장·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 표적단백질 ‘STAT-3’와 조절인자인 ‘서비빈(survivin)’이 활성화될수록 유방암 세포가 방사선치료 후에도 재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연구팀은 STAT-3과 조절인자인 서비빈을 억제할 경우 방사선치료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해 분자 수준에서 치료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현재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는 통상 방사선치료와 호르몬요법을 병행하는데, 일부는 방사선치료 후 암이 재발해 생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암생물학 학술지 ‘온코타깃’ 1월호에 게재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토대로 지난해 국내특허 출원을 마쳤다. <br/> <br/>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2.txt

제목: 딸 때려 숨지자 방치… "딸이 가출했다" 신고도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193945863  
본문: 경기도 부천의 장기결석 초등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3년여 만에 드러난 데 이어 가출 신고된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여중생을 폭행, 숨지게 한 아버지는 해외 유학파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목사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백씨의 동생(39·여)도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r/>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방 안 모습. 이씨가 시신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한 제습제(원안)가 곳곳에 놓여 있다. <br/>부천=연합뉴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천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이모(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가량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이 이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br/> <br/>이씨는 경찰에서 “<span class='quot0'>딸이 사망한 당일 저녁쯤 훈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span>”고 진술했다. 이어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랫대로 5시간 동안 폭행했고, 딸에게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br/> <br/>이씨 부부는 딸의 시신을 장기간 집 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1'>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시신을) 뒀다</span>”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양 부모는 지난해 3월 중순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이양을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아버지 이모(47·왼쪽)씨와 계모 백모(40)씨가 3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씨는 이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딸이 가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양의 부모는 중학교 담임교사가 전화를 걸어 딸의 소재를 묻자 “<span class='quot2'>딸이 교회 헌금을 훔쳐 혼을 낸 뒤 학교에 보내겠다</span>”고 말했고, 이후에는 가출했다고 둘러댔다가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교사가 추궁하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이씨 부부는 이웃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에 사는 김모(45·여)씨는 “15년 정도 이곳에 사는데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며 “인사를 나눈 적도, 집에서 큰 소리가 났던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br/> <br/>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천 소녀학대사건 이후 장기 미귀가자 현황 파악을 하던 중 지난 1월 18일 이양의 친구에게서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이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부모님께)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집 안에서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br/> <br/>이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신약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모교인 국내 한 신학대에서 고대 그리스 언어인 기초헬라어를 가르치는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또 부천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등학생인 첫째아들 등 1남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씨는 2007년 전처가 암으로 사망하자 현재의 아내 백씨와 2012년부터 같이 살았으며 이양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사건 발생 당시 같이 살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재혼 후 계모와 아이들이 2년가량 같이 살았는데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r/> <br/>경찰은 이양이 이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관련 증거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r/> <br/>경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장기 미귀가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부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양의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천=이돈성·김준영 기자 sport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3.txt

제목: "막내딸 5시간 때려"…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아버지  
날짜: 201602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155849317  
본문:   <br/> <br/>이번에는 목사 아버지가 여중 1년생인 친딸을 빗자루와 빨래대로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간이나 내버려둔 사건이 일어났다. <br/> <br/>이 아버지는 고대 그리스어(헬라어)에 정통한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로 부천의 모 교회 목사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br/> <br/>3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 C양(2015년 3월 17일 사망 당시 13세)의 아버지인 목사 A(47) 씨와 계모 B(49) 씨를 긴급체포했다. <br/> <br/>또 A씨의 딸 C(14)양을 대신 양육하며 때린 혐의(폭행)로 B씨의 여동생(39)씨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r/> <br/>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사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C(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작은 방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C양의 시신은 장기 미귀가자 사건처리를 위해 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이 A 목사 집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br/> <br/>이날 오전 9시쯤 경찰은 작은방에서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인 C양을 발견했으며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등이 놓여있었다. <br/> <br/> <br/>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대로 5시간 동안 폭행한 뒤 딸에게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잤다"며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br/> <br/>이어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내버려뒀다"고 했다. <br/> <br/>A 씨는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 등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A 씨는 딸의 시신을 장기간 집 안에 내버려둔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br/> <br/>사건 발생 당시 C양이 다른 자녀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 사건을 알지 못했으며 A 씨 부부만 시신이 방치된 집에서 계속해 살았다. <br/> <br/>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둔 A씨는 전처가 암으로 2007년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다. <br/> <br/>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해 따로 나가 살았으며 둘째 딸은 지인 집에서 자랐다.  <br/> <br/>막내딸인 C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2년부터 계모인 B씨 여동생 집에서 자랐지만 자주 폭행을 당해 가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후 계모와 아이들이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갈등이 있었다"며 "아내가 힘들어해서 막내딸을 아내 여동생 집에 보냈다"고 했다 <br/> <br/>지난해 3월 17일 당시 A 씨 부부는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C양을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A 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지난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br/> <br/>경찰은 C양이 잦은 가출을 한 전력 등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br/> <br/>하지만 지난 1월 18일 C양의 친구를 통해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br/> <br/>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r/> <br/>또 사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br/> <br/>A씨는 유명 신학대학을 나온 뒤 독일로 유학을 다녀온 박사로 모교에서 기초헬라어를 가르쳤으며 관련 서적도 낸 바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br/>사진=연합뉴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4.txt

제목: 국내 암환자 발생, 일본의 1.3배…10명 중 7명이 사실상 완치  
날짜: 201602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134706775  
본문: 국민 100명 중 36명 가량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등 국내 암 발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일본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그러나 의료기술 발달로 사실상 완치라는 5년 생존율이 69.4%에 달하는 등 최근 20년사이 완치율이 28%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br/> <br/>3일 생명보험협회는 국립암센터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이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암 발병자 수는 22만5343명으로, 2012년에 비해 1166명 증가했다. <br/> <br/>연간 암 발병자 수는 1999년 10만1032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br/> <br/>인구 10만명 당 암 발병자 수는 285.7명으로 일본(217.1명)의 1.3배, OECD 평균(279.3명)보다 많았다. <br/> <br/>생보협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사망 전 암에 걸릴 확률은 36.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br/> <br/>2009년~2013년 암 발병자의 5년간 생존율은 69.4%로, 1993년~1995년 발병자와 비교하면 28.2%포인트 상승했다. <br/> <br/>암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br/> <br/>2002년 암 치료에 사용된 직접의료비는 1조5000억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4.2배인 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5.txt

제목: 암환자 행복 위해 치료를 넘어 사회적 지지서비스가 중요  
날짜: 2016020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3103611829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임재영 교수 <br/>매년 2월 4일은 국제암예방연합이 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암환자를 돕기 위하여 ‘세계 암의 날’이다. 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암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 암환자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br/> <br/>대부분의 암환자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나도 다양한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암 투병과정에서 손상된 신체와 기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지만, 일상적인 활동 및 사회적 참여의 제한은 여전히 암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br/> <br/>특히 의료 기술 발전과 치료 수준의 향상으로 생존율이 향상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수술과 치료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과 회복 과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br/> <br/>◆유방암 환자 수술 후 신체적 손상은 호전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는 지속적으로 제한 <br/>이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임재영 교수팀은 유방암 환자의 암수술 후 신체 손상의 회복과 일상 활동 및 사회적 참여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 분석했다. <br/> <br/>연구팀은 내원한 유방암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 전, 수술 후 3개월, 1년, 2년 후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의 변화 정도를 조사 분석했다. 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상지 기능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개념으로 신체 손상, 활동제한, 참여 제한으로 나누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봤다. <br/> <br/>연구 결과 유방암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인 손상은 호전되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서의 참여들은 지속적으로 제한 받아 암환자들이 삶의 질 저하를 뚜렷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 전 상지 기능 정도가 수술 후의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따라서 수술 전부터 신체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수술할 부위의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미리 교육 하려는 노력과 함께, 관련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치료시기에 따른 생애주기적인 접근, 일상생활 및 사회적 참여에 대한 지지서비스도 암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체 손상을 회복하는 치료 및 재활이 수술 직후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암환자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적 참여를 위한 지지서비스 역시 수술 후 바로 관리되고 2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환자의 투병과 회복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가정 및 직장과 같은 사회적 참여 요소와 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한다</span>”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저명 재활의학회지인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에 개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6.txt

제목: 생존기간 연장 입증 '할라벤', 연부조직육종 적응증 추가 FDA승인  
날짜: 201602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84614584  
본문:   <br/> <br/> <br/>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자사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 메실산염)'이 최근 연부조직육종 중 하나인 '지방육종' 치료 용도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두 번째 적응증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이번 승인으로 미국에서 새로 추가된 할라벤의 적응증은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약물을 포함한 항암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수술 제거가 불가하거나 전이성인 지방육종 환자 치료다. 할라벤은 진행성?전이성 지방육종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한 최초이자 유일한 단일치료제다. <br/> <br/>이번 FDA 승인 역시 할라벤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입증한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할라벤'과 연부조직육종에 흔히 사용하는 항암제 '다카바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대조한 3상 임상연구에서 할라벤은 1차 평가변수인 '전반적 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해 하나 이상의 추가 제제를 이용한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된,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성인 환자 143명을 분석한 결과, 할라벤 치료군(71명)의 생존기간 중간값은 15.6개월로 다카바진 치료군(72명) 8.4개월 대비 7개월 이상 길었다. <br/> <br/>또한 2차 평가 변수인 '무진행생존율' 역시 할라벤 치료군의 중앙값은 2.9개월로 다카바진 치료군의 1.7개월보다 1.2개월 높았다. 이는 전이성 유방암에 이어 할라벤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또다시 입증한 것이다. <br/> <br/>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이기도 한 할라벤은 일본, 유럽, 미주 등 약 60개 국가에서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국내에서도 HER2 음성인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아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할라벤은 예비투약 및 예비배합 과정 없이 2~5분의 짧은 주입시간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한 약물로 평가 받고 있다. <br/> <br/>에자이는 할라벤의 연부조직육종 치료용도 승인신청서를 유럽과 일본에도 제출했으며, 국내 승인신청도 검토 중이다. '연부조직육종'은 암세포들이 지방, 근육, 신경, 섬유상 조직, 혈관 등의 연부조직에서 형성되는 악성종양의 총칭이며 그 중 지방육종이 가장 흔하다. 진행성인 경우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적 수요 충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br/> <br/>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이번 적응증 추가 승인은 할라벤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에자이는 앞으로도 할라벤의 고무적인 임상데이터를 계속해서 제시해 암 치료의 희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비롯한 국내 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7.txt

제목: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106세 할머니 대장암 수술 성공  
날짜: 20160202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75506294  
본문: 계명대 동산병원이 106세 할머니를 상대로 암 수술에 성공했다. <br/> <br/>동산병원은 대장암 환자인 추득실씨에게 복강경으로 대장절제술을 시행해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추씨 주민등록상 나이는 103세지만 실제 나이는 106세다. <br/> <br/>추씨는 얼마 전 속이 불편하고 혈변을 동반한 증상으로 동산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로 오름결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r/> <br/>대장항문외과 백성규 교수가 지난달 25일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추씨는 건강을 되찾아 오는 4일 퇴원할 예정이다. <br/> <br/>추씨는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겁이 났는데 수술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니 오히려 몸도 마음도 젊어진 기분이다”고 전했다. <br/> <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령 환자는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성인 환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작고 출혈이 적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른 복강경 수술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학이 발전해 앞으로 초고령 환자도 수술로 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10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 암 수술 사례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희귀하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br/> <br/>백 교수팀은 2014년 대장암을 앓는 40세 여성에게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이용한 수술에 성공해 그 결과가 미국대장항문학회지, 국제의학 로봇수술 학술지 등에 실리기도 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8.txt

제목: [연구] 암을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  
날짜: 20160202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4804898  
본문: 암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전체 사망자의 28.3%(10만명 당 149명)가 암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36.6%다.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기대수명(81.9세)까지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br/> <br/>대부분의 암은 초기 발견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각박한 세상살이 때문에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의료진은 암 초기 단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암 진단법 10가지를 정리했다. <br/> <br/>1. 쉬거나 갈라지는 목소리 <br/>감기에 걸렸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지는 것은 다반사다. 하지만 이같은 목 상태가 2∼3주 지속된다면 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암세포가 머리와 목 등 발성기관에 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별 탈 없이 쉽게 종양을 없앨 수 있다. 심한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때는 폐암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X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다. <br/> <br/>2. 밤새 심하게 땀을 흘린다 <br/>밤에 베개와 이불을 흠뻑 적실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림프종을 의심해야 한다. 영국 버멍엄 스파이어파크웨이병원의 샹카라 파니샤 박사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을 앓는 사람은 림프구 세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span>”고 말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목 옆쪽 등에 2㎝ 이상의 멍울이 잡힐 때도 림프종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br/> <br/>3. 만성적인 속쓰림 <br/>일반적인 사람도 기름지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난 뒤에는 속쓰림이 심해진다. 그러나 갤포스 등 위장약을 먹었는데도 속쓰림 증상이 2∼3주 넘게 지속된다면 위암이나 식도암의 신호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췌장암이나 난소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br/> <br/>4. 등 윗부분서 통증이 <br/>영국인 가운데 250만명은 등에 통증을 느낀다. 약 99%는 뼈 등 골격근육계와 관련 있다. 하지만 등의 통증은 췌장암과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 피파 코리 캠브리지의과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췌장은 복부 뒤쪽(일반 통증 부위보다 한뼘 위)에 위치해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췌장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신경세포에까지 퍼져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br/>5. 폐경인데도 혈흔이? <br/>갱년기에 접어든데도 혈흔이 묻어난다면 자궁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br/> <br/>6. 소변이 자주 마렵다 <br/>남성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져 자주 소변이 마렵다. 소변을 보지 않고는 3시간도 참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전립선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병원에 가면 간단한 테스트와 조직검사를 벌이는 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 용종으로 밝혀진다.  <br/> <br/>7. 음식 삼키기가 힘겹다 <br/>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1번 증상과 마찬가지로 후두암이나 뇌종양 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같은 암은 폭음하거나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이 흔히 겪는 것처럼 입안 뒤쪽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후두암, 구강암, 설암은 오럴섹스 등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서도 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br/> <br/>8. 대변에 피가 묻었다 <br/>대변에 묻어있는 피의 색깔과 조직, 주기, 고통 여부에 따라 원인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장암일 수 있고 흔치는 않지만 난소암, 췌장암에 따른 것일 수 있어서다. <br/> <br/>9. 갑자기 피부발진이 <br/>갑자기 발진이나 뾰로지가 생겨 피가 나거나 가려움을 느낀다면 피부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2∼4주 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궤양을 의심해야 한다. 궤양에 따른 피부 트러블의 대표적 특징은 통증이 없다는 것이다.  <br/> <br/>10. 갑자기 입에 염증이 <br/>입과 혀에 궤양이 생긴 사람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다. 바이러스성 궤양은 대개 며칠만에 없어진다. 하지만 구강염이 별 통증 없이 3∼4주 계속된다면 설암이나 구강암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때 혓바닥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흰 부위가 유독 두껍거나 짙으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89.txt

제목: 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메디컬오, 공동연구개발 협약식  
날짜: 201602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3539686  
본문:   <br/> <br/> <br/>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단장 윤영욱)은 최근 의과대학 본관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메디컬오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비만 및 당뇨 개선용 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협약식은 고려대학교 윤영욱 연구교학처장과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김현수 교수, 메디컬오 장동훈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김현수 교수는 그동안 표적 단백질인 AMPK에 대한 세포기반 생화학적 신호전달 네트워크 분석 기전 연구를 통해 당뇨 및 암에 대한 분자적 수준의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br/> <br/>또한 기초연구 성과에서 도출한 임상 적용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2015년에 당뇨, 비만 및 암에 대한 치료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원천 물질을 발굴하여 6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br/> <br/>이러한 배경으로 메디컬오에서는 자사가 발굴한 천연물질 속의 효능 성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분석을 의뢰 했으며 추후 연구실의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br/> <br/>김현수 교수는 "고려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수직계열화한 기전 분석 연구전략이 천연물 소재의 대사 관련 질환의 치료효과 검증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메디컬오 장동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만 및 당뇨질환 개선에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협약을 중개한 아이피온의 김지용 변리사는 "양 기관의 협력으로 생물학적, 의학적 효능규명은 물론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0.txt

제목: "암에 특효, 정력에도?좋다"며?중금속?범벅?어간유?판?父子  
날짜: 20160202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110032285  
본문: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br/> <br/>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76)씨와 A씨의 아들 B씨(4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해 암환자 15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보니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간유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어간유 2ℓ짜리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총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r/> <br/>이들은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A씨가 최근에도 어간유를 파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1.txt

제목: '암에 특효, 정력에 그만'이라며 중금속 명태기름, 1병에 50만원씩 팔아  
날짜: 2016020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2094922627  
본문: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 정력에 그만이다"며 속여 1병당 50만원 가까이 팔아치운 부자가 붙잡혔다. <br/> <br/>2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76)씨와 A씨의 아들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A씨부자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어간유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고 팔아 7500만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보니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 <br/> <br/>앞서 A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속이고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바람에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br/> <br/>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하기 힘들자 이번에는 아들 B씨를 내세웠다. <br/> <br/>이들의 행위는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본 사람이 아직도 어간유를 파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2.txt

제목: 고소득자·남성이 스트레스 더 받는다  
날짜: 2016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93046881  
본문: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명은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 정신적인 압박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노출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전문가들은 심각해질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br/> <br/>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녀 7000명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94.1%가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br/> <br/>세부적으로는 △조금 느끼는 편 56.2% △많이 느끼는 편 34.7% △매우 많이 느끼는 편 3.2%로 전체의 37.9%가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br/> <br/>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이 32%였지만 남성은 43.8%로 11.8%포인트나 높았다. <br/> <br/>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외벌이보다는 맞벌이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았다. <br/> <br/>미혼자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41.7%로 배우자가 있는 성인(37%)보다 4.7%포인트 많았다. 기혼자 중에서도 맞벌이(46.4%)와 외벌이(30.3%)의 격차가 컸다. <br/> <br/>소득별로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스트레스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br/> <br/>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경우 27.8%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았다. 월 소득 400만∼600만원은 41.6%, 월 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는 37.9%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으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br/> <br/>사회·심리적 불안을 측정한 결과 불안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이 27.5%였지만 불안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49.2%로 높아져 사회·심리적 불안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불안을 느끼는 개인적 문제로는 노후준비(25.3%), 취업 및 소득(18.4%) 등 경제적 문제가 43.7%를 차지했다. 사회적으로는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36.6%)가 가장 큰 불안 원인으로 꼽혔고 메르스 등 고위험 신종감염병(21.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조사기간이었던 지난해 8∼9월이 메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는 심각해질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신체 기관에까지 영향을 줘 암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3.txt

제목: [설왕설래] 푸른 눈의 ‘할매 천사’  
날짜: 2016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81923190  
본문: 지구 반대쪽 외로운 섬에 천사가 찾아왔다. 스무 살을 갓 넘긴 푸른 눈의 두 천사였다. 오스트리아 간호학교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레크 수녀가 그들이다. 마리안느가 1962년에 왔고 2년 후 마가렛이 뒤를 따랐다. 둘은 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던 친구였다. 젊은 수녀들은 하늘도 땅도 외면한 소록도에 삶의 여장을 풀었다. 그곳에서 버림받은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br/> <br/>두 수녀가 처음 한 일은 한센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다. ‘문둥병자’로 부르며 다들 접촉을 피했지만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짰다. 약이 모자라면 오스트리아 친지에게 호소해 약을 가져왔다. 민간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고국으로 보낸 편지만 수천통에 달했다. <br/> <br/>수녀들은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TV도 없고, 작은 장롱과 십자가만 놓인 단출한 살림이었다. 이들은 삶의 호사와 명예를 뿌리쳤다. 고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조차 환자의 우유와 간식비로 보탰다. 병원에서 회갑상을 차려줬지만 “기도하러 간다”며 받지 않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주는 훈장도 마지못해 받고는 병이 나아 섬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으로 쥐여주었다. 한국의 공예품으로 방을 꾸민 수녀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즐겨 썼다. 주민들은 수녀들을 “할매”라고 부르며 따랐다. <br/> <br/>할매 수녀들은 일흔 고령에 접어든 2005년 늦가을에 “이제 늙어서 짐만 된다”며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span class='quot0'>헤어지는 아픔을 줄까봐 말없이 떠난다</span>”는 짧은 편지를 남긴 채 새벽에 몰래 섬을 빠져나왔다. 이들의 손에는 40여년 전 들고 온 해진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갑작스런 이별에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며칠째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br/> <br/>소록도의 ‘할매 천사’가 11년 만에 다시 섬을 찾는다고 한다.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5월에 마리안느 수녀가 소록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마가렛 수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오지 못한다. 마리안느 수녀도 암에 걸렸으나 꿈에 그리던 섬을 밟고자 초청에 응했다는 전언이다. <br/> <br/>한센인의 가장 큰 아픔은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푸른 눈의 할매 천사는 우리에게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남도의 외로운 섬이 두 천사의 사랑으로 환해졌다. 문득 ‘사랑의 섬’ 소록도에 가고 싶다. <br/> <br/>배연국 수석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4.txt

제목: 중국 언론, 국내 건강보험의 성공과 과제 보도  
날짜: 2016020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50435194  
본문:   <br/> <br/> <br/>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했다. <br/> <br/>'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자 기획기사에서 1977년에 시작되어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환자부담 정도 등을 소개했다. <br/> <br/>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는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하고, 작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인용하여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r/> <br/>'환구시보'의 요청으로 통역과 인터뷰를 맡았던 정책연구원의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5.txt

제목: 넥시아 기자회견 현장에 항암제 납품업자 난동 의혹?  
날짜: 2016020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45813395  
본문:   <br/> <br/> <br/>지난달 29일 대한암환우협회(회장 이정호)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4기암 5년 이상 생존자 발표 기자회견' 장소에서 병원에 항암제를 납품하는 업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br/> <br/>기자회견을 주최한 대한암환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사람은 2014년 암학회가 '항암제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나타나 소동을 부린 동일인으로 항암제 납품업자가 한방 치료 기자회견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을 업무방해 및 폭처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경찰에 배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 <br/>대한암환후협회와 말기암 생존환자들은 지난달 29일 직접 자신들의 의료기록을 공개하며 전통 한방요법인 '넥시아 치료'의 효능으로 말기암에서 살아났다며 생존자 13명의 치료 경험을 증언했다. <br/> 대한암환후협회 제공 <br/>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일부 병원에 항암제를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 일행이 '암환자'를 가장해 소동을 피웠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기자회견 진행 요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치는 모습(사진1)과, 진행팀을 거세게 밀쳐내며 폭행하는 모습(사진2), 그리고  손찌검을 하는 모습(사진3) 등이 촬영됐다. <br/> <br/>난동을 부린 50대 남성과 기자회견장에 동행한 50~60대 남녀 10여명은 자신들이 '넥시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회견장 진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br/> <br/>일부 매체는 이날 "넥시아 피해자들이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항의했다"고 보도했으나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암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항암제를 납품하는 사업자 백모씨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2014년 국내 암학회가 '항암제의 부작용'을 다룬 동영상을 상영할 때도 나타나 소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사진4).  <br/> <br/>대한암환우협회에 따르면 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진행 요원은 이날 행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백모씨는 "대한암환우협회의 암 치료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어 기자회견장에 찾아갔지만 초청장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없다는 답변을 들어 관계자를 찾았다"며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그 와중에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과 약간의 언쟁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br/> <br/>이어 "대한암환우협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에 자신도 비슷한 입장이라 많은 공감을 느껴 그분들 말씀도 듣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기자회견에 출입증이 없으면 안된다는 공지가 없어 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6.txt

제목: 나사렛국제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날짜: 20160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15249949  
본문:   <br/> <br/> <br/>나사렛국제병원(이사장 이강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br/> <br/>폐렴 적정성 평가는 초기 진단과 치료, 2차 예방을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진료과정 부문을 8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중증도판정도구 사용률 △항생제 투여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8개 전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록, 폐 질환 치료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이사장은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모든 의료진들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나사렛국제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심평원이 처음 실시한 이번 폐렴 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5위인 폐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국민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전국 482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 진료분에 대해 평가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의학, 한의학, 통합기능의학을 기반으로 25개 진료과, 8개 전문센터로 구성, 44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인천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와 암 검진평가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과 최고점수를 획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결과 고관절치환술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2015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7.txt

제목: 세엘진 '아브락산주', 전이성 췌장암 환자 1차 치료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  
날짜: 2016020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04054289  
본문:   <br/> <br/> <br/>세엘진코리아는 자사의 항암제 아브락산주(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주사제)가 오늘(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아브락산주와 젬시타빈과 병용 요법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br/> <br/>아브락산주는 세엘진만의 기술 플랫폼인 냅 기술(nab technology)을 적용한 파클리탁셀 제제로, 지난 10여년 간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던 전이성 췌장암 분야에서 생존 기간 연장이라는 임상적 성과를 입증했다 <br/> <br/>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브락산주의 MPACT (Metastatic Pancreatic Adenocarcinoma Clinical Trial)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아브락산주와 젬시타빈 병용투여군(n=431)은 8.7개월(중앙값)의 전체 생존기간을 보인 반면 젬시타빈 단독요법은 6.6개월 (중앙값)에 그쳐 아브락산주와 젬시타빈 병용요법이 전체 생존 기간을 약 2.1개월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정순교수는 "췌장암은 10대 암 중에서도 약 20여년 동안 한자리수의 상대생존율을 기록한 의학적 발전이 매우 늦은 질환 중 하나로,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질환"이라며 "특히 기대 여명이 짧은 전이성 췌장암에서 2개월이라는 생존 기간 연장을 입증한 아브락산주의 보험급여 적용은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의 의의를 강조했다. 다만 "적용 범위가 전이성의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국소진행성이나 재발성, ECOG 수행능력평가가 2인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br/> <br/>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4%로 10대 암 중에서 가장 낮으며, 원격 전이 췌장암의 경우 1.7%,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한 해 5500여명이 췌장암으로 진단받았으며, 이 중 약 5000명은 5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췌장암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며,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 받고 있다 . <br/> <br/>세엘진코리아 마케팅부 최연지 전무는 "전이성 췌장암 치료에 있어 아브락산은 꼭 필요한 치료 옵션으로써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엘진코리아는 혈액암을 비롯해 고형암까지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통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의학적 요구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아브락산주는 미국, 유럽 및 국내에서 췌장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급여 기준에 따라 아브락산주는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 외에도 표준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2차 치료 이상부터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8.txt

제목: 서울대병원 MGH, 서울서 뇌종양 연구 박차  
날짜: 20160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101026916  
본문: 왼쪽부터 백선하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장, Batchelor MGH 뇌종양센터장, 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br/>‘뇌종양 정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서울대병원,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연구진이 서울에서 만났다고 2일 밝혔다. <br/> <br/>양 기관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 뇌종양 질환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br/> <br/>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한다. 크게 뇌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한 원발성 뇌종양과 신체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된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한다. <br/> <br/>두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2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열어 뇌종양 질환의 치료 증례, 연구 결과 등을 나눠왔다. 특히 2014년 4번째 회의부터는 연구 협력을 강화했으며, 작년 공동 연구팀이 전이성뇌종양 유전자 변이의 특징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 첫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26~28일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미팅과 특강을 가졌다. <br/> <br/>이 기간 중 MGH 뇌종양센터장인 Batchelor 교수는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 연구진, Charles Lee 교수(잭슨랩유전체연구 소장)와 함께 신경교육종(악성뇌종양)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눴다. <br/> <br/>특히 Batchelor 교수와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 연구진은 난치성뇌종양 기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Batchelor 교수는 연구미팅 외에도 ‘혈관 생성억제제를 이용한 악성뇌종양의 치료’와 ‘뇌종양의 표적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br/> <br/>MGH는 유에스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의 미국 병원평가(2015~2016년)에서 메이오클리닉,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교육이나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당 몇 천 달러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한 번쯤은 수련 받고 싶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br/> <br/>이런 MGH와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뇌종양 치료와 연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뇌종양센터장(신경외과)은 “<span class='quot0'>이번 만남을 통해 MGH와의 연구 협력이 더욱 가속화됐다</span>” 며 “<span class='quot0'>3월 29일 7번째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599.txt

제목: [창조경제 DNA 깨워라] 현대해상  
날짜: 2016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031742684  
본문: 현대해상은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사망보장을 강화한 ‘보험의 정석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질병사망 선지급형 담보’를 도입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3대 질병과 사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3대 질병 진단 시에는 가입금액 전액을 선지급한 뒤 질병 사망 시 다시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3대 질병과 질병사망 담보를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저렴하다. <br/> <br/> 현대해상 광고모델이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과 사망을 선지급형으로 보장하는 ‘보험의 정석 건강보험’을 소개하고 있다. <br/>현대해상 제공질병사망 선지급형 담보에 더해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특약을 가입하면 경증, 중증, 사망의 3단계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3대 질병의 입원 또는 수술 특약을 가입하면 진단, 입원, 수술로 단계별 보장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경제활동기에는 각종 질병, 사망 등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가입했다가 은퇴시기에는 저축보험, 간병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5세 이후에는 저축보험, 65세 이후에는 간병보험으로 추가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다. 간병보험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br/> <br/>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80세, 90세, 100세까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100세 만기, 20년납’ 조건으로 가입했을 때 월 10만원 수준이며 3대 질병 진단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0.txt

제목: [창조경제 DNA 깨워라] 동부화재  
날짜: 2016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201031611887  
본문: 동부화재는 올해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를 차지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물론 다양한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이 상품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br/> <br/>동부화재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술기법인 경피적 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한 점과 간·폐·신장을 절제하거나 적출하는 수술을 보장받는 특약으로 보장영역을 확대한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된다. <br/> <br/> 동부화재 모델인 배우 지진희와 여성 모델이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새로운 보장영역을 확대한 점이 인정돼 지난달 출시와 동시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br/>동부화재 제공특히 기존 보험상품들의 보장이 주로 말기, 중증질환 위주였던 데 비해 이 상품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br/> <br/>최근 국내에서도 성공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는 경피적 심장판막성형술이나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은 물론,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몸 속에 심박조율장치를 삽입하는 수술,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뇌혈관을 터지지 않게 하는 수술 등이 초기 단계 질병 보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입원일당을 차등 보장하는 것 역시 업계 최초의 시도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1.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음악으로 따뜻한 암 여정 시작  
날짜: 201601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9145546366  
본문:   <br/> <br/>서울대암병원이 지난 1월27일 12시 10분 3층 로비에서 제73회 암병원 음악풍경 ‘2016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2016년 개원 5주년을 맞아 서울대암병원은 길고 어려운 암 치료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로 ‘최적의 치료, 따뜻한 여정’이라는 슬로건을 정했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따뜻한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br/> <br/>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박지원, 오보이스트 이숙현과 피아니스트 김휘수, 팬플룻 앙상블 ‘비보(VIVO)’가 참여하였다. 연주자들은 환자와 가족, 교직원 등 120명의 관객을 위해 리스트가 편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제1번’,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 <맘마미아>의 음악과 ‘오 해피 데이’ 등을 연주해 주었다. <br/> <br/>암병원 음악풍경은 2011년 서울대암병원 개원 이후 암정보교육센터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화 행사이다. 특히 매년 신년음악회는 국립음악원 연주, 가야금 중주, 목관 중주 등 조금 더 색다른 연주로 꾸며지고 있다. 순수 문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암병원 음악풍경은 통산 73번째로 열렸다. <br/> <br/>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은 “2016년 서울대암병원은 최적,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암 여정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오늘 연주가 암 여정을 가고 있는 모든 환자와 가족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2.txt

제목: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  
날짜: 2016012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9104112046  
본문:   <br/> <br/>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강현)는 지난 27일 '제1회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12명의 보건학·이학 석사를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날 졸업식에는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유인촌 국립암센터발전기금 후원회장과 졸업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졸업의 영예를 축하했다. <br/> <br/>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한 한또(25·베트남)양은 "다양한 경험과 귀중한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역경을 극복하고 졸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r/> <br/>이강현 총장은 "이번 졸업생은 2014년 3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입학한 1기 학생들로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한 것을 축하한다"며 "암 전문가로서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꿈과 열정을 전 세계에 펼치라"고 당부했다. <br/> <br/>한편 한국의 성공적인 암 관리 및 연구 노하우를 전수하고 차세대 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암관리정책학과, 시스템종양생물학과에서 매년 석사학위 과정 35명을 선발하고 있다. <br/> <br/>현재 베트남, 몽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카메론,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박사과정이 포함된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3.txt

제목: 이화의료원,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날짜: 201601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9102117334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김승철 원장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지난 1월 28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에서 개최된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br/> <br/>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 브랜드를 평가해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br/> <br/>주최측에 따르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암 분야를 선도적으로 특화 육성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되는 각종 암과 중증질환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그 이름을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았다. <br/> <br/>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009년 이대여성암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성화와 차별화, 중증질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방암·대장암·위암?급성심근경색증, 폐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잇달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br/> <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수상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3년 연속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환자 안전 및 진료 서비스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4.txt

제목: [전상일의건강해] 추워도 실내환기는 꼭!  
날짜: 2016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8205247783  
본문: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된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것은 창문을 닫는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난방도 중요하지만 실내 공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내 공기는 대기(외부공기)보다 좋을 수 없다. 광활한 대기는 정화 능력이 있지만 실내 공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한정된 공간에서 재사용하기 때문이다. 난방을 위해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지낸다면 이는 분변을 풀어 놓은 수영장에서 물갈이 없이 하루 종일 수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br/> <br/>게다가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연료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폐를 고문하는 행위이다. 연료를 비롯해 음식이 가열되면서 나는 연기에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많이 쓰던 연탄이나 석유에 비해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기는 하지만 가스도 이산화질소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전기레인지도 ‘전기’라는 연료에서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지만 음식 조리 중에 가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해로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기나 생선을 불에 직접 굽는 직화구이 방식이다. <br/> <br/>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 중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흡연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기름에 튀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여성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다. 아시아에 사는 중국계 여성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름에 튀기는 조리를 많이 한 여성이 그러지 않은 여성보다 폐암에 2~4배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을 조리하면서 기름 연기에 들어있는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PAH)'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AH는 세포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DNA 손상을 가져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기름 연기는 폐 조직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모두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음식 연기의 성분은 자동차 배기가스와는 차이가 있지만 담배연기와는 매우 흡사하다. <br/> <br/>양초, 향, 방향제 모두 실내공기를 오염시킨다. 양초나 향에는 향이 오랫동안 잘 퍼지도록 하기 위해 환경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기도 하고, 태울 때는 다량의 초미세먼지가 나온다. 양초와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어도 폐에는 백해무익이다.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공기오염 개선 효과 측면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식물보다는 화분에 담긴 흙에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 물을 너무 많이 줘 흙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한다. <br/> <br/>난방과 실내 공기 어느 것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면 겨울철에도 적어도 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조리할 때는 언제나 후드를 작동하고, 조리 후엔 창문을 한동안 열어 두는 게 좋다. 폐가 건강하지 않은데 100세까지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폐에 가장 좋은 선물은 깨끗한 공기다. 대기오염에 갖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실내 공기에 가져보자.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5.txt

제목: 건망증 방치하면 치매 위험성 ↑, 뇌세포 활성화 돕는 ‘천연 엽산’이 해답 ?  
날짜: 20160128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8152904245  
본문:   <br/> <br/> <br/>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나질 않거나, 분명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건망증을 의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br/> <br/>기억장애의 하나인 건망증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치매에 이를 수 있다. <br/> <br/>전문가들은 건망증 증세를 완화하는데 ‘엽산’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엽산이 부족하면 뇌 신경세포의 핵산 생성에 이상이 발생하고, 신경 세포의 작용이 쇠퇴해 건망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이처럼 엽산이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 건망증에 탁월한 영양제임이 알려지면서 국내 업체는 물론 나우푸드, GNC, 암웨이 등 해외 유명기업의 엽산보충제를 구매하거나 아마존, 아이허브, 비타트라와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나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엽산제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br/> <br/>건강을 위해 수고와 비용을 들여 구입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먼저 엽산보충제가 ‘천연엽산’인지 ‘합성엽산’인지를 확인하자. 합성엽산의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다. <br/> <br/>노르웨이 헤우케란(Haukeland) 대학병원 마타 에빙 박사는 연구를 통해 합성엽산 보충제 섭취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다. 연구팀은 참여자 68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합성엽산 보충제를 복용케 한 뒤 실험 전 후를 비교했다. <br/> <br/>그 결과, 합성엽산 보충제군은 대조군보다 암 발생 가능성이 21%나 높았다. 그 중에서도 폐암 수치는 25%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따라서 엽산영양제를 통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려면 100%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천연 엽산제를 구매해야 한다. 제품 라벨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통해 천연과 합성을 구분할 수 있다. ‘락토바실러스(엽산 1%)’처럼 천연원료명과 영양성분이 함께 표기됐다면 천연, ‘엽산’처럼 영양성분만 있다면 합성엽산제다. <br/> <br/>엽산 분말을 알약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등 화학부형제 첨가 유무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성분들은 구토, 흉통,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br/> <br/>마지막으로 엽산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엽산의 형태는 ‘Folate’와 'Folic acid'로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Folate‘를 천연, ’Folic acid'를 합성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Folate'와 ‘Folic acid'의 차이점은 체내 흡수율이다. Folate는 체내 흡수율이 50% 정도이며, Folic acid는 90%에 이른다. 즉, Folate보다 Folic acid 엽산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셈이다. <br/> <br/>현재 판매되고 있는 엽산 보충제 중 100% 천연원료를 사용하면서 화학부형제까지 전혀 넣지 않은 제품으로는 뉴트리코어 비타민 엽산제 등 일부 제품에 불과하다. <br/> <br/>건망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엽산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학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천연 원료 100%인지, 체내 흡수율이 높은 ‘Folic acid' 제품인지를 꼼꼼히 따져 엽산제를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6.txt

제목: 이화의료원, ‘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 개최 성료  
날짜: 2016012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8103431774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은 지난 27일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5년 이상 생존해 완치 판정을 받은 암환자를 초청, '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r/> <br/>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축하 파티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을 비롯한 이대여성암병원 의료진 등과 암환자 100여명 및 보호자들이 참석했다. <br/> <br/>주웅 부인종양센터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직접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케이크 커팅과 함께 문선희 성우의 '행복해지는 말'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매년 개최되는 장기 생존 환우 축하 모임을 통해 새로 암 진단을 받거나 투병 중인 환자들과 장기 생존 환우들을 연결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br/> <br/>김승철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span class='quot0'>암환자 장기 생존 축하 파티에 참석한 여러 환우 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겨내고 더욱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나가고 계신 환우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암환자들을 위해 단순한 암의 제거만을 하는 치료병원이 아니라 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우모임, 희망 텃밭 가꾸기, 파워 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인적인 통합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7.txt

제목: 한국산 K-2C 소총 이라크서 암거래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92422636  
본문: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의 한 트위터 계정 ‘그린 레몬’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K-2C 소총(사진)이 이라크 암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br/> <br/>K-2C 소총은 한국 방산업체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제작해 이라크에 수출한 군수품이다. 수출용으로 개발돼 일부 특수부대 외에는 아직 우리 군에 보급되지 않은 최신형 무기다. <br/> <br/>그린 레몬은 이날 “이라크 암시장에서 K-2C 소총이 거래되고 있는 증거 사진”이라며 K-2C 소총과 함께 비닐 포장을 뜯지 않은 탄창과 소총 손잡이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br/> <br/>이현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8.txt

제목: 5년 생존 말기암 환자들이 기자회견 자청한 이유는?  
날짜: 20160127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73310861  
본문: 5년 이상 생존한 말기암 환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병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와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회원은 오는 29일 '우리는 5년 이상 생존한 말기암 환자들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br/> <br/>◇ 4기암 완치 60개월 생존 성공 단일치료 사례 전무 <br/> <br/>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45.7명(남자 449.9명, 여자 441.5명)으로 2003년의 260.2명에 비해 1.6배 정도 증가했다. <br/> <br/>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여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로 남자(78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5%)에서 암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br/> <br/>일반적으로 암은 '진행암(advanced cancer)'과 '말기암(terminal cancer)'이 있다. 이는 암의 진행 상태를 의미하는데 '진행암'은 재발, 전이가 되었어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생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개 6개월 이내의 기대여명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실례로 보건복지부 '2013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 자료'의 5년 상대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다른 신체 부위로 암이 전이된 원격 전이 단계에서 위암(5.8%), 폐암(5.4%), 담낭 및 기타담도암(2.5%), 췌장암(1.7%)은 낮은 생존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보통 진행암 4기 말기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4기 말기암 완치라는 60개월 생존을 성공한 단일치료 성공 사례는 아직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br/> <br/>◇ 말기암 환자들의 기자회견, 배경은? <br/> <br/>오는 29일 열리는 기자회견은 대한암환우협회의 이정호 회장이 주최했고 말기암환자로 5년이상 생존한 국내 환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br/> <br/>이에 앞서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넥시아 치료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와 대한암환우협회에게 단일약 '한방 넥시아 치료' 사례로 4기 내과 암에 대한 암 발생 후 5년 이상 생존자 공개를 요구했고,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소람한방병원(원장 김성수)에 약침 암 완치 진위 검증을 요구했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암 치료 권위자인 서울의대 방영주 교수와 허대석 교수의 4기내과 암에 대한 수입항암제 단일 약치료 암 완치 여부와 단국대 최원철 교수의 넥시아 치료를 동일한 조건에서 공개 요구할 예정이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는 이번 기자회견에 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의사총연합,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대한암환우협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암환우보호자회 등 단일 치료(단일 항암제) 5년 이상 생존 4기(내과 암) 환자 공개 요청 기관 책임자들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br/> <br/>◇ 5년 생존 말기암 환자들 '넥시아 치료 중단될 위기' 성명 발표 <br/> <br/>기자회견에 참석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저희는 '4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환자들과 가족들"이라며 "양방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몇개월 남지 않았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벌써 17년 전의 일이 됐고, 다른 일부에게는 12년 전의 일이 됐으며, 또 다른 일부에게는 5년 전의 일이 됐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br/> <br/>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환자시절 진단서(4기 암), 의무기록 사본, 본인 주민등록등과 초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저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모두 '넥시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완벽하게 암을 극복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송승화씨)도 있고, 교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인(이미승씨)도 있으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제현, 주예지씨)과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대학생(이동원씨)도 있다"고  밝혔다. <br/> <br/>또한 "심지어 아기였을 때 암에 걸렸던 학생(심문수씨)은 '내가 암에 걸렸었느냐'고 되물었던 적도 있는데 현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br/> <br/>참석 예정자들은 성명성를 통해 "넥시아의 효과는 저희들이 직접 체험했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몸으로 겪고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넥시아'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사기다' '불법 의약품이다' 등 온갖 비난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저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치료약이 눈 앞에 있는데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를 몰아가고 있다"며 "저희가 생명줄로 여기는 '넥시아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고, 게다가 이미 제조된 의약품마저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r/> <br/>이정호 회장은 "저희 환자들은 병원이 포기한 사람들로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다 해도 1년 생존 가능성이 3%가 되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해 괴로워하며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애타게 발만 동동 굴렀던 사람들"이라며 "양방 의사들은 '불가능하다'면서 저희를 포기했지만 우리들은 5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br/> <br/>이 회장은 성명서 말미에 "자신의 병력을 공개하는 것은 남에게 속살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환자들을 위한 것이고 환자 가족들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생길지 모를 수많은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제발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09.txt

제목: 새해 건강다짐, 4060중년 건강은 이렇게 체크해라  
날짜: 2016012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71158415  
본문:   <br/> <br/> <br/>2016년 새해를 맞아 흔히 세우는 계획의 주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br/>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으로 건강과 부를 꿈꾼다. 하지만 소망과 달리 쉽게 지나치는 계획이 바로 '올바른 건강 챙기기'다. 한 해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년의 건강 포인트를 소개한다. <br/> <br/>◆각종 성인병과 혈관 질환에 노출된 40대 <br/>건강에 한참 관심이 많을 40대이지만 정작 바쁜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으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다. 40대 부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성인병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각종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평소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br/> <br/>특히 40대 남성의 경우, 잦은 음주와 흡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협심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여성보다 3~4배 더 높다. 따라서 심장초음파를 비롯한 위/대장 내시경 검사와 간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양한 성인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각종 질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뇌질환과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50대 <br/>흔히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졸중은 50대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된다. 50대는 무엇보다 혈관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이다. 뇌졸중,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은 발병시 돌연사 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다면, 55세부터는 폐 CT를 매년 촬영하여 다양한 폐질환을 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br/> <br/>40~50대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척추나 엉덩이 뼈에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감소 및 골다공증은 칼슘섭취 및 비타민D 섭취로 예방하거나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진행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br/> <br/>◆심장/뇌 혈관질환 검사가 필수인 60대  <br/>60대부터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이는 심장마비,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흡연•당뇨•고혈압 등의 뇌졸중 위험요인을 갖고 있거나, 뇌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1~2년을 주기로 뇌MRI/MRA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br/> <br/>노년 초기에는 만성 질환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 평소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기본이며, 햇빛을 많이 쬐고 산보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포인트다. <br/> <br/>연령별로 다양한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생활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기본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메디피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검진 기회를 마련했다. 중장년 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인병은 물론 폐암, 위/대장암, 유방암 등 5대 암,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프리미엄급 건강검진을 파격적인 특가로 제공한다.  <br/> <br/>또한 단 한번의 검사로 전신 암 검사가 가능한 PET-CT까지 추가로 50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메디피움 검진센터 관계자는 " 2016년 1, 2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인 만큼 새해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호응이 높다"며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0.txt

제목: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이론과 방법을 논의하는 유익한 학술행사 개최  
날짜: 20160127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40626712  
본문:   <br/> <br/>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이론과 방법을 논의하는 유익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임상통합의학암학회(구 자연통합의학암학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성모병원 성의 회관에서 ‘임상통합의학암학회 춘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r/> <br/>이번 세미나는 ‘임상통합의학적 암 치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암성통증에 대한 통합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 암성통증의 개요 및 치료(삼육서울병원 통합암센터 이종화 박사) ▲ 한의학적 암성통증 관리(임상통합의학암학회 장성환 학술이사) ▲ 암성통증의 침구치료(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과 최도영 교수) ▲통합의학적 암성통증 치료(경주자연의원 조병식 원장)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 <br/> <br/>‘수술, 항암, 방사선 부작용의 치료’를 주제 에서는 ▲ 림프부종의 치료원칙(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 ▲ 입자방사선 치료(한라대학 제주한라병원 최일봉 교수) ▲암, 정신병, 정신과 치료(고려대학교 정신과 김정일 외래교수) ▲ 암환자의 간호학적 관리(임상종양간호학회 선제인 간호사) 등의 최신지견이 펼쳐진다. <br/> <br/>이어 ‘암 환자의 식이관리’를 주제 에서는 ▲ 맞춤형 항암면역식단(강원대학교 생명공학과 김명조 교수) ▲ 태초먹거리(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 ▲대사증후군과 암 환자를 위한 제암거슨요법(제암병원 이영석 원장)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br/> <br/>임상통합의학암학회는 작년 3월 ‘자연통합기능의학적 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통합의학의 최신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춘계 자연통합의학암의학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임상통합의학암학회로 ‘회명’을 변경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br/> <br/>학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 치료에 있어 통합의학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합의학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1.txt

제목: 지미 카터 암 완치는 아냐 "여전히 치료중"  
날짜: 20160127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102418642  
본문: 지미 카터 암 완치는 아냐 "여전히 치료중" <br/>사진: 방송 캡처 <br/>지미 카터 암 완치는 아냐 "여전히 치료중" <br/> <br/>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암에 대해 언급했다. <br/> <br/>지미 카터(91) 미국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여전히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br/> <br/>이어 "의사들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며 "면역체계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교실'에서 암의 완치를 공개로 선언했다고 미 언론은 전한 바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2.txt

제목: 지미 카터 "암 완치는 아냐, 여전히 치료 중" 상태는?  
날짜: 2016012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095310456  
본문: 암이 완치된 것은 아니라는 지미 카터. 사진=YTN 뉴스자료 캡처암이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지미 카터(91) 미국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여전히 치료중”이라고 말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고향 조지아 주 플레인스에서 온라인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 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의사들이 (새로운) 암을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종종 뇌를 포함한 부위에 암이 돌아온다</span>”며 이같이 언급했다. <br/> <br/>그러면서 “의사들이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며 “면역체계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부인 로잘린 여사에 대해 “<span class='quot0'>결혼생활 69년 동안 그녀의 지지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아파서 죽을 수 있다고 할 때 함께 있어주었다</span>”고 밝혔다. <br/> <br/>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교실’에서 암의 완치를 공개로 선언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 측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뇌 정밀검사 소식을 전하면서 암세포가 사라졌다 말했다. <br/> <br/>그를 치료해 온 에모리대학 병원의 의료진 역시 지난달 4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3.txt

제목: 건강검진은 40대 이후부터?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검진 미리 받아야…”  
날짜: 20160127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7092313234  
본문:   <br/> <br/>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span class='quot0'>평소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편</span>”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직장인들의 태도는 연령대에 따라 달리 조사됐다. 20대 젊은 직장인은 “<span class='quot1'>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span>”라는 응답이 50%, 이에 반해 40대 이상 직장인의 경우는 “건강을 꾸준히 챙기고 있다”라는 대답이 48%로 1위를 차지했다. <br/> <br/>이런 결과는 건강검진 여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40대 이상의 직장인은 50% 이상이 정기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34.8% 순으로 20대는 11.8%에 그쳤다. 특히 20대 직장인 중 절반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또한 직장인들은 몸이 아파도 웬만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4%가 “크게 아프지 않은 한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으며,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br/> <br/>연세허수범내과 허수범 대표원장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 이상 중년층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최근 우리나라 20대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연세허수범내과는 지난 2015년 12월 개원해 환자들을 위한 맞춤 진료는 물론 국가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과 및 건강검진센터이다.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의료장비로 국민건강검진, 5대암검진, 위대장내시경, 성인병 등을 진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ㆍ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도모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검진이다. <br/> <br/>올해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며 연령대별 국가암 건강검진 항목을 살펴보면 20~30대는 자궁경부암, 40대는 간암(고위험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0대는 대장암(대변검사),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76년생과 50년생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장암검진의 경우 50대 이상은 짝수, 홀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4.txt

제목: [강상헌의 만史설문] “해와 달의 조화… 음력은 우리 정신 깃든 생활문화”  
날짜: 2016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4203631197  
본문: ‘납월홍매’(臘月紅梅)의 상징 순천 낙안성 금둔사엔 성탄절 무렵에 벌써 매화나무에게 꽃을 내 놓으라 재촉하는 손들이 오신단다. 납월이면 섣달 즉 12월이니 무리는 아니다. 양력(陽曆)과 음력(陰曆)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는 혼동이려니. 올 설, 음력 정월 초하루는 2월 8일이고, 납월은 1월 10일부터다. 설중(雪中)의 붉은 매화는 지금 봄의 씨앗을 뿌린다. <br/> <br/>‘납(臘) 전 매화 꽃부리 터지니’(梅?臘前破·매예납전파)라는 두보의 시 한 구절을 ‘두시언해’(杜詩諺解)는 ‘梅花ㅅ 부리 설 아래 터지니’(일부 현대어)로 번역했다. 조선 초기 훈민정음으로 지은 글에 이미 ‘설’이란 말이 올라 있는 것이다. ‘언해’는 우리말로 옮겼다는 말이다. 풀 초(?)와 마음 심(心)을 3자나 엮어 만든 꽃술 예(?)의 이쁜 의미형성에 잠깐 눈을 보내자. <br/> <br/> ‘두시언해’에 이미 ‘설’이란 명칭이 쓰이고 있었다. 이 책자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어 시작된 언해(諺解) 작업 중 중요한 저작이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양력은 (거의) 국제적인 표준이다. 그러나 아직 음력이 우리 삶의 여기저기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설이나 한가위(추석) 같은 기쁜 날을 기리기 위한 까닭만은 아닐 터다. 설은 해를 의미하는 한자 세(歲)에서 온 것으로 본다. <br/> <br/>설을 한때 ‘민속의 날’ ‘구정’(舊正)이라며 구박했다. 실없는 이들의 속없는 책동이었다. 그런다고 설이 어디 가겠는가? 거대한 겨레의 힘이 응축된 이 빨간 날은 늘 본디를 돌아보게 하는 뜻으로 작동한다. 양력 1월 1일은 그래서 ‘양력설’이다. 설은 바른 달 정월(正月)의 첫째 날이자, 정작의 새해인 것이다. 2월 8일을 ‘음력설’이라 하지 않는다. 올해의 설날이다. <br/> <br/>달 보고 만든 ‘달력’이 음력이다.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삭망(朔望)의 주기(週期)로 한 달, 1개월을 삼는 역법(曆法)이다. 서양달력 캘린더(calendar)의 우리말이 달력(-曆)인 것에서 우리의 역법이 음력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겠다. 다만 헷갈린다거나 ‘외워야 할 것 많아 지겹다’는 식으로 음력에 대해 험담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다. <br/> <br/> 12지신상으로 유명한 경주의 성덕왕릉. 12지신상은 분묘를 수호하는 존재였고, 점차 불교 사원의 건축이나 회화에 적용됐다. <br/>국립경주박물관 제공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뜨거운 사랑의 맹세에 달을 담보로 한 대사(臺詞)를 썼다. 로맨틱한 상상을 끌어내는 도구로 그들은 달을 유용하게 쓴다. 그러나 서양의 언어나 상징체계에서 달은 일반적으로 광기(狂氣)나 비정상적 상황의 반영이다. 신화부터 그렇다. <br/> <br/>루나(Luna)는 ‘달의 여신’의 라틴어 이름이다. 그리스 신화에선 셀레네(Selene)다. ‘태양의 신’ 솔(Sol)의 상대역이다. 최근 디지털 기기에서 보는 브랜드들이다. 루나에서 나뉜 형용사 ‘루내틱’(lunatic)은 ‘미친 것 같은’, ‘광기의’, ‘터무니없는’ 등의 뜻이다. 정신병원(lunatic asylum) 극렬과격파(lunatic fringe) 등도 그런 ‘달’의 뜻에서 나오는 어휘들이다. <br/> <br/> 경주 용강동 무덤에서 1986년 출토된 청동 십이지신상 중 6개. 왼쪽부터 소 호랑이 토끼 말 양 원숭이의 상이다. <br/>국립경주박물관 제공영국작가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1919년)는 화가 고갱의 이미지를 힌트 삼은 소설이다. 잘 나가던 중년 주식중개인이 남태평양의 열광적인 화가로 변신하는 줄거리다. 몇 푼 안 되는 6펜스 동전은 현실을, 달은 꿈의 세계를 그린 상징이라고도 하나 광기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는다. 보름달 보고 짖는 서구의 늑대 이야기는 꽤 여러 갈래다. <br/> <br/>서양(미국)의 방식으로 키워진 세대들에게 달의 이런 이미지는 음력의 그것과도 겹칠 터다. 역법의 종류나 원리에 대해 일러주는 배려가 없었다면 음력은 그들에게 마치 암(癌)과도 같은 미신(迷信)이 아니겠는가. 다른 여러 ‘우리의 것’이 스러지고 사라지는 모양새를 닮았다. 다행히도 설 추석 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의 뿌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br/> <br/>1년은 365일(양력·태양력)이다. 30일과 29일이 갈마드는 음력은 12달이 양력보다 11일 정도 적다. 중동 어떤 지역의 이슬람달력은 이런 태음력이다. 지역마다 다른 역법은 고대 세계 여러 지역의 천문학의 (응용의) 차이였다. 354일 태음력에 태양력의 요소를 더해 만든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lunisolar calendar)이 우리를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들의 ‘음력’이다. <br/> <br/>태음력과 태양력을 이어주는 ‘재료’는 윤달(閏-)이다. 윤달은 태음력상 날짜와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끼워 넣는 달이다. 태양력 3년이 좀 덜 되는 기간에 윤달이 한 번씩 돌아오는데 5월에 제일 많고 11∼1월에는 거의 없다. 여벌달 공달 덤달 등으로도 부른다. <br/> <br/>‘대한이 소한이네 집에서 얼어 죽었다’는 속담의 대한(大寒) 소한(小寒) 등 24절기(節氣)는 우리의 음력(태양태음력) 중 양력의 요소가 반영된 개념이다. 춘분(春分) 하지(夏至) 추분(秋分) 동지(冬至) 등이 태양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고찰할 일이다. <br/> <br/>이런 바탕 없이 달만 바라보는 것이 음력이고, 달은 좀 이상한 이미지의 존재라는 생각을 품으니, ‘음력은 비과학적’이라는 몰상식한 주장과 진술(陳述)이 속출한다. 해가 바뀔 때면 음력(태음태양력)과 태양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띠풀이 글이 속출하고, 육십갑자의 해 이름에 관한 논설(論說)이 난무한다. 바탕 없이 어찌 유식하랴. <br/> <br/>병신년 육갑하는 것은 음력으로 내년의 육십갑자를 챙겨보는 것이다. 어쩌다 저리 비속하게 들리게 됐을까나. 이런 역법과 절기는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정신 깃든 생활문화를 오래 직조(織造)해왔다. 정녕 없어도, 잊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 <br/> <br/>강상헌 언론인·우리글진흥원 원장 <br/> <br/> ■ 사족(蛇足) <br/> <br/>육십갑자(六十甲子)는 천간(天干·하늘과 태양의 질서)과 지지(地支·땅과 달의 질서)의 여러 조합(組合)이다. <br/> <br/>천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개다. 오행(五行)사상과 관련, 두 개씩 오방색(五方色)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과 연결되어 색깔과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를 배당받는다. 갑·을은 청색(東), 병·정은 적색(南), 무·기는 황색(중앙), 경·신은 백색(西), 임·계는 흑색(北)이다. <br/> <br/>지지는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卯, 토끼) 진(辰, 용)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西, 닭) 술(戌, 개) 해(亥, 돼지)의 12개로 각각 상징동물이 있다. <br/> <br/>올해 병신(丙申)년은 이래서 그 상징이 ‘붉은 원숭이’다. 甲子는 천간과 지지의 첫 번째를 합한 육십갑자의 뜻이고, 육갑은 육십갑자의 준말이다. 육갑은 이렇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여러 뜻과 함께 시기(時期)를 매기는 방법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5.txt

제목: 컬러푸드의 종류, 다이어트에 도움주는 컬러 테라피는? '청색 계열 효과'  
날짜: 2016012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3141000796  
본문: 컬러푸드의 종류, 다이어트에 도움주는 컬러 테라피는? '청색 계열 효과' <br/>사진=story on 화면 캡쳐 컬러푸드의 종류, 다이어트에 도움주는 컬러 테라피는? '청색 계열 효과'   컬러푸드의 종류가 화제인 가운데, 다이어트에 좋은 컬러 테라피가 덩달아 눈길을 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청색 계열의 후광 효과를 이용하면 된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가족 자리의 식탁 매트나 소품 등을 푸른색 계통으로 꾸미거나 청색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면 식욕 조절에 효과가 좋다.   또한, 몸 관리를 위한 이들의 식사 자리에는 노랑, 빨강, 주황 등의 난색 계열 색상은 식욕을 촉진할 수 있으니 피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컬러푸드의 종류, 신기하다" "컬러푸드의 종류, 어떤 것이 좋지?" "컬러푸드의 종류, 놀라워라" "컬러푸드의 종류,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컬러푸드의 종류에는 빨간색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 효과, 주황색과 노란색 계통의 채소와 과일에는 프로비타민 A 성분, 녹색 채소에는 클로로필,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흰색 채소에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알리신과 살균 작용을 하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있다.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6.txt

제목: 남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21가지 비밀  
날짜: 20160123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3122018382  
본문: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 그 남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1가지의 사실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와 각종 해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br/>  <br/>1.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람피우는 남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br/> <br/> 뉴시스 <br/> <br/>2. 남자가 평생동안 여자를 쳐다보는 시간을 합치면 1년이 넘습니다. <br/> <br/> factslides.com <br/> <br/>3. 살해당한 여성의 절반은 현재 또는 과거 남편이나 애인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 <br/> pixabay <br/> <br/>4. 남자는 하루에 6번 거짓말을 합니다. 여성의 2배에 달합니다. <br/> <br/> pixabay <br/> <br/>5. 2013년 미국에서만 166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절반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pixabay <br/> <br/>6. 남자는 평생 면도에만 6개월을 씁니다. <br/> <br/> pixabay <br/> <br/>7. 삭발한 남자는 삭발하지 않은 남자에 비해 키가 약 2.5cm 커 보이며 평균 13%정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br/> <br/> 뉴시스 <br/> <br/>8. 연구결과에 의하면 예쁜 아내와 결혼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결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br/> <br/> pixabay <br/> <br/>9. 99세 할아버지가 96세 할머니와 77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70년 전인 1940년대에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0. 최초로 남성간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영화는 1927년에 상영된 무성영화 ‘Wings’ 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1. 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2.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평균 신장이 12~13cm정도 더 큽니다. <br/> <br/> pixabay <br/> <br/>13. 매력남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아의 30~35세 사이 남성 중 35% 이상이 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br/> <br/> pixabay <br/> <br/>14. 2020년이 되면 중국에서 신부감을 찾지 못하는 노총각의 숫자가 3000만~40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5. 남성은 아내나 여자 친구와 걸을 때 평소보다 평균 7% 느리게 걷는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과 동행할 경우 보행속도는 빨라집니다. <br/> <br/> pixabay <br/> <br/>16. 미국에서는 매년 450명의 남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7.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는 먼저 사랑 고백을 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8. 발렌타인데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돈은 평균 136달러이지만, 남자가 여자 친구에게 쓰는 돈은 154달러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9.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벼락에 맞을 확률이 약 5배 더 높습니다. <br/> <br/> pixabay <br/> <br/>20.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보다 35%정도 더 높습니다. <br/> <br/>21. 남성이 흘리는 땀의 양은 여성의 2배에 달합니다.  <br/> <br/> pixabay <br/> <br/>소셜미디어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7.txt

제목: 여성에 대해 알지 못했던 21가지 비밀  
날짜: 20160123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3114949242  
본문: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그 여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1가지의 사실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와 각종 해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br/> <br/>1. 전 세계에서 90초마다 1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사망합니다. <br/> factslides.com <br/> <br/>2.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는 약 2만 단어. 남성보다 약 1만3000개의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br/> <br/> <br/>3. 영국의 여성은 평균 19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7켤레만 신습니다. <br/> <br/> pixabay <br/> <br/> <br/>4. 러시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900만명 더 많습니다. <br/> <br/> pixabay <br/> <br/> <br/>5. 평생동안 여성이 그날 입을 옷을 고르는데 쓰는 시간을 합치면 1년이 넘습니다. <br/> <br/> pixabay <br/> <br/> <br/>6. 여성은 1년에 30~ 64번 정도 울지만, 남성은 6~17번만 운다고 합니다. <br/> <br/> pixabay <br/> <br/> <br/>7. 기록상 가장 어린 이혼녀는 10살입니다. <br/> <br/> pixabay <br/> <br/> <br/>8. 하이힐은 사실 최초에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이 유행은 1600년대에 시작되었고 여성이 하이힐을 신기 시작한 동기는 좀 더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고 싶어서였습니다. <br/> <br/> pixabay <br/> <br/> <br/>9. 현재 미국 여성중 4%는 임신중입니다. <br/> <br/> pixabay <br/> <br/> <br/>10. 세계최초로 자궁이식수술을 받은 여성은 2013년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br/> <br/> pixabay <br/> <br/>11.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키가 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br/> <br/> pixabay <br/> <br/>12. 영국 여성은 평생 평균 111개의 핸드백을 소유하게 됩니다. <br/> <br/>13.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산을 한 여성은 러시아 여성 바실예프(Vassilyev)로 1725~1765년 사이 69명을 낳았습니다. <br/> <br/> pixabay <br/> <br/> <br/>14. 영국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 여성은 하루 평균 9번 정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생각한다. <br/> <br/>15. 여성 사망률 1위는 심장질환입니다. <br/> <br/> pixabay <br/> <br/>16. 미국 여성 6명중 1명은 성폭행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br/> <br/> <br/>17. 전체 여성 중 2%만이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br/> <br/> pixabay <br/> <br/>18. 80% 이상의 여성이 맞지 않는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br/> <br/> pixabay <br/> <br/>19. 영국 여성은 평생 150번 정도 헤어스타일이 바뀝니다. <br/> <br/> pixabay <br/> <br/>20. 미국에서는 13분마다 1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합니다. <br/> <br/> pixabay <br/> <br/>21. 남녀 성비가 가장 불균형한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로 남자 219명에 여성은 100명에 불과합니다. <br/> <br/> pixabay <br/> <br/>소셜미디어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8.txt

제목: "놀랍다" 맥주가 몸에 좋은 9가지 이유  
날짜: 20160122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2174607078  
본문:   <br/> <br/> <br/>"술 한 잔 정도는 몸에 좋아" 여기서 말하는 술이 품질 좋은 맥주라면, 단순히 술을 더 마시기 위한 핑계가 아닐 수 있다. 최근 해외 매체 위티피드가 맥주가 건강에 좋은 9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br/> <br/>항목들을 살펴보기 전, 맥주의 적정 섭취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하루에 맥주 1잔(330ml), 남성은 2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알코올 섭취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맥주를 마시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br/> <br/>1. 수명이 늘어난다 <br/> <br/>버지니아 기술 대학교 연구팀이 50만 명의 미국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6% 높았다. ‘정기적’의 기준은 일주일에 3일 정도 1~2잔의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보다 많이 마시는 사람은 사망 확률이 오히려 19% 늘어났다. <br/> <br/>2. 합성 화학물질이 없다 <br/> <br/>맥주에는 그 흔한 방부제도 들어있지 않다. 질 좋은 맥주는 모두 천연 원료로만 제조된다. <br/> <br/>3. 간혹 물보다 안전하다 <br/> <br/>해외에선 정수되지 않은 물보다 맥주가 더 안전할 수 있다. 믿을만한 제조사의 맥주는 깨끗한 물로 만들어져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br/> <br/> <br/> <br/>4. 비타민B가 들어있다 <br/> <br/>비타민 보충제를 맥주로 대체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맥주에 상당한 양의 비타민B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합성연산, 몸에 좋은 섬유소 등도 함유돼 있다. <br/> <br/>5. 심장 발작을 예방한다 <br/> <br/>맥주 속 항산화물질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몸속 화학 물질을 없애준다. 펜실베니아 Scranton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다크 에일 및 샤우트 맥주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에일 맥주는 발병률을 50%가량 낮춰줬다. <br/> <br/>6. 암을 예방한다 <br/> <br/>제대로 양조된 맥주엔 항암 효과가 있고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물질 일종인 잔토휴몰이 함유되어 있다. 독일은 잔토휴몰이 더 많이 함유된 맥주를 개발 중이다. <br/> <br/> <br/>7. 불룩 나온 배와 상관없다 <br/> <br/>불룩 나온 배가 맥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미신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Chrles Bamforth 교수는 “맥주 칼로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이다. 맥주로 인한 칼로리가 다른 술보다 뱃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맥주 때문에 배가 나온다고 생각할까? 와인, 위스키 등보다 맥주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신다. 그렇기에 섭취하는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배가 나온 원인은 맥주가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한 칼로리에 있다. <br/> <br/>8. 콜레스테롤이 없다 <br/> <br/>다른 술에 비해 칼로리,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은 편이다. 콜레스테롤도 없다. <br/> <br/>9. 신장 결석을 예방한다 <br/> <br/>미국신장학회임상저널 따르면, 매일 맥주 한 잔을 마시면 신장결석 발병률이 41% 떨어진다. 와인의 경우엔 33%가량 감소한다.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19.txt

제목: 이대여성암병원, '여성암 심포지엄' 오는29일 개최  
날짜: 2016012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2130407022  
본문: 이대여성암병원 백남선 병원장 <br/>이대여성암병원(병원장: 백남선)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여성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은 부인암과 유방암을 주제로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부인암을 주제로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정년퇴임을 기념해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이화의료원의 임상경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이어 주웅 부인종양센터장의 'Surgical Treatment of Gynecologic Cancer' 강연이 진행된다. <br/> <br/>이어 유방암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Breast MRI’s Role in Practice(김정현 영상의학과 교수) ▲Pathologic Evaluation of Postneoadjuvant Specimens in Breast Cancer(성순희 병리과 교수) ▲Axillary Management in Breast Cancer(이준우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 ▲유방암 재건에 있어 천공지 피판의 유용성(박보영 성형외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br/> <br/>또한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이 좌장을 이어받아 ▲Evidence Based Radiation Treatment for Early Breast Cancer(박경란 방사선종양학과) ▲Overview of the ER+ Breast Cancer and New Concept of Treatment(이경은 혈액종양내과) ▲유방암 환자의 근골격계 재활(한수정 재활의학과) 등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br/> <br/>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등록 없이 당일 등록이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대여성암병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0.txt

제목: '성경험 있으면 백신 효과 없을까?' 자궁경부암에 대한 3가지 오해  
날짜: 20160122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2102352579  
본문: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주웅 교수가 환자에게 자궁경부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2번째로 발병률이 높으며 우리나라 여성암 중 7위를 차지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자궁경부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3만2595명으로 전년도(2만8512명) 비해 14% 증가했다. <br/> <br/>자궁경부암은 자궁의 목 부분인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가, 질환이 진행될수록 질 출혈이나 질 분비물의 증가, 골반통 및 요통, 체중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병원을 방문할 땐 이미 2~3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br/> <br/>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주웅 교수의 도움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대표적 오해와 예방법을 알아본다. <br/> <br/>◆자궁경부암 백신, 성관계 경험 있으면 예방효과 없나? NO! <br/> <br/>자궁경부암은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인데, 약 150여 가지의 HPV 종류 중 16과 18형이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차지한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 백신을 접종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자궁경부암을 95%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성관계 경험이 있으면 접종 효과가 없다’는 오해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br/> <br/>백신 접종이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영국 암 저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백신 예방효과를 연구한 결과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을 약 94% 예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예방률과 거의 같다. <br/> <br/>◆자궁경부암은 중년 여성의 암? NO! <br/> <br/>자궁경부암은 40~50세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최근 20∼30대 젊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및 보험급여를 받은 20~39세 젊은 환자의 등록 건수는 2010년 3340건에 비해 약 25% 증가한 2014년 4172건으로 나타났다. <br/> <br/>젊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증가 원인은 주로 국내 청소년의 빨라진 성경험 시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사춘기 시절 조기 성 경험은 자궁경부의 세포 성숙을 빠르게 진행시켜 자궁경부의 세포가 변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HPV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이런 추세를 감안해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됐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목록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접종 연령 등은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br/> <br/>◆백신 접종하면 자궁경부암 100% 안심? NO! <br/> <br/>HPV는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주 원인이 되는 16과 18형 외에도 다른 번호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할 수 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100% 안심할 수는 없다. <br/> <br/>하지만 자궁경부암은 본격적인 암 진행까지 10~15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므로,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검진은 3년에 한번이지만 더욱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 검진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br/> <br/>주웅 교수는 “<span class='quot0'>지난해 국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은 65.6%에 그쳐 미국(78.5%), 영국(78.4%)에 비해 12%포인트 가까이 낮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 충분히 극복 가능하므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백신 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이어 “청소년의 성 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 최적의 시기는 9∼13세로, 원래 3회 접종이 기본이지만 초·중학생의 경우 2회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1.txt

제목: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궁경부암' 바로 알기  
날짜: 2016012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2094311872  
본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2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우리나라 여성암 중 7위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자궁경부암(질병코드 C53)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3만2595명으로 직전 년도(2만8512명) 대비해 14% 증가했다. 또 하루 평균 3명이 생명을 잃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다. <br/> <br/>자궁의 목 부분인 자궁경부에 암이 생기는 것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질 출혈이나 질 분비물의 증가, 골반통 및 요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면 이미 2~3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br/> <br/>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주웅 교수. <br/>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주웅 교수는 "국립암센터에서 수행한 2015년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수검률은 6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8.5%, 영국 78.4%에 비해 약 12%가량 낮은 수치이다"며 "자궁경부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매우 높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암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 자궁경부암 백신, 성관계 경험 있어도 예방효과 있어 <br/> <br/>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주된 원인이며, 약 150여 가지의 HPV 종류 중 16과 18형이 자궁경부암 발생의 70%를 차지한다. 일반적인 암의 경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자궁경부암은 원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br/> <br/>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 백신을 접종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자궁경부암을 95%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오해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br/> <br/>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성관계 경험이 있으면 접종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백신 접종이 성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및 관련 질병에 대한 백신의 예방효과를 연구한 결과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을 약 94% 예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기 예방률과 거의 동일한 셈이다. <br/> <br/>◇ 자궁경부암은 중년 여성의 암? 2030 젊은 환자 증가 추세 <br/> <br/>자궁경부암의 호발 연령은 40~50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의 증가 추세가 거세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및 보험급여를 받은 20~39세 젊은 환자의 등록 건수는 2010년 3340건에 비해 약 25% 증가한 2014년 4172건으로 나타났다. <br/> <br/>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의 증가 원인은 주로 국내 청소년의 빨라진 성경험 시작 시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경험 시작 평균 연령은 13.2세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13.1세, 여학생은 13.5세였다. 사춘기 시절 조기 성 경험은 자궁경부의 세포 성숙을 빠르게 진행시켜 자궁경부의 세포가 변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HPV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br/> <br/>이런 추세를 감안해 2016년부터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 연령이 조정되었다.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대폭 낮춰진 것이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목록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으나,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접종 연령 등은 올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br/> <br/>주웅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젊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성 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의 최적의 시기는 9세부터 13세로, 원래 3회 접종이 기본이지만 초·중학생의 경우 어린 나이에는 2회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br/> <br/>◇ 20세 이상 여성 증상이 없더라도 3년마다 정기검진 실시해야 <br/> <br/>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자궁경부암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원인이 되는 16과 18형 외에도 다른 번호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암 진행까지 약 10~15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자궁경부암의 특성상 정확한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br/> <br/>실제로 지난해 9월 발표한 국가암검진 권고안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마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피이형성증 등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세포검사로, 자궁경부를 솔로 문질러 떨어진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암세포를 가려내는 방법을 활용한다. 다만 검사의 정확도가 75~85% 정도이기 때문에 꼭 주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HPV 검사나 자궁경부확대촬영을 같이 시행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2.txt

제목: "어릴 적 올림푸스 카메라 팬… 입사로 이어져"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202003079  
본문: 예쁘면서 고성능인 카메라로 유명한 올림푸스와 ‘암’은 언뜻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림푸스 첫 제품이 광학현미경(1919년)이며, 위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안타까워하는 도쿄대 의사 요청에 올림푸스가 내놓은 제품이 첫 상용 위 카메라(1950년)라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진다. 전체 매출의 80%를 의료분야에서 올리고 있고, 세계 내시경 시장의 70%가 올림푸스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내시경 혜택을 입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br/> <br/> 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타워 회의실에서 최신 내시경을 통한 암 진단·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r/>이제원 기자4년간의 중국 법인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5월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로 부임한 오카다 나오키 사장이 직원 의견을 모아 만든 새 비전에서 “<span class='quot0'>올림푸스의 가장 큰 장점은 최고의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술</span>”이란 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타워에서 만난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초기 필름 촬영형에서 실시간 모니터형으로 내시경이 진화하면서 ‘발견한 암을 떼고 싶다’는 의료진의 추가 요구로 내시경과 결합해 암 조직을 떼낼 수 있는 ‘처치구’가 개발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올림푸스는 광학업체이긴 하나 암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span>”고 말했다. <br/> <br/>1984년 입사 때부터 줄곧 내시경을 다뤄온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입사 당시만 해도 내시경은 보는 기능이 전부였고 그조차 시술의사 1인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3D 입체화면을 보며 여러 의료진의 협진도 가능해졌다</span>”며 특히 고령화시대에 올림푸스와 내시경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r/> <br/>일반 내시경은 동네 의원도 구비한 실정이지만 고령층 등 노약자를 위한 보다 섬세한 진단·처치가 가능한 3D복강경 등은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1'>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암 다발국인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입이나 항문을 통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복강내시경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올림푸스는 이를 위해 현재 송도에 363억원을 들여 의료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 중이다. 복강 내시경을 다룰 의료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복강경 수술에선 의사의 기술 숙련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존 개복수술 영역이 복강경 수술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의료진 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br/> <br/>조만간 선보일 차세대 제품은 올림푸스와 소니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복강경이다. 오카다 사장은 “<span class='quot1'>내시경을 만드는 오랜 올림푸스의 경험과 화상 재생분야에서 뛰어난 소니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2013년 ‘SOMED’를 합작 설립했는데 두 기술을 통합한 제품이 곧 나올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내시경만 편애할 듯하나 오카다 대표에게도 올림푸스 카메라는 각별하다. 그는 “<span class='quot1'>부친이 초등학교 때 사주신 올림푸스 PEN 카메라 팬이 된 것이 올림푸스 입사로 이어졌다</span>”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카메라 수요 감소는 모든 업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오카다 대표도 “(카메라사업부에서) 엄청 고생한다. 힘들긴 하다”고 말했다. <br/> <br/>하지만 그는 “<span class='quot1'>올림푸스는 항상 디자인이나 성능이 ‘유니크’한 제품을 만들어왔고 그런 DNA가 지금 디지털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카메라를 통해 쌓아온 광학 노하우는 잃을 수 없는 만큼 팬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3.txt

제목: 벼랑끝 가정 극단선택 악순환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91909405  
본문: 30대 부모가 초등생 아들을 죽게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데 이어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반인륜적인 가족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br/> <br/>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파탄 등에 따른 가정 불화와 폭력이 가족 간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br/> <br/>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48)씨는 21일 오전 9시5분쯤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2)씨와 아들(18), 딸(11)을 차례로 살해한 뒤 18층 자신의 집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br/> <br/>A씨는 투신 직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둔기로 때렸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 불면증 때문”이라는 등의 말을 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녀들은 시신이 방바닥의 이불 위에서 발견되고, 딸이 곰인형을 끌어안은 채 숨진 점 등에 미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br/> <br/>경찰은 A씨가 뇌병증(질병이나 외상으로 뇌 기능과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B씨가 남편의 언어폭력 때문에 힘들어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B씨는 평소 “남편이 술에만 취하면 ‘죽이겠다’고 해 무섭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 같은 가족살해 사건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br/> <br/>서울의 50대 가장이 말기암 아내와 특목고생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고 제주에서는 50대 남편이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4년 살인죄로 입건된 447명 중 133명(29.8%)이 가족 살해범이었다. 2013년 가족살해범 107명보다 26명(24.3%)이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살인미수범 575명 중 103명(17.9%)도 가족살해를 시도한 경우였다. <br/> <br/>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극 개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r/> <br/>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원씨(왼쪽)와 그의 아내 한씨가 21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br/>부천=연합뉴스‘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2014년)’ 논문을 발표한 서울경찰청 정성국 검시조사관은 “<span class='quot0'>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은 폭력이 대물림되며 뫼비우스 띠처럼 맞물리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가정폭력 사건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국가가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법적으로 친권박탈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아울러 오랜 경기 침체와 맞물려 벼랑 끝에 내몰린 가정일수록 불화와 폭력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고, 예산과 제도상의 한계로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지역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br/> <br/>한남대 이창훈 교수(범죄학)는 “<span class='quot1'>사회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 못지않게 위기 가정에 대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시민의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4.txt

제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601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72837927  
본문:   <br/>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 교수)은 오는 26일 오후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강좌는‘만성콩팥병은 어떤 질환인가요?’(신장내과 김용수 교수)와 ‘저 단백식이’(김희애 영양사),‘만성콩팥병 환자의 교육?’(김영주 간호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br/> <br/>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5.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암치유 생활백과' 개정판 발간  
날짜: 201601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72836831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암 치유 바이블인 ‘암치유 생활백과’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지난 2012년 4월,당시 삼성암센터의료진 100여명이 집필에 참여해 최신 의학적인 지식과 함께 다년간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풀어내면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포괄적 생활지침서가 되어 주었던초판을 발간했었다. <br/> <br/>이번 개정된 ‘암치유 생활백과’는 첫 번째 작업 후 미흡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표적치료 이해하기’ 등 최신정보 업데이트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암 치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암 증상관리, ▲치료 후 생활 관리, ▲ 스트레스 관리 분야에 축적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백과사전처럼 담았다. <br/> <br/>이 외에도암환자가 된 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암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몸과 마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조명했고,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암 치료가 끝난 이후의 여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했다. <br/> <br/>남석진 암병원장은“<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개원 이래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암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계속 해나갈 것이라</span>”며 “<span class='quot0'>치료 여정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만든 ‘암치유생활백과’가 귀중한 안내 지침서가 되고,환자 모두가 암을 치유하고 행복한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span>”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6.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신영복 교수가 투병한 악성 흑색종?  
날짜: 201601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52757162  
본문:   <br/> <br/> <br/>『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10시 타계했다. 75세. 그의 사인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이었다. 열흘 전부터 병세가 악화되면서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2014년 중반 암을 발견한 고인은 그 해 가을 성공회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출간된 『담론』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생의 막판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다. <br/> <br/>피부암 중 가장 위험하다는 ‘악성 흑색종’ 환자가 지난 4년간 3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에서 2013년 3761명으로 33.4%나 늘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3명이 악성흑색종에, 12명은 기저세포암 등 다른 피부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악성 흑색종은 피부나 점막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피부암 중 가장 악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악성 흑색종의 20~50%는 검은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검은 점이 갑자기 새로 생긴다든지 검은 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변하거나 따가움, 통증이 생기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백인에서는 드물지 않고 비교적 흔한 피부암이나 동양, 아시아인에서는 과거 매우 드문 피부암이었다. <br/> <br/>서양에는 최근 흑색종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점차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19세 이하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20대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40대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br/> <br/>흑색종의 발생 원인은 유전요인과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흰 피부와 푸른 눈, 금발이나 붉은 털을 가진 사람이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특히 흑색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수의 점이 있는 경우 흑색종의 빈도가 증가하고, 26%정도에서 색소성 모반에서 흑색종이 발생된다고 보고되었다. 논란이 있지만 한 연구에서 거대선천멜라닌세포모반(태어날 때부터 있는 10cm 이상의 큰 모반)의 2.3%에서 흑색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유박린 교수는 “<span class='quot0'>흑색종은 자각 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점이나 결절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던 색소 모반의 크기가 갑자기 0.6cm 이상으로 커진다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으로 변하거나, 위의 임상사진처럼 색조가 균일하지 않을 때 악성화를 의심하여야 한다. <br/> <br/>피부에 처음 발생하는 흑색종을 모양, 발생양상, 분포 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임상조직학적 아형으로 나뉜다. <br/> <br/>◆ 말단흑색점흑색종 <br/>손발,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많이 발생하는 아형으로, 동양인의 흑색종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비교적 고령(평균 65세)에 발생한다. <br/> <br/>◆ 결절흑색종 <br/>처음부터 결절 상태로 발견되어 급속히 성장하는 유형이다. 신체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몸통과 두경부에 잘 생기며, 다양한 모양으로 생긴다. <br/> <br/>◆ 표재확산흑색종 <br/>서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증가하여 드물지 않게 보인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 초반에 호발하고, 남성에게는 등 윗부분에 잘 생기며, 여성은 정강에 잘 생긴다. <br/> <br/>◆ 악성흑색점흑색종 <br/>이미 존재하던 악성 흑색점에서 발생한 흑색종을 말하며 한국인에게는 드물다. 60-70대의 노인의 얼굴에 잘 생기고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갈색반으로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서 커다랗고 다양한 색조를 띠는 색소반을 이룬다. <br/> <br/>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다. 전이가 많은 암이므로 진단시에는 전신의 전이 검사를 위해 다양한 방사선학적 검사, 핵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도 항암화학요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중위험도 이상 환자에게는 인터페론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표재확산흑색종에서는 자외선 노출과 흑색종 발생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하는 것은 피하고, 자외선차단제를 적정용량 바르도록 한다. <br/> <br/>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유박린 교수는 “<span class='quot0'>악성 흑색종은 대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림프관이나 혈관을 따라 뼈, 폐, 간 등 어떤 기관들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7.txt

제목: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임상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날짜: 2016012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1152647462  
본문: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녹십자랩셀은 항암 자연살해세포(NK) 치료제인 'MG4101'의 1상 임상시험 결과 논문이 미국 암연구협회(AACR)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ancer Immunology Research'에 발표됐다고 21일 밝혔다. <br/> <br/>'MG4101'은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형세포치료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증식 배양한 면역세포치료제다. 특히, 'MG4101'은 암환자 자신이나 부모, 자식 등 혈연이 있는 공여자에게서 자연살해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를 만드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강한 타인의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김태민 교수팀이 기존의 항암제 표준치료에 실패한 악성림프종 및 고형암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MG4101'의 용량을 늘려가며 1회 또는 3회 정맥 주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br/> <br/>임상시험 결과, 환자에게 'MG4101'의 자연살해세포를 최대 18억 개까지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기존의 항암치료 대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암작용에 유리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47%의 환자에게서 질병의 진행이 지연되는 반응이 확인됐다. <br/> <br/>이번 논문 발표는 非혈연 공여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자연살해세포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안전성을 증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자연살해세포보다 건강한 공여자의 자연살해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MG4101'은 더 강력한 항암면역반응을 보였으며, 투여 후 환자의 면역체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면역세포로 인해 환자 몸 안에서 항암작용에 유리하게 면역시스템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황유경 녹십자랩셀 연구소장은 "MG4101은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증식 배양한 후 동결 보존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가 완료된 세포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논문발표를 통해 건강한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NK세포를 선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항암효과가 우수한 NK세포를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투여 가능하게 된 점이 매우 의미있다"고 전했다. <br/> <br/>한편 'MG4101'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상 임상시험에 진입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8.txt

제목: 유도초음파·수면내시경 등 200여 항목 건보 적용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223656902  
본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선제 발굴’과 ‘국민 건강권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br/> <br/>◆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br/> <br/>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인천 여아 학대,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경우 당국이나 학교, 이웃 등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br/> <br/>이날 보고된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도 이 같은 인식에서 나왔다.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이웃과 학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br/> <br/>특히 장기결석 아동들의 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된 만큼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br/> <br/>복지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 의심정황이 보였을 때 주변에서 조기에 신고를 한다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4대 중증질환 부담 완화 <br/> <br/>복지부는 아동과 함께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적극적 사례 발굴을 위해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인력과 복지공무원을 추가로 배치,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한 ‘복지 허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br/> <br/>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해 환자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br/> <br/>올해부터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새롭게 건보가 적용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결핵 치료는 전면 무료화된다. 원격의료 확대로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수치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모바일 케어’ 시범사업도 10개 보건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br/> <br/>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지난해 230개에서 올해 380개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곳, 직장 어린이집 80곳을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br/> <br/>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워낙 예민한 문제라 시기를 언급하기 곤란하다</span>”고 밝혀 오는 4월 총선까지는 개편안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br/> <br/>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개편돼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중산층 이상은 일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출산·육아휴직 정착 추진 <br/> <br/>여가부는 출산·육아휴가를 확실히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정착을 올해 목표로 꼽았다. 우선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한다. 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정책을 미리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도입한다. <br/> <br/>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 사용을 확산하고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br/> <br/>아울러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기업당 최대 5명이며 우선 전국에서 1800명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공동직장 어린이집도 지난해 1000명 수준에서 올해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br/> <br/>공공기관과 기업이 먼저 ‘워킹맘’을 대상으로 육아기간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2018년까지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br/> <br/>김유나·조병욱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29.txt

제목: 암환자, 영양불량이 사망률 높인다면 해결책은?  
날짜: 2016012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34420776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 <br/>담당 의사의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말에 보호자는 항암치료 중에 먹으면 좋다는 음식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평소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보기도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한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한다. 메슥거리고 토하는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환자들은 오히려 음식을 먹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느낀다. <br/> <br/>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바로 오심, 구토 증상이다. 이 증상은 환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동시에 암환자의 음식 섭취를 방해해 영양상태의 악화를 초래한다. <br/> <br/>이에 대해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는 “암조직은 정상 세포에 공급되어야 하는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높은 신진대사가 요구되는 암환자의 영양불량은 항암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려 결국 사망률을 높인다 “라고 설명했다. <br/> <br/>또 유화승 교수는 “실제로 암환자의 사망원인 중 20% 이상이 영양불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오심, 구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br/> <br/>하지만 오심,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구토제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심장질환과 심혈관계 부작용, 두통 등이다. 또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용량이 작아 비경제적이다. <br/> <br/>이에 부작용 없는 항구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많은 대학병원 암센터 및 암전문 요양병원들에서는 암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일명 ‘구토밴드’로 회자되고 있는 비약물 치료 의료기기 ‘케어밴드’를 도입했다. <br/> <br/>케어밴드는 손목에 시계처럼 착용하는 제품으로 미세한 저주파 펄스가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을 따라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위장에서 발생하는 오심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뇌와 위의 오심과 관계가 있는 비정상적인 위장운동을 규칙적인 운동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br/> <br/>실제로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용해 본 한 환자는 “기존의 항구토제로 큰 효과를 못 보았기 때문에 케어밴드의 효과 역시 반신반의했지만 착용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가 느껴졌다”라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밝혔다. <br/> <br/>케어밴드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한의과 등에서 항암치료 후 오심·구토의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도 적고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작동이 가능해 기기 조작 등에 어려움이 많은 장년층의 환자들이 쓰기에도 편리하다. <br/> <br/>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신치료기술에 대한 효능 및 효과가 입증된 케어밴드는 국내외 특허등록은 물론이고 의료품질우수경영인증서(GMP), 식약처 허가증(KFDA), 기술평가벤처기업인증서 등을 받으며 안전성까지 인정받았다. 또 최근에는 미국, 독일, 중국, 이랑, 스리랑카 등 10여개 국가와 수출협약체결 및 상담을 통해 국내 전자침술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0.txt

제목: 희귀 혈액암 외투세포림프종 신약 ‘이브루티닙’ 효과 입증  
날짜: 2016012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3441328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림프종팀 (조석구 교수팀) <br/> <br/>전 세계 혈액암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림프종(임파선암) 중 희귀질환인 외투세포림프종 치료 신약에 대한 국제 3상 임상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를 위한 신약 이브루티닙’ 국제공동연구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의학저널 중 하나인 ‘란셋(The Lancet, IF 45.217)’ 2015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외투세포림프종은 표적항체치료제와 항암제를 병용투여 하여도 장기간 무병생존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발 후에는 항암제의 내성이 빈번하여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종양이다. <br/> <br/>이번 임상시험을 통하여 치료 효과가 검증된 이브루티닙은 기존의 정맥주사로 투여되는 항암치료제와 달리 1일 1회 경구로 복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또한 림프종 세포 내 핵심적인 병적 신호전달을 차단하여 기존 항암제 대비 부작용과 독성이 경미한 혁신적인 표적항암치료제이다. <br/> <br/>조석구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로 이브루티닙 약물이 외투세포림프종 표준 치료법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 연구간호사, 의료진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임상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림프종 환우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조석구 교수팀은 2014년에도 세계 최고 권위의 암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게재된 난치성 혈액암인 캐슬만병 환자를 위한 다국적 글로벌 3상 임상 연구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1.txt

제목: “종교는 인간을 위해 있는 건데 중매 때 종교 다르면 성사 안돼…”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858019  
본문: 종교인도 아니면서 종교인도 못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박재갑(68·사진) 국립암센터 석좌교수다. 서울대병원 외과의사 출신인 그는 2009년 한국종교발전포럼을 창립해 6년 넘게 종교간 대화와 공존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내로라하는 종교연합 기구들도 7대 종단 모임이 고작인데, 종교발전포럼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종교가 없고, 참석하는 자세도 적극적이다. 진정한 종교연합체다. 종교발전포럼은 어느 종교도 못하고 있는 한국종교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br/> <br/>금연 전도사로도 통하는 박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한 식당에서 매월 한 차례 조찬을 겸해 열리는 종교발전포럼의 신년강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금연과 종교화합 운동을 소재로 체험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br/> <br/>“암은 이제 십중팔구는 극복될 만큼 연구가 진행됐지요. 담배를 끊고 백신 접종과 조기검진만 잘 받으면 70%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br/> <br/>암은 유전자 부호가 바뀌어 발생하는 일종의 유전자병이다. 그런데 유전자 부호를 바꾸는 것이 발암물질이다. 스트레스도 암과 연관이 없는데 담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결정적 요인이 된다. <br/> <br/>박 교수는 의사로 활동하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껴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싶은 마음에 종교발전포럼을 만들었다. 회원이 170여명이며, 한 달에 한 명씩 강사를 초빙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강좌를 연다. 오랜 세월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일까. 그 역시 구도자가 된 듯 품성이 넉넉하다. <br/> <br/>“<span class='quot0'>여러 종교의 교리를 들어보면 제각각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느껴지지만, 종교의 심층으로 들어가면 모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span>” <br/> <br/>그는 종교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도 종교의 폐해도 망설임 없이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 혼기가 늦어지는 상당한 원인이 종교에 있다는 지적이다. 평소 중매를 많이 하는데, 소개해 주려고 하면 반 이상이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 종교에서 제사를 안 모시는 것에 거부감이 컸고, 부모의 경우 다른 종교로 자신의 재산이 나간다고 인식하고 있다. <br/> <br/>“이 점은 각 종교가 숙고했으면 합니다.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br/> <br/>종교발전포럼은 오는 21일 김종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마취와 의식’을 주제로 첫 강좌를 연다. 깨달음의 사회화, 중용, 빅뱅우주론, 뇌과학을 통해 본 인간 등의 문제가 올해 다뤄질 주제다. 그중에 6월 16일 예정인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목사)의 ‘개신교와 제사문제’, 11월 17일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의 ‘종교의 표층과 심층’ 강연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채 교수는 개신교의 제사 허용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다. 문의 (02)3668-7905. <br/> <br/>정성수 문화전문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2.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48년간 하루에 담배 세갑…특별히 아픈데 없었는데  
날짜: 2016012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502170  
본문: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모(62)씨는 지난 3개월 사이 별다른 이유없이 몸무게가 6~7㎏ 빠지자 집 근처 병원을 찾아갔다. 내시경·CT 검사 후 의사는 "암이 의심된다"면서 대형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다. 이에 김씨는 큰 병원으로 향했고, 조직검사 결과 의사는 "폐암 말기로 암이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지난 48년간 담배를 하루에 세갑씩 피워 왔지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며 허탈해했다. <br/>폐암 환자 절반 가량은 다른 장기에까지 암이 전이된 4기에 발병 사실이 발견되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br/> <br/>◆폐암 환자 2명중 1명,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4기에 발병사실 알게 돼 <br/> <br/>이 조사결과를 보면 폐암은 2012년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료편차를 감소시키고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적기에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는지 ▲항암치료시 부작용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 등 폐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부터 폐암 평가를 실시했다. <br/> <br/>폐암은 병리조직검사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비소세포폐암'이 '소세포 폐암'보다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어떤 암 병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폐암의 8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은 1~4기로 구분되며, '다른 장기에 암 전이(4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였다. <br/> <br/> 폐암 성별·연령별 국내 현황.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br/>폐암의 16.7%를 차지하는 '소세포 폐암'은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확장병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로 확인됐다. <br/> <br/>즉, 폐암은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재발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br/> <br/>◆폐암, 재발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항암치료 받는 경우가 많아 <br/> <br/>외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도 4기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2~4기의 발생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암의 정도가 가장 낮은 1기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높았지만 영국의 경우 '모름(13.8%)'이 많아, 암병기 진단율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br/> <br/>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은 69.7%, 여성은 30.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위암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br/> <br/>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남녀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연령대별로는 전체 폐암의 87.8%가 50~70대로 대부분 중년이상에서 많이 발생(항암치료 실시환자)했으며 특히 남성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외국과의 연령별 폐암현황을 보면, 전체 폐암 환자수와 항암치료 대상군 등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 ▲미국(67.6%) ▲영국(76.0%) ▲한국(58.1%) 3개국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br/> <br/>◆韓 45세 미만 환자 비율, 美·英보다 높아 <br/> <br/>반면 국내는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폐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항암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7개 기관의 1만17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이 95.11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br/> <br/>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 '치료 대응력'은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평균이 88.5%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1차 평가였던 위암(81.7%)보다는 2차 평가인 폐암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br/> <br/>7개 진료과는 혈액종양내과·호흡기내과·흉부외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영상의학과·핵의학과였다. <br/> <br/>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영역(5개 지표) ▲수술영역(2개 지표) ▲항암화학요법 투여 및 부작용 평가영역(8개 지표)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5.7~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br/> <br/>◆흡연, 폐암의 주 위험요인…'흡연력 기록비율' 99.6%에 달해 <br/> <br/>특히 흡연은 폐암 발생의 주 위험요인으로 치료 전 환자의 흡연력을 확인하는 '흡연력 기록비율'은 99.6%이며, 치료 전 폐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은 96.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진단적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이 같은 평가결과는 각 평가지표 점수를 종합해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으며, 평가대상 117기관 1만174건 중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93기관(전체의 79.5%) 1만112건(전체의 99.4%)에 대해 산출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3.txt

제목: 우리 아이 키 성장엔 비타민D가 필수, ‘합성’ 아닌 ‘천연’으로 복용해야  
날짜: 20160119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754211  
본문:   <br/> <br/> <br/>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방학을 맞으면서 ‘키 크기 교실’, ‘성장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학기 중 학업에 매진하느라 여유가 없던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키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기 때문이다. <br/> <br/>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식습관과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 개선에서부터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약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키 크기에 매진하고 있다. <br/> <br/>여기에 최근 “비타민D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골격형성에 필요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알려지면서 비타민D 영양제를 구입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br/> <br/>이미 비타민D는 국내 업체 칼슘 제품뿐만 아니라 암웨이, GNC, 센트룸, 나우푸드, 커큘랜드(KIRKLAND) 등 해외유명업체의 추천 상품을 아이허브, 아마존, 비타트라, 몰테일 등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하지만 단순 광고 글이나 판매순위, 추천순위만으로 비타민D를 구매하기보다 그것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D 제품의 대다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합성 비타민D’라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br/> <br/>합성비타민의 석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콜타르,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 박테리아 등을 주원료로 천연비타민과 분자구조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비타민은 호르몬, 산소함량, 파이토케미컬, 효소 등 여러 가지 천연보조인자가 섞여 있는 천연비타민과 절대 똑같을 수 없다. <br/> <br/>독일의 저널리스트 한스 울리히 그림은 자신의 저서<비타민 쇼크>에서 “(비타민 함량이 높은 합성 비타민제를 통한) 과도한 비타민 D 섭취는 태아의 기형이나 정신지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br/> <br/>비타민D 전문가인 웨스톤프라이스 박사(Dr. Weston Price) 또한 “합성비타민D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신장결석이 많이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br/> <br/>따라서 안전하게 비타민D의 효능을 누리려면 100% 천연 원료 비타민을 선택해야 한다. 합성비타민의 경우 ‘비타민D’처럼 영양성분만 단독으로 표기되지만, 천연비타민의 경우엔 ‘건조효모(비타민 D 0.02%)’처럼 천연원료명과 영양성분이 함께 표기된다. <br/> <br/>이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화학부형제의 사용 여부다. 대표적인 화학부형제인 이산화규소(실리카),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 등은 규폐증,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천연원료만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많지만, 화학부형제까지 일절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원료 비타민D 제품은 뉴트리코어 비타민을 비롯한 일부 업체에 불과하다. <br/> <br/>성장기 아이들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D를 올바르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높은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기보다 ‘無 부형제 공법’을 사용한 ‘100% 천연원료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4.txt

제목: 당신의 손이 말하는 12가지 건강 신호  
날짜: 20160119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20110737905  
본문: “손 줘 볼래요? 손 봐 드릴게요”  <br/>남녀간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손과 손톱은 아주 많은 건강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의 모양과 색깔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br/> <br/> 호흡기내과 상담의사인 리차드 러셀은 “<span class='quot0'>환자를 처음 만날 때마다 꼭 악수를 하면서 환자의 손을 살핀다</span>”며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의 손과 손톱을 보고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r/>다음은 손과 손톱으로 알아낼 수 있는 12가지 건강정보이다. <br/>  <br/>1. ‘푸른 손가락 끝’ <br/>체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레이노드 증후군에 걸린 경우에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한다. 신체의 끝부분 속에 있는 혈관이 외부온도에 민감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손·발가락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흰색으로 변하면 무감각해지다가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한다. 러셀은 “<span class='quot0'>폐질환이 발생하는 전조증상으로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2. ‘울퉁불퉁한 손톱’ <br/>손톱에 여러개의 줄무늬가 생기거나 울퉁불퉁해졌다면 이는 암이나 큰 질병을 최근에 앓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빠지면 손톱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나타난다. <br/> <br/>3. ‘하얀 손톱밑바닥’ <br/>건강한 사람은 대개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 손톱 밑바닥이 하얗게 변했다가 금방 붉은색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만약 손을 폈는데도 손톱 밑바닥 색깔이 붉은색으로 늦게 돌아오거나 항상 하얗다면 체내에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 <br/> <br/>4. ‘손떨림(수전증)’ <br/>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심하게 긴장한 경우, 천식약이나 항우울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손떨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가족 간에 유전되는 신경질환으로 알려진 ‘수전증’일 수도 있다.  손떨림은 파킨슨병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br/> <br/>5. ‘검은 얼룩’ <br/>손톱 밑바닥에 거무죽죽한 얼룩이 생겼다면 의사를 바로 찾아가야 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세포암인 흑생종일 가능성이 있다. <br/> <br/>6. ‘발지(撥指)’ <br/>러셀은 “손발가락끝이 곤봉 모양으로 둥글게 부풀어서 손톱이 둥그스레해 그 위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면 이는 체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낭포성 섬유증 등 만성 폐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로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br/> <br/>7. ‘홍반, 얼룩덜룩한 손바닥’ <br/>손바닥이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얼룩덜룩하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경병이나 비(非)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br/> <br/>8. ‘소시지 처럼 부은 손가락’ <br/>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은 증상으로 식사에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 손가락이 부을수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가벼운 탈수증상도 손가락이 붓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붓거나 딱딱하게 굳는 증상은 류머티스 등 다른 심각한 건강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br/> <br/>9. ‘다한증’ <br/>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은 과다하게 활성화된 갑상선때문일 수 있는데, 활성화된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보다 많은 체열을 발생시킨다. 다한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다. <br/> <br/>10. ‘굽은 손가락’ <br/>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안으로 굽는 ‘듀피트렌 구축증’일 수 있다. 대개 약지와 소지가 함꼐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당뇨병, 손에 외상을 입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곧게 펴는 수술이 필요하다. <br/> <br/>11. ‘변색손톱’ <br/>손톱이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한 뒤 증상이 계속되면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당뇨병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하고,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br/> <br/>12. ‘손가락 관절비만’ <br/>주먹을 쥘 때 손가락 관절이 딱딱하고 노랗게 돌출되는 현상은 ‘황색종’의 증상일 수 있는데 체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천착하면서 생겨는 현상이다. 황색종은 생명에 위협적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신호일 수 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선천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태어나는데 적절한 약물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5.txt

제목: 암투병 환자에게 예술 전한 아티스트  
날짜: 201601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8183638429  
본문: 항암치료 등으로 탈모를 겪는 환자들을 위해 ‘헤나’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아티스트가 언론에 소개됐다. <br/> <br/>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링컨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홀리 우바우어(39)의 헤나에 담긴 사연과 그녀의 활동을 대중에 공개했다. <br/> <br/>그녀가 선행을 시작한 것은 2003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항암치료를 받던 그녀의 어머니는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게 됐고 이를 감추고자 머리에 헤나로 장식 등을 그려 넣게 된 것이다. <br/> <br/>헤나의 특성상 약 2주 후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리기를 반복하던 홀리는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히게 됐고 이런 소문을 들은 암 투병 여성이 그녀를 찾아 헤나 작품을 부탁한 후 그녀는 자원봉사로 환자들에게 헤나작품 선물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그전까지 파티나 행사장에서 일했다. <br/>그렇게 기술이 점차 늘어간 홀리의 헤나는 단조로움을 탈피해 과감하고 화려한 모습을 연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헤나는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탈모란 사실을 까만 헤나처럼 지워버렸다. <br/> <br/>그녀는 “어머니를 시작으로 이젠 다른 환자들에 조금이나마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홀리는 모금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을 위한 가발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마련에 동참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br/> 최근에 헤나를 선물 받은 16세 에바양. 에바는 홀리의 작품이 맘에 든다며 기뻐했다.\* 헤나는 열대성 관목인 ‘로소니아 이너미스(Lawsonia inermis L.)’의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든 염색제다. 헤나로 그린 그림은 약 2주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저널스타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6.txt

제목: 콩 식품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 30% 이상 감소  
날짜: 2016011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8142000737  
본문:   <br/> <br/> <br/>콩 섭취가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콩이 주재료인 된장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br/> <br/>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암역학예방연구부 김정선 박사팀이 2010년 8월부터 3년간 암센터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은 901명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 2669명을 대상으로 콩 식품 섭취량에 따른 대장암 발생 위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br/> <br/>이 연구결과(아이소플라본과 콩 식품 섭취와 대장암 위험: 실험군-대조군 비교 연구)는 해외학술지인 'PLos one'(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br/> <br/>김정선 박사는 "두부와 두유 등 콩 식품, 콩나물 등 콩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하루 105g 이상) 남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가장 적게 먹는(40g 미만) 남성보다 33% 낮았다"며 "여성의 대장암 발생 위험도 콩 식품 최다 섭취 그룹(하루 113g 이상)이 최소 섭취 그룹(42g 미만)에 비해 38% 낮았다"고 설명했다. <br/> <br/>콩 식품이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아이소플라본 등 항산화·항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식물성 여성호르몬(파이토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아이소플라본은 폐경 여성의 안면 홍조 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br/> <br/>실제로 아이소플라본을 1일 최다 섭취한 그룹(남 20㎎, 여 22㎎ 이상)은 최소 섭취 그룹(남 하루 7㎎, 여8㎎ 미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각각 29%(남), 22%(여) 낮았다. <br/> <br/>콩 식품의 대장암 예방 효과는 젊은 여성보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두드러졌다. 콩 식품을 하루 114g 이상 섭취한 폐경 여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하루 43g 미만 먹은 여성보다 48%나 낮았다. 반면 폐경 전의 젊은 여성은 콩 식품을 다량 섭취해도 대장암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 <br/> <br/>김 박사는 "콩 식품의 대장암 예방 효과가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감하는 폐경 여성에게 더 뚜렷한 것은 콩 식품에 아이소플라본 등 식물성 여성호르몬이 함유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br/> <br/>이번 연구에서 된장은 다른 콩 식품과는 달리 섭취가 과다하면 오히려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된장을 하루 8g 이상 섭취한 남성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2g 미만 섭취한 남성에 비해 82% 높았다. 여성도 된장을 많이 먹은 그룹이 대장암에 더 잘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22% 증가). <br/> <br/>김 박사는 "된장의 발효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일부 생길 수 있다"며 "된장에 과하게 든 소금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소금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br/> <br/>된장을 적당량 섭취하고, 된장을 약간 삼삼하게 만드는 것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 <br/>하지만 된장의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김 박사팀의 역학연구 결과에 대해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br/> <br/>부산대 식품영양학과 박건영 교수는 "콩이 된장으로 발효되는 과정에서 암 예방성분인 아이소플라본이 더 많이 생긴다"며 "된장이 대장암은 물론 전립선암·유방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왔다"고 반박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7.txt

제목: 하모니 캠페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 위한 가이드북 발간  
날짜: 201601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8130924146  
본문:   <br/>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투병 의지를 북돋우고 올바른 치료 및 관리 정보를 전하기 위해 '하모니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국에자이와 함께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전이성 유방암이란 기존의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옮겨간 것 이다. 암세포의 성장속도가 비교적 느린 유방암은 10년 후에도 재발 또는 전이될 수 있다. 특히 발병연령이 젊을수록 재발 및 전이 위험이 커지는데, 서구에 비해 40대 이하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30~40%가 전이나 재발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증상 자체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암이 전이되었다는 두려움과 걱정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처한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분과는 '전이성 유방암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 의료진 등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치 아래 하모니 캠페인을 시행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전이성 유방암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용 맞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전하는 데 의의가 있는 이번 가이드북은 치료 단계별 마음가짐을 포함해 치료 및 생활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br/> <br/>특히 ▲치료 시작 전 마음 챙기기 ▲치료 방법(항암제, 방사선 치료등) ▲치료반응 평가 ▲보완대체 요법 및 음식과 영양 등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더불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나요?' 등 일상생활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분과위원장 임석아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증상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의 노력은 물론,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옵션이 다양해져 의료진과 상의하여 최선의 치료법을 찾고, 꾸준히 관리하면 전이성 유방암도 얼마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며 "가이드북을 통해 그간 정보 부족으로 더욱 불안했을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8.txt

제목: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인천 최초 직장암, 폐암 동시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601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8094829545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정진용 센터장(흉부외과)과 이윤석 교수(소화기외과)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인천지역 최초로 직장암과 폐암 로봇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br/> <br/>지난 12월 31일에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정진용 센터장(흉부외과)과 이윤석 교수(소화기외과)가 46세 남성 환자에게서 발견된 직장암과 폐암을 로봇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br/> <br/>수술 받은 환자는 혈변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을 해본 결과 직장암이 발견됐다. 추가로 진행된 검사에서 폐전이암이 확인되어 인천성모병원에서 로봇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진용•이윤석 교수팀은 총 7시간에 걸쳐 수술이 진행됐다. 먼저 이윤석 교수가 직장암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에게 발생한 직장암이 항문에서 가까워 까다로웠지만, 인공항문을 만들지 않고 기존 항문을 100% 보존하면서 수술 마쳤다.이어서 정진용 교수가 폐로 전이된 암을 로봇을 이용한 폐엽절제술로 환부를 말끔하게 제거했다. 회복을 마친 환자는 수술 후 6일만에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센터장 정진용 교수는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로 입원기간이나 회복기간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은 장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직장암과 폐암 동시 수술로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장암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크게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나뉜다. 항문부터 시작해 약 15㎝ 안쪽 구간에 생기면 직장암, 나머지는 결장암으로 구분한다. 대장암 중 골반 깊숙이 항문가까이 자리 잡은 직장암은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들어가기 힘들고,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대장암 환자는 로봇수술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 <br/> <br/>한편 이윤석 교수는 대한대장항문학회와 태국에서 직장암 환자의 수술 과정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성공해 동료 의료진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39.txt

제목: 부탁해요 엄마 이상우 호흡 유진, 파격적인 란제리룩 입고 '육감적 바디라인' 과시  
날짜: 2016011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7170450995  
본문: 부탁해요 엄마 이상우 호흡 유진의 파격적인 란제리 룩 화보   사진=하이컷부탁해요 엄마 이상우가 화제인 가운데 극중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유진의 화보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배우 유진은 지난 2010년 공개된 패션 잡지 하이컷 화보를 진행했다.  <br/> <br/>공개된 화보 속에 유진은 파격적인 란제리 룩을 입고 치명적인 매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br/> <br/>특히 유진의 육감적인 바디라인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br/> <br/>한편 16일 방송된 '부탁해요 엄마' 45회에서 강훈재(이상우)와 장채리(조보아)는 임산옥(고두심)의 암 투병 사실을 알게됐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0.txt

제목: '부탁해요 엄마' 이상우, 고두심 향한 ‘눈물+오열’ 시한부 선고 “우리만 알자” 호소  
날짜: 20160117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7144527774  
본문: '부탁해요 엄마' 이상우, 고두심 향한 ‘눈물+오열’ 시한부 선고 “우리만 알자” 호소 사진=KBS2 부탁해요엄마 캡처'부탁해요 엄마' 이상우, 고두심 향한 ‘눈물+오열’ 시한부 선고 “우리만 알자” 호소 <br/> <br/>'부탁해요 엄마' 이상우가 고두심을 향한 눈물을 흘렸다. <br/> <br/>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에서 강훈재(이상우 분)와 장채리(조보아 분)는 임산옥 역(고두심 분)의 암 투병 사실을 알게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br/> <br/>이날 방송에서 임산옥의 병을 알게된 훈재는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 우리만 알자"며 눈물 흘리는 임산옥을 향해 "어머님 어떻게 하냐"며 오열했다. <br/> <br/>이에 장채리 또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숨죽여 눈물을 흘려 앞으로의 전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한편 '부탁해요, 엄마'는 모녀간 애증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주말 저녁에 만나 볼 수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1.txt

제목: 노숙자에게 건넨 한잔의 커피, 목숨을 구하다  
날짜: 20160116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6104132212  
본문:   <br/> <br/> <br/>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 <br/> <br/>영국 일간 메트로는 14일(현지 시간) 캐시 피셔가 작은 친절로 한 노숙인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알렸다. 그녀는 최근 학교 쉬는 시간 도중에 거리를 배회하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가에서 동전을 줍는 크리스를 발견했다. 크리스가 인근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캐시도 그를 따라 카페로 들어갔다. <br/> <br/>그는 무언가를 사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1달러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본 캐시는 크리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커피와 베이글을 샀다. 그녀는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한 뒤 끊임 없이 말을 건넸다. 크리스는 그녀를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거듭 권유를 하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br/> <br/>자신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차별을 당했는지, 마약중독이 사람들의, 자신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며,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br/> <br/>캐시는 크리스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말하자 크리스는 무언가를 써줄 것이 있으니, 시간을 잠깐 달라고 요청했다. 이윽고 그는 구겨진 영수증을 건네며 “글씨체가 더러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떠났다. 캐시가 영수증을 펼치자 “나는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뒤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br/> <br/>이재호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2.txt

제목: 신영복 교수 별세, 희귀 피부암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별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날짜: 20160116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6094128056  
본문: 신영복 교수 별세, 희귀 피부암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별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KBS1 캡처신영복 교수 별세, 희귀 피부암 투병 끝에 향년 75세로 별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br/> 신영복 교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br/> 지난 15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신영복 교수는 지난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중이었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향년 75세로 삶을 마감했다. <br/> 앞서 신영복 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20년 20일을 복역하다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br/> 특히 이후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출간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알려졌다. <br/> 한편 신영복 교수의 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3.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별세  
날짜: 2016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6011052228  
본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날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신 교수는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던중이었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이날 오후 10시10분쯤 숨을 거뒀다. <br/> <br/>경제학자인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그는 20년20일을 복역하다가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br/> <br/>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강의한 그는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느낀 한과 고뇌를 230여장의 편지와 글로 풀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1998년 출간했다. 이 책은 큰 인기를 얻으며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으며 이후 출간한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1·2’,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처음처럼’, ‘변방을 찾아서’ 등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 교수는 학자이자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신영복체’로 불리는 글씨체로도 유명하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 그의 글씨체를 사용해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자 한동안 기업 광고나 건물 현판에 그의 글씨체를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br/> <br/>신 교수는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했으나 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 해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내려왔다. 지난해 4월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단 ‘담론’이 출간되면서 신 교수의 암투병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br/> <br/>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br/> <br/>조병욱·권구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4.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스네이프의 삶' 재조명…"알버스 세베루스 포터"는 누구?  
날짜: 2016011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6001051176  
본문: `알란 릭맨` 사망 (사진= YTN)'알란 릭맨' 사망,  스네이프의 삶' 재조명…"알버스 세베루스 포터"는 누구? <br/> <br/>'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잘 알려진 '알란 릭맨'이 암투병 끝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br/> <br/>스네이프의 흔적이 남겨진 해리포터 아들의 이름이 눈길을 모은다. <br/> <br/>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인 해리(다니엘 레드글리프 분)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파트2'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알버스 세베루스 포터'로 지었다. 이는 주인공 해리포터가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br/> <br/>사실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극 중 죽기 전까지 해리의 곁을 지킨 헌신적인 인물이다.  <br/> <br/>스네이프는 볼드모트에 의해 죽임을 당한 릴리포터(해리 母)를 여전히 사랑하냐는 덤블도어의 질문에 "항상 그랬다(Always)"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br/> <br/>릴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스네이프는 그녀의 눈을 빼닮은 해리를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br/> <br/>그는 '불사조 기사단' 소속이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소속이기도 했다. 스네이프 교수는 선과 악을 오가며 극에 긴장감을 더했다.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의 신뢰를 얻어 볼드모트를 이용함으로써 '불사조 기사단'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결국 그는 죽은 덤블도어의 뜻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해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해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눈물을 전달한 뒤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덤블도어의 사람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오열했다. <br/> <br/>한편 알란 릭맨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 투병 중에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그가 무슨 암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투병 생활을 해왔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br/> <br/>알란 릭맨의 사망 소식에 영화 '해리 포터' 제작진들이 애도를 표했다. <br/> <br/>BBC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알란 릭맨이 암 투병 끝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br/> <br/>이에 영화 '해리 포터'에서 해리 포터 역을 맡았던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그의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알란 릭맨은 내가 함께 일했던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5.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별세  
날짜: 20160115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233017834  
본문: 감옥에서 20년을 보내면서 가진 생각과 소회를 담은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10시 10분께 별세했다. 향년 75세. <br/> <br/>출판업계에 따르면 신 교수는 2014년 희귀 피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끝내 숨졌다. <br/> <br/>경제학자인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일하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년 20일을 복역하다가 1988년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br/> <br/>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입문, 중국고전강독을 강의한 그는 1998년 사면복권됐다. <br/> <br/>그가 사면복권된 날 나온 책이 바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뒤 특별석방되기까지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느낀 한과 고뇌를 230여장의 편지와 글로 풀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이 책은 큰 인기를 얻으며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출간한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1·2',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 '처음처럼', '변방을 찾아서' 등도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랐다. <br/> <br/>신 교수는 학자이자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신영복체'로 불리는 글씨체로도 유명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이 그의 글씨체를 사용해 높은 판매기록을 올리자 한동안 기업 광고나 건물 현판을 그의 글씨체로 제작하는 것이 유행했다. 신 교수는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석좌교수로 강의를 계속했으나 2014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 해 겨울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에서 내려왔다. <br/> <br/>지난해 4월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를 단 '담론'이 출간됐으며 이 책이 나오면서 신 교수의 투병 소식이 공개됐다. 25년 동안 성공회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그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동양고전의 명저인 '시경', '주역', '논어', '맹자', '한비자'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읽어내는 제1부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과 20년의 수형생활에서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엮은 제2부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로 구성돼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옥은 대학'이라며 교도소에서 보낸 20년 세월은 실수와 방황과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기도 했다는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br/> <br/>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6.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위대한 배우” 심경 전해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214004284  
본문: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심경 전해 사진=해리포터 포스터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 생 마감…해리포터 제작진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심경 전해 <br/> <br/>영화 ‘해리 포터’ 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던 배우 알란 릭맨이 암 투병 끝에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다. <br/> <br/>이에 영화 '해리 포터'의 제작진들이 비통한 심정과 함께 해리 포터 역인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그의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알란 릭맨은 내가 함께 일했던 가장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 중에 한 명"이라며 뜻을 전했다. <br/> <br/>또한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사람들은 배우들이 연기했던 역할을 근거로 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란이 엄격하고 무뚝뚝한 사람일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는 한없이 친절하고 겸손하며. 또한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란 릭맨의 생전 성격에 대해 밝혔다. <br/> <br/>또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트위터에 "알란 릭맨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그가 정말 그리울 것이다." 라는 애도했다. <br/> <br/>한편, '해리 포터'의 원작자인 J.K. 롤링도 트위터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J.K 롤링은 "그 어떤 말로도 충격과 절망감을 표현할 수 없다"며 "알란 릭맨은 <span class='quot0'><span class='quot0'><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위대한 배우</span></span></span></span>이자 훌륭한 사람이었다"며 애도를 덧붙였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7.txt

제목: [차 한잔 나누며] "웰다잉법, 죽음 완성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것"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204921866  
본문: “<span class='quot0'>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200점 만점에 170점입니다.</span>” <br/> <br/>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51) 교수의 평가다. 이 법안을 이끌어 낸 윤 교수는 “<span class='quot1'>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법이 함께 통과됐으니 만점은 200점이고, 그중 모자란 30점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점수</span>”라고 말했다. <br/> <br/>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막후에서 이끌어낸 서울대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2'>통과된 법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정부가 2018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이제원 기자법안 내용의 핵심은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잘 죽는 것, 일명 ‘웰다잉법’으로 불린다. <br/> <br/>“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웰다잉은 아니잖아요. 죽음이 완성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동반돼야죠.” <br/> <br/>네덜란드를 포함한 외국의 몇몇 국가는 의사가 약을 처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안락사까지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과 동시에 수액과 영양공급도 중단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웰다잉법’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는 중단하고 영양·수액공급은 계속 하도록 돼 있다. <br/> <br/>“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니, 그대로만 된다면 이렇게 발전된 법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br/> <br/>윤 교수의 말은 감격과 자부심으로 대단했다. 호스피스에 뜻을 품은 지 27년 만에 이뤄낸 일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의대 본과 4학년 때, 그는 자원봉사로 말기 위암 환자를 돌봤다. “환자는 피골이 상접해가면서도 통증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떠나는 순간까지 힘겹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어요. 내 가족의 죽음처럼 마음이 아팠죠. 환자들의 품위 있는 죽음을 돕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br/> <br/>그는 죽음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고, 서울대 철학과 황경식 교수와 함께 토론을 벌이며 의료윤리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나갔다. 가정의학과를 선택한 뒤 35세가 되던 2000년 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장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제도화에 뛰어들었다. 회복 불능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내용이 담긴 의사윤리지침, 대한의학회의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 지침 등을 만들었고, 복지부를 설득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시행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을 이끌어냈다. <br/> <br/>국회에서 발의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18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됐다. 19대 때는 달랐다. “반신반의했는데 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했어요. 이번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죠.” <br/> <br/>그는 막후에서 정부와 종교계, 의료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내 논의가 소극적이었을 때 그는 긴급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호스피스 의료 95.5%, 연명의료 중단 80.2% 찬성’ 결과를 내보이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최근에는 1만4000여명이 참여한 호스피스 국민본부를 발족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 몇번의 위기를 넘기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br/> <br/>“다시 절망스런 상황에 부딪혔을 무렵인 지난해 12월4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꼭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간의 노력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였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비난 여론은 만만치 않다.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이다. <br/> <br/>이에 대해 윤 교수는 “<span class='quot2'>법안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오해</span>”라고 단언했다. 어떤 치료로도 회복될 수 없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명의료를 거부해 호흡기를 떼고도 200일을 더 살았던 김할머니의 사례가 법안의 반대 근거로 인용되는 데 대해서는 “김할머니는 의료행위를 중단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임종기 환자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가족들의 위증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가족 전원이 말을 맞추더라도 전문의 두 명이 임종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br/> <br/>그렇다면 의사의 ‘오판’ 가능성은 절대로 없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의사가 의학적·윤리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의료계와 사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고 각 병원이 그에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br/> <br/>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아직 2년이 남아있다. <br/> <br/>“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폭탄이 곳곳에 있어요. 복지부가 추진단을 만들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해야죠. 2년도 빠듯합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8.txt

제목: [렌즈로 보는 세상] 담배를 끊을래요? 건강을 끊을래요?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202930717  
본문: 사슴벌레가 신기하다고 큰 집게 사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잘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아프고 피까지 볼 수 있다. 서정적인 이름의 사슴벌레에게도 나무를 파고 그 안에 알을 낳기 위해서는 저리 날카롭고 큰 집게가 필요하다. 종족 번식을 위한 도구에 짓궂은 인간들이 하필 불붙인 담배를 물려놓았다.  <br/> <br/>사슴벌레가 담배를 동강 내는 서울 성북구 아파트단지 조형물인데 ‘××암 주세요’ 같은 살벌한 문구보다는 그나마 귀여운 편이다. 새해 들어 금연을 작심한 인간들이라면 애꿎은 벌레에게까지 고역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br/> <br/>글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 사진 이제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49.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암 투병 끝에 69세로 별세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64903866  
본문: 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암 투병 끝에 69세로 별세 <br/>사진=해리포터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암 투병 끝에 69세로 별세 <br/> <br/>알란 릭맨 사망 소식에 그를 향한 애도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br/> <br/>알란 릭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암 투병 끝에 향년 69세의 나이에 별세했다. <br/> <br/>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다. 이에 '해리포터' 시리즈에 함께 출연했던 다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과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 추모했다. <br/> <br/>조앤 K 롤링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알란 릭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떤 말로도 충격과 절망감을 표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br/> <br/>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SNS에 "알란 릭맨은 아역 시절부터 한 명의 배우로 성장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어른이다"라며 "어린 나이에 그와 함께 배우 생활을 하며 남은 삶과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위대한 배우이자 인간을 잃었기에 영화계와 연극 무대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br/> <br/>엠마 왓슨은 "특별한 사람이자 배우였던 알란과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그리워질 것이다. 편히 잠드시길.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전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0.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충격적인 슬픈 소식...사망 원인은?  
날짜: 20160115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61837605  
본문: 알란 릭맨 사망 (사진= YTN)알란 릭맨 사망, 충격적인 슬픈 소식...사망 원인은? <br/> <br/>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등장했던 영국의 영화배우 알란 릭맨이 향년 69세의 나이로 14일(현지시간) 사망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알란 릭맨의 사망 이유는 평소 앓고 있었던 암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알란 릭맨은 공식적으로 암 투병을 알린 적은 없으나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투병을 알고 있었고, 알란 릭맨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br/> <br/>알란 릭맨은 대중에게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를 연기한 배우로 잘 알려졌다. <br/> <br/>알란 릭맨은 2001년 처음 개봉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2011년 마지막 시리즈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까지 10년 이상을 스네이프로 활약해왔다. <br/> <br/>알란 릭맨은 1988년 영화 '다이 하드'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러브 액츄얼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총 48개의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다. <br/> <br/>알란 릭맨과 함께 해리포터에서 연기한 해리 포터 역의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그의 구글 플러스 계정을 통해 "알란 릭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함께 일한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다. 또한 그는 내가 영화계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의리 있고 지원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해리 포터 이후에도 나에게 무척 관심을 쏟아주었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알란 릭맨은 그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바쁘든지 간에 그를 찾으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알란 릭맨을 회상하며 추모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br/> <br/>알란 릭맨 사망 소식에 네티즌들은 "알란 릭맨 사망, 안타깝다", "알란 릭맨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1.txt

제목: '중국 여신' 리빙빙은 왜 손톱을 깨물었나?  
날짜: 201601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55823210  
본문: 중국 스타 여배우 리빙빙(李??)이 깨물었다. 천쿤(陳坤)도 깨물었다. 이들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손톱을 깨문 걸까? <br/> <br/>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배우들의 손톱 깨물기는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br/> <br/>세계 야생동물 보호단체 ‘와일드 에이드(WildAid)’와 ‘아프리카 야생동물보호 재단(African Wildlife Foundation·AWF)’ 등은 계속해서 코뿔소 보호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중화권 국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br/> <br/>이는 코뿔소가 중화권에서 명약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코뿔소의 뿔이 경련과 간질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뿔을 약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 코뿔소를 밀렵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와일드 에이드를 비롯한 야생동물보호 단체들은 코뿔소 뿔은 약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케라틴과 프로틴이 뿔을 구성하는데, 이는 인간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에서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간의 괜한 욕심 때문에 코뿔소만 죄없이 죽어 나간다는 것이다. <br/> <br/>캠페인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코뿔소 뿔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이에 와일드 에이드도 베트남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소비자들을 계도하고, 더 이상 코뿔소를 희생시키지 말라며 호소해왔다. <br/> <br/>AWF의 패트릭 버진 대표는 “<span class='quot0'>코뿔소 뿔은 두통이나 암을 치료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럼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코뿔소 사냥이 횡행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중국과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와일드 에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만 죽은 코뿔소가 1200마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br/> <br/>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상하이스트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2.txt

제목: 엄마와 내게 파고든 암세포…미워서 이겨내기로 했다  
날짜: 2016011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43748203  
본문: 호주의 한 모녀가 동시에 암 투병 중인 사연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br/> <br/>호주 퀸즐랜드주 마카이에 사는 베서니 칼튼(17)이 처음 지역 보건의를 찾은 것은 지난 2013년이다. 당시 베서니는 오른쪽 가슴 아래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초음파 촬영을 하자는 의사의 이야기를 무시했다. <br/> <br/>그때부터 일이 잘못됐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베서니는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깨닫고 초음파 촬영과 생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작년 2월 그의 가슴안에 있던 덩어리가 암세포라는 것을 알았다. <br/> <br/>다행히 때가 빨랐다. 그는 브리즈번의 한 병원에서 2주 후, 암 조직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가 열여덟 번째 생일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다. 다행히 의료진은 무사히 수술을 끝냈고, 안무가로 활동해온 베서니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br/> <br/> <br/> <br/>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몇 주 후, 병원에서 그가 횡문근육종(Rhabdomyosarcoma)에 걸렸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쉽게 말해 근육에 생기는 암이다. 골격근의 횡문근세포에 유래하는 악성종양이다. <br/> <br/>베서니는 즉시 화학치료에 들어갔다. 그는 “자칫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향후 체외수정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난자를 냉동보관하기로 했다. 베서니는 “임신에 미칠 영향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냐”고 당시를 떠올렸다. <br/> <br/> <br/> <br/>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베서니가 화학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의 엄마 마이브리트 라르센(47)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br/> <br/>“저기…있잖아.” <br/> <br/>잠시 망설이던 라르센은 입을 열었다. <br/> <br/>“나도 유방암이래.” <br/> <br/>베서니는 귀를 의심했다. 그는 “진심이에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들에게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모녀가 동시에 암환자라니.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소재였다. <br/> <br/>“엄마 미안해요.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 <br/> <br/>베서니는 소리쳤다. <br/> <br/>“암에 걸릴 사람은 나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br/> <br/>베서니는 한참을 울어버렸다. 자기도 모자라 엄마에게까지 파고든 암세포가 너무나 미워서. <br/> <br/> <br/> <br/>그때부터 모녀는 힘을 합쳐 암을 이겨내기로 했다. 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암세포를 이겨낼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닥친 시련을 바깥에 공개하는 데 필요한 용기도 선사했다. <br/> <br/>라르센은 “<span class='quot0'>X-레이 촬영 후, 가슴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같은 일이 우리 모녀에게 두 번이나 벌어졌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그래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리라 믿는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호주 브리즈번 타임스에 따르면 베서니의 화학치료는 오는 2월에 끝난다. 라르센의 치료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베서니는 일본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다. 이는 그가 처음 유방암 조짐을 보였던 2012년부터 품은 소망이었다. 과연 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은 곧 다가올까?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3.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엠마 왓슨 애도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41812139  
본문: 알란 릭맨 사망, 엠마 왓슨 애도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br/>사진=엠마 왓슨 트위터알란 릭맨 사망, 엠마 왓슨 애도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br/> <br/>알란 릭맨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엠마 왓슨의 애도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알란 릭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암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br/> <br/>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다. 이에 '해리포터' 시리즈에 함께 출연했던 엠마 왓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알란에 대해 매우 슬픈 소식을 들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br/> <br/>엠마 왓슨은 "특별한 사람이자 배우였던 알란과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그리워질 것이다. 편히 잠드시길.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전했다. <br/> <br/>한편 다니엘 래드클리프, 조앤 K 롤링 등도 애도의 글을 남겼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4.txt

제목: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사망 '전세계 애도물결'  
날짜: 20160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34833540  
본문: 알란 릭맨 영화 출연모습. 사진=영화 '해리포터' 영상화면 캡처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으로 출연했던 영국 배우 알란 릭맨이 14일(현지시간)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br/> <br/>BBC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알란 릭맨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배우이자 감독인 알란 릭맨이 69세를 일기로 암으로 숨졌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br/> <br/>1946년 영국 런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알란 릭맨은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연기를 배운 바 있다.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연극에 입문한 뒤 1980년대 이후에는 TV 드라마로 활동영역을 넓혀 활약했다. <br/> <br/>알란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영화 ‘다이하드’에서는 한스 그루버 역을 맡기도 했다. 이 외에 ‘로빈후드: 도둑들의 왕자’, ‘센스 앤 센서빌리티’, ‘러브 액츄얼리’ 등 다수의 작품에서 명연기를 펼쳤다. <br/> <br/>특히 ‘라스푸틴: 다크 서번트 오브 데스티니’, ‘로빈 후드: 도둑들의 왕자’ 등으로 골든 글로브와 에미 상, 영국아카데미(BAFTA)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영국에서는 국민배우 알란 릭맨의 사망 소식에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 <br/> <br/>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은 트위터에 “충격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배우이자 멋진 남자였다”고 밝혔다. <br/> <br/>해리포터의 덤블도어 역을 맡았던 마이클 갬본은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그는 늘 행복해 보였고, 창의적이었고,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다. 또한 그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지녔고, 아주 멋지게 대사를 했다”고 전했다. <br/> <br/>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를 연기한 엠마 왓슨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충격적인 슬픈 소식”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br/> <br/>알란 릭맨과 여러 작품을 함께 한 여배우 엠마 톰슨은 “<span class='quot0'>내가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 기억할 수 있는 건 그의 유머와 지성, 지혜, 친절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는 무엇보다 정말 보기 드물고 독특한 사람이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알란 릭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새 작품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알란 릭맨이 출연한 공포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는 오는 4월 개봉될 예정이며, 그의 출연작 여러 편도 올해 개봉한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5.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다니엘 래드클리프 "성장에 가장 큰 도움 줬던 어른"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20803488  
본문: 알란 릭맨 사망, 다니엘 래드클리프 "성장에 가장 큰 도움 줬던 어른" <br/>사진=`해리포터`알란 릭맨 사망, 다니엘 래드클리프 "성장에 가장 큰 도움 줬던 어른" <br/> <br/>알란 릭맨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다니엘 래드클리프의 추모 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알란 릭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암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br/> <br/>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다. 이에 '해리포터' 시리즈에 함께 출연했던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자신의 SNS에 "알란 릭맨은 아역 시절부터 한 명의 배우로 성장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어른이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br/> <br/>그는 "어린 나이에 그와 함께 배우 생활을 하며 남은 삶과 배우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위대한 배우이자 인간을 잃었기에 영화계와 연극 무대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br/> <br/>한편 '해리포터' 시리즈 작가 조앤 K 롤링, 엠마 왓슨도 추모의 글을 올렸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6.txt

제목: 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14722754  
본문: 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 <br/>사진=`해리포터`알란 릭맨 사망,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 <br/> <br/>알란 릭맨 사망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다. <br/> <br/>알란 릭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암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숨졌다. <br/> <br/>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다. 이에 '해리포터' 시리즈에 함께 출연했던 다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과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 추모했다. <br/> <br/>조앤 K 롤링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알란 릭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떤 말로도 충격과 절망감을 표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위대한 배우를 잃었다"고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br/> <br/>엠마 왓슨은 "오늘 알란에 대해 매우 슬픈 소식을 들었다. 특별한 남자, 그리고 특별한 배우였던 알란과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우리가 나눈 대화들이 그리워질 것이다. 평화롭게 잠드세요 알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7.txt

제목: 할리우드 배우 '알란 릭맨 사망', 원인은 '암 투병'  
날짜: 20160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14718476  
본문: 알란 릭맨 릭맨 영상. 사진=YTN 알란 릭맨 방송화면 캡처할리우드 배우 알란 릭맨(69)이 암으로 별세했다. <br/> <br/>영국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각) 암 투병 중이던 알란 릭맨이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전했다. <br/> <br/>알란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등장해 한국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br/> <br/>또한 알란 릭맨은 지난해 4월에는 50년간 교제한 연인 리마 호튼과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8.txt

제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 신중하게 살펴야 할 사항?  
날짜: 20160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14715417  
본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화면.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이목이 집중됐다. <br/> <br/>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궁금해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을 추천한다. <br/> <br/>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이 가능하다. <br/> <br/>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br/> <br/>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r/> <br/>때문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할 방침. <br/> <br/>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br/> <br/>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br/> <br/>절세만큼이나,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 <br/> <br/>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59.txt

제목: 동탄성심병원, '폐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날짜: 201601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04713671  
본문:   <br/> <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4년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작년 첫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암이 2012년 실시한 예비평가에서 의료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료편차를 줄이고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적기에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항암치료 시 부작용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등 폐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부터 폐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아 전체평균 95.11점과 동일종별(종합병원) 92.0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으로 폐암 수술 잘 하는 병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r/> <br/>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 '치료 대응력'은 진료과의 전문 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100%(전체평균 88.5%)를 기록했다. <br/> <br/>또 △흡연력 기록비율 △전신상태 평가 기록 비율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치료 전 병리학적 확정 진단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림프절 절제 또는 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항암화학요법 환자 동의서 비율 △flow sheet 사용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 등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br/> <br/>이와 함께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율 △항암제 투여시 항암제 부작용 평가 비율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등 전체 20개 항목 중 18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폐암에 대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영역, 전신요법, 방사선 치료 등 전반에 걸쳐 완벽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유규형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장은 "2년 연속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2014, 2015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2013, 2014년), 대장암·유방암·폐암 적정성 평가(2013년) 등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의료 질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0.txt

제목: 알란 릭맨,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암 투병 끝에 사망 '애도'  
날짜: 20160115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04710384  
본문: 알란 릭맨,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암 투병 끝에 사망 '애도' <br/>사진=영화 `해리포터`알란 릭맨,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암 투병 끝에 사망 '애도' <br/> <br/>알란 릭맨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추모의 물결을 보내고 있다. <br/> <br/>알란 릭맨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암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br/> <br/>그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열연했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br/> <br/>한편 '해리포터'에 함께 출연했던 다니엘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해리포터' 원작자 J.K. 롤링도 추모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1.txt

제목: 일반 승용차처럼 생긴 '암행순찰차' 전국 고속도로 누빈다  
날짜: 2016011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100741169  
본문: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과 난폭운전 등을 적발하고 막기 위해 '암행 경찰 순찰차'가 등장한다.  <br/> <br/>암행순찰차<사진>는 경찰마크가 없어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도입하려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법을 지키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br/> <br/>15일 경찰청은 암행 순찰차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1일부터 4개월 간 1단계, 7월1일부터 4개월 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r/> <br/>암행순찰차는 중형 세단형 차량에 경광등(3개)과 스피커(사이렌), 마그네틱 경찰마크 등이 설치된다. <br/> <br/>평소 일반 차량으로 보이다가 단속 시에는 경찰 차량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함이다. <br/> <br/>'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br/> <br/>차량 내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br/> <br/>경찰은 3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위법행위를 막을 예정이다. <br/> <br/>이어 2단계는 교통축과 통행량을 고려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br/> <br/>연말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대별로 암행 순찰차 1~2대를 보급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br/> <br/>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운전과 사고 위험이 높은 난폭운전 등이다. <br/> <br/>주간에만 운영하며 암행 순찰 중 위반차량이 발견될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br/>사진=경찰청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2.txt

제목: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알락 릭맨 사망 '애도 물결'  
날짜: 201601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093653858  
본문: 알락 릭맨 사망. 사진=영화 '해리포터' 영상캡처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으로 열연했던 영국 배우 알란 릭맨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br/> <br/>1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알란 릭맨이 향년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br/> <br/>BBC의 보도에 따르면 알란 릭맨의 가족은 성명에서 "배우이자 감독인 알란 릭맨이 69세를 일기로 암으로 숨졌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br/> <br/>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영화 '다이하드'에서 한스 그루버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있다. <br/> <br/>또 영화 '로빈 후드: 도둑들의 왕자', '센스 앤드 센서빌리티' 등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3.txt

제목: '해리포터' 앨런 릭먼 암으로 사망… 향년 69세  
날짜: 20160115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093652866  
본문: 영국 배우 앨런 릭먼(사진)이 암 투병 중 별세했다. 향년 69세. <br/> <br/>14일(현지시간)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릭먼 가족은 성명을 통해 "앨런이 암 투병 중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br/> <br/>릭먼은 그동안 자신의 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어 팬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렸다. <br/> <br/>릭먼은 영화 '다이하드'에서 악당 한스 역할을 실감나게 표현해 영화계에 이름을 알렸다. 국내 팬들에게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인기가 높다. 크리스마스 '필견 영화'로 꼽히는 '러브 액츄얼리'에서는 엠마 톰슨의 남편으로 등장했다. 그밖에도 '센스 앤드 센서빌리티' '로빈 후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br/> <br/>1996년 TV영화 '라스푸틴: 다크 서번트 오브 데스티니'로 골든 글로브상과 에미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로빈 후드'(1991)로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 상을 받는 등 영국 최고의 배우로 군림했다. <br/> <br/>그가 출연한 공포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Eye In The Sky)'는 오는 4월 개봉 예정이며, 조니 뎁과 함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도 올해 찾아온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4.txt

제목: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암으로 사망..향년 69세 '충격'  
날짜: 20160115  
기자: 나혜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034627336  
본문:   <br/> <br/> <br/>할리우드 배우 알란 릭맨(69)이 암으로 별세했다. <br/> <br/>영국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각) 암 투병 중이던 알란 릭맨이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보도했다. <br/> <br/>배우 알란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영화 '러브액츄얼리'에서 해리 역을 맡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br/> <br/>또한 알란 릭맨은 지난해 4월에는 50년간 교제한 연인 리마 호튼과 결혼식을 올렸다. <br/> <br/>이슈팀 ent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5.txt

제목: 식품업계 장수 회장님들의 건강 비결은? “우리가 만든 것 챙겨먹어요”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5010544481  
본문: 올해 94세인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은 100세를 앞둔 노신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다. 박 회장의 건강비결은 흑초에 있다. 그가 흑초를 마시기 시작한 때는 1980년 일본 출장에서다. 당시 위궤양으로 고생하던 박 회장은 일본인 친구의 권유로 흑초를 마시기 시작했고, 3개월 남짓 지났을 때 위궤양 증상이 사라지는 효험을 경험했다고 한다. <br/> <br/>박 회장은 “<span class='quot0'>일본에서는 흑초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기에 그냥 호기심으로 마셔 봤다</span>”며 “<span class='quot0'>독한 마음을 먹고 약 석 달 동안 마시니 거짓말처럼 위궤양이 나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후 박 회장은 36년 동안 날마다 식후에 하루 3번 흑초를 마시고 있다. 흑초를 소주잔 기준 1잔에 3∼5배 비율로 물 등과 희석해 들이켠다고 한다. 보통 찬물이나 우유와 희석해 마시고, 토마토를 갈아 섞는다. 무엇보다 꾸준히 마시는 게 건강비결이라고 그는 귀띔한다. 흑초는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등 각종 건강성분이 풍부해 ‘식초의 왕’이라고 불리며, 탁월한 건강효과로 이미 일본 등지에서는 최고의 장수식품으로 손꼽힌다. <br/> <br/>국내 식품업계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수하는 ‘회장님’들이 많다. 고령에도 철저한 관리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식품업계 총수답게 자사 식품을 건강 비결의 하나로 꼽으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실제 체험자이면서 그 효능을 입증하는 산 증인인 회장님들이 즐겨 먹는 식품을 알아본다. <br/> <br/>◆‘밭의 쇠고기’ 두유 <br/> <br/>식품업계 최고령 창업주인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은 올해 상수(上壽)를 맞았다. 1917년생인 그는 올해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됐다. 2000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콩에 대한 열정과 후학 양성 의지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봄에는 자신이 건립을 후원한 경북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11월에는 그가 1984년 설립한 혜춘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전했다. <br/> <br/>의학박사인 정 명예회장은 1967년 어린 환자들을 위해 두유를 개발했으며 1973년 정식품을 창업했다. 그는 건강비결로 하루 3팩씩 식전에 마시는 베지밀과 식물성 위주의 소식, 꾸준한 운동을 꼽는다. 베지밀은 콩으로 만든 두유다.  <br/> <br/>◆200억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 야쿠르트 <br/> <br/>윤덕병(89) 한국야쿠르트 회장도 한국 나이로 아흔이 됐지만 철저한 건강관리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사옥 곳곳을 둘러보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웬만한 더위나 추위에는 냉방기나 난방기 없이 견딘다고 한다. 몸에 밴 근검절약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육식은 즐기지 않는다는 그는 소식과 금주, 금연 등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 <br/> <br/>한국야쿠르트 창업주답게 매일 빠지지 않고 발효유 야쿠르트 1병(65㎖)을 마신다. 국내 최초의 발효유인 야쿠르트에는 200억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 살아 있는 미생물로, 장내에서 균총의 균형을 조절해 질환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br/> <br/>◆미네랄 함유량 풍부한 생수 <br/> <br/>신춘호(86) 농심그룹 회장도 경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식품업계 오너다. 1930년생인 신 회장도 주 3∼4회 출근해 그룹의 장기 비전과 사업 영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명상과 사색으로 심신을 다스린다는 신 회장은 생수로 건강을 챙긴다. 특히 최근 선보인 백산수를 애용한다고 한다. 백산수는 백두산의 태고적 화산 암반층을 수십년에 걸쳐 천천히 통과하면서 각종 불순물이 깨끗이 걸러지고 필수 미네랄은 적절하게 녹아 있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농심에 따르면 수질 연구 분석 결과 백산수는 국내외 17개 시판 생수 가운데 미네랄 함유량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미네랄 간 균형과 물맛 또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통증, 혈전증, 암 등에 효과 있는 강황 <br/> <br/>함태호(86) 오뚜기 명예회장의 건강비결은 자사 카레 요리를 즐기는 데서 드러난다. 2003년 12월 선보인 ‘오뚜기 백세카레’는 카레의 주요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황 함량을 늘려 건강기능을 강화했다. 바몬드카레 기준으로 기존 제품보다 50 이상 확대했다고 한다. 국내 카레 제품 중 최초로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기도 했다. <br/> <br/>강황의 효능은 커큐민 성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성분 때문에 카레는 노란빛을 띤다. 커큐민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뇌세포가 연계 작용을 하는 과정을 위협하는 두뇌 안 악성 효소를 차단한다는 게 오뚜기 측 설명이다. 소화를 촉진하고, 전염병을 막아주며, 심장마비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통증과 혈전증, 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br/> <br/>◆치매, 고혈압, 성인병 예방에 좋은 참치 <br/> <br/>동원그룹 창업주인 김재철(81) 회장은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9년 동원산업 창업 후 금융과 식품, 포장재로 사업 영업을 넓힌 김 회장은 서울 양재동 사옥으로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며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해에도 베트남 포장재 기업인 딴 띠엔 패키징(TTP)을 비롯한 등 3개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br/> <br/>그는 80대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비결로 소식과 함께 참치를 꼽는다. 참치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로 칼슘과 DHA, EPA,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등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이다. 참치에 많은 DHA는 성장기 두뇌발달에 좋으며,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예방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졌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6.txt

제목: 알란릭맨, 별이 지다…‘스네이프 교수’ 향년 69세 암투병 사망  
날짜: 20160114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35709289  
본문: 알란릭맨, 별이 지다…‘스네이프 교수’ 향년 69세 암투병 사망 사진=영화 해리포터 포스터알란릭맨, 별이 지다…‘스네이프 교수’ 향년 69세 암투병 사망 <br/> <br/>영화계의 거장이 생을 마감했다. <br/> <br/>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할을 했던 영국 배우 알란 릭맨이 14일(현지시간) 향년 69세로 사망했다. <br/> <br/>알란 릭맨은 암 투병중 사망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그의 소속사가 알란 릭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br/> <br/>한편, 알란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7.txt

제목: 영화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역 앨런 릭먼 암으로 별세  
날짜: 20160114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34459260  
본문: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할을 맡았던 영국 배우 앨런 릭먼이 1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69세. <br/> <br/>가족은 성명에서 “배우이자 감독인 앨런 릭먼이 69세를 일기로 암으로 숨졌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고 BBC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br/> <br/>일간 텔레그래프는 그가 이전에 자신의 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 그의 죽음은 팬들에게 더욱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br/> <br/>릭먼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다이하드’에서 악당 한스로 분해 명연기를 펼쳐 세계 영화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밖에 ‘로빈 후드: 도둑들의 왕자’, ‘센스 앤드 센서빌리티’, ‘러브 액츄얼리’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1996년에는 TV영화 ‘라스푸틴: 다크 서번트 오브 데스티니’에서 제정 러시아 시대 수도사 라스푸틴 역을 연기해 미니시리즈 및 TV 영화 최고 배우 부문 골든 글로브 상과 에미 상을 받기도 했다. <br/> <br/>그가 출연한 공포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는 4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그의 출연작 몇 편이 올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8.txt

제목: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향년 69세 사망…‘암투병’ 원인  
날짜: 20160114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31558722  
본문: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향년 69세 사망…‘암투병’ 원인 사진=해리포터 포스터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향년 69세 사망…‘암투병’ 원인   알란 릭맨이 세상을 떠났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로 알려진 알란 릭맨이 암으로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14일 가디언지가 발표했다.   한편, 알란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기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69.txt

제목: 알란 릭맨, 남다른 연기 조명 "압도적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상상되지 않는다"  
날짜: 201601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24538462  
본문: 알란 릭맨 (사진= YTN)알란 릭맨, 남다른 연기 조명 "압도적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상상되지 않는다" <br/> <br/>배우 알란 릭맨의 사망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br/> <br/>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로 유명한 알란 릭맨이 암으로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14일 가디언지가 발표했다. <br/> <br/>이에 현재 알란 릭맨의 팬들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br/> <br/>알란 릭맨의 남다른 연기력에 대해 콜린 퍼스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란 릭맥은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칭찬했다. <br/> <br/>당시 콜린퍼스는 "알란 릭맨의 연기는 압도적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상상되지 않는다"라고 극찬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0.txt

제목: 알란 릭맨, 암 투병 ‘향년 69세’ 사망…애도 이어져  
날짜: 20160114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24538063  
본문: 알란 릭맨, 암 투병 ‘향년 69세’ 사망…애도 이어져 사진=해리포터 포스터알란 릭맨, 암 투병 ‘향년 69세’ 사망…애도 이어져 <br/> <br/>알란 릭맨이  향년 69세 암으로 서거했다. <br/> <br/>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로 알려진 알란 릭맨이 암으로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14일 가디언지가 발표한 소식이 전해졌다. <br/> <br/>특히 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영화 '다이하드'에서 한스 그루버 역할을 맡아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연기를 펼쳤다. <br/> <br/>한편, 알란 릭맨 서거 소식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br/>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1.txt

제목: '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사망 원인은?  
날짜: 20160114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23556990  
본문: 사진= 영화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 2부` 스틸컷'스네이프 교수' 알란 릭맨 사망, 향년 69세…사망 원인은? <br/> <br/>알란 릭맨이 암으로 서거했다. 향년 69세. <br/> <br/>해리포터 시리즈의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로 유명한 알란 릭맨이 암으로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14일 가디언지가 발표했다. <br/> <br/>릭맨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영화 '다이하드'에서 한스 그루버 역할을 맡았다. <br/> <br/>또 영화 '로빈 후드: 도둑들의 왕자', '센스 앤드 센서빌리티' 등 수많은 작품에서 명연기를 보이며 사랑을 받았다. <br/> <br/>알란 릭맨 서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알란 릭맨, 안타깝다", "알란 릭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2.txt

제목: "한주에 맥주 6잔 이상 마시면 안된다고 전해라"  
날짜: 20160114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202354586  
본문: "일주일에 14잔(맥주 6잔 또는 와인 7잔 상당) 이상 마시지 마라." <br/> <br/>이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당국이 20년 만에 새로 내놓은 음주 가이드라인이다. <br/> <br/>기존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하루 3잔, 여성은 하루 2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다. 일주일로 치면 남성은 21잔, 여성은 14잔이다. <br/> <br/>이때 1잔은 알코올도수 4.5% 라거(연한 맥주) 기준으로 약 284ml다. 알코올도수 12% 와인 175ml는 2잔에 해당한다. <br/> <br/>물론 하루 또는 이틀에 14잔을 한꺼번에 마셔서도 안 되고 3일 이상에 걸쳐 나눠 마시라고도 했다.일주일에 며칠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알콜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새 가이드라인은 임신한 여성들은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라고 권고한다. <br/> <br/>이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한 번에 1~2잔은 마셔도 괜찮다고 했다. <br/> <br/>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정부 내 보건담당 최고 자문가인 CMO(최고의료담당자) 데임 샐리 데이비스 교수는 “<span class='quot1'>양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건 누구에게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다만 일주일에 14잔 이상을 넘지 않으면 암이나 폐질환 위험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임신 중인 여성은 예방적 조치로 술을 피하기를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1'>임신 기간에 ‘안전한’ 알콜 섭취량은 없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샐리 CMO는 알코올 섭취와 암 발생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들을 확인한 발암성위원회(CoC)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br/> <br/>기존 가이드라인이 1995년 만들어진 이후 음주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영국 정부는 2013년에 검토에 착수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3.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미 캡슐커피 유해 논란 남의 일 아니다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95528252  
본문: 미국에서 캡슐커피 논쟁이 일고 있다. 환경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튜브 동영상 공유사이트에는 캡슐 폐기물의 환경피해를 풍자하거나 고발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주된 메시지는 커피캡슐이 지구를 죽이기 전에 인간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커피캡슐로 만들어진 괴물이 인간에게 커피캡슐을 총알처럼 쏴 대고 인간은 이에 맞아 쓰러진다. 또한 네티즌은 커피캡슐을 더 이상 쓰지 말 것을 호소하는 동영상 바이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r/> <br/>미국에는 세 집 중 하나가 캡슐커피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14년 미국에서 점유율 1위 회사의 쓰고 버린 커피캡슐을 이으면 지구 10.5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한다. 한 회사의 폐기물량이 이 정도이니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양은 가늠하기 힘들다. 캡슐 용기의 주요 성분은 7번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 7개로 나뉘는데, 7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커피캡슐은 플라스틱 외에 종이, 알루미늄 포일 등이 결합돼 있다. 간편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사용 후 커피캡슐을 일일이 분해하여 재활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회사 측은 커피캡슐 용기에 비스페놀 A(BPA)가 들어 있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생수병을 만드는 플라스틱에 BPA 성분이 들어 있지 않지만 생수병을 햇볕에 장기간 놔두면 생수에서 BPA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BPA 성분이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BPA가 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캡슐에 담겨 있는 커피는 고온·고압의 물로 순간적으로 추출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일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습관적 소비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극소량이라도 매일 노출되면 몸에 플라스틱 성분이 지속적으로 남아 다양한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81%는 소변에서 BPA 계열의 다양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호르몬의 하나인 BPA는 불임, 암 발생, 당뇨병,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다. <br/> <br/>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캡슐커피 기계를 구입할 당시 받은 캡슐 모양의 재활용 컵에 커피 가루를 넣어 내려 마시면 재활용과 건강피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br/> <br/>논란의 정점은 커피캡슐을 만든 개발자가 자신의 업적(?)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캡슐커피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한 회사를 사직하고 최근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태양열 패널을 만드는 회사이다. 자신의 개발품이 환경에 끼친 부담에 속죄하는 마음에서 차렸다고 한다. <br/> <br/>우리나라에서도 캡슐커피가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관계당국은 캡슐커피에서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조사하고 재활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커피를 마실 때 지구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소비방식을 선택했으면 한다. 커피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하지만 커피나무는 땅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4.txt

제목: 온라인보험 '가격경쟁력+수익성'잡는 전략은  
날짜: 20160114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71331561  
본문: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보험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보험다모아’로 인해 온라인보험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br/> <br/>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도 보험다모아 ‘보험료 낮은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기 위해 수시로 상품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가격경쟁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부 회사들은 벌써부터 틈새를 찾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br/> <br/>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온라인자동차보험 가격경쟁이 치열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격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가격경쟁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가격경쟁과 함께 수익성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br/> <br/>온라인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가장 먼저 개척하고 있는 보험사는 국내 최초 온라인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이다. 표준체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우량체·비흡연체 시장을 적극 공략,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br/> <br/>교보라이프플래닛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온라인에 익숙한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2030세대는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주머니 사정이 가볍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에게 동일보장에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다면 매력을 느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세대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우량체·비흡연체 등에게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표준체 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놓치지 않겠지만 우량체 시장에서는 1위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r/> <br/>실제로 교보라이프플래닛 ‘e정기보험’의 할인율은 우량체 대비 약 20% 수준에 달한다. e정기보험(20년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억원) 순수보장형의 30세 표준체 가입금액은 1만1700원인데 반해 비흡연체는 9600원으로 약 18% 더 저렴한 보험료만 납입하면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br/> <br/>교보라이프플래닛 ‘e암보험’도 비흡연체 할인율이 10% 가량에 달한다. e암보험(80세 만기 20년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순수보장형의 표준체 보험료는 1만6520원인데 반해 비흡연체는 1만5130원으로 약 8% 저렴하다. <br/> <br/>KDB생명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정반대 전략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우량체가 아닌 표준하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사는KDB연금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으로 온라인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곳 중에서는 KDB생명만 장애인 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표준하체에 속한다. <br/> <br/>장애인에게 연금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금이다. 사업비를 낮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개발된 장애인 연금은 모집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KDB생명은 장애인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 온라인장애인연금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장애인연금을 통해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br/> <br/>KDB생명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 출범 초기인 현재는 표준체 대상으로 가격경쟁만 지속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온라인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가격경쟁부터 심화되면,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span>”고 우려했다. 이어 이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진정으로 보험 혜택이 필요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했던 표준하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장애인 연금 등이 그 중 일부가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표준체란 건강상태가 정상 범위인 일반인을 뜻한다. 우량체(건강체)는 체중 등 신체 지수가 표준체보다 좋아 질병이나 사망에 노출될 확률이 더 적은 사람이다. 비흡연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표준하체는 표준체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br/> <br/>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온라인 시장은 성숙되기 전에 경쟁부터 시작되어 수익을 챙기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장</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2'>틈새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만 확보한다면 사업을 유지하는데 따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 가능성이 크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틈새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점전략이 최우선일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도 요율세분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5.txt

제목: 담배 한 가치 타르 등 발암물질 69종류...몸에 얼마나 쌓였나?  
날짜: 2016011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43351655  
본문:   <br/> <br/>작년 담뱃값이 거의 두 배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월별 담배 판매 및 반출량’에 따르면 2015년 1월 1만 7,000만 갑에 그치던 담배 판매량은 11월에 2월 9,000만 갑으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br/> <br/>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로 정부의 목표였던 32%에 모자라는 수준. 성인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낮지만 20대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 향후 여성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여성 흡연은 기형아 출산 확률을 높이고 자궁 외 임신의 가능성 또한 2배 이상 증가시키므로 보다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  <br/> <br/>청소년 흡연 또한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10%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청소년 흡연은 건강상 성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잠재된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br/> <br/>50%에 가까운 담뱃값 인상이 눈에 띄는 금연효과로 연결되는 못한 이유에 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흡연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흡연은 뇌가 니코틴에 중독된 ‘질병’이다.  <br/> <br/>담배를 피우면 뇌의 니코틴수용체에 니코틴이 달라붙고 이에 신경이 연결된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 ‘행복물질’이라고 알려진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지속해서 담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r/> <br/>가정의학과 유태호 과장은 “<span class='quot0'>금연은 의지나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치료’해야 하는 영역</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더욱이 흡연은 그 자체로 질병일 뿐만 아니라, 몸의 거의 모든 기관에 잠재적 질병을 심어놓는 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흡연자는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 하에 금연에 접근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담배 10년 피웠다면? 검은콩 480개-생수 500ml 해당하는 타르 섭취한 셈 <br/> <br/>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담배 내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맥박을 빠르게 만든다.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의 증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담배에는 타르, 벤젠,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무려 69종류나 들어 있다. <br/> <br/>담배를 피울 때 필터를 검게 만드는 물질인 타르는 그 중에서도 해롭기로 유명하다. 200종이 넘는 화학물질의 집합체인 타르는 독성이 강해 곤충이나 뱀 등을 퇴치하는 데 활용될 정도. 이 같은 타르는 담배연기를 통해 폐로 스며들어 몸의 모든 장기 조직과 세포에 큰 피해를 준다. 혈관으로 들어가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r/> <br/>그렇다면 흡연자의 몸에 쌓이는 타르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한 가치당 6.0mg의 타르가 함유된 담배를 하루 1갑씩 1달을 피우면 3,600mg, 즉 3.6g의 타르가 몸 안에 축적된다. 이는 1g 내외인 검은콩 4개에 해당하는 양. 1년이면 48개, 10년을 피웠으면 약 480개의 검은콩에 해당하는 타르를 맛있게 씹어먹은 것과 같다.  <br/> <br/>아울러 이는 생수 500ml 통에 타르를 가득 채워 마신 셈이기도 하다. 이 많은 타르들은 몸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흡연자의 몸을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다. <br/> <br/>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권토중래’의 자세로 임해야 <br/> <br/>이처럼 담배는 끊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만, 의지만 믿고 끊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금연한 사람이라고 해도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도 수많은 금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 금연이라는 관문에 도달한 것. 따라서 금연에는 몇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이유를 분석, 재도전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자세가 필요하다. <br/> <br/>효과적인 방법은 흡연이 질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파거스트롬 테스트를 시행, 흡연자의 흡연량, 기간, 시간, 태도, 금연 경력 등을 측정하는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한다. 담배에 대한 중독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br/> <br/>아울러 흉부X선 검사 및 저선량 흉부 CT 등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없는지도 체크한다. 최근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검사 없이 금연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br/> <br/>한편 올해부터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유태호 과장은 “<span class='quot1'>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반면, 병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면밀한 상담치료 및 약물 복용 병행 시에는 금연 확률이 70~80%까지 올라간다.</span>”며, “<span class='quot1'>올해부터는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주는 만큼 가까운 병원을 찾아 금연 확률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6.txt

제목: "그녀는 말기암이었다. 그래도 행복했다"  
날짜: 2016011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21308801  
본문: 말기암 여성과 사랑에 빠진 남성은 그녀를 떠나보내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br/> <br/>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이 전한 한 남성의 사연. (원문 미국 소셜 미디어 ‘레딧’) <br/> <br/>악몽은 2014년 1월 8일에 시작된다. <br/>Mr,C(닉네임)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니(30)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됐다. <br/> <br/>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녀에게 멋진 레스토랑을 물었고 둘은 그녀가 말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한다. <br/> <br/>첫 만남. <br/>바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그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그녀와 만난다. 모델처럼 멋진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며 인사했다. <br/> <br/>첫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둘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다 레스토랑이 문 닫을 시간이 돼서야 자리를 옮겼다. 해어지며 둘은 친구가 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기로 했다. <br/> <br/>느낌. <br/>그는 행복의 절정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것을 느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정한 그녀와 황홀한 사랑을 나누지만 다른 느낌이었다. <br/> <br/>아니나 다를까. <br/>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가 이별을 말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유부녀, 범죄자 등 오만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가슴 수술받은 그녀가 트랜스젠더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세상에" <br/> <br/>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그녀의 얘길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br/> <br/>그녀는 말기암이었다. <br/>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유방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r/> <br/>그는 낭패라고 생각했다. 사랑스러운 그녀를 떠올리며 집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 <br/> <br/>결국, 그녀는. <br/>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춤을 즐겼고 노래 불렀다. 마치 상처 입은 고양이 같았지만 그녀는 매 순간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 <br/> <br/>하지만 그녀는 암을 이기지 못했고 1년 3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세상을 떠났다. <br/> <br/>그는 글을 쓰며 많은 눈물 흘렸다고 고백했다. 그리곤 "나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레딧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7.txt

제목: 바이오스타,'양막 상피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기술' 유럽 특허 등록결정  
날짜: 201601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4114315728  
본문:   <br/> <br/> <br/>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인간 양막 상피세포 유래 성체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 방법’(유럽 출원번호: 08704712.2)의 유럽 특허 등록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번 특허는 태반 양막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상피줄기세포를 쉽게 분리?배양하는 기술로 기존 제대혈, 골수 등의 치료용 줄기세포보다 채취가 용이하고 증식률을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으로써 향후 치료 적용 시 효능을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양막 상피줄기세포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세포로 출산시 태반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윤리적이며 암을 유발시키지 않고, 만능줄기세포의 기능을 갖고 있어 난치병 해결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정맥투여용 줄기세포 조성물’(국내 출원번호: 10-2013-0055158호)의 국내 특허 등록결정도 최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br/> <br/>이번 특허는 정맥 내로 투여되기 전 줄기세포가 파쇄되거나 응집되지 않고 투여에 적합하도록 10 ~20 ㎛직경의 정맥투여용 줄기세포 조성물로 개발, 줄기세포가 표적 부위에 안정적으로 도달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br/> <br/>이에 따라 줄기세포의 혈관 내 투여에 의한 세포치료 효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어서 파킨슨 질환과 같은 직접 투여가 어려운 부위에 정맥 투여를 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세계 4개국에 출원 중에 있다. <br/> <br/>줄기세포 기술연구원 원장 라정찬 박사는 “국내 특허 등록결정으로 줄기세포를 정맥 내 투여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양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네이처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의료사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8.txt

제목: [WT논평]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risks of dying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202924815  
본문: The chance of dying in a terrorist attack in any year in the United States is less than one in a million. Many in the media over-hype the chances of dying in a terrorist attack while at the same time underestimating the number of potential terrorists and terrorist cells among us. At times like these, it is important to be rational about relative risks and prudent in mitigating them. <br/> <br/>The causes of death - drug and alcohol use are high on the list as are common falls. One is 2,000 times more likely to die of heart disease or cancer, or 100 times more likely to die in an automobile accident in a given year than from a terrorist attack. <br/> <br/>Most people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risks of dying when using various forms of transportation. Commercial airlines are by far and away the safest form of transit per passenger mile. In fact, you are about 62 times safer in an airplane than an automobile for a long-distance trip. Airplane crashes obtain a lot of media coverage, in part, because they are so rare, particularly among U.S.-scheduled airlines. <br/> <br/>One is about 14 times more likely to die in a bicycle accident and 35 times more likely to die when riding a motorcycle than in an automobile accident, per mile traveled. Even walking is more dangerous than driving -17 times as dangerous. This is not to say that people should stop cycling or walking - both of which have very good health benefits - bu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relative risks. <br/> <br/>Many more people have been killed by their own governments -well over 100 million in the last century - than terrorists have or are ever likely to kill. Living in a free society, with limited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is the greatest insurance against a violent end. <br/> <br/>More taxes, more government spending and more regulation -all reduce individual freedom. And when the programs fail to work as promised, the government tends to become more authoritarian in an attempt to achieve the desired outcome, which leads to more government control and abuse of the citizens. Socialism and statism ultimately fail, but often after claiming thousands and, in some cases, millions of lives. <br/> <br/>We should fear the indifference of the political class to liberty much more than groups of despicable terrorists. The former we should fight to preserve, the latter we should seek to eliminate. <br/> <br/> 여러 가지 사망 가능성의 비교 <br/> <br/>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br/> <br/>미국에서 특정한 해에 테러공격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보다 낮다. 언론계의 많은 사람들은 테러공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과장하는 반면에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잠재적 테러분자들 및 테러조직들의 수는 줄여서 말한다. 이런 시대에는 상대적인 위험부담에 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위험을 현명하게 완화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다. <br/> <br/>마약 및 알코올 사용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 가운데 상위를 차지한다. 특정한 해에 당신이 심장질환이나 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테러공격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2000배나 높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가능성은 100배 더 높다. <br/> <br/>대다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망하는 상대적 위험부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민간여객기는 탑승거리 1마일당 안전도가 단연 가장 높다. 사실 당신은 장거리 여행 때 자동차를 타는 경우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대략 62배 더 안전하다. 비행기 추락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이런 사고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정기운항 여객기의 추락사고는 드물다. <br/> <br/>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은 자동차 사고 때보다 이동거리 1마일당 대략 14배 높고 오토바이를 탈 때 사망할 가능성은 자동차 사고보다 대략 35배 높다. 심지어 도보는 자동차 운전보다 17배나 더 위험하다. 이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나 걷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험부담을 이해하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건강상 여러모로 매우 유익하다. <br/> <br/>자국 정부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테러분자들이 살해했거나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 지난 세기 동안 1억명이 훨씬 넘는다. 정부가 제한되고 법의 통치를 갖춘 자유사회에 사는 것은 폭력에 의한 죽음을 막는 가장 안전한 보장이다. <br/> <br/>더 많은 세금과 정부 지출 및 규제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줄인다. 각종 계획이 약속한 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정부는 원하는 결과의 달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더욱 독재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추가적인 정부의 통제 및 시민의 권리 침해를 초래한다. 사회주의 및 국가통제주의는 결국 실패하는데 그 결과로 종종 수천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 <br/> <br/>우리는 자유에 대한 정치계급의 무관심을 비열한 테러집단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의 보존을 위해 전자와 싸우고 후자는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r/> <br/>△by far and away:훨씬 △abuse:학대, 남용 <br/> <br/>△statism:국가통제주의 △despicable:비열한, 야비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79.txt

제목: 보건복지부, 한방 진료 표준화·건강보험 적용 확대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91137498  
본문: 앞으로 감기·소화불량·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및 국·공립병원의 한의과 설치가 확대돼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난다. <br/> <br/>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0개 주요 질환 관련 진료 지침이 개발, 보급될 예정이다. 대상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암 △아토피피부염 △비만 △우울증 △안면신경마비 등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30억원으로 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3년마다 임상연구도 추진된다. <br/> <br/>지침이 개발되면 어느 한의원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을 보급·관리하기로 했다.  <br/>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표준화되지 않은 한의 진료와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일부 진료가 한의학 신뢰 확보에 가장 큰 장애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한의약을 신뢰성 있는 치료의학으로 정립하기 위해 표준 지침 개발·보급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span>”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운동요법과 한방물리치료, 추나 진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의약 비중은 2014년 기준 4.17%에 불과하다. <br/> <br/>복지부는 치료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가 많은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양·한방 협진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br/> <br/>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3곳에 불과하다. 한의과 설치가 늘어나면 한방진료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연구개발(R&D) 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R&D 지원은 480억원 수준이지만 2020년 600억원까지 매년 6% 이상 늘린다. 늘어난 예산은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 개발, 양·한방 융합기반기술 개발 등에 쓰인다. <br/> <br/>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인 한약산업은 정제(알약), 엑스산제(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시키고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해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이 확대된다. <br/> <br/>복지부는 “<span class='quot1'>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0.txt

제목: 우유와 치즈를 끊으면 생기는 5가지 변화  
날짜: 20160113  
기자: 나진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65624990  
본문:   <br/> <br/>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이지만, 건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채식에 높은 관심 속에 유제품의 역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매체 메트로 영국판은 12일(현지 시간) 유제품을 끊었을 때 생기는 5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했다. <br/> <br/>1. 소화가 잘된다 <br/> <br/>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 의학도서관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65%는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한다.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 부족해 발생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 ‘소화가 잘되는 우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유만 먹지 않아도 더부룩함, 트림, 설사 등의 증상을 겪지 않을 수 있다. <br/> <br/>2. 피부가 깨끗해진다 <br/> <br/>유제품은 뾰루지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는 여드름 발생을 촉진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br/> <br/> <br/> <br/>3. 암 발생률을 줄인다 <br/> <br/>연구 결과 일주일에 3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유제품과 칼슘이 전립선암 발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하루에 유제품에서 6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암에 걸릴 위험이 34%나 크다. <br/> <br/>4.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 <br/> <br/>영국 당뇨병 협회는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제2형 당뇨가 발병할 수 있다. <br/> <br/>5.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 <br/> <br/>우리는 그동안 ‘우유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을 상식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의 우유 섭취량과 뼈의 강도는 그다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만8000명의 여성을 조사해보니 충분히 칼슘 섭취를 해도 엉덩이 및 무릎뼈 골절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br/> <br/> <br/>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1.txt

제목: 감기· 암 · 소화불량 · 수족냉증 등 30개항목 한방치료 '건보적용' 검토  
날짜: 201601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33329357  
본문: 정부는 감기나 소화불량, 암, 수족냉증 등 30개 질병의 한방진료에 대해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br/> <br/>또 국공립 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한방물리치료나 추나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넣기로 했다. <br/> <br/>1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br/> <br/>이에 따르면 감기, 암, 기능성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안면신경마비,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br/> <br/>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임상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br/> <br/>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br/> <br/>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br/> <br/>또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br/> <br/>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br/> <br/>한방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외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릴 예정이다. <br/> <br/>이밖에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2.txt

제목: 녹십자랩셀 NK세포치료제, 세계최초 상용화 박차  
날짜: 2016011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11317772  
본문: 암환자가 아닌 건강한 타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법이 수년 내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br/> <br/>녹십자의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부문 가족사인 녹십자랩셀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항암 동종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치료제인 'MG4101'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br/> <br/>비혈연 타인 유래 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녹십자랩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6개 기관에서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br/> <br/>'MG4101'은 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인의 말초혈액에서 자연살해세포를 분리 및 증식 배양한 세포치료제다. 기존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 자신이나 부모, 자식 등 혈연 공여자의 자연살해세포로 암을 치료했던 것과는 달리, 'MG4101'은 타인의 건강한 자연살해세포를 배양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파괴해 암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뜻한다. 정상인의 경우 하루 4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 이 가운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변이세포는 약 400개. 통상 체내에 존재하는 자연살해세포가 변이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변이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 <br/>  <br/>자연살해세포치료제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외에서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제품화를 위해서는 암세포살해능력과 세포생존율을 일정하게 관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br/> <br/>황유경 녹십자랩셀 상무는 "MG4101은 건강한 사람의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상시 공급이 가능함은 물론 면역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신개념의 면역 세포치료제"라며 "상용화를 위해 대량 배양 및 동결기술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 상태"라고 말했다. <br/> <br/>한편 'MG4101'은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심사자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협의제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3.txt

제목: 살찐 위암환자가 오래산다  
날짜: 2016011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102407842  
본문: (좌측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암팀 박재명(소화기내과), 송교영(위장관외과), 이한희(소화기내과) 교수일반적으로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중환자나 만성질환자는 과체중일 경우 정상체중보다 예후가 좋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위암 수술 후 살찐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지금까지는 암환자의 수술 전 영양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수술 후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장기생존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이번 첫 연구결과로, 위 절제 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암 환자의 수술 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암팀 박재명(소화기내과)· 송교영(위장관외과) · 이한희(소화기내과) 교수팀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위절제술을 한 1,905명의 위암 환자의 체중과 예후의 상관관계를 수술전과 수술 1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술 전·후 모두 체질량지수 과체중군이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5년생존율 높았다. <br/> <br/>수술 전 체질량지수에 따른 5년생존율은 저체중군 69.1%, 정상체중군 74.2%, 과체중군 84.7%이었다. 수술 1년 후 전체환자 중 체중이 확인된 1,418명의 5년생존율은, 저체중군 67.5%, 정상체중군 83.6%, 과체중군 93.6%로, 수술 후 체질량지수가 생존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br/> <br/>수술 전 저체중군 환자수는 6.4%인 121명, 과체중군은 23.4%인 445명 이었으나, 수술 1년후는 저체중군이 21.4%인 303명, 과체중군이 6.9%인 98명에 불과해 위절제술 후 뚜렷한 체중 감소를 확인하였다. <br/> <br/>환자의 나이, 성별, 수술종류, 위암 병기등을 보정 분석한 결과, 수술 1년 후 과체중 환자는 정상체중 보다 사망률이 의미있게 낮아, 위암환자의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후인자임을 검증하였다.    <br/> <br/>특히 수술 1년 후 과체중군은 전체생존률 뿐 아닌 무재발 생존율과 질병 관련 생존율도 저체중이나 정상체중 군보다 높았다. <br/>  <br/>체질량지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으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교수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18.5 kg/m2 미만이면 저체중, 18.5-24.9 kg/m2이면 정상체중, 25.0 kg/m2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 <br/> <br/>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며, 2012년 기준 위암환자수는 약 3만명이다. 과거에는 진행성 위암이 대다수여서 “<span class='quot0'>수술 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span>”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 조기위암으로 수술 받고 장기 생존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br/> <br/>위암 수술 기법도 발달하여 내시경절제술,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치료로 수술 후의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 하지만 위암 환자의 대부분이 위를 절반 이상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해 위 자체의 부피가 2/3 또는 전체가 줄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br/> <br/>위는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장으로 내려 보냄으로써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절제술을 받으면 예전처럼 많이 먹을 수도 없다. 또한 흡수도 잘 안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은 급격한 체중감소 및 영양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br/> <br/>송교영 교수는 “<span class='quot1'>흔히 위암 환자는 수술 이후나 항암치료 과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 조차 고통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짜거나 매운 음식을 피하되 과거 환자가 좋아하고 즐겨 먹던 음식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먹도록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송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위암 환자는 수술 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영양학적인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체질량지수가 높으면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암환자의 수술전 뿐만아닌 수술 후 적극적인 영양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박재명 교수는 “<span class='quot2'>체질량지수가 높으면 특정 호르몬, 효소 등의 발현이 올라가 생존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위암 수술 후 의료진이 경구로 복용하는 영양보충제나 영양수액 처방하거나 영양팀이 영양요법 식단계획을 제공하는 등 다학제 접근을 통한 영양 중재(nutritional intervention)로 위암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 <br/> <br/>한편 본 연구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 2016;52:129-137, IF 5.417) 2015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4.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 투병 '결국...'  
날짜: 2016011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074311911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 투병 '결국...' <br/>사진: 앨범 재킷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 투병 '결국...' <br/> <br/>데이빗 보위가 18개월 간 암 투병을 한 끝에 결국 사망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한편 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5.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평화롭게 숨졌다" 사망 원인은?  
날짜: 20160113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055356071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평화롭게 숨졌다" 사망 원인은? <br/>사진: 앨범 재킷 <br/>데이빗 보위 사망 "평화롭게 숨졌다" 사망 원인은? <br/> <br/>데이빗 보위가 암으로 사망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한편 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6.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팬들 추모 물결…"그는 화성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날짜: 20160112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3000138402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사진= 데이빗 SNS)데이빗 보위 사망, 팬들 추모 물결…"그는 화성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br/> <br/>영국 출신의 데이빗 보위(David Bowie)가 18개월 동안의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지난 10일(현지시간) 데이빗 보위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br/> <br/>이에 밴드 '오아시스' 출신의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에 "Ashes to Ashes...The King Is Dead. RIP Big Man(재는 재로... 왕이 떠났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br/> <br/>같은 날 국내 뮤지션 배철수 또한 자신이 DJ로 있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통해 "데이빗 보위가 화성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라는 애도의 말을 전했다. <br/> <br/>데이빗 보위는 1948년 1월, 영국 런던 남부 브릭스턴에서 태어났으며 2000년도에 영국음악잡지 'NME'가 뮤지션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에 뽑히기도 했다. <br/> <br/>한편, 그는 사망 이틀 전 새 앨범 'Blackstar(블랙스타)'를 발매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7.txt

제목: 효모 이용해 항암제 전달 기술 개발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203057721  
본문: 효모 유전자를 조작해 항암제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전달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br/> <br/>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전영수 교수 공동연구팀은 식품 발효에 사용되는 효모를 이용한 암치료용 표적형 약물전단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연구결과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2015년 12월 28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최근 들어 합성 나노물질을 이용한 표적항암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분자나 무기나노입자를 사용, 생체적 합성이 낮고 몸속에 남아 독성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br/> <br/>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빵과 맥주 발효 등에 사용되는 효모의 유전자를 변형, 효모 안에 소포체(세포 내 물질 전달기능을 하는 기관)인 액포(아미노산 저장고이자 해독 장소)가 생성되도록 했다. 이어 액포 표면에 유방암과 결합하는 항체형 펩타이드로 된 표적 리간드(암세포 표면에 과다 발현된 특정 표식을 선택적으로 인식해 결합하는 물질)를 도입하고 액포 안에는 항암제 독소루비신(D0x)을 넣어 지름 100㎚의 암 치료용 약물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br/> <br/>이 약물전달시스템은 실제 유방암 동물실험에서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하는 효능이 기존의 독소루비신 표준 암 치료 그룹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액포가 인간의 세포막 지질 성분과 비슷해 암세포와의 막 융합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항암제를 암세포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체 적합성도 높아 안전한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8.txt

제목: “한국 사위로서 한인사회 번창 도울 것”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203057332  
본문: “<span class='quot0'>미국 사회에 소중한 자산인 한인사회의 번창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span>” <br/> <br/>래리 호건(사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주 한인의 날’을 이틀 앞둔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주의사당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선포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br/> <br/>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102명이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주한 날을 기념한 날이다. 이들 한국계 이민 선구자들은 당시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입국했다. 한인의 날 기념일은 2005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공포됐으며, 호건 주지사는 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별도로 선포해 기념한 것이다. <br/> <br/>한국계 아내를 둬 ‘한국 사위’를 자청하는 호건 주지사는 기념식 도중 “<span class='quot1'>나 스스로 한국 사위라고 부르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span>”며 암 투병 과정에서 성원해 준 한인사회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호건 주지사는 “<span class='quot1'>암에 걸린 것을 공개한 이후 외교부 장관과 주미대사를 비롯해 많은 한국 분들이 걱정하며 쾌유 서한을 보내줬다</span>”며 “<span class='quot1'>이곳 메릴랜드 한인 교회에서 나를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기도해 줄 정도로 한인사회 전체가 힘을 줬다</span>”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암의 일종인 ‘비 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사실을 공개한 호건 주지사는 화학치료를 거쳐 11월 암 완치를 선언했다. <br/> <br/>호건 주지사는 이날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드러냈다. 그는 “<span class='quot1'>(주지사의) 퍼스트레이디로 많은 일을 하며, 한인사회는 물론 메릴랜드의 모든 주민과 주정부를 가깝게 하는 아내가 자랑스럽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내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암 투병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89.txt

제목: 성빈센트병원, 폐암 및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날짜: 2016011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75953500  
본문:   <br/> <br/>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99.25점을 받으며,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를 통해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 지역 대표병원으로서, 명실상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 <br/> <br/>◆폐암, ‘100점 만점’으로 2년 연속 1등급 <br/>성빈센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며,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br/> <br/>심평원은 전국 117개 기관에서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폐암 진료 적정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br/> <br/>평가항목은 폐암 치료와 관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적절하게 항암치료가 시행됐는지, 치료 전 정밀검사를 했는지에 관해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영역 ▲수술영역 ▲항암화학요법 투여 및 부작용 평가영역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 등 모두 20개 지표다. <br/> <br/>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성빈센트병원이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점수로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이로써 성빈센트병원은 폐암 치료에 있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실상부 인정받게 됐다. <br/> <br/>성빈센트병원이 획득한 점수는 전체 평균 95.11점과 동일종별(종합병원) 평균 92.0점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평균 98.88점보다도 높은 점수다. <br/> <br/>성빈센트병원은 앞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호흡기계 질환 약품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1등급을 받는 등 폐질환 치료의 강자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br/> <br/>◆위암, 99.25점으로 최우수 1등급 획득 <br/>성빈센트병원은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99.25점으로 당당히 1등급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심평원은 전국 201개 의료기관에서 2014년 7월~12월 원발성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내시경절제술, 위절제술을 받아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위암 진료의 적정성을 처음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br/> <br/>평가 항목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 ▲위암 진단 및 수술 정확성 ▲적기 항암 치료 여부 ▲수술결과 등 18개 지표를 사용해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br/> <br/>성빈센트병원이 획득한 점수는 동일종별(종합병원) 평균 93.51점을 훨씬 웃도는 것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평균 97.40점보다도 높은 점수다. <br/> <br/>위암센터 진형민 교수(위장관외과)는 “<span class='quot0'>성빈센트병원은 재발, 전이를 최소화하는데 암 치료의 목적을 두고, 원칙에 입각한 수술 관리, 높은 수준의 복강경 술기, 다학제 진료, 수술 표준화를 토대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화 된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환자의 완치율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가족 같은 진료 분위기로 환자 만족도까지 최대화하고 있다.</span>”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0.txt

제목: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면 유방암 생긴다고?”  
날짜: 20160112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75034873  
본문:   <br/> <br/>갑상선암과 유방암은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암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이 발생 1위, 유방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br/> <br/>이렇게 여성의 발생빈도가 높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많은 가운데,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암이 좀 더 많이 진단되고, 반대로 갑상선암 환자에서도 마찬가지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실제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두 암이 모두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다른 암 발생에 대한 검진을 자주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단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br/>한편, 또 다른 원인과 관련해서는 갑상선암 치료 후 시행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을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 및 서울대병원 박영주 교수팀은 과거 유방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6,150명의 갑상선 암 환자들 중,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3,631명의 환자를 6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불과 99명(2.7%)의 환자에게서만 유방암이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로써 갑상선암 환자에게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유방암의 발생위험을 높이지 않고,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 역시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유방암 등 이차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본 연구의 장기 추적 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유방암의 발생 및 재발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됐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는 두 암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br/> <br/>다만,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관련을 보이는 것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두 암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두 암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암 발견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이나 유방암으로 각각 진단된 여성 환자들은 다른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여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SCI급 학술지인 ‘임상내분비대사학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1.txt

제목: 암환자 스스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해진다  
날짜: 2016011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71007635  
본문: 3개의 전략, 15개의 세부전략, 91개의 문항(30개로 간략히 줄인 형태도 개발)으로 구성된 `스마트 건강경영전략 평가도구(SAT)`암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평가도구가 개발됐다. 이 도구는 암환자 뿐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br/> <br/>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팀은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암환자 ‘스마트 건강경영전략 평가도구(SAT, Smart Management Strategy for Health Assessment Tool)’를 개발했다. <br/> <br/>경영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뜻한다. 건강관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암은 제때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전략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하지만 전략을 세워 건강을 관리하는 암환자는 드물다. 환자가 의학적 판단 등을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br/> <br/>이에 연구팀은 암환자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했다. 그리고 2년(2012~2014년)간 연구의 결실로 ‘SAT’를 개발했다. <br/> <br/>SAT는 암환자가 암이란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맞게 건강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피드백도 제공한다. <br/> <br/>암환자는 평가 결과를 통해 본인의 부족한 역량을 인지 ?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의료진은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의학적 도움을 제공한다. <br/> <br/>SAT는 3개의 전략, 15개의 세부전략, 91개의 문항(30개로 간략히 줄인 형태도 개발)으로 구성됐다. <br/> <br/>암환자 300명에게 SAT를 적용한 결과, 점수가 높은 암환자는 목표 달성 확률이 높고, 효과적인 10대 건강수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을 더 잘 실천했다. <br/> <br/>연구팀은 SAT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항암치료 종료 전후 2개월 미만 암환자를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한, 환자에게 의학적 자문을 주기 위해, SAT에 기반을 둔 코칭(Coaching)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간호사 등 30여명의 의료진을 3개월간 훈련시켰다. <br/> <br/>윤영호 교수는 “최근 암환자가 크게 늘면서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의료진 중심이다” 며 “SAT는 환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돕는 획기적인 평가도구다” 고 말했다. <br/>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SAT는 암환자 외에도 흡연자, 만성질환 환자 등 건강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 고 말했다. <br/> <br/>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사업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 연구는 정신종양학 분야 최고의 국제 학술지 ‘Psycho-Oncology’ 12월(15년)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2.txt

제목: 조기 직장암도 수술 후 5년이상 살펴봐야 한다?  
날짜: 2016011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60027532  
본문: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br/> 조용범 교수 <br/>삼성서울병원은 조기 직장암 환자라도 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일반적으로 암 완치 및 생존율을 평가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조기 직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덜한 탓에 환자는 물론 의료진 역시 5년 이상 관심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 <br/> <br/>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조용범 교수•오보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지난 1994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기 직장암을 경항문 국소절제술로 치료받은 환자 295명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br/> <br/>경항문 국소절제술은 항문을 통해 암의 발생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으로,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장을 절제하는 방법에 비해 통증은 물론 수술 중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낮아 조기 직장암 환자에게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 <br/> <br/>조용범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소절제술로 직장암을 제거한 환자 295명은 수술 후 첫 2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다. 5년 뒤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상태를 점검했다. <br/> <br/>이들의 평균 나이는 58.3세로, 항문으로부터의 병변의 위치는 6.2cm 이었으며, 암의 크기는 1.9cm였다. <br/> <br/>이들 환자에게서 재발이 확인된 환자는 모두 30명(10.1%)이었다. 재발 시기를 나눠봤을 때 첫 5년 사이에 재발한 경우가 8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5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17%(5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br/> <br/>이들은 조직검사 결과 암이 점막하층의 심층부나 주변 림프혈관으로 침윤한 경우, 암을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br/> <br/>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의 특이점으로 5년 이후 암이 재발한 이들 환자의 경우 주변 장기로 전이 없이 국소 재발했다는 사실을 꼽았다. <br/> <br/>이 경우 수술 후 5년이 지났다면 CT나 MRI 등 고가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수지검사나 S상결장경검사 등 간단한 검사로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br/> <br/>조용범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 직장암의 경우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덜하다보니 추적관찰 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0'>5년이 지나서도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 게 된 만큼 환자나 의료진 모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학술지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3.txt

제목: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폐암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날짜: 2016011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60019890  
본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경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암 적정성 2차 평가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여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발표하였던 1차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고, 2차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2회 연속 폐암 치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br/> <br/>이번 평가는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또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만18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2014년 1월~ 12월 진료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br/> <br/>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명으로 암 사망률 1위에 해당되는 질환이다. <br/> <br/>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센터는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환자를 위한 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결핵 예방과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상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4.txt

제목: 은백린 제 17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취임식 개최  
날짜: 20160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60015579  
본문: 제 17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은백린 박사 취임식이 12일 오전 10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br/> <br/>이날 취임식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김효명 의무부총장, 차몽기 의대교우회장, 박영선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r/> <br/> 은백린 고려대 구로병원장 <br/>은백린 원장은 취임사에서 "대학병원의 사명인 최고 수준의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 진료 프로세스를 통한 진료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인재교육과 첨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실천하고자 한다"며 교육, 진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r/> <br/>이에 은 병원장은 "후학양성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의 개교 이념인 '교육구국'의 기치아래 학생, 전공의, 교직원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r/> <br/>그는 특히 "미래 의료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라며 "백신, 의료기기, 암치료제, 재생의학의 4대 중점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크고 연구 역량이 뛰어난 분야를 추가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r/> <br/>더불어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발족한 KU-MAGIC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G-Valley 컨소시엄과 같이 산학연병이 함께 뭉쳐 국가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교직원 모두가 가족과 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본인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면 개인이 성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레 구로병원 전체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각 진료과와 행정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진료 환경과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마지막으로 "구로병원이 박애정신으로 이 지역에 뿌리내린 만큼,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지켜가며 최고의 인재 양성과 교육, 최상의 진료,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을 지켜가는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임기간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r/> <br/> <br/>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격려사에서 "구로병원이 이미 보유한 연구역량을 십분 발휘한다면, 지난해 고려대학교가 발족한 KU-MAGIC One 프로젝트가 KU-MAGIC Two, Three로 이어져 구로병원이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br/> <br/>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은백린 구로병원장은 1993년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학자이자 의사로서 지금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진료와 연구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다"며 "신임 병원장님과 교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더욱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쳐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r/> <br/>차몽기 의대 교우회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연구 및 진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원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며 "소통과 화합의 가치관을 겸비한 은백린 병원장의 리더십이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빛을 발하여 구로병원의 밝은 미래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br/> <br/>은백린 원장은 1959년 생으로 1984년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1995년 미국 미시건대학 병원과 2009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소아병원에서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고려대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 구로병원 연구부원장, 임상시험센터장, 임상시험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기획실장, 소아청소년과장, 병원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br/> <br/>현재 대한소아과학회 부이사장, 대한뇌전증학회 부회장, 대한소아신경학회 부회장, 질병관리본부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전문분과 위원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5.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적정성 평가 잇달아 1등급 획득  
날짜: 20160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55951746  
본문:   <br/> <br/> <br/>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에 이어 폐암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br/> <br/>심평원은 2014년 12월 폐암 적정성 1차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br/> <br/>이번 평가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117개 기관에서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치료대응력과 흡연력 기록비율,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총 20개 평가 항목 대부분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며 이번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12월 발표한 폐암 1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6.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10701636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br/>사진: 이승환 SNS <br/>데이빗 보위 사망, 이승환 SNS 글 보니... '안타까워'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승환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이승환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앞서 가던 분이셨고 그래서 언제나 좇아가고 싶었던 분이었다"며 "모든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위대하신 분. '제프 벡' 형님 다음으로 제가 공연을 유치하고 싶어 했었던 분이었는데…"라고 심경을 전했다. <br/> <br/>이어 이승환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7.txt

제목: 지스트 전영수 교수팀, 효모 이용 함암제 표적 원천 기술 개발  
날짜: 20160112  
기자: 한현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05641906  
본문: GIST(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전영수 교수와 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의 공동 연구팀이 효모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 항암제를 표적 암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br/> <br/>12일 GIST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28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br/> <br/>이번 기술은 효모(yeast)에 존재하는 천연 소포체(vesicle)인 액포(vacuole)를 항암제를 전달하는 약물전달체로 이용했다. 동물 실험에서 높은 생체 적합성과 항암 효능을 보여 기존 치료법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약물전달시스템은 기존의 합성의약품 기반 항암 치료에 비해 독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현재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전달시스템은 리포좀(liposome) 제제와 알부민 나노입자(Abraxane)가 있다. <br/> <br/>이러한 나노입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은 특정 암을 표적해 치료하는 기술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특정 암을 표적해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능은 개선시키는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br/> <br/>그러나 대부분의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은 고분자, 무기 나노입자 같은 인공소재 기반이다. 인공소재들은 생체 적합성이 낮고 몸속에 장기간 남아 잠재적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br/> <br/>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빵, 맥주의 발효에 사용되는 효모를 이용했다. 효모 안의 소포체인 액포를 항암제 전달 소재로 사용했다. <br/> <br/>연구팀은 기존 효모를 유전자변형 시켰다. 유방암에 결합 가능한 표적 리간드(ligand)가 도입된 표적형 효모액포로 제조한 것이다. <br/> <br/>여기에 항암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표적형 효모액포에 선적해 약 100나노미터 직경을 갖는 암 치료용 표적형 약물전달시스템을 구축했다. <br/> <br/>이 액포의 구성성분은 인간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지질 성분들과 비슷해 암 세포와의 막융합이 수월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항암제를 암 세포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생체 적합성이 높아 안전한 약물전달시스템이 될 수 있다. <br/> <br/>유방암 동물실험에서 표적형 효모액포 약물전달시스템은 기존 독소루비신 치료 그룹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해 우수한 치료 효능을 보였다. <br/> <br/>이 기술을 통해 다른 생물체 기반의 나노 소포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GIST 전영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기술을 통해 생물체 유래 천연 나노 소포체가 약물전달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전임상 연구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궁극적인 암 치료 방안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는 GIST 실버헬스바이오연구센터의 실버헬스바이오기술개발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인 지능형바이오시스템 및 합성연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br/> <br/>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8.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앨범 발표 2일 만에 암으로 사망 '데이빗 보위는 누구?'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03704684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앨범 발표 2일 만에 암으로 사망 '데이빗 보위는 누구?' <br/>사진: 데이빗 보위 앨범 <br/>데이빗 보위 사망, 앨범 발표 2일 만에 암으로 사망 '데이빗 보위는 누구?' <br/> <br/>데이빗 보위가 지난 10일 사망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는 지난 8일 자신의 69번째 생일에 맞춰 새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699.txt

제목: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면 유방암 생긴다고?"  
날짜: 20160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02643817  
본문: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암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이 발생 1위, 유방암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br/> <br/>이렇게 여성의 발생빈도가 높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연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많은 가운데, 유방암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이 더 많이 진단되고, 반대로 갑상선암 환자에서도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지만 두 암 모두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다른 암 발생에 대한 검진을 자주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단율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br/>또 다른 원인과 관련해서는 갑상선암 치료 후 시행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을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 <br/>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 및 서울대병원 박영주 교수팀은 과거 유방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6150명의 갑상선 암 환자들 중,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3631명의 환자를 6년 간 추적 관찰한 결과, 불과 99명(2.7%)의 환자에게서만 유방암이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로써 갑상선암 환자에게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유방암의 발생위험을 높이지 않고, 유방암의 재발 위험도 역시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는 "갑상선암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유방암 등 이차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연구의 장기 추적 결과 갑상선암 환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유방암의 발생 및 재발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는 두 암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br/> <br/>다만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관련을 보이는 것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두 암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두 암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암 발견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화영 교수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으로 각각 진단된 여성 환자들은 다른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여 조기에 암을 발견,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SCI급 학술지인 '임상내분비대사학저널(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Metabolism)'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0.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공식 SNS에 올라온 글 보니...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100704947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공식 SNS에 올라온 글 보니...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공식 SNS에 올라온 글 보니...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에 팬들이 슬픔에 빠졌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1.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 아티스트 왜 사망했나?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92643326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 아티스트 왜 사망했나?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 아티스트 왜 사망했나?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망 원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2.txt

제목: 전북대병원 만성폐쇄성 폐질환·위암 환자 치료관리 '1등급'  
날짜: 20160112  
기자: kdw7636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90603577  
본문: 전북대학교병원이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br/> <br/>전북대학교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br/> <br/>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2014년 5월에서 2015년 4월까지 1년간의 진료에 대한 표준치료 기준인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처방 환자비율 등이 대상이다. <br/> <br/>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폐기능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방향 설정을 통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r/> <br/>위암 적적성 평가는 전국 201개 의료기관의 수술 9969건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전북대병원은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구조부문인 ’전문인력 구성여부’ 부문과 과정부문인 절제술 전 CT 실시율,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절제술 전 병리조직검사 실시율 등 12개 항목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br/> <br/>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 외에도 최근 고난도 암수술(위암·간암·췌장암·식도암)과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고관절 치환술 등 6개 분야의 수술 진료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사용은 4년 연속 최고 평가를 각각 받았다. <br/> <br/>전북대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의료질 평가’에서도 5개 부문(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교육수련·연구개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질과 서비스를 확인한 바 있다. <br/> <br/>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3.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하다 결국 세상 떠나 '안타까워'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80613994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하다 결국 세상 떠나 '안타까워'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하다 결국 세상 떠나 '안타까워'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4.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하는 아티스트 '사망 원인은?'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71541824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하는 아티스트 '사망 원인은?'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글램록' 대표하는 아티스트 '사망 원인은?' <br/> <br/>데이빗 보위가 18개월 간의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 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5.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결국 세상 떠나...'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64549920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결국 세상 떠나...'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결국 세상 떠나...' <br/> <br/>데이빗 보위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6.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평화롭게 숨졌다'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61555350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평화롭게 숨졌다'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간 암투병 '평화롭게 숨졌다'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7.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끝에 세상 떠나... 데이빗 보위는 누구?  
날짜: 2016011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51608492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끝에 세상 떠나... 데이빗 보위는 누구? <br/>사진: 방송 캡처 <br/>데이빗 보위 사망, 암투병 끝에 세상 떠나... 데이빗 보위는 누구? <br/> <br/>데이빗 보위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에 "보위는 18개월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고 밝혔다. <br/> <br/>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데이빗 보위는 음악에 철학, 미학적 요소를 도입하는 '카운터 컬쳐' 장르를 이끌고 간 인물로 출생지인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문화 장르를 개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이날 18개월 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 <br/>유족 측은 애도 기간 중에는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8.txt

제목: ‘글램록의 전설’ 데이비드 보위 천상으로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21506882  
본문: 팝 음악의 전설 데이비드 보위가 10일(현지시간) 69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br/> <br/>보위의 아들로 일명 ‘조위 보위’로도 알려진 덩컨 존스의 트위터에는 “보위가 18개월간의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는 내용의 성명이 올라왔다. <br/> <br/>본명이 데이비드 로버트 존스인 보위는 1947년 영국에서 태어나 ‘레츠 댄스’, ‘스페이스 오디티’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1970년대 발표한 ‘스타맨’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마션’의 OST로 삽입돼 국내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보위는 화려한 시각 효과와 연극적인 무대 연출 등을 음악에 가미한 ‘글램 록’(Glam Rock)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했다. 그는 가상의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 등 자신의 인격을 부여한 페르소나들을 창조해 신선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br/> <br/>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뮤지션 데이비드 보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1일(현지시간) 한 여성과 아이가 보위의 출생지인 런던 브릭스턴에 있는 보위 벽화 앞에 헌화하고 있다. <br/>런던=AP연합뉴스그가 자신의 69번째 생일에 맞춰 이달 8일에 발표한 47번째 정규음반 ‘★’(블랙스타)는 안타깝게도 그의 유작이 됐다. <br/> <br/>BBC방송은 “<span class='quot0'>혁신적이고, 예지력 있는 보위는 팝의 피카소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틀스, 롤링 스톤스,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팝 음악의 가능성과 나아가야 할 바를 규정한 인물</span>”이라고 평가했다. 팝스타 마돈나는 트위터에 “(보위의 사망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위대한 예술가는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며 “뛰어난 재능과 독창성, 천재성을 갖춘 게임 체인저(판도를 바꾸는 사람)였다.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당신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라고 적었다. <br/> <br/>독일 외무부도 트위터에 “안녕, 데이비드 보위. 당신은 이제 우리의 히어로스 중 하나다.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도와줘 고맙다”는 추모 글을 남겼다. 보위는 1970년대 후반 서독에 살면서 ‘베를린 3부작’이라 불리는 세 장의 앨범을 낸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랑과 젊음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히어로스’라는 곡을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인 2014년 11월 영국인 가수 피터 가브리엘이 동서독 출신 밴드들과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09.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암 투병中 세상 떠나…안타까워  
날짜: 2016011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2000428983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사진= 데이빗 SNS)데이빗 보위 사망, 18개월 암 투병中 세상 떠나…안타까워 <br/> <br/>세계적인 가수 데이빗 보위가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br/> <br/>지난 10일(현지시간) 데이빗 보위의 대변인은 “<span class='quot0'>보위가 18개월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span>”고 전했다. <br/> <br/>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데이빗 보위는 1970년대 '글램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전 세계에 잘 알려진 글램록의 '대부'이다. <br/> <br/>데이빗 보위는 지난 8일(현지시각) 새 앨범 ‘블랙스타’를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공연을 하거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일은 거의 없었다. <br/> <br/>한편 국내 가수들은 데이빗 보위의 사망을 추모했다. 밴드 혁오의 리더 오혁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데이빗 보위의 젊은 시절 사진을 게재하며 그를 추모했다. 래퍼 빈지노 역시 데이빗 보위의 앨범 재킷을 게재하며 그를 추모했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0.txt

제목: 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날짜: 2016011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35509755  
본문: 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사진=던칸존스 SNS아들 던칸 존스, 데이빗 보위 애도…“한동안 오프라인” 고인 추모 <br/> <br/>데이빗 보위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며 SNS에 글을 남겼다. <br/> <br/>오는 11일 데이빗 보위의 아들 영화감독 던칸 존스이 자신의 SNS에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전 한동안 오프라인일 것 같네요. 모두들 사랑합니다"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br/> <br/>공개된 사진 속에는 아빠 데이빗 보위의 목마를 탄 어린시절 모습을 공개됐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 유족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데이빗 보위가 지난 10일 가족들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며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렸으며 유족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18개월 간 암 투병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1.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암 투병 끝내…전설이 지다 ‘애도’  
날짜: 2016011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15433563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암 투병 끝내…전설이 지다 ‘애도’사진=데이빗 보위 SNS데이빗 보위 사망, 암 투병 끝내…전설이 지다 ‘애도’ <br/> <br/>영국의 전설적인 록뮤지션 데이빗 보위가 암투병으로 끝내 사망했다. <br/> <br/>특히 그의 나이 향년 69세로 사망해 안타까운 심경이 이어지고 있다. <br/> <br/>지난 10일(현지시각) ‘글램록’의 대부로 불리던 데이빗 보위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고 미국의 한 연애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다. <br/> <br/>한편, 데이빗 보위 공식 페이스북에는 "2016년 1월 10일(현지시각) 데이빗 보위가 18개월 간의 암투병 끝에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게재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2.txt

제목: 데이빗 보위 별세,암 투병 이기지 못한 '글램룩' 창시자...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신곡'  
날짜: 2016011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12438819  
본문: 데이빗 보위 별세,암 투병 이기지 못한 '글램룩' 창시자...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신곡' <br/> <br/>데이빗 보위가 향년 69세로 암 투병 중 별세했다. <br/> <br/>데이빗 보위 측은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빗 보위가 그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유족에 따르면 데이빗 보위는 18개월 간 암 투병 끝에 이날 사망했다. <br/> <br/>글램룩 창시자인 영국 출신 데이빗 보위는 음악 뿐만 아니라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배우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까지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다. <br/> <br/>데이빗 보위는 스스로를 가상의 인물로 활동한 '지기 스타더스트'를 비롯, '영 아메리칸즈' 등의 음반으로 소울과 일렉트로닉 음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왔다. <br/> <br/> <br/>최근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69번째 생일인 1월 8일에 맞춰 발매한 앨범 '블랙스타'(Blackstar·★)는 그의 작별 선물이 됐다. 이 타이틀에는 'Look up here, I'm in Heaven(하늘을 올려다 봐, 난 천국에 있어)'이라는 곡은 죽음을 앞둔 데이빗 보위의 유언처럼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br/>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3.txt

제목: 지끈지끈… 콕콕… 두통, 무조건 참으면 만성화  
날짜: 2016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05336634  
본문: 머리가 어질어질, 지끈지끈, 콕콕 쑤시는 등의 증상. 두통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구의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하며, 여자의 66%와 남자의 57%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으로 고통 받는다. 두통이 심할 경우 뇌종양 같은 위험한 병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흔하지 않다. 두통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두통을 무심코 지나쳐 위험한 질병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약물남용 같은 잘못된 자가치료로 두통을 키울 수도 있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23일 제1회 ‘두통의 날’을 앞두고 두통의 원인과 종류, 대처법을 알아본다. <br/> <br/>◆가장 흔한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br/> <br/>두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원발두통,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이차두통이다. 뇌질환뿐만 아니라 감기처럼 열을 동반하는 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등에 의한 경우가 이차두통에 해당한다. 두 가지 두통은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르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br/> <br/>두통은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이 천차만별이어서 진단이 쉽지 않다. 우선 원발두통인지 이차두통인지 구분한 뒤 이차두통이라면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br/> <br/>원발두통 중 가장 흔한 것은 편두통과 긴장형두통이다. 편두통이라고 해서 항상 머리가 한쪽만 아픈 것은 아니며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3∼4배 더 많다. 편두통은 보통 10대에 시작해 머리가 쿵쿵 울리듯 아프고, 속이 메스껍거나 심하면 토하는 위장 증상을 동반한다. 수십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비교적 증상이 심해 학교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발작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증상이 없어도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br/> <br/>긴장형두통은 띠로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종종 뒷목까지 뻐근한 통증이 동반된다. 흔히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쪽 머리에 발생하는데 간혹 한쪽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br/> <br/>하지만 두통의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양해 증상만으로는 원발두통인지 이차두통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50세 이후 처음 두통이 시작된 경우, 평상시 두통과 양상이 다르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의식 소실과 감각·인기기능 이상 등을 동반하는 경우, 암질환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자세에 따라 두통이 변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기질성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단받아야 한다. <br/> <br/>◆무조건 참으면 만성화… 적절히 약 복용해야 <br/> <br/>두통약 복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두통을 방치하면 두통기전이 더 많이, 더 자주 활성화돼 두통이 악화하면서 만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조건 참는 것은 더 좋지 않으며 적시에 두통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말한다. <br/> <br/>그러나 마냥 약을 먹으며 버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두통약은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을 보면 또 두통이 나와있다. 약물 남용 시 원래의 두통에 약물로 인한 약물남용두통까지 더해져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강한’약을 복용해야 하고 약효가 떨어질 때쯤 다시 두통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때는 약을 끊어야 좋아진다. 따라서 두통이 있을 때는 먼저 잘 듣는 약을 적시에 투여하고 환자는 복용한 횟수를 수첩에 적어 한 달에 약을 얼마나 복용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 달에 8번 이상 두통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전문의를 찾아 두통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대부분 두통은 원인을 알기 어렵고 잠깐 지속되다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통을 줄이는 생활습관은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커피, 녹차, 담배, 술 등은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다. <br/> <br/>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는 “<span class='quot0'>두통이 잦거나 심하고 뇌질환 등이 의심되면 두통약 과용으로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두통 일기를 쓰면 두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유발인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4.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오아시스 리더 노엘 갤러거 "왕이 떠났다" 추모  
날짜: 2016011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201322168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br/>데이빗 보위 사망, 오아시스 리더 노엘 갤러거 "왕이 떠났다" 추모 <br/> <br/> <br/> <br/> <br/>영국 가수 데이빗 보위의 사망 소식에 른 록스타 노엘 갤러거가 애도를 표했다. <br/> <br/>노엘 갤러거는 11일 오후 SNS에 는 데이빗 보위의 노래 'Ashes to Ashes'의 제목으로 데이빗 보위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노엘 갤러거는 영국 유명밴드 '오아시스' 출신 세계적 록스타다. <br/> <br/>그는 "재는 재로…왕이 떠났다(Ashes to Ashes...The King Is Dead. RIP Big Man)"글과 함께 데이빗 보위의 생전 사진을 함께 올렸다. <br/> <br/>한편 11일 데이빗 보위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1일(현지시간) 그가 18개월 간의 암 투병 끝에 가족들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5.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국내외 스타들 애도… "왕이 떠났다"  
날짜: 2016011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95346887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국내외 스타들 애도… "왕이 떠났다" <br/>사진=데이빗 보위 앨범 자켓]데이빗 보위 사망, 국내외 스타들 애도… "왕이 떠났다" <br/> <br/>전설적인 록스타 데이빗 보위의 사망소식에 국내외 스타들이 애도를 표했다. <br/> <br/>11일 가수 윤종신, 유아인, 이동휘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SNS을 통해 "R.I.P(rest in peace)"라는 글과 함께 데이빗 보위(69)의 사진을 게재했다. <br/> <br/>밴드 ‘오아시스’ 출신의 세계적 록스타 노엘 갤러거도 11일 오후 SNS에 데이빗 보위의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재는 재로…왕이 떠났다(Ashes to Ashes...The King Is Dead. RIP Big Man)”고 쓰며 데이빗 보위의 생전 사진을 함께 올렸다. <br/>  <br/>이날 데이빗 보위 측 은 공식 SNS를 통해 "데이빗 보위가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했다. 암 투병 18개월 만이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애도의 기간 동안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사망 소식을 알렸다.  <br/> <br/>데이빗 보위는 영국 글램록의 대부로 아트록, 소울, 하드록, 댄스팝, 펑크 등의 음악을 주도해오며 40년 넘게 가수로 활동했다.  <br/> <br/>최근 데이빗 보위는 28번째 정규 앨범 '블랙스타(Black Star)'를 발표하며 활동을 예고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6.txt

제목: 데이빗 보위 아들 던칸 존스,어릴 적 사진 공개하며 父 사망 소식 알려 '먹먹'  
날짜: 2016011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95342506  
본문: 데이빗 보위 아들 던칸 존스,어릴 적 사진 공개하며 父 사망 소식 알려 '먹먹' <br/> <br/>세계적인 가수 데이빗 보위가 별세한 가운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인 데이빗 보위 사진을 게재하며 추억했다. <br/> <br/>11일 데이빗 보위의 아들 영화감독 던칸 존스(Duncan Jones)도 자신의 SNS에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전 한동안 오프라인일 것 같네요. 모두들 사랑합니다"란 글과 함께 어린시절 목마를 태워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br/> <br/>앞서 같은 날 오전  데이빗 보위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데이빗 보위가 그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밝혔다. <br/> <br/>이후 보위 측 대변인은 "그는 18개월 동안 용감하게 암과 싸웠다"면서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7.txt

제목: 중국 언론, 한정호 의사 한의학 비난 사실 실형 보도  
날짜: 2016011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95336961  
본문: 중국의료전문지 `중국중질고연`는 “한국의 한정호 의학 교수가 한의학과 최원철 박사를 비난해 2년 징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중국 언론이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넥시아 비판해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의 사건을 보도한 사실이 9일 밝혀져 주목 받고 있다. <br/> <br/>중국 의료전문지 ‘중국중질고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의사가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를 비난해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있었을까? “라며 한 교수의 행적과 재판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다. <br/> <br/>해당 매체는 “2011년 6월부터 한국 충북대학교 부속 병원 한정호 교수가 인터넷(SNS) 상에서 여러차례 한의학 암 치료물 Nexia 가 임상 시험이 부족하다며 지적했고 한국 법원에서는 2016년 1월 6일 한정호 교수에게 2년 징역(검사 구형이고 재판 판결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br/> <br/>또한 해당 매체에 따르면 Nexia 약물의 개발자는 한국 단국대학교 교수 최원철 교수을 언급하면서 최원철 교수는 1996년 한의약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함께 20년 동안 이 연구 항목로 질의를 받아 왔고. 1997년 최원철교수는 13명의 4기 암 환자를 치료했으며 치료 과정도 공개했다고 그 간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br/> <br/>해당 매체는 “2006년 최 교수는는  21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처방해, 그 중 114명 환자가 5년 이상의 생명을 연장했는데 말기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2.46%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치료 통계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며 “그동안 서양에서도 줄 곧 99% 이상의 말기 암 환자는 반년 이내에 사망했었다. 앞의 통계는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 국내 의학계는 믿을 수 없는 결과라 말했다”고  사건을 시대별로 요약해 보도했다. <br/> <br/>따라서 해당매체에서 “그들은(의료관계자들은) 이것은 Nexia 의 단독적인 치료효과가 아니라 실험계획법이 주도 면밀하지 않았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당시의 국내 분위기까지 전했다. <br/> <br/>해당 매체는 또 “2010년 7월 유럽 암 이사회 신문 <<종양학기사>>에는 두 명의 4시 신장암 환자 병례가 실려있다며 두 명의 환자 연령은 50세 정도이며, 암세포는 폐까지 전이 되어있었다”며” 서양 의학계에서는 최원철 의사를 찾았고, 두 환자는 40개월 이상의 생명을 연장했다. <<종양학기사>>에서는 이것은 전통 한의학의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한 2가지 사례라고 표했으나. 한국 국내 의학계의 비난을 받았다”고 한 교수의 행적을 보도했다. <br/> <br/>또한, 해당매체는 “1995년 최원철은 젊은 암 환자가 부모가 아이가 고통 속에서 치료 받는 것을 차마 눈 뜨고는 못 봐 안락사를 요구한 사건을 접한 이후에 충격을 받아, 그 이후 말기 암환자 치료에 몰두 했다”며 “그 이후의 길은 순탄치 못 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원철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br/> <br/>기사 말미에 해당 매체는 “사실, 한국과 중국은 똑같이 전통의학과 현대 의학의 충돌이 있었으나, 한국은 법적으로 전통의학을 지켜왔다. 한 편, 한국은 세계상으로 중국 이외에 유일하게 법률적으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병존하는 국가이다. 1990년 이전에 한국은 중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지만, 전통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국은 한국의술이 중국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1990년 이후에 명칭을 '한의학'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개명 이후에도 학습의 기본 내용과 과목은 중의학과 비슷하다”고 한의학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사를 소개했다.. <br/> <br/>해당매체는“서양의학이든 전통의학이든 모두 의학의 일부분이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학계의 방식이 맞다고 볼 수도 없다.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과 정확한 수단이 있다고 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중의학과 서양의학은 다 관용하여 받아 들여야 하며, 무엇이 더 우위에 있다고 논쟁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고 보도하며 끝을 맺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8.txt

제목: 폐암 절반 말기에 발견… 88%가 50∼70대  
날짜: 2016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95332983  
본문: 폐암 환자 2명 중 1명은 다른 장기에까지 암이 전이된 4기에 발병 사실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환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전체 폐암 환자의 87.8%가 50∼70대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폐암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에 이어 네 번째로 발생률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 남성에서 암 발생 1위에 올라 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4명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위암 적정성 평가에 이은 두 번째다. <br/> <br/>심평원은 117개 의료기관에서 2014년 1~12월 폐암 항암치료를 받은 1만174명(만18세 이상 환자)을 분석한 결과 폐암의 83.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다른 장기에 암 전이가 있는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46.6%나 됐다. <br/> <br/>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폐암은 조직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암은 진행 단계가 이른 순서대로 1~4기로 나뉜다. 소세포 폐암은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 역시 암이 반대편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확장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69.7%였다. <br/> <br/>폐암 환자는 남성(69.7%)이 여성(30.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남녀 비율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랐다. 영국과 미국은 각각 남녀 환자 비율이 51.7대 48.3, 54.6대 45.4이었다. <br/> <br/>폐암 환자의 87.8%는 50~70대의 중노년층이었다. 남성은 60대(35.3%)와 70대(35.4%), 여성은 70대(30.9%) 환자가 제일 많았다. <br/> <br/>노년층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은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5세 미만 환자의 비중은 한국이 2.8%로 미국(1.7%), 영국(1.1%)보다 높았다. 65세 미만 환자로 따져봐도 한국(39.19%)이 미국(30.7%), 영국(22.9%)보다 비중이 컸다. <br/> <br/>심평원은 전문인력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적절하게 항암치료가 시행됐는지, 치료 전 정밀검사를 했는지 등 19개 지표를 통해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br/> <br/>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95.11점으로 2014년에 시행된 1차 평가 때의 94.65점보다 소폭 올랐다. <br/> <br/>평가를 통해 치료 건수가 10건 이상인 의료기관 93곳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매겼는데, 84.9%인 79곳이 1등급을, 나머지 14곳은 2~5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19.txt

제목: 영국의 전설적 뮤지션 데이비드 보위 사망  
날짜: 20160111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71934251  
본문: 영국의 전설적인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사진)가 향년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br/> <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보위가 10일(현지시간) 암 투병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br/> <br/>보위의 대변인은 “<span class='quot0'>보위는 18개월간의 용감한 암 투병 끝에 이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졌다</span>”고 발표했다. <br/> <br/>보위는 글램록의 창시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예술가 중 하나로 꼽힌다. <br/> <br/>그는 지난 8일 자신의 69번째 생일에 맞춰 새 앨범 ‘블랙스타’를 발매했지만 최근 공연을 하거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일은 거의 없었다. <br/> <br/>보위의 아들 ‘조위 보위’로 알려진 덩컨 존스는 이날 트위터에 “사실이라고 말하게 돼 매우 유감이고 슬프다”고 남겨 부친의 사망을 알렸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0.txt

제목: 데이빗 보위 사망, 마돈나도 인증샷 올리며 추모 "당신 만난건 행운"  
날짜: 2016011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71931095  
본문: 데이빗 보위 사망 / 사진=마돈나 인스타그램 <br/>데이빗 보위 사망, 마돈나도 인증샷 올리며 추모 "당신 만난건 행운" <br/> <br/>데이빗 보위, 마돈나 <br/> <br/>영국 가수 데이빗 보위가 암으로 별세한 가운데, 팝스타 마돈나가 데이빗 보위 인증샷을 올리며 죽음을 애도했다. <br/> <br/>마돈나는 11일인스타그램에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야!!! 핫 트램프 정말 사랑해!(So lucky to have met you!!!! Hot Tramp I love you So!)”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br/> <br/>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데이빗 보위와 마돈나의 모습이 담겨있다.  <br/> <br/>한편 11일 데이빗 보위 측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데이빗 보위가 10일 가족이 보는 가운데 사망했다. 18개월의 암투병 끝 세상을 떠났다. 많은 분들의 애도에 감사를 표하며 부디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1.txt

제목: '글램록의 전설' 데이빗 보위, 암 투병 중 별세… 향년 69세  
날짜: 20160111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62855234  
본문: 영국 출신 '글램록의 전설' 데이빗 보위가 6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br/> <br/>10일 데이빗 보위 공식 SNS에는 "데이빗 보위가 그의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위는 18개월간 암 투병을 해오다 이날 세상을 떠났다. <br/> <br/>데이빗 보위는 1970년대 전 세계 음악계를 강타한 글램록(Glam Rock)을 이끈 대표주자다.  깡 마른 체구에 중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가 하면, 가상의 페르소나 '지기 스타더스트'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독특한 행보로 록 음악계에 족적을 남겼다.  <br/> <br/>1998년 토드 헤인즈 감독은 영화 '벨벳 골드마인'을 만들어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데이빗 보위 역시 배우로 활동했다. 2000년에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꼽히기도 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2.txt

제목: 식약처,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날짜: 2016011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52853220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료용 DNA 백신 개발 및 허가 시 필요한 자료 등을 안내하기 위해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질환, 암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치료용 DNA 백신’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여 제약사의 제품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치료용 DNA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하거나 활성화하는 유전물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다. <br/> <br/>주요 내용은 ▲치료용 DNA 백신의 제조관리, 특성분석 및 품질관리 ▲독성 및 약리작용 등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br/> <br/>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료용 DNA 백신 개발의 예측성 및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제약사가 제품 허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자료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3.txt

제목: 청주한국병원, 심장조영술 시술 1000건 달성했다  
날짜: 20160111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11133742208  
본문: 충북 청주한국병원이 심장조영술(사진) 시술 1000건을 달성했다. <br/> <br/>11일 청주한국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이 지난 2014년 8월5일 심장뇌혈관센터를 개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이유홍 심장내과 전문의를 영입해 심혈관조영술 시술 실적이 1000건을 넘어섰다. <br/> <br/>개설 1년5개월만의 실적이다. <br/> <br/>이 병원은 지난해 6월 청주시 분평동에서 저녁운동(배드민턴)을 하다 쓰러져 무려 15분간 의식불명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실려 온 정모씨(50· 모건설업체 대표)를 심장 시술을 실시, 뇌손상이 전혀없이 건강하게 퇴원시켰다. <br/> <br/>또 지난해 7월에는 97세의 초고령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좌주간지, 다혈관 관상동맥병변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 건강하게 퇴원시켰다. <br/> <br/>이유홍 심장내과 과장은 “<span class='quot0'>짧은 기간안에 1000건의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병원급 규모의 최신 장비와 시설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심혈관조영술외에도 말초동맥(팔, 다리 동맥) 확장시술, 인공심박기 삽입술, 심장안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 심낭천자술등 심혈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시술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 병원 심장뇌혈관센터는 응급환자의 빠른 치료는 물론 일반환자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환자위주의 편안한 당일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br/> <br/>특히 심장특화 정밀 종합검진을 시행하면서 흉부X선 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장조영술등 정밀 검사등을 당일 검사하고 당일 결과 확인 시스템이 큰 호응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진우 심장내과 과장은 “<span class='quot0'>거의 모든 심혈관 조영술 및 심장혈관 확장시술을 다른 병원처럼 허벅지 대퇴동맥이 아닌 손목동맥을 통해 간편하게 시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환자들이 입원 기간을 줄이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환자나 보호자들이 좋아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 병원 심장뇌혈관센터는 아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교수팀이 여러차례 방문해 한국병원 심혈관중재시술팀과 함께 시술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의료 기술을 시행하고 있다. <br/> <br/>우리나라 심장시술 최고 권위자인 탁승제 아주대병원장도 여러차례 한국병원을 방문, 함께 시술을 하기도 했다. <br/> <br/>한편 심장조영술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많이 막혀 혈관내에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암환자와 같은 본인부담률이 전체 치료비의 5%로 큰 부담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4.txt

제목: 음식 혐오하면 살 빼기 힘들어  
날짜: 20160109  
기자: 이지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9140919267  
본문: 한해를 보내느라, 새해를 맞느라 연일 파티를 벌이다보니 자연스레 과식을 하게 됐다. 늘어난 뱃살을 움켜쥐며 ‘체중 감량’을 다짐하는 이들을 위해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체중감량시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 소개했다. <br/> <br/>건강한 체중감량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비만은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하며 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상체중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도 힘들다. <br/> <br/>현대인에게 체중감량은 단순히 외적인 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관리’가 됐다. <br/> <br/>영국영양사협회의 아이슬링 피고트 대변인은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난 뒤 ‘내년에는 다이어트를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놀랍게도 그런 시작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br/> <br/>그는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먹는 음식을 줄이기보다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체중감량을 할 때 ‘심리’는 물리쳐야 할 존재인 동시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피고트는 “체중감량을 할 ?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것”을 조언했다. 음식을 두고 “그만 먹어”, “절대 안돼” 등의 표현을 쓰면 심리적으로 그 음식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높이지기 때문이다. <br/> <br/>피고트는 식사 패턴을 일정하게 만들 것을 조언했다. 언제 먹을 것인지, 얼마나 먹을 것인지 등의 패턴이 일정해질 때 허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음식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체중감량을 할 때 ‘음식을 혐오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중감량을 하는 이에게 음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으로 작용해 기분이나 심리 등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피고트는 말했다. 그는 “TV 전원을 끄고 당신의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집중하라”며 “그것을 즐기도록 노력해라”고 조언했다. <br/> <br/>이지수 기자 v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5.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과거 가정사 재조명…“아버지와 자주 다퉈”  
날짜: 20160108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193601505  
본문: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과거 가정사 재조명…“아버지와 자주 다퉈”사진=tvN 택시 캡처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과거 가정사 재조명…“아버지와 자주 다퉈” <br/> <br/>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의 가정사가 재조명 돼 화제다. <br/> <br/>박태준은 과거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형편과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이날 방송에서 박태준은 "어린 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br/> <br/>이어 박태준은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 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 당시를 회상했다. <br/> <br/>한편 박태준은 "그런데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 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6.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아픈 가정사 고백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패륜 저질렀다" 울컥  
날짜: 20160108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120645058  
본문: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사진= SNS)'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아픈 가정사 고백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패륜 저질렀다" 울컥 <br/> <br/>네이버 금요일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화제인 가운데 작가 박태준이 과거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한 일화가 새삼 눈길을 끈다. <br/> <br/>박태준은 과거 tvN '택시'에 출연 당시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 거리가 멀었다"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와 주먹싸움까지 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br/> <br/>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은 이에 대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 노력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셨다. 근데 어느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밤에 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고 화를 냈다. 그 모습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 패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r/>  <br/>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그렇구나"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7.txt

제목: 순천향대천안병원, 위암수술 3회 연속 최고등급 획득  
날짜: 20160108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114701868  
본문: 순천향대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복강경수술을 집도하고 있다.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위암수술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br/> <br/>순천향대천안병원 위암센터는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3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역시 3회 연속 0%를 기록했다. 위암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3회 연속 0%는 전국의료기관에서도 드문 성적으로 매우 우수한 위암치료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br/> <br/>위암수술 적정성평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회 실시됐으며, 위암수술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성여부를 비롯해 진단 및 치료과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위암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문수 병원장은 “<span class='quot0'>평가결과를 통해 병원의 암치료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암 치료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지역민들의 발길과 불편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순천향대천안병원 위암센터는 내시경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등 매년 1000여건에 달하는 위암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위암수술법과 내시경수술기구도 개발해 전세계의 병원들에서 사용 중이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b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8.txt

제목: 황정음 결혼, 예비 시아버지 거암철강 대표 “청춘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  
날짜: 2016010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05400972  
본문: 황정음 결혼, 예비 시아버지 거암철강 대표 “청춘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 <br/>황정음  결혼, 예비 시아버지 거암철강 대표 “청춘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 <br/> <br/>7일, 황정음의 소속사는 자사 배우인 황정음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오는 2월 황정음이 ‘2월의 신부’가 된다고 밝혔다. <br/> <br/>황정음의 이른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제 대상인 남자친구 이영돈 씨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영돈 씨는 34세, 178센티미터의 키, 80키로의 건장하고 훈훈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다. <br/> <br/>특히 그는 대단한 재력가이자 능력남으로 알려져 눈길을 받고 있다. 그는 전 프로골퍼로 당시 타이거 우즈 코치로부터 직접 골프를 배울 정도로 전문적인 수업을 받았다. 현재는 골프 코치로 일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직접 경영하는 거암 코어의 후계자 수업을 2년째 받으며 사실상 대표직을 물려 받게 된다. <br/> <br/>이영돈 아버지는 거암철강을 운영하며 이 둘의 사랑에 “청춘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황정음 측에 따르면, 황정음과 이영돈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권유하여 현재 결혼식 호텔을 정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29.txt

제목: 영화 데드풀, 메인 예고편 공개, 전혀 색다른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온다  
날짜: 20160107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203117579  
본문: [영화 데드풀, 메인 예고편 공개, 전혀 색다른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온다 사진=영화 데드풀 메인 예고편 영상 캡쳐]영화 데드풀, 메인 예고편 공개, 전혀 색다른 마블의 슈퍼히어로가 온다 <br/> <br/>영화 데드풀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다. <br/> <br/>제작사인 마블은 7일 데드풀은 약 2분 20초 분량의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을 통해 여태까지 선보였던 히어로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선보여 영화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br/> <br/>공개된 예고편에는 웨이드 윌슨(라이언 레이놀즈)이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데드풀로 변신하게 된 과정이 담겼다. <br/> <br/>윌슨은 암을 이겨내고 무적의 몸을 갖게 됐지만 얼굴을 잃게 됐다. 이후 빨간색 가면을 쓴 채 슈퍼히어로로 변신하게 된다. <br/> <br/>마블 특유의 시원시원한 액션은 다르지 않았다. 예고편에서 등장하는 도로 위 액션 장면은 차량이 폭발하고 캐릭터 고유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등 즐길 만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br/> <br/>한편 데드풀은 오는 2월 18일 미국에서 개봉한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0.txt

제목: 데드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라이언 레놀즈+팀 밀러 감독 '합작'  
날짜: 20160107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61958102  
본문: 데드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라이언 레놀즈+팀 밀러 감독 `합작` 사진=데드풀 포스터데드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라이언 레놀즈+팀 밀러 감독 '합작' <br/> <br/>데드풀 메인 예고편이 공개돼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br/> <br/>영화 ‘데드풀’은 정의감 제로, 책임감 제로에 ‘인터스텔라’급의 상식과 차원을 파괴하는 엉뚱한 행동, 거침없는 유머 감각은 물론 울버린에서 유래된 힐링팩터 능력과 탁월한 무술 실력까지 갖춘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있는 히어로 데드풀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br/> <br/>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택시에 탄 데드풀이 택시기사에게 “데드야, 성은 풀”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색다른 슈퍼히어로임을 밝히며 붉은 슈트를 입은 사연을 공개한다. <br/> <br/>암 말기 진단을 받은 데드풀은 치료를 위해 비밀 실험에 참여했다가 자가치유 능력인 힐링팩터와 함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얻게 된다.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연인에게까지 위험이 닥치자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쉴새없이 떠드는 모습이 팬들이 기다려 온 마블 히어로 데드풀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며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br/> <br/>총술, 검술 등 아크로바틱한 액션 동작으로 쾌감을 선사하는가 하면 엑스맨의 캐릭터 콜로서스에게 시어머니질 한다고 투덜대고, 전투 중에도 “잠깐 가스렌지 켜고 나왔나?”라는 4차원적인 유머 감각으로 폭소를 유발한다. <br/> <br/>특히 자신이 영화 속 캐릭터임을 알고 소위 '4번째 벽’이라 불리는 시간과 차원을 파괴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예고편에도 보여 기대를 고조시킨다. “<span class='quot0'>거대한 파워엔 거대한 무책임이 따른다</span>”라는 카피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를 반대로 비튼 것으로 액션은 물론 유머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히어로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든다. <br/> <br/>미국의 한 잡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힌 라이언 레놀즈가 주연을 맡았고,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 출신인 팀 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br/> <br/>한편 ‘데드풀’은 오는 2월 18일 개봉할 예정이다. <br/>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1.txt

제목: 대전선병원, '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받아  
날짜: 2016010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61042425  
본문:   <br/> <br/> <br/>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원장 박노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5년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br/> <br/>이번 평가는 위암의 진단과 수술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또는 적기에 항암치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 위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된 것으로, 전국 의료기관 20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br/> <br/>선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절제술 전 복부조영 CT 및 병리조직검사 실시율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 전 평가 대상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br/> <br/>또 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br/> <br/>이규은 선병원 경영총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선병원 암센터의 암치료장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국지명도의 암관련 전문의사 영입에 관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암치료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선병원 암센터는 위암 내시경 점막 절제술(ESD), 내시경 최소상처 수술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장기별로 복강경 암수술이 가능한 외과팀과 혈액종양분야 명의, 부정맥 분야의 명성 있는 의료진을 영입, 환자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2.txt

제목: 데드풀, 엉뚱 행동+거침없는 유머 있는 마블 히어로..개봉 날짜는?  
날짜: 20160107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52014589  
본문: 데드풀, 엉뚱 행동+거침없는 유머 있는 마블 히어로..개봉 날짜는? 사진=데드풀 포스터데드풀, 엉뚱 행동+거침없는 유머 있는 마블 히어로..개봉 날짜는? <br/> <br/>영화 ‘데드풀’은 정의감 제로, 책임감 제로에 ‘인터스텔라’급의 상식과 차원을 파괴하는 엉뚱한 행동, 거침없는 유머 감각은 물론 울버린에서 유래된 힐링팩터 능력과 탁월한 무술 실력까지 갖춘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있는 히어로 데드풀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br/> <br/>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택시에 탄 데드풀이 택시기사에게 “데드야, 성은 풀”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이 색다른 슈퍼히어로임을 밝히며 붉은 슈트를 입은 사연을 공개한다. <br/> <br/>암 말기 진단을 받은 데드풀은 치료를 위해 비밀 실험에 참여했다가 자가치유 능력인 힐링팩터와 함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얻게 된다.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연인에게까지 위험이 닥치자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적을 찾아 나서게 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쉴새없이 떠드는 모습이 팬들이 기다려 온 마블 히어로 데드풀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며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br/> <br/>총술, 검술 등 아크로바틱한 액션 동작으로 쾌감을 선사하는가 하면 엑스맨의 캐릭터 콜로서스에게 시어머니질 한다고 투덜대고, 전투 중에도 “잠깐 가스렌지 켜고 나왔나?”라는 4차원적인 유머 감각으로 폭소를 유발한다. <br/> <br/>특히 자신이 영화 속 캐릭터임을 알고 소위 ?번째 벽’이라 불리는 시간과 차원을 파괴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예고편에도 보여 기대를 고조시킨다. “<span class='quot0'>거대한 파워엔 거대한 무책임이 따른다</span>”라는 카피는 영화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대사를 반대로 비튼 것으로 액션은 물론 유머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히어로의 탄생을 기대하게 만든다. <br/> <br/>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힌 라이언 레놀즈가 주연을 맡았고,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 출신인 팀 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br/> <br/>한편 ‘데드풀’은 오는 2월 18일 개봉할 예정이다. <br/>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3.txt

제목: 암젠 코리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국내 승인  
날짜: 201601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41923689  
본문: 암젠 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프롤리스®(Kyprolis 성분명: 카필조밉)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한국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키프롤리스는 프로테아좀 억제제로, 프로테아좀은 손상되었거나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세포의 기능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키프롤리스는 세포 내 단백질이 과도한 축적을 유도하는 프로테아좀을 억제하며, 일부 세포, 특히 암세포에 대해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데, 이는 이들 세포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다량 함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 <br/>암젠 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프로테아좀 억제제인 키프롤리스의 승인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새롭고 중요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사용 승인으로 최적의 치료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암젠 코리아는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다발성 골수종은 난치성 혈액암으로, 병세의 개선과 재발이 반복되는 패턴이 특징이다. 다발성 골수종은 질환의 진행이 매우 빠른 희귀질환으로 전체 암 질환 중 약 1%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매년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 받는 환자는 약 1천명, 사망하는 환자는 약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환자 수는 4천~5천명에 달한다. <br/> <br/>이번 키프롤리스 사용승인은 제 3상 임상 연구인ASPIRE(CArfilzomib, Lenalidomide, and DexamethSone versus Lenalidomide and Dexamethaso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Relapsed Multiple MyEloma)의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임상 결과, 키프롤리스+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KRd 요법)은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Rd 요법) 보다 질환의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을 31% 감소시켰으며, 무진행생존기간(PFS)을 8.7개월 연장시켰다(median, 26.3months vs 17.6months; HR: 0.69; 95% CI: 0.57 to 0.83; P=0.0001).  <br/> <br/>이는 현재 치료 요법 중 이식을 제외하고 가장 긴 무진행생존기간을 보여주는 요법으로 평가된다. 키프롤리스군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폐렴(1%), 심근경색(0.8%), 상기도 감염(0.8%) 등 이었으며, 이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KRd 요법의 경우 15.3%, Rd 요법의 경우 17.7%로 각각 조사되었다. <br/> <br/>한편 키프롤리스는 미FDA로부터 지난 2012년 7월 단독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제제로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키프롤리스 시판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EU 회원국 28개국에서 통일된 라벨(unified labeling)을 통해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다.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C에 승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키프롤리스는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쿠웨이트, 멕시코, 태국, 콜롬비아에서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4.txt

제목: [기획] 초미세먼지 예방 4가지 Tip  
날짜: 20160107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30930547  
본문:   <br/> <br/>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대비 20배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br/> <br/>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나 천식·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피부질환·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br/> <br/>◆초미세먼지 농도 상승, 폐암 발병위험 18%↑ <br/> <br/>영국의 의학전문지 '랫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 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한다고 밝혔다. <br/> <br/>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기 질환뿐 만 아니라 큰 병까지 유발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관심 있게 확인하고 황사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br/> <br/>◆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br/> <br/>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해 본다. <br/> <br/>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상태가 나쁜 것으로 예측될 때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정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r/> <br/>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일일 평균치를 기준으로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위험 등 6단계로 구분한다. 약간 나쁨 단계부터는 노약자나 심혈관질환자·호흡기질환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다. <br/> <br/>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 집안의 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한다. 집 실내에서는 충분한 습기 유지와 함께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것이 좋다. <br/> <br/>셋째, 외출할 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br/> <br/>문제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재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밀착력 감소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 아울러 긴 소매와 장갑·목도리 등을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 <br/> <br/>넷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타민C를 섭취한다. 비타민C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몸속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기능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염증 증상을 개선한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영양분의 흡수는 물론 상처 치유 및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며,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감기도 예방한다. 하지만 비타민C는 과다 복용 시 복통이나 설사, 속 쓰림과 같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일일 권장량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함량 비타민C가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1000㎎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많이 찾지만, 실제 몸 속으로 흡수되는 것은 50%도 채 안 된다.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체외 배설 과정에서 비타민C는 대사되면서 수산으로 바뀌어 칼슘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돌이 생성돼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5.txt

제목: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날짜: 201601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10859206  
본문:   <br/> <br/> <br/>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대비 20배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br/> <br/>영국의 의학전문지 '랫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 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 호흡기 질환뿐 만 아니라 큰 병까지 유발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관심 있게 확인하고 황사마스크를 준비하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상태가 나쁜 것으로 예측될 때는 미세먼지 행동요령 정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일일 평균치를 기준으로 '좋음' • '보통' • '약간 나쁨' • '나쁨' • '매우 나쁨' • '위험' 등 6단계로 구분한다. 약간 나쁨 단계부터는 노약자나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다. <br/> <br/>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 집안의 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한다. 집 실내에서는 충분한 습기 유지와 함께 공기청정기를 켜주는 것이 좋다. <br/> <br/>셋째, 외출할 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재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밀착력 감소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 아울러 긴 소매와 장갑, 목도리 등을 꼭 착용하는 것이 좋다. <br/> <br/>넷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타민c를 섭취한다. 비타민C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몸속 유해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기능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염증 증상을 개선한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영양분의 흡수는 물론 상처 치유 및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주며,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감기도 예방한다. <br/> <br/>하지만 비타민C는 과다 복용 시 복통이나 설사, 속 쓰림과 같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일일 권장량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함량 비타민C가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1000㎎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많이 찾지만, 실제 몸 속으로 흡수되는 것은 50%도 채 안 된다. 심지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체외 배설 과정에서 비타민C는 대사되면서 수산으로 바뀌어 칼슘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돌이 생성돼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br/> <br/>이처럼 비타민C의 부작용은 대부분 비타민C의 낮은 체내 흡수율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타민C 흡수율을 높여 부작용을 줄인 '에스터C'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타민C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에스터C'는 '비타민C'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비타민 제재로 섭취 시 체내 흡수율과 이용율이 높고, 소화관에 부드럽게 작용하며 위장장애 없이 공복에 섭취가 가능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6.txt

제목: “메이저 제패·올림픽행 티켓 두 토끼 잡을게요”  
날짜: 2016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6201451772  
본문: 2015시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두며 상금왕에 오른 이보미(28·코카콜라재팬). 그는 일본에서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뽐내며 ‘보미 짱’으로 불린다. 그는 모자에만 메인 스폰서인 코카콜라를 비롯해 LG전자 등 5개 후원업체 로고를 붙이고 상의 앞뒤로도 후원사 광고를 달고 다니는 등 팬들은 물론 스폰서들의 인기도 한몸에 받고 있다. <br/> <br/>이처럼 인기가 많은 비결은 뭘까.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국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서 이보미는 “지금까지 JLPGA 투어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무표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많이 웃고 팬들의 환호에 늘 화답하니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며 인기 배경을 소개했다.  <br/> <br/> 2015 시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두며 상금왕에 오른 이보미(28)가 새해 목표를 올림픽 출전과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내세워 올해도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 <br/>혼마코리아 제공2015시즌을 화려하게 보낸 이보미의 올해 목표는 메이저 우승과 올림픽 출전이다. 그는 “2015년은 2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한 시즌이었다”고 자평하고 “2016년에는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고 메이저 대회 정상에도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투어에서 활동한 이보미는 “새해 목표는 소박하게 3승 이상으로 잡았다. 지난해 우승했던 대회에서도 1∼2개 정도 2연패를 하면 좋겠다. 그러나 올림픽 무대는 꼭 밟겠다”고 강조했다. <br/> <br/>시즌 상금 2억3049만엔(약 22억원)을 벌어들여 남녀 통틀어 일본 골프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한 이보미는 지난해 초 5승을 목표로 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자신이 놀랍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그린을 양궁 표적처럼 만들어 누가 더 샷을 가까이 붙이는가를 측정하면 항상 1등할 자신이 있다</span>”고 할 정도로 아이언 샷이 강점인 이보미는 늘 퍼트에 발목이 잡혔으나 지난 시즌엔 퍼트가 잘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br/> <br/>현재 세계랭킹 15위로 한국선수 가운데 8번째인 이보미는 “올림픽 전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도 세 차례 출전할 계획이다.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 랭킹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보미는 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4월)과 US오픈(7월)에 출전하고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혼다 타일랜드 클래식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br/> <br/>지난해 12월 초 4개국 투어 대항전인 퀸즈컵대회 이후 골프클럽을 잡지 않았다는 이보미는 “<span class='quot1'>15일 3년째 같은 곳인 미국 팜스프링스로 동계 훈련을 떠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한 달가량 체력 강화 위주로 훈련한 뒤 태국으로 이동해 혼다 타일랜드 대회를 준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요즘 퍼트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늘 아쉬운게 퍼트</span>”라며 “<span class='quot1'>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곧바로 2초 안에 퍼팅하는 것에 효과를 보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 그 덕분에 2015년엔 퍼팅 1위가 됐다. “<span class='quot0'>10 안팎의 롱 퍼트 연습을 매일 아침 10분씩 하면서 거리감을 익히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20대 후반이 된 만큼 하체 근육 보강에 중점을 두고 훈련할 생각</span>”이라고 덧붙였다. 상금왕이 되라고 주문했던 아버지를 2014년 암으로 여읜 이보미는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것이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만족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br/> <br/>결혼 계획을 묻는 말에 이보미는 “엄마께서는 서두르라고 하는데 아직 전혀 관심이 없다.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골프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 나은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br/> <br/>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7.txt

제목: 새해 건강관리, '둔감한 췌장에도 관심을...'  
날짜: 2016010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6183354440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br/> 외과 정철운 교수 <br/>2016년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금연, 다이어트 등 각자 개인의 건강 목표를 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여러 관심사 중 등한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췌장이다. <br/> <br/>췌장은 위의 뒤편에 있는 길이 12~20cm 의 분비 기관으로 소화기관에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고 몸에 필요한 호르몬 등을 분비한다. 또한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생성하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br/>지난 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3년 암 발생률, 암생존율 및 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중 유일하게 한 자리 수의 생존율(9.4%)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췌장암이었다. 조기검진과 의학의 발전으로 2009년~2013년 우리나라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과거 2001년~2005년의 5년 생존율(53.8%)보다 15.6% 상승했다. 그러나 췌장암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br/> <br/>주요 암 중 췌장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발견이 어렵고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췌장은 위, 간, 대장, 소장 같은 장기들 보다 더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다. 췌장은 우리의 뱃속에 있기는 하지만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췌장암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 되어도 이미 암이 진행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 <br/> <br/>췌장암은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이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외과 정철운 교수는 “<span class='quot0'>하지만 실제 췌장암 환자의 2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는다</span>”고 말했다. 그 만큼 췌장암은 발견하기 힘든 암이다. 하지만 암의 발병 부위에 따라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br/> <br/>정철운 교수는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기는 암은 황달이나 전신 가려움증 등이 생겨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는 징후가 있다. 그러나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에 암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암이 제법 커지고 다른 곳에 전이가 생길 때 까지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이미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br/> <br/>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가 병행되지만 근본적인 의미의 완치는 힘들게 된다. <br/> <br/>모든 암이 그렇지만, 병변이 없고 생존율도 낮은 췌장암은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췌장암은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예방 수칙이나 기준은 없다. <br/> <br/>췌장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식사와 금주 그리고 금연이다. 췌장암은 당뇨나 췌장염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당뇨나 췌장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 역시 잘 다스려야 한다. <br/> <br/>정철운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8.txt

제목: '육룡이 나르샤' 척사광 등장, '그는 누구인가' 긴장감 ↑  
날짜: 20160106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6180405063  
본문: 육룡이 나르샤 척사광 등장. 사진=SBS '육룡이 나르샤' 방송화면 캡처'육룡이 나르샤' 최고 암살자 척사광이 등장했다. <br/> <br/>5일 오후 방송된 SBS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고려 최고의 고수 척사광을 이용하는 권문세족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br/> <br/>척사광은 신비 조직 무명의 최고 암살자. 이에 권문세족들은 우왕에게 "토지개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계를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척사광을 이용해 암살 계획을 세웠다. <br/> <br/>한편 이날 생포한 '무명' 조직원을 속이기 위해 이방원은 그를 도망치게 해서 배후를 조사했다. 그러나 도망치던 조직원은 척씨 성을 가진 무사의 칼을 맞았고 이를 발견한 분이에게 조직원은 "조직이 날 버렸어. 날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어. 난 아무말도 안했는데 맹세를 지켰는데"라고 말했다. <br/> <br/>이때 분이에게 칼을 겨눈 자객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며 분이를 죽이려 했고 분이는 과거 어머니와 무명 조직원이 나눴던 그들만의 암호를 기억해 내며 자신 역시 '무명'의 조직원인 척 그를 속여 목숨을 구했다. <br/> <br/>한편 척사광은 길선미가 장삼봉이 찾는 고수라고 예측한 인물로 고려 최고의 무장으로 손꼽힌 척준경의 유일한 계승자. 현재까지 전설의 무림고수 척사광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39.txt

제목: 새해 건강검진, 연령대별 검사항목 차별 필요  
날짜: 2016010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6171340190  
본문:   <br/> <br/> <br/>새해가 되면 꼭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많은 계획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계획이 바로 '올바른 건강 챙기기'다. <br/> <br/>특히 남성은 금연, 금주, 운동하기 등을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많이 세운다. 하지만 신년이라 해서 무작정 무리한 계획을 짜기보다는 먼저 '건강검진'을 통한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내 몸에 적합한 건강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br/> <br/>◇ 30대 남성 복부 초음파,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br/> <br/>30대는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 간이나 위 건강과 함께 비만,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되는 대사성 질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복부초음파와 소화기 증상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와 함께 성인병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결혼한 여성의 경우 연 1회 이상 자궁암 검사를 받고, 미혼인 경우라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통해 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건강한 결혼생활과 출산을 할 수 있는지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꼭 할 필요가 있다. <br/> <br/>◇ 40~50대 남성 내시경·간기능검사, 여성 유방·갑상선 초음파·골밀도검사 <br/> <br/>40~5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평소 음주와 흡연 여부에 따라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꼭 검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내시경과 초음파, 간기능 검사 및 성인병 검진이다. 조기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는 "40세 이후의 중년 남성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위암의 가족력, 위선종, 위점막의 이상,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균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br/> <br/>또한 "50세 이상이 되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3-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한다. 특히 잦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도 함께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br/> <br/>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역시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는 필수다. 유방암은 간단한 유방촬영기 검사나 초음파 정밀검사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 검사 역시 부인과 전문 검진을 받으면 쉽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특히 자궁암과 유방암은 그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서구화된 생활습관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40~50대 여성들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골밀도검사도 추천되는데, 골밀도검사란 뼈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척추나 엉덩이뼈에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특히 여성에서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폐경이 된 어머니는 반드시 골밀도를 확인해 골다공증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br/> <br/>◇ 60대 남성 전립선 초음파 <br/> <br/>60대 남성에서 많이 발병하는 전립선 관련 질병 역시 PSA항원 수치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PSA 항원수치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판별이 가능하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전립선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다. 흡연을 하여 폐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흉부 X선 검사와 함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이 폐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br/> <br/>◇ 뇌혈관, 심혈관 검사도 잊지 말아야 <br/> <br/>건강검진 중 빼놓지 말아야 할 사항이 바로 혈관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간단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검사도 중요하다. <br/> <br/>특히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은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이 갑자기 발생해 1~2시간 이내에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 사전에 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 MRA 검사나 뇌혈관 CT나 도플러초음파와 같은 검사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며, 심혈관질환 역시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0.txt

제목: 한국 출산 문화 좋아 두번째 원정 출산 온 러시아 산모  
날짜: 2016010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6110154174  
본문:   <br/> <br/> <br/>외국인이 보기에 낯설 수 있는 출산문화가 너무 좋아 한국으로 두 번째 원장출산 온 러시아 산모가 화제다. <br/> <br/>주인공은 러시아인 카슈리나 율리아(KASHIRIKHINA IULIIA·35)씨. 2010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제일병원과 첫 인연을 맺어 그 해 11월 첫째 딸을 건강하게 품에 안은 율리아씨는 전문적인 의료시스템과 기대 이상의 서비스에 감동하며 기회가 되면 둘째 출산도 제일병원에서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br/> <br/>그 후 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율리아씨가 만삭인 몸으로 또다시 제일병원을 찾았다. 첫째 주치의였던 이시원 교수와 국제협력팀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율리아씨는 "첫째 출산 당시 의료는 물론, 직원들의 친절함, 음식, 서설,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믿음 가는 제일병원을 찾으니 마음이 놓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원 소감을 밝혔다. <br/> <br/>지난해 12월 15일 건강하게 둘째 딸을 출산하고 첫째 때와 같이 제일병원 산후조리에서 산후관리 받은 율리아씨는 "첫째 출산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신생아 관리 교육부터 산모 건강을 챙기는 식단과 서비스 그리고 아기 건강 체크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br/> <br/>특히 러시아 음식으로 짜여진 별도의 산모 식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식단까지도 한국식을 따를 정도로 제일병원 산후조리원에 높은 점수를 주며 다른 외국인 산모들도 꼭 이용해 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br/> <br/>마지막으로 율리아씨는 "남편이 제일병원에서의 출산을 먼저 권할 만큼 제일병원은 출산 모든 과정에서 신뢰를 주었다. 저와 제 아기가 꼼꼼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두 아이 출산에 도움을 준 제일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셋째가 생긴다면 고민 없이 꼭 제일병원에서 낳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r/> <br/>제일병원은 최근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화자가 급속히 늘면서 글로벌 난임·여성암 치료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제일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연 2만5000여명에 이른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1.txt

제목: 편강한의원, 작년 한해 비염환자 전전년 대비 1.7배 상승  
날짜: 20160105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5152702336  
본문: 편강한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한의원을 찾은 전체 내원 환자 중 1위가 비염환자라고 5일 밝혔다. <br/> <br/>편강한의원 환자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의원을 찾은 초진환자들 1만 1409명 중 비염환자가 3106명(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폐질환이 2809명(24.6%), 아토피 778명(6.8%), 천식 729명(6.3%)로 나타났다. 나머지 35%는 암, 소화기, 성장장애, 피부질환, 감기, 목과 어깨 통증, 만성피로, 중이염 등 다양한 질환에 분포되어 있다. <br/> <br/>편강한의원 관계자는 "전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내원 환자 1위는 비염으로 나타났으며 수치는 2014년에 비해서 약 1.7배 상승했다. 이 수치는 재진 환자를 제외한 초진 환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라 실제 내원 환자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br/> <br/>우리나라의 비염환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염 환자수는 2009년 529만명에서 2013년 608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비염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면역력 저하를 꼽는다. 특히 최근 높아진 미세먼지수준과 초미세먼지 수준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이들이 쉽게 비염에 노출되기 쉽다. <br/> <br/>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면역력과 폐건강은 깊은 관계가 있다. 폐건강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유해물질을 막아내어 감기나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면역력이 약한 경우라면 폐를 깨끗이 하는 청폐치료로 폐건강을 강화시켜 면역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2.txt

제목: 암 환자 아들 강제퇴원 후 스페인 行…이기적이라고?  
날짜: 2016010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5140641329  
본문: 병원 허가 없이 암 환자 아들을 퇴원시킨 것도 모자라 치료를 위해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면 부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 <br/> <br/>지난 2014년 8월, 잉글랜드 사우스햄튼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아샤(당시 5세)를 누군가 강제로 퇴원시켰다. 아샤의 아빠 브렛과 엄마 나그메다. <br/> <br/>부부는 병원의 항암치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치료방법이 아샤를 제대로 낫게 할 수 없다고 여겨서다. 같은 치료법이 이어진다면 아들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br/> <br/> <br/> <br/>아샤를 데리고 스페인 말라가로 떠난 부부는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병원 동의 없이 아들을 강제로 퇴원시킨 게 죄였다. <br/> <br/>다행히 현지 법원은 부부의 사정을 참작했다. 며칠간 철창신세를 졌던 브렛과 나그메는 떨어져 있던 아들을 데리고 체코 프라하로 날아갔다. <br/> <br/>부부는 ‘양성자 치료’가 아샤를 낫게 한다고 믿었다. 이는 수소 원자핵을 가속해 얻은 양성자를 치료가 필요한 암 표적 부위에만 쏘는 방법이다. 암세포 주위의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조직을 통과하면서 방사선량이 줄어드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다. <br/> <br/> <br/> <br/>프라하에서 무사히 치료받은 아샤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1~2시간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온종일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br/> <br/>포츠머스의 아동보호협회는 부부의 행동이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브렛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br/> <br/>브렛은 “<span class='quot0'>아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남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0'>학교에서 온종일 있어도 문제없다</span>”고 말했다. 그는 “다리를 떨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아샤는 훌륭한 용사”라고 강조했다. <br/> <br/>부부가 체코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국의료보험(NHS)이 아샤의 양성자 치료를 보험 범위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샤의 할머니 패트리샤는 이 같은 의료당국의 방침을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br/> <br/>한편 지난달 7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370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양성자 치료, 유전자 검사, 폐암 항암제 등 고비용 항목도 추가했다. 이로써 양성자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은 ‘1800~310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3.txt

제목: "3D 프린터 활용한 정밀 수술…유방 절제·유방암 재발 줄인다"  
날짜: 2016010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5105527093  
본문: 서울아산병원 안세현(왼쪽부터), 고범석, 김남국 교수.유방암 부위만 정확히 제거해 불필요한 유방 절제와 암 재발을 줄이는 데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br/> <br/>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고범석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방암 수술 전 선행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암 제거 수술을 받을 때 3D 프린터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 활용해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선행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 전 MRI 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유방과 종양을 3차원 모델링 한 후 수직으로 표면에 종양의 모양을 투사함으로써 정확한 절제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3D 프린터를 이용해 유방 가이드 모델을 출력하고 환자의 유방에 씌워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표시한다. 기존에 비해 종양 범위를 여러 군데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암 절제가 가능하다. <br/> <br/>또 수술 전 초음파를 보며 미세침을 유방암 부위에 삽입해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기존 방법에서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꼈지만, 3D 유방 가이드를 이용하면 수술 시 마취 상태에서 수술부위 표시가 가능해 환자들이 불편과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br/> <br/>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3D 프린터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유용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유방암 수술에서도 수술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기술은 지난달 식약처에서 의료용가이드로 승인을 받았다. <br/> <br/>안세현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3D 프린터를 활용한 유방암 수술 가이드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기술로서 선행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뿐 아니라 향후 전체 유방암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pan>”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4.txt

제목: 3D 프린터 활용한 유방암 제거, 수술 정확성 높인다  
날짜: 2016010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5102503447  
본문: 3D 프린터를 활용한 유방 수술 가이드 제작 과정. <br/>유방암 부위만 정확하게 제거해 유방 보존의 가능성은 높이고 재발은 줄이기 위해 3D 프린터가 해결사로 나섰다. <br/> <br/>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고범석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방암 수술 전 선행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암 제거 수술을 받을 때 3D 프린터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 활용하면 정확한 수술부위 표시를 통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br/> <br/>이 맞춤형 3D 유방 가이드는 환자의 유방 모양에 맞춰 정확히 씌워 입체적으로 유방암 부위를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과도한 유방 절제를 줄이고 정확한 절제를 통해 유방암 재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 <br/>또한 기존에는 수술 전에 초음파를 보면서 미세침을 유방암 부위에 삽입해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통증을 느꼈지만, 미리 제작해 놓은 3D 유방 가이드를 이용하면 수술장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수술부위 표시가 가능해 환자들이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br/> <br/>이 기술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에서 의료용가이드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와 동시에 '선행항암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 부분절제술시 3D 출력 수술 가이드의 효용성'이란 주제로 임상연구도 시작했다. <br/> <br/>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에 항암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의 크기가 줄어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고 암만 제거해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최근에는 선행항암치료 후 유방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선행 항암치료로 유방암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종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암이 일부분 남아 있을 수 있어 수술은 치료 전 MRI 영상을 참고하여 시행되는데, 기존의 수술부위 표시 방법으로는 정확한 절제부위 표시가 어려웠다. <br/> <br/> 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 교수. 고범석 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br/>안세현·고범석 교수팀은 선행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 전 MRI 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유방과 종양을 3차원 모델링 한 후 수직으로 표면에 종양의 모양을 투사함으로써 정확한 절제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br/> <br/>그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방 가이드 모델을 출력하고, 수술 당일 환자가 수술장에서 마취가 된 후 이 3D 유방 가이드를 암이 있는 유방에 씌워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표시한다. <br/> <br/>이렇게 3D 유방 가이드를 이용해 종양 범위를 표시하면 기존 표시 방법에 비해 종양의 크기에 맞춰 3차원적으로 여러 군데에 정확하게 표시해 정밀한 암 절제가 가능하다. <br/> <br/>그동안 수술 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사용되었던 3D 프린터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유용하고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유방암 수술에서도 수술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br/> <br/>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3D 유방 가이드를 활용해 유방암 수술을 하면 정확한 절제연을 확보할 수 있어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고 재수술률과 재발률을 줄일 수 있으며 미용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또한 안세현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유방암 수술 가이드는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기술로서 선행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뿐 아니라 향후 전체 유방암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5.txt

제목: 라이프플래닛 "온라인보험 1위 원동력은…"  
날짜: 20160104  
기자: 유은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4173919323  
본문: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개발팀장.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출범하면서 온라인 보험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보험시장에 불어온 핀테크 열풍으로 온라인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br/> <br/>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라이프플래닛도 주목받고 있다. 출범 2년 만에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배타적사용권도 두 번이나 획득하면서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라이프플래닛은 '소비자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차별화한 상품'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br/> <br/>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개발팀장에게 온라인 생명보험시장에 대해 물었다. <br/> <br/>다음은 임 팀장과의 일문일답. <br/> <br/>- 국내 최초 온라인생명보험사로 출범 후 2년 만에 온라인 생명보험 1위사로 등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br/> <br/>▲ 출범 2년 만에 월납 초회보험료 누적 금액 기준으로 인터넷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본다. 판매 중인 7개의 상품 중 '정기보험'과 '꿈꾸는e저축보험'은 당사의 고성장을 견인한 대표상품이다. 이 두 가지 보험상품은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비즈니스 철학과도 연결된다. <br/> <br/>이 외에 최근 보험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도 당사의 정기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이 모두 가격비교 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br/> <br/>지난 한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핀테크도 당사의 비즈니스 방향과 잘 맞물려서 더욱 주목받은 것 같다.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성장했고, 내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br/> <br/>- 출범 초기 '페이스메이커'로 배타적사용권을 받고 1년 후 다시 '꿈꾸는e저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 번도 받기 힘든 배타적 사용권을 1년에 약 1회씩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br/> <br/>▲ 라이프플래닛은 '내 가족, 내 친구 등 소중한 사람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가치를 지닌 생명보험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한다.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개발 욕구가 크다. <br/> <br/>창립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꿈꾸는e저축보험'으로 두 번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업 초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인지도 확산이 중요한데, '꿈꾸는e저축보험'은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상품 자체로 광고 효과까지 감안한 전략적 상품이다. <br/> <br/>'꿈꾸는e저축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기존 보험상품과는 달리 국내 최초로 사업비를 고객이 낸 보험료나 적립금에서 떼지 않고,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에서만 사업비를 공제하는 후취형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채택해 공시이율 하락 시 보험회사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는 소비자 지향적 콘셉트다. 조기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온라인보험의 차별화된 가치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향할 것이다. <br/> <br/>- 꿈꾸는e저축보험은 국내 최초로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이다. 개발 당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br/> <br/>▲ 온라인 생명보험은 설계사 등 보험상품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즈니스모델이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은 조기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보험상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br/> <br/>하지만 상품을 개발, 출시할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꿈꾸는e저축보험'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제출했을 때 보험전문가들조차 조기 해지해도 100% 원금이 보장되는 사업비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만큼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br/> <br/>또 개발 당시에도 내부에서도 '과연 무조건 원금 이상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자문도 많았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오해도 많았다. <br/> <br/>개발보다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은 것 같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형 생명보험사인 S생명과 H생명의 온라인 생명보험에서도 카피 상품을 내놓았다. 이는 '꿈꾸는e저축보험'이 결국 보험 상품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품이라는 점을 업계가 인정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br/> <br/>비슷한 상품 구조의 경쟁자가 생겼지만 원조 상품의 개발 담당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또 '보험 조기 해지는 손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 <br/> <br/>'꿈꾸는e저축보험'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100%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사업비 부과 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에 특허를 신청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온라인 보험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br/> <br/>라이프플래닛이 취하는 단기간의 신상품 개발 이익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보험상품을 발견하고 보험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게 당사의 사명이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br/> <br/>- 온라인 생명보험 경쟁자가 대거 늘었다. 지금처럼 온라인 생명보험 시장을 주도할 전략이 있나? <br/> <br/>▲ 아직까지는 국내 보험 소비자들이 설계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br/> <br/>지난 2년간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존 인식을 깨뜨리고 설계사 중심의 보험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써왔다. 출범 3년째인 올해에는 당사만의 특성을 살린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 상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인터넷 생명보험시장의 파이를 더욱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br/> <br/>특히 지난해 말에 출시한 '암보험'과 '5대성인병보험'은 출시 직후부터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 질병보험과 암보험 비교 랭킹 1위에 올랐다. 온라인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군살을 모두 뺐기 때문에 가능했다. <br/> <br/>이처럼 온라인보험은 채널만 다르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품까지 차별화되어야 한다. 기존과 다른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나 '꿈꾸는e저축보험' 같은 상품으로 인해 다른 보험사들이 인터넷보험 시장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동참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br/> <br/>무엇보다 고객지향적 가치를 담은 혁신적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당사의 핵심 전략이며, 이 핵심전략이 상품에 녹아들어야 국내 최초 온라인 생명보험사로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br/> <br/>- 상품개발자로서 십 수년간 다양한 보험상품을 만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 같은 게 있는가? <br/> <br/>▲ 가장 기억에 남는 상품은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 설립과 함께 처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의 '목표연금 페이스메이커 서비스'와 지난해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꿈꾸는e저축보험'이다. <br/> <br/>이 두 가지 상품과 서비스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상품판매가 아니라 소중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시스템 구축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보람되고 잊을 수 없는 상품이다. <br/> <br/>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보장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중한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고객가치를 1순위로 기존 채널과 다른 인터넷보험의 특성을 살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br/> <br/>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6.txt

제목: '부탁해요 엄마' 고두심 시한부, 뻔한 가족극 되나  
날짜: 20160104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4134822808  
본문: '부탁해요 엄마'가 종영 막바지 시한부 설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반감시켰다.  <br/> <br/>2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는 임산옥(고두심 분)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br/> <br/>병원을 찾은 임산옥은 폐암 말기를 진단받고, 살 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br/> <br/>'부탁해요 엄마'는 종영까지 10회가 남은 상황이다. 임산옥이 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이를 계기로 가족들이 화해하고,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br/> <br/>시한부 설정은 그간 드라마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다. 앞서 KBS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유동근의 암 설정은 가족간 소중함을 알아가는 장치로 쓰였다. 이번에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전개가 예상되는 바, 진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br/> <br/>사실 시한부 설정은 극중 갈등 관계와 꼬인 전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장치다. 주말극의 단골소재인 가족 이야기를 그리는 '부탁해요 엄마'는 그간 무수히 보아온 시한부 설정으로 또 한 번 식상함을 주고 있다. 고두심의 암 설정은 갑작스럽고 뜬금없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br/> <br/>'부탁해요 엄마'는 세상에 다시없는 앙숙 모녀를 통해 징글징글하면서도 짠한 모녀간 애증을 그린 주말극이다.   <br/> <br/>시한부 설정의 충격요법이 통했을까. 이날 고두심의 시한부 선고가 그려진 '부탁해요 엄마' 3일 방송분은 33%(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27.6%)보다 무려 5.7%P 상승한 수치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7.txt

제목: 결여의 존재론 - ‘나’의 상실에 이르기까지(김숨 소설 읽기)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3203420778  
본문: 1. <br/> <br/> <br/> <br/>흔히 근대를 주체가 탄생한 시기라고 한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탄생의 유일한 무대는 비극이다. 탄생이란 곧 탄생 이전의 세계로부터 추방됨을, 그리고 이전까지 속해있던 세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근대란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박성완 역, 서울 : 심성당, 1998, 25쪽)과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위와 같은 곳)을 이어주던 탯줄이 끊어진 이후의 어떤 곳이다. 세계는 차가운 법칙과 우연의 편에 서고, 눈앞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저 먼 하늘의 별만큼이나 내게서 동떨어져 있다. 근대 이후의 인간에게 세계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의미도 감정도 없는 무심한 손길로 나를 휘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극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이 된다. <br/> <br/>그럼에도 이러한 의미에서의 비극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파탄이 아닌데, 역설적이게도 세계를 타자로, 비극으로 경험할 ‘나’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상실은 이 세계를 상실한 것으로 경험하는 틀 그 자체를 상실하는 것, 다시 말해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홀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단단하고 확고하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직업, 나의 취향, 성격, 나의 옷과 물건과 심지어는 나의 몸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도 내 것이었던 적 없었다는 예감과 마주하는 순간. 내가 ‘나’라고 불러왔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낯선 타자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순간. <br/> <br/>이 지독한 파산의 순간이야말로 김숨 소설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그녀가 다루는 것은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국면이라기보다 그에 앞서 그 모든 국면을 (불)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이며,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설은 뼈대가 되는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김숨은 사건 이전의 시간을 탐색한다. 그녀의 소설에서 사건은 작품의 마지막에 와서 갑작스레 마무리되거나 혹은 끝끝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우리는 한없이 팽창된 시간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증해줄 무언가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인물들을 본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결코 채울 수 없는 공백과 결여뿐이다. <br/> <br/>김숨의 소설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물이 전면에 등장한다. 「북쪽 방」의 곽노처럼 이 결여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순수한 삶을 회복하려는 인물형과, 곽노의 아내처럼 마치 결여 같은 것은 없다는 듯 그것을 부정하려는 인물형이다. 그러나 두 시도는 한 문제에 대응하는 ‘둘 다 더 나쁜’ 방식을 보여주며 각자의 방식으로 실패에 이른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김숨에게 있어 이 결여가 절대적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된다. 김숨이 다루는 문제의 절박함과 불가피함의 충돌은 『간과 쓸개』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소설 전반에 감도는 숨막히는 긴장의 근원이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자꾸만 똑같은 벽에 부딪히며 생성되는 긴장이다. 그러나 이 벽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모든 부딪힘과 반복이야말로 허무함과 무의미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김숨의 최근작 『국수』는 바로 이 지점에, 그녀가 기나긴 반복 끝에 발견한 하나의 대답과 함께 서있다. <br/> <br/> <br/> <br/>2. <br/> <br/> <br/> <br/>김숨의 작품 세계에서 『국수』가 갖는 의미를 바로보기 위해선 먼저 그녀가 서있던 막다른 골목의 풍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조금씩 부식되고 흩어져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밀도 있게 그려진 『간과 쓸개』에 수록된 단편 「모일, 저녁」에서 우리는 그 풍경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6개월 만에 신탄진에 있는 부모님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이 오랜만의 만남은 그 시작부터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준다. <br/> <br/> <br/> <br/>내가 갔을 때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연탄불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탄에 불을 붙이느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가지를 썰고 있었다. 어머니 또한 나를 흘끔 바라보기만 할 뿐 가지만 열심히 썰었다. 식탁 위에는 두부, 양파, 대파, 오이, 밀가루 봉지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태극제과점에서 사온 롤케이크와 우유를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br/> <br/>“전어를 구우려고 한다.” <br/> <br/>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53) <br/> <br/> <br/> <br/>화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치 전어를 굽고 가지를 써는 것이 6개월 만에 찾아온 딸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한다. 화자 역시 그러한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는 대신 “롤케이크와 우유를 식탁 한쪽에 조용히 놓아”둘 뿐이다. 이렇게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가족의 만남보다 더 전면에 배치되는 음식의 이미지들을 본다. 이 음식의 이미지들은 그것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넘친다.’ 화자의 부모가 음식을 하는 이유가 오랜만에 찾아온 딸을 반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를 목적에 대한 수단의 초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br/> <br/>이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상연되는 음식의 이미지들은 이렇듯 한결같이 어떤 종류의 ‘초과’를 포함한다. 그리고 화자의 어머니가 빌라 앞 도로에서 “은행을 줍다가 타이어를 한가득 실은 트럭에 치일 뻔했다”(60)는 일화는, 이 음식의 이미지들에서 배어나오는 섬뜩함의 정체를 밝혀준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도로에서 은행을 줍는 행동이 오히려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든다. 원래는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할 것들이 그 자신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처음에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인 척하지만 점점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며, 종국에는 거꾸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을 위해 복무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바로 그 사실을 감지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불안에 도달한다. <br/> <br/> <br/> <br/>“전 씨가 말이다<span class='quot0'>……</span> 두 손으로 뱀장어를 꽉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다들 손에 뱀장어를 한 마리씩 움켜쥐고서는 멀뚱히 서서는 전 씨가 죽어가는 것을 구경만 했지 뭐냐.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서<span class='quot0'>……</span>” <br/> <br/>“<span class='quot0'>……</span>” <br/> <br/>“나무토막처럼 꼼짝 않는 전 씨 몸뚱이 위에서 뱀장어가 얼마나 펄펄 날뛰던지<span class='quot0'>……</span>” (67) <br/> <br/> <br/> <br/>뱀장어를 움켜쥐고 죽은 전 씨의 일화는 이 불안의 실현을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이미지로 상연한다. 죽어서도 뱀장어를 쥐고 있는 전 씨의 손, 그리고 죽은 손에서 여전히 살아 날뛰는 뱀장어는 우리 삶의 중핵을 이루면서도 삶을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타자성에 대한 이중적인 현시이다. 중요한 것은 이 타자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56) 뱀장어를 “아무리 못해도 백 마리는 잡”(57)는 것과 같은 반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모든 반복은 본질적으로 반복을 위한 반복이다. 반복은 자신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별자리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도 별의 실재에 가닿지 못하듯, 우리는 반복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운명에 처해 있다. 반복은 모든 의미가 말소되는 지점이다. 고장난 테이프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목소리, 심벌즈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원숭이 인형 같은 것들이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완벽한 무의미를,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반복의 견고한 타자성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숨의 요지는 바로 이러한 반복이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 <br/> <br/>3. <br/> <br/> <br/> <br/>만약 반복이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을 도려내고 순수한 삶을 회복할 수는 없는가?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김숨에게 나의 상실이란 문제는 절박할 뿐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그녀의 탁월함은 손쉬운 거짓 해결책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역시 『간과 쓸개』에 수록된 단편「북쪽 방」에서, 김숨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br/> <br/>작품의 중심인물인 곽노는 「모일, 저녁」에서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던 상우와 같은 편에 있는 인물이다. 상우처럼 그는 “철광석을 닮”은(129) 북쪽 방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언뜻 삶을 철폐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은 정반대의 것을 목표로 한다. 곽노는 자신의 삶이 실제로는 자신과 무관한 반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삶은 그 실체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것으로 다가온다. 그가 “우주의 팽창은 곽노 자신을 더욱 미미한 존재로 만들 뿐”(126)이라고 말했을 때, 곽노는 자신의 안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며 스스로를 미미한 것으로 만드는 타자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br/> <br/>그는 이 모든 반복을 멈추고자 한다. “<span class='quot0'>월경이 일찌감치 말라버렸는데도</span>”(118) 오로지 습관적인 반복에 따라 “<span class='quot0'>다달이 선지로 한 끼니를 때우는</span>”(118) 아내와 반대로, 그는 “끊임없이 부동을 지향”(130)하며, “<span class='quot0'>필멸에 이르려는 육신의 과장을 조금도 원치 않는다.</span>”(130) 그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대상이 광물인 이유 역시 “<span class='quot0'>우주가 팽창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광물은 수축을 지향</span>”(134)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없이 수축되는 것, 그래서 이 무의미한 반복을 들어내고 그 속에 초라하게나마 남아 있는 자신의 삶을 건져내는 일이다. <br/> <br/>이러한 기획은 실현될 수 있는가? 「모일, 저녁」의 말미에서 화자는 바싹 탄 대가리만 남은 전어를 보며 아버지가 전어의 몸통을 혼자서 홀딱 먹어치운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그러나 곧 더 기묘한 의심이 뒤를 따라오는데, 그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대가리들뿐이었는지도 몰랐다. 몸통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대가리들뿐이었는지도”(82)라는 더 근본적인 의심이다. 여기서도 문제는 똑같다. 곽노의 기획은 반복이 초과한다고 상정되는 어떤 ‘순수한 삶’이란 개념을 전제한다. 하지만 통을 모두 비워도 밑바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은 넘쳐흐르는 타자성뿐이었다면? <br/> <br/>우리는 지금 넘치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즉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정상상태를 거치지 않고 과잉에서 곧바로 결여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 질문은 어딘가 이상하게 들린다. 넘쳐흐른다는 말은 분명히 어떤 정상적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젝은 과잉과 결여 사이의 이 기묘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태산을 예로 든다(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 역, 새물결, 2013, 346쪽). 만약 태산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티끌 하나를 덜어내도 여전히 태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티끌은 태산에 대하여 과잉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태산을 ‘넘치는’ 모든 티끌을 제거하고 나면 거기엔 태산 또한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과잉이야말로 태산의 본질을 이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 속담에서도 비슷한 요점을 찾을 수 있다. ‘요란하다’는 과잉은 결국 ‘빈 수레’라는 결여가 표현되는 형식이다. 과잉은 언제나 결여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삶이 부풀려졌다는 느낌은 순수한 삶의 존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 삶 같은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예감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지 과잉뿐이며, 이 과잉을 제거하면 우리는 곧바로 삶 전체를 잃고 결여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br/> <br/> <br/> <br/>그리고 여기에 김숨이 최종적으로 봉착한 역설이 있다. 반복은 분명 너무나도 낯선 타자성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이는 김숨의 작품에서 무의미한 반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왜 하필이면 음식이나 심장, 출산 같이 우리의 육체와 직결된 대상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준다. 곽노의 조카가 난데없이 “70세를 기준으로 하면 평생 26억 회를 뛴다”(147)고 하는 심장에 대해 말을 꺼내는 순간, 통상 생명의 활달한 힘을 상징하는 심장은 한순간에 기계적인 반복을 거듭하는 기괴한 사물로 형상화된다. 북쪽 방에 찾아온 곽노의 조카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146)는 이유를 묻는 곽노에게 자신의 “두려움”(148)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김숨은 특정한 종이 자신을 반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출산이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점에서 출산은 주체의 통제 아래 있는 자유로운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체의 존재 자체가 출산이라는 반복-과정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요소로 전락한다. 나의 존재가 무너지고 있다 느낄 때, 육체는 가장 견고하고 든든한 최후의 도피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김숨은 정확히 그 최후의 도피처에서부터 시작되는 붕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br/> <br/>결국 완전한 수축에 이르려는 곽노의 기획은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곽노는 “북쪽 방이 벽면들로 막혀 있지만, 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될 수 없음을”(143) 알고 있으며, “북쪽 방문이 저토록 허술하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145)럽다고 말한다. 그가 아무리 “부동을 지향”하더라도, 북쪽 방의 거울은 “형체를 실체보다 과장할 뿐만 아니라, 기이하게 일그러뜨”(130)린다. 곽노가 끊임없이 담벼락을 무너뜨리려는 쇠공의 환청을 듣는 이유 역시, 모든 팽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머물고자 하는 그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가장 깊은 곳에서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 <br/> <br/>4. <br/> <br/> <br/> <br/>이제까지 김숨의 작업은 이 막다른 골목의 윤곽을 그리는 일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부딪쳐가며 끔찍한 신음과 함께 얻어낸 지도였고, 그 지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문제는 일단 그 지도를 완전히 그리는 일이 완수되고 나면 더 이상 부딪쳐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끊임없는 부정과 항의와 신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시간 앞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인 것처럼 보인다. 김숨의 가장 최근 단편집인 『국수』에 수록된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이나 「막차」 같은, 유사한 언어로 유사한 풍경을 그려낸 작품들은 그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학은 언제나 모든 말이 바닥난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는 말이다. 김숨은 자신이 그려낸 선연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어이 새로운 대답을 길어올리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수』는 김숨의 작품세계에서 하나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전환의 지점이 된다. <br/> <br/>이 전환을 지시해주는 작품 중 하나인「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언뜻 김숨이 이제까지 다뤄온 주제의 또 다른 변주인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작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노인이다. 영하 13도의 겨울밤, 보일러까지 고장난 노인의 방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지니고 있는 존재는 어느 날 아내가 데려온 개다. 노인은 “<span class='quot1'>개새끼와 한이불을 덮고 자느니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span>”<182>다고 말할 만큼 개를 혐오하며, 자신과 개 사이에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162> 건지 모르겠다며 선을 긋는다. 그럼에도 노인의 생사는 전적으로 개가 가진 온기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낯설고 끔찍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전부’라는, 김숨이 다뤄온 타자성에 대한 익숙한 구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타자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노인의 태도 역시 익숙한 것이다. <br/> <br/>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숨이 전작들과는 다른 시점(時點)에서 작품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그녀의 작품들에서 ‘나’의 존재는 낯선 타자성에 의해 침식되고 마침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결과는 언제나 강렬한 예감으로만 나타났었다. 그 예감에 대한 일말의, 그리고 처절한 부정은 김숨 소설을 지배하는 긴장의 근원이며, 또한 이 예감이 이미지의 형식을 빌려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김숨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수명이 진즉에 다한 보일러”<162>를 “억지로”<162> 돌릴 때 골목 밖까지 울리는 굉음과도 같았다. <br/> <br/> <br/> <br/>하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 예감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럭저럭 버텨내던 보일러”<162>는 “닷새 전”<162>에 이미 고장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위협은 작중 인물이 예리하게 감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노인의 생명을 앗아갈 듯한 영하의 추위와 철저한 고립으로 실재한다. <br/> <br/>이는 김숨이 힘겹게 내딛은 한 걸음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이때까지 그녀가 애써왔듯, 절망의 바깥이 아니다. 오히려 그 걸음은 더 깊은 절망의 한복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야 김숨은 이제까지 다가서지 못했던 풍경을 발견한다. <br/> <br/> <br/> <br/>“<span class='quot0'>개의 밤이라고 있다지 뭐예요.</span>” <br/> <br/>그로부터 돌아누우면서 아내가 차분히 중얼거렸다. <br/> <br/>“뭔 밤?” <br/> <br/>“개의 밤요, 개<span class='quot0'>……</span>” 돌아누워서인가 그는 아내의 말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낯설고 가물가물하기만 했다. “<span class='quot0'>사냥을 나간 에스키모들이 얼음 벌판에서 개를 끌어안고 잠드는 밤을 개의 밤이라고 한대요.</span>” <br/> <br/>“별 희한한 밤도 다 있군.” <br/> <br/>“얼어죽지 않으려고요.” <br/> <br/>“얼어죽지 않으려고 개를 끌어안고 잔단 말이야? 에스키모들이나 그러라고 해. 나는 차라리 얼어 죽고 말 테니.” <br/> <br/>“천지사방 어둠과 얼음뿐이라고 생각해봐요. 온기를 구할 게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말이에요.” <br/> <br/>아내는 개를 더 꼭 끌어안았다. <182> <br/> <br/> <br/> <br/>“천지사방 어둠과 얼음뿐”인 밤, 개를 끌어안고 잠든 에스키모들의 이미지는 삶에 대한 어떤 은유로 작동하기 전에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나 이 장면이 그토록 강렬한 울림을 갖는 진정한 이유는 이 이미지가 발화되는 방식에, 다시 말해 아내가 이 이미지를 하나의 은유로서 ‘끌어안는’ 방식에 있다. 노인에게 에스키모들의 이야기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어둠 속 끝도 없이 펼쳐진 얼음 벌판은 「북쪽 방」의 곽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없이 팽창하며 자신을 미미한 존재로 만들 뿐인 우주와 같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타자성에, 개의 몸뚱이에 구차하게 들러붙는 것이다. 그것은 아름답기는커녕 우리가 마주한 패배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br/> <br/>그러나 이 지점에서 아내는 결정적인 전환을 성취한다. 그 전환은 노인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던 것을 발견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이 저 이미지에 은밀하게 덧씌워놨던 무엇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은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서 패배를 발견하는데, 그에게 자신의 순수한 삶은 언제나 어떤 타자성에 의해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서 노인에게 순수한 삶은 ‘잃어버린 어떤 것’으로, ‘내가 언젠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여전히 완전하게 포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즉 노인의 전략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실이라는 틀 안에 넣어둠으로써 지키는 것이었다. 아내가 덜어내는 것은 정확히 저 상실이라는 틀이다. 아내는 상실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 말하자면 “상실의 상실”을 감수한다(이 개념과 관련된 논의는 슬라보예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한보희 역, 새물결, 2008, 220-221쪽을 참고했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관점이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br/> <br/> <br/> <br/>문제는 여기 걸려 있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사실이다. 물론 아내의 전환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행위이다. 우리가 실제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순수한 삶을 가져본 적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전환은 지극히 어려운데, 비록 환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해도 나의 순수한 삶이라는 관념은 실재하는 어떤 대상보다도 더 매혹적이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끝끝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폐허나 마찬가지인 입속을 내보인다는”<173> 것,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의 “치욕스러”<173>움을 견디는 일이었다. 이 근본적인 수치심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내 안의 타자성은 나의 자리를 빼앗은 어떤 것이라는 외관을 벗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타자성을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것으로, 비록 나 자신은 아닐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생명”<169>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의 제목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내는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받아들이는 겸허함과 함께 이 밤을 성스러운 순간으로서 명명한다. 그녀는 이 이미지를, 자신의 품 안의 개를, 결코 자신이 아닌 타자성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자 허락된 유일한 삶으로서 “더 꼭 끌어안”는다. <br/> <br/> <br/> <br/>5. <br/> <br/> <br/> <br/>「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나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 새로운 탄생의 밤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표제작인 「국수」는 어떻게 나의 소멸이 나의 진정한 탄생의 순간이 되는지를 일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그려낸다. <br/> <br/>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것은 화자와 그녀의 새어머니 사이의 관계이다. 화자는 새어머니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60>으며, “그토록 부인하고 멀리하려”<60> 애써왔다. 그녀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살 한 점, 뼈 한 가닥 섞이지 않은”<60> 낯선 타인이 “내 운명을 지배”<60>한다는 느낌이다. 이 느낌은 곧 그녀가 스스로를 지탱해줄 근거를 어디서도 찾지 못했음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틀어쥐고 있는 낯선 타자성 말고는 어떤 순수한 삶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머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진짜 어머니’,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생생한 존재의 보증서였다. <br/> <br/>따라서 화자의 새어머니에 대한 부인은 본질적으로 그녀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결여에 대한 부인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새어머니는 화자가 느끼는 결여를 투사하는 상징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데, 이는 새어머니 역시 화자와 같은 욕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이 만드는 “알고명은커녕 감자나 호박, 파 한 조각 들어 있지 않”<54>은 국수와 같은 사람이다. 국수라면 으레 들어갈 법한 재료들을 ‘비워가며’ 최소한의 재료만을 사용하는 그녀의 조리법은, 「북쪽 방」의 곽노가 시도했던 한없이 수축되기의 기획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워내기가 또한 자신의 순수한 삶에 대한 무엇보다 강렬한 욕망의 표현임을 보았다. 화자에게 ‘진짜 어머니’가 부재한다면, 새어머니에게 부재하는 것은 ‘진짜 딸’이다. 화자의 말대로 국수는 “자식이란 끈 대신 밀가루로 반죽을 개어 끈들을 만들어”<69> 자신의 딸과,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새어머니의 바람이 담긴 음식이다. <br/> <br/>우리는 이러한 바람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화자는 국수를 만들며 ‘진짜 어머니’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자신을 ‘낳은’ 사람은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그것은 새어머니가 바랐던 완전한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역설적으로 화자는 누군가의 ‘진짜 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화자는 국수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새어머니에게 다가가지만,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도 좁힐 수 없는 최소한의 거리가, 결코 메워지지 않는 결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br/> <br/>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실패와 마주 한 순간, 화자는 그 실패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에 도달한다. 그것은 “한참 전부터 내 안 어딘가에서”<78> 끓고 있었던 무언가가 “당신의 부엌이 아닌 그 누군가의 부엌에서도”<78> 끓고 있을 것이란 사실의 자각이다. 우리는 각자의 결여 속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지만, 자신의 결여 속에서 외따로 괴로워한다는 바로 그 지점을 경유하여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구름이 바위처럼 무거워지고 바람이 성난 염소처럼 사납게 휘몰아치는 밤새, 수천 마리의 나비를 제 안에 꼭 품고 있다가 날려보내던”<78> 나무 밑동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제 그녀는 ‘비워내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순수한 삶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나마 남은 밑동 속이 동굴처럼 비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나비를 품을 수 있었겠”<78>냐는 화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비어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아름다움이다. <br/> <br/>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끊어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연결에 대한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인 설득과 만난다. 화자는 혀에 침투한 암 때문에 괴로워하는 새어머니를 위해 손수 뽑아낸 국숫발을 뚝뚝 끊어낸다. 그것은 화자가 새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를 거부하던 몸짓과 같다. 그러나 오래전 화자가 국수를 끊어내며 자신의 순수한 삶을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서 여전히 욕망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녀는 그러한 끊어냄이 자신의 욕망을 이미 실현하는 것임을 안다. 진정한 연결은 끊어짐 속에서만 있으며, 순수한 삶이란 그것의 철저한 결여 그 자체이다. 정확히 그런 한에서, 비로소 김숨은 그녀가 그토록 염원하던 것,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br/> <br/> <br/> <br/>6. <br/> <br/> <br/> <br/>자명한 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질문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바로 그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 너무도 많은 자명한 것들을 먼저 부정해야만 했다. 데카르트가 타자에 대해 소홀했다는 말 역시 무성의한 비판이다. 왜냐면 그는 타자에게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타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br/> <br/>김숨의 상황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물론 그녀는 그 탐구를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진행한다. 즉 그녀의 소설은 언제나 자본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쓰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 부각시켜 다루지는 않았다. 말 그대로 김숨의 소설에서 자본주의는 전제로서 고정된 지점일 뿐, 아직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숨 소설에서 자본주의 혹은 외적 사회에 대한 인식은 조금은 추상적이며 전형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다시 말해 김숨의 소설은 매일 새벽까지 뱀장어를 잡아야만 지탱되는 생활이 어떻게 ‘나’의 존재를 부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만, 부유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주체가 해체되는지, 해체된다면 그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지 않는다. 김숨 소설의 전형적인 풍경 중 하나인 파탄에 이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br/> <br/>이는 그간 김숨의 소설이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를 김숨 소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는 없다. 공정을 기해 말한다면 『국수』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김숨에게 내 밖의 사회는 아직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그녀가 출발지로 삼은 지점이 있을 뿐이다. 그곳으로부터의 치열한 추궁 끝에 김숨은 마침내 텅 비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가 비어있음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 ‘나’를 찾기 위한 내적 침잠은 역설적으로 자신 안의 빈 공간을 이루는 타자들의 발견으로, 타자들을 내 존재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그녀는 우리에게 결여의 존재론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리고 비어있는 것을 비워두라는 미학적 태도를 제시한다. <br/> <br/>그렇다면 김숨이 획득한 것은 하나의 마침표이다. 그것은 말해질 것이 모두 말해졌음을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마침표이다. ‘결여의 존재론’은 김숨에게 타자로 뻗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제공한다. 그녀에게 나 자신의 탐구와 타자의 탐구는 더 이상 상반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둘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국수』에 수록된 「대기자들」과 같은 작품은 이미 그녀가 새로운 질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김숨의 독자로서. 그녀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의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br/> <br/> <br/> <br/>-김숨 작품의 본문을 인용할 경우 『간과 쓸개』, 문학과지성사, 2011의 쪽수는 ( )로, 『국수』, 창비, 2014의 쪽수는 로 표기하였다. 두 번 이상 인용될 때는 표기하지 않았다. <br/> <br/> <br/> <br/>강보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8.txt

제목: 고대 구로병원, 최첨단 로봇수술기 '다빈치 Xi' 도입  
날짜: 201601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2232106727  
본문:   <br/> <br/> <br/>고대 구로병원(원장 백세현)은 현존 최고사양의 로봇수술기 '다빈치 Xi(da Vinci Xi)'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첫 수술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br/> <br/>고대 구로병원은 암병원을 비롯한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수술분야에 로봇수술 시스템을 적용해 최소침습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로봇수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br/> <br/>이로써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모두가 로봇수술기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2007년 선도적으로 로봇수술기를 도입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안암병원과 노하우를 공유해 3개 병원 어디에서나 국내최고 수준의 로봇술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br/> <br/>더욱이 이번에 고대 구로병원이 도입한 '다빈치 Xi'는 현존 최고사양으로 고려대의료원의 로봇수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 <br/>'다빈치 Xi'는 기존기기 보다도 더 정교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로봇 팔은 기존 기기에 비해 5cm 더 길어지고 6cm 가늘어졌으며, 움직일 수 있는 각도도 기존 149°에서 177°로 확대돼 로봇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더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다. <br/> <br/>또한 로봇 팔 어디에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의료진의 시야확보가 용이해 복잡한 수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와 흡사한 초고화질의 3D 영상정보를 제공해 수술 부위를 더욱 선명하게 보며 수술할 수 있다. <br/> <br/>로봇수술은 사람의 손목처럼 관절이 있는 로봇 팔을 이용해 최소의 절제부위로 신체내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3D 카메라와 소형 수술기구 등을 이용해 선명한 시각 확보와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 보다 통증, 출혈, 흉터, 감염위험 등을 감소시켜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뿐만 아니라 손 보다 정교한 로봇팔로 미세한 암 조직 제거 등이 가능해 복잡한 대형 수술에서도 성공적인 결과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49.txt

제목: '꽃청춘 in 아이슬란드 ' 정우,정상훈,조정석 첫끼 햄버거에도 뭐든 '초긍정의 아이콘 되려나?쓰리스톤즈'  
날짜: 2016010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225630991  
본문: ['꽃청춘' 정우,정상훈,조정석 첫끼 햄버거에도 뭐든 '초긍정의 아이콘 되려나?쓰리스톤즈'사진=방송화면 캡쳐]'꽃청춘' 정우,정상훈,조정석 첫끼 햄버거에도 뭐든 '초긍정의 아이콘 되려나?쓰리스톤즈' <br/> <br/>'꽃청춘' 멤버들이 햄버거를 먹으면서도 즐거워했다. <br/> <br/>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1회에는 멤버 조정석, 정우, 정상훈이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난 첫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암스테르담에서 경유를 하기로 한 멤버들은 공항에서 회의를 거쳐, 한국을 떠난 지 15시간만에 밖에 나왔다. <br/> <br/>이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멋진 암스테르담의 경치에 "여기 좋다"라며 만족스러워했다. <br/> <br/>이어 늦은 밤, 문을 연 곳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밖에 없어 결국 그곳으로 향했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햄버거임에도 "여기 맥도날드가 맛있는데? 괜찮은데?"라며 초긍정 마인드를 보였고 "우리가 허기가 졌나봐"라며 즐거워했다. <br/> <br/>'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는 정상훈, 조정석, 정우, 강하늘 4인방이 아이슬란드로 떠난 리얼 여행기를 그린다. '친절한 칭따오' 정상훈, '브레인 납뜩이' 조정석, '상바보 쓰레기' 정우, '엉뚱발랄 막내' 강하늘이 색다른 케미를 보인다.  <br/> <br/>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5분 방송된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0.txt

제목: 갑상선암수술 건수 급감, “초음파 검사 종합검진에서 빼야”  
날짜: 20160101  
기자: 이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145531596  
본문: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갑상선암의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갑상선암의 수술 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치라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갑상선암 수술 건수는 2010년 3만3234건에서 2012년 4만2969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4만27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3만1464건으로 20% 이상 급감했다. 갑상선암 수술건수가 가장 많은 해에는 5만3000건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수술건수가 1만2167건으로 집계돼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br/> <br/>한국의 높은 갑상선암 진단·수술 건수는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조롱거리가 됐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폐, 자궁, 결장 등 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갑상선, 전립선, 유방암 등은 조기진단과 수술이 수명을 늘려준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사실은 20세기 초반 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때부터 알려진 일인데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진단·수술 건수가 많은 것은 ‘과학에 대한 미신’이다”고 꼬집은 바 있다. <br/> <br/>이처럼 과다한 갑상선암의 진단과 수술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등 의사는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를 조직하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발생이 52.8명으로 미국(13.2명), 영국(3.2명), 일본(4.4명)에 비해 4~16배 정도 많지만 갑상선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2~0.5명으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갑상선암의 진단이 과다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br/> <br/>국가암검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암 검진 지침에서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일상적인 갑상선 초음파 검진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이미 갑상선에 생긴 혹을 발견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초음파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갑상선학회에서도 5㎜ 이하의 갑상선 결절(덩어리)에 대해서는 세포검사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다. 하지만 의사연대는 “<span class='quot0'>국내에서 수술한 갑상선암의 30%가 5㎜ 이하였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학회는 자신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span>”고 꼬집었다. <br/> <br/>의사연대의 서홍관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성선암 진단건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적정 갑상선암 진단건수는 1년에 2500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다</span>”며 “<span class='quot1'>종합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제외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1.txt

제목: 감자 많이 먹으면 당뇨병 위험 높아, 프렌치 프라이 가장 심해  
날짜: 20160101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135508457  
본문: 감자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찌거나 구운 감자보다는 썰어서 기름에 튀긴 ‘프렌치 프라이’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의학 전문 사이트 메드스케이프 등이 1일 보도했다. <br/> <br/>일본 오사카 암 및 심혈관질환 예방센터의 무라키 이사오 박사 팀은 미국의 간호사나 의사 등 보건 관련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대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당뇨학회 ‘당뇨관리’ 최신호에 게재했다. <br/> <br/>이 논문에 따르면, 1주일에 2~4회 감자를 먹은 사람들은 1회 이하 먹은 사람들에 비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평균 7%, 1주 7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33%나 높아졌다. <br/> <br/>특히 감자를 잘게 썬 뒤 기름에 튀긴 프렌치 프라이가 가장 건강에 좋지 않았다. <br/> <br/>1주 3회 감자를 먹은 사람 중에서 굽거나 찌거나 으깬 감자를 먹은 사람이 당뇨 걸릴 위험은 1회 이하 섭취자에 비해 4% 높아진 반면 프렌치 프라이로 먹은 사람의 경우 19% 높았다. <br/> <br/>이사오 박사는 “<span class='quot0'>미국 정부의 건강식 지침엔 감자가 채소로 분류돼 있으나 감자는 곡식처럼 탄수화물 공급원의 하나이며, 채소라기보다는 흰쌀처럼 정제한 곡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이번 연구가 시사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감자에는 전분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은 적다</span>”며 “<span class='quot0'>질 낮고 양이 많은 탄수화물(당질)은 2형 당뇨와 관계있으며, 게다가 뜨거운 전분은 소화가 빨리돼 혈액 속 포도당 수준을 급격히 올라가게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탄수화물(당질) 섭취원으로 가공하지 않은 통곡식, 견과류, 과일, 채소 등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br/> <br/>미 농무부의 ‘식생활지침’(MyPlate)이나 ‘여성과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리뷰’ 등은 감자를 채소' 분류하는 반면 영국 국가보건의료기구인 국민건강보험(NHS)의 ‘식생활지침’(Eatwell plate)은 설명자료에서 감자를 ‘곡물’로 분류한다. <br/> <br/>이번 연구에서 감자 총섭취량에 감자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데이터들에 사용된 설문이 감자칩과 옥수수칩(콘칩) 섭취를 한데 묶어서 물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2.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전문의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치료 가능"  
날짜: 2016010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002227065  
본문: 엄앵란 유방암 (사진= 채널A)엄앵란 유방암, 전문의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치료 가능" <br/> <br/>배우 출신의 방송인 엄앵란(79)이 방송 도중 암 판정을 받았다. <br/> <br/>지난해 12월 31일 채널A에 따르면 엄앵란은 고정 출연 중인 채널A 건강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촬영 중 오른쪽 유방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녹화에 참여한 노동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하지만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br/> <br/>노 교수는 또한 "대개 나이가 들면 유방암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노인층에서 말기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기에 암이 발견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br/> <br/>엄앵란은 갑작스러운 유방암 판정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나머지 녹화를 끝내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살폈다는 후문. <br/> <br/>한편 ‘나는 몸신이다’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방송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3.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방송 녹화중 발견.."추가진단 필요"  
날짜: 201512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1000154630  
본문: =[엄앵란 유방암, 방송 녹화중 발견.."추가진단 필요"사진=방송화면 캡쳐] <br/>엄앵란 유방암, 방송 녹화중 발견.."추가진단 필요" <br/> <br/>배우 엄앵란(79)이 TV 프로그램 녹화 중 유방암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br/> <br/>31일 채널A 관계자에 따르면 엄앵란은 고정 출연 중인 채널A 건강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촬영 중 오른쪽 유방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관계자는 "내년 1월 방송되는 암특집 '유방암' 편을 위해서 출연진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사전 녹화가 진행됐고 지난 29일 스튜디오 녹화에서 엄앵란의 진단 결과가 공개됐다"며 "방청객을 비롯한 MC, 패널 등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엄앵란은 "80살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며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서 녹화를 마무리하자"며 담담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폈다는 후문이다.  <br/> <br/>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진단에 참여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는 녹화장에도 나와 엄앵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노 교수는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행히 프로그램 녹화로 조기에 암이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이 여부 등 추가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br/>  <br/>관계자는 "엄앵란의 수술 여부나 시기, 활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가 검진 결과가 나온 뒤에나 정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br/>현재 '나는 몸신이다'를 비롯해 MBN '동치미' 등에 출연하며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4.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방송 中 판정 받아…‘충격’ 녹화중단  
날짜: 2015123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35240893  
본문: 엄앵란 유방암, 방송 中 판정 받아…‘충격’ 녹화중단 사진=채널A 나는 몸신이다엄앵란 유방암, 방송 中 판정 받아…‘충격’ 녹화중단 <br/> <br/>엄앵란이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br/> <br/>엄앵란은 지난 29일 진행된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유방암 특집 녹화에 출연해 검진을 받고 유방암 확진 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한편, 엄앵란의 유방암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0'>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 며 조심스레 사실을 전했다. <br/> <br/>또한, 교수는 “<span class='quot1'>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특히 방청객 50여명과 진행자 10여명은 엄앵란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잠시 녹화가 중단된 것이며, 이어 엄앵란은 “<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5.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판정, 방송 도중 판정 받아…“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  
날짜: 2015123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25206551  
본문: 엄앵란 유방암 판정, 방송 도중 판정 받아…“<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span></span>”사진=채널A 나는 몸신이다엄앵란 유방암 판정, 방송 도중 판정 받아…“<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span></span>” <br/> <br/>엄앵란이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엄앵란은 지난 29일 진행된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유방암 특집 녹화에 출연해 검진을 받고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br/> <br/>이날 엄앵란의 유방암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0'>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 며 조심스레 사실을 전했다. <br/> <br/>이어 교수는 “<span class='quot1'>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이날 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한 방청객 50여명과 진행자 10여명은 엄앵란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잠시 녹화가 중단된 것이며, 이어 엄앵란은 “<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span></span>”며 “<span class='quot2'>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고 차분하게 답한 것으로 전했다. <br/>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6.txt

제목: 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나는 괜찮다”  
날짜: 2015123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15140276  
본문: 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나는 괜찮다” 사진=채널A 나는 몸신이다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나는 괜찮다” <br/> <br/>엄앵란이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br/> <br/>엄앵란은 지난 29일 진행된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유방암 특집 녹화에 출연해 검진을 받고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이날 엄앵란의 유방암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0'>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 며 조심스레 전했다. <br/> <br/>이어 교수는 “<span class='quot1'>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날 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한 방청객 50여명과 진행자 10여명은 엄앵란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잠시 녹화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어 엄앵란은 “<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고 덧붙였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7.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녹화 도중 악성 종양 발견 "노인층에서도 종종 발견"  
날짜: 2015123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13208758  
본문: 엄앵란 유방암 / 사진=채널A  <br/> <br/>엄앵란 유방암, 녹화 도중 악성 종양 발견 "노인층에서도 종종 발견" <br/> <br/>엄앵란 유방암 <br/> <br/>배우 엄앵란이 방송 녹화 도중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br/> <br/>엄앵란은 지난 29일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나는 몸신이다’ 녹화 과정에서 오른쪽 유방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br/> <br/>의료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span class='quot0'>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대개 나이가 들면 유방암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노인층에서 말기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 녹화 중 조기에 암이 발견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br/> <br/>엄앵란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방청객들과 진행자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잠시 녹화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엄씨는 “<span class='quot1'>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고 덤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 <br/> <br/>한편 엄앵란의 유방암 소식이 담긴  ‘나는 몸신이다’ 녹화분은 오는 2016년 1월 13일 밤 11시 방송 예정이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8.txt

제목: 유방암 엄앵란, 과거 "문희와 남편 신성일의 불륜 현장 습격" 고백  
날짜: 20151231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12153588  
본문: 유방암 엄앵란유방암 엄앵란, 과거 "문희와 남편 신성일의 불륜 현장 습격" 고백 <br/> <br/>배우 출신의 방송인 엄앵란(79)이 종합편성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진을 받다가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이에 엄앵란이 주목받는 가운데 엄앵란이 남편 신성일에 대해 폭로한 발언이 눈길을 모은다. <br/> <br/>과거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 문희와 함께 출연한 엄앵란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동료 배우 문희와 함께 호텔 습격에 나선 일화를 털어놓은 바 있다. <br/> <br/>엄앵란은 "안양 유원지 호텔 습격사건 기억 나냐. 신성일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습격한다고 문희와 안양 유원지를 다 뒤졌다"고 폭로했다. <br/> <br/>이어 엄앵란은 "다른 곳을 다 뒤졌었는데 제일 호젓한 곳이 안양 유원지라 증거를 잡기 위해 문희와 길을 나섰다. 결국 잡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엄앵란은 녹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으나 80세 가까운 고령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위를 안심시키며 녹화를 끝냈다고 한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59.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확진 소식에…“나는 괜찮다” 차분한 심경 전해  
날짜: 20151231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10123280  
본문: 엄앵란 유방암, 확진 소식에…“나는 괜찮다” 차분한 심경 전해 사진=채널A ‘나는 몸신이다’엄앵란 유방암, 확진 소식에…“나는 괜찮다” 차분한 심경 전해 <br/> <br/>엄앵란 유방암 확진 소식이 화제다. <br/> <br/>엄앵란은 지난 29일 진행된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유방암 특집 녹화에 출연해 검진을 받고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날 엄앵란의 유방암 검사를 담당한 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대한암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0'>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 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 <br/> <br/>이어 교수는 “<span class='quot1'>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한편, 이날 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한 방청객 50여명과 진행자 10여명은 엄앵란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잠시 녹화가 중단했으며, 엄앵란은 “<span class='quot2'>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0.txt

제목: 엄앵란 유방암 확진 판정, 방송 도중 소식 듣고 '반응은?'  
날짜: 2015123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10122164  
본문: 엄앵란 유방암 / 사진=MBN `동치미` <br/>엄앵란 유방암 확진 판정, 방송 도중 소식 듣고 '반응은?' <br/> <br/>엄앵란 유방암 <br/> <br/>배우 엄앵란이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29일 한 종합편성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방암’을 주제로 녹화를 진행하던 도중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오른쪽 유방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br/> <br/>이날  의료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span class='quot0'>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날 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한 방청객 50여명과 진행자 10여명은 엄씨의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잠시 녹화가 중단되었다는 후문. <br/> <br/>한편 엄앵란은  “<span class='quot1'>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녹화를 끝내자</span>”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1.txt

제목: [전상일의건강解] 100살까지 살려면 걸으세요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04154294  
본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배달 받아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출처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걷기의 중요성을 매우 잘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한다. 히포크라테스가 “<span class='quot0'>걷기는 남성에게 최고의 보약이다</span>”라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br/> <br/>걷기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입증한 연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걷기는 현대인의 주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걷기는 인체의 엔진인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걷는 사람은 심장발작 및 여타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뛰기는 심장과 관절에 부담이 되지만 걷기는 오히려 심장과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걷기는 골밀도를 높이고 골손실을 줄여준다.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유방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 예방에 좋다는 건 불문가지이다. 걷기는 예상 밖의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체지방을 줄여 몸매를 예쁘게 하고, 노년기의 신체장애를 예방한다. 젊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노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몸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인 채 걷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똑바로 서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복부는 모으고, 팔과 어깨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발은 앞부분이나 중간이 아닌 발끝이 먼저 땅에 닿도록 한다. 보폭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일부러 넓히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자세가 흐트러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걸을 때와 다른 근육을 발달시키고 운동 강도와 에너지 소모가 더 크다. 하지만 뒤로 걷다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약간 경사진 곳에서 뒤로 걸어 올라가면 안전하게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옷과 신발은 가볍고 공기가 통하는 게 좋다. <br/> <br/>걷기 운동을 하는 곳의 대기오염 상태는 꼭 확인해야 한다.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 스모그로 얼룩진 지역에서의 걷기는 자해와 같다. 걷기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호흡량이 늘어나 오염된 공기를 더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걷기를 운동으로 하려 할 때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좋은지 묻는다면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하라고 권해드린다. 공기가 오염된 지역에서는 새벽에 기온역전 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지표면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어 해로울 수 있고, 자기 직전에 걷기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나고 흥분되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걷기운동을 하면 몸이 적당하게 피곤해져 수시간 뒤에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br/> <br/>병신년 새해에는 행보(行補)를 누려보자. 한 시간을 걸으면 수명이 두 시간 늘어난다고 한다. 걷기는 음식(食補)보다 몸에 좋은 보약이다. 문명의 발달로 걷는 시간이 점점 줄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는 현대인에게 걷기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br/> <br/>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소장·둘다북스 대표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2.txt

제목: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보호는 먼 길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203133086  
본문: 공유경제에도 명과 암이 병존한다. ‘우버 드라이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지위와 노동의 질 문제다. 일종의 ‘차량 공유’인 우버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하는 방식은 택시회사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플랫폼 회사에서 수수료 등 정책을 바꿀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다. <br/> <br/>뉴욕타임스는 최근 우버, 사이드카 등 이른바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인 사업가’라기보다 ‘작은 노동자’로 불려야 한다.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얻는 대신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뜻이다. <br/> <br/>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은 얼마 전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우버 운전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업체들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사들 가운데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br/> <br/>하지만 우버 측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우버 기사들 중 일부도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br/> <br/>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버 택시의 불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전자의 권리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br/> <br/>공유경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기준, 근로자 차별 금지법,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의 평가지표 때문에 고객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br/> <br/>공유경제가 새로운 개념인 만큼 이에 맞는 새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유경제 시스템에 속한 대부분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r/> <br/>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관련 국제포럼에서 데이비드 기어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 플랫폼 확산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며 “기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법들이 공유경제의 P2P(개인 대 개인)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적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3.txt

제목: '나는 몸신이다' 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끝까지 녹화 진행  
날짜: 20151231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193100028  
본문: ['나는 몸신이다' 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끝까지 녹화 진행 사진=방송화면캡쳐]'나는 몸신이다' 엄앵란,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끝까지 녹화 진행 <br/> <br/>엄앵란이 방송 도중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br/> <br/>31일 채널A에 따르면 엄앵란은 고정 출연 중인 채널A '나는 몸신이다' 촬영 중 오른쪽 유방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서울대병원 노동영 외과 교수는 엄앵란의 몸 상태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부분절제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br/> <br/>엄앵란은 갑작스러운 유방암 판정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80세 넘게 살았는데 암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괜찮으니 다들 기운 내 나머지 녹화를 끝내자"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살폈다고 한다. <br/> <br/>종합건강버라이어티 쇼 '나는 몸신(神)이다'는 직접 개발한 건강법을 통해 몸을 다스리는 데 성공한 '몸신'들의 건강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4.txt

제목: 엄앵란, 방송 녹화 중 유방암 판정  
날짜: 2015123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163032535  
본문: 배우 출신의 방송인 엄앵란(79)이 종합편성채널의 건강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진을 받다가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br/> <br/>악성 종양이 발견된 곳은 오른쪽으로 엄앵란의 딸이자 매니저인 강수화는 "추가 검사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할 것"이라며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부분절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엄앵란은 녹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으나 80세 가까운 고령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위를 안심시키며 녹화를 끝냈다고 한다. <br/> <br/>앞서 지난 6월 팔순을 맞은 엄앵란은 남편인 배우 강신성일과 '청바지 파티'를 열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5.txt

제목: '부작용 크게 줄이는 유방보형물 개발' 국책연구과제 선정  
날짜: 2015123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113829635  
본문: 여성 주요 암종별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br/>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3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건강검진의 정착 및 조기 검진환자의 증가 등으로 남녀 모두에서 급격히 증가한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는 위암 환자가,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 환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br/> <br/>그러나 남성 위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것과 비교해 여성 유방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1999년부터 매년 평균 약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br/> <br/>유방암의 치료법은 다른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외과적 수술을 통해 수술 부위를 제거하는 절제술인데, 문제는 유방암 수술이 ‘여성의 상징’인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데다 수술 흔적을 줄이기가 어려워 많은 환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br/> <br/>◆유방재건술, 2015년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에 포함돼 건강보험 적용 <br/>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미용 목적이 아닌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한해 수술 후 가슴 부위에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제거된 유방의 모양을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유방 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br/> <br/> 보형물 부작용(구형구축)으로 인한 유방 뒤틀림 현상그러나 ‘유방 재건술’시 삽입하는 실리콘은 신체 내에 외부 물질의 삽입으로 인한 이물 반응(Foreign Body Reaction)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이러한 경우 보형물 주변부에 심각한 섬유화(fibrosis)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술까지 요구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환자의 약 28%로 1/4이 넘는다는 것이다. <br/> <br/>◆유방 보형물에 의한 섬유화 부작용 빈번, 해결 위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 성과 있어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섬유화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구형 구축(Capsular Contracture)을 억제하는 약물을 탑재한 보형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는데, 유방재건술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br/> <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br/> 허찬영 교수 <br/>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허찬영 교수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섬유화 억제 기능성 유방보형물 개발’이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미래융합의료기기 중점 개발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국내 연구진 및 산업체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r/> <br/>◆보건복지부 미래융합의료기기 중점 지원과제로 ‘섬유화 억제 기능성 유방보형물’ 선정 <br/>이번 국책연구의 총괄책임은 분당서울대병원 허찬영 교수가 맡아 보형물 개발 전반을 감독하게 되며, 임상 실험을 통해 보형물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증명하는 것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섬유화 억제를 위한 보형물 재질 및 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고원건 교수 연구팀이, 상용화 기술 개발은 국내 유방보형물 제작 업체가 맡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최영빈 교수팀, 중앙대학교 박한수 교수팀, 그리고 전성현 박사 등이 이번 과제에 참여한다. <br/> <br/>연구 기간은 5년으로 매년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연구비로 지원되지만, 시장 상황은 밝다. 2016년 예상되는 유방보형물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만 약 370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무려 1조 1,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br/> <br/>이번 국책연구과제의 총 책임을 맡은 허찬영 교수는 “<span class='quot0'>섬유화 부작용을 억제하는 유방보형물의 개발은 의료적인 부분은 물론 수출 등 국익의 측면에 있어서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과제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많은 환자들을 부작용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6.txt

제목: “당뇨병, ‘병독’만 잡으면 치료 가능해”  
날짜: 20151231  
기자: 최종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1090738199  
본문:   <br/> <br/>#. 직장인 김장우(남·51세)씨는 최근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자주 갈증을 느끼면서 가끔씩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전 모임에서 건강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당뇨검사를 받아보라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다가 당뇨라는 판정을 받았다. <br/> <br/>요즈음 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처럼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당뇨병 인지율’은 아주 낮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인이 환자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27%에 달했고 특히 30~44세 사이에서는 46%나 됐다. <br/> <br/>대한당뇨병학회의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 10명 중 2명은 ‘잠재적인 당뇨병’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30%가 고혈당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br/> <br/>의료계에선 ‘당뇨대란’의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 가운데 자신이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나 될 정도로 관리는 부실하다. <br/> <br/>◆ 당뇨··· ‘병독이 만드는 병’ <br/>당뇨병의 심각성은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한국인 사망원인 5위다. 지난해 사망자만 1만 1242명이다. <br/> <br/>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췌장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각각 4.9배, 4.1배, 2.2배나 높다. 심각한 것은 국내 당뇨병 환자 열 명 중 다섯 명(46%)은 본인이 당뇨병 환자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낮은 치료율로 이어져 국내 당뇨병 환자의 38%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br/> <br/>당뇨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울산 백 한의원 백지성 원장은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의 심각성은 서양의학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반병원에서는 당뇨환자에게 혈당을 낮추는 약을 처방해주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등으로 혈당수치를 조절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상 치료를 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br/> <br/>“당뇨는 병독이 만드는 병이다. 한의학에서는 몸속의 노폐물인 어혈과 담음을 병독이라고 하고, 병독을 병의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어혈은 ‘나쁜 피, 죽은 피 등 몸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피’라는 뜻이고 담음이란 ‘물과 음식의 노폐물로 가래와 같이 비정상적인 체액’을 말하는 것이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다. 노폐물인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치료이다. 한약은 병독의 위치에 따라 처방이 다른데 정확한 처방이란 병독이 있는 부위를 청소해주는 처방이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서 백 원장은 병독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혈당수치를 조절하거나 생활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당뇨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r/> <br/>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몸이 이상신호를 보낼 때 일찍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뇨는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질병이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습관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병원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병독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7.txt

제목: [연구] 간접흡연 반려동물 암 발생 높여  
날짜: 20151230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0162503920  
본문: 사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캡처간접흡연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암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담배 연기에 노출된 반려동물은 체중이 증가하고 체세포가 파괴되며 각종 암을 앓을 수 있다고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br/> <br/>대학 연구진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의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간접흡연은 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먼저 흡연자와 함께 사는 개의 경우 비흡연자 가정보다 체중이 더 높았으며 특히 고양이가 더 큰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고양이가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원인은 ‘그루밍(고양이 등 동물이 본능에 따라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혀로 몸을 핥는 것을 뜻함)’을 반복해 니코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연구팀은 수컷 개의 유전자 검사 결과 흡연자 가정에 사는 개의 세포파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고 일부 유전자는 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br/> 클레어 교수는 "흡연자들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려동물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간접흡연은 모두 유해하다"고 말했다.연구를 지휘한 클레어 노튼벨트 교수는 "흡연자들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반려동물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간접흡연은 모두 유해하다“며 ”반려동물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주인이 하루 10개비 이하로 담배를 피우면 반려동물의 니코틴 수치가 확연히 떨어졌지만 비흡연자 집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8.txt

제목: 새해 건강검진, 똑 소리 나게 받는 비법은?  
날짜: 201512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0132337206  
본문: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해를 앞둔 이맘쯤이면 한 해를 돌아보며 놓치고 지나간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다가올 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한다.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br/> <br/>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게 되면서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또 의학의 발달로 많은 병들을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있어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br/> <br/>최근에는 의학의 개념이 치료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그 중심을 옮겨감에 따라,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새해 들어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코스, 대전선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소장의 도움말로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건강검진 왜 필요할까? <br/> <br/>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질병의 증상이 없을 때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병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검진을 시작하여 현재는 생애 주기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2년 간격의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r/> <br/>특히 성인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5대(위, 간, 대장, 자궁경부, 유방) 암 검진, 그리고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br/> <br/> <br/>질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다. 예를 들면, 유방암의 경우 1기와 2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원격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 생존율이 30%로 낮아진다. <br/> <br/>실제로 암 조기 검진사업에 포함된 5대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검진이 활발해짐에 따라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60% 이상 감소했으며, 자궁경부암 검진 또한 암 발생과 사망률을 60% 이상 감소시켰다. <br/> <br/>고위험군에 대한 간암검진도 간암에 의한 사망률을 약 40%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간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이밖에도 건강검진은 만성질환의 여러 위험요인들을 발견해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br/>◇ 건강검진, 이렇게 받아보자 <br/> <br/>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신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신체적인 특징이나 주요 건강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주기는 20~30대의 경우 1~3년에 한 번은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을 중심으로 한 기본종합검진을 추천한다. 만약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20대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부터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 만큼, 여성들은 이 시기부터 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br/> <br/>40대부터는 생활습관병이나 만성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1~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따라서 혈압과 혈당 체크는 기본이고 심장초음파나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br/> <br/>50대부터는 뇌혈관질환이나 암 검진을 꼼꼼히 받는 것이 좋으며, 60대가 되면 50대에 받는 검진항목에 뇌졸중, 심근경색, 호흡기질환 관련 검사를 추가로 받아볼 것을 권한다. 또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했다면, 55세부터는 저선량 흉부 CT를 매년 촬영해 폐암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 이 시기부터 전립선의 건강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폐경이 시작되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 폐경 직후 첫 5년 간 골밀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폐경이 시작되면 매년 골다공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 <br/>아울러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만 40세와 66세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만 40세에는 B형 간염 검사,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등을 실시하며, 만 66세는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이 추가된다. <br/> <br/>◇ 건강검진, 이것만은 주의하자 <br/> <br/>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가족의 암 병력이나 유전질환, 과거 병력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또 평소 생활습관이나 최근 느꼈던 증상 등을 고려해 자신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건강검진 전에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br/> <br/>암 검진의 경우 각 장기마다 검진 주기를 잘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이 자라는 속도와 치료가 가능한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서히 자라는 암은 검진 주기가 길고, 빨리 자라는 암은 검진 주기가 짧다. 따라서 한 번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기를 잘 지켜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69.txt

제목: 소금 과다 섭취↑ 위암 검진↓ '간 큰' 한국인  
날짜: 20151230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0093301757  
본문:   <br/> <br/> <br/>평소 소금을 가장 선호하는 사람의 위암 검진율이 소금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금 섭취가 과다하면 위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아직 많은 사람이 간과한 결과로 풀이된다.  <br/> <br/>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 전재관 교수팀이 2006∼2007 국립 암 검진 조사(KNCSS) 원자료를 근거로 암에 걸리지 않은 40세 이상 3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소금 선호도와 위암 검진의 관계: 한국 내 전국 조사)는 영문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CRT) 최신호에 소개됐다. <br/> <br/>전 교수팀은 연구 대상자에게 '소금기 많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까'라고 질문한 뒤 '매우 싫어한다'ㆍ'좋아하지 않는다'ㆍ'보통이다'ㆍ'좋아한다'ㆍ'매우 좋아한다' 등 5가지 답변 중 하나를 하도록 유도했다. <br/> <br/>연구 대상자들의 위암 검진율은 짠 음식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람 대비 '좋아하지 않는다'ㆍ'보통이다'ㆍ'좋아한다'는 사람은 21∼29%, '매우 좋아한다'는 사람은 56%나 낮았다. 짠 음식을 선호해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위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오히려 소금 선호자들이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급ㆍ만성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기 쉽고 소금과 헬리코박터균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위암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 연구에서 위암 검진율은 남성보다 여성(1.3배)이 높았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60대는 40대의 2배), 소득이 높을수록(월 소득 3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보다 1.5배), 군(君)지역 거주자일수록(농어촌 거주자는 대도시 거주자의 1.4배), 암 가족력(家族歷)이 있을수록(암 가족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1.3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1.8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위암의 대부분은 위 점막에 생기는 위선암이다. 림프종ㆍ간질성 종양ㆍ육종ㆍ신경내분비암 등도 있다. <br/> <br/>전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금 선호도와 위암검진의 관계를 밝힌 국내 첫 대규모 연구"이며 "일생동안 위암 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45.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선 만 40세 이상이면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검사나 위장조영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br/> <br/>국립암센터는 위암 예방을 위해 신선한 채소ㆍ과일을 많이 먹고, 짠 음식이나 탄 고기ㆍ탄 생선의 섭취를 줄이며 정기적인 검진(위내시경검사ㆍ위장조영검사), 금연 등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0.txt

제목: 관절염에 좋은 운동, 음식은 무엇이 좋나?…“비타민 A와 C,E 중요”  
날짜: 20151230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30004041458  
본문: 관절염에 좋은 운동, 음식은 무엇이 좋나?…“비타민 A와 C,E 중요”사진=YTN 뉴스 캡처관절염에 좋은 운동, 음식은 무엇이 좋나?…“비타민 A와 C,E 중요” <br/> <br/>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화제인 가운데 관절염에 좋은 음식에도 관심이 뜨겁다. <br/> <br/>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 A와 C,E를 비롯해 셀레늄 등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섭취가 중요하다. <br/> <br/>특히 비타민K 함량이 매우 풍부한 물냉이는 관절염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몸에 나쁜 지방을 감소시켜 주며,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통곡물이나 콩류, 밀배아, 조개류, 참치, 청어 등을 추천한다. <br/> <br/>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염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에는 치아씨드, 아마씨, 호두, 연어, 정어리 등이 있다. <br/> <br/>한편, 관절염에 좋은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뻗어 교차 시키고,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접었다 폈다를 10회 반복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1.txt

제목: "비급여 항목 보장률 70%까지… 국민 의료비 경감에 최선"  
날짜: 2015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203958417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비나 약제비 등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는 2만개, 사용되는 약은 2만5000종에 달한다. 어떤 의료 행위가 적절한지, 의료비와 약값은 적정한지를 감시·감독하는 곳이어서 ‘의료계의 감독원’으로도 불린다. 심평원이 일을 잘 해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의료비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버거운 부담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지원 집무실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물었다.  <br/> <br/>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지원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br/>사진=남제현 기자―병원이나 제약업체에서는 심평원 직원들을 싫어할 것 같다. <br/> <br/>“1977년 박정희정부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차원에서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했다. 당시 다른 분야에서는 북한을 넘어섰는데 의료 부문에서는 북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외국에서 나왔다. 병원 문턱이 높아서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사회보장체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당시도 반발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시장실패 요인이 많다. 병원이나 제약업체 같은 공급자가 정보의 비대칭이 강한 재화(치료 행위, 치료 약 등)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교정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br/> <br/>―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전액보장’ 공약을 내걸었다. 얼마나 이행됐나. <br/> <br/>“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4대 중증질환 비급여(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많이 급여로 끌어들여서 한때 62%까지 떨어졌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근 65%까지 3%포인트 정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많은 돈을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고 보장률을 70%까지 올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32개에 불과하던 공개 항목이 시력교정술인 라섹·라식과 치과술인 금니 등의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52개로 확대됐다.” <br/> <br/>―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찍자고 하면 좀 부담스럽다. 그것도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br/> <br/>“MRI 비용을 병원별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똑같은 MRI 진료지만 병원에 따라서 진료비가 2∼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가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비급여 의료비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통해 MRI에 지출하는 국민의 의료비는 절반까지 줄어들고 다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도 점진적으로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br/> <br/>―최근 의료인들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점검이 의무화됐다.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br/> <br/>“의료법·약사법이 지난 9일 개정돼 새해부터는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전문의약품에는 고유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유통단계마다 추적·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 데이터를 일반에 개방한다. 국민은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이 투약한 약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복처방 방지 등 진료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나. <br/> <br/>“지금까지 보건의료 인력·시설 등 자원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반으로 하는 심평원 두 곳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때문에 신고가 중첩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휴·폐업, 의료인 수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중복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4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br/> <br/>―올 상반기에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났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등의 선제 조치가 아쉬웠던 대목이다. <br/> <br/>“동의한다. 심평원 차원에서는 메르스 발병 지역인 중동 방문자들을 실시간으로 병원에 알려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여했다. DUR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자 정보를 병원에 알리는 조치를 메르스 사태 초기(5월20일 메르스 첫 번째 환자 확진)부터 시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초기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된 6월9일부터 체계가 갖춰지고 업무가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나중에는 메르스 감염자 발생 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병원에 제공했는데 메르스 사태 동안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의료정보만 6만건에 달했다. 전자방역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질병 감시가 이뤄진 것은 세계 보건의료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값진 경험이었다.” <br/> <br/>―환자 정보 관리는 다른 한편으로 개인 정보유출의 위험도 있는 양날의 칼 아닌가. <br/> <br/>“그렇다. 그래서 심평원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기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설립된 이래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br/> <br/>―한의학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한의학 부문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br/> <br/>“지금까지는 가루약인 한약재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짜먹는약과 알약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입장에서는 한약 복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한의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급여항목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이 연간 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한 해 10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급여항목으로 심평원이 구매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62조원인데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비급여 항목 진료와 약값을 포함해도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양의와 한의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측이 힘을 합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r/> <br/>―심평원 원장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뭔가. <br/> <br/>“올해는 세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다음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의제는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될 것이다. 유엔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꼽은 적이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인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심평원은 다음달 14∼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의 보건의료 경험을 공유하고,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HO(세계보건기구)와 월드뱅크, 록펠러재단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보건의료시스템을 알릴 계획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수출길이 열리면 우리나라 의료인과 의약품, 치료재료도 함께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우리의 의료 인프라를 수출하게 되면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도 함께 수출될 수 있고 우리의 시스템이 외국에 깔리면 계속해서 용역비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이 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br/> <br/>대담=조남규 사회부장 <br/>정리=이재호 기자 <br/> <br/> 손원장은… <br/> <br/>●1954년 서울 출생 <br/> <br/>●연세대학교 의대,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박사 <br/> <br/>●세계의료법학회 부회장 <br/> <br/>●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 <br/> <br/>●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br/> <br/>●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br/> <br/>●제8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2.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저는 매달 700만원을 항암치료비에 씁니다  
날짜: 20151229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140736284  
본문: “<span class='quot0'>엄한 돈 해외에 쏟지 말고, 국내 환자들부터 살려라.</span>” <br/> <br/>“<span class='quot0'>이렇게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span>” <br/> <br/>장암(bowel cancer) 투병 중인 잉글랜드의 40대 여성이 의료보험정책 변화로 매달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사연이 알려져 의료당국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br/> <br/>잉글랜드 스태퍼드셔에 사는 헬렌 허친슨(49)은 장암 환자다. 그는 지난 3년간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치료제 중의 하나인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를 투약해온 헬렌은 그동안 영국의료보험(NHS) 덕분에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었다. <br/> <br/>올 4월부터 이야기가 달라졌다. 의료당국이 애플리버셉트를 포함, 총 25가지의 항암치료제에 대한 보험혜택 철회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철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제로 연명 중인 암환자만 영국에서 약 8000명으로 알려졌다. <br/> <br/>여덟 살 아들을 둔 헬렌은 의료당국의 보험정책 철회로 매달 4000파운드(약 695만원) 정도를 치료비로 부담하고 있다. <br/> <br/> <br/> <br/>헬렌의 사연을 안 주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를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들의 목표 액수는 5만파운드(약 8700만원)다. <br/> <br/>헬렌의 친구 줄리에는 한 지역매체에 “우리는 어린 소년이 엄마와 그들의 집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헬렌은 늘 밝고 웃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며 “만약 당신이 헬렌을 만난다면 온화한 미소와 사랑이 주위에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헬렌은 하루하루를 불평하지 않는다. <br/> <br/>헬렌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은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겹게 응원을 보내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의료당국은 헬렌의 처지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혜택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 <br/>전문가들은 당국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장암 투병 환자의 약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자선단체들도 당국이 암환자 수천명의 유일한 희망인 의료보험정책을 파괴했다며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 <br/>제레미 헌트 영국 보건부 장관은 “<span class='quot1'>허친슨의 사례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3.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대한의학유전학회 업무 협약 체결  
날짜: 20151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135721683  
본문: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정성후)가 대한의학유전학회(회장 이진성)와 암 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이번 협약으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얻은 사람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유방암을 비롯한 포괄적인 암 분야의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는 2014년 첫 도입된 자격인증제도로 소아, 산전, 암, 성인 분야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는 한국유방암학회가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201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인증제도이다. <br/> <br/>이번 협약으로 2015년까지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연수교육 수료와 인증시험 통과 후 유전상담 로그북을 제출하면 암 분야에 국한한 ‘유전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본 자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이진성 회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극복에 앞장서는 한국유방암학회와 상호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두 학회의 협력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적 원인을 걱정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 또한 “<span class='quot1'>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의 활동을 보다 포괄적인 암 분야로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히며, 제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br/> <br/>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국내외 유방암 현황을 집대성한 유방암백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유방암 예방과 올바른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병원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4.txt

제목: 부모의 암, 아이에게 알려도 될까요?  
날짜: 2015122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115746686  
본문: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층의 암환자를 위해 ‘어린 자녀와의 소통’, ‘여성 암환자의 임신과 성생활’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br/> <br/>암 발생 위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며 실제 암환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전에서는 여성 암환자의 수가 남성보다 많은데다가, 유방암과 부인암 등 여성암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br/> <br/>이에 따라 생애주기상 임신 · 출산 · 육아를 경험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암환자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br/> <br/>이에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어린 자녀를 둔 암환자를 위한 정보’와 ‘여성 암환자의 임신과 성생활’ 등 2종의 교육자료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 비치해 서울대학교암병원을 방문하는 암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암정보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암병원 내 무인안내시스템인 스마트도우미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br/> <br/>‘어린 자녀를 둔 암환자를 위한 정보’는 해외 자료 등을 벤치마킹하여 암정보교육센터 의료진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했다. 진단, 치료, 임종 등 암 여정의 각 단계에서 자녀와 소통해야 할 내용과 방법, 자녀 연령에 따라 필요한 도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br/> <br/>‘여성 암환자의 임신과 성생활’은 임신과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골반 내 신체 기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등이 성생활과 임신에 미치는 영향, 원활한 성관계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암병원 부인암센터 의료진이 직접 개발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암환자가 가족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치료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 종료 후에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젊은 여성 암환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했다”며 “이번에 새로 제작한 교육자료를 통해 많은 젊은 여성 암환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5.txt

제목: 육군, 장군 전역지원서 변조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날짜: 20151229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9110718811  
본문:   <br/> <br/> <br/>지난 9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홍모 예비역 육군 소장(육사 39기) 전역처리와 관련해 육군본부가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류성식 당시 인사참모부장(소장)을 징계유예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br/> <br/>육군은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류 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군인징계령 21조에 따라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경우 경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6개월 징계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br/> <br/>류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자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견책 처분도 무효가 된다. <br/> <br/>육군은 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다 암에 걸려 전역하는 것처럼 갑자기 군을 떠난 홍모 예비역 육군 소장에 대해 육사 동기였던 류 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을 확인하고도 류 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br/> <br/>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와 함께 소속 부대장 확인란이 있지만 바뀐 전역지원서에는 이 부분이 없다. 조기 전역을 하면 소속 부대에서 비위 혐의 사실을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br/> <br/>하지만 육군은 류 소장을 기소하지 않고 견책에 그쳤다. 육군 관계자는 "류 소장보다 상급자인 3명의 현역이 징계위에 참여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 내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건은 전적으로 현역들만 참여하고 있다. <br/> <br/>특히 류 소장이 2006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근거로 참모총장이 유예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에서 요구하는 지휘관 감경권 철폐 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권오성 당시 총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역시키자고 건의했던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br/> <br/>홍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부하 장교가 지난해 5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직후 조기 전역했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6.txt

제목: 육아휴직·ISA·병사월급… 새해 달라지는 것들  
날짜: 2015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7185501494  
본문: 내년부터 한 계좌에 여러 금융 상품을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이 적용된다. 병사 봉급도 15% 오른다. 복지 혜택이 강화돼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외에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떡볶이, 순대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용된다. 27일 정부는 부처별로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담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br/> <br/>한 계좌에 여러상품 담는 ISA 등장 <br/> <br/>△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br/> <br/>△업무용 승용차 과세 정상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br/> <br/>△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br/> <br/>△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br/> <br/>△계좌이동서비스 확대=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br/> <br/>△보험 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br/> <br/>남성 육아휴직 급여 3개월로 확대 <br/> <br/>△최저임금 인상=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br/> <br/>△임금피크제 지원 강화=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br/> <br/>△‘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br/> <br/>△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6개월로 단축=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다. 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br/> <br/>△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순대와 떡볶이 떡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br/> <br/>일반귀화 하려면 자산 6000만원 돼야 <br/> <br/>△일반귀화 신청자 ‘생계능력’ 기준 강화=3월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자산 기준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한국 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r/> <br/>△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현재의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한 ‘상세증명서’ 중 원하는 서류를 골라 발급받을 수 있다. <br/> <br/>한국사 과목, 수능 필수 영역에 해당 <br/> <br/>△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중학교 1~2학년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br/> <br/>△수능 한국사 필수=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한국사 과목이 필수 영역으로 치러진다. 한국사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되며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2등급 등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뉜다. 또 현재 국어와 수학영역의 A, 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br/> <br/>병사 월급 15% 올라… 병장 19만7000원 <br/> <br/>△병사 봉급 전년도 대비 15% 인상=병사 봉급이 2015년 대비 15%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5600원이 오른다. <br/> <br/>△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해 새해부터 운용한다. 국방부의 ‘성폭력 신고앱’은 군 내부 신고체계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 및 상담을 위해 외부 관련기관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br/> <br/>△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나 귀가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br/> <br/>△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지금까지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됐지만 대상자가 많고 제도 악용 등의 소지가 있어 새해부터는 365일 이상 국외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 면제가 된다. <br/> <br/>△전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행되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br/> <br/>공항 주변 모든 가구에 전기료 지원 <br/> <br/>△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고, 실제 인허가 때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로 합쳐진다. <br/> <br/>△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공항소음방지법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중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주변 4만5000가구의 7∼9월 전기요금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소음도 2종구역(95∼90웨클), 3종(90∼85웨클)의 주민도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br/> <br/>△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br/> <br/>△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대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br/> <br/>△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는 음성과 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br/> <br/>△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기상청은 또 과거 기상기후를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br/> <br/>안용성 기자, 편집국 종합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7.txt

제목: 엉뚱한 사람 조직검사로…30대女 유방 절제  
날짜: 20151227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7134343815  
본문: 일본의 한 병원이 진행성 유방암을 앓는 50대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30대 여성의 유방을 절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br/> <br/>27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지바현 암센터에서 수술이 필요없는 30대 초기 유방암 환자의 오른쪽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br/> <br/>피해 여성은 지난 10월 중순 이 병원에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 검사했다. 이 여성은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하면 되는 초기 암이었지만, 병원은 같은 날 검사한 50대 여성의 세포 검사 결과를 이 여성의 검사 결과로 잘못 알고 유방 전체를 절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br/> <br/>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출한 부분은)돌아오지 않는다. 무척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br/> <br/>이번 일은 유방암 조직 검사의 검체가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8.txt

제목: [2015결산] 오 마이 지구촌  
날짜: 2015122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7091218149  
본문: 때론 감동과 즐거움을 때론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한 지구촌 뉴스 총 1808건 중 가장 많은 댓글과 공감을 기록한 뉴스를 만을 모았습니다. (내용은 각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 일부를 요약 했습니다) <br/> <br/> <br/> 1위. [취재후] 딸의 죽음 앞에 엄마가 받은 이메일, 그리고 기적 / KBS 박에스더 기자[요약] <br/>세 살 밖에 안된 딸의 불치병 선고를 접한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br/> <br/>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웃음과 재롱, 때로는 칭얼거림과 떼쓰는 모습까지 그냥 바라보는 것조차 아까울 것이다. <br/> <br/>네브라스카주 노스플래트에 사는 3살 올리비아는 DIPG라는 불치의 뇌종양 선고를 받는다. <br/> <br/>올리비아의 부모는 딸이 크면 언젠가 가려고 계획했던, 미국에서도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파하는 곳,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랜드로 딸과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br/> <br/>그런데 올랜도 디즈니랜드에서 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된다. 하루하루가 애타던 어느 날, 올리비아의 엄마 로레사는 낯선 이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올리비아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br/> <br/>딸의 죽음과 장기 기증을 지켜본 올리비아의 엄마 로레사는 이렇게 말 했다. <br/>“올리비아가 세상에 온 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믿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떠났어요. 지금도 너무나 보고 싶네요, 나의 딸, 세상에 천사가 된 올리비아!” <br/> 2위. “여자애 아냐”...놀림 참고 머리 길러 ‘암환자 기증’한 소년 / 서울신문 방승언 기자[요약] <br/>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발을 기증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 주변의 놀림을 참아가며 머리를 기른 8살 크리스찬. <br/> <br/>크리스찬의 사연은 2012년 크리스마스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의 홍보영상을 통해 머리카락을 잃은 소아암 환자들의 처지를 알게 된 크리스찬은 그 즉시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br/> <br/>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크리스찬은 무수한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또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을 여자애 같다며 놀렸고 가끔은 어른들도 핀잔을 줬다. <br/> <br/>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디애나는 “<span class='quot0'>크리스찬은 자신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항상 당당하고 차분한 태도로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설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 아이는 단 한 번도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크리스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br/> 3위. 美 임신 35주 기상캐스터 악플러들에 “너희도 어머니가 낳아 세상 나왔다 / 국민일보 이종선 기자[요약] <br/>미국에서 임신 35주에 접어든 기상 캐스터가 자신의 배부른 모습을 비하하는 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에 당당히 맞섰다. <br/> <br/>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시의 지역방송국 CBS3 기상캐스터 케이티 페링거는 딸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방송에서 기상 뉴스를 전했다. <br/> <br/>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이 방송국 홈페이지 등에 “배부른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게 보기에 역겹다”는 악플을 끊임없이 올렸다. <br/> <br/>페링거는 자신을 비하하는 악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당신의 모습은 마치 포장에 싼 소시지 같다”는 비방에 더는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br/> <br/>그는 “내 직업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를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임신한 것을 두고 ‘포장에 싼 소시지’라거나 ‘툭 튀어나온 배가 역겹다’라는 식의 비판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br/> <br/>그는 “나는 당신들의 무례하고 뻔뻔한 악플에도 전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들도 어머니가 임신하고 낳아 세상에 나왔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br/> 4위. 전 세계 급식판 들여다보니… “이게 한국 급식? 일본은 왜이래?” / 국민일보 박상은 기자[요약] <br/>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먹는 점심은 어떤 모습일까? <br/> <br/>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세계 각국의 학교 급식을 비교한 사진을 소개했다. 급식 비교는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점인 ‘스위트그린(Sweetgreen)’이 미국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스위트그린은 SNS에 올라온 각 나라의 급식 사진을 참고해 평균적인 급식 메뉴를 연출하며 여러 나라의 급식을 분석하는 사이트 ‘네버 세컨즈(Never Seconds)’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br/> <br/>한국의 경우 야채 볶음밥, 김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생선국이 들어갔다. 데일리메일은 미국의 급식 메뉴가 ‘건강하지 않은 식사’라며 한국의 식단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br/> <br/>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인인데 왜 살면서 한번도 저런 급식을 본 적이 없지” “저런 밥 먹으면서 학교 다닌 기억이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br/> 5위. 30년 만에 법정에서 만난 절친...'참회의 눈물' / YTN 전준형 기자[요약] <br/>꿈많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힘든데요.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 둘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br/> <br/>[민디 글레이저, 판사] "부스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br/> <br/>(네, 판사님.) <br/> <br/>"노틸러스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나요?" <br/> <br/>(오, 이런.) <br/> <br/>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br/> <br/>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br/> <br/>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br/> <br/>[민디 글레이저, 판사]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게 돼 유감입니다. 중학교에서는 가장 괜찮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br/> <br/>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r/> <br/>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br/> 6위. '너를 뭐라고 부를까?'…해양학자 고민에 빠뜨린 문어 /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요약] <br/>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해양생물학자가 문어 이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br/> <br/>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몬테리만 해양연구소(the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소속 학자 스테파니 부시가 문어 이름 때문에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를 고민에 빠뜨린 건 최근 수심 450m 깊이에서 잡힌 조그만 분홍색 문어다. <br/> <br/>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이 문어는 몸길이 18cm에 작고 앙증맞은 다리 8개를 자랑한다. 다리 사이에는 그물이 얽혀있어, 아래에서 보면 우산을 펼쳐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눈 옆에는 작은 지느러미가 달렸는데, 이는 주위를 탐색하는 일종의 레이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문어가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 등장한 캐릭터 펄(Pearl)을 닮았다고 봤다. 수심 2600m 깊이에 사는 ‘덤보 문어(Dumbo octopus)’를 닮았다는 의견도 있다. 7위. 관광객 추태에 "중국인 출입 금지" 감정싸움 / SBS 임상범 기자·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요약] <br/>관광지나 공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중국 관광객들의 추태 전해 드린 적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태국 간에 감정싸움이 벌어졌습니다. <br/> <br/>태국의 관문 돈므앙 국제공항 화장실입니다.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습니다. <br/> <br/>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br/> <br/>[왓 롱 쿤/사원 관리인 :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br/> <br/>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부치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br/> <br/>태국의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br/> <br/>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br/> <br/>대규모 중국 관광객 덕에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태국 관광 당국은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화교자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태국인들의 반중 감정과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충돌하면서 두 나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8위. 中 톱연예인 '세기의 결혼'…비용 360억 초호화판 논란 / 뉴스1 김정한 기자[요약] <br/>중국의 인기 가수 겸 영화배우인 황샤오밍(39)과 인기 모델 겸 영화배우인 안젤라베이비(중국명 양잉·27)가 지난 8일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의 결혼식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결혼식이 약 360억원짜리 초호화판이었으며 하객 수도 약 2000여명에 달했다는 점이다. <br/> <br/>10층짜리 웨딩케이크, 성의 모습을 연출한 홀로그래픽 조명, 크리스티앙 디오르 디자인의 웨딩드레스, 2000여명의 하객을 수용하는 호화로운 결혼식장 등이 보인다. <br/> <br/>특히 웨딩드레스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새틴 오간자'(satin oganza)와 '튤'(tulle)을 사용해 5개월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안젤라베이비의 손에 끼워진 쇼메(Chaumet)의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는 약 17억 5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바일 폰 등이 포함된 푸짐한 선물이 가득 담긴 백을 하나씩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중국 정부가 이 같은 사치풍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호화 결혼식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주목된다. <br/> 9위. 멤버 56명 세계 최대 걸그룹 中서 탄생…56개 민족 한명씩 / 뉴시스 문예성 기자[내용] <br/>중국에서 한국 '소녀시대', 일본 'AKA48'에 대적할만한 멤버 56명인, 세계 최다 인원 걸그룹이 탄생했다. <br/> <br/>2일 중국 신화왕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16~23세의 여성 56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56송이의 꽃'이 데뷔했다. 이 그룹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여성 멤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데뷔 무대를 갖고 타이틀곡 '가장 아름다운 중국의 꿈'을 발표했다. <br/> <br/>이 그룹 소속사는 "멤버들이 노래, 춤, 악기를 전공한 실력파"라고 소개하면서 "섹시한 콘셉트로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이나 일본의 걸그룹과 달리 이 그룹은 민족적인 정서를 담는 작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10위. 반려견과 함께 미국 일주 '특별한 여행 사진' / YTN[내용] <br/>미국의 사진작가 테론 험프리는 반려견 매디와 함께 미국 일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테론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연작 프로젝트 4X3에 착수했다"며 "고속도로를 피하고 지도 위 작은 점들을 찾아다니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테론과 메디가 함께 하는 여행 사진들, 한 번 보실까요?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언론사 기사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79.txt

제목: 암환우와 의료진이 연주하는 희망의 음악  
날짜: 2015122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4165003472  
본문: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대학교암병원 송년음악회서울대학교암병원이 송년음악회를 지난 23일 오후12시 3층 로비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이번 음악회에는 일반 문화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진, 직원 가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br/> <br/>유방암 환우이면서 유방암 예방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유자밴드(한국유방암자가검진밴드)가 ‘꿈의 대화’, ‘나는 행복합니다’를, 병원 직원 자녀인 소프라노 김지혜가기 ‘고요한밤 거룩한밤’을 연주했다. 특히 갑상선/구강/두경부암센터에서 진료를 했으며, 병원 재직 중 음악회에 다수 출연한 김광현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성악곡을 들려주었다. <br/> <br/>이 외에 색소폰 콰르텟 에스윗이 ‘G선상의 아리아’, ‘겨울왕국 메들리’와 같은 대중적인 클래식, 영화 음악을, 남한의 해금과 북한의 소해금 그리고 피아노로 구성된 트리오 해이락이 ‘홀로 아리랑’,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연주했다. 특히 해이락의 박성진은 북한 해금을 개량한 악기 소해금을 연주하는 국내 유일의 연주자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 경험을 선사했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은 개원 이후 암정보교육센터 주최로 병원음악회인 ‘암병원 음악풍경’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증질환인 암과 싸우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암병원 음악풍경은 문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이번 송년음악회는 통산 72번째로 열렸다. <br/> <br/>김태유 서울대학교암병원장은 “음악회 등 병원의 문화 행사는 암환자들이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재능 기부 자원봉사활동으로 병원에서 연주해 주시는 연주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한 해 동안 힘든 치료를 견딘 환자분들이 새해에도 더욱 큰 희망과 의지로 치료를 받기 바란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0.txt

제목: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 보충하기 위해서는?  
날짜: 2015122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4115000422  
본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맞게 받아들여 살아간다.  <br/> <br/>식물은 엽록소로 태양에너지를 잡아서 이를 탄수화물의 형태로 바꾸어 보관하여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반면, 동물은 태양 에너지를 감각기관 중 특히 눈을 통해 중추 신경에 전달하여 식물이 열매나 곡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탄수화물을 찾아내어 생명을 유지해 왔다.  <br/> <br/>인간 역시 식물처럼 직접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여 신진 대사를 활성화하고 몸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 D이다. <br/> <br/>◆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자란 노틀담의 곱추 ‘콰지모토’이야기 <br/> <br/>비타민 D가 처음 알려진 것은 흔히 ‘곱추병’이라고 부르는 ‘구루병’ 때문이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잘 자라지 않고 자라도 충분히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휘게 된다. <br/> <br/>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틀담’의 주인공 곱추 콰지모토의 비극은 아기 때 부 <br/>모로부터 버림받고 성당의 뒷방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것에서 시작된다.  <br/> <br/>태어날 때 너무나 흉측하게 생긴 외모를 가졌던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 놀지 못했고, 충분히 태양을 볼 수 없었다.  <br/> <br/>빅토르 위고는 콰지모토를 키가 작고 등뼈가 활처럼 휘었으며 가슴뼈가 앞으로 툭 불거지고 두 다리는 제멋대로 뒤틀렸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비타민 D부족으로 인한 구루병의 증상이다. 심지어 콰지모토는 애꾸눈에 귀도 멀었는데, 이 역시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아마 빅토르 위고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br/> <br/>◆ ‘비타민 D’ 왜 중요한가 <br/> <br/>현대에는 영양이 좋아지면서 구루병은 사라졌다. 그러나 비타민 D의 부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 건강영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 인구의 72%가 비타민 D 농도가 20ng/ml도 안 되는 비타민 D 부족에 해당된다(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평균 30ng/ml 정도다). <br/> <br/>한국건강관리협회 구진남 과장은 “<span class='quot0'>비타민 D는 단순히 뼈의 대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 피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혈당과 혈압을 낮추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여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염증을 줄여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태양을 피하지 말자 <br/> <br/>가수 ‘비’가 노래한 대로 ‘태양을 피하면’ 우리 몸은 정말 큰일이 난다. 비타민 D는 전체 필요양의 95% 이상을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합성한다. 따라서 햇볕을 쬐고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 D 형성에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의 비타민 D 부족증은 외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비타민 D 부족이 더 많다는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br/> <br/>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입시에 사로잡힌 교육과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외국과는 정반대로 젊은 연령층에서 비타민 D 부족이 많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뇨병, 심장 질환,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br/> <br/>피부 차단제는 매우 효과적으로 비타민 D 합성을 감소시킨다. 자외선 차단지수 SPF 15만 되어도 피부에서는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얼굴은 화장을 하고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더라도 팔 다리는 자외선에 노출시키도록 한다. <br/> <br/>◆ 겨울철 ‘비타민 D’ 충전법 <br/> <br/>문제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다. 겨울에는 야외활동도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부를 노출시킬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겨울에는 자외선 양이 부족해져서 햇볕을 쬐어도 피부는 전혀 비타민 D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br/> <br/>따라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인 치즈, 우유, 마가린, 버터, 연어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골다공증 환자는 따로 비타민 D를 경구로 섭취하거나 3개월에 1회 정도 비타민 D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비타민 D의 농도를 재보고 그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1.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과학은 우리의 미래이다  
날짜: 2015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3201417488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동화에서는 ‘열려라 참깨’ 하면 바위 문이 열린다. 요즘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개발돼 현실감 있는 소재가 됐지만 예전에는 현실감이 없어도 동화이니까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동화 속 이야기 중에는 비현실적인 것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소재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동화 속 이야기를 현대 사회에 맞게 각색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과학으로 이끌어 낸다. 과학이 무엇이길래 어린아이들의 동화 속 상상세계와도 연계시키려고 할까. <br/> <br/>최근 무인자동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동 자동차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가 실용화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혜택을 본다. 또 이동하는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은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생활이다. 또 과학은 테러집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국가 안보를 담보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꿈이고 미래이다. 앞으로는 치매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물·에너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등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 대해 과학이 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 주는 혜택을 받는다.  <br/> <br/> 유영제 서울대 교수·화학생물공학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주목나무는 어떻게 세균과 벌레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주목은 특정 대사산물을 합성해 자기를 방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결과로부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개발됐다. 그것은 새로운 산업이 됐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우리에게 일자리로 다가온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개발이 그러한 예이다. 앞으로는 로봇기술, 3D프린터 등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br/> <br/>로봇에 대해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로봇은 계속적으로 활용이 증가될 것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그 역할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로봇이 감성까지 가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사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온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것은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이 주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 융복합 시대에는 과학이 우리의 미래이다. <br/> <br/>과학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여겨질 수 있는 이론과 실험이 전부가 아니다. 과학은 자연과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룬다. 과학을 순수과학만이 아닌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 연계시키는 스팀(STEAM)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은 과학이란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고, 쓸모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다보면 과학은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학은 호기심 많은 과학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과학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우리도 과학이 고마워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과 국민이 많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즐길 때 우리의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고 국가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다. <br/> <br/>유영제 서울대 교수·화학생물공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2.txt

제목: [단독] 암보험 통원특약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엇박자'  
날짜: 20151223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3173331885  
본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통원일당 특약과 관련 엇박자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모럴해저드’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감기 등 가벼운 생활 질환에 대해 통원 일당을 주는 보험 및 특약을 판매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암보험의 통원일당특약을 인가했다. <br/> <br/>결국 암보험 통원일당특약은 부활 9개월만에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다시 판매가 중단 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선 보험사들은 혼란을 겪었다. <br/> <br/>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이달 말 ‘암 직접치료 통원 일당’(이하 암통원특약) 특약 판매를 중단한다. 이 특약은 지난 2000년 초 금융당국의 모럴해저드 지적에 따라 사라졌다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인가로 부활한 바 있다. <br/> <br/>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엇박자로 부활 9개월만에 암통원특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br/> <br/>암통원특약은 암 진단을 받은 입원 환자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3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현재 손해보험사 대부분과 일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br/> <br/>2000년 초반 금융당국이 암통원특약 판매를 중시시킨 이유는 의료 남용 때문이다. 암통원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금을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는 사례도 있었다. <br/> <br/>금융위원회는 의료 남용은 물론 보험 손해율도 높인다고 판단, 가벼운 생활 질환 통원 일단 판매 중단을 연초 계획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에도 암통원특약을 인가해 잡음을 키웠다. <br/> <br/>실제 이미 암통원특약을 판매 중이었던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7월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br/> <br/>결국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인해 이달 판매를 중단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보험사들만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br/> <br/>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통원 치료비를 무제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과잉 의료를 야기해 손해율을 높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것 같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인해 일선 보험사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3.txt

제목: 암환자 70% 완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15.6% 상승  
날짜: 2015122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3090749979  
본문: 암환자 70% 완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15.6% 상승 사진=MBC 뉴스 캡처암환자 70% 완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15.6% 상승 <br/> <br/>암환자 70% 완치 소식이 화제다. <br/> <br/>오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2일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br/> <br/>지난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지난 2001~2005년(53.8%)보다 15.6%가 상승했다. <br/> <br/>또한, 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특히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 100.2%로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으며, 갑상선암에 이어 전립선암(92.5%), 유방암(91.5%), 대장암(75.6%), 위암(73.1%)이 뒤를 이었다. <br/> <br/>한편,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암 발생률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4.txt

제목: 암환자 70% 완치, 갑상선암 5년 생존율 가장 높은 암…나머지 암은?  
날짜: 20151222  
기자: 김나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3090621728  
본문: 암환자 70% 완치, 갑상선암 5년 생존율 가장 높은 암…나머지 암은? 사진=MBC 뉴스 캡처암환자 70% 완치, 갑상선암 5년 생존율 가장 높은 암…나머지 암은? <br/> <br/>암환자 70% 완치 소식이 전해졌다.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2일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br/> <br/>지난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지난 2001~2005년(53.8%)보다 15.6%포인트나 상승했다. 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br/> <br/>특히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 100.2%로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다. 갑상선암에 이어 전립선암(92.5%), 유방암(91.5%), 대장암(75.6%), 위암(73.1%)이 뒤를 이었다. <br/> <br/>한편,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5.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소아 환아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로 꿈의 테디베어 선물  
날짜: 2015122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54858057  
본문: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이철희)이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아, 청소년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제 3회, 미리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2일 화요일, 병원 내 소강당에서 소아암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어려운 치료과정을 견디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br/> <br/>메이크어위시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나만의 크리스마스케이크 만들기’와 ‘레크레이션’, ‘마술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은 물론, 건강한 웃음과 희망을 선사했다. <br/> <br/>특히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충희 농구감독과, 배우 최란이 참석해 아이들에게 이충희 & 최란의 꿈의 테디베어 인형을 선물하며 아이들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 테디베어 인형은 국내 최초로 테디베어를 대중화한 한국테디베어협회 원명희 협회장이 아이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통해 이충희 & 최란의 꿈의 테디베어를 제작했다.  <br/> <br/>테디베어는 예전부터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곰 인형의 대명사이다. 폭신한 털뭉치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정성스런 손바느질로 만든 테디베어는 아이들의 잠자리 친구이자, 꼭 껴안고 자면서 좋은 꿈을 함께 꾸는 꿈나라의 동반자이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원명희 협회장과 배우 최란은 병원에서 어려운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수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br/> <br/>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이며,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인 최란은 “<span class='quot0'>아이들의 꿈과 소원을 담은 테디베어 인형이 아이들 곁에서 따스한 온기를 높이고 함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날 소아 환아들을 위해 인형을 하나하나 나눠준 이충희 감독과 배우 최란, 원명희 협회장은  “<span class='quot1'>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솔하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span>” 이라며 “<span class='quot1'>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역시 커다란 행복감을 느낀 포근하고 고마운 만남이었다</span>”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br/> <br/>이충희, 최란 부부는 해마다 보육시설과 양노원에 꾸준한 봉사로 이번 연말에도 제주감귤과 어르신들의 영양제, 담요, 다과, 등 다양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br/>  <br/>한편 즐거운 마술공연과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부끄러움 없이 무대에 올라 장기를 뽐내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힘든 치료과정을 견뎌낸 암 완치자가 환아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뜻 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br/> <br/>행사를 준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최형수 교수는 “<span class='quot2'>올해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시간으로 추억될 것 같다</span>” 며 “<span class='quot2'>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과 소중한 선물을 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span>” 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6.txt

제목: 칠곡경북대학교병원-코아스템, 공동연구개발 업무 협약서 체결  
날짜: 20151222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51446352  
본문:   <br/> <br/> <br/>코아스템은 암 및 노인성질환을 위한 전문의료센터로 특성화된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지난 21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세포치료제 공동연구 및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br/> <br/>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신약 개발에 기초연구 및 임상, 상업화 연구 참여 △연구자 상호교류 및 학술정보 공유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코아스템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앞으로 난치성질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br/> <br/>김경숙 대표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칠곡경북대병원의 훌륭한 연구진 및 임상 역량과 코아스템의 기술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신약개발 및 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7.txt

제목: "전립선암 유전자 변이의 시작 밝혀졌다"  
날짜: 2015122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45311458  
본문: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의 유전자 변이과정이 최초로 밝혀졌다. <br/> <br/>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준, 이석형 교수팀(공동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암진화연구센터 정승현 박사, 신선)은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을 가진 환자의 종양 게놈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전립선암의 시작과 발생의 유전적 진화과정 전체를 규명했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준 교수(왼쪽), 이석형 교수. <br/>그 결과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측면에서 전립선 상피내 종양에서 발전된 것을 확인했다. 정상 전립선 세포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으로 발전하고 추가 변화에 의해 전립선암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하지만 암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변이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암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립선 상피내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br/> <br/>연구팀은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을 동시에 가진 가족력이 없는 6명의 환자(남자, 평균나이 66.5세)의 전립선 종양조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전장 엑솜 염기서열 해독법(Whole exome sequencing)을 이용해 분석했다. <br/> <br/>특히 더욱 정밀한 추적을 위해 전립선암과 전립선 상피내종양의 다양한 위치별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과 연관된 8가지의 유전자(FOXA1, SPOP, KDM6A, KMT2D, APC, HRAS, CYLD, MLLT4) 발견했다. <br/> <br/>전립선 상피내종양의 돌연변이 수는 전립선암보다 현저히 적었지만, 전립선 상피내종양과 전립선암 모두에서 'FOXA1'가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되며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견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 <br/>또한 1번, 8번 염색체의 증폭이 조기에 전립선 상피내종양 발생을 견인하는 인자임을 확인했으며, 'SPOP, KDM6A, KMT2D'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립선 상피내종양에서 전립선암 진행에 특이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즉 전립선 상피내종양과 전립선암의 게놈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측면에서 전립선 상피내 종양에서 발전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br/> <br/>정연준 교수는 "그동안 전립선암이 전립선 상피내종양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정황은 있었지만 어떤 유전자변이가 전립선암으로의 발전을 견인하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 연구로 전립선 상피내종양은 전립선암의 유전적으로 직계후손(Direct descendants)이라는 점과 FOXA1등 전립선암으로 발전을 견인하는 유전자변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정 교수는 "최근 전립선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원인과 함께 발병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더 검증하고 생물학적 기능을 연구하면 조기전립선암 진단법 및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br/> <br/>전립선암은 남성의 생식기관인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국내 남성 10대 암 중 5위로, 전체 남성 암 발생의 8.2%를 차지한다. 서양에서는 남성암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한국인의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전립선암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비뇨기과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European Urology'(Impact factor : 13.938)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선도연구지원센터인 가톨릭의대 암진화연구센터의 지원 하에 나온 연구 성과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8.txt

제목: 간암·폐암·담도암, 5년이상 생존률 낮다  
날짜: 2015122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43030528  
본문: 의학의 발달과 조기 암 검진의 증가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치됐음을 뜻한다. <br/> <br/>2013년 기준으로 암 환자수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암 발생률 역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br/> <br/>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br/> <br/>이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2001~2005년(53.8%)보다 15.6%포인트나 높아졌다. 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올라갔다. <br/> <br/>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100.2%나 됐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전립선암(92.5%), 유방암(91.5%)도 90%대를 기록했으며 대장암(75.6%), 위암(73.1%)도 상대적으로 5년 생존률이 높았다. <br/> <br/>특히 위암의 5년 생존율(2009~2013년 기준)은 2001~2005년보다 15.4%포인트나 늘었다. 전립선암(12.3%p), 간암(11.2%p), 대장암(9.0%p)도 생존율 증가 폭이 큰편이었다. <br/> <br/>반면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 <br/> <br/>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컸다. 2013년 남성의 암 발생률은 328.1명으로 여성의 313.4명보다 높았지만,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1999년~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9%)이 남성(0.7%)보다 높았다. <br/> <br/>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을 세계 표준 인구로 보정하면 한국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7명이었다. 미국(318.0명), 호주(323.0명)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0.3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br/> <br/>암 환자수와 암 발생률이 감소한 것은 암 검진을 통해 암이 조기 발견되는데다 남성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예방 접종 시행, 생활 습관의 개선도 원인으로 보인다. <br/> <br/>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18.9%)이었으며 위암(13.4%). 대장암(12.3%), 폐암(10.3%), 유방암(7.7%)이 뒤를 이었다. <br/> <br/>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br/> <br/>1999년과 2013년 통계를 비교했더니 연평균 암 발생률은 갑상선암(21.2%), 전립선암(11.8%)이었다. 유방암은 5.6%, 대장암은 4.6%씩 매년 증가한 반면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각각 3.9%와 2.1%씩 감소했다. <br/> <br/>복지부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 건강검진의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앞당기고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89.txt

제목: 암환자 감소세, 10명 중 7명 완치, 갑상선암 5년생존율은 100.2%나  
날짜: 201512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33409694  
본문: 2013년 기준으로 암 환자수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암 발생률 역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br/> <br/>또 암환자 10명 중 7명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갑상선암의 경우 환자의 생존율이 비환자보자 오히려 높기까지 했다. <br/> <br/>2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br/> <br/>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2001~2005년(53.8%)보다 15.6%포인트나 높아졌다. <br/> <br/>암치료에서 5년 생존율은 사실상 완치를 뜻한다. <br/> <br/>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올라갔다. <br/> <br/>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100.2%나 됐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것이다. <br/> <br/>전립선암(92.5%), 유방암(91.5%)도 90%대를 기록했으며 대장암(75.6%), 위암(73.1%)도 상대적으로 5년 생존률이 높았다. <br/> <br/>위암의 5년 생존율(2009~2013년 기준)은 2001~2005년보다 15.4%포인트나 늘었다. <br/> <br/>난치암으로 알려진 전립선암(12.3%p), 간암(11.2%p), 대장암(9.0%p) 생존율도 크게 높아졌다. <br/> <br/>하지만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생존율이 여전히 낮았다.  <br/> <br/>2013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2만5343명으로, 전년의 22만6216명보다 소폭 줄었다. <br/> <br/>신규 암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의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신규 환자수는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79.3%나 많았다. <br/> <br/>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신규 암환자 수) 역시 311.6명으로 작년(322.3명)보다 11명 가량 줄었다. 암 발생률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였지만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감소했다. <br/> <br/>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컸다. <br/> <br/>2013년 남성의 암 발생률은 328.1명으로 여성의 313.4명보다 높았지만,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1999년~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9%)이 남성(0.7%)보다 높았다. <br/> <br/>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을 세계 표준 인구로 보정하면 한국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7명이다. <br/> <br/>이는 미국(318.0명), 호주(323.0명)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0.3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br/> <br/>암 환자수와 암 발생률이 감소한 것은 암 검진을 통해 암이 조기 발견되는데다 남성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예방 접종 시행, 생활 습관의 개선도 원인으로 보인다. <br/> <br/>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18.9%)이었으며 위암(13.4%). 대장암(12.3%), 폐암(10.3%), 유방암(7.7%)이 뒤를 이었다. <br/> <br/>남성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생이 많았으며,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br/> <br/>1999년과 2013년 통계를 비교한 결과 유방암은 5.6%, 대장암은 4.6%씩 매년 증가한 반면 자궁경부암과 간암은 각각 3.9%와 2.1%씩 감소했다. <br/> <br/>복지부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 건강검진의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앞당기고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0.txt

제목: 35~64세 남성은 위암, 여성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아  
날짜: 2015122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2132253776  
본문: 35세 이상의 남성은 위암-대장암-간암의 순으로 암 발병율이 높았고 여성은 갑상선암-유방암의 순으로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65세가 넘어서면 남성은 폐암, 여성은 대장암이 가장 많았다.  <br/> <br/>2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3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br/> <br/>이에 따르면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서 암 발병율이 점차 높아졌다. <br/> <br/>0~14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3.3명으로 가장 낮았지만 15~34세 76.9명, 35~64세 515.8명, 65세 이상 1578.5명 등으로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br/> <br/>연령군별로 보면 0~14세에서는 백혈병 발생률이 3.9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15~34세 젊은 남녀는 갑상선암(43.6명)의 발생률이 유방암, 백혈병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br/> <br/>35세 이상에서는 성별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암 종류가 달랐다. <br/> <br/>35~64세 남성은 위암(88.3명), 대장암(69.5명), 간암(62.4명) 등이 많았지만 같은 연령군의 여성에서는 갑상선암(228.2명), 유방암(123.9명) 등이 주로 발생했다. <br/> <br/>65세 이상 노인만 놓고 보면 남성 노인은 폐암(449.4명), 여성은 대장암(176.5명)이 각각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했다. <br/> <br/>성별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암이 차이를 보였다. <br/> <br/>남성은 44세까지는 갑상선암이, 50~69세까지는 위암이, 70세 이후에는 폐암이 각각 가장 많이 발생했다. <br/> <br/>여성은 69세까지는 갑상선암, 70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각각 많았다. <br/> <br/>모든 암의 연령군별 발생률을 보면 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암 발생률이 높지만 이후부터는 남성의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의학의 발달과 조기 암 검진의 증가로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치됐음을 말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1.txt

제목: 휴온스, 유전자 비만치료제 혁신신약개발 나서  
날짜: 20151221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1170644304  
본문:   <br/> <br/> <br/>국내 비만약 시장의 강자 휴온스가 약 5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비만약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 혁신신약개발에 나선다. <br/> <br/>휴온스는 지난 7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 '유전자 비만 치료제 특허 전용실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8일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특허의 기술은 지난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한 한양대공대 화공생명공학부 김용희 교수의 기술로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였던 기술이다. <br/> <br/>김 교수의 기술은 지방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지방제거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기술이다. 본 체료제는 지방을 제거하는 유전자치료제와, 지방세포에 이 치료제를 운반하는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만동물모델에서 투여 7주 후 몸무게를 25%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br/> <br/>휴온스는 본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함으로써, 비만치료용 유전자 치료제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본 특허에 관한 연구성과는 지난해 12월에 국제적으로 소재분야에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머티리얼(Nature Materials)게재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내 특허도 2014년에 등록됐다. <br/> <br/>엄기안 휴온스 중앙연구소장은 "한양대 김용희 교수의 선행연구 결과는 기존 제품들은 주로 중추신경계 식욕억제제 위주로 되어 있으나, 본 유전자치료제는 지방 자체를 제거하는 기술이 특징"이라며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치료 효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휴온스의 약효검증 및 제품 개발 능력을 더해 하루 빨리 치료제를 상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5조원(51억달러)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비만 인구는 약 5억명이며, 과체중은 14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뇨환자의 44%,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의 23%, 여러 암의 경우 7~41%가 비만에 기인하는 것이 보고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2.txt

제목: 국립암센터발전기금,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날짜: 2015122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1111053658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발전기금(이사장 이강현)은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지난 18일 국립암센터 행정동 3층 첨단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이날 협약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2억원을 지정기탁하고, '행복나눔공익신탁' 및 '행복나눔통장' 등 공익성 금융상품을 통해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은 "기부문화 형성 및 저변 확산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천하는 파트너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국립암센터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퇴치 및 이를 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3.txt

제목: '젊은 신장암 환자는 부분 신절제술로 생존율 높이세요'  
날짜: 2015122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1101629951  
본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 해운대백병원 비뇨기과 정재승 교수 연구팀이 신장암 치료인 근치적 신절제술과 부분 신절제술의 수술 후 생존율 비교를 통해 젊은 연령대의 환자는 부분 신절제술의 경우에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br/> <br/>신장암은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 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했거나 25~30% 환자는 주위 주직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장암은 건강검진이나 소화기 질환 검사 중 초음파나 CT를 통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br/> <br/>이러한 신장암에 대해 과거 약 10년전 까지는 종양을 포함하여 신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신절제술이 신장암 치료의 중심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능하면 종양과 주위 정상 조직 일부만 제거하고 신장의 나머지는 남겨두는 부분 신절제술이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 <br/> <br/>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크기가 작은 종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신장 기능의 보존을 위해 부분 신절제술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근치적 신절제술로 한쪽 신장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신장 하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하지만 아직까지도 근치적 신절제술과 부분 신절제술간의 생존율에 대한 이견이 많다. 전체 생존율은 신장암 환자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발표된 대다수 관찰연구에서는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비해 수술 후 신장 기능이 좋고 전체생존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더욱이 수술 전 환자 특성을 보정하지 않은 채로 생존율을 비교했기 때문에 부분 신절제술군이 우수한 생존율을 보일 수 있었다.  <br/> <br/>그런데 최근 ‘유럽 암 연구 및 치료기구(EORTC : European Organis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에서 발표된 유일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부분 신절제술의 환자군이 근치적 신절제술 환자군에 비해 전체 생존율이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분 신절제술의 생존율 향상 효과에 대해 의구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br/> <br/>이런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근치적 신절제술과 부분 신절제술의 수술 후 신기능 및 전체 생존율 비교’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전국 5개 병원의 신장암 환자 자료를 토대로 부분 및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 받은 1기 신장암환자 각각 622명의 자료 분석으로 진행됐다. <br/> <br/>수술 전 환자의 나이, 종양크기, 만성질환, 신장 기능 상태, 악성도 등 임상 및 병리학적 특징을 1:1로 매칭 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 특성을 동일하게 보정한 후, 연령대에 따라 수술 후 신장 기능 및 전체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술 후 신장 기능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부분 신절제술이 근치적 신절제술에 비해 우수함을 보였다. <br/> <br/>수술 후 전체 생존율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5세 미만의 젊은 환자에서는 부분 신절제술 환자군의 5년 전체 생존율은 99.7%, 근치적 신절제술 환자군은 96.3%로 부분 절제술에서 보다 나은 생존율을 보였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변석수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발표된 연구와 다르게 환자의 특징에 따라 매칭하고 보정한 그룹별 비교를 통해 부분 및 근치적 신절제술에서 연령대 별로 수술 후 생존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은 물론 높게 나타난 생존율 결과는 우리나라 초기 신장암 수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span>”고 밝혔다. <br/> <br/>덧붙여 변석수 교수는 “<span class='quot0'>크기가 작은 신장 종양이 있는 환자의 수술을 계획할 때는 연령과 전신상태 등을 고려해서 나이가 젊을수록 부분 신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신장 기능을 회복하고 환자의 수명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부분 신절제술 후 암이 재발하는지와 남겨둔 신장이 잘 기능하는지 살피면서 환자의 경과를 살펴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에 실리며 지난 2015년 11월 18일에 열린 2015 대한 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외 임상부분 학술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4.txt

제목: [설왕설래] 테레사의 기적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0181416115  
본문: ‘빈자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성인(聖人)이 된다고 한다. 로마 교황청이 그의 기적을 공식 인정해 서거 19주기인 내년에 성인으로 추대한다는 전언이다. 가톨릭에선 두 개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인으로 추대하는 규정이 있다. <br/> <br/>이번에 교황청이 인정한 기적은 2008년 브라질의 엘미란 페레이라 산토스라는 남성에게 일어난 기적이다. 다발성 뇌종양으로 시한부 삶을 살던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를 드린 후 이틀 만에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한다. 의사들은 그가 집중치료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뇌종양이 모두 사라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황청은 1998년 인도에서 암 투병 중이던 소녀가 집에 걸린 테레사 수녀 사진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완쾌하자 첫 번째 기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다. <br/> <br/>사실 테레사 수녀에게 기적의 사례를 손으로 꼽는 자체가 불경이다. 평생 봉사의 길을 걸어온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인 까닭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불가사의한 일들은 숱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인정한 ‘테레사 효과’다. 의과대 연구진이 피실험자에게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상을 보여준 뒤 신체 변화를 측정했더니 면역 항체가 늘고 스트레스 지표는 줄었다고 한다. 자기가 직접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수녀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긍정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다. <br/> <br/>기적의 힘은 테레사 수녀의 무한 선행에서 나온다. 그는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인도 캘커타의 슬럼가로 뛰어들었다. 집 없이 떠도는 어린이들을 위해선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집’을 열었다. 그는 “단 한 시간밖에 살지 못하더라도 어떤 아이든 이곳으로 데려와 달라”고 호소했다. 곧 죽을 아이에게까지 비용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수녀가 말했다. “<span class='quot0'>아이가 사랑 속에서 최후를 맞게 해줘야 합니다.</span>” <br/> <br/>임종 즈음에 심장병으로 입원한 수녀는 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했다. 병원 구경도 한 번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처럼 가난하게 죽겠다는 생각이었다. 가난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부유했다. <br/> <br/>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자신을 ‘몽당연필’로 불렀다. 150㎝가 될까 말까 하는 작은 체구를 빗댄 말이었다. 그러나 수녀처럼 큰 몽당연필은 일찍이 없었다. <br/> <br/>배연국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5.txt

제목: 잦은 음주와 폭음, 상상을 넘는 간 손상 초래..어느 정도인가?  
날짜: 2015122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0161059847  
본문:  폭음이 인체건강에 해로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습관적으로 단시간 내에 술을 마시는 폭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간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미국과 한국에서 폭음은 흔한 일인데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여섯 명 중 한 명 정도는 한 달에 4번 정도 폭음을 하는것으로 집계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폭음의 기준을 대략 2시간 이내에 남성의 경우 다섯 잔 이상을, 여성의 경우 두 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br/> <br/>미국 미저리 의대 시벤드라 슈크라 교수는 “습관적으로 폭음과 과음을 하는 사람의 경우 만성알코올간질환으로 간 손상은 흔한 일이다"며 "이러한 음주습관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br/> <br/>슈크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폭음이 간을 망가뜨리는 원리를 규명하고 어느 정도로 해로운지를 알고자 여러 다른 유형의 알코올 남용과  음주 습관의 결과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br/>   <br/>슈크라 교수팀은 쥐를 이용해 만성적인 음주, 반복적인 폭음 그리고 양쪽의 경우를 둘 다 포함한 경우의 간 손상 정도를 연구했다. 4주에 걸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음주와 반복된 폭음에 노출된 쥐는 매우 높은 간 손상이 나타냈다. <br/> <br/>슈크라 교수는 "만성적인 음주 또는 반복적인 폭음이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 비해 간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했지만 간 손상의 정도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났다”며 "만성적인 음주와 폭음을 함께 반복한 경우에 지방간의 정도는 적당히 술을 마신 경우에 비해 13배였다”고 강조했다. <br/> <br/>간에 지방이 계속 쌓여 지방간이 악화되면 스트레스나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간 기능이 떨어져 다른 장기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br/> <br/>슈크라 교수는 "만성적인 음주와 반복적인 폭음은 간 손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나친 음주는 간과 다른 장기에 염증을 일으킨다"며 ”그로 인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모든 생리학적 과정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유발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알코올 남용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 할 수 있어 중요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바이오분자(Biomolecules.) 저널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6.txt

제목: CT 등 건강검진 한번으로 최대 11년치 방사선 노출된다  
날짜: 2015122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0152005512  
본문: 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개인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296곳의 검진 항목별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의 '기본 검진항목'만으로 평균 2.49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br/> <br/>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1mSv)을 넘는 수치다. <br/> <br/>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의 검진 프로그램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 0.02mSv, 유방촬영술 0.27 mSv, 흉부 CT, 8 mSv, 전신 PET, 7.03 mSv 등 검진항목별 방사선 노출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CT 등 건강검진 때 추가로 선택하는 '선택 항목'까지 보태면 건강검진의 방사선 노출량은 더 올라간다. <br/> <br/>선택 검진항목을 더한 경우의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14.82mSv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출량이 최대 30mSv 이상인 검진 기관은 31곳(10.5%)으로 집계됐고, 모든 검진항목을 더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이 가장 많은 검진기관의 최대 노출량은 무려 40.1mSv에 이르렀다. <br/> <br/>일반인은 자연에서 연간 2.4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우리 국민의 연평균 방사선 노출량은 3.6mSv다. 건강검진 한 번으로 최대 11년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br/> <br/>10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100mSv미만 저 선량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br/> <br/>다만 연구팀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한계선이 연간 50mSv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종합검진의 방사선 노출량이 결코 안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r/> <br/>방사선 노출량이 가장 많은 검사는 CT였다. 전체 노출량에서 CT가 차지하는 방사선량이 72%로 가장 높았고 조영술(16%), PET(9%), 엑스레이(3%) 등의 순이었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7.txt

제목: '위대한 엄마' 뱃속 아기 지키려고 항암 치료 거부  
날짜: 2015122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20143110700  
본문:   <br/> <br/>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암을 진단받고도 항암 치료를 거부한 임산부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br/> <br/>지난 1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9월 급성 유방암 판정을 받은 하이디 로우린(Heidi Loughlin, 33)이 뱃속 아기를 위해 항암 치료를 늦췄다고 보도했다. <br/> <br/>로우린이 임신 3개월이 넘었을 무렵, 그녀는 담당 의사로부터 '급성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br/> <br/>'위대한 엄마' 로우린은 뱃속 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항암 치료를 극구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br/> <br/>그는 "그 순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br/> <br/>하지만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다. <br/>또한 더 이상 치료를 늦추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료진의 강력한 경고가 이어지자, 결국 로우린은 12주 이른 날짜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br/> <br/>이어 체중이 불과 1.04kg로 몸집은 작지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고, 로우린 역시 가까스로 약물 치료에 돌입할 수 있었다. <br/> <br/>이렇듯 로우린은 용감한 결단으로 결국 아기를 지켜냈으며, 앞으로 자신 또한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8.txt

제목: '응팔' 이일화, 건강검진 '진짜 암이면 어쩌지?'  
날짜: 20151218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205607901  
본문: ['응팔' 이일화, 건강검진 '진짜 암이면 어쩌지?' 사진=방송화면캡쳐]'응팔' 이일화, 건강검진 '진짜 암이면 어쩌지?' <br/> <br/>이일화의 건강 검진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br/> <br/>18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1988'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일화(이일화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br/> <br/>일화는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암이면 어쩌냐고"고 걱정했는데, 역시 병원에서도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br/> <br/>일화는 “그러면 내가 암 일수도 있냐”고 물으며 무서워했다. 동일(성동일 분)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하게 했다.  <br/> <br/>하지만 동일은 일화가 검사하러 나가자, 의사에게 “혹시 안좋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의사는 “사실 모양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그래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응답하라1988’은 쌍팔년도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코믹 가족극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799.txt

제목: 연령대 별 빈혈에 좋은 식품  
날짜: 2015121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164828885  
본문:   <br/> <br/>빈혈에 좋은 식품이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해외 AQUARIOUS 매체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특히 빈혈에 취약해 철이 풍부한 칠면조나 렌틸콩, 시금치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연령대별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섭취 영양소와 식품을 소개해본다. <br/>  <br/>◆  20대 필수 영양소 <br/>20대에 얼마나 스스로 건강을 챙겼는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20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br/>  <br/>비타민 D - 여성의 45%에서 75%는 비타민D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비타민D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0.01mg이다. 우유와 같은 식품은 비타민D가 풍부하지만 다른 식품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br/>  <br/>엽산 - 엽산은 비타민B의 종류로 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태아의 결함을 막기 위해 엽산을 섭취해야 한다. 만일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가임기 여성이라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엽산은 심장 건강에도 중요하다. 20대 여성의 권장 엽산 섭취량은 400mcg이다. 모든 곡류와 콩, 녹색 야채는 엽산이 풍부하다. <br/>  <br/>칼슘 - 칼슘은 전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35세 이후에 뼈의 많은 칼슘이 소실되기 쉽다. 뼈 건강 보호는2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1000mg의 칼슘을 저지방 우유나 다른 음식들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30대 필수 영양소 <br/>30대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바쁜 삶은 당신이 더 많은 제대로 된 영양소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br/>  <br/>비타민C - 비타민C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좀 더 에너지 넘치도록 도와준다. 비타민C 수준이 낮은 경우 암에 취약해질 수 있고 심장마비나 고혈압과도 연관되어 있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C의 섭취는 감염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상처를 치료하며 피부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18세 이상의 여성의 권장 비타민C섭취량은 85mg은 이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비타민 B6, B12 - 비타민 B6과 B12는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30대의 나이는 심장혈관 건강에 유의하기 좋은 시기이다. 비타민 B6과 B12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homocysteine)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혈관이 수축될 수 있다. 또한 비타민 B6과 B12의 농도가 낮고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30대 여성에게는 1.5mg의 비타민 B6과 2.4mcg의 B12가 권장량이다. 달걀, 가금류, 곡식류는 비타민B가 충분하므로 잘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  40대 이상의 필수 영양소 <br/>40대 이상부터는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한다. 몸무게 유지를 위해서는 20대 때에 비해 매일 100칼로리를 덜 섭취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영양소를 유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br/>  <br/>식물영양소(Phytonutrients) - 식물영양소 파이토뉴트리언트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antioxidants)가 들어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물질이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해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포도, 딸기, 당근에 이 영양소가 풍부하다. <br/>  <br/>오메가3 - 오메가3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중성지방인 트리클리세리드(triglyceride) 수준을 낮춰준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오메가3는 참치와 연어, 슈퍼곡물인 아마 씨(flaxseed)에 풍부하다. <br/>  <br/>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span class='quot0'>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책이므로 평소 음식을 골고루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span>” 며 “<span class='quot0'>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폐치료로 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고 폐기능 강화는 면역력의 회복이므로 질병의 예방과 악화방지에 도움이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0.txt

제목: 흡연 외 다른 위험요인 있다면 담배회사가 입증해야  
날짜: 201512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151317346  
본문:   <br/> <br/> <br/>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이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br/> <br/>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변론에 이어, 흡연과 담배소송 개별대상자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심리되며,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은,  ① 담배소송 개별대상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담배회사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로 인해 유발되었는가, ② 흡연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에 담배회사가 제조 또는 판매한 담배의 중독성이 원인이 되었는가 이다. <br/> <br/>이미 3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흡연과 개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담배회사들은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개인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명확한 입증과 반박을 펼친다. <br/> <br/>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대상자들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문진표 일체,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과 폐암 발병 여부를 조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br/> <br/>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중앙 암등록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공단이 주장하는 암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의무기록 상에 대상자들의 조직학적 진단명이 거의 대부분 공단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r/> <br/>또한 건강검진 문진표만으로는 정확한 흡연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들 주장에 대해, 흡연여부와 흡연기간, 일일 흡연량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의무기록으로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br/> <br/>마지막으로 흡연 이외 다른 위험인자의 존재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는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흡연 이외 어떤 다른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험요인이 얼마나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어떠한 경우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의 위험도를 능가하는지에 대해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br/> <br/>최근 156억 달러(CAD)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캐나다 퀘벡주 등 이미 여러 사법권에서 역학적 연구 결과를 개별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과확률(PC, probability of causation)'이 흡연과 폐암의 경우 소세포암 95.4%, 편평세포암 91.5%, 전체 후두암이 81.5%로 압도적으로 높고, 질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역학을 핵심 학문 분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개인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 역학연구와 인과확률의 개념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br/> <br/>흡연의 건강 폐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수차례 미국 보건총감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 상위 과학 편집자를 역임한 조나단 사멧(Jonathan Samet)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후두암과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의 지배적인 위험요인이다"며 "특정 개인들에게 다른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상정해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집단에서 도출되는 역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수준으로 특정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흡연력과 병력이 입증되고 흡연을 능가할 다른 위험요인을 입증되지 않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데, 공단은 이미 많은 증거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흡연력과 암종을 입증한바 흡연 이외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입증은 이제 담배회사의 몫이다. <br/> <br/>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의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r/> <br/>또한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동시에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1.txt

제목: 경희의료원, '제1회 후마니타스 국제암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512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134138694  
본문:   <br/> <br/> <br/>경희의료원은 세계최초 암병원인 영국 '로얄마스덴(Royal Marsden)',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와 공동주최로 '제1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은 '직장암에 대한 정밀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되며, 정밀의학을 중심으로 세계추세에 맞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이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직장암 MRI분야 권위자인 로얄마스덴의 지나 브라운(Gina Brown)교수를 비롯한 하버드대학 부속병원의 릴리아나 보데아누(Liliana G. Bordeianou)교수, 동경대학교병원의 도시아키 와타나베(Toshiaki Watanabe)교수, 웨일즈병원 홍콩 프린스의 사이먼 시우 만(Simon Siu Man Ng)교수, 경희대학교병원 김시영 암센터소장, 경희의료원 외과 이길연교수 등 국내외 암 전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br/>  <br/>특히 세계 최초의 암병원인 로얄마스덴 소속의 지나 브라운은 직장암 MRI 판독에 있어 세계적인 귄위자로, 이번 경희의료원과의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향후 건립 예정인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과, 상호 기관간 연구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제 1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br/> <br/>이들은 직장암 치료의 선진적인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치료를 모색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직장암 진단 및 치료방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환자 개개인을 중심에 놓는 '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정밀의학 실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br/>  <br/>현재의 암치료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발전해온 '평균의 의학'이다. 그러나 환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암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정밀의학'의 국내 본격적인 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직장암 협의체(International Rectal Cancer Consortium)'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를 통해 '국제 직장암 치료 컨센서스' 완성에 그 뜻을 두고 있다. <br/> <br/>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내년 5월 착공하여 2017년 완공 예정인 '후마니타스 암병원'도 환자 개인별 맞춤 '정밀의학'을 중심으로 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암을 넘어선 삶이란 미션을 바탕으로 사람 그 자체를 가치의 중심에 두는 인간적 의학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밀의학을 핵심진료 모델로 하는 동시에 암환자 치료 후 치유까지 생각하는 지지 프로그램인 '치유프로그램'으로 ‘암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r/> <br/>후마니타스 암병원은 진료, 연구, 교육, 사회공헌의 4가지 영역을 포괄한 암치료의 허브로서 세계 수준의 전문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암병원의 주요 특징은 핵심 진료모델인 '정밀의학'을 중심으로 '동선제로의 신환센터', '모든 암환자 방문당일 진료 및 검사시행 원칙', '다학제팀 중심의 개인 조건별 최단진료 및검사체계', '환자경험 가치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디자인', '진료와 치유의 결합모델인 치유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이노디자인 김영세대표가 암병원의 환자경험 가치중심 '공간 및 서비스디자인'과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BI(상표이미지)'를 맡아 완성하였다. <br/> <br/>또한 암으로 무너진 개인의 인간다움(Humanitas)을 회복하는 의료기관으로써 '가발무상제공 스타일링 및 뷰티클래스', '인생 및 직업상담', '운동과 음악치료가 결합된 힐링댄스', '치유동물', '영화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의 수준을 넘어서 환자와 그 가족의 삶과 정신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15종을 구축하였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2.txt

제목: 동화약품-아주대의료원,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날짜: 201512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8104116591  
본문:   <br/> <br/> <br/>동화약품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의료원 국제회의실에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RIP3 바이오마커 이용 항암제 개발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것이다. <br/> <br/>최근 글로벌데이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방암 환자의 80~90%는 항암화학요법 실시, 그러나 항암화학요법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5%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br/> <br/>암환자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의 치료 효율이 낮은 이유는 암환자의 세포사멸 핵심 유전자인 RIP3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한 기술은 RIP3 단백질의 발현이 저하된 암환자를 대상으로 활성화제를 이용하여 회복 시킴으로써 항암제의 치료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br/> <br/>따라서 이러한 개인 맞춤형 의학 기술이 실제 치료에 적용되면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 감소, 치료 효율 증대로 인한 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유방암뿐 아니라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개발을 확장할 계획이다. <br/> <br/>이 기술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가 연구한 성과로, 동화약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동안 약30억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br/> <br/>한편 이 기술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R&D 우수기술 선정 및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사업화 유망기술로 선정되어 기술마케팅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운영중인 산학협력 중개센터가 기술이전 협상 과정을 지원했다. <br/> <br/>동화약품은 지난 4월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증진, 사업화 분야 전반과 산학연협력의 동반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r/> <br/>현재 동화약품은 동국대학교(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 경희대학교(천연복합추출물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과 산학협력)를 비롯하여 국립수목원(국가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기관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3.txt

제목: 단편소설 응모 사상 최다… 소재 다양하고 내용 풍성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7204416948  
본문: 2016 세계일보 신춘문예 응모작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 단편소설과 시 응모자 증가가 눈에 띈다. 단편소설은 지난해에 비해 143편 증가한 829편으로 세계일보 신춘문예 사상 최다 편수다. 시 응모자는 1180명으로 지난해보다 124명 늘었다. 36편 접수된 문학평론은 이 부문 신춘문예 평균 응모작의 세 배에 가까운 편수다. 예심은 문학평론가 박철화, 소설가 정길연·백가흠, 김영남·안현미 시인이 맡았다. 단편소설은 12편, 시는 23명의 작품을 예심을 거치지 않는 문학평론 응모작과 함께 본심으로 넘겼다. 올해 응모작 경향을 예심위원들의 목소리로 살핀다. <br/> <br/> 2016 세계일보 신춘문예 예심위원들이 응모작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안현미 시인, 소설가 정길연 백가흠, 문학평론가 박철화, 김영남 시인. <br/>이제원 기자◆시/ 김영남(시인) <br/> <br/>이런 형국을 시의 풀밭이리고 비유해야 하나 시의 꽃밭이라고 해야 하나. 금수저, 거세, 이사, 우울증 등 예년에 보지 못했던 단어들도 자주 등장해 긴장했다. 관심 분야, 표현 내용, 응모량이 전보다 풍성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 꽃밭이라 여기며 꽃대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없는가를 유심히 살폈다. 시적 수준이 조금 하향 평균화한 아쉬움 속에서도 기준을 충족한 작품들을 여럿 고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br/> <br/>◆시/ 안현미(시인) <br/> <br/>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시간 속에 ‘삶’은 흔적을 남긴다. 그 무수한 흔적들 중에서 가장 아픈 곳에 관한 기록이 시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투고작들에서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시적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매년 빠지지 않고 투고되는 가까운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식, 손주?에 대한 시들에선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을 통해 ‘따뜻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았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현저히 줄고 방사능, 세슘 등 먹거리와 관련 있는 문제를 다룬 시들이 눈에 띄는 것이 이채로웠다. <br/> <br/>◆단편소설/ 박철화(문학평론가) <br/> <br/>요즘의 혼란스러운 우리 삶을 반영하듯 올해 투고작들은 다양했다. 쉽게 어떤 특정한 경향으로 모이지 않는 점이야말로 올해 투고작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장점이고, 반면 쓰는 자의 주관성이 과도하게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령화 사회를 보여주는, 노인세대의 죽음이나 암 등의 발병에 기인한 가족의 위기 및 갈등이 그나마 공통 배경의 하나였다. 아쉬운 점은 한국문학의 위대한 전통, 뛰어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 세상과 부딪치려는 노력이 덜 보인다는 것이다. 권위의 존중과 계승은 표절과는 전혀 다른 문학예술의 매혹이라는 점을 강조해 말하고 싶다. 매끈하지만 에너지 없는 작품보다는, 거칠더라도 힘찬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품을 고르고자 했다. <br/> <br/>◆단편소설/ 정길연(소설가) <br/> <br/>닫힌 글쓰기에서 열린 글쓰기로의 이행이라고나 할까, 한동안 소설문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지극히 사적인 웅얼거림이 확실히 줄어든 반면 암울한 시대의 병리적 현상을 포착한 소재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을 포함한 취업 문제, 가족의 해체와 고립된 자아의 혼란,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메르스를 둘러싼 의혹, 판타지 요소를 갖춘 미스터리, 양로원과 요양원이라는 퇴행적 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고충 등등에 못지않게, 외국 체류 및 여행 경험을 알뜰히 재가공한 이국 취향도 자주 등장했다. 세련된 문체와 탄탄한 문장력, 다부진 기량과 흡인력을 갖춘 작품이 적지 않아 모처럼 선별하는 괴로움 또한 적지 않았다. <br/> <br/>◆단편소설/ 백가흠(소설가) <br/> <br/>투고한 소설의 전반적인 수준은 좋은 편이었다. 방법적인 면에서 어떤 경향 같은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 하나는 서술자의 독백이었다. 소설의 완성도는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인물과 주제의 형상화가 관건인데 1인칭 독백투는 일기나 편지 같은 에세이 산문의 특성이 도드라져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쓰는 사람에겐 손쉬운 선택일지도 모를 일이나 듣는 사람 없이 허무하게 메아리치는 듯 공허한 울림 같아 아쉬웠다.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혹은 가족의 실종이나 잉태에 실패한 불임, 이국을 떠도는 노마드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압축으로 읽혔다. 무엇인가를 잃거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어 가족의 관계 혹은 사회 안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균열을 그린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4.txt

제목: 암이 운에 좌우?…"열에 아홉은 흡연 등 외부요인 때문"  
날짜: 20151217  
기자: 유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7171359483  
본문: 암의 열 중 아홉 정도는 흡연, 음주, 자외선 노출, 공기오염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암이 ‘불운’ 때문에 생긴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뒤집는 내용이어서 암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br/> <br/>미국 스토니브룩 대학 암센터 연구진은 흔히 걸리는 암의 70∼90%가 개인의 생활습관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전했다. <br/> <br/>연구진은 컴퓨터 모델링, 인구 데이터, 유전학적 접근법 등을 통해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직장암의 75%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며, 피부암의 86%는 자외선 노출 때문에, 두경부암의 75%는 흡연과 음주 때문에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br/> <br/>케빈 맥컨웨이 영국 개방대학 교수(응용통계학)는 “<span class='quot0'>만약에 우리가 위험한 외부 요인을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암의 70∼90%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준다</span>”고 말했다. 물론 몇몇 암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으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방 가능하다는 뜻이다. <br/> <br/>유수프 해넌 스토니브룩대 교수는 이를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6개의 약실 중에 ‘돌연변이의 불운’이라는 탄환이 기본적으로 한 발 장전돼 있다면, 흡연자들은 거기에 두세 발을 더 채운 뒤 방아쇠를 당기는 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모든 흡연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은 분명하다</span>”고 BBC방송에 말했다. <br/> <br/>이는 올해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두 연구자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불운 가설’과 상반된 내용이다. 존스홉킨스 연구진은 암 위험의 3분의 2가량이 줄기세포가 분화할 때 무작위로 생기는 DNA 복제 오류, 즉 돌연변이에 따라 암이 생긴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br/> <br/>그러나 아직 암을 유발하는 외부 위험요인이 전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모든 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암연구센터의 엠마 스미스는 “<span class='quot1'>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 건강한 식단 등의 습관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런다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5.txt

제목: 을지대병원 박진성 교수, 방광암 관여 단백질 메카니즘 규명  
날짜: 201512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7130158430  
본문: 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 교수. <br/>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이 방광암에서 발현되고 이 단백질이 방광암의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br/> <br/>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 교수팀은 방광암 조직과 정상 방광 조직을 대상으로 600여개 이상의 단백질 발현을 조사한 결과, '칼데스몬 (Caldesmon)' 발현이 정상조직보다 방광암 조직, 특히 근육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하는 침윤성 방광암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또 132명의 일차성 표재성 방광암환자를 대상으로 칼데스몬 발현과 환자 예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칼데스몬이 발현되는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암의 재발이 3.5배, 암의 진행은 5.3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br/> <br/>연구팀은 특히 이 단백질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암 세포의 이동성이나 침윤성 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밝혀내 방광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세포의 미세섬유 조절이나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칼데스몬'과 방광암과의 상관관계는 그동안 알려진 게 없었다. <br/> <br/>박 교수는 "방광암이 침윤성으로 진행될 경우 재발률이나 사망률이 높아 그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종양표지자를 확인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칼데스몬을 통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광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br/> <br/>이 연구결과는 '일차성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에서 종양 진행 예측인자로서 Caldesmon 발현의 예후적 의미 (Overexpression of caldesmon is associated with tumor progression in patients with primary non-muscle-invasive bladder cancer)'라는 제목으로 종양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종양표적(Oncotarget) 최근호에 실렸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6.txt

제목: [사설] 땜질 처방으로 ‘시한부’ 건보 재정 살아나겠나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549382  
본문: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높아지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상향된다. 보름 넘게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25~30% 차등 인상된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긴 내용이다.<br/> <br/>어제 처방에는 건보료 폭탄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가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가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건보공단에 보수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세금 연말정산처럼 보험료 재산정에 따른 추가 부담이 다음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br/> <br/>이번 건보료 개선안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마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 놓고 고약만 바르는 격이다. 1977년 도입된 건보제도는 그동안 수술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이미 암 덩어리가 온몸에 번진 상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면제받는 무임승차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단칸 셋방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반면 연간 수천만원의 고액 소득자는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일이 수두룩하다. 무임 승차자 중에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가 67만여명이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도처에 공짜 승객이 즐비하니 건보 재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건보 재정이 최근 정부로부터 10년 내 완전 고갈이라는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br/> <br/>중증 건보 재정을 살리는 방법은 달리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건보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일이다. 요체는 소득과 재산으로 복잡하게 얽힌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무임 승차자에게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피부양자의 근로·이자·연금소득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부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br/> <br/>정부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고치겠다고 해놓고 올 들어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이제는 언제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말조차 없다. 지금처럼 수술을 자꾸 늦추면 병은 깊어지고 후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총선 여파로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기어이 ‘양치기 소년’이 될 셈인가.<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7.txt

제목: [사설] 땜질 처방으로 ‘시한부’ 건보 재정 살아나겠나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214202912  
본문: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높아지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78원에서 179.6원으로 상향된다. 보름 넘게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25~30% 차등 인상된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긴 내용이다. <br/> <br/>어제 처방에는 건보료 폭탄을 방지할 장치도 마련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가 ‘당월 보수 당월 부과’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의 보수가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건보공단에 보수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세금 연말정산처럼 보험료 재산정에 따른 추가 부담이 다음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br/> <br/>이번 건보료 개선안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마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 놓고 고약만 바르는 격이다. 1977년 도입된 건보제도는 그동안 수술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이미 암 덩어리가 온몸에 번진 상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면제받는 무임승차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단칸 셋방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반면 연간 수천만원의 고액 소득자는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일이 수두룩하다. 무임 승차자 중에는 주택 3채 이상 보유자가 67만여명이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도처에 공짜 승객이 즐비하니 건보 재정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건보 재정이 최근 정부로부터 10년 내 완전 고갈이라는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br/> <br/>중증 건보 재정을 살리는 방법은 달리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건보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일이다. 요체는 소득과 재산으로 복잡하게 얽힌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무임 승차자에게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피부양자의 근로·이자·연금소득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 부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br/> <br/>정부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고치겠다고 해놓고 올 들어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 이제는 언제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말조차 없다. 지금처럼 수술을 자꾸 늦추면 병은 깊어지고 후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건보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총선 여파로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기어이 ‘양치기 소년’이 될 셈인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8.txt

제목: 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 피하려면… 꼼꼼히 챙겨라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539138  
본문: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높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계약 과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가입한 보험 특성을 따져보고 해약을 해야 손해를 적게 본다.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 및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br/> <br/>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 <br/> <br/>1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해야 한다. <br/> <br/>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br/> <br/>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br/> <br/>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이 보험통지서를 우편물의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데 이사, 전직 등으로 주소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편이 낫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 <br/> <br/>◆투자형, 저축성, 이자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 <br/> <br/>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br/> <br/>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쉽고 경기 회복으로 수익률을 만회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 <br/> <br/>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br/> <br/>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r/> <br/>암, 상해 보험 등의 경우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0'>경기 침체로 보험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한 후 해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09.txt

제목: 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 피하려면… 꼼꼼히 챙겨라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205446091  
본문: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높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계약 과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가입한 보험 특성을 따져보고 해약을 해야 손해를 적게 본다.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 및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br/> <br/>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br/>◆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 <br/> <br/>1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해야 한다. <br/> <br/>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br/> <br/>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br/> <br/>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이 보험통지서를 우편물의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데 이사, 전직 등으로 주소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편이 낫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 <br/> <br/>◆투자형, 저축성, 이자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 <br/> <br/>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br/> <br/>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쉽고 경기 회복으로 수익률을 만회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 <br/> <br/>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br/> <br/>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r/> <br/>암, 상해 보험 등의 경우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0'>경기 침체로 보험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한 후 해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0.txt

제목: 예후 좋은 갑상선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날짜: 20151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443757  
본문: ?<br/> <br/>갑상선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후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 치료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팀(내분비내과 박영주, 고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도영 교수)은 이 결과를 갑상선 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갑상선학회지 ‘갑상선’ 온라인판 11월호에 게재했다. <br/> <br/>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br/> <br/>이 갑상선에 생긴 혹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한다. 갑상선 결절은 성인 2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5%정도는 악성(암)으로 수술을 필요로 한다. <br/> <br/>갑상선암은 수술로 암 부위를 제거하면 대체로 예후가 좋지만, 이는 암세포의 분화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br/> <br/>암세포의 분화 상태가 좋은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 암세포의 분화가 좋다는 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암이 천천히 진행되고 치료도 잘된다. 국내 갑상선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이 여기에 속한다. <br/> <br/>이런 유두암과 여포암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변이가 진행된다. 분화의 방향이 역전, 분화 상태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이 되는 것이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정상세포의 특징의 거의 가지지 않는다. 주변 장기 침범 및 림프절로의 전이가 빨라 예후도 매우 좋지 않다. <br/> <br/>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미분화 갑상선암도 치료시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컸다. 특히 조기에 치료가 이뤄질 경우 생존율이 크게 올랐다. <br/> <br/>연구팀은 1985~2013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미분화 갑상선암을 치료받은 184명을 3그룹(진행 단계)에 따라 △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암 전체 미분화) △ 저분화 갑상선암(분화 상태 좋지 않음, 완전 미분화 전 단계) △ 분화 갑상선암이나 일부 미분화로 변이 진행 중 으로 나눠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4.3%에 그쳤다. 반면 저분화와 일부 미분화 환자의 생존율은 각각 65.8%와 81.3%에 달했다. <br/> <br/>또 수술이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71.4%)도 미분화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존율(26.5%)보다 크게 높았다. <br/> <br/>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방사선치료(신체 외부에서 방사선 조사)가 환자의 생존 기간(7.7개월→19.2개월)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br/> <br/>다행인 점은 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예후가 좋은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었다. <br/> <br/>연구 대상자를 10년 단위로 나눠 보면 가장 초기(1985-1994년)의 환자 중 수술로 암 절제가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28%에 그쳤지만,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76.7%(1995-2004년), 79.1%(2005-2013년)로 올랐다. 각 기간의 5년 생존율도 16%, 28.8%, 51.9%로 점점 상승했다. <br/> <br/>하정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4만명 정도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한다. 이중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0.3% 이내로 많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분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의 변이로 발생한다. 즉 갑상선암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고 신체 증상이 생긴 후 암을 진단받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 고 말했다. <br/> <br/>하 교수는 “특히 갑상선암은 목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아니면 만져서 발견하기 어렵고 암이 기도의 절반 이상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없다” 며 “단 너무 작은 갑상선암을 진단 및 수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작은 갑상선암은 진단했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상선암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정립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1.txt

제목: 예후 좋은 갑상선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날짜: 2015121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172433547  
본문:   <br/> <br/>갑상선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후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 치료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br/> <br/>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팀(내분비내과 박영주, 고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도영 교수)은 이 결과를 갑상선 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갑상선학회지 ‘갑상선’ 온라인판 11월호에 게재했다. <br/> <br/>갑상선은 목 앞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한다. <br/> <br/>이 갑상선에 생긴 혹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한다. 갑상선 결절은 성인 2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지만 5%정도는 악성(암)으로 수술을 필요로 한다. <br/> <br/>갑상선암은 수술로 암 부위를 제거하면 대체로 예후가 좋지만, 이는 암세포의 분화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br/> <br/>암세포의 분화 상태가 좋은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 암세포의 분화가 좋다는 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암이 천천히 진행되고 치료도 잘된다. 국내 갑상선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이 여기에 속한다. <br/> <br/>이런 유두암과 여포암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변이가 진행된다. 분화의 방향이 역전, 분화 상태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이 되는 것이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정상세포의 특징의 거의 가지지 않는다. 주변 장기 침범 및 림프절로의 전이가 빨라 예후도 매우 좋지 않다. <br/> <br/>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미분화 갑상선암도 치료시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가 컸다. 특히 조기에 치료가 이뤄질 경우 생존율이 크게 올랐다. <br/> <br/>연구팀은 1985~2013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미분화 갑상선암을 치료받은 184명을 3그룹(진행 단계)에 따라 △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암 전체 미분화) △ 저분화 갑상선암(분화 상태 좋지 않음, 완전 미분화 전 단계) △ 분화 갑상선암이나 일부 미분화로 변이 진행 중 으로 나눠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4.3%에 그쳤다. 반면 저분화와 일부 미분화 환자의 생존율은 각각 65.8%와 81.3%에 달했다. <br/> <br/>또 수술이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71.4%)도 미분화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존율(26.5%)보다 크게 높았다. <br/> <br/>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방사선치료(신체 외부에서 방사선 조사)가 환자의 생존 기간(7.7개월→19.2개월)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br/> <br/>다행인 점은 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예후가 좋은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었다. <br/> <br/>연구 대상자를 10년 단위로 나눠 보면 가장 초기(1985-1994년)의 환자 중 수술로 암 절제가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28%에 그쳤지만,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76.7%(1995-2004년), 79.1%(2005-2013년)로 올랐다. 각 기간의 5년 생존율도 16%, 28.8%, 51.9%로 점점 상승했다. <br/> <br/>하정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4만명 정도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한다. 이중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는 0.3% 이내로 많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미분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의 변이로 발생한다. 즉 갑상선암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고 신체 증상이 생긴 후 암을 진단받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 고 말했다. <br/> <br/>하 교수는 “특히 갑상선암은 목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아니면 만져서 발견하기 어렵고 암이 기도의 절반 이상을 침범하기 전까지는 특이한 증상이 없다” 며 “단 너무 작은 갑상선암을 진단 및 수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작은 갑상선암은 진단했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상선암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정립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2.txt

제목: 수면시간 짧을수록 남성 자살충동·여성 우울증 증가  
날짜: 201512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57689  
본문: BMC 퍼블릭 헬스 12월호 이민수, 하인역 연구팀 게재 논문.<br/>수면시간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실제로 수면시간에 따른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유병률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br/> <br/>이러한 가운데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여자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면시간(7~8시간)보다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에서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짧은 수면시간일수록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JSR) 이민수·하인혁 원장 연구팀은 국민건강 영양조사(2010년~2012년)에서 수면시간 설문에 응답한 1만7638명(19세 이상)을 비교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수면시간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이를 오즈비(Odds ratio) 값으로 성별, 나이, 소득수준, 직업 등 변인을 조정했다. <br/> <br/> 국내 성인남녀 수면시간에 따른 정신상태 표. <br/>그 결과 전체 하루 평균수면시간(6.78±1.41)의 평균값을 1.00로 놨을 때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가진 남·여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각각 1.39배, 1.13배 증가했다. 반면 6시간 미만을 자는 남·여의 우울감은 각각 1.26배, 1.71배 증가했다. <br/> <br/>또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6시간 미만의 수면패턴을 보인 남·여 모두 스트레스가 각각 1.42배, 1.77배 더 증가했다. <br/> <br/>이 같은 원인에 대해 남성은 짧은 수면시간으로 인한 피로가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키고, 감정조절능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난소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HPA(hypothalamic?pituitary?adrenal)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br/> <br/>이와 함께 골관절염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짧은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1.2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암 진단확정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변인으로 보정하기 못하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민수 연구원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만성질환 중 골관절염, 암 등은 수면시간에 영향를 미치는 정신건강문제를 보정하더라도 수면패턴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보여져 그에 대한 추가적인 기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율이 치솟는 현대 사회를 반영해 볼 때 수면의 질, 적정 수면시간이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연구논문은 영국 온라인 공공보건저널 'BMC 퍼블릭 헬스(PMC public health, IF= 2.26)' 12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3.txt

제목: 수면시간 짧을수록 남성 자살충동·여성 우울증 증가  
날짜: 20151215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102542461  
본문: BMC 퍼블릭 헬스 12월호 이민수, 하인혁 연구팀 게재 논문. <br/>수면시간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실제로 수면시간에 따른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유병률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br/> <br/>이러한 가운데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여자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면시간(7~8시간)보다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에서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짧은 수면시간일수록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JSR) 이민수·하인혁 원장 연구팀은 국민건강 영양조사(2010년~2012년)에서 수면시간 설문에 응답한 1만7638명(19세 이상)을 비교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수면시간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이를 오즈비(Odds ratio) 값으로 성별, 나이, 소득수준, 직업 등 변인을 조정했다. <br/> <br/> 국내 성인남녀 수면시간에 따른 정신상태 표. <br/>그 결과 전체 하루 평균수면시간(6.78±1.41)의 평균값을 1.00로 놨을 때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가진 남·여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각각 1.39배, 1.13배 증가했다. 반면 6시간 미만을 자는 남·여의 우울감은 각각 1.26배, 1.71배 증가했다. <br/> <br/>또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6시간 미만의 수면패턴을 보인 남·여 모두 스트레스가 각각 1.42배, 1.77배 더 증가했다. <br/> <br/>이 같은 원인에 대해 남성은 짧은 수면시간으로 인한 피로가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키고, 감정조절능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난소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HPA(hypothalamic–pituitary–adrenal)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br/> <br/>이와 함께 골관절염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짧은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1.22)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암 진단확정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변인으로 보정하기 못하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br/>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민수 연구원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만성질환 중 골관절염, 암 등은 수면시간에 영향를 미치는 정신건강문제를 보정하더라도 수면패턴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보여져 그에 대한 추가적인 기전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율이 치솟는 현대 사회를 반영해 볼 때 수면의 질, 적정 수면시간이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br/> <br/>이번 연구논문은 영국 온라인 공공보건저널 'BMC 퍼블릭 헬스(PMC public health, IF= 2.26)' 12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4.txt

제목: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날짜: 2015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23539  
본문: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br/> <br/>영화 '로봇, 소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하늬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채식주의자가 된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 채식을 하겠다"고 말한 뒤, <br/>이하늬는 이어 "스무 살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동생이 채식주의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해서 먹어야 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r/> <br/>이어 이하늬는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했다. 출산 또는 건강을 위해 포기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채식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br/> <br/>이하늬는 앞서 페스코 베지테리안(어류와 동물의 알, 유제품 등은 섭취 가능한 채식주의자)임을 밝힌 바 있다. <br/> <br/>한편 이하늬는 영화 '로봇, 소리'에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박사 강지연 역을 맡았다. 영화 '로봇, 소리'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로봇 영화로, 2016년 1월 개봉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5.txt

제목: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날짜: 20151215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062856688  
본문: '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로봇,소리' 이하늬,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채식주의자 된 사연 밝혀 <br/> <br/>영화 '로봇, 소리'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이하늬가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채식주의자가 된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냉장고를 공개했다. <br/> <br/>이하늬는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 채식을 하겠다"고 말한 뒤, <br/>이하늬는 이어 "스무 살때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동생이 채식주의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해서 먹어야 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r/> <br/>이어 이하늬는 "원래 고기를 엄청 좋아했다. 출산 또는 건강을 위해 포기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채식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br/> <br/>이하늬는 앞서 페스코 베지테리안(어류와 동물의 알, 유제품 등은 섭취 가능한 채식주의자)임을 밝힌 바 있다. <br/> <br/>한편 이하늬는 영화 '로봇, 소리'에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박사 강지연 역을 맡았다. 영화 '로봇, 소리'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로봇 영화로, 2016년 1월 개봉 예정이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6.txt

제목: 이하늬, 채식하게 된 이유 '감동'...母 5년 전 암 수술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  
날짜: 2015121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15778  
본문: 이하늬, 채식하게 된 이유 '감동'...母 5년 전 암 수술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br/> <br/>배우 이하늬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를 고백했다. <br/> <br/>지난?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이하늬의 냉장고 속 재료들로 요리 대결에 나섰다. <br/> <br/>이날 MC김성주는 "냉장고에 지분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이하늬는?는 "80% 정도"라며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채식을 하게 됐다"며 채식을 하게? 이유를 밝혔다. <br/>유를 설명했다. <br/> <br/> <br/>하지만 이하늬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순간에 끊었다. 출산,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면 (채식주의)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 <br/>이슈팀??ent1@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7.txt

제목: 이하늬, 채식하게 된 이유 '감동'...母 5년 전 암 수술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  
날짜: 2015121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013706261  
본문: 이하늬, 채식하게 된 이유 '감동'...母 5년 전 암 수술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 <br/> <br/>배우 이하늬가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를 고백했다. <br/> <br/>지난 14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이하늬의 냉장고 속 재료들로 요리 대결에 나섰다. <br/> <br/>이날 MC김성주는 "냉장고에 지분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이하늬는 는 "80% 정도"라며 "어머니가 5년 전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채식을 하게 됐다"며 채식을 하게  이유를 밝혔다. <br/>유를 설명했다. <br/> <br/> <br/>하지만 이하늬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순간에 끊었다. 출산,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면 (채식주의)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8.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남녀노소 좋아하는 '닭 강정'  
날짜: 201512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200904  
본문: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우리 몸의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닭고기 속의 섬유질은 가늘고 연해 지방이 근육섬유에 속하지 않아 소화흡수가 잘된다. 특히 닭고기는 질 좋은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또한 닭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레산이 함유돼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닭 3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마늘 2개 ▲전분 200g ▲소금 ▲후추 ▲생강즙 1작은술 ▲청주 1큰술 ▲계란 1개 <br/> <br/>만드는 법 <br/> <br/>1. 닭은 토막을 낸 다음 소금, 후추, 생강즙, 청주를 넣어 밑간을 한다. <br/>2. 1에 전분을 무친다. <br/>3. 전분에 계란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걸죽하게 한다. <br/>4. 170도 식용유에 2번 튀긴다. <br/>5. 마늘을 편으로 썬다. <br/>6. 청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털어낸 다음 잘게 다진다. <br/>7.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다가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볶는다. 그 다음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청주 3큰술을 넣고 볶다가 튀겨놓은 닭을 넣어 볶는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19.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남녀노소 좋아하는 '닭 강정'  
날짜: 20151214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5112509852  
본문: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우리 몸의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닭고기 속의 섬유질은 가늘고 연해 지방이 근육섬유에 속하지 않아 소화흡수가 잘된다. 특히 닭고기는 질 좋은 지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또한 닭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레산이 함유돼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하고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 <br/>재료 ▲닭 30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마늘 2개 ▲전분 200g ▲소금 ▲후추 ▲생강즙 1작은술 ▲청주 1큰술 ▲계란 1개 <br/> <br/>만드는 법 <br/> <br/>1. 닭은 토막을 낸 다음 소금, 후추, 생강즙, 청주를 넣어 밑간을 한다. <br/>2. 1에 전분을 무친다. <br/>3. 전분에 계란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걸죽하게 한다. <br/>4. 170도 식용유에 2번 튀긴다. <br/>5. 마늘을 편으로 썬다. <br/>6. 청고추,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털어낸 다음 잘게 다진다. <br/>7.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고 볶다가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볶는다. 그 다음 간장 3큰술, 설탕 3큰술, 청주 3큰술을 넣고 볶다가 튀겨놓은 닭을 넣어 볶는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0.txt

제목: 건강검진 연기해도 한시적 과태료 미부과  
날짜: 20151214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115347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br/> <br/>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회 15만원까지 부과된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자 이를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1.txt

제목: 지나친 수면은 음주나 흡연만큼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다?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104001  
본문: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하루 밤에 9시간 이상을 자는 사람의 경우 조기 사망률 4배 높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되었다.><br/>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나친 수면이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br/> <br/>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에 따르면 운동 하기 싫어하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 밤에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경우 흡연과 음주만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br/> <br/>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량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높은 조기 사망을 나타내는 것을 꾸준히 경고해 왔다. 또한,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지나치게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도 계속 증가해 밝혀져 왔다. <br/> <br/>이에 호주 시드니 대학은 장시간 의자에서 앉아 생활하면서 장시간 수면 생활을 영위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연구했다. <br/> <br/>연구책임자인 메로디 딩 박사는 “<span class='quot0'>신체활동의 부족, 장시간 좌석 위주의 생활 그리고 지나친 수면을 동시에 취하면 ‘3중 장애 효과’(Triple whammy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 <br/> <br/>딩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장시간 수면과 좌석 위주의 생활 습관을 함께 계속 영위하는 것은 음주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동시에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 경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번 연구의 참석자들은 “과거의 연구결과에서 흡연, 과음 그리고 부족한 운동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세가지 요소로 밝혀졌듯이 장시간에 걸친 좌석 위주의 생활 패턴과 너무나도 부족하거나 지나친 수면이 똑 같은 효과를 인체에 일으키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br/> <br/>또한, 이번 연구로 하루 7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면서 흡연과 과음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 사망률의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러한 위험 요소로 인해 더 심각한 것은 부족한 신체활동과 지나친 수면 시간 및 장시간에 걸친 좌석식 위주의 생활 습관 그리고 흡연과 과음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br/> <br/>연구를 같이 수행했던 아드리언 바우만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에 얻어진 결과에 근거해 공중보건건강 프로그램을 세울 때 한가지 요소보다는 여러 개의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span>” 며 “<span class='quot1'>그로 인해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바우만 교수는 “<span class='quot1'> 매년 심장질환, 당뇨 그리고 암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3천 8백만명 이상을 사망하는 사실에 근거해 이번에 밝혀진 위험인자들이 상호 결합해 보다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인류 건강의 큰 위협 요소를 줄일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2.txt

제목: 건강검진, 내년 3월까지 받으면 과태료 면제  
날짜: 20151214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024332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진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br/> <br/>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br/> <br/>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br/> <br/>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br/> <br/>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br/> <br/>이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br/> <br/>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br/> <br/>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3.txt

제목: 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005563  
본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진 교수><br/>강형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2월 12일(토) 대한암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암심포지엄에서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을 수상했다. <br/> <br/>강 교수는 올해 4월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지에 게재된 ‘소아암환자에서 항구토제 에멘드 다국가 3상 임상시험 논문’을 통해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역 구토를 억제할 수 있게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본 연구는 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 됐다. <br/> <br/>김진복 암연구상은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매년 암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4.txt

제목: 암 환자 이송 위해… 구급차 자처한 ‘투캅스’  
날짜: 20151214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003237  
본문: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파출소 1팀 소속 김도형(39) 경위와 한남규(32) 경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돌았다. 그러다가 성바오로병원 앞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다.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남편과 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딸은 김 경위 등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아프신데 사설 구급차는 도착하려면 2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위암 말기 환자인데 최근 항암 치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진한 것 같다”며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br/> <br/> 지난 2일 밤 탈진으로 쓰러진 말기암 시민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지게 한 한남규 경사와 김도형 경위, 박병은 경장(왼쪽부터). <br/>청량리역파출소 제공김 경위 등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원하러 온 박병은(32) 경장과 함께 환자를 조심스레 순찰차에 태웠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환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현장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거리는 약 18㎞였고, 가장 빠른 길인 동부간선도로는 그 시각에도 혼잡했다. 김 경위와 한 경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대 시속 130㎞로 밟았다. 중간중간 곡예운전을 하고 교통신호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출발한 지 약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br/> <br/>김 경위 등의 도움으로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 환자의 딸은 지난 9일 동대문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br/> <br/>김 경위와 한 경사, 박 경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환자가 우리 어머니처럼 느껴져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잘 치료 받고 완쾌해 가족들과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span>”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5.txt

제목: 국립암센터,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하모니' 음악회 개최  
날짜: 2015121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50023217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오는 21일 저녁 7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아암 아이들이 프로 뮤지션과 협연하는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기적의 하모니'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번 음악회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중인 10명의 소아암 환아들이 복합예술 앙상블 그룹 '사운드클러스터'의 프로 뮤지션 8명과 협연한다. 화려한 경력을 지닌 프로 뮤지션들은 모두 재능기부의 형태로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다. <br/> <br/>공연은 환아들이 피아노로 연주하면 뮤지션들이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로 어울리는 반주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동요 등을 편곡한 곡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곡 총 20곡을 연주하게 된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건강상 연습도 쉽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이 음악을 향한 꿈을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r/> <br/>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방청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6.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2015년 연말워크숍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40083  
본문: <2015년 암정보교육센터?연말워크숍 단체사진>서울대학교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12월 10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5년 연말워크숍을 열어 한해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암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 정서적 지지 등 암 치료 결과 향상 및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포괄적 지원 서비스의 확립과 체계화를 마쳤다. 올해는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br/> <br/>올해 암정보교육센터의 일 평균 이용자는 80명, 상담/안내 건수는 27건이었으며, 23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약 4600 명이 참여했다. 암 정보 관리의 경우, 3종의 리플렛을 추가 개발하고 12종을 업데이트했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26종의 영문 동영상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병원 음악회, 걷기대회 등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br/> <br/>강사, 암환우, 연주자, 대학생 등 월 평균 약 45명의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센터 운영을 도왔으며, 그 중 암 경험자인 환우자원봉사자가 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발휘를 돕는 동시에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암병원장 김태유)은 이 날 12명의 강사 및 환우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은 “암 정보와 교육의 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암 치료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많은 암환자들이 암정보교육센터에서 암 치료에 필요한 정보, 지원,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7.txt

제목: 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 출시  
날짜: 2015121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15113  
본문: ?<br/> <br/> <br/>한미약품은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향무취의 가글제인 뮤코가드는 암 환자 치료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로써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료기기)이다. <br/> <br/>실제로, 항암제 투여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입 안 또는 목 안의 점막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돼 입이 마르거나 허는 증상이 동반된다. <br/> <br/>이 제품은 가글 후 삼켜도 무방하기 때문에 구내염으로 인한 식도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사용이 간편해 암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뮤코가드는 미국 18개 기관에서 두경부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치료군의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궤양성 구강 점막염 증상 완화 및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br/> <br/>뮤코가드는 5mL에서 10mL의 양으로 약 1분간 구강전체를 세척 한 후 삼키거나 뱉는 과정을 하루 4회에서 6회 반복하여 사용하면 된다. <br/> <br/>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상용화된 구내염치료제는 암 환자 대상의 임상 데이타가 없었다"며 "임상으로 입증된 뮤코가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치료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뮤코가드는 항암제 및 항암 보조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아베오나社(Abeona Therapeutics)에서 한미약품이 도입한 제품이다. 뮤코가드는 2006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8.txt

제목: '레몬차’을 챙겨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나?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10218  
본문: 레몬차에 들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 재생을 강화해 혈색을 젊게 해주고 신진대사율을 강화시켜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성분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r/> <br/>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는 헬스사이트 (DYLN)의 인포그래픽을 인용해 레몬차가 신체를 질병에 강한 알칼리성 변하게 해주고 에너지 및 재생 강화 효과가 탁월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주고 노화 방지 및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전했다. <br/> <br/>헬스사이트에 발표한 ‘아침에 일어나 레몬차를 마시면 인체 건강에 좋은 10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br/> <br/>1.면역시스템을 완벽하게 충전시켜 강하게 해준다. 인체 내로 독감 또는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했을 때 레몬차의 비타민 C 성분이 발병을 억제해준다? <br/> <br/>2.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레몬차에는 비타민 C등 산화방지제 성분이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br/> <br/>3.체중감소를 돕는다. 레몬차는 신체의 지방합성을 억제해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br/> <br/>4.레몬차를 상시 복용하여 질병에 강한 알칼리 성으로 인체가 변화한다. 신장은 혈액의 pH농도가 7.4 수치 정도를 항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레몬차에 이러한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돕는다. <br/> <br/>5,레몬차는 슈퍼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대장과 소장 및 소화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몸 안에 남아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돕는다. <br/> <br/>6.간장과 신장의 독소를 해독시켜 깨끗하게 해주는데 간장의 효소가 너무 묽어 졌을 때 혈액으로부터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br/> <br/>7.에너지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데 숙면을 취해도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차를 마시며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방지할 수 있다. <br/> <br/>8.레몬은 생체 내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산소 라디칼 성분을 제거를 도와 암으로 발전되는 위험을 낮추는 항암 예방효과의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의 형태로 암을 퇴치하는 항산화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br/> <br/>9. 레몬차에는 또한 두뇌와 신경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네랄의 일종인 칼륨이풍부하다. <br/> <br/>10. 레몬차에는 항균물질의 특성이 적당하게 포함되어 있어 입 냄새를 제거해 상쾌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잇몸 질환 억제해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29.txt

제목: '내부자들' 오늘(14일) 600만 고지 밟는다  
날짜: 2015121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920210  
본문: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지난 주말 6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600만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br/> <br/>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지난 주말인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60만3022명을 모아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br/> <br/>지난 달 19일 개봉한 ‘내부자들’의 누적 관객 수는 595만8402명으로, 14일 중 600만 돌파가 확실시 된다. <br/> <br/>‘내부자들’의 흥행은 청소년관람불가(청불) 등급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군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역대 청불 영화 박스오피스 4위인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612만명)와 3위 ‘아저씨’(617만명)의 기록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차별화된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정치 드라마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수컷 냄새 진동하는 영화임에도 여성관객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br/> <br/>크리스 헴스워스 주연의 ‘하트 오브 더 씨’(감독 론 하워드)는 주말 23만4220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와 있다. 웰 메이드 해양 영화라는 호평과 더불어 누적 관객 수는 72만8225명을 기록했다. <br/> <br/>‘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 대모험’(감독 박영균)은 같은 기간 14만9181명을 동원해 3위를 차지했다.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은 13만4080명을 모아 4위. 지난 달 5일 개봉한 이래 누적 관객 수는 539만1358명을 기록했다. <br/> <br/>지난 주 개봉작 중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진입한 영화는 ‘레전드’(감독 브라이언 헬겔랜드, 12월10일 개봉)로, 11만1785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0.txt

제목: 건강검진 연기해도 한시적 과태료 미부과  
날짜: 20151214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92615773  
본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br/> <br/>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회 15만원까지 부과된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자 이를 면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1.txt

제목: 건강검진, 내년 3월까지 받으면 과태료 면제  
날짜: 20151214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64332853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진 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br/> <br/>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가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br/> <br/>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br/> <br/>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br/> <br/>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에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과태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br/> <br/>이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직장인의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br/> <br/>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건강검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br/> <br/>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2.txt

제목: 국립암센터,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하모니' 음악회 개최  
날짜: 2015121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62803197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오는 21일 저녁 7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아암 아이들이 프로 뮤지션과 협연하는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기적의 하모니'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이번 음악회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중인 10명의 소아암 환아들이 복합예술 앙상블 그룹 '사운드클러스터'의 프로 뮤지션 8명과 협연한다. 화려한 경력을 지닌 프로 뮤지션들은 모두 재능기부의 형태로 이번 연주회에 참여한다. <br/> <br/>공연은 환아들이 피아노로 연주하면 뮤지션들이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로 어울리는 반주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동요 등을 편곡한 곡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곡 총 20곡을 연주하게 된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건강상 연습도 쉽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이 음악을 향한 꿈을 자유롭게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r/> <br/>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방청이 가능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3.txt

제목: 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44131566  
본문: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현진 교수> <br/>강형진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2월 12일(토) 대한암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암심포지엄에서 ‘제 10회 김진복 암연구상’을 수상했다. <br/> <br/>강 교수는 올해 4월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지에 게재된 ‘소아암환자에서 항구토제 에멘드 다국가 3상 임상시험 논문’을 통해 소아암환자에서도 효과적으로 구역 구토를 억제할 수 있게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본 연구는 소아 임상시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결과이며 한국이 주도한 소아 대상 연구로는 처음으로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 됐다. <br/> <br/>김진복 암연구상은 위암 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뜻을 받들어 매년 암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4.txt

제목: 암 환자 이송 위해… 구급차 자처한 ‘투캅스’  
날짜: 20151214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44125402  
본문: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파출소 1팀 소속 김도형(39) 경위와 한남규(32) 경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돌았다. 그러다가 성바오로병원 앞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다.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남편과 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딸은 김 경위 등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아프신데 사설 구급차는 도착하려면 2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위암 말기 환자인데 최근 항암 치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진한 것 같다”며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  <br/> <br/> 지난 2일 밤 탈진으로 쓰러진 말기암 시민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지게 한 한남규 경사와 김도형 경위, 박병은 경장(왼쪽부터). <br/>청량리역파출소 제공김 경위 등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원하러 온 박병은(32) 경장과 함께 환자를 조심스레 순찰차에 태웠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환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현장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거리는 약 18㎞였고, 가장 빠른 길인 동부간선도로는 그 시각에도 혼잡했다. 김 경위와 한 경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대 시속 130㎞로 밟았다. 중간중간 곡예운전을 하고 교통신호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출발한 지 약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br/> <br/>김 경위 등의 도움으로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 환자의 딸은 지난 9일 동대문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br/> <br/>김 경위와 한 경사, 박 경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환자가 우리 어머니처럼 느껴져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잘 치료 받고 완쾌해 가족들과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span>”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5.txt

제목: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2015년 연말워크숍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20703576  
본문: <2015년 암정보교육센터 연말워크숍 단체사진>서울대학교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12월 10일 (목) 오후 4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5년 연말워크숍을 열어 한해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센터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br/> <br/>암정보교육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암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 정서적 지지 등 암 치료 결과 향상 및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포괄적 지원 서비스의 확립과 체계화를 마쳤다. 올해는 업무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br/> <br/>올해 암정보교육센터의 일 평균 이용자는 80명, 상담/안내 건수는 27건이었으며, 23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약 4600 명이 참여했다. 암 정보 관리의 경우, 3종의 리플렛을 추가 개발하고 12종을 업데이트했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26종의 영문 동영상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병원 음악회, 걷기대회 등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br/> <br/>강사, 암환우, 연주자, 대학생 등 월 평균 약 45명의 자원봉사자가 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센터 운영을 도왔으며, 그 중 암 경험자인 환우자원봉사자가 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암정보교육센터는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발휘를 돕는 동시에 전문성과 특성을 갖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암병원장 김태유)은 이 날 12명의 강사 및 환우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r/> <br/>정현훈 암정보교육센터장은 “암 정보와 교육의 바른 기준을 마련하고 암 치료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많은 암환자들이 암정보교육센터에서 암 치료에 필요한 정보, 지원,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6.txt

제목: '내부자들' 오늘(14일) 600만 고지 밟는다  
날짜: 20151214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104145046  
본문: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지난 주말 6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600만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 <br/> <br/>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지난 주말인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60만3022명을 모아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br/> <br/>지난 달 19일 개봉한 ‘내부자들’의 누적 관객 수는 595만8402명으로, 14일 중 600만 돌파가 확실시 된다. <br/> <br/>‘내부자들’의 흥행은 청소년관람불가(청불) 등급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군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역대 청불 영화 박스오피스 4위인 ‘킹스맨-시크릿 에이전트’(612만명)와 3위 ‘아저씨’(617만명)의 기록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차별화된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정치 드라마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수컷 냄새 진동하는 영화임에도 여성관객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br/> <br/>크리스 헴스워스 주연의 ‘하트 오브 더 씨’(감독 론 하워드)는 주말 23만4220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와 있다. 웰 메이드 해양 영화라는 호평과 더불어 누적 관객 수는 72만8225명을 기록했다. <br/> <br/>‘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 대모험’(감독 박영균)은 같은 기간 14만9181명을 동원해 3위를 차지했다.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은 13만4080명을 모아 4위. 지난 달 5일 개봉한 이래 누적 관객 수는 539만1358명을 기록했다. <br/> <br/>지난 주 개봉작 중 유일하게 5위권 안에 진입한 영화는 ‘레전드’(감독 브라이언 헬겔랜드, 12월10일 개봉)로, 11만1785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7.txt

제목: 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 출시  
날짜: 2015121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094924642  
본문:   <br/> <br/> <br/>한미약품은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향무취의 가글제인 뮤코가드는 암 환자 치료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로써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료기기)이다. <br/> <br/>실제로, 항암제 투여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입 안 또는 목 안의 점막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돼 입이 마르거나 허는 증상이 동반된다. <br/> <br/>이 제품은 가글 후 삼켜도 무방하기 때문에 구내염으로 인한 식도장애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사용이 간편해 암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뮤코가드는 미국 18개 기관에서 두경부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치료군의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궤양성 구강 점막염 증상 완화 및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br/> <br/>뮤코가드는 5mL에서 10mL의 양으로 약 1분간 구강전체를 세척 한 후 삼키거나 뱉는 과정을 하루 4회에서 6회 반복하여 사용하면 된다. <br/> <br/>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상용화된 구내염치료제는 암 환자 대상의 임상 데이타가 없었다"며 "임상으로 입증된 뮤코가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치료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뮤코가드는 항암제 및 항암 보조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아베오나社(Abeona Therapeutics)에서 한미약품이 도입한 제품이다. 뮤코가드는 2006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8.txt

제목: '레몬차’을 챙겨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나?  
날짜: 2015121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4085756861  
본문: 레몬차에 들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 재생을 강화해 혈색을 젊게 해주고 신진대사율을 강화시켜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성분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12일 영국 데일리메일 매체는 헬스사이트 (DYLN)의 인포그래픽을 인용해 레몬차가 신체를 질병에 강한 알칼리성 변하게 해주고 에너지 및 재생 강화 효과가 탁월해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주고 노화 방지 및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전했다. <br/> <br/>헬스사이트에 발표한 ‘아침에 일어나 레몬차를 마시면 인체 건강에 좋은 10가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br/> <br/>1.면역시스템을 완벽하게 충전시켜 강하게 해준다. 인체 내로 독감 또는 감기를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했을 때 레몬차의 비타민 C 성분이 발병을 억제해준다  <br/> <br/>2.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다. 레몬차에는 비타민 C등 산화방지제 성분이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br/> <br/>3.체중감소를 돕는다. 레몬차는 신체의 지방합성을 억제해 혈액과 간장의 콜리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br/> <br/>4.레몬차를 상시 복용하여 질병에 강한 알칼리 성으로 인체가 변화한다. 신장은 혈액의 pH농도가 7.4 수치 정도를 항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레몬차에 이러한 효과가 있어 우리 몸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돕는다. <br/> <br/>5,레몬차는 슈퍼 소화제 역할을 하는데 대장과 소장 및 소화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몸 안에 남아 있는 독소의 배출을 돕는다. <br/> <br/>6.간장과 신장의 독소를 해독시켜 깨끗하게 해주는데 간장의 효소가 너무 묽어 졌을 때 혈액으로부터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br/> <br/>7.에너지 활성제의 역할을 하는데 숙면을 취해도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낀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차를 마시며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방지할 수 있다. <br/> <br/>8.레몬은 생체 내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산소 라디칼 성분을 제거를 도와 암으로 발전되는 위험을 낮추는 항암 예방효과의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C의 형태로 암을 퇴치하는 항산화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br/> <br/>9. 레몬차에는 또한 두뇌와 신경세포의 정상적 기능을 도와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네랄의 일종인 칼륨이풍부하다. <br/> <br/>10. 레몬차에는 항균물질의 특성이 적당하게 포함되어 있어 입 냄새를 제거해 상쾌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잇몸 질환 억제해준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39.txt

제목: [단독] 암 환자 이송 위해… 구급차 자처한 ‘투캅스’  
날짜: 2015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753707  
본문: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파출소 1팀 소속 김도형(39) 경위와 한남규(32) 경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돌았다. 그러다가 성바오로병원 앞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다.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남편과 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딸은 김 경위 등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아프신데 사설 구급차는 도착하려면 2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위암 말기 환자인데 최근 항암 치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진한 것 같다”며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br/> <br/> 지난 2일 밤 탈진으로 쓰러진 말기암 시민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지게 한 한남규 경사와 김도형 경위, 박병은 경장(왼쪽부터). <br/>청량리역파출소 제공김 경위 등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원하러 온 박병은(32) 경장과 함께 환자를 조심스레 순찰차에 태웠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환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현장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거리는 약 18㎞였고, 가장 빠른 길인 동부간선도로는 그 시각에도 혼잡했다. 김 경위와 한 경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대 시속 130㎞로 밟았다. 중간중간 곡예운전을 하고 교통신호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출발한 지 약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br/> <br/>김 경위 등의 도움으로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 환자의 딸은 지난 9일 동대문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br/> <br/>김 경위와 한 경사, 박 경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환자가 우리 어머니처럼 느껴져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잘 치료 받고 완쾌해 가족들과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span>”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0.txt

제목: 희귀병인데 감기약만… 못 믿을 軍의료체계  
날짜: 20151213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657443  
본문: #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span class='quot0'>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span>”고 토로했다.<br/> <br/>#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 CRPS 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span class='quot1'>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 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다</span>”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CRPS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 CRPS 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br/> <br/>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br/> <br/>◆“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br/> <br/>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br/> <br/>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br/> <br/>◆“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br/> <br/>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span class='quot2'>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span>”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br/> <br/>군의 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3'>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3'>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1.txt

제목: [단독] 암 환자 이송 위해… 구급차 자처한 ‘투캅스’  
날짜: 2015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3183553770  
본문: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파출소 1팀 소속 김도형(39) 경위와 한남규(32) 경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찰차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돌았다. 그러다가 성바오로병원 앞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2명과 남성 1명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이들은 일가족이었다.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남편과 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딸은 김 경위 등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아프신데 사설 구급차는 도착하려면 2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위암 말기 환자인데 최근 항암 치료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진한 것 같다”며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했다.  <br/> <br/> 지난 2일 밤 탈진으로 쓰러진 말기암 시민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지게 한 한남규 경사와 김도형 경위, 박병은 경장(왼쪽부터). <br/>청량리역파출소 제공김 경위 등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지원하러 온 박병은(32) 경장과 함께 환자를 조심스레 순찰차에 태웠다. 운전대를 잡은 김 경위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환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현장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거리는 약 18㎞였고, 가장 빠른 길인 동부간선도로는 그 시각에도 혼잡했다. 김 경위와 한 경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대 시속 130㎞로 밟았다. 중간중간 곡예운전을 하고 교통신호 위반까지 감수하면서 출발한 지 약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 <br/> <br/>김 경위 등의 도움으로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고 안정을 되찾았다. 이 환자의 딸은 지난 9일 동대문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br/> <br/>김 경위와 한 경사, 박 경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환자가 우리 어머니처럼 느껴져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잘 치료 받고 완쾌해 가족들과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span>”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2.txt

제목: [연구] "스트레스, 불행감은 조기 사망과 무관"  
날짜: 20151213  
기자: 유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3104116061  
본문: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함을 느낄수록 오래 산다는 통념을 깨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이 나쁘면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나 불행감 그 자체가 건강 악화 또는 조기 사망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br/> <br/>벳 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와 리처드 피토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의학 전문지 랜싯(the Lancet)에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전했다. <br/> <br/>연구진은 60세 전후의 영국 여성 70만명(평균 연령 59세)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행복감과 스트레스,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설문조사했다. 6명 중 5명 꼴인 83%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답했고, 불행하다고 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매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행복도 측정 결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br/> <br/>연구진은 거듭된 조사를 통해 초기에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밝힌 사람이 불행하다고 답할 확률이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대개 흡연 중이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독신이었다. <br/> <br/>10년 동안 연구대상자의 4%인 3만1000명이 숨졌는데, 건강상태(고혈압·당뇨·천식 등 여부)나 생활방식(흡연·빈곤·비만 등) 등을 고려해 사망자를 분석할 경우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의 사망률과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의 사망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행복 그 자체가 심장마비, 암 또는 전반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span>”고 밝혔다. 반면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흡연 등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커졌다. <br/> <br/>류 교수는 “<span class='quot1'>아픈 것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불행감 그 자체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불행감, 스트레스와 사망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span>”고 했다. <br/> <br/>피토 교수도 “<span class='quot2'>불행감이 사람들을 과식, 과음, 흡연 등의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이끌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불행감이나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질병을 초래한다는 믿음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이번 연구는 행복감에 많이 느낄수록 수명이 길다는 기존 학설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놨지만, 박탈감이 적을수록, 비흡연자일수록, 동반자가 있을수록, 종교단체나 사회활동 참여자일수록, 적절한 수면시간을 가질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와 내용이 유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r/> <br/>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3.txt

제목: 희귀병인데 감기약만… 못 믿을 軍의료체계  
날짜: 20151213  
기자: 황현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3094233673  
본문: #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span class='quot0'>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span>”고 토로했다. <br/> <br/>#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 CRPS 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span class='quot1'>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 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다</span>”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CRPS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 CRPS 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br/> <br/>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br/> <br/>◆“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br/> <br/>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br/> <br/>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br/> <br/>◆“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br/> <br/>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span class='quot2'>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span>”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br/> <br/>군의 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3'>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3'>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4.txt

제목: "커피향으로 암세포 제거한다고 전해라"  
날짜: 201512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628870  
본문: ?<br/> <br/>은은한 커피 향 성분으로 암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지난 8일 포항공대 신소재 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커피 향을 내는 성분인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면 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멜라노이딘은 된장이나 간장을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커피에서도 만들어져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이면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을 발견했고 이를 의료영상에 적용해 멜라노이딘이 흡수되는 통로를 따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또 다른 실험에서는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하는 특성을 활용해 빛을 가해 암세포가 파괴되는 온도인 43도 정도로만 열을 올려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조직만 파괴할 수 있었다. <br/> <br/>이 연구에 따르면 멜라노이딘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X선·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촬영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나노 분야 전문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5.txt

제목: [S 스토리] 나라 지키러 갔는데… 장병들 건강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날짜: 2015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558133  
본문: #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span class='quot0'>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span>”고 토로했다.<br/> <br/>#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 CRPS 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span class='quot1'>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 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다</span>”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CRPS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 CRPS 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br/> <br/>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br/> <br/>◆“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br/> <br/>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br/> <br/>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br/> <br/>◆“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br/> <br/>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span class='quot2'>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span>”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br/> <br/>군의 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3'>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3'>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6.txt

제목: "커피향으로 암세포 제거한다고 전해라"  
날짜: 201512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2191240759  
본문:   <br/> <br/>은은한 커피 향 성분으로 암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 <br/>지난 8일 포항공대 신소재 공학과 한세광 교수팀은 "커피 향을 내는 성분인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면 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이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법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멜라노이딘은 된장이나 간장을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커피에서도 만들어져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멜라노이딘에 빛을 쏘이면 음파가 생성되는 특성을 발견했고 이를 의료영상에 적용해 멜라노이딘이 흡수되는 통로를 따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br/> <br/>또 다른 실험에서는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이 발생하는 특성을 활용해 빛을 가해 암세포가 파괴되는 온도인 43도 정도로만 열을 올려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암조직만 파괴할 수 있었다. <br/> <br/>이 연구에 따르면 멜라노이딘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X선·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촬영의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나노 분야 전문지 'ACS Nano' 최신호에 실렸다. <br/> <br/>김현주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7.txt

제목: [S 스토리] 나라 지키러 갔는데… 장병들 건강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날짜: 2015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2061615991  
본문: #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span class='quot0'>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span>”고 토로했다. <br/> <br/>#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 CRPS 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span class='quot1'>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 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다</span>”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CRPS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 CRPS 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br/> <br/>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br/> <br/>◆“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br/> <br/>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br/> <br/>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br/> <br/>◆“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br/> <br/>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span class='quot2'>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span>”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br/>세계일보 자료사진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br/> <br/>군의 한 전문가는 “<span class='quot3'>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3'>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r/> <br/>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8.txt

제목: 英 소녀, 암환자 외할머니 위해 여행…돌아오니 '벌금 고지서'?  
날짜: 2015121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303029  
본문: 영국의 한 소녀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 최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소녀의 외할머니는 말기 암환자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외할머니에게 소녀와 그의 엄마는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br/> <br/>문제가 생겼다. 집에 돌아온 뒤, 소녀의 학교 측에서 이들 가족에게 60파운드(약 11만원)?벌금 고지서를 보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오래 했다는 게 이유다. 소녀의 엄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일단 벌금을 낼 수밖에. <br/> <br/>이야기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잉글랜드 여빌타운에 사는 찰리느 화이트(28)는 엄마 샤론이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 담당 의사는 찰리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span class='quot0'>될 수 있는 한 엄마와 많은 것을 같이 하라</span>”고 당부했다. <br/> <br/>샤론은 1년 넘게 암과 싸워오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찰리느는 지난 9월, 딸 키아(7) 그리고 엄마와 데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br/> <br/>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찰리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맞닥뜨렸다. 키아의 결석이 너무 길었다며,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들 가족에게 벌금 고지서를 보내온 것이다. <br/> <br/>“단지 가족끼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키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된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책하세요. 일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살펴본 엄마는 화까지 나셨어요.” <br/> <br/>일단 찰리느는 벌금을 낼 생각이다. 버텨봤자 좋을 것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엄마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해서다. 그는 벌금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br/> <br/>학교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키아가 2013년 ‘흉부 감염(chest infection)’으로 일주일 동안 결석한 사실을 언급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오랜 기간 결석은 허용하지만,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br/> <br/>학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만약 학부모가 비슷한 이유로 자녀의 결석을 여러 차례 유도한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불필요하게 학생이 오랜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미러 캡처<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49.txt

제목: 英 소녀, 암환자 외할머니 위해 여행…돌아오니 '벌금 고지서'?  
날짜: 20151211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1110815415  
본문: 영국의 한 소녀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 최근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소녀의 외할머니는 말기 암환자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외할머니에게 소녀와 그의 엄마는 추억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 <br/> <br/>문제가 생겼다. 집에 돌아온 뒤, 소녀의 학교 측에서 이들 가족에게 60파운드(약 11만원) 벌금 고지서를 보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오래 했다는 게 이유다. 소녀의 엄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일단 벌금을 낼 수밖에. <br/> <br/>이야기는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잉글랜드 여빌타운에 사는 찰리느 화이트(28)는 엄마 샤론이 자궁경부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 담당 의사는 찰리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span class='quot0'>될 수 있는 한 엄마와 많은 것을 같이 하라</span>”고 당부했다. <br/> <br/>샤론은 1년 넘게 암과 싸워오고 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찰리느는 지난 9월, 딸 키아(7) 그리고 엄마와 데번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br/> <br/>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찰리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을 맞닥뜨렸다. 키아의 결석이 너무 길었다며,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들 가족에게 벌금 고지서를 보내온 것이다. <br/> <br/>“단지 가족끼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키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된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책하세요. 일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살펴본 엄마는 화까지 나셨어요.” <br/> <br/>일단 찰리느는 벌금을 낼 생각이다. 버텨봤자 좋을 것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엄마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해서다. 그는 벌금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br/> <br/>학교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키아가 2013년 ‘흉부 감염(chest infection)’으로 일주일 동안 결석한 사실을 언급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오랜 기간 결석은 허용하지만,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br/> <br/>학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만약 학부모가 비슷한 이유로 자녀의 결석을 여러 차례 유도한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불필요하게 학생이 오랜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미러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0.txt

제목: [설왕설래] 품격 있는 죽음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129843  
본문: “몇 년이나 남았나요?”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2년 정도일까요.” “알겠어요. 항암제는 주시지 말고요. 목숨을 늘리지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br/> <br/>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재규어 대리점에 들러 잉글리시 그린 컬러의 차를 고른 뒤 “일흔에 죽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다”던 여자. 일본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의 에세이 ‘사는 게 뭐라고’의 한 대목이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며 매일이 즐거워 견딜 수 없었다고 적었다. <br/> <br/>죽음이 즐거울 리는 없다. 죽음을 대하는, 남은 인생을 기꺼이 즐기고자 한 그의 미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인생의 무엇과도 바꾸겠다’고 여기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의식을 잃은 채 주렁주렁 매단 의료장치에 호흡을 맡긴 환자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비록 돌연 의식을 되찾아 후유증도 없이 새 삶을 사는 일은 ‘용팔이’의 김태희처럼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하지만 말이다. <br/> <br/>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폐암 말기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다. 한 그룹은 통상적인 암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기존 치료와 더불어 완화치료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완화치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그룹의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더 일찍 중단하고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일찍 선택했지만 생존 기간은 25% 늘었다고 한다. 이 사례를 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는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실험 의약품이었다면 FDA(미 식품의약국)는 승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선택에 따라 ‘죽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br/> <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명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1997년 환자 부인의 요구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의사 2명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사전의향서나 환자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일이다. <br/> <br/>황정미 논설위원<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1.txt

제목: 방탄소년단, 아직도 소속사에 폭행 당하는 아이돌이 있나? 아이돌의 명과 암.  
날짜: 20151210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220801439  
본문: [방탄소년단, 아직도 소속사에 폭행 당하는 아이돌이 있나? 아이돌의 명과 암. 사진= CJ E&M] 방탄소년단, 아직도 소속사에 폭행 당하는 아이돌이 있나? 아이돌의 명과 암. <br/> <br/>방탄소년단이 매니저로부터 손찌검 위협을 받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br/> <br/>최근 공개된 2016 BTS 시즌그리팅 DVD 메이킹 영상 속에 매니저에 손찌검 위협을 받는 방탄소년단 멤버 모습이 담겨진 것이다. <br/> <br/>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발빠르게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 <br/>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공식 SNS에 " '2016 BTS 시즌그리팅 DVD 메이킹 영상'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는 해명의 글을 올렸다. <br/> <br/>방탄소년단 소속사는 "해당 매니저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상급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며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다. <br/> <br/>소속사 매너저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손찌검으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공개됨으로써 이전에도 실제 폭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팬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소속사에서 공개한 메이킹영상 속에서조차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찌검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단순히 직원을 해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br/> <br/>소속사와 아이돌은 어쩔 수 없이 수익이 관계된 갑과 을의 관계 속에 있다. 게다가 연예계의 갑을관계는 상당히 '갑'인 소속사에게 큰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속사는 자신들이 키우는 아이돌이 인기를 얻어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하리란 보장 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돌들은 소속사의 불합리한 처우도 참아야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br/> <br/>방탄소년단은 소위 잘 나가는 아이돌이다. 물론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아직 기존의 투자금을 미처 다 회수하지 못한 아이돌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 지점에 현재 대한민국 아이돌들의 공공연한 비밀로써 존재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2.txt

제목: [설왕설래] 품격 있는 죽음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213004397  
본문: “몇 년이나 남았나요?”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2년 정도일까요.” “알겠어요. 항암제는 주시지 말고요. 목숨을 늘리지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br/> <br/>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재규어 대리점에 들러 잉글리시 그린 컬러의 차를 고른 뒤 “일흔에 죽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다”던 여자. 일본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의 에세이 ‘사는 게 뭐라고’의 한 대목이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며 매일이 즐거워 견딜 수 없었다고 적었다. <br/> <br/>죽음이 즐거울 리는 없다. 죽음을 대하는, 남은 인생을 기꺼이 즐기고자 한 그의 미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인생의 무엇과도 바꾸겠다’고 여기는 이들이 훨씬 많다. 의식을 잃은 채 주렁주렁 매단 의료장치에 호흡을 맡긴 환자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비록 돌연 의식을 되찾아 후유증도 없이 새 삶을 사는 일은 ‘용팔이’의 김태희처럼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하지만 말이다. <br/> <br/>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폐암 말기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다. 한 그룹은 통상적인 암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기존 치료와 더불어 완화치료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완화치료 전문가 상담을 받은 그룹의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더 일찍 중단하고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일찍 선택했지만 생존 기간은 25% 늘었다고 한다. 이 사례를 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는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실험 의약품이었다면 FDA(미 식품의약국)는 승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선택에 따라 ‘죽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br/> <br/>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명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1997년 환자 부인의 요구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의사 2명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사전의향서나 환자 가족의 뜻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일이다. <br/> <br/>황정미 논설위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3.txt

제목: [단독]보험 가입내역 원스톱 조회 가능해진다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014583  
본문: 생·손보 장기보험의 정액담보가 합산돼?관리된다.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r/> <br/>보험사는 생·손보에서 동시에 가입된 정액담보를 한꺼번에 확인, 언더라이팅에 반영할 수 있어 손해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보험가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정액담보 장기보험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일반상해사망, 암진단비, 상해·질병 입원일당, 치아보철만 합산돼?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현재는 A손보사가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손보업계 전체의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정액담보 가입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제 생·손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 조회하든 보험업계 전체의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생·손보는 물론 우체국과 신협 등의 공제에서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r/> <br/>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손해보험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생·손보에서 가입한 정액담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도 합산하여 관리해 보험사기 등을 줄일 수 있어 손해율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소비자는 불필요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사기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 가입하는 소비자를 가려내기 더 쉬워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4.txt

제목: [보험다모아 졸속 논란②] 비교기준 없어 혼란 가중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5011203  
본문: 지난 11월 30일 오픈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의 인기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오픈 첫날 6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방문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br/> <br/>보험다모아 인기 급랭 이유는 허술한 비교 기능 때문이다. 비대면채널 위주로 보험상품이 등재돼?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6개 카테고리의 보험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다모아의 핵심인 비교 기능이 너무나 허술해 실제 소비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br/> <br/>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맨 처음 보험다모아를 준비할 때는 모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대면채널 상품의 복잡성으로 결국 비대면채널 상품만 비교하는 사이트가 되었다</span>”고 일갈했다. 이어 “비대면상품도 비교 기능이 너무 허술해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그냥 다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r/> <br/>금융당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험비교사이트이지만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험다모아에서 검색, 보험료 낮은 순위 상위에 나온 상품을 가입하다면 실제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장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전문가들은 인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성별 및 보험나이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 △보장자산 규모 등의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와 보장자산 규모가 보험사마다 각기 상이해 가장 맞추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대한 비슷한 설정을 해야 비교할 수 있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보험나이는 40세 남성 한가지뿐이다. 연령이나 성별도 변경, 선택할 수 없다. <br/> <br/>보험상품 중 주계약 규모가 크면서 구조가 단순한 상품이 바로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에 등재되어 있는 정기보험은 대부분 CM상품이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정기보험을 보험료 낮은 순으로 검색(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 10년만기(전기납), 월납, 최초계약기준)하면 KDB생명, 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한 1만6000원으로 검색되며 미래에셋생명이 1만6300원이다. <br/> <br/>그러나 조건을 조금 변경해 남자 30세로 보험료를 산출하면 순위가 바뀐다. 신한생명 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그 뒤를 이어 하나생명과 KDB생명(8000원), 미래에셋생명(8100원), 라이프플래닛(8800원), 삼성생명(9000원) 순이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에서 40세의 사망위험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세에만 보험료를 같게 만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각사가 책정하는 사망위험요율이 달라 나이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진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는 각사의 위험률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하지만 보험다모아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나열되어 세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다모아의 비교 기준만 보고 보험상품의 가성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이런 오류는 정기보험 이외의 상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br/> <br/>어린이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검색되는 것은 KB생명으로 보험료는 2700원이다. 반면 가장 비싼 상품은 현대라이프로 6만62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5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단 1회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다. 만약 현대라이프 상품을 월납으로 납입한다면 매월 1100원 정도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이렇게 보험료만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KB생명 어린이보험의 보장은 암진단금 2500만원(고액암 5000만원, 소액암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시 최대 5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암진담금 2000만원(고액암 보장 없음, 소액암 200만원)과 수술치료비 등이다. 요컨대 현대라이프가 전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보장 범위도 좁고 보장금액도 낮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보험다모아에서 검색되는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 기준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세부 항목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겠지만 현재는 금융당국이 단순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라도 지정해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금의 모습으로 보험다모아가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함께 민원도 대거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br/>SQ: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5.txt

제목: [단독]보험 가입내역 원스톱 조회 가능해진다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65742629  
본문: 생·손보 장기보험의 정액담보가 합산돼 관리된다.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보험사는 생·손보에서 동시에 가입된 정액담보를 한꺼번에 확인, 언더라이팅에 반영할 수 있어 손해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보험가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손해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정액담보 장기보험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일반상해사망, 암진단비, 상해·질병 입원일당, 치아보철만 합산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현재는 A손보사가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손보업계 전체의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정액담보 가입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제 생·손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 조회하든 보험업계 전체의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생·손보는 물론 우체국과 신협 등의 공제에서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r/> <br/>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손해보험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생·손보에서 가입한 정액담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도 합산하여 관리해 보험사기 등을 줄일 수 있어 손해율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소비자는 불필요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사기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 가입하는 소비자를 가려내기 더 쉬워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6.txt

제목: [보험다모아 졸속 논란②] 비교기준 없어 혼란 가중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64328434  
본문: 지난 11월 30일 오픈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의 인기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오픈 첫날 6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최근 방문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보험다모아 인기 급랭 이유는 허술한 비교 기능 때문이다. 비대면채널 위주로 보험상품이 등재돼 있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 <br/>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6개 카테고리의 보험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다모아의 핵심인 비교 기능이 너무나 허술해 실제 소비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br/> <br/>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맨 처음 보험다모아를 준비할 때는 모든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대면채널 상품의 복잡성으로 결국 비대면채널 상품만 비교하는 사이트가 되었다</span>”고 일갈했다. 이어 “비대면상품도 비교 기능이 너무 허술해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그냥 다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br/> <br/>금융당국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험비교사이트이지만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 상품 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험다모아에서 검색, 보험료 낮은 순위 상위에 나온 상품을 가입하다면 실제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장 보험료가 낮은 상품을 가장 좋은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전문가들은 인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성별 및 보험나이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 △보장자산 규모 등의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보장담보의 종류 및 범위와 보장자산 규모가 보험사마다 각기 상이해 가장 맞추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대한 비슷한 설정을 해야 비교할 수 있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보험나이는 40세 남성 한가지뿐이다. 연령이나 성별도 변경, 선택할 수 없다. <br/> <br/>보험상품 중 주계약 규모가 크면서 구조가 단순한 상품이 바로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다모아에 등재되어 있는 정기보험은 대부분 CM상품이다. <br/> <br/>보험다모아에서 정기보험을 보험료 낮은 순으로 검색(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 10년만기(전기납), 월납, 최초계약기준)하면 KDB생명, 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한 1만6000원으로 검색되며 미래에셋생명이 1만6300원이다. <br/> <br/>그러나 조건을 조금 변경해 남자 30세로 보험료를 산출하면 순위가 바뀐다. 신한생명 7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그 뒤를 이어 하나생명과 KDB생명(8000원), 미래에셋생명(8100원), 라이프플래닛(8800원), 삼성생명(9000원) 순이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에서 40세의 사망위험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40세에만 보험료를 같게 만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각사가 책정하는 사망위험요율이 달라 나이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진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는 각사의 위험률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하지만 보험다모아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나열되어 세부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꼼수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다모아의 비교 기준만 보고 보험상품의 가성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 <br/>이런 오류는 정기보험 이외의 상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br/> <br/>어린이보험 중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검색되는 것은 KB생명으로 보험료는 2700원이다. 반면 가장 비싼 상품은 현대라이프로 6만620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5년 동안 보장받기 위해 단 1회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다. 만약 현대라이프 상품을 월납으로 납입한다면 매월 1100원 정도면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이렇게 보험료만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KB생명 어린이보험의 보장은 암진단금 2500만원(고액암 5000만원, 소액암 150만원), 교통재해장해시 최대 5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이다. 그러나 현대라이프는 암진담금 2000만원(고액암 보장 없음, 소액암 200만원)과 수술치료비 등이다. 요컨대 현대라이프가 전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보장 범위도 좁고 보장금액도 낮다. <br/> <br/>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보험다모아에서 검색되는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 기준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향후 세부 항목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겠지만 현재는 금융당국이 단순한 비교를 위한 기준점이라도 지정해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금의 모습으로 보험다모아가 유지된다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함께 민원도 대거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7.txt

제목: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으로 여심 공략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958671  
본문:   <br/> <br/>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억 1,177만원인 반면, 여성은 1억 2,332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여성을 위한 보험상품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br/> <br/>최근 출시된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은 중대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을 더해 여성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먼저 주계약을 살펴보면,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이나 수술,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등으로 진단 확정 시 80세 이전에는 가입 금액의 80%를, 80세 이후 에는 가입 금액의 100%를 선지급하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80세 이후에는 보험금이 110%로 증액되기 때문에 100%를 선지급 받은 경우에도 사망 시 가입 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약 23가지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여성에게 특화된 보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관련암 등으로 진단 확정 시 여성특정암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암 치료를 위한 수술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암 관련 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특히 생식기암 치료 시 자궁절제수술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난소 절제 수술에 대한 의료비까지 지급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 여성에게 맞는 의료비 보장을 보다 폭넓게 준비할 수 있다. <br/> <br/>이 외에도 중대질병에 대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라이프케어특약’을 비롯 암수술항암치료, 특정질병치료, 중환자실입원, 수입보장, 재해상해 및 골절, 고도장해 보장 등 질병, 입원, 재해, 사망 등에 대한 다양한 특약으로 빈틈없는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br/> <br/>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상품별로 특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에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의료보장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핑크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 여성 특화 건강검진 우대 혜택, 여성질환 관련 건강정보 제공은 물론 중대질병 발생 시 가사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우대 할인, 자녀를 위한 아동심리상담, 제대혈 할인 등 다양한 여성 전문 서비스로 차별화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br/> <br/>그 밖에도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 안내,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 의료진 실시간 의료 상담, 간병도우미 안내, 상조 할인 서비스, 요양 시설 및 요양사 안내, 건강정보 제공 등의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 <br/>'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57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3천만원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br/> <br/>메트라이프생명 상품개발 담당 정의선 전무는 “<span class='quot0'>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에게 특화된 보험상품과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과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8.txt

제목: 메트라이프, 종신보험으로 여심 공략  
날짜: 20151210  
기자: 김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55322600  
본문:   <br/> <br/>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해 여성의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억 1,177만원인 반면, 여성은 1억 2,332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여성을 위한 보험상품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br/> <br/>최근 출시된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은 중대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을 더해 여성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r/> <br/>먼저 주계약을 살펴보면,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이나 수술, 중증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등으로 진단 확정 시 80세 이전에는 가입 금액의 80%를, 80세 이후 에는 가입 금액의 100%를 선지급하여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80세 이후에는 보험금이 110%로 증액되기 때문에 100%를 선지급 받은 경우에도 사망 시 가입 금액의 10%를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br/> <br/>이 상품은 약 23가지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여성에게 특화된 보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관련암 등으로 진단 확정 시 여성특정암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암 치료를 위한 수술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암 관련 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br/> <br/>특히 생식기암 치료 시 자궁절제수술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난소 절제 수술에 대한 의료비까지 지급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 여성에게 맞는 의료비 보장을 보다 폭넓게 준비할 수 있다. <br/> <br/>이 외에도 중대질병에 대해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라이프케어특약’을 비롯 암수술항암치료, 특정질병치료, 중환자실입원, 수입보장, 재해상해 및 골절, 고도장해 보장 등 질병, 입원, 재해, 사망 등에 대한 다양한 특약으로 빈틈없는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br/> <br/>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상품별로 특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에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의료보장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핑크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 여성 특화 건강검진 우대 혜택, 여성질환 관련 건강정보 제공은 물론 중대질병 발생 시 가사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우대 할인, 자녀를 위한 아동심리상담, 제대혈 할인 등 다양한 여성 전문 서비스로 차별화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br/> <br/>그 밖에도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 안내,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 의료진 실시간 의료 상담, 간병도우미 안내, 상조 할인 서비스, 요양 시설 및 요양사 안내, 건강정보 제공 등의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 <br/>'무배당 그녀를 위한 선지급종신보험'은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57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3천만원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br/> <br/>메트라이프생명 상품개발 담당 정의선 전무는 “<span class='quot0'>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에게 특화된 보험상품과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에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과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라고 말했다. <br/> <br/>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59.txt

제목: '내부자들', 대작 줄줄이 개봉 앞두고 '끄떡없는 인기'  
날짜: 2015121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912142  
본문: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 배급 쇼박스)을 향한 관객들의 충성도가 여전히 높다. 개봉 4주차에도 예매율 1위 및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br/> <br/>10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전날인 9일 전국 988개 스크린에서 9만7670명을 동원하며 일일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br/> <br/>누적 관객 수는 525만2750명으로, 14일 앞서 개봉한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의 523만2932명을 앞질렀다. 매출액 점유율은 38.8%, 실시간 예매율(10일 오후 1시20분 현재)은 20.5%를 기록 중이다. <br/> <br/>이 같은 추세라면 주말 이후 600만 관객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다음주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등 대작들이 동시 개봉할 예정이지만 '내부자들'에 대한 호평과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어 전망은 밝다. <br/> <br/>특히 오는 31일 개봉하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을 기다리는 관객들도 많다. 러닝타임 무려 3시간40분에 달하는 감독판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은 사건 중심이 아닌 캐릭터 중심 편집으로, 안상구(이병헌), 우장훈(조승우), 백윤식(이강희) 등 등장인물들의 전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태호 작가의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차별화된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정치 드라마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수컷 냄새 진통하는 영화임에도 여성관객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br/> <br/>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내부자들'은 중장년층 남성부터 젊은 여성 관객들까지 고른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음주 기대작들의 개봉으로 스크린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불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스코어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0.txt

제목: '내부자들', 대작 줄줄이 개봉 앞두고 '끄떡없는 인기'  
날짜: 2015121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40841166  
본문: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 배급 쇼박스)을 향한 관객들의 충성도가 여전히 높다. 개봉 4주차에도 예매율 1위 및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br/> <br/>10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전날인 9일 전국 988개 스크린에서 9만7670명을 동원하며 일일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br/> <br/>누적 관객 수는 525만2750명으로, 14일 앞서 개봉한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의 523만2932명을 앞질렀다. 매출액 점유율은 38.8%, 실시간 예매율(10일 오후 1시20분 현재)은 20.5%를 기록 중이다. <br/> <br/>이 같은 추세라면 주말 이후 600만 관객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다음주 '대호' '히말라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등 대작들이 동시 개봉할 예정이지만 '내부자들'에 대한 호평과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어 전망은 밝다. <br/> <br/>특히 오는 31일 개봉하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을 기다리는 관객들도 많다. 러닝타임 무려 3시간40분에 달하는 감독판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은 사건 중심이 아닌 캐릭터 중심 편집으로, 안상구(이병헌), 우장훈(조승우), 백윤식(이강희) 등 등장인물들의 전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태호 작가의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차별화된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정치 드라마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린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수컷 냄새 진통하는 영화임에도 여성관객의 지지도가 높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br/> <br/>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내부자들'은 중장년층 남성부터 젊은 여성 관객들까지 고른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음주 기대작들의 개봉으로 스크린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불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스코어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1.txt

제목: 고통을 끝내야 하오…암환자 아내 살해한 할아버지  
날짜: 201512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759753  
본문:   <br/> <br/> <br/>90대 할아버지가 말기 암환자 아내를 보살피는 데 지친 나머지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5일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넬슨(91) 할아버지가 아내 에블린(93) 할머니를 총으로 쏴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br/> <br/>아내를 간호해 온 넬슨 할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할머니의 시신은 부부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복지사에게 발견됐으며, 할아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br/> <br/>넬슨 할아버지는 경찰에서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나마 지인도 대부분 80대를 넘겨 아내를 보살필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br/> <br/>총상은 에블린 할머니의 머리 뒤쪽에서 발견됐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넬슨 할아버지는 보석금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내야 풀려날 수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2.txt

제목: 한전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최첨단 자동화시스템 도입  
날짜: 20151210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822403  
본문:   <br/> <br/> <br/>한전병원은 최근 진단검사의학과에 첨단 검사실 자동화시스템(TLA, Total Laboratory Automation System)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검사실 자동화시스템이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의 운반에서부터 분석·결과산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검사시간을 최소화하고 정보전달의 신속화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br/> <br/>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사 속도가 빨라 결과를 얻는 시간을 기존의 1/3∼1/4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채취된 혈액(검체)을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류를 없애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br/> <br/>이번 검사실 자동화시스템은 벡크만쿨터(Beckman Coulter)사의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Power Processor'를 도입함으로서 자동생화학분석기 2대와 자동면역 분석기 3대가 연결되어 생화학, 진단면역등 주요 진단 분야를 하나의 트랙(Track)으로 연결하여 검사 전 발생 가능한 오류 방지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지질검사, 심장기능검사, 종양표지자 (암관련)검사 등을 비롯하여 향후에 도입될 모든 검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br/> <br/>또한 채취된 환자 검체를 운반 후 자동혈청 분리, 검사 처방별 검체 분주, 각 각의 장비로 자동 운반되어 로딩과 동시에 전산접수 기능을 수행하여 바코드 에러, LIS에 의한 검사항목 정보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체 자동분리시스템 및 검체 캡(CAP)의 자동 제거를 통해 결과 검증, 결과 전송, 검체 회수가 가능한 생화학/면역학 검사 검체 구분 없이 모듈에 장착 가능한 시스템이다. <br/> <br/>진단검사의학과 전경소 주임과장은 "검사실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검사실 내의 검사 업무를 자동화하여 검사 보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및 외래환자의 검사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검사량이 증가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병원 경쟁력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선진화된 검사실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한편 한전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 심사에 참여하여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조직적합성 검사, 분자진단검사, 종합검증, 현장검사에서 우수 검사실로 인증을 받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3.txt

제목: 우리나라 갑상선 암 수술 1년새 약 30% 감소  
날짜: 201512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813003  
본문:   <br/> <br/> <br/>국제 최고의 의학논문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안형식 교수 (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의 한국의 갑상선암 논문을 또 다시 조명했다. <br/> <br/>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는 10일 NEJM에 제 1저자로 한국에서의 갑상선 수술 횟수가 2014년 2분기 이후 1년간 3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이 연구는 20년사이 15배 급증한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국내의 논란을 거쳐 1년새 30%이상 감소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싣고 있다. <br/> <br/>NEJM은 의과학계에서는 피인용지수(IF)가 54.4로 기존에 국내 과학계에 잘 알려진 Cell(33.1), Science(31.4), Nature(42.4)보다 높은 의생명과학계의 최고 학술지로 한국인은 10명 이내로 등재되어있으며, 같은 저자의 논문이 두 번 이상 발표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다. <br/> <br/>한국의 갑상선암은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가 갑상선암 과잉진단 문제 제기와 갑상선 초음파 검진 중단을 표명한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갑상선 수술은 4만3000건 이상에서 35%(약 1만5000건) 감소한 약 2만8000건의 수술이 있었다. <br/> <br/>갑상선 암이 급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국에서 1년사이 암 발생률이 30%이상 급감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br/> <b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 <br/>논문에서는 수술이 감소한 원인이 갑상선암 진단자체가 줄어들었는지 혹은 진단된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건강보험 자료를 조사하였다. <br/> <br/>그 결과 수술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의 발생건수도 역시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의사들의 권고가 변한 것 보다는 환자들 스스로 조기 검진을 자제하여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건수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br/> <br/>갑상선암으로 한번 진단된 환자는 대부분 수술을 받으며, 진단된 환자에 대해 수술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진료관행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r/> <br/>이러한 수술 감소가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동안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여도 사망률의 변화는 없었고, 대부분 갑상선암은 예후가 양호한 유두암이기 때문이다. <br/> <br/>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수술률은 매우 높으며, 조기검진의 신화가 존재하기에 한국의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 <br/> <br/>연구진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암의 조기검진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고, 국가 전체로는 의료비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건강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료지침이 전 의료계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지난 4월 국립암센터 주재의 국가 암 검진위원회에서 제정한 한국 갑상선 암 검진 지침에서는 '무증상 성인에게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4.txt

제목: 우리나라 갑상선 암 수술 1년새 약 30% 감소  
날짜: 2015121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100502851  
본문:   <br/> <br/> <br/>국제 최고의 의학논문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안형식 교수 (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의 한국의 갑상선암 논문을 또 다시 조명했다. <br/> <br/>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는 10일 NEJM에 제 1저자로 한국에서의 갑상선 수술 횟수가 2014년 2분기 이후 1년간 3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br/> <br/>이 연구는 20년사이 15배 급증한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국내의 논란을 거쳐 1년새 30%이상 감소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싣고 있다. <br/> <br/>NEJM은 의과학계에서는 피인용지수(IF)가 54.4로 기존에 국내 과학계에 잘 알려진 Cell(33.1), Science(31.4), Nature(42.4)보다 높은 의생명과학계의 최고 학술지로 한국인은 10명 이내로 등재되어있으며, 같은 저자의 논문이 두 번 이상 발표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다. <br/> <br/>한국의 갑상선암은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가 갑상선암 과잉진단 문제 제기와 갑상선 초음파 검진 중단을 표명한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갑상선 수술은 4만3000건 이상에서 35%(약 1만5000건) 감소한 약 2만8000건의 수술이 있었다. <br/> <br/>갑상선 암이 급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국에서 1년사이 암 발생률이 30%이상 급감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br/> <b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 <br/>논문에서는 수술이 감소한 원인이 갑상선암 진단자체가 줄어들었는지 혹은 진단된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건강보험 자료를 조사하였다. <br/> <br/>그 결과 수술뿐만 아니라 갑상선 암의 발생건수도 역시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의사들의 권고가 변한 것 보다는 환자들 스스로 조기 검진을 자제하여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건수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br/> <br/>갑상선암으로 한번 진단된 환자는 대부분 수술을 받으며, 진단된 환자에 대해 수술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진료관행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r/> <br/>이러한 수술 감소가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동안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여도 사망률의 변화는 없었고, 대부분 갑상선암은 예후가 양호한 유두암이기 때문이다. <br/> <br/>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수술률은 매우 높으며, 조기검진의 신화가 존재하기에 한국의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 <br/> <br/>연구진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암의 조기검진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고, 국가 전체로는 의료비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건강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진료지침이 전 의료계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지난 4월 국립암센터 주재의 국가 암 검진위원회에서 제정한 한국 갑상선 암 검진 지침에서는 '무증상 성인에게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5.txt

제목: 고통을 끝내야 하오…암환자 아내 살해한 할아버지  
날짜: 201512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10091057930  
본문:   <br/> <br/> <br/>90대 할아버지가 말기 암환자 아내를 보살피는 데 지친 나머지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5일 텍사스주 엘파소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넬슨(91) 할아버지가 아내 에블린(93) 할머니를 총으로 쏴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br/> <br/>아내를 간호해 온 넬슨 할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할머니의 시신은 부부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복지사에게 발견됐으며, 할아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br/> <br/>넬슨 할아버지는 경찰에서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나마 지인도 대부분 80대를 넘겨 아내를 보살필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br/> <br/>총상은 에블린 할머니의 머리 뒤쪽에서 발견됐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넬슨 할아버지는 보석금 2만5000달러(약 3000만원)를 내야 풀려날 수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6.txt

제목: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619303  
본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마련된다. <br/> <br/>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입법작업을 마무리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웰다잉(연명의료중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br/> <br/>법안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에 대해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br/> <br/>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갖고 있음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br/> <br/>환자의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임종기에 접어든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br/> <br/>하지만 행려자 등 무연고자에 대해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br/> <br/>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행려자들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은 사후에 연고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사 2명이 동의를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명의료 중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찬성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7.txt

제목: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9200348734  
본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법이 마련된다. <br/> <br/>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입법작업을 마무리해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웰다잉(연명의료중단)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안락사나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br/> <br/>법안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에 대해 의사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br/> <br/>임종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갖고 있음을 담당의사 2명이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 사전의료의향서가 없으면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br/> <br/>환자의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임종기에 접어든 미성년 환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성인은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료인 2인이 동의하면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법정대리인 등 가족이 없을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임종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br/> <br/>하지만 행려자 등 무연고자에 대해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br/> <br/>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0'>행려자들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은 사후에 연고자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사 2명이 동의를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명의료 중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에 찬성한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연명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8.txt

제목: 고대구로병원 최윤선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선출  
날짜: 2015120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416784  
본문: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 <br/>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최윤선 교수가 '제19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br/> <br/>최 교수는 지난 12월 5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br/> <br/>최윤선 교수는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올해부터 시작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건강보험수가 적용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표준화 및 관련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개발과 정착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들의 고충과 고민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회원들이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r/> <br/>한편 최 교수는 이날 이사장직 선출과 더불어 '말기암 환자에게서 혈장 내독소 농도가 생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69.txt

제목: 대장암 씨앗 대장용종, 완전 제거가 암예방의 지름길  
날짜: 2015120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442083  
본문: <서울성모병원 이보인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좌측부터)>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전구병변인 대장용종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대장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사 중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하기 때문이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br/> <br/> 이를 ‘중간대장암’이라 부르며 발행원인의 약20%가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완전 절제가 원인인 가운데, 크기가 작은 용종이라도 완전절제를 위해서는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br/> 우리나라와 미국 내시경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 5-6 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조직검사용 겸자(집게)로 간단히 제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대장용종 제거방법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보인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세 이상 138명의 대장용종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mm 이하의 종양성 용종을 단순히 조직검사용 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절제율이 13%였고, 특히 5-7mm 크기의 용종의 불완전 절제율은 30%로 높았다.  <br/> <br/> <왼쪽이 올가미 용종 절제술, 오른쪽이 생검겸자 절제술>이는 금속 올가미로 용종의 아래를 조여서 잘라내는 방법인 저온 올가미 절제의 불완전 절제율이 3%이고, 특히 5-7mm의 경우 6% 정도임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br/> <br/> 대장용종이란 대장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는 것으로 선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의 경우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br/> <br/> 대장 용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br/> <br/> 대장용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지나친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만인 경우 체중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br/> <br/>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보인 교수는 “대장내시경으로 미리 대장용종을 찾아서 제거해주면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50대 이상 남녀에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되므로 50세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원인이 불분명한 빈혈, 혈변, 체중감소, 지속적 복통 등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r/> <br/> 또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검사 중 종양성 용종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용종의 크기가 5mm 이상인 경우 생검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절제율이 30%에 달하므로 작은 용종도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고주파 전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천공이나 대장벽의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용종이 아니라면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올가미만으로 기계적으로 절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3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0.txt

제목: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 본인부담 20%에서 5%로 대폭 낮아져  
날짜: 201512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357338  
본문: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현재 20%선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br/> <br/>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r/> <br/>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br/> <br/>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된다. <br/> <br/>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br/> <br/>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br/> <br/>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그래픽>이다. <br/> <br/>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br/> <br/>이 중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br/> <br/>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br/> <br/>서울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1.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5120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352183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자 암센터장인 조치흠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7일 50세 자궁경부암 환자를 상대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br/> <br/>로봇수술은 보통 배에 4개 구멍을 내지만 단일공 로봇수술은 배꼽 위에 1인치 미만 구멍을 1개만 뚫어 시행한다. <br/> <br/>이 때문에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도 2∼3일밖에 되지 않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수술은 안전하고 정교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가 거의없어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span>”라며 “앞으로 부인암 영역에 단일공 로봇수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r/> <br/>조 교수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했다. 그 뒤 자궁내막암 환자 14명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br/> <br/>미국 수술로봇 제조회사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조 교수의 자궁내막암 수술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br/> <br/>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2.txt

제목: 대장암 씨앗 대장용종, 완전 제거가 암예방의 지름길  
날짜: 20151209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9112937532  
본문: <서울성모병원 이보인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좌측부터)>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전구병변인 대장용종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대장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사 중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하기 때문이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br/> <br/>이를 ‘중간대장암’이라 부르며 발행원인의 약20%가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완전 절제가 원인인 가운데, 크기가 작은 용종이라도 완전절제를 위해서는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r/> <br/>우리나라와 미국 내시경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 5-6 mm 이하의 작은 용종은 조직검사용 겸자(집게)로 간단히 제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대장용종 제거방법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br/>  <br/>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보인 교수와 인천성모병원 김준성 교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1세 이상 138명의 대장용종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mm 이하의 종양성 용종을 단순히 조직검사용 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절제율이 13%였고, 특히 5-7mm 크기의 용종의 불완전 절제율은 30%로 높았다.  <br/> <br/> <왼쪽이 올가미 용종 절제술, 오른쪽이 생검겸자 절제술>이는 금속 올가미로 용종의 아래를 조여서 잘라내는 방법인 저온 올가미 절제의 불완전 절제율이 3%이고, 특히 5-7mm의 경우 6% 정도임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br/> <br/>대장용종이란 대장의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는 것으로 선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의 경우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br/> <br/>대장 용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발생한다.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br/> <br/>대장용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지나친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등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만인 경우 체중을 조절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 <br/> <br/>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보인 교수는 “대장내시경으로 미리 대장용종을 찾아서 제거해주면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50대 이상 남녀에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되므로 50세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원인이 불분명한 빈혈, 혈변, 체중감소, 지속적 복통 등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검사 중 종양성 용종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용종의 크기가 5mm 이상인 경우 생검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절제율이 30%에 달하므로 작은 용종도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고주파 전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천공이나 대장벽의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용종이 아니라면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올가미만으로 기계적으로 절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3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3.txt

제목: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 본인부담 20%에서 5%로 대폭 낮아져  
날짜: 201512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9082130917  
본문: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현재 20%선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br/> <br/>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br/> <br/>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br/> <br/>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된다. <br/> <br/>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br/> <br/>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br/> <br/>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그래픽>이다. <br/> <br/>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br/> <br/>이 중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br/> <br/>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br/> <br/>서울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4.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날짜: 20151209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9075411790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br/> <br/>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자 암센터장인 조치흠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7일 50세 자궁경부암 환자를 상대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br/> <br/>로봇수술은 보통 배에 4개 구멍을 내지만 단일공 로봇수술은 배꼽 위에 1인치 미만 구멍을 1개만 뚫어 시행한다. <br/> <br/>이 때문에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도 2∼3일밖에 되지 않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0'>단일공 로봇수술은 안전하고 정교할 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가 거의없어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span>”라며 “앞으로 부인암 영역에 단일공 로봇수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r/> <br/>조 교수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했다. 그 뒤 자궁내막암 환자 14명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br/> <br/>미국 수술로봇 제조회사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조 교수의 자궁내막암 수술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세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br/> <br/>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5.txt

제목: [정병호의법률산책] 죽은 남편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일까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241987  
본문: 냉동보관해 둔 남편의 정자로 남편 사망 후에 시험관시술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죽은 남편의 자식인가?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미 입법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일각의 논의만 있고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 <br/> <br/>어떤 부부가 불임 판정을 받고 시험관시술을 통해 첫째를 낳았는데, 그 무렵 남편이 암에 걸리자, 부부는 둘째를 낳고 싶어서 남편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보관했다. 2013년 말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은 남편의 유지에 따라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시술로 둘째를 낳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행정관청에서 죽은 남편을 친아버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부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죽은 남편을 둘째의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률상 부부였던 남편과 아이의 혈연관계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로 친자(親子)관계를 인정했고, 검사가 불복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br/> <br/>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이 사건의 시험관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단 태어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출생신고를 허락한 법원의 결정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법원도 어미와 자식의 딱한 처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원래 인지는 혼인관계 없이 출생한 자식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를 상대로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인지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냉동정자로 낳은 자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문제된 사건에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br/> <br/>그러나 냉동정자 소유자의 사망 후에 태어난 아이를 일단 죽은 사람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어머니 이외의 친족관계, 예컨대 조부모, 삼촌·고모·이모 등과의 관계에서도 상속권, 부양의무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 냉동정자를 이용해 출산한 경우에도 자식으로 인정해야 할까. 친족 간의 세대교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남편 아닌 자의 냉동정자로 출생한 아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 원래 인지는 부부관계 없이 낳은 자식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의 냉동정자를 정자은행에서 무단으로 빼돌려 아이를 낳은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인지되면 남자는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정자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자은행과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동의 문제는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를 사용하여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br/> <br/>법원의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다.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대처할 일이다.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의 사용에 대해 예컨대 유언처럼 엄격한 방식으로 남편의 동의를 받고 남편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만 인지를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br/> <br/>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6.txt

제목: [사설] ‘규제 철폐’만 외치지 말고 ‘암덩어리’ 도려내야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242880  
본문: 2013년 1월 토석채취 허가권을 쥔 A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낸 민원인 B씨는 441일을 기다려야 했다. 명문상의 처리기간인 30일의 14배 가까이 더 기다려서야 허가가 나온 것이다.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없었는데도 시일이 그렇게 걸렸다. 경위도 어이없다. 해당 지자체가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방치했던 탓이라고 한다. B씨는 공직사회의 규제 갑질에 피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br/> <br/>국무조정실이 어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월부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였다. 적발 건수가 천문학적으로 많았던 것은 아니다.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이 적발됐다. 문제는 토석채취 허가건을 비롯한 하나하나가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악성 사례들이란 점이다. 더욱이 언제나 그렇듯이 어제 발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기 십상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전국에 널려 있는 척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br/> <br/>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거푸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등 ‘규제 철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제1차 장관회의에서 “<span class='quot0'>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span>”라고 했다. 예사롭지 않은 결기였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부처들도 이를 의식해 수시로 철폐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도 내놓는다. 하지만 그래서 바뀐 게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 포털에 등록된 규제는 1만4688개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지만 2009년의 1만1050건보다 외려 훨씬 더 많다. 탈규제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br/> <br/>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9월에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방침도 내놓았다. 더욱 과감히, 신속히 임해야 한다. 상부 보고용 건수만 늘리는 ‘무늬만 개혁’으론 백약이 무효다. 국회가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일선 기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규제’를 남발하는 문제점도 엄존한다. 임기 5년이 다 지나간 후에도 ‘암덩어리’가 그대로라면 국민 모두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7.txt

제목: 이대목동병원이 전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512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615658  
본문: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초음파 검사>연말연시에는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고자 가족 또는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던 이들의 건강검진 수요가 하반기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병•의원 및 건강검진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br/> <br/>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건강검진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건강검진 실시 후 만족하는 비율은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수검자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검진에 만족하는 비율은 3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br/> <br/>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김정숙 센터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고자,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br/> <br/>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을 100% 찾아낼 수 있다고 맹신하거나 반대로 검사 과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검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 흡연 여부, 가족력 등을 숙지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상담을 통해 검진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검사 후에는 결과에 따른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 <br/> 이에 이대목동병원은 건강검진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오해와 진실을 발표했다. <br/> <br/> o 건강검진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br/> <br/>◆ 건강검진은 모든 병 찾는 ‘만능 검사’? 흡연, 가족력 등 점검 후 검진 항목 스스로 챙겨야 <br/>건강검진을 우리 몸의 모든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만능 검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패키지형 종합검진은 암, 고혈압, 당뇨, 위장,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 검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질환을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br/> <br/> 특히 발병 속도가 빠르고 찾아내기 힘든 폐암, 난소암 같은 경우, 고가의 검진을 받더라도 자칫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 저선량 폐 CT나 질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발견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검진 내용이 모든 병을 다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 여부•가족력 등 개인별 특이점을 점검한 후 빠진 항목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 중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다른 검사에 앞서 심장 정밀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br/> <br/> 복부비만이 있다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과 함께 지방간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또 젊은 여성의 경우, 치밀 유방(유방의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해 있는 유방)의 빈도가 높아 유방 촬영에서 조기 암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실시하면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 ◆ 건강검진은 부모님 효도 선물? 젊은 층 암 발병률 증가로 20~30대도 건강검진 필요 <br/>건강검진은 흔히 효도 선물로 선호되고 있는 만큼, 40~50대 부모님 세대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어리다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의 10% 이상은 20~30대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 국가암검진이나 최근 국립암센터가 내놓은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좀 더 이른 나이부터 받는 것이 좋다. <br/> <br/> 유전 가능성이 높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은 5~10년 정도 일찍부터 암 검진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또 건강검진은 나이대별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검진 항목이 다르다. 20~30대는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술자리가 잦은 30대는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br/> <br/>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은 가임기와 맞물려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유방 초음파뿐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및 질염 검사 등 산부인과 질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br/> <br/> ◆ 수면 내시경 사망 위험 높다? 마취 및 각 과별 전문의 상주하는 종합병원 찾으면 안심 <br/>내시경 검사는 위•대장 수술의 전후 경과를 파악하고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지만, 정작 검사받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내시경의 도관이 식도나 항문을 통과할 때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고, 이를 피하고자 수면 내시경을 하자니 마취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br/> <br/> 그러나 검진 전 몇 가지를 고려해 병원을 택하면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다. 먼저,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을 선택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또 심장•호흡기계 질환, 간부전•신부전•신경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검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과별 전문의가 상주하는 종합병원에서의 내시경 검사를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br/> <br/> 또한 안전한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무호흡, 기침, 혈압 강하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도 확인 요소다. <br/> <br/> ◆ 암 조기 진단 위해 CT, PET-CT 검사는 여러 번 찍을수록 좋다? <br/>방사능 노출 위험 있어, 중복 검사 피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br/>CT, PET-CT 검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해마다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찍는 등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CT, PET-CT는 고가에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방사능 노출을 걱정해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지양할 필요는 없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췌장암 등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기 때문이다. <br/> <br/>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6개월간 평소 몸무게의 5% 이상이 빠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 하에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기존 촬영 시기를 공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 검진 결과 표에 ‘정상’ 뜨면 건강하다? 생활 습관 개선 통해 꾸준한 건강관리 중요 <br/>건강검진을 마친 뒤 검진표에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섣불리 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상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큰 질환이 없고 술•담배 거의 안한 정상인)의 측정치로부터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의 2.5%를 제외한 95%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암 검진 등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술•담배 등 좋지 않은 습관을 지속하다가 건강검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br/> <br/> 따라서 정상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평소 본인의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을 점검하는 등 건강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8.txt

제목: 연말 건강검진 “흡연·가족력 점검 후 스스로 검진 항목 추가해야”  
날짜: 20151208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611574  
본문: 연말을 맞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이나 검진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건강검진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건강검진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수검자 2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검진에 만족하는 비율은 3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대목동병원은 8일 ‘건강검진에 대한 대표적 오해와 진실 5가지’를 발표하고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법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는 ▲흡연여부·가족력 점검 후 검진 항목 추가 ▲젊은층도 건강검진 필요 ▲안전한 수면 내시경 벙법 ▲방사능 노출 위험 있는 검사는 신중하게 ▲검사 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 등이 포함됐다. <br/> <br/> 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김정숙 소장이 수검자의 감상선 초음파를 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김정숙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을 100% 찾아낼 수 있다고 맹신하거나 반대로 검사 과정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검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 흡연 여부, 가족력 등을 숙지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상담을 통해 검진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사 후에는 결과에 따른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br/> <br/> <br/>◆건강검진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br/> <br/>1. 건강검진은 모든 병 찾는 ‘만능 검사’? 흡연, 가족력 등 점검 후 검진 항목 스스로 챙겨야 <br/> <br/>건강검진을 우리 몸의 모든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만능 검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패키지형 종합검진은 암, 고혈압, 당뇨, 위장,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 검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질환을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발병 속도가 빠르고 찾아내기 힘든 폐암, 난소암 같은 경우, 고가의 검진을 받더라도 자칫 증상이 없다고 생각해 저선량 폐 CT나 질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발견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검진 내용이 모든 병을 다 진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 여부·가족력 등 개인별 특이점을 점검한 후 빠진 항목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 중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다른 검사에 앞서 심장 정밀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복부비만이 있다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과 함께 지방간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또 젊은 여성의 경우, 치밀 유방(유방의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해 있는 유방)의 빈도가 높아 유방 촬영에서 조기 암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실시하면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2. 건강검진은 부모님 효도 선물? 젊은 층 암 발병률 증가로 20~30대도 건강검진 필요 <br/> <br/>건강검진은 흔히 효도 선물로 선호되고 있는 만큼, 40~50대 부모님 세대를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어리다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의 10% 이상은 20~30대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 국가암검진이나 최근 국립암센터가 내놓은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좀 더 이른 나이부터 받는 것이 좋다. 유전 가능성이 높은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은 5~10년 정도 일찍부터 암 검진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또 건강검진은 나이대별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검진 항목이 다르다. 20~30대는 노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술자리가 잦은 30대는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은 가임기와 맞물려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유방 초음파뿐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및 질염 검사 등 산부인과 질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br/> <br/>3. 수면 내시경 사망 위험 높다? 마취 및 각 과별 전문의 상주하는 종합병원 찾으면 안심 <br/> <br/>내시경 검사는 위·대장 수술의 전후 경과를 파악하고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지만, 정작 검사받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내시경의 도관이 식도나 항문을 통과할 때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고, 이를 피하고자 수면 내시경을 하자니 마취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진 전 몇 가지를 고려해 병원을 택하면 안전한 검사가 가능하다. 먼저,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을 선택해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또 심장·호흡기계 질환, 간부전·신부전·신경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검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과별 전문의가 상주하는 종합병원에서의 내시경 검사를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안전한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무호흡, 기침, 혈압 강하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도 확인 요소다. <br/> <br/>4. CT, PET-CT 검사는 여러 번 찍을수록 좋다? 방사능 노출 위험 있어, 중복 검사 피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br/> <br/>CT, PET-CT 검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암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해마다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찍는 등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CT, PET-CT는 고가에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방사능 노출을 걱정해 무조건적으로 검사를 지양할 필요는 없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췌장암 등을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6개월간 평소 몸무게의 5% 이상이 빠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 하에 검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기존 촬영 시기를 공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5. 검진 결과 표에 ‘정상’ 뜨면 건강하다? 생활 습관 개선 통해 꾸준한 건강관리 중요 <br/> <br/>건강검진을 마친 뒤 검진표에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섣불리 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상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큰 질환이 없고 술·담배 거의 안한 정상인)의 측정치로부터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의 2.5%를 제외한 95%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암 검진 등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술·담배 등 좋지 않은 습관을 지속하다가 건강검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평소 본인의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을 점검하는 등 건강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79.txt

제목: 포스텍 임현석 교수팀, 암 세포 '킬러' 약물 개발  
날짜: 2015120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445869  
본문: 포스텍(포항공대) 임현석 교수팀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직접 조절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킬러’ 약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br/> <br/>8일 포스텍에 따르면 임 교수팀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암 유발단백질인 Skp2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방해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를 통해 발표됐다. <br/> <br/>Skp2 단백질은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나타나며,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암유발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Skp2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은 효과적인 항암제가 될 수 있지만,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일은 큰 난제로 여겨지고 있다. <br/> <br/>연구팀은 우선 단백질 상호작용에 효과적인 거대고리(1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형 골격을 갖는 물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6만개에 이르는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 화합물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검색을 진행해 암을 유발하는 Skp2와 p300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물질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br/> <br/>실험결과, 이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은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표적 항암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0.txt

제목: 국립암센터, 2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선정  
날짜: 20151208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517067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6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r/> <br/>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분야는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총 4개 영역이다. <br/> <br/>국립암센터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재가암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 성인 암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한국형 완화의료모델 확립을 위한 사업준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공공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차별화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br/> <br/>한편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 박아경 의료사회복지사가 저소득 계층의 암환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의료취약계층 후원 체계 강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1.txt

제목: 포스텍 연구팀, 광음향영상 및 광열치료용 광음향소재 멜라노이딘 개발  
날짜: 20151208  
기자: 장영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531204  
본문: 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는 향의 원인이 되는 화합물 ‘멜라노이딘’을 광음향을 이용한 의료 영상 촬영, 항암치료, 지방흡입과 같은 성형수술에 활용하는 기술이 포스텍(포항공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br/> <br/>8일 포스텍에 따르면 이 대학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창의IT융합공학과 김철홍 교수, 삼성종합기술원 이민영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분해성 광음향 소재 멜라노이딘을 합성, 광음향영상과 광열치료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Nano’지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됐다. <br/> <br/>아미노산과 당의 메일라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멜라노이딘은 흔히 식품 가공이나 저장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로 항산화작용이나 암 예방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br/> <br/>연구팀은 이 물질에 빛을 쐬면 음파가 생성되는 광음향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이 물질을 이용해 암전이와 관계된 림프절과 내장기관의 의료영상을 촬영했다. <br/> <br/>이와 함께 멜라노이딘이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응용, 동물실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에 약한 항암조직을 괴사시키고, 빛으로 지방조직만을 녹여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인체에 무해한 생체고분자인 멜라노이딘을 이용해 광음향 영상을 촬영할 경우, 멜라노이딘 자체가 생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X선 영상촬영이나 MRI와 같이 조영제를 이용하는 의료영상촬영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br/> <br/>또, 이 기술은 항암 광열 치료뿐 아니라 지방조직을 절개 없이 제거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 활발하게 시술되는 지방흡입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한세광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멜라노이딘을 투여 후 빛을 이용해 의료영상 촬영이나 광열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첫 사례로 앞으로 새로운 포토메디슨 기술의 상용화에 적극 나설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2.txt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로 세계를 교육한다  
날짜: 201512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7194428333  
본문:   <br/> <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www.snubh.org, 원장 이철희)은 TEIN협력센터(www.tein.asia, 사무국장 김병규)와 함께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아시아 10개국 의료진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본원으로 초청해 “<span class='quot0'>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이하‘TEIN’)</span>”을 활용하는 MTC(Medical Tele Collaboration) & Master Leaders Class (이하‘워크숍’)를 개최했다. <br/> <br/> TEIN협력센터는 ASEM(Asia-Europe Meeting) 산하기구로 2012년 서울에 설립되어, 아시아 20개국과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TEIN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한 의료, 물리, 기상, 문화 등 다양한 융합분야의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 기관이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TEIN을 활용해 인도,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 해외 10개 국가 의료진에게 매 주 1회 온라인(Online)으로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 및 최소침습수술 등 의료교육을 시행했으며 또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br/> <br/> 이번 워크숍은 그간 온라인으로 교육한 복강경 수술기법 등 다양한 의료기술을 포함하여 원격의료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오송애니멀 실험센터에서 동물(돼지)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그간 분당서울대병원이 TEIN협력센터와 함께 수행해온 글로벌 의료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br/> <br/> 이번 워크숍의 연구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기존에 국내 의료진이 현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의료기술 전수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원격교육 및 필요에 따라 초청교육을 통해 해외 각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3.txt

제목: [사설] ‘규제 철폐’만 외치지 말고 ‘암덩어리’ 도려내야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8211040943  
본문: 2013년 1월 토석채취 허가권을 쥔 A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낸 민원인 B씨는 441일을 기다려야 했다. 명문상의 처리기간인 30일의 14배 가까이 더 기다려서야 허가가 나온 것이다.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없었는데도 시일이 그렇게 걸렸다. 경위도 어이없다. 해당 지자체가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방치했던 탓이라고 한다. B씨는 공직사회의 규제 갑질에 피눈물을 쏟았을 것이다. <br/> <br/>국무조정실이 어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9월부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였다. 적발 건수가 천문학적으로 많았던 것은 아니다.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이 적발됐다. 문제는 토석채취 허가건을 비롯한 하나하나가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악성 사례들이란 점이다. 더욱이 언제나 그렇듯이 어제 발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기 십상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전국에 널려 있는 척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br/> <br/>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연거푸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는 등 ‘규제 철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제1차 장관회의에서 “<span class='quot0'>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span>”라고 했다. 예사롭지 않은 결기였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부처들도 이를 의식해 수시로 철폐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도 내놓는다. 하지만 그래서 바뀐 게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 포털에 등록된 규제는 1만4688개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지만 2009년의 1만1050건보다 외려 훨씬 더 많다. 탈규제 효과를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br/> <br/>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9월에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방침도 내놓았다. 더욱 과감히, 신속히 임해야 한다. 상부 보고용 건수만 늘리는 ‘무늬만 개혁’으론 백약이 무효다. 국회가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일선 기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규제’를 남발하는 문제점도 엄존한다. 임기 5년이 다 지나간 후에도 ‘암덩어리’가 그대로라면 국민 모두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4.txt

제목: [정병호의법률산책] 죽은 남편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일까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8211039393  
본문: 냉동보관해 둔 남편의 정자로 남편 사망 후에 시험관시술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죽은 남편의 자식인가?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미 입법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계 일각의 논의만 있고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 <br/> <br/>어떤 부부가 불임 판정을 받고 시험관시술을 통해 첫째를 낳았는데, 그 무렵 남편이 암에 걸리자, 부부는 둘째를 낳고 싶어서 남편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보관했다. 2013년 말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은 남편의 유지에 따라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시술로 둘째를 낳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행정관청에서 죽은 남편을 친아버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부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죽은 남편을 둘째의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認知)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률상 부부였던 남편과 아이의 혈연관계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로 친자(親子)관계를 인정했고, 검사가 불복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br/> <br/>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이 사건의 시험관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단 태어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출생신고를 허락한 법원의 결정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법원도 어미와 자식의 딱한 처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판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원래 인지는 혼인관계 없이 출생한 자식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를 상대로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인지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냉동정자로 낳은 자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문제된 사건에서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br/> <br/>그러나 냉동정자 소유자의 사망 후에 태어난 아이를 일단 죽은 사람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어머니 이외의 친족관계, 예컨대 조부모, 삼촌·고모·이모 등과의 관계에서도 상속권, 부양의무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 냉동정자를 이용해 출산한 경우에도 자식으로 인정해야 할까. 친족 간의 세대교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남편 아닌 자의 냉동정자로 출생한 아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 원래 인지는 부부관계 없이 낳은 자식의 문제를 다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자가 헤어진 남자친구의 냉동정자를 정자은행에서 무단으로 빼돌려 아이를 낳은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인지되면 남자는 아이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정자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자은행과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동의 문제는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를 사용하여 아이를 낳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br/> <br/>법원의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다.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대처할 일이다. 외국입법례를 참조하여 남편 사망 후 냉동정자의 사용에 대해 예컨대 유언처럼 엄격한 방식으로 남편의 동의를 받고 남편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만 인지를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br/> <br/>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5.txt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로 세계를 교육한다  
날짜: 20151208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8154852408  
본문: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www.snubh.org, 원장 이철희)은 TEIN협력센터(www.tein.asia, 사무국장 김병규)와 함께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아시아 10개국 의료진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본원으로 초청해 “<span class='quot0'>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이하‘TEIN’)</span>”을 활용하는 MTC(Medical Tele Collaboration) & Master Leaders Class (이하‘워크숍’)를 개최했다. <br/> <br/>TEIN협력센터는 ASEM(Asia-Europe Meeting) 산하기구로 2012년 서울에 설립되어, 아시아 20개국과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TEIN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한 의료, 물리, 기상, 문화 등 다양한 융합분야의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 기관이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TEIN을 활용해 인도,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 해외 10개 국가 의료진에게 매 주 1회 온라인(Online)으로 라이브서저리(Live Surgery) 및 최소침습수술 등 의료교육을 시행했으며 또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해 왔다. <br/> <br/>이번 워크숍은 그간 온라인으로 교육한 복강경 수술기법 등 다양한 의료기술을 포함하여 원격의료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오송애니멀 실험센터에서 동물(돼지)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 들을 통해 그간 분당서울대병원이 TEIN협력센터와 함께 수행해온 글로벌 의료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br/> <br/>이번 워크숍의 연구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 한호성 교수(암·뇌신경진료부원장)는 “기존에 국내 의료진이 현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의료기술 전수에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원격교육 및 필요에 따라 초청교육을 통해 해외 각국의 의료수준을 향상시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6.txt

제목: 91세의 기적… 암 물리친 카터 전 美대통령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035767  
본문: 올해 91세의 지미 카터(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암을 이겨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짤막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암이 완치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MRI 뇌 촬영 결과 원래 암이 있었던 곳에 암이 있었다는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으며 새로운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r/> <br/>그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뒤 퇴임 이후에 국제적으로 활발한 민간 활동을 전개했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암에 걸린 사실을 공개했다. 간에 있던 흑색종이 뇌에까지 전이돼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 키트루다(Keytruda)를 투여받았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한 에모리대학 병원 의료진은 최근 4번째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새로운 암의 증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에모리 대학 병원의 윈쉽 암센터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의 뇌에 흑생종이 네 군데에서 발견됐고, 간에 종양이 있다고 공개했었다. 의료진은 간에 있는 종양을 제거한 뒤 새로운 치료 신약을 투약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이 걸린 암은 예후가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조기에 그의 암 발병 사실을 알아내 치료함으로써 암을 완치할 수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br/> <br/>에모리대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의 뇌 전체가 아니라 암이 있는 네 곳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쏘는 방법으로 암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이번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령인 카터 전 대통령의 암을 치료하는 데 성공해 고령의 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7.txt

제목: 암 완치 선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완치 판정 받았다"  
날짜: 20151207  
기자: 이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100764  
본문: 암 완치 선언 (사진= YTN)암 완치 선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완치 판정 받았다" <br/> <br/> 암 투병 중이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1)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br/> <br/>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지아 주(州) 플레인스의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 교실' 시작 초반 이같이 밝혔다고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을 비롯해 CNN과 NBC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br/> <br/> 성경 교실에 참석한 질 스터키는 AJC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쁨에 겨워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br/> <br/>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암에 걸린 사실을 자진해 공개했다.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돼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 <br/> <br/> 카터는 당시 청바지에 재킷 차림으로 애틀란타의 ‘카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span class='quot0'>이달 초 수술로 간에서 2.5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했는데, MRI 촬영을 했더니 뇌에서 약 2mm크기의 종양 4개가 발견됐다</span>”고 고백했다. <br/> <br/> 그러면서 그는 “암에 걸렸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9월에는 애틀란타의 야구장(터너 필드)를 찾아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br/> <br/> 카터가 걸린 흑색종은 피부암으로 일종으로 백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자외선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카터는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난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 키트루다(Keytruda)를 투여받았는데, 이런 치료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br/> <br/> 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 온 에모리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지난달 4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퇴임 후 더 활발한 활동으로 큰 존경을 받고 있다. 1982년 카터 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개선, 보건·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br/> <br/>이슈팀 en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8.txt

제목: "국공립병원 한의과 확대… 치료 지침 마련"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008426  
본문: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고,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약 표준 치료 지침이 마련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실행 과제를 밝혔다. <br/> <br/>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br/> <br/>복지부는 또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한의약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지식정보 및 문헌 자산을 관리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해 한의약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br/> <br/>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span class='quot0'>계획안의 성과 목표와 과제는 범한의계가 참여한 가운데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했다</span>”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제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r/> <br/>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89.txt

제목: 4대 중증질환자 병원비 부담 확 줄었다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4008099  
본문: “<span class='quot0'>엄마는 저희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정작 자식인 저희는 엄마의 약값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눈물만 납니다.</span>” <br/> <br/>대구 북구 침산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폐암환자들의 모임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가 폐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한 달에 1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문제였다. A씨는 “혼자 몸으로 삼남매를 키운 엄마인데, 엄마 없이는 못산다고 오래 사시라고 말해놓고 정작 돈 때문에 고민하는 내가 싫다”며 자책했다. <br/> <br/>정부는 A씨처럼 중증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2013년 25개 항목(치료법, 약제)에 불과했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올해 총 370개 항목으로 늘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br/> <br/>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 환자 부담은 총 1조119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4110억원으로 60%가량 감소했다. 이로 인해 427만9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에는 고액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하는 상위 50개 질환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약 61%에 달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br/> <br/>하지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br/> <br/>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부터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씩 들어가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월 37만원으로 낮아졌다. 유방암환자의 유방재건술은 통상 800만∼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 4월부터는 200만∼400만원만 부담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이식 환자의 간이식 거부반응 치료 약값도 연간 770만원에 달했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연 77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는 134종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br/> <br/>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진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선택 의사 수를 줄이고 진료과별로 최소 4명 중 1명은 일반의사를 두도록 했다. 2년간 선택진료비 경감액은 2013년 1조6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br/> <br/>병원 치료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입원비 문제도 기존 6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4인실까지로 확대했다. 종합병원 이상 대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적용 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그러자 상급병실료 부담은 2013년 1조2655억원에서 올해 약 1조원으로 21%나 줄었다. 간병비의 경우에도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3년 13개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80개 병원의 5488개 병상으로 확대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span class='quot1'>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검사 및 치료법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내년에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0.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성료  
날짜: 2015120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852038  
본문:   <br/> <br/> <br/>지난 5일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를 주제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br/> <br/>송창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국소 온열치료는 종양조직 내의 산소 분압을 상승 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세포독성 T cell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등 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또한 이윤한 연세대 교수는 국제열치료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 "온열암 치료가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암 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암 치료에 있어서 온열암 치료가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br/> <br/>아울러 대만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치관화(Kwan-Hwa Chi) 대만 양밍국립대학 교수는 "온열암 치료, 특히 온코서미아(Oncothermia, 온열치료장비)는 암세포들의 세포간 교신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열단백질의 발현, 세포자살사(Apoptosis)의 증가나 세포독성 항원특이성 T-세포의 증가 등 암 면역 반응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상승시켰다"며 "아울러 전 임상 시험에서 수지상세포요법의 암 치료 효과를 상승시켰다"고 발표했다. <br/> <br/>한편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1.txt

제목: '암투병' 지미 카터 "암 사라졌다" 완치 선언  
날짜: 2015120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802645  
본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암이 완치됐다고 공개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지아 주(州) 플레인스의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 교실’ 시작 초반 이같이 밝혔다고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을 비롯해 CNN과 NBC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br/> <br/>성경 교실에 참석한 질 스터키는 AJC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밀검사를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쁨에 겨워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 온 에모리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앞서 지난달 4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2.txt

제목: '암투병' 지미 카터 "암 사라졌다" 완치 선언  
날짜: 2015120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7103554341  
본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신의 암이 완치됐다고 공개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지아 주(州) 플레인스의 머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열린 ’카터 성경 교실’ 시작 초반 이같이 밝혔다고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을 비롯해 CNN과 NBC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br/> <br/>성경 교실에 참석한 질 스터키는 AJC에 “카터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정밀검사를받았는데 암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에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쁨에 겨워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말했다. <br/> <br/>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 온 에모리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앞서 지난달 4번째 항암치료를 마치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암의 증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3.txt

제목: 이상한 환자단체 대표의 이상한 활동 의혹 논란  
날짜: 201512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228120  
본문: <해당 환자단체가 지난 11월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 환자단체가 특정 의약품의 적응 범위는 제외하고 효능이 뛰어나다는 몇몇 복용 수기만을 집중 유포해 환자가 아닌 특정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0'>A환자단체 B대표가 의료관련 인터넷 매체를 설립한 후,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Xalkori)’를 지지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며 이 환자단체와 다국적 제약사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br/>  <br/>B대표는 2012년 ‘락앤락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1'>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생존을 늘릴 수 있는데, 약값이 고가라면 ‘보험급여항목’으로 지정해 환자부담을 덜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각이라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양방 폐암치료제 잴코리의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span>”고 밝히는 등 수차에 걸쳐 이 약의 보험급여를 주장해 왔다. <br/> <br/>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2'>B대표의 주장은 보험급여 포함을 바라고 있는 화이자의 입장과 같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환자단체의 대표가 매체까지 만들어 특정 약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배경이 무엇이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이 회장은 또 “<span class='quot0'>B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를 홍보하면서, 반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주목 받고 있는 한의학적 암치료법을 비난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암환자 위한다면서...약의 효능 제대로 밝히지 않아 <br/> <br/>업계에 따르면 B대표가 ‘보험급여’를 주장한 잴코리는 폐암 전체에 대해 효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 그 중에서도 'ALK 유전자 변이 환자'에 대해서만 효능을 보이는 약이다. <br/> <br/>이 약은 현재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 약 200~300명에게만 적응증이 있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지만 B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암환우협회 측 설명이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B대표가 설립한 매체는 ‘환자 전문 언론 매체’를 표방하면서도 관련기사에서 적응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효능이 좋은 ‘폐암 치료제’라고만 보도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에 대해 B대표는 “<span class='quot1'>(잴코리에 효능이 있는)ALK 환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ALK를 가진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부분적 효능) 이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 <화이자 제약이 잴코리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 위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좌측)와 암환자의 복용을 홍보한 화이자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Xalkori)와 노바티스의 혈액암 치료제 글리벡 기사(우측)>잴코리 제약사인 화이자는 2012년부터 이 약의 ‘보험급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에는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찾아뵙고 설명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로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br/> <br/>경실련은 2014년 12월 4일 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4'>화이자 제약의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span>”라며 “<span class='quot4'>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span>”고 비판한 바 있다. <br/> <br/>경실련은 당시 문자를 공개하며 “<span class='quot4'>화이자 제약의 잴코리는 보험 급여 결정이 당시에는 보류되었지만 이후 심평회가 보험 급여를 밀어붙였다</span>”며 “<span class='quot4'>심의 이전에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도 화이자는 해당 심의 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0'>B대표가 효능을 주장하며 보험급여 지정을 주장했던 항암제 잴코리는 한 알에 16만7000원으로, 하루 두 알 복용할 경우 약값만 한 달에 1000만원이 드는 초고가 항암제</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런데 B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한 알에 3만원인 암치료 한약을 ‘고가’라고 비난했다</span>”고 말했다. <br/> <br/>B대표는 ‘한 알에 3만원인 한방치료제를 한 알에 16만7000원 잴코리보다 고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span class='quot1'>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3만원인 한방치료제도, 16만7000원인 잴코리도 모두 환자에게는 고가</span>”라고 주장했다. <br/> <br/> ◆ ‘시민기자’ 이름으로 악의적 기사 실어 <br/> <br/> <B 대표와 단국대학교 병원 법률상 대리인 사이에 메시지 내용>B대표는 단국대학교 병원 한방 의료진들로부터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B대표는 피소 이후인 지난 11월 4일 이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한방 암치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내용은 여러 매체에 보도됐다. <br/> <br/>단국대학교 병원측은 “기사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한 언론사 편집부에 전화를 하니 편집부 측에서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전화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해당 기자가 아닌 B대표라서 매우 의아했다”면서 “전화를 걸어온 B대표가 ‘도대체 무엇이 허위냐. 우리는 모든 법적 검토를 거쳤다. 정정보도 신청을 한다면 나도 환자단체 차원에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br/> <br/>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다른 기사를 보면 해당 환자단체 활동가, 객원기자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한 것은 그 기자이고 정정보도 신청에 대해 소명하여야 하는 것도 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가 아닌 B대표가 전화를 걸어온 점과 해당 환자단체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사 작성에 B대표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br/> <br/>◆ 매년 ‘후원의 밤과 행사’ 개최…이권 단체로부터 후원 받아 <br/> <br/>B대표가 만든 환자단체는 3개의 다른 환자단체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월 4일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조직처럼 함께 움직여 왔다. <br/> <br/> <다국적제약회사 GSK 로부터 500 만원 자동차 후원금을 받은 한국백혈병환우회(GSK 홈페이지)> <br/>그런데 이 단체들 중 하나인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지난 2014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것이다. <br/> <br/>B대표의 환자단체는 매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권단체인 제약 업체들과, 의사협회 회장 등 간부들이 ‘후원자’로 참석했다. <br/> <br/>B대표의 환자단체 자문위원인 의사 권용진 씨(의협 대변인 출신)는 매년 후원의 밤에 참석하며 공식적으로 이 단체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후원의 밤'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전통 한방의학을 비난하는데 앞장서 왔다. 대한암환우협회는 “<span class='quot5'>B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협의 2중대 역할을 담당하는 해결사라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B대표는 “1년에 한번 단체의 창립기념식에 ‘후원의 밤’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의료공급자단체에서 왔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권용진 교수는 2012년부터 환자들의 의료민원 소통공간인 ‘환자 샤우팅카페’에서 몇몇 법조인 자문단과 함께 의료인 자문단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B 대표 환자단체 후원의 밤에 참석하며 지지 의사를 표시한 대한의협 간부진.자료 해당 환자단체 웹문서>◆ 사이트까지 만들어 ‘전통 한방’ 비난 <br/> <br/>B대표는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한 매체에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의 피해자를 모집하겠다”면서 ‘넥시아 피해자 모집 사이트’를 개설, 단국대학교 병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br/> <br/> <2011년간담회에서 B대표와 한 모씨의 만남 (자료:청년의사신문) >B대표는 경찰 대질신문에서 “넥시아 피해자 사례를 모집했으나 소송을 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넥시아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 모집이나 집단소송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br/> <br/>그러나 B대표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는 “충북대병원 의사인 한모씨와 B대표가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B대표의 주장과는 달랐다. <br/> <br/>이에 B대표는 "지난 6월 12일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6월 24일 1차 조사를 받았고, 7월 30일 고소인인 최원철 부총장 측 한의사 1명과 대질신문을 포함한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는 모두 끝나 곧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B대표와 함께 집단소송을 추진하여 피소중이고 전통 한방 암치료법을 ‘사기’라고 비난해 기소된 충북대병원 의사 한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 모씨는 국립의대교수가 아닌데도 교수라며 신분을 사칭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4.txt

제목: 암 검진도 스마트하게, 암 발생 전에 싹을 찾는다  
날짜: 201512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141238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동석호/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5일 경희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암연구소 김철우 교수는 '스마트 암검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br/> <br/>지금까지의 암연구는 암세포에 집중해왔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특정 장기에 착상이 된 다음 1~2cm미만의 1기암으로 자라는데 7~10년이 소요되고 수많은 신체 혈액상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암의 성장과 전이는 암세포 뿐만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에는 유전자, 단백, microRNA등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주변에 적응시키는 많은 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암환자의 혈액에는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변세포들과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물질 또한 중요한 표지자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암검사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 개발됐다. <br/> <br/>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암검사'는 암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암이 있거나 암이 진행되기 전의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은 발병 후에 확인 가능한데 스마트 암 검진은 발병 전에 확인 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6종류의 암(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피검사자 건강에 따라 어떤 암에 취약한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br/> <br/>또한 스마트 암검사의 기술을 활용해 만성생활습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는 심혈관기능, 면역기능, 당뇨성향, 대사증후군, 갑상선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이상 등 8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입체적인 결과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지, 생활습관관리가 필요한지, 혹 치료 중인 환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스마트 암검사(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소 MRC, 바이오인프라 공동개발)는 2011년, 2015년에 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5.txt

제목: 무한도전 엑스포, 사전예약 D-DAY…예매 어떻게?  
날짜: 20151204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3149750  
본문: MBC '무한도전 엑스포' 예매 전쟁이 시작된다.  <br/> <br/>4일 정오부터 G마켓을 통해 무한도전 엑스포 사전예매 접수를 받는다. 관람료는 1000원이며 G마켓 이외 다른 온라인 마켓을 통한 예매나 현장 예매는 불가능하다. 하루 입장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원하는 날짜를 잘 선택해 예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암표 방지를 위해 구매는 1인(ID)당 10매로 제한되며, 희망 관람 날짜의 3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소액 결제/카드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며 구매 티켓은 발급된 날짜 및 회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br/> <br/>무한도전 엑스포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19일부터 2016년 1월31일까지 열린다. 체험 시간은 1일 3회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br/> <br/>'무한도전 엑스포'에는 프로그램 시초인 '무모한 도전'부터 현재 '무한도전'까지 특집 중 대표 아이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로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있다. <br/> <br/>한편 무한도전 엑스포는 출연자 광희와 하하가 '무한도전'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2015년 무한도전을 되돌아보는 사진전도 준비돼 있다. 이번 관람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된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6.txt

제목: 이상한 환자단체 대표의 이상한 활동 의혹 논란  
날짜: 20151204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4141003464  
본문: <해당 환자단체가 지난 11월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 환자단체가 특정 의약품의 적응 범위는 제외하고 효능이 뛰어나다는 몇몇 복용 수기만을 집중 유포해 환자가 아닌 특정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0'>A환자단체 B대표가 의료관련 인터넷 매체를 설립한 후,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Xalkori)’를 지지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며 이 환자단체와 다국적 제약사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br/>  <br/>B대표는 2012년 ‘락앤락 캠페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1'>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생존을 늘릴 수 있는데, 약값이 고가라면 ‘보험급여항목’으로 지정해 환자부담을 덜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환자 및 보호자의 시각이라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양방 폐암치료제 잴코리의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span>”고 밝히는 등 수차에 걸쳐 이 약의 보험급여를 주장해 왔다. <br/> <br/>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2'>B대표의 주장은 보험급여 포함을 바라고 있는 화이자의 입장과 같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환자단체의 대표가 매체까지 만들어 특정 약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배경이 무엇이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이 회장은 또 “<span class='quot0'>B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를 홍보하면서, 반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주목 받고 있는 한의학적 암치료법을 비난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암환자 위한다면서...약의 효능 제대로 밝히지 않아 <br/> <br/>업계에 따르면 B대표가 ‘보험급여’를 주장한 잴코리는 폐암 전체에 대해 효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 그 중에서도 'ALK 유전자 변이 환자'에 대해서만 효능을 보이는 약이다. <br/> <br/>이 약은 현재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 약 200~300명에게만 적응증이 있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지만 B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암환우협회 측 설명이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B대표가 설립한 매체는 ‘환자 전문 언론 매체’를 표방하면서도 관련기사에서 적응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효능이 좋은 ‘폐암 치료제’라고만 보도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에 대해 B대표는 “<span class='quot1'>(잴코리에 효능이 있는)ALK 환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 변이 폐암 환자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ALK를 가진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부분적 효능) 이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span>”고 말했다.  <br/> <화이자 제약이 잴코리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 위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좌측)와 암환자의 복용을 홍보한 화이자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Xalkori)와 노바티스와 행사(우측)>잴코리 제약사인 화이자는 2012년부터 이 약의 ‘보험급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에는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찾아뵙고 설명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로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br/> <br/>경실련은 2014년 12월 4일 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4'>화이자 제약의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span>”라며 “<span class='quot4'>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span>”고 비판한 바 있다. <br/> <br/>경실련은 당시 문자를 공개하며 “<span class='quot4'>화이자 제약의 잴코리는 보험 급여 결정이 당시에는 보류되었지만 이후 심평회가 보험 급여를 밀어붙였다</span>”며 “<span class='quot4'>심의 이전에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도 화이자는 해당 심의 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대한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span class='quot0'>B대표가 효능을 주장하며 보험급여 지정을 주장했던 항암제 잴코리는 한 알에 16만7000원으로, 하루 두 알 복용할 경우 약값만 한 달에 1000만원이 드는 초고가 항암제</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런데 B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한 알에 3만원인 암치료 한약을 ‘고가’라고 비난했다</span>”고 말했다. <br/> <br/>B대표는 ‘한 알에 3만원인 한방치료제를 한 알에 16만7000원 잴코리보다 고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span class='quot1'>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3만원인 한방치료제도, 16만7000원인 잴코리도 모두 환자에게는 고가</span>”라고 주장했다. <br/> <br/>◆ ‘시민기자’ 이름으로 악의적 기사 실어 <br/> <br/> <B 대표와 단국대학교 병원 법률상 대리인 사이에 메시지 내용>B대표는 단국대학교 병원 한방 의료진들로부터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B대표는 피소 이후인 지난 11월 4일 이에 맞대응이라도 하듯, 한방 암치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내용은 여러 매체에 보도됐다. <br/> <br/>단국대학교 병원측은 “기사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한 언론사 편집부에 전화를 하니 편집부 측에서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전화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해당 기자가 아닌 B대표라서 매우 의아했다”면서 “전화를 걸어온 B대표가 ‘도대체 무엇이 허위냐. 우리는 모든 법적 검토를 거쳤다. 정정보도 신청을 한다면 나도 환자단체 차원에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br/> <br/>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다른 기사를 보면 해당 환자단체 활동가, 객원기자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한 것은 그 기자이고 정정보도 신청에 대해 소명하여야 하는 것도 그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가 아닌 B대표가 전화를 걸어온 점과 해당 환자단체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사 작성에 B대표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br/> <br/>◆ 매년 ‘후원의 밤과 행사’ 개최…이권 단체로부터 후원 받아 <br/> <br/>B대표가 만든 환자단체는 3개의 다른 환자단체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월 4일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조직처럼 함께 움직여 왔다. <br/> <br/> <다국적제약회사 GSK 로부터 500 만원 자동차 후원금을 받은 한국백혈병환우회(GSK 홈페이지)> <br/>그런데 이 단체들 중 하나인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지난 2014년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것이다. <br/> <br/>B대표의 환자단체는 매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권단체인 제약 업체들과, 의사협회 회장 등 간부들이 ‘후원자’로 참석했다. <br/> <br/>B대표의 환자단체 자문위원인 의사 권용진 씨(의협 대변인 출신)는 매년 후원의 밤에 참석하며 공식적으로 이 단체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후원의 밤'에 참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전통 한방의학을 비난하는데 앞장서 왔다. 대한암환우협회는 “<span class='quot5'>B대표는 다국적 제약사를 홍보하면서, 동시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협의 2중대 역할을 담당하는 해결사라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B대표는 “1년에 한번 단체의 창립기념식에 ‘후원의 밤’ 행사를 함께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의료공급자단체에서 왔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권용진 교수는 2012년부터 환자들의 의료민원 소통공간인 ‘환자 샤우팅카페’에서 몇몇 법조인 자문단과 함께 의료인 자문단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B 대표 환자단체 후원의 밤에 참석하며 지지 의사를 표시한 대한의협 간부진.자료 해당 환자단체 웹문서>◆ 사이트까지 만들어 ‘전통 한방’ 비난 <br/> <br/>B대표는 의사협회가 발행하는 한 매체에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의 피해자를 모집하겠다”면서 ‘넥시아 피해자 모집 사이트’를 개설, 단국대학교 병원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br/> <br/> <2011년간담회에서 B대표와 한 모씨의 만남 (자료:청년의사신문) >B대표는 경찰 대질신문에서 “넥시아 피해자 사례를 모집했으나 소송을 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넥시아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 모집이나 집단소송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br/> <br/>그러나 B대표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는 “충북대병원 의사인 한모씨와 B대표가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B대표의 주장과는 달랐다. <br/> <br/>이에 B대표는 "지난 6월 12일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6월 24일 1차 조사를 받았고, 7월 30일 고소인인 최원철 부총장 측 한의사 1명과 대질신문을 포함한 2차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는 모두 끝나 곧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r/> <br/>한편, B대표와 함께 집단소송을 추진하여 피소중이고 전통 한방 암치료법을 ‘사기’라고 비난해 기소된 충북대병원 의사 한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 모씨는 국립의대교수가 아닌데도 교수라며 신분을 사칭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7.txt

제목: 무한도전 엑스포, 사전예약 D-DAY…예매 어떻게?  
날짜: 20151204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4110410683  
본문: MBC '무한도전 엑스포' 예매 전쟁이 시작된다.  <br/> <br/>4일 정오부터 G마켓을 통해 무한도전 엑스포 사전예매 접수를 받는다. 관람료는 1000원이며 G마켓 이외 다른 온라인 마켓을 통한 예매나 현장 예매는 불가능하다. 하루 입장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원하는 날짜를 잘 선택해 예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암표 방지를 위해 구매는 1인(ID)당 10매로 제한되며, 희망 관람 날짜의 3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소액 결제/카드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며 구매 티켓은 발급된 날짜 및 회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br/> <br/>무한도전 엑스포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오는 19일부터 2016년 1월31일까지 열린다. 체험 시간은 1일 3회로,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br/> <br/>'무한도전 엑스포'에는 프로그램 시초인 '무모한 도전'부터 현재 '무한도전'까지 특집 중 대표 아이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로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있다. <br/> <br/>한편 무한도전 엑스포는 출연자 광희와 하하가 '무한도전'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제안해 마련됐다. 2015년 무한도전을 되돌아보는 사진전도 준비돼 있다. 이번 관람료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된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8.txt

제목: 암 검진도 스마트하게, 암 발생 전에 싹을 찾는다  
날짜: 20151204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4102045430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동석호/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5일 경희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암연구소 김철우 교수는 '스마트 암검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br/> <br/>지금까지의 암연구는 암세포에 집중해왔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특정 장기에 착상이 된 다음 1~2cm미만의 1기암으로 자라는데 7~10년이 소요되고 수많은 신체 혈액상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암의 성장과 전이는 암세포 뿐만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에는 유전자, 단백, microRNA등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주변에 적응시키는 많은 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암환자의 혈액에는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변세포들과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물질 또한 중요한 표지자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암검사는 이런 요인을 고려해 개발됐다. <br/> <br/>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암검사'는 암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해 암이 있거나 암이 진행되기 전의 위험도 측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은 발병 후에 확인 가능한데 스마트 암 검진은 발병 전에 확인 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6종류의 암(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피검사자 건강에 따라 어떤 암에 취약한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br/> <br/>또한 스마트 암검사의 기술을 활용해 만성생활습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했다. 스마트 암 종합혈액검사는 심혈관기능, 면역기능, 당뇨성향, 대사증후군, 갑상선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이상 등 8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입체적인 결과로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지, 생활습관관리가 필요한지, 혹 치료 중인 환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br/> <br/>한편 스마트 암검사(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소 MRC, 바이오인프라 공동개발)는 2011년, 2015년에 보건복지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899.txt

제목: 홍여진 "유방암 판정 후 결별, 붙잡았지만…"  
날짜: 20151203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843346  
본문:   <br/> <br/>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홍여진이 유방암 판정 후 연인과 결별한 사연을 전했다.  <br/> <br/>최근 채널A '구원의 밥상' 녹화에 출연한 홍여진은 가족도 없이 홀로 유방암과 싸운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날 홍여진은 "10년 전 40대 중반의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다. 혼자 암과 싸우느라 힘들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br/> <br/>이에 강예빈이 "남자친구는 없었느냐"고 묻자 홍여진은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다. 치료 끝날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붙잡았지만 암 환자가 부담스럽다며 떠났다"고 남자친구와 이별한 사연을 털어놨다. <br/> <br/>홍여진의 사연을 접한 오영실은 "잘 헤어졌다"고 분노하며 홍여진을 위로했다. <br/> <br/>한편 3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구원의 밥상'에서는 유방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홍여진의 건강 밥상이 소개된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0.txt

제목: 기대수명 82.4년… 여성이 男보다 6.5년 더 산다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912638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2.4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0세였던 남성은 앞으로 22.4년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br/> <br/>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79년, 여성 85.5년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0.5년, 여성은 0.4년 증가했다.  <br/> <br/>남녀를 합친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전년보다 0.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4.4년 늘어났다. <br/> <br/>지난해 40세였던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40.2년, 46.3년으로 추정됐다. 60세의 경우에는 남성 22.4년, 여성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연령별 기대여명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br/> <br/>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 높았고, 여성은 2.4년 높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이 스위스(80.7년)이며, 여성은 일본(86.6년)이었다. <br/> <br/>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28.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여성도 0.3%포인트 늘어난 16.9%였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성 9.6%, 여성 12.3%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녀 각각 9.0%, 10.7%로 3위였다. 기대수명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82.9년)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았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1.txt

제목: 암젠 코리아,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국내 승인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834393  
본문: 암젠 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 35μg(성분명: 블리나투모맙)'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 받았다고 3일 밝혔다. <br/> <br/>블린사이토의 치료 주기는 4주간의 지속적인 정맥 투여와 이후의 2주간의 휴지 기간으로 구성된다. 블린사이토는 45kg 이상인 환자에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9㎍/일 용량으로 정맥 투여하고, 8일차부터 28일차까지(1차 주기)는 28㎍/일 용량으로 투여하며, 이후 2주간의 치료 휴지 기간을 갖는 용법용량으로 승인됐다. <br/> <br/>블린사이토 치료는 이 약을 유도요법으로 최대 2회주기 투여한 후 공고요법으로 추가적인 3회 주기를 투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br/> <br/>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혈액암으로,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재발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는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3-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는 성인 환자는 약 210-23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이중특이성 CD19 항체와 CD3 T 세포 항체가 연결된 형태 (BITE®, BISPECIFIC CD19-DIRECTED CD3 T-CELL ENGAGER)로, B-계통에 기반된 세포의 표면에 발현된 CD19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된 CD3 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또한 블린사이토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종양 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인, 바이트(BITE®)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치료제다. <br/> <br/>암젠 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암젠 코리아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의약품인 블린사이토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고통 받았던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 블린사이토가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블린사이토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또한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로 조건부 시판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2.txt

제목: 기대수명 82.4년… 여성이 男보다 6.5년 더 산다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90450965  
본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평균 82.4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0세였던 남성은 앞으로 22.4년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br/> <br/>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79년, 여성 85.5년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0.5년, 여성은 0.4년 증가했다.  <br/> <br/>남녀를 합친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전년보다 0.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4.4년 늘어났다. <br/> <br/>지난해 40세였던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40.2년, 46.3년으로 추정됐다. 60세의 경우에는 남성 22.4년, 여성 2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연령별 기대여명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br/> <br/>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 높았고, 여성은 2.4년 높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남성이 스위스(80.7년)이며, 여성은 일본(86.6년)이었다. <br/> <br/>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28.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여성도 0.3%포인트 늘어난 16.9%였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성 9.6%, 여성 12.3%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녀 각각 9.0%, 10.7%로 3위였다. 기대수명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82.9년)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았다. <br/> <br/>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3.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여성암환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731260  
본문:   <br/> <br/> <br/>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올 한해 심리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여성암환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일반적으로 암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진료비용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시기에 자칫 제대로 된 내적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투병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br/> <br/>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후원으로 암 완치자(멘토)와 암 투병 중인 환자(멘티)의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심리 및 정서적 독려를 이끌어내 암환자의 투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br/> <br/>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미술?음악?원예 요법 등의 다양한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부산으로 멘토 ? 멘티, 동부병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스트레스 극복 여행인 '힐링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 <br/> <br/>동부병원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질병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멘토는 암치료에 대한 선경험을 바탕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멘티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와 확인된 정보를 제공해 질병 극복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더불어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많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4.txt

제목: '내부자들' 400만 돌파… "흥행은 팩트입니다"  
날짜: 2015120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727303  
본문: 웰-메이드 범죄 액션드라마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개봉 14일 만에 관객 400만 고지를 밟았다. 이는 역대 청불(청소년관람불가) 영화 흥행작인 '아저씨' '킹스맨'보다 10일 이상 빠른 속도여서 눈길을 끈다. <br/> <br/>3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2일 누적 관객 수 401만9485명을 기록해 11월 개봉 한국영화 중 최단기간 400만명을 돌파했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지난 달 19일 개봉 이후 단 한 번도 박스오피스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오랜만에 볼 만한 정치범죄 영화가 나왔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br/> <br/>이 같은 속도라면 금주 내 역대 청불 영화 흥행 1,2위인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472만50명)와 '신세계'(468만2492명)의 기록도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내부자들' 400만 돌파 소식에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등 영화의 주축이 된 세 배우들의 감사인사 영상도 공개됐다. <br/> <br/>이 영상에서 이병헌은 "저희들도 참 좋은 경험이었고 작업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다"며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린다. 저희들도 계속 화이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조승우는 "여러분들 덕분에 '내부자들'이 더 의미 있고 멋진 영화가 됐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고, 백윤식은 "여러분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흥행한 것 같다. 여러분 관심 덕분"이라며 극 중 대사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흥행은 팩트입니다"라는 재치 넘치는 멘트를 덧붙였다. <br/> <br/>'내부자들'이 청불 영화 흥행신화를 어디까지 써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5.txt

제목: ‘아야’ 소리 없는 ‘소장’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날짜: 201512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748306  
본문:   <br/> <br/> <br/>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지난 해 귀국한 사업가 최중호 씨 (68세, 남). 최근 잦은 복통과 구토 에 고통받고 있다. 체중은 지난 여름보다 5kg 이상 빠졌다. 위장병으로 의심해 동네 병원을 찾아 위 내시경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br/> <br/>위장장애뿐 아니라 등에서 목 뒤까지 뻣뻣한 증세가 최근에 나타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명현상도 예전에는 없던 증세다. 최 씨는 “<span class='quot0'>나이 때문인지 환경이 탓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날로 서구화되는 한국인 식습관, 소장암에 취약해 <br/>  <br/>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이르는 길고 구불구불한 기관으로 펼쳤을 때 길이가 평균 6m에 달한다. 입,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 내시경으로는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다.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다. 소장암에는 출혈, 장천공, 식욕부진을 동반한 체중감소 등이 동반된다. 하지만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퍼진 뒤이며, 소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소장질환의 원인에는 크게 가족력적과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력에 소장 관련 질환이 있다면, 소장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br/>  <br/>가족 중 용종증, 크론병, 셀리악병, 포이츠-에거스증후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신경섬유종증,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나타난 바 있다면 소장 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br/>  <br/>외적 요인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다. 육류 및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 등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할 때 발생 비율도 높아진다. 서구권이 소장암 발생비율이 높은 것도 생활습관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br/>  <br/>문제는 날로 서구권과 유사한 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습관 변화다. 지난 12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에 따르면 성인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고, 5명 중 1명은 복부비만이다.  <br/>  <br/>소화기센터 박재석 센터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span class='quot1'>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권과 비슷해지면서 비만과 대사성질환 등 서구형 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span>” 며 “<span class='quot1'>소장암은 소화기 암의 2% 내로 발생비율은 낮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과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 소장 검사하는 캡슐내시경·이중풍선내시경, 일반 병원에는 없어 <br/>  <br/>소장질환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데, 감각이 퇴화된 성인의 신경은 소장에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뒷목의 뻣뻣함, 등통증, 이명 등을 호소하는데 원인은 후복강으로 궤양이 침범했기 때문일 수 있다.  <br/> <br/>유암종이 발생했을 때는 신경 내 분비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얼굴과 가슴에 홍조가 생기거나 설사, 기관지 천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출혈이 시작되면 빈혈이 뒤따를 수 있다. 이처럼 막상 증세가 나타나도 일반인들이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뜻밖의 증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br/>  <br/>소장질환 진단은 복부촬영이나 영상의학진단기법 등이 동원된다. 앞선 사례자와 같이 위장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소장의 위치가 내시경이 삽입되는 입이나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장 진단에는 CT 촬영이 선행된다.   <br/> <br/>그러나 CT로 해결이 안될 경우 캡슐내시경이나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캡슐을 삼켜 장 운동에 따라 이동하는 내시경이 소장 상태를 촬영하도록 하는 캡슐내시경 기법은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통증도 없다.  <br/> <br/>또한 검사자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등의 불편함도 뒤따르지 않아 매우 유용하다. 소장 검사에 특화된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특수풍선이 장착된 내시경을 소장에 삽입해 전체 소장을 관찰하는 검사 기법이다. <br/>  <br/>캡슐내시경과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 질환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장 질환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고, 검사 결과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워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특히 검사 기법이 고난이도에 속하는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소화기센터 박재석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질환 발생을 염두에 둔 사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6.txt

제목: 홍여진 "유방암 판정 후 결별, 붙잡았지만…"  
날짜: 20151203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63323788  
본문:   <br/> <br/>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홍여진이 유방암 판정 후 연인과 결별한 사연을 전했다.  <br/> <br/>최근 채널A '구원의 밥상' 녹화에 출연한 홍여진은 가족도 없이 홀로 유방암과 싸운 사연을 공개했다. <br/> <br/>이날 홍여진은 "10년 전 40대 중반의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다. 혼자 암과 싸우느라 힘들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br/> <br/>이에 강예빈이 "남자친구는 없었느냐"고 묻자 홍여진은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다. 치료 끝날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붙잡았지만 암 환자가 부담스럽다며 떠났다"고 남자친구와 이별한 사연을 털어놨다. <br/> <br/>홍여진의 사연을 접한 오영실은 "잘 헤어졌다"고 분노하며 홍여진을 위로했다. <br/> <br/>한편 3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구원의 밥상'에서는 유방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홍여진의 건강 밥상이 소개된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7.txt

제목: 암젠 코리아,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국내 승인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55004564  
본문: 암젠 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 35μg(성분명: 블리나투모맙)'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 받았다고 3일 밝혔다. <br/> <br/>블린사이토의 치료 주기는 4주간의 지속적인 정맥 투여와 이후의 2주간의 휴지 기간으로 구성된다. 블린사이토는 45kg 이상인 환자에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9㎍/일 용량으로 정맥 투여하고, 8일차부터 28일차까지(1차 주기)는 28㎍/일 용량으로 투여하며, 이후 2주간의 치료 휴지 기간을 갖는 용법용량으로 승인됐다. <br/> <br/>블린사이토 치료는 이 약을 유도요법으로 최대 2회주기 투여한 후 공고요법으로 추가적인 3회 주기를 투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br/> <br/>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혈액암으로,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재발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는 생존기간의 중앙값이 3-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국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는 성인 환자는 약 210-23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블린사이토는 이중특이성 CD19 항체와 CD3 T 세포 항체가 연결된 형태 (BITE®, BISPECIFIC CD19-DIRECTED CD3 T-CELL ENGAGER)로, B-계통에 기반된 세포의 표면에 발현된 CD19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된 CD3 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또한 블린사이토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종양 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인, 바이트(BITE®)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치료제다. <br/> <br/>암젠 코리아 노상경 대표는 "암젠 코리아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의약품인 블린사이토를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고통 받았던 많은 국내 환자들에게 블린사이토가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한편 블린사이토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또한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로 조건부 시판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8.txt

제목: ‘아야’ 소리 없는 ‘소장’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날짜: 20151203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22318276  
본문:   <br/> <br/> <br/>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지난 해 귀국한 사업가 최중호 씨 (68세, 남). 최근 잦은 복통과 구토 에 고통받고 있다. 체중은 지난 여름보다 5kg 이상 빠졌다. 위장병으로 의심해 동네 병원을 찾아 위 내시경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br/> <br/>위장장애뿐 아니라 등에서 목 뒤까지 뻣뻣한 증세가 최근에 나타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명현상도 예전에는 없던 증세다. 최 씨는 “<span class='quot0'>나이 때문인지 환경이 탓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원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날로 서구화되는 한국인 식습관, 소장암에 취약해 <br/>  <br/>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이르는 길고 구불구불한 기관으로 펼쳤을 때 길이가 평균 6m에 달한다. 입,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 내시경으로는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다.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다. 소장암에는 출혈, 장천공, 식욕부진을 동반한 체중감소 등이 동반된다. 하지만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퍼진 뒤이며, 소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소장질환의 원인에는 크게 가족력적과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가족력에 소장 관련 질환이 있다면, 소장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br/>  <br/>가족 중 용종증, 크론병, 셀리악병, 포이츠-에거스증후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신경섬유종증,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나타난 바 있다면 소장 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br/>  <br/>외적 요인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다. 육류 및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 등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할 때 발생 비율도 높아진다. 서구권이 소장암 발생비율이 높은 것도 생활습관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br/>  <br/>문제는 날로 서구권과 유사한 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인의 생활습관 변화다. 지난 12일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에 따르면 성인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고, 5명 중 1명은 복부비만이다.  <br/>  <br/>소화기센터 박재석 센터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span class='quot1'>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권과 비슷해지면서 비만과 대사성질환 등 서구형 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span>” 며 “<span class='quot1'>소장암은 소화기 암의 2% 내로 발생비율은 낮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과 검사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소장 검사하는 캡슐내시경·이중풍선내시경, 일반 병원에는 없어 <br/>  <br/>소장질환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데, 감각이 퇴화된 성인의 신경은 소장에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뒷목의 뻣뻣함, 등통증, 이명 등을 호소하는데 원인은 후복강으로 궤양이 침범했기 때문일 수 있다.  <br/> <br/>유암종이 발생했을 때는 신경 내 분비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얼굴과 가슴에 홍조가 생기거나 설사, 기관지 천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출혈이 시작되면 빈혈이 뒤따를 수 있다. 이처럼 막상 증세가 나타나도 일반인들이 쉽게 감지하기 어려운 뜻밖의 증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br/>  <br/>소장질환 진단은 복부촬영이나 영상의학진단기법 등이 동원된다. 앞선 사례자와 같이 위장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소장의 위치가 내시경이 삽입되는 입이나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장 진단에는 CT 촬영이 선행된다.   <br/> <br/>그러나 CT로 해결이 안될 경우 캡슐내시경이나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캡슐을 삼켜 장 운동에 따라 이동하는 내시경이 소장 상태를 촬영하도록 하는 캡슐내시경 기법은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통증도 없다.  <br/> <br/>또한 검사자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등의 불편함도 뒤따르지 않아 매우 유용하다. 소장 검사에 특화된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특수풍선이 장착된 내시경을 소장에 삽입해 전체 소장을 관찰하는 검사 기법이다. <br/>  <br/>캡슐내시경과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 질환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장 질환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고, 검사 결과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워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 장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 <br/>특히 검사 기법이 고난이도에 속하는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일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소화기센터 박재석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질환 발생을 염두에 둔 사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09.txt

제목: 서울시동부병원, 여성암환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날짜: 2015120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05222014  
본문:   <br/> <br/> <br/>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올 한해 심리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여성암환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br/> <br/>일반적으로 암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진료비용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 시기에 자칫 제대로 된 내적 지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투병의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br/> <br/>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은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의 후원으로 암 완치자(멘토)와 암 투병 중인 환자(멘티)의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심리 및 정서적 독려를 이끌어내 암환자의 투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br/> <br/>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미술?음악?원예 요법 등의 다양한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부산으로 멘토 ? 멘티, 동부병원 사회복지사가 함께 스트레스 극복 여행인 '힐링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 <br/> <br/>동부병원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질병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멘토는 암치료에 대한 선경험을 바탕으로 힘겹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멘티에게 심리?정서적 지지와 확인된 정보를 제공해 질병 극복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더불어 "앞으로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많은 암투병 환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0.txt

제목: '내부자들' 400만 돌파… "흥행은 팩트입니다"  
날짜: 20151203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3103647651  
본문: 웰-메이드 범죄 액션드라마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개봉 14일 만에 관객 400만 고지를 밟았다. 이는 역대 청불(청소년관람불가) 영화 흥행작인 '아저씨' '킹스맨'보다 10일 이상 빠른 속도여서 눈길을 끈다. <br/> <br/>3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2일 누적 관객 수 401만9485명을 기록해 11월 개봉 한국영화 중 최단기간 400만명을 돌파했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지난 달 19일 개봉 이후 단 한 번도 박스오피스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오랜만에 볼 만한 정치범죄 영화가 나왔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br/> <br/>이 같은 속도라면 금주 내 역대 청불 영화 흥행 1,2위인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472만50명)와 '신세계'(468만2492명)의 기록도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 <br/>'내부자들' 400만 돌파 소식에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등 영화의 주축이 된 세 배우들의 감사인사 영상도 공개됐다. <br/> <br/>이 영상에서 이병헌은 "저희들도 참 좋은 경험이었고 작업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다"며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린다. 저희들도 계속 화이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조승우는 "여러분들 덕분에 '내부자들'이 더 의미 있고 멋진 영화가 됐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고, 백윤식은 "여러분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흥행한 것 같다. 여러분 관심 덕분"이라며 극 중 대사를 이용한 "'내부자들'의 흥행은 팩트입니다"라는 재치 넘치는 멘트를 덧붙였다. <br/> <br/>'내부자들'이 청불 영화 흥행신화를 어디까지 써 내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1.txt

제목: [당신의 삶 안녕하십니까] 식사도 제때 못하고… '손주농사'에 할마들 골병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559308  
본문: ' ‘자식 농사 끝, 자식의 자식 농사 시작.’ <br/> <br/>지난 여름 전파를 탄 한 건설회사의 TV광고 카피다. 이 광고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결혼식장에서 웃으며 손뼉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해, 보채는 손자를 등에 업은 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거나 여름철 손자에게 부채질하는 ‘할마’(할머니와 엄마를 결합한 신조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식 농사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조부모들이 손주 농사까지 떠안는 ‘황혼 육아’란 시대상을 반영한 광고였다. ◆황혼 육아로 골병드는 친정, 시댁 부모 <br/> <br/>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68·여)씨는 퇴행성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맞벌이에 나선 딸 대신 두 살배기 손녀를 돌보느라 관절염이 악화됐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손녀를 보면 피로가 가시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처음에는 손녀를 돌보는 것에 손사래를 쳤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하지만 딸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해 어쩔 수 없이 손녀를 돌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3년 전 맞벌이 부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만 0∼5세 영·유아를 둔 25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중 맞벌이 가구는 37.1%였으며 조부모가 양육을 돕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만 0∼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경우 각각 54.5%, 44.9%였다. 당시 맞벌이 가구를 포함해 1133가구(45.0%)가 “혈연으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br/> <br/> 보모가 된 조부모들은 황혼기에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쉬지도 못하는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60세 이상 여성은 평균 1.34명의 손주를 하루 8.86시간, 일주일에 5.33일 돌봤다.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47.2시간을 돌보미로 일한 셈이다. <br/> <br/>노년기에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골병이 드는, 일명 ‘손주병’을 앓는 조부모들도 적지 않다. 손주병은 국립국어원이 2012년 꼽은 신조어로, 조부모가 맞벌이하는 자녀 대신에 손주를 돌봐주다 생기는 질병을 뜻한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 허리 디스크와 손목 통증, 대사증후군, 불면증이 대표적이다. <br/> <br/>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혈당 상승, 혈압 상승, HDL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상승 등 5가지 만성질환 가운데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때 식사하지 않거나 달거나 짠 음식, 고기를 선호하게 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br/> <br/>     <br/> <br/>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베이비페어’에서 조부모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 ◆손주 맡았다면 체력에 맞게 돌봐야 <br/>황혼 육아가 오히려 조부모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br/> <br/>이은주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는 “<span class='quot1'>최근 황혼 육아가 조부모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손주 덕분에 담배를 끊거나 활동량이 많아져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외로움이나 우울증도 덜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진은 손주를 돌보는 50세 이상 유럽인 수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 8월 황혼 육아가 우울증 억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부모들이 각자의 체력에 걸맞게 손주들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갖는 노력을 할 때 얘기다.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2'>‘손주를 안아 주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운동을 못해 혈당수치가 높아졌다’는 식의 말을 고령 환자들에게 심심찮게 듣는다</span>”며 “<span class='quot2'>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저당·저염·채소 위주의 식습관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조부모들의 손주 돌보기 현상은 개별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문제이자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복지 부실의 문제이다. <br/> <br/>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span class='quot3'>영아 보육시설이 많지 않고 영아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만 0∼2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 내실화로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시설 평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하지만 정부의 보육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고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되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br/> <br/>또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택 방문 형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였다.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체가 축소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매년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br/> <br/>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 명예교수도 “<span class='quot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4'>정부는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2.txt

제목: 선병원, 몽골 국립 3병원 임직원 대상 서비스교육·견학 실시  
날짜: 2015120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536555  
본문:   <br/> <br/> <br/>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은 2일 몽골 국립 3병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서비스 교육 및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r/> <br/>이날 프로그램은 몽골 국립 3병원 간호사 및 행정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은 대전선병원 대강당에서 친절 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절과 전화 응대, 표정 연습 등 병원 서비스 교육에 참여했으며, 교육 후에는 선병원 이승구 국제의료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했다. <br/> <br/>또한 선병원재단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선치과병원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현존 최신의 첨단 암치료 장비인 래피드아크를 비롯한 PET-CT, MRI, 256Ch CT, 자동 유방 초음파 스캐너 등 장비와 1일 보철치료가 가능한 캐드캠(CAD/CAM) 디지털 시스템 등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견학했다. <br/> <br/>몽골 국립 3병원 동가마 간호부장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몽골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br/> <br/>선병원 이규은 경영총괄원장은 "선병원만의 차별화된 경영혁신을 토대로 향후 몽골 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림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이번 방문은 대전시가 주최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인 'K-FARM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선병원은 2012년부터 3년간 '한-몽골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돼 몽골 의료진 대상 척추·관절, 심장, 암분야 의료기술 연수와 지원부서 대상 행정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3.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인천 최초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도입  
날짜: 2015120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432993  
본문: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병실 내부>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이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br/> <br/> 이 제도는 요양 보호사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완화의료 도우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1일 3교대로 24시간 말기암 환자에게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하루 평균 7~8만원(24시간 기준)이었던 말기암 환자 간병비의 환자부담금이 하루 4,000원으로 줄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됐다. <br/> <br/>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완화의료 도우미가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와 함께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간병인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7곳(11월 30일 기준)에 불과하다. <br/> <br/>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 대학병원으로써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병원이 되었다. <br/> <br/>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가톨릭 이념으로 말기암 환자들의 남은 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특히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인 요구까지 제공하는 총체적인 돌봄으로 환자와 사별을 준비하는 가족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등의 시설과 대학병원으로는 가장 많은 33개의 병상을 갖췄다. <br/> <br/> 국제성모병원 원목실 차장 김현석 야곱 신부는, “<span class='quot0'>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질 높은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4.txt

제목: [당신의 삶 안녕하십니까] 식사도 제때 못하고… '손주농사'에 할마들 골병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2191255242  
본문: ' ‘자식 농사 끝, 자식의 자식 농사 시작.’ <br/> <br/>지난 여름 전파를 탄 한 건설회사의 TV광고 카피다. 이 광고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이 결혼식장에서 웃으며 손뼉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해, 보채는 손자를 등에 업은 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거나 여름철 손자에게 부채질하는 ‘할마’(할머니와 엄마를 결합한 신조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식 농사를 끝낸 지 얼마 안 된 조부모들이 손주 농사까지 떠안는 ‘황혼 육아’란 시대상을 반영한 광고였다. ◆황혼 육아로 골병드는 친정, 시댁 부모 <br/> <br/>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68·여)씨는 퇴행성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맞벌이에 나선 딸 대신 두 살배기 손녀를 돌보느라 관절염이 악화됐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손녀를 보면 피로가 가시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 처음에는 손녀를 돌보는 것에 손사래를 쳤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하지만 딸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해 어쩔 수 없이 손녀를 돌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3년 전 맞벌이 부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만 0∼5세 영·유아를 둔 25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중 맞벌이 가구는 37.1%였으며 조부모가 양육을 돕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만 0∼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경우 각각 54.5%, 44.9%였다. 당시 맞벌이 가구를 포함해 1133가구(45.0%)가 “혈연으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br/> 보모가 된 조부모들은 황혼기에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쉬지도 못하는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60세 이상 여성은 평균 1.34명의 손주를 하루 8.86시간, 일주일에 5.33일 돌봤다.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47.2시간을 돌보미로 일한 셈이다. <br/> <br/>노년기에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골병이 드는, 일명 ‘손주병’을 앓는 조부모들도 적지 않다. 손주병은 국립국어원이 2012년 꼽은 신조어로, 조부모가 맞벌이하는 자녀 대신에 손주를 돌봐주다 생기는 질병을 뜻한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 허리 디스크와 손목 통증, 대사증후군, 불면증이 대표적이다. <br/> <br/>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과 혈당 상승, 혈압 상승, HDL콜레스테롤 저하, 중성지방 상승 등 5가지 만성질환 가운데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때 식사하지 않거나 달거나 짠 음식, 고기를 선호하게 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br/>   <br/>  <br/>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베이비페어’에서 조부모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 ◆손주 맡았다면 체력에 맞게 돌봐야 <br/>황혼 육아가 오히려 조부모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br/> <br/>이은주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는 “<span class='quot1'>최근 황혼 육아가 조부모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손주 덕분에 담배를 끊거나 활동량이 많아져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외로움이나 우울증도 덜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실제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진은 손주를 돌보는 50세 이상 유럽인 수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 8월 황혼 육아가 우울증 억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부모들이 각자의 체력에 걸맞게 손주들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갖는 노력을 할 때 얘기다.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2'>‘손주를 안아 주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운동을 못해 혈당수치가 높아졌다’는 식의 말을 고령 환자들에게 심심찮게 듣는다</span>”며 “<span class='quot2'>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저당·저염·채소 위주의 식습관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조부모들의 손주 돌보기 현상은 개별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문제이자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복지 부실의 문제이다. <br/> <br/>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span class='quot3'>영아 보육시설이 많지 않고 영아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만 0∼2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 내실화로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시설 평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하지만 정부의 보육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고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되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br/> <br/>또 정부는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택 방문 형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였다. 내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자체가 축소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매년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br/> <br/>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 명예교수도 “<span class='quot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4'>정부는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5.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인천 최초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도입  
날짜: 20151202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2152212221  
본문: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병실 내부>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이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br/> <br/>이 제도는 요양 보호사가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완화의료 도우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1일 3교대로 24시간 말기암 환자에게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하루 평균 7~8만원(24시간 기준)이었던 말기암 환자 간병비의 환자부담금이 하루 4,000원으로 줄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감소됐다. <br/> <br/>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40시간 교육을 이수한 완화의료 도우미가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와 함께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간병인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7곳(11월 30일 기준)에 불과하다. <br/> <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작함과 동시에 국내 대학병원으로써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병원이 되었다. <br/> <br/>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가톨릭 이념으로 말기암 환자들의 남은 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 <br/>특히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더 나아가 영적인 요구까지 제공하는 총체적인 돌봄으로 환자와 사별을 준비하는 가족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등의 시설과 대학병원으로는 가장 많은 33개의 병상을 갖췄다. <br/> <br/>국제성모병원 원목실 차장 김현석 야곱 신부는, “<span class='quot0'>이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질 높은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6.txt

제목: 노바티스, 국가 암 연구 사업에 약물 지원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248518  
본문: 노바티스는 국가 암 연구사업으로 선정된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유전자 지형 기반의 한국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를 위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에 노바티스 약물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 분과의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이 2015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로 선정된 바 있다. <br/> <br/>노바티스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개발?임상?시판 단계에 있는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을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에 지원하게 된다. <br/> <br/>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약물은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의 1세부연구로 추진되는 ‘우산형 임상시험(umbrella trial)’에 사용될 예정이다. <br/> <br/>'우산형 임상시험'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확보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표적치료를 제공하는 다기관 임상프로그램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종양표지자(biomarker)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제공해 표적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br/> <br/>개발단계에 있는 약물부터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이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된다. 시판 중인 ALK 억제제 세리티닙(ceritinib, 상품명: 자이카디아, Zykadia), BRAF억제제 다브라페닙(dabrafenib, 상품명: 타핀라, Tafinlar), MEK 억제제 트라메티닙(trametinib, 상품명: 멕키니스트, Mekinist) 외에도 임상단계에 있는 EGFR 억제제 EGF816(임상단계), C-Met 억제제 INC280(임상단계), 면역항암제 PDR001(임상단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br/> <br/>연구 총괄 및 1세부연구 책임자인 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의 유전자 맞춤치료는 현재 폐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형 폐암 맞춤치료 지침의 임상근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임상에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가천대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 공동 참여한다. <br/> <br/>폐암 표적치료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수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에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다. <br/> <br/>마가렛 듀건(Margaret Dugan) 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은 "노바티스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표적치료제에 대한 전문성과 긴밀한 의료계 파트너십을 통해 항암제 연구개발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암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7.txt

제목: 항암 약물치료 부작용, 환자 알고 싶은 만큼 의사는 말 안해준다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125834  
본문: 서울대학교암병원 신동욱 교수(좌측)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암환자와 가족은 암전문의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2012년 국내 13개 의료기관의 암환자와 가족 725쌍, 암전문의 134명을 대상으로 ‘의사가 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어느 수준까지 환자에게 알리는 게 좋을지’를 각각 물었다. <br/> <br/> 그 결과, 환자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3.7%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7%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 환자들은 증상조절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2.1%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6.3%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 환자의 가족들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치료약물(77.5%, 81% / 경미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과 증상조절약물(75.9%, 81.5%) 모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 하지만 암전문의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23.9%만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고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도 이 비율은 70.2%에 그쳤다. 증상조절약물도 이 비율은 각각 20.2%와 60.5%로 나타나, 환자와 가족에 비해 매우 낮았다. <br/> <br/>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방법에서도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환자와 가족은 “1000명 중 10명”과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알리는 것을 가장 선호했지만 암전문의는 “있을 수 있다”처럼 가능성 정도만 알리는 것을 가장 원했다. <br/> <br/> 또 환자(41.8%)와 가족(48%)에 비해 암전문의(73.1%)는 책자, 영상 등 교육 자료를 통해 알리는 것을 크게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설명간호사를 통해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51.3%)와 가족(52.6%)은 암전문의(85.1%)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br/> <br/> 신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와 가족이 교육 자료나 설명간호사의 설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사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span>” 이라고 말했다.  <br/> <br/> 신 교수는 “<span class='quot1'>단 이러한 결과가 의사가 모든 부작용을 기계적으로 자세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span>” 며 “<span class='quot1'>이번 연구에서도 암전문의 39%만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지만, 대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 설명에 만족했다고 답했다</span>” 고 말했다. <br/> <br/> 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 치료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 주체 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환자와 가족이 적정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작용 설명을 위한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포괄적인 암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해 각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br/> <br/> 이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정신 종양학(psycho-oncology)誌’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8.txt

제목: 유방암 진단 후 수술대기 기간, 암 재발이나 생존율과 무관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109363  
본문: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외과 한원식 교수유방암 진단 후 수술대기 기간이 암 재발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 외과 한원식 교수, 유태경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 <br/> <br/> 연구팀은 05년 7월부터 0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1,702명을 평균 5.9년 동안 관찰했다. <br/> <br/> 연구팀은 수술대기 기간을 15일, 30일, 45일, 60일로 나눈 후 각 구간별 환자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분석했다. <br/> <br/> 수술대기 기간은 조직검사 후 유방암 확진 날짜로부터 수술 날짜까지의 기간이며, 무병생존율은 암세포의 재발 없이 생존해 있는 비율이다. <br/> <br/> 그 결과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9%, 5년 무병생존률은 91.3%였고, 각 구간별로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단 대기 시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진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br/> <br/> 환자의 나이와 암 세포의 병기, 악성도를 고려하더라도 수술대기 기간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컨대 같은 유방암 2기 50세 환자라면 수술대기가 15일이 됐던, 45일이 됐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br/> <br/> 유방암은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서, 진단 시,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병기와 각종 검사 등으로, 진단 후 1~2달이 되서야 수술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의학적인 문제를 동반하거나, 성형외과 협진으로 유방동시재건술을 계획하는 경우, 수술이 더 지연될 수 있다. <br/> <br/>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연된다. 수술대기 기간 동안 암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br/> <br/> 이번 연구 결과는 유방암의 특성상 암의 성장과 전이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한계 시간이 지나면 암이 진행되고 환자의 생존에 영향이 있겠지만 2개월 정도의 시간 이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한원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선입견을 뒤집는 결과로, 정확한 확진 날짜 및 재발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로 의료진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병기 결정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며, 유방암 환자들도 안심하고 수술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크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19.txt

제목: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2125383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홈페이지가 2015년 최우수 유무선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제12회 웹어워드 코리아' 종합의료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br/> <br/>올해 4월 개편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특히 부서별로 구축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를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였다. <br/> <br/>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br/> <br/>특히 올해 3월 인터라인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웹페이지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암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0.txt

제목: 노바티스, 국가 암 연구 사업에 약물 지원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81928016  
본문: 노바티스는 국가 암 연구사업으로 선정된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유전자 지형 기반의 한국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를 위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에 노바티스 약물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br/> <br/>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 분과의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이 2015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로 선정된 바 있다. <br/> <br/>노바티스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개발?임상?시판 단계에 있는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을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에 지원하게 된다. <br/> <br/>노바티스가 지원하는 약물은 '한국인 폐암환자의 종양 유전체 지형 기반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 최적화 임상연구'의 1세부연구로 추진되는 ‘우산형 임상시험(umbrella trial)’에 사용될 예정이다. <br/> <br/>'우산형 임상시험'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확보한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표적치료를 제공하는 다기관 임상프로그램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종양표지자(biomarker)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표적치료제를 제공해 표적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br/> <br/>개발단계에 있는 약물부터 노바티스의 다양한 약물이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된다. 시판 중인 ALK 억제제 세리티닙(ceritinib, 상품명: 자이카디아, Zykadia), BRAF억제제 다브라페닙(dabrafenib, 상품명: 타핀라, Tafinlar), MEK 억제제 트라메티닙(trametinib, 상품명: 멕키니스트, Mekinist) 외에도 임상단계에 있는 EGFR 억제제 EGF816(임상단계), C-Met 억제제 INC280(임상단계), 면역항암제 PDR001(임상단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br/> <br/>연구 총괄 및 1세부연구 책임자인 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비소세포폐암의 유전자 맞춤치료는 현재 폐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한국형 폐암 맞춤치료 지침의 임상근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번 임상에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가천대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가나다순)이 공동 참여한다. <br/> <br/>폐암 표적치료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유수 의료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에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다. <br/> <br/>마가렛 듀건(Margaret Dugan) 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은 "노바티스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표적치료제에 대한 전문성과 긴밀한 의료계 파트너십을 통해 항암제 연구개발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암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1.txt

제목: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날짜: 2015120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05342847  
본문:   <br/> <br/> <br/>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홈페이지가 2015년 최우수 유무선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제12회 웹어워드 코리아' 종합의료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br/> <br/>올해 4월 개편한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는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br/> <br/>특히 부서별로 구축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메뉴를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방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였다. <br/> <br/>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br/> <br/>특히 올해 3월 인터라인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 웹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웹페이지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br/> <br/>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암과 관련한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속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 <br/>한편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 중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2.txt

제목: 항암 약물치료 부작용, 환자 알고 싶은 만큼 의사는 말 안해준다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05340492  
본문: 서울대학교암병원 신동욱 교수(좌측)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암환자와 가족은 암전문의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2012년 국내 13개 의료기관의 암환자와 가족 725쌍, 암전문의 134명을 대상으로 ‘의사가 암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을 어느 수준까지 환자에게 알리는 게 좋을지’를 각각 물었다. <br/> <br/>그 결과, 환자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3.7%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7%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환자들은 증상조절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82.1%가,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 86.3%가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환자의 가족들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치료약물(77.5%, 81% / 경미한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과 증상조절약물(75.9%, 81.5%) 모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br/> <br/>하지만 암전문의들은 치료약물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23.9%만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답했고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도 이 비율은 70.2%에 그쳤다. 증상조절약물도 이 비율은 각각 20.2%와 60.5%로 나타나, 환자와 가족에 비해 매우 낮았다. <br/> <br/>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방법에서도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환자와 가족은 “1000명 중 10명”과 같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알리는 것을 가장 선호했지만 암전문의는 “있을 수 있다”처럼 가능성 정도만 알리는 것을 가장 원했다. <br/> <br/>또 환자(41.8%)와 가족(48%)에 비해 암전문의(73.1%)는 책자, 영상 등 교육 자료를 통해 알리는 것을 크게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설명간호사를 통해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51.3%)와 가족(52.6%)은 암전문의(85.1%)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br/> <br/>신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와 가족이 교육 자료나 설명간호사의 설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사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span>” 이라고 말했다.  <br/> <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1'>단 이러한 결과가 의사가 모든 부작용을 기계적으로 자세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span>” 며 “<span class='quot1'>이번 연구에서도 암전문의 39%만이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지만, 대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 설명에 만족했다고 답했다</span>” 고 말했다. <br/> <br/>박종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 치료 약물 부작용을 알리는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 주체 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며 “환자와 가족이 적정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작용 설명을 위한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포괄적인 암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해 각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br/> <br/>이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정신 종양학(psycho-oncology)誌’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3.txt

제목: 유방암 진단 후 수술대기 기간, 암 재발이나 생존율과 무관  
날짜: 20151201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201101319170  
본문: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외과 한원식 교수유방암 진단 후 수술대기 기간이 암 재발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 외과 한원식 교수, 유태경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05년 7월부터 0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1,702명을 평균 5.9년 동안 관찰했다. <br/> <br/>연구팀은 수술대기 기간을 15일, 30일, 45일, 60일로 나눈 후 각 구간별 환자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을 분석했다. <br/> <br/>수술대기 기간은 조직검사 후 유방암 확진 날짜로부터 수술 날짜까지의 기간이며, 무병생존율은 암세포의 재발 없이 생존해 있는 비율이다. <br/> <br/>그 결과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5.9%, 5년 무병생존률은 91.3%였고, 각 구간별로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단 대기 시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진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br/> <br/>환자의 나이와 암 세포의 병기, 악성도를 고려하더라도 수술대기 기간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컨대 같은 유방암 2기 50세 환자라면 수술대기가 15일이 됐던, 45일이 됐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차이가 없었다.   <br/> <br/>유방암은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서, 진단 시,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병기와 각종 검사 등으로, 진단 후 1~2달이 되서야 수술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의학적인 문제를 동반하거나, 성형외과 협진으로 유방동시재건술을 계획하는 경우, 수술이 더 지연될 수 있다. <br/> <br/>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연된다. 수술대기 기간 동안 암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유방암의 특성상 암의 성장과 전이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한계 시간이 지나면 암이 진행되고 환자의 생존에 영향이 있겠지만 2개월 정도의 시간 이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한원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선입견을 뒤집는 결과로, 정확한 확진 날짜 및 재발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로 의료진이 좀 더 시간을 갖고 병기 결정과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수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며, 유방암 환자들도 안심하고 수술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크다” 고 말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4.txt

제목: 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운동 통한 암환자 건강관리 모색  
날짜: 201511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923217  
본문:   <br/> <br/> <br/>"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20%이상 향상됐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이차암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br/> <br/>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제 13회 국민건강나눔포럼은 '운동을 통한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 박준동 부소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 △'암 치료 여정에 따른 암 경험자의 건강문제' 송윤미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암 경험자의 2차 암 예방과 신체활동 증진 국내외 관련 근거와 현황' 임민경 교수(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2부 △'운동과 체력이 암 치료와 생존에 미치는 효과' 김연수 교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암 종별 운동적용 방법 및 운동중재' 송욱 교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발제로 진행됐다. <br/> <br/>첫 번째 발제자 송윤미 교수는 암 경험자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초기 및 후기 합병증, 이차암, 정신사회적 문제, 만성질환, 암과 무관한 급성질환 등을 겪을 가능성이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암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암이 발병하는 이차암의 경우, 유방암 경험자에게서는 반대 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2.4배 높고 대장암 경험자는 1년 후 다른 부위에서 대장암이 발병할 확률이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r/> <br/>때문에 송 교수는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암경험자의 경우 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 사망할 수 있는 만큼 원발암과 이차암 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운동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br/> <br/>1부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민경 교수는 1993년에서 2012년 사이 국내 암 발생자의 3.4%에서 이차암이 발생했으며 어린 나이에 1차암을 진단받을 경우 이차암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배포하는 이차암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보면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실천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 <br/>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수 교수는 암과 신체활동 관련성에 대한 연구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유방암과 대장암 등의 경우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무기력감, 전반적인 삶의 질, 피로, 우울, 불안 등이 개선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 교수 역시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추천했는데 김 교수 만의 특별한 운동방식을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이 중강도 운동으로 빨리 걷기를 추천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의 메트로놈 어플리케이션(음악가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원하는 빠르기로 규칙적인 박자 소리를 내는 도구)을 다운 받아 100~120 BPM 수준에 맞춰 걸으면 적절한 중강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마지막 발제를 맡은 송욱교수는 암 종별 운동적용과 운동 중재 임상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장암, 전립선암, 부인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치료 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송 교수는 현재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골반저근 강화운동과 유방암 경험자를 위한 견관절 스트레칭, 전신근력운동, 유산소성 능력을 위한 서킷 트레이닝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개인의 특성과, 암의 특이성, 운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노동영 교수(서울대병원 외과)는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암 경험자를 위한 근거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2013년부터는 올바른 건강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건강 문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나눔포럼'과 '여성건강문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br/> <br/>이번에 13회를 맞은 국민건강나눔포럼은 매 분기별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돼 의료·학문·산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공하고 사회 발전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역할을 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5.txt

제목: [인터뷰] 우민호 감독에게 듣는 ‘내부자들’ 뒷이야기  
날짜: 2015113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915562  
본문: 영화 ‘내부자들’로 하반기 영화계 흥행돌풍을 가져온 주인공 우민호 감독은 스스로를 ‘지독한 영화광’이라 칭했다. 학창시절 수도 없이 돌려본 비디오테이프들과 함께 시작된 할리우드 키드의 꿈. 그는 연출자가 아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스크린에 담아냈고, 그런 노력은 상업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년 만에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br/> <br/>지난 주말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11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사상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영화가 완성된 지 꽤 시간이 지나서야 개봉할 수 있었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관객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이는 물론 감독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화계 안팎에 “이제야 제대로 된 정치영화 한 편 만났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민호 감독을 만나 ‘내부자들’ 제작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br/> <br/> <br/> <br/># 원작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웠다 <br/> <br/>‘내부자들’이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우 감독은 웹툰의 판권을 사들인 제작사 대표로부터 연출 제의를 받고 이것저것 따져볼 새도 없이 수락했다고 했다. 원작이 가진 에너지가 워낙 폭발적이라 감독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했다. 보통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작업은 창작자에 못지 않는 연출자의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 감독은 원작이 있어 오히려 편했다고 말했다. 원작이 가진 힘과 색깔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민할 게 그리 많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br/> <br/>“한 마디로 (연출) 안할 이유가 없었죠. 원작이 가진 에너지가 셌고 메시지도 통렬했으니까. 그래서인지 ‘미완결’인데도 불구하고 연재가 중단된 이후의 스토리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윤태호 작가는 감독에게 왈가왈부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게도 ‘어차피 중단된 작품인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군요. 연재가 중단되는 바람에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 또한 제게 자유를 줬어요. 원작이 ‘이끼’나 ‘미생’이었다면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웃음)” <br/> <br/># 3시간40분짜리 감독판에 대한 생각  <br/> <br/>현재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내부자들’의 러닝타임은 130분. 그런데 처음 편집을 마쳤을 때는 3시간40분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했다고. 극장에 걸려 대중과 만나는 만큼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캐릭터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짧게 재편집이 이뤄졌다. <br/> <br/>배우 이병헌 역시 인터뷰에서 편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캐릭터 버전이 스토리가 더 깊고 풍성했기 때문이다. 인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캐릭터 버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우 감독은 “제작사, 투자사, 그리고 저까지 모두 캐릭터 버전을 좋아했다”며 ‘감독판’ 제작에 대한 의향을 드러냈다. 물론 ‘단,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었지만. <br/> <br/>#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br/> <br/>영화 ‘내부자들’의 흥행요인이라면 ‘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같은 관객들의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대사는 전적으로 우 감독의 아이디어였다. 윤 작가의 원작에는 우회적이고 고급스러운 대사가 많다면 영화에는 좀 더 쉬운 표현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대중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사를 만들 땐 많은 고민이 따랐다. <br/> <br/>“(개, 돼지 대사 때문에) 혹여나 관객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누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결국 공감을 자아낼 거란 믿음이 생겼죠.” <br/> <br/> <br/> <br/># 이병헌의 연락, 로또 맞은 기분 <br/> <br/>프리 프로덕션 단계서부터 우 감독에게 따라 붙은 수식어가 있다. ‘배우 복 많은 감독’이 그것이다. 할리우드가 알아본 스타 이병헌을 비롯해 조승우, 백윤식, 이경영, 김홍파, 김대명, 배성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이 영화에 총출동했다. 과연 그런 수식어가 붙을 만했다. 우 감독에 따르면 캐스팅 과정 역시 수월했다. 모든 것은 이병헌의 연락에서 비롯됐다. <br/> <br/>“이병헌씨는 절대 안할 줄 알았어요. ‘설마 나와 함께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상구가 된 그의 모습을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내고 기다렸는데 단 3일 만에 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마치 로또 맞은 기분이랄까. 아무런 역경 없이 캐스팅이 술술 풀리니까 머릿속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br/> <br/># 조승우, 삼고초려 끝에… <br/> <br/>반면 조승우의 섭외는 어려웠다. 3번의 거절과 3번의 설득 끝에 이뤄진 극적인 캐스팅이었다. 우 감독은 무엇보다 ‘이병헌과 조승우의 조합’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 그의 염원을 알아차렸는지 크랭크인 직전 조승우가 연락을 해왔다. 우 감독은 “<span class='quot0'>조승우씨 캐스팅은 화룡점정이었다</span>”며 그가 연기한 우장훈은 가장 애정을 쏟은 캐릭터였다고 고백했다. <br/> <br/>“우장훈 검사는 다름 아닌,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거든요. 성을 저와 같은 ‘우’씨로 할 정도로 애정이 깊죠.(웃음) 처음에 조승우씨는 검사 역할에 부담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저 감독에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렇게 이병헌과 조승우의 만남이 성사됐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에너지는 정말 굉장했어요.” <br/> <br/># 누구나 원하는 결말, 판타지라 해도 좋아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원작이 미완결인 탓에 직접 결말을 써 넣어야 했던 우 감독이 진정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br/> <br/>“대부분의 사회 고발영화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개인을 그리는 게 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극장을 나오면 다시 씁쓸한 현실과 마주칠지 몰라도 스크린에서 만큼은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 보자고 생각했죠. 이는 판타지일 뿐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힘이 모여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때마다 발전돼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판타지만은 아니지 않을까요.(웃음)”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6.txt

제목: '치핵', 그 은밀한 고통에 대하여  
날짜: 201511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130205546228  
본문:   <br/> <br/> <br/>흔히 항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치질이라고 한다. 이는 항문에 생기는 암을 제외 한 양성 질환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크게 치핵, 치루, 치열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치핵은 전체 치질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br/> <br/>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 지난해 치핵 환자는 65만6000여 명으로 2009년부터 매해 평균 0.8%씩 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 환자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다. <br/> <br/>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20대와 80세 이상에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그 은밀한 고통, 치핵에 대해 대전선병원 대장항문외과 최병민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다이어트, 임신, 출산...20대 여성 원인으로 나타나 <br/> <br/>치핵은 항문 안의 혈관조직을 포함하는 점막 및 점막하조직이 주변 항문관과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항문 밖으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덩어리가 밀려 내려온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것 등은 항문 혈관 안에 피가 고여 이를 확장시킨다. <br/> <br/>또 술의 성분인 알코올도 혈관을 늘어나게 할 수 있으므로 과음 또한 치핵의 원인이 된다. 변비 때문에 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관 내에 피가 많이 들어차 항문 혈관이 쉽게 늘어나게 된다.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골프를 치는 것 등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br/> <br/>임신과 출산도 치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 중 증가하는 황체호르몬은 장운동에 영향을 주어 변비를 유발한다. 또 임신 중에는 복압이 올라가서 항문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며, 조직이 연해지고 혈액 양이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치핵이 심해질 수 있다. <br/> <br/>또 출산 중에 힘주기를 하면서 임신 중 심해진 치핵이 갑자기 빠져나와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여성 치핵의 원인은 주로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적게 먹다보면 대변량이 줄고 딱딱해져 변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심할수록 증상이 자주 발생 <br/> <br/>치핵은 항문 안의 치상선을 경계로 치상선 상부의 내치핵, 하부의 외치핵 그리고 이 부분이 혼재된 혼합치핵으로 구분한다. 내치핵과 외치핵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항문 안 조직이 탈출되는 탈홍이 가장 흔하고, 탈홍 없이 선홍색의 항문 출혈도 자주 관찰된다. 간혹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는 혈전성 치핵도 발생하며, 이 경우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종종 농양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br/> <br/>내치핵은 항문 안쪽의 조직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탈출되는 증상이 일반적이며, 배변 후 통증 없이 선홍색의 출혈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내치핵은 탈홍의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로 나눌 수 있으며, 심할수록 가려움증과 출혈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br/> <br/>외치핵이 생기는 치상선 아래쪽은 피부로 덮여 있어 쉽게 출혈이 되지 않고 탈홍도 되지 않는다. 간혹 출혈이 되어 피하에 피가 엉기는 현상인 혈전이 생기고, 항문 바깥쪽으로 늘어진 피부 꼬리 모양의 췌피가 자주 관찰된다. <br/> <br/>치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문 부위를 살펴본 후 항문 수지검사와 항문경 검사를 시행한다. 항문 수지검사란 말 그대로 의사가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넣어 항문과 직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복잡한 검사 없이 수지검사만으로도 항문 과 직장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이다. <br/> <br/>항문경검사는 길이가 7~8㎝ 정도 되는 항문경을 집어넣어 항문 속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최근에는 항문경에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를 통해 항문 속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와 항문기능검사, 내시경검사가 필요 할 수 있다. <br/> <br/>◇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관건 <br/> <br/>치핵의 치료는 보존적 요법과 외과적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요법은 변 완하제, 식이요법, 통증치료, 좌욕과 배변습관의 교정 등이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 될 수 있다. 특히 좌욕은 미지근한 물을 좌욕기나 대야 등에 준비 한 후 한번에 3~5분간 하루 2~3회 항문 부위를 담그고 앉아 있는 것으로, 항문 통증의 주원인이 되는 항문괄약근의 경련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킨다. <br/> <br/>또 항문 부위를 청결히 세척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상처의 치유를 돕고, 혈전이 녹는 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물에 좌욕을 하거나 증기를 쐬게 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br/> <br/>외과적 수술은 보조술식과 치핵근본술식으로 나누어진다. 보조술식에는 부식제 주입법, 고무밴드결찰술, 치핵동맥결찰술 등이 있으며, 치핵의 절제보다는 치핵 점막을 고정시키거나 혈관조직의 결찰 등으로 치핵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br/> <br/>치핵근본술식은 치핵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행해져왔지만, 최근에는 직장점막절제를 통해 밀려나오는 치핵을 다시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시키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PPH 치질수술법'이라고 하며, 고전적 치질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나 불편이 적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재발이 적은 장점이 있다. <br/> <br/>탈홍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치핵은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치핵을 비롯한 항문 질환은 생명에 결정적인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므로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핵의 진행정도와 증상을 기준으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 수술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7.txt

제목: [인터뷰] 우민호 감독에게 듣는 ‘내부자들’ 뒷이야기  
날짜: 20151130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130205116744  
본문: 영화 ‘내부자들’로 하반기 영화계 흥행돌풍을 가져온 주인공 우민호 감독은 스스로를 ‘지독한 영화광’이라 칭했다. 학창시절 수도 없이 돌려본 비디오테이프들과 함께 시작된 할리우드 키드의 꿈. 그는 연출자가 아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스크린에 담아냈고, 그런 노력은 상업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년 만에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br/> <br/>지난 주말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11일 만에 3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사상 최단기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영화가 완성된 지 꽤 시간이 지나서야 개봉할 수 있었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관객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이는 물론 감독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화계 안팎에 “이제야 제대로 된 정치영화 한 편 만났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민호 감독을 만나 ‘내부자들’ 제작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봤다. <br/> <br/> <br/> <br/># 원작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웠다 <br/> <br/>‘내부자들’이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우 감독은 웹툰의 판권을 사들인 제작사 대표로부터 연출 제의를 받고 이것저것 따져볼 새도 없이 수락했다고 했다. 원작이 가진 에너지가 워낙 폭발적이라 감독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했다. 보통 원작이 존재하는 영화작업은 창작자에 못지 않는 연출자의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 감독은 원작이 있어 오히려 편했다고 말했다. 원작이 가진 힘과 색깔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민할 게 그리 많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br/> <br/>“한 마디로 (연출) 안할 이유가 없었죠. 원작이 가진 에너지가 셌고 메시지도 통렬했으니까. 그래서인지 ‘미완결’인데도 불구하고 연재가 중단된 이후의 스토리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윤태호 작가는 감독에게 왈가왈부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게도 ‘어차피 중단된 작품인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군요. 연재가 중단되는 바람에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 또한 제게 자유를 줬어요. 원작이 ‘이끼’나 ‘미생’이었다면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웃음)” <br/> <br/># 3시간40분짜리 감독판에 대한 생각  <br/> <br/>현재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내부자들’의 러닝타임은 130분. 그런데 처음 편집을 마쳤을 때는 3시간40분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했다고. 극장에 걸려 대중과 만나는 만큼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캐릭터 중심에서 사건 중심으로 짧게 재편집이 이뤄졌다. <br/> <br/>배우 이병헌 역시 인터뷰에서 편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캐릭터 버전이 스토리가 더 깊고 풍성했기 때문이다. 인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캐릭터 버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우 감독은 “제작사, 투자사, 그리고 저까지 모두 캐릭터 버전을 좋아했다”며 ‘감독판’ 제작에 대한 의향을 드러냈다. 물론 ‘단,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이라는 조건이 따라 붙었지만. <br/> <br/>#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br/> <br/>영화 ‘내부자들’의 흥행요인이라면 ‘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 같은 관객들의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대사는 전적으로 우 감독의 아이디어였다. 윤 작가의 원작에는 우회적이고 고급스러운 대사가 많다면 영화에는 좀 더 쉬운 표현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대중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사를 만들 땐 많은 고민이 따랐다. <br/> <br/>“(개, 돼지 대사 때문에) 혹여나 관객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누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결국 공감을 자아낼 거란 믿음이 생겼죠.” <br/> <br/> <br/> <br/># 이병헌의 연락, 로또 맞은 기분 <br/> <br/>프리 프로덕션 단계서부터 우 감독에게 따라 붙은 수식어가 있다. ‘배우 복 많은 감독’이 그것이다. 할리우드가 알아본 스타 이병헌을 비롯해 조승우, 백윤식, 이경영, 김홍파, 김대명, 배성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이 영화에 총출동했다. 과연 그런 수식어가 붙을 만했다. 우 감독에 따르면 캐스팅 과정 역시 수월했다. 모든 것은 이병헌의 연락에서 비롯됐다. <br/> <br/>“이병헌씨는 절대 안할 줄 알았어요. ‘설마 나와 함께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상구가 된 그의 모습을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내고 기다렸는데 단 3일 만에 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때 마치 로또 맞은 기분이랄까. 아무런 역경 없이 캐스팅이 술술 풀리니까 머릿속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br/> <br/># 조승우, 삼고초려 끝에… <br/> <br/>반면 조승우의 섭외는 어려웠다. 3번의 거절과 3번의 설득 끝에 이뤄진 극적인 캐스팅이었다. 우 감독은 무엇보다 ‘이병헌과 조승우의 조합’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 그의 염원을 알아차렸는지 크랭크인 직전 조승우가 연락을 해왔다. 우 감독은 “<span class='quot0'>조승우씨 캐스팅은 화룡점정이었다</span>”며 그가 연기한 우장훈은 가장 애정을 쏟은 캐릭터였다고 고백했다. <br/> <br/>“우장훈 검사는 다름 아닌,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거든요. 성을 저와 같은 ‘우’씨로 할 정도로 애정이 깊죠.(웃음) 처음에 조승우씨는 검사 역할에 부담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저 감독에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렇게 이병헌과 조승우의 만남이 성사됐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에너지는 정말 굉장했어요.” <br/> <br/># 누구나 원하는 결말, 판타지라 해도 좋아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거대하게 자리 잡은 시커먼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가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원작이 미완결인 탓에 직접 결말을 써 넣어야 했던 우 감독이 진정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br/> <br/>“대부분의 사회 고발영화들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개인을 그리는 게 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극장을 나오면 다시 씁쓸한 현실과 마주칠지 몰라도 스크린에서 만큼은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 보자고 생각했죠. 이는 판타지일 뿐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힘이 모여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때마다 발전돼왔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판타지만은 아니지 않을까요.(웃음)”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8.txt

제목: 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운동 통한 암환자 건강관리 모색  
날짜: 201511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51130205058649  
본문:   <br/> <br/> <br/>"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20%이상 향상됐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이차암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br/> <br/>지난 26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제 13회 국민건강나눔포럼은 '운동을 통한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 박준동 부소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 △'암 치료 여정에 따른 암 경험자의 건강문제' 송윤미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암 경험자의 2차 암 예방과 신체활동 증진 국내외 관련 근거와 현황' 임민경 교수(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2부 △'운동과 체력이 암 치료와 생존에 미치는 효과' 김연수 교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암 종별 운동적용 방법 및 운동중재' 송욱 교수(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발제로 진행됐다. <br/> <br/>첫 번째 발제자 송윤미 교수는 암 경험자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초기 및 후기 합병증, 이차암, 정신사회적 문제, 만성질환, 암과 무관한 급성질환 등을 겪을 가능성이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암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암이 발병하는 이차암의 경우, 유방암 경험자에게서는 반대 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2.4배 높고 대장암 경험자는 1년 후 다른 부위에서 대장암이 발병할 확률이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br/> <br/>때문에 송 교수는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암경험자의 경우 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의해 사망할 수 있는 만큼 원발암과 이차암 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운동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br/> <br/>1부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민경 교수는 1993년에서 2012년 사이 국내 암 발생자의 3.4%에서 이차암이 발생했으며 어린 나이에 1차암을 진단받을 경우 이차암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배포하는 이차암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보면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실천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 <br/>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수 교수는 암과 신체활동 관련성에 대한 연구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따르면 유방암과 대장암 등의 경우 꾸준히 운동을 실천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무기력감, 전반적인 삶의 질, 피로, 우울, 불안 등이 개선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 교수 역시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추천했는데 김 교수 만의 특별한 운동방식을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이 중강도 운동으로 빨리 걷기를 추천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의 메트로놈 어플리케이션(음악가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원하는 빠르기로 규칙적인 박자 소리를 내는 도구)을 다운 받아 100~120 BPM 수준에 맞춰 걸으면 적절한 중강도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br/> <br/>마지막 발제를 맡은 송욱교수는 암 종별 운동적용과 운동 중재 임상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장암, 전립선암, 부인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치료 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송 교수는 현재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골반저근 강화운동과 유방암 경험자를 위한 견관절 스트레칭, 전신근력운동, 유산소성 능력을 위한 서킷 트레이닝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개인의 특성과, 암의 특이성, 운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노동영 교수(서울대병원 외과)는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암 경험자를 위한 근거기반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2013년부터는 올바른 건강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건강 문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나눔포럼'과 '여성건강문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br/> <br/>이번에 13회를 맞은 국민건강나눔포럼은 매 분기별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돼 의료·학문·산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공하고 사회 발전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역할을 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29.txt

제목: '치핵', 그 은밀한 고통에 대하여  
날짜: 2015113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752935  
본문:   <br/> <br/> <br/>흔히 항문에 생기는 질환들을 치질이라고 한다. 이는 항문에 생기는 암을 제외 한 양성 질환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크게 치핵, 치루, 치열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치핵은 전체 치질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br/> <br/>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 지난해 치핵 환자는 65만6000여 명으로 2009년부터 매해 평균 0.8%씩 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 환자가 5명 가운데 1명꼴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30대가 뒤를 이었다. <br/> <br/>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20대와 80세 이상에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그 은밀한 고통, 치핵에 대해 대전선병원 대장항문외과 최병민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다이어트, 임신, 출산...20대 여성 원인으로 나타나 <br/> <br/>치핵은 항문 안의 혈관조직을 포함하는 점막 및 점막하조직이 주변 항문관과의 지지력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항문 밖으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덩어리가 밀려 내려온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항문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세나 생활태도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방바닥에 앉아 있는 것 등은 항문 혈관 안에 피가 고여 이를 확장시킨다. <br/> <br/>또 술의 성분인 알코올도 혈관을 늘어나게 할 수 있으므로 과음 또한 치핵의 원인이 된다. 변비 때문에 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관 내에 피가 많이 들어차 항문 혈관이 쉽게 늘어나게 된다.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골프를 치는 것 등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br/> <br/>임신과 출산도 치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 중 증가하는 황체호르몬은 장운동에 영향을 주어 변비를 유발한다. 또 임신 중에는 복압이 올라가서 항문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며, 조직이 연해지고 혈액 양이 많아지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치핵이 심해질 수 있다. <br/> <br/>또 출산 중에 힘주기를 하면서 임신 중 심해진 치핵이 갑자기 빠져나와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20대 여성 치핵의 원인은 주로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적게 먹다보면 대변량이 줄고 딱딱해져 변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심할수록 증상이 자주 발생 <br/> <br/>치핵은 항문 안의 치상선을 경계로 치상선 상부의 내치핵, 하부의 외치핵 그리고 이 부분이 혼재된 혼합치핵으로 구분한다. 내치핵과 외치핵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항문 안 조직이 탈출되는 탈홍이 가장 흔하고, 탈홍 없이 선홍색의 항문 출혈도 자주 관찰된다. 간혹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는 혈전성 치핵도 발생하며, 이 경우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종종 농양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br/> <br/>내치핵은 항문 안쪽의 조직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탈출되는 증상이 일반적이며, 배변 후 통증 없이 선홍색의 출혈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내치핵은 탈홍의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로 나눌 수 있으며, 심할수록 가려움증과 출혈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br/> <br/>외치핵이 생기는 치상선 아래쪽은 피부로 덮여 있어 쉽게 출혈이 되지 않고 탈홍도 되지 않는다. 간혹 출혈이 되어 피하에 피가 엉기는 현상인 혈전이 생기고, 항문 바깥쪽으로 늘어진 피부 꼬리 모양의 췌피가 자주 관찰된다. <br/> <br/>치핵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문 부위를 살펴본 후 항문 수지검사와 항문경 검사를 시행한다. 항문 수지검사란 말 그대로 의사가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넣어 항문과 직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른 복잡한 검사 없이 수지검사만으로도 항문 과 직장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이다. <br/> <br/>항문경검사는 길이가 7~8㎝ 정도 되는 항문경을 집어넣어 항문 속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최근에는 항문경에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를 통해 항문 속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와 항문기능검사, 내시경검사가 필요 할 수 있다. <br/> <br/>◇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관건 <br/> <br/>치핵의 치료는 보존적 요법과 외과적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요법은 변 완하제, 식이요법, 통증치료, 좌욕과 배변습관의 교정 등이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 될 수 있다. 특히 좌욕은 미지근한 물을 좌욕기나 대야 등에 준비 한 후 한번에 3~5분간 하루 2~3회 항문 부위를 담그고 앉아 있는 것으로, 항문 통증의 주원인이 되는 항문괄약근의 경련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킨다. <br/> <br/>또 항문 부위를 청결히 세척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상처의 치유를 돕고, 혈전이 녹는 효과를 기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뜨거운 물에 좌욕을 하거나 증기를 쐬게 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br/> <br/>외과적 수술은 보조술식과 치핵근본술식으로 나누어진다. 보조술식에는 부식제 주입법, 고무밴드결찰술, 치핵동맥결찰술 등이 있으며, 치핵의 절제보다는 치핵 점막을 고정시키거나 혈관조직의 결찰 등으로 치핵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br/> <br/>치핵근본술식은 치핵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행해져왔지만, 최근에는 직장점막절제를 통해 밀려나오는 치핵을 다시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시키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PPH 치질수술법'이라고 하며, 고전적 치질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나 불편이 적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며 재발이 적은 장점이 있다. <br/> <br/>탈홍의 정도에 따라 치료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증상이 있는 치핵은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치핵을 비롯한 항문 질환은 생명에 결정적인 위험을 주지는 않지만,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므로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핵의 진행정도와 증상을 기준으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상담한 후 수술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0.txt

제목: 히든싱어4 임재범 최종우승, 과거 아내 암 투병에 "눈물도 안 나고 멍하더라"  
날짜: 20151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559874  
본문: 히든싱어4 임재범 최종우승, 과거 아내 암 투병에 "눈물도 안 나고 멍하더라"히든싱어4 임재범 최종우승, 과거 아내 암 투병에 "눈물도 안 나고 멍하더라" <br/> <br/>임재범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임재범은 과거 KBS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에 출연해 속 깊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br/> <br/>당시 방송에서 임재범은 자신의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당시를 회상했다. <br/> <br/>임재범은 “<span class='quot0'>한 후배로부터 ‘나는 가수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당시 아내가 암선고를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내가 갑상선암을 선고 받고 많이 놀라 펑펑 울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암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4개나 발견됐다”며 “갑상선암·위암·간암·자궁암이었다. 눈물도 안 나고 멍했다”라고 덧붙였다. <br/> <br/>또 “암 학회에서도 처음 발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간의 60%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라며 “위험성이 높아 고민하던 중 아내가 순리대로 따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br/> <br/>임재범은 이어 “뮤지컬 배우 출신인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무대에 서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암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들었다”며 “그래서 집을 나왔다. 아내에겐 ‘이유가 있어서 떠나니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1.txt

제목: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30일 출범  
날짜: 20151129  
기자: 이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539039  
본문: 각종 보험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3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br/> <br/>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에서는 단독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6종이 등재돼 있다. 33개사 217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등재되는 상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br/> <br/> 보험다모아 메인화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공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보험종목과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및 보장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온라인 가입을 클릭해 해당 보험사 계약체결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br/> <br/>보험다모아 이용에 대해서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br/> <br/>생·손보협회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년 중 인터넷 포털에서 가격비교 정보를 검색·비교해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할인·할증요율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암이나 어린이보험은 보장범위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br/> <br/>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2.txt

제목: 무한도전 정준하, 과거 암환자 도운 사연 "정준하 씨가 기부해주신 돈으로..."  
날짜: 20151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531749  
본문: 무한도전 정준하, 과거 암환자 도운 사연 "정준하 씨가 기부해주신 돈으로..."무한도전 정준하, 과거 암환자 도운 사연 "정준하 씨가 기부해주신 돈으로..." <br/> <br/>무한도전 정준하가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선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br/> <br/>지난 2011 tvN '스타특강쇼'에 출연한 정준하는 과거 후원했던 암환자의 동생으로부터 그의 사망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 <br/> <br/>당시 방송에서 정준하와 전화 연결된 한 여성이 “몇 년 전 저희 오빠가 많이 아팠는데, 정준하씨가 기부해주신 돈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다”며 “언젠가는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 <br/> <br/>이를 듣고 놀란 정준하는 “현재 오빠는 잘 계시냐”고 물었고 이 여성은 “<span class='quot0'>오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span>”고 답했다. <br/> <br/>이어 여성이 “저희 가족이 힘들 때 정준하 씨의 선행이 큰 도움이 됐다. 인터뷰 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정준하씨의 도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3.txt

제목: 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날짜: 20151129  
기자: 인터넷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459921  
본문: 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황치열, 눈물어린 고백 "아버지 날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 없어" <br/> <br/>황치열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br/> <br/>황치열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해 열창했다. <br/> <br/>당시 방송에서 황치열은 “암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가 투병 중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인정해주신 적이 없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br/> <br/>이에 설운도는 “아버지는 가슴으로 듣는다. 눈물도 가슴으로 우실 거다”며 “아버지가 무표정으로 들으셨다하더라도 가슴으로 많이 우셨을 것”이라며 그를 다독였다. <br/> <br/>한편 황치열은 2007년 ‘치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싱글 ‘한 번만’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그룹 015B의 객원보컬과 웬즈데이의 멤버로 활동했다. <br/> <br/> <br/>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4.txt

제목: 벤자민학교 30일부터 국회의사당서 꿈 진로 토크콘서트  
날짜: 20151127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141747  
본문: 대안학교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교장 김나옥)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꿈 진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br/> <br/>인성을 주제로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드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동화작가 한지수 작가의 ‘인성회복을 위한 영혼의 새 힐링 그림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br/> <br/>이번 토크콘서트 3일간 벤자민학교 학생 16명이 춤과 노래, 랩, 색소폰 연주 등을 다양한 끼를 선보인다. 또 암을 이기고 국토종주에 성공하는 등 도전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벤자민학교 학생 13명이 자신의 성장담을 발표한다. <br/> <br/>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5.txt

제목: 나사렛국제병원,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 실시  
날짜: 2015112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1022359  
본문:   <br/> <br/> <br/>나사렛국제병원(이사장 이강일)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으로 지정,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br/> <br/>이번 행사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우선 지난 3일 시행된 전 직원 대상 환자안전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이 직접 라운딩을 실시해 낙상예방, 소방안전, 손 씻기 관련 사항들을 점검했다. <br/> <br/>또한 오류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이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가 없는 상황 등에 대해 원인과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근접오류(Near miss) 찾아내기 공모'를 실시했다. <br/> <br/>감염관리를 위한 행사로는 '손 위생'을 주제로 한 삼행시 공모전을 실시했다. 접수된 총 98개 응모작 중 직원투표를 통해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인기작 2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수술실의 '손(손 씻기 생활습관 함께 실천해보세요), 위(위아래 위아래 구석구석 바른 손 씻기), 생(생활습관으로 건강한 나사렛 만들어요)'가 선정됐다. <br/> <br/>이 외에도 글리터버그(손 세정 검사기)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 체험'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 씻기 왕 및 부서 선정' 등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이사장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잘 실천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던 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의학·한의학·통합기능의학을 기반으로 25개 진료과, 8개 전문센터로 구성, 44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인천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와 암 검진평가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결과 고관절치환술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6.txt

제목: 과기한림원학술상에 최원용 포스텍 교수 선정  
날짜: 20151127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957555  
본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제14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학술상’ 수상자로 최원용 포스텍 환경공학부 교수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최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광(光)촉매들을 개발하고 그 특성 및 반응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광촉매 환경·에너지 응용기술의 학문적 기초를 굳게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br/> <br/>특히 새로운 고도 산화기술을 개발하고, 얼음에서의 새로운 화학반응 현상을 규명해 환경화학 연구분야를 개척했다고 과기한림원은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이 주어진다. <br/> <br/>또 제14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공로상은 그동안 한림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유항 인하대 명예교수, 박규택 강원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br/> <br/>제9회 덕명한림공학상은 유기반도체 소재의 표면유도 분자배향 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낸 조길원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br/> <br/>휠라코리아가 후원하는 제2회 FILA기초과학상 수상자로는 윤태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선정됐다. 윤 교수는 생체막 단백질의 단분자 연구, 단백질 수준에서 개인맞춤형 암 진단이라는 새 연구 영역을 개척했다. <br/> <br/>제1회 환당한림의약학상은 간질환 치료 신약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며 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김상건 서울대 약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 상은 국산 천연물신약 제1호인 ’스티렌’을 개발한 환당 이은방 박사가 후원해 제정됐다. <br/> <br/>황온중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7.txt

제목: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암살  
날짜: 20151127  
기자: why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924380  
본문: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은 영화 암살이 차지했다. <br/> <br/>26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6회 청룡영화상에서 암살은 최우수작품상, 기술상(조상경·손나리)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남우 주연상은 사도의 유아인, 여우주연상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에게 돌아갔다. <br/> <br/>이준익 감독의 사도는 남우주연상 유아인을 비롯해 여우조연상(전혜진), 촬영조명상(김태경·홍승철), 음악상(방준석) 등 4관왕을 차지했다. 140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은 최다관객상과 함께 남우조연상(오달수), 미술상(류성희)을 받았다. 10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베테랑은 감독상(류승완)을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br/> <br/>다양성 영화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각본상에 소수의견의 김성제 감독과 손아람 작가가, 여우주연상은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이 각각 받았다. 신인감독상은 거인’의 김태용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인남우상과 신인여우상은 거인의 최우식과 간신의 이유영이 수상했다. <br/> <br/>암살의 최동훈 감독은 “일제 강점기 당시 힘들지만 용기 있고 명예롭게 사신 분들에게 감동을 받아 만든 영화”라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강하고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암살을 사랑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최우수작품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br/> <br/>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8.txt

제목: 한림대성심병원, '제6회 혈액종양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날짜: 2015112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735608  
본문:   <br/> <br/> <br/>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정기석) 혈액종양내과(과장 김효정)는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제6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br/> <br/>이번 연수강좌는 김효정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개원의를 위한 혈액종양질환의 접근 및 국가 암 검진 개정 권고안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비소화기 감염의 접근(한림의대 한보람 교수), △개원의를 위한 다발골수종 진단의 모범적 접근(한림의대 김효정 교수) △항암·표적 치료 후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와 처치(한림의대 정주영 교수) △대한민국 암 검진 권고안의 실제 적용(한림의대 김정훈 교수)순서로 강의하며, 별도의 질의응답시간과 장대영 교수의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역할 및 맺음말'로 마무리 한다. <br/> <br/>혈액종양내과 김효정 과장은 "이번 개원의 연수강좌는 개원가에서 만날 수 있는 암환자의 1차 진료 및 놓쳐서는 안 될 질환의 감별 포인트 그리고 새로 개정된 국가 암 검진 권고안의 실제 적용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라며 "연수강좌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담당하시는 개원의 선생님들과 다양한 임상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br/> <br/>등록과 문의는 이메일(ttogimi81@hallym.or.kr)과 전화(031-380-3704)로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2평점, 대한내과학회 4평점(분과전문의 2점, 평생교육 2점)이 주어진다. 병원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며, 도시락이 제공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39.txt

제목: 동성제약, 제 18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 개최  
날짜: 2015112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736314  
본문:   <br/> <br/> <br/>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제18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도현 교수와 폴 덕스버리 나잘레즈 대표이사가 제18회 송음 의약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r/> <br/>이날 시상식은 동성제약의 비전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정승 전 식약처장,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나보타스시 존 레이놀드 티앙코 시장의 축사와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정일 심사위원의 2015년 수상자 심사보고와 부문별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소감과 함께 이번 송음 의약학상을 수상하게 된 연구 결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각각 진행되었다. <br/> <br/>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내 준 의약학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전하며 "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주는 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던 송음 이선규 명예회장님의 유지를 이어 받아 동성제약은 암 정복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연구 및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의 비전을 함께 제시하였다. <br/> <br/>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송음 의약학상은 1998년 동성제약의 창업자인 이선규 명예회장의 약업을 통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매년 의약학발전에 공을 세운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상으로, 국내외 의약학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의약학발전을 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는데 그 제정 의의를 두고 있다. 올해까지 국내외 총 41명이 송음 의약학상을 수상했다. <br/> <br/>이날 시상식은 국내외 의약학계 관계자들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송음 의약학상 시상 외에도 23년째 어린이재단을 통해 이어오고 있는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0.txt

제목: 제 4회 암치료법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12월 5일 개최  
날짜: 2015112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613221  
본문: 대한온열암연구회 포스터 <br/>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온열암 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제 온열암 치료 학술대회가 열린다. <br/> <br/>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하는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오는 12월 5일 정오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br/> <br/>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SCI 학술지에서 발표된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 임상시험의 경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br/> <br/> 이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송창원 교수가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에 대한 강연과 함께 온열암 치료의 일반 분야, 기초연구 분야, 임상연구 분야에 대해 해외 연자 4명과 국내 연자 14명의 강연이 이어진다. <br/> <br/> 온열암치료는 암 발생 부위 및 전이부위에 고주파를 통과시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자연사(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키는 치료법으로 ‘제4의 암치료법’으로 불리며 2007년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br/> <br/> 다시 말해, 온열암치료는 바늘없이 고주파 전류를 몸안으로 몸밖에서 투과시키면 자동으로 암세포에만 열이 집적되어 집중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 <br/> <br/> 이로인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암으로 인한 통증경감의 효과가 크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온열암치료를 방사선요법 및 화학 요법과 병행해 치료하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한편, 2010년 발족한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2016년부터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이 회장을 맡게 되며, 국내 연구를 비롯해 해외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1.txt

제목: 대구보건대 방사선과 재학생 전국 추계 학술대회 최우수상  
날짜: 20151126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549537  
본문: 대구보건대(총장 남성희)는 방사선과 재학생들이 전국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 임상연구원, 4년제 대학생 등과 당당히 실력을 겨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br/> <br/>지난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2회 연속 수상이다. <br/> <br/>방사선과 2학년 이동현, 송혜리 씨 등 2명은 최근 부산가톨릭대학교 베리타스 센터에서 막을 내린 ‘한국방사선학회 2015 추계 학술대회’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의 방사선 치료기법간의 선량분포와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br/> <br/>이 대회에는 대학과 병원 등 28개 기관에서 25개 논문과 6편의 포스터 발표 등 모두 31개 팀이 참가했다. <br/> <br/>대구보건대 학생들은 지난 여름방학부터 논문을 준비했다. 이동현 학생이 논문의 주제를 정했고 김영재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br/> <br/>학생들은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3가지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 중  m-Arc therapy가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br/> <br/>연구결과 이 치료법은 정상조직인 식도, 간, 척수 및 정상 폐 조직에 방사선 피폭 량을 최대 20%에서 최소 11%정도 줄일 수 있었으며 암 조직에는 치료에 적합한 선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 논문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치료법을 임상적으로 적용했으며 향후 방사선 치료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br/> <br/>발표자 이동현(22)씨는 “<span class='quot0'>논문을 준비하면서 책으로만 배우던 교과목들이 병원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체험해본 좋은 경험 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방사선이 질병의 진단으로 국한되지 않고 암의 치료에도 쓰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span>”고 말했다. <br/> <br/>방사선과 김영재(34) 교수는 “<span class='quot1'>학과에서 직무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무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학술대회에서 연이어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사진설명=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교수와 학생들이 발표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재 교수, 이동현·송혜리 학생) /대구보건대 제공.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2.txt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의료 필요해"  
날짜: 20151126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610270  
본문: 국민 10명 중 9명이 ‘호스피스 의료’를, 8명이 ‘연명의료결정’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br/> <br/>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 마켓링크와 함께 전국 만 20∼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br/> <br/>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설문조사.조사 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r/> <br/>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도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br/> <br/>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으로 나타났다. <br/> <br/>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95.8%로 많았다. <br/> <br/>응답자의 9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가 찬성했다. <br/> <b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조사를 이끈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span>”고 해석했다. 이어 “매년 우리 국민의 27만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3.txt

제목: 홍삼, 폐렴·패혈증에 예방효과...'세계 최초' 입증  
날짜: 20151126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602653  
본문:   <br/> <br/> <br/>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 이상 되면서 면역기능이 약화되기 쉽다. 온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사람 뿐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기능의 상당 부분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데 사용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가지 질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호흡기 질환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만성 질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br/> <br/>대표적 호흡기 질환인 폐렴의 경우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가벼운 기침에서 시작하여 심각할 경우 패혈증이나 쇼크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패혈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 질환으로, 패혈증으로 인한 입원율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체 병원 사망률의 5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모든 암환자 사망률보다도 높다. <br/> <br/>패혈증의 50% 이상은 폐렴에 의해 발생하며 폐렴의 원인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이중 주된 원인균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균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폐렴구균의 경우 코 등 호흡기관에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로 침투하여 폐렴을 일으키며 이는 곧 패혈증으로 연결된다. <br/> <br/>현재, 이렇게 치명적인 패혈증에 대한 예방법 및 치료제가 없어 더욱 심각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권 교수팀이 '홍삼의 폐렴구균 패혈증 예방효과(Korean Red Ginseng prevents pneumococcal sepsis in vivo by potentiating cell survival and diminishing inflammation)' 논문에서 홍삼이 면역기능을 조절하여 폐렴-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혀, 미국의 의학/과학 정보 사이트인 'Atlas of Science'에 비중 있게 소개되는 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 폐렴-패혈증 동물실험을 통해 생존율, 체중 비교분석 <br/> <br/>이동권 교수팀은 실험군당 10-20마리의 실험동물(ICR :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Mice)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인후 감염으로 유발되는 폐렴-패혈증에 대한 홍삼의 예방효과를 관찰하였다. <br/> <br/>실험군은 홍삼농축액 100mg/kg을 15일간 투여한 후 폐렴구균을 투여한 그룹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후 폐렴구균을 투여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실험군을 대상으로 생존율 및 체중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br/> <br/>◇ 생존율과 체중증가 결과로 홍삼의 폐렴구균-패혈증 예방효과 확인 <br/> <br/>분석 결과,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폐렴구균 감염으로 50%만 생존한 반면 홍삼투여군은 100% 생존하여, 생리식염수 투여군에 비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체중의 경우 생리식염수 투여군은 10% 증가에 그쳤으나, 홍삼투여군은 22%로 정상적인 증가를 보였다. 생존율과 체중의 감소 및 증가는 폐렴-패혈증의 대표적 임상 지표로써 이 결과는 홍삼 투여로 폐렴-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r/> <br/>또한 홍삼 투여군에서 폐 및 혈액에서의 폐렴구균 균 수가 99% 감소하여 홍삼 투여로 균 제거능이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홍삼이 폐렴-패혈증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br/> <br/>홍삼이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폐에서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염증의 정도를 염색 분석한 결과, 홍삼 투여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이 억제되어 폐의 염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br/> <br/>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동권 교수는 "이번 연구로 홍삼이 염증 억제, 균 제거율 증가로 결국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부터 정상 세포를 보호하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며 "이 연구에 사용된 홍삼 용량은 임상시험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홍삼을 활용한 패혈증 예방법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이 논문은 지난 10월 유럽 Elsevier社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의학학술지로 대체의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화이토메디신(Phytomedicine)'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4.txt

제목: 하늘나라 아내에 러브레터… 美 사회 울렸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456615  
본문: 3년 전 난소암에 걸린 사실을 인지한 아내는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공익 변호사와 검사의 직업을 내려놓았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에서 남은 가족에게 기억할 만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였다. 남편과 8살·5살 두 아이는 이런 결정을 말없이 따랐다. 아내는 짧지만 강렬한 추억을 가족에게 남겨주고 2년 만인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br/> <br/>아내의 1주기였던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형씨는 10살·7살 아이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아내 캐서린 장가를 추모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러브 레터’(연서) 100통을 손수 만들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줬다. 편지를 받은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건네달라”고 권유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주민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이벤트였다. <br/> <br/> 재미교포 이형씨와 부인 캐서린 장가 가족의 단란했던 한때. <br/>ABC방송 제공편지 100통 중 60통에는 11년 동안의 결혼 생활 등 부부가 함께 살았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 30통에는 암에 걸려서 투병했던 과정을 복원하고, 나머지 10통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눈 내용을 실었다. <br/> <br/>이씨는 “<span class='quot0'>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그들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고 싶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도 아내와 1분만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 편지를 읽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이들은 이 부부의 사랑에 눈시울을 붉혔다. 편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편지 내용과 사연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ABC방송 등 미국 언론은 23일 이씨의 순애보를 전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트위터에는 ‘편지 100통’이라는 단어가 유행어로 떠올랐다. <br/> <br/>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5.txt

제목: 1만명 유전자 분석 게놈 빅데이터 만든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434361  
본문: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를 만드는 국내 최대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인에게 꼭 맞는 암, 심장병 등 질병치료 방법이 만들어진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늙는 무병장수, 웰 에이징(Well aging)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울산대, 울산대병원, 울산시 등은 ‘울산 1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의 게놈 표준정보를 분석, 가공해 게놈 빅데이터와 2·3차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창출하는 것이다. <br/> <br/>1만명 규모의 유전정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전엔 보건복지부에서 400명 규모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었다. <br/> <br/>울산과기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인 유전자 표본의 정확성을 높이고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유전자는 울산시민 등 전 국민으로부터 무료로 기증받는다. 울산대병원에서 혈액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샘플을 모은다. 1호 기증자는 김기현 울산시장이다. <br/> <br/>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들이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DNA와 함께 유전정보의 전달에 관여하는 RNA, 단백질, 대사물질 등의 정보까지 분석한다. 인간의 생명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br/> <br/>프로젝트 결과물인 유전정보는 맞춤의료의 원천기술로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에게 빅데이터로 제공한다. 게놈 빅데이터는 맞춤의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한국인의 질병위험도를 예측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약을 만들어 치료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프로젝트는 펀딩 등을 통해 300억원을 투입, 3년간 진행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 최고의 게놈기술 보유 그룹인 하버드 의대와 공식협약도 체결했다. 하버드 의대 조지 처치 교수의 주도로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개인게놈프로젝트’의 공동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br/> <br/>다음 달에는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펀드가 참여하는 게놈 프로젝트 컨소시엄(가칭)을 구성하고, 한국게놈산업기술센터, 게놈뱅크를 설립한다. 연구성과와 산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br/> <br/>참여기관들은 이 프로젝트 완료 후 유전정보 분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0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이후 참여자를 100만명, 1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br/> <br/>게놈을 활용한 맞춤의학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많아지면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에서는 대형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2012년 기준 1경원으로 ICT(정보통신기술·3800조원)와 자동차(1800조원)를 합친 것보다 크다. 우리나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8%(지난해 기준)다. <br/> <br/>김기현 울산시장은 “<span class='quot1'>게놈기술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 울산을 동아시아 게놈 산업화의 메카로 만들고, 게놈산업을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6.txt

제목: 반도체 작업장과 백혈병 등 발병 인과관계 확인 안돼  
날짜: 201511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321362  
본문: 반도체 작업장과 백혈병 등의 발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br/> <br/>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br/> <br/>검증위 외부 전문가들은 인과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SK하이닉스가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발병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br/> <br/>이에 SK하이닉스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해 직업병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br/> <br/>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장 내 직업병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회사와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br/> <br/>검증위는 이후 1년 간 작업환경 실태 및 직업병 의심사례 조사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했다. <br/> <br/>검증위 조사 결과 지난 2010∼2014년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SK하이닉스 근로자는 모두 108명으로 이중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61명)로 가장 많았다. <br/> <br/>이어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등의 순이었다. <br/> <br/>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4.6%였다. <br/> <br/>검증위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br/> <br/>피부염과 방광염 발병률, 자연유산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br/> <br/>그러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거론된 뇌종양이나 백혈병, 남성 비호지킨림프종 등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br/> <br/>검증위는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직업병 관련 논란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r/> <br/>검증위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도록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했다. <br/> <br/>지원 대상자로 재직자는 물론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 등도 포함하고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으로 정했다. <br/> <br/>구체적으로 갑상선암, 뇌종양,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췌장암, 난소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폐암, 비호지킨림프종, 기타 조혈기계 암 등이다. <br/> <br/>다발혈관염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희귀난치성질환,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등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br/> <br/>대상은 1999년 10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합병 이후 최소 1년 이상 생산직에서 근속한 노동자이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10년 내 발병한 경우로 제한했다. <br/> <br/>협력사 직원도 최소 1년 이상 사업장에 상주한 생산직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br/> <br/>지원금액은 치료비와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최대한도를 정하되 근속기일이나 직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암의 경우 1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br/> <br/>검증위 제안에 SK하이닉스는 "전·현직 SK하이닉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지원·보상 대상에 포함해 산업보건 지원·보상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br/> <br/>SK하이닉스는 "빠른 시간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사내 위원회'를 결성, 관련 질병 지원·보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7.txt

제목: 같은 위암도 사람마다 치료효과 다른 이유?  
날짜: 20151125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307006  
본문: <사진 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위암센터 김성,이지연,김경미 교수 > <br/> 진행성 위암이 유전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같은 위암인 것처럼 보여도 유전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치료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br/> <b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이지연(혈액종양내과)·김경미(병리과) 교수 연구팀은 머크와 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최근 진행성 위암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br/> <br/>  이번 연구는 세계적 의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 5월호에 게재됐다.(IF 27.36) <br/> <br/>  연구팀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은 진행성 위암 환자 3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MSS/EMT, MSS/TP53(-), MSS/TP53(+), MSI)으로 분류됐다. <br/> <br/>  우선 MSS/EMT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미만성 위암이 대표적인 예다. <br/> <br/>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미만성 위암은 암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거의 없어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다. <br/> <br/>  이번 연구에서도 다른 유형은 암 발생연령이 60대였던 데 반해 MSS/EMT형은평균 나이가 53세로 가장 젊었고, 생존기간도 72.2개월로 가장 짧았다. <br/> <br/>  반대로 유전자 복구시스템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MSI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암의 진행이 느린 편으로 나타났다. MSI형의 경우 60% 가까이가 1~2기였으며, 평균 생존기간도 100.9개월로 가장 길다. <br/> <br/>  진행성 위암의 나머지 유형은 암 억제유전자로 꼽히는 TP53의 유무에 따라 갈렸다. TP53의 기능이 남아있는 MSS/TP53(+)형은 주로 장형위암이 많았고,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br/> <br/>  반면 전체 분석 대상 300명 가운데 107명(35.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MSS/TP53(-)형은 TP53의 기능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다. HER2를 비롯한 암유전자의 증폭을 주로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SS/TP53(+)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다. <br/> <br/>  이에 따라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치료시 유전체 형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달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예후와 재발위험도가 다른 만큼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br/> <br/>  실제로 이들 환자의 재발률을 분석한 결과 MSS/EMT형의 경우 67.4%로 가장 높았으나 MSI형은 23.5%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br/> <br/>  이러한 분류는 암유전체국제연구팀(TCGA, The Cancer Genome Altas), 싱가포르 위암프로젝트 등이 보유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된 해외 위암환자 600명이상에 적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br/> <br/>김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위암이 유전형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 유형이 다르고 예후 및 재발위험도가 다름을  처음으로 보여준 중요한 결과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span class='quot0'>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차별화된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8.txt

제목: 이화의료원, 강서구 내발산동서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  
날짜: 20151125  
기자: 김희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310838  
본문: 이화여자대학교(총장:최경희)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을 개최했다. <br/> <br/>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지어질 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지하 5층과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 의과대학은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되며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8년 하반기 준공된다. <br/> <br/>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제공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대한민국 병원의 기존 진료 시스템에서 벗어난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건립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됐으며, 완벽한 감염 관리를 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 내과 병동과 음압 격리 병동 및 응급의료센터내 음압 격리실, 병동 내 별도 면회실 등이 설치된다. <br/> <br/>아울러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하며,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 창고 개설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r/> <br/>아울러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송도 국제 신도시 등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국제 의료 허브 의료기관으로서 전세계 대상 의학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br/> <br/>새 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첨단 영상 회의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과 동시통역 시설을 완비한 강당과 최신 기숙사 등 최고의 교육 연구 시설로 지어져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양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의과대학으로서 여성 의료인 육성에 앞장서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내 의학 발전과 국제 의학 교류의 중심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br/> <br/>최 총장은 기념사에서 “<span class='quot0'>새 병원과 의과대학 건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 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비전 실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49.txt

제목: 法, 몇끼를 굶어 흉기조차 들 힘 없었던 50대 강도 "딱하지만 징역형"  
날짜: 2015112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40201515  
본문: 암투병중인 모친과 형, 자식들을 거느린 50대가 생활고를 참지 못해 강도행각에 나섰다가 몇끼를 굶은 탓에 힘이 없어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렸다. <br/> <br/>법원은 50대 남성에 대해 "사정은 딱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br/> <br/>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인정 죄명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개6월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고 피해자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br/> <br/>경기도에서 학교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부도를 맞았다. <br/> <br/>재기를 노렸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공사가 잇따라 취소되며 끼니를 걱정할 정도까지 쪼들리게 됐다. <br/> <br/>이씨의 모친은 암 투병 중이고 형은 백혈병을 앓는 상황이었다. <br/> <br/>고등학생 자녀도 있었지만 부인과도 이혼했다. <br/> <br/>이씨는 '부자들에게 도움을 얻어보자'며 강남에 갔다가 여성 혼자 운전하는 외제차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br/> <br/>지난 7월5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여·61)가 혼자 벤츠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이씨는 조수석에 뒤따라 탔다. <br/> <br/>이씨는 피해자를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며 승강이를 벌였다. <br/> <br/>전날부터 밥을 먹지 못해 힘이 없었던 이씨는 피해자의 저항에 커터 칼을 떨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도망쳤지만 범행 5일만에 임시거처인 컨테이너 집에서 체포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0.txt

제목: '똥 이식'이 신(新)의료기술? 장내 세균 구성 비율 건강하게 바꿔  
날짜: 20151124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935609  
본문:   <br/> <br/> <br/>변(便) 이식,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섭취,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공급, 식생활 개선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유익한 세균은 늘리고, 유해한 세균은 줄이는 등 장내(腸內) 세균의 구성 비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제식품기능학술대회(ICoFF)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윤석후) 주최로 오늘(2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다. <br/> <br/>우리 몸에선 1∼1.5㎏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으며 장내 세균이 어떤 비율로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 면역력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장내 세균의 구성이 건강하게 짜여 있으면(높은 유익균 비율, 낮은 유해균 비율) 아토피 피부염ㆍ기관지 천식ㆍ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다발성 경화증ㆍ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자폐증ㆍ치매 등 신경계 질환, 당뇨병ㆍ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 암 등 거의 모든 질환들의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br/> <br/>이날 포항공대 기초과학연구원 임신혁 교수는 "변 이식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新) 의료기술"이며 "이런 '똥 이식'은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장내 세균의 구성 비율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br/> <br/>'똥 이식' 치료법은 한국ㆍ중국의 고의서(古醫書)에도 언급돼 있다. 어린이의 변을 약으로 사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다. 심지어는 일부 동물들도 동료의 변을 먹어 장내 세균의 구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임 교수는 "선진국에선 만성 감염에 의한 설사를 치료하는 데 똥 이식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 이미 사람 대상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현재 거의 90%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br/> <br/> 앞으로 변 이식을 통한 장내 세균 구성의 개선은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것이 임 교수의 평가다. 이식에 사용할 '건강한 똥'을 가려내는 기준이 아직 미비한데다, 변 이식을 통한 여러 감염성 질환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r/> <br/> 프로바이오틱스의 꾸준한 섭취가 장(腸)에서 유익균 비율을 늘리고 유해균 비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란 사실에 대해선 이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 <br/> <br/> 프로바이오틱스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다. 임 교수는 "김치ㆍ청국장ㆍ젓갈 등 여러 발효 식품엔 다양한 효능을 지닌 프로바이오틱스가 존재하는 데 그 대표 사례가 김치 유산균"이라고 설명했다. <br/> <br/>세계김치연구소 등의 김치 유산균 관련 연구를 통해 유산균이 장 활동 개선ㆍ면역력 증강 등을 돕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br/> <br/>한동대 생명과학부 빌헬름 홀자펠 교수는 "김치 유산균 중 한 종류는 급성 설사와 장의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란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며 "어린이의 성장 지연을 예방하고 유아의 유당 불내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br/> <br/>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뒤 세균 감염 증세가 나타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다.  <br/> <br/>임 교수는 "TV 광고와는 달리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스스로 군집을 이뤄 정착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며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r/> <br/>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장내 세균 구성 비율 개선에 유용하다. 올리고당이 포함된 콩류와 콩으로 만든 된장ㆍ청국장 등 발효식품, 마늘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다. 대부분의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 범주에 속한다. <br/> <br/>미국 뉴트라소스(NutraSource)사 수잔 조 박사는 " 돼지감자(뚱딴지)ㆍ치커리ㆍ야콘 등에 풍부한 이눌린(inulin)과 올리고당을 섞은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인 비피도박테리아(유산균의 일종)의 숫자를 장내에서 최고 35배까지 늘려준다"고 말했다. <br/> <br/>또 다른 올리고당(XOS)은 역시 비피도박테리아의 수를 71∼5000% 증가시켰다. 따라서 만성적인 장 트러블에 시달리는 이른바 '장트라볼타'라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 <br/> <br/>식생활 개선도 장내 세균의 구성을 정상화하는 데 유효하다. 음식을 소량씩 자주,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장내 세균의 구성을 건강하게 바꿔준다. 불규칙한 식습관도 피해야 한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져 장(腸)에 부패물질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된다. <br/> <br/>한편 23∼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6차 ICoFF는 4년마다 열리는 식품기능 관련 국제 학술대 <br/>로, 이번 대회엔 40여 개국에서 1300여 명의 식품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br/>  <br/>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1.txt

제목: 두통과 뇌졸중,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날짜: 201511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822029  
본문:   <br/> <br/> <br/>두통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80%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흔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진통제를 먹으며 참아 보기도 한다. <br/> <br/>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뇌졸중 환자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두통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는 것 같으면 이 두통이 뇌졸중에 의한 것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할 것이다. <br/> <br/>통계상 전체 두통 환자 중 뇌졸중 환자는 매우 드물지만, 거꾸로 뇌졸중 환자 중에는 뇌졸중 발생 당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18~32% 정도나 된다. 이러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어 어떤 종류의 두통이 뇌졸중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빠른 치료는 물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br/> <br/>24일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되는 두통과 뇌졸중과 연관된 두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성선병원 뇌졸중센터 이형석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br/> <br/>◇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통, 50% 이상 사망률 보여 <br/> <br/>뇌졸중과 연관된 두통은 다양하다. 그 중 특히 위험한 두통이 있는데, 바로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통이다. 이는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며 생존자 중 50%는 장애가 남는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경우나 격렬한 운동 직후, 벼락이 치는 듯한 두통 또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두통이 발생한다. <br/> <br/>심한 경우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며, 출혈의 양이 많으면 의식이 점차 나빠져 혼수상태가 되지만 적은 경우는 두통 말고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는 약 10% 정도이며, 심지어 동맥류 파열 전 경미한 형태의 예고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5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두통은 자칫 일차두통으로 오인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br/> <br/>특히 예고 두통은 피가 조금 새는 경우 발생하는 데, 이 경우 후에 재출혈(파열)의 빈도가 많이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단 파열이 되면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경미할 때 조치를 받아야 한다. <br/> <br/>◇ 치명적인 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뇌혈관수축증후군도 주목 받아 <br/> <br/>빈도는 적지만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히는 것은 뇌정맥 혈전증이다. 뇌에서 나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병인데, 대부분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즉 암이 있거나 감염증이 있을 때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거나, 유전적인 이유, 약물(호르몬제), 임신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br/> <br/>두통은 90% 이상에서 나타나며 10%에서는 다른 증상 없이 두통만 있다. 대부분 갑작스럽기 보다는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배에 힘을 주거나 누워있으면 정맥 순환이 더 어려워져 두통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br/> <br/>대부분 마비나 발음 이상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며 경련도 자주 동반된다. 치료가 늦어지면 출혈을 동반하는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빠른 진단 하에 항응고약물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다. <br/> <br/>최근에는 가역적 뇌혈관수축증후군(RCVS)이라는 질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원인은 염증, 종양, 코막힘에 쓰이는 혈관수축제나 우울증 등의 약물 등 다양하지만 이러한 자극으로 뇌혈관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br/> <br/>대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호전이 되지만 그동안에 두통이 동반되는데, 이때의 두통은 벼락두통의 양상을 띄며 43%의 환자는 경도의 마비, 경련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뇌혈관촬영을 해야 진단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쓰고 지켜볼 수도 있다. <br/> <br/>◇ 전조 있는 편두통,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 <br/> <br/>일반적으로 동맥경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도 20% 정도는 발생 당시 두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들로 인한 자극, 막힌 곳을 돌아가는 혈관의 자가 확장 등으로 두통이 생기는데, 우측 뇌 또는 소뇌에 발생한 경우, 편두통이 있었던 경우, 여자인 경우,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두통의 빈도가 더 높다. <br/> <br/>물론 뇌경색은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므로 마비 등이 나타나지만 시야를 담당하는 우측 후두엽이 손상될 경우 눈이 침침한 듯 하는 정도의 증상만 있거나 이 증상조차 무시하여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갑자기 발생한 두통이 있으면서 한쪽 편의 시야가 떨어진다면 반드시 이 부위의 뇌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br/> <br/>편두통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편두통은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두통이다. 주로 한쪽 또는 양측이 아프고 욱신거리거나 박동성이 있는 두통이 특징으로, 한 번 시작하면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된다. 구역, 구토가 흔하며 눈앞이 뿌옇게 되거나 번쩍이는 선이 보인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등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br/> <br/>이러한 전조가 있는 편두통의 경우 뇌졸중의 위험도는 2배, 여자의 경우는 3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45세 이하이면서 흡연을 하고 피임약을 먹은 여성 편두통 환자라면 위험도도 더욱 급격히 올라간다. <br/> <br/>편두통의 경우 혈관 수축제를 복용하는 것이 두통에는 가장 효과적인데, 이런 전조가 있는 편두통의 경우 또한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편두통 약을 무턱대고 먹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 적당한 약을 선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예방약을 먹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2.txt

제목: 당신을 노리는 조용한 '위암'  
날짜: 20151124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806747  
본문:   <br/> <br/> <br/>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황량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음식의 오랜 저장을 고민했다. <br/> <br/>그 결과 김치나 젓갈 등 음식을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지혜를 갖게 됐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내려온 우리나라의 맵고 짠 음식문화가 때로는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고대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장유진 교수의 도움말로 위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30대, 40대 암 종류별 사망률 1, 2위 <br/> <br/>위암은 서양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상위권 내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우리나라 암 종류별 사망률 3위로 30대, 40대 암 사망률 1위, 2위를 각각 차지한다. <br/> <br/>이 같은 결과는 고기와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서양과 달리 채소와 곡물이 주식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인 5g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성인 소금 섭취량(하루 평균 12.5g)등의 식생활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br/> <br/>◇ 조용한 위암, 적극적 검진으로 예방 <br/> <br/>위암의 발병 원인은 염분 섭취, 아질산염 나트륨 섭취, 흡연과 같은 환경적 영향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전적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초기 위암의 경우 80%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속 쓰림이나 더부룩한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궤양이나 위염 등의 증상으로 간과되기도 한다. <br/> <br/>위암은 3기나 4기까지 진행이 된 후에야 구토를 하고 배가 쉽게 부르며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없고 쉽게 피곤해진다. 더구나 암에서 피가 나는 경우 검은 변과 이로 인한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다. <br/> <br/>우리나라 위암 1기, 2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80~90% 이상으로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 그러나 말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10%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암 생존율 향상을 위해 조기 위암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 위암학회에서는 만 40세 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 내시경 치료, 최소 침습 복강경 수술로 맞춤 치료 <br/> <br/>우리나라 조기 위암의 일부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할 만큼 의료장비와 의술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기 위암은 암이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고 분화도가 좋다. <br/> <br/>크기가 작은 경우, 위를 절제 하지 않고 위암의 치료가 가능한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ESD)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생하는 식이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 확인 후에 추가적 위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br/> <br/>현재 초기 위암의 표준 치료 방법은 복강경 위절제술로 환자의 배를 20cm 가량 절제해야 하는 개복술과 달리 복부에 0.5~1.0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통해 시술에 필요한 수술장비, 카메라 등 각종 도구를 넣고 위절제술을 시행한 후, 추가로 약 4cm 가량의 절제창만을 내어 잘라낸 위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br/> <br/>복강경 수술은 기존 개복 수술과 같은 범위의 위와 림프절 절제를 할 수 있으면서 통증이 적어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br/> <br/>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복강경 위절제술은 연구 결과에 따라 진행성 위암의 경우까지 그 영역이 확대 될 수 있으며,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위내시경, 위점막 절제술 및 복강경 수술을 통한 위암치료가 가능하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3.txt

제목: 정부차원의 첫 '담배 실험실' 25일 문열어, 성분· 중독 위해성 분석  
날짜: 2015112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753999  
본문: 담배 중독성과 위해성 여부를 찾아내는 정부 차원의 실험실이 처음 문을 연다. <br/> <br/>24일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충북 오송의 본부 건물 내에 흡연폐해 실험실을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br/>흡연폐해 실험실은 담배의 성분 관련 실험을 하는 국가차원의 첫 실험실이다. 그동안 담배 실험실은  민간 차원에서 일부 대학의 부설 시설로만 있었다. <br/> <br/>당초 지난 8월 개소예정이었으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문이 늦어졌다. <br/> <br/>흡연폐해 실험실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연기표집장치, 스모킹 머신 등 실험 장비를 갖췄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질본은 이 실험실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도록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한편 전세계의 비슷한 연구소들이 모인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연구소네트워크(TobLabNet)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br/> <br/>실험실은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첨가물 포함)과 연기 등의 배출물을 분석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 <br/> <br/>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 <br/> <br/>또 담배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한편,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나 먼지 같은 환경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br/> <br/>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br/> <br/>실험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금연 정책 수립과 담배회사 대상 소송의 증거 등으로 활용된다. <br/> <br/>미국의 경우 국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식품의약국(FDA)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담배의 첨가물을 조사하고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4.txt

제목: 이화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 개최  
날짜: 201511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503799  
본문: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총장:최경희)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을 개최했다. <br/> <br/> 강서구 내발산동 신축 현장에서 개최된 이번 착공식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윤후정 명예총장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과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김영주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오혜숙 이화여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학교 관계자와 노현송 강서구청장, 신기남 국회의원(강서구 갑), 김성태 국회의원(강서구 을),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연구 강서구의회 의장, 이성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 병원 및 의과대학의 착공을 축하했다. <br/> <br/> 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지하 5층과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 의과대학은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되며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8년 하반기 준공된다. <br/> <br/> 이번 착공식은 김경효 의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새 병원과 의과대학의 건축 개시를 축하하고, 향후 순조로운 건축을 기도드리는 착공 기념 예배, 강미선 건축본부장의 경과보고, 김승철 의료원장의 환영사 및 최경희 총장의 기념사와 내외 귀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내외 귀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 병원과 의과대학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첫 삽을 뜨는 시삽을 했다. <br/> <br/> 이번에 착공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은 대한민국 병원의 기존 진료 시스템과 의료 문화를 바꿀 새로운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건립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되었으며, 완벽한 감염 관리를 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 내과 병동과 음압 격리 병동 및 응급의료센터내 음압 격리실, 병동 내 별도 면회실 등이 설치된다. <br/> <br/> 아울러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하며,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 창고 개설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r/> <br/> 아울러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송도 국제 신도시 등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국제 의료 허브 의료기관으로서 전세계 대상 의학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br/> <br/> 새 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첨단 영상 회의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과 동시통역 시설을 완비한 강당과 최신 기숙사 등 최고의 교육 연구 시설로 지어져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양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의과대학으로서 여성 의료인 육성에 앞장서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내 의학 발전과 국제 의학 교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br/> <br/> 최경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span class='quot0'>새 병원과 의과대학 건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 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비전 실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span class='quot1'>이화여자새 병원 및 의과대학 신축은 동북아 국제 의료 허브 의료 기관이 되기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국내 최초의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환경과 국제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의료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한편, 강서구와 지역 주민들은 마곡 지구에 1,036 병상 규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5.txt

제목: 한미약품 다중표적 항암신약(포지오티닙), 유방암 美 2상 본격화  
날짜: 20151123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415377  
본문:   <br/> <br/> 올해 3월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판권 이양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br/> <br/>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 www.hanmi.co.kr)은 포지오티닙의 글로벌 판권(중국-한국 제외)을 확보한 스펙트럼社가 최근 미국 FDA에 유방암 환자 대상의 임상2상 승인을 신청했다고 00일 밝혔다. <br/> <br/> 이번 임상2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을 토대로 결정되며,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예방 치료제(prophylactic therapies)의 투약이 함께 진행된다. <br/> <br/>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한 표적항암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국내 2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상 및 임상1상을 통해 기존 항암제 투여로 발생한 2차 내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br/> <br/>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포지오티닙은 유방암 뿐 아니라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신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미국에서의 2상은 포지오티닙의 상업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스펙트럼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 2상은 포지오티닙의 미국 허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포지오티닙 적응증 확대는 물론, 암 초기치료시 다른 치료제와 병용할 수 있는 시장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지난 3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및 개발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의 로열티 등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6.txt

제목: “문장으로 독자를 한 방에… 장편작가의 삶은 호랑이”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710365  
본문: “이 소설을 쓰기 전 김탁환과 쓴 후 김탁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골방의 몽상과 현장의 생생함을 아우르는 ‘취재형 작가’로 불혹의 10년을 활활 태우겠다. 아직도 내겐 젖은 장작이 많다.” <br/> <br/>소설가 김탁환(47)이 장편소설 ‘나, 황진이’ 후기에 붙인 말이다. 삼십대 벽두에 소설가 출사표를 던진 이래 일년에 두세 편씩 장편소설을 펴내며 초인적인 필력을 과시한 그가 ‘아직도 내겐 젖은 장작이 많다’고 투지를 불태운 글이다. 과연 그의 화력은 대단했다. 사십대에 접어들어 그가 마음먹고 쓴 ‘힘 센’ 장편만 세 권이고 여타 덧붙인 소설들은 여럿이다. 최근에는 영화와 소설의 결합을 표방하는 ‘무블(Movie+Novel=Movel)’ 시리즈로 ‘조선 마술사’(민음사)를 추가했는데, 등단 20년 남짓에 51권째 장편소설이다. 놀라운 생산력이다. <br/> <br/>“영화로 팔아먹기 위해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탁환과 영화기획자 김탁환입니다. 소설을 잘 쓰면 영화 기획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최소한 5~6년 동안 영화 기획피디를 하면서 밑바닥에서 배웠습니다. ‘나, 황진이’ 같은 소설은 여성 1인칭 고백체로 내면을 옮긴 것이어서 절대 영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최인호의 ‘황진이’를 비롯한 많은 버전이 있는데 주제가 확실하고 같은 인물이라도 새로운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br/> <br/>김탁환의 말을 들어보면 ‘조선 마술사’는 소설보다는 영화 기획에 가깝다. 애초 ‘무블’이라는 작명으로 드러내놓고 시작한 작업이다. 다음달 유승호 주연으로 개봉된다. ‘열하일기’의 ‘환희기’에 박지원이 묘사한 청나라 저자 거리 요술사들의 이야기를 실마리로 조선 마술사 ‘환희’가 ‘청명’ 공주와 사랑을 나누며 조선 땅을 넘어서 서역을 건너 유럽까지 치닫는 활달한 상상력을 펼친다. <br/> <br/>이 소설은 고향 친구 이원태와 공동 작업했다. MBC 피디 출신으로 온갖 진기한 이야기를 모아 픽션으로 구성한 ‘서프라이즈’ 시리즈를 100회가량 만들었던 이원태 감독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김탁환은 말했다. 그 친구와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가 밤새 구상해 영화와 소설로 나온 첫 번째 결실이 고종황제와 커피 이야기 ‘노서아 가비’였다. <br/> <br/>서울 목동에 ‘원태’와 ‘탁환’이 함께하는 ‘원탁’이라는 기획사무실을 차렸다. 소설 쓰기는 파주 작업실에서 한다. 파주에 가면 소설가요, 목동에 오면 영화기획자로 사는 것이 이 즈음 그의 패턴이다. 김탁환의 소설들은 이미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터였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황진이’를 비롯해 백탑파 시리즈 중 하나로 흥행에도 성공한 ‘열녀문의 비밀’들이 그것이다. <br/> <br/>“장편 작가의 삶은 호랑이와 비슷합니다. 사자와 달리 혼자 다니는 점이 첫 번째요, 반경 200~300㎞를 돌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점이 그 두 번째이며, 사냥할 때는 열흘씩이나 굶어가며 집요하게 추적하면서도 존재를 감추는 점이 세 번째 그것이고, 마지막에는 붕 떠올라 단번에 앞발로 목을 쳐서 한 방에 끝낸다는 점입니다. 장편 작가도 문장으로 한 방에 가둬 가지고 독자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br/> <br/> 등단 20년 남짓한 기간에 51권째 장편소설 ‘조선 마술사’를 펴낸 소설가 김탁환. 그는 “영화를 업고 문학성이 없는 소설을 대충 쓸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그걸 깨기 위해 더 완벽한 문장과 상상력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br/>남제현 기자개마고원을 누비고 백두산을 휘달리던 흰머리 호랑이와 개마고원 명포수 이야기 ‘밀림무정’의 작가답게 그는 글쓰기를 호랑이의 삶으로 말했다. <br/> <br/>김탁환은 창원에서 나서 서울대 국문과와 대학원을 거쳐 평론가로 살다가 해군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복무했다. 해사 시절 ‘열두 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를 펴내며 소설가로 데뷔했고 ‘불멸의 이순신’ 초고 4000매를 써서 제대한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40대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의 혁명가를 다룬 ‘혁명―광활한 인간 정도전’,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룬 ‘뱅크’, 인간과 자연의 대결을 다룬 ‘밀림무정’에 필력을 집중했다. 괴력에 가까운 글쓰기 노동력은 어디에서 발원한 것일까. <br/> <br/>“외할아버지가 백 그루 넘는 앵두나무를 키웠습니다. 막내 외삼촌은 앵두나무 밑에서 쉼없이 소설을 썼습니다. 삼촌은 제가 다섯 살 때도 앵두나무 밑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고, 열다섯 살 때도 쓰고 있었으며 스무 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상경할 때도 여전히 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암에 걸린 삼촌이 드디어 40년 동안 써온 소설을 읽어보라고 건네더군요. 등단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라도 출판해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삼촌은 웃었고,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내내 앵두나무 밑에서 글을 쓰다 간 삼촌은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평생 쓰면서 인생을 성찰하고 자신을 단련시키다 간 겁니다. 그 삼촌이야말로 제 문학의 아버지입니다.” <br/> <br/>어린시절부터 소설을 쓰는 삼촌을 보아온 김탁환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었다. 백일장에 나가 쓴 글들을 삼촌에게 보여주면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곤 했다. 자전적인 소설집 ‘진해 벚꽃’을 보면 김탁환의 성장기가 그려진다. 창원에서 마산으로 전학 나오던 열세 살 봄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축구선수, 사냥꾼, 마라토너가 꿈이었던 소년은 이후 감히 그 멋진 희망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책 속에 파고들었다. 소년이 대리만족한 책 속의 세상은 끊임없이 광활한 세계를 꿈꾸는 ‘모험을 떠나지 않는 삶은 삶도 아닌’ 삶이었다. <br/> <br/>“지금까지 써 온 소설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변화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요동을 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이해가 되는 인물은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면 문장으로 그 사람을 살아보면서 알아나가는 거지요.” <br/> <br/>김탁환에게 슬럼프는 딱 한 번 있었다. 2003년 오페라 이순신 대본을 쓴 뒤 하루 두 문장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 두어달 계속되어 미칠 지경까지 갔다. 하릴없이 러시아 오페라 공연을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한 여기자의 조언을 얻어 수염을 깎지 않았더니 거짓말처럼 글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 김탁환 마스크의 상징은 코 밑과 턱을 감싸는 검은 수염으로 굳어졌다. 김탁환은 지난해 시작하려다 세월호 때문에 대신 ‘목격자들’을 썼지만 소설가로서 가장 써보고 싶은 소설은 ‘사랑 같은 혁명, 혁명 같은 사랑’이라고 했다. 그는 “사랑은 심장을 바꾸는 일”인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어 ‘판타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믿는다고 말했다. <br/> <br/>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만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이야기에 굶주리고 열광한다. 김탁환은 “<span class='quot0'>근본적으로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다른 인생에 관심이 많은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 이야기꾼 김탁환, 그는 2006년 펴낸 소설집 후기에 “<span class='quot0'>10년 후에도 작업실 문앞에 ‘지금 내 인생의 대표작을 집필 중이니 방해 말 것’이라는 오만한 문장이 붙어 있기를 바란다.</span>”고 썼다. 김탁환은 여전히 오만하게 대표작을 집필하는 중이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7.txt

제목: 내주 ‘보험 슈퍼마켓’ 오픈… 업계 판도변화에 태풍? 미풍?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639001  
본문: 온라인 보험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다음주 문을 연다. <br/> <br/>내년 보험업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험업계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면 판매 비중이 큰 한국 보험시장 특성에 비춰볼 때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br/> <br/>◆한눈에 가격 비교 <br/> <br/>금융위원회는 23일 시연회를 통해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처음 공개했다. 보험다모아는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30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br/> <br/>단독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여행자보험, 변액 등 저축성보험 총 6종을 판매한다. 19일 현재 36개사 207개 상품이 탑재돼 있다. 보험 종류를 선택하고 나이, 성별, 보험가입기간 등 조건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상품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온라인전용상품(CM)은 ‘인터넷바로가입’을 클릭하면 각 사 가입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TM(텔레마케팅) 상품 등의 경우는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다. <br/> <br/>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내년 4월에는 온라인 전용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수화해 복잡한 보험상품의 비교를 할 수 있게 하고, 상품별 사업비도 공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 상품 가격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br/> <br/>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슈퍼마켓은 쉽게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CM은 평균적으로 15∼16%, TM 상품은 10∼12% 저렴한 편이다. <br/> <br/>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는 삼성화재만이 유일하게 온라인가입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온라인 상품 제공 및 가입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정기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판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우리는 온라인상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span>”라고 전했다. <br/> <br/>◆출혈경쟁·불완전 판매 우려 <br/> <br/>일각에서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자칫 가격경쟁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보험은 가격뿐 아니라 보장 내용, 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얼마나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저렴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냐’ 이건 의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격이 싸다고 가입했는데 기대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불완전 판매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이 상품 가격을 낮출 여력이 적기에 대형사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br/>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도 많고,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는 CM상품도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설계사들이 여러 차례 설득 과정을 거쳐 대면가입하는 일이 많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br/> <br/>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보험다모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관건</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다양한 상품은 물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상품 컨설팅 채널 등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8.txt

제목: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51123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5519159  
본문: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회장 동석호·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오는 12월 5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오비스홀 151호 대회의실에서 '건강과 검진의 질적 향상과 검진의 재충전'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br/> <br/> 이번 학회에는 명지병원 김동일 교수의 '한국의 건강 검진 규모 및 학회 회원 현황'특강과 함께 1부 세션 ▲스마트 암 검진(서울의대 암연구소 김철우 교수) ▲검진 내시경 검사의 적정관리(강동경희대 차재명 교수) ▲건강 검진결과의 연구활동(성균관의대 유수호 교수)이 진행된다. <br/> <br/> 2부 세션에서는 ▲건강 검진과 삶의 휴식(연세의대 이덕철 교수) ▲근골격계 통증 예방을 위한 운동 전문가의 역할(서울아산 김용환 교수) ▲건강증진센터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강동경희대 김희정 과장)가 발표된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기총회 및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 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59.txt

제목: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2015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날짜: 2015112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601533  
본문:   <br/> <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로 한국PR협회에서 주최하는 '2015 한국PR대상'에서 종합병원 최초로 이미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br/> <br/>이미지 PR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는 치열해진 의료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이화의료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시작되었다. <br/> <br/>1887년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전신으로 하는 이화의료원은 우수한 여성 질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차별화된 자산과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여성암 분야를 특화·육성하게 되었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검진부터 진료, 환자 케어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암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했다. 먼저 여성의 '몸'을 잘 아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여성암 전문 인력 충원 및 최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운영하며 여성친화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br/> <br/>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br/>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치료와 치료 후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파워업 프로그램 및 명의와 함께하는 여성암 환자 힐링 여행, 여성암 환자 10년 생존 축하 파티, 암 극복 프로젝트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여성암 환자들의 정서적 치유까지 돌보았다. <br/> <br/>또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과 함께 여성 건강 8대 수칙 및 여성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법, 연령별 유방 건강법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여성건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외에도 여성건강백서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하고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를 개소해 여성암 조기 발견 및 완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br/> <br/>이대여성암병원 백남선 원장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보구여관 정신을 계승하여 여성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암 환자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r/> <br/>한국PR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국PR대상은 매년 대상 및 각 분야의 우수한 PR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홍보대행사인 엔자임헬스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0.txt

제목: 내년부터 암 등 4대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혜택 대폭 늘어나  
날짜: 201511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520269  
본문: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br/> <br/>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암·시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br/> <br/>그러나 내년부터는 급여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의 진단, 특정 항암제 처방, 혈액암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 등과 관련한 134종의 유전자 검사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br/> <br/>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br/> <br/>급성 골수병 백혈병의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경우 환자가 2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7000원으로 준다. <br/> <br/>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br/> <br/>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재가 인공호흡기(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의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 급여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br/> <br/>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br/> <br/>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1.txt

제목: 빠진 어금니, 자신의 치아 끌어와 메운다  
날짜: 20151120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449057  
본문: 아래턱쪽 어금니를 상실했을 때, 사랑니를 포함한 다른 어금니들을 이동시켜 대체하는 치료방식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br/> <br/>무작정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에 앞서, 교정치료를 통해 자신의 자연치아로 손실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br/> <b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이기준 교수. <br/>20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이기준·백형선 교수팀은 교정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로 임플란트 시술을 대체한 환자군의 치료전후 치조골(잇몸뼈)와 치근(이뿌리)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상당한 이동에도 불구하고 치조골 높이가 정상인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병원을 찾아 교정치료를 받은 16세 이상 환자군을 연구대상 집단으로 선정했다. 모두 37명(남성 18명, 여성 19명)으로, 총 51개의 상실치아에 대한 교정치료가 연구관찰 됐다. <br/> <br/>연구팀은 상실된 어금니 양 옆의 치아들을 레버 암 또는 미니스크루 도움을 받은 치근 스프링으로 연결해 상실 어금니 방향으로 서서히 끌어내는 교정치료를 시행했다. <br/> <br/>평균 23.2세인 환자군은 31.7개월의 치료기간을 보였으며, 잇몸 위 치아는 평균 4.97mm를 움직였고 잇몸 속 치아 뿌리는 평균 8.64mm를 이동해 잇몸 위 치아보다 치아 뿌리가 2.81배 더 이동한 것으로 측정됐다. <br/> <br/> 연구대상군(37명, 51개 상실치아)의 교정치료 후 변화수치. <br/>연구팀은 교정치료로 치아 뿌리가 이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조골 소실 정도와 교정치료 완료 후 치근의 길이를 측정했다. <br/> <br/>전체 연구대상(51개 치아)군의 약 80%에 육박하는 40개 치아에서 치조골 소실 정도가 1m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근의 길이 또한 1mm 이내로 변화해 환자가 교정된 자연치아를 평생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교정치료 종료 후 치조골 소실량. <br/>연구를 진행한 이기준 교수는 "교정치료는 임플란트 대체 시술보다 치료 종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 과정에서 치아가 골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골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br/> <br/>또한 임플란트 대체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치아 임플란트가 일정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교정치료에 의한 손실치아 대체법은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을 설명했다. <br/> <br/>이기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아래턱 치아상실 환자군만 조사했지만, 위턱(상악) 치아상실 환자에 적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 교수는 "성인이 되어 영구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무작정 임플란트 대체 시술을 시행하기보다 자신의 자연치아를 살려 대체하는 교정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특히, 30대 이하의 환자에서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br/> <br/> A - 레버 암을 이용해 상실 어금니 방향으로 끌어내는 치료 <br/>B - 미니스크루 도움을 받은 치근 스프링으로 연결해 상실 어금니 방향으로 끌어냄 <br/>해당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인 '미국 치과의사협회지(JADA : THE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최근호에 'Mandibular molar protraction as an alternative treatment for edentulous spaces' 제목으로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2.txt

제목: 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제 13회 국민건강나눔포럼' 개최  
날짜: 20151119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115342  
본문:   <br/> <br/> <br/>과거 사형선고와도 같았던 암은 이제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는 극복 가능한 질환이 되었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1995년 41.2%에서 2008~2012년 68.1%로 20년 사이 20%이상 향상됐다. 때문에 요즘에는 암 생존자보다 암 경험자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이고 있다.    <br/> <br/> 하지만 암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암 경험자의 경우 기존의 암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암이 발병하는 '2차 암'의 위험이 암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높다. 암을 유발하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처음 생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방사선·항암제 등에 의해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또 암 치료 후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과 재발에 대한 공포, 우울, 만성 피로, 무기력 등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백내장, 심부전, 신기능 이상, 폐 섬유화,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을 상당기간 경험할 수도 있다. <br/> <br/> 이처럼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운동 및 비만관리는 암의 재발을 40~6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암 생존율을 최대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소장 노동영 교수)는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운동을 통한 암 경험자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제 13회 국민건강나눔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1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1부 ▷암 치료 여정에 따른 암 경험자의 건강문제 – 송윤미 교수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암 경험자의 2차 암 예방과 신체활동 증진 : 국내외 관련 근거와 현황 – 임민경 교수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2부 ▷운동과 체력이 암 치료와 생존에 미치는 효과 – 김연수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암 종별 운동적용 방법 및 운동중재 – 송욱 교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발표로 진행된다. <br/> <br/>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들의 운동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암 경험자들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 있지만 미국스포츠의학협회(ACSM)가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해 권고하는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꾸준히 지키는 환자는 매년 25%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때문에 국민건강지식센터는 포럼을 통한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치료종료 암환자를 위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암경험자의 운동과 건강에 대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br/> <br/> 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현재 유방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대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전국의 병·의료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br/> <br/> 특히 암 경험자들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운동프로그램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외과, 종양내과를 비롯한 임상 진료과와 간호학과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스포츠레저학과, IT개발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노동영 교수는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암경험자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개선하고자 암경험자의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포럼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 경험자를 위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제 13회 국민건강나눔포럼' 사전신청은 국민건강지식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3.txt

제목: 노화 억제하는 세스트린 신호전달체계 발견  
날짜: 2015111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4002025  
본문: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국 미시건대학 교수팀이 노화 조절 기능을 가진 세스트린(Sestrin) 단백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활성화되고 억제 되는지 작용원리를 발견해 향후 노화와 암 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 조절 기능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됐다. <br/> <br/>세스트린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조절체 단백질이다. mTOR라는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저해하여 암 세포증식과 노화와 관련한 퇴행성질환,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지금까지는 이 세스트린이 mTOR신호전달계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먼저 AMPK라는 신호전달계에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mTor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br/> <br/>하지만 이러한 작용원리는 세스트린이 노화 등을 억제하는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으며, GATOR1과 GATOR2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또한 mTORC1 활성화에 필수요소인 RagB를 조절하는 GATOR1/GATOR2 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보고되었다. <br/> <br/> <br/>김정식 이준희 교수팀은 세스트린2가 GATOR2에 붙으면 GATOR1이 분리되고 분리된 GATOR1이 RagB에 작용하여 mTORC1 신호전달체계를 억제시키는 원리를 발견했다. <br/> <br/>김정식 교수는 "mTORC1이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며, 노화와 암발생 억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조절 기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이준희 미시건 주립대 생리학과 교수팀의 논문은 네이쳐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c Report) 3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4.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항암치료환자 위한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5111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956038  
본문:   <br/>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항암치료환자를 위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주최하는 이번 '항암치료환자를 위한 공개건강강좌'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료 정보와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항암치료환자를 위한 공개건강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공개강좌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표적치료제와 신약 임상시험(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 ▲암환자의 영양 관리(영양실 신아름 영양사)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암 환자 운동, 이렇게 하셔야 효과적입니다(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 ▲암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정신건강의학과 김정현 교수)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br/> <br/>'항암치료환자를 위한 공개건강강좌'를 준비한 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는 "새로운 표적치료제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암환자와 가족분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진료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암 치료 전문 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강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5.txt

제목: 동탄성심병원, '2015년 혈액종양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날짜: 20151119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951245  
본문:   <br/> <br/> <br/>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본관 4층 화상회의실에서 '2015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br/> <br/>이번 연수강좌는 '암 질환의 최신지견-위암'을 주제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정주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민국 암 검진 권고안 및 실제 적용(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정훈 교수) △위암 항암치료의 실제(한림대성심병원 한보람 교수) △위암 표적치료의 실제와 부작용(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정현애 교수) △표적치료제의 피부부작용(한림대동탄성심병원 배유인 교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며, 별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br/> <br/>혈액종양내과 과장 정주영 교수는 "위암은 적극적인 검진 시스템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표적치료제와 표준 치료제의 개발로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질환"이라며 "연수강좌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개원의와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br/> <br/>등록 및 문의는 온라인(http://dongtan.hallym.or.kr)과 이메일(hyunaejung@hallym.or.kr),  전화(031-8086-2395, 2396)로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2평점이 주어지며 병원 무료주차권과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6.txt

제목: 여의도 성모병원, 적자 감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말기암 환자 집중  
날짜: 2015111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940096  
본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말기암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br/> <br/>이날 여의도성모병원은 고위험 산모 민 신생아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인 총 37병상(분만실 8, 신생아실 9, 신생아 집중치료실 20) 규모의 '가톨릭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설했다고 알렸다. <br/> <br/>또 병원은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도 최근 오픈했다. <br/> <br/>4인실 3개, 1인실 2개 등 총 14개 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는 임종실, 요법실, 상담실, 목욕실 등이 별도로 마련됐다. 또 가족들을 위한 실내정원도 갖췄다. <br/> <br/>병원 측은 이 센터에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원목자, 자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가톨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을 별도로 둘 방침이다. <br/> <br/>호스피스 병동은 향후 인근 서울성모병원의 병동과 통합돼 총 37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br/> <br/>여의도성모병원은 이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br/> <br/>염 추기경은 "가톨릭 의료기관은 생명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두 센터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7.txt

제목: [당신의 삶 안녕하십니까] 외로워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리워도 참고  
날짜: 20151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705368  
본문: ‘늙은이들은 외로워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리워도 참고 살지…(중략)…늙은이들은 그렇게 슬픔에 갇혀 겨우 숨을 쉬지. 하지만 그 슬픔에서 해방되어 새로 시작할 무엇도, 심지어 슬픔을 깨달을 자각력도 마비돼 있어’ 김원일의 소설인 ‘슬픈 시간의 기억’의 주인공 김씨는 양로원에 홀로 남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노년의 우울한 삶의 풍경은 비단 소설 속 풍경만은 아니다. 고령화시대가 깊어가면서 노년의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br/>◆전체 우울증 환자 10명 중 4명은 노인 <br/> <br/>서울 종로에 사는 박금자(70·여)씨는 거의 온종일 TV 앞에서 지낸다. 딱히 TV를 시청하는 것도 아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이 연례 행사가 돼버린 박씨는 집에 틀어박힌 채 자녀들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 박씨는 “<span class='quot0'>집에만 있으니 가슴이 짓눌리는 듯이 답답하고 이따금씩 외로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span>”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얼마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br/> <br/>평소 서울 정릉천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소일거리인 김탁호(84)씨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하자니 두렵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은 자식들과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난 하루종일 집 근처 정릉천만 오간다”며 “쓸쓸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금은 집사람이 있으니 밥도 챙겨주고 하지 집사람이 떠나면 애들 집에서 눈칫밥 먹기도 힘들고 어떻게 될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씨 역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br/> <br/>18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우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60대 이상 노인은 25만19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우울증 환자(60만9469명)의 41%에 육박하는 수치다. 노인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0년 9만6722명이었던 60대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10만907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우울증 환자는 7만8261명에서 10만7272명으로, 80대 이상 우울증 환자는 2만833명에서 3만5594명으로 증가했다. <br/> <br/>이풍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 연구원은 “<span class='quot1'>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 이른 퇴직으로 사회와 단절돼 노인 우울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노인 우울증이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정책 등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당신도 우울증 환자일 수 있습니다’ <br/> <br/>노인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지만 여전히 노인들은 우울증을 부끄러워하거나 질병이 아닌 간단한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br/> <br/>얼마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오순자(71)씨는 주변에서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는 이야긴 들었지만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br/> <br/>오씨는 “<span class='quot2'>남편이 지난해 암으로 숨진 뒤 손자들도 보면서 잘 살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쉴 때 뭔가 하는 것 없이 외롭고 적적했던 게 우울증이었구나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노인들은 우울증에 무감각해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br/> <br/>노인 우울증은 신체적 질병, 재정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생기기 쉬운 질병이다. 대체로 외로움, 심리적 불안감, 소외감 등을 동반한다. 여러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데 노화, 질병 등의 이유로 생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등 근육통이 생긴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돼 증상이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 쉽다. 노년기에 우울증이 오면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본 것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우울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인 시공간능력파악장애, 계산착오 등을 보이지 않아 구분할 수 있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 우울증 자가 진단표(그래픽 참조) 항목 중 8개 이상에 해당되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br/> <br/>이목희 의원은 “<span class='quot3'>60대 이상인 베이비붐 세대 대다수가 은퇴 후 자식교육 등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우울증은 조기 치료를 통해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8.txt

제목: '내부자들' 예매율 1위가 시사하는 것들  
날짜: 20151118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654185  
본문: 영화 '내부자들' 개봉 D-1, 예매율 33.6% '1위' <br/> <br/>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주연의 정치·범죄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개봉을 하루 앞두고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검은 사제들' '007 스펙터'와 같은 인기작들을 제치고 오른 정상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br/> <br/>18일 오후 7시20분 영진위 집계 기준 '내부자들'은 33.6%의 실시간 예매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개봉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더 파이널'의 19.5%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br/> <br/>'내부자들'은 '미생'의 인기작가 윤태호의 미완결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 개봉 전부터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개성 강한 캐릭터의 향연 등이 호평 받으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br/> <br/>그러나 그 누구도 '내부자들'의 흥행을 쉽게 단정짓진 못했다. 영화촬영이 한창이던 무렵 주연배우 이병헌을 둘러싼 협박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우려로 개봉은 1년 가까이 미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개봉을 앞두게 됐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br/> <br/>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1위'를 하는 건 그리 새롭거나 놀라운 풍경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자들'의 1위가 갖는 의미는 조금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br/> <br/>'청소년관람불가'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매관객들을 선점했다는 의미에 더해 '원작, 콘텐츠의 힘'을 믿는 관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영화 한 편이 나왔다"는 평가가 실제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br/> <br/>'내부자들'은 우리 사회에 시커먼 암덩어리처럼 자리잡은 정치, 경제, 언론 유착 비리를 신랄하게 파헤친 작품.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안상구(이병헌)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우장훈 검사(조승우)와 함께 복수를 계획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경영, 김홍파, 배성우, 김대명, 이엘, 조재윤, 조우진 등 배우들의 열연은 130분 러닝타임은 지루할 틈 없이 꽉 메운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69.txt

제목: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제6차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51118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545091  
본문:   <br/> <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오는 12월 5일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br/> <br/> 열에 의한 암의 치료는 고대로부터 시행되어온 치료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기술의 한계로 주류의 치료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19세기말부터 고열에 의해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20세기말에 고주파에 통한 온열치료기기가 등장, 새로운 암치료 방법으로 온열암치료와 방사선요법 또는 항암제와 2제 또는 3제 병용에 대한 많은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br/> <br/> 이런 치료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한 학술적인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의료진들이 2010년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를 창립 발족하였고 매년 온열암요법에 의한 암치료의 임상 경험을 나누고 온열암치료 관련 연구들을 실시하고 있다. <br/> <br/> 또한 온열암치료가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임상시험이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해외 학술지에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온열암치료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들이 계획되고 진행하고 있다. <br/> <br/> 제6차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학술대회는 'Oncothermia Treatment from Bench to Clinic'이란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SCI 학술지에서 발표된 온열암치료와 관련된 연구의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향적 임상시험들의 경과에 대해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br/> <br/> '온열암치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 미네소타대학교의 송창원 교수의 발표를 포함, 4명의 해외 연자들과 14명의 국내 연자들이 온열암치료와 관련하여, 온열암치료의 일반분야, 기초연구분야와 임상연구분야의 3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br/> <br/> 한편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는 201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김승철 교수가 회장을 맡게 되며, 빠른 미래에 한국에서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의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0.txt

제목: ‘한국의 사위’ 호건 美 메릴랜드 주지사 암 완치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236120  
본문: 지난 6월부터 비 호지킨 림프종 암 치료를 받은 래리 호건(사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100% 완치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 여사로 인해 ‘한국의 사위’로 통하는 호건 주지사는 이날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span class='quot0'>믿어지지 않지만 오늘로서 100% 암이 완치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지난 6월 비 호지킨 림프종 3∼4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화학 치료를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호건 주지사는 총 30일간 매회 24시간 동안의 화학 치료와 세 번의 척수액 검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br/> <br/>그는 화학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모습을 당당하게 일반에 공개했으며 투병 생활 중에도 주지사 업무를 수행했다. <br/> <br/>호건 주지사는 암 발병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그를 격려했으며 다른 암 환자들로부터 투병기간 동안 격려 편지가 쇄도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br/> <br/>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1.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영랩 ‘20대 데일리룩 콘테스트’ 이벤트 외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218335  
본문: 영랩 ‘20대 데일리룩 콘테스트’ 이벤트 <br/> <br/>삼성카드는 영랩 콘테스트 3차 ‘20대 데일리룩 콘테스트’(사진)를 진행한다. 끼가 넘치는 20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에 선발된 1팀(개인포함)에는 톱모델 정호연과 함께 패션지 인스타일 화보를 촬영할 기회와 역량지원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오는 29일까지 본인의 개성과 스타일링을 드러내는 데일리룩을 촬영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본인 SNS 계정에 해시태그(#영랩콘테스트)와 함께 업로드한 뒤 삼성카드 영랩 홈페이지로 본인의 SNS 계정 URL을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br/> <br/>은행권 최초 편의점 사업 필요자금 대출 <br/> <br/>수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My 편의점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업자금 대출대상은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창업예정자로, 대형 편의점본부뿐만 아니라 소형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창업예정자도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대 2억원, 일반자금 최대 3억원이며, 사업장 구입 시에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br/> <br/>고령자·유병자도 간편한 심사만으로 가입 <br/> <br/>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나 유병자들도 간편한 심사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더(THE) 간편한 입원보험’을 출시했다. 병을 앓았던 사람들도 45세부터 80세까지 서류 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해 90세까지 입원 및 수술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을 하거나 추가검사 소견을 받은 일이 없고,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한 일이 없어야 한다. 또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한 일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2.txt

제목: 이화의료원, AIA생명과 함께 여성암 환우 지원 나서  
날짜: 2015111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101912  
본문:   <br/> <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이하 AIA생명)과 함께 저소득층 여성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br/> <b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6일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에서 '저소득층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AIA생명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AIA생명의 다니엘 코스텔로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br/> <br/>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번 여성암 환우 암 극복 지원금을 통해 여성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환우를 대상으로 입원비 및 외래 치료비로 1인당 최대 450만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br/> <br/> 또한 30세부터 70세 저소득층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한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 여성암 무료 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암 환우와 함께하는 '힐링여행'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br/> <br/>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AIA생명의 후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암 환우들이 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암 예방과 치료,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여성암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여성건강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애 주기별 여성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치료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br/> <br/> 여성 대상 마케팅 및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온 AIA생명은 최근 여성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여성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인 'AIA투게더'를 런칭한 바 있으며, 이대여성암병원 의료진과 여성 건강 관련 전문 컨텐츠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여성암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3.txt

제목: 본다빈치, 컨버전스아트로 암환자들에게 힐링 선사  
날짜: 20151117  
기자: 이경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3035139  
본문: 컨버전스아트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본다빈치는 '비컨 및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환자안심케어 서비스' 프로젝트에 자체 힐링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br/> <br/> 본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 국책사업으로 벤플이 주관, 경희의료원(외과 이길연 과장, 프로젝트 총괄)이 참여하고 있다. <br/> <br/> '비콘서비스'는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여 암환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힐링투어, 환자콘텐츠 정보제공, 운동량체크 등 유용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모아 모바일 앱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br/> <br/> 본다빈치는 이 중 '환자콘텐츠 정보제공' 부문에 감성회복프로젝트 시리즈 '헤세와 그림들 展', '모네, 빛을 그리다 展' 등의 콘텐츠가 탑재 및 암환자의 치유프로그램을 위한 영상을 함께 납품할 예정이며,  암환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넘어선 힐링과 치유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트를 기획 및 제작하고 있다. <br/> <br/> 본다빈치 관계자는 "컨버전스아트 '반 고흐: 10년의 기록 展', '헤세와 그림들 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선사할 수 있게 되어 본 프로젝트와 함께 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br/> <br/> 이어 "자신의 치유를 위해 그림을 그렸던 헤르만 헤세의 그림들을 통해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br/> 한편 본다빈치는 지난해 전시계에 '아트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감성회복 프로젝트로 '반 고흐: 10년의 기록展', '헤세와 그림들展'을 성공적으로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감성회복프로젝트 3탄 '모네, 빛을 그리다展'을 오는 12월 11일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하여 12일대전무역전시관과 중국에 연속으로 오픈한다. <br/> <br/>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4.txt

제목: 나사렛국제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날짜: 20151117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949343  
본문:   <br/> <br/> <br/>나사렛국제병원(이사장 이강일)은 지난 16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지정병원으로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 운영 및 병동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인간호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br/> <br/>세안, 세발 등 기초적인 위생간호에서부터 식사보조, 이동 및 운동보조, 상처관찰 및 체위변경 등을 통한 욕창 예방까지 환자의 자가 간호 능력 향상과 조기회복 촉진을 돕는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11층 병동 총 10실 45병상을 포괄간호병동으로 지정, 병원 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이를 위해 서브스테이션, 환자 관찰 모니터, 이동식 노트북 등 환자 모니터링 시설과 낙상 방지용 안전바, 간호사 호출벨, 중앙호출 시스템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추가 확충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이사장은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병원 내 감염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사렛국제병원은 이번 포괄간호병동 지정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 <br/>나사렛국제병원은 의학·한의학·통합기능의학을 기반으로 24개 진료과, 8개 전문센터로 구성, 44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인천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응급의료기관평가와 암 검진평가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결과 고관절치환술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5.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건강한 영양 간식 '녹차 푸딩'  
날짜: 20151117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941375  
본문: 녹차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 주는 엽록소가 풍부하다.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녹차는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타민C가 레몬의 5~8배나 함유돼 있다. 암 예방, 식중독 예방, 멜라닌 색소, 기미, 주근깨 방지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카테킨 성분도 다량 함유돼 있다.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용재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br/> <br/>식품을 냉장고 보관하기 전 녹차로 잘 헹궈 넣어두면 살균효과가 있어 훨씬 오랜 시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 고기 요리의 냄새를 없애는 데 녹찻물을 사용하거나 요리하고 손에 밴 냄새 역시 찻잎으로 닦으면 효과적이다. <br/>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말차 2작은술 ▲우유 1컵 ▲설탕 1/4컵 ▲젤라틴 가루 1큰술 ▲물 4큰술 <br/> <br/>만드는 법 <br/> <br/>1. 젤라틴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인다. <br/>2. 1번에 우유를 넣고 끓인 다음 푸딩 틀에 부어 냉동고에서 굳힌다. <br/>3. 2번를 그릇에 담고 위에 말차 가루, 체리를 붙여서 완성한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6.txt

제목: [박수찬의 軍]순국선열들이 지키려던 조국은 분단된 남북이었을까?  
날짜: 20151117  
기자: 박수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928861  
본문: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장병들(자료사진) <br/>“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br/> <br/>지난 7월 중순 개봉 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의 명대사 중 하나다.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경성에 잠입한 안옥윤(전지현)에게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이 “<span class='quot0'>그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span>”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br/> <br/>사실 암살을 한다 해서 바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후임 사령관을 보내면 그만이고, 친일파 강인국(이경영)의 빈자리를 메울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암살은 가장 효율적인 독립운동 방식 중 하나였다. <br/> <br/>암살 외에도 일제 치하에서는 외교 활동, 계몽 운동, 군자금 모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있었다. <br/> <br/>그들 덕분에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이 순국선열들이 바라던 이상적인 조국의 모습일까. <br/> <br/>◆순국선열의 날=을사늑약 체결일 <br/> <br/>17일은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br/> <br/>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선택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늑약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였다. <br/>  <br/>8.15 광복 이전까지는 임시정부가 순국선열의 날을 기렸다. 광복 이후부터 6.25 시기까지는 민간단체가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당시 기념식에는 김구, 이승만 등 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br/> <br/>1955~1969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다 1970년부터는 정부 행사 간소화 조치로 인해 공식 행사는 현충일에 포함되어 거행되었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다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br/> <br/>17일 열리는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구한말 의병운동에 참여한 곽한소 선생 등 67명이 새로이 포상을 받는다. 이번에 발굴된 67명을 포함해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은 1만4264명에 달한다. <br/> <br/> 작년 5월29일 중국 시안에 세워진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사진=국가보훈처 <br/> <br/>곽한소 선생은 구한말 애국지사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제자로, 스승이 작성한 항일 격문에 이름을 올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성토하는 글의 초안을 썼다. <br/> <br/>충남·전북 지역에서 의병운동에 투신한 곽 선생은 거듭된 패전에도 군자금을 모아 무기를 사들이고 잔여세력을 규합하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br/> <br/>한편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r/> <br/>◆ 분단된 조국, 분단된 기억 <br/> <br/>영화 ‘암살’에는 김구와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사의 두 거목이 등장한다. <br/> <br/>김구는 누구나 기억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은 영화 개봉 이후에야 재조명을 받았다. <br/> <br/>김원봉은 일제가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할 만큼 일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한 그는 요인 암살 등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선도했다. <br/> <br/>1925년 황푸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을 지도하면서 중국 관내지역 해방운동을 주도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내다 광복 후 귀국했다.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했으나 1958년 11월 숙청됐다. 이 때문에 김원봉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다. <br/> <br/>김원봉의 사례는 분단이 우리의 역사적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측에서도, 북측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이념에 따라 동일한 독립운동이 다르게 기술되는 것은 분단이 남긴 비극일 것이다. <br/> <br/> DMZ를 경계하는 장병들(자료사진) <br/> <br/>비단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다. 수천년 동안 사용해온 우리말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도 이질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의 체격도 급격히 달라지면서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 ‘북한인’과 ‘남한인’이라는 별개의 민족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br/> <br/>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군사적 대치는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포격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 우리 군은 11년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비록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군사적 긴장은 해소됐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br/> <br/>일제시대 순국선열들이 피와 땀을 바쳐 항일운동을 펼친 이유는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광복을 맞이하자는 뜻이었지 분단된 한반도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로 갈라진 기억을 한데 모아 항일운동을 펼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br/> <br/>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7.txt

제목: 난소암 환자 10명중 8명… 3기 이후 말기에 첫 진단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856753  
본문: 난소암 환자 10명 중 8명은 3기 이후 말기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소암 치료를 위해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대한부인종양연구회는 최근 난소암 진단을 받고 국내 주요 5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암 환자의 삶의 질 및 경제적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실시했다. <br/> <br/>그 결과 난소암 환자의 82%가 난소암 말기(진단 병기 3기 이후)에 진단을 받았으며, 난소암 재발 환자(79%)의 평균 재발 횟수도 2.0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012년 기준 61.9%로 여성암 중 가장 낮다. 이는 조기 선별검사 등이 발달된 유방암(91.3%), 자궁경부암(80.3%)과 큰 차이를 보여, 난소암 환자들의 조기치료 기회 상실과 재발에 따른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번 조사에서 난소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느끼는 어려운 점도 파악됐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발의 두려움(85%)을 들었으며, 항암제의 부작용과 치료비용에 대한 불만족(44%)도 높게 나타났다. 난소암 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치료 접근(63%), 건강보험 지원(3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항암제 대안과 보장성 확대가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혔다. <br/> <br/>김병기 연구회 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조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재발이 잦은 난소암의 현실을 확인했으나 우리나라 치료환경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난소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항암제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난소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로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연구회는 12일 추계심포지엄에서 ‘부인암 진료 가이드라인’ 3차 개정판 제정 참여 의사를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8.txt

제목: 일반인 10명 중 8명은‘진행암'과‘말기암’의미 구분 못해  
날짜: 201511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524072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 <br/>일반인 10명 중 8명은 ‘진행암 (advanced cancer)’과 ‘말기암 (terminal cancer)’의 용어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 용어는 암의 진행 상태를 의미하는데, ‘진행암’은 재발이나 전이가 되었어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로 생존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말기암’은 치료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생존 기간의 연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개 6개월 이내의 기대여명을 가진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상혁, 신동욱 교수와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 연구팀은 2012년 일반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br/> <br/> 연구팀은 가상의 ‘진행암’ 환자 김00씨(여성)의 사례를 응답자에게 설명했다. <br/> <br/> <김 씨는 4년 전 유방암으로 오른쪽 유방 전체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1년 전 폐에 전이됐고, 항암제 치료를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다시 암이 자라난 상황이다. 의사는 수술이나 완치는 가능하지 않고, 다른 항암제 주사를 통해 암을 약간 줄이면 생명을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br/> <br/> 이런 김 씨의 상황에 적절한 암 진행 상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김 씨를 ‘진행암’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은 20.6%에 불과했다. 74.5%는 ‘말기암’이라고 응답했으며, 0.7%는 ‘조기암’, 4.4%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br/> <br/> 일반인들 중에 누군가는 암환자나 암환자의 보호자가 되어 암 치료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진행암’과 ‘말기암’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r/> <br/>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중에 암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암에 대한 사전 지식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암의 진행 상태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br/> <br/> 김상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일반인들이 치료 목표가 전혀 다른 ‘진행암’과 ‘말기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span>” 며 “<span class='quot0'>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거꾸로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span>” 고 말했다. <br/> <br/> 신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1'>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까운 지인 중에 암환자가 있더라도 대부분이 암의 진행 상태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진행암’과 ‘말기암’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암의 진행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 라고 말했다. <br/> <br/> 박종혁 교수는 “<span class='quot2'>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기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번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 ‘대한암학회’지(誌)에 온라인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79.txt

제목: 짧은 수술시간 내 암 제거, 출혈 잡는 신장암 복강경 新 수술법 선봬  
날짜: 20151116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531071  
본문: <(좌측부터)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홍성후, 김강섭 교수> <br/>기존의 복강경 부분 신장 절제술에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 고안한 수술법인 ‘클립을 이용한 연속봉합술’이 수술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복강경 부분 신장 절제술시 출혈을 멈추는 작업 시간인 온허혈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 후 신장기능의 감소가 더 크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 수술법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이번 봉합술이 우리나라 26,000여명 신장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홍성후(교신저자) • 김강섭 교수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로 봉합한 신장암 복강경 수술(interrupted knot-tying suture renorrhaphy)환자 28명과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클립으로 봉합한 신장암 복강경 수술(running clip rehorraphy) 환자 51명을 비교 조사한 결과, 클립으로 봉합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22분, 온허혈시간(WIT;warm ischemia time)은 11분 단축되었다. <br/> <br/> 기존의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70.0분, 온허혈시간은 32.3분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48.7분, 온허혈시간은 21.5분이다. <br/> <br/> 최근 신장암 환자의 수술 시 신장 전체를 절제하기 보다는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부분절제술이 보편화 되고는 있으나,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조차도 짧은 온허혈 시간동안 암을 제거하고 출혈을 완벽하게 잡아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br/> <br/> 허혈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급성신부전 발병 위험 또는 신기능 저하 위험이 5~6% 높아진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신장은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산소와 영양분도 줄어 세포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클립 봉합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수술법에 홍 교수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 고안한 수술법이다. 기존의 방법은 복강경수술기구를 이용해 암덩어리를 잘라낸 뒤 절제면을 봉합 후 3번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온허혈 시간이 길었지만, 새로운 봉합술은 30㎝ 정도의 긴 실로 한꺼번에 봉합한 상태에서 차례차례 실을 하나씩 잡아당겨서 클립으로 고정시켜 온허혈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br/> <br/> 클립을 끼워 실이 한꺼번에 풀릴 위험성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되어 획기적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강경에 익숙하지 않은 비뇨기과 의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으로 결국 환자의 신장기능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br/> <br/> 홍성후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부분 신장 절제술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암덩어리를 절제한 다음 봉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신장기능이 확 나빠져, 비뇨기과 의사들끼리 얘기하기를 ‘시한폭탄을 안고 수술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는 수술인데, 새로운 클립 봉합술이 수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이번 연구로 증명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 한편 이번연구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인 ‘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1월호에 게재되었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0.txt

제목: 난소암 환자 10명중 8명… 3기 이후 말기에 첫 진단  
날짜: 2015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802342  
본문: 난소암 환자 10명 중 8명은 3기 이후 말기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소암 치료를 위해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대한부인종양연구회는 최근 난소암 진단을 받고 국내 주요 5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암 환자의 삶의 질 및 경제적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실시했다. <br/> <br/>그 결과 난소암 환자의 82%가 난소암 말기(진단 병기 3기 이후)에 진단을 받았으며, 난소암 재발 환자(79%)의 평균 재발 횟수도 2.0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012년 기준 61.9%로 여성암 중 가장 낮다. 이는 조기 선별검사 등이 발달된 유방암(91.3%), 자궁경부암(80.3%)과 큰 차이를 보여, 난소암 환자들의 조기치료 기회 상실과 재발에 따른 고충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번 조사에서 난소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느끼는 어려운 점도 파악됐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발의 두려움(85%)을 들었으며, 항암제의 부작용과 치료비용에 대한 불만족(44%)도 높게 나타났다. 난소암 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 및 치료 접근(63%), 건강보험 지원(3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항암제 대안과 보장성 확대가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혔다. <br/> <br/>김병기 연구회 회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조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재발이 잦은 난소암의 현실을 확인했으나 우리나라 치료환경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난소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항암제 치료 옵션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난소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로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연구회는 12일 추계심포지엄에서 ‘부인암 진료 가이드라인’ 3차 개정판 제정 참여 의사를 밝혔다. <br/> <br/>김희원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1.txt

제목: 故김자옥 1주기… 꽃보다 고왔던 '우리의 공주님'  
날짜: 20151116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608886  
본문: 탤런트 고(故) 김자옥의 1주기를 맞아 온라인과 SNS상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br/> <br/>김자옥은 지난해 11월16일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뒤로 한 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br/> <br/>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도 연기 열정을 거두지 않았던 그는 폐 등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되면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br/> <br/>김자옥은 배화여중 재학 당시 TBC 동양방송 드라마 '우리집 5남매'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건 만 19세였던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발탁된 후부터였다. 이후 40여 년간 영화와 드라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br/> <br/>신인배우 시절 '수선화', '영아의 고백', '지붕위의 남자'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그는 1975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수선화'에 출연해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을 거머쥐었다. 다음해에는 변장호 감독의 영화 '보통여자' 주연을 맡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br/> <br/>40대 중반이던 1996년에는 코믹 음반 '공주는 외로워'를 발매해 배우뿐 아니라 가수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br/> <br/>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김자옥은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하는 등 일을 멈추지 않았다. 회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감탄과 찬사를 자아냈던 '천생 여자'였다. <br/> <br/>한편 고인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은 지난달 29일 "생전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자옥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인 "사랑해요. 수고 많았어요. 아빠! 편히 자요"를 공개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2.txt

제목: 심한 속 쓰림과 복통, 위염일까? 위궤양일까?  
날짜: 20151116  
기자: 임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608016  
본문:   <br/> <br/>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질환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릴 때 흔히들 ‘위염’과 ‘위궤양’을 의심하게 되는데, 두 질환은 건강검진을 받으면 한 번쯤 들었을 봤을 대중적인 위장 질환에 속한다. <br/> <br/>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순 위염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주, 금연,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급성 위염은 명치 통증,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4~5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위궤양과 비슷해 자칫 오인할 수도 있다. <br/> <br/> 소화기내시경센터 복진현 원장은 “<span class='quot0'>위장 점막은 감각신경이 발달돼 있지 않아 심한 염증이 생겨도 직접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염과 위궤양은 소화불량, 명치 통증, 구토 등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위염을 방치하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위궤양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위내시경 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해 두 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치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위 벽은 다섯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위점막층’ 이다. 위점막층은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점막층이 손상돼 염증이 생겨 위산이 닿으면 아프거나 쓰린 증상이 ‘위염’ 이다. 위궤양은 위의 두 번째 층인 ‘점막하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점막에 약 5mm 이상 패인듯한 형태의 상처가 생기는 질환이다. 쉽게 말해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이 될 수 있다. <br/> <br/> 보통 위내시경 검사 결과 단순히 위 점막이 붉을 경우에는 ‘위염’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급성 위염의 경우 위 내부가 자극돼 부어오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과 달리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 일시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일 피할 경우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도 잘 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위궤양은 가장 큰 특징은 타는 듯한 상복부 통증이 있고 공복 때보다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더욱 심해지나는 것이다. 체중 감소,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진통제나, 소염제 등의 약물이 위장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자극이 발생돼 이상 증상 없이 출혈, 천공, 협착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 <br/> <br/> 경미한 위염이나 양성위궤양이 암으로 진행되지 않으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이 필요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흡연, 음주, 카페인 등 자극적인 음식은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금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br/> <br/> 특히 증상이 악화돼 출혈 합병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항혈전제, 혈전용해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고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약물 복용도 피해야 한다. <br/> <br/> 복 원장은 “<span class='quot1'>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들은 환부 상태를 직접 보고 확인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고 치료 후에도 관리가 소홀하면 쉽게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위는 소화작용뿐만 아니라 위산을 이용한 살균작용, 펩신을 통한 단백질 분해작용을 해주는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장기인만큼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헬스팀 임한희 기자 newyork29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3.txt

제목: [세계식문화 연구가 양향자의 간편 레시피] 아삭 식감, 고소한 맛 '파프리카 두부 치즈구이'  
날짜: 20151116  
기자: 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556738  
본문: 파프리카는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수분 함량이 많은 채소로 비타민A와 C,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기미와 주근깨 등을 예방한다. 파프리카는 피망에 비해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뿐만 아니라 단맛이 있고 매운맛이 적어 샐러드에도 즐겨 사용되며 기름에 볶아서 먹을 경우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 <br/> <br/>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레몬의 2배 토마토의 5배에 달한다. 100g 정도의 파프리카에 성인 1일 필요량의 6.8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파프리카 효능은 색깔별로 차이가 있는데,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암과 관상동맥증을 예방할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촉진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성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br/> <br/>노란색 파프리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능이 있으며 파라진이라는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다. 녹색 파프리카는 다른 색상의 파프리카보다 열량이 적고 철분과 유기질이 풍부해 빈혈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br/> <br/> 사진=세계음식문화연구원 제공재료 ▲두부 한 모 ▲옥수수 알 2T ▲양파 1/4개 ▲당근 1/5개 ▲파프리카 1/4개 ▲청피망 1/4개 ▲마요네즈 1T ▲후춧가루 조금 ▲레몬즙 조금 ▲피자치즈 약간 ▲버터 1/2T <br/> <br/>만드는 법 <br/> <br/>1. 양파, 당근, 피망, 파프리카를 잘게 다지고 옥수수 알은 물기를 빼고 준비한다. <br/>2. 두부는 4cm 정육면체로 썰어 속을 파낸 후, 소금을 뿌려 물기를 뺀다. <br/>3. 팬에 버터를 약간 두르고 다진 야채를 넣고 볶다가 마요네즈 1큰술, 레몬즙 조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한다. <br/>4. 볶은 야채를 잠깐 식혀 피자치즈를 넣어 골고루 섞은 뒤, 속 재료를 두부 속에 채워 넣는다. <br/>5.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두부를 넣고 15~20분정도 구워내면 완성이다. <br/> <br/>< (사)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4.txt

제목: 서울대병원,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뷰레이' 국내 첫 도입  
날짜: 20151116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540155  
본문: 뷰레이 치료 <br/>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뷰레이(ViewRay)'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에서 네 번째며, 미국 외 국가에서는 첫 번째다. <br/> <br/>'뷰레이'는 자기공명영상(MRI)과 방사선치료시스템이 융합된 실시간 자기공명 유도 방사선 치료기다. 현재 MRI와 방사선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치료기는 '뷰레이'가 유일하다. <br/> <br/>기존의 방사선 치료기는 CT나 X-ray 영상으로 종양의 위치를 파악한 후, 방사선을 조사한다. 치료 중 환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호흡하면서 종양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 변화까지 반영하여, 치료 범위를 종양 보다 넓게 잡는다. 즉 종양 주위의 정상 조직은 방사선 피폭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치료기가 '뷰레이'다. <br/> <br/>'뷰레이'는 MRI 영상으로 종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방사선을 조사한다. 예컨대 폐암과 간암 등은 환자의 호흡에 따라 암세포의 위치가 크게 바뀐다. 뷰레이는 이런 움직임에 맞춰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조사한다. 기존 방사선치료의 문제점인 정상조직의 방사선 피폭을 해결한 것이다. <br/> <br/>또 MRI 영상으로 암의 위치뿐 아니라 크기 변화도 매번 확인해 치료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사선치료가 가능하다. <br/> <br/>'뷰레이'의 또 다른 장점은 인체에 무해한 MRI 영상을 사용하는 점이다. 방사선 치료는 한 번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 암 종류나 상태에 따라 수십 번 치료 할 수 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기는 반복된 치료로 인한  X선 노출로 방사선 피폭의 부작용이 우려됐으나, 뷰레이의 MRI 영상은 인체에 무해한 자기장을 사용한다. <br/> <br/>뷰레이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과 미국의 3개 병원(Barnes Jewish Hospital, UCLA Medical Center Hospital, University of Wisconsin Carbone Cancer Center)에서만 가동 중이다. <br/> <br/> 왼쪽부터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 김태유 암병원장, 김희중 진료부원장, 오병희 병원장, 김일한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권준수 교육인재개발실장, 우홍균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br/>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최근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뷰레이를 성공적으로 가동했으며 가동 범위와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br/> <br/>우홍균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암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부위에만 방사선을 조사하는 '영상유도방사선치료'란 용어는 기존에도 사용됐으나 이는 실시간 확인이 아닌 간접적인 분석에 의존했다. 이번 뷰레이의 도입으로 국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영상유도방사선치료가 가능, 암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r/> <br/>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이번 뷰레이의 도입으로 전세계 방사선치료를 선도하고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5.txt

제목: 50년간 말기암 환자 임종 지킨 ‘사랑의 의술’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409062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27회 아산상 대상에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인 강릉 갈바리의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천주교 수녀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갈바리의원은 1965년 3월15일 개원한 이래 50년 동안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켰다. ‘갈바리(갈보리)’는 예루살렘 북쪽 언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br/> <br/> 오진복 갈바리의원 원장수녀(뒷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갈바리의원 관계자들이 제27회 아산상 대상 수상이 결정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r/>아산사회복지재단 제공갈바리의원 개원 당시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호스피스 활동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인, 무연고 환자를 위해 인근 여관을 빌려 인술을 펼치기도 했다. 갈바리의원은 50년간 호스피스 표준을 세우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br/> <br/>아산상 의료봉사상은 23년 동안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제자 2000명을 길러내고 병원을 설립한 우간다 마케레레대 의과대학 유덕종 명예교수에게, 사회봉사상은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한국생명의전화에게 각각 돌아갔다. 아산상 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에 3억원을 수여하는 등 7개 부문 12명의 수상자에게 총 8억4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산상은 재단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6.txt

제목: 건강검진비 年 최대 18조5000억 달해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349793  
본문: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건강검진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적게는 8조원에서 많게는 18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br/> <br/>15일 보건의료분야 연구단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검진 전체 지출 규모는 8조∼18조5000억원이나 된다. 이는 정부가 1조924억원, 개인이 1조2448억원, 기업·단체가 1조6814억원을 각각 지출한 내용에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통보받고 정밀검사나 치료를 위해 추가로 병·의원을 이용하며 쓴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이상소견을 받은 검진자의 추가 의료이용 비율을 40∼70로 가정할 경우 적게는 4조6000억원에서 많게는 14조6000억원이 건강검진 관련 의료비로 쓰였다. <br/> <br/>건강검진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1946년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을 시작으로 국민 전체 건강검진, 암검진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정한 건강검진을 모두 받으면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는 가정하에 30회가 넘는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한 연구자는 “<span class='quot0'>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면서 건강검진을 상품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과잉진단으로 인한 환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건강이 영리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br/> <br/>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7.txt

제목: 27회 아산상 대상에 국내 첫 호스피스병원 강릉 갈바리의원  
날짜: 20151115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2302903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27회 아산상 대상에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인 강릉 갈바리의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천주교 수녀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인 갈바리의원은 1965년 3월 15일 개원한 이래 50년 동안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켰다. ‘갈바리’는 예루살렘 북쪽 언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br/> <br/>갈바리의원 개원 당시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호스피스 활동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 무연고 환자를 위해 인근 여관을 빌려 인술을 펼치기도 했다. 갈바리의원은 50년간 호스피스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br/> <br/>아산상 의료봉사상은 23년 동안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제자 2000명을 길러내고 병원을 설립한 우간다 마케레레대 의과대학 유덕종 명예교수에게, 사회봉사상은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한국생명의전화에 각각 돌아갔다. <br/> <br/>아산상 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아산상은 재단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아산재단은 “<span class='quot0'>올해는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인 만큼 재단 설립정신에 맞게 생명존중과 나눔정신, 사회통합을 실천한 분들을 골라 시상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8.txt

제목: 삼성전자·LG전자·LS산전은 ‘혁신 리더’  
날짜: 2015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506891  
본문: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이 세계 최대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의 ‘2015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시작된 100대 혁신기업 발표에 모두 5년 연속 선정돼 아시아 혁신 리더로서 입지를 과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자동차 분야 혁신 경쟁에서 1위 도요타를 바짝 추격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 연세대는 아시아지역 암 연구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2일 톰슨 로이터가 공개한 2015년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연구기관)에 우리나라는 총 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순위에 포함됐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탈락했다. 혁신기업 다수 보유 국가는 일본 40곳, 미국 35곳, 프랑스 10곳, 독일 4곳 순이다. <br/> <br/>세계 100대 혁신기업 순위는 글로벌 기업의 종합적인 특허 출원 규모와 특허 승인 성공률, 특허-논문 등의 영향력을 분석해 톰슨 로이터가 매년 선정, 발표한다. 톰슨 로이터는 특허, 지식재산 분석관리에만 4000여명이 근무하며 과학, 기술연구정보 분야에선 독보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br/> <br/>톰슨 로이터가 지난해 전 세계 특허 출원 등 연구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륙별로 아시아에선 총 44개 혁신기업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은 36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는 46개 혁신기업이 선정됐던 2011년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양상이다. 유럽계 기업 수는 2014년 18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어났다. <br/> <br/>영국과 중국은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하나의 혁신기업도 내지 못했다. 영국은 국내총생산의 단 1.63%에 불과한 낮은 국내 총 연구개발 지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3.47%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화웨이가 처음으로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순위 진입에 실패했다. 톰슨 로이터는 “<span class='quot0'>중국은 기록적인 숫자의 국내 특허 출원을 통해 자국 지적 재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특허 출원에 더 노력해야 한다</span>”고 주문했다. <br/> <br/>주요 혁신기업의 생존경쟁과 관련해 톰슨 로이터는 “<span class='quot0'>각 기업들이 점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었던 업계가 이제는 광범위한 생존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span>”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는 2011년 제약부문에서 작물과학부문으로 영역을 넓힌 바이엘과 IT를 필두로 바이오 등 산업 전 영역에서 방대한 특허 출원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집중 거론됐다. <br/> <br/>톰슨 로이터는 100대 혁신기업 선정과 별도로 올해 주요 분야 혁신 순위를 매겼는데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발명 건수 3214건으로 도요타(4338건)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또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세대는 아시아 암치료 5대 혁신 연구기관에 포함됐으며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계, LG전자는 가전업계 대표적 혁신기업으로 꼽혔다. <br/> <br/>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89.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2015년 신입간호사 기본간호술기대회 성료  
날짜: 20151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429467  
본문:   <br/> <br/> <br/>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본간호술기대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번 신입간호사 기본간호술기대회는 이제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업무 수행의 차이를 줄이고 기본 간호 술기를 향상시키고 기본간호의 표준을 정하고자 마련됐으며 2015년도에 입사한 신입간호사 112명이 참여했다. <br/> <br/>평가항목으로는 투약(정맥주사), 수혈간호, 배양검사(혈액, 소변), 응급상황 시 준비사항 등 6개 분야의 기본 간호술기부분에 대해 평가했다. <br/> <br/>한편 인천성모병원 간호부는 최근 병원간호사회에서 주관한 Best Nursing 경진대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호흡부전 간호'에 대한 주제 발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br/> <br/>또한 간호부 자원봉사단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스텔라의 집'을 찾아 매주 1~2회씩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0.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췌장암 극복 위한 심포지엄 성황  
날짜: 20151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306651  
본문: 서울아산병원 췌장암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가 새로운 췌장암 치료법 연구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br/>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렸다. <br/> <br/>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와 보건복지부 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은 지난 11일 병원 소강당에서 세계 유수 석학들과 국내 췌장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췌장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기초·임상 연구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암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등을 이용한 새로운 췌장암 치료법 개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br/> <br/>또한 병원과 산·학·연 기관 간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췌장암 진단 바이오마커,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중개 및 임상연구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췌장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췌장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오갔다. <br/> <br/>나아가 오는 13일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열릴 국내 최초의 췌장암의 날 행사에 대한 사전 강의도 열렸으며, 동시간대 함께 개최된 췌장암 건강강좌에도 200여 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췌장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br/> <br/>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췌장암타겟질환 극복사업단장)는 "췌장암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환자의 20% 정도만이 수술이 가능하고 항암치료의 효과도 미미해 췌장암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r/> <br/>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췌장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췌장암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r/> <br/>한편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김송철 교수팀은 현재까지 복강경 췌담도 수술을 세계 최대 수준인 1000여 건 이상 시행하는 등 췌담도암 수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1.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51112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255861  
본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br/> <br/>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r/> <br/>강좌는 '투석, 꼭 해야할까요? 투석과 이식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신장내과 정병하 교수)와 '투석·이식환자의 식이'(김희영 영양사), '투석환자를 위한 복지혜택이 있나요?'(이준선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br/> <br/>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2.txt

제목: 인제대?한기호연구팀,?몸속?암세포 실시간?측정기술?개발  
날짜: 20151111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1113293  
본문: 인제대 연구팀이 현재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br/> <br/>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사진) 교수 연구팀은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br/> <br/>연구팀은 혈액 속에 암세포와 잘 결합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물질인 그래핀(graphene) 입자를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표면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br/> <br/>그래핀이 붙어 정상 혈액세포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암세포가 전극 사이를 지날 경우 전기저항이 작은 암세포를 94%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이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한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상용화된 혈중암세포분리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100만원 정도의 비싼 진단비용과 면역형광염색기술을 이용한 혈중암세포 측정이 번거로운 탓에 국내 도입이 힘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병원과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한 교수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국내·외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3.txt

제목: [칼럼] 남성 건강, 콩팥이 핵심이다  
날짜: 2015111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956659  
본문:   <br/> <br/> <br/>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전립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허(腎虛)로 보고 있다. 신허란 신장(콩팥)의 정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주로 신음허, 신양허, 신기허로 나뉜다. <br/> <br/>신장이 허약해지면 전립선 질환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의 질환이 발생하고 성기능 약화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 건망증이 나타나며 손발이 붓게 되고 정력과 체력이 저하되며, 효소와 호르몬의 분비가 균일하지 않아 탈모 와 골다공증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남성 갱년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br/> <br/>◆ 작지만 위대한 콩팥 <br/> <br/>생명의 정수기라 불리는 신장은 두개를 다 합쳐도 300g 남짓 작은 장기다. 작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신장을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며 심지어 하나쯤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 콩팥은 소변만 걸러주는 장기로 오해 하고 있다. 인간의 오장육부 장기 중에 폐와 신장만 2개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br/> <br/>우리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있고 40분마다 1회씩 하루 40번 약 200리터의 혈액과 수분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 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몸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신체 내 수분 조절과 뼈와 칼슘의 신진대사, 적혈구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정액과 심장, 뇌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다. <br/> <br/>신장은 심장과 같이 한번 망가지면 장기이식이 아니면 생명유지가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로 신장에 기운이 빠져 신허 상태가 되면 혈액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br/> <br/>한의학으로 보면 우리 몸의 불의 기운을 대표하는 심장을 두고 몸의 엔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심장을 제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신장이다. 그래서 심장이 뜨거워지면 신장이 식혀주고 또 신장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불의 기운이 내려와 신장을 따듯하게 하면서 심장과 신장은 서로 도와주며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 <br/> <br/>심장과 신장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 <br/>◆ 소리 없이 찾아오는 콩팥 질환 <br/> <br/>신장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 신장은 제 기능이 50%이상 망가져야 이상 징후를 나타낸다. 신장이 나빠져 병원에 찾는 사람은 전체 신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의 2.8%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7.2%의 환자는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셈이다. <br/> <br/>신장 이상 징후 중에 하나가 배뇨장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뇨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노화로 치부해 그대로 방치하여 신장과 전립선 질환을 더 키우고 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5년 생존률은 40%로 암환자의 5년 생존률 46%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br/> <br/>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신장은 인체의 물을 매일 맑게 해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청춘의 샘이다. 신허가 진행 될수록 효소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전립선 질환이 생기며 정액량이 줄어들게 되며 성기능 장애로 이어진다. <br/> <br/>◆ 콩팥이 중년 건강을 좌우한다 <br/> <br/>1970~80년대의 중년과 2015년을 살아가는 중년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기대 수명 100세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년들은 살아온 시간을 한번 더 살아가야 한다. <br/> <br/>하지만 100세를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의미 있는 시대가 되었다. <br/> <br/>특히 신장이 건강해야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인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완전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 <br/> <br/>신체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주기적인 운동으로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등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노력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br/> <br/>금산미학한의원 전립선 연구소장 김지혁 한의학 박사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4.txt

제목: 프란치스코 교황 "교회는 돈과 권력에 집착 말아야"  
날짜: 20151111  
기자: 송민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829735  
본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일(현지시간) 사제들을 향해 “돈과 권력을 멀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티칸 검찰이 교황청 관리 집단(쿠리아)의 뇌물·부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교황은 또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한 기득권층의 집단반발을 겨냥해 “<span class='quot0'>작금의 문제를 보수주의와 원리주의로 모면하려해서는 안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5회 전국 주교 컨퍼런스에서 “<span class='quot1'>교회는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기꺼이 멍들고, 상처받으며 더러워져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탈리아 교회는 권력과 이미지(명성) 그리고 돈 등 모든 가식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비록 권력이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유용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권력에 집착해선 안된다</span>”고 말했다.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span class='quot1'>조금 가난한 것이 사회적 통합에 중요하고, 이런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여러 사제의 기쁨이 될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교회가 버려진 이, 잊혀진 이, 불완전한 이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 갔으면 좋겠다”며 “나는 이들을 이해하고 함께 걷고 보살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얼굴을 한 행복한 교회를 갈망한다”고 덧붙였다. <br/> <br/>프란치스코 교황은 보다 사회에 유연하고 열려 있는 교회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보수주의와 원리주의는 답이 아니다”며 “구닥다리 규율과 의례를 복원하는 건 이제 더이상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가톨릭 교리는 (작금의 교회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의심, 혐의에 답할 수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니다”며 “가톨릭은 절대적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br/> <br/>교황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전 세계 고위급 주교들이 이혼이 만연한 현대 가족의 변화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것을 염두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해석했다. 지난달 24일 막을 내린 2015년 가톨릭 세계주교회의(시노드) 총회는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도가 사제의 판단에 따라 영성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됐다. <br/> <br/>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렌체 인근 도시 프라토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2013년 프라토에서는 의류공장 화재로 7명이 숨졌다. 교황은 “<span class='quot0'>노동력 착취와 비인간적 삶의 조건이 빚어낸 비극</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매일 매일의 삶은 우리가 부정부패라는 ‘암’과 불법이라는 ‘독’을 종식하도록 투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5.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제 3회 앎의 날·암 극복 축하파티 성료  
날짜: 2015111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816776  
본문:   <br/> <br/> <br/>분당서울대병원은 제 3회 앎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앎의 날' 행사 및 암을 극복한 환자들을 위한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앎의 날'은 '암'과 '알다'의 의미를 가진 '앎'이라는 합성어로,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분당서울대병원의 특별한 행사다. <br/> <br/>이번 제 3회 앎의 날 행사에는 이해인 수녀와 가수 조덕배씨가 함께해 암 환우들을 위로하고 암 완치 후 10년이 지난 생존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등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br/> <br/>특히 이해인 수녀는 시를 통해 마음을 울리고, 또 치유하는 감동을 전해 많은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가수 조덕배씨는 여전한 인기로 환자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br/> <br/>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원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맞이하고,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하며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6.txt

제목: 서울의대 국민건강지식센터, 유방암 경험 환자 위한 운동프로그램 연구  
날짜: 20151111  
기자: 김봉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811522  
본문:   <br/> <br/> <br/>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지난 2일부터 치료종류 유방암 환자를 위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의 사전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이 연구는 치료종료 유방암 경험자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 유방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br/> <br/>연구에는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소장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방센터의 노동영 교수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송욱교수가 각각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br/> <br/>연구팀은 사전테스트에 문헌조사를 통한 유방암 환자의 치료주기 및 치료방법, 신체활동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운동참여 효과를 비교·분석해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기간, 효과 등을 조사했다. <br/> <br/>이후 수술이나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가 종료 된지 2개월에서 5년 이내의 20세 이상 암경험자 15명을 모집해 4주간 주 2회, 50분간 진행하는 운동프로그램을 지난 2일 부터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는 매주 진행되는 운동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운동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br/> <br/>이렇게 개발된 1차 운동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동영상 형태로 개발돼 암 환자들이 운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병·의료원 등에 배포된다. 이 자료는 향후 암 경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 상태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운동은 각종 암의 발병을 20~30%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암의 재발을 40~60%까지 감소시킨다. 더욱이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후의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34%, 전반적인 사망률을 41% 감소시키며 재발률을 24%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br/> <br/>하지만 2013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스포츠의학협회(ACSM)에서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해 권고하는 중강도 신체활동 150분 이상을 실천하는 우리나라 암 환자는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암환자들의 신체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br/> <br/>때문에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유방암을 첫 단계로 하여 이후 암 종류별로 근거에 기반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거기반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 예정 단계에 있는 암 종은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는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의 암종, 치료과정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및 실태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외과, 종양내과, 스포츠레저학과, 간호학과, IT개발 등 다양한 학과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국민건강지식센터 소장 노동영 교수는 "국민건강지식센터의 근거기반 운동프로그램은 암 치료 종료 후의 암 경험자들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체력 향상을 통한 재발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대한암협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된다. <br/> <br/>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는 '질병예방을 통한 건강사회의 구현'이라는 핵심 목표아래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건강·의학·운동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외사업을 주관하며 과학적 근거중심의 건강 및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r/> <br/>헬스팀 김봉수 기자 bsk@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7.txt

제목: 내 몸 안에 암세포,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로 조기 진단 가능  
날짜: 20151110  
기자: 이재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356851  
본문: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국내 연구팀이 현재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br/> <br/>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이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br/> <br/> 연구팀은 혈액 속에 암세포와 잘 결합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물질인 그래핀(graphene) 입자를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표면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br/> <br/> 그래핀이 붙어 정상 혈액세포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암세포가 전극 사이를 지날 경우 전기저항이 작은 암세포를 94%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br/> <br/> <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팀의 혈중암세포 분리 및 측정 바이오칩 개념도>이번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리된 혈중암세포를 이용해 암 유전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자 수준에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 <br/> 한기호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혈중암세포분리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100만 원 가량의 값비싼 진단비용과 면역형광염색기술을 이용한 혈중암세포 측정이 번거로운 탓에 국내 도입이 힘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병원과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r/> <br/> 한 교수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국내·외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br/> <br/> 이번 연구는 국제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 9월호에 게재됐다.  <br/> <br/>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8.txt

제목: '성인용 인형'과 결혼한 中 남성…그에게 어떤 사연이?  
날짜: 201511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529786  
본문:   <br/> <br/> <br/>죽기 전 꼭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를 과부로 만들 수 없었다. 그건 큰 죄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인형과 결혼하는 것이다. <br/> <br/>중국의 한 20대 남성이 ‘성인용 인형’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누군가는 남성의 정신세계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다소 뭉클한 사연이 있다. <br/> <br/>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28세 중국인 남성이 성인용 인형과 최근 결혼했다. <br/> <br/>베이징에 사는 남성은 ‘말기 암 환자’다. 다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내를 홀로 세상에 남기고 싶지 않았다. 남성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었다. 그래서 성인용 인형을 아내로 선택했다. <br/> <br/> <br/> <br/>남성은 평생 소원을 달랑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다. 무도장에서 정답게 춤추거나 어깨를 감싸고 그윽하게 쳐다보는 모습, 화장대 앞에서 꽃단장 중인 인형에게 눈웃음 짓는 남성은 실제 결혼을 준비 중인 듯한 느낌이다. <br/> <br/>특히 신부 손등에 입 맞추는 남성은 보는 이를 울컥하게 한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드러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절박한 상황 속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만 하는 남성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 <br/> <br/>   <br/> <br/> <br/> <br/>중국 CCTV는 “몇몇 네티즌들은 남성을 비난한다”며 “마케팅을 위해 짜인 각본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br/> <br/>한편 남성의 웨딩촬영을 도왔던 사진작가는 “<span class='quot0'>대부분 사람들이 그의 결혼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개인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1-999.txt

제목: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기름, 암 유발한다고?”  
날짜: 2015111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60108030416679  
본문: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마틴 그루트벨트(Grootvel) 드몽포르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br/> <br/> 그루트벨트 교수는 "해바라기씨유나 옥수수 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고온 상태에서 가열하면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br/> <br/> 이들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나온다. <br/> <br/> 이 알데히드는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동일한 강한 세포 독성 물질로 암과 심장병, 치매 등을 유발한다. <br/> <br/> 반면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등으로 조리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김현주 기자